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제5권

리더 일꾼의 직책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목 차

리더 일꾼의 직책(1) 1
왜 거짓 리더를 분별해야 하는가 1
리더 일꾼의 15 가지 직책 개요 2
제 1 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5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자질과 능력이 없다 5
거짓 리더는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없다 11
제 2 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1) 14
거짓 리더는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 14
거짓 리더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18
리더 일꾼의 직책(2) 22
제 2 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2) 24
생명 진입의 여덟 가지 어려움 24
1. 본분 이행 측면의 어려움 24
2.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측면의 문제 25
3. 인간관계 측면의 어려움 26
4. 사람의 정 측면의 문제 26
5.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측면의 문제 27
6. 자신을 인식하는 측면의 어려움 28
7.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 29
8.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다양한 모습 30
거짓 리더의 사역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 32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1) 40
거짓 리더는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권면할 줄만 안다 40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 44
리더 일꾼의 직책(3) 52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2) 52

거짓 리더는 사역 원칙을 교제하지 못한다 53
제 4 조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각의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 57
리더 일꾼은 반드시 각 사역의 책임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57
각 사역의 책임자를 선발하는 기준 59
각 사역의 책임자를 대하는 거짓 리더의 모습 59
1.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60
2.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69
3. 거짓 리더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74
4.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위배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78
5. 거짓 리더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80
리더 일꾼의 직책(4) 83
제 5 조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며, 사역 중에 나타나는 편차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83
거짓 리더는 편안함을 누리고, 현장에 내려가 사역을 알아보지 않는다 83
거짓 리더는 사역을 점검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95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사역의 진도에 지장을 준다 96
리더 일꾼의 직책(5) 109
제 6 조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다 109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의미 109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각 부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0
1. 리더 일꾼과 각 사역의 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0
2.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업무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2
3. 사무 사역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115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 117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에 대해 지녀야 할 인식과 태도 125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 133
리더 일꾼의 직책(6) 148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1) 149
사람의 인성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쓴다 149
사람의 특기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쓴다 151
몇 가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60
1.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60
2. 유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63
3. 교우(敎友)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66
4. 교체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69
리더 일꾼의 직책(7) 175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2) 175
제 8 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1) 182
리더 일꾼은 반드시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182
리더 일꾼이 사역하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 188
1. 곤혹 188
2. 어려움 190
1) 어려움이란 무엇인가 190
2)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지녀야 할 올바른 관점과 태도 191
3)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실행해야 할 원칙 196
리더 일꾼의 직책(8) 202
제 8 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2) 202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해야 한다 202

1. '제때'의 정의 202
2.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203
제 8 조 직책에 근거하여 몇 가지 부류의 거짓 리더들을 해부하다 204
1. 영적인 체하는 부류의 거짓 리더들 204
2. 자질이 부족한 거짓 리더 217
3. 게으르고 편안함을 즐기는 거짓 리더 224
리더 일꾼의 직책(9) 239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239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1) 242
사역지침의 정의와 구체적인 항목 242
1. 행정 사역 243
2. 인사 관련 사역 244
3. 복음 사역 245
4. 각 업무 사역 248
5. 교회 생활 250
6. 재물 관리 252
7. 정리 사역 253
8. 외부 업무 255
9. 교회 복지 256
10. 응급 대책 257
어떻게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하고 시행할 것인가 259
1. 사역지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259
2.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261
리더 일꾼의 직책(10) 268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2) 268
사역지침 시행을 지도, 감독, 독촉하고, 시행 상황을 검사, 밀착 관리 한다 268
1. 지도 269
2. 감독, 독촉 273
3. 검사, 밀착 관리 276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예시 교제 276
사역지침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 288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검증하는 기준 293
리더 일꾼의 직책(11) 299
제 10 조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 301
적절히 보관한다 302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304
1. 하나님 말씀 서적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304
2. 각종 기구를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305
3.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308
하나님 집의 물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선민들의 책임이다 312
하나님 집 물품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 315
리더 일꾼의 직책(12) 326
제 11 조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전담자를 선정하여 제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하고,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출납 장부를 심의 검열하며, 이로써 흥청망청 낭비하는 상황과 불합리한 지출을 제때 발견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배상 요구를 하는 동시에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악인에 의해 착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327
제물이란 무엇인가 327
제물 보관에 있어 리더 일꾼의 직책 331
1. 제물을 적절히 보관한다 331
2. 장부를 확인한다 333
3. 각종 지출에 대한 밀착 관리, 파악, 검사 및 철저한 점검 336
4. 제물의 행방 및 보관 담당자의 각종 상황을 제때 파악해야 한다 339
거짓 리더가 제물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 342
1. 제물을 공동 재산으로 여긴다 342
2. 제물 지출을 관리하지 않고 따져 보지 않는다 345
3. 합리적인 지출을 제한한다 348
4. 제물을 강제로 차지하고 향유한다 349

리더 일꾼의 직책(13) 354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1) 354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355
1.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난다 357
2.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362
3.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367
4. 편을 가른다 373
리더 일꾼의 직책(14) 378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2) 378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379
5. 지위를 다툰다 379
6.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393
1) 부적절한 남녀 관계 394
2) 동성애 397
3) 부적절한 이익 관계 400
4) 사람 간의 원한 401
리더 일꾼의 직책(15) 408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3) 408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408
7.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 408
1)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몇 가지 모습 410
(1) 서로 허물을 들춘다 410
(2) 서로 폭로하고 공격한다 412
(3) 말싸움을 벌인다 417

(4) 제멋대로 남을 정죄한다 426
2) 항상 남을 공격하는 부류의 인성 특징 430
리더 일꾼의 직책(16) 435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4) 435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435
8. 관념을 퍼뜨린다 435
1) 관념을 퍼뜨리는 모습 435
(1)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퍼뜨린다 435
(2)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관념을 퍼뜨린다 441
2)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445
3) 관념을 해결하는 원칙과 길 450
리더 일꾼의 직책(17) 463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5) 463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463
9.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463
1)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463
2)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의 각종 내적 상태와 모습 466
(1) 교체된 것이 불만스러울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466
(2)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471
(3) 명예, 지위, 이익에 손상이 갈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474
(4) 복받으려는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478
3)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원칙과 길 496
리더 일꾼의 직책(18) 502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6) 502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502
10.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502
1)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모습 502
2)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의 본질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504
3)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종교계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510
4)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하나님 사역을 판단하는 몇 가지 유언비어에 대한 분별 522
5) 유언비어의 폐해 528
6)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처리하는 원칙 532
리더 일꾼의 직책(19) 535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7) 535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535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에 관한 처리 원칙 535
11.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한다 538
1)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모습 538
2) 교회 선거를 조작하는 악인에 대한 처리 원칙 543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에 대한 총정리 552
12. 정치를 논의한다 557
리더 일꾼의 직책(20) 562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8) 562
제 12 조 직책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사역 564
1.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한다 564
2. 악인을 제때 저지 및 제재한다 565
3.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여 하나님 선민이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 567
직책 제 12 조에서 보이는 거짓 리더의 모습을 분석하다 571

1.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해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571
2.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580
3. 거짓 리더는 악인을 폭로하지도, 저지하지도 않는다 591
리더 일꾼의 직책(21) 596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를 구분하는 법 596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구분한다 596
인성을 근거로 구분한다 597
진실로 회개하는지를 근거로 구분한다 598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차이를 정리하다 600
제 13 조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 605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리더 일꾼이 반드시 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역 605
1. 폭로 607
2. 책망과 훈계 609
3. 해부 609
4. 제재 611
5. 감독 611
6. 출교 613
적그리스도가 교란할 때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 615
1.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616
2.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른다 619
3.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623
4.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을 나 몰라라 한다 625
부록 문답 630
리더 일꾼의 직책(22) 634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1) 634
교회란 무엇인가 635

1.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이해 635
2.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에서 하는 사역 637
3. 교회의 정의 642
4. 교회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견해 649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651
1.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근거로 한다 651
1) 관직에 오르려는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 652
2) 이성(異性)을 찾는다 655
3) 재난을 피한다 657
리더 일꾼의 직책(23) 660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2) 660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661
1.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근거로 한다 661
4) 투기하다 661
5) 교회에 얹혀살기 670
6) 피난 674
7) 든든한 백을 찾기 677
8)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 682
리더 일꾼의 직책(24) 687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3) 687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687
1.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근거로 한다 687
9) 교회를 감시하다 690
2. 인성에 근거한다 700
1)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701
2) 잇속 차리기를 좋아한다 707
리더 일꾼의 직책(25) 715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4) 715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715
2. 인성에 근거한다 716

3)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 716
4) 보복하기 좋아한다 725
5) 입조심을 못 한다 736
리더 일꾼의 직책(26) 747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5) 747
리더 일꾼이 교회의 정리 사역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 747
하나님을 믿는 세 부류 사람들의 모습과 결말 750
1. 힘쓰는 부류 750
2. 백성 부류 755
3. 피고용인 부류 759
4. 세 부류의 서로 다른 결말 768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769
2. 인성에 근거한다 769
6)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770
7)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776
리더 일꾼의 직책(27) 781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6) 782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782
2. 인성에 근거한다 782
8)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782
9) 언제든 떠날 수 있다 792
10) 흔들린다 801
리더 일꾼의 직책(28) 812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7) 812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812
2. 인성에 근거한다 812
10) 흔들린다 812
11)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다 816
12)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 826
13) 배경이 복잡하다 833
3. 본분 이행 태도에 근거한다 841

리더 일꾼의 직책(29) 842
제 15 조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각각의 중요한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842
중요한 사역 인원의 범위 842
중요한 사역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845
1. 섬김 가정의 안전 조건 845
2. 거주지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847
3. 리더 일꾼은 어떻게 배치 사역을 하는가 849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854
1. 신앙을 박해하는 국가에서 하나님 선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854
2. 해외 각국 하나님 선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858
1) 신분 등록 858
2) 법률 상식 보급 862
3)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864
3. 안전에 관한 사역을 중시하지 않는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868

리더 일꾼의 직책(1)

왜 거짓 리더를 분별해야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교제를 마쳤으니,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교제해 보겠다. 너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과 행동 방식에 관한 것들을 숱하게 접했으며, 하나님 집에서 각급 거짓 리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은 거짓 리더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겼다. 즉, 대부분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거짓 리더의 몇몇 구체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알고 있든, 얼마나 알고 있든, 아직 충분히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교회에서 선거할 때, 많은 사람이 리더를 선출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선출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기준에 맞는 리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어리석어 분별력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선거 때 거짓 리더만 뽑는다.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이면 바로 그를 뽑는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기준에 맞고 리더를 할 수 있는, 리더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리더의 자질과 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표면적인 열정, 어느 정도의 좋은 행위,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출되고, 반면 진정으로 리더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은 오히려 늘 선출되지 못한다. 나서기 좋아하는 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 업무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늘 온갖 장소에 얼굴을 내밀고, 특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대부분은 이런 사람이 바로 기준에 맞는 리더인 줄 알고, 이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선출되고 나서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상부의 사역지침도 시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비록 매우 열정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가 리더가 된 지 좀 됐는데도 교회의 어떤 사역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며 별다른 진전도 없다. 또 교회에서는 악인의 교란과 권력 찬탈이 수시로 일어나 교회 사역이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하면 벌어지는 결과이다. 거짓 리더를 선출하면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주고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복음 확장 사역이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선출한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다. 네가 진리 원칙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눈이 멀어 사람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거짓 리더를 선출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도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초래한 영향과 파괴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을 분별하고 열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기준에 맞는 리더가 지녀야 하는 모습과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인지, 기준에 맞는 리더의 직책 범위는 과연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것이다.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이 주제는 교회 사역과 관련이 있고, 모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본분의 진척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입후보할 계획이

없고, 리더 일꾼이 될 야심과 욕망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어요. 평범한 신자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이 측면의 진리 원칙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듣더라도 제 생명 진입이나 구원받는 일에 관한 것을 듣겠습니다.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것과 관련된 진리는 제 생명 진입과 무관하니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들을 때 정신을 딴 데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대충 형식만 취하면 그만이고요. 마음에 담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야심이 없어서 리더 선거에 출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관료가 되어 두각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그저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요. 저는 부림 받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처신하면 얼마나 간단한가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마음을 끓이거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으냐? (비록 그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측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모른다면 선거 때 거짓 리더를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모두 지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다른 것이 있느냐? (거짓 리더의 문제는 저희 각자에게도 다 존재하기에 모두 자신에게 대조해 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몰라 거짓 리더에게 미혹되고도 그걸 모른다면, 자기 생명도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런 관점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리더가 되는 것과 세상에서 관료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진리를 더 잘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이는 진리에 닿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민으로서 일어나 거짓 리더를 고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거짓 리더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짓 리더가 권력을 잡고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몇 가지 측면을 말했느냐? (다섯 가지 측면을 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측면은 모두 옳고 매우 정확하다. 방금 내가 언급한 그 부류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 다섯 가지 측면이다. 리더가 되고 싶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선민으로서 리더 일꾼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 집은 너의 집이기도 하며, 리더는 작은 청지기나 마찬가지다. 만약 그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너도 영향을 받고 연루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리더 일꾼의 15 가지 직책 개요

거짓 리더를 분별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는 교회에 이 부류의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리더와 교회 사역이 생겼을 때부터 이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 왔으며, 그들의 자질과 이해 능력, 인품,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수없이 드러났다.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해부하기 전에 먼저 리더 일꾼의 직책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어야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며,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해내지 못하면 거짓 리더에 속한다. 아마 대부분 사람이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데 아직 길이 없고, 근본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며, 어떤 측면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모를 것이다. 오늘은 먼저 리더 일꾼의 직책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교제해 보겠다. 그것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모두가 알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원칙을 깨달은 후에는 리더 일꾼을 선출할 때 과연 어떻게 선거해야 할지, 누구를 뽑아야 적합할지를 정확한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먼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나열해 보겠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 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제 2 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

제 4 조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각의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며, 사역 중에 나타나는 편차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제 6 조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다.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

제 10 조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

제 11 조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전담자를 선정하여 제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하고,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출납 장부를 심의 검열하며, 이로써 흥청망청 낭비하는 상황과 불합리한 지출을 제때 발견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배상 요구를 하는 동시에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악인에 의해 착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

제 13 조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

제 15 조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각각의 중요한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을 총 15 개 조항으로 요약하였으니, 이 15 개 조항에 따라 교제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 15 개 조항 중 각각의 사역을 살펴보자. 제 1 조부터 제 3 조까지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생명 진입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역으로, 중요한 큰 항목 중 하나이다. 리더 일꾼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몇 가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런 자질을 갖춰야 하고, 이런 부담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 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진입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들어오게 하고 실생활에서나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 선민에게 리더 일꾼이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리더 일꾼이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리더 일꾼은 폐물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역조차 하지 못하니, 이런 리더 일꾼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제 4 조와 제 5 조는 교회의 각 사역과 각 사역 책임자에 관한 두 조항이다. 만약 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 교회 사역이 무질서해지거나 악인에게 교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의 성과와 진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제 4 조와 제 5 조 이 두 조항의 사역 또한 기준에 맞는 리더라면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사역이다. 제 6 조와 제 7 조는 각 부류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고, 쓰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사람을 쓰는 원칙은 바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부류의 사람이 인성이 기준에 맞고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즉, 각 부류의 사람이 모두 적합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지 오리를 횃대에 올라가게 하거나 소를 나무에 올라가게 하듯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 사역을 하는 데에 적합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밖에, 기술적인 업무 측면과 관련된 사역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능숙하기만 하지 아직 그 측면의 사역을 해 본 적이 없으며 관련 원칙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 그가 하나님 집의 발탁 및 양성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회를 주고 발탁하고 양성해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 집의 각종 사역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교회의 각종 사역에서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는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과 사람을 쓰는 것, 두 가지 측면의 문제이다. 이제 제 8 조와 제 9 조를 살펴보자. 이 두 조항은 사역을 대하는 리더 일꾼의 태도와 관련된다. 즉,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집의 안배를 대할 때, 사역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책임을 다하는지, 충성심이 있는지,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지 등이다. 제 10 조와 제 11 조는 제물과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대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조항은 한 측면으로는 사람의 자질 및 사역 능력과 관련되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인성 문제, 충성심이 있는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제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를 살펴보자. 이는 교회에서 생기는 일부 특수 상황에 대한 것,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방해하고 교란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어지럽히는

경우이다. 물론 가장 심각한 것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외에 마땅히 제명하고 출교해야 하는 각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이 역시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이다. 즉, 제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보면 제때 제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제때 처리하고 해결하여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이 교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이 세 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마지막 조항은 각 중요 사역 인원의 신변 안전 문제 및 여러 중요 사역의 보장 여부 문제와 관련된다. 인원이 안전해야 사역도 진전될 수 있다. 만약 인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다시 한번 총 몇 개의 큰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항목은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로, 사람의 생명 진입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제 4 조와 제 5 조로, 교회의 각종 사역과 책임자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제 6 조와 제 7 조로, 각 부류 사람을 쓰고 양성하고 발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 항목은 제 8 조와 제 9 조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사역 중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제 10 조와 제 11 조로, 제물과 하나님 집의 물품에 관한 것이다. 여섯 번째 항목은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일곱 번째 항목은 제 15 조로, 교회의 중요 사역과 인원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총 7 개 항목으로, 15 개 조항과 관련된다. 이 7 개 항목의 사역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이며, 직책상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본연의 사역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7 개 항목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에게 요구하는 범위이다. 이 7 개 항목으로 리더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지, 사역 능력이 있는지,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기준에 맞는 리더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한 후에는 이 7 개 항목에 근거하여 거짓 리더에게 어떤 모습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있는지, 그들이 리더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해서 자신들이 기준에 맞는 리더가 아니라 거짓 리더임이 증명되었는지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다. 이 7 개 항목에 근거해 가늠하면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니 비교적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7 개 항목에 근거해 한 항목씩 교제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15 개 조항을 순서대로 하나씩 교제하는 게 낫겠느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15 개 조항을 순서대로 하나씩 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희 입맛에 맞나 보구나.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더 좋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이제부터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제해 보겠다.

제 1 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자질과 능력이 없다

거짓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고, 리더를 하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는 진정한 사역이나 중요한 사역은 하지도 않고, 사무적인 일들이나 겉면의 일들, 생명 진입이나 진리와 무관한 일들만 한다. 이런 사역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이런 리더는 거짓 리더라고 규정된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대체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지금부터 다 같이 해부해 보자. 우선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 조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진리를 교제해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조항은 참된 리더와 거짓 리더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할 수 있는지와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리더 일꾼의 자질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선민을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과 상상을 해결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실제적인 면을 알게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선민의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관점과 본분 이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 사람들이 다양한 시련과 환난에 직면해 드러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사람의 패괴된 내적 상태에 따라 사람의 다양한 패괴 성품을 해부하여 하나님 선민이 이를 자신과 대조해 보고 자신을 인식하고, 사탄을 증오하고, 사탄을 저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선민이 다양한 시련 속에서 굳게 서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실질적인 사역이다.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과 진리를 깨닫는 자질을 갖추었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하는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하는 패괴 성품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내적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거나 배반하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자신과 대조하지도 못하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약간의 도리와 규례만을 이해할 뿐이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한 편 암송하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고는 진리를 교제했으며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이해할 뿐,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이해하고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해석해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고 돕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거짓 리더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며, 하나님 선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할 줄도 모른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도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생명 진입이 없고, 아무도

체험적 인식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교회에서 악인과 불신파가 교란해도 아무도 분별할 줄 모른다. 거짓 리더는 악인과 불신파가 교란하는 것을 보고도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과 불신파에게 사랑을 베풀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포용하고 인내하라고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계속 교란하도록 방임하고, 결국 교회의 여러 사역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초래되는 결과이다. 거짓 리더가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 리더에게 진리 실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글귀와 도리이며, 그가 사람들에게 실행하게 하는 것은 모두 도리와 규례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사람에게는 다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나 분명하고 명확한데 어떻게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죠?" 거짓 리더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친다. 글귀와 도리로 사람을 권면하고 구속하여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게 하는데, 이는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오직 글귀와 도리로 사람을 가르칠 줄만 알아서, 사람들이 도리를 말할 줄 알면 진리 실제에 진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이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한 그런 글귀와 도리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이는 무슨 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냐? 도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그저 도리만 이해할 뿐이다. 그는 결코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고, 일처리에도 원칙이 없으며, 그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규례를 지킬 뿐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 실제가 없다. 그래서 거짓 리더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인도할 때는 진실한 성과가 없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얻게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인식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일에 직면할 때마다 그 내적 상태는 어떠한지, 표출하는 성품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잘못된 내적 상태와 패괴 성품은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는지, 하나님 말씀의 요구 원칙은 무엇인지, 그 속의 진리는 무엇인지 등 이러한 진리 실제를 거짓 리더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많이 기도하고 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라고 권유할 뿐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권유하지만, 아무리 권유해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누가 문제에 부딪혀 그에게 구하든 그는 늘 똑같은 말을 한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와 규례만을 지킬 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진리 원칙이나 어떤 실제에 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한 결과로, 실제 성과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단정하고 바르게 입어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단정하고 바르게 입어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는 알아차렸느냐? (이론상으로는

단정하고 바르게 입어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옷을 입을 때는 어떤 옷이 단정하고 바른 옷인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이는 진리를 깨달았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가늠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단정하고 바른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옷의 색깔과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색과 스타일이 단정하고 바른 것이겠느냐?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단정하고 바른지, 어떤 것이 기괴한 옷인지 안다. 어떤 옷들은 단정하고 바르지만 스타일이 구식인데, 하나님은 구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단정하고 바른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고귀하고 우아하며 품격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괴한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고, 가난뱅이처럼 거지같이 입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단정하고 바르게 차려입어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였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옷차림과 꾸밈새의 범위를 정해 주었어요. '단정하고 바르게 입어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는 말을 지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단정하고 바른 것일까요? 바로 말과 행동이 사람답고 성도의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 보통은 고대의 성도를 지칭하니, 우리가 성도의 품위를 가지려면 고대 성도의 옷차림과 꾸밈새를 본받아야 해요. 그렇지만 당신이 고대인의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대의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에는 사회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소박해서 옷차림이 보수적이고 얌전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옷을 입고 꾸미면 단정하고 바르며,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길이 생긴답니다." 그는 70~80 년대의 사람들이 흰 셔츠와 남색 바지를 입었었던 것을 찾아보고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빛 비춤을 얻었어요. 70~80 년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차림은 매우 얌전하고 소박해요. 고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비교적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기준에 맞춰 입읍시다." 리더가 먼저 입은 것을 보고 다들 매우 소박하고 바르게 보여 괜찮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기괴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선 셔츠 카라의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소매의 단추도 다 채워서 손목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셔츠는 또 허리띠 안쪽으로 넣어야 해요. 모든 곳을 단단히 가려야 하고, 가슴이나 등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얼마나 단정하고 바른 옷차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정하고 바른 것, 성도의 품위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옷차림에 특히 만족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요구한다. "여러분의 옷은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모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서 제 옷차림처럼 각자 한 벌씩 입으세요. 저처럼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뒤따라 모방해서 이른바 단정하고 바르며 성도의 품위에 걸맞은 옷을 한 벌 찾아 입는다. 대부분 사람도 이를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런 구식 스타일에 반감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비록 리더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릴 엄두는 못 내지만, 자신들은 이런 흐름을 따르지 않겠다고, 리더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니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오직 그 멍청이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거짓 리더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들은 거짓 리더가 시키는 것을 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 거짓 리더 뒤를 따르며 모방하기에 외출할 때 그들의 옷차림과 꾸밈새는 모두 똑같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속으로 매우 만족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내 옷차림이 얼마나 성도의 품위가 있어. 당신들이 뭘 입고 있는지 좀 봐, 알록달록하고 너무 현대적이고 사악하잖아! 우리를 봐, 노출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는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하는 짓이다. 가장 간단하고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의 가리키는 바와 요구 기준, 원칙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급한 사람의 패괴 성품 및 사람의 다양한 내적 상태 측면과 관련된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절대 알 수 없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단지 글자를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 하나님 말씀이 전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람이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도 그저 하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규례와 갖가지 규정을 주고 그것들을 지키게 할 뿐이다. 이러한 것들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역을 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명백하게 이야기했는데 다만 사람이 먹고 마시거나 공을 들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사람 손에 하나님 말씀 서적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 문제를 발견하면 그저 하나님 말씀 몇 단락을 사람들에게 보내 주고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세요.", "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측면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측면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라는 말만 한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의 발췌문을 사람들에게 보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라고 권유할 뿐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리더의 직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 말씀들은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찾아 주는 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 거짓 리더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보내 주지 않으면, 너 혼자서는 이 말씀이 어느 편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찾지 못해.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하신 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리더인 내가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 줘야 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거짓

리더는 사랑하는 마음이 발현되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0, 20 단락씩 보내며, 이로써 자신이 얼마나 충심으로 사역하는지를 드러내고, 또 사람을 하나님 말씀 실제로 들어가게 인도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주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는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였느냐? 많은 경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말씀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리더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거짓 리더가 사람들에게 보낸 이러한 하나님 말씀 발췌문은 사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러한 진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 이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서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런 진리에 진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 리더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일에서 그가 책임을 다했느냐?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분명 그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측면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르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세요.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정직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못 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이니, 우리가 실행해야 해요.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거역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당신이 한 말이 다 옳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거나 부득이해서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고 말하면, 거짓 리더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 일도 처리하기 어려운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되는 거라고요. 이 얼마나 간단해요! 당신이 몇 살이든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건데, 그걸 못 해요?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곰곰이 생각한다. '어린아이의 주된 모습은 바로 천진난만하고 활발하며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유치한 거야. 그리고 많은 일을 알지 못하는 거지. 리더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음 날, 30~40 대인 사람이 머리는 양 갈래로 땋아 분홍색 헤어 슈슈와 헤어핀을 하고, 분홍색 셔츠를 입고 분홍색 신발과 양말을 신어 온몸을 분홍색으로 치장했다. 리더는 이를 보고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폴짝폴짝 뛰는 걸음걸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말투, 순수한 눈빛과 미소 띤 얼굴,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죠!"라고 말한다. 리더는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이 이상한 멍청이처럼 보인다. 이 거짓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진리 원칙을 구할 줄도 몰라 사람을 터무니없는 길로 인도한 것이다. 거짓 리더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가장 간단한 진리조차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고 순수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함부로 규례에 끼워 맞출 줄만 안다. 듣는 사람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치우치게 이해한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런 짓만 한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각양각색으로 이해하는데, 별의별 기이한 논조가 다 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받아들이고 지키라고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종종 피상적이고 치우치게 이해하며,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라는 영적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처럼 이러한 치우친 도리와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또 치우치게 이해한 이런 것으로 순수하고 올바르게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을 정죄한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이런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으며, 겉으로는 마치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받아들인다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처럼 대하며, 하나님 말씀이 바로 '1+1=2, 2+2=4'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와 관련된 다양한 내적 상태와 내용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때, 그들은 오히려 피상적이고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 깨달았고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분명히 이야기한 것들인데 당신이 또 말할 필요 있나요?" 사실, 그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러한 거짓 리더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다 비슷하다고, 진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다 별다른 구체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운명이다.

거짓 리더는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없다

현재 자질이 훌륭하고 이해 능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체험과 진입이 있으며 진리 실제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더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오직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만이 이러한 진리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그것이 괜히 현학적으로 구는 것이며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진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도 단지 늘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인도하고, 그런 다음 도리를 좀 이야기하고, 규례를 지키는 실행법을 좀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얻는 것 또한 약간의 얕은 영적 용어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약간의 글귀와 도리, 규례, 구호에 불과하다. 거짓 리더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것들은 새 신자들에게는 그래도 간신히 1, 2 년은 유지될 수 있지만, 1, 2 년 후 진리를 약간 깨달은 사람들은 거짓 리더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 방식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나 이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리더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아무 느낌도 없고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이 글귀와 도리이며, 그가 이해한 것이 공허한 이론, 구호, 규례일 뿐 전혀 진리가 아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라는 이 조항을 거짓 리더가 해낼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 못 하겠느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다니, 어림없는 일이다! 거짓 리더에게 사람들을 인도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예로 들어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매우 간단한 몇 마디 말로 복잡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이 글자들로 이루어진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거짓 리더는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덧붙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은 모두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말만 합니다. 온 세상이 온통 거짓말의 나라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겁니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실행할 수 없고 간사한 사람으로 규정되며,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너희는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이해하였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새 신자는 이 말을 듣고 20~30 년 동안 종교 안에 있었지만 들어 본 적이 없다며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한 마디 한 마디에 모두 '아멘'을 외쳐야 합니다. 이 설교는 정말 좋네요. 정말 하나님나라시대의 설교에요!"라고 말한다. 거짓 리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일까요?"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곰곰이 궁리하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저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죠."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착실한 사람이라 결코 남들과 싸우지 않아. 장사를 해도 남을 속이지도 못해. 어쩌다가 작은 이득을 보면 저녁에 잠을 못 이루기까지 해. 그러니 나는 정직한 사람 아닌가? 내 생각에 나는 착실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착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이 "저는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거짓말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러니 저는 정직한 사람이겠죠?"라고 하면, 거짓 리더는 또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든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간사함과 사탄의 흑암 권세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면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 있는 말씀이네요. 아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잘 이해했네요! 그런데 어째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리더는 정말 말 그대로 리더다워 보여요. 완전 리더감이에요!"라며 기뻐한다. 자질이 있고 영리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다. '당신은 아직 정직한 사람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잖아. 대체 어떻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거짓 리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당신이 예전에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몇 번이나 저질렀는지, 누구와 저질렀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리더에게 고백하고 이 일을 전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거짓을 섞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속셈이 있는지, 어떤 패괴를 표출했는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했었는지, 마음속으로 누구를 해치고 음해하고 싶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떳떳해지고 빛 속에서 살게 되며,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잊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악하고 어두운 면을 전부 솔직히 털어놓고 해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이해하였느냐?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그저 도리만 이해한 것일 뿐, 구체적인 실행은 없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도록 인도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가 이해하고 교제하는 것은 모두 도리와 구호이다. 그것이 진리 실제를 구하고 진리 원칙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자신이 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일반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러한 도리와 구호를 전파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러한 도리와 구호로 자주 말다툼하고, 더 나아가 늘 이런 도리와 구호로 남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현실 생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골치 아픈 일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겨우 글귀와 도리만을 약간 교제할 줄 알고 도처에서 전파하고 뽐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은 몇몇 유사한 영적 용어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융통성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규례를 지키고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진정으로 실행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예를 들었다. 거짓 리더는 정직한 사람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글귀와 도리, 구호만 이야기할 줄 안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천지 분간 못 할 정도로 미혹하는데, 그들은 이런 글귀와 도리를 듣고도 거짓 리더를 매우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몇 년 동안 거짓 리더를 따르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깨닫지 못하고 진입하지도 못한다. 이 조항에 대한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제 2 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1)

거짓 리더는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2 조의 내용은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이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이 측면의 사역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조항을 해부하도록 하겠다.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초 위에서 이루는 것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각 부류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괴된 본질을 폭로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기초 위에서 이루는 것이다.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려면, 먼저 사람의 다양한 내적 상태, 패괴 성품, 패괴된 본질을 폭로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폭로한 이런 성품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지, 그의 인성은 어떤지, 그가 어떤 모습과 표출을 지니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본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내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과 대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각 부류 사람, 그리고 사람의 다양한 내적 상태와 패괴된 본질을 폭로한 그런 복잡한 진리를 거짓 리더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내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 내면과 관련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거짓 리더에게는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거짓 리더는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그들은 이 사람은 열정적이고, 저 사람은 옹졸하고, 이 사람은 꾸미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는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만 볼 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본분도 힘 있게 이행하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얽매이는 바람에 본분 이행 성과에 지장을 줄 경우, 거짓 리더는 이를 보고 함부로 낙인을

찍으며 "이 사람은 불신파입니다. 가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자녀를 걱정합니다. 집에 저축이 있어도 헌금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골치 아프니 앞으로 중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고 진리를 얕게 깨달아서 많은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여전히 기도하고 구하는 중이며, 아직 정확한 원칙과 실행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진리를 실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단지 가정의 얽매임과 어려움에 직면해 일시적으로 나약해지고 본분 이행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서 그에게 안배한 사역은 열심히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일반인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의 자질과 인성, 그리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생긴 내적 상태가 대체 본성 본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나약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분량의 문제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늠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것들을 가늠할 줄 모른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현실 생활에서 직면하는 생명 진입과 관련된 어려움인데 거짓 리더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줄 알겠느냐? 이런 부류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할 줄 알겠느냐?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거짓 리더는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 본질의 좋고 나쁨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각 부류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반대로, 그는 오직 열정에 의지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헌신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자질이 형편없고 이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집중 양성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는 교제해서 해결해 준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질이 있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일 경우,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다소 나약해질 때 거짓 리더는 어떻게 이를 해결하고 처리하겠느냐?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사실 조금은 나약해진다. 상황에 따라 붙들어 주고 도와주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교제해 주어야 한다.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규정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어느 때인데 당신은 여전히 남편과 아이에게 연연하고 있군요. 게다가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켜 미래를 추구하게까지 하고요. 지금 재난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세상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당신 목숨도 돌볼 겨를이 없는데 그런 걸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 가서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데요.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들의 어려움이 이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 부류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조금 나약해지는 것은 그저 분량이 작기 때문이지 결코 진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 리더가 한 그런 말들은 그의 내적 상태에 부합하지 않으며, 함부로 낙인을 찍은 것임이 분명하다. 거짓 리더는 그의 내적 상태의 핵심과 중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마음속으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도와주어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된다. "당신이 직면한 이런 일은 많은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예비해 온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충분히 많은 진리를 깨달았으며,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걸고 가정을 떠나 하나님 집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의지가 있고,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 이 기간에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비해 주시고 출로를 열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갖춥니다. 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와 안배도 필요하죠. 만약 당신이 이런 의지가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안배해 주실 겁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와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또 당신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당신이 후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을 위해 출로를 열어 주실 겁니다. 이 기간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의 분량을 점차적으로 키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분량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안배하시든 당신이 다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어떠하냐? (좋습니다.) 사람의 책임을 다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실제 상황에 맞춰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늘 건성으로 대충 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늘 관리라도 되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굴며 어떤 사람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이런 상황을 보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이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대신할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교제를 통해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거짓 리더는 이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세상을 추구하고 싶어 하고,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며, 자신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개인의 가정생활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없으며, 본분을 이행하다가 원칙을 위배하기라도 하면 책망과 훈계도 받아야 하니 그런 삶은 너무나 고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매우 명확하다. 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가 바로 불신파이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거짓 리더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이방에서는 인재야.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 그의 내적 상태에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어서 급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와 교제해서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해.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힘이 있으니, 우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몇 단락 읽어 주어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거짓 리더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재난이 닥쳐서 사람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자기 가족만의 삶을 살려 하네요. 앞으로 온 세상이 혼란해져 가정도 없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을 아직도 꿰뚫어 보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먹고 마시면 당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5~10 단락 찾아 그에게 읽어 주며 교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제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말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학력이 높으니 과시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하루 종일 교제해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했는데, 당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저녁에 서둘러 교제를 이어 간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당신은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될 희망이 있어요. 이 본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당신의 자질과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인재는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어 쓰여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집에서 큰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만하세요. 저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해도 제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면 당장 떠나겠어요. 저는 이곳에 미련 없어요!" 거짓 리더가 입이 닳도록 설득해도 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바로 이 사람의 본질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이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자기 생각대로 건성으로 하고, 대충대충 하며, 속여 넘기고, 형식적으로 하여 어떤 사역을 하든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어떤 문제들은 조금만 더 공을 들이거나 말을 몇 마디 더 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한다. 그는 어떻게 본분을 이행해야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해야 적합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니, 이는 어떤 성질이겠느냐? 무슨 문제이겠느냐? (그는 복받고 거래하려는 마음을 품고 온 것입니다.) 그는 이런 희망을 안고 온 것이다. 이런 자는 투기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세계 종말이 다가왔으니 더 이상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돈도 이미 충분히 벌었으니, 일단 하나님 집에서 밥벌이 좀 하면서 이름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복받을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본분을 이행하는 그의 이런 태도와 저의를 보면 그는 투기하기 위해, 하나님 집에 와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의 본분 이행 태도는 특히나 거만해서 교회에서 그를 쓸 때에는 어르고 달래며 그와 상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가 바로 투기와 밥벌이를 하러 온 불신파이다. 그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 문제의 성질로 보면, 이 거짓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였느냐?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단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량이 작아서 일시적으로 나약해진 것이니 누군가 붙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부터 교제하고 도와주지만, 결국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도리는 소용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제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 봤자 당신이 도리를 얼마나 알겠어요? 당신 학력이 그래 봤자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읽은 책이 당신이 먹은 밥보다 많습니다!"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실 이 사람이 불신파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불신파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더라도 힘쓰는 것조차 불합격이다. 이런 사람을 남겨 둬야 하겠느냐? (남겨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 집의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가 힘을 쓸 수 있으면 힘을 쓰게 한다. 힘쓰기를 원하면 남겨 두지만, 힘쓰기를 원하지 않으면 빨리 정리한다. 그들을 붙잡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는다.' 거짓 리더가 이 원칙을 알겠느냐? 모른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양 돌보고, 또 그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는데, 이는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거짓 리더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각 부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드러내는 다양한 내적 상태와 모습에 대해 늘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는 한순간의 연약함과 가끔씩 소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을 불신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반면 겉으로 보기에 약간의 은사가 있어 간단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조금 힘을 들일 수 있는 불신파는 붙들어 줄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이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도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해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끈덕지게 붙잡는다. 그는 어리석은 일만 하면서 악인이 교회를 교란해도 이를 보지 못하고 처리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의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면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각종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이해한 그 가장 얕은 도리의 틀에 맞춘다. 그렇게 틀에 맞추다 보니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사람들이 생명 진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연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오해를 갖게 한다. 교회가 자신들을 회유해 힘쓰게 만들어 등을 쳐 먹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 집에 인재가 없어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사역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초래되는 것이겠느냐? (거짓 리더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일에 직면하면 규례에 끼워 맞출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글자만을 기억할 뿐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참된 체험적 인식과 깨달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일이 닥치면 말을 듣고 순종해야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해야죠.", "충성심이 있어야 해요.", "육을 저버려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해요."와 같은 무미건조한 말들만 할 뿐이다. 그들은 이런 공허한 도리, 구호, 말로 자신을 꾸미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며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거짓 리더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서의 어려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끄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할지 모른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할 줄 모르고, 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을 찾을 줄 모른다면, 이렇게 분량이 지나치게 작은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찾아 교제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찾는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훈련해야 한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요구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요구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간단하여 원칙만 설명하고 세부 사항의 예가 없다면, 곰곰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도 밝히 알 수 없다면, 더 많은 사람을 찾아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모색하고 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어 점차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진입하여 이 측면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게을러서 본분을 이행할 때는 늘 기운이 없다가도 먹고 마시며 노는 이야기만 나오면 기뻐하고 뽕이라도 맞은 듯이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거짓 리더는 이런 일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에게도 방법은 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일을 안배해서 쉴 틈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일을 조금만 안배해 주어도 하기 싫어한다. 그는 '공짜 밥을 먹고 일을 전혀 안 해야 좋지!'라고 생각한다. 너무 게으른 사람은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이는 사람의 본성 본질과 관계가 있으며, 사람이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지와도 관계가 있다. 또한, 사람의 취향과 추구와도 관계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질이 약간 있는 경우, 만약 그가 평범하게 따르는 자라서 별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사역할 때 힘이 나지 않고 흥미가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의 자질과 그가 이행할 수 있는 본분에 근거하여 그에게 책임자의 책임을 지워 직함을 갖고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흥이 나서 사역하게 된다. 때로는 그가 무책임하거나 나태하게 사역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기도 하면, 체면과 지위를 좋아하고 남들이 치켜세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힘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 '지위를 위해, 그리고 내가 맡은 책임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이런 부류 사람의 게으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거짓 리더는 이런 인성 측면과 관련된 문제나 본분 이행 중 발생하는, 생명 진입과 관련된 이런 내적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해결하기 매우 힘들고 쉽지 않다. 그는 사람의 이런 내적 상태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겨냥해서 해결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는 사역할 때 대부분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달래서 열심히 하라고만 한다. 만약 설득이나 달래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화를 내고 책망하며, 책망도 통하지 않으면 엄한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읽어 경고하여 자숙하게 한다. 만약 이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안배해 지켜보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몇 가지 방법으로 사역한다. 이 몇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요컨대,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다양한 사람의 실제 내적 상태와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서 해결해야 가장 적절할지는 더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문제를 처리하는 이러한 원칙과 방식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해도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저 도리나 좀 이야기하고, 구호나 좀 외치고, 규례를 좀 지키며, 형식만 거칠 뿐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오래 믿는다 해도 교회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 너희는 이런 측면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말을 해서 저희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방해와 교란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리더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리더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환경에 순종하라고만 했을 뿐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 교회 사역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리더가 바뀌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매우 흔하다. 그들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만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포용하고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만 말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악인에게 순종하게 만든다. 그는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분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처리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많이 교제했으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들 조금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해 보아라,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근거하여 자신을 대조할 줄 알겠느냐?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겠느냐? (그럴 줄 모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빼앗겨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독립 왕국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를 적으로 대하여 폭로하고 분별하고 내칠 수 없다. 만약 그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를 형제자매로 대하여 인내하고 포용하다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교회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거짓 리더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저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규례에 끼워 맞추는 것만 할 줄 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는 교계 목사의 행동 방식 아니겠느냐? 바리새인의 행동 방식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대부분 타협하고 양보하고는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이유와 핑곗거리를 찾는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며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용감히 직면하지 못하고 용감하게 분별하거나 폭로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어떤 형제자매가 이미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별해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데, 그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악인도 아닙니다. 모진 말 좀 했다고 어찌 악인이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거짓 리더는 사람의 본질을 볼 줄 모르며,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결과도 보지 못한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사랑과 포용, 인내를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여 참된 회개를 하라고 권면한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자신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본성이 변할 수 있겠느냐?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약간 버리고 헌신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야심과 큰 계책이 있다. 거짓 리더가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참여하지 못하며, 적그리스도를 처리할 엄두는 더더욱 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에게 밉보여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도리를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거짓 리더는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민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도 없다. 거짓 리더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성령의 깨우침에서 나온 빛 비춤이 있는 말을 네가 전혀 들을 수 없으며, 그들에게 무슨 진리 실제가 있는지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 그래서 거짓 리더는 사람들의 생명 진입 측면에 아무런 이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한 그런 사역은 그저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구호를 좀 외치고,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 리더가 해야 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오늘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다음에 보자!

2021 년 1 월 9 일

리더 일꾼의 직책(2)

우선 지난번 예배에서 교제했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난번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15 개 조항을 열거했으며, 앞의 두 개 조항을 주로 교제했습니다. 제 1 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 2 조는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항에 근거해 거짓 리더의 관련 모습을 해부했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리더를 하게 한다면, 너희가 이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많은 사람은 늘 자신이 자질이 좀 있고 약간 똑똑하며 부담도 좀 있다고 생각해 앞다퉈 리더가 되려고 하지 평범하게 따르는 자는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먼저 이 두 조항을 네가 해낼 수 있는지, 이 두 조항의 사역 중 어떤 조항의 사역을 네가 비교적 감당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네가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그런 사역 능력과 부담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우선 네가 이 두 조항의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너희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리더가 될 생각도 없는데 이 문제를 뭐 하러 생각해요? 제 사역만 제대로 하면 그만이죠. 이 문제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평생 리더가 될 생각이 없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맡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일평생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설령 네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를 이끄는 사람이 이 두 조항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능력과 부담이 있는지, 이 두 조항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은 네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그가 너를 구렁텅이로 이끌어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어리벙벙하게 따르기만 하는 멍청이라서 그가 거짓 리더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가 너를 잘못 이끄는 것도, 너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너는 위험해진다. 네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리더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벙벙하게 따를 것이며, 그가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할 것이다. 너는 그가 교제해 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부합하는지, 실제인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열의가 있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고 누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도와주니 그게 바로 기준에 맞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짓 리더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그는 아무리 오래 사역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무엇이 도리이고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조차도 분별할 줄 모른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순수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자는 거짓 리더임이 아주 분명하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는 너에게 교제하여 형식적인 절차는 다 밟았다. 하지만 네가 어떤 내적 상태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대체 해결되었는지는 그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너 자신도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그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고 진리도 교제해 주었지만, 너는 여전히 잘못된 내적 상태 속에서 살며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겉으로는 그가 책임을 다하지만, 너의 어떤 어려움도 그의 교제와 도움으로는 해결되지 못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리더가 기준에 맞는 리더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이 하는 모든 사역과 그들이 처리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인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실제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 밖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실행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글귀와 도리를 좀 이야기하고 구호를 좀 외치거나 꾸짖을 뿐인지도 알아야 한다. 일부 리더 일꾼들은 권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고, 또 일부는 격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 어떤 리더 일꾼들은 폭로하고 질책하며, 책망하고 훈계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어떤 방식을 쓰든, 만약 정말로 네가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실행의 길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이후 이런 일에 또 직면했을 때 네게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여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의 길을 얻게 할 수 있는지는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를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 조와 제 2 조를 대략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두 조항에 맞춰 거짓 리더의 몇몇 모습을 해부했다. 그들의 주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얕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 그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끌 수 없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거짓 리더는 자신의 체험적 인식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실행할 길을 얻도록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각 측면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해결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럼 오늘은 먼저 생명 진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자주 직면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교제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이것을 교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는 생명 진입 측면과 관련된 이런 주제에 흥미가 생겼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와 처음 접촉하고 대화했을 때, 무슨 말을 하든 너희는 무감각하고 우둔했으며 반응이 느리고 둔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분량도 별로 없어 보였으며, 생명 진입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명 성품 변화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측면의 주제에 비교적 흥미를 갖고 약간의 반응을 보인다. 이는 좋은 현상이다. 만약 너희가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얻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제 2 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2)

생명 진입의 여덟 가지 어려움

1. 본분 이행 측면의 어려움

생명 진입의 어려움에 관해, 우선 큰 방향에서 본분 이행 측면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네가 본분 이행 중 진리 실행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원칙에 따라 일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이는 생명 진입의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본분을 이행할 때 생기는 다양한 내적 상태, 생각, 관점,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들이다. 그렇다면 이 측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보자. 본분을 이행할 때 늘 건성으로 대충 하고 꾀를 부리려는 것, 이것은 본분을 이행할 때 자주 드러나고 표출되는 내적 상태가 아니겠느냐? 또 본분을 이행할 때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며, 본분 이행 장소를 게임이나 다툼의 장소로 여기기도 한다. 본분을 이행할 때마다 '비교 대상'을 찾아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나 내 투지를 자극할 수 있는지 좀 봐야겠어. 그와 대결해서 경쟁하고 겨루어 봐야지. 누구의 본분 이행 성과가 더 좋고 효율이 더 높은지,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얻는지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본분 이행의 원칙을 알면서도 준수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와 하나님 집의 요구대로 하기 싫어하며, 늘 개인적인 기호를 섞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길 원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멋대로인 것이다. 늘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요구를 하든 귀 기울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의 실제 모습 아니겠느냐? 분명 이런 문제들은 모두 본분 이행 측면의 어려움과 관련된다. 너희가 더 보충해 보아라. (본분을 이행할 때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늘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것 또한 어려움의 한 측면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늘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혼자 결정하려고 한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세를 낮추어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지만 실행해 내지 못하며, 실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늘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합니다. 사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 일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두려워 나서지 못합니다.) 문제를 보고도 해결하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나 몰라라 한다. 이것 역시 본분 이행에 충성심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책임진 사역이든 아니든, 문제를 꿰뚫어 보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너의 본분이자 네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만약 책임자가 해결할 수 있다면 네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책임자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누구의 책임 범위인지 나누지 마라.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또 있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머리와 은사에 의지해 사역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매우 많다. 늘 자신이 똑똑하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어떤 일이 닥치든 개의치 않고, 전혀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전부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그 결과 어떠한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본분 이행 측면의 어려움이다.

2.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측면의 문제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측면에 관한 것 또한 생명 진입과 관련된 큰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느끼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지만,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소극적으로 변한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거나 양성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본분 이행도 형식적으로만 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앞날과 운명을 고려하면서 '나에게 과연 아름다운 종착지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나와 같은 부류 사람들의 앞날과 종착지가 대체 무엇인지 언급한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뭘 하든 의욕이 없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고 양성되면 의욕이 생겨서 무엇이든 무척 적극적으로 하지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교체되면 그 즉시 소극적으로 변하고, 본분을 내팽개치며 자포자기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게 된 걸까? 나를 싫어하시면 빨리 말씀해 주시지.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말이야!'라고 생각한다. 교체되면 또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가? 누가 나를 고발했나? 내가 도태 대상인 건가? 그렇다면 빨리 말해 달라고!'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에 대한 거래, 토색, 무리한 요구로 가득 차 있다. 교회에서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안배하든 그는 아름다운 앞날과 운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전제로 삼는다. 최소한 좋은 표정과 좋은 태도로 그를 대해야 하며,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더 보충해 보아라. (만약 본분을 이행할 때 편차나 문제가 생겨서 훈계와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경계하며, 드러나 도태될까 봐 항상 자신을 위해 퇴로를 남겨 둡니다.) 드러나 도태될까 봐 항상 자신을 위해 퇴로를 남겨 두는 것, 이 또한 앞날과 운명을 대하는 모습의 한 측면이다.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규정하시는 말씀이 자신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훈계와 책망을 받아 망신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어리석은 자이며 마귀 사탄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정하고 자신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규정하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앞날과 운명에 대해 사람은 자신의 속셈과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 늘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 추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원동력이자 전제로 삼는다.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에 직면하고 드러나거나 위험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걸까? 나를 혐오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엄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나를 구원하기 싫으신 걸까? 나를 도태시키시려는 걸까? 도태시키시려면 일찍 이야기하시지. 지금 내가 아직 젊을 때 세상을 추구하는 게 지체되지 않게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어 소극적으로 변하고, 반발하고, 대항하며, 본분을 게을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이 앞날과 운명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련된 내적 상태와 모습들이다. 이는 생명 진입과 관련된 큰 어려움의 한 측면이다.

3. 인간관계 측면의 어려움

이어서 다음 측면인 인간관계를 살펴보자. 이것 역시 생명 진입과 관련된 큰 어려움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신과 가족 관계이거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늘 적시에 너를 일깨워 주고 너에게 진실한 말을 하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네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투와 분쟁이 생겨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것, 심지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화롭게 협력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이 모두 인간관계 측면과 관련된 일부 내적 상태와 모습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무골호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도 밉보일까 봐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밉보일까 봐 두려울 때 생겨나는 내적 상태이다. (리더 일꾼이나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리더 일꾼이나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환심을 사고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대하는지는 권력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인간관계라는 이 측면의 어려움은 대략 이런 것이다.

4. 사람의 정 측면의 문제

사람의 정 측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자. 정과 관련된 문제에는 무엇이 있느냐? 먼저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들이 한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있다. '그들이 한 일', 물론 여기에는 가족들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 일, 뒤에서 남을 판단한 일, 그 외 불신파의 행동 등이 포함된다. 너는 이런 일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느냐? 평가서를 써야 한다면, 너는 정을 배제하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는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그 밖에, 너는 너와 비교적 잘 맞는 사람 혹은 너를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정을 갖고 있느냐? 그의 행위, 사람됨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만약 네가, 그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즉시 이를 보고하거나 폭로할 수 있느냐? 또한, 너는 너와 비교적 가까운 사람 혹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에게 정을 갖고 있느냐? 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정의 및 처리 방식을 갖고 있느냐? 교회에서 원칙에 따라 너와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이들을 처리할 때, 만약 그 처리 결과가 네 관념과 맞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하겠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뒤에선 여전히 그들과 얽히고,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심지어 그들의 부추김으로 그들을 위해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들 대신 나서 주겠느냐? 너는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를 위해 진리 원칙을 저버리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외면한 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도와주겠느냐? 이건 정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문제가 아니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정이란 결국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결국, 자기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집안사람,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다. 정과 관련된 범위는 매우 넓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과 비교적 친한 친구나 절친을 평가할 때조차 공정하지 않아서 사실을 왜곡해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친이 본분을 이행할 때 본분 이행에 힘쓰지 않고 늘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그는 그 절친이 놀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인성이 성숙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에 정이 담겨 있지 않으냐? 이는 정을 담아 하는 말이다. 하지만 만약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본분에 힘쓰지 않고 부당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는 비교적 심하게 말할 것이며, 심지어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정에 치우쳐 말하고 일 처리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이 공정할 수 있겠느냐? 올곧은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정에 치우쳐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왜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겠느냐? 왜 진리 원칙에 따라 말하지 못하겠느냐? 한 입으로 두말하며 늘 사실의 진상에 근거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악하다. 말도 공정하지 않고, 오직 정에 치우쳐 말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말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 사역을 위해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감정과 자신의 명리와 지위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질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항상 말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며 방해와 교란을 일삼는다. 육적 기호와 이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에 치우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진리 실제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분명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들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데, 반드시 도태되고 징벌을 받게 된다.

5.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측면의 문제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것, 이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모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너희가 체험을 통해 본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느냐?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이 포함되겠느냐? (포함됩니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몸을 사리고 늘 수월한 일만 골라 하려는 것입니다.)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늘 수월하고, 힘들지 않고, 몸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고른다. 이는 몸을 사리는 것이고,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모습이다. 또 있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 늘 불평을 합니다.) (평소에 먹고 입는 것, 육적인 즐거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모습이다.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한 일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그것은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고생하기 싫어한다. 만약 일을 끝내면 홍사오러우(紅燒肉)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재촉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지켜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홍사오러우도 없고 본분을 이행하며 추가 근무도 좀 해야 한다면 느릿느릿 일하고,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며 회피한다. 잠깐 일하고는 바로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저려요. 너무 피곤해요! 몸이 여기저기 다 아파요. 쉬어도 될까요?"라고 한다. 이는 어떤 문제이겠느냐? 이는 바로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렵다고만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쉬거나 잡담하거나 여가를 즐긴다. 사역이 바빠져서 생활 리듬과 규칙이 깨지면, 언짢아하면서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다. 이는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에어로빅을 하고 피부 미용에 좋은 시간에 잠을 잔다. 사역이 바빠져서 이런 것들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그녀는 언짢아한다. '안 되겠어. 이 사역을 하니 너무 방해가 되네. 내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돼. 누가 진도를 재촉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 페이스대로 하겠어. 요가 할 시간에는 요가 하고, 피부 미용을 위해 잠을 자야 할 때는 잘 거야.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지 않을 거야. 몇 년 지나 폭삭 늙고 몸매도 망가지고 더 이상 날씬하지도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고, 스스로도 삶에 자신감이 없어져.' 그녀는 자신의 육적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 더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본분 이행이 아무리 바빠도 육적인 즐거움과 기호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급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조급해하셔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만 조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드리면 제 마음은 누가 헤아려 주나요?"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인성이 있겠느냐? 마귀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자신의 옷차림과 꾸밈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화장하느라 매일 몇 시간씩 소비하고, 매일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매치할지, 언제 피부 관리를 받고 언제 마사지를 받을지, 이런 일들을 손금 보듯이 분명하게 기억하며 조금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자신이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어떤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진입하지 못했는지, 어떤 일들을 할 때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고 충성심이 없는지,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했는지 등 진리와 관계있는, 생명 진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어보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는 말이 끊이지 않아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다. 교회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본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 자신의 생활 규칙이나 평소의 생활 상태는 전혀 깨지 않으며, 자신의 육적인 생활의 어떤 세부 사항도 그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다 적절하게 관리한다. 무척 엄격하고, 또 무척 진지하게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 집의 사역을 대할 때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설령 형제자매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대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탁이나 그 사람 개인이 이행해야 할 본분과 관련이 있어도 그는 전혀 마음에 담아 두지 않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것 아니겠느냐?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사람이 본분 이행에 적합하겠느냐? 본분 이행에 관한 얘기만 꺼내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얘기만 꺼내면 그는 한사코 고개를 젓는다.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불평을 가득 늘어놓으며 소극적으로 군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으니 도태돼야 마땅하다.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6. 자신을 인식하는 측면의 어려움

생명 진입 측면에서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그래서 무릇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진정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확정할 수

있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는 어떤 측면들이 포함되겠느냐? 먼저, 자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패괴 성품이 표출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때로는 교만함이, 때로는 간사함이, 때로는 사악함이, 때로는 강퍅함과 배반 등이 표출된다. 또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속셈과 동기가 있는지 성찰해야 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본분에 대한 부담과 충성심이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지, 거래를 하거나 무성의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성찰해야 한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는 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 사치스러운 요구, 오해와 원망이 있는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 사람, 일, 사물을 대할 때 진리를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는지,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일이 닥쳤을 때 순종하는지 아니면 이치를 따지는지, 관념과 상상에 따라 대하는지 아니면 진리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인식의 범주에 속한다. 다양한 환경, 사람, 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거역했음을 알 수 있다면 성장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성육신에 대한 관념이 있는지, 경외심을 지니고 있는지, 순종이 있는지, 특히 진리를 대할 때 어떤 태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부족함과 분량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구와 걸어가는 길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여러 측면을 인식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질과 인품, 일 처리할 때의 속셈과 동기, 자신이 표출하는 패괴 성품과 본성 본질, 자신의 취향과 추구, 자신이 걷는 길, 자신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는 주로 이런 측면들이 포함된다.

7.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

생명 진입 측면에 관한 다음 내용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며,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연구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밝히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및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늘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이나 세상의 비방과 모독을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 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추측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아첨합니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싫어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는 것을 의심한다.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대드는 것이다. 거만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 처리를 한다. 더 있느냐?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고 기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이 닥치면 늘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으며, 늘 자신의 이치를 따지고 늘 원망한다. (또한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독합니다.)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버리고, 배반합니다.) 이는 모두 본질적인 문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생기는 다양한 내적 상태와 패괴 성품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8.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다양한 모습

생명 진입에 관한 또 다른 항목의 내용은 진리를 대하는 측면이다. 이 측면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진리를 이론적 구호나 규례로 삼고, 자신이 교회에 얹혀살거나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한 밑천으로 삼는다. 너희가 더 보충해 보아라. (진리를 정신적인 의지처로 삼습니다.) 진리를 자신의 정신적인 의지처로 삼아 자신의 정신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이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것이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진리의 주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런 진리를 자신이 다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괴된 본질은 모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진리의 주인으로 간주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꾸짖는다. 마치 자신에게는 패괴 성품이 없으며, 자신이 이미 진리의 화신이자 진리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이는 어떤 작자이겠느냐? 진리의 화신이 되고 싶어 하다니, 바울 아니겠느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임을 부정하였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바울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로 바울 부류의 사람이며, 적그리스도이다. 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평범한 사람의 말로 여깁니다. 진리로 삼아 실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실행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대하는 것, 이것이 그중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이방의 철학 이론과 연계시킵니다.) 하나님 말씀과 철학을 연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장식품이나 빈말로 여긴다. 하지만 명사와 위인의 명언을 진리로 삼고, 지식과 전통문화, 풍습을 진리로 여겨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 일이 닥치면 입으로는 말끝마다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명사와 위인을 숭배한다. 심지어 고대 송나라의 포공(包公)을 치켜세우기까지 한다. "그는 공정하고 엄격하며 청렴한 판관입니다. 단 한 번도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없었어요. 그의 손을 거쳐 간 사건 중에는 억울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의 작두 아래에서 억울하게 죽은 목숨도 없었어요!" 이는 명사와 성현을 치켜세우고 숭배하는 것 아니겠느냐? 명사가 한 말과 일을 진리로 사칭하려 하다니, 이는 진리에 대한 중상이자 모독이다! 교회에서 입으로는 말끝마다 진리를 실행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평소 하는 말은 민간의 속담이다. 조리 있고 유창하게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말하는 것은 전혀 들을 수 없으며, 어떤 하나님 말씀들이 그의 일 처리와 사람됨의 준칙이자 근거인지는 더더욱 들을 수가 없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사람을 죽여 보았자 머리가 땅에 떨어질 뿐이다.", "불쌍한 사람은 미운 데가 있는 법이다.", "사람은 살면서 여지를 남겨야 한다.", "공로는 없어도 노고는 있고, 노고는 없어도 피로는 있다.", "배은망덕하거나 토사구팽 해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주다.", "신임 관리가 의욕이 대단하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궤변이며 한 마디도 진리인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현대 시인의 말을 외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집 영상에 댓글로 달기도 하는데,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 말들이 진리이겠느냐? 진리와 관련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머리 위 삼척에 신이 지켜보고 있다.", "선과 악 모두 응보가 있다. 응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진리이겠느냐? (아닙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이는 불교문화이지 하나님을 믿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늘 이런 말을 진리와 연관시킨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집에서 저를 발탁하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는 말을 실천해야 해요." 네가 '선비'도 아닐뿐더러 하나님도 너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았다. 본분 이행에 그렇게 엄청난 사기(士氣)가 필요하겠느냐? 네가 살아서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데, 죽으면 가능해지겠느냐?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단 말이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의리를 중시하는 기분파라서 벗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발탁하시고 높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죽을 때까지 온갖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째서 그는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는 교제를 할 때마다 늘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습니다. 벗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다."라는 말조차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수년간 설교를 듣고 수년간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 용어조차 말할 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그의 마음속 인지와 정의이다. 말해 보아라, 불쌍하지 않으냐? 우습지 않으냐? 이것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당당하게 그런 마귀적인 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 우습기 짝이 없는 말로 진리를 대체한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하여 그들도 자신처럼 이해하게 한다. 이는 방해와 교란의 성질을 지닌 것 아니겠느냐? 보아하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 어디서나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진리를 대하는 측면에 또 어떤 모습들이 있겠느냐? (진리를 멸시합니다. 자신의 관념과 부합하면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관념과 부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념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실행하지만, 자신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반발하고 정죄한다. 이는 일종의 태도이다. (진리가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 또한 일종의 태도이다.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기분, 환경, 정서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오늘 기분이 좋고 정서가 매우 고조되면 '진리는 정말 좋아! 진리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고, 인류가 실행하고 전파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또 '진리가 뭔데? 진리를 실행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데? 돈이라도 벌 수 있어? 진리가 뭘 바꿀 수 있는데? 진리를 실행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라고 생각한다. 마귀의 성품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전부 사람이 진리를 대할 때 표출하는 성품과 다양한 내적 상태이다. 또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학자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늘 지식에 근거하여 진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조금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 진리를 대하는 측면의 어려움 중 정의할 만하고, 개괄적인 제목으로 삼을 만한 것은 대략 이런 것들이다.

생명 진입 측면에 관한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은 총 여덟 개 측면이 있으며, 이 여덟 개 측면은 모두 생명 진입을 통해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주요 어려움이다. 이 여덟 개 측면에서 사람이 표출하는 내적 상태와 성품은 하나님 말씀에 다 폭로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요구를 제시하고 실행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공을 들일 수 있고, 진지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 진입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여덟 개 측면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전부 관련된 진리를 찾아 해결할 수 있다. 실행의 길도 다 있으니, 이는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비밀도 아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생명 진입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고, 진리와 성품 변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하고 정확해도 너에게는 그저 문자와 도리일 뿐이다. 네가 추구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너에게 어떤 측면의 문제가 있든 모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네가 영원히 봉사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도태되는 단계에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 리더의 사역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

사람이 생명 진입에서 직면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거짓 리더는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들이 이 여덟 개 측면의 어려움 중 어느 한 내적 상태에 직면했을 때 거짓 리더가 대조하여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체험적 인식으로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불행히도 거짓 리더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저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일만 한다. 얕고 피상적이며,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 및 실제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는 말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예를 들어, 거짓 리더는 늘 "당신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한다. 아주 작은 문제나 내적 상태라도 그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없으며, 진리 교제를 통해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저 도리의 성격을 띤 말이나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하고 또는 문제를 확대 해석해 사람을 전면 부정하고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 여덟 개 측면의 내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이 폭로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이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일부 거짓 리더는 그저 열정적이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외식하고, 영적인 사람인 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거짓 리더는 이렇게 권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나요?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걸 다퉈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안 다투면 뭐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나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이렇게 감정에 연연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네요. 언젠가는 감정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당신은 어째서 아직도 먹고 입는 그런 일들에 그렇게 신경을 쓰나요? 치마 한 벌 안 입으면 뭐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나요? 구두 한 켤레 안 사면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과 본분에 공을 들여야 해요!",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닥치든 그것은 하나의 공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권하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되었습니다. 당신이 감정에 연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거짓 리더는 진리를 교제해 사람의 본질과 내적 상태를 해부할 줄 모른다.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꿰뚫어 보지 못하며, 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맞춰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과 공급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본분을 열심히 이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에 직면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이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일을 다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뿐이죠!", "재난이 눈앞에 다가왔고 만물의 결말이 가까워졌으며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급할 게 하나도 없네요. 사람들의 나날이 이제 며칠이나 남았겠어요? 하나님나라가 이미 강림하였습니다!" 거짓 리더는 이처럼 핵심에서 벗어난 말들만 한다.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공급과 도움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찾아 사람들에게 읽어 주거나 중요하지 않은 권고하는 말만 좀 하며 대충 넘어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짓 리더의 해악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품이 어떤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자질이 어떤지, 자신에게 이해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자기 마음속에서 중시하고 사랑하는 세속과 유행하는 것들도 내려놓지 못하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해부하고 분석하도록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한 결과이다. 일이 닥쳤을 때 무작정 사람들을 꾸짖고 함부로 죄를 덮어씌우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권고하고 교육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가 사람에게 대조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어찌 된 일이지? 리더가 한 말은 다 옳은데 왜 내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 어째서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어째서 난 문제의 본질과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리더는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도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그런데 어째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리더가 역할을 했느냐? 그가 이야기도 했고 사역도 했지만, 전부 뒤범벅이 되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지도 못했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대조하여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지도 못했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의 경우, 리더가 그들에게 입이 닳도록 거듭 말하면 극도로 반감을 느낀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리더가 하는 말을 따라 한다. 리더가 앞 구절을 말하면 그들이 다음 구절을 이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인내심이 일찌감치 바닥이 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만 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아요!" 리더가 또 "당신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들은 "제가 진리를 사랑하든 아니든, 당신은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미 지겹도록 들었다고요!"라고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 죽어라 규례에 끼워 맞추고, 죽어라 글귀에만 매달려 사람의 실제 어려움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성이 나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없으면, 그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두 사람을 모두 꾸짖고 무조건 양쪽을 똑같이 처벌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됐습니다. 공평해졌어요. 우리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은 앞으로는 입 다무세요. 말을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느냐? 이게 사역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신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사역을 한 것이 어떠하냐? 아무런 가치도 없고 황당하다! 이는 이방인의 행동 방식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체험 속에서 자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거짓 리더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명백히 알 수 있고 몇 마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며, 또한 일을 크게 벌이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악인도 아니고, 그저 인성 측면에서 교양이 좀 없고 예의범절을 모르며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을 뿐인데, 거짓 리더는 이런 소소한 일로 문제를 만들어 형제자매들이 이를 토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한다. 거짓 리더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느냐?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인성 측면에 큰 문제만 없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진심으로 헌신할 수만 있다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설득해서 일깨워 주고 도와주고 교제해 주고 불들어 주면 된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는 바로 인품의 문제이자 성품이 흉악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엄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해야 한다.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본분을 정지하거나 그를 제명해야 한다. 거짓 리더는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런 악인을 만나면 오히려 형제자매로 여겨 붙들어 주고 도와준다. 이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겠느냐?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거짓 리더가 하는 사역은 황당하고 유치하고 우습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 딱 봐도 문외한이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며,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고 원칙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들이 생명 진입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결할 때 무척이나 서툴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또한 불편함과 억압감을 느끼며,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리더가 저에게 그렇게 여러 번 교제해 주었는데 어째서 저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여전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걸까요? 제가 인성이 특히 나빠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더 심할 경우에는 '나라는 사람은 영이 잘못된 게 아닐까? 악령 역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럼 나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사역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거짓 리더는 사역하는 것이 뒤죽박죽이고, 황당하고 터무니없으며, 어리석고 서툴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어려움이 제때 해결되지 못해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나약하게 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관념과 오해를 갖게 된다.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어째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 말씀이 과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고, 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리더가 사역하면 긍정적인 측면의 성과는 많지 않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무척이나 많다. 그가 사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과 의심, 판단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경계심을 더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다. 거짓 리더의 미혹과 오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경계심이 한층 더 깊어지는데, 이러고도 생명 진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진리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성품 변화 등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거짓 리더의 이해는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가 사역하지 않으면 몰라도, 사역하기만 하면 편차가 생기고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며 교회 내에 그릇된 풍조가 생기게 된다. 즉, 잘못된 주장과 터무니없는 주장이 자주 생겨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늘 언급하는 영적 용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게 되고, 거짓 리더가 자주 말하는 이른바 영적 용어와 주장이 오히려 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적잖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를 더 실제적이고 더 정확히 인식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한 실행의 길을 찾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더 치우치고, 이론화되고, 도리화되게 하며, 동시에 실행의 길도 더 모호하게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식으로 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이 진리를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지장을 준다. 거짓 리더가 이런 일들을 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느냐? 그는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방해와 교란이라고 규정한다면 조금 과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설쳐 대는 광대라고 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다. 이 단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대화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상황을 물으니,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툭 던지는 말을 들었다. 내가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 버리다니? 무슨 뜻이냐?"라고 하자 그는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은 교체되었고, 아마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이 말은 너무 독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냐? 어째서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를까? 나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규정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 버렸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너희가 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나중에 알아보니, 이 말은 오랜 신자이자 고루한 학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학문이 높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 왔으며, 자격도 오래된 사람이라 그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 어리석은 무리가 분별도 하지 않고 따라 해서 유행어가 된 것이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말이 옳겠느냐? 근거가 있겠느냐? 정확하겠느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 교회에 남아 있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폭로하고 비판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중에 비판과 해부를 통해 그 어리석은 자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쩌면 사정을 모르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몰래 말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 말이 매우 영적이라고, '명사'의 입에서 나왔으니 반드시 계속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희의 리더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없었느냐? 너희의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 그리고 너희가 걷는 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적이 없었느냐?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거짓 리더가 "하나님께서 형벌과 심판으로 우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들을 꾸짖어야 해요. 그래야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꽤 합리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진리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널리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일어나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과 형벌로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분명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거짓 리더가 머리로 상상해 낸 이론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두 하나님 말씀이 이루려는 성과인, 전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일찍 받아들이는 게 늦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성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방 주사를 놔 주면,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벌하고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배반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상심하시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옳고, 도리상으로도 논리에 부합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 원칙이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규정하였느냐?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이론을 내놓은 사람은 바로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항상 영적인 척하며, 그럴듯하지만 황당한 이론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 이러한 황당한 이론들은 얼핏 듣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 진입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람이 진리 추구의 길을 걸을 때 교란하고 미혹하고 방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오해하고 경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거짓 리더의 미혹과 영향으로 인해 그 교회는 종교로 변해 버린다. 마치 기독교나 천주교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가르침만을 지키고, 모두 바울의 가르침을 숭배하며, 심지어 바울의 말로 예수의 말씀을 대신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모두 외식하는 바리새인, 적그리스도가 되어 버려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게 된다. 거짓 리더는 바울처럼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란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종교의식에 끌어들인다. 이는 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오랫동안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 거짓 리더에게 끊임없이 미혹되고 교란당하면서 일련의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론과 주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론, 주장, 행동은 진리와 완전히 상반되며 진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거짓 리더의 미혹과 오도로 인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사물이나 진리라고 여기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이니, 마음속으로 이러한 것들을 믿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으며, 다들 동조하기만 하면 진리를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런 사상 관점의 오도로 인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실행하고 체험할 줄 모르게 된다.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과는 더 멀어지게 된다. 거짓 리더가 하는 말이나 그가 외치는 구호는 문자만 보면 틀린 것이 없으며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이겠느냐? 바로 거짓 리더가 깨닫고 이해한 것이 너무 얕기 때문이다. 전부 도리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 실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요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실제로 거짓 리더가 이야기하는 모든 도리는 진리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확히 말하면, 모두 진리와 무관한 말들이며, 하나님 말씀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가 항상 이런 글귀와 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이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느냐? 왜 그들은 줄곧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겠느냐? 이는 바로 거짓 리더의 자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거짓 리더가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생명 진입이 있을 수 없다고 확정할 수 있다. 그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다. 만약 거짓 리더를 교체하지 않고, 여전히 그가 리더를 계속하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느냐? 거짓 리더의 이러한 인도 방식은 더 많은 사람들을 종교의식과 규례 속으로, 글귀와 도리 속으로, 막연한

관념과 상상 속으로 이끌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거짓 리더는 비록 사람들을 자신의 앞이나 사탄의 앞으로 데려가지는 않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 선민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실제 속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분명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전히 사탄의 권력 아래에 사는 것 아니겠느냐?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는 인간쓰레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선민이 여전히 거짓 리더의 손에 망쳐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의 사역 결과가 기본적으로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둘 다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해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선민을 곤경에 빠뜨리고 망치니, 그 결과는 완전히 똑같다.

거짓 리더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정리해 보아라. 이 과제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지 보겠다. 너희 주변의 리더가 과거에 영적인 말과 인정미가 있는 말, 겉보기에는 매우 정확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면서도 너의 생명 진입에 공급을 주지 못하고 너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더냐? 만약 네가 그런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을 보물로 여겨 마음속에 담아 둔다면, 수시로 그 말이 너를 점유하고 주도하게 한다면, 수시로 너의 생각과 행위를 좌우하게 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문제의 근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으로 바뀔 정도로 사람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하는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리더가 되려고 추구하지 마세요. 리더가 된 후에 교체되거나 도태되면 평범한 신자가 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이런 말은 거짓 리더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하냐? 거짓 리더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적그리스도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과 구분해야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말 속에 어떤 속셈이 있겠느냐?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 그 안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계략이 있으며, 그 의미는 리더를 해 봤자 끝이 좋지 않으니 리더가 되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모두 리더가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지위를 두고 그와 다툴 사람이 없게 되고, 그가 마음 놓고 계속해서 리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 집에서는 리더 일꾼을 이렇게 대합니다. 필요할 때는 발탁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발로 차 버립니다. 그러면 평범한 신자가 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어떤 성질의 말이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서 두 가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지위를 다투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그의 지위가 굳건해진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명백한 적그리스도이다. 보아하니, 너희는 이해 능력이 없는 것 같구나. 내가 이 측면의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너희는 기억력이 나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없고 이해 능력도 부족해서 이렇게 명백한 적그리스도조차 분별해 내지 못한다.

거짓 리더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가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 리더는 비록 겉으로는 말과 행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역할 때 원칙이 없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정상 궤도나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도 못한다. 그는 옳은 말만 하고, 사역도 전혀 적게 하지 않으며, 열정과 정열도 있다. 겉보기에는 믿음도 있고 의지도 있으며, 기꺼이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고, 인내심도 매우 강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자질과 이해 능력이 부족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규례와 도리로 해결하고, 자신이 늘 이야기하던 영적 이론으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그가 몇 년 동안 리더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각종 도리, 규례, 겉면의 행동 방식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 규례, 행동 방식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실행하고 있다고, 진리 실제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리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의 마음이 일단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점유되면, 이런 것들이 마음을 주도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도 매우 번거로워진다. 하나씩 해부하고 분석해 사람들이 인식하게 한 후, 진리란 무엇인지, 도리, 구호, 규례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란 무엇인지, 정확한 주장이란 무엇인지, 진리 원칙이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비교적 솔직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거짓 리더에게 미혹되어 망가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일이 닥치면 기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처럼 하나님이 왔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바로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런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해치고 망쳤는지 모른다.

거짓 리더는 글귀와 도리만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모두 도리이지 결코 진리가 아니며,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 또한 영적인 척하는 것이다.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영적인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인식한 척하고, 실행한 척하고, 준수한 척하는 것으로, 전부 거짓이다. 이 '거짓'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바로 거짓 리더가 진리를 치우치게, 단편적으로, 얕게 이해하고, 진리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다. 거짓 리더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 글귀와 도리, 그리고 몇몇 구호와 이론을 많이 가져다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각종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 리더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정리해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정리할 때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황당한 이론과는 구별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2 조에 맞춰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행동 방식과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였다. 이에 관한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1)

거짓 리더는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권면할 줄만 안다

다음으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3 조인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것은 리더 일꾼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역이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리더 일꾼의 직책에 근거하여 거짓 리더의 모습을 교제하고 해부해 보자. 리더 일꾼에게 있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명확하게 교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가 진리 실제가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또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핵심이다. 이제 거짓 리더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거짓 리더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나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가 그에게 구하면 그는 공허한 말과 도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은 모두 이 본분을 이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세요. 저는 문외한이라 모르니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묻는 겁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당신에게 묻지도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진리 원칙의 문제는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거짓 리더는 "원칙을 다 알려 주지 않았나요? 각자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마세요. 뭘 또 물어봅니까?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라고요."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종잡을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바로 이렇게 사역을 대한다. 그는 그저 사역을 시찰하고 형식적인 과정을 거칠 뿐,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물어봐도 그들에게 스스로 진리를 구하라고 말한다. 그 자신 또한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는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생명 진입은 어떠세요? 본분을 건성으로 대충 이행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 "간혹 건성으로 대충 하려는 내적 상태가 있기는 하지만, 기도로 해결해 돌려세웠습니다. 다만, 본분 이행의 진리 원칙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거짓 리더는 "구체적인 원칙은 지난번 예배에서 제가 교제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하나님 말씀도 여러 단락 찾아 드렸으니,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라고 한다. 사실 도리는 그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또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다. "어째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무슨 문제든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함께 상의하고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문제는 결국 해결될 겁니다. 업무적인 문제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제 책임은 사역을 점검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임무를 완수했어요. 업무적인 사역만 남았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거짓 리더는 항상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배운 적이 없고, 문외한이에요."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대충 둘러대거나 회피한다. 마치 매우 겸손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몇몇 사역과 관련된 업무적인 지식 측면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며, 매우 어색하고 난감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몇 단락 더 찾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교제하며, 도리를 이야기해 사람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다. 마음씨가 좀 좋은 리더라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서, 때로는 "최근 생활에 곤란한 점이 있나요? 옷은 충분한가요? 말썽부리는 사람은 없나요?"라고 묻기도 한다. 사람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는 "그럼, 별문제 없군요. 다들 볼일 보세요.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요."라며 황급히 자리를 뜬다. 사람들이 또 그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문제를 제기해 난처해질까 봐 두려운 것이다. 거짓 리더는 바로 이렇게 사역한다. 아무런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찌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점점 쌓여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할 때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모습이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그저 설교에만 열중하며, 글귀와 도리,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기를 가장 좋아한다. 또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바쁘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만 하면 사역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거짓 리더는 모든 사람의 생활 상태에 관심을 두는 데 열중하며, 항상 사람들에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해결해 주려고 한다. 그는 이런 사무적인 일들로 매우 바빠 제때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으며, 항상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바쁘게, 또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선민이 본분을 이행할 때 겪는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겠느냐? 바로 거짓 리더가 본분 이행과 관련된 진리 원칙을 도무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가 말하는 글귀와 도리 그리고 사람을 권면하는 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바쁘고 애를 써도 교회 사역은 시종일관 진전이 없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인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짓 리더가 본분 이행과 관련된 진리 원칙을 교제할 줄 모르고 진리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몰라 본분 이행 과정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서적을 인쇄해야 해서 리더가 이 사역을 담당할 두 사람을 선택해야 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인성이 비교적 좋아야 하고, 믿을 만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선택한 후, 이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두 분을 부른 것은 일을 하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집에 인쇄할 서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인쇄소를 찾아서 그 서적을 인쇄한 후 제때 하나님 선민에게 나눠 줘야 합니다.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말이죠. 결심이 섰습니까? 이 짐을 짊어지고 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합니까?" 두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높여 줌이라고 생각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거짓 리더가 "그렇다면 두 분은 하나님의 이 부탁을 완수할 결심이 섰습니까? 맹세하겠습니까?"라고 하자 두 사람은 이렇게 맹세했다. "만약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 사역을 망쳐 하나님 집의 사역에 손해를 입힌다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아멘!" 거짓 리더가 "그 밖에 우리는 진리를 교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장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분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라고 하자 그들은 "아닙니다. 이는 저희의 본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거짓 리더는 또 이렇게 말했다. "두 분의 본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충성심도 있어야 합니다. 일이 닥치면 많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상의해야지 제멋대로 하거나 자기 생각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두 분이 협력하게 하겠습니까?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상의하면 일 처리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상의해도 안 되면 기도하세요.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았다가 마지막에 의견이 일치되면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분이 이 사역을 훌륭히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더가 또 어떻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셋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번 읽었다. 이 일은 이로써 완전히 맡겨지고, 리더의 책임도 다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떠하냐? 리더는 마음속으로 매우 만족했고, 두 사람도 매우 만족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 리더는 정말 사역을 잘하네. 말이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어. 일 처리에도 절차가 있어. 먼저 두 사람에게 사역을 분배하고 나서 두 사람의 사상 관점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런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맹세로 보증하게 했지. 정말 빈틈없이 꼼꼼하게 사역했네. 정말 리더다워. 경험도 있고 부담도 있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리더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책을 인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이 사역은 제가 두 분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에서 맡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완수하기만 하면, 두 분은 생명이 성장하고 실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론상, 이 말에 원칙적인 문제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일에 관해 분석해 보자. 거짓 리더의 '거짓된'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가 이 사역과 관련된 업무나 기술 등 각 측면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바가 있느냐? 구체적인 진리 원칙과 요구 기준에 대해 조금이라도 교제한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는 그저 빈말, 쓸데없는 말이나 좀 했을 뿐이다. 이는 일반인이 자주 하는 그런 말로, 이렇다 할 무게감이 없다. 리더가 직접 말하고 직접 당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다. 사실 그것들은 전부 중요하지 않은 말이며, 서적 인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서적 인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리더가 한 사역들이 거짓 리더의 소행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적을 인쇄하려면 우선 편집을 해야 하며, 그다음으로 문자를 교정하고, 목차와 본문의 형식을 정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종이의 무게, 색상, 품질을 정하고, 반양장으로 할지 양장으로 할지 표지 재질과 표지 디자인을 정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색깔, 도안, 글씨체는 어떻게 할지 정하고, 마지막으로 무선 제본을 할지, 사철 제본을 할지 제본 방식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서적 인쇄 범주 안에 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 리더가 이에 대해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쇄소를 찾는 문제가 있다. 인쇄소의 인쇄 기계와 제본 기계가 최신식인지, 인쇄와 제본의 품질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원칙과 범위를 정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리더가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니,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이 리더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가 말한 중요하지 않은 말 몇 마디가 서적 인쇄와 관련된 각종 세부적인 문제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리더는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리를 그렇게나 많이 교제했고, 원칙도 전부 알려 줬어. 그런 일들은 그가 당연히 알아야지!'라는 것이다. 이 '당연히'가 바로 거짓 리더의 논리이자 거짓 리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결국 책이 인쇄됐지만, 종이 품질이 너무 나쁘고 얇아서 앞 뒷면의 글자가 서로 비치는 바람에 나이가 많거나 눈이 나쁜 사람이 보기에는 무척 힘겹고 버거웠다. 이 외에, 마지막 공정인 제본 문제도 있었다. 제본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책 전체의 품질 및 수명과 관련된다. 리더가 설명하지 않았고, 일 처리하는 사람도 원칙과 경험이 없는 데다가 무책임하게 함부로 가격을 깎아 버렸기 때문에 인쇄소에서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날림으로 작업했다. 결국, 책이 형제자매들 손에 들어간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제본에 사용된 실밥이 터지고 책 표지와 책장이 다 떨어졌다. 책을 인쇄한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느냐? 만약 책임을 따진다면 직접적인 책임자는 책 인쇄를 맡은 그 두 사람일 것이고, 간접적인 책임자는 당연히 그 거짓 리더일 것이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이 사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해도 저를 원망해서는 안 되죠. 저도 몰랐는걸요! 책을 인쇄해 본 적도 없고 인쇄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는 이유를 댔다. 이 이유가 성립하느냐? 리더로서, 이는 너의 직책 범위 내에 있는 사역이다. 업무, 기술, 지식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진리와 관련된 것이든 네가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는 모르는 일을 배우기는 하였느냐? 진지하게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였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책임을 다하고 싶죠. 하지만 아는 게 없는걸요. 아무리 배워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합당하지 않은 리더이고, 명실상부한 거짓 리더이다. 형제자매들은 책의 품질이 너무 안 좋아 속으로 약간 원망하며 말했다. "이 책은 공짜지만 품질이 너무 안 좋네요!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하죠?" 리더는 이 말을 듣고도 "그게 제 탓입니까? 인쇄소가 제 것도 아니고, 제 말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 집을 위해 돈을 아끼느라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집을 위해 돈을 아끼는 것도 잘못인가요?"라고 말했다. 그가 한 말은 다 맞고, 틀림이 없으며,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책 인쇄 비용이 헛되이 쓰였다. 책이 형제자매들 손에 들어간 지 두 달도 안 돼서 실밥이 터지고 책장이 떨어져 나간 이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겠느냐? 이는 리더의 책임 아니겠느냐? 이는 네가 리더를 할 때 너의 사역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마땅히 네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 잘못을 회피할 수 없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 사역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해 본 적 없는 사역인데 실수하면 안 됩니까?"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만 봐도 너는 리더 자격이 없으니, 교체되어야 한다. 너는 리더의 재목이 아니며, 영락없는 거짓 리더이다. 듣기 좋은 말만 잔뜩 늘어놓고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일부 거짓 리더는 각종 실질적인 사역은 어느 것 하나 착실하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무적인 사역만 할 줄 알면서 자신이 기준에 맞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늘 이렇게 자랑한다. "교회의 일은 전부 제가 신경 써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 다 제가 처리해야 하죠. 제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부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영화 제작 사역을 살펴보지 않고, 지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늘 누군가가 교란하지 않겠습니까? 영화 제작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찬양 사역에 문외한이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을 찾아가 시찰하고, 자리를 지켜 주고, 함께 예배 모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찬양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고 일리도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아라. 거짓 리더가 담당하는 각종 업무 사역의 진전 상황이 어떠하냐? 그가 진리 원칙을 명확히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은 영화 제작팀에서 의상 색상 관련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그들이 스틸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사진 속 배경이나 인물은 달랐지만 의상 색상은 전부 암회색이나 황갈색으로 거의 같은 계열이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어째서 이런 색의 의상을 입은 거냐?"라고 하자 그들은 일부러 이런 색상의 의상을 찾은 거라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시장에서 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왜 이런 색상을 고른 것이냐? 상부에서 지시했느냐? 상부에서는 여러 가지 단정하고 바른 느낌의 색상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나중에 알아보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다른 색상을 입으면 그다지 단정하고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도, 성도 같지도 않죠. 오직 이 색 계열을 입어야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의상을 입는 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집의 이미지를 잘 대표할 수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모두 이 색상의 의상을 입으라고 한 적이 없다. 단정하고 바른 느낌의 색상은 많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할 때 만든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아라.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있다. 유독 너희가 몸에 걸친 그 색이 없는데 어째서 그 색을 고른 것이냐?" 이런 일에 대해, 리더가 구체적으로 점검 사역을 했겠느냐?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장담한다. 만약 리더가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했고,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했다면, 영화 제작팀 사람들이 그런 의상을 골라 상부에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래 하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상 문제조차 거짓 리더는 해결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상부에 가져와 물어보았다. 이런 사람은 책망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가장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는 정말이지 폐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증거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욕되게만 하는구나. 너는 아는 게 무척 많은 것 아니었느냐? 숱한 지식과 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말한 그런 지식과 도리가 왜 여기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냐? 왜 의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한 것이냐? 너는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을 하였느냐? 리더가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이다. 거짓 리더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원칙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치우치게 이해하는 어떤 문제도 제때 바로잡거나 해결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방향과 길을 찾도록 해 주지도 못한다. 그는 글귀와 도리를 말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도 할 수 없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떤 거짓 리더는 구체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무적인 일을 하고는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자기 직책 범위 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매우 진지하게 공을 들여서 그럴듯하게 한다. 예를 들어 보자. 교회에

제과사였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기어코 나에게 과자를 구워 주겠다며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바로 만들 준비를 했다. 그가 리더에게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자 리더는 "만드세요. 맛있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맛없으면 우리가 먹죠."라고 했다. 리더의 위임을 받아 사역에 명분이 생기자 그는 재빨리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구워 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맛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지, 하나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해결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시간과 자신의 몸을 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좀 감수하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맛을 보고 하나님 대신 점검하는 거죠. 만약 정말 맛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드시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저희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 리더인 우리가 이걸 점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책임감' 있는 리더급인 사람들이 모두 맛을 봤다. 맛을 본 후에 다들 평가를 했다. "이번 거는 오븐의 불이 너무 세서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먹으니 상초열이 나는 데다가 약간 쓴맛이 납니다. 이건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책임지는 태도로 구워서 맛을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만들어 맛을 본 후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크림 맛과 계란 향이 느껴지고, 참깨도 있어요. 역시 제과사답네요! 이렇게나 많이 구워서 하나님 혼자 다 못 드시니까 작은 통에 10 개나 20 개쯤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 맛보시게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맛있다 하신다면, 다음에 더 많이 구웁시다." 그들은 나에게 한 통을 가져다주었고, 나는 두 개를 먹어 봤다. 그러고는 이런 과자는 맛이나 좀 보면 되고, 밥 대신 먹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해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은 한 집안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라 사랑하는 마음, 충성심, 경외심이 가득 담겼기에 비록 맛은 그저 그럴 수 있지만 의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나는 그 통을 그들에게 돌려줬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걸 먹고 싶지도 않다. 게다가 만약 내가 과자가 먹고 싶다면, 시장에서 각국의 다양한 맛의 과자를 살 수 있고, 돈도 얼마 안 든다. 나중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마음은 잘 받았지만, 다음에는 하지 마라. 난 안 먹는다. 먹고 싶으면 내가 직접 사겠다. 만약 필요하면 만들라고 할 테니 그때 만들어라.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 매우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만약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고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니, 만들지 말라면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또 과자를 두 통 보내왔다. 내가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그들은 "이번 것은 지난번 것과 다릅니다."라고 했다. 내가 "달라도 과자인 건 마찬가지지. 과자라면 만들 필요 없다. 말로만 사양하는 게 아니다. 먹고 싶었으면 너희에게 말했겠지. 너는 어째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냐? 다시는 만들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만드는 사람은 도무지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만약 리더가 이 일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가 이 일을 하도록 협조하거나 격려하지 않았다면, 제때 그를 제재할 수 있었다면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또 섣불리 만들 수 있었겠느냐? 최소한 이렇게 대놓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리더들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다 참견하고 책임지며 나 대신 점검하려 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 일이 그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겠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 원칙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가 없으며, 나도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다. 이 일은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이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들이 어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인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그들이 점검, 검사, 독촉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주방에서 나 대신 과자나 맛보았다. 게다가 이 일에 꽤나 진지하고 공을 들였다. 이는 거짓 리더가 하는 짓 아니겠느냐? 이 자체로 이미 매우 역겹지 않으냐? 뜻밖에도 얼마 후 이 일이 또다시 반복됐다. 과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또 나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한 리더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네가 이 일을 해결해라. 반드시 그에게 분명히 말해라. 만약 그가 또 만든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교회 사역이 그렇게나 많아 어떤 일이든 한동안 바쁠 텐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한가한 것이냐? 여기에 살을 찌우려고 온 것이냐, 아니면 잡담이나 하려고 온 것이냐? 여기는 살찌우거나 잡담하는 곳이 아니다. 그 후에는 이 일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 내가 이 일을 지시하고 나서 그 리더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그런 소소한 간식을 보내 주지 않아 한시름 놓게 되었다. 이 일을 봤을 때, 그 리더들은 본연의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일은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도 있다.

나는 자주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그곳의 리더들을 만나 몇 가지 사역을 지시하고 몇몇 문제들을 해결한다. 때로는 정오에 그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밥을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 리더들은 매우 책임감이 강해서 자칭 요리사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요리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다는 것이다. 난 음식 본연의 맛을 좋아하니, 너무 짜거나 기름져서는 안 되고, 너무 자극적이어도 안 된다. 겨울에는 따뜻한 걸 먹어야 한다.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야지 설익혀서는 안 되고, 소화가 잘되어야 한다." 이 몇 가지 원칙들을 내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하기 쉽지 않으냐? 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 만약 어떤 가정주부가 3~5 년 동안 밥을 했다면, 이 몇 가지 원칙을 확실하게 알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밥을 해 줄 때 굳이 요리사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평범한 집밥을 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리더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굳이 '요리사'를 찾아 밥을 해 나를 대접하려 했다. 요리사가 정식으로 나를 위해 밥을 하기 전에 리더는 점검도 해야 했다. 어떻게 점검하겠느냐? 그들은 요리사에게 한 끼는 만두, 한 끼는 다루멘(打鹵麵)을 만들게 했고, 또 몇 가지 요리를 하게 했다. 그러고는 리더와 리더급 사람들이 다들 책임지고 맛을 봤는데, 모든 음식의 맛이 다 괜찮다고 생각해 결국 이 요리사에게 나를 위해 밥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 리더가 맛을 본 결과가 어땠는지, 그 내면에 있는 문제의 성질은 무엇인지는 일단 차치하고, 이 요리사가 한 밥이 어땠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 처음 갔을 때는 요리사가 만든 몇 가지 요리를 다들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다. 두 번째 갔을 때, 이 요리사는 만두를 빚었다. 나는 첫 번째 만두를 먹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약간 매웠는데, 옆 사람도 좀 매워서 혀가 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은

만두뿐이라 매워도 다 먹어야 했다. 만두소에서 고추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매운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그냥 그렇게 다 먹었다. 그 결과 저녁에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다. 온몸의 여러 군데가 몹시 가려워서 계속 긁어야 했고, 피가 날 때까지 긁으니 겨우 좀 나아졌다. 이렇게 3 일간 가렵다가 비로소 조금씩 괜찮아졌다. 이렇게 알레르기를 겪고 나서 나는 만두소에 분명 후추를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매울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못 먹으니까 후추와 같은 매운 재료를 넣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잔뜩 넣어 버렸고, 이미 정상적인 보통 양을 훌쩍 뛰어넘어서 먹을 때 고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요리사가 밥을 하면서 이런 비율조차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이 먹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후추를 넣은 것이다. 나중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못 먹으니, 두 번 다시는 절대 그런 매운 재료를 넣지 마라. 너에게 정말 인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자신을 위해 밥을 할 때는 네가 무엇을 먹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만약 네가 나를 위해 밥을 한다면 넣지 마라. 내 요구 기준대로 해야 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리더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안타깝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한번은 또 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요리사가 또 후추를 들고 넣으려 하자 옆 사람이 이를 보고 제지해서 엄격한 감시 덕에 넣지 못했다. 리더가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요리사가 밥을 할 때는 매우 적극적으로 맛을 보았으며, 여러 사람들이 다들 맛을 봤다. 다 집밥인데 무슨 맛볼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냐? 네가 전문적인 미식가라도 되느냐? 네가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뭐든지 다 알기라도 한다는 것이냐? 네가 건강의 원칙을 아느냐? 하나님 집에서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안배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나 대신 음식을 맛보라고 당부하거나 부탁한 적이 있느냐? 너무나 이성이 없고, 염치라고는 전혀 없다!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노골적이고 역겹고 이성이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몇몇 사람들이 염치가 전혀 없음을 말해 준다. 나 대신 음식을 맛보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 준 그 몇 가지 원칙을 너는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떤 음식이 맛있거나 너희의 입맛에 맞으면 요리사에게 그 음식을 하게 하다니, 그것이 나를 위해 밥을 한 것이겠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 밥을 한 것 아니겠느냐? 너는 이런 식으로 리더를 하는 것이냐? 모든 기회를 잡아 실속을 차리고 빈틈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나의 환심을 사려 하는데, 네가 나의 환심을 사려거든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나 마라! 이는 부도덕한 것 아니겠느냐? 마음이 삐뚤어진 것 아니겠느냐? 몰염치하고 마음이 삐뚤어졌으면서도 자신이 충성심이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 이 몇 가지 일 중에 리더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없고, 자신조차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은 줄도 모르면서 내 앞에서 건강 전문가나 미식가 행세를 하려 한다! 나를 위해 밥을 할 때는 반드시 네가 점검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느냐? 교회에 이런 규정이 있느냐? 하나님 집에서 이런 지침을 하달하였느냐? 교회의 각종 사역에 아무리 많은 허점이 생기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해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방이라는 작은 공간에만 공을 들이고 '책임'을 다한다. 이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거짓 리더이고,

외식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점검하다니, 네가 뭘 아느냐? 네가 나에게 물어봤느냐? 네가 말한 것이 도대체 너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뜻이냐? 만약 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한 것이라면 네가 한 것이 맞다. 이는 너의 책임이다.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고 너의 뜻인데, 네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따르고 받아들이게 했다면, 이는 어떤 성질이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가 이 일을 역겨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는 내가 무엇을 먹고 요구하는지 나에게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뒤에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했다. 나를 대표하려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는 것이며, 영적인 척하고,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는 척하고, 진리를 깨달은 척하며 외식하는 짓만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충분히 지나치지 않으냐? 이미 매우 역겹고 혐오스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식견이 넓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공과를 좀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다 역겹지만, 이보다 더 역겨운 것도 있다.

올해 겨울,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예쁜' 거위 털 외투를 사 주었다. 예쁜 이유는 그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매우 비싸고 고급스러운 좋은 옷이었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말 중에 "천 리 밖에서 거위 털을 보내왔으니 선물은 보잘것없으나 그 정성이 갸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옷은 정성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매우 비쌌다. 그 옷을 보기 전에 나는 이미 그 옷이 매우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으며, 빨간색이고, 만져 보면 매우 도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실물을 봤다는 것이다. 즉, 이 옷을 많은 사람이 이미 보았고, 얼추 대보았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이다. "이 브랜드, 저도 알아요.", "이 색 괜찮네요. 아주 예뻐요.", "다 보고 나면 저에게도 보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소문이 돌다가 내 귀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제야 겨우 이 정도의 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너희가 들어 보아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아직 그 옷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내 물건을 돌아가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관람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내 물건이 아무나 멋대로 보고, 만지고, 관람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누구의 물건을 아무나 멋대로 만지고 보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물건은 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은 공인입니다. 보세요, 사회에서는 유명인과 연예인의 사생활도 전부 노출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운동하는지, 어디에서 미용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명품 브랜드를 입는지 전부 노출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인이냐? 나는 유명인이 아니고, 너 또한 나의 팬이 아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평범한 사람이고, 피조물이며, 패괴된 사람이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공인이 아니니, 모든 일을 너에게 노출하고 보고하여 네가 알게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의 물건을 건드리느냐? 그렇게 하면 역겹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봐 달라고,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하였느냐?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히 이렇게 대놓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보고는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린다. 네가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느냐? 너에게 그런 의무가 있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와 나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네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지 너의 가정 상황, 생활

형편, 경제 상황이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친한 사이이냐? 나는 너의 단짝 친구도 아니고, 절친도 아니며, 전우도 아니다. 우리는 아직 무슨 물건이든 보여 주어야 할 정도로 친하지 않다. 너라면 너의 물건을 다 나에게 보여 주고, 모두가 구경하고 만지도록 전시하겠느냐? 시장에 가서 아무거나 사서 집에 가져와도 몇 번이나 씻고 소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진 물건이라면 역겹지 않겠느냐? 너무 격의 없이 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남의 옷을 점검하라고 누가 너에게 부탁하기라도 하였느냐? 상대가 너를 믿느냐? 함부로 남의 옷을 만지다니, 손은 깨끗이 씻었느냐? 상대가 너를 역겨워하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느냐? 어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너무 이성이 없다! 너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어째서 이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냐? 함부로 하나님의 제물을 열고, 함부로 남의 옷과 물건을 만지다니, 이는 무슨 문제이겠느냐? 그 물건들의 포장이 다 벗겨져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일이 역겹고, 이런 사람들을 혐오한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이러한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과는 더더욱 함께 지내고 싶지 않다! 기억해라,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이 있으며, 나는 더더욱 존엄성이 있다. 내게 속한 물건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혐오하고 몹시 미워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거짓 리더는 별다른 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또 대단히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 리더를 가장 증오하는 부분은 바로 눈앞에 실질적인 사역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악인이 교란하는 것을 보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겉면의 사무적인 일들만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몇몇 지엽적이고 소소한 일들은 예의 주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리 원칙을 위배하는 각종 일들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진리와 관련이 없는 일들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교회의 각종 사역과 관련된 진리 원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리더 일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늠해 본다면, 거짓 리더는 대단한 멍청이고 바보이다. 교회 사역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설령 그들 눈앞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 결국은 상부에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리더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분명 거짓 리더이다. 예를 들어, 교회 문서 사역의 경우 어떤 책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책을 번역해야 하는지, 이런 사역은 모두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니, 어떻게 정리하고 번역해야 하는지, 원칙이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역은 매우 엄격한 원칙이 있고 너무나 원칙적이라서, 구체적인 교제와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런 사역을 할 줄 모른다. 그는 형제자매들이 본분 이행으로 바쁜 것을 보고는 가식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문서 사역과 번역 사역은 특히 중요하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면, 거짓 리더는 "이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외국어 번역에 문외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 보세요."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언어는 적합한 번역가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거짓 리더는 또 "이 일은 제가 문외한이니,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세요."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핑곗거리로 자신이 사역을 하지 않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저는 문외한이라 업무를 모릅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사역 방식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짓 리더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세요. 저는 업무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라고 한다. 매우 겸손해서 자신이 부족하고 업무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리더의 사역을 전혀 할 수 없다. 물론, 리더라고 모든 분야의 업무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과 관련된 업무 문제이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원칙은 명확하게 교제해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 원칙을 알게 되면, 문제도 그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거짓 리더는 "저는 문외한이라 업무를 모릅니다."라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원칙을 전혀 교제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거짓 리더가 항상 "저는 문외한이라 업무를 모릅니다."라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는 리더의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사퇴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가 이런 이성이 있겠느냐? 그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는 '왜 내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난 매일 예배를 드리느라 바빠서 밥도 제때 먹지 못했고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 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교제해 주었고 하나님 말씀도 찾아 줬단 말이야.'라고 생각한다. 네가 "사람들이 어떤 언어는 적합한 번역가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해결했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업무를 모르니 그들 스스로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했죠."라고 대답한다. 또 그에게 "그 문제는 제물의 지출 및 교회 사역의 진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결정할 수 없으며 당신이 결정을 내려 주고 진리 원칙을 찾아 해결해야 해요. 당신은 그렇게 했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왜 안 했겠어요? 어떤 사역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 언어의 번역가를 찾지 못하면, 다른 언어를 번역하면 되죠!"라고 말한다. 보아라,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면서도 많은 이유를 늘어놓는다.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뻔뻔하다! 자질이 그렇게 부족하고, 업무도 전혀 모르며, 모든 업무적인 사역과 관련된 진리 원칙도 모른다. 그렇다면 너라는 리더를 둬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이지 바보고 식충이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너는 왜 교회 리더를 하려는 것이냐? 이것은 이성이 없는 것이다. 네가 자신을 정확히 모른다면, 하나님 선민의 반응을 듣고 자신이 리더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그런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 리더를 해도 교회 사역을 얼마나 많이 지체시켰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의 추악한 몰골이다.

너희가 리더 일꾼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아라. 내가 말한 것들과 일치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자가 없느냐? 그가 거짓 리더임을 네가 분별할 수 있느냐? 만약 그가 거짓 리더임을 분별해 낸다면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그를 리더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일반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정확한 실행 원칙이다. '이는 그가 거짓 리더라서 차별하고, 폄하하고, 배척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며, 그저 글귀와 도리, 빈말로 얼버무리고 둘러댈 줄만 안다. 이는 너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바로 그가 너의 리더가 아니니 사역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에게 물어볼 필요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그를 건너뛰고 상부에 보고하거나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된다는 것이다. 실행의 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어떻게 할지는 너희에게 달려 있다. 나는 모든 리더가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 네가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고, 설령 그가 거짓 리더임을 분별해 내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어떻게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지에 대해 교제하고 있다. 그가 거짓 리더임을 네가 분별해 냈을 때, 그의 옳은 말과 진리에 부합하는 말은 네가 받아들이고 순종해도 되지만, 만약 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버무리고 둘러대기까지 해서 사역 진도에 지장을 준다면 너는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너희 스스로가 원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원칙에 따라 하고, 만약 파악할 수 없거나 확신하지 못해 원칙을 확정할 수 없다면 진리를 구해 의논해 가며 해야 한다. 만약 의논했는데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상부에 보고하고 물어봐야 한다. 이는 모두 좋은 해결 방법이며, 해결하지 못할 난제는 없다.

오늘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다음에 만나자!

2021 년 1 월 16 일

리더 일꾼의 직책(3)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2)

지난번 예배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2 조에 대해 생명 진입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교제하였으며, 거짓 리더의 행동 방식과 모습을 폭로하였다. 그런 다음 리더 일꾼의 직책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와 관련된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 몇 가지 일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 행동 방식, 모습을 통해 거짓 리더의 '거짓'이 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즉 거짓 리더가 리더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폭로하고 해부하였다. 그렇다면 모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서적을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짓 리더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빈말과 도리만을 이야기했으며, 진리 원칙도 구체적으로 교제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서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 사역과 관련된 업무 측면의 요구 및 구체적인 원칙과 주의 사항을 모두 명확하게 교제하지 않았다. 그저 구호나 좀 외치고 빈말만 좀 하고는 사역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 거위 털 외투를 사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에서 거짓 리더의 어떤 측면의 문제를 폭로하였느냐?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인성의 이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폭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옷을 사 줬고, 리더가 점검하는 것을 도왔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 아닌데도 그들이 했다. 이는 어떤 문제이겠느냐? (본연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거짓 리더의 모습 중 하나이다. 먼저 거짓 리더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폭로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이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이성과 인성이 없는 일들만 하는 것을 폭로하였다. 너희는 사례만 기억하고 있을 뿐,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 해부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아직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거짓 리더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측면에 관해 또 어떤 예를 들었느냐? (과자를 만든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 번 과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리더 일꾼은 그가 계속 만들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맛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거짓 리더의 어떤 문제를 폭로하였느냐?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사역은 하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리더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으며, 사역의 중심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로 폭로하였다. 이 밖에도, 거짓 리더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어떤 문제이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역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영적인 척하고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 또한 한 측면의 문제이다. 또 있느냐? (그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합니다.) 이는 이성이 없는 범주에 속한다. 또 있느냐? (거짓 리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옷을 사 드린 일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에게 정상적인 인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인성의 어떤 측면이 없는 것이겠느냐? 예의와 교양이 없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실 너희가 말한 이런 것들은 전부 부차적인

것들이다. 주요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이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지위의 복과 특별 대우를 누리고 싶어 하고, 편안함을 탐한다는 것이다. 과자를 좀 먹거나 누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을 보면 맛을 보고 게걸을 뗄 궁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역겨운데, 거기에 더해 편안함과 식욕을 탐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을 위해 맛을 보고 점검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식욕을 충족시키고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 리더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에 비하면 이런 모습들이 흉악하거나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인성 또한 사람들이 역겨워하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인품은 양심과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성이 매우 비열하고 야비하며, 인격이 저열하다. 이 몇 가지 예를 통해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실이다.

거짓 리더는 사역 원칙을 교제하지 못한다

오늘은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과 연계해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을 폭로하겠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교회 사역은 거의 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무적인 사역만 한다. 교회 전체 사역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실제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교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늘 다루는 상투적인 주제이자 항상 이야기하는 글귀와 도리로, 무척 공허하고 모호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모두 사람이 문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사람의 관념과 상상, 그리고 사람이 표출하는 패괴 성품을 거짓 리더는 더더욱 해결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음 사역, 영화 제작 사역, 문서 사역과 같은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중요한 사역을 그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 지식과 관련된 사역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문외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배우지 않고,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으며, 구체적인 지도는 더더욱 하지도 못한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뻔뻔하게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장황하게 글귀와 도리를 말한다. 거짓 리더는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전문가인 척하고, 잘난 척하며, 큰 도리를 들먹여 가며 사람들을 꾸짖는다. 누군가가 질문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유와 핑계를 찾아내 왜 업무를 배우지 않냐며, 왜 진리를 구하지 않냐며,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냐며 꾸짖는다. 이러한 문외한인 거짓 리더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꾸짖는다. 겉으로는 매우 바빠 보여 마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능력도 뛰어난 듯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리더는 분명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예배에서 늘 하는 그런 말들만 하루 종일 이리저리 되풀이할 뿐,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나 싫어하고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사역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교회 사역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지체된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자신이 많은 사역을 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어떤 측면의 교회 사역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범위 내의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하며, 각 팀의 팀장과 책임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요컨대,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척 바쁘게 움직인다. 매일 바쁘게 일하느라 끼니때마다 누군가 불러야 하고 저녁 늦게서야 휴식을 취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고생도 하고 기꺼이 대가도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역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진지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각각의 사역을 전부 하고 있으며, 본분을 이행하느라 바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고, 진지하게 따지며, 사역을 진지하게 검사하면 그들이 책임지는 범위 내의 모든 사역이 다 엉망진창이며, 체계와 질서가 없고, 각각의 사역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허점도 있다는 것이 전부 탄로 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거짓 리더가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면서 관념, 상상, 열정에 따라 일 처리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거짓 리더는 진리 원칙을 전혀 교제하지 않으며,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한 적도 전혀 없다. 분명 자신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 리더의 사역을 할 수 없고, 글귀와 도리만 말할 줄 알 뿐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전문가인 척한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사역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멋대로 규례에 끼워 맞추고, 쓸데없이 바쁘기만 하지 실제 성과는 없다. 거짓 리더들은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글귀와 도리만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권면할 줄만 알기 때문에 그 결과 교회의 각종 사역이 더디게 진척되고 뚜렷한 성과가 없게 된다. 거짓 리더가 일정 기간 사역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며, 누가 패괴를 표출하든, 누가 관념이 생기든 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본분 이행에서 지켜야 할 진리 원칙은 더더욱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흩어진 모래처럼 해이하고 자유분방하며 산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글귀와 도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본분을 이행할 때 규례만 지킬 줄 알 뿐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줄은 모른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 자신도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에 직면하든 거짓 리더는 그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요!", "충성심을 가지고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 원칙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할 줄만 안다. 거짓 리더는 항상 이런 구호와 도리를 외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으며,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도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실행할 길도 없다. 겉으로는 무슨 일이 닥치면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충성심을 갖고 본분도 이행하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심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구해야 진리 원칙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거짓 리더에게 물어보면, 거짓 리더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진리를 많이 교제하세요."라고 한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역과 관련된 원칙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그는 "업무에 관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없어서 저도 모릅니다. 알고 싶으면 저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지, 업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말로 둘러댄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만 어떻게

진리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떻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거짓 리더가 책임지는 범위 내 각종 사역의 성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식, 학문, 은사에 의지해 사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본분 이행의 원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더 큰 성과를 냄으로써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도를 알아보고 하루빨리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 못한다. 어째서 알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주된 원인은 바로 거짓 리더 자신조차도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사람이 깨달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일 처리에 원칙이 없으며, 또한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원칙과 길을 찾도록 인도하지도 않는다. 그는 문제를 발견해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종 사역에서 재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재정과 물자를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와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거짓 리더의 형편없는 자질 및 무책임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비록 거짓 리더가 일부러 악을 행하고 교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 리더가 사역할 때 진리 원칙을 전혀 구하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일 처리를 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확실하다. 거짓 리더는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진리 원칙을 명확하게 교제할 수도 없으며, 그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한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역 책임자들이 어느 틈에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 실제적인 성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거짓 리더는 교체된 후에도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이치를 따지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 심지어 반드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집에 요구하기까지 한다. 너희는 이 말을 믿겠느냐? 그가 전혀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의 행동 방식이 바뀔 수 있겠느냐? 그 자신도 진리 실제가 없는데 사역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이번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거짓 리더는 사역 능력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때로는 고생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헛수고이며 성과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거짓 리더가 자질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사역에 많은 문제가 생겨도 진리를 교제해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허한 도리로 사람들을 권면해 규례를 지키게 할 뿐이다. 결국에는 사역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사역 방식과 그 결과이니, 모든 리더 일꾼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에 나타난 각종 불만족스러운 문제는 거짓 리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거짓 리더들은 본래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깨달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상상과 관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진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알지 못해도 절대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리더 일꾼을 접해 왔다. 그들과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는 사역할 때 존재하는 문제를 기록하였느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느냐?" 내가 질문을 마치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마음속으로 의아해했다. '우리가 리더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 사역이 진작에 마비되지 않았겠어?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 들고 있어. 이렇게나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데 아직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이건 우리를 얕보시는 게 분명해.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면 리더가 아니지. 이런 질문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나 하는 질문이야!' 내가 매번 그들에게 문제가 있냐고 물을 때마다 이들은 늘 이런 상태였으며, 하나같이 무감각하고 우둔한 모습이었다. 교회의 각종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가 무척 많은데도 이들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개인의 생명 진입 측면의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고, 사역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지 못한다. 그들이 제기하지 못하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번역 사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느냐? 지금 몇 가지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지 아느냐? 어떤 언어를 먼저 번역하고, 어떤 언어를 나중에 번역하느냐? 어떤 언어의 하나님 말씀 서적을 몇 부나 인쇄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아, 번역 중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또 "어느 정도 번역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제가 알지 못해서 물어봐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일들도 내가 그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그동안 무슨 사역을 했다는 것이냐? 내가 "지난번 형제자매들이 질문한 문제는 해결하였느냐?"라고 묻자 "저는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예배를 마친 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라고 묻자 "문제가 존재한다면 다시 예배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라고 했다. 내가 "너에게 예배 모임을 가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업무 측면에 존재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원칙을 이해했는지,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을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네가 무슨 문제를 발견한 게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라고 하자 그는 "아, 문제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가졌거든요."라고 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어 나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 화가 나지 않겠느냐?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리더이냐? 얼간이이고 영적인 척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들은 리더 일꾼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눈뜬장님일 뿐이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물어봐도 그저 "어쨌든 저는 예배를 드렸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만 한다. 이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였느냐? 기준에 맞는 리더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리더이다. 너희는 이런 리더를 좋아하느냐? 만약 이런 리더를 만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떤 리더는 형제자매를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은 우선 어떻게 해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교제합시다."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본분을 이행하는 데 기술 업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 사이에 유행하는 기술 업무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리더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만약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해도 여전히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리더가 해결해야 한다. 이는 리더의 직책과 관련된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런 일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업무 측면의 일이자

여러분 자신의 일인데,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교제하십시오. 제가 우선 여러분과 예배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에 대해 교제할 건데, 여러분이 방금 질문한 문제가 바로 조화로운 협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함께 의논하고 교제하며,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아무도 독선적으로 굴지 않으며, 무슨 결정이든 다수가 찬성하기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롭게 협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조화롭게 협력할 줄 모르고, 일이 닥쳐도 의논할 줄 모르며, 무슨 일이든 다 물어보기만 합니다. 물어보기는 뭘 물어봅니까? 저라고 알겠습니까? 제가 안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저에게 물어보는데, 이 일이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진리 교제를 책임질 뿐이니, 업무와 관련된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과 교제해서 조화롭게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내지 못한다면 이 본분을 이행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제를 마쳤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 리더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느냐? (해결할 줄 모릅니다.) 그는 해결할 줄 모르면서 매우 당당하고 책임을 매우 잘 회피한다. 사역도 했고, 현장에 가서 검사도 했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할 수 없고, 실제 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너희는 이런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아느냐? 무슨 문제에 직면하든 관련 진리를 교제하지 못하고, 전부 공허한 도리와 이론만 이야기한다. 게다가 매우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으로 말해 사람들이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한 사역이다.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는 사역에서 거짓 리더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는 진리 원칙을 교제할 줄 모르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이 진리 실제를 깨닫고 진입하도록 인도하지 못해 리더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도 수시로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약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아서 각각의 사역에 엄청난 교란과 손해를 끼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4 조에서 폭로하려는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이다.

제 4 조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각의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

리더 일꾼은 반드시 각 사역의 책임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4 조는 무엇이냐?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각의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입니다.) 맞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조항 중 리더 일꾼의 주요 직책에 대해 모두 분명히 알았느냐? 리더 일꾼은 반드시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에 대해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각 사역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가장 기본은 교회 리더이다. 그다음으로는 각 팀의 책임자와 그룹의 그룹장이다.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들이 진리 실제가 있는지, 일을 처리함에 원칙이 있는지,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하지 않으냐? 리더 일꾼이 각 사역 주요 책임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원들을 제대로 조정한다면 그것은 각 사역의 관문을 잘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과 같다. 이 인원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의 사역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인원들이 인성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이 있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고, 또한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역을 그들에게 책임지도록 맡기면 많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주로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각 팀 책임자가 믿을 만하지 않고, 인성도 나쁘고, 착실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는 사람인 데다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들까지 저지를 수 있다면, 그가 맡은 사역과 그가 이끄는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그 영향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책임자가 단지 직무를 소홀히 하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역이 다소 지체되고, 진도가 약간 더디고, 효율이 좀 낮은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것은 사역 성과나 효율이 다소 낮은 문제가 아니다. 그가 책임진 교회 사역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리더 일꾼이 미뤄서는 안 되는 직책이자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사역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인품, 그들이 진리와 본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각 시기와 단계별 그들의 내적 상태와 모습을 제때 알아보고, 또한 상황에 따라 제때 조정하거나 처리한다면, 이 사역은 안정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이들이 교회에서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데도 리더 일꾼이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조정하지 못하고, 여러 심각한 문제가 폭로되어 교회 사역이 심각한 손해를 입은 후에야 건성으로 처리하고 조정하고 바로잡고 만회한다면, 이런 리더 일꾼이 바로 쓸모없는 사람이며 영락없는 거짓 리더이니, 반드시 교체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방금 각종 사역 책임자의 실제 내적 상태와 그 사역 성과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교제하였다. 이러한 실제 상황을 통해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했는지를 가늠하고, 그들이 바로 거짓 리더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폭로함으로써 거짓 리더의 본질을 해부하였다. 교회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거짓 리더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제때 발견하지도 못하고, 제때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교회 사역이 지체되거나 파괴되고, 심지어 마비되거나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교회 사역 현장에 가서 살펴본다. 하지만 여전히 상응하거나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끝내 버린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주요 모습이다.

각 사역의 책임자를 선발하는 기준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종 중요한 사역의 담당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략 알고 있지 않으냐? 예를 들어, 미술 디자인 사역의 책임자는 우선 무엇을 갖춰야 하겠느냐? (이 분야의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 이는 한 측면의 이론이다. 그렇다면 이 업무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설명해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미술 디자인에 관심이 있지만, 미술 디자인 전공이 아니고 미술 디자인 지식도 알지 못하며 그저 좋아할 뿐이라면, 이런 사람을 미술 디자인팀 책임자로 선발하는 게 적합하겠느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면 그 분야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죠."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제외한다. 즉, 미술 디자인팀의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의 업무를 알지 못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빨리 배운다면, 그를 선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만약 미술 디자인을 하는 모든 사람 중에 그 사람만 업무를 모르는데 그가 진리를 깨달았고 미술 디자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를 선발한다면, 이것이 적합하겠느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그가 첫 번째 혹은 유일한 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책임자를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발해야 하겠느냐? 업무에 가장 정통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반드시 전문가여야 하고, 업무 능력과 사역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전문가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이 외에도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하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적어도 기초가 있어야 한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사역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업무를 알아야 한다. 셋째, 반드시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하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항목에 따라 각종 사역의 책임자를 선발해야 한다.

각 사역의 책임자를 대하는 거짓 리더의 모습

각종 구체적인 사역의 책임자를 선발한 후에도 리더 일꾼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정 기간 양성하고 훈련하며 선발된 사람이 과연 사역을 감당하여 사역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래야 비로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너는 이 사람이 업무를 알고 있고, 사역 능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부담도 있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준에 맞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원칙은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집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알려 줄 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되겠느냐? 책임자를 안배하고 나면,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만약 리더가 그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진리를 좀 교제하고는 그것으로 끝이라면, 사람은 모두 자각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그동안 업무 기술을 파악했는지, 하나님

집에서 그들에게 지시한 사역을 어느 단계까지 완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마땅히 취해야 하는 방식이겠느냐? (아닙니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는 일을 한 번 처리하면 그 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책임자를 안배하고 또 몇 명의 팀원으로 팀을 하나 만들고는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설비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로 사항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모두 얘기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언제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사역에 집중하세요.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마시고, 누구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거짓 리더는 이 몇 사람을 한 곳에 안배하고는 이들이 먹고 마실 것도 있고 묵을 곳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상부에서 "그 사역의 책임자를 선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역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선발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10 번 정도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 정신 상태도 괜찮아 보였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 책임자의 사역 능력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선발 당시에 그가 가장 뛰어났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예배 모임을 가졌는지 묻는 게 아니라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라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가 나쁘다고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가 나쁘다고 보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사역 능력과 업무 능력이 어떤지를 봐야 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역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는 "선발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고, 요즘은 그런 세부 사항을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 하부를 대할 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교제했다 하면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상부를 대할 때는 얼버무리고 둘러댄다. 둘러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저는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사역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상부에 대응한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였느냐? 실제적인 문제를 발견하였느냐? 해결하였느냐? 책임자를 안배한 후, 책임자가 책임을 다했는지, 충성심이 있는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형제자매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거짓 리더는 전혀 알지 못한다. 왜 모르겠느냐? 그가 이런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사역을 늘 이런 식으로 감독하고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는 것으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주요 모습이다.

1.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 내 각종 사역 책임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거짓 리더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파악하거나 알아보거나 처리하거나 해결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책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겠느냐? 첫 번째 상황은 책임자가 부담이 없으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기만

하며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역 능력이 있고, 업무에도 정통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말도 매우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게다가 머리도 좋아서 그에게 일을 지시한 후 다시 반복해 보라고 하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총명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좋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햇수도 적지 않아서 그를 책임자로 선발했지만, 이 사람이 착실하게 일을 하는지,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두가 그를 선발했으니, 우선 그를 발탁해 양성하고 시험 삼아 써 보았다. 그런데 얼마간 사역하고 난 후, 이 사람은 비록 업무 능력이 있고 경험도 있지만 먹는 것만 밝히고 게으르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사역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 그의 지도가 필요해도 신경 쓰기 싫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뭘 먹을까? 주방에서 오랫동안 훙사오러우(紅燒肉)를 해 주지 않았네.'라는 생각부터 했다. 평소에도 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 고향의 먹거리는 정말 맛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리에 나가 먹거리를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주말만 되면 저절로 깰 때까지 자다가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한 채로 바로 밥을 먹었지요. 오후에는 잠옷을 입은 채 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때로는 다음 날 아침 5 시에야 잠자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집의 사역이 여기까지 몰고 와서, 책임자인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편한지 좀 보세요. 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자가 되었으니, 저는 고생을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육을 저버렸느냐? 대가를 치렀느냐? 그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고, 실질적인 사역은 조금도 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등 떠밀어야 겨우 움직였는데, 그것조차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건성으로 대충 했다. 그는 자유롭고 방만하게 본분을 이행했다. 항상 몸을 사리고 농간을 부렸으며,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업무 측면에서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도 바로잡아 주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처럼 건성으로 해야 기뻐했고, 누군가가 사역을 진지하게 하면 오히려 싫어했다. 어떤 책임자는 손에 있는 약간의 일거리를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대충 하고 나서 드라마를 정주행 했는데, 끝도 없이 봤다. 그가 드라마를 정주행 한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내 손에 있는 일을 다 했으니, 하나님 집의 밥을 거저먹는 건 아니야. 나는 그저 기분 전환 삼아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서 사역 효율이 낮아져. 사역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날 좀 쉬게 해 줘.'라는 생각인 것이다. 그는 새벽 2~3 시까지 계속 보고는 아침 8 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밥을 먹고 본분 이행을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었으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간신히 일어났는데, 게으른 몸을 이끌고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다가 모두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게으르게 볼까 봐 이렇게 변명했다. "어제 너무 늦게 잤어요. 일거리와 사역량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밤에 꿈속에서도 어떤 사역을 제대로 못 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손이 여전히 컴퓨터 자판을 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멍해서 오후에 좀 더 자야겠어요." 이렇게 늦게 일어나 놓고 오후에 또 자려고 하다니, 돼지나 다름없지 않으냐? 꾀를 부리는 게 분명한데도 핑계를 대며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해명했다. 본분을 이행하느라 밤을 새워서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분명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육적인 편안함을 즐기며 흐리멍덩하게 살고, 나중에 또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다니, 이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역 능력과 업무 능력은 있지만, 이런 사람이 기준에 맞는 책임자이겠느냐? 분명 그렇지 않다. 그는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다. 너무 게으르고, 육적인 편안함을 즐기며, 먹고 자고 노는 것을 탐하기 때문이다. 그는 책임자의 직책을 감당할 수도, 다할 수도 없다.

늘 인터넷에서 옷, 신발, 화장품, 맛있는 음식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는 드라마를 정주행 하기 시작하는 여자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사역도 아직 다 못 해 놓고 무슨 드라마를 봅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니, 책임자인 당신이 지도해 줘야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하자 그녀는 "제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사역입니다. 하나님 집의 영상과 영화 모두 발전해야 해서 제가 드라마에서 영감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말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감을 얻기 위해 가끔 보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밤낮없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영감을 찾는 것이겠느냐?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존엄을 팔아먹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원래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이 이미 일상적인 생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책임자로 선발되었으니 이런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네가 저버리지 못한다면, 책임자로 선발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했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이라 게임을 했다 하면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아무도 간섭하거나 설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선발한다면 분명 사역이 지체될 겁니다. 그러니 아예 저를 책임자로 선발하지 마십시오." 네가 미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책임자로 선발되었을 때 속으로 기뻐하고 득의양양했다면, 게다가 이 지위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면, 하지만 책임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놀고 싶은 만큼 놀았다면 그것은 부적합하다. 분명 사역을 지체할 것이다.

어떤 책임자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형제자매들이 그를 선발할 때,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의 상황을 잘 몰랐으며,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많은 사람이 젊은이의 그런 나쁜 버릇이나 나쁜 습관은 나이가 들어 가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점차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태도와 견해를 갖고 그를 책임자로 선발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책임자로 선발되고 나서 사역을 조금 하기도 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책임자 노릇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살펴봐야 해. 게다가 마음도 많이 써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써야 해. 이 사역은 쉽지 않아. 너무 피곤해!' 그는 본분을 내팽개치고 싶었다. 너에게 부담이 없으면 책임자의 사역을 할 수 없다. 네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면 기꺼이 마음을 쓰게 된다. 설령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어도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고, 쉴 때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오늘 사역은 잘했나?'라고 생각하게 되며, 갑자기 어떤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게 생각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네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면 늘 사역을 생각하느라 뭘 먹는지, 휴식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만약 책임자가 되고도 부담이 너무 작으면, 그런 열정은 단지

며칠만 지속될 뿐이다.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 사역이 이렇게 힘드니, 뭔가 좀 재미있고 기분 전환할 방법이 없을까? 게임이나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동안은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갑자기 손이 근질근질해서 게임을 하고 싶었다.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 예전에 갖고 있던 얼마 없던 부담마저 게임을 하느라 사라져 버렸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려던 의욕도 사라졌으며, 의지도 사라졌고,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도 사라졌다. 누가 무엇을 물어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꾸짖고 비꼬았으며, 그것도 아니면 건성으로 대충 대하다가 본분을 내팽개치기도 했다. 이 책임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낮에는 간신히 비몽사몽 대충 사역을 했고, 저녁에는 남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게임을 하느라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어쨌든 낮에 사역을 지체하지도 않았어. 내가 해야 할 사역은 다 했고, 다른 사람이 질문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줬어.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하는 것뿐이야. 이 또한 충성을 다한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게임을 하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고 사역 환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책임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겠느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다니, 낮에 사역도 해야 하는데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가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의 사역 효율이 좋을 수 있겠느냐? 분명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책임자는 결코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으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가 업무 능력이 있고 자질도 좀 있다 하더라도 놀기를 좋아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책임자는 교체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체하지 않으면 사역이 지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교체해도 다른 사람의 업무 능력이 그 사람보다 못해서 결국은 그에게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게임을 해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으며,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네가 주요 에너지를 노는 데에 사용한다면, 본분을 이행하는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본분 이행의 성과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무책임하게 본분을 대하는 태도이다. 사람이 온 마음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본분에 쏟아부어도 성과가 반드시 100% 기준에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하물며 마음과 주요 에너지를 모두 노는 데에 쓴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본분 이행에 쓸 수 있는 네 에너지와 마음이 얼마 남지 않아 본분 이행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서 영향은 그저 보수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본분 이행 성과가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책임자를 발견하면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이는 그가 이미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본분 이행이 불합격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사역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고, 사역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 능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아 사역을 담당하게 하면 그보다 낫다.

방금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을 탐하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교제하였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다. 책임자 선발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그가 모든 면에서 다 적합해 보여 형제자매들이 모두 기꺼이 그를 선발했다. 그가 인성이 좋고 열정도 있는 데다가 업무에도

정통하고, 어떤 면이든 다 팀에서 가장 좋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 그가 책임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는 늘 졸았다. 예배 중에도 졸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할 때도 늘 정신이 흐릿한 상태여서 항상 동문서답을 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째서 지금은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 같으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가 다른 사람과 마치 연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했다. 이 일은 점점 더 분명하게 티가 났으며, 이 사람 또한 점점 더 정신이 흐릿해졌다. 그에게 어떤 문제를 물어보거나 무슨 일을 이야기해도 그는 예전처럼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으며 말도 그렇게 뚜렷하거나 분명하지 않았다. 책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도 점점 적게 하였고, 본분을 이행하려는 의욕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치 딴사람이 된 것 같았고, 예전보다 외모를 가꾸는 것을 좋아했다. 이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전에는 사역이 바쁠 때는 샤워도 잘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두 번씩 세수를 하고, 걸핏하면 머리를 빗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또한, 늘 다른 사람에게 "제가 요즘 좀 하얘진 것 같아요, 아니면 까매진 것 같아요? 저는 왜 까매진 것 같지요?"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은 "책임자인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까매졌든 하얘졌든 뭐 어쩌겠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늘 이런 무의미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사역을 할 마음이 사라졌다. 한가할 때마다 옷, 여자, 남자, 사랑, 사람들이 배우자로 어떤 이성을 선택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본분 이행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다. 본분을 이행하는 일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없다. 그의 마음은 하루 종일 어떻게 연애를 할지,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이성에게 어필할지를 궁리하고 있다. 이방인의 말 중에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겠느냐? 그것은 깊은 구렁텅이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집은 배우자를 찾는 걸 간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준다면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남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너희 둘이 나가서 연애를 하라는 것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자신을 봉헌한 사람이라서 연애하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만약 네가 연애하느라 사역할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 본분을 이행하지 마라. 하나님 집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 집의 사역이 너의 연애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계속되겠느냐? 연애하지 않는, 업무 능력이 강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를 따로 선발해 너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시종일관 이렇게 해 왔으며,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책임자는 "저는 연애를 해도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책임자로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겠느냐?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사람이 연애를 하면 머릿속은 온통 연애 상대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이런 일들로 채워져서 예배 중에 늘 졸고,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은 적합하고 원칙에 부합한다. 하나님 집은 너의 연애를 막지 않으며, 네

연애의 자유를 앗아가지 않는다. 네가 마음껏 연애하는 것, 그것은 너 자신의 선택이다.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훌쩍거리며 울지만 않으면 된다. 일부 책임자들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교체되었다. "사람이 연애를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나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집에서 연애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출교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 네가 연애를 한다면, 책임자나 리더 일꾼이 될 수 없다. 또한, 네가 항상 본분을 이행할 마음이 없다면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 나가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출교한다고 말하였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 집은 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전혀 간섭하지 않고, 너의 어떠한 자유도 앗아가지 않는다.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책임자에 대한 하나님 집의 처리 원칙은 바로 그를 교체하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본분을 계속 이행하기에 적합하다면 남겨 두어 써도 되지만, 적합하지 않다면 떠나게 해야 한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으며, 그를 모욕하는 사람도 없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한 것 때문에 면직되거나 일반 교회로 보내지면, 이것이 창피한 일이겠느냐? 이는 단지 네가 본분 이행에 충성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생명 진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줄 뿐이다. 이 책임자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연애에만 몰두해서 교회 사역을 지체했으며, 이미 교회 사역의 진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자는 더 이상 계속 남겨서 쓰기에 부적합하니 면직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면직하기에는 좀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면직되기까지가 하루 이틀이라면 다소 급한 것이겠지만, 만약 3~5 개월이라면 급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 조치는 충분히 천천히 진행되었다. 사역이 얼마나 지체되었는데 너는 어째서 조급하지 않은 것이냐?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책임자에 대해 거짓 리더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자를 선발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후의 사역과 관련된 일은 책임자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지 가끔 예배 모임을 가질 뿐, 사역 상황을 감독하거나 물어보지도 않으며 나 몰라라 한다. 어떤 사람이 한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거짓 리더는 "그건 작은 문제라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문제를 보고한 사람이 "그 사람은 먹는 것만 밝히고 게으릅니다. 먹고 노는 것만 중시하며, 무척 게으르고, 본분을 이행할 때 약간의 고생도 하지 않으려 하며, 늘 꾀를 부리고 온갖 핑계를 대며 사역과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도 거짓 리더는 "처음에 그를 책임자로 선발했을 때는 매우 괜찮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라고 한다. 거짓 리더는 이 책임자의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과거의 인상에 따라 이 일을 판정하고 규정한다. 누가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하든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책임자가 이미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교회 사역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도 거짓 리더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군가가 책임자의 문제를 보고했는데 그가 모르는 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역겹지만,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사람이 책임자의 심각한 문제를 고발했을 때도 그가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이 책임자는 제가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무슨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나 징계하십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관념과 상상에 따라 사역한다. 그는 진리를 깨달은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며, 심지어 사역이 마비되어도 여전히 모른 척한다. 이는 거짓 리더가 너무 관료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니, 팀장과 책임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점검하지도 않으며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는 인상과 상상에 근거해 사람을 보며,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잘할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누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그는 믿지 않으며, 누가 그에게 주의를 환기해 주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이 어리석지 않으냐? 어리석고 완고하다.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이겠느냐? 그는 함부로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선발했을 당시에 그 사람이 맹세하고 다짐하였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니 믿을 만하며 그 사람이 사역을 책임지면 분명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괴된 인류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그는 "책임자로 선발되었는데 나쁘게 변할 리 있겠습니까? 매우 엄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역을 내팽개칠 리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매우 훌륭해요."라고 말한다. 그가 지나치게 자신의 상상과 느낌을 믿는 바람에 결국에는 교회 사역에 수많은 문제가 초래되었는데도 제때 해결하지 못했고, 관련 책임자를 제때 교체하거나 조정하지도 못했다. 이런 자가 바로 영락없는 거짓 리더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건성으로 대충 임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그는 큰 붉은 용이 미친 듯이 하나님 선민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무에게나 사역을 책임지게 안배하고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니 한동안 숨어 있어야겠어.'라고 생각한다. 이는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한편으로, 거짓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상상에 근거해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패괴된 인류의 본질을 어떻게 폭로하였느냐? 하나님조차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는 무슨 근거로 믿는 것이냐? 거짓 리더가 지나치게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볼 리 없어. 내가 적절하다고 본 사람은 아무 착오도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확실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 그는 변하지 않을 거야. 만약 변한다면 내가 잘못 본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슨 논리이냐? 네가 무슨 고수라도 되느냐? 너의 눈이 투시력이라도 있다는 것이냐?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과 1~2 년을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의 본성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는 적절한 환경이 없다면 네가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얼굴을 맞대고 3~5 년 동안 함께

생활해도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기 어렵다. 하물며 자주 만나지 않고 함께 지내지 않으면 더 말할 나위 있겠느냐! 단지 일시적인 인상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 몇 마디로 사람을 함부로 믿고, 교회 사역을 그런 사람에게 섣불리 맡기다니, 이는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니겠느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냐? 윗선 리더 일꾼이 그에게 "당신은 그 책임자의 사역을 검사하였습니까? 그의 인품과 자질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역에 책임감이 있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선발할 당시에 그가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그의 서약서도 있습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리더의 말은 어떠하냐? 그는 그 사람이 맹세하고 다짐했으니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이 성립되겠느냐? 맹세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사람이 맹세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당신이 그 책임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가 평생토록 충성스러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가 믿음직하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에 대해 알아보기라도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거짓 리더는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대체로 그가 믿음직하다고 했습니다."라고 한다. 이 말은 또 틀렸다. 형제자매들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것이냐? 형제자매들이 모두 진리를 지니고 있느냐? 다들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주장은 더 역겹다! 사실 이 사람은 일찌감치 드러났다. 성령 역사도 사라졌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먹는 것만 밝히고 게으르며,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양아치 기질도 이미 전부 폭로되었다. 거짓 리더만 모를 뿐 다른 사람들은 일찌감치 간파했다. 거짓 리더만이 여전히 그렇게 그를 신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짓 리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쓸모없는 자 아니겠느냐? 심지어 상부에서 현지에 가서 시찰하고 알아볼 때 이미 일부 책임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들의 리더는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문제 아니겠느냐? 이 리더가 바로 영락없는 거짓 리더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관료인 것이다. 손 까딱 안 하고 지시만 하면서 사역을 좀 하고는 과거의 공로에 기대 살며,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위의 복을 누리느냐? 정말 뻔뻔하다! 거짓 리더는 사역하면서 결코 사역을 검사하지 않고, 사역의 진척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으며, 각 팀 책임자들의 상황은 더더욱 알아보지 않는다. 그는 사역을 배정하고 책임자를 안배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이 사역에 신경 쓸 사람이 생겼으니, 내가 할 일은 없어. 이제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의심할 나위 없는 거짓 리더이며, 교회 사역을 지체하고 하나님 선민을 해치는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각 팀 책임자들의 사역 상황을 알아보거나 점검하는 법이 없으며, 각 팀 책임자와 각 팀에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진입 상황, 그리고 교회 사역과 본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거나 점검하거나 파악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에게 변화와 발전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역 과정에서 그들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알아보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각 사역 단계에서 드러낸 잘못이나 편차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잘못이나 편차가 바로잡혔는지 등 이런 상황을 거짓 리더는 전혀 모른다.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적이 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각 팀의 책임자를 안배하고 업무를 전달한 후에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사역을 잘 해낸 것과 같다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가 각 팀의 책임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몇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국 교회 사역을 망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무 유기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역할 때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마음을 들여야 한다. 수시로 사역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감독하고 지도해야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거짓 리더는 사역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가 한 번도 각 사역을 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책임자들이 사역 중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여전히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역을 계속 지연시키고 망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 리더가 책임자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감독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초래하는 결과이다. 이는 전적으로 거짓 리더의 직무 유기로 인한 것이다. 거짓 리더가 사역을 검사하거나 점검하거나 알아보지 않아서 제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실질적인 사역을 했는지, 일이 대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실제 성과가 있는지와 같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에게 책임자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물으면 그는 "모릅니다. 매번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 사람과 사역에 관해 말할 때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 별말 없더라고요."라고 대답한다. 거짓 리더는 그 책임자가 본분을 내팽개치지 않고 언제 부르든 즉시 달려오기만 하면, 책임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사역한다. 이것이 '거짓된' 모습 아니겠느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형식적인 면만 중시하지 실제 성과는 구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그가 예배를 자주 드려서 보통 사람보다 더 바쁜 것 같지만,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제대로 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다 미지수이다. 아무도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자신조차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가 사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하루 종일 대체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냐? 그들은 예배에서 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였느냐?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사역을 검사할 때 비로소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겉으로 보면 거짓 리더는 분명 매우 바빠 보여서, 그야말로 '다사다망'하다. 하지만 사역 성과를 살펴보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며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실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거짓 리더는 양심의 지각이 없는 것처럼 전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며 득의양양해한다. 정말이지 이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방금 교제한 이 부류의 책임자들은 업무를 이해하고 사역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부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가 이런 부류의 책임자들을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켜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가 초래한 것 아니겠느냐? 비록 거짓 리더가 이 일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그가 직무를 유기해 감독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사역에 손실을 입힌,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가 된 것이다. 거짓 리더는 감독 직책을 다하지 않았고 직무를 유기하여 결국에는 교회 사역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심지어 일부 사역은 책임지고 점검하고 독촉할 적합한 책임자가 없는 바람에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제각각 흩어져 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잘못 써서 사역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런 부류의 책임자는 비록 자질이 좀 있고 업무도 약간 이해하고 있지만,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종종 가며 바른길을 가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누가 책임자의 문제를 보고하는 것을 들어도 제때 알아보거나 처리하지 않아 결국 교회 사역이 마비되게 한다. 이는 거짓 리더의 무책임함으로 초래된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우매하고 무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니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시종일관 건성으로 대충 사역하고, 누군가가 문제를 보고해도 알아보거나 처리하지 않으며, 또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모습 중 하나이다.

2.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기간에 직면하는 문제는 이 한 가지 상황만이 아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책임자가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거짓 리더는 마찬가지로 제때 알아보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느냐? 거짓 리더가 사역 능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며, 영적인 이해력이 없기 때문이다. 각 팀 책임자가 자질이 어떤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사역을 하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거짓 리더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알아보지도 않는다. 그는 자질이 부족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책임자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속으로 짐작하지 못한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 일단 책임자가 되면 오래도록 변동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많은 악행을 저질러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형제자매들에 의해 파면되거나 누군가가 문제를 상부에 보고해 상부에서 직접 이 사람을 교체하지 않는 한, 거짓 리더는 영원히 교체하지 않는다. 그는 형제자매들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을 선발했으니, 이 사람이 최적의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늘 상상과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책임자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무용팀의 책임자가 춤을 출 줄 몰랐고, 춤을 선정하는 원칙도 알지 못해서 안무를 짤 때 현대 무용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전 무용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엄밀히 말해, 그는

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가 열정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것만 보고는 책임자로 선발했다. 게다가 그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에게 형제자매들을 지도하게 한 후 점검하지도, 살펴보지도 않았다. 그가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가 전문가인지 아니면 비전문가인지, 그가 가르치는 것이 적합한지 또는 하나님 집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거짓 리더는 전부 알아차리지 못했고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이 매우 오랫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야 거짓 리더가 선발한 이 책임자가 춤을 전혀 출 줄 모르면서 전문가인 양 다른 사람을 지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사역을 지체한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 거짓 리더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했다. 거짓 리더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든지 용기만 있다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사역을 감당할 소질이 있다는 증거였으며, 그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질이 부족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멍청이고 덜렁이라서 무슨 일이든 두려움 없이 한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자질이 있는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감히 책임자가 된다. 그 결과 그가 책임자가 된 후에는 어떠한 사역도 진전이 없었고, 어떤 사역을 하든 두서가 없었으며 순서도 없었고 올바른 생각도 없었다. 누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그는 옳고 그름도 알지 못해 김 씨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좋다고 했다가도 이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또 좋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했고,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대로 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무런 자질도 없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며, 사역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한다. 이런데도 거짓 리더는 이 책임자를 여전히 꿰뚫어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임자는 자질이 형편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라고 해도 거짓 리더는 "제가 그와 이야기해 보았는데, 그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떠하냐? 바보나 하는 말 아니겠느냐? 이 말은 어디가 틀렸느냐? (그가 협력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이런 자질이 없어 이 사역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다. 그가 협력을 원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질이 너무 부족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경우에는 리더가 똑똑하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에게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의 말과 교제를 통해, 그가 평소 일 처리를 할 때 두서가 있는지, 규칙과 순서가 있는지를 통해, 그에 대한 형제자매들의 평판을 통해 종합적으로 가늠해야 한다. 만약 그가 자질이 너무 부족해 그런 사역 능력이 없고 무엇을 하든 전부 엉망진창으로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책임자는 제때 교체해야 한다.

농장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농장 책임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어떤 밭에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몰랐으며, 어떤 밭이 채소를 심기에 적합한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하거나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예 교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심고 싶은 대로 심었으며, 하나님 집의 원칙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결국, 농장의 각 구역에 엉망으로 심는 바람에 적게 심어야 하는 농작물은 많이 심었고, 많이 심어야 하는 농작물은 적게 심었다. 상부에서 책망해도 그는 불복하고 자신이 잘못 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책임자는 다루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풀타임 본분 교회에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근거해 인원수에 따라 식량 작물과 채소를 각각 몇 마지기 심어야 적합할지 결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심을지를 결정한다. 그는 이렇게 심는 것이 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서 결국은 되는대로 농작물을 심어 버렸다. 나중에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싹은 누렇게 되어 비료를 줘야 했지만 그는 비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언제 줘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어떤 농작물에 벌레가 생기면 농약을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그는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농약을 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약을 치지 말자고 주장하자 그는 혼란스러워했으며, 어떻게 농약을 쳐야 적합한지를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확의 계절이 되었지만, 그는 각 농작물의 생육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지 못했고, 성숙기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일찍 수확한 것은 알곡이 덜 익어 푸른 빛이 돌았고, 늦게 수확한 것은 알곡이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다.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었고, 드디어 식량이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 해의 농사일이 기본적으로 다 끝났다. 이 농장 책임자가 한 사역은 어떠하냐? (엉망진창입니다.) 왜 엉망진창이 되었겠느냐? 너희가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아라. (자질이 형편없습니다.) 이 책임자의 자질이 형편없다! 일이 닥쳤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원칙을 찾지 못하며, 처리할 방식이나 방법도 전혀 없어서 농작물을 심는 이렇게 간단한 일조차 허둥지둥하며 엉망진창으로 했다. 자질이 부족한 주요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원칙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핵심 아니겠느냐? 너희는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일이 닥쳤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원칙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질이 형편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제안이나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규례로 삼아 지키기만 하면 얼마나 간단하냐고, 숙고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제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 봐 두려워한다. 듣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이다. 사실 똑똑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제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안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실수가 적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똑똑하지 않고 자질이 없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제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혼란스러워한다. 방금 이야기한 이 농사 책임자는 자질이 형편없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기어코 농사를 짓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리를 횃대에 올라가게 강요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느냐? 누군들 태생적으로 농사를 지을 줄 알겠느냐? 설마 농부들이 태어나자마자 농사를 지을 줄 알겠느냐?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첫 농사에 수확이 전혀 없어 곡식을 먹지 못하고 일 년 내내 굶주린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만약 정말 있다면, 그건 천재지변이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적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한다. 1~2 년 농사를 지으면 다 배울 수 있다. 자질이 훌륭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수확이 좀 떨어질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정보가 발달하고 정보량이 충분히 많다. 만약 사람이 자질이 있다면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참고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실수도 적어진다. 하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이다. 정보량이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워해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매우 힘들고 어려워하게 된다. 농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빨라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만약 너무 늦어 그 시기를 놓치면 최종 수확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 책임자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골머리를 앓았고, 시간에 쫓겼으며, 억지로 떠밀려 한 걸음씩 내디뎠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는 했지만, 걸음마다 너무 어려웠고, 결과 역시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질이 형편없다!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은 한 가지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무슨 사역을 하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만약 리더가 자질이 훌륭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질이 부족한 책임자를 도와 지도하고 규범화하고 점검할 것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책임자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도 하지 못하고, 책임자가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확신하지 못하는 것, 망설이는 것은 그도 따라서 망설인다. 심지어 책임자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났는지, 어떤 의문이 있는지도 그는 전혀 알지 못한다. 네가 그에게 농사에 대해 물으면, 그는 "저는 리더라서 농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네가 "당신이 리더인데, 당신에게 농사일을 좀 물어보면 어때서요? 이것은 당신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입니다."라고 하면, 그는 "그렇다면 제가 당신 대신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물어보고 와서 이렇게 대답한다. "요 며칠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감자를 얼마나 심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물어본 후 또 이렇게 대답한다. "두 마지기 심었습니다." "그럼 어떤 품종을 심었습니까? 그 땅은 감자를 심기에 적합합니까? 감자를 심을 때 비료를 주었습니까? 감자 씨앗은 얼마나 깊이 심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모르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으니, 이는 일을 그르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고도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리더이면서 무슨 사역을 하였느냐? 겨우 이 정도의 외부적인 일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는데, 너라는 리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책임자의 자질이 이 정도로 부족한데도 거짓 리더는 발견하지 못한다. 네가 그에게 책임자의 자질이 어떤지, 심은 농작물은 어떤지, 수확이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그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까짓 농사일이 얼마나 간단한데! 밭에 농작물을 다 심었잖아? 심었는데 어떻게 수확이 나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떤 일도 고려하지 못하고, 어떤 일도 물어보지 않으며, 머리라고는 텅 비어 있다. 이는 어떤 리더이겠느냐? (거짓 리더입니다.) 이 책임자는 어떤 일에 직면하든 방향을 잃은 파리처럼 우왕좌왕한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도 알지 못하며, 자료 속의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리더 또한 이런 상황을 알아보지 않는다. 어쨌든 사역을 이 사람에게 맡겼으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의 자질이 이렇게 부족하면 사역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알아보거나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이번 시즌 농사를 통해 이 책임자의 자질이 형편없어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도 경험을 정리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심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 자질이 부족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 누가 책임자로 적합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여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하나님 집의 사역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거짓 리더에게 이런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마음도 눈도 멀었고, 모든 것이 멀었다. 거짓 리더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역을 지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점검하는 것을 도와주고 제때 사람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지를 알지 못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조속히 교제하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역들을 거짓 리더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전혀 감당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한다. 이런 자는 눈먼 사람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가 어쩌면 다른 사역으로 바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에게 이런 중요하지 않은 잡일들에 신경 쓰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한다. 이는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인데 어찌 잡일일 수 있겠느냐? 이는 리더 직책 범위에 속하는 일인데, 그가 안 해도 되겠느냐? 그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직무 유기이다. 이런 사역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는 매일 리더의 눈앞에서 발생하고, 매일 누군가가 제기한다. 하지만 이 거짓 리더는 마음과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이것이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이 책임자의 자질이 형편없는데도 거짓 리더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가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도 거짓 리더는 발견하지 못한다. 이 책임자가 문제를 처리할 줄 몰라 일이 닥쳤을 때 여우가 뒤웅박을 쓰고 삼밭에 들어간 것처럼 갈팡질팡하며 허둥대고 아무런 원칙도 없어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도 거짓 리더는 이를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거짓 리더의 사역 원칙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각 사역을 책임질 사람을 안배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자질이 좋든 나쁘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든 없든, 또한 사역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든 모두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알고 있겠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리더를 한다는 것이냐? 네가 만약 리더를 한다면 바로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나 본분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그의 마음이 극도로 무감각하다. 이는 마음과 눈이 먼 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은 눈멀지 않았어요. 당신은 늘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네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농사 책임자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거짓 리더는 이 사람과 날마다 같이 생활해서 발생한 이런 일들을 전부 보고 들을 수 있는데도 어째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는 것이냐? 이는 마음과 눈이 먼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마음과 눈이 먼 것, 이것이 거짓 리더의 또 다른 모습이다.

네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고 나서 평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사역을 논하는 태도와 관점을 들어 보며,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방법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자질이 형편없으며 사고가 혼란스럽고, 어떤 일을 하든 다소 맹목적이고 거칠고 경솔하며 목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일 처리 방식과 방법만 살펴봐도 이 사람의 자질이 형편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오랜 시간 관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거짓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사람이 사역을 내팽개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며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소극적이고 게으르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으니, 이는 이 사람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의 말, 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 그리고 일 처리 방식과 방법을 통해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이런 인식이 없으며, 이 일에 대해 무감각하고 아무런 지각도 없다. 그는 오직 하나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람이 놀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면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관점을 지닌 리더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를 하게 하면 이 사역을 망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기만 하며 직무를 태만하게 해도 그는 알아보지도 않고 처리하지도 않는다. 한 사람의 자질이 훌륭한지 부족한지, 인품이 좋은지 나쁜지, 그는 아무리 오랫동안 접해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리더가 리더의 사역 능력을 갖춘 것이겠느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한 사람의 자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별할 줄 모른다. 그는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할 줄 모른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본연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자질이 약간 있는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질이 약간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리더 일꾼이 마땅히 관심을 기울이고 파악해야 할 문제이자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것이 사역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인식도 없으며, 이 측면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의 직무 유기이자 거짓 리더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으로, 책임자의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측면에서는 거짓 리더도 마찬가지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자질이 부족한 책임자를 제때 교체하지도 못한다.

3. 거짓 리더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세 번째 상황은 책임자가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속박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경우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어떤 책임자가 자질이 좀 훌륭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열심히 하지 않고 건성으로만 하는 것을 거짓 리더가 알지 못하고 제때 교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책임자가 자질이 부족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거짓 리더가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조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세 번째 상황은 이런 부류의 책임자가 자질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속박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경우이다. 책임자로 선발된 후로, 그는 업무를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고, 진리 원칙도 구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반면 틈만 나면 이 사람을 약올리거나 저 사람을 풍자하고 비꼬며,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과시한다. 무슨 일을 하든 착실하게 하지 못하며,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내일은 또 저렇게 하라고 하며 온갖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늘 훌륭한 모습을 보여 주려 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말만 해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굴복시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따르면 득의양양해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거짓 리더이든 적그리스도이든, 권력을 잡고 있든 아니든 교회는 편안할 날이 없다.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다툼을 조장하여 교회 생활을 교란한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속박한다. 특히 생활 측면에서, 사람들이 조금 일찍 자거나 늦게 자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며,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전부 그의 눈치를 봐야 해서 매우 피곤하게 살게 된다. 그에게 책임자를 시키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네가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의 문제를 폭로하면, 그는 네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겨냥하고 폭로한다고 말한다. 네가 그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는 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네가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사역하며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는 인정하지 않고 네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또 네가 교만하다고 말한다. 결국 네가 어떻게 하든 전부 그의 눈에 거슬린다. 그는 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 궁리를 하며, 사람들을 꼼짝 못 하게 속박하고, 어떻게 해도 다 옳지 않다고 한다. 이런 책임자는 교회 사역을 교란한다.

거짓 리더는 모두 표면적인 사역을 하는 데 능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법이 없다. 그는 각종 업무 사역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거나 지도하지 않으며, 또 제때에 각 팀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는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각 팀 책임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책임자에 대한 형제자매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떤지, 팀장과 책임자의 속박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가 정확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억압과 배척을 받지는 않는지, 착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지, 거짓 리더를 적발하고 고발한 사람이 공격과 보복을 당하거나 제명이나 출교를 당하지는 않는지, 악인이 팀장이나 책임자를 맡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현상이 있지는 않은지를 검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을 거짓 리더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거짓 리더에게 어떤 책임자가 항상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한다고 보고했다고 해 보자. 해당 책임자가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오히려 형제자매들이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핑계를 대며 자신을 위해 변명과 해명을 하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책임자는 제때에 교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은 전부 리더가 제때에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일부 거짓 리더는 자신이 기용한

책임자의 사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사람들이 폭로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이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다. 누군가 책임자의 문제점을 폭로한다면 거짓 리더는 감싸 주면서 사실의 진상을 덮으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성품이 있는 것도 정상이죠. 자질이 좋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좀 교제해 주면 괜찮을 거예요." 리더가 교제하자 그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교만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가끔 허영심과 체면, 지위에 연연해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인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업무도 미숙하고 항상 별 볼 일 없는 의견만 내놓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듣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거짓 리더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책임자의 사역 성과가 어떤지 살피지 않으며, 그의 인성과 성품, 추구가 어떤지는 더더욱 살피지 않고, 그저 얼버무리며 말할 뿐이다. "당신에 대해 누가 보고를 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데, 기회를 한 번 드리죠." 대화 끝에 그 책임자는 회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로 그가 정말 회개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속인 것인지 거짓 리더는 관여하지도, 알아보지도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 또 의문을 제기하면, 거짓 리더는 "이미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 말씀 몇 단락도 교제했어요. 그가 회개하겠다고 했으니,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람이 거짓 리더에게 "그 책임자의 인성은 어떤가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꿰뚫어 보지 못한 거짓 리더는 "아직 지켜보는 중이에요."라고 대답한다. "얼마나 지켜보셨나요? 결론을 내리셨나요?"라는 질문에는 "6 개월이 넘었고, 아직 결론 내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한다. 6 개월 넘게 지켜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니, 무슨 이런 사역 효율이 있느냐? 거짓 리더는 그러고도 여전히 자신이 책임자와 이야기를 한 번 나눈 게 효과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가 그에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는 철석같이 믿고 더 이상 상황을 알아보거나 파악하지도 않는다. 만약 아무도 추궁하지 않으면, 심지어 반년 동안이나 사역을 알아보거나 점검하지도 않는다. 그 책임자가 사역을 다 망쳐 놓아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상황을 알지 못하며, 그 책임자가 어떻게 그를 속이고 우롱하는지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더 가증스러운 점은 누군가가 그 책임자의 문제를 보고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문제가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이 보고한 문제가 사실인지를 실제로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는 교회 사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며, 어차피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거짓 리더의 반응은 무척 둔감하며, 이에 대한 조치와 행동도 무척이나 느리고, 몇 번이나 망설이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마치 그가 주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귀하고 중요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거짓 리더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본성 본질을 볼 줄 모르며, 사람의 본성 본질을 통해 사람이 대체 어떤 길을 걷는지 판단할 줄 모르고, 사람이 걷는 길을 통해 그 사람이 책임자로 적합한지, 리더의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필 줄 모른다. 그는 그렇게 볼 줄 모른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오직 두 가지만 할 줄 안다. 하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환심을 사고 밉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겠느냐? 분명 아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대화를 매우 귀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한 그런 빈말과 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이 그때 했던 대화가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이 어째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려는지, 훈계하고 책망하려는지, 또 사람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려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사람의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글귀와 도리를 몇 마디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으며, 사람의 패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거짓 리더의 우매함과 무지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진리 실제가 전혀 없는데도 어째서 그토록 자신만만한 것이냐? 도리를 좀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어째서 그렇게 무지하고 유치한 것이냐? 설마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방식과 패괴 행위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람의 패괴 성품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겠느냐? 거짓 리더는 정말 너무나 우매하고 얄팍하다! 사람의 패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각기 다른 환경을 마련해 사람을 드러내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너무나 얄팍하고 단순하게 사역한다.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해서 설득하고 권면하면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얄팍하지 않으냐? 얄팍함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유치함이 아니냐? 거짓 리더는 참으로 유치해서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아주 유치하다. 사람의 패괴 성품은 해결하기 가장 힘들다. 강산은 쉽게 변해도 본성은 바뀌기 어려운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 문제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교란하고 항상 사람들을 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책임자에게 거짓 리더는 단지 그들을 찾아가 얘기나 좀 나누고 몇 마디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의 이런 방법이 교회 사역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와 교회 사역이 항상 일부 악인들의 교란으로 시기를 놓치고, 지연되고, 파괴된다. 정상적이고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거짓 리더가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고 진리 원칙을 어기고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다. 겉으로 보기에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처럼 의도적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거나 자신만의 다른 방식으로 독립 왕국을 세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회 사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며, 각 팀의 책임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도 제때 이를 조정하거나 교체하지 못한다. 이는 모두 교회 사역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모두 거짓 리더가 직무를 유기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니 거짓 리더가 몹시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가증스럽습니다.)

4.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위배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속박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이런 악행을 거짓 리더는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위배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적합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제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재원과 물자에 손실을 입힌다. 거짓 리더는 유치하고 얄팍하며,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은 더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의 사역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들은 과정을 거치는 시늉을 하고, 규례를 지키며, 구호를 외치기는 하지만, 현지에 가서 사역을 검사하거나 각각의 책임자들을 관찰하고 알아보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책임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일들은 어떤 원칙을 따랐는지, 후속 효과는 어떤지도 제때 알아보지 않는다. 결국은 자신들이 쓰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책임자가 뒤에서 몰래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위배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취해도 거짓 리더는 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호하기까지 하며, 설령 그런 일에 대해 듣더라도 제때 알아보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무도 소홀히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리더가 다른 팀에서 도태된 사람을 작물 재배 기술자로 선발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이 분야의 경험과 특기가 있는지,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임명한 후에는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했다. "채소를 심으세요. 종자는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든 제가 허가해 줄 테니, 마음껏 해 보십시오!"라고 한 것이다. 리더가 허락하자 이 책임자는 대담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각종 채소의 품종이 정말 너무 많네.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종자를 선택하는 일이 꽤 재밌네. 예전에 이 사역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흥미를 느낄 줄 몰랐어. 이처럼 흥미를 느끼니, 그럼 크게 한판 벌여 보자!'라고 생각했다. 먼저 토마토 종자 카테고리를 열어 본 그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토마토 품종이 매우 다양했던 것이다. 크기도 다양했고, 색상도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품종도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세계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각각의 품종을 다 조금씩 심는 것이다. 특히 알록달록한 품종은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다. 이 책임자는 각기 다른 크기, 색깔, 모양의 토마토를 한꺼번에 10 여 종을 골랐다. 토마토 종자를 다 고르고 나서는 이제 가지를 골라야 했다. 일반적으로 먹는 가지는 보라색 긴 가지와 흰 가지 두 종류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지도 이 두 종류에만 국한될 수 없어. 녹색 가지, 무늬 가지, 긴 가지, 둥근 가지, 타원형 가지까지 다양한 품종을 다 조금씩 골라서 사람들의 식견을 넓혀 주고 각종 가지를 다 먹어 보게 해야지. 내가 책임자로서 얼마나 잘 고르고, 얼마나 추진력 있는지,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는지 보라고.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만족시키잖아.' 그런 다음 또 양파 종자를 골랐다. 현지에는 양파 종자가 총 14 종이

있었는데, 그는 14 종을 모두 고르고는 매우 만족했다. 실로 '대담한' 책임자가 아니냐? 누가 이렇게 많은 종류를 고르겠느냐? 나중에 내가 늘 이 일을 해부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현지에 14 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종 더 있는데 고르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14 종이 많은 게 아니며 고르지 않은 것도 몇 종류 있으니, 그게 잘못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좀 모자란 것이고,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며, 이 일을 왜 해부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양파 종자를 다 고르고 나서 감자도 최소한 8 종을 골랐다. 그가 그렇게 많은 품종을 고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너의 식견을 넓혀 주고 다양한 맛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는 종자 선택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혜택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속셈은 어떠하냐? 모두를 생각하고 모두를 위해 서비스하는 태도인데, 이것이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종자 선택의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어떤 것은 특이하고 흔치 않은데, 자주 먹는 것이 아니면 심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은 자주 먹기는 하지만 심어 본 적이 없어서 현지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지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한두 가지만 고르고, 많아야 서너 가지면 충분하다. 하나는 현지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해야 하며, 또 하나는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에 강해야 한다. 또한, 다음 해에 종자를 남길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수확량이 많아야 한다. 맛만 좋고 수확량이 많지 않은 종자라면 적합하지 않다. 종자 선택이라는 이 일을 통해 봤을 때, 이 책임자의 행동이 원칙에 부합하였느냐? 그가 구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 집을 고려하였느냐? 그가 본분 이행에 마땅히 지녀야 하는 태도에 따라 하였느냐? (아닙니다.) 이는 분명 제멋대로 행동한 것이며, 공공연하게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위배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을 낭비하여 개인의 호기심과 놀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켰으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게임으로 여겼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이 책임자가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었으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네가 그에게 "당신이 선발한 그 책임자는 과연 사역을 하긴 했습니까? 사역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자를 고를 때 당신은 그를 도와 점검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이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심었습니다. 심을 때 저희도 현장에 가서 살펴봤습니다."라고만 할 뿐, 나머지 문제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책임자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이냐? 그가 딸기를 좀 심었는데, 관련 기술 규정에 따르면 딸기를 심은 첫해에는 비닐을 덮으면 안 되고, 열매를 맺게 해서도 안 되며, 꽃이 피면 모두 따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첫해에는 열매를 맺는다 해도 크기가 매우 작다. 전문가가 그에게 다 알려 줬는데도 그는 듣지 않았다. 이유는 인터넷에서 첫해에 비닐을 덮어도 되고 열매를 맺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각종 이상한 모양의 작은 딸기만 자라났으며, 딸기 표면에는 씨가 가득하고, 신 것, 단 것, 아무런 맛도 없는 것 등 별의별 딸기가 다 있었다.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해졌는데도 그 거짓 리더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어차피 자신은 딸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먹을 수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그럼 감자와 양파는 네가 먹을 수 있는데, 신경 썼느냐? 이 거짓 리더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 책임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들에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상추가 다 뻣뻣하게 쇠서 빨리 따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 낭비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책임자는 따지 못하게 했다. 상추를 따 버리면 다른 채소를 심어야 해서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이 리더들은 이 일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부에서 그들에게 빨리 따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추가 자리를 차지해서 여름 채소를 심을 수 없었다. 사역에 이렇게 큰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그 거짓 리더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 책임자는 한 거짓 리더가 발탁한 자이고, 발탁한 후 거짓 리더는 한 번도 사역을 검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고, 지지하고 뒷배가 되어 주었으며, 다른 리더들도 섣불리 간섭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결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한 사역이다. 그런데도 그를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눈앞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해결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이것이 거짓 리더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무골호인 노릇을 하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으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이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했으며, 이것이 자신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역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는 쓸모없는 사람, 식충이가 아니겠느냐? 이는 직무 유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조항으로, 책임자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위배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를 하나 들어 거짓 리더가 이 일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모습을 폭로하였으며, 거짓 리더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를 폭로하였다.

5. 거짓 리더는 독립 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 부류의 책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한 가지 조항은 바로 책임자가 항명하여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경우로, 책임자가 적그리스도인 경우이다. 거짓 리더는 책임자가 자질이 부족하고, 인성이 좋지 않으며,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책임자가 한 사역과 그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검사하고 알아봐서 이 사람이 쓰기에 적합한지를 간파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 부류인 음험하고 흉악한 사람의 본성 본질은 더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꿰뚫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두려움을 품으며, 속수무책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에게 끌려다닐 때가 더 많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어느 정도이겠느냐? 적그리스도는 거짓 리더의 사역 범위 내에서 패거리를 짓고는 자신의 세력을 끌어들여 독립 왕국을 세운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결정권을 갖게 되며, 거짓 리더는 실권을 잃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결정한 일과 알고 있는 일을 정작 거짓 리더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일이 생기고 나서 누가 그에게 보고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거짓 리더가 왜 자신에게 말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답한다. "당신에게 말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도 결정할 수 없으니 이 일도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결정하고 당신에게 말하면 분명 당신도 동의했겠죠. 당신이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거짓 리더는 이런 일들에 대해 전혀 방법이 없다. 네가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상부에 보고라도 하여라.

보고할 용기조차 없다면 쓸모없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쓸모없는 자는 이런 일에 직면하면 징징거리며 나에게 고자질하고 하소연만 한다. "그 일은 제 탓이 아니고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옳고 그름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할 때에 저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말해 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리더인 너는 이런 일들을 당연히 알고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너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째서 너는 자발적으로 묻지 못하는 것이냐? 네가 리더이니 무슨 일이든 네가 조직하고, 주관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들이 무슨 일이든 다 너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단을 내린 후, 나중에 너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만 하라고 한다면, 이는 권력을 빼앗긴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기만 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마치 늑대를 만난 멍청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눈앞에서 권력과 실권을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정말 못난이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거나 폭로하지도 못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악행을 하든 더더욱 제재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이는 쓸모없는 자 아니겠느냐? 너를 리더로 선발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고, 공공연히 제물을 낭비하며,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 세력을 형성해 독립 왕국을 세우는데, 너는 그들을 감독하고, 폭로하고, 제지하고, 처리하는 역할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와서 하소연까지 한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리더이냐? 정말이지 쓸모없는 자이다! 이 적그리스도 무리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자기들 몇 명이 비밀리에 상의해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린다. 리더에게는 알 권리조차 주지 않으니, 결정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바로 리더를 부정해 버리고 자기들 몇 명이 쥐락펴락하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 그렇다면 그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리더는 앞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이 사역들을 검사, 감독, 관리, 결정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의 머리 위에 올라타 그를 관리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것이 거짓 리더가 사역할 때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서 적그리스도가 그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네가 리더면 뭐? 나는 여전히 네 말을 듣지 않을 거고, 여전히 직급을 무시하고 일을 할 거야. 네가 상부에 보고하면 우리가 너를 괴롭혀 주겠어!' 거짓 리더는 이 일을 감히 보고하지도 못한다. 거짓 리더는 사역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을 고수할 용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충성심도 전혀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 만약 그가 정말로 자질이 약간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들 몇 명이 좋지 않은 작자임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 혼자서는 그들을 폭로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달은 몇몇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어. 만약 그들과 교제한 후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를 상대할 수 없다면 상부에 보고해 해결하게 하겠어. 내가 다른 건 못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수호해야 해. 내가 꿰뚫어 본 일과 발견한 문제가 계속 발전하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돼.'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상부에서도 네가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쓸모없는 사람이자 거짓 리더로 규정하는 것이다. 너는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울 이런 믿음과 용기조차 없다. 그러니 네가 쓸모없는 사람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빼앗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불쌍하겠느냐? 듣고 있으면 참 불쌍한 것 같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사역도 실수할까 봐 조심조심 신중하게 하며, 책망과 훈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 결과 눈앞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빼앗겨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으며, 그가 있든 없든 상관없게 되었다. 겉으로는 매우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가증스럽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 집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이러한 믿음조차 없는데 리더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못난이가 아니냐? 이는 단순히 거짓 리더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도 없으니 네가 바로 불신파이고, 너에게는 리더 자격이 없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4 조를 다루면서, 우리는 다섯 가지 측면을 열거하여 거짓 리더가 어떻게 각종 사역과 책임자를 대하는지 폭로하였다. 또한, 이 다섯 가지 측면에 근거해 자질이 형편없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해부하였다. 이렇게 교제하니 어떻게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지 더 분명해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다음에 만나자!

2021 년 1 월 23 일

리더 일꾼의 직책(4)

제 5 조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며, 사역 중에 나타나는 편차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5 조인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며, 사역 중에 나타나는 편차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 조항에 초점을 맞춰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해부하고, 거짓 리더가 이 사역에 책임을 다했는지, 본분을 굳게 지키고 사역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거짓 리더는 편안함을 누리고, 현장에 내려가 사역을 알아보지 않는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5 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는 것'이다. 각 사역의 현황이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바로 사역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겠느냐? 예를 들어 보자. 이 사역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바쁜지, 이런 일들로 바쁠 필요가 있는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이런 인원들의 사역 효율은 어떤지,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 사역의 인원수와 사역량이 부합하는지, 각자의 일이 포화 상태는 아닌지, 일에 비해 사람이 많은 상황은 아닌지, 사역량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사람이 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또는 사역량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적고 책임자가 지휘하는 데 힘이 부족해 사역 효율이 낮고 진도가 느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 또한, 각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란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지, 발목을 잡고 훼방 놓는 사람이 있는지, 각종 방해와 건성으로 대충 하는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 또한 모두 리더 일꾼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떤 리더는 걸핏하면 전화를 걸어 "바쁘십니까?"라고 물어봐서 상대방이 무척 바쁘다고 대답하면, "바쁘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면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떠하냐? 이런 질문들은 어떠하냐?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이겠느냐?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특징이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조금 해서 양심이 약간 편안해지면 만족할 뿐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며, 현장으로 내려가 각 그룹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원 배치가 적절한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실제 상황을 거짓 리더는 전혀 묻지 않는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혹독한 날씨에 외부에서 고생하지도 않고, 그저 어쩌다 한 번씩 편지나 사람을 보내 물어볼 뿐이다. 그러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열흘이나 보름 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리더는 무슨 일로 바쁜 겁니까? 사역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여러분에게 사역을 지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라고 묻자

형제자매들은 "말도 마십시오. 저희는 한 달 동안 리더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난번 저희와 예배 모임을 가진 후로는 온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그룹 책임자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며 원칙을 구하고,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해야 합니다. 리더는 저희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리더가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리더가 사역한 것이 어떠하냐? 상부에서 이 리더에게 "지난번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새로운 대본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찍고 있습니까? 사역은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그들과 예배 모임을 한 번 가졌는데, 다들 의욕이 있었고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왜 일찍 전화 걸어 알아보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자 "너무 바빴습니다. 각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들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들과 예배 모임을 가질 때에나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런 태도로 교회 사역을 대했다. 상부에서 또 "영상 사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당신은 모르는군요. 그렇다면 복음 사역의 진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의 복음 사역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확장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훌륭하고 이해가 빠릅니까? 어느 나라의 교회 생활이 비교적 좋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아, 예배에만 신경 쓰느라 이런 일들을 까먹고 안 물어봤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복음팀에 복음 증거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양성하고 있는 복음 증거자가 몇 명입니까? 어느 나라의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점검하며, 누가 양육하고 목양합니까? 교회에 가입한 각국 새 신자들이 모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념과 상상이 모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참도에 뿌리를 내려 종교인들이 미혹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 중 하나님을 믿은 지 1~2 년 후에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일들을 당신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역 중 문제가 생길 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팀의 어떤 그룹과 어떤 사람들이 사역할 때 책임감이 있고 실제 성과가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그는 "모릅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리더가 구체적인 사역을 했겠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면 그제야 알아본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일로 바삐 보내고 있는 것이냐? 어느 그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검사하든, 사역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 각 부류 사람들의 내적 상태와 인품을 단시간에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 지금 다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네가 점검하고, 알아보고,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조차 하지 못하니, 이는 눈이 먼 것 아니겠느냐? 설령 그가 교회의 각 그룹에 가서 사역을 점검하고 검사한다고 할지라도 현실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핵심적인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며, 어떤 문제들을 발견한다 해도 해결하지 못한다.

어느 영화 제작팀이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영화를 촬영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영화를 찍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영화 대본을 받은 것이 적합한지, 감독과 전체

제작팀이 이 사역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리더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새로운 대본을 받았군요. 그럼 촬영하세요. 제가 지원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결하세요."라고 하고는 가 버렸다. 그는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이러니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영화 제작팀이 이 대본을 받은 후, 감독과 팀원들은 시간만 나면 줄거리를 분석하고 의상과 구도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영화를 찍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아 영화를 본격적으로 촬영할 수 없었다. 이것이 현황 아니겠느냐? 현재 존재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일들은 리더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리더가 매일 예배드리고, 며칠 동안 예배를 드려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본격적으로 촬영할 수 없다면, 이 리더가 역할을 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공짜로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구호를 외쳐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게다가 "사람은 다 양심이 없네요. 하나님 집에서 공짜 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지각도 없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며 사람들을 꾸짖는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맞아, 사역 진도가 이렇게 느린데 매일 삼시 세끼를 이렇게 먹는다는 건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아무 사역도 한 게 없잖아. 그렇다면 사역 중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야 하지? 우리가 해결 못 해서 리더에게 물어보면, 리더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고 다들 조화롭게 협력하라고만 할 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제해 주지 않았어.' 리더가 현장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의 믿음이 냉담해지고 내적 상태가 의기소침해지게 되는데, 이는 길이 없어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가 실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리더는 눈뜬장님일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배우지도 않고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과 교제하거나 토론하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한가할 때면 하나님 말씀 서적을 들고 "저는 영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진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바쁩니다!"라고만 한다. 결국, 문제가 점점 누적되어 사역이 반마비 상태에 처하게 되어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겠느냐? 그는 자신이 사람들과 예배 모임을 가졌고, 사역 상황도 물어봤으며, 문제도 찾아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읽어 주었으며, 사람의 내적 상태도 지적했고, 사람들도 자신과 대조하고 다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으니, 리더의 직책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나머지 업무 측면의 구체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리더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리더이냐? 교회 사역이 반마비 상태에 처했는데도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속 끓이지 않는다. 상부에서 묻거나 재촉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며, 아래가 어떤 상황인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리더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했겠느냐?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한가하게 잡담을 하면서 도리를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치기만 했다. 사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는 문제와 소극적인 내적 상태를

해결하지 않았고, 본연의 사역 측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리 원칙에 따라 해결할 줄도 모른다. 이로 인해 사역 전체가 정체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지만, 리더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는다. 이는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의 이런 모습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사역할 때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너는 현장에 머물며 그저 형식적으로 했을 뿐,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 네가 거기에 머문 것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또한, 네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으니 계속 그곳을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역과 업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몇몇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네가 해결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게다가 너는 눈과 마음이 멀어 때때로 문제를 발견하고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처리할 줄 아는 척하며 억지로 버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며, 상부에 보고하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왜 이러는 것이겠느냐? 책망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겠느냐? 상부에서 너의 실상을 알게 되어 교체할까 봐 두려운 것이냐? 이는 여전히 지위를 중시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전혀 수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든, 어떤 성질의 사역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며, 직접 1 차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그저 소문만 전해 듣거나 남의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눈으로 인원 및 사역 진전 상황을 보고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원칙을 어기거나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가 있는지, 업무 관련 사역에 필수 설비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를 아무리 많이 받고, 소문을 아무리 많이 전해 들은들 직접 한 번 다녀오는 것만 못하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하다. 각 측면의 상황을 모두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갈피가 잡힌다. 특히 자질이 훌륭해 양성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해야 사람을 정확하게 양성하고 쓸 수 있다. 이것이 사역을 잘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자질이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고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원칙도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사역에 어떤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도 다 알아보고 파악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사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생각과 제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눈감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의문과 걱정이 사라지면, 이 사역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역 중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반드시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또 자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며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착실하게 실질적인 사역을 하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거짓 리더가 이렇게 하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거짓 리더는 오로지 위장하고 속이는 것만 할 줄 알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로 바쁘기만

하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무슨 일로 바쁘냐고 물으면, 그는 "저희가 사는 곳에 방석이 몇 개 모자라고, 공연팀이 의상을 제작하는데 천이 모자라서 사러 다녀왔어요. 또 한번은 부엌에 채소가 다 떨어졌는데 밥하는 사람은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제가 사러 가야 했어요. 가는 김에 밀가루도 몇 포대 사 왔고요. 이런 일들은 다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그가 진짜 다망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리더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며,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대충하려 한다. 원래도 자질이 매우 부족하고 눈과 마음마저 어두워 문제가 이미 충분히 심각한데, 거기에 더해 부담도 느끼지 않고 편안함만을 누리며 안락한 장소를 찾아 며칠씩 지내기까지 한다.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를 찾아가 해결하려 해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그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한다. 이번 주에는 이 그룹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는데, 그러면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간다.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또 사무 책임자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사무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대외 업무 책임자와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별생각 없이 물어본다. "무슨 어려움은 없나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나요? 이방인과 접촉할 때 속박당하고 교란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물어만 보고 그걸로 끝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는데, 그는 무슨 사역을 하였느냐? 비록 모든 그룹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예배 모임을 가졌지만, 각 그룹의 사역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아보거나 물어보지도 않는다. 각 그룹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사역을 지도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점검하거나 지도하지도 않지만, 몇 가지 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한다. 정시에 식사와 취침을 하고, 예배도 정시에 드린다.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사역은 그다지 잘하지 않는다.

일부 리더들은 전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않고,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무적인 일만 한다. 주방 일만 신경 쓰며, 늘 "오늘은 무엇을 먹습니까? 달걀은 있습니까? 고기는 얼마나 남았나요? 없으면 제가 가서 좀 사 오겠습니다."라고 묻는다. 그는 주방의 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 일이 없을 때마다 주방에 들러 한 바퀴 둘러보며, 늘 생선과 고기를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궁리한다. 각 그룹의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역하고, 다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이 리더는 오직 잘 먹는 것과 윤택하게 생활하는 것만 중시한다. 리더가 된 후, 그는 교회 사역을 위해 마음을 쓰지도 않았고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통하게 살이 쪘고 얼굴이 환히 폈다. 그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 죄다 사무적인 일과 하찮고 사소한 일을 하느라 바쁘고, 실질적인 사역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실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거짓 리더들은 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리더가 된 후,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몇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시키면 돼.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 그는 각종 사역의 책임자를 안배한 후에는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이것이 바로 리더의 사역을 한 것이라고, 그러니 지위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떠한 실질적인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고, 점검하여 지도하지 않으며, 조사하고

연구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리더의 책임을 다한 것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상부에서 그에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면, 그는 "교회 사역은 모두 정상입니다. 전부 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그에게 사역 과정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을 대하는 태도이다. 네가 리더이면서 너에게 맡긴 사역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전부 다른 사람이 하게 넘기고는 점검하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도 않은 채 그저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이는 관료주의 아니겠느냐?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사역을 점검하지도 않으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면 이 리더는 장식품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어떤 사역을 하든 그저 입으로만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역을 점검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고자 찾지도 않으며, 발견해도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나 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이런 식으로 리더를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산다. 매일매일 그렇게 윤택하게 보내고, 언제나 웃음을 짓는다. 어째서 그가 웃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후안무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리더이면서 아무런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그저 몇 사람이 하도록 안배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역 현장에서는 그의 그림자도 전혀 볼 수 없다. 교회 사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도 그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리더로서 직무를 잘 담당하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겨도 조급해하거나 속을 끓이지 않는다. 사무적인 일을 좀 하는 것에 만족하고는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상부에서 거짓 리더를 아무리 폭로해도 그는 괴로워하지 않으며, 자신과 대조하지도 않고, 반성이나 회개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대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러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과 이성이 좀 있는 사람은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폭로를 듣고 그것을 자신과 대조해서 어느 정도 자신과 일치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좌불안석이 되며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껴 속으로 이렇게 결심한다. '예전에는 육적인 안락함을 누리며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그리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게다가 늘 회피하고 위장하려고만 했지. 남들이 내 실체를 꿰뚫어 보면 내 명예와 지위가 사라질까 봐, 리더의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말이야. 지금에야 그런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진지하게 행동하고 공을 들여야 해. 계속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런 거짓 리더는 그래도 인성과 양심이 있는 편이다. 적어도 양심에 지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폭로한 것을 듣고 그것이 자신과 일치하면 괴로워하며 이렇게 반성한다. '내가 정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부탁에 부끄럽고 리더라는 직함에 부끄러워. 그럼 어떡하지? 만회해야 해. 앞으로는 온 힘을 다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해야겠어. 회피하지 말고 위장하지도 말아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실제 분량을 알고 계셔. 잘하든 못하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는 거야. 이것도 못 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를 폭로해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며,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설령 자기가 하나님이 폭로한 말씀에 해당되어도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지명한 것도 아닌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 나는 자질이 훌륭한 인재야. 하나님 집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는 것 아냐? 누구에게 시켰든 나에게 시킨 일은 어쨌든 다 했어. 나는 자질이 훌륭해서 교묘하게 일을 완수할 줄 알아. 앞으로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거야.'라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아무리 해부하고 폭로해도 그는 여전히 아무런 지각도 없이 하던 대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안 해!'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에게 양심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번이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폭로하는 네 번째 교제이다.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폭로할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을 것이다. 자신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남몰래 결심할 것이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무척 뻔뻔하고 아무런 지각도 없어서, 네가 교제하든 말든 그들은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긴다. 네가 그에게 "복음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번역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영화 제작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책임지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예배 모임을 갖습니까?"라고 물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대예배 모임을 갖고, 보름에 한 번 소예배 모임을 갖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배 외에 당신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예배만으로도 이렇게 바쁜데 또 무슨 구체적인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관리하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구체적인 사역을 할 겨를이 없다고요."라고 답한다. 이 거짓 리더의 논리가 퍽 대단하다. 리더직을 정말이지 잘도 해내고 있구나! 아무리 폭로하고 책망해도 그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식사준비 같은 구체적인 일을 맡았는데, 다섯 사람이 먹을 음식을 4 인분밖에 하지 않았다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다음 식사 때는 양을 잘 계산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이 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우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음식이 짰는지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이 맞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비록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이성이다. 너는 항상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솔선수범해야 한다. 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든,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다면, 너는 그것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야 하며,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감각이 없어서 전혀 고생할 필요가 없다. 거짓 리더를 폭로한 이런 사실들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지각도 없이 평소처럼 맛있게 먹고, 달게 자고, 신나게 논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겁기만 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도 없고, 마음에 죄책감도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부류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격이 저열한 것이다.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오랫동안 폭로하면서 긍정적인 면은 공급하고 교제하였으며, 또 부정적인 면은 폭로하고 해부하였지만, 일부 거짓 리더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할 생각도 전혀 없다. 상부에서 독촉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역할 때는 가능한 한 대충 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폭로해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지각도 없이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다. 너무 뻔뻔하지 않으냐? 이런 부류는 리더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인격이 너무 저열하고 염치가 뭔지도 모른다! 정상적인 사람은 지목되어 폭로되는 것은 고사하고, 평소에 누가 자신의 허물이나 결점, 또는 자신이 한 일에 부적합하거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하며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어떻게 변화하고 바로잡을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도 마음 편히 생활하며, 조급해하거나 속을 끓이지도 않는다. 아무리 폭로해도 그는 전혀 지각이 없으며, 게다가 농땡이를 부릴 만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늘 그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정말 낯짝도 두껍다!

교회 리더는 최소한 양심과 이성을 갖춰야 하며, 또한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부담을 갖는 모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만약 그가 일부 사람들이 소극적이거나, 치우치게 이해하거나, 하나님 집의 재물을 낭비하거나, 사역을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 본연의 일을 하지 않거나, 큰소리만 치고 실제 일은 하지 않는 등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교회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많은 사역이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리더가 된 후, 그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자신이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할 수 없으면 조급해져서 속을 끓이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예배에서 몇몇 사람들이 사역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보고하면 즉시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도하고 구하며,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게 되면 재빨리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바로 다른 사역을 검사한다. 또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인 사역이 있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예배를 소집해 상황을 분명히 파악한 후 인원을 감축하고 합리적인 안배를 한다. 이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부담이 있는 리더는 어떤 사역을 검사하든 모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업무 지식과 관련된 문제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고 물어보고 조사할 수 있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 해결한다. 현명한 리더 일꾼은 오직 교회 사역의 문제, 업무 지식과 관련된 문제, 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만을 해결하지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긴, 복음 확장 사역과 관련된 구석구석 모든 면을 그는 다 살펴보고, 자기가 알아차리고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전부 다 물어보고 검사한다. 자신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리더 일꾼과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진리 원칙을 구하고 방법을 마련해 해결하고, 큰 문제에 부딪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제때 상부에 구하여 상부에서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리더 일꾼이 바로 일 처리에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문제든지 눈에 띄기만 하면, 그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모두 분명히 알아본 후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 설령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는 것은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자신의 책임을 완벽히 다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 않는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의 눈으로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며,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저 형제자매들이 다들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그것이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각 측면의 사역이 모두 잘되고 있다고, 자기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또한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지위의 복을 누리는 데 전념한다. 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며, 형제자매를 만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본분을 잘 이행하세요.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면 교체할 거예요!"라고 말한다. 그는 지위를 내세워 남을 훈계하고, 예배 시간에 늘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캐묻고, 아래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볼 줄만 알지, 정작 다른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을 말하면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해도 그는 여전히 즐거운 모습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간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사역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쭐거린다. 그는 사역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연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다가 사역에 문제가 생겨 상부에서 책임을 추궁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역의 어려움과 문제를 모두 그의 눈앞에 펼쳐 놓으면 그는 오히려 어째서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냐며 그 사람을 원망한다. 그 자신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아래 책임자에게 떠넘기고, 구체적인 사역을 한 사람을 심하게 꾸짖는다. 이렇게 꾸짖어서 화풀이하고 나면, 또 자기가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며 속을 끓이거나 밥도 제대로 못 먹거나 잠도 제대로 못 잔 적이 없다. 그는 한 번도 이런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

나는 매번 농장 교회에 갈 때마다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 매번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그저 시간이 날 때 아래 교회 각 팀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각 팀 팀원의 내적 상태는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소집해 요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들이 문제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교제해 준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리더 일꾼의 사역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책임 범위 내 사역의 문제이다. 이 밖에도, 그들이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역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고,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는지 도와주고 지도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그들에게 지난번 맡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독촉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거창하게 떠들거나 방송 스피커로 무언가를 선언하지 않아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임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부 리더 일꾼을 통해 전달되고 시행된다. 그러면 각 팀의 사역이 질서정연하게 진전되고, 사역 효율이 오르며, 성과도 좋아진다. 결국, 각 팀의 팀원들이 모두 자기 본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적어도 각각의 사람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면서 저마다 일감이 있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일하며, 또 원칙에 따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과에 이른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는 '상부에서는 이렇게 사역하는군. 몇몇 사람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다들 노트에 적는구나. 적고 나면 상부의 사역은 끝나는 거고. 상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모방한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모방할 뿐, 결국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에게 시킨 사역은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고, 한가하게 잡담만 하였다. 나는 때때로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 가서 채소 모종이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거나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몇 모작 하는지, 물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주는지 알아보곤 한다. 이런 일들은 크든 작든 모두 채소 재배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마음을 들여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거짓 리더는 주로 어떤 면이 거짓되겠느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겉치레 일만 좀 하다 일을 끝내고는 지위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겉치레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것이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거짓 리더는 대부분 진리를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글귀와 도리만 좀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것이다. 일부 거짓 리더들은 사무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분명 자질이 부족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니, 양성할 가치가 전혀 없다. 일부 거짓 리더들은 자질은 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육적인 안락함을 누린다. 육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자는 사실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돼지는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 년 동안 고생스레 돼지를 키우면 연말에는 온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기여한 셈이다. 거짓 리더를 돼지처럼 키운다고 해 보자. 하루 세끼 공짜로 먹여서 뒤룩뒤룩 튼실하게 키웠는데 실질적인 사역은 하나도 하지 않는 폐물이라면, 이런 자는 키워 봤자 헛수고 아니겠느냐? 그를 키워서 어디에 쓰겠느냐? 그는 부각물이 될 뿐이니 도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거짓 리더를 키우는 것은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리더'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 지위를 점한 채 삼시 세끼 잘 챙겨 먹고 하나님의 은혜도 적잖이 누리며, 연말이 되면 잘 먹어 살이 뽀얗게 올랐다. 하지만 사역은 어떻게 했겠느냐? 지난 일 년간 너의 사역 성과를 가져와 봐라. 지난 일 년간 어떤 사역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실질적인 사역들을 했느냐? 하나님 집에서는 네게 모든 사역을 훌륭히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음 사역, 영화 제작 사역, 문서 사역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은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 이런 몇몇 사역에서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3~5 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 대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일부 성과가 나온다. 만약 1 년 넘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네가 책임졌던 범위 내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역, 즉 일 년간 가장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가장 많이 고생한 사역이 어떤 것인지 보아라. 그리고 그 성과를 내놓고 지난 일 년간 네가 누린 은혜만큼 가치 있는 성과를 얻었는지 살펴보아라. 너는 마음속으로 이를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 집의 밥을 먹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대체 무얼 한 것이냐? 성과를 좀 냈느냐? 성과가 전혀 없다면 너는 빈둥대며 사는 자로, 명실상부한 거짓 리더이다. 이런 리더는 교체되고 도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런 거짓 리더를 만나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밥만 축내고 있는 거짓 리더임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먹을 땐 온 입이 기름 범벅이 되도록 먹으면서 사역을 위해 조급해하고 속 끓이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에 관해 물어보지 않는다. 설령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다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상부에서 결과를 재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것이다. 상부에서 재촉하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는 하루 종일 즐기는 것에 탐닉하고, 한가하게 영화와 드라마도 본다. 그가 사역을 안배하고 나면, 남들은 다들 본분을 이행하느라 바쁜데, 자기는 쉬면서 즐기고 있다.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그를 찾아가면 그림자도 찾을 수 없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정시에 나타난다. 식사를 마치고 다들 일에 몰두할 때 그는 또 쉬러 간다. 그에게 "당신은 어째서 사역을 검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당신이 지도해 주고 안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 하러 저를 기다리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다 할 줄 알잖아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쉬면 안 됩니까?"라고 답한다. "그게 어디 쉬는 겁니까?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라고 하면, "업무를 배우는 겁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찍은 건지 공부하는 거예요."라며 핑계를 댄다. 그렇게 영화를 한 편 보고 또 한 편 보다가 저녁이 되어 다들 쉬면 그도 따라서 쉰다. 매일 이렇게 대충 지내면, 결국은 어떤 지경에 이르겠느냐? 모두가 그를 못마땅해하고 불편하게 여겨 결국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게 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리더가 책임지지 않아도 해당 사역이 진전되지 않겠느냐? 그가 없어도 지구가 돌지 않겠느냐? (돕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그에게 속박당하지 않도록 그를 폭로해야 한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이 거짓 리더를 반드시 폭로하고 해부하여 모두가 그를 분별하게 한 다음 그를 파면해 물러나게 해야 한다! 너희가 이런 거짓 리더를 만나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가 없으면 너희가 우두머리 없는 오합지졸이 된 느낌이 들겠느냐? 너희가 독립적으로 사역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느냐? 만약 사역을 할 수 없다면 너희는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를 만났는데, 그가 본분을 열심히 이행하지 않고, 선두 역할도 못 하면서 한가할 땐 온라인으로 잡담이나 한다면, 이런 상황을 너희가 분별하겠느냐? 너희도 그의 영향을 받아 그를 따라 잡담이나 하고 본분 이행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또한 거짓 리더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늘 빈둥거리며 게으름만 피우는 거짓 리더들이 있다. 일하기도 싫어하고 신경 쓰기도 싫어한다. 고생하기 싫어하고 책임지기도 싫어한다. 그저 안일을 누리며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몹시 게으르기까지 하다. 그는 아침에는 모두가 식사를 끝내고 난 후에야 겨우 일어나고, 저녁에는 모두 잠이 든 후에도 계속해서 드라마를 본다. 주방에서 일하는 형제 한 명이 보아 넘기지 못하고 그를 책망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밥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그 말을 듣겠느냐? (듣지 않습니다.) 만약 리더 일꾼이 "좀 부지런히 굴어요. 해야 할 사역은 반드시 해야죠. 당신이 리더이니 무슨 사역을 하든 책임을 다해서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해요. 지금 문제를 발견했는데 당신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이는 교회 사역을 그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라고 꾸짖는다면, 그가 듣겠느냐? 이 또한 반드시 듣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의사 결정팀에서 재빨리 교체하고 다른 사역을 안배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어디를 가든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물이라면, 그를 내보내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도 없고, 사람도 아니다.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이다. 건달에 해당하는 이런 거짓 리더는 간파하는 순간 바로 교체해야 한다. 권면할 필요도, 기회를 주고 관찰할 필요도 없고, 진리를 교제할 필요도 없다. 그가 들은 진리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냐? 책망하고 훈계한다고 해서 그가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자질이 떨어지면 가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릇되기도 하고, 혹은 무지해서 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나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본분을 이행할 때 편차가 있더라도 책망과 훈계가 닥치면 회개할 수 있다. 최소한 그는 리더의 직책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양심과 책임감이 있으며, 이런 마음을 갖추었다. 하지만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서 편한 것만 찾고, 부담이 없는 사람은 변하지 못한다. 속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에 누가 책망하고 훈계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벌, 심판, 시련, 연단이 그에게 임하면, 부담이 없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고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제 버릇 개 못 주는 법이다. 네가 봤을 때 게으르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분명 그는 거짓 리더이다. 누군가는 "어떻게 거짓 리더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자질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계산도 잘해서 세상에서 기업도 해 봤고, 총재도 해 봤어요.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고, 식견도 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게으르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게으르면 어떤 모습과 특징이 있겠느냐? 첫째, 무슨 일을 하든 건성으로 대충하고, 꾸물대고 질질 끌며, 쉴 수 있으면 쉬고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 둘째, 교회 사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누가 마음을 쓰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은 마음을 쓰지 않는다. 만약 그가 마음을 쓴다면 그 또한 자신의 명예, 이익, 지위를 위한 것으로, 지위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만이다. 셋째, 사역할 때 고생할까 봐 두려워한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못 견디고 마음속에 원망이 커지며, 고생하거나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 넷째, 무슨 사역을 하든 끈기가 없고,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 잠시 기분이 들떠 재미로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만약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할 경우, 늘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마음을 쓸 경우 육이 피로를 느끼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 원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을 책임지는 리더가 있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끼고, 매우 의욕적으로 진리를 교제한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이면 도와서 해결해 준다. 한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그는 리더의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 소극적으로 변하고, 고생하기 싫어 편한 사역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항심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일단 육이 고생하면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거절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시켜 놓고 그 사람이 사역을 완수하면 뻔뻔하게 자기가 성과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5 대 특징이다. 너희는 교회의 리더 일꾼 중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게으른 사람을 발견하면 당장 교체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자질이 어떻든, 그의 인성이

좋든 나쁘든 게으르면 제대로 사역할 수 없으며, 게으르면 사역과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 교회 사역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며, 각 측면의 사역과 관련하여 많은 세부적인 사역을 해야 하고, 진리 교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 일꾼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한다. 매일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만 사역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으며, 말이나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면 성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리더 일꾼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분명 거짓 리더이며,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사역 현장에 직접 가 보는 일은 더더욱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에도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전혀 알아보거나 파악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피상적으로 대충 알고는 사람들에게 도리를 이야기하며 어물쩍 넘어갈 뿐이다. 너희는 이런 리더를 분별할 줄 아느냐? 그가 바로 거짓 리더임을 분별해 낼 수 있겠느냐? (조금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본분이든 건성으로 이행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항심도 없어서 하다 말다 한다. 조금만 고생해도 원망하며 날마다 죽는소리를 하고, 누가 그를 질책하거나 책망하면 상대방에게 욕한다. 마치 쌈닭 같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욕지거리하는 것처럼 늘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만 하려 하고 본분은 이행하기 싫어한다.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느냐? 그가 부담을 갖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며, 이렇게 고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리더 일꾼의 경우, 그에게 부담이 없다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점검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방금 리더 일꾼의 직책 제 5 조 '각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거나 파악하는' 측면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거짓 리더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인성과 인격을 폭로하였다. 이제 '각 사역의 진도를 알아보거나 파악하는' 것에 관해 살펴보자. 물론 사역의 진도와 현황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 또한 상당히 밀접하다. 만약 어떤 사역의 현황조차 알아보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의 진도 또한 마찬가지로 알아보거나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사역의 진도가 어떤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님 집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한 것은 없는지, 이룬 성과는 어떤지, 만약 사역하는 사람이 업무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면 학습은 하고 있는지, 누가 학습을 조직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바로 진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찬양 사역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한 곡의 찬양이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작곡이 완성되기까지,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 필요하겠느냐? 우선 노래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길이도 적당한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말씀에 어떤 스타일의 곡을 붙여야 적합하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느낌이 좋고 즐거울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 노래를 부를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역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편곡이 완성된 후, 곡이 기준에 맞는지, 스타일이 적합한지 거짓 리더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편곡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느끼기에 대충 됐다 싶으면 녹음을 해 버린다. 모두가 기대하던 이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곡을 붙여 찬양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겠느냐? 만들어진 곡이 그다지 좋지 않고, 멜로디와 운치도 없는데 녹음 제작된 것이다. 거짓 리더가 듣고는 "누가 이 찬양을 만들었나요? 어떻게 녹음까지 되었죠?"라고 말한다. 그는 최소한 이미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이런 질문을 한다. 그 한 달 동안, 리더가 이 사역의 진도를 점검하고 제때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작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모티브는 나왔는지, 멜로디는 있는지, 이 곡의 멜로디와 스타일이 하나님 말씀과 어울리는지, 관련된 경험 있는 사람이 지도를 도와주었는지, 이 곡이 완성되고 나서 불릴 수 있을지, 효과는 어떨지,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등 말이다. 거짓 리더는 이런 것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 그가 점검하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이유이겠느냐?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모르는 문외한이 점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하겠느냐? (형제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원칙에 따라 이 곡이 적합한지 심의하면, 이 사역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신경을 끄면 안 됩니다.) 거짓 리더가 사역을 할 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도리와 구호만 외치고 지령을 전달한 후에는 손을 놓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사역이 그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문제나 편차,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사역을 맡기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실, 리더로서 사역을 안배한 후에는 반드시 사역의 진도를 점검해야 한다. 이 측면의 사역에 있어 문외한일지라도, 아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사역을 할 방법은 있다. 그 업무에 정통하고 잘 아는 사람을 찾아 감독하고 의견을 내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 가운데서 적절한 원칙을 찾으면 사역을 점검할 수 있다. 네가 그 업무에 정통하든 그렇지 않든, 그 업무를 잘 알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사역을 주관하고 점검하며, 사역의 진전 상황이 어떤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알아봐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자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사역을 점검하지 않으며, 사역을 맡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일 처리 스타일이다. 사역을 점검하거나 지도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묻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으며, 사역의 진도와 효율도 파악하지 않는 것, 이 또한 거짓 리더의 모습이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사역의 진도에 지장을 준다

거짓 리더는 사역의 진도를 알아보지 않고, 사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며, 해결은 더더욱 못 하기에 그 결과 수시로 사역을 지연시킨다. 어떤 사역은 사람이 원칙을 파악하지 않고, 책임지고 주관할 적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종종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기다리기만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역의 진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만약 리더가 책임을 다해 주관하고 사역을 추진하고 독촉하는 한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해당 사역을 지도하게 한다면 사역의 진도는 계속 지연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사역의 진도를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역 진도는 사역 효율이나 그 사역이 내야 할

성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의 진도조차 파악하지 않고 점검하거나 감독하지도 않는다면 교회 사역의 진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본분을 이행하는 많은 인원이 양아치 기질이 심각하고 부담이 없으며, 수시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굴고, 대충 건성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만약 구체적으로 사역을 책임지고 제때에 사역의 진도를 알아보며,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고 징계하며, 아울러 책망하는, 부담감과 사역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사역 효율은 당연히 낮아지고 사역 성과도 떨어지게 된다. 리더 일꾼이 이런 일조차 간파하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눈먼 자이다. 그러므로 리더 일꾼은 반드시 사역의 진도를 제때 알아보고 점검하고 파악해야 하고, 본분 이행 인원에게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런 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리더로서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한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절대 거짓 리더처럼 표면적인 일만 좀 하고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대충 형식만 취하고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하든 주마간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 그저 큰소리만 치고 도리와 빈말을 늘어놓으며 형식만 따른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짓 리더는 이런 상태로 사역을 한다. 적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거짓 리더는 눈에 띄게, 고의로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사역 성과 면에서 보면 일을 건성으로 하고 부담을 갖지 않으며, 본분에 무책임하고 충성심도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방금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교회 각 사역의 진전 상황을 알아보거나 파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제하였다. 교회 사역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거짓 리더는 내버려두고 상관하지 않거나 그저 도리만 좀 이야기하고 구호를 좀 외치며 대충 넘긴다. 사역 현장 어디에서도 그들이 사역을 알아보고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그들이 현장에서 진리를 교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사역에 허점과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습은 더더욱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건성으로 대충 사역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다. 비록 거짓 리더가 적그리스도처럼 일부러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독립 왕국을 세우지는 않지만, 거짓 리더가 건성으로 대충 하는 여러 행동 방식은 교회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교회 각종 사역의 진도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으며,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마 이런 거짓 리더를 도태시키면 안 되는 것이냐?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든 전부 용두사미로 끝낸다. 그는 시작을 외치는 역할을 맡아 구호를 외치고 도리를 이야기하며, 사역을 배치하고 사역 책임자를 안배하고 나면 그의 일은 끝이 난다. 마치 중국 농촌의 방송 스피커처럼 그는 그저 이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만 할 뿐, 후속 사역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각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성과가 있는지 등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사역의 밑바닥까지 들어가 사역 현장에 가서 각 사역의 진도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동안 일부러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들은 사역을 마비시켰으며, 교회 각종 사역의 진전을 지체시켰다. 그로 인해 하나님 선민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생명 진입도 없게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로 하나님 선민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는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책임져야 할 사역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여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전되도록 보장하지 못했으며, 리더 일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도 하지 못했고, 그들의 충성과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 이로써 거짓 리더는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심이 없으며, 전부 건성으로 대충 이행하고, 하나님 선민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였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지장을 주고 방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거짓 리더가 정말로 사역을 하지 못하든 아니면 사역을 회피하며 일부러 건성으로 대충하든, 어쨌든 거짓 리더가 교회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교회 각종 사역이 아무런 진전이 없고 누적된 많은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복음 사역의 확장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이런 사실들은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 확장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역의 진도를 지체시키고 사역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 사역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혀 많은 인력, 물자, 재원을 낭비한다. 그러니 거짓 리더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 일꾼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손실 배상까지 해야 한다면 리더 일꾼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자격도 없다. 양심과 이성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다. 그런데 이런 악인이 리더 일꾼이 되고 싶어 한다면 이는 골치 아픈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의 많은 사역이 다 경제적 지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경제적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제물은 사람이 멋대로 낭비하고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 리더 일꾼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훼손하느냐?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면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항목의 사역은 한 사람이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반년 동안 한다면 나머지 5 개월의 지출은 손실 아니겠느냐? 복음 전도를 예로 들어 보겠다. 참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 달이면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후 교회에 가입시켜 계속 양육하고 공급하면 반년 안에 토대를 마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경 쓰지 않거나 건성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리더 일꾼 역시 책임감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 반년이나 끌다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 측면에서 볼 때 반년의 시간을 손해 본 것 아니겠느냐? 만약 대재난이 닥쳤는데 그가 아직 참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 아니겠느냐? 그 손실은 금전적, 물질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너는 그가 진리를 깨닫는 것에 반년이나 지장을 주었으며, 또 그가 토대를 마련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반년이나 늦어지게 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겠느냐? 리더 일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준 데 대해 책임질 수 없다. 누구도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리더 일꾼이 어떻게 해야 적절하겠느냐? 딱 한 가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해야겠느냐? 자신의 책임을 다하되,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질로 이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일부 리더 일꾼들은 복음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알아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재난 속에서 죽어도 마땅해!'라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복음 사역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늘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만 중시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도를 알아보든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늘 그럭저럭 시간 보내는 마음가짐으로 태상황(太上皇)이나 관료처럼 행동한다.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그는 현장에 가지 않고, 사역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으며, 사역을 점검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역을 안배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것이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건성으로 대충 하는 것 아니겠느냐? 상부와 아래를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리더 일꾼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치 큰 붉은 용의 관리 같지 않으냐? 그는 '리더 일꾼이 된다는 것은 관직에 오르는 거야. 그러니 지위의 복을 누려야 해. 관직에 오르면 이런 특권이 있으니, 매사에 현장에 나갈 필요 없어. 늘 현장에 나가 사역을 점검하고 상황을 알아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나는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은 바로 이렇게 사역한다. 그들은 그저 편안함을 누리고 지위의 복을 누릴 뿐,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런 기생충은 마땅히 도태시켜야 하고, 징벌받아 마땅하다! 일부 리더 일꾼은 교회 사역을 몇 년이나 했는데도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할 줄은 더더욱 모른다. 네가 그에게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복음 대상자에게 교제하라고 하면, 그는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신은 이상 측면의 진리를 갖추기 위해 공을 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거짓 리더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뭐 하러 그런 공을 들여야 하지? 내 지위가 이렇게 높으니, 내가 그 일을 할 필요 없어. 할 사람은 많아.'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자는 어떤 작자이겠느냐? 그는 교회 사역을 여러 해 했으면서도 복음을 전도할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복음 증거자를 찾아 증거하게 해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복음을 전하거나 증거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해 주지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의 직책은 무엇이냐? 너는 직책을 다하였느냐? 너는 밑천을 파먹고 있는 것이냐? 너의 밑천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에게 밑천을 파먹을 권리를 주었느냐? 심지어 일부 복음팀 책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전혀 듣지도 않는다. 그는 듣는 데 흥미가 없고, 듣기 귀찮아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며, 그런 인내심도 없다. 그들이 리더이고, 그들이 관직에 있으니, 이런 구체적인 사역은 그들이 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에게 시킨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구체적인 이상 측면의 진리들을 깨닫고 싶어 하는 자질이 훌륭하고 모든 일에 진지한 사람을 정말로 만났는데, 어떤 복음 사역자가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지 못해 리더에게 교제하라고 하면, 리더는 말이 없어지며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 사역은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군가가 참도를 찾을 때, 여러분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세요. 저는 단지 생명 진입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는 것만 책임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거나 증거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숨어 버린다. 그는 자신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왜 갖추지 않는 것이냐? 자신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왜 늘 앞다투어 리더가 되려 하는 것이냐? 그는 별다른 재능이 없으면서도 어떤 직위든 감히 맡으려 한다. 그에게 황제를 시켜도 감히 할 정도이니, 이 얼마나 뻔뻔하냐! 그는 어떤 급의 리더가 되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면서 감히 지위의 복을 누리려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이는 너무 뻔뻔한 사람 아니겠느냐? 너에게 외국어를 하라고 했는데 네가 못 한다면, 이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너에게 모국어로 이상 측면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교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막 믿은 지 3~5 년 된 사람이 진리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20 년 가까이 믿고도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폐물이고 식충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지 못하다니, 내가 들어도 의아한데 너희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겠느냐? 불가사의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요 몇 년 동안의 사역을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너에게 음악을 지도하라고 하면 할 줄 모르고, "이 분야의 업무가 너무 어려워 일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너에게 미술 디자인이나 영화 제작 사역을 지도하라고 하면, "이런 사역들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너에게 체험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너는 또 "저는 배움이 짧아서 쓸 줄 모릅니다.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역들을 네가 할 줄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복음 사역은 너의 본분에 속하는 일이다. 너무나 익숙한 이 사역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 단계 사역의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처음 교제할 때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다지 잘 교제하지 못하지만, 한동안 훈련하면 점점 더 교제를 잘하게 되고, 말에 체계가 생기고, 언어가 정제되고 명확해지며, 표현 방식도 점점 좋아진다. 이것이 리더가 마땅히 익혀야 할 구체적인 업무 사역 아니겠느냐? 오리를 횃대에 올라가게 강요하는 셈이 아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이 정도의 사역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무슨 리더를 한다는 것이냐? 너는 아직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고가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아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측면의 진리를 잘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복음 사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허점과 편차를 네가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네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해결은 말할 것도 없다. 거짓 리더는 복음 사역을 책임지는 동안 점검과 감독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한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며,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일 처리에 이성이 없으며, 원칙은 더더욱 없어서 함부로 제멋대로 하는데, 거짓 리더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서 끼니와 생활이 모두 문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밥을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서적 몇 권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와 전화가 없는데,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알아본 결과, 이 사람들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이 생겨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본분을 이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후, 리더는 그 사람들에게 매달 구호금을 주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요금, 휴대폰과 컴퓨터 등 장비 구입 비용까지 모두 하나님 집의 돈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복음 사역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계가 막막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구제한다는 규정이 하나님 집에 있느냐? 이런 원칙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는 어떤 원칙에 따라 그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한 것이냐? 하나님 집에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해서이겠느냐, 아니면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이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이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하려는 것이겠느냐? 그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냐? 이들에게 휴대폰, 컴퓨터, 생활비를 나눠 줄 때 그는 매우 기뻐하며 바삐 일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역을 하기 좋아한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인심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일에 마음을 기울인다. 게다가 점점 더 만족을 모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심을 얻는 것이다.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삶의 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 일부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만 이조차도 진심이 아니라 휴대폰과 컴퓨터를 얻기 위한 것이며,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본분을 이행하려고만 하면 돌봐 준다. 주거비와 식비를 줄 뿐만 아니라 컴퓨터, 휴대폰, 각종 장비까지 사 주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본분을 이행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렇다면 이 돈은 헛되이 쓴 것 아니겠느냐? 이는 하나님 집의 돈으로 인심을 쓴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자가 거짓 리더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는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짓 자비와 거짓 선심을 베푼다. 네가 선심을 베풀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네 돈으로 해라! 그에게 입을 옷이 없다면, 네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라. 하나님의 제물을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제물은 복음 확장 사역에 쓰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 집은 복지 시설이 아니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진리와 생명은 더더욱 공급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제물로 혜택을 제공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것만 중시한다. 이는 집안을 말아먹는 뻔뻔한 자 아니겠느냐? 이런 거짓 리더를 발견하면,

제때 폭로하고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않는다. 만약 상부에서 발견해 제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돈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손을 길게 뻗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끝없이 욕심을 부렸을 것이고,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정과 직장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으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방법을 마련해 해결하지 하나님 집에 늘 요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체험한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밥을 빌어먹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집에 생활비를 요구하고 하나님 집에서 자신들을 먹여 살리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성이 없다! 그들은 아무런 본분도 이행하려 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즐기려고만 하고, 하나님 집에 손을 내밀기만 한다. 게다가 끝도 없이 요구한다. 이는 거지 떼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어리석은 거짓 리더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한도 끝도 없이 주며, 끊임없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려 한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모두 거짓 리더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대부분의 리더들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어차피 내가 복음 사역을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뭐 하러 신경 써?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내 주머니에서 한 푼도 나가지 않으면 돼. 너희가 누구에게 주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매우 많은데,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지금 해외 복음 사역이 널리 전개되기 시작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국가들도 있고, 자질이 좀 부족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국가들도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없고 참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국가들도 있다. 또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 너무 뒤처져 있고 자질이 형편없어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런 지역에는 전할 수 없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 전하기 쉬운 사람은 내버려두고 굳이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다. 복음 사역이 이미 확장된 지역이나 쉽게 전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전하러 가지 않고 굳이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 가서 자질이 가장 부족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고, 종교 관념이 가장 강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민족에게 전하려 한다. 이는 편차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유대교나 뿌리 깊은 민족 종교의 경우, 그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보고 박해까지 하니, 이런 국가나 민족에게 절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왜 전해서는 안 되겠느냐? 네가 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모든 인력, 재력, 물자를 다 쏟아부어도, 3 년, 5 년, 심지어 10 년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처음에는 모르니까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도 결국 좋은 성과를 얻을 보장은 없다는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성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마땅히 꿰뚫어 봐야 하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외 복음 확장에서 먼저 어디부터 확장할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먼저 이스라엘부터 확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과거 두 단계 사역의 근거지이므로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하기 어려워도 끝까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그 결과 오랫동안 전했어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때 리더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만약 자질이 있고 부담이 있는 리더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없었으며 순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상에 근거해 일을 바라봤어요. 너무 유치했죠! 이들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매하고 완고하고 터무니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몇천 년이나 믿었으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이미 그들을 포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 방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도도 해 보았고,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일단은 그들을 포기하고 한쪽에 제쳐 두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참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해야 합니다. 참도를 찾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 (고수할 수 없습니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확장된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영광을 가져오셨으니,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을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가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셨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말은 구호 아니겠느냐?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는 이런 일들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일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워했다. 포기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짓 리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들이 길이 없어 수심에 잠긴 것을 보고 "뭘 걱정합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체험 간증도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세요!"라고 하자 사람들은 "당신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전하기 어려워요."라고 답했다. 사역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겨 리더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도 그는 여전히 구호나 외치고 빈말만 한다. 이것이 리더가 보여야 할 모습이겠느냐? 사람들이 이런 복음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물으니,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이 더더욱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너희는 그의 말에서 문제를 발견하였느냐? 그는 이것이 복음 사역 중 나타난 편차와 허점이며, 그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식충이는 알지 못한 채 이상론만 늘어놓으며 구호를 외친다. 정말 못난이다! 그러고도 자신이

영리하고 자질이 있으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사역 중에 이렇게 큰 허점과 편차가 생긴 것도 알지 못하는데 해결은 논할 나위가 있겠느냐? 더더욱 논할 나위도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수심에 잠기고, 복음 사역이 지장과 방해를 받아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해도 거짓 리더는 사역 중에 생긴 편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역하는 과정에 문제와 편차가 생기면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 방식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해 나가는데도 리더 일꾼은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져 사역의 진전에 지장을 주고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리더 일꾼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는 바로 리더 일꾼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이 사역을 자주 검사하고,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봐야 한다. 만약 사역 효율이 높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생겼고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매우 바빠 보이는데 어째서 눈에 띄는 효율이 없는 거지? 복음팀의 사역 같은 경우,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협력까지 해 가며 사역하는데 어째서 매달 얻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누구에게 문제가 생긴 거지? 이 편차는 어떻게 생긴 걸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각 그룹에 가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대상자들이 어떤지, 복음 전도 방향이 정확한지를 알아봐야 해.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문의, 교제, 토론을 통해 사역 중의 편차와 허점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른다.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어떤 리더여야 사역 중에 발생하는 문제, 편차, 허점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리더는 부담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역의 모든 세부 사항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알아보고 파악해야 하며,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몇 명이 해야 적합한지,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질은 어떤지, 사역을 제대로 하는지, 사역 효율은 어떤지, 사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모두 알아봐야 한다. 또한,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복음 증거자가 진리를 갖췄는지,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밝히 교제하여 사람들의 관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복음 대상자의 부족함을 채워 주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리를 교제해 복음 대상자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지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성육신의 의의 측면의 진리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데, 그가 늘 하나님 사역의 의의와 종교 관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문제 아니겠느냐? 상대방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경륜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면, 이는 3 단계 사역의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하나님이 사람의 패괴 성품인 교만함, 간사함, 사악함 등을 폭로하는 이런 내용만 말한다. 상대방은 아직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형벌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상대방은 듣다가 반감을 느끼게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흥미를 잃은 상대방은 계속 알아보려 하지 않게 된다. 이는 복음

증거자의 문제 아니겠느냐? 복음 증거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요점이 없이 되는대로 이야기하여 복음 대상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무슨 문제가 닥치든 전부 무시한다. 복음 사역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또 악인이 복음 사역을 아무리 교란하고 지장을 주어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다. 마치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거짓 리더는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사역한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본분 이행이 성과가 있든 없든, 진리 원칙에 부합하든 아니든 그는 감독하지 않으며 점검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복음 사역 중에 나타난 편차와 허점이 끝끝내 해결되지 못하였고, 참도를 찾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으며, 그들을 조속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3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아니었고, 또 비방 선전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너무 무책임해서 제가 물어본 문제에 답하지 못했고, 제가 진리를 구해도 명확하게 교제해 주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길래, 결국 제가 실망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년 후에 그는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또 형제자매를 찾아 구하고 교제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던 관념과 고민을 하나씩 해결하였고,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이 사람이 스스로 찾고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복음 전도자가 3 년 전에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고 사람들의 관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3 년 전에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생명 성장이 얼마나 지체되었겠느냐! 이는 복음 전도자의 직무 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복음 전도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부 복음 사역자들은 진리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단지 도리만 말할 줄 알아서 사람들의 관념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해 몇 년 동안 생명 성장이 지체되었다. 이는 복음 사역을 책임진 리더에게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리더 일꾼이 정말로 부담이 있고, 고생도 좀 더 하고, 진리를 교제하는 훈련도 더 하며, 충성심도 좀 더 있어 각 측면의 진리를 밝히 교제해 주어 복음 사역자들이 진리 교제를 통해 사람들의 관념과 의문을 해결할 줄 안다면, 복음 전도의 성과가 나날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참도를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바로 거짓 리더가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을 점검하거나 감독하지 않으며,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지연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거짓 리더들이 지위의 복을 누리며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복음 확장 사역을 점검하거나 감독하거나 지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사역이 더디게 진전되었고, 많은 인위적인 편차, 터무니없는 것, 제멋대로 행동하는 문제들이 제때 바로잡히고 해결되지 않아 복음 확장의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상부에서 발견하여 리더 일꾼에게 반드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야 이런 문제들이 바로잡혔다. 이런 거짓 리더들은

마치 장님처럼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일 처리에 전혀 원칙이 없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상부의 훈계와 책망을 받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가 초래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를 면직시킨다고 해도 이 손실은 어떻게 메우겠느냐? 그러니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를 발견하면 제때 교체해야 한다. 일부 교회의 복음 사역이 특히 진전이 더딘 것은 바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거짓 리더가 각종 사역을 할 때는 실제로 그들이 해결하고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매우 많은 문제, 편차, 허점이 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부담이 없고 그저 지위의 복을 누리기만 할 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분열되어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훼방을 놓으며, 동시에 또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도태시킬까 봐 걱정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도 거짓 리더는 해결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교회 사역이 마비 상태에 빠져도 거짓 리더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 교회 사역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짓 리더는 생명 공급 사역을 전혀 할 줄 모르며, 진리에 근거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른다. 그저 상부에서 특별히 안배하고 지정한 사무적인 사역이나 좀 할 뿐이다. 마치 그가 상부를 위해 사역하는 것처럼 말이다. 상부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 즉 생명 공급 사역, 사람을 양성하는 사역, 또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지도하는 것을 그는 전부 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으며, 그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안배하고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는 상부에서 지시한 만큼만 일하고, 지시해야 움직이며,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건성으로 대충 한다.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란 무엇이겠느냐? 한마디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리더 본연의 사역을 하지 않고, 핵심 사역과 근본 사역에서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며, 성과가 없는 사람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무적인 사역으로만 바쁘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리더 본연의 사역과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맡긴 핵심 사역은 단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또한, 교회의 각종 사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을 리더가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는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다. 형제자매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만약 그를 찾았다면 그는 사역이 너무 바쁘다고 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나 몰라라 한다. 결국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좀처럼 해결되지 않게 되고, 각종 사역이 정체되어 진전되지 못하며, 교회 사역이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야기된 결과이다. 거짓 리더는 결코 본연의 사역을 참답게 대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진리를 구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이는 틀림없이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 구호를 외치는 것,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오로지 사무적인 사역을 하는 것만 중시할 뿐 하나님 집에서 맡긴,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은 할 줄도 모르고 훈련하지도 않으며, 실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리더이다.

일부 거짓 리더에게 문서 사역, 즉 대본 집필, 체험 간증문 쓰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역을 지도하게 하면, 그는 단순히 지도만 하는 거라면 구체적인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이런 대화를 나눈다. "장 씨, 문장은 잘 쓰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씨, 대본 집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끼리 상의해 보세요. 많이 기도하시고요." 거짓 리더는 형제자매들을 지도하거나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본연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시하지 않고, 별일 없으면 어슬렁거리며 한가롭고 자유롭게 지낸다. 겉으로는 사역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니, 정말 관료적이다! 모두 똑같은 패괴된 인류이지만, 이방의 어떤 국가의 좋은 관리들이 이 거짓 리더들보다 훨씬 낫다. 이 거짓 리더들은 그들과 같은 책임감이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한 후 각국이 모두 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타이완이 방역 작업을 잘했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는 타이완 정부 관리들이 방역 작업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철저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속한 국가, 패괴된 인류인 관리와 정객이 한 가지 업무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다니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타이완을 방문해 참관하고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타이완의 정부 관리들은 다른 나라 관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대부분의 관리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마음과 책임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관리로서의 자격을 갖췄음이 증명되었다. 일부 리더 일꾼들은 항상 건성으로 대충 본분을 이행하는데, 아무리 훈계하고 책망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이 사람들의 인품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방의 관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많은 진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여 결국은 다들 거짓 리더가 되어 버렸다. 이는 훌륭한 국가 관리들에 비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사실 나는 사람들에게 높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닫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질이 얼마나 훌륭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직책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저 기준이 있을 뿐이다. 다른 건 제쳐 두고라도 최소한 너의 하루 세끼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부탁에 떳떳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역을 해 왔는데, 양심에 따라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내가 보기에 일부 민주주의 국가의 관리들은 말과 일 처리가 매우 진실하다. 그들은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무슨 고차원적인 이론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말이 특히 신중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일을 정말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인격과 인성을 확실히 드러냈다. 반면 지금 교회 대부분의 리더 일꾼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 다들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며,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다하지 못한다. 그들은 리더가 된 후 종교 관리가 되어 위에서 명령만 내리며, 관료가 되어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만 중시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떠받들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교회의 가장 기층까지 내려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이런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은 정말 구제 불능이다!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진리를 교제해도 이 리더 일꾼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며 아무런 느낌도 없다. 시종일관 건성으로 대충 하는 태도로 본분을 대하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이런 자들은 양심과 이성이 없으며,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고민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진리들을 반복해서 교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쓸모없지는 않은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도 말을 해야 했다. 이런 말들이 양심과 이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자질은 좀 부족해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말과 일에서 교훈과 깨우침을 얻어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생명 진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만약 아무도 붙들어 주거나 공급해 주지 않으면, 각각의 진리를 하나씩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매우 연약해지고, 종종 무력하고 방황하는 상태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나는 이런 거짓 리더들을 보면 그들에게 교제를 할 마음이 사라진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겪은 고생과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마음을 바꾸게 된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본분을 이행할 때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고 충성심이 있으며 기꺼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30 명~50 명, 최소한 8 명~10 명만 있어도 내가 이런 말을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심과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교제해야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원동력도 생기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성과도 없을 것이다. 너희 중 대부분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본분을 이행할 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심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고, 단지 복받으려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뿐이다.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사실은 덤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다. 너희는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정으로 대가를 치르며, 충성심과 부담을 가지고 진리를 실행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덕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 하는 것이며, 너희가 이 말을 들은 것은 덤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다. 본분을 대하는 너희 대부분의 태도를 보면 전부 형식적이고 전혀 참답지 않기에 너희는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겠느냐? 너희는 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자세하게 해도 너희는 그저 형식적으로 들을 뿐이며, 아무리 듣고 이해했어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들을 자격이 있겠느냐?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으며 본분과 부탁에 충성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들을 자격이 있다. 어째서 그들이 들을 자격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실행해 낼 수 있고, 자신이 깨달은 만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잔꾀를 부리지 않으며, 진실한 태도와 갈망하는 태도로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대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나면 이런 말이 그들에게서 효과를 나타내 성과에 이르게 된다.

2021 년 2 월 13 일

리더 일꾼의 직책(5)

지난번 예배 때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5 조에 대해 교제했는데, 교제를 통해 거짓 리더의 일부 모습과 행동 방식을 해부해 보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교제를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6 조와 제 7 조를 교제하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제 6 조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다',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거짓 리더의 각종 행동 방식과 모습을 해부해 볼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대항목의 내용으로, 교회가 각 부류의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고,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원칙에 대해 교제해 보자. 그러면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리더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접해서 이 사역에 이미 익숙하고 경험도 어느 정도 있으니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제할 필요가 없겠느냐? (교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방면의 원칙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고, 일부 인재를 아직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대다수 리더 일꾼들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 모색하는 과정에 있고, 정확한 원칙을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역시 세부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다.

제 6 조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다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의미

하나님 집에서 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느냐?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이 과학과 교육, 문학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은 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류의 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류의 앞날을 위해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 선민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이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훈련할 기회를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 대답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아주 적절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더 많은 이들이 훈련할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방금 한 대답은 둘 다 옳고 정확하다.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은 한 측면으로는 하나님나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사역에 관계되고, 또 한 측면으로는 개인의 추구와 진입에 관계된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발탁되고 양성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 집에서 한 사람을 팀장이나 책임자, 혹은 교회 리더 일꾼으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이 그에게 관직에 오르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은 복음 사역, 문서 사역, 영화 제작 사역, 양육 사역, 그리고 일부 사무 사역 등 교회 각 사역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구체적인 사역을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원칙,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근거해서 교회의 각 사역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해서 사역을 맡기는 일을 보면, 사람에게 직함이나 지위가 생긴다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구체적인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맡긴 부탁이나 책임이 따르는 본분과 의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 제 6 조에서 언급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정의이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은 바로 각 부류의 인재를 양성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교회의 각 사역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이 교회의 여러 구체적인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을 양성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교제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 사람들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끌어서 모두 참된 체험과 간증을 갖게 하는 것, 그런 다음 사람을 이끌고 양육하고 공급해서 교회의 각 사역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아울러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 본분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실행 방식은, 한 측면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며 자신을 인식하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끄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자신이 충성하고 순종한 실제 체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이끌고 양성함으로써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각 부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는 주로 이 두 방면의 실행의 길이 있다. 이것은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에 관계된 구체적인 사역이자,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참된 의미이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각 부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리더 일꾼과 각 사역의 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교회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각 부류의 인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어느 범위를 포함하느냐? 우선은 각 사역의 책임자를 맡을 수 있는 부류가 있다. 각 사역의 책임자에 대한 요구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에는 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반드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치우치지 않고 순수하고 올발라야 하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쳐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다.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최소한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고, 진리를 구해 자신의 관념과 상상, 자신의 생각과 불순물, 패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면

곧 하나님 사역을 체험할 줄 알게 된 것이며, 이것이 자질이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둘째, 반드시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가져야 한다. 정말 부담을 가진 사람은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 체험이 있고,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문제를 어느 정도 꿰뚫어 볼 수 있다. 교회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 선민들에게 해결해야 할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걸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이면 그는 조바심을 낸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가진 것이다. 만약 자질이 뛰어나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은 있지만 게으르고,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고,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려 하고, 상부에서 기한 내에 완수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겨우 사역을 좀 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부담이 없는 사람이다. 부담이 없는 사람은 하나같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고, 무위도식하며 아무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못난이다. 셋째, 반드시 사역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역 능력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사역을 배치하고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길 줄 알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역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그 밖에 조직 능력도 있어야 한다. 조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소집하는 데 특히 능하고, 능숙하게 사역을 조직하고 안배하며,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사역을 안배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이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감탄하며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직 능력이 있는 것이다. 정말 사역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구체적인 사역을 시행해 나갈 수 있고, 사역을 시행할 때는 신속하고 칼같으며, 모든 사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을 양성하는 세 가지 기준이다. 만약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추었다면 흔히 얻을 수 없는 인재이니 즉시 발탁해서 양성하고 훈련해야 하고, 일정 기간 연습하면 사역을 맡을 수 있다. 자질이 있고, 부담을 가지고, 사역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역할 때는 누가 늘 신경을 쓰고 독촉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는 자발성이 있으며, 언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점검해야 하고 반드시 면밀히 지켜봐야 할지 알고 있다. 그는 속으로 이런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사역할 때 상대적으로 믿음직스럽고, 믿을 만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설령 문제가 좀 생겨도 아주 사소한 문제여서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다. 사역을 할 때 정말 혼자서 한몫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정말 사역 능력이 있는 것이고, 혼자서 한몫할 수 없고 늘 누군가 신경 써야 하고 누군가 지켜보며 관여해야 하고, 심지어 직접 가르쳐야 한다면 이런 사람은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자질이 보통인 사람은 사역 성과도 당연히 보통이어서 누군가 지켜보고 관여해야 일을 좀 할 수 있지만,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일정 기간 훈련하면 혼자서 한몫을 할 수 있다. 상부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면서 일부 원칙을 교제할 때마다 그는 늘 원칙을 파악하고 그 원칙대로 시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허점이나 편차도 그리 크지 않고, 마땅히 내야 할 성과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러면 사역 능력을 갖춘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교회를 정리하고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요구하면, 이 사역을 할 때 사역 능력이 있는 부류는 대체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한 명이 나타나고 드러나 제명되기까지는 최소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그는 분별해 낼 수 있고, 진리를 교제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해부함으로써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함께

일어나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출교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사역 범위 내에서는 적그리스도나 악인이 나타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미혹되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단지 소수의 머저리나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만 미혹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자질이 뛰어나고 사역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 이런 성과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 실제가 있는 것이고,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다.

방금 언급한 각 부류의 인재 중 첫 번째 부류는 각 사역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제시되는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부담을 갖는 것이며 이는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일반 사람보다 빠르고, 영적인 이해력도 있고, 자질도 뛰어나며, 사역 능력도 있어서 일정 기간 단련하면 반드시 혼자서 한몫을 할 수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부담이 없는 것이다. 그는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며 이런 일들에 너무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에게 고생하며 대가를 치러야 하고, 조금 구속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조금 시키면, 그는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근질근질하고, 온몸이 편치 않다. 그는 자유롭고 산만하며, 제멋대로에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방탕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다가 불현듯 생각나면 그제서야 사역을 조금 하지만, 사역이 조금 힘들고 고되면 금세 흥미를 잃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부담을 가진 것이냐? (아닙니다.) 게으르고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는 이런 부류는 발탁하고 양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자질을 본다면 사역을 하나 담당하기에는 너끈하지만 아쉽게도 부담이 없다. 그는 책임지는 것, 번거로운 것, 신경 쓰는 것을 싫어해서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설령 일이 보여도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부류가 발탁하고 양성해야 할 대상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반드시 부담을 가져야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다. 부담을 가지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인성 방면에 중점을 둔 것이고,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한 측면의 기준과 관련되는 것이다. 부담을 가지면서 다른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즉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사역 능력도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는 부류이며, 이 부류는 각 사역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각 부류의 책임자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에 관한 요구 기준이며, 이 몇 가지를 갖춘 사람이 바로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2.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업무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각 사역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부류 이외에,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류는 바로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있거나 특정 업무 기술을 파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를 팀장으로 양성하는 일에서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은 무엇이냐? 먼저 인성 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사물을 비교적 좋아하고 악인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왜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각 팀의 팀장은 리더 일꾼도 아니고 양육 담당자도 아닌데 만약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운다면 너무 지나친 요구라서 많은 이들이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 사역이나 전문 업무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구가 불필요하고, 만약 이렇게 요구한다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기준을 낮춰야 한다. 업무를 이해해서 사역을 담당할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고 교란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기술 업무에 능하거나 특기가 있는 이들 부류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일부 기술적이거나 업무에 관련된 사역을 이행한다면, 인품이 점잖고 바른 편이라 악인이 아니고, 치우치지 않게 이해하고, 기꺼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알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런 부류를 팀장으로 양성할 때 첫 번째 요구는 바로 긍정적인 사물을 비교적 좋아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인품이 바르고, 악하지 않고, 이해가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품이 발라야 하고, 악인이 아니어야 하며, 또 치우치지 않게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이는 "그렇다면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리를 듣고 나면 진리 실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이렇게까지 요구할 필요 없이 그저 이해가 치우치지 않는 것만 요구하면 그걸로 된다. 이해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사역할 때 좋은 점은 쉽게 일을 방해하는 짓이나 황당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의 의상 색깔을 예로 들어 보자. 하나님 집에서는 의상이 단정하면서 색깔은 단조롭지 않고 다채로워야 한다고 관련 원칙을 수차례 교제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집의 이런 요구 가운데서 원칙을 찾지 못한다. 결국 고른 옷을 보면 죄다 칙칙한 회색 일색이다. 이것은 치우치게 이해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우치게 이해한 것이다. 긍정적인 사물을 비교적 좋아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뜻이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바로 진리에 부합하는 말과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과 각 방면의 진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실행해 낼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최소한 속으로 반발하거나 반감을 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부류는 좋은 사람들이고, 흔히들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 올바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 그들이 좇는 사악한 흐름을 보면 반감과 역겨움, 혐오를 느낀다. 예를 들어, 이방 세계의 흐름 속에서는 다들 사악한 세력을 숭상하고, 많은 여자들이 부자와 결혼하거나 내연녀가 되고자 한다. 이는 사악하지 않으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일에 특히 염증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결혼 못 하거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그런 사람을 경멸하고 천시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사악한 흐름에 염증을 느끼고 혐오하며 이 사악한 흐름에 휘말린 사람을 경멸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사람은 비교적 올곧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길을 걷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나고, 사악한 흐름과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바른길을 걷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굳은 의지가 있는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는 마음속으로 빛 속에서 살길 갈망하고 공의가 권세 잡는 곳을 동경한다. 이런 올곧은 부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물을 비교적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려는 사람은 최소한 바른 인성에 긍정적 사물을 좋아하는 인품을 지녀야 한다. 이는 업무 기술과 특기를 갖춘 부류의 인재를 발탁할 때 제시되는 첫 번째 요구 기준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고생을 감내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업과 사역을 위해 사욕, 육적 즐거움이나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좀 고생스럽거나 힘든 건 별것 아니라 여기며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 옳은 일이라 생각되면 기꺼이 육적 즐거움이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소한 이러한 의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어떤 때는 육적인 편안함을 탐해 늦잠도 자고 좋은 것도 먹고 싶어 해요. 나가 돌아다니거나 놀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기분에 영향을 받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엔 고생을 감내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육적 즐거움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특수한 상황은 예외다. 종합해 보자면, 네가 한 가지 사역을 그에게 맡겼을 때, 그 사역이 크든 작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든, 또 그 사역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든 네가 맡기기만 하면, 네가 지켜보고 관여하지 않아도 그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다. 이런 부류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이는 올바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기도 하다.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진지하게 대할 수 있고, 특히 마음을 쏟고 세심하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고,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 신용을 지키고 남에게 믿음을 준다.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빈둥대고, 이익만 밝히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거짓말만 하며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구슬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 맹세도 서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부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신용을 지키고 본분을 대할 때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특성과 모습이다. 세 번째는 치우치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릇되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파란색이라고 하면 그는 검은색이라 이해하지 않고 네가 회색이라고 하면 그는 자주색이라 이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간혹 치우치게 이해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순수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모두 순수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악인이 아니어야 한다. 이 조항은 쉽게 이해되지 않느냐? 악인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 가지는 해내야 한다. 즉, 하나님 집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원칙을 위배하고 일을 잘못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반발하지도 않고 소극적인 것이나 관념을 퍼트리지도 않아야 한다. 그 밖에도 어떤 무리 안에 있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조금 듣기 거북한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따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악을 악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저 지혜로운 방식을 택해서 멀리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비록 정직한 사람에는 이를 수 없지만, 최소한 비교적 착실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누가 자신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보복하지도, 괴롭히지도, 억압하지도

않는다. 그는 독립 왕국을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 집과 맞서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퍼뜨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도 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항목은 특기가 있거나 기술과 업무에 숙련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할 시 그 상대가 갖춰야 하는 기본 조건이다. 이 네 가지 항목만 갖추면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본분을 책임질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사역을 잘 이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어째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심을 지니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까? 혹시 빠뜨린 것은 아니십니까?" 너희가 볼 때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 실제에 진입했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에게 대적할 리 없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라면, 그래도 양성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정말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이미 양성해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기 위한 요구 조건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패괴 성품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서 발탁하고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탁되고 양성되는 이 대상들은 진리 실제가 있을 리도 없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리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을 리도 없으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각 부류의 인재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우리가 방금 언급한 몇 가지이며,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이다. 몇몇 거짓 리더들은 말한다. "저희 편에는 발탁하고 양성할 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아무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개는 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아무개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개는 충성심이 없고...." 결점을 한 무더기나 늘어놓는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마치 이 사람들이 발탁되고 양성될 수 없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지 않고, 진리 실제도 갖추지 않은 등의 이유 때문이고, 반면 본인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인에게 이미 실제적인 체험이 있고, 본인은 진리 실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말인 듯하다. 그는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냐? 그의 눈에는 누구도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가 아니면 리더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교만한 성품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에 대해 관념과 상상이 가득하다.

3. 사무 사역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조금 전에 하나님 집에서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두 부류에 대해 언급했는데, 하나는 리더 일꾼이 될 수 있는 부류이고, 또 하나는 각종 업무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류이다. 그리고 한 부류가 더 있다. 무슨 특기나 업무 기술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높은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사역을 하는 부류, 즉 단지 교회에서 사무 사역을 좀 하면서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 이외의 일을 하는 부류로, 바로 사무 사역을 하는 부류다. 이런 부류에 대한 하나님 집의 주된 요구는 무엇이냐?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바로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팔이 밖으로 굽지

말아야 하고, 사탄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사교적인 인재여도 그렇고, 사회의 엘리트, 혹은 특별한 인재여도 그렇고 하나님 집을 위해 외교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는 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집의 이익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금전, 물질, 하나님 집의 명성과 명예, 교회의 명성과 명예, 그리고 형제자매의 안전 등이 있으며, 이 몇 가지 측면은 다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켜 낼 수 있다면 그는 정상 인성을 갖춘 것이고, 무척 올곧은 사람이고,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분별력이 없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인성이 악하지만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그의 인격과 인성은 틀림없이 훌륭하고, 잘못될 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하면서 팔이 밖으로 굽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집의 금전과 물질에 많은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의 명예, 교회의 명예에도 막대한 손상을 준다면 이런 자가 좋은 사람이냐? 이런 부류는 결코 좋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집의 물질과 금전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을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방인과 교섭할 때 계속 양보만 하면서 하나님 집을 위해 이익을 얻어 낼 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집을 속여 가며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잘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어떻게 지켰다고 떠들어 대지만 사실 교회 사역은 이미 손해를 입었고, 이방인은 하나님 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겼다. 어떤 이가 외부적인 일을 처리할 때 각 방면에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사무 사역에만 적합하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사람을 발탁해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 (발탁해야 합니다.) 사역 능력이 있고,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적합한 것이니, 이런 부류의 사람은 발탁해야 한다. 반대로, 하나님 집의 이익에 온통 손해를 입히고 형제자매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초래되며 하나님 집과 교회의 명성에 나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은 발탁하고 양성하는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들을 발탁해서 썼으면 얼른 교체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할 때 늘 일을 낸다.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고, 일을 하면 죽을 쑤는가 하면, 시비를 일으켜 항상 누군가로부터 고소되고, 어떤 허점이 있어도 해결할 줄 모른다. 이런 부류는 지능이 낮고, 재수 없는 인간, 망종이다. 이런 부류가 팀장이나 책임자, 또는 리더 일꾼을 맡았으면 얼른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런 부류는 불길한 자이자 재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가 한두 명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편안할 수 없다. 이런 부류는 악령이 들러붙어 있거나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으니 누구든 그와 마주치면 재수가 옴 붙는다. 그러니 서둘러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면상도 좋지 않다. 귀신 같은 얼굴, 간사한 얼굴에다 너무 추해서 이들과 마주치면 누구나 좋지 않은 징조를 느끼게 된다. 이런 부류는 반드시 교체하고 또 제명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무사할 수 있다. 교회에서 각종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할 때는 반드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발탁하고 양성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 리더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여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위해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몇 부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각종 조건을 모두 분명하게 교제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리더 일꾼을 선출하고, 또 어떻게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지에 관한 원칙들만 알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이 사람들을 왜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재란 바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각기 다른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각기 다른 요구가 있고, 발탁하고 양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른바 인재라고 하는 이들이 방금 얘기한 그런 조건에 도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람들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 수준, 순종할 수 있고, 충성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라고 한다면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단지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인품과 인격, 진리를 이해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뜻하며, 그것으로 적합한 셈이다. 이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인재들이 대학생이나 박사, 또는 집안 배경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또는 특이한 재주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발탁하고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 사역에 관계된 사람들 중 일부는 아마 전에 이런 업무를 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발탁되고 양성되기 위한 그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또한 배우기를 원하고 업무를 배우는 데도 능하기만 하면, 하나님 집에서는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 능력을 타고나야 발탁되고 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바람이 있고 그 방면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나아가 이 방면의 업무 기초만 갖추고 있으면 발탁되고 양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각 부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교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

이어서 하나님 집에서 왜 각종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지 교제해 보겠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집에서 각종 인재를 바로 발탁해서 쓰면 되지 않나? 왜 또 한동안 양성하고 훈련해야 하지?' 너희는 이해가 가느냐? 우선 리더 일꾼이 되는 부류에 대해 얘기해 보자. 왜 하나님 집에서는 이해 능력도 있고, 교회에 부담도 있고, 또 사역 능력도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양성하려는 것이냐? 그건 바로 그들이 비록 자질과 조건에서는 모두 적합하지만 아직 참된 체험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다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지는 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한동안 훈련하면서 지도를 받아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을 파악하고 참된 체험이 생겨야 정식으로 쓸 수 있다. 만약 그들에게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본분 이행을 연습하라고 한 다음, 생명이 자라고 나서야 그들을 발탁하고 양성한다면 발전이 너무 더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것이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한 사람에게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사역 능력이 있고 부담도 있다면, 마땅히 발탁하고 양성해서 그에게 리더 일꾼 본분을 이행하는 연습을 하게 해서 그에게 부담을 더해 줘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또 특별한 상황이 닥칠 때는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때로는 책망과 훈계도 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고 많은 고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그는 비로소 참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차츰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하루빨리 리더 일꾼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리더 일꾼을 양성하고 훈련해야 효과도 더 좋고,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사역에 유리하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는 더욱 유리한데, 그건 리더 일꾼에게 실제적인 체험이 생기면 하나님 선민을 직접 양육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 한 사람을 리더로 발탁해서 양성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더해 주어 그를 훈련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향해 노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분량이 빨리 자랄 수 있다. 그에게 부담을 많이 줄수록 받는 중압감도 더 커지고 그만큼 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는 사역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로 들어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함으로써 이루는 성과이다. 만약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 실제를 갖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 그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자신이 은사를 빼면 어떤 진리 실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빈곤하고 가련하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고, 또한 진실로 자신을 인식해서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한다. 이런 것들이 리더 일꾼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성과이다. 이 몇 가지 방면에 인식이 생기면 사람은 비로소 착실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비로소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고, 비로소 사역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뽐내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비로소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고, 차츰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한 사람을 리더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은 그에게 다양한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진리를 구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고 그들에게 공급하면서 사람들을 진리 실제로 진입하도록 이끄는 일을 훈련하게 하고, 동시에 사역 과정에서 만나는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고, 다양한 적그리스도, 악인, 불신파를 분별하고 처리해서 교회를 정리하는 사역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사람과 일, 사물,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많아지고, 진입할 수 있는 진리 실제도 점점 많아지게 된다. 이는 훈련의 기회가 아니냐? 훈련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람은 체험이 쌓이고 식견이 넓어져서 발전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하지만 만약 그가 리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가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과

체험에 지나지 않고, 그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역시 개인의 패괴 성품과 각종 내적 상태에 지나지 않는데, 단지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리더가 되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일, 더 많은 환경을 접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 원칙을 구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과 일, 사물은 은연중에 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당연히 그가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할 것이니,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따라서 똑같이 자질과 부담, 사역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평범한 신자는 천천히 진입하고, 리더 일꾼은 좀 빨리 진입한다. 사람에게는 진리 실제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니면 천천히 진입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빨리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질과 부담, 사역 능력이 있는 부류는 하나님 집에서 파격적으로 발탁한다. 다만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집에서 그를 억지로 발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기초가 있고, 리더 일꾼이 될 조건을 갖추고, 진리를 추구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집에서는 틀림없이 발탁하고 양성할 것이며, 그에게 리더 일꾼으로 훈련할 기회를 주어서 교회 사역을 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사역지침에 따라 각종 사역을 잘 시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 줄 것이다. 만약 훈련 기간에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고, 진리를 구해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대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분별하고 처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렇게 해서 관련 진리 원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깨달아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보통 신자는 체험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수확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집에서 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냐? 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갓 발탁되었을 때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조금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 네가 무엇이든 할 줄 안다면 너는 분명 가장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텐데, 그래도 네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무엇이든 할 줄 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겠느냐? 그래도 진리를 구해 자신의 패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결코 아닐 것이다. 반대로 교만하고 거만하게 굴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이고, 권력과 지위를 다투며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한편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집에서 너를 쓸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안다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사역을 제대로 해야 차츰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간단한 일을 대부분은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집에서 너를 발탁하지 않고 양성하지 않는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그래도 너를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러지 못하느냐? 너를 쓰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너무나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를 쓰면 너는 사람을 자기 손안에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을 사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위험한 것이다. 너를 쓰면 네가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너를 교체하고 너 대신 난장판을 수습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 골치 아픈 것이다. 너를 쓰면 너는 어떤 사역도 할 줄 모르고, 어떤 성과도 없고, 어떤 사역을 해도 항상 상부에서 독촉하고,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고, 어떤 일도 상부에서 개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너를 쓰겠느냐? 너무나 신경이 쓰인다! 이런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양성해도 제대로 양성해 낼 수 없고,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를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양성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어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을 품고 이런 말을 내뱉는다. "상부에서는 왜 늘 저를 못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 집에서는 왜 계속 저를 발탁해서 양성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그렇다면 먼저 본인이 말을 잘 듣는지,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하는지를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는 본인이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으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세 가지 조건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 부담, 사역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만약 네가 이런 것을 갖추었다면 언젠가는 발탁되고 양성되고 쓰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너를 발탁하려 하는 이상, 너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어떤 요구이겠느냐? 너는 하나님 집의 원칙과 요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무엇을 하라 하면 하고 어떻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우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도록 양성한다. 너를 양성하는 동안에는 너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너에게 사역 진도를 물어볼 때도 있을 것이고, 네가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때도 있을 것이고, 네 사역을 검사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일을 대할 때 너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테스트할 때도 있을 것이다. 테스트하는 목적은 너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녀야 할 태도와 원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연습이고 훈련이다. 훈련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려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목적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제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성품 변화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렇게 리더 일꾼을 훈련시킨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에게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선민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 그가 이끄는 사람들도 그만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리더 일꾼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진리 원칙을 파악한다면 그가 이끄는 사람들도 사역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파악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받는 리더 일꾼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자질이 더 좋아야 한다. 먼저 그에게 진리 원칙을 이해시키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 후,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진리 원칙을 알게 한다. 이 방식이 어떠하냐? (좋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높은 학식이 없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으며, 과학 기술에 대해 잘 알거나 시사나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어떤 업무에 정통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행하고 체험할 수 있고, 진리 원칙을

찾아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고 진리 원칙을 지키도록 이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인재이다. 이것이 추상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인재라고 하면 사회의 엘리트가 아닙니까? 사회에서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무슨 사장이나 기업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를 했던 정객이나 재계의 인재, 혹은 예술계나 문학계의 인재가 아닙니까? 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집에서 말하는 인재는 세상의 인재와는 다르다. 그 인재란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사람들을 진리 실제로 이끌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사람의 각종 내적 상태와 어려움을 해결할 줄 알고, 일이 닥쳤을 때 올바른 관점,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관점과 태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외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고상한 말만 늘어놓고 고담준론만 떠드는 사람도 아니다.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한다. 이것이 공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으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이런 부류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이 몇 가지 조건은 매우 실제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무나 실제적이다! 사람에게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은 갖추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글자를 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면 어느 정도 받은 교육이 있어야 한다. 글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지만 학력이 아주 높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된 사람 중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도 있고, 대졸자도 있고, 박사생도 있다. 따라서 교육 수준에는 제한이 없다. 그 밖에도 사회적 지위에도 제한이 없다. 농부도 괜찮고, 지식인도 괜찮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괜찮고, 가정주부도 괜찮고, 어떤 부류도 다 괜찮다.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제한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요구되는 조건은 그 몇 가지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다! 이제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인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 부담과 사역 능력 등 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대상이다. 이 조건을 채울 수 있으면 적합한 것이다. 그 외 교육 수준, 가정 배경, 사회적 지위, 외모 등에 대한 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 이것이 리더 일꾼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방면에 관한 내용이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기술 업무 인재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방금 다 교제했다. 즉,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치우치게 이해하지 말아야 하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불평 없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 최소한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몇 가지 조건이 그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사역을 이행할 때 문제에 부닥치면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진입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고 규범을 익히게 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그릇되고 황당한 관점을 바로잡고, 일부 유치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한 편견과 관념, 상상을 내려놓는 등,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된다. 물론, 어찌 되었든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점차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순종을

배우고, 각종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배우는 과정에서 차츰 진리 원칙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진리를 실행하는 게 무엇인지, 본분을 이행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지 차츰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발탁되고 양성되면서 차츰 진입하는 것이다. 사람이 차츰 진입하는 과정이 바로 양성되는 과정이고, 양성되는 과정이 사실은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발탁되고 양성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신자로 있으면서 남들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거나 찬양을 배운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 너는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원칙을 파악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도리와 구호를 좀 얘기할 줄 아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진리 실제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고, 네 생명 진입이 더디다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업무 사역을 하도록 이 사람들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과 목표는 그들이 진리 실제에 더 빨리 진입하도록 하고, 진리 원칙을 더 잘, 더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리 원칙을 파악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인재이다. 이런 부류의 인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바로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알고, 치우치게 이해하지 않고, 악인이 아니라는 바탕 위에 진리 원칙을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이 이른바 두 번째 부류의 인재이다. 그들에 대한 요구도 역시 실제적이고, 또한 추상적이지 않고 충분히 구체적이다. 그렇다면 이 부류의 인재에게 사회의 엘리트여야 한다거나, 사회적인 경력이나 일정한 학력,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결코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요구하거나 무슨 학력이나 높은 학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요구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할 때는 얼굴 생김새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외모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보지 않는다. 이방인처럼 보이거나 외모가 추하고 사악한 부류를 발탁하지 않는 것 말고는, 그 나머지 조건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 몇 가지인데,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발탁할 때 우선 그 사람의 외모부터 살핀다. 남자는 잘생기고 관직자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는 선녀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또한 학력과 사회적 지위, 가정 환경, 수완 등을 비교한다. 학력이 높아도 수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결코 아무도 너를 발탁하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학력이 높고 실제 능력도 있지만, 외모가 받쳐 주지 않고, 키도 작고, 아첨할 줄도 모르고, 보스를 가까이할 줄도 모르면 평생 발탁되고 양성될 생각은 접어야 한다. 너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는 "천리마는 많지만 백락은 흔치 않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라는 말은 성립되느냐? 일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고 불손한 태도를 취하며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즐겨 한다. 언제나 빛을 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야심이다.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각종 인재는 금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발탁하고 양성한다는 것은 단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높여 줌이다. 일개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 앞에서 금이란 말이냐? 너는 먼지에 불과할 뿐, 동이나 쇠붙이도 못 된다. 왜 금이 아니라 먼지라고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까? 방금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한다는 조건만 갖추면 발탁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네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느냐? 네가 긍정적인 사물을 조금 좋아한다고 해서 금이 되는 것이냐? 빛을 발하려 하느냐? 네가 긍정적인 사물을 조금 좋아하는 것이 너에게 진리가 있다는 뜻이냐? 진리가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는데, 진리가 없는데도 빛을 낼 수 있느냐? 사실 피조물은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한다. 인성을 조금 갖추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질을 조금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진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으며, 인성이 바르든 선량하든 그런 건 다 진리가 아니라 단지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인품일 뿐이다. 따라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렇다면 언제 빛을 조금 발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 1:21)라는 욥의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빛이 조금 나고 빛 속에서 살게 된다. 네가 갖춘 진리 실제, 네가 깨달은 진리로써 타인에게 공급하고, 타인을 붙잡아 주고, 이끌 수 있을 때, 타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진리 실제로 이끌 수 있을 때, 그를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한 사람이 빛을 조금 발하는 때이다.

하나님 집에서 양성하는 각 부류의 인재는 초자연적인 천재가 아니라 그저 패괴된 평범한 사람이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자질만 있으면 하나님 집에서는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양성할 것이다.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양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높여 줌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양성과 훈련을 받아들이도록 네게 기회를 주어 네가 이 기간에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진리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말하는 인재라는 의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고급스럽거나 격조 있거나 세련되지 않으며, 그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가 있어 본분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관념과 상상에 따라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 몇 가지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이례적으로 발탁하고 양성해서 그들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너무나 도움이 된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더라도, 똑같이 본분을 이행하더라도 비교해 보면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이 역시 빨리 발전하고 수확도 많이 거둔다. 너희는 많이 얻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 얻는 게 좋으냐? (많이 얻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역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가끔 내가 어떤 팀과 생명 진입에 관한 일을 조금 교제하면, 따라서 듣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것은 대부분 역시 진리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있고, 진리를 많이 깨닫기 원하고, 또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원한다는 뜻이다. 처음에 내가 일부 사람들에게 교제했을 때 그들은 무척 무감각해서 한참을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심지어 웃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1~2 년 접하다 보니 대부분은 모습이나 표정이 자연스러워지고 반응이 생기고, 나중에는 반응도 상대적으로 많이 빨라졌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 영적으로 소생한 것이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죽은 사람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원래는 아주 멍청하고 어눌해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식견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사람답게 살게 된다. 이렇게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산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건 네 육의 사활을 말하거나 육체가 움직일 수 있고 숨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 지각이 있고, 그에 대해 민감한 것을 말한다. 산 사람은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각이 있고, 길을 얻고, 계획과 목표가 생기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면 이 사람은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발탁되지 못하고 양성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진리 실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진리를 응용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해서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인재가 아닌 사람은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습니까?"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교제하고 나면 일부는 신이 나게 만들고, 또 일부 사람은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일은 이렇게 보아야 한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은 거만하게 굴지 마라. 너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이 많으면 그만큼 대가도 많이 치르게 한다. 하나님 집에서 파격적으로 너를 발탁하고 양성한다면 그것은 네가 치러야 할 대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네가 이 고생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네가 얻는 것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만약 네가 "저는 그런 고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는 진리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는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도 저를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양성해 주지 않고, 저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향해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이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자질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먼저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먼저 진입한다고 해서 꼭 그들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이 단지 먼저 조금 많이 얻을 수 있고, 조금 일찍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것뿐이다. 발탁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보다 조금 뒤떨어지지만, 그것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 사람의 추구가 어떤지에 달려 있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들은 양성되는 과정에서 더 빨리 진리 원칙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집의 사역에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질이 훌륭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질투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아끼고 보호하면서 발탁하고 양성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질투가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낫고 자기를 뛰어넘을까 봐 배척하고 억압한다면, 그건 확실한 악행이고, 적그리스도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짓이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만이 형제자매를 공격하고 배척할 수 있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에 대해 지녀야 할 인식과 태도

지금까지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에 대해 교제했다. 발탁하고 양성하는 대상이 어떤 사역을 하든, 기술이 포함된 사역을 하든 일반적인 사역이나 교회의 사무 사역을 하든 어쨌든 사람이 진리 원칙을 깨달아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되도록 빨리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고, 물론 교회 사역의 필요이기도 하다. 이제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의미를 깨달았느냐? 아직도 오해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 사람은 리더로 발탁되어 지위가 생겼으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리더가 되면 지위가 생겨요. 높은 곳은 그만큼 추운 법이고, 높이 올라가면 더 심하게 다치는 법이죠!" 이 말이 맞느냐? 명백히 틀린 말이다. 높이 오를수록 더 심하게 다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야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높여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 이 부담을 더해 주어 그로 하여금 리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높이 오를수록 더 심하게 다친다."라는 말은 이방인이 내린 결론이고, 이방인이 벼슬길을 추구한 결과를 형용한 말이다. 그 불신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이 말을 긍정적인 인물에 사용하는데,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농촌에서 태어난 그가 지금 교회 리더가 된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냐?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마귀적인 말로, 하나님 선민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씨가 선량한 사람,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며, 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분량이 좀 생기면 언젠가는 발탁되어 양성과 훈련을 거친 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된다. 하나님 집에서 여러 차례 시련과 검증을 거치고, 일관되게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는 긍정적인 인물은 누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이방의 마귀적인 말로 형용하고 표현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언제나 이방인들의 마귀적인 말로 하나님 집의 일을 형용하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릇된 사람이다. 그들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방인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도 진리를 하나도 얻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일을 바라볼 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불신파에 해당하고 이방인에 해당한다. 한 사람을 리더 일꾼으로 발탁하거나 기술적인 사역의 책임자로 양성하는 것은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준 하나의 부담일 뿐이다. 이는 부탁이자 책임이며, 당연히 특수한 본분이자 기회이고, 파격적인 높여 줌이기도 하다.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다.

누군가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고 양성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집에서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특별 대우나 총애를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집에서 파격적으로 높여 준 후, 하나님 집에서 훈련을 받으며,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들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생겼다는 의미이며, 이와 함께 그들에 대한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도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 큰 도움이 된다. 누군가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고 양성되는 것은 장차 그가 엄격한 요구와 감독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엄밀히 검사하고 독촉할 것이고, 그 개인의 생명 진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주목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사람은 특수한 대우, 특수한 지위, 특수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 당연히 특수한 직급을 갖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이 본분 이행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밑천이 생긴 줄 알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시련과 환난이 임하였을 때 여전히 위험할 것이다. 사람은 분량이 너무 작으면 굳게 서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리더로 발탁되고 양성되는 것은 직급이 생긴 것이니, 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백성이 될 희망은 있어요. 저는 줄곧 발탁과 양성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백성이 될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백성이 되려면 생명 체험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 일꾼이든 평범하게 따르는 자든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백성이다. 리더 일꾼이라고 해도 진리 실제가 없으면 똑같이 봉사자이다. 사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특수성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은 진리 원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기회,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설령 네가 한 사역 대부분이 업무에 관계된 것이라 해도 만약 규범화하고 점검하기 위한 진리 원칙이 없다면, 네가 이행하는 본분은 원칙에 맞지 않고 힘쓰는 것에 해당하고, 절대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각 부류의 인재에 대한 하나님 집의 요구는 무엇이냐? 최소한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소한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 집에 의해 발탁되고 양성될 수 있다. 하나님 집의 양성과 훈련을 거친 사람은 관직을 맡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다. 물론 업무 능력이 강해지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명망이 더 높아져서 업무 기술을 다루거나 정치를 하는 세상의 명망 있는 사람들과 견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된다. 훈련 기간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 너무나 유리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함으로써 도달하려는 성과와 기준이자, 발탁되어 쓰임 받는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다.

어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비교적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 선민들도 모두 칭찬해서 교회에서는 그를 리더 일꾼으로 양성한다. 지위가 생긴 후 그는 스스로를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집에서 왜 나를 중요하게 여기겠어? 아무래도 내가 당신들보다 나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 이런 건 아이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니냐? 유치하고, 가소롭고, 철이 없다. 사실 너는 조금도 남보다 뛰어나지 않다. 단지 네가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양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뿐이다. 하지만 네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이 부탁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들의 선출로 리더가 되거나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어 어떤 사역을 맡거나 어떤 본분을 이행하게 된 것은 그의 지위나 신분이 특수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깨달은 진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거나 깊다는 뜻도 아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실상 그는 이런 것들에 다 이르지 못했다. 이는 그저 단순한 의미의 발탁과 양성일 뿐,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거나 검증을 통해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 발탁과 양성은 발탁만 된 것일 뿐, 양성된 게 아니다. 양성한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지, 진리 추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을 교회에서 리더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발탁과 양성일 뿐이지, 그가 이미 리더로서 소임을 감당할 수 있고 합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리더의 일을 맡을 수 있거나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저 상상에 따라 그런 발탁된 사람을 우러러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발탁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됐든 상관없이 그가 정말 진리 실제를 갖추고 있겠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겠느냐? 충성심이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미지수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일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느냐? 리더 사역을 하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분명 해낼 수 없다. 훈련을 거치지 않고 체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진리를 깨달은 사람임을 뜻하지 않으며,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렇다면 발탁과 양성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를 단독으로 발탁해 연습시키고 특수한 양육과 훈련을 거친 후 그가 진리 원칙, 각종 일을 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방식 및 방법을 알게 하며, 또한 그에게 닥친 다양한 상황과 각 부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건지 알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몇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인재는 발탁 및 양성 기간 혹은 그전에 충분히 사역을 담당하고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양성 기간에 피치 못하게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 폭로 심지어 교체까지 겪게 될 것인데, 이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이것을 훈련이라 하고 양성이라 하는 것이다. 발탁 및 양성하는 이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거나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합리하고 그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너희가 그들의 사역을 감독하는 것은 괜찮다. 그들의 사역에 문제가 있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제기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도 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단지 양성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케 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되며,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된다. 그들도 너희와 같이 훈련하는 중이다. 너희와 다른 점은, 그들이 맡은 사역과 책임이 보통 사람보다 많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더 많은 고생을 하며,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더 많은 지적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힘도 더 많이 써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보통 사람보다 잠도 덜 자고, 좋은 것도 덜 누리고, 잡담도 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수성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과 같다. 내가 한 이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각 부류의 인재에 대해 정확히 대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해선 안 되고, 당연히 그들에 대해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들을 지나치게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것은 사람의 우둔함이고, 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도 비인도적이고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보통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문제가 생겨서 구해야 할 때면 그들과 교제하며 서로 장점을 배워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원칙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일반적인 문제조차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리더 일꾼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집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하나님 집의 사역에 지장을 주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것이니,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탁되고 양성되는 것은 훈련받을 좋은 기회를 얻은 것으로, 이는 좋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높여 줌이자 은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본분을 이행해야 하느냐? 우선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진리를 구해야 한다. 스스로 구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교제하며 구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데만 집중하여 진리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너무 느리다. '먼 곳의 물로는 당장의 갈증을 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리에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법, 많이 묻고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제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지체하지 않을 수 있다. 너는 그저 이제 막 발탁되었고 수습(修習) 기간에 있는 것이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를 갖춘 것은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그런 분량이 없다. 그러므로 발탁되었다고 해서 진리 실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사역에 부담을 갖고 있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기에 너를 발탁하여 양성하는 것뿐이다. 너는 이런 이성을 갖춰야 한다. 발탁되어 리더 일꾼이 된 후, 너는 높은 자리에 서서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진리 실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아는 척, 영적인 척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꼴이다. 너는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상부에 물어보고 교제하면 된다. 이는 체면 깎이는 일이 아니다. 네가 물어보지 않아도 상부에서는 네 실제 분량을 알고 있고, 또 네게 어떤 진리 실제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구하고 교제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이성이며, 리더 일꾼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니다. 네가 만약 리더가 되었는데도 아직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상부에 물어보면 너무나 체면이 깎이는 일 같고 남들이 우습게 볼까 봐 두려워서 본인은 뭐든 이해하고 뭐든 아는 것처럼 위장하고, 본인에게 사역 능력이 있어서 교회 사역은 뭐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일깨워 줄 필요도, 교제해 줄 필요도 없고, 어느 누가 공급해 주고 붙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처럼 위장한다면 이것은 위험하다. 이는 너무도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비이성적이다! 자신의 주제조차 모르니, 이런 자는 바보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사실상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교체되고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갓 발탁된 리더 일꾼은 누구나 자신에게 진리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하고,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 네가 지금 리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리더 일꾼이 발탁한 것이고, 하나님 선민들이 선출한 것이며, 이것이 너에게 진리 실제가 있다거나 참된 분량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일을 이해하면 너에게 이성이 조금 생길 것인데, 이것은 리더 일꾼이 반드시 갖춰야 할 이성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느냐? 어떻게 조화로운 협력을 실행해야 하느냐?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패괴 성품이 표출된다면 얼른 진리를 구해 해결하도록 해라. 제때 해결하지 않아 사역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문제다. 만약 업무 지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역시 서둘러 배워야 한다. 일부 본분은 업무 지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진리만 깨닫고 업무 지식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사역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어도 기본적인 업무 지식은 스스로 파악해서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 사역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업무에만 정통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역을 해도 결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협력도 해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네가 업무 기술에 정통하고 어떤 한 가지 지식에 정통하다는 것이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구하고 교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절대 위장해서는 안 된다. 너는 훈련, 양성 과정에 있으며, 패괴 성품이 있고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위장하는 것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라느냐?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성이 있는 사람, 겸허하게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장해서도 안 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네가 할 줄 아는 것은 단지 약간의 업무 지식에 불과할 뿐, 진리 원칙이 아니다. 너는 진리 원칙을 깨달은 바탕 위에 너의 업무적인 특기와 네가 숙지한 학문과 지식을 적절히 발휘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실행의 길이

아니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법을 배우면 너는 실행할 길이 생기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 절대 고집부리지 말고 위장하지도 마라. 고집과 위장은 모두 이성적인 행동이 아닌 가장 미련한 행동이다. 패괴 성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다들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

교제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점이 생긴 뒤 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장점은 물론이고, 인성, 사역, 업무 등 각 방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부족한 점을 모두 바르게 대해야 한다. 그 외에도 리더 일꾼으로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이든 각 부류 업무의 인재이든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들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누구도 위장하지 말고, 누구도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못 하면 못 한다고 말해야 한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다 같이 교제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진리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아기이고, 누구나 빈곤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겸허한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진리를 실행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진리 앞에 평등하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시간이 비슷하다. 발탁되거나 양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누구도 진리를 추구할 권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구하고 자질도 어느 정도 있어서 발탁되고 양성되는 거라면, 이는 하나님 집의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을 발탁하고 쓸 때 왜 이런 원칙을 적용하겠느냐? 각 부류 사람은 자질과 인품이 다르고, 각자 선택하는 길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결과 역시 달라진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본분 이행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된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양성하고 쓸 때는 진리를 추구하는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지를 보고 결정한다. 그럼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 사람에게 등급의 차이가 있겠느냐? 각 부류 사람은 신분, 계급, 지위, 직급에 있어 당분간 등급의 차이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이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기간에 각 부류 사람의 등급, 신분, 계급, 지위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그저 사역 분담과 본분 역할이 다를 뿐이다. 물론 이 기간에 어떤 사람은 특수 사역을 하도록 파격적으로 발탁되고 양성되며, 어떤 사람들은 자질 문제나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의 계급이나 신분이 다른 이보다 한 등급 낮겠느냐? 그렇지도 않다. 모든 사람은 진리 앞에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추구하고 얻을 기회를 가지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어느 때에 이르러야 사람의 신분, 가치, 지위가 명확히 구별되느냐? 사람이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과정과 본분을 이행하는 기간에 한 사람이 드러낸 태도와 관점, 하나님을 대하는 갖가지 태도와 모습이 최후에

이르러 하나의 결론을 얻었을 때, 즉 하나님의 기록부에 완전하게 기록되었을 때 그때는 사람마다 결말과 종착지가 조금 다른 관계로 각자의 가치, 신분, 지위도 조금 차이가 난다. 그때가 되어야 이 모든 일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 똑같다. 알겠느냐? 너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느냐? 바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않으냐? 자신이 어렵사리 끝내 그날에 이르게 되고 드디어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기가 제대로 걸어오지 못해서 도중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바람에 최후의 결말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상상하고 바라던 것보다 엉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겠느냐!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라. 그건 실제적이지 않다. 우선은 눈앞을 보아야 한다. 발아래 놓인 길을 제대로 걷고,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네게 맡긴 본분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중요하다. 당장 깨달아야 할 진리, 본분 이행의 원칙을 잘 깨닫고 분명하게 교제해서 확실히 알게 될 정도가 되는 것, 어떤 일을 하든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방해와 교란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장 너희가 진입해야 할 것이다. 더 먼 얘기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많이 물을 필요도,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할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어째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재난이 이렇게 큰데,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 재난이 크다는 사실이 네가 진리에 진입하는 데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이 이렇게 크다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재난에 초점을 두고 예배하고 설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재난에 관한 일을 언급한 적이 없고, 늘 진리에 관해서만 얘기하며, 이로써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어떻게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지 깨닫게 한다. 지금 어떤 사람은 무엇이 진리 실제이고 무엇이 도리인지도 모른 채 매일 그까짓 글귀와 도리, 빈말만 떠들면서 자신이 진리 실제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내가 다 조바심이 나는데, 정작 본인은 조바심은커녕 요원한 미래의 일까지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열성분자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들을 무슨 대들보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발탁되고 양성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이 사람들에게 알맞은 환경과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훈련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일에서 너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계획과 절차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비결을 하나 알려 주겠다. 간단하고 쉬운 데다 빠르기까지 하다.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하려면 우선 사람의 패괴 성품부터 해결해야 한다.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느냐? 너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바로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계획이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이 없고 그저 속으로 계속 저울질만 할 뿐, 언제부터 정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비록 자신에게 건성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해결에 착수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본분을 이행할 때 게으름을 피우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것, 이런 게 다 건성으로 대하는 모습이다. 우선은 건성으로 대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은 자기 뜻대로 일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 외에 간혹 말할 때 정직하지 않다든가 간사한 성품이나 교만한 성품을 표출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당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선은 건성으로 대하고 자기 뜻대로 일하는 이 두 가지 문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쉽게 발견되지 않겠느냐? 해결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건성으로 대할 때 속으로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 네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스스로가 아느냐, 모르느냐? 네가 잔꾀를 부리고 약삭빠르게 이득을 보려 할 때 스스로가 아느냐, 모르느냐? (압니다.) 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먼저 네가 쉽게 의식할 수 있는 문제, 속으로 지각하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해라.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병이기도 하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열심히, 꼼꼼하게,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착실하게, 하나하나 확실하게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 제대로 이행하고,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해내야 한다. 만약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원칙을 구하고, 원칙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하고, 공을 많이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고, 절대로 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실행해야 마음이 평온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 건성으로 임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너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본분 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성으로 대한다면 당신께서 징계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서 꾸짖어 주십시오. 또한 제가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실행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건성으로 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갈수록 건성으로 대하는 내적 상태가 줄어들고, 본분 이행의 불순물이 줄어들고, 실제 효과도 좋아지고, 효율도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보아라.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건성으로 대할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큰일이구나. 만약 정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면 너희의 어려움이 참으로 크다! 너희는 어떤 일을 할 때 건성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끼만 입에 맞지 않아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 어떤 여자들은 꾸미고 화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머리카락 한 올도 그냥 두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장사에 능해서 돈 한 푼까지 계산하려 든다. 너희가 일을 할 때 만약 이런 진지한 태도가 있다면 건성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건성으로 대하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다음 자기 뜻대로 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은 흔한 문제이며 스스로도 쉽게 의식할 수 있어서 조금만 반성하면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너희는 이 두 가지 방면부터 착수하도록 해라. 하나는 건성으로 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자기 뜻대로 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 2 년 내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서 어떤 일도

건성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자기 뜻이 섞이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가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날이 멀지 않았다. 만약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에 아직 이르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조건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에 대해 지녀야 할 인식과 견해에 대해 교제했다. 또 한편으로는 발탁되고 양성되는 각 부류의 인재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제해 보았다. 이것이 제 6 조에서 마땅히 교제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면 이제 제 6 조에 맞춰 거짓 리더가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사역을 어떻게 다루는지 폭로하고 해부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주로 교제하려는 내용이다.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

거짓 리더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이 중요한 사역도 엉망으로 이행하고 엉터리로 이행해 하나님 집의 요구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조건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의미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역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하기가 힘들다.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기간에 양성한 각 부류의 인재는 천태만상이다. 그들은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절대 발탁하고 양성하면 안 될 사람들을 발탁해서 리더 일꾼을 맡기고, 그자들이 교회에 얹혀살고 하나님의 제물을 낭비하게 놔둔다. 거짓 리더가 모두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의감 있는 사람은 발아래 짓밟힌 채 발탁되거나 쓰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자들은 오히려 거짓 리더 눈에 이른바 인재로 비쳐서 발탁되고 양성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 집 사역의 필요에 의해 외무를 처리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느냐? 방금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열거했다. 즉, 사역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이 원칙을 알겠느냐? 당연히 알 리가 없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찾겠느냐? 그는 생각한다. '누가 대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한 자매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반응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대인 관계도 잘하긴 하지. 말할 때 눈을 잘 굴리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속을 짐작할 수가 없어. 교회 리더가 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만 대외 업무를 맡기에는 제격이니 그 자매로 정하자. 다만 교육 수준이 좀 낮아서 이방인들이 얕잡아 볼까 걱정이군. 그럼 대학생을 한 사람 찾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 자매와 협력하는 거야. 이 사람은 비교적 영리한데 다만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게 흠이지. 그건 자매한테 배우면 돼. 둘 중 하나는 교육 수준이 낮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사회 경험이 있고 하나는 없으니 이 둘이 협력하면 딱이잖아?' 한 사람은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특히나 사회인 같아서 이방인과 접촉할 경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없다. 다른 한 사람은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남들이 얕잡아보지 못한다. 거짓 리더가 사람을 고르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떠냐? 그는 말주변이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반응이 빠르면 하나님 집을 위해 사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발해서 쓰는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적절합니다.) 어째서 부적절한 것이냐? (이런 사람은 비교적 교활한 경우가 많고, 남들에게 처세술을 쓸 줄 알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만, 꼭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집을 위해 어떤 일을 처리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발라야 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담이 좋아서 죽은 사람도 말로 살려 낸다고 한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겠느냐?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겠느냐? (아닙니다.) 설령 그가 맹세한다 해도 소용이 없고, 네가 그에게 요구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에게 그런 인품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력이 있고, 교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 잘하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줄 알고, 기회주의자나 사회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사무 사역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이 아니냐? 그것은 사람을 선발하는 원칙과 기준상의 잘못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입담이 뛰어나서 누구에게 응수하든 죄다 거짓말이고, 아무리 맹세해도 고칠 수 없다. 일할 때는 자기 이익만 지키고, 특히 위험에 직면하면 자기부터 보호하지 하나님 집의 이익은 결코 고려하지 않으며, 그저 이방인과의 관계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만이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형제자매의 안전 역시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만 지킨다. 거짓 리더는 이런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류가 하나님 집의 대외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냐? 거짓 리더는 그 사람이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겨도 모르고 그를 중용하기까지 하고, 무슨 일이든 그 사람만 의지한다. 멍청하기 짝이 없지 않으냐? 말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바른 사람이냐? 네가 그와 친분을 맺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을 때는 모른다. 그와 친분을 맺고 일을 처리할 경우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보아라. 한 가지 일을 통해 검증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 한창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그는 보고도 도와주지 않다가 네가 일을 마치면 그제서야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다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도와드렸을 겁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따가 식사 준비는 제가 할 테니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는 말을 마치더니 사라져 버린다. 너는 피곤해 죽겠는데 밥까지 해야 한다. 네가 밥을 다 차리면 먹으러 나타난 그는 또 이런 소리를 한다. "음식 할 때 왜 저를 안 부르셨나요? 이렇게 피곤한데 밥까지 해 주시다니,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이왕 다 해 놓으셨으니 먹긴 하겠지만 다음에는 제가 할게요. 앞으로는 일이 있으면 얘기라도 좀 해 주세요." 이 일 하나로 그를 훤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는 입담이 좋아서 말도 잘하고 머리도 무척 잘 돌아가서 분위기를 봐 가면서 대처할 줄 안다.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 집의 사무를 맡기면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교회의 명성과 명예를 지키고 형제자매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집의 재물, 하나님 집의 모든 이익이, 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문제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거짓 리더는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이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문제를 볼 줄 모르고, 그저 글귀와 도리만 읊을 줄만 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지,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일에 뿌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뿌리가 없는지, 어떤 사람이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어떤 사람이 충성을 다하지 않는지, 그는 사리에 맞는 말만 하고 마치 아주 잘 이해한 것 같지만, 죄다 빈말과 도리에 불과하다. 그에게 정말 사람을 분별하게 했을 때 그는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도 그는 이런 부류를 꿰뚫어 볼 줄 모르고 중용하기까지 한다.

사람을 잘못 쓴 것도 이미 가증스러운 일인데, 거짓 리더는 한 술 더 떠서 더 가증스러운 일을 한다. 예를 들어 그가 한 사람을 잘못 쓴 경우,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쓰려 한다. 게다가 그 사람의 사역은 검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을 중요하게 여겨 발탁했으면 당신은 사역을 잘할 수 있으니, 과감하게 하면 돼. 나는 당신이 뭘 하든 지지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소용없어!' 그는 사람을 잘못 쓴 것도 모자라 잘못을 끝까지 고수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거짓 리더들은 다들 눈먼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문제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지, 불신파인지도 분별해 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도 지각이 없고, 머저리들을 중용하기까지 한다. 어떤 사람을 발탁하든 거짓 리더는 그들을 무척 신임하고 중요한 사역을 마음대로 맡겨서 결국 그들이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하고 복음의 확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 집의 이익을 손상시키게 놔두는데, 거짓 리더는 그러고도 짐짓 모른 체한다. 상부에서 그에게 묻는다. "네가 발탁한 그 사람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역에 적합하냐? 교회 사역을 지키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지키느냐, 아니면 교회 사역을 지키느냐?" 거짓 리더가 대답한다. "그는 교회 사역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은 지도 20 년이나 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는 아마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 확실하냐? 그가 하는 사역을 검사해 보았느냐?"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자기 이익을 지키지 말고 교회 사역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고, 본인도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약속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도 못 지키는데, 너에게 약속하면 보장이 되느냐? 꼭 지킬 수 있느냐? 너는 그의 사역을 검사한 적도 없으면서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믿느냐? 이런 거짓 리더는 몹쓸 인간이 아니냐? 한 사람을 잘못 쓴 것으로도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후로도 잘못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의 사역을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검사하지도 않고, 또 감독도 관찰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그가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치한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한다. 어떤 사역에 사람이 부족하든 거짓 리더는 아무렇게나 한 사람을 안배해서 책임지도록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는 사역을 검사하는 법이 없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과 접촉하며 그를

관찰하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어떤 곳은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로 만나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는 그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형제자매들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의해 봐야 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거짓 리더는 문의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한다. 그의 사역은 그저 예배드리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사역을 안배하면 끝이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더 점검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다. 네가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를 때, 그의 자질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열정을 근거로 그가 이 사역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그를 썼다면 그것도 맞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발탁한 뒤에는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잔꾀를 부리고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마땅히 점검하고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네가 해야 할 사역인데 너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거짓 리더이니 교체되고 도태되어 마땅하다.

거짓 리더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다. 그들은 사람을 발탁해서 사역을 맡긴 다음, 도리를 조금 얘기하고 격려와 독려의 말 몇 마디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구체적인 사역을 점검하는 법도 없고 참여하는 법도 없다. 만약 네가 자질이 부족하고 사람을 간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는 구체적인 사역을 점검하고 알아볼 수 있고, 완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사역을 아예 점검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서적 인쇄는 구체적인 사역의 하나인데, 거짓 리더는 이 사역을 한 사람에게 맡겨 책임지도록 한 후 반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결국 반년이 지나 책이 인쇄되었을 때는 전부 파본이어서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버렸다! 거짓 리더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만약 책 한 권을 인쇄하도록 안배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먼저 적합한 사람에게 책임지도록 안배하고, 그런 다음 그의 사역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가 이 사역을 망치지는 않을지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반드시 감독하고 점검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결해야 확실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사람에게 도리를 얘기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인 줄 알고, 도리만 깨달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리를 얘기하고 구호를 외치는 데만 열중하고, 구체적인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의 경우, 그는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느냐? 그는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며 관료가 된다. 어떤 사역이든 현장에 나가거나 참여하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원칙을 알려 주고 나서 사람들이 세부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길을 물으면 이렇게 답한다. "구체적인 사역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 책임자가 도대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지, 그의 인성이 어떤지,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본분 이행에 책임감이 있는지, 건성으로 임하거나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사역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는지 등, 거짓 리더는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는 이방의 실무에서 벗어난 간부처럼 빈둥거리며 다니고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가 있는 교회에서 거짓 리더는 어떤 책임자가 사역을 마비시켜도 모르고, 어떤 책임자가 독립 왕국을 세워도

모르고, 어떤 책임자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먹어도 모른다. 어떤 책임자가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이해도 치우쳐서 사역을 아예 할 줄 몰라도 그는 내버려둔 채 상관하지 않는다. 이 거짓 리더는 그저 허수아비일 뿐, 유명무실하며, 리더의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이 거짓 리더는 아주 점잖아 보인다. 각 사역마다 책임자를 안배하고, 정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 곳에서 영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배우고, 설교 원고를 쓰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거짓 리더는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또 어떤 거짓 리더는 오로지 인터넷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결코 사역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은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해서 그의 생명 체험이 어떻게 되고 분량은 어떤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는 예배드릴 때 사무 사역만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각 책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발탁하고 양성하는 사람이 그 사역에 적합한지,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가 어떤지, 세심하게 사역을 하고 참답게 대하는지, 소극적이고 건성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그 사람이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사람인지, 이런 일들을 거짓 리더는 일절 관여하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의 성질은 심각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업무를 알고 기술을 아는 인재들이 필요하며, 그들이 업무를 배워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너희 생각에 거짓 리더가 어떤 사람을 찾겠느냐? 그들은 대학을 나오고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을 한데 불러모은 다음, 말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비군이고, 새로운 역량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본분을 안배한다. 사실 이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해 본 적도 없고, 무슨 체험도 없고, 진리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해 그들을 양성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특기를 근거로 해서 각자 배우기에 적합한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서 사역을 안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 제작 사역을 안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영상을 만들도록 안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기자를 하도록 안배해 준다. 이행할 본분이 있으면 그만이다. 거짓 리더는 이 사람들이 과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는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일부는 도태되고 만다. 방탕하고 구속받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추구하고, 하루 종일 치장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고 함부로 사람들과 시시덕거리고, 버릇이 하나도 없고, 교양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자들은 명백하게 불신파이자 이방인이다. 그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건성으로 해도 거짓 리더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다. 이는 눈이 먼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눈이 먼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마음이 먼 것 때문이 아니냐? 눈이 멀고 마음이 먼 것, 이것은 거짓 리더의 두 가지 특징이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짓 리더는 그야말로 눈뜬장님이다. 그는 속으로 어떤 사람, 어떤 일에도 분별력이 없고 관점이 없다. 어떤 일을 보고도 시비를 판별하는 능력도 없고, 태도도, 견해도, 정의도 없다. 그는 심각하게 마음이 멀었다. 거짓 리더는 모두 하나님을 오래 믿고, 자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이런 불신파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여기에서 거짓 리더는 자질이 너무도 떨어지며,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고,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들어도 소용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증명된다. 그는 눈과 마음이 어두워 사람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데 교회의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그는 말재간이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며, 가무를 잘하는 사람도 인재라고 생각한다. 안경을 낀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 사회에서 지위와 재력을 갖춘 사람, 장사를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사회에서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바로 인재이니 하나님 집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사람들의 인품을 보지 않으며,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토대가 있는지 역시 보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더더욱 보지 않는다. 오직 사회에서 지닌 지위와 배경만을 본다. 거짓 리더가 이런 식으로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것이 황당하지 않으냐? 거짓 리더가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것은 이방인과 같아서 전부 이방인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거짓 리더가 진리를 사랑하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거짓 리더는 너무나 허황되지 않으냐? 눈이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다.

전에 한 거짓 리더를 만난 적이 있다. 내가 그와 얘기를 나눌 때 웃음꽃을 피웠지만 사역에 관한 일을 물었더니 그는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무감각해져서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었다. 그 사람은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그에게 무슨 일을 얘기하든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엊그제는 사역을 검사했고요." 내가 말했다. "예배드리는 것 말고 다른 사역은 없느냐? 교회에 사역이 그렇게나 많은데 어째서 다른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느냐?" 그가 말했다. "리더 일꾼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하지 않잖습니까? 예배 말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일은 모릅니다!" 이것은 그가 리더를 맡으면 거짓 리더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질이 너무 떨어지면 눈이 멀고 마음이 멀게 된다. 눈이 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을 보아도 세부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두 눈은 그냥 장식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속에서 그 안에 담긴 문제를 의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것을 두고 마음이 멀었다고 한다. 마음이 멀면 완전히 끝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마음이 멀고 눈이 멀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거짓 리더가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기분이 언짢지 않겠느냐? 그는 생각한다. '내 눈이 이렇게 큰데도 나보고 눈이 멀었다고 하고, 내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데도 나보고 마음이 멀었다고 하시는구나. 이건 별로 정확한 정의가 아니지 않아? 거짓 리더라고만 하면 됐지, 왜 거기다 눈이 멀고 마음이 멀었다는 말까지 덧붙이시나?' 만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가 거짓 리더의 그런 자질만으로 자신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느냐?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눈도 멀고 마음도 멀다고 하는 것이 꼭 맞는 말이 아니냐?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독립 왕국을 세우고 있는데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군요. 전에 대학교수를 해서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주눅이 들지 않네요." 바리새인이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 뻔한데도 칭찬을 하다니 이것이 눈먼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 음정이 틀렸는데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눈이 멀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문제이지 자질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진리를 그렇게 많이 들은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성이 좋고 나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불신파인지 아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본분 이행에 충성을 다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설교를 듣고 거둔 수확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무런 진리도 얻지 못한 것인데 이는 그가 눈먼 인간이란 의미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나 눈이 멀었다. 그는 리더의 주요 사역이 설교라고 생각한다. 두세 시간 설교하면서 글귀와 도리를 떠들고 구호를 외쳐서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리더로서 기준에 맞는 것이고,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 실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무슨 논리이냐? 거짓 리더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눈도 멀고 마음도 멀기 때문에 각 부류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은 절대 갖추지 못한다. 그는 각 부류 사람을 간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 원래 교사를 하던 사람은 설교를 하도록 안배하고, 대외 무역을 하던 사람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배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통역을 하도록 안배하고, 얼굴이 두껍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하도록 안배하고, 소심한 사람은 집에서 체험 간증문을 쓰도록 안배하고, 대범하고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연기자를 하도록 안배하고, 완장을 차고 싶어 하는 사람은 리더나 감독을 하도록 안배하는 식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사람을 쓰며,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거짓 리더가 책임지는 사역 범위 안에서는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발탁과 양성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섬김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를 받은 사람도 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자질도 있고 진리도 일부 깨달아서 리더 일꾼으로 양성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드러내거나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거짓 리더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만나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하나님 집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단지 아첨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결국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발탁, 양성되지 못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명예와 이익과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발탁된다. 심지어 사회에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 기업 대표를 했던 사람, 기업 관리를 공부했던 사람들도 모두 중용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어쨌든 거짓 리더가 책임지는 사역 범위 내에서는 모두 발탁되어 쓰임 받는다. 이렇게 사람을 쓰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거짓 리더가 이런 사람들만 발탁하는 것은 이방 사회와 같지 않으냐?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착실히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정의감이 있는 사람, 진리를 좋아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탁, 양성되지 못하고 훈련 기회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말 잘하고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 명예와 이익,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용된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이해 능력도 없고, 자질도

너무 부족하고, 인성도 좋지 않고, 본분을 대할 때도 진정한 부담감이 없어서 전혀 양성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리더 일꾼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결과 교회의 많은 사역이 지체되어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진행도 더디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도 지체되어 시행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사람을 부당하게 쓴 일이 교회 사역에 초래한 영향과 결과이다.

대다수 거짓 리더는 모두 자질이 부족하다. 비록 겉으로 말은 잘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조금도 없고, 심지어 영적인 이해력도 없다.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어떤 일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글귀와 도리를 조금 깨닫고 파악하고, 또 구호를 몇 가지 외칠 줄 알면 자신에게 진리 실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사용하든, 그들은 진리 원칙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원칙은 더욱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있고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만나고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들은 또 자기가 사역을 오래하고 하나님 집에서 리더를 맡아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진전시키는지 안다고 착각한다. 마치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한 듯하지만 사실 전혀 사역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관념 상상에 따라, 자신의 경험 패턴에 따라, 자신의 규례에 따라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 사역을 하고, 그 결과 교회의 각종 사역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참된 성과를 얻지 못한다. 만약 어떤 팀에 진리를 깨닫고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면 그 팀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리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역이 잘되는 이유는 그 팀에 좋은 사람 몇 명이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 할 수 있어서 사역을 잘 유지하는 것이지,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좋은 사람 몇 명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제대로 안 된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전혀 못 하고 아무런 작용도 못 한다. 거짓 리더는 왜 교회 사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첫째, 거짓 리더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르고,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문제가 쌓여서 교회 사역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거짓 리더는 눈이 멀어 인재를 발견할 줄 모르고 각 팀의 책임자를 적절하게 조정할 줄 모른다. 이는 일부 사역이 적절한 책임자가 없어서 정체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거짓 리더는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어서 사역을 감독, 지도하지 않고, 사역의 취약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하거나 도우며 지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역에서는 사역하는 몇 사람이 모두 새 신자들이라 기반도 별로 없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해당 사역의 업무에도 별로 익숙하지 않고, 원칙도 잘 모른다. 거짓 리더는 눈이 멀어 이런 문제를 보지 못한다. 그의 생각에 사역은 누군가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는 교회 사역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고 검사하고 지도해야 하며,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때는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그는 사역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사역을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사역의 취약한 부분이나 자질이 부족한 책임자가 책임지는 사역에 대해 그는 직접 도와주며 지도하지도 않고, 직접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직접 검사하거나 지도하지 않고 그저 천하태평이 되어 설령 누군가 문제를 보고해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요컨대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쓰레기이다. 그는 어떤 사역이든 책임자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맡아서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예배를 드리거나 일이 있을 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하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에게 감탄한다. '모든 사역이 다 문제가 없어. 인원도 다 배정했고, 담당자들도 있어. 나는 어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유능한지!' 뻔뻔하지 않으냐? 이 정도로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어떤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다. 사역이 마비된 곳이 있는데도 그는 즐거워한다. '형제자매들이 하나같이 젊은 친구들이라 다들 활력소가 되는군.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이 정말 정열적이야. 틀림없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사실 그 젊은이들은 다들 업무 기술을 잘 몰라서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 풋내기들이다. 아직은 사역을 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몇 사람은 업무를 좀 알지만 정통하지도 않고 원칙도 파악하지 못해서 일을 마쳐도 반복해서 수정해야 하고, 심지어 다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훈련도 거치지 않고 책망과 훈계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양아치 기질이 너무 심하고 무척 게으르고 편안함을 탐하고, 조금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다 조금만 고생해도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 대다수가 건성으로 임하고 안일함만 누리려 하는 쓰레기이다. 이런 젊은이들은 진리를 자주 교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책망과 훈계가 없으면 더욱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켜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리더 일꾼이 직접 사역을 책임지고, 직접 지도, 감독해야 성과를 조금 낼 수 있다. 리더 일꾼이 사역 현장을 떠나고, 사역에 관심을 갖거나 관여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흩어진 모래처럼 되어 본분 이행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 일을 간파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간주하고 다들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들에 대해 마음을 푹 놓는다. 사역을 그들에게 안배하면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눈도 멀고 마음도 멀었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짓 리더는 어떤 일도 간파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한다.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완장을 차고 지위의 복을 누릴까 하는 생각뿐이다. 거짓 리더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칭찬하고 발탁해 주기를 기다린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

거짓 리더가 하는 사역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칭찬할 만한 점도 전혀 없다. 큰 방향에서 그는 원칙도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더더욱 파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성이 너무 형편없고, 어떤 사람은 인성은 별문제가 없지만 자질도 부족하고 업무 능력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고 분배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거짓 리더는 더욱 모른다. 따라서 언제든 거짓 리더에게 자질이 괜찮은 양성할 만한 사람을 발견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이미 눈이 멀 대로 먼 거짓 리더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에게 모 자매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자매는 육적인 편안함을 탐한다고 대답하고, 모 형제는 어떠냐고 물으면 그 형제는 자주 소극적이라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아서 아직 기반이 없다고 답한다. 그의 눈에는 누구도 안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 과오만 볼 뿐, 그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발탁하고 양성할 만한 대상인지는 보지 않는다. 진정으로 발탁하고 양성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집의 요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흔쾌히 빨리 발탁한다. 그는 교회의 여성 부호나 남성 부호, 부잣집 자제들은 죄다 발탁하고, 세상에서 관직에 있었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 술수에 능한 사람도 모두 발탁한다. 어쨌든 세상에 잘 알려지거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발탁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람들만이 인재라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이해 능력이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한 명도 발탁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에게 하나님 집을 위해 진정으로 적합한 인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지금 문서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에 이런 인재가 있어도 그는 그 인재를 제공하지 않는다. 왜 발탁하고 양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이 사람은 대학 시절에 음란한 짓을 두 번 저질렀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지르지 않았고요. 그를 발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네가 발탁한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더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거짓 리더는 영적인 체까지 한다. 마치 그도 원칙을 좀 아는 것처럼 핑곗거리를 이유로 내세우며 발탁하고 양성해야 할 그 사람들을 발탁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누구도 자기보다 못하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거짓 리더가 발탁한 그 '엘리트'나 '인재'들이 굳게 서겠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주로 거짓 리더가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사람의 관념으로써 판단한 것이지 진리로써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폭로하고, 그가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원칙이 그의 관념 상상과 그의 기호에 따라 완전히 이방인의 관점으로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왜 거짓 리더가 이렇게 하겠느냐?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집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발탁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이 하나님 집의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하는 사역이다. 너희도 한번 살펴보아라, 주위의 거짓 리더들이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느냐?

거짓 리더는 언제나 한 가지 관점을 표출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관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다 인재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집에서 양성하고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무척 높이 평가하며 숭배하고, 심지어 그들을 친척이나 가족처럼 대한다.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이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 총수였다느니, 정부 부문에서 기관장을 했다느니, 어떤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했었다느니, 혹은 공안 부문에서 무슨 처장을 했다느니, 돈이 아주 많다느니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희가 보기에 거짓 리더에게 자질이 있느냐? 영적인 체하는 존재로, 일을 간파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거짓 리더는 이 사람들이 모두 사회에서 인재이므로 이들이 하나님 집에 오면 하나님 집에서는 마땅히 이들을 양성하고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관점이 맞느냐? 진리 원칙에 부합하느냐? 만약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도 없다면 하나님 집에서 양성하고 중용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양성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이방에서 인재라고 해서 하나님 집에서도 인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관직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이 거짓 리더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무척 숭배한다. 그들은 세상에서 관직에 있던 사람, 지위가 있던 사람을 보면 주인을 만난 노비처럼 굽실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들을 친부모, 친형제자매라고 부르지 못해 안달하면서 그들을 교회의 리더 일꾼으로 발탁하려고 한다. 너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세상에서 지위도 좀 있고 명망도 좀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을 하기에 적합하겠느냐? 만약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성품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되겠느냐? 지위와 명성만 보고 인품은 보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거짓 리더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발탁하고 쓰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는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할 때 반드시 다음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첫째,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하고, 양심과 이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갖춰야 하고 사역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발탁되고 양성될 수 있고, 후보자가 되고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인품이 1 순위이고, 그다음으로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악인이 발탁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발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의 요구를 무시한다. 그들은 사람을 선발해서 쓸 때 언제나 그 사람이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고 어떤 신분인지,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지 낮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할 때는 이런 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 집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에 부합하느냐?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지위를 다투는 사람들이고, 사탄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하나님 집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이겠느냐? 거짓 리더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리더로 발탁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쓰는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것은 대놓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거짓 리더가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데는 원칙이 없다. 이는 교회 사역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방식이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순수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다. 또 도리를 몇 년 얘기하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야말로 죄다 허튼소리이고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는 도리를 조금 기억해서 도리를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진리 실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진리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설교해 주고 말도 정말 잘해서 마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두 진리에 위배되고 저촉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결코 하나님 집을 위해 쓸모 있는 인재를 발탁한 적이 없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비교적 정직한 사람은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 야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도록 한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일정 기간 사역하고 나면 교회의 각종 사역은 정체되어서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고, 교회 사역은 거짓 리더의 손에서 망쳐진다. 거짓 리더 부류는 정말 가증스럽지 않으냐? 교체해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하루 지체되면 하나님 집 사역이 그만큼 지장을 받는다. 어떤 거짓 리더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려 하지 않고 늘 지위의 복에 연연하며 교회 사역에 해를 끼칠지언정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이는 전혀 이성이 없는 자가 아니냐? 거짓 리더는 이해 능력도 없고, 진정한 재능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지위의 복을 누리는 뻔뻔한 자이다. 그러니 절대 발탁해서 양성하면 안 된다. 네가 생각하기에 너 자신이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능력이 없고,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방종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한자리 맡아서 리더가 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리더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리더가 된다면, 너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리더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이든 거짓 리더이든 이들은 다 양심과 이성이 없는 자들이고, 악행을 저질러 교회 사역을 교란할 수 있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가 마귀 사탄이라는 말도 맞지만 거짓 리더 역시 좋은 인간은 못 된다. 최소한 양심과 이성이 없는, 후안무치한 자이다. 거짓 리더가 되어 교체되는 일이 명예스러운 일이냐? 그건 수치이자 오점이지 절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네가 교회 사역에 부담감이 있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진리를 교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지, 사역지침에 따라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만약 이 몇 가지에 이를 수 있다면 리더 일꾼 선거에 나가도 좋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사람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본인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지, 진리를 깨닫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봐라. 만약 이런 요구에 이를 수 있다면 리더 일꾼이 되기에 합당하다. 만약 스스로 가늠할 수 없다면 주위에 너와 가깝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된다. 만약 모두가 네 자질이 리더를 맡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현재 네가 맡은 본직 사역부터 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얼른 자기를 인식하도록 해라. 네 자질이 부족하다면 리더가 될 생각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괜찮다. 만약 네가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네가 정말 그런 자질과 재능, 사역 능력이

있고 부담도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마침 이런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 틀림없이 너를 발탁해서 양성할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다. 발탁되고 싶은 너의 그 바람은 야심이 아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질이 부족한데도 늘 리더가 되려 하고, 중책을 맡으려 하고, 사역 전반을 책임지려 하고, 얼굴을 내밀려고 한다면, 너에게 알려 주겠는데, 그것은 야심이다. 야심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향상하려는 마음이 있고 진리에 공을 들이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질이 있고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진리에 공을 들일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눈앞에 놓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며 원칙에 맞게, 하나님 집 요구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이것이 그에게는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현실적이다.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거나 발탁되어 양성되는 사람들도 요행 심리를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제자매들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발하고 하나님 집에서 나를 발탁했어. 역시 난 능력도 좀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 금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법이지.' 이런 게 좋은 생각이냐? 패괴 성품의 표출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가 발탁, 양성되는 건 좋은 일이고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네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지는 네가 이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기회를 준 것은 네가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다. 아마 네가 남들보다 자질이 좀 좋거나 은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 진입이 어떤지, 진리 실제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사람의 패괴 성품은 다 마찬가지이고, 너 역시 패괴된 인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집에서 너를 발탁하고 양성한 일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 너는 자신을 인재로 간주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진리 실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단지 네가 자질을 조금 갖춘 데다 진리에 공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수습 단계에 해당하며, 네가 과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양성할 가치가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검증한 후 네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마 너를 남게 해서 계속 양성할 수도 있고 탈락시킬 수도 있다. 네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렸다. 리더 일꾼을 발탁하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니 잘 이해하도록 해라. 너 스스로가 인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집에서 너를 발탁하지 않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만약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 의해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에서 저를 안 써 주면 사회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한번 시도해 보아라. 누가 너를 발탁해 주는지, 네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아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집에서 너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해야 한다고 알려 주려는 것이다. 자질이 부족하거나 보통이어서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요구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착실하게 자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발탁되고 양성되는 일을 두고 다투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모든 걸 순리에 맡기도록 해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은 점이 있느냐? 결국 거짓 리더로 규정되어 도태되고 나면 어떤 기분이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일이냐? (아닙니다.) 거짓 리더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짓 리더였다고 수군대면 이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건 좋은 일이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발탁되고 양성되는 일에 대해 사람은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하고 이 일에서 진리를 구해야 한다. 자기 뜻대로 해서도 안 되고 야심과 욕망을 품어서도 안 된다. 만약 네가 스스로 자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한 번도 너를 발탁해 주지 않고 너를 양성할 계획도 없다면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해라. 너에게 분량이 좀 생겨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선민들이 자연스럽게 너를 리더로 선출할 것이다. 만약 네가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발탁되고 양성될 기회가 없고 네 야심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니냐? 그것은 너에게 보호가 되는 일이다! 네가 자질이 부족한데 눈이 먼 바보들이 너를 리더로 선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너를 불 위에 올려놓고 굽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 눈도 멀고 마음도 멀어서 손만 대면 방해가 되고 손만 쓰면 악행이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본직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최소한 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거짓 리더가 되어 남에게 손가락질당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라면 자기 분수를 알고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잘못된 길을 가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너희는 거짓 리더가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평범한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너를 뽑았다면 너는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어쩌면 형제자매들의 눈이 너 자신의 느낌보다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형제자매가 너를 괜찮게 본다면 너는 마땅히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속으로 걱정이 되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리더 일꾼을 그만두도록 해라. 너무 곤란한 것이다. 계속하면 거짓 리더가 될 것 같으니 서둘러 사직서를 써서 이렇게 성명해야 한다. "본인은 자질이 부족한 관계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리더를 계속한다면 분명 거짓 리더가 될 것이니 이에 사직을 신청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처사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 이성을 갖추는 것, 이것이 지위를 차지하고 거짓 리더가 되는 것보다 낫다. 본인이 자질이 좋지 않아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위에 연연하며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왜 리더가 될 수 없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누가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워 주고, 그래서 리더라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알맞은 대체 인력도 딱히 없으니 내가 계속 리더를 하는 수밖에. 하루라도 리더 자리에 있으면 그 하루를 누리는 거야. 사역을 못해도 리더는 리더지. 리더를 하는 게 평범한 형제자매보다 나아. 하나님 집에서 교체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파면하지 않는 한 나는 사직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적절합니다.) 왜 부적절한 것이냐? (그는 이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도 사직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고 남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너는 리더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이는 많은 사람의 생명 진입이 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들이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가 너의 인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네가 잘 인솔해서 그들을 바른길로 이끌면 그들은 바른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네가 잘 인솔하지 못하고 그들을 수렁으로 이끌어서 다들 너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 된다면 너의 죄가 크다! 커다란 죄를 짓는다면 그것으로 끝이겠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기록해 놓을 것이다! 너는 네가 자질이 부족한 거짓 리더이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인책 사임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자리를 차지한 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를 기록해 둔다. 이것이 일단 기록되면 앞으로 너에게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너는 큰일이 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 주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런 일들을 기록할 것이다. 하나하나 똑똑히 말이다. 네가 구원받는 길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을 저지르면 너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절대 그런 길을 가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짓 리더가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일을 대하는 방법과 모습에 대해 대략적으로 교제해 보았다. 요컨대 거짓 리더 부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자질이 부족하고 눈과 마음이 멀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각 부류의 사람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그들이 담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도 많은 어려움을 몰고 올 것이다. 이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거짓 리더가 교회 리더를 맡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하다. 또 일부 거짓 리더는 구체적인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역을 맡은 책임자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부류의 인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들이 하는 사역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거짓 리더는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주된 원인은 바로 자질 부족이다. 어떤 일도 간파하지 못하고, 무엇이 실질적인 사역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교회 사역은 늘 정체 상태, 마비 상태에 처한다. 이것은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 집에서는 교회에서 악인과 불신파를 정리하고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을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왜 각종 악인과 불신파를 정리해야 하겠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도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왜 모든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을 교체해야 하겠느냐? 이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절대 발탁해서 양성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 사역이 혼란에 빠지거나 마비되고, 놓여 있는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늦어진다. 만약 이런 거짓 리더, 거짓 일꾼 및 교회를 교란하는 악인, 불신파를 모두 교체하고 제명한다면 교회 사역도 당연히 잘 풀리고, 교회 생활도 당연히 훨씬 나아져서 하나님 선민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바이다.

2021 년 2 월 27 일

리더 일꾼의 직책(6)

오늘은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과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교제하겠다. 지난번 예배 때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6 조에 대해 교제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제 6 조는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원칙과 이유를 교제했고, 또한 거짓 리더가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는 측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부하였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는 이 두 부분에서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왜 그를 거짓 리더라고 하겠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거짓 리더는 각 부류의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고 쓰는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는 리더 일꾼이 어떤 조건과 어떤 측면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함부로 사람을 쓴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고 양성하고 쓴 후 그들의 사역을 점검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인품은 어떤지, 이행하는 본분이 그들에게 맞는지 알아보지 않으며, 또한 그는 자신이 발탁하고 양성하고 쓰는 사람들이 기준에 맞는지,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그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사람을 발탁해서 사역을 안배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식으로 사역하며, 이는 그가 사역을 하는 태도이자 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의 이 두 가지 주요 모습이, 그가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고 쓰는 사역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또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검토하지 않고, 각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하지도 않으며, 더군다나 진리와 원칙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각 부류 사람들의 모습과 내적 상태에 대조해 보지도 않는다. 또 각 부류 사람들의 인성과 특기가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요구 원칙에 부합하는지 분별하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사람을 발탁하고 쓸 때나 사역을 안배할 때 특히나 어리석고 어설프며, 늘 관념과 상상에 따라 형식만 갖추고 겉으로 보이는 일만 할 뿐이다. 이런 식인데 거짓 리더가 각 부류 사람의 인성이나 특기에 따라 그들을 합리적으로, 알맞게 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거짓 리더 부류의 자질이 어떤지는 우선 제쳐 두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와 사역 방식, 방법을 놓고 볼 때, 그는 전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사무 사역, 표면적이고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사역만 할 뿐, 사람들에게 진리를 공급하는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른다. 이로써 거짓 리더가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형제자매들 속에 깊이 들어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을 볼 때,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을 위해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각 측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1)

사람의 인성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쓴다

각 부류 사람을 어떻게 안배하고 쓸 것인지 하는 문제를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집에서는 각 부류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요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발탁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춰 사람을 발탁하고 써야 합니다. 리더 일꾼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리더 일꾼이나 책임자로 양성하고, 특정 분야의 업무에 특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업무 특기에 맞춰 그가 이행할 본분을 안배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야 합니다.) 보충할 사람이 있느냐? (이 밖에, 인성 측면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성이 비교적 괜찮고, 진리를 사랑하며, 이해 능력이 있다면 이런 인재는 발탁하고 양성해도 되는 대상입니다. 인성은 보통이지만 특기가 있어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거나 봉사할 수 있다면 이 부류 역시 특기에 맞춰 적합한 본분을 안배함으로써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인성이 나쁜 편인 데다가 방해와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그에게 본분을 안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인성에 근거하여 구분한다면, 악인이 아니고,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한 분야의 본분을 이행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한다. 악인과 악령 외에 쓸 수 없는 또 한 부류는 지능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업무를 배워도 익히지 못하고, 간단한 사무적인 일도 못하는 데다가, 힘쓰는 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지능과 인성이 모두 온전치 못한 이 부류는 쓸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지능이 온전치 못한 자에 포함되겠느냐?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순수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늘 오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동문서답하는 사람, 얼간이나 저능아 같은 사람 등이 모두 지능이 온전치 않은 자들이다. 또 어떤 일이든 정상인과 다르게 이해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또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뭘 배워도 익히지 못하는 것도 지능이 온전치 못한 것에 포함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글 쓰는 법을 익히지 못하는 것도 지능이 온전치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래와 춤, 컴퓨터 기술, 외국어를 배워도 익히지 못하는 것 역시 지능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익히지 못할 때 지능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언어를 구사하는 법을 익히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리를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내적 상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결할 길을 구하고 싶지만, 여러 날을 고민해도 어디서부터 입을 떼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는 말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혼란스러워져서 입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생각이 뒤죽박죽된다. 예를 들어, 네가 그에게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햇빛이 눈부시네요."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제 비가 와서 저쪽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궤도를

벗어난다. 이런 사람의 지능이 온전하겠느냐, 온전하지 않겠느냐?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에 시달리는 그에게 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심장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다. 너희가 예를 들어 보아라. (어떤 사람은 질문에 답할 때 늘 엉뚱한 소리를 하며, 상대가 뭘 물어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할 때 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지능이 온전치 않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피아 구분을 못 하고, 가끔은 말하면서 자신을 팔아도 모른다. 이 또한 지능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해 보자. 가족이 그에게 묻는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니?" 그럼 그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시죠."라고 대답한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감과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러하냐? 이방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더러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면 한번 솔직히 말해 봐. 너희 교회에는 돈이 얼마나 있어?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니? 너희 교회 리더는 누구야? 예배 장소는 몇 곳이지?"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은 어디가 좀 모자란 것 아니겠느냐? 마귀, 이방인과 무슨 정직한 사람이 되는 얘기를 하느냐? 사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그렇게 진지하게 따져 보는 것은 자기를 파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자신을 해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얼간이 아니겠느냐? 사람들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때도 그렇고, 사실을 말할 때도 그렇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마귀, 사탄이라면 그에게 실제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류에게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얼간이는 그렇게 할 줄 모르고 규례만을 지킨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서 누구도 속이지 않아요. 이방인인 당신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우리는 사실만 말한다고요." 사실대로 말한 결과, 남에게 약점을 잡힌다. 이는 피아 구별을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 나사가 풀린 것 아니겠느냐? 도리를 좀 깨달아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구호만 좀 외치면 자기가 아주 영적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 실제가 생긴 줄 알고 여기저기서 과시하다가 결국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여 꼬투리를 잡힌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방금 지능이 온전치 못한 몇 가지 부류에 대해 설명했다. 한 부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가 하는 말의 중심 내용과 핵심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 또 다른 부류는 얼간이로,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원칙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일이든 편집적이고 그릇된 견해를 보인다. 이 밖에, 또 한 부류는 무엇을 배워도 익히지 못한다. 심지어 말하고 대화하는 법조차 익히지 못하고, 어떻게 말해야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남들이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글자는 어느 정도 알지만 머릿속으로 언어를 전혀 조직해 내지 못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줄 모르며, 올바른 관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일도 성사시키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다 지능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어떤 손재주나 기술을 배우든 늘 원칙과 규칙을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제대로 할 때가 있어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다음번에 잘하지 못하면 왜 그런지도 모른다. 그는 무엇을 배워도 익히지 못하고 정통하지 못한다. 손재주나 기술 업무를 배우게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배워도 그저 이론만 파악할 뿐이다. 또 설교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 집에서 늘 교제하는 이런 말씀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일종의 원칙이나 실행의 길이 되게 하라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내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해내지 못한다. 이로써 이런 사람은 지능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이 확정된다. 어떤 사람은 서른 살 때 한 가지 일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쉰 살, 예순 살에 같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똑같다. 전혀 발전이 없고, 평생 일 하나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 허송세월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쓰며 열심히 하는데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교제하니, 지능이 온전치 못한 범위가 또 커지지 않았느냐? 너희는 지능이 온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많든 적든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설교를 5 년 들어도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10 년, 심지어 20 년, 30 년을 들어도 무엇이 진리 실제이고, 무엇이 글귀와 도리인지 모른 채 입만 열었다 하면 도리를 잘도 늘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해는 차치하고, 사람이 일부 외부적인 일, 그리고 인간 생활의 상식 측면의 일에 대해 보이는 모습을 말하자면 모두 이러하다. 어떤 일을 몇 년을 하든 처음 배울 때와 같은 상황, 같은 내적 상태, 같은 인지 수준에 머물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지도하고 가르쳐도, 본인이 아무리 실천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인성 유무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쓰는 것은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말해 보아라, 인성이 좋지 않고, 지능이 온전치 못하거나 악령 역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써야겠느냐?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 몇 가지 부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당사자의 인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인성이 보통이어서 나쁘다고도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팀원이 될 수 있다. 인성이 비교적 좋고 이성과 양심이 있으며,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특별히 올곧고 정의감이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부류는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써도 된다. 그를 리더나 팀장으로 양성하고 쓸지, 아니면 중요한 사역에 쓸지는 그의 자질과 특기에 근거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인성 측면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의 특기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쓴다

어떻게 각자의 특기에 근거하여 각 부류 사람을 쓸지 더 얘기해 보자. 자질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잘하는 업무 기술이 있다. 특기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뛰어난 재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작곡을 한다거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 이론이나 미술을 아는 것, 또 춤이나 글쓰기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특기이다. 연기나 감독은 영화 분야의 특기이고, 통번역은 언어 분야의 특기이며, 동영상 제작이나 특수 효과 역시 한 분야의 특기이다. 우리가 말하는 특기는 모두 교회의 중심 사역과 관련된 업무 기술 분야의

능력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다. 만약 기초가 있는 사람이 인성이 기준에 맞지 않고, 지능이 온전치 못한 자, 악인, 악령 등 몇 가지에 해당한다면 써서는 안 된다. 반면, 인성이 기준에 맞고, 하나님 집에 필요한 어떤 한 분야의 특기도 갖추고 있다면 발탁하고 양성하고 쓸 수 있다. 그의 특기에 적합하거나 그가 갖춘 업무 기술과 관련된 팀에 안배해서 얼른 사역에 투입시키면 된다. 아직 어떤 한 분야의 업무 특기는 갖추지 못했지만 배우기를 원하고 또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다. 만약 그의 인성이 기준에 맞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그를 양성하는 한편, 그에게 여건을 조성해 주어 배우게 해도 된다. 이런 사람 역시 쓸 수 있다. 요컨대, 본분을 안배할 때 사람의 자질과 특기에 근거하여 특기가 있는 각 부류의 사람이 되도록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게 해야 그의 특기가 발휘될 수 있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그의 특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의 자질과 인성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계속 그가 갖춘 특기를 필요로 한다면, 그에게 계속해서 그 분야의 본분을 시켜야지, 함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업무를 하는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른 본분을 이행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런 것이 다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다.

별다른 특기가 없는 부류가 있다. 글도 조금 쓸 줄 알고, 노래도 그런대로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배우면 할 수는 있지만,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는 자질도 어느 정도 갖췄고 정의감도 있는 편이며 사람을 보고 쓰는 안목이 있다. 그밖에 제일 중요한 건 그에게 조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임무와 일을 맡게 되면 사람을 조직할 줄 안다. 또 그에겐 사역 능력, 즉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완수하는 능력이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계획과 절차와 순서가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쓸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할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과 의논하여 해결할지 등의 일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류 사람은 사역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말재간도 좋은 편이다. 말이 분명하고 조리가 있어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다. 그가 일을 분배하고 나면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없고 일에 사각지대도 없다. 또한 일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설명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데다 조리가 있고, 무척 복잡한 일에 대해 그가 분석하고 교제하고 세부 사항을 열거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된다. 이외에도 그는 어떻게 하면 폐단이 생기고 효율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교제할 수 있다. 즉, 그가 일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더 전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머리가 좋고 다른 한편으론 말재간이 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그가 일을 할 때 조리가 있고 절차와 계획이 있으며 굉장히 명확하다는 뜻이다. 말재간이 있다는 것은 그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계획하고 계산한 일을 말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가 어떻게 말하면 간단명료해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언어 표현이 매우 명확하고 정확하며 진실하고 적절하다. 이것이 바로 말재간이 있다는 뜻이다. 이 부류 사람은 말재간이

있고 사역 능력과 조직 능력도 있으며, 게다가 책임감이 있고 상대적으로 정의감도 있다. 그런 사람은 무골호인이나 중재인이 아니다.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악인이나 일할 때 잔꾀만 부리는 얼간이, 양아치 등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부류를 보면 그는 혈압이 오르고 눈에 거슬린다. 그래서 그 즉시 해결하고 처리함으로써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지킨다. 책임감과 정의감이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 부류 사람의 인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 사람은 사교적이지 못하거나 어떤 업무나 기술에는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금 말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류 사람들은 리더 일꾼으로 양성할 수 있다. 그의 그 몇 가지 특징은 곧 그의 특기이기도 하다. 즉, 말재주도 있고, 사역 능력도 있고, 조직 능력도 있고, 상대적으로 정의감도 있다는 것이다. 정의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에게 정의감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사악하니 정의감이 있을 리가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부류는 영적인 이해력과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류 사람들의 특기는 방금 언급한 그 몇 가지 인성적 특징과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더해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고, 교회에 부담이 있으며, 사역 능력이 있다는 세 가지 기준이 추가된 것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리더로 양성해도 되며, 그것은 문제가 없다. 리더가 되려면 두뇌와 자질 외에도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역할 때 조직 능력과 사역 능력을 갖춰야 하며, 말재주가 있어야 한다. 자질이 꽤 뛰어나고 영적인 이해력도 있지만 예배 자리에서 교제할 때 말을 엉망으로 하고, 언어 구사 능력과 논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양성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과는 간신히 얘기할 수 있다. 약간의 내적 상태와 견해, 진리에 대한 이해를 교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고, 공급하고,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입을 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겁을 집어먹고, 심지어는 긴장해서 울음을 터뜨릴 지경인데, 이런 사람을 양성할 수 있겠느냐? 인성이 비교적 나약하고 간이 작아서 쉽게 주눅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 리더가 될 만한 인성, 특기, 이해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룹장이나 교회 리더로 양성해도 된다. 우선 양성하고 훈련하면서 얼마간 체험하고 식견이 쌓이면 담력이 커져서 말할 때도 겁내거나 주눅이 들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방금 교제한 부류의 인성 특징과 특기를 갖춘 사람의 경우, 그의 인성이 기준에 맞기만 하면 리더로 양성해도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에 반드시 도달해야 리더로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탁하고 양성해도 된다. 이것이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인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 이것이 핵심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이런 말을 듣고 자기는 이미 리더가 될 조건을 갖추었으니 당연히 발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리더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그는 생각한다. '나란 사람은 일 처리도 사리에 맞고, 조직 능력도 있고, 말재주도 있는 데다 아무리 복잡한 일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왜 나를 발탁하지 않을까? 형제자매는 왜 나를 리더로 뽑아 주지 않을까? 윗선 리더는 왜 나 같은 인재를 보지

못할까?' 조바심 내지 마라. 만약 네가 정말 리더 일꾼이 될 조건을 갖추었다면 언젠가는 너를 발탁해서 훈련시킬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진리를 실행하는 훈련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선민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선민들은 네가 자질이 좋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너를 추천하고 선출할 것이다. 네가 만약 실질적인 사역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리더로 선출되거나 상부에 의해 이례적으로 발탁되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너는 반드시 실질적인 사역을 좀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두가 네 특기를 보고 네가 발탁되고 양성되고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너를 추천하고 선출할 것이다. 만약 네가 지금 스스로가 리더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를 뽑아 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집에서도 너를 발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찌 된 일이냐?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형제자매의 눈에 너는 여전히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네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네 추구가 될 수도 있고, 네 특기와 자질이 될 수도 있다. 이 몇 가지 중 형제자매들이 인정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들은 너를 선출하거나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훈련해야 하며,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자연스레 너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항상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사치스러운 욕망이다. 너는 평정심을 가져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무턱대고 리더가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야심이고 그 길은 바른길이 아니며, 그런 야심과 욕망을 계속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설령 네게 정말 자질이 있더라도 진리 실제에 진입해야 리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행할 줄 모른다면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서 역시 교체되고 도태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스스로가 리더를 맡기에 적합하고 리더가 될 능력과 자질, 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너를 발탁해 주지 않고, 형제자매도 너를 뽑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여기에도 실행의 길이 있는데 너는 자신을 잘 인식해야 한다. 네가 과연 인성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패괴 성품을 드러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가 진리 실제를 갖추지 않아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본분 이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이 몇 가지 측면을 모두 성찰해 보고 과연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 살펴야 한다. 일정 기간 반성해서 자신이 어느 측면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면 서둘러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 "요즘 저 사람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사역도 착실하게 하고, 업무도 진지하게 대하고, 진리 원칙도 무척 중시하죠. 일할 때도 경솔하지 않고 건성으로 임하지도 않아요. 사역도 전보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고 말이에요. 전에는 허풍도 잘 치고 항상 자기 자랑만 했지만 지금은 많이 진중해지고 건방 떨지도 않죠. 일을 좀 할 수 있어도 떠벌리지도 않고, 다 끝낸 일도 실수가 있을까 봐 반복해서 검토하고요. 일하는

것도 전보다 신중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뭐니 뭐니 해도 진리를 교제해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니 확실히 발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동안 너와 함께 지내면서 너에게서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발견하고, 인간 생활과 처세, 사역을 대하는 태도나, 진리 원칙을 대하는 면에서 모두 전보다 노력하고, 언행도 빈틈없고 신중해진 것을 형제자매들이 눈여겨보고 마음에 기억해 둔다면 다음번 선거 때 너는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리더로 당선될 희망이 생길 것이다. 만약 정말 중요한 본분을 조금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정말 짐을 짊어지려는 부담과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훈련해라. 진리 실행에 집중해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생명 체험이 생겨서 간증문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발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으면 분명 성령의 역사를 얻을 것이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너를 이끌면 기회는 곧 찾아올 것이다. 지금 너는 부담을 가지고는 있지만 분량이 충분하지 않고 생명 체험도 너무 얕아 설령 리더가 된다 해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너는 생명 진입을 추구하고, 사치스러운 욕망부터 해결하며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고 안배하든 불평 없이 진실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분량을 갖추면 네게 기회가 온다. 네가 중책을 맡고 싶다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네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증거이다. 그건 야심이 아닌 참된 부담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책임이자 추구하는 목표이다. 너는 사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족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축복받는 일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합당하게 안배할 것이다. 지금 너는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일에만 신경 쓰도록 해라. 먼저 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런 다음 체험 간증문을 몇 편 써서 하나님을 증거해라. 만약 네 간증이 진실되고 실제적이라면 사람들은 이에 감탄하고 너를 좋아할 것이고, 너와 만나려 하고 너를 추천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진리를 잘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실제 체험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참된 간증이 생기고, 본분 이행의 성과도 갈수록 좋아질 테니 그때는 네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주변 형제자매들이 너를 추천할 것이다.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집에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민에게도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나 진리 실제가 있는 친구와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네 체험이 이런 정도에 이르러 누구나 네게 참된 간증이 있음을 알고 네게 진리 실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네가 리더가 되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다. 형제자매가 기어코 너를 선출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뉘우친 탕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고, 위안을 받을 것이다. 너는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루빨리 자신과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앞날이 창창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은 무한하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이런 부담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사물이며,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중책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가 문제이냐? 네가 어떤 특기,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네 아이큐가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네 추구와 네가 가는 길에 달렸다. 만약 네가 인성이 기준에 맞고 일정한 자질도 갖추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지 인성이 좋고 부담이 조금 있는 것뿐이라면, 교회 리더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네가 보장할 수 없다면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설령 너를 리더로 선출하거나 리더 자리에 안배해도 네가 사역을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비록 네 허영심은 충족되겠지만 형제자매를 해치고 교회 사역에도 지장을 줄 것이다. 만약 네가 리더 일꾼의 조건을 갖추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한 체험 간증도 좀 있다면 너는 틀림없이 리더 사역을 잘할 수 있다. 네가 체험 간증이 있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교회 리더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인성이 기준에 맞고, 또한 일정한 특기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단지 하나님 집에서 선발하고 양성하고 쓰는 기본 조건을 갖춘 것일 뿐이다. 하지만 네가 리더 사역을 잘할지 말지는 네게 참된 체험이 있는지, 진리 실제가 있는지에 달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옳은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겨우 3~5 년 믿어서 아직 실제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가 부족한 것이냐? 바로 실제 체험이 부족하고 아직 진리를 깨달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설령 많은 글귀와 도리를 얘기할 줄 안다 해도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 아직은 리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계속된 훈련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성도 기준에 맞고, 꽤 정직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도 적고, 본분 이행에도 교란과 방해가 없지만 진리 추구 방면에서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을 리더 일꾼으로 양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발탁되고 양성되고 쓰임 받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리더 일꾼으로 발탁되면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하겠느냐? 일정 기간 리더 일꾼을 하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리더 일꾼으로 선출하거나 발탁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사람이 기준에 맞는 인성과 자질을 갖추기도 했고, 또 진리를 받아들여 변화가 조금 생겼다면 발탁하고, 양성하고, 써도 된다. 그러면 그는 발탁되고, 양성되고, 쓰임 받음으로 인해 훈련의 기회를 얻어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누구를 리더 일꾼이나 책임자로 발탁하든 그 목적은 네 사적인 욕망과 야심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라, 너를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온전케 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지능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언제 시험을 만나면 걸려들어서 교회 이익을 팔고 형제자매를 팔아 하나님 집의 사역에 손해를 입힐지 모른다. 이렇게 얼간이에 속하는 지능이 온전치 못한 부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대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얼간이, 지능이 온전치 못한 부류는 모조리 교체하고 조정해야지 한 명이라도 쓰면 안 된다. 만약 이런 부류를 쓴다면

하나님 집의 사역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이런 교훈은 너무나도 많다. 지금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진리 실제도 교제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항상 그 모양이다. 이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바로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변화가 없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확실한 발전이 없다. 한쪽에 두었다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봉사나 좀 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능이 온전치 못하고 특기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몇 년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몇 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책을 나누어 준들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없습니다.) 이들 지능이 온전치 못한 부류에게는 하나님 말씀 책을 나누어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괜한 짓이고, 낭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만약 나누어 주었다면 서둘러 회수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본분 이행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폐인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폐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희는 잘 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점잖지만 지능이 너무나 부족해서 몸을 쓰는 일을 하도록 해도 잘하지 못하고, 뭘 해도 일을 망친다. 그에게 일을 하나 시키면 반드시 뭔가 하나를 망가뜨린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쓰면 안 된다. 그에게 물 한 통을 길어 오라고 시키면 그는 기름 한 병을 엎지를 수도 있고, 그릇을 하나 씻으라고 시키면 쟁반 하나를 깨뜨릴 수도 있다. 음식을 만들라고 시키면 많게 만들거나 적게 만들고, 짜게 만들거나 싱겁게 만든다. 본인도 마음을 쓰지만 어떻게 하든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을 써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다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집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냐? 아니다. 본분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 범위 내의 일, 생활 상식과 일상생활에 관계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좋은 인성도 갖추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재주도 없고, 리더로 양성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지만 몸을 쓰는 일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닭이나 오리, 돼지를 기르는 일, 양을 치는 일은 그래도 잘할 수 있다. 그에게 간단한 일을 맡기고 본인도 마음을 좀 쓰면 잘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비록 간단한 일 한 가지이지만 그는 마음을 들여 책임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또 진리 원칙에 따라 스스로에게 요구할 수 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은 그도 잘할 수 있다. 그는 닭을 잘 먹여서 정상적으로 알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늑대가 물고 가지 못하게 닭을 잘 지키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로 보고하면서 하나님 집에서 자신에게 맡긴 일과 임무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고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자신의 개인 생활이라든가 남들과 어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눌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내적 상태를 교제할 줄 모르고, 때로는 심통을 부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를 쓰지 말아야 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위생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은 열흘이 넘도록 머리를 감지 않고 온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쉬는데 뭘 먹거나 물 마시는 소리를 크게 내고, 평소 걸을 때나 문을 닫을 때, 말할 때도 소리를 크게 내는 등 교양도 없고 버릇도 좋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다 같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잡아 주어야 하고, 그에게 정상 인성이 무엇인지 교제해 주어서 조금씩 달라지게 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하니 맞춰 나가야 한다. 이런 사람은 사역을 제대로 하고 감당하면서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매우 좋고 일도 부지런히 한다. 그가 주어진 일을 책임을 다해 잘할 수 있으면 양성해서 써도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닭만 기르는 것은 간신히 되지만 만약 추가로 오리나 거위를 기르라고 하면 바빠서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는 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머리가 단순해서 한 가지 일밖에 못 하고, 여러 가지 일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계획을 세울 줄 몰라서 일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한 가지 일에만 적합하니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는 감당할 수 없다. 그가 한 가지 일을 잘했다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도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라.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건 그의 자질이 어떠냐에 달렸다. 먼저 그에게 두 가지 일을 시켜 보고, 자질이 좋아서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배해도 된다. 만약 두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한다면 그건 자질이 닿지 못하는 것이니 다른 일 하나는 얼른 취소해야 한다. 관찰하고 시험적으로 쓰면서 그가 한 가지 일에만 적합할 뿐 여러 복잡한 일에는 부적합하고,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네가 몇 가지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식사 준비를 하고 병아리도 좀 기르게 하고, 텃밭도 관리하도록 하면 그는 매일 제때 식사 준비를 하는 동시에 틈이 날 때는 텃밭 관리도 가능해서 제때 물을 주고 김도 맬 것이다. 그러면서 닭 모이도 제때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가 그런 자질을 갖췄다면 그에게 교회 사역도 감당하게 교회 리더를 맡기시죠." 그러면 되느냐? 그가 비록 몸을 쓰는 일이나 생활의 사소한 일은 맡을 수 있지만, 교회 리더가 되는 일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몇 가지 간단한 바깥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교회 리더는 힘을 들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리더가 되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인성도 좋은 편인데 네가 그에게 바깥일을 안배해 주었다면, 그건 적합하지 않다. 이를 두고 사람을 잘못 쓴다고 한다. 교회 리더는 일상생활에 관계된 일 하나 정도를 겸할 수 있고, 바쁘지 않을 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사소한 일이나 몸을 쓰는 이런 일의 경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짓수만큼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마 자질과 능력은 충분하겠지만, 한 가지 충분하지 못한 게 있는데 바로 에너지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존재로, 사람의 에너지도 제한적이고 담당할 수 있는 사역도 제한적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매일 12 시간씩 일할 수 있고, 에너지가 보통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8 시간 일할 수 있고,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4, 5 시간

일할 수 있다. 따라서 네가 한 사람을 쓴다면 그에게 몸을 쓰는 일을 맡기든 교회 리더 사역을 맡기든 혹은 업무 관련 사역을 맡기든 그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가장 적합한 사역을 안배해 준 다음 그가 하지 못하면 다시 별도로 안배해야 한다. 만약 그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일을 기준으로 안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람 쓰는 일에서 잘못한 것이다. 중점적으로 발탁하고 양성하고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그에게 몸을 쓰는 일을 시키더라도 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시켜야 한다. 만약 그가 한 가지 일을 잘하는 동시에 다른 일도 가능하다면 그에게 몸을 쓰는 일을 더 맡겨도 된다. 그의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괜찮다.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서 연속으로 세 가지 일도 가능하고, 한 가지 일을 마쳐도 힘이 남아돌아 대개는 한가할 때가 많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눈이 멀어서 제대로 배치할 줄 모르고, 그것이 문제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에게 한 가지 일만 안배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지금까지는 지능이 온전치 못하고 별다른 특기도 없고 힘만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했다. 그 밖에도 어떤 사람들은 몸에 병이 있어서 힘을 들이는 일도 안 된다. 조금만 힘을 들여도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이런 부류가 만약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다면 어떻게 안배해야겠느냐? 그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그의 인성, 자질 각 방면이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한지 봐야 한다. 만약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면, 조금만 일해도 쉬어야 하고 돌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혼자서는 본분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누군가 짝이 되어 그를 보살펴야 한다면 그건 너무 무가치하다. 이런 사람은 본분 이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요양하도록 해야 한다. 병이 너무 심해 바람만 불면 쓰러질 듯한 사람이라면 절대 쓰지 않도록 해라. 만약 몸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아니고 단지 뭔가 안 맞는 걸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과도하게 쓰면 머리가 아프고, 정상인이 사역하는 시간보다 서너 시간 부족하거나 정상인의 반 정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써도 된다. 다만 본인이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고생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건강을 돌보고, 몸이 좋아진 다음에는 다시 와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한다면 얼른 허락하고, 설득하지 마라. 설사 네가 설득한다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옛말에 '억지로 딴 참외는 달지 않다'고 했는데, 각자의 믿음과 의지, 추구는 저마다 다른 법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어쩌다 몸이 괴롭고 힘이 없을 때도 있잖습니까? 사람이 뭘 잘못 먹으면 괴롭다가도 한 이틀 지나면 좋아지는데 집에 가서 몸조리까지 해야 하나요? 머리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잠만 잘 자도 낫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수라고요." 너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을 아끼는 정도가 남다른 데다 건강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만약 집으로 돌아가 쉬면서 몸조리를 하겠다고 신청한다면 교회는 얼른 허락해야 하고 강요하거나 사람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설득하지 마라. 어떤 거짓 리더들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지금 하나님 사역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세요. 재난이 갈수록 커지고, 개기월식도 네 번 나타났어요. 지금 역병도 이렇게 심하고 이방인들은 살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별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얻고 생명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이만한 어려움은 별것

아니니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낫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도 몇 곡 더 배우면서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히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병 안에서 살면 그저 병뿐이라고요. 지금 병 안에서 살고 있어요. 계속 병 생각만 하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병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믿음은 더 커지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거예요. 집에 가서 쉬는 것은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는 거라고요." 설득하지 마라. 네가 이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잠깐 몸이 좀 불편하다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집에 가서 쉬려 하고, 약간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본분을 진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본분을 오래 이행할 계획이 없다. 그는 본분 이행에 진심이 없고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몸을 보전하며 물러날 기회와 빌미를 어렵사리 잡았으니, 속으로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병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찾아와 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절대 만류하지 마라. 그는 만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설득하는 사람을 속으로 욕할 것이다. 너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물론 정말 병이 있고, 그것도 이미 오래돼서 더 버티다가는 생명이 위험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하나님 집에 폐를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몸이 망가지면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보살펴야 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자기를 보살피게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현명하게 나서서 쉬겠다고 얘기한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역시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서 쉬게 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번거로울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육으로 살다 보니 누구나 아플 때가 있기 마련이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본분을 이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 집에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형제자매가 처방을 제공하거나 치료 의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것을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본인에게 돈도 있고, 치료할 방법이 있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요컨대 만약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계속 이행할 수 없고 하나님 집에서 양성을 계속 받을 수 없으면 당당하게 신청해도 된다. 하나님 집에서는 바로 허락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해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부류는 이렇게 안배하면 된다.

몇 가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인성도 나쁘지 않고, 특기도 있고, 머리도 좋고, 말하는 것도 정상적이다. 또 평소 낙관적이고 본분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바로 정에 너무 얽매인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가족을 그리고 육친을 그리는가 하면, 늘 고향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며 그걸 못 먹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이것이 본분 이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 어떤 부류는 혼자 따로 생활하면서 개인 공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형제자매와 같이 있으면 일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 개인 생활 공간이

없어서 속으로 항상 압박감을 느낀다.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언제나 구속을 받는 기분이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늘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과 같이 본분을 이행하기가 싫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그에게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거북하기만 하다. 비록 형제자매들도 어울리기 편하고 하나님 집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지만 일과 휴식 시간을 지키는 것은 좀 힘들다. 아침에 다들 일어나도 자기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그러자니 창피하고, 저녁에 남들이 쉴 때는 아직 자고 싶지 않고 항상 재미난 일도 좀 하고 싶어 한다. 가끔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식당에 없을 때는 아무래도 얘기하기가 부끄럽다. 때로는 좀 쏘다니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도 선뜻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언제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기만 하다. 남들이 놀리거나 얕잡아볼까 두렵고, 자기를 어린아이 같다고 할까 두렵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가끔 책망을 받기도 한다.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사는 게 즐겁지가 않다. '예전에 집에서 지낼 때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어. 아기 천사처럼 얼마나 즐겁게 지냈다고! 지금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데 과거의 내 모습은 어쩌다 사라졌을까? 이제는 더 이상 전처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러니 그는 이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차마 리더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늘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퍼뜨리는가 하면, 집 생각이 나서 밤에 잘 때도 몰래 눈물을 흘린다. 이런 부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사정을 아는 사람이 얼른 보고하고 리더가 즉시 실태를 조사해서 만약 사실이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된다. 그가 하나님 집에서 잘 먹고 잘 대접받아도 여전히 본분 이행을 원하지 않고,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해한다면 얼른 내보내도록 해라. 이 부류는 일시적으로 이런 기분이 들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바람은 착실하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비록 집 생각이 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알고 스스로 진리를 구해 해결할 줄 안다. 그런 사람은 내보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은 서른이 넘어도 여전히 아이 같아서 좀처럼 철이 들지 못하고 항상 불안정하고, 시키는 일이나 좀 할 뿐, 한가하면 놀고 잡담할 궁리만 하고, 본연의 일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우다. 이방인들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하는데, '이립'은 본연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를 능히 부양하고, 본연의 일을 할 줄 알고, 노는 시간을 줄이고 본업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다. 어린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어떤 본업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이탈할 생각만 하고,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군것질하고, 드라마 보고, 잡담하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기이한 사건이나 이상한 이야기를 검색하려 한다는 말이다. 또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예배만 드리면 잠이 오고, 졸릴 때 바로 자고 배고플 때 바로 먹으려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늘 철이 들지 못하고, 성숙하지 않다. 서른에도 그 모양이고 마흔이 되어도 여전히 그 모양인데, 달라지지 못한다. 그가 만약 나가겠다고 신청하고 본분을 계속하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나님 집에서는 만류하지 않는다. 얼른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라고 대답해 주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라.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함으로써 인성이 성숙해지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다음 진리를 깨닫고 실행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전혀 가망이 없다. 어느 무리든 이런 사람이 꼭 있다. 이방인들은 이런 부류를 '어른아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이런 부류는 예순이 되어도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말하고 일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언제나 시시덕거리고, 팔랑거리고, 어떤 일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놀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쓸 수 없다.

너희가 볼 때 어른아이 부류가 나쁜 사람이냐? 악인이냐? (아닙니다.) 일부는 악인도 아니고, 무척 단순하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중에는 아주 선량해서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놀기 좋아하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결혼해서 집안일을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 밥하는 것도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늘 달래 줘야 하고, 뭘 시키려면 본인과 상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지켜봐야 한다. 그녀는 한가하면 예쁘게 꾸미고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려고 한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카드나 마작만 하려고 한다. 그녀에게 배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봐도 모르고, 내일은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봐도 모르고, 밥을 좀 하라고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능숙한 일은 무엇이냐? 어느 식당 음식이 가장 맛있고, 어느 가게 옷이 가장 유행이고, 어느 가게 화장품이 가격도 합리적이고 쓸 만한지는 줄줄이 꿰고 있다. 이런 일에는 능숙하면서 그 외에 살림, 정상적인 인간 생활에서 갖춰야 할 기능은 하나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는다. 그녀가 배우지 않는 이유가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다. 그녀가 능숙한 그런 일들을 보면, 그녀는 자질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손에 돈만 있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화장품을 사고, 옷을 산다. 집에 부엌살림이 부족해서 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밖에 나가면 맛있는 것 파는 데가 널렸는데 그건 사서 어디다 쓰려고요?" 청소기가 고장 났으니 옷 덜 사고 돈 좀 아껴서 청소기를 사라고 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돈 벌면 가사 도우미 시켜서 청소하면 되죠. 안 사도 돼요." 평소에는 게임이나 마작을 하지 않으면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사는 게 일이고, 집 안 청소는 일절 하지 않는다. 이것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떤 남자는 돈을 벌면 차 사고 도박하느라 집안에 고장이 난 물건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집에는 냉장고도 안 되고, 세탁기도 안 되고, 하수도도 막히고, 비가 오면 지붕에 물이 샌 지 오래도 고치지 않는다. 이 남자는 어떠냐?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너무 제멋대로 살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도 쓸 수 없다.

어떤 부모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다. 자식이 끓는 물에 데거나 어디에 부딪히기 일쑤이다. 어떤 아이는 코가 깨지고, 어떤 아이는 난로에 엉덩이를 데고, 어떤 아이는 뜨거운 물에 목구멍을 데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어떤 일에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놀기 좋아하고,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짊어지지 못한다. 부모가 돼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한다면 정상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느냐? 절대 짊어질 수 없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부류는 쓸 수 없다. 만약 그가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신청하면 얼른 보내도록 해라. 아무도 강요하지 말고 만류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 본성의 문제이지 어쩌다 일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러 하나님 집에 왔을 때 환상이 가득했다.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에덴동산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가 상상하는 생활은 하루 종일 좋은 걸 먹고 마시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퍽이나 아름다운 생활이었다. 그는 신선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결과는 본인의 상상과 완전 달랐다. 그가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는 재미가 없고 너무 따분하다고 느껴 떠나고 싶어진 것이니 얼른 보내도록 해라. 하나님 집에서는 만류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강요하지 않으니 너희도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진리 원칙에 맞는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머저리가 되거나 무골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부류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사랑도 없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하나님 집에는 너를 발탁하고 양성하고 쓸 권한이 있지만, 네가 본분 이행을 원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건 너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교회는 네 신청을 허락할 것이고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도덕에 부합하고, 인성에 부합하고, 물론 진리 원칙에는 더더욱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 만약 누군가 한동안 본분을 이행해 보니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키지 않고, 본분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그만 믿고 싶다면,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하나님 집에서는 허락할 것이고 절대 억지로 붙잡아서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별로 난감한 일도 아니니 너도 난감해할 필요도 계면쩍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집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 없고, 너에게 어떤 요구도 없다. 또한 네가 하나님 집을 떠나려고 해도 정죄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네가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 집에서는 네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네,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을 열거해 보았다. 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는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본분 이행을 원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 더 이상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요구하면 하나님 집에서는 허락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쓰지 않고 본분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적절하다.

2. 유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겁이 많아 형제자매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척이나 두려워한다. 그가 잡혀간다면 교회를 팔아넘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부류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겠느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누군들 유다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고문받는 상황에서 절대 유다가 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될 수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쓰지 않는 것이냐? 눈에 띄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든 잡혀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본분에 이런 사람들을 쓴다면 너무나 쉽게 일이 터진다. 이것은 중국 본토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이다. 여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 심한 고문을 받아 목숨이 위험해지고, 결국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이들은 연약해진 탓에 유다가 되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팔아넘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꿰뚫어 볼 수 없기에 써도 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신을 위한 출구를 마련하고, 잡혀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고문을 받지 않고 금방 나올 수 있을지 궁리한다. 첫째, 고문받지 않을 것, 둘째, 판결받지 않을 것, 셋째, 수감되지 않을 것, 이것이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고통받는 한이 있어도, 판결받고 수감되는 한이 있어도 유다는 되지 말자는 이런 의지가 없다. 고문을 받지 않아도 배신할 수 있다면 잡혀가서 수감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유다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를 교회에서 쓸 수 있겠느냐? (쓸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점을 알 수 있다면 절대 양성하고 쓸 수 없다. 이런 부류는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나 겁이 많아 문제가 생기면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이 조금만 닥쳐도 본분을 내팽개치고 가 버린다. 상황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 버리는 통에 누구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으면서 비밀 지키는 일에는 타고난 솜씨를 보인다. 교회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사역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에게는 자신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서서 위험을 부담하게 만들면서 자신을 보호한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럴 만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서둘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거나 위험에 처한 형제자매와 교회 재물을 서둘러 옮기도록 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본인이 도망치고, 숨고, 위험에서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 심지어 대비책까지 생각해 두는데, 만약 정말 잡혀가면 먼저 누구부터 팔아넘길지, 어떻게 하면 고문을 받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판결을 받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환난으로부터 벗어날지 생각해 둔다. 환난이 조금만 닥쳐도 극도로 두려워하고, 믿음도 전혀 없다. 이런 부류는 위험인물이 아니냐? 그에게 위험한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면 그는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겁이 나서 도망칠 생각만 하고, 사역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유다가 될 조짐을 보이며, 잡혀갔다 하면 백 퍼센트 교회를 팔아넘길 수 있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그는 나서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고 위험 부담도 없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위험 부담 얘기가 나오면 뒷걸음질치고 네가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아무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곳이 위험하다거나 큰 붉은 용이 체포 작전을 펼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형제자매들과도 연락을 끊어서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다. 소문이 지나가고 잠잠해졌을 때 그는 다시 나타난다. 이런 부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행할 수 없느냐? 그는 유다가 되지 않으려는 의지도 바람도 없으며, 그저 쫄보, 겁쟁이, 못난이일 뿐이다. 이런 부류는 명확한 특징이 있다. 바로 어떤 특기와 능력을 갖추었든 하나님 집에서 그를 쓴다면 그는

절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이겠느냐? 아니다. 그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다이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이방인과 교류해야 할 때, 그는 이방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와 존중, 칭찬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얻은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긴 대가로 개인의 영예와 이익을 맞바꾼 것이다. 이런 부류는 잡히기 전부터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잡혀간다면 백 퍼센트 배신할 것이다. 유다와 같은 이런 부류는 하나님 집에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되도록 빨리 도태시켜야 한다.

유다 같은 부류는 비록 겉으로는 악인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 지극히 저열하고 인품도 지극히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힌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사악한 짓이자 가장 악독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려 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나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닥치면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대응하게 한다. 이런 자는 어떤 인간이냐? 인격이 지극히 저열한 자가 아니냐? 누군가 하나님 집 물건을 구매할 때 그는 응당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유다 같은 부류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팔이 밖으로 굽어서 언제나 이방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이방인에게 잘 보이려 한다. 이런 것을 두고 배은망덕하다고 하며, 이는 너무나 부도덕한 짓이다! 이는 비열한 인성이 아니냐? 이는 예수를 팔고 벗을 판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그는 하나님 집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물건을 구입하라고 하면 그는 다방면으로 알아보지 않는다. 가격과 품질, 그리고 AS 면에서 여러 곳을 비교하고,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잘 점검해서 바가지를 쓰지 않고, 또 하나님 집을 위해 돈을 좀 절약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면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귀띔하면 이렇게 말한다. "알아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들 이게 제일 좋대요." "그러면 가격을 좀 흥정할 수 있나요?" "무슨 흥정이요? 이미 가격 얘기를 끝냈는데 다시 흥정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집에 돈이 많잖아요?" 얼마짜리 물건이든, 품질이 어떻든 자기 눈에 적합해 보이면 그는 즉시 구입하게 한다. 늦게 샀다가는 그에게 야단과 꾸지람을 듣고 심지어 정죄되기까지 한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하나님 집에 큰일을 해 주든 작은 일을 해 주든 그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 집은 돈만 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를 보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방인들과 관계를 잘 다져야 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뭐든 옳으니 무조건 따를 거야. 나는 하나님 집의 요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은 마귀적인 본성이 아니냐? 이런 부류가 바로 이방인이고 불신파인데 그를 써서 하나님 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류는 소양과 특기가 조금은 있다. 겉보기에 능력도 조금 있고, 말도 잘하고, 업무도 조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집을 위해 무슨 일을 처리하든 제멋대로 굴어서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입힌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집을 속이고

진상을 감추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집에서는 또 사람을 안배해서 수습을 해야 한다. 이것은 외부인과 결탁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전형적인 행위인데, 유다가 예수를 팔고 친구를 판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류를 써서 본분을 이행하게 하면 그는 하나님 집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종이나 재수 없는 인간이 된다. 그는 봉사자가 되기에도 불합격이며, 완전 인간 말종에 속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탄의 종이고 큰 붉은 용의 자손이니 드러나면 서둘러 제명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정도의 책임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양심과 이성이 있는 것이냐? 집 지키는 개보다도 못하다!

유다 같은 부류는 이마에 '유다'라는 두 글자가 붙여져 있지 않지만 그의 행위와 행동은 유다와 똑같은 성질이니 이런 부류는 절대 쓰지 마라. 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중요한 일은 절대 그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 하나님 집 이익에 관계되지 않는 작은 일이라면 임시로 쓰는 것은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이런 부류는 절대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태생적으로 유다이고, 태생적으로 좋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런 부류는 위험인물이니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부류를 쓰면, 시간이 오랠수록 네 마음이 점점 편치 않고, 오래 쓸수록 그만큼 후환이 늘어난다. 따라서 그가 유다 같은 부류임을 이미 간파했다면 절대 쓰지 마라. 이것은 정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냐? 누군가는 말한다. "이러는 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배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다입니까?" 그가 배신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유다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를 팔기 전에 그에게 조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썼습니다.) 늘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쓴 것과 성질이 같다. 이런 사람은 잡혀가면 배신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사탄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런 부류가 바로 유다의 본질을 갖고 있는 부류이다. 그의 본질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그래도 그를 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하나님 집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한다. "누구든 나를 책망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산통을 깨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본인 입으로 남들에게 본인이 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더욱 써서는 안 된다.

3. 교우(教友)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한 부류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나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류로, 이들은 하나님 믿는 일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그들은 가끔 뭔가를 시키면 그 일을 하겠지만, 안배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긴 하나 본인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지,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집과 교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일을 좀 해 달라고 자신을 찾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는 승낙할 것이고,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큰 힘을 들이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 그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를테면 가끔 대신 집을 봐 준다든가,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가끔 형제자매 대신 허드렛일을 좀 한다든가, 혹은 외국어에 능통해서 형제자매 대신 서신을 읽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그래도 도와줄 것이다. 그것도 꽤 친절하게 말이다. 평소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티격태격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중요한 사역, 심지어 위험한 사역을 맡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그에게 어떤 위험한 일을 시키면 그는 분명 거절할 것이다. "평안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제가 어떻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절대 못 하죠." 하지만 형제자매나 교회에서 그에게 사소한 일을 시키면 그는 친구처럼 도와주고 힘을 쓴다. 이렇게 힘을 쓰고 도와주는 것은 본분 이행이라고 할 수 없고, 진리 원칙대로 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는 더더욱 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호감이 있고 비교적 우호적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 집에서는 이들을 교우라고 일컫는다. 이런 교우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자질을 갖추고 있고, 특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교회를 도와 대외적인 일을 좀 해 줄 수 있다면 이들 또한 봉사자에 해당하고, 교회의 벗에 해당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집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대열에 합류하라고 요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갓 믿을 때 믿음이 작아서 교우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모르는 게 많은데 어떻게 기꺼이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믿은 지 3~5 개월, 혹은 1 년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님을 믿은 지 3 년 이상, 심지어 5 년, 10 년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참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증명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믿음의 방식에 비추어 우리가 그들을 일컫는 말이 교우이다. 그들을 형제자매로 여기지 마라. 그들은 형제자매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풀타임 본분 교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사람이 겉으로야 뜨뜻미지근해 보여도 사실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은 지 5 년, 10 년이 되었는데도 뜨뜻미지근할 리가 없다. 그의 모습은 자신이 불신파이자 하나님 말씀 밖의 사람, 이방인임을 이미 완전히 드러냈다. 그런데도 네가 그를 형제자매라고 하고 그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 관념이고 감정이다.

교우 부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가 마음이 따뜻해서 일을 돕고자 한다면, 필요할 때는 그에게 기회를 주어 일을 좀 처리하게 해도 된다. 만약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맡겨도 되지만, 그가 잘할 수 없고 망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좋은 마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칙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적인 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조금 맡겨도 되지만, 교회 사역에 관계된 큰일은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그의 좋은 마음과 열정적인 도움은 거절해야 한다. 이런 부류를 만나면 형식적으로 상대하면 그만이고, 진지하게 대하지 마라. 왜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냐? 그는 단지 교우이지 결코 형제자매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부를 필요가 없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이 닥쳤을 때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형제자매와 만나지 않으려 하더라도 붙잡아 주고 도와줄 필요도 없다. '상대하지 말 것', 이 한 마디만 기억하면 된다. 교우, 불신파 부류는 진지하게 대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아야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뭘 물어볼 필요도 없다. 왜 물어보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와 무관한 사람인데 뭣 하러 물어보느냐? 그런 건 오지랖이 아니냐? 이런 부류를 상대하기 원하느냐? 너희는 아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결혼했을까? 잘 지내나? 지금은 무슨 일을 할까?' 그가 어떻든 너와는 관계가 없는데, 네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대하지 말고, 평가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은 평가하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으니까 매일 풀이 죽어 지내잖아요. 언제 봐도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여요." "그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 집에 또 일이 터졌대요." 이런 건 모두 쓸데없는 말이고 오지랖이다. 그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네가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니 말도 꺼내지 마라. 너와 그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그저 진리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추구하고 싶어 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 한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이런 게 없다. 너는 사악한 흐름을 보면 염증과 반감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즐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너와 정반대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너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이런 부류에 대한 하나님 집의 처리 원칙은 이렇다. '그가 돕기를 원할 경우, 아무런 후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어도 된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도 본인이 돕기를 원할 경우에는 완곡하게 거절해서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일 진리를 교제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여전히 건성으로 임하는데, 하물며 일개 교우가 대가 없이도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볼 때 이것은 사람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부정적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말이고, 사람의 본질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우매하게 굴지 말고, 바보같이 굴지 말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을 겪고, 매서운 징계와 채찍질, 폭로를 겪어야 본분 이행이 조금씩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교우나 이방인은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오로지 이익만 생각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집, 혹은 형제자매를 위해 일을 처리하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부류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상대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집에서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며, 하나님 집의 그 어떤 사역과 사무도 그와는 무관하다. 그가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가 일을 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그 기회는 그에게 줄 수 없다. 너희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으냐? 우리에게 이런 부류를 이런 식으로 대할 권한이 있지 않으냐? 있고도 남는다!

4. 교체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하나의 부류로 교체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서 거짓 리더에 속해 교체되었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서 적그리스도의 부류에 속해 교체되었든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합리적인 분배와 안배가 있어야 한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적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출교해야 한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어서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사람인 경우, 방해나 교란을 하지 않고 봉사도 약간 할 수만 있으면 출교하지 말고 계속 봉사하게 두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된다. 만약 거짓 리더여서 교체된 경우는 본인이 가진 특기와 본인에게 적합한 본분에 따라 사역을 안배하되 교회 리더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 자질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해서 교체된 리더 일꾼인 경우에도 본인이 가진 특기와 본인에게 적합한 본분에 따라 사역을 안배하되 다시 리더 일꾼으로 발탁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겠느냐? 이미 그들을 시험 삼아 써 보았다. 그들은 드러났으며, 이런 자들의 자질과 사역 능력이 리더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했다. 그럼 리더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다른 본분도 이행할 수 없겠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들은 자질이 부족해서 리더가 되기에 부적합하지만 다른 본분은 이행할 수 있다. 교체되고 나서 본인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서 본분을 이행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나중에 분량이 자라면 그들은 여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 경력이 없고 사역 경험도 부족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교체되기도 한다. 이런 리더들은 여지를 두고 교체한다. 그의 인성이 기준에 맞고 자질이 충분하다면 직급을 낮춰 쓸 수도 있고, 혹은 본인에게 적합한 다른 사역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다 그가 진리를 밝히 깨닫고 교회 사역에 체험과 경험이 쌓이면 그의 자질을 참작해서 발탁하고 양성해도 된다. 만약 인성이 기준에 맞지만 자질이 형편없다면 양성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니 절대 양성하거나 계속 써서는 안 된다.

교체된 사람들 중 두 부류는 앞으로도 절대 발탁하거나 양성하면 안 된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부류이고, 하나는 자질이 형편없는 부류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인성이 좋지 않고 이기적이고 간사한 자도 있고, 게으르고 육적인 편안함을 탐하고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런 자들은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발탁하면 안 된다. 그에게 자질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시키고 적합하게 안배하면 된다. 어쨌든 리더 일꾼으로 발탁하지 마라. 리더 일꾼이 되려면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교회에 대한 부담도 있고 고생과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 또 비교적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어야 한다. 절대 간사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너무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은 언제나 형제자매를 상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윗선 리더를 상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 집을 상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하루 종일 나쁜 생각만 한다. 그와 함께 지낼 때는 늘 그의 속내를 짐작해야 하고, 그가 요즘 대체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항상 지켜봐야 하니 그를 쓰면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쓰인다. 만약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본분을 이행하게 하면 도리를 조금 이해해도 실행하지 않고, 어떤 사역이라도 좀 하면 득을 봐야 하고, 이점이 있어야 한다. 그를 쓰는 것은 너무 신경이 쓰이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발탁해선 안 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자질이 형편없는 자, 인성이 좋지 않은 자, 게으르고 육적인 안일함을 탐하며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자, 너무 교활하고 간사한 자 등의 몇 가지 부류는 쓰임 받다가 드러나 교체되면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발탁하지 마라. 그들을 간파했으면 다시 잘못 쓰는 실수를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사람은 전에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었는데, 최근 모습을 보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와 정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고 사람을 속박하지도 않죠. 발탁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마라. 그가 발탁되어 지위가 생기면 그의 적그리스도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전에 자질이 형편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을 책임지게 했더니 일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도 모르더군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생기면 합리적으로 안배할 줄도 몰랐죠. 이제 나이도 좀 들었으니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닥치면 그는 멍해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간파하지 못한다. 사역 능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을 만큼 자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다시 리더로 발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여든이 되어도 여전히 자질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어떤 일이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인생의 경력이 조금 쌓이는 것일 뿐, 경력이 자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든 그것이 자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성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사악한 부류, 음험한 속셈이 가득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부류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당시 그는 이 방면의 원인으로 인해 교체되었다. 10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성이 이기적이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게 변했겠느냐? 알려 주겠는데, 이런 부류는 변하지 않는다. 20 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런 인간일 것이다. 그러니 20 년 후 네가 다시 그를 만나서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간사하냐고 묻는다면 그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왜 변하지 않겠느냐? 그는 변할 수 있겠느냐? 그가 변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초와 조건이 있어야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속으로 긍정적인 사물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비웃고 적대시한다. 그러니 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이 더 흐르든지 간에 그를 발탁하지 않도록 해라. 그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년 후 그는 아마 더 교활해지고 듣기 좋은 말이나 사람을 속이는 말도 더 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어울리고 그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그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달라질 리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는 한 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눈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류는 드러나 교체되면 다시는 쓰지 말아야 한다. 네가 그를 쓰는 것은 곧 하나님 집을 해치고 형제자매를 해치는 것이다. 만약 확신할 수 없다면 그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아라. 본인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이익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누구 편을 드는지 보아라. 그가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느라 전력투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점만으로도 그는 신뢰할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고 쓰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류가 절대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게으르고, 육적인 안일을 탐하고, 고생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부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이들도 매한가지다. 그는 리더를 맡는 동안 어떤 고생도 하지 않는다. 평범한 형제자매가 할 수 있는 고생도 하지 않는다. 본분도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뿐인데, 예배드리고 도리만 좀 얘기하고 나면 자러 가거나 건강을 돌보러 간다. 밤에 좀 늦게 자면 다음 날 아침에 형제자매들이 다 일어나도 그는 여전히 자고 있다.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고생스러우면 싫어하고, 조금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역도 전혀 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맛있는 음식만 보면 정신이 팔려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느라 사역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상부에서 책망해도 듣지 않고 형제자매가 일깨워 주고 폭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일하게 살 방법만 있으면 그렇게 살면서 조금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책임과 본분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너무 게으르고 육적인 안일만 탐하는 이런 부류는 달라질 수 없다. 그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직 속단하지 마라. 그를 리더로 발탁하면 고질병이 다시 도질 것이다. 그는 그런 인간이다. 마치 도박꾼과 같다. 도박꾼은 수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고, 집 팔고 마누라 팔고 자식을 팔아서라도 도박을 할 것이다. 한 며칠 도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도 도박장이 문을 닫아서 도박을 할 데가 없다든가, 같이 도박하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상대해 줄 사람이 없다든가, 팔 만한 물건은 다 팔아서 도박할 돈이 없어진 경우다. 수중에 돈만 생기면 그는 또 도박을 시작하고 끊지 못한다. 그는 그런 인간이다. 게으르고 육적인 안일을 탐하는 자도 달라질 수 없다. 지위가 생기면 바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본성을 드러낸다. 지위가 없을 때 아무도 그를 우러러보지 않고 아무도 그의 시중을 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땅히 제명해야 한다.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일을 좀 해야 한다. 그는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일하지만 그는 수동적으로 일한다. 이것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지위가 있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지만 그는 지위가 생겼다 하면 이를 기회 삼아 지위의 복을 누릴 뿐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 게으르고 안일을 탐하는 그의 본성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부류는 달라지지 않는다. 드러나서 교체된다면, 이런 부류는 영원히 다시 발탁해서 쓰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상황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발탁하고 쓰는 원칙은 이런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집에서 힘을 쓰거나 봉사할 수 있고 교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최소한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성과 특기가 어떻든 본분 이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부류는 본분 이행 대열에서 도태시켜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악독한 인성에다 적그리스도나 다름없는 경우, 적그리스도임이 확인되면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 쓰지 않을 것이고 발탁하고 양성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에게 봉사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황을 봐야 한다. 그의 봉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집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하나님 집에서는 그에게 봉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은 출교된 악인 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기꺼이 봉사하며 교회에서 안배한 대로 일한다면, 하나님 집의 이익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착실하게 봉사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를 남겨 두고 써도 된다. 반면 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봉사를 해도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라면 그는 봉사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설령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 집에서 그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가 봉사할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는 다시 돌아오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이런 사람도 있다. "하나님 집에서 저를 쓰지 않겠다면 저 혼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당신은 봉사에조차 그를 쓰지 않는데 그가 왜 전도로 얻은 사람을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집에서 그를 쓰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류를 썼다가는 후환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가 복음을 전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역이 있기에 그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사람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얻었지만 그것을 두고 무슨 공로라고 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사람의 책임을 조금 이행했을 뿐이다. 네가 적그리스도나 악인이든 아니든, 제명되거나 출교된 대상이든 아니든 사람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당연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에게서 그토록 많은 진리를 공급받은 것도 하나님의 심혈이 담긴 결과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너를 양육하고 공급했지만 하나님이 네게 뭔가를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집에서 나눠 주는 각종 서적은 모두 무상이며 사람은 돈 한 푼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의 참도,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것도 역시 무상이다. 하나님 집의 설교 교제도 모두 그냥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특수한 집단의 사람이든 네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많은 진리를 거저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인류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큰 사랑에 누가 보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갚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더냐? 진리만큼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제명되고

출교되고 도태된 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양심과 이성이 좀 있고 인성이 좀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대하든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사역을 증거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든 그건 별로 칭찬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해도 너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네게 힘을 조금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회를 찾아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나님 집에는 행정 법령이 있으며, 사람을 제명하고 출교하고 도태시킬 때는 모두 행정 법령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제명되고 출교된 사람이 전도해서 얻은 사람을 모두 교회에 받아들이는 건 좀 미안한 일입니다." 사실 그건 모두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니 미안해할 것 없다.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다. 네가 설령 제명되거나 출교되었다고 해도,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로 정죄되거나 도태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 아니겠느냐? 네가 제명되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하나님이 네게 했던 그 말씀과 네게 공급한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누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든 다 피조물이고, 당연히 누구나 창조주 앞으로 돌아와서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 만약 제명되거나 출교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전하든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은 달라질 수 없고,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도 달라질 수 없다. 이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에 교체된 적 있는 이 몇 부류 중 대다수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니 절대 다시 써서는 안 된다. 오직 사역 경험이 없는 탓에 잠시 사역을 하지 못해서 교체되거나 조정된 부류만이 그나마 발탁되어 쓰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런 부류는 자질 자체는 충분하고 인성에도 별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작은 흠이나 나쁜 버릇, 혹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관들이 좀 있지만 이런 건 모두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때 다시 발탁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는 악인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질은 충분한데 단지 사역 기간이 짧은 탓에 경험이 없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교체된 것이라면 이후 발전의 여지가 있고 그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역 능력, 자질, 기준에 맞는 인성을 갖추었다면 이런 부류는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인성에도 변화가 생기고 생명 진입에도 발전이 있고 성품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생기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을 것이다. 환경에 따라, 본인이 이행하는 본분에 따라,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는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 이 부류는 발탁되고 쓰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에 교체되었던 몇 부류를 재차 발탁해서 쓰는 원칙으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7 조는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금 교제한 내용에서 이미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 사람에게 양성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인성만 기준에 맞다면 하나님 집에서도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집에서도 함부로 포기하거나 도태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인성과 자질이 방금 교제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하나님 집에는 반드시 네가 본분을 이행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 집에서는 반드시 너를 합리적으로 씀으로써 너에게 능력을 발휘할 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요컨대 만약 네가 특기가 있고, 어떤 업무의 전문 기술을 잘 알고 있는데 마침 그것이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반드시 적합한 본분을 이행하도록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의지도 바람도 없고 노력할 마음도 없다면 너는 할 수 있는 일이나 해라. 할 수 있는 본분을 조금 이행하면 그만이다. 네가 의지가 있어서 "저는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얻어서 하루빨리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집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더 많이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네가 여러 면에서 적합한데도 너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스스로를 추천해도 된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요컨대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를 쓰는 원칙은 이런 것들이며, 그 목표는 오로지 사람들을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진리 실제에 진입한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일이 닥쳐도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각각의 사역을 하면서 진리 원칙을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을 접할 때 그에 맞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표이다. 목표가 정해졌으니 너희는 이 목표를 향해 추구하도록 해라!

리더 일꾼의 직책 제 7 조에 관한 교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된 거짓 리더의 모습을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폭로할 필요가 없다. 거짓 리더는 우선 자질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양심과 이성이 없고 부담감도 없어서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며 심지어 간단한 일 몇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복잡한 문제나 진리 원칙과 관계된 문제를 만나면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은 더더욱 간파하지 못한다. 그러니 폭로할 필요도 없고, 폭로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테니 말해 봐야 입만 아프다. 또한 그가 저지른 일들을 얘기해 봐야 역겹고 속으로 화가 치밀 뿐이다. 이런 중요한 사역을 이런 거짓 리더들에게 안배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 쓰는 것이다. 사역을 하지 못해서 가뜩이나 무척 무능함을 느낄 텐데, 네가 그를 폭로하고 해부까지 하면 그는 더욱 괴로울 것이다. 거짓 리더들은 스스로를 대조해 보고 성찰할 수 있는 만큼 성찰하도록 해라. 성찰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성찰해 내지 못했다면 계속 성찰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분석하고 정리해 보아도 된다. 만약 다른 사람도 교제해 주고 너 스스로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성찰해 내지 못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너는 정말 거짓 리더이니 도태되어 마땅하다.

2021 년 3 월 6 일

리더 일꾼의 직책(7)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2)

지난번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7 조인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이 항목에서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을 교제했는데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는 인성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고, 둘째는 특기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며, 셋째는 몇 가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쓰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이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은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은 정확하지 않으냐?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으냐? (공평합니다.) 지능이 온전치 못한 얼간이 부류를 놓고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분도 전혀 이행하지 못한다. 네가 사역을 한 가지 맡기면 그것이 업무 기술 분야 사역이든 힘을 들이는 사역이든 그는 완수하지 못한다. 이런 부류는 절대 써서는 안 되고, 봉사조차도 힘들다. 이것은 지능 측면이다. 인성 측면을 보자면, 인성이 좋지 않고 악인에 속하는 부류는 비록 사역도 일부 할 수 있고 본분도 일부 이행할 수 있지만, 인성이 너무 악한 탓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부류는 본분 이행에 적합하지 않고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특기를 갖춘 사람이 그 인성이 기준에 맞는 경우, 하나님 집 사역에서 요구하는 각 방면의 조건만 갖추었다면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도 된다. 지난번에는 또한 몇 가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쓰는지도 교제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다 부류의 사람들로, 이런 부류는 무척 겁이 많다. 그가 무척 겁이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면 백 퍼센트 유다가 될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잡히기만 하면 전부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자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 또 다른 부류는 불신파와 유사한 부류로, 우리가 교우(教友)라고 부르는 이들이다. 이런 부류는 마치 마음속으로 신이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새로운 사역을 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이런 부류 역시 쓸 수 없으며,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불신파와 교우는 오죽하겠느냐! 또 한 가지 부류는 바로 교체된 사람들로, 이런 부류도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번 리더 일꾼의 직책 제 7 조에 대해 교제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큰 항목이었다. 첫째는 인성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고, 둘째는 특기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며, 셋째는 몇 가지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쓰는지 하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큰 항목을 제 7 조에서 제시한 몇 가지 측면의 내용을 근거로 교제했으며, 원칙도 분명히 교제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비록 원칙을 분명하게

교제했지만 구체적인 일이나 특수한 상황에 부딪히면 저희는 아직도 원칙을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발탁해서 써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사람을 발탁해서 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집의 사역에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고 나서 그가 하나님 집의 사역에 끼치는 영향이 실보다 득이 많을지 아니면 득보다 실이 클지를 고려해야 한다. 인성에 결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 집의 사역에 실보다 득이 많다면, 이런 사람을 잠깐 쓰다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교체해도 된다. 만약 그 사람을 써서 득보다 실이 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며, 교회 사역을 그르치고 망칠 뿐이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적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이해득실을 가늠하는 원칙이자 임시로 사람을 쓰는 원칙이기도 하다.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사람을 쓰는 것이 그나마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 어느 사람이 완전히 적합한지 분간할 수 없으며, 다 고만고만하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수하고 바르게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두 명 찾아서 서로 협력해 사역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기간에 그들에게 진리를 많이 교제해 주고 그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파악하면 누가 상대적으로 자질이 좀 더 나은지 확인할 수 있고, 적합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본분을 안배하든 그의 자질과 특기, 인품을 근거로 확정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런 몇 가지 측면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특기가 있는지 모른다면, 먼저 간단한 본분이나 허드렛일에 그를 써 보거나 그를 복음 전도에 안배해서 내막을 알아보게 해라. 시용기간을 두고 밀착 관리 하면서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가 어떤 본분에 적합한지 쉽게 확정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자질도 너무 부족하고 특기도 없으면, 몸을 쓰는 일을 좀 안배해 주면 된다. 중요한 사역의 책임자, 복음 전도 지휘자, 각 팀의 팀장, 영화 제작팀 감독 등은 다방면으로 알아보면서 엄밀히 관찰하고 심사한 후에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중하게 사람의 본분을 안배해야 그 안배가 적합해 본분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방인들은 다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어쩜 그렇게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나쁠 수 있겠나요? 다들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왜 더 파악하고, 감독하고, 관찰해야 하나요?" 이게 말이 되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깊이 파악하고, 관찰하고, 가까이서 접촉하는 것, 이런 방법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어떤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각의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4 조에 부합합니다.) 이 근거가 맞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말로만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며, 진리에 공을

들이고자 할 뿐이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패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본분을 대할 때 조금의 책임감도 없으며 늘 건성으로 대충 임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심지어는 책망과 훈계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일단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지면 본분을 내팽개칠 수 있는데, 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모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얻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어려움이나 좌절 앞에서 쓰러지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연약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늘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그럴 수 없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 진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당연히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밀착 관리 하고 도와주고 지도해 줘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주요 목적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는 데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제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때 공급하고 붙들어 주거나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한 편차를 바로잡고 부족한 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는 사람에게 유익하며, 악의는 없다. 사람을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방해하거나 교란하거나 헛수고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요구와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일 뿐, 어떤 악의도 없다.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대하는 원칙과 방식이 이런 것이군요. 그럼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네요. 하나님 집에서는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말이에요. 본분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네요!"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옳은 소리겠느냐? 어떤 부류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불신파입니다.) 불신파, 그릇된 놈,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천지 분간 못 하는 허튼소리를 내뱉는 걸 좋아한다. 이건 어떤 문제이겠느냐? 교회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아니겠느냐? 이것은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말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진리를 깨닫지 못한 머저리이고 하나같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불신파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본다. 하나님 집의 이러한 원칙을 너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하나님 집에서 너를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네가 본분을 잘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뿐 조금도 해롭지 않다. 이 방면의 원칙을 알았으면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의 감독에 거부하거나 경계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가끔 너를 알아보고 관찰하고, 네 사역을 감독해도 그건 너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지금 네가 하는 일, 네가 이행하는 본분,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은 어느 개인의 일,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집 사역과 관련된 일이자 하나님 사역의 일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너를 좀 감독하고 관찰하거나 깊이 있게 알아보며, 마음을 나누면서 요즘 너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 살피려 하고, 심지어 가끔은 좀 엄한 태도를 보이고, 너를 조금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꾸짖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집의 사역을 참답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를 대해서도 안 된다. 다른 이가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네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다른 이가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에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감찰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감찰은 사람이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심도 있고, 정확하다. 하나님의 요구는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하고, 심도 있다. 하나님 선민의 감독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너의 그 말은 빈말에 지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 집, 리더 일꾼이나 형제자매들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저한테는 인권이 있고, 제 자유가 있고, 제 사역 방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감독받고 검사받는 것은 답답하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제 인권은 어디 있나요? 제 자유는 어디 있나요?" 이것이 옳은 말이냐? 인권, 자유가 진리이냐?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인권, 자유는 단지 인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문명화되고 진보된, 사람을 대하는 일종의 방식에 불과하며, 하나님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 둘은 같이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는 무엇을 하든 이방 세상의 높은 수준의 이론,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기는 인권을 원하고 자유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분명 본분을 이행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집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지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너 대신 나서서 네 인권을 지켜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인권, 자유와 같은 말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사람의 사상 관점에 속하며, 진리와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은 하나님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리더가 네 사역을 감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가 네 사역을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본분이자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격 있는 리더이자 훌륭한 리더라는 증거이다. 만약 너에게 충분한 자유와 인권을 주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하게 두고 충분한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누리게 한다면,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고 문책도 한 번 하지 않는다면, 네 사역도 검사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를 대할 때는 그저 너를 어르거나 너와 상의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리더이냐? 분명 아니다. 그 리더는 너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네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네가 원칙을 위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 이것은 너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이며 이런 리더는 책임감 있고 기준에 맞는 리더가 아니다. 반면 리더가 언제나 너를 감독하면서 네 사역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발견해서 제때 일깨워 주거나 혹은 지적하고 폭로할

수 있다면, 네 잘못된 추구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 생긴 편차를 제때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감독하고, 지적하고, 공급하고, 도와준 덕분에 본분을 대하는 잘못된 네 태도가 바뀐다면, 일부 그릇된 관점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혈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점차 줄어든다면, 네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말과 관점을 담담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다!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을 대하는 방식은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람을 대하겠느냐? 본분에 대해 충성스럽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생겨난 방식과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리더가 자신의 담당 범위 내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감독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깊이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런 리더는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리더이냐? 명백히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리더 일꾼, 책임자는 네 사역을 검사한 적이 있느냐? 사역 진도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네 사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느냐? 사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명한 허점과 편차를 바로잡아 준 적이 있느냐? 네 인성의 여러 측면의 모습과 표출, 생명 진입 방면의 추구에 대해 도와주고, 공급해 주고, 붙잡아 주고, 책망하고 훈계해 준 적이 있느냐? 만약 일반적인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지도해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교제해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붙잡아 준 적이 없다면, 감독하고 관찰하고 깊이 알아보는 것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못 된다면, 이런 모습과 행동이 없다면 이 리더가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기준에 맞는 리더이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희 리더는 매주 두 번씩 저희와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하나님 말씀도 좀 교제해 주고 상부의 교제를 좀 읽어 줍니다. 개인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해 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의 여러 가지 내적 상태, 본분 이행 방면, 생명 진입 방면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도 해 준 적이 없고, 아무런 공급과 도움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리더는 어떠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거짓 리더입니다.) 만약 한 리더가 자신의 본직 사역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내적 상태에도 관심이 없고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준에 맞지 않는 리더이다. 그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감독하거나 관찰하거나 알아보지 않는다. 그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다. "아무개는 지금 어때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본 지 얼마나 됐나요? 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한 1, 2 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다른 아무개는 어떤가요?"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도 좀 견딜 수 있고, 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런 건 모두 표면적인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것도 파악해야 하나요? 그럼 좀 더 알아볼게요." 그가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에는 얼마나 지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미지수다. 이 거짓 리더가 하는 사역은 신뢰할 수 없다.

교회의 리더와 책임자는 너희 사역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사역에 임하는 너희의 내적 상태를 정말 파악하고 이해하느냐? 이 측면의 사역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역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으냐? 그게 어려운 일이냐? 어렵지 않다. 네가 정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고, 문외한이 아니라 정말 네 책임 범위 내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만 실천해도 본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일에 마음을 쓰고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마음을 쓰는 것'이 실행하기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사람이 정말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한 가지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눈에 보이거나 일부 사람들이 하는 주장과 논조가 귀에 들릴 때 마음을 써서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생각, 관점, 태도가 생겨나고, 이런 생각, 관점, 태도는 그가 한 사람 혹은 한 가지 일에 대해 깊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동시에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과 원칙이 생기게 해 준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태도가 있어야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네 눈은 뭘 봐도 반응하지 않고, 네 귀는 뭘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네 눈은 결코 사람, 일, 사물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고, 네가 본 그 정보들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마음 또한 네가 들은 여러 가지 목소리와 논조를 분별할 수 없을 것이고, 네가 들은 그 정보들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 눈뜬장님이다. 사람은 마음이 멀면 눈도 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귀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무엇에 의지해 생각, 관점, 태도를 만들어 내겠느냐? 마음을 쓰고 진리를 구하는 것에 의지한다. 마음을 쓴다면 네가 받아들인 그 정보들이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너에게는 관점이 생겨나고,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일에 대해 깊은 이해가 생겨난다. 하지만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소용이 없다. 네가 마음을 써서 분별할 줄 모르고, 마음을 써서 간파하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페인일 뿐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 본분을 이행할 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며, 눈과 귀가 달렸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본분에 충성을 다할 수 없고 사역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닐 수 없다.

하나님 집에서 각급 리더 일꾼을 감독하고 깊이 관찰하고 알아보는 목적은 교회 사역을 더욱 잘 수행하고, 하나님 선민들을 되도록 빨리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리더 일꾼을 감독하고 관찰하는 일은 아주 필요하고 반드시 이렇게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들의 감독하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리더 일꾼을 발견했을 때 이 문제를 제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 사역의 진행에 유리하다. 리더 일꾼을 감독하는 것은 하나님 선민의 책임이며, 하나님 선민이 리더 일꾼을 감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리더 일꾼에게도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면 리더 일꾼에게도 불리할 뿐 아니라 교회 사역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리더 일꾼에게 하나님 선민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리더 일꾼이 완전히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서 일 처리에 원칙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 속할 때, 그때는 하나님 선민의 감독이 필요 없고, 하나님 집에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온전케 되었다고 해서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편차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감찰이 필요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감독도 필요하며,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사람은 누구나

패괴 성품이 있어서 감독을 해야만 리더 일꾼이 책임감 있게 사역하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감독이 없으면 대다수 리더 일꾼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건성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만약 네가 리더 일꾼이라면 네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늘 너를 감독하고 관찰하면서 네가 과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파악하려 하는 것이 너에게는 좋은 일이다. 만약 네 문제를 발견하고 일찌감치 해결한다면 그것이 네 진리 추구와 생명 진입에 유리하다. 만약 네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뒤에서 많은 악행을 드러내는 편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너를 폭로해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파면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선민들에게 미칠 화근을 없애고 네가 더 무거운 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감독은 누구에게나 유익이 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하나님 선민의 감독을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선민들의 감독이 필요한 것은 물론 그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네가 악인이라 도둑이 제 발 저린 거라면 감독을 겁내며 이를 피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일이다. 따라서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선민들의 감독에 대항하고 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꺼림칙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고, 절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간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감독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은 마땅히 어떤 태도로 하나님 선민들의 감독을 대해야 하겠느냐? 과연 소극적인 자세로 경계하고 대항하고 원망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진리를 구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혈기에 따라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만약 정말 누군가가 네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해 준다면, 네가 분별하고 인식하게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준다면 이것은 너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 누군가 교회의 감독을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 악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마귀 사탄이다. 그는 이런 마귀적인 본성이 있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선민들의 감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 절대 혈기로 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마음속으로 대항하거나 경계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선민의 감독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다. 즉,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 방식, 감독, 관찰, 지적, 심지어 책망과 훈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지 혈기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혈기에 기댄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비롯되고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사람이 진리를 대할 때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7 조에 대한 교제는 이렇게 보충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 항목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교제가 끝나서 더 이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냐? 아니다. 어느 항목이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도 많다. 내가 교제한 것은 큰 방향에 해당하는 원칙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지,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할지는 너희가 체험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 만약 너희가 이런 원칙을 여전히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적용할 줄 모르겠다면 같이 구하고 교제하도록 해라. 만약 같이 교제해도 결과가 없다면 상부에 자문을 구하도록 해라. 어쨌든 어느 부류를 대하든, 아니면 어느 부류를 발탁하여 쓰든 원칙에 따라야 한다. 어떤 인재의 경우는 누구도 간파하지 못하고 누구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교회 사역의 필요에 따라 먼저 발탁하여 써도 된다. 사역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양성하는 일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썼는데 사역을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이 그를 무인도에 두고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의 주변에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냐? 그런 일들은 모두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바로 감독하고, 감찰하고, 알아보는 것이고, 상황이 된다면 가까이서 접촉하는 것이다. 가까이서 접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옆에서 같이 사역한다는 것이다. 사역하는 과정이 곧 알아보는 과정이다. 접촉하면서 천천히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접촉할 상황이 되는데도 접촉하지 않고 단지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끝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파악하려 한다면 불가능하다. 접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접촉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리더 일꾼은 사역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관찰하고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접촉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원숭이가 옥수수를 따는 것과 같다. 길을 가는 내내 따면서도 따는 족족 떨어뜨리는 바람에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밖에 남지 않고, 괜히 한바탕 헛수고만 한다. 너희가 설교를 들어도 끝에 가면 앞서 교제한 내용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탓입니다.) 평소에 진리를 실행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에 너희 마음이 이런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는지, 어떻게 진리로 각 부류의 사람과 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지에 대해 너희는 아무런 진입이 없다. 그러니 그런 일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에 관계된 이런 일에 대해 너희는 언제나 얼떨떨한 것이다. 지금도 너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만약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나마 너희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지지 않느냐? 그건 위험하다는 신호다! 너희는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느냐? 세부적인 내용은 너희에게 모두 얘기했다. 네가 만약 정말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기울일 것이고, 만약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제 8 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1)

리더 일꾼은 반드시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8 조인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에 대해 교제하고, 이 조항에 관련하여 거짓 리더의 여러 가지 모습을 폭로해 보겠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은 한 측면의 사역, 한 측면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까다로운 문제나 교회 사역 범위 밖의 어려움이나 진리 원칙에 관계없는 특수한 상황에 부닥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혹은 리더 일꾼의 자질이 부족해서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 해결하기 어려운 곤혹과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곤혹과 어려움에는 사람을 쓰는 문제도 있고, 사역 방면의 문제도 있고, 외부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사람의 생명 진입에 관한 문제도 있고, 악인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사람을 제명하거나 출교하는 문제 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집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와 규정을 두거나 혹은 구두로 된 지시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 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 어떤 리더들은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 즉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것, 형제자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교회 사역의 원활한 진행을 유지하는 것 등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게다가 잘 처리하는데, 어떤 리더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떤 리더 일꾼들은 사역을 되는대로 이행하느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설령 발견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저 대충 넘겨 버리고 상부에 해결 방법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형제자매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해서 해결하세요."라고만 하면 끝이다. 문제가 얼마나 쌓이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도 위에 보고해서 해결 방법을 구하지도 않는다. 아마 상부에서 본인을 간파하면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 것이다. 또 어떤 리더 일꾼은 절대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위에 보고하는 것이 반드시 상부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 리더나 교구 리더에게 보고해도 되고, 만약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 일꾼에게 상부에 직접 보고해 달라고 부탁해도 된다. 만약 네가 리더 일꾼에게 상부에 보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리더 일꾼이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매우 적다. 설령 정말 그런 리더가 있다 해도 너는 다른 리더 일꾼에게 그 일을 확실히 얘기해 문제를 방치한 채 보고하지 않는 그 리더 일꾼을 폭로할 수 있다. 그 리더 일꾼이 그래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네가 직접 하나님 집 사이트에 서신을 작성해 상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상부에 확실히 보고할 수 있다. 상부에서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서신을 처리한 적이 있고, 또 리더 일꾼에게 직접 처리를 맡긴 적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는 채널은 여러 가지이며 쉽게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여부이다. 네가 설령 어떤 리더 일꾼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상부에서는 진리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에게 참된 믿음이 없고,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는 일을 이룰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 속으로 늘 세상에서는 언제나 공직자들끼리 눈감아 주니까 하나님 집도 분명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이 진리이자 공의임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불신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는 그래도 실제 문제를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은 고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다가 상부에서 추궁해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이러면 일을 그르친다. 따라서 일반 형제자매이든 리더 일꾼이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관련된 사역 원칙이 중요한 것은 제때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만약 곤혹과 어려움을 만나도 해결하지 않으면 몇몇 사역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보류하거나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사역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역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만난다면 반드시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찾아가 함께 앉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미루면 안 된다! 네가 하루 미루면 그만큼 사역 진도는 늦어질 것이며, 그건 한 사람의 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주고, 또한 하나님 선민들의 본분 이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곤혹과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제때 해결해야지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서둘러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거나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 본인이 이런 문제를 처리할 줄 모르는데도 문제를 내버려둔 채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리더는 형편없는 인간, 저능아, 폐인이니 면직시키고 파면해야 한다. 파면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은 전개되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망쳐질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당장 처리해야 한다.

영화 제작 사역 역시 하나님 집의 중요한 사역이다. 영화 제작팀에서 자주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대본을 두고 팀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의견 충돌이다.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대본이 현실 생활과는 조금 다르거나 괴리가 있어 촬영하면 진실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좀 수정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글쓴이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는 대본은 그렇게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감독에게 반드시 대본에 따라 촬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배우도 의견이 달라서 글쓴이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고, 감독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배우가 말한다. "감독이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면 저는 찍지 않겠어요!" 글쓴이가 말한다. "감독이 대본을 수정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알아서들 책임지세요!" 감독이 말한다. "저더러 대본에 나온 대로 찍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집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겠죠. 저에게 시킬 거면 제 의견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찍겠습니다." 삼자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 사역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각자 나름의 이론과 주장을 내세우며 누구도 타협하지 않는다. 삼자가 대치하면 손해를 보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집의 사역이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본다. 너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걱정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마음을 쏟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곤혹스러운 일, 교착 상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을 졸이며 걱정돼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온다. '이를 어쩐담?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계속 대치하다가는 아무런 결과도 없을 거야. 그러면 촬영 진도에 지장을 주지 않겠어? 벌써 이것 때문에 며칠을 지체했는데,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촬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역이 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 해결해야 할까?' 네가 만약 마음이 있다면 리더를 찾아 해결하고 리더가 해결하지 못하면 서둘러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만약 속으로 걱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겠느냐? 너는 '이건 저들이 틀렸으니 나는 내 관점을 밀고 나갈 거야. 저들이 날 어쩌나 보자. 밥 먹은 다음 잠부터 좀 자자. 어쨌든 오후에는 일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리도 무겁고, 머리도 어지럽고, 의욕도 없고, 또 게을러진다. 어려운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마음도 기울이지 않고 게을러지기까지 하니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어째서 방법이 없는 것이냐? 너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바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속으로 생각한다. '모처럼 어려움을 만나서 사역이 중단됐으니까 이 기회에 한 이틀 쉬면서 편하게 있자. 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서 뭐 해? 이번에 좀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 하겠지. 어쨌든 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사역에 무책임한 것도 아니라고. 나도 책임을 지고 싶지만 어려움이 거기 놓여 있으니 누가 와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어떻게 촬영해? 어려움이 있어서 찍지 못하는 거니까 쉬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큰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만약 잇달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사역에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지체될지 모른다. 사역 진도는 앞당겨야만 할 뿐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너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얼른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 뒤 다음 문제가 닥치면 다시 서둘러 해결함으로써 가급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정대로 완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좋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닥친 곤혹스러운 일과 어려움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인다. 시간을 끌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으며, 육적인 안일을 탐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빈틈을 노리고, 핑계를 대고, 기회를 잡아 쉬면서 무슨 일이든 늑장을 부리고, 조바심도 불안감도 없으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의지도 전혀 없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곤혹스러운 일이나 어려움을 만나 며칠째 대치하고 있어도 감독, 배우, 글쓴이 누구 하나 보고하지 않는다. 리더는 눈이 멀어 그것이 문제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설령 발견했다 해도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위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단계를 거쳐 상부까지 보고됐을 때는 열흘 혹은 보름이 지난 뒤다.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본분을 이행하고 있었느냐? 아니다. 놀고 먹고 즐기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것이 밥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 제때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아 사역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곤혹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관련 책임자는 모두 밥만 축내며 되는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류를 '건달'이라고 한다. 왜 '건달'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엄격하고 신중하고, 적극적인 태도는 없고, 무성의하고, 소극적이고 게으르며, 일을 쉬거나 중단할 핑계를 댈 수 있게 사역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역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리더 일꾼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때 점검하고 발견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느냐?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킴으로써 각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역이 정상적인 기한 내에 순조롭게 완성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불신파나 악인들을 제재해서 그들이 확실히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역의

책임자,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지도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의 길을 찾도록 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며 서로 감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역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곤혹스러운 일에 부닥치든 리더나 책임자가 해결할 수 없다면 얼른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리더나 책임자를 맡은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든 문제 해결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에 관계된 문제, 원칙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 진입 과정에서 부닥치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네가 곤혹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곤혹을 만났는데 해결할 수 없다면 제때 상부에 보고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3~5 일만 지체해도 사역은 손실을 입으며, 보름이나 한 달을 지체하면 사역이 입는 손실이 너무나 크다. 그 밖에도, 어떤 문제를 처리하든 진리 원칙을 따라야지 절대 사람의 처세 철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무마해서도 안 되고, 똑같이 때리고 나서 어르고 달래는 식도 안 된다. 일이 커질까 봐 겁내며 늘 상의하고 달래다 보면 결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후환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는 유야무야 넘기는 방식이 아니냐? 만약 사람의 방법을 다 써도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사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예 원칙을 찾을 수 없다면 기다리거나 질질 끌 게 아니라 얼른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도록 해라. 해결 못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무조건 제때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 원칙은 어떠냐? (좋습니다.)

영화 제작팀과 대본팀은 촬영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으냐? 저마다의 이유를 내세우며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늘 설전을 벌인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리더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가끔은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문제를 교제해서 해결해 주었는데, 너희가 들어 보면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집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가끔 상부에 구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렇다면 상부의 형제가 너무 바빠 보여서 물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맞으면 됐다고,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고 촬영부터 한 다음 얘기하자고 생각한 적은 없었느냐? (전에는 이런 문제가 심한 편이라, 결국 여러 번 다시 만드느라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상황은 무척 심각한 것이다! 영화 제작팀에서 생긴 많은 문제는 따지고 보면 사실 대본팀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두 시간 반 내내 단순히 사건만 나열된다면 그것은 글쓴이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다음으로 감독에게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대본이 단순히 사건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독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론적으로는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몇 개월 동안 많은 인력과 물자, 재력을 써서 촬영을 마쳤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냐? 감독의 경우 너희의 책임은 무엇이냐? 대본을 받아 본 다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대본이 길이도 충분하고 내용도 풍부한데 중심 내용이나 주제가 없군. 전체적인 짜임새에 영혼이 없어. 이건 영화로 만들 수 없겠는걸. 돌려보내 다시 수정하라고 해야겠어.'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대본을 돌려보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문제점을 못 느낀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돌려보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애써

완성한 대본을 한 마디로 퇴짜 놓고 돌려보내다니,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요?"라고 판단할까 두려웠던 것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문제를 발견했으면서 왜 대본을 글쓴이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냐? (영화 사역에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팀의 경우, 교회 리더 외에는 감독이 영화 제작팀에서 책임자 역할을 해야 하고, 생각을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감독이라면, 너는 이 일에 끝까지 책임을 져서 대본을 받아 온 다음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본 하나를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니 내용이 괜찮고, 중심 내용과 주제가 있고, 하나의 중심축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된다면, 대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크지 않고, 훌륭하고, 영화로 만들 가치가 있다면 그 대본은 수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대본이 분량은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만 서술하면서 중심 내용도 없고 주제도 부각되지 않아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알 수 없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중심 사상과 요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즉 한 편의 기록물에 불과한 형편없는 대본이라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럴 때 감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본을 돌려보내고 글쓴이에게 다시 수정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 만약 대본팀에서 "불공평해요! 그들이 뭔데 우리가 쓴 대본을 검토하는 겁니까? 그들이 뭔데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대해야죠!"라고 말한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독이 만약 대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한다면 우선은 성급히 결단을 내리지 말고 먼저 교회 리더, 영화 제작팀 팀원들과 함께 이 일을 교제하도록 해라. 최근 몇 년간 쌓은 촬영 경험과 대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들 이 대본이 불합격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대로 촬영할 경우 영화 사역이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과 물자, 재력을 낭비하게 되고, 그 책임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대본을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기록물 같은 대본은 절대 영화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만약 모두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된다면 글쓴이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영화 제작팀에서 제시한 의견을 따라 다시 수정해야 한다.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양측의 팀원과 리더가 같이 토론해서 누구 말이 진리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만약 계속 줄다리기를 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최후의 방법을 쓰도록 해라. 그것은 바로 오늘 교제하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8 조인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이다. 줄다리기를 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곤혹이고 어려움이다. 각자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말만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일의 경위와 방향이 불분명해진다. 이때는 리더 일꾼이 자신의 책임을 짊어져서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곤혹스러운 점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제때 해결해서 사역 진도가 문제 때문에 늦춰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그 문제들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제때 이런 문제들을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역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마음을 기울여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사역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 일꾼은 진리 실제가 없는 사람,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해결할 줄

모르고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고 가린다면, 이런 사람은 못난 인간이며, 사역을 망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있는 문제는 반드시 교제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만약 교제하고 토론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흐려진다면 이럴 때는 주요 리더가 나서서 직접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주요 리더는 제때 문제 해결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일이 발전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제때 관찰하고,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문제를 두고 아직도 실랑이를 벌이고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을 때는 서둘러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유야무야 넘겨서도 안 되고, 기다리며 질질 끌어서도 안 되고, 방치하고 모른 체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금의 리더 일꾼인 너희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느냐? 제때 사역 진도를 밀착 관리하고 독촉하면서 동시에 사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 사소한 문제들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주요 리더 일꾼이 모두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경위, 발생 원인, 당사자의 관점을 모두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들 문제에 대한 교제와 토론, 심지어 논쟁에도 참여해야 한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네가 사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참여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언제나 수수방관하고 옆에서 듣기만 하면서 사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너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관점과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 리더가 틀림없다. 네가 참여할 때 너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 원인인지, 아니면 기술 업무의 부족함이 원인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래야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이런 사역에 참여했을 때, 사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양측이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이거나 혹은 이 문제에서 모두 마음과 힘을 다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원칙과 방향을 찾지 못해 사역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방해할까 두렵고, 그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까 두렵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리더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 같이 대응 방안과 해결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기록한 다음 제때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질질 끌거나 기다려서도 안 되고, 한숨 자고 나면 영감이 생기고 뭔가 확 트일지도 모른다는 요행 심리를 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일은 흔치 않고 쉽게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최대한 빨리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제때,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사역하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

1. 곤혹

방금 얘기한 내용을 통해서 과연 곤혹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종합해 보기로 하자. 곤혹과 어려움은 다르다. 먼저 '곤혹'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겠다. 곤혹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변별하는 것이 원칙에 맞고 정확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설령 조금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확신할 수 없고,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지 몰라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확신이 서지 않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는 난제에 부딪힌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리더 일꾼은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고 구해서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곤혹스러울 때가 잦은 것은 문제다. 일이 닥쳤는데 네가 어떻게 처리해야 적합한지 모를 때, 누군가가 제시한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시한 다른 방법도 합리적인 것 같아 대체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 네가 꿰뚫어 볼 수 없다면, 여러 의견이 오가며 누구도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고 아주 중요하다. 만약 리더 일꾼이 분별할 줄 모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올바른 결론을 얻지 못한다면, 제때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며, 교회 사역에 영향을 줄 것이니, 이 일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근심 걱정이 많으며 늘 상부에서 너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네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 너를 조정하거나 교체할까 두려워 상부에 문제를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일을 만났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일단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어 상부에서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건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리더 일꾼이 책임지지 않고 도리만 좀 얘기하면서 규례에 맞춰 대충 건성으로 해결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사역을 계속 전개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곤혹스러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일을 그르치기가 너무나 쉽다.

곤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리더 일꾼은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어떤 리더 일꾼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질이 형편없고, 무감각하고 둔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문제에도 민감하지 않다. 눈앞에 놓인 일이 아무리 곤혹스러워도 무감각하고 둔한 모습만 보이고, 문제를 무시하며 비켜 가려고만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정한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갖춘 리더 일꾼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의식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니까 적어 두자. 이런 일은 전에 상부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고, 우리도 처음 맞닥뜨렸어.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때는 과연 원칙이 무엇일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감성적인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지만 분명하지는 않아. 이런 일에 대해 태도는 조금 있지만 태도만으로는 안 돼. 관건은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일을 꺼내 놓고 다 같이 교제하고 토론해야지.' 한 차례 교제와 토론을 거친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실행 방안이 없고, 이 곤혹스러운 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상부에 구해야 한다. 이때 리더 일꾼의 직책은 때가 되면 곤혹스러운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구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문제의 곤혹스러운 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이다.

2. 어려움

1) 어려움이란 무엇인가

이어서 '어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자. 문자적으로 볼 때 어려움은 정도에 있어 곤혹스러운 일보다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 누가 설명해 보아라. (하나님,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어려움은 실제로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 이것이 어려움에 해당합니다.) (좀 보충하겠습니다. 가끔은 까다로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문제이고 다들 경험이 없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관점이나 생각도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아주 어려운 종류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어려움이라고 일컫는다. 그렇지 않으냐? 어려움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해석은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자질, 업무 기술, 신체의 질병, 또 상황이나 시간상의 문제 등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바로 어려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 8 조에서 리더 일꾼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고 교제했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이란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처리할 수 없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문제이냐? 바로 진리 원칙과 크게 관계가 없는 대외 업무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비록 진리 원칙에 관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더 어렵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것이냐? 이를테면 그것은 법률이나 정부 규정, 혹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의 안전 등에 관계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리더 일꾼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든 교회의 각 사역 및 형제자매의 생활 환경이 모두 현지 정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현지 법률 및 정책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은 모두 대외 연락 및 외부 업무에 관련된 일이고, 교회 내부적인 인사에 관련된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어떤 면에서 복잡한 것이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라고, 진리를 실행하고 본분에 충성을 다하라고, 진리를 깨닫고 원칙대로 일하라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나라 여러 분야의 법률과 정책, 규정, 현지 풍토와 인심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외부 업무에 관련된 요소가 무척 많으며, 생각지도 못한 문제나 교회 원칙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한다면 진리 교제를 통해, 책망과 훈계, 도움과 부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일이라면 네가 이런 원칙과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혜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외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님 집에서도 몇 가지 원칙들을 지시했지만 아무리 지시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늘 생겨난다. 이 세상, 이 사회, 이 인류가 너무나 어둡고 복잡한 데다가 큰 붉은 용이라는 사악한 세력이 교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외부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일부 예상 밖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만약 너희에게 간단한 원칙만 한 가지 일러 준다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안배에만 순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므로 그런 건 무시하면 된다."라고만 얘기해 준다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형제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 환경, 생존하는 환경이 교란되고 방해받고 파괴되는 상황이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혈기로 대하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일들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큰 붉은 용이 개입하고 방해하는 곳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법은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 많은 곳에서 사람의 권력이 법보다 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사람의 방법이나 혈기로 해결한다면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글귀와 도리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무척이나 애를 먹지 않겠느냐? 변호사를 구한 다음 법원에 가서 해결하면 되겠느냐? 그들이 진리를 깨달았느냐? 이 세상에는 시비를 가릴 곳이 없다. 설령 법치 국가의 법관이라 해도 늘 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사람에 따라 대우가 다르며, 공정함이 없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세력에 기대어 말하고 권력에 기대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진리에 기대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럴 때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리더 일꾼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부적절하게 처리해서 하나님 집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나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두려워한다면, 너에게는 이런 문제가 곧 어려움이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너는 제때 상부에 보고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이다.

2)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지녀야 할 올바른 관점과 태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는 것은 단지 리더 일꾼에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너희가 어디서 교회 사역을 이행하든, 혹은 본분을 이행하며 복음을 전하든 모두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하나님 자신이 사역을 하는 것도 어려움의 연속이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비록 너희가 구체적인 일은 모르거나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다들 잘 알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으니 너희는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깨달음도 있어야 한다. 이런 기정사실이 여기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런 일들을 대해야 가장 정당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올바르겠느냐? 속으로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고 전 세계와 적이 되고 전 세계에 끝까지 대항하고 역행하겠다는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 인성의 이성이냐, 아니면 혈기이냐? 이런 옳지 않은 관점은 모두 혈기이며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지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에게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다. 사람이 지녀야 할 첫 번째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다. 우리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광명정대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정의'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진리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주의 안배이자 부탁이고, 인간의 도덕, 윤리보다 완전히 높고 인간의 법보다 높다. 그것은 창조주의 인도와 보살핌 아래 펼쳐지는 사업이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관점이 아니냐? 이 관점은 한편으로는 정말 존재하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행하는 본분에 대한 사람의 가장 올바른 인식이기도 하다. 사람이 지녀야 할 두 번째 관점은 다음과 같다. '만사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주재한다. 세상의 국왕과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종교, 단체, 종족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재되고 주관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재되고 주관되며, 아무도 우리의 거취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미래와 종착지를 바꿀 수 없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 21:1)라고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겠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국왕의 통치와 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생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위협적인지, 적대적인지, 아니면 우호적인지는 모두 하나님의 주재이기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사람이 지녀야 할 관점, 사람이 가져야 할 인식이자 사람이 갖추고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세 번째 관점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관점이며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생활하든,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든, 또 우리의 능력이 크든 작든, 자질이 높든 낮든 우리는 단지 보잘것없는 피조물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해야 할 유일한 책임과 본분은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 지배에 순종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간단하다. 비록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있고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일종의 적대 세력을 일으켜 우리를 박해하고 해한다 해도 어떤 원망도 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에게 원망이 없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무와 책임, 본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순종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어느 날 온 인류와 전체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해지고 우리가 죽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가 원망해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해외로 인도하신 목적은 저희가 사탄의 가혹한 박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본분을 이행하고 자유의 공기를 마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또 저희를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은 일종의 태도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주재를 대하는 태도, 피조물이 갖춰야 할 태도이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비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유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큰 붉은 용의 잦은 방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큰 붉은 용의 방해를 마주한 일부 사람들은 걱정을 한다. '큰 붉은 용의 세력은 너무 커서 세계 각국의 중요 인물들을 매수한 다음,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해외로 도피해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여전히 위태위태하다고! 이를 어쩌지?' 매번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무서운 나머지 타협하거나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어디로 가서 숨을지 모른다. 이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넓은 세상에 이 한 몸 둘 곳이 없구나! 큰 붉은 용의 권력 아래서도 박해를 받았는데, 어째서 큰 붉은 용의 세력권 밖에서도 그들의 방해를 받아야 할까? 큰 붉은 용의 세력이 너무나 크구나. 어떻게 땅끝까지 도망쳐도 그들 손아귀를 못 벗어나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여기에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이 안에 담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믿음이 없는 것뿐이겠느냐? 너희는 마음 깊이 자신이 남들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일을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금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계의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들을 보면 세력도 있고, 정식 목사도 있고, 국가가 법으로 정한 큰 교회당도 있고, 얼마나 호화로워! 각 나라마다 성가대도 있고 기업도 있어. 그런데 우리를 보면 늘 멸시나 당하고 어디를 가든 배척당하는 게 저들과는 어쩜 이리 다를까? 왜 어디를 가도 밝히지 못할까? 사는 게 왜 이리 답답하지? 특히 온라인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선전들이 돌아다녀. 저들 교회는 이런 일을 안 겪는데 우리는 왜 늘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남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딜 가든 크리스천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해. 나쁜 사람의 신고로 잡혀갈까 봐 두려우니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정부 관원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 몇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형제자매들은 관원이 질문을 하니까 겁이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얘기해 버렸다. 상대의 질문에 곧이곧대로 대답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관원을 겁내느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겁내지 마라. 네게 진리가 있는데도 마귀 사탄이 무서운 것이냐?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른길이 아니냐? 네 생각에는 네가 불법을 저지른 것 같으냐? 그런데 왜 관원을 무서워하느냐? 이런 사람은 우매하고 무지한 자가 아니냐? 중국 본토에서 수없이 쫓기고 박해받은 후 해외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으냐? 큰 붉은 용에게 박해받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도피해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고 체면도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탄 정권과 종교계가 모두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으니 너 자신을 남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느끼고, 심지어 법을 위반한 것보다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느냐? 너희는 이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고개를 저으며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모조리 드러낸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냐? 너는 그런 게 없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경찰을 무서워하느냐? 법관을 무서워하느냐? 그렇지 않다. 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경찰을 가장 무서워하고, 경찰에게 억압받는 게 습관이 된

중국인들만이 경찰을 가장 무서워한다. 중공 경찰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갓 해외에 왔을 때는 경찰만 보면 속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그건 바로 큰 붉은 용의 통치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잠재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이다. 네가 서방 국가에서 합법적인 신분과 거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고, 정부를 공격하지도 않고,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한, 너의 신앙이 종교계에서 아무리 큰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다. 즉, 네 신앙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합법적이고 자유로우며, 그것은 네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네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경찰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너에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분증 보여 주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나이는요? 하나님을 얼마 동안 믿었습니까? 집이 어딥니까? 주소를 말해 보세요!"라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예'입니다.) 왜 '예'라고 답해야 하느냐?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네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누가 물어봤을 때 반드시 '예'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예'라고 대답하라고 지시했느냐? 너희의 근거는 무엇이냐? "신분증 보여 주세요!"라는 두 번째 질문에 너희는 신분증을 보여 주겠느냐? (보여 주지 않겠습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주소를 적어 보세요."라는 세 번째 질문에 주소를 적겠느냐? (적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 동안 믿었습니까? 누구를 따라 믿은 겁니까? 왜 믿습니까? 언제 출국했습니까?"라는 네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리더가 누구입니까?"라는 다섯 번째 질문에 대답하겠느냐?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이구동성으로 '예'라고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으냐? (신앙은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에게 알려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려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그가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무슨 자격으로 저에게 질문하는지, 그의 질문이 과연 합법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질문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신분도 불분명하면 저는 그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이 옳다. 처음에 너희는 모두 '예'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내가 질문을 계속하니까 너희는 점점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잘못 대답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했느냐? 이 일에서 너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범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권과 자유가 있다. 누구나 마음대로 우리를 취조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묻는다고 해서 꼭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인식 말이다. 이 말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심문한다면 전부 위법이다. 우리는 반드시 법을 알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도 하나님 선민이 지녀야 할 지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군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첫 마디는 이렇게 해라. "누구세요? 왜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죠? 나랑 친하세요?" 만약 그가 자기는 모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라. 만약 보여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라. "당신은 나와 대화할 자격이 없고 나도 당신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일일이 대답해야 합니까? 정부 특수 업무는 전담자가 관리하는데, 당신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도 되나요? 설령 당신이 담당자라고 해도 나는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왜 답변해야 합니까? 왜 무슨 일이든 다 당신에게 얘기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법을 어겼다면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어떤 질문에든 답해 주길 원한다면 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나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물어볼 자격도 없고요!" 이런 대응 방식은 어떠냐? 존엄성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너희 태도는 어땠느냐? 존엄성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뜻이다. 묻는 말에 곧이곧대로 대답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유다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함부로 대답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원인이 있다. 사람이 큰 붉은 용 국가에서 교육받고 세뇌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무지한 사람, 하층민,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 인권도 존엄성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를 열등한 사람 안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서방 국가에 와서도 너희는 인권이 무엇이고 존엄성이 무엇이고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누군가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지 물어보면 겁이 나서 얼른 인정하고 무슨 말이든 다 해 버리는데 분량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초래한 것이냐? 바로 큰 붉은 용의 교육, 큰 붉은 용의 통치로 초래된 것이다. 모든 사람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회와 인류 가운데서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 사회, 인류와 괴리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존엄성과 인권이 없고, 자기 보호라는 의식이 없다. 우매하고, 무지하고, 식견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괴롭히고 놀려도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기는커녕 순식간에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순식간에 유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존엄성이 있는 것이냐? 낯선 이가 너에게 질문을 할 때 너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우선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런 다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라. 이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이다. 서방 국가에서는 경찰 혹은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러 나온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항상 신분증을 먼저 제시한다. 너는 그의 신분증을 근거로 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그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그가 너에게 하는 요구를 어떻게 대할지 판단하도록 해라. 물론, 이런 일에서 너는 절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고 자주권이 있다. 너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비록 너는 중국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네가 거주하는 국가의 합법적인 일원, 신분을 가진 일원이기도 하다. 너에게는 자주권이 있으며, 너는 어떤 나라에서도 노예나 범인이 아닌, 그 나라의 법과 인권,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교제한 이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너희는 일부 갑작스러운 환경과 돌발 사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네 번째로 교제하려는 사항인 '겁내지 마라' 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겁내지 않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겁내지 않는 것은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범인이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선민, 창조주의 주재 아래 있는 당당한 피조된 인류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대할 때는 우선 겁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본분과 본분을 이행할 때 처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태도로 각종 환경에 마주하고 우리에 대한 각종 세력의 말, 행동 등에 마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겁내지 않는 이런 태도는 어떠냐? (좋습니다.) 이것이 존엄성 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구차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온 것은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밥을 빌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되는대로 살려고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어느 나라에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생활하기에 남들이 먹여 살려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네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다. 우리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광명정대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기 때문이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만사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주재한다. 세상의 국왕과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재되고 주관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재되고 주관되며, 아무도 우리의 거취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국왕의 통치와 제도가 어떻든, 이 나라의 생존 환경이 어떻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든,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재이기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또 우리의 능력이 크든 작든, 자질이 높든 낮든 우리는 단지 보잘것없는 피조물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해야 할 유일한 책임과 본분은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만약 어느 날 하나님이 일종의 적대 세력을 일으켜 우리를 박해하고 해하더라도 어떤 원망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 본분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세계의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겁내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와 인식이자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비록 이 네 가지는 오늘 교제하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8 조와 연관성이 크지 않지만 사역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도 좀 다룰 필요가 있다. 무의미한 말이 아니다.

3)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실행해야 할 원칙

어떤 리더 일꾼들은 외부 업무에서 비교적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속수무책이 된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고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을 지체시키고 만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 이것은 거짓 리더가 사역을 하지 못해서 일을 지체시키기만 한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에게는 정상인의 이성이 없다.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데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상부에 보고하면 우리가 함께 마주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너희가 간파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분석할 것이다.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부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별로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진리 원칙에 관계된 문제에 맞닥뜨리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법에 관계된 문제라면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사악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한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해 두어라.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정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 국가이고 법치 국가이므로, 사악한 세력이 법을 어기고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도 역시 노출되어 법에 의해 제재받는 일을 겁내는 것이 사실이다. 큰 붉은 용의 검은 손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어떻게 교란하고 파괴하든,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방해하든, 어떤 사람을 매수해서 나쁜 짓을 시키든 우리는 사진을 찍고 실제 녹화 영상을 남겨야 하고, 세심하게 제대로 기록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 인물을 모두 정확하게 적어 놓아야 한다. 때가 무르익으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겁낼 필요가 없다. 큰 붉은 용이 그토록 미친 듯이 탄압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고, 언젠가는 재난을 내려 그것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큰 붉은 용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기에 우리는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따금 너희가 간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서둘러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에서 길을 제시하면 큰 문제는 축소되고 작은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많은 일에서 분석하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사안이 크고 심각하다고만 느낀다. 하지만 상부의 분석을 거치면 너희는 그 일이 겁낼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 대수롭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 후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악한 세력의 교란은 큰 물결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은 여론에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못한다. 만약 소수의 모자란 인간들이 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법적 수단을 선택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것은 모든 리더 일꾼이 간파해야 하는 일이다. 어떤 일이 닥치든 절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미련하게 굴지 마라. 만약 본인이 일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처리할 수 없으면 서둘러 상부에 보고해서 상부에서 너에게 방법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거짓 리더가 본인도 일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처리할 줄 모르면서 보고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다가 결국 일이 커져서 사역을 그르친 다음에야 상부에 보고할까 봐 걱정이다. 그러면 문제를 처리할 최적의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건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제때 검사받고 치료받지 않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거짓 리더가 사역을 하면 지체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지도 못하는 저능아, 머저리다. 왜 거짓 리더를 인간 말종, 재수 없는 인간, 누구보다 비이성적인 얼간이라고 하겠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질이 형편없어 외부의 일조차 처리할 줄 모르는 거짓 리더는 그가 하나님 집 사역을 더는 지체하지 않도록 얼른 교체하고 도태시키고 절대 다시 쓰면 안 된다. 거짓 리더가 사역을 하면 가장 심하게 일을 지체시킨다. 흔히 문제가 생길 때는 다 같이 제때 협의하면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거짓 리더가 지능이 떨어져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의사 결정팀과도 상의하지 않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은폐하고, 내버려둘까 걱정이다. 이것이 가장

심하게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지연되어 변고가 발생하면 문제를 처리하는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어떤 일은 지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재빨리 제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 리더는 글귀와 도리만 좀 얘기할 줄 알고 실제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일을 그르칠 뿐이다. 거짓 리더를 교체하고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리더 일꾼으로 뽑아야만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닥치든 진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외부의 일, 큰 붉은 용이 교란하는 일은 필요한 경우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정부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는 한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교란도 두렵지 않다.

이제 거짓 리더의 문제를 모두 해부하고 인식해야 하며, 이것은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부터 거짓 리더가 일에 부닥쳤을 때 본인이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지 교제해 보자. 이런 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너희 모두 이 일을 분석해 보아라. 그러면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도 이미 심각한 문제지만 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란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도록 내버려두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다. 교회 사역이 얼마나 교란되든 거짓 리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이런 거짓 리더는 너무나 부도덕하지 않으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거짓 리더는 출교될 이유가 충분하다. 거짓 리더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교회를 교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선민을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한 것으로, 이런 행동이 교회 사역에 초래하는 손실은 너무나 크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거짓 리더는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과,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도록 방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의 성질이 더 심각하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 것만 해도 이미 큰일을 그르쳤다. 하지만 거짓 리더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교회를 교란하도록 방치한 채 해결할 방법을 구하지도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최소한 교회 생활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에게 교란받아 엉망진창에다 난장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사역도 망치고 마비될 것이다. 이는 복음 사역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는 무척 심각하다! 그러니 거짓 리더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출교해야 한다.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는 일에 대해 다른 생각과 관념을 품고 있는 리더 일꾼이 적지 않다. 누군가는 말한다. "상부에 보고한다고 해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네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상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부에서 너에게 길을 알려 주면 실제로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만, 상부에서 길을 알려 주지 않으면 너 혼자서는 길이 없다. 이런 일도 간파하지 못하다니 너는 너무나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는 며칠 고민부터 해 보고 정말 방법이 없으면 그때 보고해야죠." 이 말은 듣기에는 어느 정도 이성을 갖춘 듯하다. 그런데 며칠 고민하다 보면 일이 쉽게 지체되지 않겠느냐? 며칠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다. "바로 보고하면 상부에서 저희가 이만한 일도 간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매하고 무지하다고 하면서 저희를 책망하고 훈계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틀렸다. 네가 문제를 보고하고 말고를 떠나 네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뻔하고 상부에서 다 알고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다고 너를 높이 평가해 주겠느냐? 네가 만약 보고해서 큰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집에서는 네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보고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친다면 곧바로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즉시 너를 교체한 다음 영원히 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선민들도 네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능이 떨어지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너를 미워하고 영원히 멸시할 것이다. 늘 문제를 보고했다가 책망과 훈계를 받을까 봐 겁내고 상부에서 무시할까 봐 겁내는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체하고, 영원히 쓰지 말아야 한다. 그 정도로 자질이 형편없는데 체면까지 챙기다니, 정말 뻔뻔하지 않으냐? 말해 보아라, 거짓 리더는 사역도 제대로 못 할 뿐만 아니라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정말 가증스럽지 않으냐? 교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큰일이 닥쳤을 때 제때 보고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리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이성이 있는 편이고, 교회 사역도 지킬 수 있다. 이런 리더는 계속 남겨두고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리더만이 문제를 보고했다가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보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리더를 앞으로 쓰면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쓸 수 없다. 그를 썼다가는 일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문제는 다들 간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서둘러 의사 결정팀에 보고해 해결책을 교제해야 하며, 의사 결정팀에서 처리할 수 없으면 얼른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저것 재지 마라. 문제를 제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금 언급한 예시는 분명 어느 교회에나 다 있을 것이고, 어느 교회에서나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 내부의 어려움과 비교하자면 외부 업무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그 결과가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문제와 외부 업무에 관련된 문제를 서로 비교하면 역시 외부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더 어렵다. 만약 외부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너희는 얼른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렇게 실행해야만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전될 수 있고, 하나님나라 복음의 확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교회 외부 업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처리 원칙은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교회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는 늘 어려움이 따르며, 진리를 아무리 교제해도 실행 원칙을 찾지 못하고 무턱대고 규례에만 맞추다 보니 실제 성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본분을 조정해야 하며, 그것은 인사이동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역을 맡았는데 그가 하는 사역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그와 교제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너는 문제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을 과연 쓸 수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고, 관찰하고 교제해도 결과가 없다. 이 사람은 사역을 그렇게 크게 지체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문제가 언제나 해결되지 않아 너는 늘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너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리더 일꾼 예배 시간에 꺼내놓고 교제하고, 해부하고, 분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문제는 해결된다. 만약 이렇게 실행해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지연되면 큰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만약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네가 사역을 하면서 맞닥뜨린 곤혹스러운 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선민들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제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몇몇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가져다 상부에 보고해서 해결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의 책임과 의무이다. 리더 일꾼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곤혹스러운 일을 맞닥뜨리든 항상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문제나 어려움을 발견한 다음 멋대로 글귀와 도리를 읊고 구호를 외치면서 형제자매들을 좀 독려하거나 책망하고 훈계하면 끝인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글귀와 도리를 좀 얘기해서 표면적인 문제는 조금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근원에 관계된 문제, 패괴 성품에 관계된 문제,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관계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야 한다. 또 사람 본인의 어려움, 환경적인 문제, 본분 이행과 관련된 업무 지식 문제와 같은 이런 실제 문제는 모두 리더 일꾼이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 중에 리더 일꾼이 해결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점과 어려움의 경우, 한편으로는 리더 일꾼 예배에 가져가서 해부하고 분석해서 해결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상부에 보고하여 진리를 구해 해결해도 된다. 실질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분량을 키울 수 있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리더 일꾼은 책임감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발견할 것이고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조금 전 내가 했던 얘기를 예로 들어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너희는 다들 얼떨떨해져서 처음에는 '예'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옳지 않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결국에는 리더 일꾼도 얼떨떨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자니 그건 남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니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았다. 리더 일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 형제자매가 다시 이런 일을 마주하더라도 여전히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은 직책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직무 유기는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지 않았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잠잠해지도록 덮어두거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 것이 아니라 상부에 보고해서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사람이 갖춰야 할 행동 방식과 실행의 길을 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입장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을 마주했을 때 진리 원칙을 깨닫고 실행의 길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더 일꾼은 직책을 다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너희에게 물었을 때 왜 다들 '예'라고 대답했느냐? 여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 리더 일꾼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교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사소한 일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며, 각자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싶은 대로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너희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이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일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누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먼저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둘째,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셋째, 그가 다른 개인 정보를 물어보면 답변하지 마라. 그건 너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설령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알려 주지 마라. 하나님을 몇 년 믿었는지, 누가 전도했는지, 어디 어디서 본분을 이행했는지, 믿음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추구하고 진리를 얻을 것인지, 이런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해서 어떤 낯선 사람에게도 함부로 알려 줄 수 없다. 그에게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자격이 없다. 이런 문제를 리더 일꾼이 해결할 수 없다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해결 방법을 구하고 적절한 답변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한다. 상부에서는 너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네가 너무 우매하다고 할 뿐이다. 어찌 되었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8 조에 해당하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곤혹과 어려움이란 무엇인지, 리더 일꾼이 이런 곤혹스러운 점과 어려움을 마주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주로 교제해 보았다. 거짓 리더가 이런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교제 때 다루기로 하자.

2021 년 3 월 27 일

리더 일꾼의 직책(8)

제 8 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2)

지난번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8 조인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는 내용을 교제했다. 제 8 조는 비록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한 요구도 기본적으로 한 가지로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는 예배 한 차례 분량의 시간을 들여 이 내용 한 가지를 교제했다. 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들을 교제했느냐? 이와 관련된 리더 일꾼의 직책은 주로 무엇이냐? (곤혹스러운 일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예배드리며 교제해야 하고, 교제를 해도 밝히 알지 못하면 제때 구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리더 일꾼의 주요 직책은 사역에 참여하고 각각의 실질적인 사역에 직접 뛰어들어 사역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제때 해결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서 곤혹스러움과 어려움이 된다면 리더 일꾼은 그것들을 쌓아 두거나 방치하지 말고 제때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형제자매나 각급 리더 일꾼에게 구하고 그들과 교제해서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리더 일꾼은 큰 문제를 작게 보고 작은 문제를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혹은 아예 한구석에 제쳐 두고 신경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신 상부에 제때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구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역이 어려움과 장애물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해야 한다

1. '제때'의 정의

리더 일꾼의 직책 제 8 조에서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오늘 문제를 발견했는데 8 일이나 10 일, 심지어 반년이나 일 년을 끌다가 해결한다면, 이런 것을 제때라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때란 무슨 뜻이냐? (즉시, 당장, 가장 빠른 시간에 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가혹하냐? 만약 시간과 관계된 용어를 이용해 해석하자면 즉시, 당장,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제때라고 한다. 하지만 이 단어들의 문자적 의미를 놓고 보면,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없어서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제때'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겠느냐? 만약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몇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 해결해 버려야 한다. 이것을 '제때'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해결하는 데 2, 3 일이 걸리지만,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 진리를 구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서 어떻게든 하루 만에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이것이 사역에 더욱 유리하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는 바로 간파하지 못해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므로 시간을 좀 들여야 한다. 그 문제는 길어야 3 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3 일을 넘기면 일부러 시간을 끈

것으로 의심해야 하며, 이는 바로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3 일 안에 보고하고, 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바로 제때라고 한다.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하고 조사해야 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한 달까지는 걸리지 않는다. 만약 서둘러 속도를 내고 적절한 사람을 몇 명 골라 쓰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제때'의 기준은 일주일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일주일을 넘기는 건 부적절하고, 또 제때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번잡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정해진 시간이다. 이 시간 범위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사건의 크기와 난이도에 따라 확정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를테면 업무 방면의 문제라든가 원칙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문제처럼 몇 마디 말이면 해결되는 일의 경우, 시간제한을 얼마나 두고 해결해야 제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사건의 크기와 난이도를 근거로 제때를 정의한다면, 반나절도 안 걸려 해결되는 일이 대부분이고, 길어야 일주일 걸리는 일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만약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그건 또 별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즉시, 당장, 즉각'이라는 말로 제때를 정의할 경우,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람에게 가혹한 요구 같지만, 시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일은 사람이 제때 보고하고 구하면 길어야 반나절, 하루면 해결된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운 편이냐?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리더 일꾼에게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라고 하는 요구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곤혹스러운 일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몇 년씩 누적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제때'에 대한 시간 개념은 모두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리더 일꾼이 사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곤혹스러움과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시간적인 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요컨대, '제때'라는 개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바로 가능한 한 빠른 것이다. 반나절 안에 보고하고,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나절 안에 그렇게 처리하고,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안에 해결함으로써 어떻게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맞닥뜨리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교제하고 해결해야 한다. 만약 해결할 수 없으면 가급적 빨리 상부에 보고하고 구해야 한다. 한쪽으로 제쳐 두고 방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제때 해결해야 하며, 미루거나 기다리거나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2.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문제 해결의 주요 원칙은 제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제때 해결해야 하느냐? 많은 문제가 생긴 다음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편으로는 사람이 멍한 상태에 머물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방식대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다시 작업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대량의 인력과 자금, 물자가 낭비되고 소모되며, 이것이 바로 손실이다. 사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리더 일꾼이 눈이 먼 탓에 제때 발견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일할 것이다. 문제가 발견된 뒤에 해결하고 고치려 한다면 그때는 이 문제로 교회 사역이 이미 손실을 입은 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인력과 자금, 물자는 모두 낭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초래된 손실은 리더 일꾼이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밀착 관리, 감독, 검사, 지도한다면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다. 만약 리더 일꾼이 건성으로 임하느라 사역을 밀착 관리, 감독, 검사, 지도하지 않고 이 방면에 무척 수동적이고, 그러다 문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아져야 비로소 해결할 생각을 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구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집의 인력과 물자에 손실을 초래한 동시에 교회 사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무감각하고 우둔한 탓에 사역에서 생긴 많은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때 상부에 보고하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이 일을 다 끝낸 뒤에도 재작업을 해야 하고, 재작업 후에는 원칙을 찾지 못해 또 문제가 생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역 기한이 많이 늦춰져서 원래는 한 달이면 완성될 일이 결국 3 개월이 걸리고, 3 개월이면 완성될 일이 8, 9 개월이 걸린다. 이것은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리더 일꾼이 문제가 생겨도 제때 발견하지 않고 제때 수정하지 않는 등 사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역은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비 상태에 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리더 일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록 가끔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더라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많은 리더 일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사역할 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 상부에서는 우리에게 원칙만 알려 주면 되고 나머지 실질적인 사역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아래에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문제 해결 강도가 어떤지,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되고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사역에 임하고, 그 결과 교회의 각종 사역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이는 리더 일꾼의 자질이 형편없거나 혹은 무책임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초래된 결과이다.

제 8 조 직책에 근거하여 몇 가지 부류의 거짓 리더들을 해부하다

1. 영적인 체하는 부류의 거짓 리더들

지난번에는 곤혹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교제하고, 또 제때 보고하고 구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한 가지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간파할 수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문제로, 이런 문제는 원칙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원칙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거나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 이는 곤혹스러움에 관계된 문제들이다. 또 한 가지는 해결 방법을 모르는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며, 이런 문제는 곤혹스러운 점과 비교할 때 정도가 좀 더 심각하다. 이 역시 리더 일꾼이 보고하고 구해야 할 문제들이다. 지난번에는 주로 리더 일꾼의 직책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보고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교제하고,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제했다. 오늘은 제 8 조 내용에 맞춰 거짓 리더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들이 리더가 해야 할 사역을 하고 리더가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지 해부해 보도록 하겠다.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면, 거짓 리더는 이 방면에서 분명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이 방면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 방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어떤 부류의 거짓 리더들은 사역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념을 갖는다. '나는 사역을 할 때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 무슨 지식이니, 학문이니, 기술이니, 교조적인 것들은 중요시하지도 않아. 단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는 일만 신경 쓰면 돼. 일주일에 두 번 그룹별 예배를 드리고, 보름에 한 번 리더 일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전체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는 거야. 각 방면의 예배를 이렇게 잘 조직하면 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역하는 근거이자 방식이다. 이런 부류의 리더 일꾼은 단지 계속해서 설교 연습만 하고 글귀와 도리를 갖추는 일에만 무척 공을 들인다. 매번의 예배를 위해 주제 리스트를 만들고, 내용과 사례를 준비하고, 교제해야 할 진리를 준비하고, 일부 사람들의 내적 상태와 문제에 맞춰 몇 가지 해결 방안도 준비한다. 그들은 리더 일꾼으로서 설교만 잘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 이를테면 복음 전도 방식이 적절한지, 교회의 인사 배치는 어떤지, 또 각 업무의 사역 담당자가 직무에 적합하고 합당한지 등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책임자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부류는 어디를 가든 예배와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설교만 하려 든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배우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끔 사역에 관한 얘기도 나눈다. 이런 부류는 자주 교제하는 문제들, 이를테면 각 부류의 사람들이 마주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대조해야 하는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연약하고 어떤 내적 상태가 생겼는지, 어떤 말씀에 담긴 진리로 교제해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요컨대 그들의 설교와 교제는 다방면에 걸친 진리 실행을 다룬다. 책망과 훈계에 관한 내용, 시련과 연단에 관한 내용,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에 관한 내용, 심판과 형벌을 어떻게 겪는지에 관한 내용 등 그들은 각 측면의 진리에 대해 모두 어느 정도 교제할 수 있다. 그들은 새 신자를 보면 새 신자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만나면 생명 진입에 관한 설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업무 기술과 관계된 사역에 대해서는 결코 관여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며, 각 항목의 사역을 밀착 관리 하고 참여하고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그들 눈에는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배우는 것이 곧 사역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그 외의 사역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전부 자기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다. 그는 설교만 제대로 하면 천하태평이다. 천하태평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예배를 마치는 것이 곧 사역을 끝내는 것이고, 쉬는 시간이 되면 쉬는 것이다. 교회 사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찾아도 쉽게 찾을 수 없다.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낮잠은 필수이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데 자신은 안일함을 즐긴다. 그는 생각한다. '나는 설교도 했고 예배도 드렸어. 당신들한테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내 사역은 끝났고 나머지는 당신들 일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도 다 알려 주었으니까 당신들끼리 원칙에 따라 일하면 돼.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건 다 당신들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교제해서 해결해야 돼. 나는 찾지 말라고.' 그는 예배를 마치면 절대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문제를 발견하지도 못한다. 예배를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시간 맞춰 자고,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사람이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 거짓 리더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 일꾼의 경우, 직책을 맡은 지 반년이 되도록 그와 가까운 사람은 그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온라인에서 그의 설교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본분을 이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형제자매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리더는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다. 이런 리더가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형제자매들은 그가 매일 뭘 하느라 바쁜지도 모르고, 누적된 문제와 어려움은 많은데 그가 언제 와서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다들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이 번개처럼 나타났다 번개처럼 사라지니 숨어 지내는 재주도 뛰어나다! 그는 설교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하지만, 설교가 끝나면 예쁘게 치장을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곳에 숨어서 편안함을 즐기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아주 훌륭하게, 제대로 사역한다고 생각한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설교도 다 하고 예배도 다 드렸다고, 해야 할 말도 다 하고 설명할 것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코 형제자매들 사이에 깊이 들어가 사역을 밀착 관리 하거나 참여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 검토하거나 그들이 제때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없다. 만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할 줄도 모른다. 그는 속으로 고민도 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이 내가 교제해 준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사역에서 어려움이나 곤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진리를 고수하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사역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까?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작용을 할까?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나 파괴하는 사람, 늘 못된 생각을 내놓는 터무니없는 사람은 없을까? 요즘 사역은 얼마나 진행되었지?' 등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 그는 일률적으로 관심이 없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주제 리스트를 만들고, 심지어 사역 보고서도 쓴다. 생명 체험에 관한 설교 원고를 자주 쓰는 리더들도 있는데 그들은 집에서 글을 쓰느라 3~5 일을 두문불출해서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줘야 하고, 남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네가 그에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억울해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설교하고 심지어 밤을 샐 때도 있었다고요." 겉보기에 그는 무척이나 바쁘고 쉴 틈이 없어 보인다. 설교도 꽤 많이 하고, 말하고 글 쓰는 일에 꽤 공을 들인다. 종종 소식과 편지도 전달하고 상부에서 요구하는 원칙도 전달하는가 하면, 예배드릴 때 입이 닳도록 교제하고 강조하는 등 말도 많이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역은 절대 참여하지도 않고 밀착 관리 하지도 않으며, 결코 형제자매와 함께 어떤 문제도 마주하지 않는다. 네가 그에게 어떤 사역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느냐고, 사역 성과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는

모르고, 그제야 알아봐야 한다. 지난번 문제가 해결되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예배도 드렸고 원칙도 교제했다고 대답한다. 네가 계속 묻는다. "진리 원칙을 교제한 후 형제자매들이 정말 깨달았나요? 그래도 치우친 길을 갈 수 있나요? 그들 중 상대적으로 원칙을 더 잘 깨닫고, 업무에 좀 더 정통하고, 자질이 좀 더 좋아서 양성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사역 상황에 대해 물으면 그는 대답한다. "원칙을 교제했습니다. 방금 예배도 드렸고 책망과 훈계도 했습니다. 그들도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후속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런 리더 일꾼이 사역을 하면 그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읽으며 글귀와 도리만 얘기해 줄 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구하는 일을 겁내는데 상부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알게 될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성질은 무엇이냐? 그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부류이냐? 정확히 말해서 이런 부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행동이 단정하고, 언행이 고상하며, 말과 행동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도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며, 많은 성경 내용을 줄줄 암송한다. 거짓 리더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흠을 잡을 수 없고 무척 영적으로 보인다. 겉에 드러난 언행과 행위에서는 누구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교회 사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체하는 것이다. 영적인 체하는 이들 부류는 매일 분주하게 크고 작은 무리들 사이를 오가며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서 어떤 대표적인 구절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바로 말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는 그 사람에게 관련된 하나님 말씀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 알려 주면서 가서 읽으라고 한다. 겉으로 볼 때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준칙으로 삼고,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가 한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이런 글귀와 도리를 전하는 동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만약 어떤 사역에서 그가 진리 교제를 통해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고 남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그의 진리 교제가 분명했다는 뜻이다. 영적인 체하는 이런 부류는 정반대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줄줄 암송해서 사방에 전하고, 머릿속, 마음속에 담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뿐이지만,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문제를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이 자기더러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나기 바쁘다. 속마음은 이런 것이다.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하면 얼마나 난감하고 창피할까!' 이것이 바로 그의 실제 분량이고 진짜 내적 상태이다.

주변의 어느 리더 일꾼이 진리 교제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형제자매들과 한데 뭉쳐서 같이 사역을 진행하는지 보아라. 그런 사람은 자신의 직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누가 문제를 잘 발견하고 해결하는지, 누가 실질적인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는지 보아라. 이런 리더 일꾼이 바로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반대로 어떤 리더가 글귀와 도리를 무척 잘 설명하는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중심이 있고, 내용이 있고,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듣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늘 형제자매를 피하고, 형제자매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형제자매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면 이 리더는 영적인 체하는 거짓 리더이다. 너희 주변의 리더, 책임자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평소에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 말고, 그들이 사역을 밀착 관리 하고 참여하면서 종종 사역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얼굴만 한 번 비추고 더는 나타나지 않느냐? 영적인 체하는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언제나 설교 거리가 없을까 봐, 형제자매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을까 봐 혼자서 집안에 틀어박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하는 연습을 한다. 그는 설교는 공부하고 암기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지식을 공부하고 대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상투를 대들보에 매달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속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이것은 치우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높은 자리에 서서 도리를 좀 얘기하고 쓸데없는 일에 좀 참견하는 것을 리더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지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없다. 늘 집안에 틀어박혀 '폐관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추는 것이다. 꼭 그래야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 형제자매들을 한쪽에 제쳐 두고 혼자서 진리를 갖추어도 되느냐? 사역이 바쁘지 않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설명해야 할 원칙과 주의 사항을 모두 설명했을 때, 형제자매들에게 질문이 없을 때, 어떤 어려움도 없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도 없을 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떤 장애물도 없을 때 이럴 때가 리더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진리를 갖추어도 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그는 늘 얼굴을 내미는 것만 중시하고, 눈에 띄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역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새로운 빛 비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얻었고 진리 실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남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찾는다. 그는 조리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안에 중심 내용이 있는 도리를 설교하는데 유명인의 강연, 학술 강연보다도 강력하고 깊이가 있다고 여기며 무척 만족한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한다. '이번 설교가 끝나면,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지? 더는 없는데.' 그래서 또 얼른 가서 '폐관 수련'을 하면서 수준 높은 도리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교회 사역 현장에서는 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를 찾을 수 없다. 거짓 리더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냐?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설교를 하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다니, 이런 게 바로 후안무치한 것이다.

모든 거짓 리더는 글귀와 도리를 말할 줄 알고 영적인 체만 할 뿐,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하나같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그저 글귀와 도리를 좀 얘기하고 구호를 좀 외치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석해 주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줄 안다. 그들은 사역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이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 일꾼으로 선발하여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은 사역을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하고 감독해야 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제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등을 아무리 교제해도 그들은 그런 말을 귀담아듣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님 집의 요구에는 이르지도 못하고 닿지도 못한다. 그들은 본분 이행에 관계된 기술 업무 문제 및 책임자를 선발하는 원칙적 문제 등과 같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알고 있더라도 처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거짓 리더의 인도 아래에서는 교회 사역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선민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업무 기술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민들이 생명 진입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 리더 일꾼이나 각 사역의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도 제때 교체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등, 모든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아서 결국 교회의 각종 사역은 갈수록 효율도 낮아지고 성과도 떨어진다. 인사 방면에서는 은사가 좀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리더 일꾼이 되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발탁되지도 양성되지도 못한 채 힘쓰는 자 취급을 받고, 특기가 있는 다양한 기술자들도 합리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해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적그리스도, 악인은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거짓 리더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누군가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폭로해도 거짓 리더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교란하도록 내버려둔다. 그 결과 악인, 불신파, 적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제명되거나 출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게 된다. 이런 모든 문제를 거짓 리더는 처리하거나 해결할 줄 모른다. 그들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줄 모르고, 사역을 합리적으로 안배할 줄 모른다. 횡포를 일삼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결국 교회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다.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아무리 교제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즉, 악행을 저지르는 각 부류의 사람, 불신파들 중에 제한할 사람은 제한하고, 제명할 사람은 제명해야 한다고, 또 자질이 좋고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발탁할 사람은 발탁하고, 양성할 사람은 양성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교제해 주어도 거짓 리더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자신의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관점, 거짓된 사랑의 방법만 고집한다. 거짓 리더는 본인의 진지한 지도하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들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혼란이 없이 질서가 잡혀 있고, 다들 믿음도 강하고, 본분을 이행하기 원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위험에 직면하는 것도 겁내지 않고, 누구나 고생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고, 유다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교회 생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본인이 사역을 잘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악인이 교란을 일삼거나 불신파가 사설과 궤변을 퍼뜨리는 일이 발생해도 그는 별문제 될 게 없고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일을 맡긴 사람이 멋대로 굴면서 복음 사역을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말까지 한다. "제가 설명해야 할 사역 원칙은

다 설명했고, 또 몇 번이고 당부했으니 문제가 생겨도 저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일을 맡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설명하고 당부한 그 말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예배 때마다 수많은 글귀와 도리를 끊임없이 읊어 대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커다란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쭐대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사실 그가 얘기한 글귀와 도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자질이 부족한 머저리, 바보, 멍청이들이나 속일 수 있을 뿐이다. 이자들은 그걸 듣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가 한 말이 아주 옳고, 틀린 말이 한 마디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만족시킬 수 있을 뿐 실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당연히 기술 업무나 지식 방면에 관계된 문제는 거짓 리더가 더더욱 닿을 수 없고 그가 다루기에 역부족이다. 하나님 집의 문서 사역을 예로 들어 보자. 이는 거짓 리더에게 가장 골치 아픈 분야로, 그는 도대체 어느 사람이 영적인 이해력이 있고 자질이 좋아서 문서 사역에 적합한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을 자질이 좋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문서 사역을 안배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은 문서 사역 분야의 인재들입니다. 문서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 여러분만 믿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요구는 없고 그저 각자의 특기를 발휘하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모두 바치면 됩니다. 여러분은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의 높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만 늘어놓은 거짓 리더는 사역을 안배했으니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가 안배한 그 사람들이 적합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업무 지식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람을 볼 줄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업무상의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작문 지식도 모른다. 이런 일에는 일자무식이다. 입으로 자기는 이해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보다 좀 더 배운 것뿐이지 않나? 비록 내가 사역은 지도해 주지 못해도 당신들보다 영적이고 설교도 잘하지. 하나님 말씀도 더 잘 깨닫고 말이야. 이래 봬도 내가 당신들을 이끄는 사람이고 당신들 상사야. 당신들은 내가 관리해야 하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거짓 리더는 자신을 아주 높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술 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역에 대해서라면 그는 가치 있는 건의는 전혀 제시할 수 없고, 지도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사람과 일을 안배하면 다행이고, 후속 사역은 조금도 할 수 없다. 그는 업무 지식도 배우지 않고 사역도 밀착 관리 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다들 영적인 체한다. 글귀와 도리를 조금 얘기할 줄 알면 자신이 진리를 깨달은 줄 알고 하나님 선민 앞에서 계속해서 으스대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몇 시간씩 설교하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는 본분 이행에 관련된 업무 지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모른다. 명백히 문외한이면서 영적인 체하고 숙련자를 지휘하려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는 업무 지식을 배우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역겨운데, 게다가 영적인 사람을 사칭하고 영적인 글귀를 뽐내기까지 하다니 이건 너무나 비이성적이다! 바리새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바리새인에게서 가장 비이성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혐오했지만 그들은 속으로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꽤 괜찮고 아주 영적인 줄 생각했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나 자기 자신을 모른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게 분명한데도 영적인 사람을 사칭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버리고 도태시키는 대상이다.

영적인 사람인 체하는 거짓 리더 부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냐?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의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니다. 진리 교제의 설교도, 진리 실제를 갖춘 설교도 아니라 글귀와 도리의 설교이고, 영적인 체하는 설교, 바리새인의 설교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글귀에 노력을 쏟는 재주가 있고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 실제에 진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일도 결코 없다. 단지 글귀와 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치에 맞는 도리를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 실제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높은 자리에 서서 남을 꾸짖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리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못된 행동 방식을 부추기는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느낌과 상상에 따라 무턱대고 규례에만 맞추려 할 뿐 문제의 본질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거기다 헛소리까지 한다. 실제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거짓 리더가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연히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진리를 구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영적인 체하고, 자신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지위의 복을 누린다. 정말 역겹지 않으냐? 그들은 자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글귀와 도리는 그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사역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일정 기간 사역을 하고도 체험 간증을 전혀 얘기하지 못한다면, 이런 리더 일꾼이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냐? 당연히 아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짓 리더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교체하고 도태시키는 것은 물론,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선거 때가 와도 다시 리더 일꾼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도태된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을 다시 선출한다면 그것은 일부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것이고, 이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리더를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너희는 영적인 체하는 부류의 거짓 리더를 선출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꽤 많이 선출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와 사역 경험이 풍부해서 몇 시간이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분명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를 리더로 선출한 뒤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형제자매가 도통 그를 만날 수 없고, 일이 있을 때 찾아가도 늘 자리에 없고,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한 곳에 몸을 숨기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사역의 중요한 순간에 늘 숨바꼭질을 하며 형제자매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도통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본연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왜

어떤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된 다음 형제자매와 마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느냐? 왜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느냐? 그는 대체 무엇이 그리 바쁘냐? 왜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그가 무엇 때문에 바쁘든 확실한 것은 일정 기간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자는 거짓 리더이니 서둘러 교체하고 다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그래도 이 부류의 거짓 리더를 선출하겠느냐? (선출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너희가 볼 때 소경을 길잡이로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자기 앞도 못 보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같다. 소경은 혼자 걸을 때도 방향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겠느냐? 소경을 길잡이로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소경보다 더 눈이 먼 사람이다. 이방 세상에는 '소경에게 길을 묻는다'는 말이 있다. 거짓 리더를 교회 리더로 선택하는 것 역시 소경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이는 황당한 일이 아니냐? 거짓 리더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모두 소경을 선택한 소경들이고, 그들 중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하는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고 속으로 기뻐한다. '이번에 우리는 훌륭한 리더가 생겼어. 우리 리더는 설교를 어찌나 잘하는지 설명도 조리 있게 하고, 죄다 일리 있는 말만 하지.' 분별력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감동한 나머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를 떠나기 아쉬워하고, 본분도 이행하러 가지 않으려 한다. 교제를 들을 때는 속으로 이해가 잘 되었는데 정작 본분을 이행할 때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이럴 때는 속이 답답해진다. '리더 교제를 들을 때는 뭐든 다 알 것 같았는데 어째서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이것은 무슨 문제냐?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들은 글귀와 도리, 빈말, 구호,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네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는 너를 속인 것이다. 너에게 그림의 떡을 보여 주는 식으로 구호만 외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문제에 맞게 진리 원칙을 교제해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교제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가 말하는 도리는 실제 문제와 무관하며 모든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 그는 글귀와 도리만 읊어 대고 영적인 이론만을 떠들지 무엇이 진리 실제인지 모르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멍해진다. 그의 설교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저 일종의 학설, 지식, 도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일종의 글귀와 도리, 구호로 생각하며 설교하고,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비켜 가면서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떠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리 긴 시간 설교를 해도 기껏해야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효과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열정을 좀 불어넣어서 힘이 나게 할 뿐, 그것 말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리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모든 방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또다시 영적인 체하는 그런 거짓 리더들을 만나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분별할 수 없다면, 너희가 리더로 선출하고 싶은 자에게 우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보아라. 그가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한 데다 성과도 상당히 괜찮은데 그것이 진리 실제로 해결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하면 된다. 그가 문제의 본질과 실제 상황을 비켜 가며 이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공허한 도리를 말하고, 구호를 외치고 규례를 지킬 줄만 안다면 그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겠느냐? (그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글귀와 도리밖에 말할 수 없는 그는 외식하고 영적인 체하는 바리새인이다. 진리를 깨닫는 자질이 결여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그를 리더로 선출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 리더가 될 것이다. 그는 리더 사역을 해내지 못하고 리더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그를 뽑는 것은 그를 해치는 것 아니냐?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그를 해친다는 겁니까? 저희도 좋은 의도로 그를 뽑은 겁니다. 그도 자질이 좀 있으니 그를 선출하면 사역을 책임질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저 탁상공론만 할 줄 알지 실제 상황과 연관 짓지 않으므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네가 그를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악행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를 거짓 리더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사람은 리더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너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공허한 이론만 늘어놓고 실제 문제는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느냐? 매번 수준 높은 이론만 얘기하고, 다들 처음 듣는 기발하고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방안과 세부 사항을 어떻게 실행하고 이행할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멍해지고 입을 다무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하는 말들은 모두 공허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 상황, 실제 환경, 사람이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의 분량, 사람의 업무 수준과도 무관하고 거기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의 요구에는 더더욱 어긋난다. 그는 순전히 함부로 지껄이고, 비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그의 생각에는 어떤 말을 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을 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는 이런 태도로 관점을 밝히고 생각을 제시한다. 이런 자들이 영적인 체하는 부류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쨌든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를 쳐도 그걸 진지하게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게다가 자기가 수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만약 잘못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잘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떠들고 무슨 일이든 간단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의 아이디어는 많지만 어느 하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가 제시하는 관점이 순수하고 올바르든 치우치든 그는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일은 또 저렇게 말하며, 그가 말하는 관점, 이론, 근거는 모두 수준은 높지만 공허하기만 하고 실제적이지 않다. 어쩌다 공허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방안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는 말을 못 한다. 구호를 외치고 큰소리치고 관점을 발표할 때는 무척 신이 나고 특히나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구체적인 사역,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해야 할 때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숨어 버리며, 아무런 관점도 없다. 이런 부류가 리더를 할 수 있겠느냐? (못 합니다.) 그럼 이런 부류가 리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남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 않겠느냐?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고 또 스스로를 무척 힘들게 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도리도 제한적이어서 얘기가 끝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 그는 '폐관 수련'을 해야 한다. 이건 그에게도 힘든 일이 아니냐? 리더가 되면 마치 세 개의 산이 머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매일 사는 것도 피곤하고 압박감도 큰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는 그런 자질이 없어서 일이 닥치면 그저 상상에 따라 함부로 규례에 맞추지만 실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부류는 리더를 할 수 없다.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줄 모르는 거짓 리더이다.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을 지체시키고도 그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 영적인 체하는 부류의 자질과 인품을 발견하고 파악한다면 너희는 그래도 그를 리더로 선출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그런 부류라면 누군가 너를 선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의 주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자신은 리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가 말했는데 다들 그래도 너를 꼭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저는 리더 사역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제가 자질도 좀 있어 보이고, 가끔은 좋은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작은 빛 비춤도 있는 것 같지만 글귀와 도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확실히 리더 일꾼을 할 수 없고, 여러분보다 뛰어나지 않으니 절대 저를 뽑지 마십시오. 설령 제 표가 많더라도 저는 리더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망칠 수 없죠! 전에도 리더를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고 교체되었습니다. 매번 교체된 원인이 다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못 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글귀와 도리만 얘기할 줄 알았지, 그것 말고 리더가 다해야 할 책임은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거나 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 리더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단순히 자기는 리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 한 마디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이 팀에서 본분을 이행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아무래도 원로급에 해당하지. 공로는 없어도 나름 고생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아무도 내 장점을 발견하지 못할까? 나도 리더를 할 재목이야. 나도 가치 있고 실용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자주 내놓았다고. 리더가 채택하고 말고를 떠나 전반적으로 보면 나도 태도와 생각, 관점이 있는 사람인데 다들 왜 나를 뽑지 않는 걸까?' 만약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잘 판단해 보아라. 너의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 제안이 단지 말뿐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실용적인 것이냐? 너는 사역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아이디어와 생각이 쓸모가 있느냐? 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생각과 관점이 글귀와 도리에만 머물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 네 자질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리더로 선출되면 너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느냐? 네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야심 때문이냐, 아니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냐? 만약 네가 정말 사역 능력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일부 리더 일꾼들이 사역을 너무 형편없이 하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속이 탄다면, 의견을 제시해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을 때 네가 하나님 집 사역이 걱정돼서 애가 타고, 또 거짓 리더가 교회 사역을 지체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면 너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단지 자기가 가진 생각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청중으로 삼아 네가 하는 말, 네 고담준론을 들려주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야심이다. 야심 있는 사람은 글귀와 도리만 얘기할 줄 알고, 아이디어가 좀 있더라도 역시 공허한 글귀와 도리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틀림없이 거짓 리더일 것이며, 그가 만약

악인이라면 곧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네 아이디어가 만약 공허한 글귀에 머문다면 너는 리더가 된 다음 반드시 모든 영적인 체하는 거짓 리더와 마찬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 항상 '폐관 수련'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설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네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서 사역 과정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히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거짓 리더일 것이다. 거짓 리더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서 교체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늘 속으로 분개하고 안달이 나서 리더와 책임자를 선출할 때만 되면 늘 자기가 당선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지 가장 오래고, 고생도 가장 많이 하고, 본분을 이행한 시간도 가장 길고, 충성심도 가장 강하니까 리더가 될 자격이 제일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자기를 뽑아 주기를 바란다. 너를 뽑아 주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짓 리더라는 칭호를 벗어 버릴 수 있느냐?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실제 문제인데 아무도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 중 누군가가 충분한 자질이 있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진리를 구하고, 또 진리를 깨달은 뒤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기준에 맞을 수 있다. 또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성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면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진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는 않고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원망한다. 이런 사람이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그의 속셈과 태도는 옳지 않으며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요구하든 그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 아무리 분명하고 알기 쉽게 얘기해 놓았어도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모든 교회 사역은 하나님 집에 구체적인 사역지침이 있고, 상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어느 사역이든 너희가 창의적으로 하거나 독자적으로 완성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상부에서 너희에게 범위와 방향, 원칙을 제시하고, 또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너희의 사역은 맨주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방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둘째, 어떤 사역도 책임자가 누구이든, 사역의 중심이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주로 상부 형제가 구체적으로 밀착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하고, 검토하고 자주 물어본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 대본, 영화, 프로그램, 찬양 등 어느 것이든 상부 형제가 다 직접 참여하고 밀착 관리 하고, 일부 사역은 나도 같이 참여해서 너희에게 큰 방향과 틀을 알려 주기도 한다. 셋째, 진리 원칙에 관계된 모든 측면의 사역은 상부에서도 자주 진리 원칙을 교제해 주고 사역을 지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훈계하고, 점검해 주면서 수시로 너희의 치우친 부분을 바로잡아 준다. 넷째, 인사, 행정 방면의 중요한 사역은 상부에서 직접 너희를 도와 점검하고 의사 결정을 내린다. 사실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부에서 안배하고 이끌고 지도하고 검토해 준다. 그렇다면 너희는 모두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기만 했다. 정말 복이 있다! 어떤 일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손만 대고 발품만 팔면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너희가 추가로 대가를 치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크고 중요한 사역은 상부에서 다 했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사역은 쉽고, 큰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역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사람이 전혀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사역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약간의 문제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너희에게 만점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최저 기준을 통과하기만 하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한 셈이다. 이것을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지도하고 검토하는 것을 바탕으로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그저 사람이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진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늘 건성으로 임하려고만 한다면, 형식적으로 사역하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방해와 교란을 저지르지 않으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리더 일꾼이 사역을 이런 태도로 한다. 사역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싫고, 일반적인 수준에 만족하며, 결과가 어떤지는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이다. 이런 태도가 괜찮으냐? 만약 네 태도가 이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네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너는 응당 거짓 리더로 정의될 것이며, 이것은 그야말로 적절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저희에 대한 당신의 요구가 너무 높습니다. 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리더라고 하시고, 그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고 거짓 리더라고 하신다면 저희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로봇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사람, 육체를 지닌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희에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왜 리더인 저희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높습니까?" 사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저 사람이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리더 일꾼으로서 너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 진리를 향해 노력하지 않고 늘 고생을 꺼리고 안일을 탐한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든 너희는 틀림없이 거짓 리더이다. 마치 한 성인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밥은 몇 끼 먹고 일은 몇 시간 해야 하고, 더러워진 옷은 언제 세탁해야 하는지처럼,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성인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은 네가 반드시 스스로 처리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만약 네가 뭐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건 지능이 모자란 것이고 바보라는 소리가 아니냐?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계속 리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리더가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교체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그럼에도 지위에 연연하며 내려오지 않으려 하고 리더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리더 일꾼들은 교체된 뒤에 억울해하며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는 왜 우느냐?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는 것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네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길을 다져 놓고, 범위를 정하고, 의사 결정을 했으니 너는 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 마치 네가 밥을 먹는 것과 같다. 곡식, 야채, 각종 조미료, 냄비,

불을 모두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배우면서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해야 하고 해내야 할 일이다. 만약 해내지 못하면 너는 바보이고, 정상적인 성인의 지능 범위 안에 들 수가 없다. 이런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일부 리더들은 교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정의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 네가 성인의 지능과 자질을 갖추고, 성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지려는 마음, 책임감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해낼 수 있다. 만약 네가 해내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너는 거짓 리더이다. 이렇게 확정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 아닌데,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가혹하지 않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2. 자질이 부족한 거짓 리더

방금 거짓 리더의 한 부류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함에 있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 부류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교제했다. 이 부류는 영적인 체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사역 중의 곤혹스러운 점과 어려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면의 책임도 다하지 못한다. 이것이 한 부류이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영적인 체하는 부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사역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제때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지 못한다. 이들 부류도 사역하느라 바빠서 하루 종일 분주하고 쉴 틈이 없다. 설교하느라, 여기저기 형제자매들을 방문하느라, 사역을 배치하느라, 심지어 교회 사역을 위해 각종 물품을 구매하느라 바쁘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를 찾아 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적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붙잡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어쨌든 이들은 사무적인 일을 하기에만 바쁘다.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 복음 전도 사역, 교회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교회의 공적인 일, 형제자매의 사적인 일을 모두 처리하고 해결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리더 일꾼이라면 당연히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리더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시종일관 알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나 핵심 문제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 교란과 방해를 받고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들은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 그들은 비록 사역하느라 바빠서 매일 쉴 틈도 없지만 이 정도로 바쁘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교회 사역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문제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다. 겉보기에는 그들도 빈둥대지 않고 직책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역에서의 문제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그들은 구멍을 메우느라 바쁘고, 각종 '난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각종 악인과 방해하고 교란하는 자들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사역에만 바삐 보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분별하지 못한다. 무엇이 좋은 인성이고 무엇이 나쁜 인성인지, 무엇이 좋은 자질이고 무엇이 부족한 자질인지, 무엇이 진정한 실력을 갖춘 것이고 무엇이 은사를 갖춘 것인지 그들은 하나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 집에서는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떤 사람을 도태시키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이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고 어떤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봉사자인지 등, 이런 것들을 그들은 하나도 간파하지 못한다. 허풍을 떨며 공허한 이론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사역을 못 하는 사람은 중점 양성 대상으로 삼아 중요한 사역을 안배하거나 맡기는 반면, 순수하게 이해하고 자질을 갖추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은 기간이 짧거나 교만한 성품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좀처럼 발탁하거나 양성하지 않는 등, 이런 류의 문제가 교회에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교회 사역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진정한 문제이지만 이 부류의 리더들은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혀 지각하지도 못한다. 그는 악인이 방해하고 교란할 때 그들에게 반성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관찰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악인도 아니고, 단지 어리고 무지하고 일 처리에 원칙이 없다 보니 가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원칙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그는 그것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로 취급하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매일 사역으로 분주해서 겉보기에는 무척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이 쏟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든 사람들에 대한 참된 생명 공급이 없다. 또 하나님 선민들에게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 교제를 통해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저 사랑으로 권면하고, 글귀와 도리로써 하나님 선민들을 격려할 뿐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 선민들은 그의 인솔 아래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저 열정에 기대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할 뿐 생명 진입이 없다.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자주 소극적이 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상(異象)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일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해 관념과 오해를 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경계하기까지 한다. 거짓 리더들은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기만 한다. 그가 하나님 선민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는 결코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매일 사무 사역과 외부의 일에만 매달리는데, 그것은 생명 진입이나 진리와 무관한 일이다. 그는 바쁘게 일하기만 하면 그것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절대 거짓 리더가 아니라고 믿는다. 사실상 그가 그런 사무에만 매달리는 것은 형제자매들에게 생명 성장을 조금도 가져오지 못하며 나아가 하나님 선민들을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하지도 못한다. 너희가 볼 때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들은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는 어떤 일도 간파하지 못한 채 사역만 부지런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간접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안다. 이런 부류는 너무나 멍청하지 않으냐? 자질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냐? 그는 아무 일도 간파할 수 없고 실질적인 사역도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다. 이는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각 지역의 어느 교회에나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 있다. 그들은 단지 열정에만 기대어 사역할 뿐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리더 일꾼의 본연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사무 사역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하나 구입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다. 잘 아는 사람이 가서 구매하도록 안배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거짓 리더는 돈을 많이 쓸까 봐 여러 곳을 다니며 가장 싼 물건을 사도록 사람을 안배한다. 그 결과 싸구려를 사서 며칠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서 다시 사야 했다. 돈을 아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맞느냐? 물건을 살 때 유명 브랜드를 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품질이 기본은 돼서 사용할 수 있어야 적합하다. 거짓 리더가 이런 사무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집의 중요한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음 사역, 영화 제작 사역, 문서 사역, 체험 간증 영상 사역, 그리고 리더 일꾼을 조정하는 사역 등은 무척 중요한 사역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 사역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한쪽으로 제쳐 둔 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는 본인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도 배우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라도 그 사역을 책임지기만 하면 되지 굳이 나까지 필요한가? 나는 큰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런 사소한 일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원칙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거짓 리더는 무척이나 바빠 보이지만 그가 매달리는 일을 보면 교회의 중요한 사역도 하나 없고,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도 하나 없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도 하나 없다. 그가 매달리는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순전히 쓸데없이 바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리더 일꾼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정에만 기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매달린다. 형제자매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언행을 하고 다니는지 등 교회 사역과 무관한 이런 사소한 일들은 참 자세히도 물어본다. 그는 이것이 붙임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현실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이자 정상 인성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 사역, 영화 제작 사역, 찬양 사역, 문서 사역, 행정 사역, 새 신자 양육 사역, 교회 설립 사역,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하는 사역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참여하지도 않고 밀착 관리 하지도 않는다. 마치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식이다. 거짓 리더는 교회에 누적된 많은 문제를 아예 해결하지 않는다. 교체해야 할 거짓 리더를 교체하지 않고, 악인이 악을 행하고 제멋대로 못되게 굴어도 제재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본분을 건성으로 방만하게 이행하면서 질질 끌어도 진리를 교제해 해결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 이런 실제 문제를 그는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자신이 하는 그런 사소한 사역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다. 그는 하루 종일 그런 가치 없는 일로 분주히 움직이면서 자신이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 준 본질적인 사역은 한 가지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가 거짓 리더가 아니냐? 그들은 사회의 주민 센터 주임과 같아서 그야말로 사무적인 일에만 신경 쓰는 아주머니가 따로 없다. 그러고도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자가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다. 이런 부류를 거짓 리더, 거짓 일꾼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질이 너무 부족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자질구레한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원인이다. 이런 부류는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사역지침을 많이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 집에서 오랫동안 본분을 이행하고 리더를 맡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본인이 다해야 할 책임을 다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리더 일꾼이라는 감투와 직함에 대해 그가 내리는 정의는 바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마치 연자매를 돌리는 나귀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돌리는 힘이 적절하든 아니든 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문제를 간파하지 못하고, 본인이 해결하지도 않으며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하지도 않는다. 사역을 얼마나 오래 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접하든 그는 한 사람의 모습이 금방 믿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신파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규정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두 사람이 똑같이 소극적인 내적 상태를 보일 경우 어느 쪽이 양성할 가치가 있고, 어느 쪽이 그렇지 않은지 그는 모른다. 두 사람이 모두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할 때 어느 쪽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느 쪽이 봉사자인지, 어느 쪽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고 어느 쪽이 진리 실제가 없는지 그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된 뒤에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지 그는 모른다. 설령 그 사람과 오랫동안 어울렸더라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쓸데없는 일이나 무의미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위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런 부류는 자질이 부족하고 생각이 혼탁해서 사역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기 어렵다. 이 부류의 리더 일꾼은 간단한 사무 사역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사역할 때 발생하는 실제 문제 역시 전혀 보지도, 해결하지도 못한다. 이런 자질을 지닌 이런 리더는 양성할 가치가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이 곤혹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어려움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원칙에 따른 일 처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교회 사역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설령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들은 종합해서 분류할 줄 모르고,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 부류의 거짓 리더들은 하나도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것이나 바쁘고 피곤한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부족하고 생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과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단지 일부 사무적인 일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리더 일꾼의 역할을 때우려 한다. 이는 야심과 욕망이 지나치게 큰 머저리가 아니냐? 교회의 핵심 사역, 이를테면 복음 확장 사역, 교회 새 신자 양육 사역, 영화 제작 사역, 문서 사역, 각급 리더 일꾼의 인사 관련 사역 등 진리 원칙에 관계된 이런 사역이나 복잡한 업무 사역을 자질이 부족한 리더는 일률적으로 하지 못한다. 왜 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들의 자질이 너무 부족해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그들이 전혀 닿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그에게 다섯 사람을 맡기고 이 다섯 명의 교육 수준과 자질, 특기, 인품에 따라 사역을 분배하도록 한다고 하자. 이는 분배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것은 리더 일꾼의 자질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자질이 보통인 리더 일꾼은 일정 기간 관찰하고 접촉하고 익숙해진 다음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분배할 것이다. 반면 자질이 부족한 리더 일꾼은 다섯 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멍해져서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모르며, 설령 분배하더라도 속으로 그게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인사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 처리 측면의 경우, 예를 들어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 그는 그 몇 가지 일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느 문제를 나중에 처리해야 일에 지장이 없을지 비교할 줄 모른다. 다시 말해, 그는 이익과 손해를 따질 줄도 모르고 일의 경중과 완급을 구분할 줄도 모르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더 일꾼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간신히 도리를 어느 정도 얘기하며 때우고,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대충 마무리를 짓는다. 자신이 한 말이 과연 정확한지, 원칙에 맞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속으로 다 알면서도 그저 대충 넘기려고만 한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결국 사역에 지장을 줘서 교체된다. 이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냐? 어떤 리더 일꾼들은 문제를 보고할 때 케케묵은 옛날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그가 한참을 말한 뒤에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네가 대신 분석하고 판단해 주어야 한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모르고 한참을 얘기해도 그 문제의 초점과 본질은 분명하게 짚어 내지 못한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표면적인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며, 그야말로 헛소리다! 이런 사람은 자질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머리가 모자란 것이 아니냐?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들으려 하겠느냐? 상대는 원래 그가 보고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지, 어떤 내적 상태가 있기에 그가 곤혹스러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싶은데, 그는 정작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만 얘기하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자신의 곤혹스러운 점과 문제가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는 장황하게 떠들지만 아무도 그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며, 상대가 알아듣는지도 모른다. 그는 언어를 조직하는 능력도 없다. 이것이 자질이 너무 부족한 모습 아니냐? 일부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하므로 문제를 보고할 때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알려 드린 정보가 어마어마하죠? 과거 일은 물론 현재의 일도 다 얘기를 드렸으니 이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아무리 그에게 물어보고 그를 인도해도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지 못한다. 이것은 그가 말주변이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자질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머릿속이 흐리멍덩하여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도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감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니 요약하거나 종합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까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에게 문제를 보고하고 문제를 설명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도 그는 해내지 못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를 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 쓸 수 없겠느냐? 그는 말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언어로 생각과 뜻, 태도를 표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도 없다.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비록 힘도 있고 성실한 태도와 약간의 책임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못한다. 네가 말하는 법을 가르쳐도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니 너는 답답하고 속이 끓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가 하는

말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며, 그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헛소리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계속 마구잡이로 일하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책망해도 그는 불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리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으로서 언어 표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것은 사역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제때 발견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당연히 사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 제때 해결할 수 없고 제때 문제를 상부에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자질이 부족한 이런 부류에게는 이 사역이 무엇보다 어려워서 마치 오리를 횃대에 올라가게 하거나 소를 나무에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매우 힘든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딱해요. 바쁘게 움직여도 결국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짓 리더로 규정되잖아요. 그럼 그가 한 고생은 다 헛고생 아니에요? 이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거짓 리더를 교체하는 것은 하나님 선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교회 사역에 대해 책임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냐? 네가 거짓 리더가 계속 리더를 하도록 고집한다면, 너는 하나님 선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뜻은, 하나님 선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하나님 집에서 거짓 리더를 교체하는 것은 거짓 리더를 정죄하는 것이나 거짓 리더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약 그가 계속 거짓 리더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느냐? 너는 어째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설마 리더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겠느냐? 리더를 하지 않으면 이행할 본분이 없는 것이냐? 리더를 하지 않고 자질이 부족하면 살길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행의 길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자질이 부족한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의 모습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부하고 있다.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부하는 것이다. 해부하는 목적은 이런 부류가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 리더 일꾼이 무엇이고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 자신과 대조해 보고, 자기가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네 자질이 정말 부족하다면, 언어 표현 능력도 없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발견할 능력도 없을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면 너는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는 리더 일꾼의 본분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리더 일꾼의 사역을 하지 못한다. 너는 자질이 부족하니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자질이 부족한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인성이 좋으니 리더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인성이 좋은 데다가 기꺼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 하고, 설교도 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도 튼튼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더 일꾼이 될 밑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 일꾼이 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이냐?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며, 직책 안에서 자질의 문제를 언급했다. 네가 자질이 부족해서 이 직책을 다할 수 없다면 네가 지녀야 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리더 일꾼이 될 수 없어. 어떤 밑천이 있든 소용없어.' 너는 너 자신이 인성도 좋고, 믿을 만하고, 고생하려는 의지도 있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서 너를 푸대접했느냐?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쓸 때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일을 맡김으로써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만약 네가 인성은 좋은데 자질이 부족하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본분을 잘 이행하면 된다. 꼭 리더 일꾼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네가 마음 쓰기를 원한다 해도 너는 리더로서 써야 할 마음을 쓸 수 없고,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네가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럴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라. 네가 25kg를 들 수 있다면 25kg만 짊어지면 된다. "25kg로는 부족해.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해. 50kg는 짊어질 거야. 지쳐 쓰러져도 괜찮아!"라며 무리하지 마라. 리더 일꾼을 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무리해서 하려 한다면, 너는 비록 지쳐 쓰러지지 않더라도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고, 사역 진행과 효율에 영향을 주고, 여러 사람의 생명 성장에 지장을 줄 것이다. 너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네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자기 분수를 안다면 먼저 나서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자질이 좋고, 진리를 사랑하고, 너보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리더 일꾼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이렇게 해야 참으로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네가 리더 사역을 하지 못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자신에게 적합한 본분을 선택해서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너는 더없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너는 늘 생각한다. '나는 비록 자질이 부족하지만 인성은 괜찮아. 기꺼이 마음 쓰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의지가 있고, 뭘 하든 당신들보다 근성이 있어. 나는 마음도 넓고 책망과 훈계를 겁내지 않고 시련을 겁내지 않아.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여전히 리더를 할 수 있어.' 자질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를 분류하여 너에게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느 방면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똑똑히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네가 자질이 부족해서 리더 일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령 리더 일꾼으로 뽑히더라도 너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역을 망칠 뿐이다. 네가 인성도 괜찮고, 양심과 이성도 있고 기꺼이 마음을 쓰고 대가를 치르려 한다면 네게 적합한 사역, 네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집에서 합리적으로 안배해 줄 것이다. 네게 리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규정과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는 네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코 본분을 이행할 너의 권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너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이제 그만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리더 일꾼은 하지 않겠습니다. 팀장이나 책임자가 되거나 혹은 잡일이나 주방 일이나 청소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안배와 하나님의 배치에 순종하겠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네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면 자기 분수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질이 부족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 문제를 해부하고 사실의 진상을 드러내는 것은 더 많은 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올바른 태도와 관점으로 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 부류의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다는 자신의 문제를 올바른 태도와 관점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자기에게 맞는 위치와 본분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지력, 고생하겠다는 각오가 제대로 활용되고 발휘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 집에서의 네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게으르고 편안함을 즐기는 거짓 리더

앞서 두 부류의 거짓 리더에 대해 교제했다. 또 한 부류의 거짓 리더는 우리가 '리더 일꾼의 직책'이라는 주제를 교제하면서부터 늘 교제했던 부류이다. 이 부류는 자질도 좀 있고 머리도 나쁘지 않다. 사역할 때도 방식과 방법이 있고, 문제 해결 방안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든 거의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발견할 수도 있고, 일부는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보고하는 문제를 듣거나 어떤 사람들의 행위와 모습, 언행을 관찰하게 되면, 그는 속으로 반응이 생기고,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 물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교제하려는 이 부류가 책임지는 사역 범위 내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며, 형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들은 한가함을 좋아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고 명령 내리기를 좋아해서 입만 움직이고 제안이나 좀 하면 끝이다.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과 하나님이 맡겨 준 핵심 사역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고, 설사 하나님 집에서 누차 강조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 집의 영화 제작 사역이나 문서 사역에 개입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들의 진행과 성과가 어떤지도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간접적으로 알아보기만 하고, 사람들이 다들 바삐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교제해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본분 이행 상황을 물어보거나 알아보지도 않는다. 왜 물어보거나 알아보지 않는 것이냐? 그는 만약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며, 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사는 게 많이 피곤할 것이고, 너무 신경 쓰면 밥맛도 없고 잠도 푹 자지 못하고 육도 피곤할 텐데 그러면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회피하고,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 게으릅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게으른 사람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중 어느 부류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느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째서 게으른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느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수는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본분을 이행한다면 얼마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자질이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런 자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폐인'이다. 바로 2 급 장애인이다. 게으른 사람의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장식에 불과하고, 자질이 좋아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는 너무 게으르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며, 어떤 고생을 해야 성과가 날지 아는데도 그 가치 있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하고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해내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겪어야 할 고생을 겪지 않으려 하면서 그저 편안함을 즐기고,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누리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언제나 기생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양심과 이성이 없는 자이며 바로 짐승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힘쓰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 그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희망은 더더욱 없다.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폐인이다. 힘쓰는 것조차 기준에 맞지 않으니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짐승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태시켜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

어떤 사람은 농장 사역을 담당하는데, 매우 부지런하다. 마음속으로 계획이 있어서 계절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밭을 다 둘러보고 어느 밭에 무엇을 심을지 다 계획해 놓은 다음, 실제로 대조해 보고 계획이 적절한지, 실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한다. 또한 그 해 토양의 건습이 어떤지, 어떤 비료가 부족한지, 무엇을 심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속으로 감을 잡으면 육묘는 했는지, 얼마나 심었는지 서둘러 알아보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육묘를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지, 묘목을 망치지는 않을지 확인한다. 만약 한 사람이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파트너를 찾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감독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누가 재촉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의 진행 상황을 캐묻지 않으면 절대 먼저 나서서 사역의 실제 상황을 점검하지 않을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부류는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직접 처리하지만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마구잡이로 해치운다. 하지만 이런 게으른 부류는 무척 영리해서 무슨 일이든 입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가서 하도록 지휘만 할 뿐 결코 직접 하는 법이 없고, 실질적인 사역도 할 줄 모른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면 돼,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수고를 덜 수 있는데! 나라는 리더 일꾼의 자질이 어떤지 보라고. 말 한마디로 일을 처리하잖아. 이것도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닌가? 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만약 상부에서 물어보면 이런 일은 죄다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고 무엇이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현장에 가서 들여다보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애먹고, 고생하고, 햇볕에 시커멓게 타기나 하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어. 수고를 덜 수 있으면 덜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꽤나 '영리하지' 않으냐? 이런 부류는 사역을 할 때 교묘하게 꾀를 부리며 지름길을 찾는 데 능하다. 방식과 방법이 있으며 어떤 일도 직접 나서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전화로 물어보면서 형식적으로만 일하고, 전화를 끊으면 자러 가든가

마사지를 받으며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런 부류는 정말 '사역을 할 줄' 알고, 빈둥거릴 줄 알고, 과정만 거치면서 사람을 속일 줄 안다! 그가 갖춘 그깟 자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은 공산당 국가의 관료들이 출근해서 차 마시고 신문이나 보고, 퇴근 시간 전부터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놀지 궁리하면서 정말 편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부류의 거짓 리더도 이런 원칙으로 사역을 한다. 고생도 힘든 일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벼슬을 하며 지위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형제자매가 아직 이것이 문제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사역을 밀착 관리하고 검사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가 사역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체하고 자질이 부족한 거짓 리더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다. 이런 부류의 쓸모없는 인간들은 어떠하냐? 그는 말한다. "저는 실질적인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겨도 저를 눈뜬 소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시겠죠.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아 보지도 못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사자를 찾아가셔야죠." 정말 교활한 인간이 아니냐? 그는 명령을 내려 사람을 안배하기만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자기는 책임을 다한 것이니까 거들먹거리며 본인의 여가 시간을 보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물어보지 않다가 누군가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면 그제서야 급히 서두르며 처리한다. 그는 매일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사역을 검사하는 척하지만 사실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은 절대 가지 않고, 중요한 사역은 결코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행태는 꼭 공산당 관료가 형식적인 일만 하고 체면치레만 하는 것 같지 않으냐? 그에게 일을 맡기면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지만 밀착 관리 하지 않고 감독하지도 않는다. 설령 현장에 간다 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절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한다. '이런 일은 굳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 누군가 하고 있으면 되지. 어쨌든 돈도 한 푼 안 주는데 대충 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는 속으로 속셈이 있다. '먹은 만큼 일하고 하루 스님이 되면 하루만큼만 종을 치면 되지.' 하지만 그는 결코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 현장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느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잘 수 있는, 환경 좋고 안전한 곳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안일하게 지내며 정해진 시간에 목욕하고 마사지도 받고 옷도 갈아입으면서 고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어떤 공헌을 했고,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어떤 인간이냐? 이런 쓰레기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염치가 없는 인간으로, 교회의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무릇 거짓 리더는 끝까지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리더가 된 것을 벼슬로 여기며 지위의 복을 누린다. 그러면서 리더로서 이행해야 할 본분과 해야 할 사역을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속으로 교회의 사역에 대해 반발심이 가득하다. 그에게 사역을 감독하면서 사역에서 밀착 관리 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면 끔찍이 싫어한다. 모름지기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 이러한 일이다. 이는 본직 사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 리더 일꾼이 되려는 것이냐?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감투를 쓰고 지위의 복을 누리려는 것이냐? 감투를 쓰기 위해 리더가 된 것이라면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인격이 가장 비천하고 존엄도 없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육적인 안일을 누리고 싶다면 속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 능력껏 경쟁하고 빼앗고 쟁취해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며,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 구원받는 곳이지, 육적인 안일을 누리는 곳도, 더욱이 사람이 안일하게 지내는 곳도 아니다. 거짓 리더 부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고 이성이 없다.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분배해 주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까맣게 잊어버린다. 입으로 대답은 그렇게 잘 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 정말 부도덕하지 않으냐?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혼자서 대권을 독차지하고 재무와 인사 각 방면의 권리를 손에 넣고 주무르면서 사람들이 매일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그는 이런 일에는 참 부지런하다. 상부에 사역을 보고할 때는 형제자매의 사역 성과를 자기 것으로 돌려서 상부에서 그가 사역을 잘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발탁되어 양성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직책에서 해임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제명되었는지 등, 이런 구체적인 사역 중 어느 하나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면서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보고한다. 이는 후안무치한 것이 아니냐?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류는 너무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는 그래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이건 정말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 자신을 드러내 도태시키는 것이다.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다하지 못하니, 이는 폐물 아니겠느냐? 이런 자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보, 지적 장애인, 각종 신체장애자 외에 누구든 살면서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잔꾀를 부리면서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 자질과 은사를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본분 이행에 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잘 누리려고만 한다. 이런 부류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역을 시켜도,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든 평범한 사역이든, 혹은 어려운 사역이든 간단한 사역이든 그는 다 건성으로 임하며 잔꾀를 부린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루려 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기생충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런 자는 쓸모없는 폐물 아니겠느냐? 사회에서 자기 힘으로 생존하지 않는 자가 있더냐?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부모의 책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설령 부모가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며, 부모는 자식의 양육 사명을 다했고, 자기는 이제 성인이고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 충분히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성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이성 아니겠느냐? 만약 정말 이성이 있다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계속 부모에게 빌붙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일하기는 싫어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늘 공밥을 먹으려 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입안으로 굴러 들어오기만 바란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삼시 세끼 잘 먹고 마시도록 챙겨 주기를 바란다. 이는 기생충의 사고방식이 아니겠느냐?

기생충에 속하는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인격과 존엄이 있겠느냐? 절대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남에게 빌붙어 사는 못난이로, 양심과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집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

만약 교회에서 네게 어떤 사역을 안배해 준다면,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사역을 하면서 남들 앞에 나설 수 있든 없든 제게 주어진 일이면 제대로 해내고 책임을 짊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섬김 본분을 안배한다면 온 힘을 다해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안배한다면 진리를 잘 갖춘 다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도록 안배한다면 열심히 배우고 죽어라 공부해서 되도록 빨리 1, 2 년 안에 외국어를 제대로 익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열심히 연습하며 진리 원칙에 근거해서 일을 바라보고, 언어 지식을 공부할 것입니다. 설령 미사여구가 뛰어난 글은 못 쓰더라도 최소한 저의 체험 간증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진리를 알기 쉽게 교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도움과 유익을 얻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든 저는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사역을 책임지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할 것이며, 진리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온 힘을 다해 제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제 몫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 양심과 이성에 어긋나거나 건성으로 임하거나 몸을 사리거나 다른 이의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양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최소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공밥을 먹지 말고 네 하루 세끼의 값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두고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 자질이 좋든 나쁘든, 진리를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너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사역을 나에게 맡겼으니 열심히 해야 해. 항상 이 사역을 신경 쓰며 마음과 힘을 다해 제대로 해내야지. 100% 잘 해낼 거라는 장담은 못 해도 내 태도는 온 힘을 다해 잘 해내도록 노력하는 거야. 절대 건성으로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 사역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 제대로 본분을 이행해야겠어.'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이다.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갖추었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사역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꼭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크게 압박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요? 어쨌든 저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공짜 밥을 먹은 것도 아닌걸요." 본분을 이행하는 이런 태도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렇게 진지하게 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본분을 대할 때 책임지려는 마음도 없고, 책임감도 강하지 않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만약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내가 해부한 이 부류의 거짓 리더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저 그럭저럭 사는 것이다.

‘피곤하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많이 즐기자. 설령 어느 날 교체된다 해도 별로 잃을 건 없어. 최소한 며칠은 지위의 복을 누렸으니 손해 본 건 아니지. 나더러 리더를 하라고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냐?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불신파이다. 만약 네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너란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다는 뜻이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시킨 일이든, 하나님 집에서 맡겨 준 일이든, 교회 리더 일꾼이 시킨 일이든 너는 이런 태도여야 한다. ‘본분을 나에게 맡긴 이상 그건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진리 원칙에 따라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비록 내 자질은 보통이지만 나는 이 책임을 짊어지기 원하고 최선을 다해 본분을 잘 이행하고 싶습니다. 잘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잘 이행하더라도 그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를 왜 원칙적인 문제라고 하겠느냐? 만약 너란 사람이 정말 책임감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너는 교회의 사역을 짊어질 수 있고, 네가 이행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만약 네가 본분을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관점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고 본분을 대하는 너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관점은 바로 건성으로 대하고 어영부영 넘기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네가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너는 모든 일을 대충 때우는 태도로 대한다. 그렇다면 너는 리더 일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내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겠는데 너 같은 부류가 바로 못난 인간이고 결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폐인이다. 폐인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폐인은 어리석은 사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책임감을 갖지 않고 진지하게 임하지도 않으며 엉터리로 처리한다. 또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렇게 되는대로 살 거야. 무슨 상관이야! 당장 본분을 이행하면서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이야. 적어도 구걸은 안 해도 되잖아? 먹을 게 없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지 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나더러 양심도 이성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때?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기껏해야 인품이 좀 나쁠 뿐인데. 내가 무슨 손해를 본 것도 아니잖아.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이 어떠하냐? 말해 두겠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도태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자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무릇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체험 간증이 없는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폐물이나 못난이는 전부 공밥을 먹는 자들이니 반드시 도태될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공밥을 먹는 자라면 더더욱 교체되고 도태되어야 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리더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는 자격이 없다! 실질적인 일을 전혀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리더가 되려고 한다니, 정말이지 염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교체된 어떤 리더 일꾼은 이런 말을 한다. “리더 일꾼을 안 하니까 정말 좋아요. 그렇게 근심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평범한 형제자매가 되니까 정말 좋은데요. 그런 걸로 뭣하러 신경 써요? 힘들게 일하려고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누군가 “리더 일꾼을 안 하면 뭘 하실 건가요?”라고 하자 그는 “너무 피곤하거나 큰 힘을 들이지만 않으면 뭐든 괜찮아요. 가볍게

가서 둘러보거나 앉아서 얘기만 하는 것도 좋고, 컴퓨터를 보는 것도 좋아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육적으로 고생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라고 대답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선출된 리더 일꾼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너희는 속으로 어떤 기분이겠느냐? 무척 후회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떤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 너는 말할 것이다. "그때 당신이 자질이 좀 있길래 당신을 발탁하고 양성해서 기회를 주고,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간일 줄은 몰랐죠. 그때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후회되네요. 사람이 아닐 줄은 몰랐지 뭐예요. 당신은 개돼지만도 못한 폐물이에요. 인간의 탈을 쓸 자격도 없고 사람이 될 자격도 없어요!" 이 말이 듣기 거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북하지 않지만 이런 폐물이 듣기에는 아주 거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폐물 같은 인간들은 마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 나쁜 말을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고 편안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든,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하든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그의 명언이다. 이런 자는 폐물이 아니냐? 네가 뭐라고 하든 그는 지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않는다. 왜 마음에 담지 않느냐? 그가 마음이 없는 건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존엄성이 없고 인격이 없으며, 네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매서운 말을 해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 오직 존엄성과 인격, 이성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한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처신하는 건 저열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엄성을 잃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 존엄성을 되찾자. 자존심을 지키고, 존엄성 있게 살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 그의 아픈 곳과 약점을 찌르는 말에 대해 지각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지각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긍정적인 사물을 본 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때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는 존엄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달이나 폐인들은 존엄성이 없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말해도, 네 말이 아무리 옳고 정확하고 진리에 부합해도, 그 말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는다. 존엄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사물, 어떤 정론과 폭로에도 아무런 지각이 없고, 어떤 인생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가 없다. 따라서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폭로하고 정의하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설교하는 것이 소용이 있느냐? 책망과 훈계가 소용이 있느냐? 심판과 형벌이 소용이 있느냐? 소용없다! 이런 부류는 폐인에 해당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짐승에 해당하는 인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이런 못난 인간, 기생충이 만약 교회 리더를 맡으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선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분명 그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리더 사역을 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리더 일꾼을 하려면 최소한 교회 사역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 훈련해서 체험이 좀 생기고, 나아가 진리를 조금 교제하고 체험 간증을 조금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리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자는 거짓 리더에 속하므로 그를 교체하고 리더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리더라면 적어도 진리를 조금 깨닫고 실제적인 체험도 조금 있어야 한다. 체험이 조금도 없다면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리더를 맡은 어떤 사람은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데만 능하고,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거짓 리더 역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지만 진리 원칙을 교제해 내지 못하고 오직 공허한 이론만 얘기할 뿐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다. 갓 듣고 나서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무척 공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실행의 길이 없고 실행 원칙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한 셈이냐? 여전히 건성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냐?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관리 노릇을 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런 자가 리더가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 그는 "신임 관리는 부임하자마자 눈에 띄는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먼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몇 가지 일이나 생활 혜택과 관련된 몇 가지 일을 하여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준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로 보여지게 하고, "그는 우리의 부모 같은 리더다!"라고 칭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자리에 오른다. 그는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위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지위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 격언은 바로 "세상을 사는 데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괴롭고 짧으니, 어찌 제때에 즐기지 않겠는가?",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취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오늘 하루 누렸으면 그만이고 한순간 즐겼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 리더가 마땅히 어떤 책임과 본분을 이행해야 할지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저 형식적으로 글귀와 도리를 읊어 대고 체면을 세우는 일을 약간 할 뿐,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다. 교회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들을 파고들어 철저히 해결하지도 않는데 그런 표면적인 일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이런 거짓 리더 부류의 인물에게 중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들이 리더 일꾼을 선발하는 하나님 집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겠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말의 양심과 이성조차 없으며, 조금의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감투를 쓰고 리더가 되고자 한다. 어찌하여 염치를 모르는 것이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질이 부족하면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책임감조차 없는 폐인은 리더가 될 자격이 더더욱 없다. 먹는 것만 밝히고 일은 게을리하는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어느 정도로 게으르겠느냐?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말재간이 있고 자질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교회 사역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사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문제가 갈수록 많아져도 내버려둔 채 상관하지도 않고,

여전히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일만 계속해 나간다. 그로 인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교회 사역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거짓 리더가 상부에 보고하겠느냐?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 상부에 그의 문제를 보고하려 하면 그가 동의하겠느냐? 틀림없이 억압하고 봉쇄해서 누구도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문제를 보고하면 그는 그 사람을 제재하고 억압하고 격리할 것이다. 너희가 볼 때 이런 거짓 리더는 너무 비열하지 않으냐? 그는 교회 사역에 어느 정도로 해를 끼치든 상부에서 모르게 할 것이며 더욱이 상부에서 나서서 해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지위의 복을 누리는 일만 신경 쓰고, 자신의 허영과 체면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사람은 비열하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양심도 온데간데없고 인성도 없지 않으냐?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문제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둘러대는데, 이는 위아래를 속이는 짓이 아니냐? 교회 사역에 그토록 많은 문제가 쌓였는데 그는 본인이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안일을 즐긴다. 하루 종일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되는대로 살고 전혀 속을 끓이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지고 상부에서 추궁하기 시작해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역을 하도록 사람을 안배했으니 제 책임은 다한 거죠. 제대로 못 한 건 다 그 사람들 탓이지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한 마디로 책임을 깨끗이 미루는데 마치 자기는 조금도 책임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속 편하게 이런 소리를 한다. "어쨌든 저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한가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짜 밥을 먹지는 않았다고요. 상부에서 교체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리더를 하겠습니다. 제가 리더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네가 그를 책망한다 해도 그는 수많은 이유를 대며 너를 반박할 수 있다. 그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성질인지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너무나 역겹지 않으냐? 교회 사역을 마비시키고 하나님 선민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해를 끼치고도 속으로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 그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에게 그래도 일말의 양심과 이성이 있느냐? 누군가는 말한다. "이런 사람은 리더로 선출하면 안 됩니다." 이치는 그렇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된 리더 일꾼 중에 이런 사람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 선민들에게 분별력이 없어서 벌어진 결과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무골호인을 좋아해서 일부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을 선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 선거 전에는 반드시 리더 일꾼을 선출하는 원칙을 많이 교제하고, 또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을 분별하는 원칙도 교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 선거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너희가 볼 때 이런 비열하고 뻔뻔한 건달이 리더 일꾼을 하면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교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 하나님 선민들이 마주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리더를 만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 누군가 "저희는 자질이 부족해 분별할 줄 모르니 거짓 리더를 만나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말이냐? 교회에 자질이 부족하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만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 적어도 상대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몇 명은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를 발견한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교제해서 그에게 분별하고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네, 적절합니다.) 어째서 적절하겠느냐? 교회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 교회에 있는 하나님 선민들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거짓 리더가 교회를 3~5 년 통제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는 데 영향을 받겠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지장을 받겠느냐?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는 모든 하나님 선민들에게 큰일이므로 마땅히 제때 폭로하고 고발해서 사역이 지체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교회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나님 선민이 입는다. 만약 하나님 선민들이 폭로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다. 만약 너희가 속으로 늘 '어쨌든 당신이 리더잖아요. 당신이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그 때문에 교회 사역을 그르쳐서 상부에서 당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건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책임자도 아닌데. 그 책임은 다 당신한테 있죠.'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속으로 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진리를 추구하고 실제에 진입해서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만약 교회 사람들이 모두 무책임하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과연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더욱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이런 관점이라면 그 교회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 지금 영화 제작팀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냐? 너희 리더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는데 그가 거짓 리더임을 너희는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가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너희는 그것이 문제임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무척 기뻐한 것은 아니냐? '리더가 문제를 보고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덕분에 좀 쉴 수 있으니 너무 좋은데! 게다가 최근에는 상부에서 이 일을 직접 물어보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문제를 보고할 필요가 없지. 굳이 일을 만들어서 뭐 해? 영화를 꼭 그렇게 빨리, 시간에 맞춰 다 찍어야 하나? 지금 진도도 괜찮은데, 뭐! 다 못 찍으면 어때? 그렇다고 정죄할 수 있나?' 너희는 이런 태도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집의 사역에 그렇게 엄격한 시간표가 없으니 무기한 연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상부에서 물어보지 않고 추궁하지만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고,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째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냐? 거짓 리더가 너희를 통제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너희에게 '미혼탕'을 먹여서 정신이 흐려지고 말도 못 하게 된 것이냐? 이것은 무엇이 문제이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가 알 수 있느냐? 모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심각한 직무 유기이며, 본분에 전혀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서 일해서 돈을 벌 때도 몇 푼 임금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더군다나

너는 오늘날 하나님 집의 밥을 먹고 있으며, 본분을 이행하면서 구원받기를 추구하고, 너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길을 닦고 예비하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너는 하나님 집을 위해 하는 것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조금 듣기 좋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복을 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기 위해서이다. 너는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어리석게 굴면 안 된다.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네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고, 네 조상을 빛내고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고, 창세 때부터 너를 말세에 태어나도록 예정했다.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으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공급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피조물인 너에게는 가장 좋은 구원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이다. 만약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 손으로 이 기회를 망친다면, 결국 네가 재난 속에 떨어져 징벌을 받든, 슬피 울며 이를 갈든 그것은 자업자득이고 마땅한 일이다! 너 자신을 탓해야 한다. 네 책임을 다른 사람이 너 대신 감당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책임 역시 네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 네가 오늘날 걸어가는 길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최후의 결과 역시 오직 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말, 너희에게 알려 줘야 할 것을 너희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명확히 얘기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너희의 몫이다. 나는 너희의 사사로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그 이상의 사역은 조금도 더 하지 않는다. 너는 너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 아니냐? "이 많은 문제를 리더도 보고하지 않으니 저도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속이 좁은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네가 알았으면 네 책임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 구하고 교제해서 과연 어느 방면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피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다. 토론을 좀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얼른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누가 보고해야 하느냐? 네가 자진해서 나서야 한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안 되면 대표를 몇 사람 찾아서 같이 보고하죠."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 "리더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그는 사람의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습니다. 사람 탈을 쓴 짐승이니 한쪽으로 차 버리고 교체해야죠! 그가 문제를 보고하지 않으니 우리가 보고해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시죠. 만약 자신의 책임임을 알면서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상 너를 무엇으로 대한다는 말이냐? 개돼지로 대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러고도 너를 구원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네가 좋은 종착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네 본분 이행도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 길은 네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달렸고, 네가 어떻게 걷는지에 달렸다. 네가 어떤 길을 택하고 결국에 어떤 결과를 얻든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다. 아무도 네가 걷는 길과 네가 초래한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너희는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룬다.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는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양 말이다. 이는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교회 사역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영리한 행동이겠느냐, 어리석은 행동이겠느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리더 일꾼은 능구렁이 아니겠느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자들 아니겠느냐? 문제가 생겼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이는 양심 없는 사람 아니겠느냐? 교활한 사람 아니겠느냐? 교활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절대 교활한 사람이 되지 마라. 문제가 닥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이런 행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오죽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 정죄되고 저주받는 짓이고, 하나님 선민들에게 혐오받고 버림받는 짓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며, 간사한 사람, 교활한 사람을 혐오한다. 네가 교활한 사람이 되어 농간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혐오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너를 용서할 리 있겠느냐? 언젠가는 너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활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더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 어리석게 군 것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 만약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고집불통이다. 정직한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안다. 그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지킨다. 또 마음이 정직하고 선량하며, 한 그릇의 맑은 물처럼 한눈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런 사람은 일 처리도 투명하다. 간사한 사람은 늘 농간을 부리며 늘 꾸미고 숨기고 가리면서 자신을 아주 빈틈없이 포장해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한다.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감찰할 수 있다. 하나님 눈에 네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교활한 인간이고, 좀처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간사한 수작을 부리며 마음을 보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고 포기할 것이다. 이방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같이 꿍꿍이가 가득한 사람, 몹시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고, 영락없는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자는 바로 마귀, 즉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부류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말을 할 때 항상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일을 처리할 때 늘 분위기를 보면서 처세에 능한 사람, 내가 알려 주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이런 사람은 구제 불능인 사람이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전부 사람을 기만하는 마귀적인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 사탄이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해 보아라, 간사한 사람,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혐오하고 버리며,

한쪽으로 제쳐 두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짐승과 같은 부류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눈에 이런 자들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 본질적으로는 마귀 사탄 부류의 자들이고,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내적 상태일까? 그들은 마음이 어둡고 진실한 믿음이 없다. 어떤 일을 만나도 깨우침과 빛 비춤이 없고, 재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의지처가 없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다. 양심과 이성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으려 해도 통제가 되지 않고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쫓겨나고 도태된 후에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비록 본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결과임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겉으로는 어느 정도 본분을 이행할 수 있지만 농간을 부리고, 본분에 눈에 띄는 효과도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런 자들이 과연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양심과 이성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교활한 자, 악인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의미도 이미 상실했고,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종일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는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한다.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여 진리 실제에 진입해야만 진리를 얻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얻은 것이다. 진리를 얻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절대 거짓 리더를 따라 배워서는 안 된다. 글귀와 도리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책임감이 없고 건성으로 임하다 결국 도태될 것이다. 본분 이행은 작은 일이 아니다. 본분 이행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낸다. 하나님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드러내는 일관적인 모습을 근거로 사람의 결말을 규정한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도태된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 교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 집의 태도를 의미한다. 당연히 이 부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쓸모없는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바로 버림과 정죄, 도태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위의 복을 탐내며 거짓 리더가 되기 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뒤 만나는 일 중에는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냐? 가장 큰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이 제명되거나 출교되었고, 하나님에게 드러나 도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은 뒤 이런 일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적어도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한다. 즉, 우선은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고 절대 건성으로 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네가 사람인 이상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효도나 부모 부양, 가문을 빛내는 것 등은 말할 가치도 없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공허하며,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그럼 한 사람이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무엇이겠느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충 형식만 취하는 데 만족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글귀와 도리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하여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매사에 진리 원칙대로 해야만 진실로 책임을 다한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형식만 따르는 것은 건성으로 임하는 것이다. 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네가 책임을 다하면, 이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이러한 책임감과 의지, 바람을 갖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책임감조차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건달이나 멍청이로 보아 경멸할 것이다. 사람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너를 존중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 무시할 것이란 의미이다. 이를테면 네가 어떤 사람을 한동안 접하면서 봤더니 말이 과장되어 현실성이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허풍 떨고 큰소리치는 걸 좋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존중할 수 있겠느냐? 섣불리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가 어떤 이유로 네가 맡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너는 섣불리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할 것이다. 속으로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또 그와 교류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만약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평생 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교류하다 보니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에게 일을 맡길 경우, 지나가듯 던진 한 마디도 마음속에 새기고, 방법을 강구해 가며 일을 제대로 해서 너를 만족시키고, 네가 부탁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 후로도 너를 보기 미안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리더 일꾼이든 상부에서든 자기에게 말 한 마디를 하거나 어떤 일을 맡기면 이렇게 생각한다. '나를 이렇게 믿어 주는데 이 일은 꼭 잘해야지. 실망시키면 안 돼.' 양심과 이성을 갖춘 이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네 마음에 들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가 너를 위해 몇 가지 일을 매우 열심히 처리했고 네가 요구한 바를 완전히 충족시켰다면 너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감탄하고 존중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겠느냐!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이 교회 사역,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느냐? 첫째, 그가 직책을 다하고 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잘 해내기를 바란다. 둘째,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를 바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책임감이 변하지 않고, 그의 인격이 검증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더는 그 일을 감독하거나 밀착 관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있으며, 그 일을 그에게 맡기면 차질없이 임무를 완수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또 하나님 눈에 들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속으로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자신의 모습과 행위, 그리고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똑똑히 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안다면, 그래도 하나님에게 너를 눈여겨봐 달라고 요구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를 편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조차 너 스스로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사람들 마음에 들고 인정받고 싶다면 최소한 존엄과 책임감을 갖고 신용을 지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거기에서 나아가 직책을 다함으로써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해내기 어려운 일이냐?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일하고 어울리려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이만한 요구가 지나친 것이냐? (아닙니다.)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당한 것이다. 다만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계속 하나님에게 요구만 할 뿐이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양심과 이성에 따라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느냐? 정말 직무와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네가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런 것이 사람이 노력해야 할 방향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향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노력해야 할 방향이다.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추구한다면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리더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게 하는 일에 개념이 있느냐? 태도가 있느냐? 분명 없다. 그들은 되는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오만불손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태도는 심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척이나 혐오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생활하도록 안배한 것, 하나님의 부탁과 사역, 자신의 본분을 대할 때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되는대로 살려 하고 어떤 일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부류를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 대해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절대 이런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가 리더이든 아니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야심과 욕망이 있든 없든 너는 먼저 사람됨을 배워야 하고 절대 건달이나 망나니, 양아치 같은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처신할 때 단정한 태도를 갖추고 존엄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할 수 있다. 네가 이런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면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

2021 년 4 월 3 일

리더 일꾼의 직책(9)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지금까지 리더 일꾼의 직책을 총 여덟 가지로 교제하고 각각의 항목에 맞춰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해부하였다. 이를 통해 너희는 거짓 리더에 대해 분별이 생겼느냐? 만약 네가 리더가 된다면 거짓 리더의 이런 행동 방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의식적으로 내가 교제한 몇 가지 항목에 따라 사역하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한 교제를 통해 너희는 리더 일꾼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사역을 할 때 어떤 세부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속으로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자질이 충분하고, 일정한 사역 능력이 있고, 거기다 부담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 리더의 이런 모습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질이 있고 일정한 사역 능력도 있지만 부담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준에 맞는 리더가 되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가령 어떤 리더가 부담이 있고 인성도 괜찮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모르고, 아무리 교제해도 구체적인 사역을 대체 어떻게 시행하고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며, 원칙과 방향을 찾지 못한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와 사역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든 무척 수동적이고 느리다. 이런 사람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비록 이런 사람은 마음이 뜨겁게 불타고 사역을 하려는 부담도 있지만,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사역 능력도 갖춰져 있지 않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사역에 참여해도 형식적일 뿐 아주 무디고 무감각하고 수동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많은데 정작 손을 대지 못한다.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어떻게 교제로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상부에 문제를 보고하여 해결책을 구하는 일조차 못 한다. 따라서 그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없고, 설령 리더로 선출되더라도 좋은 리더가 아니라 거짓 리더가 될 것이다.

리더 일꾼의 여덟 가지 직책에 대해 교제하고 나서 너희는 거짓 리더를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 리더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고 있는지, 거짓 리더인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가늠해야 하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다음에는 그가 사역을 잘하려는 부담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글귀를 얼마나 아는지 보지 말고, 그가 겉면의 일들을 할 때 어떤 재능과 은사를 보이는지도 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그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람을 진리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사역이다. 만약 이 몇 가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자질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며 아무리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더라도 그는 거짓 리더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한 게 없지만, 그는 자질이 좋고 능력이 있어요. 한동안 훈련을 받으면 분명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거나 방해하고 교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짓 리더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말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느냐? 너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든, 너의 자질과 학식이 높든 낮든 네가 얼마나 많은 구호를 외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글귀와 도리를 알 수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 또한 네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함에 지쳐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보지 않는다. 오직 네가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하는지, 사역지침을 정확하게 시행하는지, 또한 네가 리더를 하는 동안 자기 책임인 모든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했는지, 실제적인 문제를 대체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너의 인도와 지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원칙을 깨달았는지, 교회 사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진전되었는지, 바로 이런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본다.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 네가 높은 곳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역을 밀착 관리 하고 지도하는지를 본다. 또한 네가 본분을 이행할 때 생명 진입이 있는지,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진리 실행의 증거가 있는지, 하나님 선민의 실제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등도 본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이런 기준이 실제적이지 않으냐?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으냐?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다. 네 학력이 어떠하든, 네가 젊은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네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든,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네가 리더로 선출된 후 교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효율은 어떠한지, 각종 사역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전되며 지체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때 주로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

이상의 교제를 통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거짓 리더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도 정확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한 사람이 거짓 리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으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주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는 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이다. 기억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리더도 아닌데 그걸 뭐 하러 기억합니까?"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지 않으냐? 이 진리들을 깨달으면 한 측면으로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타인을 분별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깨닫고 갖춰야 할 진리이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우선 너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근거로 자신이 리더가 될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갖추지 못했다면 리더가 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리더가 되려 하는 것은 야심이며, 리더가 된다 해도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거짓 리더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자질도 괜찮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죠.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훌륭하고 괜찮은 제안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요령도 있고, 지식과 식견, 경력도 상대적으로 풍부한데 그렇다면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책임감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보아라. 만약 네가 어떤 일에 대해 단지 견해만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저

바람만 있을 뿐, 눈만 높고 실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노력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떤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머리와 마음을 늘 비우고 싶고,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좋아하며, 신경 쓰고 바쁘게 지내는 걸 싫어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게 두렵다면 너는 리더를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리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리더가 합당한지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즉,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가 그 기준이다. 사람이 만약 이 두 가지 기준을 알면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리더가 된 후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 책임을 완전히 다할 수 있는지, 기준에 맞는 리더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리더 일꾼의 경우, 속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길과 원칙이 생겼느냐? 너희는 리더 일꾼의 여덟 가지 직책에 대한 교제를 통해 무엇이 거짓 리더의 모습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리더 일꾼은 과연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사역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네가 어떻게 리더 일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다면 그것은 자질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 밖에 거짓 리더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전혀 모른다면 이것은 더더욱 네 자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한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제를 듣더라도 진리를 향해 노력하려는 의지도 없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려는 의지도 없어서 아예 이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누가 거짓 리더이든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내가 리더가 되면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가 설교를 듣는 것은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지만 여기서 교제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는 정리하기도 귀찮아하고 마음속에 담아 두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분별하려면 너무 번거로워. 어쨌든 나는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긴 하지. 악을 행하지 말고, 방해와 교란을 저지르지 말고, 앞장서서 일하지만 않으면 돼.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만 살면 훌륭하지. 나는 자신에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 그를 바꿀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교제해도 그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그에게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고 영향이 크지 않다. 이런 부류는 되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어떤 일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여덟 가지 직책은 말할 것도 없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전부 교제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원칙과 길도 도출해 내지 못한다. 이런 부류는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와 그 어떤 긍정적인 사물에도 관심이 생기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는 어느 정도 흥미가 있다. 리더 일꾼의 여덟 가지 직책에 관한 교제를 통해서 한 측면으로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정리하고, 또 리더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거짓 리더의 일부 구체적인 모습을 정리해 보았다. 방금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두 가지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리했는데, 한 가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느냐이고, 또 한 가지는 진리 원칙을 깨달은 후에 실질적인 사역을 하느냐이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방법이다.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1)

사역지침의 정의와 구체적인 항목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인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에 대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항목 전체를 보면 리더 일꾼에 대한 요구는 어떤 일을 시행하는 것이냐?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입니다.) 이 항목의 핵심은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리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리더 일꾼이라면 그 직급에 관계없이 사역지침을 접하게 되고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이 구체적인 사역을 접하게 된다. 각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일은 모든 리더 일꾼의 사역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무척 중요하고 구체적이며 기본적인 사역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먼저 사역지침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지침이란 무엇이냐? 사역지침의 범주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사역지침의 범주는 교회 사역에 관계된 항목과 내용들이잖아요? 이 사역 항목과 내용들을 안배하고 하달하는 것이 사역지침이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떠냐? 글귀와 도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글귀와 도리가 무엇이냐? 듣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 설명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먼저 사역지침에 대해 문자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심어 주고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과연 무엇이 사역지침인지 이해하고 파악하게 할 것이다. 사역지침은 어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하나님 집의 구체적인 배치와 요구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전달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달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요구, 임무,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역지침에 대한 정의이다. 사역지침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항목'이라는 명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항목의 범위 안에 무엇이 있냐고 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복음 사역도 있고 영화 제작 사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항목이다. (또 교회 생활 방면의 몇몇 요구와 교회 행정 기구의 설립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이 있느냐? (교회 정리 사역과 교회의 관리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교회의 행정 사역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행정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은 없다. 두 번째는 인사 관련 사역이며,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세 번째는 복음 사역으로, 역시 중요한 사역이다. 네 번째는 각 업무 사역인데 이 사역은 범주가 조금 크다. 영화, 문서, 번역, 음악, 영상 제작, 미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교회 생활, 여섯 번째는 재물 관리 사역, 일곱 번째는 정리 사역, 여덟 번째는 외부 업무이다. 아홉 번째가 교회 복지인데,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집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해결하고 뭔가를 하는

것, 수감된 형제자매를 면회하는 것, 그들의 가정을 돌보는 것 등이 교회 복지에 해당한다. 열 번째는 응급 대책이다. 가끔 교회에서 응급조치를 하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하면 교회에서 그에 대응하는 격리 제도를 채택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다 응급 대책 분야의 사역에 해당한다. 사역지침은 기본적으로 이 열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일부 작은 항목, 혹은 특수한 상황은 모두 이 열 가지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사역은 이 열 가지 주요 항목이다. 하나님 집에서 발표한 각 사역지침의 범주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항목들을 확인한 뒤에는 다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집의 주요 사역 항목이고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한 하나님 집의 요구 범위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은 곧 리더 일꾼으로서의 너의 사역 범위, 네가 다해야 할 책임은 사역지침에 포함된 이 항목들을 벗어나지 않으며 어느 항목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역 이외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하면 된다. 하나님 집에서는 네 본분 이행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역하는 동안 너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네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인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잘 시행했는지, 지금 진행 정도는 어떤지, 네가 밀착 관리 했는지,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역이 있는지, 무슨 편차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사역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속으로 늘 생각해야 한다. 사역지침에 포함된 구체적인 항목을 알고 나서 이 항목들에 관한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역들은 우리가 이미 몇 년씩 접하면서 다 이해했으니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 다른 중요한 것을 교제하시죠.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니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니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텐데, 비교적 생소한 항목,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고 조금은 추상적인 항목을 골라서 교제해 보기로 하자.

1. 행정 사역

우선 첫 번째 행정 사역부터 교제해 보자. 행정 사역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은 사람은 교회의 형성과 교회의 행정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행정은 하나님이 선포한 행정 법령과는 다르다. 이 행정 사역은 주로 교회 설립 사역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구분 방식, 한 교회의 인원수, 교회를 명명하는 방식 등이다. 과거 사역지침에서는 교회를 자연 지리적 환경에 따라 나눈다고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30~50 명을 단위로 교회를 나누었다. 예를 들어 A교구에는 3, 4 개 마을이 있고, 이 몇 개 마을 신도가 50 명이 될 경우 이들이 교회 하나를 이룬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가 있고, 교회 리더와 집사도 있고, 구체적인 교회 사역도 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일괄 관리된다. 이것이 교회의 구분과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다. 동시에 이 교회는 소재한 지역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의 교회 생활, 리더와 집사의 적절성 판단, 하나님 말씀 책 배포, 각 사역지침의 시행, 상부의 요구 사항 전달 등 각 사역을 이

지역에서 책임진다. 여러 교회가 하나의 지역을 이루고, 여러 지역이 교구를 이루고, 교구는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은 교회를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행정 단위이다. 하나님 집에는 이 방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모두 정해 놓았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행정 사역이며, 리더 일꾼의 직책에는 이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냐? 바로 사역지침에 따라, 자연 지리적 환경과 위치에 따라 교회를 나누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 교회는 인원수와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교회의 인원수가 50 명에서 80 명으로 늘어나면 교회를 둘로 나누어야 하고, 80 명에서 150 명으로 늘어나면 셋으로 나누어야 한다. 만약 한 교회가 7, 80 명, 혹은 백 명으로 늘었는데 여전히 둘로 나뉘지 않았다면 이 교회의 리더 일꾼은 하나님 집의 행정 사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리더 일꾼은 이 방면에 관한 사역지침을 한번 읽어 봐야 한다. 교회 사역지침 책자에 구체적인 규정이 다 나와 있다. 만약 교회를 새로 나눈다면 각 교회는 반드시 교회 리더, 집사 등 필수로 두어야 할 리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교회의 인원수, 그리고 교회 성립의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행정 사역이며,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나님 선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성립된 뒤에는 리더 일꾼이 이 교회의 모든 사역,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책 배포, 교회 인원 관리, 사역지침을 시행해서 그들이 사역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일 등을 책임져야 한다. 행정 사역은 주로 교회 설립에 관한 사역이며, 교회의 행정 기구와 행정 인력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 사역의 구체적인 항목이다. 이 사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접하겠느냐? 새 신자 교회, 복음팀, 또 복음 확장 구역의 교구 리더, 지역 리더, 교회 리더가 비교적 많이 접할 것이다. 그 밖에 행정 사역에는 특수한 사역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교회를 풀타임 본분 교회와 파트타임 본분 교회, 일반 교회, B조로 나누는 것도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 중 하나이다. 교회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리더 일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교회를 나누는 원칙은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의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 풀타임 본분 이행자와 파트타임 본분 이행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도 특수하고 구체적인 행정 사역에 해당한다.

2. 인사 관련 사역

두 번째는 인사 관련 사역이다. 이 사역은 각급 리더 일꾼의 선거, 임명과 교체에 관한 사역이다. 선거 제도, 리더 일꾼으로 선출할 사람, 선거 방식과 구체적인 요구는 사역지침에 모두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때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리더 일꾼을 선출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발탁하고 지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리더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파악하고, 교제하고, 간단히 심사한 뒤에 임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상부에서 중요한 사역을 안배하거나 책임자 몇 명을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특수한 사역지침이다.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더 있다. 어떤 사람이 상부에 서신을 보내 모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보고할 경우, 상부에서는 확인을 거친 후 사역지침을 하달해서 보고된 사람을 교체한다. 이것도 인사 관련 사역에 관계된 사역지침이다. 어쨌든 인사 방면의 사역은 교회의 각급 리더 일꾼에 대한 선거와 임명, 교체를 가리킨다.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역이다.

3. 복음 사역

세 번째는 복음 사역이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 집에서 행정 사역과 인사 관련 사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체적 업무 사역이다. 이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 집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역지침을 제시했는데, 특히 복음 전도 대상자, 복음 전도의 지리적 범위, 복음 전도 방식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복음 전도에 필요한 각종 하나님 말씀 책, 영상 작품,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나아가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념과 그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집에서는 사역지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두로, 말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다. 복음 사역은 줄곧 진행 중이며 계속되고 있다. 복음 사역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 집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역지침과 규정을 마련했고, 복음 사역자, 복음 집사, 복음 사역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임무를 하달하기도 했다. 비록 나중에 복음 사역의 안배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교회에서 이 방면의 진리를 교제할 때는 너무나 많다. 특히 복음이 해외로 확장된 뒤 언어별 번역 사역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는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제시했다. 이 사역은 번역자와 각 외국어가 가능한 복음 전도자가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하나님 집에서는 이 분야의 인력을 적잖이 투입해서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부합한다. 요컨대 상부에서 복음 확장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직접 지도하고, 물어보고, 밀착 관리 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이 이 사역에 대해 다해야 할 책임은 무엇이냐? 복음 사역 책임자가 생기면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관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모른 체하면서 '사역이 될대로 되라지 뭐. 어쨌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교회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각 업무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복음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관여하지 않아.'라고 생각해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 유기다.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 가운데 리더 일꾼이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이다. 네가 이 사역을 직접 책임지고 있지 않더라도 복음 사역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고 진행 상황이 어떤지는 반드시 물어봐야 하고, 반드시 밀착 관리 하고 알아보고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일부 중요한 인력들, 예를 들어 복음팀의 복음 증거자, 양육자, 복음 사역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야지 사역 배치만 끝났다고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복음 확장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복음 증거자, 이를테면 교회 내 복음 증거자, 일선의 온라인 복음 증거자, 각 팀의 양육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는 일찍부터 모든 복음 증거자, 양육자들에게 반드시 특별 훈련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 훈련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반드시 복음 증거자, 양육자가 이상(異象)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방면의 이상에 관한 진리를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자주 교제해야 하며, 자세히 깨달을수록 좋다. 하나님 집에는 이 방면의 사역지침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복음 확장 사역은 구체적이고도 복잡한 사역이다. 여기에는 많은 항목이 포함되며 각각의 사역은 모두 박차를 가해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므로 반드시 제대로 해서 성과가 갈수록 좋아져야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다. 그 밖에 영화, 문서, 음악, 미술, 번역 등 각 업무 사역은 모두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복음 사역은 모든 사역의 최전방 사역이다. 따라서 각종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직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복음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든 사역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복음 확장 사역을 중심에 둬야 하며, 복음 확장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선민이 후방에서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영화,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들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후방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복음 확장 사역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준다. 전에 하나님 집에는 영화 작품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노래나 체험 간증 영상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저 복음 사역자들이 계속 교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고 한 사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각종 영상이 만들어진 뒤로는 복음팀의 사역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으며 효율도 제고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생각이 완고하고 보수적이라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소용없다. 그가 여전히 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 간증 영화 한두 편을 보여 주면 그의 관념이 조금 달라지고 참도에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가 다시 와서 찾고 구할 때는 마음속에 커다란 걸림돌과 장애물이 없으며, 이때 네가 다시 진리를 교제하면 그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집의 영화를 보여 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거나 체험 간증 영상을 보여 주면 성과가 정말 뚜렷하다. 이 방법은 네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이다. 참도를 찾거나 알아보려 하는 사람이 누구든 먼저 영화를 몇 편 보여 주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게 해서 길을 잘 닦아 준 다음, 진리를 교제하여 관념을 해결해 준다면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 지금 참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하나님 집에서 만든 영화와 간증 영상도 많이 보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며, 구하고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참도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어떤 점을 발견했느냐? 하나님 집에서 만든 이런 영화와 말씀 낭송 영상, 체험 간증 영상, 찬양 영상 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효과가 너무나 크다! 복음 전도 대상자와 많은 말로 교제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 참도를 받아들이게 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이는 정말 든든한 뒷받침인 것이다! 복음 전도를 위한 다양한 자원은 너무나 풍부하다! 온라인에서 하나님 사역을 알아보는 많은 복음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집 웹사이트의 방대하고 풍부한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나님 말씀도 풍부하고, 각종 영화와 영상도 풍부하고, 체험 간증도 없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이는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이룬 성과이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 큰 붉은 용과 종교계가 아무리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모함해도 소용없다. 어쨌든 하나님 집의 각 사역이 맺은 결실과 이룬 성과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나님나라 복음의 확장 사역에서 하나님 집의 각 사역은 모두 질서 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복음 확장 사역은 장기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크고 험난한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책임자이든 일반 복음 사역자이든 이 사역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확신해야 한다. 비록 너희가 복음 전선에서 사역을 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너희의 후방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각종 지원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복음 확장 사역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은 복음 확장을 중심으로 하며, 모든 하나님 선민들이 이행하는 본분은 복음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들은 누구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모든 사역은 복음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긴밀하게 연결된다. 어쨌든 한마디로 복음 사역을 포함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제대로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는 복음 확장 사역이 모든 사역에 우선하며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적절하다. 이것은 중대하고 험난하고 장기적인 사역이므로 모든 하나님 선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인내와 끈기,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10, 20 년이든 30 년이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일생을 복음 확장 사역에 바쳐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중책이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부탁이기도 하다.

내가 이렇게 교제하니까 속으로 힘이 나고 복음 사역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느냐? 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기술 업무를 전혀 모르고 연기도 할 줄 몰라서 연기자도 될 수 없습니다. 기본 글쓰기 실력도 없어서 글도 쓸 줄 모르고, 음악, 미술도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복음팀에 안배되었죠. 복음팀은 하나님 집에서 찬밥 신세가 아닌가요? 그런 팀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냐? 만약 정말 그렇게 이해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복음 전도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만약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떤 기술 업무도 몰라서 복음 전도밖에 할 수 없다면 너를 복음팀에 안배해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너라는 재목이 낭비되지 않고 최대한 그 재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고, 네가 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무슨 일을 해도 어리숙하지만 복음 전도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내막을 알아보고 복음 전도 대상자를 찾도록 시켜도 착실하게 할 수 있고, 찾아낸 복음 대상자를 복음 사역자에게 넘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 뜻을 어떻게 전하는지 조금씩 배우면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문서, 영화 등의 사역을 해서 성과를 내지만 너는 이런 것을 할 줄 모르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도 없다. 하지만 네가 복음 사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네게 한 부탁을 짊어진다면 이것이 선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행이며, 하나님은 이를 기억한다. 이것은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에는 높고 낮음과 귀천이 없으며 오직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을 다하는지,

기준에 맞게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은 네가 다른 본분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너에게서 본분을 이행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차별하지 않고 여전히 너에게 부탁을 맡긴다. 따라서 복음팀에 안배된 것은 찬밥 신세가 된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며, 단지 다른 곳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복음 사역의 사역지침에 대한 교제를 통해 복음 사역에 대해 좋은 관점을 가지게 되고 오해하지 않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깨가 으쓱하겠느냐?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충성심과 진심이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 어깨가 으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죠." 네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충성심이 없고 진심이 없으면 안 된다. 네가 복음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든 네게 충성심과 진심이 있다면 너의 본분 이행은 기준에 맞을 것이다. 설령 네가 복음 전도 본분에 대해 아무리 좋은 관점, 아무리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다 해도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끈기와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보고 있으며 네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한다. 너는 복음팀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신경 쓰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거니 생각하거나 혹은 너를 복음팀에 안배했으니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옳지 않다. 너를 어디에 놓든, 너에게 어떤 본분을 안배하든 모두 네가 해야 할 일이니 마땅히 책임을 다해 해야 한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배에 대한 너의 순종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 복음 사역자의 지위는 다른 본분 이행자와 같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느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를 추구하느냐, 진리 실제를 갖추고 있느냐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이 복음 사역에 대한 교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4. 각 업무 사역

네 번째는 각 업무 사역이다. 각 업무 사역에는 영화, 문서, 음악, 미술, 번역 등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영화 제작 사역에는 우리가 의상을 제작하는 일도 포함되는데, 옷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옷을 만드는 일은 영화 사역, 음악 사역 등에 포함되며, 이들 사역을 지원하는 후방 사역이다. 이런 업무 사역에 대한 하나님 집의 구체적인 요구는 매 시기에 구체적인 사역지침이 있으며, 서면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구두상으로는 예배 형식을 통해 교제로 전달되기도 한다. 어느 방식이든 리더 일꾼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집에서 이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기록하고 정리한 다음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사역은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 복음 사역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역이다. 이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는 각 업무 인원이 계속해서 본분과 관련된 업무 지식을 배우고, 또한 자료를 찾아 어떤 것들이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하나님 집에서도 끊임없이 진리 원칙을 교제하고, 끊임없이 각 업무 사역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 사역들은 책임자, 팀원과 함께 교제할 때도 있고, 이 사역을 책임지는 리더 일꾼, 책임자와 따로 교제할 때도 있다. 문서로든, 예배 형식으로 교제를 통해 전달하든 이 사역들은 모두 끊임없이 개선되고 규범화되며, 또한 복음 사역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이 계속해서 제시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제작한 영화가 소재도 참신하고 촬영도 비교적 전문적이어서 업로드 후 조회수가 꽤 높다면, 이런 경우 하나님 집에서는 피드백에 따라, 그리고 복음 사역의 필요에 따라 이런 유형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요컨대 이 사역을 끊임없이 결산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

각 업무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 집의 지침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선생님과 각종 자료, 교재를 찾아 공부하라고 한다. 노래를 예로 들면 선생님을 찾아 배우고 성악 지도를 청하는 것, 이것도 구체적인 사역지침이다. 리더 일꾼은 이 지침을 들으면 상부의 요구대로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선생님을 데려다 우리 교회 보컬을 지도하고, 올바른 성악 지식, 올바른 창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고전적인 작품을 찾아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작곡, 합창 분야의 업무 지식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는 사람들에게 본분 관련 업무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일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응용하는 법을 배울 것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 방면의 사역지침과 요구는 한 번 하달하고 끝이 아니라 리더 일꾼이 늘 사역지침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업무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도하여 그들이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각 업무 사역이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사역지침이 오늘 하달되었으니 이번 달 안으로만 실행하면 돼. 앞으로 상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 아마 다시는 실행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리더 일꾼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주기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업무 배우는 건 어떠세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원칙에 반하거나 위배되는 부분은 없나요? 누가 가장 잘 따라가나요? 누가 가장 능숙하고, 누가 가장 빨리 터득하나요? 이 이론들을 공부해 보니 어떤 게 하나님 집 사역에 적용하기에 적합한가요?" 그 밖에도 복음팀의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질문을 해야 한다. "배운 지 몇 년 됐나요? 요즘 좀 어떠세요? 일상 회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일반적인 영적 용어는 말할 수 있나요? 복음 전도에 관계된 진리에 대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나요? 지금은 말하는 걸 더 잘해요, 아니면 쓰는 걸 더 잘해요?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하세요? 외국어 배우기에 더 적합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분야의 인원은 더 늘었나요?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서 배우기 싫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나요?" 이처럼 이 사역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수시로 질문하고 감독해야 한다. 상부에서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제시했으니 책임자는 이 구체적인 사역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수동적으로 상부에서 물어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상부에서 반년, 일 년 동안 물어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각종 사역을 잘 하고 언제든 상부의 점검과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사역지침이 하달되고 전달되었으니 책임자인 너는 책임지고 사역을 밀착 관리 해야 하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니 교체되고 도태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이런 구체적인 사역지침이나 상부의 교제 내용을 자주 꺼내어 묵상하고

교제해야 하고, 상황에 맞춰 사역을 시행하고 밀착 관리 해야 한다. 어떤 사역을 최근에 소홀히 하며 오랫동안 살피지 못했는지, 어떤 사역을 본인이 잘하지 못해서 최근에 물어보지도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근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면 가서 살펴야 한다. 각 업무 사역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는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관련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고, 발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은 이 사역지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만약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긴 한데 해당 분야의 기술적 업무에 대해 아직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양성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각 업무 사역도 중요한 사역이다. 해당되는 항목도 많고 범위도 무척 넓은 사역이기에 하나님 집에서는 이 사역과 관련하여 수많은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제시했다. 이 사역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결산하고, 심화해야 하고, 적절한 원칙을 찾아 계속해서 규범화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각 업무 사역이라는 큰 항목에 관한 사역지침이며, 이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교회 생활

다섯 번째는 교회 생활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교회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 교회 생활의 형식, 교회 생활을 하는 인원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 특수한 환경하에서의 예배 형식, 교회 생활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사역지침이 있다. 이에 관한 사역지침은 주로 서면 형식으로 하달된다. 새로 들어온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교회 생활, 예배 형식과 횟수, 그들이 먹고 마실 내용 등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의 교회 생활 사역지침과 같다. 교회 생활과 관계된 사역지침의 범위는 방금 대략적으로 얘기했다. 즉, 당분간 먹고 마실 하나님 말씀의 내용, 예배에서 교제할 진리의 내용, 그리고 예배에서 교제하는 형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교제할 때는 혼자만 말해서는 안 되며, 사람마다 일정 시간 넘게 교제해서는 안 된다. 말이 장황하고 표현이 불분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등 교회 생활과 예배에 관계된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은 사역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다. 리더 일꾼은 한편으로는 하달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자매들에게 명확하게 교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알아듣게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엄격하게 집행하고 준수하게 하면 된다. 특히 예배 시간에 얘기가 툭하면 삼천포로 빠지고, 말할 때 끼어들고, 글귀와 도리, 구호를 남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사역지침에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 나와 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사역지침은 주로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다. 어느 방면의 본분을 이행하든 누구나 이 사역지침에 제시된 원칙을 지키면 된다. 예를 들어 복음팀이 예배드릴 때는 사역지침에 나온 교회 생활 원칙을 따르면 되고 특별한 건 없다. 다른 팀들도 남들과 사역이 다른 것만 제외하면 예배드리고, 진리를 교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개인 체험을 교제하는 일은 모두 같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 하나님 집에서 정한, 교회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 교제 형식, 예배 형식에 따라 실행하면 되고, 여건이 허락하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는 매우 간단하고도 명확한 일이다. 일부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대륙,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유럽에 사는 사람도 있고 중동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다. 예배 시간과 횟수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의 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교회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본분만 이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직장이 있는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 등 개인적인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 게다가 나라가 같지 않다 보니 시간대도 다르다. 그러니 그들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릴지, 매번 어느 시간에 드릴지 하나님 집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고 원칙만 정해 주면 된다. 새 신자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릴지는 하나님 집에서 범위를 정해 놓았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횟수도 조금 다르다. 사역지침에서 새 신자에게 주 7 회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 신자가 일주일에 드려야 할 예배 횟수는 무엇에 근거하느냐? (새 신자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두세 번이고 최소한 한 번은 드려야 한다. 이것이 매우 적절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농한기에는 시간이 많아서 다들 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루 두 번 드려도 되고요. 저희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 신자들은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언제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싶어 한다. 만약 가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몇 번 더 예배를 드리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생활에 지장만 가지 않으면 괜찮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지는 각 지역 하나님 선민들의 집안 상황, 직장 상황에 맞춰야 하고, 하나님 집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여건이 되는 하나님 선민은 예배를 몇 번 더 드려도 되고, 이로써 진리를 좀 더 많이 깨닫고 생명이 좀 더 빨리 자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만 드려도 된다. 각 지역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는 하나님 선민들의 선택이니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다름 아닌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면 생명이 자라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만약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더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인들은 좀 더 바쁜 편이라 예배를 추가로 드릴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때도 그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라고 요구하지 마라. 사람이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예배를 몇 번 드리든 하나님 집에서는 간섭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는다. 신도 개인의 여건과 배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요할 수 없다. 교회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는 다 상응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것은 교회 각급 리더 및 형제자매들이 모두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리더 일꾼은 상부의 사역지침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형제자매들도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교회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내용과 예배에서 깨닫고 준수해야 할 사역지침에 대해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들은 꼭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하고 색다르게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 생활에 관한 사역지침은 간단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추상적이지 않다.

6. 재물 관리

여섯 번째는 재물 관리다. 재물 관리 사역은 비록 복음 사역이나 각 업무 사역처럼 자주 사역지침이 하달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집에는 역시 구체적인 사역지침이 있다. 재물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재물을 어떻게 보관할지, 어디에 보관할지, 어떤 사람들이 관리할지, 위험이 닥치거나 환경이 열악한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재물을 어떻게 분배, 관리, 이동시킬지와 같은 내용이다. 이런 일은 사실 사역지침에서 모두 정해 놓았으므로 리더 일꾼은 해당 사역과 관련하여 상부에서 직접 명령하거나 사역지침을 하달하기를 기다렸다가 수동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재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즉각적인 사역지침이 없어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고 즉시 상부의 답변을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전이 우선이고 하나님 집의 재물을 잘 보호하는 것이 네 책임이다. 하나님 집에서 인쇄한 하나님 말씀 책과 각종 기기, 양식, 현금과 같은 재물은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런 재물이 습기에 노출되어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 먹지 않게 해야 하고, 악인이나 큰 붉은 용이 가로채도록 두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집의 재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말고도 보안 작업을 꼼꼼하게 해서 관련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되고, 아는 사람들은 입단속을 철저히 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역지침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서면으로 하달하거나 공개하기가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리더 일꾼이 만약 재물 관리 분야와 관련해서 더 나은 방법이나 루트를 생각해 냈다면 당연히 하나님 집의 재물이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른 리더 일꾼과 같이 상의하고 자율적으로 결단을 내려도 된다. 이것은 특수한 사역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않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반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집의 재물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은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 대놓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과 믿을 만한 보관 담당자들이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 만약 리더로 새롭게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3 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질은 매우 좋고 아주 열심이다. 겉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만 그의 인품이 어떤지 알 수 없고, 재물에 대한 그의 관점이 어떤지, 탐내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점을 잘 모르고 파악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형제자매들은 그를 잘 모른다.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역을 인계할 때 다른 사역은 모두 인계해도 재물 관련 사역은 인계해야 하겠느냐?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리더 일꾼의 주요 사역은 재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은 단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만약 정말 적합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새로 선출된 리더 일꾼을 믿을 수 없다면, 우선은 인계하지 않아도 된다. 그가 오래 믿을 수 있을지, 굳게 설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에 어떤 사람이 막 교회 리더로 선출되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선민들에게 제물을 보관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계좌와 비밀번호가 누구한테 있는지 물어보면서 얼른 넘겨 달라고

재촉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계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역은 하나도 조바심 내지 않고 마음 쓰지 않으면서 이 일에만 특히 진지하고 조바심을 내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이면 무조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진정으로 원칙에 따라 선출된 보관 담당자라야 믿을 수 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집의 재물을 잘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이 누구나 그렇겠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전에 한 교구의 리더 일꾼이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서 교회의 재물을 전부 팔아먹는 바람에 막대한 재물 손실이 발생했다. 그가 만약 교회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면, 죽도록 맞아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집의 재물이 손실을 입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실토했고, 그로 인해 결국 그 돈이 큰 붉은 용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재물에 관한 일을 그에게 알려 주지 않고, 보관을 담당한 그 사람도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집의 돈이 손실을 입거나 큰 붉은 용에게 빼앗겼겠느냐?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교훈이다. 그러니 이 사역을 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재물을 충실하게 관리할 사람을 찾아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다. 그 사람이 다른 일은 못하지만 현금과 재물을 보관하는 일만큼은 확실하고 충성스럽다면 그에게 보관을 맡기는 것은 사람을 옳게 쓴 것이다. 이 사역은 단일한 사역이므로 이에 관한 지침은 매우 간단하다. 옳은 사람을 찾아 보관을 맡기고 안전한 곳을 찾아 보관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 집 재물의 분배와 지출에 대해서도 하나님 집 사역지침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써도 되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물의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감독 제도가 있으며, 각종 수속과 절차, 몇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지 등은 하나님 집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관리, 보관, 지출, 회계까지 모두 구체적인 사역지침이 있다.

7. 정리 사역

일곱 번째는 정리 사역이다. 이 사역 역시 하나님 집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집 사역의 필요성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각 부류 사람에 대한 구분과 정의에 따라, 그리고 각 부류 사람들이 드러난 후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어서 사역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각종 적그리스도와 악인, 불신파를 처리할 때는 모두 원칙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대열에서 정리되었고, 어떤 사람은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 정리되어 파트타임 본분 교회나 일반 교회로 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일반 교회에서 정리되어 B조로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곧바로 제명되거나 출교되기도 했다. 교회를 정리하는 사역은 하나님 집에서 거듭해서 사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될 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역지침이 있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에 따라, 그리고 각 부류 사람들이 드러낸 패괴 본질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니 각종 악인, 불신파,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집의 처리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 사역지침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진리 원칙을

교제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각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하달해서 교제하고 시행하게 한다. 어쨌든 교회 정리 사역은 반드시 가급적 빨리 시행해야 하고 교회에 악인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 상부에서 교회를 정리하라는 사역지침을 하달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한동안 정리 사역을 하고, 그 후 한동안 지나 악인이 교란하는 것을 또 발견하였으나 상부의 사역지침이 없다고 해서 이를 내버려두고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의 정리 사역은 지속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명하거나 출교해야 할 대상이 있는 한 정리 사역을 계속해야 하며, 수동적으로 상부의 명령만 기다리거나 윗선 리더에게서 내용이 전달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수동적으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보고하거나 고발하기만 기다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 선민들이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리더 일꾼은 당연히 조사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투서를 보류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리더 일꾼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가 악인을 두둔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 리더 일꾼과 악인을 함께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교회 정리 사역을 하지 않는 리더 일꾼은 모두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며 제때 교체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악인을 두둔하고 보호한다면 적그리스도로 규정해서 제명하거나 출교해도 좋다. 이것이 바로 교회 정리 사역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교회를 정리하는 사역은 시급한 사역이고, 매우 뜻깊은 사역이다. 너희가 볼 때 교회를 정리하는 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교회가 정결케 되었다면, 즉 교란하는 악인이 없고 불신파가 섞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교회 생활의 성과도 가장 좋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나라의 실현을 향해 성큼 더 나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순결한 교회는 하나님나라 복음의 확장에 가장 유리하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 실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더 이상 교란하는 악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 정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이는 하나님 선민들의 본분 이행 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악인에게 교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 집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을 먹여 살리지 않고, 안일을 탐하고 떡으로 배만 불리려 하는 기생충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본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에 교란과 지장을 가져오는 자, 교회 안에서 멋대로 떠들며 왈가왈부하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자들도 제명 대상이다. 지금은 각 부류 사람들이 모조리 완전히 드러났기에 교회의 정리 사역은 피할 수 없으며, 정리 사역을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한다. 드러난 악인, 적그리스도, 불신파, 폐물, 기생충은 모두 하나님이 혐오하여 버리는 대상이고 구제 불가능한 자들이다. 만약 정리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 확장 사역에 지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정리하는 사역은 당장 시급하게 제대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교회 정리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이야말로 양성할 가치가 있으며 계속 리더 일꾼을 맡아도 되는 사람이다. 교회 정리 사역을 가로막는 리더 일꾼은 모두 장애물과 걸림돌이니 하나님 선민들이 폭로하고 고발해야 한다. 각급 리더 일꾼들은 우선 교회 사역의 장애물과 걸림돌을 철저하게 제명하고 해결해야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다. 그래야 교회 각 사역의 순조로운 진행에 유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영광을 얻는 데 유리하다.

8. 외부 업무

여덟 번째는 외부 업무이다. 외부 업무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사역이다. 외부 업무에 대해서도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현지 법률과 구체적인 지역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교회가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해당 지역 법률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 원칙이다. 또 하나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외부 관련 문제는 변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며, 혼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각국의 국가 정황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바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고 변호사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며, 자기가 함부로 결론짓거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마다 상황과 정책이 다르고 법률 규정도 다르므로 상상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길에서 누군가 강도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중국의 법률 규정에서는 이를 목격한 행인이 용감하게 나서서 강도를 먼저 붙잡은 다음 그를 경찰에게 넘길 수 있다. 너는 이로 인해 용감한 영웅이 되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상황과 제도이자 일종의 전통문화이기도 하다. 중국인들은 이를 '전통 미덕'으로 미화해서 부른다. 하지만 서양, 특히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좀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 먼저 그를 붙잡은 다음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가게 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이고 법을 위반한 행동이다. 너는 일반 시민이지 법의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사람을 붙잡을 권한이 없으며 그럴 권한은 경찰에게 있다. 좀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네가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네 손으로 직접 도둑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함부로 도둑을 잡는 것은 위법이며 이것이 서양의 법률 규정이다. 중국인의 '전통 미덕'을 서양에서 실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서양에는 서양의 법률이 있다. 서양 국가에서 만약 길에서 누가 넘어진 것을 목격했을 경우,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했느냐? 반드시 다가가서 물어봐야 한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만약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가도 된다. 만약 보고도 물어보거나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가 버린다면 그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아마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무시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만약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라고 했다가는 곤란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등쳐 먹으면 너는 평생 힘들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국가마다, 민족마다 교육이 완전히 다르고, 사회 환경과 사회 제도 역시 완전히 다르며, 당연히 법률 규정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외부 업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외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교회 관련 사역에 관계된 법률, 규정, 조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자매가 알아야 할 생활 상식이나 일부 법률 조문도 좀 보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이 사역에 대한 사역지침을 두어서 사역 담당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 우선은 관련 법률과 정부 규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며 혼자 맹목적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중국인의 사고와 논리에 따라 해결 방안을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외부 업무의 의미와 사역을 통해 이루려는 성과,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이에 관한 사역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역에 포함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역지침은 대개의 경우 사역에 관계된 사람들만 잘 이해하면 되고, 형제자매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 형제자매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할 때 관련 법률 규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집에서 이 방면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마련해 두었으니 지침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 집에서도 응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만약 외부 업무에 관계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외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하나님 집에서 이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지 알아봐야 한다. 맹목적으로, 자기 상상에 따라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외부 업무 역시 단일 사역이라 복잡하지 않다. 구체적인 사역 사항은 사역지침 안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외부 업무를 하려면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얼마간 하면서 규칙과 요령을 터득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해외에 나간 사람은 쓰레기를 버렸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밤에 너무 늦게 자서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개가 짖어서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바람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발코니에 빨래를 널었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주차를 잘못해서 신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로 신고를 당한다. 결국 신고 횟수가 많아지고 경찰이 수시로 찾아와 계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비로소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해외임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법률 의식이 조금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 일, 운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규칙을 조금씩 알게 된다. 처음에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만 조금 알고 있을 뿐, 그보다 더 많은 법률 분야의 상식은 아는 바가 없어서 마치 야생 동물처럼 법률 의식이 없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식견이 좀 생기고 규칙을 조금 알게 되면서 길들여진 것처럼 많이 나아지게 된다.

9. 교회 복지

아홉 번째는 교회 복지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전부터 교회 복지에 대한 사역지침을 마련하여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나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회 리더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면의 사역지침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원칙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집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다가 수감되어서 가정생활이 곤란해졌다거나, 부모가 장기간 밖에서 본분을 이행하느라 집안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오랫동안 본분을 이행하다 병을 얻었다거나 하는 등의 곤란을 겪는 형제자매는 교회에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 방면의 사역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형제자매를 섬길 여건이 되는 일부 가정에 수입원이 없을 경우, 그들이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발생한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것은 교회 복지 관련 사역에 해당하는데 사역지침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도 되고, 리더 일꾼이 현지 상황에 맞게 교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섬김 사역을 해도 된다.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만약 구체적으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리더 일꾼이 교제와 상의를 통해 현지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맞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안배할 수 있다. 비록 이 사역이 규모가 큰 사역이나 중요한 임무는 아니지만 리더 일꾼의 직책에 포함되는 사역 중 하나이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피해서는 안 된다. 외면하고 수수방관하거나 못 본 체해서는 더더욱 안 되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책이라는 것이다.

10. 응급 대책

열 번째는 응급 대책이다. 응급 대책은 하나님 집의 어떤 사역에 발생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 사역이나 행정 사역, 업무 사역에서 발생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혹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리더 사건 처리, 혹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분별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과 같은 일들이 모두 응급 대책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거나 적그리스도가 독단적으로 독립 왕국을 세우는 등, 이러한 일이 하나님 집에서 발견되면, 그에 대해 사역지침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 집에서는 서면으로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전달한다. 이 방면은 그 당시 교회의 돌발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며, 상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역지침을 마련해서 하달하고 전달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어떤 사역이든, 상부에서 안배하고 리더 일꾼에게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 리더 일꾼은 반드시 상부의 사역지침에 따라 하달, 시행해야 하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상부에서 이런 사역지침을 마련한 것은 그 어떤 행정 사역이나 구체적인 업무 사역 못지않다. 비록 임시적이긴 하지만 리더 일꾼은 정식 사역지침에 따라 이를 하달, 전달, 시행, 밀착 관리 한 후에 상부에 보고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응급 대책은 구체적인 특정 사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상부에서는 수시로 각 교구의 각급 리더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요구 사항을 제시하거나, 특정 사역에 관해 안배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사역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각급 리더와 각 교구에 하달된 사역지침이라면 그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역이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수수방관해서도 안 되고, 사역이 큰지 작은지, 본연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거나 사역지침에 담긴 상부의 어조나 시급성을 추측하여 즉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마땅히 그 사역을 정식 사역으로서 집행하고, 중요한 임무와 부탁으로 생각해서 완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특수 상황에서는 응급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특수한 배경에서 하는 사역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일이 닥쳤을 때, 상부에서는 어떤 배경이나 사건을 통해 리더 일꾼이나 형제자매가 이 기회에 더욱 실제적으로 진리와 결부시켜 사람과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사람과 일을 간파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로써 진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조용하고, 적합하며, 교란받지 않는 교회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제때 각종 공과를 배우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한 번 훈련을 받으면 사람의 생명은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부에서 각급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들,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을 훈련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악의가 있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에 요란을 떠는 것도 아니다. 비록 응급 대책이고 임시적인 사역지침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 각급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들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역지침의 항목을 총 열 가지 나열했고 각 항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제를 마쳤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지침이 대체 무엇이며 하나님 집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지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또 한편으로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나님 집의 사역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정치를 하는 것도, 인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는 일은 바로 사역지침에 제시된 그 사역들이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속해서 추적, 연구, 조사해 오던 일부 집권당과 사회 기구들은 아마 상황을 알아보고 하나님 집의 영상과 웹 사이트를 살펴본 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신앙이고 어떤 국가의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무자비한 탄압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각종 간증 영상을 모두 웹 사이트에 올려서 인류 사회에 너무나 크고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었고, 하나님이 말세에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해 인류를 구원하고 있음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느냐? 크게 실망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무슨 꼬투리를 잡아 우리 교회에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반당, 반국가적이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궁리도 했지만 이제 보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교회 사역지침으로 보면 누명을 씌울 방법이 없으니 헛되이 연구한 것이다. 이것은 애초에 유대인이 예수를 연구한 것과 같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예수의 말씀과 한 일을 연구했지만 법률에 위배되거나 정치에 관계된 행동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의 말과 행동은 전부 옳았고, 전부 진리였고, 전부 성경에 부합했기에 그들은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종교계에서는 하나님 집의 각종 영화와 체험 간증 영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하나님 말씀 책과 말씀 낭송 영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반드시 흥하기 마련이다. 이는 성령 역사의 성과이며, 누구도 가릴 수 없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세계에 널리 퍼졌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온 인류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은 규모가 크고 기세가 드높아 어느 나라, 어느 세력도 저항할 수 없으며 큰 붉은 용은 이미 철저하게 치욕을 입고 실패했다! 종교계에서 어떻게 정죄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역의 거센 흐름에 도태되고 침몰할 것이다.

사역지침의 항목을 모두 교제했는데, 내가 교제한 이 항목들이 하나님 집에서 하는 사역의 전부가 아니냐? 너희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너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사역들이고, 여기에 비밀은 없다. 교회의 역대 사역지침은 큰 붉은 용의 손아귀에 전부 들어갔다. 그들은 많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매일 연구했으며,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얻었다.

'만약 저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한다면 큰일 나겠어! 반드시 저들을 모조리 없애야 해. 해외로 도망가더라도 가만둬선 안 돼.' 생각해 보아라, 마귀는 패괴된 평범한 인류와 달리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한다. 패괴된 평범한 인류가 교회의 간증을 본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박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다르다. 그것들은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너를 미워하며, 너를 살게 두지 않고 죽이려 한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네 숨통을 조일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 하고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큰 붉은 용이 바로 그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함이며, 보통 패괴된 인류와는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떻게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하고 시행할 것인가

1. 사역지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열 가지 사역지침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는 각 사역의 범위와 내용이다. 이들 사역의 내용과 범위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 선민들은 리더 일꾼이 이 사역들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기가 수월해지고, 또 한편으로 리더 일꾼들은 자신의 직책 범위와 자신이 해야 할 사역, 자신이 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수월해지며, '리더 일꾼'이라는 호칭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리더 일꾼의 직책은 무엇이냐? 어떤 모습을 살아 내야 하느냐? 한 나라 정부의 관리와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리더 일꾼은 관직도 아니고 칭호도 아니며, 리더 일꾼이 무엇인지는 리더 일꾼이 이행하는 본분,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과 요구 기준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리더 일꾼이라는 명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리더 일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알게 된다. 리더 일꾼이 최소한 다해야 할 직책은 무엇이냐? 바로 아홉 번째에서 언급했던,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대로 각 사역지침을 전달, 하달, 시행하는 일이다. 어느 방면의 사역지침이든 리더 일꾼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면 리더 일꾼은 반드시 사역지침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지체 없이 곧바로 교회들에 전달해야 한다. 전달할 대상으로 말하자면, 만약 하나님 집에서 설교원, 교회 리더, 교회 집사를 포함하는 각급 리더 일꾼들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면 이 직급까지만 전달하고 더 이상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모든 형제자매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 엄격히 하나님 집의 요구대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서면 형식으로 전달하기가 불편하고 안전상의 문제나 더 큰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다면 사역지침 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구두 형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느냐? 만약 문서 형식으로 전달한다면, 모든 사람의 손에 그것이 다 있고, 모두 그것을 알고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구두 전달이라면, 전달 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이해 여부와 기억 여부를 물어봐야 하며,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한번 말해 보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진정으로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요구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는 이미 사람 마음속에 전달되었으며, 사람들이 기억하고 명확히 이해했음을 증명한다. 이래야 진정으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조건과 상황 등 각종 요소가 모두 적절하여 서면 전달이 적합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만약 환경상의 이유로 인해 서면 전달이 불가능하고 구두로 전달해야 한다면, 구두로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이 사역지침과 일치하는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해를 덧붙이지 않았는지, 원문 그대로 전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전달할 때는 당연히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그대로 전달해야지 개인적인 이해와 상상에 따라 임의로 말해서도 안 되고, 치우치게 해석하거나 곡해해서도 안 된다.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할 때 사역지침 전달의 엄격성을 이해해야 한다. 즉, 정확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밀하게 전달해야 할까요?"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정밀함은 기계에 요구되는 것이고 사람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어도 좋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 측면의 경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서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관계된 말씀을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전달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쉽습니다.) 사역지침은 사람에게 범위를 주는 것으로, 관련된 하나님 말씀은 모두 읽어도 되지만 만약 사람이 곡해하고 개인적인 이해, 관념과 상상을 덧붙여 불필요한 말을 전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없던 내용을 보태서 전달하는 것으로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이다. 상부에서 전달하는 사역지침은 모든 항목을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정확한 의미와 해당 사역지침을 하달한 의미, 그것이 이루려는 효과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부에서 안배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을 명확하게 교제한 다음 전달해야 완전히 정확한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역지침이 대교구 리더 일꾼으로부터 각급 리더 일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교회의 각 팀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그런 다음 예배 시간에 몇 차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선민들이 누구나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런 효과에 도달해야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전달 방식과 전달 범위에 따라 전달해야 하며, 물론 전달하는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곡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가미하는 것은 정확한 전달이 아니며, 이는 리더 일꾼의 직무상 과실이다.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하고 시행하는 일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어떻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있다.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받고 나면 우선 리더 일꾼 범위에서 사역지침을 한번 교제하고, 이번 사역지침에 대한 상부의 요구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 살펴보며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몇 가지 사역지침을 복음 사역 상황, 각 업무 사역 상황, 교회 생활 상황, 그리고 각 부류의 자질과 가정 상황 등 현지 교회의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이 몇 가지 사역을 어떻게 시행할지 살펴본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 리더 일꾼들이 모두 사역지침을 정확하고도 일치되게 이해하고 나면 상응하는 전달 방식을 마련한다. 그래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만약 한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받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형제자매들을 소집해 하달하고 전달한다면 이것이 적합하겠느냐? 결국 전달하고 나서 한두 달 후 각 교회의 사역 시행에 편차가 발견되어

사역지침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 나서야 전달 과정에서 편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당시 제대로 읽어 보고 교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게으르고 대충 한 것으로 인해 교회 사역에 많은 실수와 편차가 생겼으니 나중에 바로잡아야 했다. 그러니 절차가 추가되고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역지침을 명확하게 교제한 다음 하나하나 전달하고 시행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실수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리더 일꾼은 우선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속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 시행 방법, 시행 대상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에 대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 듯 모를 듯,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요구와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하달하고 전달한다면 과연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 일꾼 부류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이 아직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요구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리더 일꾼은 이미 사역지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절차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전달'이라는 첫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역지침이 전달되면 형제자매들은 모두 사역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집에서 해당 사역을 하는 의미와 가치, 기준도 어느 정도 인식할 것이다. 그러면 리더 일꾼은 이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분배할지, 어떻게 구체적인 사역 항목을 분배할지, 사역을 누가 시행하고 집행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교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역하는 절차이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밀착 관리하는 것은 어떠냐? 면밀히 점검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속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2.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리더 일꾼은 사역지침을 받으면 그것을 단지 전달하고 하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교회의 하나님 선민들이 사역지침이 하달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역지침의 시행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사역지침을 진정으로 집행하고 시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책임을 다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기준도 아니다. 하나의 사역지침은 전달과 하달이 목적이 아니라 시행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느냐? 리더 일꾼은 관련 책임자와 형제자매를 소집해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제하고, 아울러 사역을 집행할 주요 책임자와 팀원을 선발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제이다. 리더 일꾼은 어떻게 해야 원칙에 맞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인지 교제해야 한다. 교제할 때 형제자매와 리더 일꾼은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과 방법, 절차를 선정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정해서 사역이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어지고, 상상도 품지 않고, 사역에 대해 반감도 품지 않게 되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의 의의와 목적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역지침이 완전히 시행된 것은 아니다. 그것 말고도 해당 사역에 누가 가장 적합하고 능숙한지, 누가 사역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지, 누가 사역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한 사역을 담당할 사람을 선발하고 시행 방안과 완성 기한을 정해야 하며,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재료 등을 잘 준비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역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행하기 전에도 별도로 사역 책임자와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전에 그 사역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사역에 대해 어떤 견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가 제시한 방안과 아이디어가 원칙에 부합한다면 채택해도 좋다. 그 밖에도 각 사역을 시행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여 과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발견해야 하며, 이 단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반드시 방법을 생각해서 제때 해결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사역지침을 실질적으로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의 요구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사역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바는 없는지, 얼마 만에 완수해야 하는지, 업무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지 등도 구해야 하며, 이런 것이 바로 리더 일꾼과 관련 책임자들이 교제해야 할 주제이다. 이것이 바로 시행이다. 시행이라는 것은 단지 말이나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역의 실제 진행 상황과 관계되고, 또한 해결이 필요한 일부 구체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관계된다. 이런 것이 다 리더 일꾼과 책임자들이 해당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리더 일꾼과 책임자는 이러한 교제와 분석,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행이다. 이 '시행'은 곧 리더 일꾼의 직책이자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지금 이 사역은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사역을 당신에게 맡겼고, 사역지침도 전달하고 하달했습니다. 관련 사항도 알려 주었고요. 당신이 할 줄 아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두 당신 일이고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저는 사역에 책임을 다한 셈이죠."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할 소리냐? (아닙니다.) 리더 일꾼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짓 리더이다. 상부에서 요구하면 반드시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하는데도 그는 책임을 완전히 미룬다. "당신이 하세요. 저는 할 줄 몰라요. 어쨌든 당신은 모르는 일이 없잖아요. 당신은 전문가이고 저는 문외한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자주 말하는 '명언'으로,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거짓 리더는 사역에 무책임하다. 자질이 높든 낮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가 정성과 마음을 다하지 않고 언제나 건성으로 임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모습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자질이 좀 부족하고 체험이 다소 얕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 사역한다면 성과가 훌륭하지 않아도 최소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단지 자질이 조금 부족하고 분량이 작아서 사역을 잘 하지 못했을 뿐이다. 훈련할 시간이 주어질 경우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리더라면 계속해서 양성해야 한다. 만약 양심과 이성이 조금도 없고, 그저 높은 자리에 서서 지위의 복만 누리면서 실질적인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는 리더가 있다면 그가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이런 자는 서둘러 교체하고 절대 다시는 발탁해서 쓰면 안 된다. 진정한 리더, 책임감이 있는 리더는 사역할 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전부 사역에 쏟는다.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탁을

제대로 완수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리더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시행 상황을 관찰하고 밀착 관리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빠져나가지 않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며 대응 조치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책임지는 것이다. 사역지침이 하나 하달되었을 때 리더 일꾼은 그 사역을 현재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직접 밀착 관리 하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사역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각 팀의 팀장들이 할 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손을 뗄 수 있다. 하지만 손을 뗀 뒤에도 틈틈이 사역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해야 한다. 그래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리더 일꾼은 사역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사역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역들의 진행 상황도 챙기고 파악해야 한다.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든 서둘러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해결해야 한다. 주요 리더는 반드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교회 다른 사역들도 밀착 관리, 파악, 검사, 독촉해서 각각의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핵심 사역에서 주요 리더는 현장에 머물며 지휘해야 하고 특히 사역의 중요한 단계에서는 더욱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 사역을 지도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력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중요한 사역을 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모든 단계, 모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요 리더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주요 리더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고, 다른 리더들은 일반 사역을 맡아야 한다. 리더 일꾼은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고 이해득실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자가 바로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다.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은 대다수가 젊은 사람, 초보자들이고 다들 사역을 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원칙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들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전혀 높은 요구가 아니다. 사람에게 원칙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높은 요구일 수 있겠느냐?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일 처리에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리더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원칙을 파악하는 것은 리더 일꾼에게 하는 요구이지 일반인에게 하는 요구가 아니다.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역을 잘할 수 없다. 자질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원칙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나님 집에서도 양성하지 않으며 본인도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은 늘 리더를 맡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가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해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질이 부족하여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사역의 실행 원칙과 길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도리조차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리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사람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여 사역을 할 줄 모르고 본분을 이행할 때 효율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하루면 되는 사역이 며칠씩 걸리고 한 달이면 되는 사역이 반년이나 걸린다면, 이런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 밥만 축내는 인간이다. 자질이 너무 낮은 사람은 어떤 본분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리더 일꾼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의 요구가 너무 높다고 느끼는데, 이는 그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여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므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는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리더가 되더라도 거짓 리더일 뿐이다. 한 가지 사역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역을 함께 돌볼 수 있겠느냐?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리더 일꾼을 할 자격이 있느냐?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하면 사람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개가 집을 지킬 때는 앞마당, 뒷마당, 텃밭은 물론이고 집안의 닭, 거위, 양까지 돌본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짖어대면서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낯선 사람이 왔다고 알릴 줄도 안다. 개의 머리도 단순하지 않다. 사람이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개만도 못하다면 이런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빈둥거리고 게으름만 피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공짜로 밥만 얻어먹으려 한다. 이런 자는 기생충이 아니냐?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에게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실행하고 실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집의 안배에 순종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빈둥거리면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도태되어야 한다. 본분을 이행할 때 안일을 탐하고, 고생을 두려워하고, 힘들다고 우는소리를 하면서 고생을 조금도 못 견디는 못난 인간들은 모두 도태되어야 하며, 한 사람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사역을 시작할 때 갖가지 어려움을 마주하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야 하고, 그런 다음 방해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까다롭게 구는 사람,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남은 사람들은 다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훨씬 이끌기가 편하다. 리더 일꾼은 사역을 할 때 우선 진리를 명확히 교제함으로써 사람들이 듣고 나서 실행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도리를 말하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되고,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며 반드시 실행하라고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명확히 교제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듣고 나서 기꺼이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리더 일꾼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실행하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이다. 형제자매들이 실행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실행의 길을 찾지 못하면 사역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리더 일꾼이 각각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련된 진리 원칙을 분명히 설명하고 알기 쉽게 교제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심을 발휘하고 기꺼이 협력하려 할 것이다. 누군가 하는 말이 옳고 진리에 부합하며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유익이 된다면, 모두 그 말을 듣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글귀와 도리만 말하는 리더 일꾼에게 누군가 구체적인 실행의 길을 물었는데, 그 리더 일꾼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 거창한 도리를 말하고 구호를 외치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이에 그 사람은 속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지도 않으면서 실행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실행하나요? 나한테는 길이 없다고요! 내가 모르니까 당신한테 물어본 건데, 이제 보니 당신도 모르는군요. 도리나 구호만 외칠 줄 알지 나보다 나을 것도 없고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따라야 하죠? 내가 따르는 것은 진리이지, 당신이 말하고 외치는 도리나 구호가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도 존재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공허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실행의 원칙과 길을

명확히 교제할 수 있으면 그래도 많은 이들이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교회 사역은 사실 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열심히 시행하고 사역하는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한다면, 사역을 완전히 제대로 할 수 있다. 다만 리더 일꾼과 책임자가 책임은 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만 앉아 도리를 말하고 구호만 외치면서 현장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역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래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간파할 수 없어서 누군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 중심을 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 직접 주도하며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 감독하고 검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서서 몇 마디 도리나 구호만 외치면 아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네 말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 아래의 사람들은 마치 기계와 같아서 누군가가 직접 작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리더 일꾼이 이조차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식견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할 때 아무것도 간파하지 못해서 무엇이 핵심 사역이고 무엇이 사무 사역인지도 모르고, 경중과 완급을 구분할 줄도 모른다. 무슨 일이든 원칙이 없고 실행의 길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한 채 도리를 말하고 구호만 외치면서 실제적이지 않은 말만 한다면 어떤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리더 일꾼은 반드시 사역을 안배하고 시행할 줄 알고 검사하고 지도할 줄 알아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리더 일꾼이 바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줄 아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리더가 사역을 지도할 줄 모르고,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할 줄도 모르면서 사람을 계속 꾸짖고 책망하기만 하고 일을 망쳐 놓고도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면 리더로서 무능한 것이다. 이런 리더는 못난 인간이며 거짓 리더이니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 네가 구체적인 사역을 할 줄 모른다면, 최소한 조력자로 삼기에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찾아서 구체적인 사역을 잘 해야 하고, 최소한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먼저 처리하고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역을 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서둘러 발탁하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빨리 처리하고 제명하면 이후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리더는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남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눈앞에서 악인이 끊임없이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고도 처리하지 않으며, 누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를 발탁해 사역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리더는 눈먼 자이고 사역을 할 수 없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역을 잘할 수 없고, 업무를 몰라도 역시 사역을 잘할 수 없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훈련을 자주 해야 한다. 원칙을 파악하고,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고, 이해득실을 따져 볼 줄 알면 사역을 잘할 수 있고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교제한 후, 리더 일꾼들은 사역지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았느냐?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자신이 어떤 책임과 직책을 다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인식이 생긴 뒤, 너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자신이 리더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리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질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리더 일꾼, 즉 우리가 거짓 리더라고 부르는 부류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예전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리더가 되고 나서도 관념과 상상으로 보여 주기 식의 사역만 조금 하면서 스스로를 마음이 뜨겁고 고생하기를 원하니 당연히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짓 리더였습니다. 제가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집의 한 가지 구체적인 사역지침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저 사역지침을 몇 번 읽고 각 사람에게 전달한 후, 아래의 사람들이 시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켜보는 것이 시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홀히 다뤄진 구체적인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질이 많이 부족해서 리더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팽개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이며, 훌륭하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극적이 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이 방안이 어떠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방안이냐? (아닙니다. 만약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방안이다. 만약 예전에 해 보았지만 자신이 리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리더 역할이 아주 힘들고 벅차게 느껴지고 속으로 불안하고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거대한 산이 짓누르는 것처럼 고개도 못 들고 숨도 못 쉬겠고, 걸을 때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들으니 더더욱 자신이 자질이 부족해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이 있다. 얼른 자리에서 물러나라.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못 해서 하나님 사역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런 이성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거들먹거리지 말고, 무리하게 나서지 말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라. 그래야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의 자질, 자신의 결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잘 알아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속으로 정확히 알 수 있다. 왜 자신의 자질을 인식해야 하느냐?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확정하는 데 유리하고 자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자질을 확인하고 자신이 리더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면 더는 테스트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말고 얼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라. 자리만 차지하고 내려오지 않은 채 구체적인 사역을 못 해서 남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길이 아니겠느냐? 두 개의 길이 네 앞에 놓여 있으니 너는 선택하면 된다. 갈 길이 없는 것도, 유일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한 너를 잘 아는 주위 형제자매들의 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실제 상황을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다음 정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 집에서는 너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 어떠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다시 한번 노력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진리를 추구하는 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리더가 된 후에도 진리를 구하려 하지 않고 그저 어영부영 사역했죠. 예전에는 교회 리더를 맡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앞장서서 진리를 교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때 해결하고,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간 리더를 해 보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물어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부 하나님 선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어요. 형제자매들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설교를 자주 들어서 확실히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고 분별이 생겼기 때문에 진리 실제가 없이는 정말 그들을 양육하고 공급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집의 구체적인 사역은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으로는 자질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고 진리도 깨달아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안 되고, 자질이 없어도 안 되고, 인성이 부족하고 부담이 없어도 안 된다. 구체적인 사역은 구체적으로 대해야 하며 그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하고 싶어 하며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느냐? 만약 사역 능력과 자질이 보통이지만 일부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사역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상부의 지침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요구 원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전에 나이가 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초가 얕아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옳은 사람이면 무턱대고 교체하지 말고 기회를 주어서 계속 훈련시켜야 한다. 리더 일꾼을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한 명의 리더 일꾼을 선발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대부분의 리더 일꾼은 자신의 직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적어도 이전보다는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인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에 대해서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 후 모두 마음이 환해지고 실행의 길이 생겼을 것이다. 본분을 이행하고 생명에 진입하게 되는 것 말고도, 리더 일꾼에 대해 이해와 분별이 생기고, 적어도 리더 일꾼으로서 다해야 할 책임과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요컨대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선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해 공허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1 년 4 월 10 일

리더 일꾼의 직책(10)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2)

사역지침 시행을 지도, 감독, 독촉하고, 시행 상황을 검사, 밀착 관리 한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에 대한 교제를 계속해 보겠다. 지난번에는 주로 사역지침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각종 내용과 구체적인 항목들을 교제하고, 또한 리더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직책이 사역지침을 전달, 하달, 시행하는 것이라고 교제했다. 리더 일꾼들이 사역지침이 하달된 후 어떻게 지도, 감독, 독촉하고, 어떻게 시행 상황을 검사, 밀착 관리 하는지에 대해 오늘 또 한 번 구체적으로 교제해 보겠다. 사역지침의 의미를 이해한 후, 리더 일꾼들이 어떻게 사역지침을 대하고 어떻게 상부의 요구에 따라, 절차에 따라 사역지침을 정확히 시행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리더 일꾼들이 반드시 교제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 원칙이다. 이 원칙들을 잘 파악해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다. 리더 일꾼들은 주로 각 사역지침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 집의 기본적인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경영을 하라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색하며 어떤 사역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당연히 발명이나 창조를 하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사역을 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세부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즉, 제 9 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전달, 하달, 시행하는 것 말고도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실행의 길이다.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해 보자.

사역지침이 하달된 후, 리더 일꾼은 우선 사역지침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요구와 원칙을 묵상, 교제하고, 그런 다음 실행의 길과 실행 방안을 찾아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행해야 한다. 먼저 사역지침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느 방면의 사역에 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사역지침을 가볍게 한번 읽어 보고 모두에게 읽어 주거나, 혹은 이런 사역이 있다고 모두에게 내려보내고 통지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달하고 하달하는 것이지,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에 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사역은 우선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목표,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집행 방안 및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글을 이해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첫 번째 단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 일꾼이 사역에 대해 진지하고, 참답고,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되는대로 대하고 대충,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역지침이 이전에 언급된 적이 있든 없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든 다소 어려운 것이든, 또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든 하기 싫어하는 것이든, 어찌 되었든 리더 일꾼은 교회 사역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도리를 말하고 구호만 외치며 하는 시늉만 하는 등 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우선은 진지하고, 참답고,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만 있으면 사역지침에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잘 시행한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역을 할 때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일 뿐 구체적인 사역의 시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태도를 갖춘 동시에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원칙을 이해했다면, 리더 일꾼이 다음 단계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역지침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은 예배를 열어 리더 일꾼들과 책임자들에게 해당 사역의 구체적인 실행 원칙에 대해 교제하고, 구체적인 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 선민들로부터 각 방안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구한 다음, 모두가 함께 구하며 교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역지침에 제시된 모든 요구 사항과 원칙을 다 이해하고, 의문점이 해소되고, 어떻게 시행하고 실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역지침의 시행이라는 임무를 완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사역지침을 교제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문제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사역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리더 일꾼들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파헤치고, 진리를 구해 철저히 해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각급 리더 일꾼들은 사역지침을 시행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원칙을 지키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것이 사역지침에 대해 리더 일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이해와 태도이다. 이 사역은 리더 일꾼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하고, 교제하고, 지도하고, 배치하는 것을 통해 실제적인 어려움과 특수한 상황을 진리 원칙에 따라 대하고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사역지침을 진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도

어떤 사역을 초보적으로 지도할 때, 특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자질이 보통이고 사역 능력이 부족한 리더 일꾼에게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들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사역의 원칙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알고 있지만, 막상 시행할 때는 여전히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사역을 못 하니까 그보다 자질이 나은 사람을 찾아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어떤 교회는 그보다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들 하나님 믿은 햇수나 분량이 비슷하고 특히 각자의 자질과 사역 능력도 모두 보통이어서 네가 그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려면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 않은 데다 딱 맞는 사람도 없어서 해당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그의

사역 수행이 여전히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어떡해야 하느냐? 그에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해당 사역을 누가 담당하고 책임지게 할지, 파트너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할지와 같은 이런 세부 사항들을 모두 알려 주고 실행하도록 하면 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해당 교회의 사람들 대부분이 체험이 너무 얕고 사역 능력이 부족해서 적합한 리더 일꾼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만 사역지침이 시행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리더 일꾼들을 대하듯이 구체적인 원칙, 구체적인 방안만 설명하고 똑같이 대한다면 사역지침은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책임이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시행하고 실행하는지 다 아는데 왜 저 사람만 모를까요? 저 사람이 몰라도 저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제 책임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 이유가 성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식을 셋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몸이 약한 데다 자주 아프고 밥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자. 그런다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 자식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머니라면 몸이 약한 그 자식을 특별히 돌봐야 한다. 만약 어머니가 "난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내가 아이를 낳고 먹을 것을 준비해 준 것으로 내 책임은 다한 것이고, 먹고 안 먹고는 내 알 바 아니지. 안 먹으면 배가 고플 테고 정 배고프면 먹겠지."라고 말한다면 이런 어머니는 어떠냐? (무책임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느냐?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계모가 아닌 이상, 친어머니에다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식을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아이가 몸이 약한 데다 자주 아프고 잘 먹지 않으면 어머니로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수고해야 하며, 방법을 생각해서 먹게 해야 한다. 자식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해 주고, 따로 음식을 챙겨 주고, 먹기 싫어할 때는 달래서 먹이다가 18, 19 세가 되어 건강해지고 정상적인 성인이 되면 그제야 어머니는 비로소 안심하고 손을 뗄 수 있고 자식을 특별히 보살필 필요가 없어진다. 어머니도 특별한 상황에 놓인 자식을 이렇게 대하고 책임을 다하는데, 그렇다면 리더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형제자매들에 대해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랑도 없다면 무책임한 것이다. 자신이 다해야 할 책임은 반드시 다해야 한다. 반드시 남들보다 취약하고 사역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책임지는 교회를 고려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특별한 지도란 어떤 것이냐? 진리를 교제하는 일 외에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지도하고 돕는 것이고, 입이 닳도록 많이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그에게 사역을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혹은 이론적으로는 알아들어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행할 때는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직접 해당 교회에 들어가 그를 지도하고 함께 사역을 시행해야 한다. 그에게 원칙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해야 할 사역을 사역지침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사람을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구호만 좀 외치거나 지시만 내리고, 도리나 좀 얘기하면서 꾸짖는다고 끝이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모습이 아니며,

구호를 외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 아니다. 현지 교회의 리더나 책임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리더 일꾼은 비로소 떠날 수 있다. 이것이 제 9 조에서 언급한,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인 '지도'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리더 일꾼은 사역지침에 대해 우선 묵상하고 교제한 다음, 사역지침에 담긴 각각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사역지침에 담긴 원칙을 잘 이해하고 파악한 후, 각급 리더 일꾼들과 함께 해당 사역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제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질이 부족하거나 비교적 취약한 리더 일꾼들에게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도와주고 지도해야 한다. 만약 일부 리더 일꾼들이 이 사역을 전혀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윗선의 리더 일꾼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직접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진리 교제를 통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 사역을 하는 방법과 원칙에 따라 사역을 시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이 절차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지만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쉽겠느냐? 어려움이 없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시행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역지침이 가끔은 아주 복잡해서 아무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역인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일과 관련해서 일부 리더 일꾼들은 이에 대해 무척 애를 먹는다. "저는 구체적인 사역을 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교제하고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지침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면 되지 또 무슨 교제를 해야 합니까? 그런 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는 교제할 줄은 모르면서 구호만 외친다. "우리는 이 사역을 잘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사역 능력이 있느냐? 자질이 부족하지 않으냐?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구해야 하고, 또한 면밀히 생각하고 고려한 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많이 구해야 한다. 또한, 교회 사역 중의 큰 일이나 본분을 이행하면서 마주치는 큰 일들은 반드시 관계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다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방안은 숙고와 협상을 통해 이룬 합의로, 어떤 레벨의 리더 일꾼 앞에 내놓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사람의 사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생각해 내지 못한 채 단순한 이론적 구호로 문제 처리의 원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렇게 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류에게 사고 능력과 숙고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네가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는다면 참으로 뜻밖이고 갑작스럽지 않겠느냐? 첫째, 너는 법을 어긴 일이 없고, 둘째, 너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며 누군가 너를 고소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너는 영문도 모른 채 소환장을 받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법과 관련되면 조금은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든 하찮은 사람이든, 대범한 사람이든 소심한 사람이든,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누구나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한다.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정부 규정도 어기지 않았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지금은 법치 사회이고 모든 일에는 증거가 중요해.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그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도 증거가 없고, 나는 겁날 게 없어. 소환장이 왔다고 어떻다는 거야? 나만 바르면 떳떳하지 못할 게 없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문제는 없을 거야.' 그는 곰곰이 생각한 후 마음에 중압감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었다. 이것이 한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살펴보자. 그는 소환장을 받은 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누군가 일부러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해서 나를 고발한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 하지만 혹시 다른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본 다음, 변호사에게 법원에 가서 소환장을 왜 보냈고 원고는 누구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해야지. 이 일을 분명히 한 다음 대책을 세워야겠어. 만약 변호사가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한다면 얼른 사람을 찾아 대책을 연구하고, 또 집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서적 등은 미리 서둘러 숨겨서 적들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해.' 초보적인 생각 끝에 그는 소환장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미 구상해 두었다. 1 번 방안은 어떻게 실행할지, 2 번 방안은 어떻게 실행할지, 만약 둘 다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세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우선 정신을 가다듬고 속으로 서둘러 기도하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후, 얼른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 몇 가지 일들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가닥이 잡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나중에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떠나,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볼 때 어느 유형의 사람이 문제를 숙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질을 갖추었느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자질을 갖추었다. 일이 닥쳤을 때 배짱과 의지만 있다고 자질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숙고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숙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겉으로 보면 소심해 보이고, 작은 일이 닥쳤을 때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작은 일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과 방법을 보면, 그에게 사고 능력이 있고,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대범해서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 일이 닥치면

간단하게 생각한다. '난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 하늘이 무너져도 키 큰 사람이 받치고 있을 텐데 뭐가 두려워?' 그를 보면 마음이 무척 넓고 사는 것도 꽤나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약간은 무모하고 맹추 같지 않으냐? 이런 유형은 구호를 크게 외치고, 하는 말도 틀리지 않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고, 문제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발생한 일이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일이든 상관없이, 그는 사고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니 당연히 문제 처리 방안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리 없다. 이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다. 이런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변도 좋고, 도리도 잘 얘기하고, 사기를 북돋울 줄도 알아서 리더를 맡을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르며, 그저 글귀와 도리나 조금 읊어 대고 구호나 외칠 줄 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영리해 보이지만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할 줄 모르고, 그 문제로 인해 빚어질 심각한 결과를 가늠할 줄도 모르고, 갈피를 잡을 줄도 모른다. 문제 해결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언변이 좋지만 사실은 역시나 자질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받은 후 한번 읽기만 하고 문자적인 의미만 해석한다면, 비록 사역지침도 하달했고 예배 시간에 사역지침의 요점도 교제했지만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원칙, 주의 사항, 특수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배하고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방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면, 이것은 바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인 '지도'는 쉽지 않으며,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한 리더 일꾼이 리더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그런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지도와 시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

2. 감독, 독촉

계속해서 '감독' 사역에 대해 교제해 보자. 감독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검사하는 것으로, 어느 교회가 사역지침을 시행하고 어느 교회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시행 진도는 어떤지, 어느 리더 일꾼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어느 리더 일꾼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는지, 사역지침을 하달하기만 하고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리더 일꾼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감독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사역지침 시행 상황을 감독하는 것 외에, 즉 시행을 했는지, 시행 속도는 어떤지, 시행의 질과 도달한 성과는 어떤지 등을 감독하는 것 외에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엄격하게 따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어떤 리더 일꾼은 겉으로는 사역지침을 준수하고 싶다고 하지만 환경이 닥친 후 잡혀갈까 두려워서 숨기만 한다. 사역지침은 일찌감치 까맣게 잊어버려 형제자매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지 못하고, 사역지침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실행의 원칙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를 보면 사역지침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리더 일꾼은 사역지침의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해 생각과 관념, 반발심을 품고 있어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는 다르게 시행한다. 사역지침의 본래 의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시행하고,

형식적으로 대충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윗선 리더 일꾼이 가서 감독해야 한다. 감독의 목적은 사역지침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약간의 변형도 없이 원칙대로 보다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할 때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사역지침을 느리게 시행하는 리더 일꾼이라든가 사역지침에 반발심을 품고 시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리더 일꾼, 혹은 아예 사역지침대로 시행하지 않고 자기 경영을 하는 리더 일꾼, 사역지침을 보류시키고 자기 뜻대로만 전달해서 하나님 선민들이 사역지침의 본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리더 일꾼 등을 발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윗선 리더가 감독하고 검사해야만 실상을 알 수 있다. 만약 윗선 리더가 감독하고 검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리더 일꾼들이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는 사역을 단계별로 전달하고 지도하는 것은 물론 감독까지 진행해야 한다. 교구 리더는 지역 리더의 사역을 감독하고, 지역 리더는 각 교회 리더의 사역을 감독하고, 각 교회 리더는 각 그룹의 사역을 감독하는 등 단계별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역지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사역을 정확하게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감독'이라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감독할 때 만약 환경이 허락한다면 리더 일꾼은 교회로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역하는 사람과 만나 사역 시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관찰하고, 알아보고, 파악하고, 숙지해야 하며 아울러 형제자매들이 해당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사역의 원칙을 숙지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모두 리더 일꾼이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이다. 특히 비교적 자질이 부족하고 인성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사역에 책임감이 그리 강하지 않고 충성심이 없는 비교적 게으른 사람들인 경우, 사역에 대한 리더 일꾼의 감독과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 어떻게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느냐? "빨리들 하세요. 상부에서 사역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역은 기한이 있어서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독촉한다면 어떻겠느냐? 독촉이란 것이 재촉만 하면 끝이냐? 어떻게 독촉하면 좋을까? 너희가 사역할 때 독촉하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일부 사역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왜 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동시에 그 사역들을 밀착 관리 합니다.) 사역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주면서 가르쳐 주어야 하고, 게으른 사람을 보면 책망하고 훈계해야 한다. 사역을 할 줄은 알지만 이를 게을리하고, 열의가 없고, 꾸물대고, 육적인 편안함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한다. 책망한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역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은 경고를 하도록 해라.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계속 그런 태도로 사역을 대한다면 당신의 본분을 교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당신은 이 사역을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본분에 충성심이 없다면 당신은 이 사역을 할 자격이 없지요. 만약 당신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당신 육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본인이 사직을 신청해도 됩니다. 만약 사직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고 하나님 집의 요구와 원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늦춰서 사역에 손실을 초래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당신을 처리해야 하고, 당신은

이 본분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 주시지요!" 경고를 받은 그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계속 써도 된다. 만약 여러 번 경고해도 태도에 변화가 없고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얼른 교체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약간의 결점이나 작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만약 그가 회개하고자 하고 나중에는 달라져서 전보다 훨씬 좋아질 경우,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면 계속 쓸 것이다. 만약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진리를 교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했는데도 소용없다면, 누가 도와주어도 소용없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은 인성이 너무 형편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내보내야 한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라.

리더 일꾼은 교회 사역을 감독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간 감독하고 밀착 관리 해야 한다. 가끔 가서 상황을 물어보거나 두어 마디로 대충 넘어가면 끝이 아니다. 때로는 현장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독해야 한다. 현장에 머무는 목적은 무엇이냐? 문제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네가 사역 현장에 갔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사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난 뒤에 일부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독하는 것은 일을 감독하거나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감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독한다는 것은 검사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즉, 사역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사역 진도, 사역에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숙지하며, 누가 사역에 책임감이 있고 누가 무책임한지,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역을 감독할 때 때로는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파악하고, 알아보아야 하고, 때로는 만나서 물어보거나 직접 검사해야 한다. 물론 책임자와 대면하여 교제하면서 사역 시행 상황, 그리고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등에 대해 물어봐야 할 때가 더 많다. 감독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체면이 서는 일, 표면적인 일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역을 시행할 수 없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알지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지 등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발견과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제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 감독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역지침을 더욱 잘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사역 배치가 적절한지, 빠뜨리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치우치거나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감독 과정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관찰하고 파악해야 알게 되고 숙지할 수 있다. 사역을 감독할 때는 사역을 무책임하고 무심하게 대하고, 위아래를 속이고, 사역에 건성으로 임하고, 사역 진도가 느린 사람들을 독촉해야 한다. 독촉의 방법은 방금 전에 말한 몇 가지 절차인 지도, 교제, 책망과 훈계, 경고, 교체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3. 검사, 밀착 관리

리더 일꾼이 사역을 독촉했으면 곧바로 사역을 검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역을 검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역 검사는 배치한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여전히 존재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사역을 완전히 제대로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사역을 배치한 뒤, 후속 사역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완성이 되었는지, 효율은 어떤지, 효과는 어떤지,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등이 모두 검사해야 할 항목에 해당한다. 자신이 배치한 사역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구체적이고도 필요한 사역이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자주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는 사역 배치만 끝내면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임무를 완수했고 책임을 다했어. 어쨌든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 주었고, 당신들은 알았다고, 가서 하겠다고 대답했으니 그 뒤로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지. 일을 끝내고 나한테 보고만 한번 해 주면 돼.' 사역 배치와 안배만 끝나면 그는 자신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사역을 밀착 관리 하지도 않고 검사하지도 않는다. 해당 사역의 책임자를 제대로 안배했는지, 대다수 사람들의 내적 상태는 어떤지,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치우치거나 잘못된 곳은 없는지, 상부의 사역지침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전혀 파악하거나 검사, 밀착 관리 하지 않고, 사역을 안배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역을 검사할 때는 어떤 점을 검사해야 하느냐? 주로 사역 시행 방안이 사역지침에 부합하는지, 사역지침의 원칙과 요구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역을 할 때 교란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큰소리치는 사람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물론, 사역을 검사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검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사역을 검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예시 교제

상부의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이를테면, 사역지침에서 체험 간증문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역이다. 이 사역은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일시적인 사역지침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그렇다면 이 사역지침이 하달된 후 리더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에서는 리더 일꾼들에게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각 팀장, 책임자에게 해당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성과에 이를 수 있는지 교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두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한 원칙과 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 교제해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즉, 먼저 상부에서 쓰도록 요구한 간증문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간증문을 쓰라고 요구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작성해야 할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칙, 범위를 정한 다음, 모든 리더 일꾼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도 글의 분량과 격식, 소재, 언어 스타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의 장르는 서술문, 일기, 자서전, 산문 등의 형식에 따라 쓰면 된다. 이런 것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도를 받은 후, 모두들 작성해야 할 간증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를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 리더는 체험 간증문을 쓸 수 있는 자질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깊은 체험이 없어서 평범한 간증문을 쓰는 훈련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 속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글이 작성된 다음에는 내용이 사실인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기준에 부합한다면 샘플로 삼아 아직 글을 쓰지 않았거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읽고 참고하도록 한다. 만약 체험이 있어 간증문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원칙과 요구에 따라 써야 하며, 마음속 말이나 실제적인 말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글쓰기에 서툴고 단순히 나열식으로만 써 내려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록 그가 쓴 글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훈련해야 하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참된 인식과 깨달음을 글로 써야 한다. 그리고 정리와 검토를 거쳐 만약 글의 내용이 간증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런 글은 유효하다. 써낸 글의 문체가 어떻든, 어떤 형식이든, 서술문이든 일기 형식이든 사람들이 읽고 유익을 얻고 도움이 되면 써도 된다. 그 밖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체험 간증은 있지만 간증문을 쓸 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경우 본인은 구술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대신 기록하면 된다. 당사자의 본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간증문으로 정리해 낸다면, 이런 글도 유효하다. 이 사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간증문이란 무엇이며 간증문의 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교제해야 하고, 그런 다음 사람들의 다양한 교육 수준과 연령대 혹은 다양한 체험, 다양한 분량에 맞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글을 쓰도록 하고, 동시에 형제자매들의 글쓰기를 지도하기에 적합하고 글을 정리하고 수정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 구체적인 사역을 맡기도록 해라. 그러면 이 사역은 기본적인 안배가 끝난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배하기만 하면 사역을 다 시행한 것이고, 더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는 단지 해당 사역지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도와 도움,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다음으로 리더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역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할 때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감독은 아무 샘플이나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 대상이 있어야 한다. 누구를 감독하고 사역의 어느 부분을 감독할지 속으로 생각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리더인 모 자매는 평소에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눈은 높지만 실력은 따라 주지 않고, 위아래를 잘 속이는 데다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역은 건성으로 하기 일쑤다.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는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첫 단계로 그녀가 하는 사역을 검사해야 하며, 그녀가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함부로 사람을 감독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에 필요한 것이다. 해당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네가 맹목적으로 그를 믿는다면 교회 사역이 지체되고, 너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정말 잘하고 결심도 잘 표현하지만, 사실 말만 듣기 좋게 하지 뒤에서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감독해야 할 대상이다. 감독을 통해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아라.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얼른 교체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해라. 사실 대부분의 리더 일꾼들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 감독, 지도를 실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할 줄 아는 사역이라면 감독할 필요가 없고, 만약 새로운 사역이나 중요한 사역이라면 역시 밀착 관리, 감독, 지도해야 한다. 사역에 대한 이런 감독과 밀착 관리가 바로 리더 일꾼의 본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역을 밀착 관리, 감독, 지도하는 것은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역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여러 결함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각종 패괴 성품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역을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다. 갓 발탁되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밀착 관리, 감독, 지도가 더욱 필요하며,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이다. 네가 만약 밀착 관리, 감독, 지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어떤 사역을 망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특히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리더 일꾼들은 더욱 감독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에서는 사역지침이 거의 그대로 시행되는데, 그의 편에서는 시행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고, 어떻게 시행될지도 불확실하며, 사역지침에 따라 시행될지는 더욱 불확실하다. 그가 하는 사역은 믿을 수가 없다. 네가 만약 그를 믿어서 그의 사역을 감독하지 않는다면 그 본질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며 사역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밀착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며 그 사람이 있는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가 네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반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염치 불고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냐? (옳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의 세력권이 아니다. 그곳은 교회이고 네가 책임지는 사역 범위에 해당한다. 너는 그의 집에 얹혀서 밥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내려가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염치없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가 리더이기는 해도 하나님 선민들은 그의 소유가 아니다. 그가 사역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의 사역을 밀착 관리 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교회에서 누가 생명 체험이 있어 체험 간증문을 쓸 수 있는지, 누가 진리 추구를 중시하는지, 누가 일기나 묵상 기록에 집중하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을 중시하는지, 누가 체험 간증이 가장 많은지 물어보아라. 우선 그 사람들을 제공하라고 해라. 만약 그가 형제자매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고, 또 묵상 기록을 자주 하고 일이 닥쳤을 때도 진리 실행을 중시하고, 체험 간증을 자주 나누어 형제자매들이 모두 듣기 좋아한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도록 해라. 또한 교회 안에 분명 교육 수준이 낮아서 글은 쓸 줄 모르지만 실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그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 사람을 선출해서 하나님 선민들이 체험 간증문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해라. 그 사람은 간증문을 수집, 정리, 검토한 다음 완성된 글을 제출하는 일을 책임진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가 이들 사역을 감독하고 밀착 관리 하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말한다. "교회 리더가 있는데 왜 또 책임자를 선출해야 합니까? 책임자 선출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 교회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너무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해당 사역을 구체적으로 책임질 책임자를 한 명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리더가 만약 믿을 만하다면, 그가 이 사역지침을 받은 다음 스스로 착실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너는 이렇게 감독할 필요가 없다.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교회 리더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역 효과에 이르려는 것이다. 만약 네가 책임자를 선출하지 않는다면 이 사역은 무산될 수 있으며, 언제 완수될지, 언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가 된다.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목적은 하나님 선민들이 실제로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선민들이 사역지침의 요구 기준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런 리더 일꾼이 하나님 뜻에 합하는 리더 일꾼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 사역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리더 일꾼을 감독하지도 않는다면 교회의 그 사역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거짓 리더에 의해 망쳐질 것이다. 그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속으로 그 리더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때 밀착 관리와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겠느냐? 네가 그런 사역을 구체적으로 밀착 관리 하고, 이에 참여하고, 책임자와 해당 사역을 할 사람들을 모두 안배했다고 바로 떠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정 기간 밀착 관리 하는 것이다. 밀착 관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 리더가 적극적으로 해당 사역에 협력하도록 독촉, 지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안배한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이 수시로 일으키는 문제도 제때 지적하고 도와줄 수 있다. 네가 만약 너무 일찍 떠났다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와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사역이 지체될 것이다. 요컨대 그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 네가 해야 할 일은, 사역에 참여해서 이 사역을 할 인원과 책임자를 안배하는 것 외에도, 일정 기간 밀착 관리 하면서 그들이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한편으로 교회 리더가 책임을 다했는지 감독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사역을 해 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가 이 사역에 참여할 때는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것이다. 물론 그와 동시에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다. 현장에 머물면서 감독하고 밀착 관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행 방법이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하는 사역이고,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들의 사역을 한동안 밀착 관리 하다 보면 이미 작성된 글들을 보게 될 것이다. 글의 유형도 다양하고,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체험한 내용, 가족의 핍박을 체험한 내용, 사람이 표출한 패괴 성품을 인식한 내용,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패괴된 내적 상태를 해결한 내용 등 다양한 문제나 소재에 맞춰 쓴 글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간증문은 모두 검토를 거쳐서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승인을 받고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사역을 했다면 이미 성과를 본 것이다. 이는 네가 안배한 사역 인원과 책임자가 기본적으로 비교적 적합하다는 뜻이다. 그 후로 그들이 만약 이 사역을 스스로 완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네가 거기서 빠지는 것이 적절하다. 리더 일꾼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공허한 이론을 떠들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수확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이 크다. 한 측면으로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측면으로는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직책을 다하게 된다. 또 한 측면으로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글귀와 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 생활에서 진리를 더 많이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실제 체험이 생기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한 교회의 시범 사역을 이 정도로 지도해서 초기의 효과를 본 후, 리더 일꾼이 그다음으로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냐? 시범 사역 하나를 완수했다고 그것으로 끝이냐? 해야 할 사역이 더 있지 않으냐? 너무나 많다! 이 교회의 사역을 지도한 후 중점적으로 사역을 지도해야 할 교회가 또 있다면 그 교회에 가서 지도를 계속해야 한다. 너는 이미 사역 경험이 조금 쌓이고 진리 원칙을 조금 파악했으니 다시 사역을 지도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물론 앞서 얘기한 사역 절차에 따라 우선은 그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들의 자질과 인성, 교육 수준, 진리를 추구하는 정도, 본분을 대하는 태도와 진리에 대한 인식 등 각 방면이 비교적 이상적인지, 비교적 뛰어난 사람들인지 검사해 보아야 한다. 일정 기간 사역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보면 어떤 리더 일꾼이나 책임자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치우치게 이해해서 일을 보는 관점이 바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고력이 없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 학문적 지식에 기대어 글을 수정할 수 있을 뿐 영적 용어의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용이 적절한지는 잘 알지 못하고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선출해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 책임자로 선출된 어떤 사람은 사역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것만큼 성과가 좋지는 않다. 그에게 책임자를 맡기면 사역이 바빠져서 글을 쓸 시간이 없어지고, 또한 책임자의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는 사역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데 서툴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서툴지만 한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데는 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책임자로 선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이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검사하고 밀착 관리 할 때는 책임자가 원칙을 이해하는지만 물어보고 알아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은 과연 어떤지, 그의 자질과 이해 능력, 분량은 과연 그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한지 관찰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검사하는 것이다.

간증문 쓰는 사역을 시행하려면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의 책임자가 적절한지 검사하는 것 말고도, 글을 검사할 줄 알아야 하고 글쓰기 사역을 지도하고 검토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쓴 글은 샘플로 쓸 수 있다.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않아서 가치가 없고,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글은 바로 탈락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형제자매들은 어떤 글이 가치가 있고 어떤 글이 가치가 없는지 알 수 있고, 가치가 없는 글은 앞으로 쓰지 않게 되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네 사역도 가치 있는 사역이 될 것이다.

사역을 검사할 때는 그들이 쓴 각 유형의 체험 간증문을 모두 훑어보고 그중 과장이나 거짓이 섞인 글은 없는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인지 살펴봐야 한다. 네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검토하는 순간이 역시 배움의 순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배우는 동시에 이 사역을 점점 잘 할 수 있게 된다. 네가 만약 검사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무책임하며 형식만 거치면서 글만 제출하고 끝이라면, '어쨌든 우리 교회에 간증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 다 쓴 다음 전부 제출하면 돼. 기준에 부합하든 않든 상관없어. 내가 사역도 적잖이 하고, 사역지침도 시행하고, 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윗선 리더가 알아주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무책임한 것이다. 만약 네가 책임감이 있다면 우선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네 손을 거쳐 제출된 글은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글이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되고 누구나 보고 싶어 해야 리더 일꾼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사역 검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구호나 외치고 도리나 좀 얘기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 사역의 효율과 성과를 검사하고, 네가 하는 사역이 기준에 맞는지, 사역지침 시행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어느 부분이 기준에 맞고 어느 부분이 기준에 맞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검사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역에 관계되고, 사람의 자질에 관계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진리 실제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계되고, 일을 보는 능력에 관계된다. 네가 만약 사역을 검사할 줄 알고, 사역을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간증문을 제출하기 전에 원칙대로 잘 검토해서 제출한 간증문이 모두 기준에 부합하여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는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고, 사역을 제대로 한 것이다.

지도, 감독, 독촉과 같은 몇 가지 사역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와 검토를 해야 할 때가 곧 한 리더 일꾼이 자질이 높은지, 진리 실제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때이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또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거나 교체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안배한 사역의 효율이 어떤지, 성과가 어떤지, 사역지침에 부합하는지, 만약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대부분의 리더 일꾼들은 지도, 감독, 독촉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다. 그들은 사역을 검사해야 할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원칙도 없고, 애를 먹는다. '사역지침은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검사할 게 있다는 거지? 모두가 일하고 있고, 한가한 사람도 없고, 방해하거나 교란한 사람도 처리했고, 교체하거나 정리해야 할 사람도 교체하고 정리했는데 뭘 더 검사해야 하지?' 그들은 알 수가 없다. 사역을 검사하려면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네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험 간증문을 쓰는 사역 책임자가 간증문 한 편을 가져와서 간증문이 문체도 아주 좋고, 언어도 유창하고, 글의 스타일과 소재도 괜찮은데 다만 실제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자기는 간파하지 못하겠으니 대신 봐 달라고 부탁한다. 너한테 봐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검토할지, 그리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바로 네 실제 분량에 대한 검증이다. 실제 분량은 무엇을 뜻하느냐? 네가 진리

원칙을 깨달았는지 여부를 뜻한다. 만약 책임자가 간증문 쓰는 원칙을 깨닫지 못해서 글이 실제적이고 진실한지를 평가하지 못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르고, 너도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한다. 바로 너도 그와 자질이 비슷해서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냐? 네가 깨달은 진리는 그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가 간파하지 못하는 문제는 너도 간파할 수 없다. 이것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문제를 네가 간파할 수 있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네가 검사해서 찾아낸다면 그것은 네가 검토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글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고, 별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너는 검사와 검토를 거쳐 일부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글을 찾아냈다고 하자. 네가 그들에게 해부하고 교제하여 그 글들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설명했더니 모두들 네 말이 일리가 있고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며, 네가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있으니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글은 공허하고 실제적인 체험적 인식이 결여되었고, 어떤 글은 실제적인 체험적 인식은 있지만 표현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고, 어떤 글은 인용한 하나님 말씀이 적절하지 않고 더 적절한 말씀을 선택하지 못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어떤 글은 일을 보는 관점이 옳지 않고 이해가 조금 치우친 데다 진리에 대한 인식을 교제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봐도 도움이 안 되고 쉽게 소극적이 되고 오해가 생기는 식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너는 모두 검사해서 찾아내고 꿰뚫어 보았다. 너는 교제를 통해 그들이 원칙을 숙지하게 하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체험 간증을 쓰도록 하였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글을 선별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체험 간증으로 삼아 하나님 선민들이 보고 도움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된 체험적 인식이 없거나 이해가 치우친 글은 모두 탈락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검토한 것 아니겠느냐? 너에게 만약 이러한 일을 보는 능력과 사역 능력이 있다면 네 자질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글들이 다 괜찮아서 너에게 검토해 달라고 가져왔고, 네가 보기에도 대부분 다 괜찮았다고 하자. 그런데 사실 그중 일부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선별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네가 간파하지 못하고 상부에 전달했을 때 상부에서 일부 글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탈락시켰다면, 이것은 네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 사역 검사는 한편으로 리더 일꾼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리더 일꾼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 방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도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고,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질은 충분하다. 다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얕아서 문제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발전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전할 방법이 없다.

체험 간증문을 쓰는 이 사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역을 검사하는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는 리더 일꾼에게 진리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자질이 다소 부족하고 비교적 취약한 리더 일꾼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질이 보통인 리더 일꾼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사람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고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직접 가서 이 사역의 책임자를 만나서 사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고, 알아보고, 파악하고, 사역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요컨대 체험 간증문을 쓰는 이 사역지침은 한 번 하달되면 한두 달이면 일단락되는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닌 장기적인 사역이다. 사역지침이 하달되고 한두 달 이내에 리더 일꾼들이 사역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한다고 끝이 아니라, 사역을 장기적으로 중단 없이 밀착 관리 해야 한다. 비교적 취약한 교회 리더는 직접 가서 지도해야 하고, 혼자서 사역지침을 시행할 수 있는 교회 리더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사역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의 책임이다. 따라서 리더 일꾼이 사역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쉴 틈이 없다는 점이다. 어떤 리더 일꾼은 늘 이렇게 생각한다. '사역지침도 다 하달했고, 어떻게 시행하는지도 교제했어. 사역을 다 끝내서 할 일이 없네. 그럼 적당한 일을 좀 하자. 식사 준비나 섬김 일을 돕든가, 형제자매에게 부족한 생필품이 있으면 대신 사다 주든가 해야지.' 그는 사역지침을 하달한 다음에는 한가한 사람이 되어 사역을 다 끝냈으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사역을 할 줄 모르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역을 챙길 줄 모르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이 하달되면 상부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이상 그 사역들을 계속해야 하고,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체험 간증문을 쓰는 이 사역의 경우 상부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하지 말라고 통보가 내려왔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작심삼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역지침이 막 하달되었을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역에 협력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상부에서 독촉도 하지 않고, 따로 얘기도 없고, 이 사역지침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시도 하달되지 않으면, 리더 일꾼들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 사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옳지 않으며 직무 유기이다. 사역을 시행한 기간이 얼마나 되든, 이 기간에 사역에 대해 상부의 관여, 독촉, 강조가 있든 없든 이 사역이 너에게 맡겨진 이상, 너는 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해야 한다. 지속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상부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리더 일꾼들은 사역에 대한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사임하거나 교체되지 않고 리더 일꾼을 맡고 있는 한 이 사역은 네가 리더 일꾼으로서 반드시 잘 해야 할 사역이자 계속해서 시행하고 밀착 관리 해야 할 사역이다. 이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느냐? 네가 가는 교회마다 해당 지역 리더와 사역 책임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요즘 간증문 쓰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괜찮고 감동적인 글이 있나요? 특별한 체험을 다룬 글은 없나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글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 정말 실제 체험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른 제출해야 한다. 어느 교회를 가든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도록 해라. 이것이 네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역이니 남에게 미루지 말고 네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서 상부의 독촉과 관여가 있든 없든 네가 해야 할 사역에는 이 일이 포함된다.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느라 바빠서 간증문을 쓸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독촉해야 한다. "훌륭한 간증문을 쓰는 것은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무척 유익한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본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자매들이 쓸 만한 체험은 이미 다 써서 이제는 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냐? 사실 세부적인 체험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쓴 체험 간증을 보고 나서야 자기도 그와 관련된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따라서 체험 간증문을 쓸 때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 많은 체험적 인식이 쓸 만한 소재가 된다. 쓸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타당하냐? 이 일은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며,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한다. 그가 만약 글을 쓸 줄 모른다면 본인은 구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리해 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편의 훌륭한 간증문이 완성된다. 너의 독촉과 지도를 통해 또 한 편의 훌륭한 체험 간증문이 나온다면 그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도움과 유익을 얻겠느냐? 만약 네 감독과 지도도 없고 해당 지역 교회 리더도 부담감이 없는 탓에 형제자매들이 체험 간증을 다 써서 더 이상 쓸 만한 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훌륭한 체험 간증도 나올 수 없다. 가끔 어떤 교회에 가면 너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형제자매가 있다. "저는 평생 갖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 믿을 때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저는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를 보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자신의 체험을 얘기한 그에게 그 체험을 글로 썼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배움이 짧아서 글을 못 쓴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제 체험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훌륭한 체험이 어떻게 가치가 없을 수 있나요? 매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체험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써야 합니다." 너는 얼른 교육 수준이 있는 형제자매를 안배해서 그를 도와 정리하도록 해라. 사흘도 안 돼서 한 편의 훌륭하고 멋진 간증문이 작성되고, 그것이 체험 간증 영상으로 제작되면 모두들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인공의 체험이 너무 훌륭해서 다 보고 나니까 너무나 도움이 돼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재이고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이번에 더욱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믿음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체험 간증문은 정말 실제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영화로 만들면 더 좋을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간증문이 빨리 영화로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한다.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대할 때 책임감과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나눈 대화에서 한 편의 좋은 글, 하나의 좋은 영화 소재가 생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재와 하나님의 예정을 증거하는 최고의 간증이자 최고의 소재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리더 일꾼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떠냐? 사역할 때 어떠한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를 가든 물어보고 알아보며 형제자매들과 접하면서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간다.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가득하다.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연히 성과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일이 선행이 아니냐? 너희가 볼 때 이만한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든 일이냐? 고생스러우냐? 불구덩이에 뛰어들 정도라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일은 어렵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이 사역을 염두에 두고 어디를 가든 파악하고 알아보도록 해라.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괜찮은 간증문이 있나요? 체험이

있는데 아직 글로 써내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글을 쓰도록 인도하나요? 형제자매들이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글을 써내도록 지도하나요?" 어디를 가든 늘 이 일을 교제하고, 이 사역과 관계된 일을 하거나 이 사역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실행하면 리더 일꾼의 사역이 많지 않겠느냐? 할 사역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피곤하고, 또 지쳐 쓰러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지쳐 쓰러지지도 않고, 사역에도 성과가 있고, 하나님에게 기억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사역하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형제자매들도 체험 간증문을 쓰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느낄 것이다. 전에는 자신의 체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네 지도를 통해 체험 간증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는 그의 생명 진입에도 유익이 된다. 이렇게 사역해야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교제했으니 이제는 사역을 검사할 수 있겠느냐? 사역을 검사하는 것은 흠을 찾거나 억지로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즉, 사역이 배치되었는지,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지, 사역 진도는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역한 것이 원칙에 맞고 성과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사역 성과를 관찰, 검토, 평가한 다음, 거기서 더 적절하고 나은 사역 시행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역지침, 예를 들어 체험 간증문을 쓰는 이 사역지침은 상부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사역을 밀착 관리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유익이 된다. 일부 사람들이 체험 간증문이 이미 충분하고, 하나님 선민들이 다 보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역을 멈춰도 되는 것이냐? 멈추면 안 된다. 체험 간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하나님 선민들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일부 새 신자는 그 체험 간증문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 알고, 일정 기간 체험한 뒤에는 수확을 거두어 자연스럽게 체험 간증문을 쓸 수 있게 된다. 체험이 얕은 일부 사람들은 보다 깊이 있는 체험 간증문을 보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아울러 체험이 더욱 깊어져 더 훌륭한 간증문을 써낼 수도 있다. 이런 간증은 종교계 사람들이든, 하나님 집에 있는 하나님 선민들이든 누구나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체험 간증문을 쓰는 이 사역은 영원히 멈출 수 없다. 리더 일꾼은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밀착 관리 해야 하고, 그 어떤 핑계나 이유로도 이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리더 일꾼들도 앞장서서 체험 간증문을 써야 한다. 그 사람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러한 실행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만약 체험 간증문을 써내지 못한다면 그는 기준에 부합하는 리더 일꾼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교체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을 잘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각 교회에 가서 사역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알아보면 된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추구하는 몇몇 형제자매들은 어느 정도 체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간증문을 쓸 수 있나요?" 그런 다음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보고 받아들였는지, 자신이 느낀 바를 글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해라. 리더 일꾼은 이 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파악하고, 밀착 관리 하고,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행

상황이 어떤지도 검사해야 한다. "최근에 이 사역을 할 사람들을 안배했나요? 체험 간증문은 얼마나 써냈나요? 기준에 부합하는 글이 얼마나 되나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책임자가 말한다. "지난번에 교제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체험 간증문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중 기준에 부합하는 글 몇 편은 제출했어요. 저희는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다, 너는 이 사역을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 참된 체험 간증문이 있느냐 없느냐는 리더 일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으냐? 한편으로 너는 계속해서 이 방면의 사역을 교제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수 모범을 보이며 계속해서 이 사역에 대해 관여하는 동시에 이 사역에 참여하고 그것을 밀착 관리 해야 한다. 일정 기간 밀착 관리 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시행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 집에서 내놓은 모든 사역지침을 참답게 대하고 참답게 시행해야 한다. 사역지침을 자주 꺼내어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을 대조하며 검사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최근에 어떤 사역을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는지 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역지침에서 배정하고 요구한 사역 중에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 보완하고 관여해야 한다. 만약 다른 구체적인 사역으로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역을 검사하고 밀착 관리 해도 된다. 명령만 내려서는 안 되며 사역을 배치하고 안배한 것으로 임무를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수수방관해서도 안 된다. 리더는 한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만약 네가 보기에 특별히 중요한 사역이라면 그 사역을 관리하고 감독해도 되지만, 다른 사역도 짬을 내서 검사하고, 지도하고, 밀착 관리 해야 한다. 만약 한 가지 사역을 잘한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안배한 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이는 무책임한 모습이며 직무 유기이다. 네가 리더로 있는 이상, 네가 책임지는 사역이 몇 가지이든 계속 관여하고 알아보는 동시에 그것들을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이것이 너의 본직 사역이다. 따라서 네가 교구 리더나 지역 리더, 교회 리더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팀의 팀장이나 책임자가 되었든 자신의 직책 범위를 파악한 후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했는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했는지 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담당하는 사역 중에 하지 못한 사역은 무엇이고, 하기 싫었던 사역은 무엇이며,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역은 무엇이고, 원칙을 숙지하지 못한 사역은 무엇이었는지를 언제나 성찰해야 한다. 동시에 사람들과 교제하며 물어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역지침 안에서 실행 방안과 실행 원칙,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역지침이라도, 행정 분야, 인사 분야, 교회 생활 분야, 각 업무 사역 분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에 관계된 것이라면, 즉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책임이자 리더 일꾼이 책임져야 할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면, 너는 그 사역들을 모두 챙겨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구분해야 하며, 어떤 사역도 지체하면 안 된다. 어떤 리더 일꾼은 말한다. "제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사역지침 안에 포함된 사역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전부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면 전혀 감당이 안 됩니다." 네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안배했느냐? 안배한 다음에는 밀착 관리를 하고 관여하였느냐? 잘 검토했느냐? 설마 관여하고 검토할 시간조차 없는 건 아니지

않으냐? 그 정도 시간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어떤 리더 일꾼은 말한다. "저는 한 가지 사역만 할 수 있습니다. 저더러 검토하라고 시키시면 저는 한 가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못난 인간이며,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사역 능력이 없어서 리더 일꾼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네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성장을 지체시키지 말고 너에게 맞는 일만 하면 된다. 만약 이런 이성이 없다면 너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이다. 네가 만약 자질은 보통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사역을 잘 하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자질이 좋은 사람을 둘 찾아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그것 또한 이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만약 네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자리를 차지한 채 지위의 복을 누리려 한다면 너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이다. 리더 일꾼은 반드시 양심과 이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그만한 인성도 없다면 절대 리더 일꾼이 될 수 없다. 설령 사역을 좀 하더라도 거짓 리더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자는 하나님 선민들을 해치고 교회 사역에 해만 끼칠 뿐이다. 모름지기 리더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절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을 모두 지체시키고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도 지체시키게 되는데, 이건 엄청난 과오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자질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절대 리더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리더 일꾼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사역도 책임질 수 없다. 리더 일꾼으로서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 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기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니 교체되고 도태되어 마땅하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관련하여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직책에 대해 교제한 후, 너희는 리더 일꾼이 사역지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길이 생겼느냐?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우리가 교제한 리더 일꾼의 직책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역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한두 가지 측면에 집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한두 가지 측면에 집중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이 만약 자질도 충분하고 다른 측면의 사역을 밀착 관리 하는 법도 배운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맞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단지 도리를 말하고 예배드리는 것에만 머물고 구체적인 사역은 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이를 검사하고 밀착 관리 하도록 했을 때 골치 아파하고, 방안도, 절차도, 길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한다면, 그가 바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사역지침을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리더 일꾼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리더 일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내려온 사역지침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지 알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런 길도 없으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우리에게 교제하고 설교할 생각을 하나요? 얼른 내려가세요! 당신은 리더 일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얼른 넘기시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구호 외치는 건 그만하라고요!" 이렇게 처리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역도 할 줄

모르면서 아무 구호나 마구 외쳐 대다니! 사역지침에 쓰여진 글자는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고, 도리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이다. 할 줄 모른다면 너는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사역도 '1 더하기 1 은 2'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리더 일꾼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원칙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계속해서 감독하고, 검사하고, 밀착 관리 해서 해당 사역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역지침의 요구를 완전히 시행해서 성과를 거두고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다.

사역지침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

지금까지 사역지침을 대하는 데 있어서 리더 일꾼의 직책이 무엇인지 교제해 보았다. 이어서 거짓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교제해 보자. 너희가 본 거짓 리더는 어떤 태도로 사역지침을 대하더냐? 그들은 어떤 행동 방식과 모습을 보였느냐? 거짓 리더는 보통 사역지침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부의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역 항목은 무엇인지 등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다. 하지만 단지 도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 구체적인 실행의 길은 알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도 못한다. 그들은 사역지침을 받은 후 어떻게 사역하는지, 사역지침을 어떻게 하달하고 시행하는지 교제하며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어떻게 교제하든 사역지침을 글자의 의미나 도리로만 이해할 뿐, 구체적으로 해당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만약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어떤 방안을 택해 시행한다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따라올지, 사역지침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고 파악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가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는 보통 예배를 열어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안배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몇 마디 덧붙인 다음 모두가 각오를 다지게 한다. 그는 이것을 사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역을 안배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얘기하면 책임을 다한 줄 안다. 그러고는 사역을 완수하기라도 한 것처럼 천하태평이다. 어느 시간에 사역을 검사해야 할지, 사역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지, 하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른다. 또 반드시 밀착 관리 하고 지도해야 할 중요한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감독, 독촉, 검사와 같은 중요한 절차를 거짓 리더의 부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나마 좀 나은 거짓 리더는 상대적으로 양심도 있고 밥만 축내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사역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에 가서 살펴보고 형제자매들에게 별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형제자매들이 자주 언쟁을 벌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툼이 끊이지 않고 혈기를 드러내기도 하죠."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예배를 열어 사람들에게 교제한다. "사람은 포용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굴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패괴 성품을 표출한 사람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패괴 성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를 한바탕 교제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업무와 관련된 일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열어 주었으니 사역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본분을 이행할 때 자기를 고집하지 말고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 문제는 단순히 패괴를 드러내고 혈기나 사리사욕을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거나 간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원칙에 부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표출되는 패괴 성품이 해결되면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겁니다." 거짓 리더가 가장 잘하는 사역이 바로 도리를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치는 일이다. 그는 사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로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저 글귀와 도리를 얘기하고 해석해 준 다음 권면하거나 아이디어를 좀 내 주고 끝내는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올바로 지도하거나 도와주지도 못한다.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게 간단하고 쉽지 않으냐? 어디를 가든 설교만 하면 되고, 도리를 읊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리더 일꾼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지 않으냐? 구체적인 사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하달된 사역지침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밀착 관리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직책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면 그저 구호만 외치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빌미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만약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언급되면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는 사역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편차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주요 특징이다. 이런 거짓 리더도 있다. 그에게 사역지침 한 가지를 시행하라고 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검사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모아 상부에 답을 구하면 상부에서 해결해 준다고 했다. 그 결과 그는 현장에 나가 사역에 참여했을 때 사람들을 불러모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고는 누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은지, 누가 누구와 늘 다투는지, 누가 인성이 별로인지, 누가 치우치게 이해하는지, 누가 교만해서 항상 자신을 고집하는지, 누가 먹기만 하고 일은 게을리하는지, 누가 불신파처럼 구는지, 누가 악인인지와 같은 문제들만 발견할 뿐, 해당 사역을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는지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너희가 볼 때 이런 리더 일꾼이 사역을 펼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그는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희 주변에 이런 리더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 리더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사역지침이 하달되었을 때 리더 일꾼이 구호만 외치고 설교만 할 줄 알지 사역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그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사역은 시행될 수 없다. 유명무실한 사역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역지침이 교회에서 시행되는 상황과 효과는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리더 일꾼이 자질이 좋고, 사역 능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다면 사역지침은 제대로 시행될 것이다. 반면 리더 일꾼이 자질도 부족하고, 멍청하며, 사역 능력도 없다면 교회에 해당 분야의 인재가 있더라도,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협력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사역지침은 시행될 수 없고, 효과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

거짓 리더가 하는 사역은 그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사역에 그친다. 사역지침을 시행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후속 검사나 밀착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사역은 형식에만 머물 뿐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고 성과도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체험 간증문을 쓰는 사역의 경우, 거짓 리더가 사역지침을 받으면 사람들을 불러모아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사역지침 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준다. 도리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다 이해한 것 같으면 거짓 리더는 이런 생각을 한다. '사역도 다 안배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나님 집에서 체험 간증문을 쓰라고 했으니 나도 써야겠다. 명색이 리더인데 간증문을 안 쓰면 사람들이 무시하겠지?' 그는 집에서 글을 쓰려고 고민하지만 하루 종일 써도 써내지 못하자 이렇게 생각한다. '글 쓰는 것도 참 힘들구나. 평소에 나도 체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펜을 드니까 왜 머릿속이 하얘지지? 그 체험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아니지, 나한테 체험이 있는 것은 확실해. 다만 글 쓰는 방법 때문에 힘든 거지. 바깥에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 정신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과 교제만 나누거나 사역에 대한 얘기만 해선 안 되겠어. 안 그러면 마음이 자꾸 밖으로 쏠려서 글을 쓸 수가 없을 거야. 한동안은 좀 조용히 지내면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고 써야겠어.' 그는 글쓰기를 주요 업무로,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을 부차적인 일로 여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글을 쓰느라 해당 사역이 시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각 교회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지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한 달 후, 그는 글도 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 사역지침이 하달되었는데도 일부 자질이 부족한 교회 리더들은 실질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 거짓 리더와 마찬가지로 글귀와 도리를 좀 얘기하거나 구호만 외치고 끝이다. 형제자매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든 않든 리더는 독촉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잡아 주지도 않는다. 거짓 리더는 이런 리더 일꾼을 그냥 내버려둔다. 어떤 형제자매는 이런 글을 쓰고 또 어떤 형제자매는 저런 글을 쓰는데, 그 글에 실제가 있는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무도 검토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들 역시 원칙을 모를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 어쨌든 쓰라고 하니까 쓰고 하나님 집에서 안배했으니까 순종할 뿐이다. 체험은 있지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신 글을 다듬어 줄 사람도 없고 그 일을 안배해 줄 사람도 없다. 온갖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리더 일꾼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문을 걸어 잠그고' 글만 쓰고 있다. 거짓 리더는 자기가 무슨 일에 매달려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교회에는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방법이 제각각이고 오만가지 방법이 다 있지만 그는 결코 관여하는 법이 없다.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나타나는 온갖 문제를 그에게 보고해도 그는 해결하지 않는다.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다양한 체험 간증문이 수도 없이 쌓이는데 이를 정리하고 검토하며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밀착 관리 하거나 검사하지 않고, 형제자매는 문제가 있어도 그를 찾을 수가 없다. 거짓 리더는 그것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역, 자기가 밀착 관리 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런 자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 리더 일꾼이 사역을 시행하는 상황과 그 사역의 효율과 성과를 보면 그 리더 일꾼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수 있고, 그의 인성과 자질, 사역 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며, 그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거짓 리더가 사역지침을 받으면 교제하고 하달하는 것으로 끝이다. 사역에 참여하거나 시행 상황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들이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역들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라는 사실도 모른다. 리더 일꾼은 설교만 할 줄 알면 되는 줄 안다. 이런 자는 얼간이가 아니냐? 얼간이가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될 수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고 자신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않으냐? 그는 체험 간증문을 쓰는 간단한 사역도 시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저 자질이 좋고 생명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문을 쓰게 한 다음 밀착 관리 하고 지도하면 되는 무엇보다 쉬운 일이다. 어떤 리더 일꾼은 자질도 보통이고,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아 문서 사역에 서툴지만 적합한 사람을 담당자로 안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실질적인 사역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사역을 책임지고 확인하는 일에 어떤 사람을 안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가 바로 거짓 리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서 문서 사역은 못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말이 안 되느냐? (체험 간증문을 쓰는 사역은 간단한 사역인데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사역을 시행하지도 못한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역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 사역하고 밀착 관리 해야 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자질이 형편없는 자요, 얼간이다. 그는 리더 일꾼이 큰 붉은 용의 관료들처럼 아첨하고, 큰소리치며, 구호를 외치고, 속임수를 써서 위아래를 기만할 줄만 알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관가의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나 리더 일꾼이라면 반드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른다. 그는 리더 일꾼의 본직 사역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결국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못하고 거짓 리더가 되고 만다.

거짓 리더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이 사역지침에서 요구한 원칙과 기준을 꿰뚫어 보고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는 그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기에,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행할 때 특수 상황이 나타나면 해결하지 못한다.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어찌할 줄 모른 채 "이 일은 사역지침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어찌 알겠어요?"라고 말한다. 너마저 모른다면 그 사역을 어떻게 시행하겠느냐? 너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라고 요구하다니, 그게 현실적이겠느냐? 합리적이겠느냐?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은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단계나 방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사역지침이 요구하는 원칙대로 점검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역지침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교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도리만

말하고 규례에만 맞추기 때문에 그 결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존재하게 된다. 결국, 어떤 사역은 시행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어떤 사역은 철저히 시행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제명하고 출교하는 사역지침의 경우, 거짓 리더는 이 사역을 할 때 뚜렷하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 적그리스도, 악령,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반감을 갖고 혐오하는 불신파만 제명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제명해야 할 대상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으니, 바로 그 숨어 있는 음험하고 교활한 악인과 적그리스도이다. 형제자매들은 그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그 또한 꿰뚫어 보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따르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제명될 정도에 이르러 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발탁하고 양성하고 중용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권력을 잡고 중요한 직위를 맡도록 한다. 그러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제명하고 출교하는 사역지침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 각종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수 있겠느냐? 복음 확장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고, 많은 중요한 사역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거짓 리더가 쓰는 사람들은 진리 실제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각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악인들을 써서 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고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심지어 그 악인들에게 제물을 관리하는 것까지 시킨다. 이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거짓 리더가 이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해 악인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 결과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이 악인들은 본분을 이행할 때 줄곧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며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이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함부로 굴고, 사람을 미혹하고, 수많은 악을 행한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꿰뚫어 보지 못하다가 큰 화가 초래되고 나서야 문제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허난(河南) 대교구에서 한 악인이 리더가 되자 각종 비열한 수법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훔쳐 갔다.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지만,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리더 일꾼이 사람을 잘못 뽑고 잘못 쓴 것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역지침에 따르면, 선택한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경우 일단 간단한 사역은 안배해도 괜찮다. 하지만 한동안 사역을 밀착 관리 하며 관찰해야 한다. 꿰뚫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사역을 안배해서는 안 되고, 특히 위험한 사역은 절대 그가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관찰하여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본 다음에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분을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거짓 리더는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하지 않으며,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은 더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또 사람을 잘못 써서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제물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초래하는 재앙이다. 적그리스도는 일부러 악인을 쓰지만, 거짓 리더는 어리벙벙해서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며, 어떤 문제를 발견해도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전부 정에 휘둘려 사람을 쓰고 안배한다. 거짓 리더가 안배한 사람은 대부분 적합하지 않아 교회 사역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일부러 악인을 쓰는 것과 결과가 같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해 사역을 할 줄 모르니, 초래한 결과 또한 매우 심각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만이 사역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짓 리더도 마찬가지로 사역지침을 어길 수 있다. 설령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그 성질은 사역지침을 어긴 것이다. 거짓 리더는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과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역지침을 어기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며,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고 하나님 선민을 곤경에 빠뜨린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성질 및 결과와 똑같아서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히고,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해를 입히게 된다.

거짓 리더는 형식적으로 사역하고, 형식적으로 사역지침을 시행하며,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다. 게다가 무척 독선적이어서 전혀 구하거나 교제하지도 않으며, 바보같이 본인이 자질이 좋고, 과감하며, 말을 잘하는 줄 안다. 형제자매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혹은 하나님 집에서 일시적으로 발탁되어 양성되기라도 하면 그는 이제 자신이 리더로서 기준에 맞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리더 일꾼의 그 어떤 직책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는 자기 주제도 모른 채 뻔뻔하게 덤벼들었다가 결국 각 사역지침이 하달되고 나면 그 어떤 사역지침도 상부의 요구대로 시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사역지침은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는 행정 사역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 복음 전도로 새 신자를 몇이나 얻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고 리더와 집사를 선출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복음 사역은 누가 책임져야 가장 성과가 좋고, 누가 복음을 증거해야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누가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책임감이 없어서 조정하거나 교체해야 할 팀장들은 누구이며, 어떤 분야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거짓 리더는 하나도 모른 채 엉망으로 사역한다. 교회에서 비교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각 업무 사역도 거짓 리더는 엉망으로 한다. 이런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도 못한다. 관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관여해야 할지 모르고, 이 사역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상부에 물어보고 싶어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모르니 사역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역지침에서 요구하는 재물 관리 사역, 그러니까 적임자를 안배해서 재물을 보관하고 분배하게 하며, 각종 제도를 수립하는 간단한 사역조차 거짓 리더는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엉망으로 한다. 거짓 리더는 어떤 사역이든 엉망으로 한다. 그에게 사역지침을 시행했는지 물어보면 그는 무척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한다. "시행했죠. 사역지침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요구하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사역했는지, 구체적인 사역 절차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하면, 어떤 사역이 비교적 미흡했고 어떤 사역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사역이 모두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 사역을 계속해서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해야 하는지, 검사한 다음 문제를 발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거짓 리더는 리더가 된 뒤로 자신이 해야 할 사역, 자신의 직책 범위마저 모른다. 이것은 더 큰 골칫거리가 아니냐? 현재 대다수 리더 일꾼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검증하는 기준

오늘 교제를 통해 너희는 리더 일꾼과 책임자들이 다해야 할 책임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느냐? 속으로 좀 더 윤곽이 잡혔느냐? 리더 일꾼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았느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리더 일꾼은 자신이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리더 일꾼이 기준에 맞는지 분별하는 데 길이 생겼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비추어 본다면 대부분의 리더 일꾼들이 기준에 맞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 일꾼들이 기준에 맞고, 어떤 리더 일꾼들이 기준에 맞지 않느냐? 기준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춘 데다 실제적인 체험도 조금 갖추고,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조금 있고, 교회 사역에 부담도 있는 리더 일꾼들은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치면 기준에 맞을 수 있다. 반면 자질이 부족하고, 이해 능력도 없고, 진리를 아무리 교제해도 원칙을 숙지하지 못하는 리더 일꾼들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가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 의해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자질이 충분한지부터 평가해 보도록 해라.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사역지침을 시행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된다. 최근에 나온 사역지침 하나를 가져다 읽어 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본인에게 시행 절차와 방안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 만약 생각과 방안이 있고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형제자매들이 너를 선출할 때 너는 마땅히 그 사역을 맡아야 한다. 사역지침을 다 읽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고, 어떤 사람을 책임자로 안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전혀 간파할 수 없고, 교회의 각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는 더욱 간파할 수 없고,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 어떻게 감독, 검사, 밀착 관리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속으로 시행 절차와 방안도 없는데도 일부 형제자매들이 네가 아주 재능이 있고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착각한다면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칭찬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능이 별로 없고 그런 재목이 못 돼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제가 리더로 선출되면 교회 사역이 지장을 받습니다. 저는 제 분량을 알아요. 간단한 사역지침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모르고, 전혀 윤곽이 잡히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없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설령 상부에서 임명한다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그런 재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이 이성적으로 처신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보다 훨씬 이성적이다. 거짓 리더의 입에서는 영원히 이런 이성적인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는 생각한다. '나를 선출해 주면 당연히 리더를 맡아야지. 못 할 이유가 뭐야? 재능이 있으니 내가 하는 거지.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우면 할 수 있지 않겠어? 설교만 할 줄 알면 되지. 나는 영적인 이해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서 교제도 잘해.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개인의 패괴 성품과 여러 가지 내적 상태도 잘만 해결하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것이 뭐 대수라고. 기껏해야 행정 관리 업무 아닌가? 전에 행정 관리를 공부했으니 하나님 집 사역쯤이야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지!' 이런 사람은 위험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위험한 것이냐? 너희는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그는 사역을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집 사역에 교란과 방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들을 해칠 것이고, 하나님 집 사역도 그르칠 것입니다.) 그저 해가 될 뿐이냐? 그것이 궁극적인 결과이냐? 만약 그 정도에 그친다면 그래도 보완할 수 있다. 관건은 거짓 리더로 오래 있다 보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다. 너는 리더 일꾼이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지위가 있으면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시험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렇다면 그 위험이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감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어떤 거짓 리더는 자질은 좀 부족해도 인성이 나쁘지 않은데,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인성이 나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누가 정했느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나빠야 적그리스도인 것이냐? 너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느냐? 거짓 리더가 된 지 오래 됐다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거짓 리더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거짓 리더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꾸짖으며 자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든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비록 거짓 리더가 태생적으로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지만, 그가 오랫동안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도 아무도 감독하지 않고, 또 아무도 그를 고발하거나 교체하지 않는다면, 그가 교회를 차지해서 독립 왕국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아라, 거짓 리더라는 그 역할이 위험하지 않으냐? (위험합니다.) 거짓 리더가 되었다면 사실 이미 위험한 상태이다. 비록 지금은 거짓 리더를 해부하는 중이고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의 본질은 서로 관계가 있다. 사실상 거짓 리더가 가는 길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이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는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다. 그때가 되면 인성과 본질을 볼 필요 없이 그가 가는 길만 보고도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규정할 수 있다. 교체된 거짓 리더들을 보아라, 그가 제때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가 자리에 있는 동안 표현하고 드러낸 것들을 기준으로 그의 본질을 판단할 때, 그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조짐이 보여서 하나님 집에서 즉시 교체하기도 했다. 만약 교체하지 않았으면 그는 교회에 얹혀사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가 높은 자리에 앉아 관료처럼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듯 자신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한술 더 떠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거짓 리더의 이런 내적 상태와 모습을 어떻게 보고 규정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외식하는 자, 교회에 얹혀사는 자, 바리새인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짓 리더가 비록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흉악하거나 사악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래도 고생도 감내할 수 있고, 어디서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다 해도, 바리새인처럼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수 있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한 가지 사역도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가 하는 일은 도대체 하나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역에 맞서며 교란하는 것이냐? 하나님 사역을 대적하고 있고, 교회 각 사역의 정상적인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바리새인과 교계의 목사, 장로와 다를 것이 없지

않으냐? 거짓 리더는 바로 그런 부류이다.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대해 비난이나 평가, 판단, 정죄 등을 가하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 방식을 보인다. 그는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갖은 이유를 대며 시행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고, 자신의 관념 상상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부여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 시행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상부에서 안배한 각 사역도 시행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 선민들의 리더이자 하나님 선민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며 높은 지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이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이런 자가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이 부류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확하다! 이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본질에 근거해서 규정한 것이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거짓 리더이고, 하나님 집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자 역시 거짓 리더이다. 바리새인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들을 거짓 리더로 규정해도 된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 얹혀살며 과거의 공로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지위를 차지한 채 사역지침도 시행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집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때부터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로 규정해야 한다. 거짓 리더인지 적그리스도인지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거짓 리더로 규정하려면 그가 사역지침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자는 모두 거짓 리더이다. 하지만 자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상부의 사역지침도 시행할 줄 모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높은 지위에 서서 설교하고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은 내팽개치면서도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사역을 위해 수고한 것을 내세워 하나님 집에 얹혀살며 노후를 맡기려 한다면, 계속해서 형제자매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발언권과 결정권을 쥐려 한다면 이런 부류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거짓 리더인지 적그리스도인지는 이렇게 확정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냐? (명확합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에서는 주로 사역지침에 관계된 내용을 다루었다. 사역지침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검증하는 기준이다. 사역지침에 따라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리더 일꾼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역지침을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거짓 리더를 분별, 해부하고, 거짓 리더인지 적그리스도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완전히 공평하다. 사역지침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사역지침을 시행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사역지침을 시행한 효과와 강도가 어떤지를 가지고 리더 일꾼을 가늠하는 것은 어느 리더 일꾼에게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며, 고의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일부 거짓 리더들이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아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 타당하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타당한 것이냐? (거짓 리더가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지위를 차지한 채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상이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맞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맞서고, 하나님과 공존하지 못한다. 만약 단순히 거짓 리더일 뿐이라면 그는 단지 사역을 할 줄 모르고 사역지침을 시행할 줄 모르는 것일 뿐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성질은 거짓 리더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부 거짓 리더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섰다. 이들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리더로 오래 있으면서 글귀와 도리를 조금 얘기할 수 있게 되면 확고한 지위와 밑천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 명망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감히 제멋대로 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한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자기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명망이 있다고, 자기 말에는 권위와 신뢰가 있으니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절대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쥐어야 하고, 자신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하고 하나님 집에서도 자신의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과 의논해야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도 몫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혜택과 칭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도 자신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우위와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집에서 함부로 자신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면 안 되고,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면 안 되고, 나아가 사정도 봐 주지 않고 본인을 교체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 이는 과거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는 이미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이는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실제가 있다면 하나님 집과 하나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겠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오래 하면 자신에게 지위와 밑천이 생긴 줄 알고 이런 생각과 우월감을 가진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하나님과 하나님 집에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과거의 공로에 의존하고, 교회에 얹혀살고, 지위를 붙잡고 놓지 않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부류 역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교회에 이런 자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다들 이런 부류이다. 분명 아무것도 아니면서, 구체적인 사역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온전케 하는 대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긴 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전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고 복받기를 추구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런 부류는 지위에 오래 머물고 거짓 리더로 오래 있으면 필연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바로 하나님 집 사역의 장애물이다. 그는 사역지침에 따라 사역을 할 리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리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리 없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 이익을 버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에서는 주로 사역지침의 시행에 대해 교제하였다. 한 리더 일꾼이 기준에 맞는지, 책임을 다했는지는 주로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방법과 사역지침을 시행한 효과에 근거해서 판단했다. 물론 이를 근거로 해서 거짓 리더, 그리고 거짓 리더가 가는 길을 폭로하고, 또한 그들이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초래한 결과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역지침의 시행 상황을 근거로 확정하고,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사역지침의 시행은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다. 따라서 사역지침의 시행 상황에 근거해서 한 리더 일꾼이 기준에 맞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게다가 이 측면에서 모든 리더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아무런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다.

2021 년 4 월 24 일

리더 일꾼의 직책(11)

지난번 예배에서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9 조인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이를 통해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책임과 해야 할 사역에 대해 교제하고, 동시에 거짓 리더의 일부 행동 방식을 해부했다. 비록 각각의 사역지침을 리더 일꾼이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각 사역지침을 시행하는 원칙과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구체적으로 교제했다. 제 9 조를 교제하고 나니 너희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하게 되지 않았느냐?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느냐? 주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사역을 시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제 9 조에서는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의 직책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제했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거의 다 다루었다.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를 확정하고, 해야 할 사역과 사역하는 방법도 명확히 설명했다. 명확히 설명했는데도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른다면 그것은 자질이 부족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역할 수 없는 거짓 리더 부류에 속한다. 또한 어떤 거짓 리더 부류는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만 의존해 사역을 안배하고 사람을 함부로 쓰는데, 결국 인력이 남아돌아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역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든다. 거짓 리더는 사역지침을 결코 시행할 줄 모르고 실질적인 사역은 더욱 할 줄 모른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만 하고, 사무 사역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역할 때는 명령하거나 구호와 도리만 공허하게 외칠 뿐, 결코 사역을 밀착 관리 하지 않고 사역 성과가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자들도 거짓 리더 부류이다. 요컨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든 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리더로서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각 사역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리더이다.

이 아홉 가지 리더 일꾼의 직책을 교제하고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을 폭로하고 나니 이제 어떻게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볼 때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사람에게 하는 요구가 높거나 과하냐? (높지 않습니다. 전부 저희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리더 일꾼은 없느냐?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사역 항목과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윗선 리더일수록 하는 사역 범위도 넓고 책임지는 사역 항목도 많습니다. 상부의 요구대로 이 사역들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사역을 잘하고 각 사역을 제대로 시행했다고 해서 지쳐 쓰러진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쳐서 병난 사람이 있느냐? 바빠서 밥을 먹거나 잘 시간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없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지도 못한 데다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 과로로 탈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희는 들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 9 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집에서 하는 각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리더 일꾼이 하는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하나님 집의 요구 기준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느냐? '리더 일꾼 역할은 쉽지 않군. 건강한 몸과 좋은 자질, 넓은 마음, 초인적인 에너지와 체력이 없다면 누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우선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할 때는 어느 직급의 리더 일꾼이든, 전체를 책임지든 한 가지 사역만 책임지든 최소한 자신의 본직 사역을 잘 해야 하고, 많아야 한두 가지 사역을 더 병행할 수 있다. 설령 사역 전반을 맡는다고 해도 전체를 다 밀착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책임지는 데 집중하거나 어떤 사역의 취약한 부분을 같이 돌봐야 한다. 설령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책임감도 강하고 자질도 훌륭해서 다방면에 걸친 넓은 범위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주로 한두 가지를 위주로 사역하고, 다른 사역은 그저 알아보거나 물어보거나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해결할 뿐이다. 이것이 한 측면이다. 다른 한 측면은 설령 몇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더라도 그 몇 가지 사역 역시 주요 책임자에게 의존해서 하고, 본인은 단지 각 사역을 감독, 검사, 지도하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주로 하는 사역은 여전히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역을 하나 하는 것으로 지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자질이 충분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사역을 할 때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와 관련하여 혼란스럽지 않게 합리적으로 안배할 것이다. 보기에는 바빠 보이지 않고 차근차근 사역을 진행하는데 사역 효율도 낮지 않고 성과도 괜찮다면, 그것이 바로 자질이 있는 것이고 인력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줄 아는 것이다. 반면 자질이 없는 사람, 혹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사역이든 엉망으로 한다.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지 자기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계획표도 없고 시간 개념도 없다. 아침에도 무척 일찍 일어나고 밤에도 무척 늦게 자며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지만 사역 효율로 말하자면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질이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보기에는 매일 정신없이 바쁘고 쉴 틈도 없는 것 같지만 사역할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중과 완급도 구분하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도 떨어져서 사역 진행이 느려진다. 그는 속으로 조급하고 애가 타서 입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쳐 쓰러지지는 않는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설령 매일 8 시간 넘게 사역하더라도 사역 효율은 여전히 자질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니 그가 바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바빠야 한다. 바쁘게 일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바쁘지 않으면 사역은 마비될 것이 뻔하다. 이것이 바로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거나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 집은 사역 항목이 무척 많고 인력과 시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다. 대다수 사람이 좀 더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다들 더욱 노력해서 좋은 사역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집의 사역은 이방의 상업이나 공장의 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적 효익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역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자질이 부족한 데다 사역할 때 원칙도 없고 효율도 너무 떨어져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대다수가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해 소극적인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에서 요구한 대로 사역해도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의 이런 객관적인 요소들 외에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생각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사람이 체험한 적 없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성령은 늘 일깨워 주고, 수시로 사람에게 깨우쳐 주고 도와줄 것이다. 교회의 사역들을 할 때는 전적으로 사람의 역량과 에너지, 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체험한 바이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고,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하는 요구가 아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일할 때 개인의 자질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다르다. 단지 자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진리 원칙을 깨달아야 성과에 이를 수 있다. 때로는 서로 돕고 조화롭게 협력해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 집에서 사역을 할 때는 '죽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건가요? '봄누에가 죽는 순간까지 실을 뽑아내듯'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쳐 죽도록 괴롭히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하더냐? (아닙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한 요구를 교제하는 목적은 단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리 원칙과 사역 방식대로 하나님 사역에 협력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사역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하나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 선민들에게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역을 전개하고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마땅히 내야 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자 리더 일꾼이 사역을 통해 이루어야 할 성과이다.

제 10 조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

오늘은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인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해 보자. 제 9 조가 리더 일꾼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요구라면, 제 10 조는 또 하나의 주요 사역 내용으로, 리더 일꾼의 직책에 또 하나의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한다. 이 사역은 하나님 집에서 소유하는 몇몇 물품에 관한 것인데, 물품 중 일부는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며, 일부는 복음 확장 사역에 필요해서 구입한 기구와 자료 등이다. 또 일부는 하나님 집에서 보관해야 하는,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관계된 하나님 말씀 책 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관련 있는 물품들이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 사역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물품,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 집에서 구매한 것이든, 형제자매들이 봉헌한 것이든 일단 하나님 집에 귀속되면 리더 일꾼이 관리하고 분배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이 사역은 비록 겉보기에는 교회 생활, 행정 사역, 업무 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려야 할 사역은 아닌 것 같지만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다.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은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 생활, 학습 등 각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물건들의 보관과 합리적인 분배는 매우 중요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적절히 보관한다

리더 일꾼으로서 교회의 행정 사역을 잘 하고 교회 생활을 잘 이끄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은 복음 확장 사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물건들을 잘 보관해서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 먹지 않게 하고, 개인이 사유 재산으로 생각해서 착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와 절차를 마련해 놓았다. 우선은 이들 물품의 관리자가 적합한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이 물건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지, 마음을 기울이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이 물건들이 그들 손에서 잘 보관될 수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식량 보관을 예로 들면, 우기에 날씨가 습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식량을 보관하는 곳이 습하지 않겠는지, 관리자가 제때 검사할 수 있는지, 만약 식량이 축축하면 꺼내다 볕에 말릴 수 있는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정성 들여 관리할 수 있는지, 그가 이런 인성을 갖추었는지, 그런 충성심이 있는지 등을 말이다. 먼저 관리자를 심사해서 그가 인성이 어떤지, 양심이 있는지, 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겉보기에는 그가 인성도 괜찮고 마음씨도 좋은 것 같으며, 그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 그가 하나님 집의 물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모르겠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일정 기간마다 보관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식량은 습기에 가장 취약하니 보관 담당자는 식량 창고가 습하지는 않은지, 식량에 벌레가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식량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알아봐야 한다. 식량을 잘 보관한 다음에는 자주 창고를 살피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만약 누가 독촉하거나 일깨우지 않아도 보관 담당자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안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종 기구를 보관하는 사람은 적합하냐? 아직은 알 수 없으니 역시 검사해야 한다. 전자제품, 가구, 설비와 같은 대부분의 기구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 담당자가 살피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지, 전자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가끔 전원을 켜서 작동시켜 보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파악해 보니 보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물건들이 한쪽에 놓여 있더라도 위에 먼지가 없다면 이는 누군가 자주 와서 관리한다는 뜻이다. 보관 담당자도 그런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안심해도 된다. 이제 하나님 말씀 서적이 남았다. 말씀 서적은 어느 한 권도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데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식량, 전자제품 등 그 어떤 물품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물품은 더더욱 적합한 사람이 관리해야 하고, 적합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적당한 환기와

확인, 검사도 필수다. 책은 습기가 차거나 물에 젖어서도 안 되고, 쥐가 갉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적합하냐? 이 역시 자주 검사해야 한다. 관리자가 게으르고 부주의하면 물품 중 일부가 훼손되기 마련이다.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레 먹는 것 모두 손실에 해당하며, 이것은 바로 리더 일꾼이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관리자가 이 물품들을 적절하게 보관한다면 리더 일꾼은 이 직책을 다한 셈이다. 이들 물품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 집 물품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마땅히 사람을 안배해서 관리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물품이든, 어디에 보관되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만약 관리자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둘러 조정하고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고 책임감이 없어서 교회 물품을 공용 물품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한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 물품에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든 말든, 훼손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네가 물어볼 때마다 그는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식량에는 곰팡이가 피고, 일부 기구는 쥐가 전선을 끊어 놓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서적은 심하게 습기가 차서 글자가 흐릿해진 것을 발견한다. 그제서야 발견한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냐? (네, 이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관리자는 부적합한 것 아니냐? 인성이 나쁘고 돼먹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돼먹지 못하다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성이 나쁘고 충성심이 없다고 한다. 이 정도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단지 조금만 마음을 쓰고 양심과 인성이 조금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방인들도 '남에게 부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가장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없다. 그렇다면 이 관리자는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얼른 처리하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 교체해야 한다. 만약 관리자가 못 미덥고, 너도 가서 살펴볼 시간이 없거나 혹은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리자에게 관리하는 물품이 훼손되면 반드시 배상하거나 하나님 집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행정 제도를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만약 이 정도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책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은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네게 쓸모가 있든 없든, 어떤 것이라도 너에게 관리를 맡긴 이상 그것은 네 책임이고,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역이다. 그렇다면 너는 적합한 사람, 적합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보관함으로써 하나님 집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서적을 보관하는 일을 예로 들면, 리더 일꾼은 적합한 사람을 안배한 다음 종종 물어봐야 한다. "요즘 책을 많이 배포해서 남은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책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습기와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눌리거나 변형되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물어보고 알아봐야 한다. 새 책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원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지,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곳을 찾았는지, 새로 찾은 곳은 어떤지, 안전하고 건조한지, 책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만약 쥐가 갉아 먹을 것이 걱정된다면 고양이를 길러야 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다해야 할 직책이다. 이 사역은 비록 눈에 띄는 사역은 아니지만 리더 일꾼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 중요한 일로 대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이지만 잘 보관해야 한다. 네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네가 사용하도록 제공될지를 떠나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것은 너의 직책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어떤 이유나 핑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네 직책인 이상 네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네가 해야 할 사역이므로 너는 마땅히 물어보고 파악하거나 직접 참여해야 한다. 시간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더 낫다.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사역하느라 바쁘더라도 제때 알아보고 물어봐서 어떻게든 하나님 집의 그 물품들이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하나님 집의 물품과 관련하여 이를 보관하는 것 말고도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 물품들은 모두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쓸모 있는 것이므로 이 물품들을 잘 보관하는 주요 목적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이 물품들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집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물품들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다. 형제자매들이 봉헌한 것이든 하나님 집에서 구입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물품들의 주요 목적은 쌓아 놓고 구제를 하거나 베풀면서 복지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분배의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이다.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합리성'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이다.

1. 하나님 말씀 서적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먼저 하나님 말씀 서적에 대해 얘기해 보자. 새로운 서적이 배포될 때마다 하나님 집에는 원칙상의 요구 사항과 규정이 있다. 그 책을 어떤 사람들에게 배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모두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교과서류의 특수 서적, 예를 들면 문법 서적, 사전 등의 참고서도 모두 엄격하게 원칙대로 배포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배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인쇄 수량이 비교적 적은 참고서를 개인에게 배포한다면 개인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는 것은 좋으나 훼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버리거나 책장을 찢어서도 안 되고, 다 보고 난 후에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믿는 일에 관한 서적은 리더 일꾼이

엄격하게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따라 배포하고 하나님 선민들도 원칙을 깨닫고 그 원칙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2. 각종 기구를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다음은 각종 기구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는 비교적 핵심적인 사역이다. 각종 기구의 분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며, 각종 기구에는 전자제품 및 각 업무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포함된다. 리더 일꾼이 이를 분배할 때는 역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분배 대상은 그 기구를 숙련되게 조작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보이거나 기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공하면 안 되고, 특히 성능 좋은 고급 전자제품, 예를 들어 고급 카메라나 값비싼 컴퓨터, 녹음 장비, 촬영 기기, 또는 후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은 더욱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리더 일꾼은 반드시 이 기구들을 사용하는 대상이 첫째는 기기를 아끼고, 둘째는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기를 두 시간 사용하면 규정에 따라 10 분 동안 멈추고 열을 식혀야 하며, 열을 식히지 않으면 기기에 손상이 가서 사용 수명이 단축된다. 기기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기기 관리 주의 사항을 철저하게 따르며 사용할 것이다. 네가 알려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지킬 줄 알고, 네가 부탁하면 그는 더욱 철저하고 정확하게 따를 것이다. 이런 사람은 기기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므로 고급 물건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는 기기를 아낄 줄 알고, 기기 관리와 유지를 위한 주의 사항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기를 아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급 기구를 분배하고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 리더 일꾼은 마땅히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만약 고급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이런 원칙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으냐? 리더 일꾼은 그 물건들을 제공하고 분배할 때 한편으로는 사역을 담당한 사람의 업무 수준을 근거로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기를 아끼는 정도를 근거로 그가 인성이 있는지, 기기를 아끼며 사용하는지를 봐야 한다. 만약 그가 기기를 아낄 줄 모르고 업무 기술 면에서도 통달하지 못했으면서 단지 호기심으로 기기를 가지고 놀려는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는 고급 기기를 사용하고 보관할 자격이 없다. 일반적인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기기를 제공하면 된다. 업무를 이해하고 인성도 좋은 데다 기기를 제대로 사용, 보관할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좀 더 고급스러운 기기를 사용해도 된다. 업무에 정통해서 고급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멍청한 사람이나 손이 험한 사람에게 고급 기기를 준다면, 며칠 못 가서 기기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없게 되고, 수리도 쉽지 않아서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 집의 물품을 낭비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런 사람은 좋은 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좋은 기기는 인성이 있고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써야 하고, 업무에 정통하지 않고 인성도 좋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기기를 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각종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는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고급 컴퓨터를 사서 2 년을 사용해도 보기에는 새것 같다. 모니터에 손자국 하나 없고, 키보드도 먼지 한 톨 없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 바탕화면도 깔끔하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자료들이 질서 정연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 모니터에 좋지 않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모니터에 좋은지 얼른 알아보고, 좋은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사람들이 컴퓨터는 오래 사용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고, 기기는 너무 뜨거워지면 기능이 떨어지고 수명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는 컴퓨터를 사용한 지 두어 시간이 되었을 때 얼른 작업을 중단하고 기기를 식힌다. 날이 너무 더워서 컴퓨터가 늦게 식으면 기기에 선풍기를 틀어 놓기도 한다. 그는 기기를 마치 자기 아이를 대하듯 무척이나 소중히 다룬다. 가방에 넣을 때도 무척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책상 위에 놓을 때도 책상을 깨끗이 치우고 제대로 놓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도 기기를 아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기를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것을 봐도 괴로워한다. 이런 사람이 좋은 기기를 쓰는 것은 적합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고급 컴퓨터를 사더라도, 산 다음에는 전혀 소중히 다루지 않고, 아무리 먼지가 쌓여도 청소하지 않아서 컴퓨터를 더럽힌다. 누구는 2 년 사용한 기기도 새것 같은데, 그가 두 달 사용한 기기는 마치 10 년은 쓴 것 같다. 네가 기기를 관리하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걸 왜 관리해요? 기기라는 게 사람을 위해 쓰이는 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건데, 망가지면 다시 사면 되죠!" 결국 기기는 사용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못 쓰게 되어 버린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 고급 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도 아낄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버리고 마구 놓아둔다. 긁히기도 하고, 물에 젖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망가지기도 하는 등 무척 험하게 사용한다. 이런 사람의 인성은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 너희는 좋은 기기를 이런 사람에게 분배해서 사용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쓰는데 항상 양쪽 렌즈가 깨끗이 닦여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렌즈가 아주 더러워서 온통 먼지와 손자국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안경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안경을 둘 때도 무척 신경을 써서 절대 렌즈가 테이블 표면이나 다른 물건에 닿지 않게 하고, 긁히거나 마모되지 않게 한다. 특히 근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렌즈에 흠집을 내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말이냐? 어떤 사람은 투박해서 안경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렌즈가 뿌옇게 되었다. 안경을 써도 아무것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 안 쓴 것만 못하지만 본인은 그래도 안경을 쓴 게 괜찮다고 생각하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참 궁금했다. '이런 사람들은 안경을 쓰는 목적이 사물을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한 것일 텐데, 뿌옇게 된 렌즈로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기나 할까?' 이런 사람이 투박한 사람이 아니냐? 너무나 투박하다! 지나치게 투박한 사람은 인성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 물건을 보관할 줄 모르고 아낄 줄은 더욱 모른다.

하나님 집의 중요한 장비와 도구에 관련하여 리더 일꾼의 직책은 무엇이냐? 이런 장비들을 분배할 때는 합당한 사람에게 분배해야 하며, 이런 중요한 고급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건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낄 줄 알고, 보관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기에 물건이 그의 손에 들어간다면 안심해도 된다. 일시적으로 부주의하거나 특정 방면의 상식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절대 의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그것을 망가뜨리고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장비를 사용해도 되고, 그에게는 질 좋은 고급 장비를 분배해도 된다. 물건을 사용할

때 천성적으로 손이 험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물건을 제공하면 된다. 그 밖에 장비와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보관 담당자는 기록을 책임져야 한다. 누가 어떤 물건을 가져가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혹은 어떤 물건은 누구에게 전담으로 사용하게 했는지 책임지고 기록해야 한다. 만약 훼손하면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단기로 사용하든 장기로 사용하든 기기와 장비는 잘 보관해야 하고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만약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해야 한다. 이런 사역은 꼼꼼하게 할수록 좋다. 만약 사탄 정권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생길 경우, 리더 일꾼의 가장 주된 직책은 바로 이 중요한 장비와 도구를 믿을 만하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에게 맡긴 다음에는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집의 물건이고, 본분 이행에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잘 보관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장비와 도구는 본분 이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훼손하면 가격에 맞게 배상해야 해요. 장비를 훼손해서 사역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성질입니다. 여기에는 교란하고 파괴한다는 뜻도 조금 있죠. 그러니 본분을 이행할 때는 반드시 각종 장비와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절대 하나님 집 재산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즉,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보수,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 무슨 고장이 난다면 즉시 보고하고 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리더 일꾼이 한편으로는 분배 원칙과 사용 원칙을 알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하는지 등을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각종 장비와 도구를 보관, 사용할 때 사람이 알아야 하고 갖춰야 할 상식이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 집의 각종 기구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역 담당자에게 기능이 비교적 잘 갖춰진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한 대 분배해 주어라. 만약 그가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왜 부족한지 물어보고, 또 그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의 신청만을 기준으로 달라는 대로 한 대가 부족하다고 두 대를 제공하고, 두 대가 부족하다고 세 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컴퓨터를 장난감처럼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 너는 먼저 상황을 조사하고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절대 각종 신청을 함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본분 이행을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신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의 개인 컴퓨터가 사양이 낮다면 리더 일꾼이 역시 제때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컴퓨터를 지급하는 일은 당사자가 맡은 사역의 성질 및 컴퓨터 사양에 대한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일반 리더 일꾼이라서 컴퓨터 기술 사역이나 영상 제작 사역에 종사하지 않고 단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검색하거나 통화를 하는 정도라면,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컴퓨터로 충분하다.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은 타이핑이나 인터넷 접속, 통화와 같은 간단한 조작밖에 할 줄 모르는데, 리더 일꾼이 되었다고 고급 컴퓨터를 제공한다면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는 특권 행사가 아니냐?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양이

높은, 고급 기구는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냐? 이에 맞는 사역 담당자, 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에 대해 리더 일꾼이 우선 사용권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 집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다. 어떤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된 뒤에 서둘러 고급 컴퓨터와 휴대폰, 이어폰 등을 제공받아서 온갖 고급 장비를 다 갖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실로 사역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냐? 이것은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고급 컴퓨터로 무엇을 하느냐? 기껏해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글귀와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냐? 네가 영상을 업로드할 줄 아느냐, 아니면 영상을 제작할 줄 아느냐? 인터넷 보안을 유지할 줄 아느냐,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아느냐? 네가 업무를 아느냐? 업무도 모르면서 무슨 고급 컴퓨터란 말이냐? 이런 행동이 역겹지 않으냐? (역겹습니다.) 네가 자기 돈이 있다면 몇 대를 사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리 고급 제품을 써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 집 물품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이런 고급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하느냐? (아닙니다.) 그는 업무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고급 컴퓨터를 가졌다고 사람이 고급이 되느냐? 무슨 자랑을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 집에서는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 물품에 대해 우선 사용권이나 분배권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런 특권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 집에서 물품을 분배하는 합리적인 원칙이 아니며,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이 물품들은 만약 여건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구매해도 되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 집에서 분배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진정으로 이런 고급 장비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분야 사역과 관계된 업무 담당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그들에게 이런 기구들을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 물품 분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숙지해야 할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을 근거로 검사해서 물품들이 불합리하게 분배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얼른 바로잡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집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고급 물품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도 원래 입던 그대로이고, 컴퓨터도 역시 자기가 쓰던 그 가장 평범하고 작은 것이며, 하나님 집에서 좋은 컴퓨터를 제공해 주지도 않자 재무팀에 가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한다.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하나님 집에서 저에게 더 고급스럽고, 더 최신형이고 속도 빠른 컴퓨터를 사 달라고 할 겁니다!" 참으로 간도 큰 인간이다. 무슨 일이든 서슴없이 하는구나. 그는 리더가 되었다고 하나님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며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집 돈도 내 돈이니까 마음대로 쓰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다.

3.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각종 물품과 기구의 합리적인 분배에 대한 얘기는 마쳤고, 이어서 생활 방면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이를테면 곡식, 채소, 말린 음식,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 각종 부식품 등이 있는데

이런 물품은 합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종 물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느냐? 하나님 집에는 식사 기준이 있다. 이러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집의 식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더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번은 질 좋고 맛있는 쌀을 구매했거나 모처럼 과일이나 고기를 한 번 샀을 때, 너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에게 많이 주거나, 좋은 것은 그에게 주고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합리적으로 분배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어떻게 분배해야 합리적인 것이냐?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고, 원칙에 따라, 하나님 집에서 정한 식사에 대한 요구 기준에 따라 배분할 만큼만 배분해야 한다. 만약 네 생각에 너희 둘이 사이가 좋으면 네 몫을 그에게 주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 것으로 선심을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집의 것으로 선심을 써서도 안 된다. 선심을 쓰려면 네 것으로 선심을 써라. 하나님 집에는 선심을 쓴다는 원칙이 없으며, 하나님 집의 원칙은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생활필수품과 각종 식품을 배분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 집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지 마음대로 배분해서는 안 된다. 물론 리더 일꾼은 배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마음이 바른지,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배분한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불평은 없는지, 모든 사람들을 배려했는지 등을 감독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가끔 물품이 많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리더 일꾼이 따로 빼놓고 자기가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리더 일꾼은 지위와 명망이 가장 높고 평소에 우리에게 얘기도 가장 많이 해 주니까 입이 마르고 목이 탈 거예요. 좋은 건 리더 일꾼의 몫으로 남겨두죠."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진정 필요한 사람 몫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부 건강식품이 비교적 귀하고 수량도 많지 않을 때는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들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본분을 이행한 덕분에 형제자매들이 그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이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하고 돌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먹고 쓰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건이 많지 않으니 아무도 다투지 말아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렇게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겠느냐? "저는 비록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사역량은 적지 않습니다. 매일 여덟 시간 넘게 일하죠. 사역 효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사역을 아주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가끔 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째서 저는 아무도 돌봐 주지 않을까요? 좋은 것은 저에게 돌아오지도 않는데 사역이 바쁠 때만 저를 찾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런 사람에게 조금은 분배해야 하느냐? 그가 정말 뻔뻔하게 나온다면 그에게 어느 정도 남겨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면 동의하겠다. 그런 것을 따져서 무엇 하겠느냐? 사람이 평생을 사는 것이 즐기기 위한 것도, 놀고 먹기 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다투어서 무엇 하겠느냐? 만약 누군가 정말 다투고자 하고, 또 그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좀 누리게 해 주어라.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긴 하지만 네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니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왜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저는 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것을 먹고 몸이

좋아지면 하나님 집을 위해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사역 효율도 더 좋아질 테고요." 그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면박을 주지 말고 조금 나누어 주어라. 다른 사람들은 따지지 말고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그것이 없어도 네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으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분히 주었다. 풍부하게 주어서 모든 게 다 여유가 있으니 다툴 필요가 없다. 만약 다들 자기는 필요치 않고 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대다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면 된다. 우리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투지 마라. 네가 다툰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든, 일반적인 상황이든 모두 원칙이 있다. 마구잡이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에 따라 다루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한 것이다.

생활용품이나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도 리더 일꾼은 실제 상황, 실제 인원, 실제 수요량에 맞게, 실로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그 목적은 낭비와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직책이다. 가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 원칙에 따라 물건들을 분배하는데, 분배가 끝난 뒤에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리고 후기 관찰을 통해 다소 규례를 지켜 불합리하게 분배되었음을 발견한다면, 다음번에는 개선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낭비와 손실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책임을 다한 것이다. 물론 손실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배할 때 자문도 많이 구해야 하고, 원칙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눈을 감은 채 마구잡이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잘 보이려는 사람에게만 나눠 주는 것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일 처리를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책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직책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형식이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절차대로 한다고 직책을 다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진정으로 엄격하게 따르며, 동시에 하나님 집의 어떤 물품이든 낭비되거나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섯 사람에게 달걀을 나눠 줄 때 한 사람당 하루에 하나씩, 열흘에 한 번 나눠 준다면 50 개를 나눠 주면 딱 맞다. 이렇게 나눠 주면 수량이 적어서 보관이 쉽기도 하고, 또 사람이 먹을 양으로도 딱 적당하다.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라 이렇게 실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이것이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번거로울까 봐 한꺼번에 그들에게 100 일 치 달걀 500 개를 나눠 준다면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너희가 볼 때 운반하고 보관하기에 50 개가 편하겠느냐, 500 개가 편하겠느냐? (50 개입니다.) 수량이 적을수록 운반과 보관이 편하다. 어떤 사람은 100 일 치를 배분했다가 결국 싣고 가는 길에 깨지고, 도착해서 나를 때 또 으스러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많이 나눠 준 것이 눈에 보여서 사람이 함부로 낭비하다 보니 결국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달걀이 다 떨어졌다. 달걀이 깨지고 손실된 것은 리더 일꾼이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더 달라고 하면 또 줄 수 있느냐? 원칙대로라면 기한이 되기 전에는 더 줄 수 없지만 사람들은 못 먹으면 억울하게 생각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이런 물품들을 나누어 줄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분배의 원칙,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때맞춰, 정기적으로 나눠 주어야 한다. 또한 낭비 현상은 없는지, 낭비해서 모자란 물건을 다시 신청하거나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지, 또 일부 물품은 나눠 주었는데 사람들이 먹기 싫다고 낭비되는 현상은 없는지 제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기와 채소를 똑같이 나눠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해서 3, 5 일 만에 고기는 다 먹고 채소만 남았다. 채소는 보관이 쉽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되면 상하거나 썩는다. 그러다 보면 기간이 되기 전에 떨어져서 다시 신청하거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줄 수 있느냐?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몰래 고기와 달걀을 다 먹고, 좋아하는 채소도 다 먹은 다음, 먹기 싫은 것은 온갖 핑계를 대며 먹지 않는다. 그러다가 채소가 시들고 상하면 못 먹게 되었다면서 결국 닭이나 돼지에게 주거나 그대로 버리고, 그런 다음 다시 달라고 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만약 리더 일꾼이 "부족하면 다음에는 좀 더 드리죠. 드실 수만 있다면 더 드릴게요."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냐? 경솔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경솔한 것이냐? (실제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눠 준 것이 부족한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곳들은 대부분 하나님 집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식재료를 나눠 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어째서 여기만 항상 모자란 것이냐?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장에 가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보아야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국 조사하고 알아보니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나쁘고 부도덕한 탓이었다. 사람이 먹을 채소를 모두 닭에게 모이로 주어서 고의로 하나님 집의 식량을 낭비한 것이다. 그는 음식을 무척이나 가리고, 또 무척이나 욕심을 낸다. 고기가 없으면 채소를 먹지 않고, 고기가 있으면 두부도 먹지 않는다. 달걀이 있으면 끼니마다 먹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서 평범한 채소는 먹지도 않고 상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알아본 결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양을 늘려서 물품을 더 주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이런 문제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얼른 사람을 조정하고 교체해야 한다. 인성이 좀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이 본분을 맡겨야 한다.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서 이런 악인, 못된 인간은 도태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가 음식을 못 만들게 되면 닭 키우는 일을 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가 닭을 키우면 닭이 알을 낳지 않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야위고,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집의 물품을 분배하면서 다른 문제를 발견하면 이것도 즉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집의 물품의 낭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방에 가서 조사해야 하는데, 전에 리더 일꾼은 주방에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 허용하십니까?" 그건 다른 일이다. 전에 얘기한 것은 못

가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 일꾼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 채 하는 일 없이 빈둥대고 어슬렁거리면서 지위의 복을 누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만 찾는 행위를 해부한 것이다. 이번에는 주방에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이지 맛있는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가야 할 때는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마라.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은 무척 많은데, 이 일도 그중 하나이다. 그것은 주방에 들어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만 구체적인 문제를 알 수 있다. 만약 음식 만드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서둘러 적합한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하나님 집에서 분배한 물품의 낭비와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어쨌든 리더 일꾼에 대한 요구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네가 신경 써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신경 쓰고 또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눈으로는 관찰해야 하고, 귀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물론 속으로도 다양한 일에 대해 관점과 생각, 분별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변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가 어떤 사역을 하든 우선은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과 규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역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잘 알고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의 원칙을 따르는 것일까? 일부 특수한 상황은 어떻게 원칙대로 해야 할까?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사역하기 전에 속으로 여러 번 스스로에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성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잘못을 덜 저지르고 굽은 길을 덜 가게 되어 하나님 집 물품의 낭비를 줄이고, 하나님 집에 초래하는 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리더 일꾼의 직책을 잘 지키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에 대한 요구이다.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리더 일꾼 스스로가 이 원칙들을 숙지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리더 일꾼은 각종 물품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와 이런 원칙을 교제하고, 관리 상황을 자주 밀착 관리, 파악,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 분배를 담당하는 책임자와도 많이 교제해서 그들이 이 원칙들을 더 많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리더 일꾼도 그들이 어떻게 물품을 분배하고 나눠 주는지, 특수한 상황은 없는지, 이를테면 계절별, 시기별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담당자가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물품을 분배했는지 등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최고로 잘 보관되고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선민들의 책임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을 이해한 뒤, 모든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대할 때 파악해야 할 원칙을 깨닫지 않았느냐? 비록 리더 일꾼은 아니지만 너희도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선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대할 때, 이를테면

각종 서적, 기구, 일용할 음식, 물품과 같은 이런 물건들은 모두가 아끼고 돌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을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보수,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물건들이 네 손에서 망가지거나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버려져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어차피 이 물건은 제 것도 아니고, 제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요, 뭘. 하나님 집에서 나눠 준 것이고, 공용 물품입니다. 언제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든, 어디에 보관하든 제가 알 바 아니죠. 제가 그 물건을 독차지한 것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생각이 합리적이냐? 무척 이기적이고 인성이 없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집의 물품을 사용할 때는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느냐? 그 물건을 너에게 사용하도록 분배했다면, 사용하는 동안 물건의 유지 보수와 보관은 전적으로 네가 해야 하고, 전적으로 네가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독촉하고 감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 물건을 본인의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대하며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게 인성이 있는 것이다. 이 물건을 너에게 나눠 줄 때의 상태로, 네가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 사용했을 때 손상 없이 고스란히, 원래의 모양과 상태 그대로 보관 담당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이성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성에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양심과 이성이 있다고,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며 진리에 순종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네가 물품에 대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조차 없다면 어떻게 진리를 사랑한다거나 실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어찌 보면 너무 공허하지 않으냐? 하나의 물품을 대할 때 다해야 할 책임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인성이 아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네가 네 물품을 대할 때는 험하게 사용해도 좋고, 세심하게 다루어도 좋다.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할 때는 하나님 집 나름의 사용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양심과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비록 진리의 위치까지 오르지는 못해도 최소한 인성의 기준에는 부합한다. 만약 네가 그 인성 기준에 닿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 너에게 제공한 기구나 용품을 올바르게 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너란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는 이런 물품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그것을 유지 보수, 정비하고 아껴야 할 책임도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이건 내 물건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 다 같이 쓰는 물건이니까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지. 새로 사도 되잖아. 기껏해야 고치면 그만이야. 나한테 무슨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만약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이고 위험하다. 너는 인품도 바르지 않고 마음도 비뚤어졌다. 자기 것은 절약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집의 것은 하찮게 여기고, 조심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는다. 이것은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겠느냐? (감찰하십니다.) 마음이 바르든 비뚤어지든 하나님은 모두 감찰한다. 네가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른 체하겠느냐? 그냥 내버려두겠느냐? 아무렇지도 않으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일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당신이 나더러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사용권이 있는 거지. 어쨌든 기기를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요구가 그렇게 높고 많아?'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아닙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인성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하나님, 저는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제 인격이 매우 고상하고 존귀하고, 또 제게는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소한 물품으로 제가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심이 있고, 마음도 비뚤어졌고, 저만의 속셈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찰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돌아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감찰해 달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돌아서야 하느냐?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가 전에 가졌던 생각은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었고, 이방인, 불신파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성과 존엄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구나 기기를 대할 때는 사용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작동을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은 유지 보수하고,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정비하고, 자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기기 부품을 검사해서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고 나서는 바로 청소하고 잘 보관해서 관계없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후로 기기를 사용할 때 무척 조심스럽고 세심해질 것이다. 네 관점이 끊임없이 바뀌고, 행동 방식도 개선될 것이다. 예전의 이기적이고 비열했던 생각과 행동 방식은 책임감이 있는 것으로 바뀔 것이고, 물건을 아낄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진정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며,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은 사상과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아서고 회개하는 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네가 이렇게 돌아서고 바뀌어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어야 할 양심과 이성이다. 그렇다면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할 때는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되고, 훼손하거나 낭비해서도 안 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네 마음과 생각에 담긴 태도는 무엇이냐? '뭐 하러 그런 걸 신경 써? 내 것도 아닌데.' 너의 이런 생각이 네 행위를 좌우한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 도리가 그래도 쓸모가 있겠느냐? 쓸모가 없다. 그것은 도리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네 사상 관점이 바뀌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아서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네 행위와 실제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에야 너는 비로소 인성을 갖추고 살기 시작하고, 비로소 진리 실제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겨우 이런 사소한 일로 한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고, 한 사람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관리하는 일은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직책이고, 또한 모든 하나님 선민들이 함께 감독하고 도와주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하나님 선민들은 솔선수범해서 본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인이 잘하면 다른 사람을 감독할 자격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적절한지, 원칙에 부합한지 평가할 자격이 생긴다. 이 일은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며, 사소한 일 하나에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기도 한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잘 해야 한다. 모든 보통 형제자매들도 역시 이 일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하고,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자신의 인성과 생각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태도는 어떤지 성찰해야 한다. 자신의 태도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즉시 기도하며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 집 물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한편으로는 네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죄스럽지 않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네게 인성이 있다고 하며 너를 감탄하고 네 행동을 찬성하게 해야 한다. 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때 사람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리더 일꾼만의 직책이 아니라 사람이 다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 집의 어느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했느냐? 원칙을 이해한 다음에는 이 사역을 할 때 사람이 마음을 기울이고, 좀 더 세심하게 대하고, 마음을 좀 더 쓰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집의 물품에 대한 훼손과 낭비를 줄이고 악인의 착복을 피할 수 있다. 이 일은 아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이런 일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며, 자기 집 물품을 관리할 때 마음을 기울이는 일은 무척 쉽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집 물품을 자기 물건으로 생각해서 보관하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훼손과 낭비를 줄이고, 악인에게 착복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으로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한 것이다. 사역의 성질로 볼 때 이 사역은 기본적으로 사무적인 사역이다. 사무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일이 물품 관리에 관계되며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역을 하는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단일한 원칙이며 복잡한 진리에 관계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부담이 있고 마음가짐만 바르다면 그리 많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도, 진리를 그렇게 많이 교제해 주지 않아도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단일한 사역이자 사무적인 사역, 리더 일꾼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알아보고, 마음을 많이 쓰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진다면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에 대한 교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나 간단하다.

하나님 집 물품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

리더 일꾼의 직책을 이해했으니 이 조항에 맞춰 거짓 리더가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거짓 리더로 규정되는지 해부해 보기로 하자. 우선 거짓 리더는 이 사역을 할 때 각종 물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없다. 보관은 각종 물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거짓 리더는 무슨 일이든 항상 엉망으로 한다. 진리에 대해, 진리에 관련된 각각의 원칙에 대해 뭐가 뭔지 모르고 뒤죽박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일에도 엉망으로 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세부적인 절차도 없이 그 일을 처리한다. 만약 마음 쓰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물건들은 그나마 보관이 되겠지만, 마음 쓰려는 사람이 없으면 거짓 리더는 이 물건들이 아무 데나 놓이도록 내버려둔다. 그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

보관하게 하지도 않고, 적합한 곳을 찾아 물건을 보관하지도 않는다. 구체적인 보관 원칙을 교제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아울러 이런 물품들의 향후 보관과 유지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아무런 안배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거짓 리더들은 하나님 집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에서 새로운 하나님 말씀 서적을 인쇄했는데, 서적을 나눠 주고 나서 얼마나 남았는지, 누구에게 보관을 맡길지, 어떻게 보관할지, 보관한 장소는 적합한지 등을 그는 하나도 모르고, 알아보거나 물어보지도 않는다. 왜 물어보지 않는 것이냐? 그는 하나님 집 물품을 보관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치부한다. 자기는 리더 일꾼이니 큰일을 하는 사람, 설교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하찮은 일'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이런 '하찮은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넘기고,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집 물품을 보관하는 사역에 대해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방면이다. 또 하나, 어떤 거짓 리더들은 멍청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고 정상적인 사고 능력과 물품 보관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 집의 물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도 모르고 낭비되는 상황이 있는지도 모른다. 악인이 물건들을 일부 독차지하면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요." 어떤 중요한 물품들이 누구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그가 그 물건을 독차지해서 다른 사람이 사역할 때도 사용할 수 없고, 감히 아무도 달라고 하지 못하는데,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새로 더 사면 되죠. 그가 차지했으니 먼저 쓰게 하세요. 겨우 물건 하나 가지고. 누가 쓰든 똑같잖아요. 그가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그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지요." 보아라, 그는 거창한 도리를 말하면서 일을 '처리'했다. 큰일을 작은 일로 만들고, 작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일에서 거짓 리더는 전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상부에서 사역을 알아봐도 얼버무리며 대충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떤 형제자매가 하나님 집에 기구와 옷, 약품을 사 주었다. 이를 본 거짓 리더는 좋은 옷과 신발, 가방을 먼저 고른 다음, 나머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했다. 그 수하의 얼간이들은 이를 보더니 말했다. "리더가 다 고르면 우리가 고를 차례예요. 우리가 고르고 남은 싸구려 물건은 아래 형제자매들에게 던져 줍시다." 이 물건들은 잡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모두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한쪽에 버려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에 보관 장소가 있다지만 사실 그게 어디 보관이냐? 그저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쓰레기장이다. 한곳에 던져 둔 물건이 산더미를 이루어 옷과 신발, 양말, 약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주방 용품 등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심지어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개가 먹는 사료가 뒤섞여 있다. 네가 이 물건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분류를 해 놓았는지, 물건에 설명서가 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만약 하나님 집 사역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가 있는지 물어도 아무도 모른다. 형제자매들이 모르는 것은 정상이지만, 리더 일꾼도 나 몰라라 하고 책임을 깨끗이 미룬다. '모른다' 아니면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너에게 대응하고 하나님 집을 속이니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에 대해 리더 일꾼이 적합한 사람을 찾아 관리하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 않으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 물건들을 적절히 보관하게 하고, 잘 기록하고 분류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사역도 거짓 리더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하느냐? 형제자매가 하나님 집에 옷과 일상 용품을 바치면 거짓 리더들은 이를 보고 벌떼처럼 달려든다. 흡사 배고픈 늑대 무리가 고기를 나눠 먹듯 자기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으면 하나씩 입어 보고 고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나님 집에서 각종 중요하고 귀중한 기기와 장비를 구입하면 그는 잽싸게 좋은 것을 먼저 고른다. 왜 좋은 것을 고르느냐?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리더 일꾼이므로 하나님 집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어떤 물건을 나눠 주든 언제나 좋은 것을 먼저 고르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한다. 이게 사역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거짓 리더의 모습이 아니냐? 거짓 리더는 식료품이나 약과 같은 유통 기한이 있는 물건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적합한 관리자를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통 기한이 있는 물건들은 얼른 기록해 두세요. 기한 내에 빨리 형제자매들에게 분배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기한을 넘겨서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해야죠."라고 일러 두지도 않는다. 거짓 리더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며 기한 지난 물건은 곧바로 버린다.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에서 사역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되는 일이다.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집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보관하고, 잘 살피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집의 한 가지 기본 사역이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런 기본적인 사역도 하지 못한다. 그가 멍청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냐? 만약 그가 모자라고 멍청하다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물건을 고를 줄 알겠느냐? 자기 물건은 어째서 움켜잡고 쉽게 남에게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망가뜨리거나 훼손시키지 않겠느냐? 그가 하나님 집의 물건을 대할 때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 이는 분명 도덕성이 결여되고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다. 리더 일꾼은 지위가 생기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접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과 하나님 집의 공동 재산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물건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그들이지만 본인들은 정작 이 물건들을 방치하고 적절히 보관하지 않는다. 아무나 사용해도 되고 아무나 가져가도 되며, 관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하도록 내버려두고, 관리하거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고, 설사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도 해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보면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하고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비뚤어지고 인품도 형편없다. 진리에 관한 사역, 생명 진입에 관한 사역을 네가 자질이 부족하고 이해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행정에 관계된 사역을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 관리에 관계된 사역,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역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더욱 보여 준다. 즉, 일부 거짓 리더들은 단순히 자질이 부족하고 부담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인품이 매우 저열하고 인성이 너무 형편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를 교제하면서 거짓 리더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드러냈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하고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인품도 형편없고, 마음도 비뚤어져서 자기 것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는다. 너에게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되라고 하면 너는 팔이 밖으로 굽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 너는 하나님 집의 물건을 외부인의 물건처럼 취급하며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채 보관도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덕성이 크게 결여된 것이다! 보관해야 할 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리더가 인성이 없고,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뜻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데, 그에게 분배하라고 하면 그가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겠느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나님 집의 물건이 마음대로 버려지고, 또 마음대로 훼손되고 낭비되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속으로 분명히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인간쓰레기들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에게 분배하라고 하면 그는 더욱 부도덕한 짓을 할 것이다.

일부 농장에서 개를 기르는데, 개 사육 책임자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에게 특히나 마음을 썼고, 혹 영양이 부족할까 걱정한 나머지 강아지에게 먹일 유기농 달걀을 신청했다. 이에 거짓 리더는 이 유기농 달걀이 귀해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데 어째서 개에게 먹이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곧바로 허가를 내렸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니냐? 거짓 리더의 이 모습은 어떤 성질이고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 거짓 리더의 이런 행동이 아주 황당하지 않으냐? 입만 열면 사람의 입맛에 맞는 도리를 떠들어 대지만 사실 거짓 리더는 진리 원칙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사람의 상상과 기호, 주관적인 바람에 따라 대하고 처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개에게 유기농 달걀을 먹이는 이런 역겨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의 물품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닙니다.) 어째서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없는 것이냐? 겉으로 보면 거짓 리더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개입하고 관심을 가지며 밀착 관리 하는 것 같고, 나아가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지원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하나님 집에서 요구한 원칙에 따른 것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이 일의 성질로 볼 때 그것은 선행이냐, 악행이냐? 책임을 다한 것이냐, 직무를 유기한 것이냐?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원칙이 없는 것이고, 함부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짓 리더 인성의 본질은 무엇이냐? 치우치게 이해하고 무턱대고 규례에 맞춘 것이 아니냐? 입만 열면 옳은 도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듣기에는 한 마디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치우쳐 있다. 이런 부류가 바로 영적인 체하고 치우치게 이해하는 자들이며,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자들이다. 방금 거짓 리더의 인성은 인격이 저열하고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했다. 하나님 집의 물품을 분배할 때, 그는 원칙도 없이 함부로 분배하는데, 이는 거짓 리더가 치우치게 이해하고, 무턱대고 규례에 맞추고, 원칙 없이 일하며 하나같이 마구잡이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드러냈다. 거짓 리더는 겉보기에는 무척 인자하고 선량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미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사육자가 사람이 쓰는 새 이불을 주자고 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개한테 새 이불을 주는 건 아까워요. 차라리 새

이불은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교체한 헌 이불을 동물한테 주는 게 낫죠." 이 제안이 어떠냐? 새것을 사람에게 분배하고 낡은 것을 동물에게 분배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것이 원칙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짓 리더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한다. '동물은 언제나 새것은 못 쓰고 낡고 더러운 것만 쓰고, 사람은 언제나 새것을 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 가끔 우리가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말이야. 그러니 개돼지와 다투지 말아야지. 그건 인성이 없는 짓이야.' 결국 그는 동물에게 새 이불을 주었다. 비록 사람이 낡은 것을 쓴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지만 이 일의 처리 방식은 문제를 잘 보여 준다. 거짓 리더는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너희가 볼 때 정상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이 지경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릇된 인간입니다. 정상인의 이성과 사고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맞다. 그는 형편없는 작자이다. 정상인은 이런 일을 만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줄 안다. 하지만 이해가 치우치고 영적인 체하는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른다. 그의 처리 방식은 근거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집의 원칙을 따른 것 같고, 이유도 무척 합리적이고 충분한 것 같지만, 듣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도리가 그에게는 어째서 통하지 않는 것이냐? 그는 어쩌면 이렇게 치우치게 처리하느냐? 역겨울 따름이다. 만약 그를 청지기로 들이면 개에게 쥐를 잡게 하고, 고양이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돼지를 침대에 재우는 등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별종, 멍청이, 그릇된 인간이다. 이렇게 특별히 치우치고 마음이 비뚤어진 거짓 리더를 제외한 대다수 거짓 리더들은 설령 자질을 좀 갖추고 이해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사역을 하면 역시나 엉망진창으로 불분명하게 한다. 적어도 본인이 다해야 할 책임도 다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사역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영원히 한결같다. "아무개가 관리하고 있고 아무개가 알고 있으니, 지금 물어보신 일은 제가 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감감무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거짓 리더의 모습이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분배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의 사사로운 정이나 기호와 욕망,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를 많이 개입시킨다. 그들은 이 사역을 되는대로, 엉망으로 하며 여기에는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관리하는 동안에는 일부 물건이 아무도 모르게 훼손되고 이유 없이 낭비되거나 분실되어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또 어떤 물건들은 개인이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간단한 사무적인 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태연하게 마음 편히 지내며 스스로가 사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결코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유지, 정비하는 법이 없다. 속으로 하나님 집의 물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네가 그에게 "이 기구들은 유지하고 정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구들을 수리할 때 부품을 구입하면서 낭비한 경우는 없나요? 돈을 더 쓰거나 바가지를 쓴 경우는요?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 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나요? 벌금을 내거나

경고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거짓 리더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는 바도 없다. 하나님 집 물건을 사면서 헛돈을 쓰지는 않았는지,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전담 관리자가 있는지, 구입한 물건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품하거나 교환했는지, 그는 하나도 모른다. 그는 멍청하기 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거짓 리더는 예배 때 어떻게 도리를 말하면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지 궁리할 뿐, 물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일에서는 사역 능력도 전혀 없고 아무런 태도도 없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 물품을 대할 때의 관점은 이렇다. 하나님 집의 물품은 모두의 것이니 누구든 쓰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쓰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거나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니 하나님 집의 물품은 어느 한 사람이 관리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가 기기를 사용하다 고장 내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신청하든, 그것이 비싸든 싸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 집에 다 마련되어 있어서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잘 점검하기만 하면 이런 손실과 낭비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집에서 공밥을 얻어먹는 것 아니냐? 밥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거짓 리더의 '거짓'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런 리더를 만나면 너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체합니다.) 교체하면 그만이냐? 그에게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기를 거기 놓으니까 습기가 차죠. 며칠 동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전원은 켜지는지, 쥐가 전선을 갉아 먹진 않았는지 모르면서 걱정도 안 되세요? 제가 쓰는 컴퓨터가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하지 않으면 사역에 차질을 빚을 텐데 제가 몇 번이나 신청해도 왜 신경을 안 쓰세요?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기만 하고 뭐가 그리 바쁩니까? 당신 같은 리더에게 사역을 기대했다가는 전부 그르치고 말 겁니다. 기기니 물품이니 죄다 당신 손에서 망가지고 말 거라고요. 당신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돌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니 리더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임하세요!" 이렇게 교육해도 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갖춘 사람이 두려움 없이 리더 일꾼을 교육할 수 있느냐? 우선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정의감도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저는 리더 일꾼을 교육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 사람은 상관이고 저는 그보다 몇 급이나 낮은 일개 졸병에 불과하잖아요. 그는 진리도 있고 설교도 할 줄 아는데 전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사람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머저리의 논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런 리더를 어떻게 교육해야겠느냐? "사역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집의 원칙을 따르시고요. 저희에게 어떤 일을 안배해 주시든 전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원칙도 따르지 않을 거면, 저희가 당신 말을 들을 거란 기대는 접으세요! 또 우리는 당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파면할 권리가 있고, 당신을 제명할 수도 있어요! 해치려거든 자신을 해치고, 절대 우릴 해치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교육할 용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할 용기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대개 진리 원칙에 관계된 일이나 중차대한 일은 함부로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다.

간파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해 자칫 리더 일꾼을 판단하고 교란하는 일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품 관리와 같은 일은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일에서 분별하고 원칙을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영화 제작팀에서 의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집의 물건을 은근슬쩍 차지했다. 그는 영화 제작팀을 그만두면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겨서 나갔는데 나중에 그의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돈 중 상당액이 장부와 맞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그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있었고 고급 제품도 많이 구매했다. 그가 영화 제작팀에 있는 동안 그에게 아부하면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옷이 필요할 때 그에게 한 마디만 하면 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와 관계를 잘 다져 놓지 않으면 그는 줘야 할 옷도 내주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 관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혼자 물건을 차지하고서는 하나님 집의 물품을 분배하는 일에서 원칙을 어기고 정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 원칙대로라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리더는 정리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 다른 곳에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했다. 이는 거듭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가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그가 리더 일꾼이 감당해야 할 직책을 감당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처리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둘째 치고, 그의 일 처리를 보면 이는 어떤 성질에 해당하느냐? 정에 휘둘려 악인을 감싸느라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대하는 일에서 이들 리더 일꾼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가 책임을 다했느냐? 하나님 집의 물품을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일을 처리했느냐? 절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악인이 이 물품들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도 나 몰라라 했다. 만약 자기 물건이 손실을 입거나 남에게 착복되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처리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보복하고 변상을 요구하려고 궁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집의 물건은 왜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착복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누군들 그만한 욕심이 없겠어요? 그 정도 착복하는 거야 대수인가요? 남들도 적잖이 챙기는걸요." 이것이 무슨 태도이냐?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 물품을 대할 때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냐? (아닙니다.) 이는 배은망덕한 태도가 아니냐? 결국 그가 어떤 논리까지 내세우느냐? "착복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돈이나 물건이 뭐 별건가요? 적그리스도가 착복한 건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뭘. 그가 그 물건들을 착복한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에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는 그의 일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죠." 리더 일꾼으로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니,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드느냐? 리더 일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이더라도 정의감과 양심의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심해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보호를 누리고, 그 많은 진리를 누렸으면서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할 때는 뜻밖에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이다니, 이런 사람에게 인성이 있느냐? 리더 일꾼의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체되고 나면 앞으로 다시 리더 일꾼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모습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인격이 저열하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 일꾼을 하면 안 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모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꾀하는 사람이라 절대 하나님 선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

리더 일꾼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집을 위해 점검과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어떤 물품도 훼손, 낭비되거나 악인이 착복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소한 해야 할 일이다. 네가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면 하나님 집은 너를 교회의 청지기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관리자급 인사로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임무를 짊어지게 되므로 책임이 막중해진다. 그러니 너의 모든 태도와 행동, 문제 처리 방안,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 집의 이익과 직결된다. 하나님 집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어째서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될 자격이 없겠느냐? 거짓 리더 중 일부는 단지 자질만 부족한 게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역을 할 줄도 모르며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청지기가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인격이 저열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교회 이익을 팔아넘기는 일이 잦다. 교회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대가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이 훼손, 낭비, 분실되고 심지어 악인에 의해 착복되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가책을 눈곱만큼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리더 일꾼을 뽑을 때 인성의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양심과 정의감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올발라야 하는데, 우선은 인성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사역 능력이나 자질의 수준을 떠나 책임자가 되어 청지기로서 기준에 맞을 것이다. 그는 최소한 하나님 집의 이익, 형제자매들의 공동 이익을 지킬 수 있으며, 결코 형제자매들의 이익이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들의 이익이 파괴되거나 손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먼저 나서서 지킬 것이다. 설령 자신이 위험해지거나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것이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일부 거짓 리더, 거짓 일꾼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혼자만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 바빠 하나님 말씀 서적,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하나님 집의 중요한 물품은 안중에도 없다. 만약 자신이 잡혀갈 경우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처리하도록 안배해도 된다. 하지만 이들 거짓 리더는 오로지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숨어 버린다. 잔뜩 겁을 먹고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짓 리더의 실책으로 인해, 거짓 리더의 직무 유기와 무책임으로 인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 하나님의

제물을 큰 붉은 용에게 약탈당하거나 빼앗겨 심각한 손실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리더 일꾼은 하나님 집의 장비와 물품을 적절한 곳에 옮겨 놓고 적임자에게 관리를 맡길 생각부터 해야 한다. 절대 큰 붉은 용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결코 이 물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결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일순위에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 집의 각종 중요한 물품이 자주 파손되고 손실을 입는다면, 이것은 거짓 리더의 심각한 직무 유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와 관련하여 주로 거짓 리더의 어떤 모습을 폭로하였느냐?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할 때는 그것을 등한시하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 원칙이 아닌 개인의 상상과 기호에 따라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들이 관리하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집의 물품이 크고 작게 훼손되거나 낭비되어 하나님 집 사역에 손실을 초래한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주된 모습이다. 거짓 리더는 이 단일하고도 가장 간단한 사무적인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며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런 부류가 리더를 맡은 것을 보면 너희는 그의 사역을 점검, 감독해도 된다. 만약 이 단일한 사무적인 일에서도 되는대로 일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할 시간이 없는데도 그 일을 맡길 적임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당장 교체하거나 파면하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합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비뚤어지고, 치우치게 이해하며, 오로지 정에 휘둘려 행동하거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야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가치가 없다.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역을 제대로 하고 어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본분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에 대해 교제했는데, 이를 통해 리더 일꾼에 대한 또 한 가지 요구 원칙과 요구 기준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자질 문제도, 사역 능력의 문제도 아닌 인성의 문제다. 너희는 현직 리더 일꾼, 혹은 교회에서 양성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인성이 좋지 않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있는지, 제 10 조에서 해부한 거짓 리더 부류의 인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약 이런 리더 일꾼을 정말 발견한다면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리더로 선출해서도 안 되고, 리더 일꾼으로 양성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인품을 파악하지 못해 그를 선출한다면 너는 그가 리더 일꾼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서둘러 고발해야 한다. 그가 리더 일꾼을 맡는 것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가 만약 리더가 되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도 모두 뒤따라 피해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결과를 보고 싶으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그가 만약 재임 중이라면 고발하고 파면하여라. 그가 만약 재임 중도 아니고 아직 선출된 것도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라. "이 사람은 좋은 작자가 아니니 절대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를 선출하면 교회에 해가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속거나 잘못 인도되어 그를 선출한다면 서둘러 모두에게 알려라.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선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선출하면 하나님 집의 이익은 손실되고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이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장 그를 파면해야 합니다. 그의 음모가 실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려면 자질과 사역 능력이 요구되고 이제는 인품까지 요구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리더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느냐?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인성입니다.) 그다음이 무엇이냐? (사역 능력입니다.) 그다음은 무엇이냐? (자질이 있느냐입니다.) 순서가 아주 정확하구나. 앞으로 리더를 선출할 때는 이 순서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순서대로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성을 일순위로 할 경우, 인성은 무척 훌륭하지만 자질이 무척 떨어지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했다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텐데, 인성만 봐서 될까요?"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리더 일꾼을 선출할 때 오로지 인성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인성이 기준에 맞는다면 그다음에는 사역 능력을 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사역 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사역 능력에 대한 요구가 그리 높지 않은 사역을 맡기면 된다. 그가 좋은 인성을 갖추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데다가 최선을 다해 잘 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집에서 마음 놓고 그를 쓸 수 있고, 또 대다수 형제자매가 그에게서 도움과 이로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기준에 맞는 것이다.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거나 사역 능력이 그저 보통인 사람은 간단한 사역이나 한 가지 사역만 맡기고, 자질이 훌륭하고 사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요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라. 이렇게 안배하는 것도 못 하느냐? 만약 그가 인성이 좋지 않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역 능력이 있다 한들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에게 기업이나 몇몇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맡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 관리를 맡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우선 그는 결코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마음속에는 온통 속임수, 사악한 생각과 견해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진리 원칙이 아닌 자신의 기호와 이익에 따라 불공정하게 일한다. 오로지 자신의 이해득실을 고려할 뿐,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리더 일꾼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사역 능력이 아닌 인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우열과 귀천을 판단하고, 리더 일꾼을 선발하여 쓰는 하나님 집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인성을 보아야 한다. 인성이 믿을 만하고 기준에 맞는다면 사역 능력이 있는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그다음 다른 측면을 고려해라.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번 항목에서 해부한 거짓 리더의 각종 모습도 대략 이 정도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을 볼 때 그들 대부분은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성도 너무 형편없으며, 책임감도 전혀 없다. 마음이 비뚤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거짓 리더임을 규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

추가되지 않았느냐? 어떤 거짓 리더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눈이 멀어 일을 간파하지 못해서 사역을 할 줄 모르고, 어떤 거짓 리더들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 집의 이익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선민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이 받을 혜택만 도모하느라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여러 부류의 거짓 리더들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체하거나 하나님 선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드시 최대한 빨리 교체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2021 년 5 월 1 일

리더 일꾼의 직책(12)

지난 예배 시간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0 조인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관해 교제하였다. 제 10 조에서는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에 대해 해야 할 사역과 다해야 할 책임에 관해 교제했고, 아울러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에 관해서도 비교하며 폭로하였다. 하나님 집의 각 사역에서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책임과 다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한다면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지만, 다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리더임이 틀림없다. 제 10 조 중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사역을 거짓 리더의 부류는 당연히 그다지 잘 이행하지 못한다. 각종 물품을 제대로 보관하기는커녕 보관도 안 하고 엉망으로 분배하며, 심지어 아예 이 사역을 가벼이 여긴다. 사무적인 일이긴 해도 이 역시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하는 직책이자 해야 할 사역이다. 리더 일꾼은 본인이 직접 하든, 적임자에게 하도록 안배하든, 감독과 검사, 밀착 관리 등을 병행하든 결론적으로 이 사역은 리더 일꾼의 직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사역과 관련하여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않으면 그는 직책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지니고 있는 모습의 한 측면이다. 지난 예배 시간에 거짓 리더가 이 사무적인 일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을 간략하게 폭로하고 해부하면서 사례를 들어 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 리더라면 이 사역에서 분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사역 이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거짓 리더는 항상 실질적인 사역에 힘쓰지 않고 사역을 안배하기만 하고 신경을 꺼버리며 밀착 관리 하거나 사역에 참여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은 어떤 사역을 하든 거짓 리더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쉬지 않고 사역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사역한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은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고, 상상, 사람의 뜻, 정에 휘둘려 마구잡이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더 일꾼의 이 직책에서 거짓 리더의 주된 모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원칙을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다. 지난 예배 시간에 거짓 리더가 이런 사무적인 일을 하면서 보이는 인성의 모습을 교제하고 폭로하였다. 이렇게 간단한 사역 하나에도 거짓 리더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는 이런 부류의 인품 및 인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부류의 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심성이 곧지 않고 인격이 저속하다. 제 10 조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에 관해 기본적인 교제를 마쳤다. 이어서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1 조에 관해 교제하겠다.

제 11 조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전담자를 선정하여 제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하고,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출납 장부를 심의 검열하며, 이로써 흥청망청 낭비하는 상황과 불합리한 지출을 제때 발견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배상 요구를 하는 동시에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악인에 의해 착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제물이란 무엇인가

리더 일꾼 직책의 제 11 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전담자를 선정하여 제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하고,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출납 장부를 심의 검열하며, 이로써 흥청망청 낭비하는 상황과 불합리한 지출을 제때 발견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배상 요구를 하는 동시에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악인에 의해 착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이 사역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이 무엇이냐? 해야 할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제물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역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고, 이 항목은 제물을 잘 보관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과 제물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것이겠느냐?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제물은 주로 금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은 한 측면이다. 각종 물품과 제물은 성질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서적이 제물이냐? 사역에 쓰이는 각종 기기가 제물이냐? 하나님 집에서 구매한 여러 생필품이 제물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집의 모든 하나님 말씀 서적, 각종 사역에 필요한 카메라, 녹음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각종 설비는 모두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로 구입한다. 이는 모두 하나님 집의 물품에 속한다. 또한, 책상, 의자, 식품 등 생필품 역시 하나님 집의 물품이다. 이 물품에는 형제자매가 구입한 것도 있고 하나님 집에서 제물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모두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에 귀속된다. 이 주제는 지난 예배 시간에 교제한 바 있다. 이어서 제 11 조에서 교제할 중요한 사항인 제물에 관해 살펴보자. 제물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리더 일꾼의 직책을 교제하기에 앞서 무엇이 제물인지에 관한 문제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오래전부터 이 단계 사역을 받아들였지만 제물의 개념이 모호하고 무엇이 제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바친 금전과 물품을 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물은 주로 금전적인 것을 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께 바친 것이면 금전이든 크고 작은 여러 물품이든 모두 제물에 속합니다.) 그렇게 요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이제 제물의 범위와 경계가 분명해졌으니 제물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 주겠다.

제물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득의 10 분의 1 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제물이다. 바친 액수가 얼마나 되든, 바친 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 바쳐야 하는 십일조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제물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십일조는 제물 중 한 가지 항목이다. 혹자는 "십일조는 단지 돈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람이 10 묘(畝)의 땅을 일궈 식량을 수확했다면, 수확량이 얼마나 되든 마지막에는 1 묘의

땅에서 생산된 식량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이 10 분의 1 은 마땅히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10 분의 1'의 개념은 금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1,000 위안을 벌면 반드시 100 위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득에 적용된다. 소득에는 물질이나 금전 등 많은 것이 포함된다. 이는 성경에 언급된 내용이다. 물론 현재 하나님 집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소득의 10 분의 1 을 내라고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그저 '십일조'의 개념과 정의를 교제하고 알려 줄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내야 하는 십일조는 제물의 한 항목임을 알려 줄 뿐, 반드시 10 분의 1 을 바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바치느냐는 개인의 이해와 바람에 달린 일이며, 이에 대해 사람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제물의 또 다른 항목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크게 봤을 때,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는 당연히 사람이 바친 십일조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내야 하는 십일조 외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모두 제물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는 음식, 도구, 생필품, 건강식품 등 아주 많은 것이 포함된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제단에 바친 소나 양 등도 제물에 속한다. 이는 봉헌하는 자의 뜻에 달려 있다. 만약 봉헌하는 자가 이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직접 하나님께 바쳤든, 아니면 하나님 집에 보관하게 두었든 그것은 제물의 범주에 속하니 사람이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고급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여 하나님에게 바친다면 이 컴퓨터는 제물이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차를 한 대 사 준다면 이 차는 제물이 되고, 건강식품을 두 병 사 준다면 이 두 병도 제물인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물품이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범위는 대단히 넓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물건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니, 하나님께 물건을 바치면 속할 곳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제물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립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기에 있는지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이면 모두 제물이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을까요? 다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핵심을 명료하게 잘 말해 주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 쓸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고 처분하든 사람과 상관없으니 마음 졸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사람이 물건을 하나님에게 바쳤으면 그 순간 그 물건은 제물로 구분되고, 하나님에게 귀속되며, 어떤 사람과도 상관없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단 말씀은 하나님이 강제로 차지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그 물건이 하나님에게 귀속되면 그것을 제물이라고 하며 사람이 건드리거나 함부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낭비 아닌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낭비일지언정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고 하늘에 계실 때 사람이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못하고 쓰실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려울 것 없다. 하나님 집과 교회에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니 네가 마음을 졸이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이 일단 제물의 범주로 귀속되거나 제물로 규정되면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 그 물건이 하나님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건드렸다가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제단에 여러 제물을 바쳤다. 곡식이나 과일 등 각종 농작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나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향유하더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겠느냐?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않는 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그건 네 관념이다. 하나님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입이라도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네 관념이나 상상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들을 먹지 않고 쓸 데도 없으니 바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너희는 어찌 그렇게 확신하느냐? 너희가 '드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체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분이므로 이런 것을 향유하면 안 되기 때문이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향유하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냐? 대체 어느 쪽이겠느냐?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꼭 향유해야 하는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 네가 결정할 필요 없다.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네 본분과 직책, 네 의무를 다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든, 그냥 두고 썩히든 혹은 하나님이 향유하든, 구경하든 그것은 탓할 일이 아닌 모두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유이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일도 아니고 사람이 판단해야 할 일도 아니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십니다.)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람의 이성이 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처리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슬쩍 살펴보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시하든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바쳐야 할 때 바치고, 바치고 싶을 때 바쳐서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 신경 써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하는지는 상관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요구 범위 안에 있고, 양심의 기준에 부합하며, 인간의 본분과 의무, 직책에 부합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하는지는 하나님만의 일이니 사람은 절대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방금 몇 초 사이에 너희는 큰 실수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향유하거나 먹는지 물었을 때 너희는 먹지도 않고 향유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함부로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향유해도 옳지 않고, 향유하지 않아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향유하면 사람은 "당신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영체이신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향유하시나요? 믿기지 않는군요!"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거들떠보지 않으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가 힘들게 마음을 바쳤는데 당신께 바친 물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다니, 도대체 저희가 안중에 있긴

하신 건가요?" 사람은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이성적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이런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느냐? (사람은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이나 상상도 지니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녀야 할 이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친 물품 측면에 관한 것으로, 이 또한 제물의 한 가지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품의 범주는 매우 넓다. 사람은 이 물질세계에 살면서 금전과 금은보화 외에도 좋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한다. 그 물건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것은 제물의 범주에 포함되어 제물이 된다. 이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하며, 사람은 건드리거나 관리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물건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속하므로 네가 그것을 처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하든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역시 제물 중 한 항목이다. 어떤 이는 "귀한 금은보화나 금전만 제물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발이나 양말 한 켤레, 깔창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물로 봐야 합니까?"라고 말하는데, 제물의 정의에 따른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일지라도 그 크기와 값어치에 상관없이 모두 제물에 속한다.

이 밖에도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 집에 바친 물건 역시 제물의 범주에 속한다. 이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차를 한 대 샀는데 한동안 몰다가 차가 좀 낡았다고 생각해서 새 차를 사고 원래 있던 차는 하나님 집에 바쳐 사역에 쓰도록 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그 차는 하나님 집에 속한다. 또한, 하나님 집에 속하는 물건은 제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물론 교회와 하나님 집에 바쳐진 물건에 설비 기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물건도 있으며 그 범주 또한 매우 넓다. 어떤 이는 "사람이 바친 십일조는 제물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금전과 물건도 제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물이라는 데는 이렇다 할 이견이나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하나님 집에 바쳐진 물건들은 왜 제물에 속합니까? 그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말해 보거라, 그것들을 제물에 포함시키는 게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존재하며, 따라서 교회에 바쳐진 것들 역시 제물에 속합니다.) 아주 잘 말했다. 교회와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있고 하나님 집도 있다. 또 교회가 있어야 형제자매들이 예배하고 생활할 장소가 생기며, 하나님 집이 있어야 형제자매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곳이 생기고, 그들의 진정한 집이 있게 된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집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집에 물건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유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집에 물건을 바치는 것이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만약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누가 괜히 교회에 물건을 바치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은 불필요하거나 남는 물건이 있으면 버리거나 한쪽에 처박아 두거나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 어째서 교회에

바치겠느냐? 하나님 때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기에 사람이 교회에 바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와 하나님 집에 바쳐진 모든 물건은 다 제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자들은 "저는 이 물건을 교회에 바칩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으며, 교회와 하나님 집에서 그 물건들을 처리할 전권을 갖는다. 네가 교회에 바치는 순간 그 물건은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 하나님 집과 교회가 하나님 집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물건을 분배하고 사용하고 처리할 것이다. 그럼 이 원칙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물건들의 사용 원칙은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특정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그룹을 위해 쓰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복음 확장 사역이나 하나님 집의 각 사역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물건들을 사용할 특권이 없다. 그 물건들의 사용과 분배에 관한 유일한 원칙, 근거는 바로 하나님 집에서 요구한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다.

제물에 관한 정의는 이렇게 세 항목이다. 각 항목은 제물의 정의 중 하나이자 제물의 범위 중 한 측면이다. 이제 제물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돈도 아닐뿐더러, 바친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 않고 그저 이 물건을 바친다고만 했으니 이것을 하나님 집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라면서 장부에 적지 않고 슬쩍 그 물건들을 제멋대로 사용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불합리한데도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 집에 바친 것은 공동 재산이니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됩니다."라고 하니 불합리한 게 틀림없다. 많은 사람이 제물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열한 소인배나 탐욕과 헛된 욕심을 품은 사람이 기회를 틈타 이 물건들을 강제로 차지하려 한다. 제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확실히 하고 나면 앞으로 이런 일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과 마주쳤을 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물 보관에 있어 리더 일꾼의 직책

1. 제물을 적절히 보관한다

이어서 다시 리더 일꾼이 제물을 보관하는 항목에서 다해야 할 직책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자. 제물에 대해 리더 일꾼은 먼저 무엇이 제물인지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바치는 소득의 10 분의 1 이 제물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분명하게 설명한 금전과 물품이 제물이다.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 집에 바친다고 분명하게 설명한 물품이 제물이다. 제물의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리더 일꾼이 사람이 바친 제물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며, 이에 대해 잘 점검해야 한다. 우선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보관 담당자로 세워 제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게 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다. 이 제물 보관 담당자는 일반적인 자질이라 리더 일꾼이 되지는 못하지만 믿음직해서 아무것도 횡령하지 않을 것이니 제물이 그의 손에 맡겨지면 분실되거나 착오가 생기지 않고 적절히 보관될 것이다. 이런 측면의 사역지침 규정상 반드시 기준에 맞는 인성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성이 나쁜 사람은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차지할 기회만 노리고, 어떤 일이든 잇속을

차릴 생각만 하니 이런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 기준에 맞는 인성을 갖춘 사람은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에게 제물 보관이나 재물 관리를 맡기면 그는 근면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용하거나 외부에 빌려주는 등의 일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물을 맡기면 안심이 되고, 한 푼이라도 비거나, 물건 하나라도 분실할 일이 없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집 규정상 이런 사람을 한 명만 찾는 것은 아니다. 기록할 사람, 보관할 사람으로 두세 명을 구하는 것이 좋다. 사람을 구한 다음에는 제물을 분류하고, 누가 어떤 종류의 물건을 얼마나 보관하는지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적임자를 찾아 분류해서 보관하고 기록하면 끝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3, 5 개월마다 출납 장부가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장부를 기록한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기록할 때 누락은 없었는지, 총 개수와 출납 장부가 일치하는지 등 재무와 회계 분야에 관한 사역은 반드시 꼼꼼하게 이행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이런 분야의 사역에 대해 그다지 정통하지 못하다면 상대적으로 숙련된 사람을 안배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재무와 회계, 총괄 관리 측면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든 없든, 제물 보관이라는 사역을 등한시해서도, 아예 관여하지 않고 방임해서도 안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부의 확인 결과가 어떤지, 일치한지 물어봐야 한다. 그런 다음 지출 항목 중 일부를 표본 검사해서 해당 기간 지출 상황이 어떤지,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장부 기재 상황은 어떤지, 출납 장부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리더 일꾼은 속으로 꿰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물 보관 사역 중 한 가지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어떤 리더 일꾼은 "저는 숫자를 안 좋아해서 숫자만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라고 한다. 그렇다면 너를 도와서 검사하고 점검하며 감독할 적임자를 구하여라. 이 사역을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못해도 사람을 쓸 줄 알고 제대로 쓴다면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적임자에게 맡기고 보고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단,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이 사역의 담당자와 함께 보관 중인 모든 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집계한 다음 중요 지출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이 왜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하겠느냐? 이것이 제물을 지키는 것이고 네 책임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은 하나님에게 향유하라고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더냐? 이 금전과 물품들이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제물은 복음 사역 확장에 쓰이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 집 사역의 모든 지출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 집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니 제물의 관리이든, 지출이든 거기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이 있기 마련이다. 그 돈을 누가 바쳤든, 그 물품이 어디에서 났든 하나님 집의 것이라면 마땅히 잘 관리하고, 밀착 관리 하며, 검사하면서 이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 확장에 정당하게 쓰이지 않고, 오히려 흥청망청 낭비되는 것도 모자라 악인에게 착복된다면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는 리더 일꾼의 직무 유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리더 일꾼의 직무 유기이다. 그러니 리더 일꾼은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다. 제물을 잘 관리해서 이 제물들이 복음 사역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한 그 모든 사역에 올바르게 쓰이게 하는 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형제자매가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에게 바친 돈이 리더 일꾼의 부주의와 직무 태만으로 악인의 손에 들어가 흥청망청 탕진되거나, 심지어 악인이 그 돈을 강제로 차지해 버려서 리더 일꾼의 여비조차 남지 않고, 생활비도 모자라며, 나아가 하나님 집이 하나님 말씀 서적을 인쇄하고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구입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역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형제자매가 바친 돈이 정당하게 쓰이지 않고 악인에게 착복 당해 하나님 집 사역에 예산이 필요할 때 돈이 없다면 사역이 가로막히지 않겠느냐? 이는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 좋은 관리자가 되지 못해서, 그리고 이 사역에 마음을 쏟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제물의 손실을 초래해서 교회 특정 사역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중단되게 만든다면 리더 일꾼의 책임이 크지 않겠느냐? 이것을 죄업이라고 한다. 비록 제물을 강제로 차지하거나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고, 횡령하지도 않았지만 너의 부주의와 직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이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책임이 막중하다!

2. 장부를 확인한다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는 각 사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고 진리의 교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제물을 잘 보관하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적임자를 구해 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장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건이 안 되면 어쩌죠?"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여건이 안 돼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없으면 믿을 만한 적임자를 보내 보관 담당자가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지, 장부에 오차는 없는지, 보관 담당자가 믿을 만한지, 요즘 내적 상태는 어떤지, 소극적이지는 않은지, 특정 환경에 놓일 경우 겁을 먹거나, 배신할 우려는 없는지 감독하게 해야 한다. 요즘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가 제물을 유용할 수 있겠느냐? 교제하고 알아본 결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제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물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보관 담당자 가정의 주변 환경이 위험하진 않은지,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된 형제자매는 없는지,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닥치진 않았는지,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적절한지, 옮길 필요는 없는지 검사해야 한다. 보관 담당자의 가정 환경과 배경을 수시로 심사하여 언제든 적절한 대응 조치나 방안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어떤 팀이 새로운 설비를 들였는지, 해당 설비가 어디서 났는지 수시로 물어봐야 한다. 만약 구입한 것이라면 그들이 구입하기 전에 검토한 사람이 있었는지, 사인한 사람이 있었는지, 구입가가 비싸진 않은지, 합리적인 시세인지, 헛돈을 쓰진 않았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 확인 및 심사를 해 보면 장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구매 담당자들은 늘 제물을 물 쓰듯 헤프게 쓴 사실이 발견된다. 그들은 해당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구입하고, 나중에 세일하거나 가격이 내린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입한다. 그것도 좋은 것, 고급의 최신 모델로 말이다. 이런 구매 담당자들은 원칙 없이 물 쓰듯

돈을 쓰는데 제물로 하나님 집에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것이 마치 원수에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 같다. 원칙대로 실용적인 것을 사는 법이 없고 아무 가게나 찾아가서 가격이 얼마든 물건의 품질이 어떻든 그냥 사버린다. 사가지고 와서 써 보면 며칠도 안 돼서 망가져 버리는데 망가지고 나면 수리하지도 않고 다시 새 제품을 구입한다. 장부를 확인하고 재정 지출 상황을 심사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제물을 흥청망청 심각하게 낭비한 경우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느냐? 경고 처분을 내리느냐, 아니면 배상하게 하느냐? 물론 이런 조치들도 필요하다. 만약 이 사람이 심성이 곧지 않은 이방인이자 불신파, 마귀인 것을 보게 되면 경고 처분이나 책망과 훈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며, 배상하라고 하면 그도 따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하나님 집의 요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원칙 없이 제멋대로 날뛸 것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계속 써야겠느냐? 써서는 안 된다! 그래도 계속 쓴다면 이 리더 일꾼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머저리이다! 이런 불신파를 보면 당장 그를 교체하고 도태시켜 교회에서 정리하여라. 그는 봉사할 자격도 없다. 자격 미달이다!

리더 일꾼이 장부를 확인하고 지출 상황을 확인할 때 흥청망청 낭비한 사실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지출과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일부 사람의 인격이 저속하고 비열하며 이기적이어서 교회 사역에 손실을 야기한 사실까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려울 것 없다.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를 교체하고 적임자를 다시 뽑아 이 사역을 맡기면 된다. 적임자는 기준에 맞는 인성에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하나님 집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집을 위해 물건을 구입해 줄 때 경제적이고 실속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좋으며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을 산다. 꼭 저렴한 것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장 비싼 것을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제품 중에서 상품평이나 입소문이 좋고 가격도 적당한 것이 좋겠고, 물론 보증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라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집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구해야 한다. 심성이 곧고, 하나님 집을 고려하여 일을 처리하며, 세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행동과 됨됨이가 발라서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말이다. 이런 사람을 구한 다음에는 그에게 하나님 집을 위해 몇 가지 일을 시켜서 관찰해 보아라. 만약 상대적으로 적합해 보이면 그를 써도 된다. 그런데 안배했다고 끝이 아니다. 그 후로도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을 검사해야 한다. "그가 못 미더우신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완전히 못 미더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믿음직스러워도 검사해 봐야 한다. 무엇을 검사하겠느냐? 그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실행해서 생긴 편차는 없는지, 치우치게 이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요즘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하나님 집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샀다가 나중에 단종될까 봐 걱정이라고 네게 물으면 어쩌겠느냐? 잘 모른다면 그쪽 업무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여라. 업무 담당자는 그것은 잠깐 유행하는 물건이라 쓸 일이 많지 않을 테니 거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업무 담당 기술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물건이 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구입하는 것은 낭비이니, 당장 사지 않는다고 손해 볼 것은 없다. 리더 일꾼은

사역에서 이 정도 몫까지는 해 줘야 한다.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본인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해야 하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을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다.

항상 어떤 물건들을 구입해 달라고 하나님 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신청하는 물건들을 자세히 심사하고 확인해 보면 다섯 개 중 하나만 꼭 구입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네 개는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신청한 물품을 면밀히 심사하고 따져봐야지, 조급하게 구입하거나, 그가 사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 줘서는 안 되고, 그가 사역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신청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얼마나 급하든 리더 일꾼이나 제물 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검사하고 확인해서 착오가 없게 해야 한다. 꼭 구입해야 할 물건은 리더가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물건은 승인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꼼꼼하고 구체적이며 깊이 있게 이행한다면 제물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불합리한 지출은 당연히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 사역은 출납 장부에 기록된 항목과 숫자를 제대로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곧은 심성이다. 모든 지출과 항목을 자신의 은행 장부처럼 여긴다면 꼼꼼하게 보고 기억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실수나 문제가 생기면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것을 남의 일이나 공공기관의 장부로 간주한다면 분명 눈도 마음도 멀어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을 조금만 맡겨도 매월 명세서와 이자를 확인한 다음 계좌의 내역까지 체크한다. 매월 얼마를 썼고, 몇 번 출금했는지, 예금은 얼마나 했는지, 내역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담아 두고 모든 숫자를 가보처럼 훤히 꿰뚫고 있어서 잘못된 곳이 있으면 작은 오차라도 놓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본다. 사람은 자기 돈에 대해서는 이토록 꼼꼼하지만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느냐? 내가 보기에는 99.9 퍼센트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물을 사람에게 맡겨 보관하면 흥청망청 낭비하고 불합리하게 지출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사역 담당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이다. 백 위안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천 위안, 만 위안을 손해 봐도 속으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참소받지도 않는다. 이 일에서 사람은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 것이냐? 이는 많은 사람의 심성이 곧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자기 돈이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어째서 속으로 훤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 집의 돈을 잠시 네 계좌에 넣어 보관하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나님의 제물을 충성스럽게 보관하지 않는데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제물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입증해 주므로 제물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이 제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본체만체한다면, 또 손해를 봐도 괴로워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며,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전 욕심부리지 않고 강제로 차지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강제로 차지한 사람이 징벌받는 것은 그 사람 문제고 당연한 결과죠.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제게 관여하라고 하셔도 전 그럴 의무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맞는 말이겠느냐?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느냐? (그의 마음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지 않고 제물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성은 어떠냐? (이기적이고 비열합니다. 자기 물건은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이런 자의 인성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주로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냉정하지 않으냐?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냉정하여 인간미가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후안무치하지 않으냐?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다. 본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본분을 조금 이행할 수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다.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제물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관하지도 못하는 이런 관점과 태도를 지닌 자가 가장 인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기만이 아니겠느냐? 너무나도 심각한 기만이다! 인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 말종을 구원하겠느냐?

3. 각종 지출에 대한 밀착 관리, 파악, 검사 및 철저한 점검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의 좋은 관리자가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은 제물을 잘 관리하는 일이다. 제물을 잘 보관하는 것 외에도, 제물의 지출 현황 또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지출을 절대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제물이 흥청망청 쓰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유효하게 지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흥청망청 쓰거나 낭비되는 상황이 보일 경우 제때 제지해야 할 뿐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고 이 사역을 할 적임자도 구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자기가 관리하는 범위의 모든 지출의 용처와 용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에 선풍기가 부족하다면 누가 얼마짜리를 구입할지, 어떤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범위를 규정해 줘야 한다. 어떤 리더 일꾼은 "저희가 바쁘다 보니 따라가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직접 따라가서 사라는 게 아니다. 자질을 갖춘 좋은 사람을 시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얼간이나 심성이 곧지 않은 나쁜 사람을 시키지 마라.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은 쓸데없이 기능만 많은 제품은 적지 않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하니 적당한 기능과 가격의 제품을 사야 한다는 것을 안다. 반면 심성이 곧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온갖 잡다한 기능이 다 들어 있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산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원칙을 알아야 하며, 구입한 물건은 저렴하고 실용적이어서 모두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 네가 만약 흐리멍덩한 사람이나 돈을 무절제하게 흥청망청 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입하게 하면 그는 선풍기보다 열 배는 비싼 고가의 최고급 에어컨을 구입할 것이다. 돈이 좀 들더라도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게 그의 생각인데 에어컨은 공기를 정화해 주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며 각종 예약 및 단계 설정까지 지원하니 말이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이다. 그는 누리려 하고 돈으로 자극을 추구한다. 이는 과시하는 것이지 실용적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의 심성은 곧지 않다. 만약 자기 물건을 산다면 돈을 덜 쓰면서 할인이 되거나 흥정할 수 있는 것을 사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아낄

것이다. 저렴한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집 물건을 살 때는 얼마가 들든 개의치 않는다. 저렴한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고가의 최고급 첨단 제품을 구입하려 하니 심성이 곧지 않은 것이다. 심성이 곧지 않은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쓰면 안 됩니다.) 심성이 곧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집을 위해 일할 때 황당하고 무의미한 일만 일삼는다. 돈을 합당한 데 쓰지 않고 제물을 흥청망청 낭비하기만 하니 그에게서 합리적인 지출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자린고비라서 하나님 집의 물건은 가장 저렴한 것을 사야 한다고, 저렴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 집의 돈을 아끼는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에서 도태된 떨이 제품만 사는 것이다. 그 결과 낡아 빠진 싸구려 기기를 사다 보니 쓰자마자 망가지고 수리조차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다시 사야 되니 결과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 어리석지 않으냐? 이런 부류를 구두쇠, 자린고비라고 부른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집을 위해 돈을 아끼려 하지만 그렇게 아낀 결과가 무엇이냐? 돈을 물 쓰듯 낭비하게 되었다. 그에게도 핑계는 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녜요. 저도 돈을 낭비하기 싫어서 하나님 집을 위해 아끼려고 선의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실상 너는 돈을 물 쓰듯 썼고, 낭비했으며 돈과 인력을 소모했다. 이런 부류 역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덜떨어진 얼간이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집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심성이 곧지 못한 자를 쓰면 안 되고, 얼간이를 써서도 안 된다. 물건을 어느 정도 구입해 보았고,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었으며 매사에 치우치는 법이 없는 똑똑한 사람을 써야 한다. 어떤 물건이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망가져도 수리가 편하며 부품 구입도 편한 제품을 사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 와서 반품 기한이 한 달인 것을 보면 서둘러 써 보고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린다. 만약 결함이 있거나 쓰기 불편하면 얼른 반품해서 다른 제품을 고르니 손해가 줄어 든다. 이런 사람이 인성이 비교적 좋은 사람이다. 인성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놓고는 한편에 치워 두고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오래 쓸 수 있는지 써 보지 않고 보증기간이 얼마인지, 반품 기한이 언제인지 살펴보지도 않는다. 그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흥미가 생겨 제품을 가져다가 써 보고 나서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계산서를 찾아보고 반품 기한이 지나 반품할 수 없으면 "그럼 다시 하나 사죠 뭐."라고 한다. 이게 낭비가 아니냐? "다시 하나 사죠 뭐."라는 한 마디에 하나님 집에서 돈을 더 들여야 한다. 다시 하나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교회 사역을 위한 것이고 합리적인 지출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사람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구입한 물건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초래된 일이다. 제물을 낭비하고 나서 또 다시 지출했는데도 재구입한 물건을 보관할 좋은 사람이 없어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망가지게 된다. 이런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리더 일꾼은 뭘 하고 있느냐? 이 사역에서 리더 일꾼은 직무를 완전히 유기했으며 감독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제물이 흥청망청 쓰이고 낭비되었다. 만약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사 온 물건이 실용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즉시 반품하기 때문에 손실이나 낭비가 줄어 든다. 만약 심성이 곧지 못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면 이런 조악한 물건을 사느라 제물을 낭비할 것이다. 그럼 이 비용을 과연 누구에게 부담시켜야겠느냐? 당사자와 리더 일꾼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리더

일꾼이 만약 이 일을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꼼꼼하게 한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허점이 메워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리더 일꾼이 자주 각 교회를 찾아가 제물의 지출 상황을 검사한다면 문제를 발견할 것이고 이렇게 흥청망청 낭비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 일꾼이 게으르고 무책임하면 이런 불합리한 지출과 흥청망청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고 계속해서 난무할 것이다. 이렇게 난무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면서 거들먹거리며 관료처럼 행동하는 것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리더 일꾼은 양심과 이성, 인성이 없다. 교회에서 쓰는 돈은 모두 하나님 집의 돈이고 하나님의 제물이니 자기와 상관없다는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돈은 써야 하고 어떻게 쓰든 괜찮다고, 자기 주머니에 챙기지 않고 횡령하지만 않으면 낭비해도 괜찮다고, 돈으로 경험과 식견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리더 일꾼은 본체만체한다. '누구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라지. 얼마를 낭비하든 괜찮아. 낭비한 사람이 책임지고 나중에 응당의 징벌을 받겠지. 내 알 바 아니야. 어쨌든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 돈을 쓴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이방인이 공금을 쓰는 것과 똑같은 관점과 태도가 아니냐? 원수의 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장에 출근하는 이방인의 경우 관리가 엄하지 않으면 함께 쓰는 물건을 몰래 훔쳐 집에 가져가거나 함부로 망가뜨리고, 고장 나면 다시 사고, 공장 물건을 살 때는 좋은 것, 비싼 것을 사는 등, 어쨌든 돈을 무절제하게 함부로 쓰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물을 대한다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사역하겠느냐?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만약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제물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제물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제물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이다. 만약 자기 은행 장부처럼 자세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엄격하고, 책임감 있고, 마음을 기울여 제물을 대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제물을 대하는 네 태도가 공동 재산이나 시장 바닥의 채소 보듯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사고, 안 좋아하는 채소는 거들떠보지 않으며, 어디에 쌓여 있든 신경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써도 개의치 않으며, 땅에 떨어져 누군가에게 밟혀도 못 본 체하면서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큰일 나게 될 것이다. 네가 제물을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네 인성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하다. 결론적으로 제물을 관리하는 이 사역에서 리더 일꾼의 주된 직책은 제물을 잘 보관하는 것 외에도 후속 작업 역시 밀착 관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별로 장부를 확인하고 각종 지출에 대해 밀착 관리 하며, 파악하고 검사하여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지출은 흥청망청 낭비하기 전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흥청망청 낭비해 버렸다면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추궁해서 경고하고 배상하게 해야 한다. 네가 만약 이 사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장 사임하고 리더 일꾼 자리에서 물러나거라. 네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네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체계적으로 말해 보아라, 제물에 대해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이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첫째는 보관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는 각종 지출에 대해 밀착 관리 하고, 파악하며, 검사하여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지출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누구든 흥청망청 낭비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이 몇 가지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 만약 이토록 간단한 사역마저 해내지 못한다면 너는 리더 일꾼으로서, 즉 하나님 집의 관리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물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함부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 일꾼 중 한 명으로서 어떤 자각도 하지 못하고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느냐? 이는 의심해 봐야 할 문제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제물이 그렇게 낭비되고 함부로 쓰이는데도 조금의 자각도 하지 못하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네 사랑과 경외심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믿음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은 어떻겠느냐? 전혀 굳게 서지 못하고 성립하지 못한다! 제물을 잘 보관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직책이자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다. 제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다면 이는 리더의 직무 유기이다. 제물을 잘 보관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 리더, 거짓 일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제물의 행방 및 보관 담당자의 각종 상황을 제때 파악해야 한다

리더 일꾼에게는 제물의 지출 현황을 검사하고 불합리한 지출을 해결하는 것 말고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의 행방 및 보관 담당자의 각종 상황을 제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악인이나 꿍꿍이가 있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제물을 차지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의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 일부는 아무도 관리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 그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유 재산으로 만들지 늘 궁리하기만 한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자기 잇속을 차리지 않고, 물질이나 금전에 대한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적당한 환경과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제물을 그의 손에 보관하게 한다면 그가 제물을 차지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예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인품도 훌륭했죠. 왜 고작 이 정도의 제물을 그의 손에 맡기자 그가 드러난 걸까요?"라고 말한다. 그건 네가 그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지 않아서 그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의 본성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 그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일찌감치 발견한다면 제물이 악인에게 착복되는 불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의 행방과 제물 관리자의 여러 상황을 제때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이 몇백, 몇천 위안을 관리할 경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횡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몇만, 몇십만 위안을 관리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못 미덥고 위험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변하겠느냐? 몇백, 몇천에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몇만, 몇십만이 되면 사람은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많은 돈은 몇 평생을 살아도 벌지 못할 거야. 이 돈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차지하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지겠어!' 그러고는 생각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해도 마음에 죄책감이 안 드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 아무도 모를 테지. 마음에 죄책감도 안 들고, 괴롭지도 않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닐까? 그럼 이 돈을 내가 차지해도 징벌이나 죗값을 안 받지 않을까? 별다른 결과가 따르진 않겠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있지 않느냐? 제물이 그의 손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또한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믿음에 기초가 있고, 충성스럽게 행동해서 몇 만, 몇 십만 위안을 맡겨도 잘 보관하고 횡령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지만 그의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몇 있어서 돈을 보면 이리가 먹잇감을 보듯 눈독을 들인다. 몇 만, 몇 십만 위안은 말할 것도 없고, 천 위안만 봐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그들은 누구의 돈이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한다.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흉악한 이리 몇 마리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제물이 침해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만약 리더 일꾼이 세심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어서 제물이 이런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보관 담당자의 집에서는 금전도 보관하고 각종 물품도 보관하면서 형제자매나 리더 일꾼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 잠깐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곳에 제물을 보관하는 게 적합하겠느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관하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해도 이런 환경과 조건은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제물을 옮겨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물에 손실이 생겨 악마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교회의 환경은 열악해서 항상 체포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물을 보관하는 집이 쉽게 팔아넘겨져 큰 붉은 용에게 몰수되거나 수색당할 수 있고 제물이 언제 어디서든 악마에게 약탈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곳이 제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겠느냐?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미 그렇게 보관했다면 어떡하느냐? 당장 옮겨라. 일부 리더 일꾼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짐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속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다 문제가 터져서 악마에게 제물을 빼앗기고 나서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러고는 '그때 옮겼어야 했는데.'라며 조금 한탄한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10 년이 지나도 그는 제물을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문제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며,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리더 일꾼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야 한다. '제물을 보관하는 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너무 위험한 환경이야. 주위에 체포되거나 미행당하거나 감시당하는 형제자매가 꽤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 제물을 옮겨야 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게 빼앗길 때까지 넋 놓고 있는 것보단 낫지.' 환경이 나빠지자마자 제물에 위험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면 큰 붉은 용에게 침해당하거나 착복 당하지 않도록 제물을 제때 옮겨야 한다. 그래야 제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어떤 잠재적 위험이나 실수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다. 일단 조금이라도 변고가 생기고 체포되는 사람이 생기며, 상황이 나빠지면 리더 일꾼은 제물이 안전한지,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진 않을지, 악인에게 착복당하지는 않을지, 악마에게 빼앗기진 않을지, 제물에 손실이 생기진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제때 조치를 취해 제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어떤 리더 일꾼은 말한다. "이 일들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될까요? 인본주의적으로 제물이 아닌 사람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떤 질문이냐? 인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며 지키는 것은 좋은 관리자가 다해야 할 책임이다. 심각하게 말하면 네가 목숨을 바쳐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네 책임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죽길 원하느냐? 지금 너더러 하나님을 위해 죽으라는 게 아니고 제물을 온당하게 잘 보관하기 위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인데 그러겠느냐? 너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이고 요구이자, 네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니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한 마당에 제물을 보관하기 위해 대가를 좀 치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떠든다면 이것이 공허한 말이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은 제물을 보관하는 이 사역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 일에서 도망치지 말고, 이 일을 피하지 말며, 책임을 회피하지도 마라. 너는 리더 일꾼이니 이 사역은 네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역이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기꺼이 하겠느냐? 해야겠느냐? (해야 합니다.) 너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부탁이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와 부탁을 알려 주었는데도 네가 하려 하지 않는다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은 제물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사역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다. 대충대충하면 안 되며, 남의 일로 여기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리더 일꾼은 직접 감독하고 개입하며 관여해야 하고, 심지어 이 일을 직접 처리해서 악인이나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틈타 일을 망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가 사역을 꼼꼼하게 할수록 이들 악인과 나쁜 사람들이 틈탈 기회가 없어진다. 네가 꼬치꼬치 캐묻고, 면밀하게 관리할수록 불합리한 지출과 흥청망청 낭비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집에 돈이 모자라서 그러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헌금할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이 사역을 하면서 리더 일꾼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집에서 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물을 대하는 태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네가 만약 책임감도 없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 평신도라면 네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네가 리더 일꾼인데 이런 책임감이 없다면 너는 리더 일꾼을 맡을 자격이 없다. 설령 맡는다고 해도 무책임한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이니 언젠가는 도태될 것이다.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양심이나 이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본분 이행을 논하겠느냐? 죄다 양심도 없는 폐물이니 당장 하나님 집을 떠나 너희 세상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이렇게 교제해 주지 않으면 제물이라는 측면의 상식, 그리고 제물 보관과 관련된 진리와 실행해야 할 원칙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확한 원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 책임을 다하였느냐? '어쨌든 난 하나님의 제물에 욕심이 없고 제물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도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제물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라는 가장 얄팍한 논리와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으냐? 이것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냐?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인식이 이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로 교제할 가치가 있다. 이런 교제를 통해 제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제물을 보관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제물 측면과 관련된 진리와 제물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원칙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거짓 리더가 제물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

1. 제물을 공동 재산으로 여긴다

이어서 제 11 조 리더 일꾼의 직책과 관련하여 거짓 리더에 대해 간략하게 폭로하고 해부하겠다. 거짓 리더가 제물을 대하는 태도 및 제물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모습은 거짓 리더가 제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물은 명목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에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더구나 하나님은 이 많은 물건을 다 쓰시지도 못해. 하나님께는 명목상 바치는 것일 뿐이고 사실상 교회와 하나님 집에 바치는 거야. 명확하게 누구에게 바치는 건 아닌 거지. 교회, 하나님 집이 모든 사람의 대명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모두의 것이라는 말이고, 모두의 것은 곧 공용이라는 말이지. 그러니 제물은 모든 형제자매에게 속하는 공동의 재산이야.' 이런 인지가 정확하겠느냐? 분명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은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욕심이 있고, 강제로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방식과 이런 관점으로 제물을 대한다. 그것은 분명 제물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고 자기가 누리려고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작자겠느냐? 유다의 부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런 부류의 리더 일꾼은 하나님의 제물을 교회의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제물을 열심히 보관하거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간도 크게 제멋대로 제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원칙이 없으니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 '감투'가 크고, 지위가 높으며, 형제자매 가운데 명망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사용한다. 사회의 기업, 공장에서 기관의 승용차나 좋은 제품, 고급 제품은 모두 사장이나 공장장, 총재가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하나님의 제물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 일꾼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집의 고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더 일꾼의 명의로 고급 컴퓨터, 고급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제물을 자기가 차지하는 리더 일꾼이라면 모두 제물은 공동 재산이라고 여겨서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쓴다. 일부 형제자매는 금은 장신구, 가방, 옷, 신발을 바칠 때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명시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어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용해야 하고 교회로 귀속되는 것은 공동 재산이니 공동 재산을 우선 사용하는 사람은 리더 일꾼이어야 해.'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이 물건들을 자기가 차지한다. 그리고 그가 고르고 남은 물건들은 쓰고 싶은 사람이 쓰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는 식으로 모두가 나누어 갖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에게 평등한 은혜라고 한다. 그를 따르면 모두가 잘 먹고 잘 마시며, 모두가 잘 누리며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물입니다.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입으로는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손은 물건을 놓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리더 일꾼은 스스로 제물을 차지하고 나눌 뿐 아니라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제물들을 제멋대로 누린다. 아울러 제물의 관리, 지출, 사용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제물을 관리하고 기록할 적임자를 뽑지도 않으며 더욱이 장부를 검토하거나 지출 상황을 면밀하게 심의하지도 않는다. 거짓 리더는 제물 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란을 야기해서 어떤 제물은 손실되고 낭비된다. 거짓 리더가 사역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일한다는 것이다. 어느 팀의 책임자이든 모두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어느 팀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든 승인 없이 제멋대로 결정할 수 있다. 사역에 필요하기만 하면 돈이 얼마나 들든, 쓸모가 있든 없든, 꼭 필요하든 말든 모두 사버린다. 어쨌든 제물을 쓰는 것이지, 누군가의 돈을 쓰는 게 아니니, 거짓 리더는 감독하지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원칙을 교제하지도 않는다. 물건을 사고 나서는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 정도의 돈을 들일만 했는지 리더 일꾼은 일절 상관하지 않는다. 왜 상관하지 않겠느냐?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기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니 아무나 써도 된다는 것이다. 제물을 관리하는 일이 모든 면에서 엉망이다. 어느 정도로 엉망이겠느냐? 마치 사회주의 국가의 공동으로 분배하는 국영 대형 공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 물건을 가져가고, 공장의 것을 먹고, 공장의 돈을 벌며, 나아가 공장의 물건을 횡령하는 것처럼 아주 엉망진창이다. 거짓 리더는 어떤 설비나 기구를 구입하는 지출에서든 규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규정을 만들어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확인하며,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하는 이 몇 가지 사역들을 모두 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가 사역하면 아주 엉망이 된다. 그 무엇 하나 질서가 없고, 실수투성이이다. 여기저기에서 악인과 심성이 곧지 못한 자들이 잇속만 챙길 틈을 타게 하니 하나님의 제물이 악인과 심성이 곧지 못한 자들에 의해 함부로 흥청망청 낭비된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런 징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경고조차 받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리더 일꾼이냐? 밥만 축내며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가 관리자겠느냐? 이는 내부의 적이다!

제물 보관에 무책임한 이런 리더 일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느냐? 이들은 인격이 저속하고 양심과 이성이 없지 않으냐? 이 거짓 리더들은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교회에 바친 것을 죄다 하나님 집의 재산으로 간주하고는 형제자매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문제가 폭로되어 상부가 책임을 추궁하면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변명하면서 그들이 리더가 되어 지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제물을 훔쳐 먹고, 강제로 차지한 성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인격이 저급한 사람이 아니냐? 정말이지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왜 형제자매가 재물을 바치는지, 이 재물이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토록 간단한 이치도 소위 리더라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거짓 리더들은 '하나님 집의 제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이 말을 바로잡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올바른 표현이 무엇이겠느냐? '제물' 혹은 '하나님의 제물'이다. 수식어를 붙인다면 '하나님'을 붙여야 한다. 제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귀속된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제물의 소유자가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제물을 향유할 자격이 없다. 설령 제사장이라도 제물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제물을 향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제물이 제사장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제물 앞의 수식어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가 입에 달고 다니는 '하나님 집의 제물'이라는 명칭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 집의 제물, 교회의 제물'이라는 말은 없다. 또 '우리의 제물', '우리 하나님 집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죄다 틀린 말이다. 제물은 피조된 인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특권을 가진 유일한 소유자이고, 사용자이며 향유자이다. 제물은 공동의 재산이 아니고,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나 하나님 집에 귀속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나 하나님 집에서 제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집의 제물', '교회의 제물', '우리의 제물' 등의 말은 모두 정확하지 않은 말이고, 더욱이 속내가 음흉한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무디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 다른 사람을 오도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그는 제물을 공동 재산으로 분류하여 교회나 하나님 집에 귀속시키거나 모든 형제자매에게 귀속시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거짓 리더의 한 부류가 보이는 모습이다. 이런 부류는 제물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자기 멋대로 가져가서 쓰거나 자기는 리더이니 이 물건들을 분배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준다. 그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느냐?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하는 분위기이다. 그가 하나님 집의 제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니 역겹지 않으냐? 이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법이다! 이런 부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제물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를 감독하고 폭로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 물품들을 형제자매에게 나눠 주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다.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와 함께 덕을 보게 하면 다들 그를 폭로하지 않게 된다. 너희가 만약 이런 리더를 만나 그로부터 덕을 볼 수 있고, 이런 '공동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편의가 생긴다면 만족스럽지 않겠느냐? 너희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책하고 책망하며 제지할 것이다. "당신이 리더 일꾼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지, 제물을 횡령하거나 혼자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들에게 나눠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겐 그럴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물을 쓰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은 리더 일꾼이긴 하지만 당신에게 이럴 특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쓸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사역을 맡기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바친 금은 장신구를 빼고 옷을 벗으세요. 당신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으니 얼른 배상하세요. 당신이 그래도 사람이고 체면이란 게 있다면 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또, 당신이 남에게 잘 보이려 건네준 제물들, 남들이 차지하고 향유하게 만든 제물들을 당장 회수하세요. 회수하지 않는다면 모든 형제자매에게 통보해서 당신을 유다로 여겨 처리하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책임감과 양심, 태도를 지니고 제물을 대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제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물을 잘 보관하는지, 원칙에 따라 제물을 관리하는지 감독할 의무도 있다. 자기와 상관없으니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나는 리더 일꾼이 아니니 그럴 책임이 없어. 그런 사람이 보인다고 해도 간섭할 필요도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지. 그건 리더 일꾼이 할 일이야. 돈을 함부로 쓰고 제물을 횡령하는 사람은 유다이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야.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어. 내가 참견해서 뭐 하겠어?' 이는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리더 일꾼이 모르는 곳에서 제물을 낭비하고 횡령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리더 일꾼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리 팀장과 리더가 자주 제물을 자기 것으로 삼고 제물을 함부로 쓰며 남들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것저것 사들이는데 그가 지출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이다. 문제가 보이면 보고하고 알리는 것이 하나님 선민의 책임이다. 여기까지 한 부류의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에 대해 교제했다. 제물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제물을 공동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다.

2. 제물 지출을 관리하지 않고 따져 보지 않는다

제물을 보관할 때 거짓 리더가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그가 제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고 오로지 제물을 건드리거나 함부로 유용하거나 횡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물은 신성한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니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제물을 잘 관리하여 제물 보관에 있어서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에게 길이나 원칙이 없고 구체적인 사역 방안이나 조치도 없다. 그러니 제물의 기록, 통계, 보관 및 출납 장부 확인, 지출 등 업무에서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매우 수동적이다. 결재 서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하여 동의해 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산해 주며, 어떤 명목의 돈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급해 준다. 각종 기계, 기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보관 담당자는 적합한지 알지 못하고 살펴볼 줄도 모른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하고, 사람의 본질도 간파하지 못한다. 그러니 제물이 이들의 관할 내에 있을 경우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도 장부의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많고, 과다하고 낭비되는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제물들이 리더 일꾼의 결재로 유실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들이 구체적인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아무런 원칙 없이 사역한 것이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고 규칙과 규정만 지키면 끝이니 제물을 관리하는 기준에 전혀 못 미치고 제물을 관리하는 원칙에는 더더욱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기간에는 불합리한 지출이 너무 많다. 만약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지출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느냐? 이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무책임하고 형식만 갖추며 건성으로 일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며, 남에게 미움을 사지 않고 무골호인이 되어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심지어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제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소속 교회에 잠재 위험이 있든 없든, 거짓 리더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위험이 닥치면 어디로 도망갈지, 자기 집 돈이 수색당하여 뺏기진 않을지부터 생각하고 제물의 행방, 제물의 위험 여부는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는다. 일이 생기고 나서 두세 달, 심지어는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양심상 물어볼 것이다. 큰 붉은 용에게 착복되거나 악인에게 낭비된 제물, 행방이 묘연한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순 마음은 괴롭지만, 기도로 잘못을 시인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어떤 작자냐?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런 태도로 제물을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여기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겠느냐? (이방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을 그가 느끼겠느냐? 영이 무감각하고 우둔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 빛이 없으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고 자주 연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설교도 자주 듣고, 사역하면서 고생도 하고 대가도 치르지만 발전이 없는 가련한 신세다. 이것이 바로 '성과'이다. 이것이 징벌받는 것보다 괴롭지 않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성과가 이렇다면 기뻐 축하할 일이냐, 아니면 슬퍼할 일이냐?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구나.

거짓 리더는 제물 관리 사역에 진지하게 임하는 법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제물을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되고 아무도 횡령해서는 안 됩니다. 제물이 나쁜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라며 잘도 구호를 외치고 인의 도덕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그의 됨됨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 비록 그는 횡령하지 않고, 제물에 대해 분에 넘치는 욕심이나 강제로 차지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는 어떤 지출이든 하나님 집의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제물을 유용하지 않으며 자기 돈으로 지출하지만 리더 일꾼으로서 제물 관리를 대하는 일에서는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제물의 지출 현황을 알아보거나 제물의 지출을 점검하는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으니 그가 거짓 리더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다. '쓰지 않고 횡령하지 말자.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쓰든, 횡령하든 말든 상관하지도 말자.'라는 것이 제물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다. 너의 이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골치 아프다. 네가 쓰지 않고 횡령하지도 않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더 나아가 리더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제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건만 네가 하지 않았으니 이를 직무 유기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이다. 비록 너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그 어떤 제물도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고, 제물 관리에 있어서 그 어떤 구체적인 관리 사역도 하지 않았으므로 거짓 리더로 규정되어 마땅하다. 어떤 리더는 제물을 하나도 점용하지 않는다. 다른 리더 일꾼들이 모두 써도, 그는 쓰지 않는다. 하나님 집이 그에게 안배해 주어도 그는 받지 않는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물을 관리하게 하면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누가 제물을 쓰든 승인해 주면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일언반구도 없다. 이런 부류는 제물을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지만 제물이 그의 관할 아래 있으면 악인에게 착복당한다. 그가 무책임하고 직무를 유기하니 아무나 제물을 흥청망청 낭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흥청망청 낭비되는 것이 그의 관리 소홀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들의 악행에 동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 책임이 막중해서 발뺌하기 어렵다! 그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제물을 횡령하지 않을 거고 그럴 마음이나 계획도 없어. 누가 하나님의 제물을 쓰든, 누가 하나님의 제물을 점용하든, 누가 하나님의 제물을 누리든 내가 쓰거나 점용하고 누리는 일은 없을 거야. 난 이런 태도로 제물을 대할 테니 남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생각이다. 이런 부류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제물로 고급 의류나 사치품도 모자라 차까지 구입한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겠느냐? 그가 스스로 횡령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횡령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데 어째서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제지하지 않느냐?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남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행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네가 제물을 관리하는 동안 제물이 악인에게 착복당하고 흥청망청 낭비되며, 불합리하게 지출되어 유실되는데도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다면 직무 유기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거짓 리더의 모습이 아니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사역을 하지 않으며, 다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고 어떤 도리든 이해하면서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 리더일 수밖에 없다. 네가 '어쨌든 내가 횡령한 게 아니라 남들이 횡령했으니 그건 남의 일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거짓 리더가 아니겠느냐? 횡령하지 않는 건 개인의 일이다. 그런데 네가 제물을 잘 보관했느냐? 제물과 관련해서 네 책임을 다했느냐? 다하지 못했다면 너는 거짓 리더인 것이다. "어쨌든 전 횡령하지 않으니 거짓 리더가 아닙니다!"라고 핑계 대지 말아라. 횡령하지 않는 것이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합당한 기준은 하나님이 맡긴 일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람이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물 관리에서 네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모두 이행했느냐? 분명 너는 형식만 거쳤을 뿐 이행하지 못했다. 너는 남들에게 미움을 사는 건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미움을 살까 봐, 남들에게 비치는 네 좋은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 봐 제물을 돌보지 않는다. 네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너는 거짓 리더일 수밖에 없다. 네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다. 눈앞의 사실이 네가 본인의 의무와 책임조차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는 자기 물품이나 사유 재산은 무척 잘 관리한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말이다. 바람이나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며, 아무도 자기를 이용해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제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눈곱만큼도 없다. 자기 물건을 관리할 때의 10 분의 1 만큼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네가 무슨 좋은 관리자이냐? 네가 무슨 리더 일꾼이겠느냐? 너는 분명 거짓 리더이다. 이것이 거짓 리더 중 한 부류의 모습이다.

3. 합리적인 지출을 제한한다

한 부류의 거짓 리더가 더 있는데 이들 역시 가증스럽다. 이런 부류는 리더가 되고 나서 기존 제물 보관 담당자가 돈을 물 쓰듯 낭비가 심한 것을 보고 교체해 버린다. 그는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따져 가며 주머니 끈을 졸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눈에 적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자기가 제물을 보관하게 된다. 형제자매가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 말씀 서적을 인쇄해야 한다고 하면 이 리더는 인쇄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거란 생각에 인쇄하지 못하게 한다. 사역에 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돈만 아끼면 그만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제물이 어디에 쓰여야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하는지 전혀 모른다. 오로지 하나님의 제물이 조금도 쓰이지 않게 지킬 줄만 알아서 써야 할 곳에도 쓰지 않으니 정말이지 '잘'도 관리하는구나! 이러면 사역을 어떻게 펼치느냐? 이 리더가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해야 할 사역은 못 하게 하고 인쇄해야 할 서적을 인쇄하지 못하게 하며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 그 어떤 합리적인 지출도 그가 승인하지 않으니 이것이 관리하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는 원칙을 모르는 것이다.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사역하면 관리를 할 줄 모른다. 그는 이 돈을 잘 지켜서 한 푼도 줄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지출에도 이 돈이 유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원칙 없이 통제하고, 원칙 없이 감독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쓰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푼도 못 쓰게 감독해서 합리적인 지출이 제한되는 것도 관리는 아니다. 이는 전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물을 사용하고, 분배하며 관리하는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갖 에피소드와 혼잡 상태가 생겨나는 것이다. 겉으로는 이 리더가 무척 책임감 있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어떻게 사역하더냐?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현지의 복음 사역이 가로막히고 제한을 받는다. 일부 업무 사역도 그가 제물 사용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해서 제한을 받는다. 겉으로 보면 그가 제물을 무척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보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관념과 상상에만 의지해 일을 처리하고 교회를 위해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집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교회 여러 사역의 진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도 모른다. 이런 부류가 거짓 리더로 규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거짓 리더라고 할 만하다. 그는 이미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을 어느 정도 교란하고 방해했다. 이 교란과 방해는 그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취향과 관념에 따라 엉망으로 사역하며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협력하지도 않아서 생긴 것이다. 비록 제물이 그에게

있으면 흥청망청 낭비될 일은 없겠지만, 그가 제물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제물을 지키려고 못 쓰게만 하니 결국 복음 확장 사역이 지체되고 하나님 집 사역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그를 거짓 리더로 규정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어째서 이런 부류도 거짓 리더로 규정되느냐? 이런 부류가 사역할 줄 모르고 치우친 이해와 방식으로 제물을 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류가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치우치게 이해하고 규례를 지키고 위장하며 영적인 체한다.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며 행동에도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잔꾀와 자기 뜻으로만 규례를 지키니 그렇게 사역한 결과 교란과 방해만 일으키고, 그의 사역 방식이 무척 어리석고 우둔해서 사람들을 역겹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거짓 리더가 틀림없다. "이렇게 제물을 보관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아 사역하는데 거짓 리더로 규정하시다니. 그러면 저도 신경 끄겠습니다. 다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지 않으냐? 우리가 거짓 리더의 부류대로 다양한 내적 상태와 모습을 폭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원칙을 파악해서 거짓 리더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 원칙을 파악해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사역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상이나 관념에 기대지 말고, 사람의 뜻이나 혈기를 품지 말며, 자기가 상상하는 이론으로 진리 원칙을 대신하지 말고 영적인 체하지 말아라. 또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칙인 것처럼 꾸미거나 원칙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이런 부류 역시 리더 일꾼 가운데 일부 존재하니 경계할 필요가 있다.

4. 제물을 강제로 차지하고 향유한다

한 부류의 거짓 리더가 또 있는데 그들은 제물 관리 사역을 더 엉망으로 한다. 그는 리더 일꾼으로서 맨날 제물만 보면서 제물에만 온 신경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교회 행정 사역을 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생활,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 사역을 잘하며 그 외에도 각 업무 사역을 빈틈없이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제물은 하나님이 교회에 공급하는 재물로서 리더 일꾼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저의는 제물은 리더 일꾼을 위해 예비된 것으로, 누군가 리더 일꾼으로 뽑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가 이 제물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리더 일꾼에게 이 제물을 분배하고 누리며 쓸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리더 일꾼이 되면 제물의 주인, 제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사역하면서 제물을 접할 때는 제물을 기록, 통계, 보관하지 않고, 제물의 출납 장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더욱이 제물의 지출과 분배 현황을 점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어떤 제물이 있는지, 리더 일꾼이 쓸 만한 것이 없는지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리더 일꾼이 제물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다. 그들이 보기에는 제물을 기록, 통계, 보관하거나, 출납 장부 혹은 지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그들과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물을 리더 일꾼에게 분배하여 우선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고, 리더 일꾼의 말이 곧 원칙이 되어 제물을 어떻게 쓰고, 분배할지 모두 리더 일꾼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리더

일꾼으로 뽑힌 것은 온전케 된 것이고, 제사장처럼 제물을 누릴 특권과 제물에 대해 발언권과 사용권, 분배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형제자매가 바친 물건이 전담자의 기록, 통계, 입고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리더 일꾼이 한 번 훑어보고, 선별하며, 걸러낸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남기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으며 입을 수 있는 것은 걸친다. 그리고 자기한테 쓸모없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분배해 준다. 자기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그의 원칙인 것이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정말 자기를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이냐?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리더 일꾼은 의자 두 개가 필요한 집이나 가스레인지 하나가 필요한 집, 몸이 안 좋아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집의 돈으로 구입한다. 이 모든 제물의 분배와 용도, 지출, 사용 권한이 모두 리더 일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방식은 인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가 뭘 믿고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겠느냐? 리더 일꾼에게 제물을 지배할 권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더러 관리하랬지 지배하고 사용하라고 한 적 없다. 네게 그것을 누릴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리더 일꾼이 제사장과 같겠느냐? 온전케 된 자와 같겠느냐? 제물의 소유자겠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제멋대로 주인 노릇하며 제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 주느냐? 어째서 이런 권력이 있느냐? 누가 준 권력이냐? 사역지침에 '리더 일꾼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집의 재정 권한을 거머쥔다.'라는 규정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리더 일꾼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어떤 문제겠느냐? 형제자매가 값비싼 옷을 바치면 다음 날 어떤 리더 일꾼이 입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형제자매가 바친 제물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개인'은 다름 아닌 리더 일꾼이다. 리더 일꾼이 제물을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제물을 강제로 차지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이냐? 리더 일꾼이 제물 관리에서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그는 거짓 리더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제물을 강제로 차지하고 제멋대로 사용한 점에서 보면 백퍼센트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합리적이겠느냐? (적그리스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거짓 리더이면서 적그리스도이다. 제물 관리에 있어 거짓 리더는 제물을 살펴보고 사람을 시켜 관리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일부를 차지하고, 제멋대로 주인 노릇을 하며 일부를 분배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슨 물건인지 모르지만 남에게 주기 싫은 나머지 물건은 일단 한편에 내버려둔다. 이 제물의 행방이 어떤지, 적임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훔치거나 강제로 차지하는 사람은 없는지에 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원칙은 이렇다.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손에 넣었으니 내게 필요 없는 나머지는 가지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고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나 신경 쓰라지. 발 빠른 사람이 차지하고 손에 넣는 사람이 득을 보는 거야.' 이것이 무슨 원칙이고 무슨 논리이냐? 이런 사람은 순전히 마귀이고 짐승이다!

어떤 거짓 리더가 창고에 물건이 가득하다고 하길래 그에게 기록했는지 묻자 "일부는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어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가당찮은 소리다. 어찌 기록할 수 없단 말이냐? 가져왔을 때의 기록이 있을 것이다!" "너무 오래돼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책임감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옷이 있는데 필요한

형제자매에게 주어라."라고 하자 "유행이 지난 옷이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주고, 필요치 않으면 네가 적절히 처리하여라."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직책을 다하는 것이냐? 그에게 사역 하나를 시키면 한결같이 불평하며 소극적인 말을 하고 어렵다는 말만 할 뿐, 원칙대로 그 일을 잘 처리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순종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다. 네가 어떤 요구를 하든 그는 늘 어렵다고만 하는데 마치 네가 말을 그만하면 자기가 이겼고, 우위를 점했으며 사역도 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작자겠느냐? 네게 리더 일꾼을 시킨 것은 말썽을 일으키란 것이 아니고, 어렵다는 말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네가 정말 사역을 할 줄 안다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제기하고 나서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했는지 말하여라. 거짓 리더는 구호를 외치며 도리를 말하고, 큰소리치며 객관적인 이유나 핑계를 대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 역량도 없다. 제물 관리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이토록 지능이 떨어지고 무능한데도 자기가 리더 일꾼이 되었으니 특권과 지위가 생기고, 신분이 존귀해졌으며, 제물의 소유자이자 사용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제물을 소비하는 특권만 누릴 줄 알지, 제물을 물 쓰듯 쓰는 불합리한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뿐더러 심지어 보고도 전혀 처리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리더 일꾼이 되었다는 알량한 우월감을 즐길 줄만 알지,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 집의 사역 원칙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식충, 폐인, 저능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멍청이도 지위의 복을 누리고자 하다니 역겹지 않으냐?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에 대한 폭로를 통해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런 부류는 리더 일꾼이 되면 제물에 눈독을 들이고 두 눈을 제물에서 떼지 않으니 돈을 물 쓰듯 쓰고 제물을 흥청망청 쓰기를 오랫동안 탐내 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거저 얻은 것들을 누릴 기회가 드디어 왔으니 그의 탐욕스러운 본색이 완전히 폭로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리더 일꾼 중 이런 자가 없는지 살펴보아라. 리더 일꾼의 직책과 정의를 늘 잘못 이해해서 리더 일꾼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스스로를 제사장의 반열에 올리고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냐? 설마 리더 일꾼이 되면 패괴된 인간이 아니게 되겠느냐? 그 즉시 성결한 사람이 되겠느냐? 리더만 되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제물을 향유하려는 이런 부류는 저능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는 정상 인성의 이성이 없는 저능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교제하는데도 그는 리더 일꾼의 본분과 직책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부류의 리더 일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며, 게다가 이들의 모습은 무척 명확하고 두드러진다.

각 유형의 거짓 리더는 제물 보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거짓 리더의 범주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너희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가 거짓 리더인 것은 맞으나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인성, 행동, 모습, 본질은 거짓 리더보다 훨씬 악하다. 거짓 리더 중 많은 사람이 자질과 지능이 떨어지며, 사역 역량이 없고, 치우치게 이해하며,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인격이 저급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심성이 바르지 않다. 이로 인해 제물을 보관하는 일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 제물의 합리적 관리, 적절한 보관에 지장을 준다. 심지어 일부 제물은 거짓 리더가 직무를 유기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원칙과 요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거짓 리더가 제물 보관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을 폭로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렇다. 인격이 저급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치우치게 이해하고 사역 역량과 자질이 떨어지며, 진리 원칙을 전혀 구하지 않는, 마치 멍청이와 저능아 같다. "앞에 폭로한 몇 가지 모습은 모두 인정하지만 멍청이, 저능아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일부 리더 일꾼이 멍청이, 저능아라는 것을 너희는 인정하느냐? 이런 부류가 있지 않으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모두 현대인입니다. 대학생, 고등학생이라 이 사회와 인간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뛰어난데 어떻게 저능아를 우리의 리더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다는 게 무엇이냐? 너희 중에도 저능아에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저능아를 리더로 뽑기 쉽다. 어째서 저능아가 많다고 하겠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체험하든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주야장천 규례만 지키고 하나의 방식만 반복하여 영원히 바뀌지 않으며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문제겠느냐? 그것은 바로 자질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꿰뚫지 못하고 사물의 발전 규칙도 찾지 못하며 더욱이 일을 할 때 있어야 할 원칙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저능아라고 한다. 본분과 관련된 일에서 너희가 원칙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문서 사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글을 쓰고 각본을 쓰면 전부 공허한 말뿐이고 원칙을 파악하지 못한다. 무엇이 실제인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도 모르니 자질이 형편없고 지적 수준도 너무 낮다. 너희의 이런 지적 수준으로 저능아를 리더로 뽑는 것이 너무 쉽지 않겠느냐? 뽑을 수 있는 것도 모자라 그를 인정하기까지 해서 그 사람을 교체하려 하면 네가 원하지 않는다. 2 년이 지나 네가 간파하고 깨닫고 나서야 그가 거짓 리더라는 것을 분별한다. 당시에는 무슨 말을 해도 교체하지 못하게 하니 그 사람보다 네가 더 저능아가 아니냐? 어째서 일부 리더 일꾼의 지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느냐? 그는 가장 단순한 사역만 할 줄 알지 조금이라도 복잡한 사역은 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며 사역이 하나 추가되면 어쩔 줄 모른다. 이건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리더를 뽑은 건 너희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바닥에 납작 엎드릴 정도로 탄복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혼도 안 하고 20 년 넘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고생하겠다는 각오로 사역에 무척 열심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사역할 때 원칙을 이해하더냐?" "그 사람이 원칙을 모르면 누가 원칙을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역을 점검해 보면 엉망진창이고 어느 사역 하나 시행하지 못한다. 네가 그에게 사역하는 원칙을 알려 주어도 그는 영원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속 묻기만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히 단도직입적으로 알려 주어야 그가 알아듣는다. 그에게 원칙을 알려 주는 것은 알려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하나 열거해 줘도 시행할 줄 모른다. 이런 부류의 리더가 있지 않으냐? 아무리 원칙을 알려 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역을 시행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 똑같은 일을 여러 번 교제하고 당부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떡하냐고 묻는다. 한 마디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저능아가 아니냐?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리더를 너희 손으로 뽑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으냐? 이런 부류의 리더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오늘 교제한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은 주로 제물과 관련한 관리 사역이다.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에 대한 폭로를 통해 사람은 제물 관리가 리더 일꾼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이 사무적인 일은 다른 사역과 다르지만 하나님 집의 다른 사역의 정상적인 운용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물 관리 사역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역이다. 이 사역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느냐? 제물 관리 사역에서 보관하는 물건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부적절한 말로 표현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리더 일꾼은 이 사역에 더더욱 마음을 다하고, 직책을 다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사역은 성질로 보면 행정 사역에 포함시켜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행정 사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관련되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은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올바른 원칙을 파악하여 이 사역을 해야 한다. 그것을 행정 사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까닭은 리더 일꾼에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역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일반 사무적인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중요성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인식한 다음 마음을 다하고 직책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된다. 잘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흐리멍덩하거나 건성으로 임하지 말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큰소리만 치지 말기를 권면한다. 제물 관리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은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부탁이다.

2021 년 5 월 8 일

리더 일꾼의 직책(13)

지난번 예배 시간에 교제한 내용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1 조로, 리더 일꾼이 제물 보관 사역을 할 때 다해야 할 책임과 해야 할 사역에 대해 교제하였다. 리더 일꾼은 제물을 보관할 때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느냐? (첫째는 보관이고, 둘째는 장부 확인이며, 셋째는 각종 지출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밀착 관리 하고 파악하고 검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며, 불합리한 지출을 반드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낭비하기 전에 근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미 흥청망청 낭비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여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몇 가지 항목이다. 주요하게는 잘 보관한 다음 확인하고, 이어서 밀착 관리 하고 검사하며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출하는 것이다. 제 11 조를 교제하고 나서 사람은 제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생겼고, 리더 일꾼이 제물을 보관할 때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리더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알게 되었다. 리더 일꾼의 직책에 관한 교제이든 아니면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에 관한 교제이든, 긍정적인 측면을 교제하든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든 주된 목적은 사람이 제물 보관 사역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제물의 보관과 지출, 분배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방식을 어떻게 근절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든 아니든 모든 하나님의 선민은 제물 보관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떤 책임을 다해야겠느냐? 감독해야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즉, 감독과 보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물 보관 사역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니 우리 같은 평신도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틀린 관점이다. 사람이 이 진리들을 깨달았으면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제물의 보관, 분배, 사용상 불합리한 문제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리더 일꾼에게 보고하여 제물의 보관, 사용,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 선민의 책임이다.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1)

제 11 조에 관한 교제를 마치고, 이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라는 내용에 관해 교제하겠다. 이 항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골자는 리더 일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각 부류의 사람, 일, 사물 그리고 각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은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직책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이 사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목표와 범위가 생기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제 12 조에서 리더 일꾼에 대한 주된 요구가 무엇이냐?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저지하고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네가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보고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골치 아파질 것이다. 이는 네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 어떤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는 어떤 결과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간파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제해야 할 중점이 무엇이겠느냐? 리더 일꾼은 먼저 진리 원칙을 깨달아야 각종 문제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고, 각종 실제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교회 사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성질에 속하는지,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에 속하지는 않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제 12 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네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떤 상태 및 상황인지, 그 문제의 성질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어떻게 해부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이 문제들을 깨달아야 하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비춰 보며, 어떻게 진리 원칙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이 모두 깨닫도록 이 문제들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교제해 보자. 이로써 리더 일꾼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선민이 함께 직면하여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두 함께 일어나 저지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부정적인 인물과 사물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해부하고 분별하고 규정하여 이 문제들을 저지하고 제재하며 근절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럼 이제 가장 구체적인 문제부터 교제해 보자.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리더 일꾼이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떤 측면에서부터 착수해야 하느냐? 우선 교회 생활부터 착수해서 이 문제들을 발견해야 한다. 교회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중 어떤 문제들이 방해와 교란의 성질에 속하는지, 다들 속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느냐? 교인이 몇 명이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분명 극소수는 아닐 것이다. 방해와 교란에 속하는 일 중 너희가 알 만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 겉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글귀와 도리만 말합니다.)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지 교제하는데 그는 남편(아내), 자녀를 어떻게 잘 돌보는지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교제하는데 그는 자기 집, 자기 가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의 말을 도중에 끊지 않는다면 그는 한도 끝도 없이 말할 것이고, 그를 제재한다면 그는 짜증을 부리고 발끈하면서 더 비뚤어질 것이다. 이럴 경우 방해와 교란의 성질에 이르게 된다. 이 성질이 매우 심각하다.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객관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방해와 교란이 될 수 있는지는 상황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본인에게 진리 실제가 없어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입만 벌리면 글귀와 도리, 공리공론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려는 속셈은 아니다. 제재와 만류를 통해 그는 자기 분수를 알게 되고, 앞으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방해와 교란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의도적으로 글귀와 도리를 말해서 사람을 미혹하려는 속셈인 사람은 글귀와 도리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하려 한다. 그 목적은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그들을 포섭하고 미혹하고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니, 성질이 심각하다. 이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글귀와 도리밖에 말할 수 없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는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 교회 생활 중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따위의 문제뿐만 아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편을 가르고, 이간질하며, 사람의 적극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말썽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 관념을 품고는 그 관념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여 다른 사람도 사역지침에 관념을 품게 만듭니다.) 방금 말한 것들은 방해와 교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편을 가르는 것이 한 가지이고, 이간질하는 것도 한 가지이다.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 그리고 관념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지위를 다투는 것 등은 모두 방해와 교란에 해당한다. 이 문제들은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성질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문제도 있다. 선거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방해와 교란에 관련되겠느냐? 투표 때 하는 뒷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사람들에게 혜택을 약속하고 표를 받는 것인데, 이는 선거를 망치는 수법이다. 물밑 작업은 뒤에서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그들을 회유하고 미혹하여 자신에게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모두 선거 중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은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선거 원칙 위반이라고 통칭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는 예배에 이런 일들을 하러 온다. 그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일을 처리하러 온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이 또한 방해와 교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방해와 교란의 문제를 정리해 보자. 첫 번째,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세 번째,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네 번째, 편을 가른다. 다섯 번째, 지위를 다툰다. 여섯 번째, 이간질을 한다. 일곱 번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힌다. 여덟 번째, 관념을 퍼뜨린다. 아홉 번째,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열 번째,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열한 번째,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 총 열한 가지이다. 이 열한 가지 모습은 모두 교회 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해와 교란의 문제이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리더 일꾼이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며, 사태가 커지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이 제재할 수 없다면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일어나 제재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인성이 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한 게 아니라 단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진리를 교제해서 그를 도와주고 붙들어 줘도 된다. 만약 방해하고 교란한 사람이 악인이라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교제와 폭로를 통해 그의 방해와 교란을 저지하고 제재할 수 있다. 그가 앞으로 다시는 방해하고 교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착실하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교회의 안배를 따르고 본인에 대한 형제자매의 제재를 받아들이겠다며 회개하고자 한다면 당분간은 그를 교회에 머물게 해도 된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면서 많은 사람과 대치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제명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1.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난다

다음으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을 지닌 각 유형의 사람과 일, 사물에 관해 교제하겠다. 첫째는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다.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교제하는 이야기가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느냐? 너희도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여야 방해와 교란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경우를 방해와 교란으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선뜻 말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선뜻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중 어떤 유형이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지 정확한 기준을 세운다면 많은 사람이 속박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상적으로 말해도 주제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더욱 다반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속박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교제할 필요가 있다. 너희는 예배 시간에 주제에서 벗어나게 될까 봐, 방해나 교란을 일으키게 될까 봐 입을 닫는다거나 인식이 있어도 교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혹은 교제하고 싶은데도 '내가 하려는 말이 주제랑 관련이 있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닐까? 말하기 전에 초고를 쓰고 개요를 짠 다음 개요대로 말해야지. 주제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 주제에서 벗어나면 남들이 들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예배의 귀중한 시간을 버려서 형제자매가 진리를 깨닫는 데 지장을 주게

돼. 심하면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게 될 수도 있어.'라고 고심하지 마라. 그렇다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먼저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본 다음, 주제에서 벗어나면 교회 생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심하면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만약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찾아 자기의 인식과 이해를 교제한다면, 혹은 한 가지 주제로 자기가 체험한 일에서 어떤 인식을 얻었고 어떤 진리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의 뜻을 깨달았는지 교제한다면, 혹은 어떤 측면의 주제에 대해 교제할 때 말을 좀 많이 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이는 모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제하는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거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외부의 일을 늘어놓는 것에 속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완전히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엇이 방해와 교란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보면 어떤 말, 어떤 모습이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방해와 교란의 성질이 되느냐? 이것이 교제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 교제하고 나면 무엇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 문제에 답해 보아라. (교제하는 내용이 진리와 관계없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거나 일상적인 일, 사회 조류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해서 사람의 마음을 교란하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교제가 주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점을 언급했느냐? (하나는 진리와 관계가 없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내용이다. 진리와 무관하다. 하나는 한담하며 가정사를 떠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통문화, 사람의 윤리 사상 및 사람이 고상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우친 이해의 문제이다. 이런 것은 전부 진리와 상관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은 '젊은이는 이상(理想)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는 "자고로 영웅은 젊은이에게서 나옵니다.", "뜻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라고 교제한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야기하면 그는 이렇게 교제한다. "머리 위 삼척에 천지신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지켜봅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찾아와도 겁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은 진리와 무관하지 않으냐? 이런 말들이 무엇이냐? (사탄 철학입니다.) 이것은 사탄 철학이자 특정 종족의 전통문화이다. 첫째는 이야기하는 주제가 진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옳다고 여기고 수준 높다고 여기는 철학 이론을 이야기해서 진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니 이것이 바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리와 무관한 주제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둘째는 이야기하는 주제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한다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하지 않고 지식, 학문을 교제하고, 철학과 법률을 교제하거나 사회 현상 및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를 교제한다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하게 된다. 그는 진리와 관련성이 전혀 없고, 진리와 전혀 무관한 이런 문제를 진리로 삼고 교제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진리에 대한 교제 속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외부에 관한 일로 이탈하게 된다. 생각이 외부에 관한 일로 이탈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식과 학문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하는 이런 측면의 성질은 심각하다. 셋째는 이야기의 주제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이상(異象)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본인 스스로 진리를 그다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도 확실하게 깨달은 척하고, 나중에 진리를 교제할 때 심오한 도리로 억지로 말을 채운다. 자기가 들어 봤거나 이해했던 종교적 도리를 한데 모아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해대니 사람들이 듣고 나면 이상이 모호해져서 그가 말하려는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들을수록 모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한다. 사람들이 듣고 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흐려진다면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며, 주제를 벗어나서 생긴 결과이다.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모습의 각 성질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교란을 일으킨다. 그들의 교제를 듣고 나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실행의 길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흐려지고 진리에 대해 더 모호해지는 데다가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게 된다. 이는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자 사람에게 초래하는 나쁜 결과이다. 이 세 가지의 각 성질은 무척 심각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 주제가 진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언뜻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지식과 철학, 이론, 전통문화 그리고 명사들의 명언 등 사탄에 속하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 전하고 분석하며, 진리를 교제하는 기회를 빌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란하니 그 성질이 매우 심각하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듣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좋게 여기는 도덕적 행위이자 주장입니다. 이방인들이 처세하는 도리에 속할 뿐,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황당한 이론을 들으면 맞장구치며 진리로 여겨 지킨다. 이럴 때 리더 일꾼이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분별력을 키우도록 교제하고 해부하지 않으면 일부 하나님 선민이 미혹될 것이다. 미혹된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이방의 명사들이 전하는, 사람이 옳고 좋으며 심오하다고 여기는 말, 이를테면 민간 속담이나 명사의 격언 및 처세론 등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속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 아니겠느냐? 겉으로는 진리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철학이 뒤섞여 있다. 이는 분명히 사람에게 교란을 일으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탄 철학과 사람의 지식 등으로 진리를 사칭해 남들을 미혹한다면, 리더 일꾼은 이 일을 폭로하고 해부하여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키우게 하고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교제하는 기회를 빌려 언뜻 그럴듯한 것들만 늘어놓고, 사람의 지식과 학문, 은사, 재능을 떠받들며, 윤리 규범, 전통문화 등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사물이나 진리로 둔갑시켜 사람들이 그것이 마땅히 제창해야 하는 것, 교회에서 칭송해야 하는 것, 모두가 지켜야 할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럴듯한 황당한 이론과 그릇된 주장이 늘어나게 하며,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져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하고, 일이 닥쳐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야 올바른 것인지 몰라 어둠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한 결과이다. 세 번째는 자세히 교제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중에는 지식과 관련된 것이 있고, 사람의 관념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훌륭한 도덕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 등도 있는데, 죄다 진리와 관련이 없고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리더 일꾼은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의 교제를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진리가 확실히 이해되기는커녕 오히려 교란되고 기존의 명확했던 생각이 흐려져 어떻게 실행해야 적절한지 알 수 없게 된다면 이 부류 사람의 교제를 저지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 인성 측면의 진리를 교제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정상 인성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이 고생하면서 육의 즐거움과 안락을 탐하지 않는 것, 맛있는 것이 있어도 먹지 않는 것, 누려야 할 것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누리지 않으며 저버리는 것, 모든 육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서 육이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자고 싶을 때는 육을 저버려야 합니다. 저버리지 못하겠더라도 어떻게든 자제해야 해요. 육을 저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클수록, 육을 저버릴 때가 많을수록 진리를 실행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 생각에, 정상 인성 중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높이 제창해야 하는 한 측면의 모습은 바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육적인 욕망을 저버리는 것, 육적인 안락을 탐하지 않는 것, 물질적인 누림을 자제하는 것이에요. 자제할수록 천국에 쌓이는 복도 커질 테죠." 이 말이 무척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느냐? 틀린 데가 있느냐? 사람의 생각과 논리, 도리, 관념으로 판단하면 이런 말은 어느 종교 집단, 사회단체에서든 통할 것이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네 말이 옳다고, 네 믿음이 훌륭하며 순수하고 바르다고 동조할 것이다. 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사람의 관념으로 판단하면 이 말은 모두 맞는 말이다. 어떤 부분이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시거든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사람이 이런 관념을 지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로 이렇게 교제한다면 다수 사람의 관념에 영합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관념에 영합할 때는 그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그의 관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의 행동 방식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받으려 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것을 본받을 때면 네가 지키고 실행하는 길 또한 틀이 잡히지 않겠느냐? 틀이 잡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기어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행할 것이라는 말이다. 너는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열납하는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당에 가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종착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네 마음과 생각은 이미 이 사상 관점에 교란되고 미혹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결과이다. 너는 자기 마음과 생각이 교란되었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네 마음과 생각이 이런 사상 관점에 무감각해지고 교란되고 나면 너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대해 모호하고 불명확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네 이상(異象)이 모호해졌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옳게 보이지만 잘못된 사상 관점에 오도되면 네 마음과 생각은 교란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네 마음속 이상이 여전히 분명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은 정확하겠느냐, 아니면 오해가 있겠느냐? 틀림없이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깨달은 것,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며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교란이 된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이토록 큰 교란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람을 관념 속으로, 사탄의 철학과 논리 속으로 이끄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요구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논리와 사람의 관념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느냐, 아니면 멀어지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다면 예배 시간에 이런 주제로 교제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의 성질이 사람에게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만약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면 자질이 부족하고 무감각한 일부 어리석은 자, 특히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자가 본받고 따를 것이다. 이럴 때 리더 일꾼은 즉시 나서서 저지해야지, 그가 계속 주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가 교제하는 주제가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더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책임이자 해야 할 역할이다.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 교제하였다. 이어서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어떤 주제를 교제하는 것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이 되기에 충분한지 정리해 보자. 어떨 때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확연해서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 한담을 하고 가정사를 떠들기 시작하니 이는 분별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다들 어떻게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교제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교제하며 자기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고, 어떻게 형제자매를 도와주었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다들 듣기 싫어하고 들을수록 지루해해서 대꾸해 주지 않으면 그도 멋쩍어한다. 그를 분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역시 말을 이어 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다지 많은 진리를 깨닫지 않고도 분별할 수 있다. 한담을 하고 가정사를 떠드는 것, 자기를 추켜세우고 뽐내는 것, 주제에 따라 자기의 '화려한' 과거를 말하는 것 등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다지 큰 교란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반감을 품고 듣기 싫어하며 그것이 진리 교제가 아니라 자기 과시이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운을 뗄 때는 다들 체면을 세워 주지만 말이 길어지면 반감을 품고 차라리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듣기 싫어한다. 그가 계속 말한다면 사람들은 일어나 자리를 떠날 것이다. 그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무안해서 말을 이어 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주제에서 벗어난 어떤 이야기들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부정적인 것임을 간파하지 못한 채 진리로 여겨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겠느냐?

주제에서 벗어난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사람에게 교란을 일으키니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런 유형의 사례를 들어 보아라. (어떤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일의 잘잘못만 따지는 데만 치중합니다. 그 결과 마음과 생각에 혼동을 주어 사람들이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말이 진리에 부합하고 옳다고 여기며 그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주제를 교제하는 것을 빌미로 자기를 위해 변명하고 해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억울하다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며, 그의 편에 서서 동정하게 한다. 또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탄복하게 한다. 이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속셈을 품고 의도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은 후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기는커녕 책망과 훈계를 경계하고 맞서게 한다. 그의 교제로는 책망과 훈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으며,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방식을 선택해 책망과 훈계를 대하게 만드니, 이런 방식은 진리를 실행하거나 진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능구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교제는 사람을 미혹한다. 진리를 교제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방해와 교란이 된다면 리더 일꾼이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하며 교제하고 해부하여 많은 사람이 분별력을 키우고 교훈을 얻으며 공과를 배우게 해야 한다.

2.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의 두 번째 항목은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귀와 도리를 말할 줄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다. 일반적으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량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나 고의로 그러거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게 내버려두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자기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또 자기를 우러러보도록 미혹하는 게 아니라면 방해와 교란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은 진리 실제가 없기 때문에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이 일상이다. 적절하진 않지만 말하자면 그럴 만하고 용서할 수 있으니 굳이 따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인 경우이다.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에게 진리 실제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글귀와 도리를 말하고 구호를 외치며 이론을 떠드는 것 등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가 늘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으려고 글귀와 도리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늘 리더 일꾼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견주려고만 하고, 심지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점이다.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거물이나 우두머리가 되고, 고매한 사람, 비범한 사람, 말에 권위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경우와 다르며 방해와 교란이 된다. 그가 일반적으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르겠느냐? 그는 항상 말하고 싶어하고 기회만 생기면 말한다. 예배 때, 혹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청중이 있기만 하면 말을 할 정도로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하다. 그가 말하는 목적은 자신의 속마음이나 자신의 수확, 체험, 인식, 깨달음을 형제자매와 나눠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길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도리를 말하는 기회를 빌미로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가 학식과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기가 머리가 좋고 지식과 학식이 있어 보통 사람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자기를 찾고 자문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은 형제자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떠올리게 하여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어떤 일도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의 말만 기다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그가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가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방식이자 방법일 뿐이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에게 탄복하고 자기를 앙망하며 심지어 두려워하고 자기의 속박과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것의 성질이 이럴 경우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 교회 생활에서 이런 부류는 제재받아야 하며,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그의 행동 역시 저지되어야지 무분별하게 발전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류를 제재해야 한다면, 그에게 발언권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라고 말한다. 공정하게 말해서 그에게 발언권을 줘도 된다. 단, 그가 또 옛 병이 도져 으스대기 시작하려 하고, 야심이 폭발하려 한다면 그가 정신 차리고 진정하도록 서둘러 막아야 한다. 만약 그가 항상 이렇게 으스대고 야심을 표출하며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느냐? 그가 말을 못 하도록 바로 제재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의 말투나 기색, 시선, 손짓을 보고 듣는 것에 반감을 품는다면 이는 이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교회에서 부각물의 역할을 맡는 것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역할은 거기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의 봉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냐? 그가 봉사를 다 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정리해야 한다. 그가 입만 열면 판에 박힌 말을 하고, 막으려야 막을 수 없으며, 사람들이 듣는 것에 질려 버린다면 그의 그런 사탄 악마의 추악한 몰골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이것이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다. 만약 그를 일찍 제명한다면 관념을 품고 속으로 인정하지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집엔 사랑이 없어요. 지켜보지도 않고 사람을 제명하다니요. 회개의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는군요. 그 사람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좀 했고, 패괴 성품을 약간 표출했으며, 조금 교만했을 뿐, 악의는 없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건 불공평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악인의 본질을 간파하는데도 네가 이런 악인이 교회에서 제멋대로 날뛰고 방해하며 교란하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이런 경우엔 그를

제명하면 그만이다. 그의 봉사가 끝났고, 이를 분별하는 사람이 많다면 네가 그를 제명해도 많은 사람이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라. "그는 교회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 제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를 이토록 동정하며 자기에게 잘해 줬던 것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나서고 있군요. 당신은 원칙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정에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가 당신에게 도움을 조금 줬다고 오매불망하면서 그의 말이면 무슨 말이든 열심히 따르고 늘 보답하려 하다니요. 그는 이제 제명되었는데 당신도 그와 함께하고 싶은가요? 원하면 제명해 드리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부류가 한결같이 글귀와 도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사람들이 극심한 괴로움에 예배에 나오기 싫어할 정도로 교란받는다면 이는 리더 일꾼이 무감각하고 미련하며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이는 사역을 못하는 것이니, 책임 방기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부류의 적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분별한다. 그가 모습을 안 드러내면 모를까, 모습을 드러내어 다양한 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여러 모습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분별하기에 충분하다면 더는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제재하고 격리해야 한다. 만약 그가 봉사하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면 바로 제명하여라. 글귀와 도리를 말하고, 외식하는 이런 부류의 적그리스도는 분별하기 쉽다. 이런 부류는 적그리스도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적그리스도가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권력을 거머쥐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부류는 분별하기 쉽다. 이 주제는 전에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어쨌든 리더 일꾼은 이런 부류를 면밀히 주시해서 그의 동향과 사상 관점 및 그의 계획과 행동, 그가 퍼뜨리는 잘못된 주장을 제때 정확하게 알아보고 파악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이 사역에서 최소한 영적으로 민감하고 마음이 섬세해야지, 무감각하거나 무디게 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예배 기간에 글귀와 도리를 말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는데도 교회 리더가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때 폭로하여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책임 방기이다. 만약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예배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글귀와 도리를 듣지 못하면 지루하다고 느껴 예배 참석을 꺼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설교를 듣는 것도 싫어하며 적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려 한다면, 적그리스도에게 이 정도까지 미혹되고 통제된 후에야 교회 리더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그제야 처리하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체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짓 리더의 무감각함과 미련함으로 인해 수많은 하나님 선민이 생명 진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해부되고 분별되며 제명될 때 일부 사람은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따라 떠날 것이며, 심지어는 "그를 제명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를 내보내면 저희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경이 되었다면 그 교회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이는 심각한 책임 방기이다.

교회 생활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성품 본질과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자세히 관찰하고 파악하여 누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지,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지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규정한 후 이 부류로 확정하고 면밀히 주시하여 그들이 퍼뜨리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거나 포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리더 일꾼이 즉시 나서서 저지해야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서야, 형제자매가 미혹되거나 형제자매에게 인식과 분별력이 생긴 후에야 적그리스도를 폭로한다면 이미 일을 그르친 것이다. 그러니 리더 일꾼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일에서 능동적으로 나서서 행동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비교적 올곧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양성해야 한다. 즉, 각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공급해서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의 각 사역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복음 사역이 확장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어떤 사역이든 좋은 인도자가 없으면 그 사역은 진전되기 어렵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을 미혹해 자기를 따르게 해서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다. 한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 및 각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마수를 뻗는 것이다. 이들 중 미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끌어들이고, 미혹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고 쓰러뜨려 결국 제명한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다. 그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몇 사람부터 쓰러뜨리면 나머지 대부분은 부화뇌동하는 자들이다.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리더 일꾼을 상대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협력과 도움을 잃는 것은 아무런 조력자 없이 고군분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너는 양지에 있고 적그리스도는 음지에 있기에 언제든 불의의 일격을 가하거나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거나 헛소문을 날조하고 중상모략하여 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쓰러뜨린다. 게다가 사람을 찾아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듯 너를 여러 번 짓밟게 할 테니, 너는 완전히 낙심하게 된다. 그러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적그리스도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를 처단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교회 생활에서 리더 일꾼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런 악인이 존재하면 교회 생활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며, 많은 사람이 항상 교란되고 영향받을 것이다. 그러니 악인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알아보며 파악하고 확정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교회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제명해야만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다. 만약 제재하지 않은 채 그들이 멋대로 날뛰고 교란하게 한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마비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의 각종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에 교란되고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 선민이 교회 생활에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만약 최근 교회 생활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는 데 모두 수확과 발전이 있고 어렵사리 얼마간 생명 진입과 진리 실제가 생겼는데, 결국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글귀와 도리에 미혹되고 교란되었다고 하자. 사람은 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순수하고 올바른 이해와 진실한 인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럴싸한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이 주입되어 곧 머리가 멍해지고,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처럼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 이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년이 지나야 미미하게나마 성장할 수 있으니 그 속도가 무척 더디다. 사람이 이 정도의 분량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미혹하고 교란하면, 그 얼마 안 되는 순수하고 올바른 이해마저 사라진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교란한 후 사람은 사탄의 철학, 음모와 계략, 그리고 사탄이 사람에게 심어 놓은 독을 머릿속에 숱하게 채워 넣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념을 품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멀리하게 하고, 사람의 패괴 성품을 악화시켜 하나님을 더 쉽게 배반하게 한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렇게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는데 글귀와 도리를 말하며 사람을 미혹하는 자를 저지하고 제재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는 교회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불신파를 제재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다. "저는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네게 이런 마음이 있고, 열심히 관찰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속셈과 동기를 살피기만 한다면 서서히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이 부류의 불신파와 악인은 모습을 드러냈다 하면 전부 속셈과 동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르고 숭배하며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네가 그들의 속셈과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분별력이 약간 생긴 것이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 일을 함께 교제해 보고, 이와 동시에 그가 깨달은 진리와 파악한 여러 사실적 증거로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제할 때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 하나님이 준 빛 비춤을 통해 그 일을 검증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적그리스도인지, 제재해야 할 부류인지 검증해 보아라. 교제를 통해 모두가 확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제재해야 할 적그리스도 부류라는 데 전원 동의하고 형제자매와 합의하여 관점이 일치되었다면, 그다음에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진리 원칙대로 이 부류를 처리하고 제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다. 원칙을 깨달았다면 실질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깨달은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도, 네 머릿속에 채우라는 것도 아니라 본분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역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네가 원칙을 깨달으면 네 책임과 직책을 더 제대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역 역시 리더 일꾼의 본연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형제자매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요구한 여러 진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리더 일꾼이 먼저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글귀와 도리를 말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틀린 말을 몇 마디 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관찰하거나 많은 사람의 보고를 받고, 또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그를 적그리스도의 부류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사태가 커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를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그를 방치하는 것은 마귀 사탄, 더러운 악령이 교회에서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둔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사탄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방해와 교란의 문제 중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교제를 마치겠다.

3.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이어서 세 번째 항목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세 번째 항목에서 교제하려는 이 몇 가지 문제는 분명 교회 생활 중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누고, 진리와 개인의 체험 간증을 교제한다. 아울러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문제를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것도 안 되나요? 두 사람이 제법 가깝고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라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주쳐서 한두 마디 나누는 것도 가정사를 떠드는 것일까요? 이런 일까지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세 번째 항목이 이런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다. 단순히 예의상 서로 안부를 묻는 것까지 제재하려 한다면 앞으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할 것이다.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이 세 번째 항목은 몇 마디 안 되지만 이 몇 마디 말이 가리키는 문제는 단순히 예의상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망치기에 충분한 악행을 뜻한다.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 이상 교제할 가치가 있다. 무엇을 교제하겠느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일, 사람의 어떤 언행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지 등을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지,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지는 않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과 자신의 관념, 생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녀가 "요즘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이방인이랑 접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방인은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잖아요. 정말 살길이 막막해요!"라고 하자 어떤 형제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든 분별할 줄 알아야죠. 진리를 구해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긴 하지만 만능도 아니던데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저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사는 게 어떻겠어요?"라고 말하다가 속이 상해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니 다른 몇몇 사람도 속상한 일을 떠올리게 됐다. 그녀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그 자리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배드리는 두 시간 내내 남편이 바람피워서 어떻게 싸웠는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옮겼는지, 이혼 후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변호사에게 어떻게 자문했는지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 늘어놓았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이야기해야 할 주제겠느냐? (아닙니다.) 만약 집안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예배드릴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게 낫다. 교회의 예배 장소는 네 사적인 울분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고, 네 가정사를 떠드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얽매이거나 속박받거나 제재받고 싶지 않다면, 진리를 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예배 시간에 자기 문제를 간단하게 교제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이 진리를 교제해 너를 돕게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굳건해지며, 그 일에 속박받지 않고,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네가 선택해야 하는 길, 네게 가장 적절한 길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교제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네가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교회 생활에까지 가져와 털어놓고 전한다면, 많은 사람이 너를 저지하고 네 말을 끊는 게 미안해서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그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이것이 사랑을 보이는 것이겠느냐? 이것이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행위가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켰다면 그 피해를 누가 받겠느냐? 하나님의 선민들이 받는다. 특히 중국 본토와 같은 환경에서는 예배 한 번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미리 약속까지 잡아야 한다. 예배 장소에 왔는데 누군가가 집안의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죄다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잘잘못을 따져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합당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지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들으려는 것도, 네가 떠드는 가정사를 들으려는 것도 아니다. "전 달리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는데 형제자매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안 되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해도 된다. 단, 때를 구분해야 한다. 예배 시간 외에 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해도 된다. 그것은 네 자유이고, 하나님 집에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네가 멋대로 가정사를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늘 형제자매들을 방해한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규율 아니겠느냐? 이는 규율이다. 규율을 모르면 안 된다. 규율을 모르면 비이성적인 짓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교란을 일으키는 언행은 제재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의 직책이자 모든 형제자매의 직책이다. 평소 예배 시간에 교제할 때는 몇 마디 하지 않다가 집안에 문제만 생겼다 하면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죄다 쏟아내 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 줄 의무가 있느냐? 네게 잘잘못을 판단해 줄 의무라도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다. 그것은 네 사적인 일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사적인 일을 예배 시간에까지 가져오지 마라. 이는 규율에 어긋나고 비이성적이다. 이런 행위는 제재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자녀의 진로 문제로 걱정하고 연줄을 찾으면서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한다. '집안에 공직자도 없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으려나?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잡도록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예배 시간이 되면 그는 이런 말을 한다. "제 아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도 믿겠다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장을 잡을지도 모르고요. 요즘 어떤 직업이 수입이 괜찮나요? 거기 자매님, 남편분께서 사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힘 좀 써 주실 수 없을까요? 제 아들은 교육도 잘

받았고 식견도 있는 데다가 자질도 저보다 낫고, 컴퓨터 기술도 훌륭해요. 나중에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직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지 않으면 취업을 못 해서 힘들어할 테니까요!" 그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겸사겸사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는 자기를 동정할 것 같은 사람이면 예배 시간에 남들에게 친한 척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등 연줄을 대려 한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이나 작은 선물을 사 주는 등 뇌물을 줄 때도 있다. 이는 연줄을 대기 위해 포석을 까는 것 아니겠느냐? 포석을 까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면 듣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을 안배하든 거들떠보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도와 내적 상태를 지적해 주어도 듣기 싫어한다. 오로지 자기 아들의 취업 문제에만 열을 올리고, 한번 입을 열면 그칠 줄 모른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한다. 요컨대 그는 이 일에 대단히 애를 쓰고 공을 들이며, 예배 때마다 형제자매들의 시간을 얼마간 빼앗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 자기의 체험을 교제할 때도 이 일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모두가 성가셔하고 역겨워할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미안한 마음에 저지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해 그를 제재하며 말해야 한다. "당신의 그 일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와주고 싶은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건 당신들 사이의 사적인 일이겠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건 형제자매의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사적인 일이에요. 형제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지도, 개인의 사적인 일을 교제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에 지장을 주지도 마세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누구와 대화하든, 누구에게 부탁하든 상관없지만 예배 시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이용해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는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모습에 속하죠. 그런 행동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이다.

예배 시간에 어떤 노부인이 섬김 가정의 젊은 자매가 예쁘장한 데다 독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다. 그녀는 예배 시간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 때마다 선심을 쓰며 그 자매를 각별히 챙겼는데, 자매가 사양하는데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인격이 비천한 사람 아니겠느냐? 모두가 형제자매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없고 자기 주제도 모르며 개인적인 욕망만 몹시 커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어떤 사리사욕이든 채우려 든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며, 그와 함께 예배드릴 때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교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겠느냐? 교회 리더가 나서서 제재하여 교회 생활과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이 밖에, 여러 감정을 지닌 채 예배에 오는 사람도 있다. 아들이 효도하지 않는다느니, 며느리가 자꾸 물건을 친정에 가져간다느니, 고부간에 불화가 있다느니 등 자질구레한 일들을 예배 때마다 늘어놓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는 전제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의 인간들은 정말 패괴되었어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 좀 보세요. 양심도, 이성도 없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이 없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니까요. 양도 젖 먹을 땐 무릎 꿇을 줄 아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우리 아들이 제 어미를 잊었나 봐요!" 예배 때마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자기 회사 이야기를 한다. 누가 업무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았다느니, 누구는 다음 달에 승진하는데 자기는 가망이 없다느니, 누가 잘 꾸미고 다니고 명품을 잘 산다느니, 누가 돈 많은 남편에게 시집갔다느니 등의 이야기 말이다. 하나님을 믿은 지 좀 오래돼서 토대가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면 반감을 느끼지만, 아직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흥미가 없는 새 신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신이 나서 한담하고 연줄을 댈 곳을 찾게 된다. 예배 시간에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떠들다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이 맞고 연줄을 맺게 되니 사적인 교제가 되어 버린다. 예배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되고 사람이 한담하고 연줄을 대며 업무적으로 왕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리더 일꾼이 제때 발견하고 저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승진을 도와주려고 예배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 주려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좀 싸게 사려고 예배에 참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가족에게 좋은 주치의를 찾아 주려고 예배에 참석한다. 많은 선물을 줄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속내가 음흉한 불신파들에게 교회 예배 시간은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한다는 기치를 들거나 사악한 세상과 패괴된 인류의 본질을 인식했다는 기치를 들고, 곧바로 자기의 고충과 하려던 이야기를 꺼내 놓으며, 마지막에는 숨겨 놓았던 속내, 처리하려는 사적인 일을 조금씩 내보인다. 그는 자기 속셈을 내보이는 한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어려움에 직면했으니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무상으로 조건 없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 아래 여러 기회를 엿보면서 예배 장소에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나 자기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물색한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직원가로 사고 싶어서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거나 업계 사장과 친분이 있는 형제자매를 물색한다. 또 타깃을 정하고 나면 바로 행동에 나서서 그 사람에게 친한 척 다가가고 연줄을 댄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좋아하면 자주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는 그와 바짝 붙어 앉는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에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공략한다. 이 모든 일은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다. 이 문제들이 예배 장소나 예배 시간에 일어나면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고 지장을 주게 된다. 만약 오랫동안 교회 생활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회단체나 사람들의 거래 장소, 연줄을 대고 뒷거래하며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이다. 이 장소의 성질이 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최소한 교회 생활이 사라진다. 즉,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성령 역사로 진리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도 사라져 사람의 생명 진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하나님 선민들의 이익과 생명 진입을 고려하고, 또 모든 사람의 생명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런 부류를 반드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다. 물론 평범한 형제자매가 이런 사람과 이런 일을 간파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서서 거부하고 이들에게 '아니오'를 외쳐야 한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예배 시간을 빼앗으면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처리한다면, 형제자매에게는 이를 상대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더욱이 저지하고 거부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미라는 것이 정상 인성이냐? 인간미가 진리에 부합하느냐? 인간미가 있다고 예배 시간을 빼앗으면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너와 시간을 보내고 너를 지지하게 하며 네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여 그 소중한 시간을 잃게 한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공평하겠느냐? 인간미에 부합하겠느냐? 이는 가장 인성 없고 부도덕한 행동이니 사람들이 일어나 질책해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무능한 폐물이라서 이런 행동을 제때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감이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연대하여 이런 행위와 분위기가 교회에 퍼지지 않게 제재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고 싶지 않다면, 네 생명 진입에 교란과 차질이 생겨 구원받을 기회가 끊어지는 것이 싫다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거부하고 저지하며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며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미안해서 이렇게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미안할지 몰라도 악한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뻔뻔스럽게 네 소중한 예배 시간을 빼앗고 성령 역사의 시간을 빼앗으며,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는 시간을 빼앗는다. 그를 거부하는 것이 미안하다면 네 생명은 해를 입어도 싸다! 너는 사탄 마귀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신파에게 사랑을 베풀어 도움을 제공하는 등 이렇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원칙을 무시한다면 네 생명에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누굴 탓하겠느냐? 그러니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만약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예배 시간에 가정사를 떠들고 한담하며 사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혹은 일자리나 이성 친구를 소개해 주는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일단 저지하여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격리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그가 뒤에서 교란하고 시시덕거리며 여기저기서 형제자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지럽힌다면 그를 제명해서 형제자매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는 교회 생활을 할 자격도, 예배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 이런 부류는 제재받고 버림받아야 한다. 이 사역 또한 당연히 각급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중요 사역이다. 이런 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리더 일꾼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를 저지해야 한다. 어떻게 저지해야겠느냐?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그런 행동이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형제자매의 반감을 사고 혐오받는 행동이자 하나님께 정죄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그만둬야 해요. 만약 당신이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당신의 교회 생활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말씀 서적을 수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교회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분량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저 가끔 가정사를 떠들거나 연줄을 대고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어떤 교란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끼리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교제하려는 게 무엇이냐? 그의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켰다면 저지하고 제재해야지, 그가 계속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이롭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게 행동하지만,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저 형제자매끼리 정상적으로 왕래하며 정상적으로 서로 돕고 정보를 문의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상식을 물어볼 뿐이다. 예배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면,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원하며 강제가 아닌 정상적인 인성 범위 안에서의 왕래라면 모두 괜찮다. 교회는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 즉 누군가가 함부로 발언하고 행동해서 교회 생활 중 형제자매에게 소란이나 교란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그리하여 이에 반감을 갖고 건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리더 일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혹여 그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지는 않고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댄다고, 또 예배 장소를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장소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일 처리를 맡기며 이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자는 인격이 비천하고 이기적이며 비열하고 옹졸하며, 또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고 여기저기서 잇속만 차리며 자기 이익을 도모할 기회만 찾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격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있는 형제자매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 만약 일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늘 뒤에서 그 사람은 사랑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를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마땅히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리더 일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교란되지 않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상대가 그를 위해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게 잘못이냐? 그의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을 처리해 줄지 말지는 그 사람의 자유이며, 그 사람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집에서도 형제자매의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도와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적이 없다.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은 개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생명 성장을 이루는 예배 장소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하나님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갖추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활 문제는 형제자매들을 찾아가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교회 생활에까지 가져와 해결할 필요는 없다. 만약 사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하나님 선민들의 교회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리더 일꾼이 이런 일을 발견했다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악인을 제재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세 번째 항목 중 정상적인 상황에 속하는 경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성질이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것에는 어떤 유형, 어떤 모습이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확실히 구분한 후 그 성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는 리더 일꾼이 이해해야 할 내용이자 모든 사람이 파악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4. 편을 가른다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네 번째 모습은 편 가르기이다. 편 가르기라는 이 항목의 성질은 무척 심각하다. 그럼 어떤 모습들이 편 가르기겠느냐? 만약 하나님을 믿은 기간과 나이, 가정 형편이 비슷하고 취향,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잘 맞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죽이 잘 맞고 예배 시간에 늘 같이 앉을 정도로 친하다면 편 가르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편을 가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편 가르기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예를 들어, 다섯 명의 형제자매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중 세 사람은 도시 직장인이고 두 사람은 지방 농민이라고 해 보자. 직장인 셋은 늘 함께 있으면서 도시 사람은 생활 여건이 좋은데 지방 사람은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교육 수준이나 식견도 떨어지며 규율을 모른다며 지방 사람을 무시한다. 입만 열면 두 지방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이다. 그럼 그 둘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늘 반격하려 한다. 도시 사람은 좀스럽고 쩨쩨하지만 농촌 사람은 대인배라고 말이다. 예배 시간이면 언제나 말이 안 통하고 불필요한 다툼과 논쟁만 벌어진다. 이 다섯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겠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겠느냐? 그들이 서로 화합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은 늘 '우리 도시 사람'이라고 하고 농촌 사람은 늘 '우리 지방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항목에서 교제하려는 편 가르기이며, 이런 편 가르기가 바로 파벌이 되는 것이다. 지연이나 경제적 여건, 사회적 계층 관계, 그리고 사람의 상이한 관점 때문에 형성되는 여러 무리나 파벌 등은 모두 편 가르기이다. 편을 가르는 우두머리가 누구든, 교회에 다른 유형의 무리나 파벌이 생기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무리가 형성되는 것은 모두 편 가르기 현상이다. 어떤 지역의 한 대가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다 보니 예배 장소에서 성이 다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가족이다. 이 가족이 하나의 파벌이나 무리를 형성하면 성이 다른 두 사람은 파벌의 외부인이 된다. 이 가족 중 누군가 어떤 일을 겪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든 한 사람이 원망의 말을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맞장구쳐 준다. 누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감싸 주고 비호해 주며 아무도 폭로하지 못하게 한다. 말로 살짝 언급하는 것조차 안 되고, 책망과 훈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무슨 문제겠느냐?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늘 한목소리를 내고 같은 입장을 취하며, 말할 때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살핀다. 가령 그들 우두머리의 의중이 동쪽을 향하면 모두가 동쪽을 향해 말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건드릴 엄두를 못 내고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이런 현상이 교회 생활에 나타나면 정상적인 교회 질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따라야 하며, 교회 리더조차 반대하지 못하고 그의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한다. 또 그들이 리더 일꾼으로 아무개를 뽑겠다고 하면 교회 리더는 이를 넘겨듣지 말고 가장 중요한 참고 의견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계속해서 '인재'를 영입한다. 자기들 말에 따를 것 같은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은 모두 그들 파벌로 끌어들여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끊임없이 확장한다. 이 무리와 집단은 교회 생활을 통제하려 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교회를 통제하려 한다. 이 무리의 세력은 작지 않아서 교회에서 하나로 뭉쳐 행동하려 한다. 교회에서 생기는 무슨 일이든 참견하려 한다.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관여하려면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심지어는 예배 때 먹고 마실 내용조차 매번 그들의 안배와 뜻에 따라야 한다. 설사 교회 리더일지라도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 봐야 한다. 많은 형제자매가 그들에게 통제되고, 교회 사역과 관련된 많은 일 역시 그들에게 통제된다. 편 가르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에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냐? 이런 일은 제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편 가르기를 하는 이런 우두머리는 제재하고 제명하고 출교해야 하며, 부화뇌동하는 얼간이들은 우선 교제하고 도와주되,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봐주지 말고 제재해야 한다.

무엇이 편 가르기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으냐? 만약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 사람이 지지한다면 이것을 편 가르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부담과 정의감을 가진 형제자매가 중요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형제자매에게 호소한다면, 혹은 예배 때 중요한 주제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를 이끌고 교제한 후 모두가 그의 사고방식대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이것을 편 가르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편 가르기를 즐겨 하느냐? 어떤 성질의 행위가 편 가르기에 속하느냐? (몇 사람이 서로 비호하고 눈감아 주며,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 편 가르기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서로 비호하고 눈감아 주며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고 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실상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가 되더라도 사람의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 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대가로 악을 행하고 방해하고 교란한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편 가르기이다. 이 밖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집의 안배에 함께 대항하도록 선동하고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성질은 심각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에도 방해와 교란이 된다. 편 가르기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또 한 유형의 편 가르기는 남의 기분에 맞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여러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무리에 속한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발언하고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한 사람이 하는 말의 의중을 따른다.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의 풍향계인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겠느냐?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끌어들이기 쉬운 사람들이 보이면 작은 선심을 쓰고 사랑을 베풀어 도와준 다음 그를 샅샅이 파악한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성격과 취향은 어떤지 알아보고, 그가 말할 때 수시로 기분을 맞춰 줘 환심을 산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사람을 조금씩 '감화'시켜 부지중에 그들 무리 속으로 들어와 일원이 되게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분을 맞춰 주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포섭하는 방식은 부드럽고 인간미가 있으며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 주며, 다른 사람을 양해하고 이해해 줘서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갖고 자기에게 접근하도록 한 후, 자신의 권력 아래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무리나 파벌이 어떤 상황에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들 패거리 중에 폭로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개인의 이익이나 지위, 명예가 외부의 훼손과 교란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순간, 이 부류가 나서서 자기 파벌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 주고 이익과 권리를 쟁취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편 가르기이다. 명확한 편 가르기는 비호하고 눈감아 주는 것과 공동으로 대항하는 것 두 가지이지만, 기분에 맞춰 좋은 말을 해 주는 것 같은 편 가르기는 겉으로 보기에 앞의 두 가지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평소에는 분간할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런 파벌은 확실하게 구별된다. 예를 들어, 파벌의 우두머리가 이 교회 리더는 자질을 갖췄다고 하면 아랫사람들은 바로 그 리더의 자질 있는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는다. 반면 파벌의 우두머리가 이 교회 리더는 사역 능력이 없고 자질도 부족하며 인성도 안 좋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의중에 따라 교회 리더가 얼마나 무능한지, 진리를 얼마나 교제할 줄 모르는지, 글귀와 도리를 얼마나 말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다들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눈에 띄지 않는 무리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서서 권력을 잡고 사람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이런 파벌과 무리 속 보이지 않는 힘이 교회 생활과 교회의 질서를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더더욱 끔찍한, 숨겨진 편 가르기 상태이다. 교회 리더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별하기 쉬운 앞의 두 유형의 편 가르기 외에도 이런 숨겨진 편 가르기가 있다. 교회 리더는 이런 문제를 더더욱 해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겠느냐?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붙잡고 교제해야 한다. 어째서 우두머리부터 붙잡고 교제해야겠느냐? 겉으로는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기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니 그들이 숭배하는, 그들을 통제하는 그 사람에게 처분을 내려 해결하는 한편,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그런 행동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한다. 비록 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집에 대항하거나 리더에게 대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발언권과 생각, 관점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숨은 적그리스도이다. 이런 부류는 반드시 적발하여 분별하고 해부해야 한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재하고 격리한 후, 그 구성원들을 한 명씩 조사해서 그와 같은 부류가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먼저 그들부터 구분한 다음 겁 많고 무능하며 미혹된 바보들에게 교제해 주어라. 만약 그들이 회개하여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교회에 머물게 해도 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격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결해야 합니다.) 왜 해결해야겠느냐? 하나님 집이 복음을 확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 생활에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없는 곳이 없다. 수많은 하나님 선민이 정도는 달라도 적그리스도 세력에 영향받고 속박받거나 통제받고 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이미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사상 관점에 좌우되고 영향받고 통제되고 얽매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뒷감당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니 말이다. 이는 교회 생활에 지장을 주고 교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모습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 정상적인 질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 통제되는 것이다. 악인이 교회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은 곳, 진리가 권세를 잡은 곳이 아니게 된다. 또한, 진리를 깨달은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는 억압받을 것이다. 이런 교회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통제당하는 교회에 속한다. 이 역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하나의 문제이자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리더 일꾼이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적그리스도 무리에 속한 일부 사람은 무리의 신뢰를 잃지는 않을까, 비빌 언덕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친구를 잃어서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등을 걱정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적그리스도 무리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 않으냐?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고 분별하겠느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통제되어 늘 그의 사상 관점을 따르고 그의 말과 행동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역하지도 못하며, 심지어 그가 말할 때는 미운털이 박힐까 봐 입에 발린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치며 미소로 화답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더냐?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교회 리더는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우두머리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선 진리를 교제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분별하게 한 다음 그 사람을 제재해야 한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즉시 제명하여라.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면 형제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교제하고, 개인의 깨달음과 인식, 체험을 교제하며, 자신의 고충을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리더 일꾼이 원칙을 위배한 것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질책하고 폭로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를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이다. 이 다양한 측면이 다 정상적이어야지, 누군가에게 통제되어 하나님의 선민이 속박받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다. 하나님 집은 형제자매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의 측면마다 요구와 규정, 그리고 원칙이 있다. 누군가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형제자매가 어떻게 행동하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군가의 지시를 따를 필요도, 누군가에게 속박받을 필요도 없다. 그 누구도 풍향계나 키잡이가 아니다. 사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하는 원칙이다. 만약 누가 탐탁지 않은 눈치이거나 불쾌한 안색을 내비치면 선뜻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개인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할 때 늘 제한을 받는 등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속박받으며 눈치를 살피느라 자유롭지 못하고, 진리 원칙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특정인의 말, 안색, 표정, 어조,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에 수시로 얽매인다면, 너는 그 사람을 위시로 한 무리에 통제되고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된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은 파벌 생활이다. 이런 문제는 리더 일꾼이 나서서 해결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자매에게도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 특히 편을 가르고 교회를 통제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저지하고 폭로하고 해부해서 모든 사람이 분별하게 하고 독립 왕국을 세우려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간파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편을 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신분과 지위 혹은 지역 사회, 지역 범위, 교파로 파벌을 나누거나 교육 수준, 경제력, 피부색, 인종 등으로 파벌을 나누는 것은 모두 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어떤 구실로 나누었든 계층과 계급, 파벌과 무리는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에 방해와 교란을 불러오며, 이는 리더 일꾼이 제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어떤 이유로 편을 나누고 파를 나누고 패를 나누었든, 특정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에 교란을 일으켰다면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격리하고 제명해도 된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리더 일꾼이 해야 할 본연의 사역이자 다해야 할 책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 리더와 교회 사역, 하나님 말씀에 맞서 대립하는 한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면, 이런 행위나 모습, 일을 제재하고 제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 가르기는 사람 수로 구분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대화가 제법 잘 통해도 교회에 아무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교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를 통제하려 한다면 이들을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명하고 출교시켜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2021 년 5 월 22 일

리더 일꾼의 직책(14)

리더 일꾼의 직책에 관해 교제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넉 달 반 동안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교제했으니 이제 리더 일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느 정도 분명해졌겠구나.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토록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지적 장애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 어떠하냐? 리더 일꾼 역할을 잘 하는 게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추어야겠느냐? (리더 일꾼이 될 자질과 인성을 갖추어야 하고, 진리 실제와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양심과 이성, 충성심을 가져야 하며, 그다음은 자질과 사역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갖춘다면 리더 일꾼 역할을 잘 해내고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2)

지난 예배 시간에 교제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항목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 주로 교제하였다. 교회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리더 일꾼이 저지하고 제재하는 한편, 그 사역을 잘 해내려면 먼저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과 일, 사물이 무엇인지 알고 파악한 다음, 실제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에서 이런 사람과 일, 사물에 비춰 보아야 한다. 그 후 저지하고 제재하는 등 각 측면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리더 일꾼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교회 생활부터 시작하여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에 관해 교제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 사물을 분류하였다. 총 몇 가지로 분류하였느냐? (모두 열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세 번째,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네 번째, 편을 가른다. 다섯 번째, 지위를 다툰다. 여섯 번째, 이간질을 한다. 일곱 번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힌다. 여덟 번째, 관념을 퍼뜨린다. 아홉 번째,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열 번째,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열한 번째,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간질을 한다'이다. 이간질을 하는 것은 성질상 방해와 교란에 해당하지만, 다른 몇 가지 악행에 비하면 경미한 문제이다. 이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로 바꾸면 그 성질이 이간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진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인데 이를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로 바꾸면 원래보다 성질이 더 심각해지며, 더 구체적이고 적절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방해나 교란과 관련된 사람, 일, 사물의 일종이다. 이 두 항목을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적절해지고, 교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좀 더 근접해진다. 열한 번째는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이다. 이를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한다'로 바꾸면 말만 바뀔 뿐 성질은 같다. 다만 정도가 심해져서 방해와 교란의 성질에 더욱 가까워진다.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5. 지위를 다툰다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 '편을 가른다'까지 교제하였다. 이번에는 이어서 다섯 번째, '지위를 다툰다'에 관해 교제하겠다. 지위를 다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내적 상태, 어떤 행위와 모습이 지위 다툼에 해당하느냐? 그중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에 속하느냐? 우리가 어떤 조항, 어떤 항목을 교제하든 모두 제 12 조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방해하고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 성질에 관련된 것이라야 교제하고 해부할 가치가 있다. 지위 다툼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집 사역에 대한 방해와 교란이란 성질과 관련이 있느냐? 가장 흔한 것은 교회 리더와 지위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주로 리더의 약점이나 실수를 잡아 그를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의도적으로 교회 리더의 패괴 표출이나 인성, 자질 면에서의 결함이나 단점, 특히 사역과 인사 측면에서 리더의 편차와 잘못을 폭로하는 식이다. 이는 교회 리더와의 지위 다툼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 밖에 교회 리더가 사역을 어떻게 하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든 그러지 않든, 인성에 문제가 있든 없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는 불복하기만 한다. 어째서 불복하겠느냐? 그 역시 교회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심과 욕망이 있기에 불복하는 것이다. 교회 리더가 사역을 어떻게 하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든 무조건 트집을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사소한 일에 유난을 떨고, 사실을 왜곡하며 끝없이 확대 해석한다. 그는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님 집 요구 기준에 따라 이 리더가 하는 일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 리더가 옳은 사람인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양심과 이성을 갖췄는지 등을 가늠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원칙으로 가늠하지 않고 자신의 속셈과 목적에 따라 무작정 결점을 들추고 트집을 잡으며 리더 일꾼의 약점을 찾으려 든다. 뒤에서 리더 일꾼이 한 어떤 일이 진리에 맞지 않는다고 퍼뜨리거나 리더 일꾼의 단점을 까발린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 리더는 예전에 잘못을 저질러 상부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들 몰랐죠? 얼마나 잘 위장했는지 보세요!" 그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에서 양성하는 인물이든 아니든,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든 아니든, 그는 그런 걸 보지도, 상관하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뒤에서 판단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수작을 부려 댄다. 그는 무얼 위해 이런 수법들을 쓰느냐? 지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그는 교회 사역을 위해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리더 일꾼을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리더 일꾼을 가늠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자신의 속셈과 목적에 따라 그러는 것이다. 그는 리더 일꾼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반박한 다음 자신의 '고견'을 낸다. 리더 일꾼이 하는 말이 아무리 진리에 부합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반박하며 다른 의견까지 낸다. 특히 리더 일꾼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털어놓으며 스스로에 대해 인식할 때면, 그는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한층 더 뿌듯해한다. 무슨 기회를 잡은 것이냐? 리더 일꾼을 깎아내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 리더 일꾼의 자질이 부족하고, 그 역시 연약할 수 있고 패괴된 자이며, 일을 할 때 자주 잘못을 저지르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게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약점을 잡을 기회이자, 모든 사람을 선동해 리더 일꾼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기회인 것이다. 이 모든 행위와 행동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닌 바로 지위를 다투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집의 선거 원칙과 사람을 양성하고 쓰는 원칙대로 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이런 부류가 리더 일꾼으로 뽑힐 수 없다. 이 점을 그도 간파하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더 일꾼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누가 리더 일꾼이 되든 그는 인정하지 않고 트집을 잡거나 이러쿵저러쿵 불평한다. 설령 리더 일꾼의 일 처리나 말에 문제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찾으려고만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문제들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순전히 하찮은 일이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사소한 일에 집착하겠느냐?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가지고 리더 일꾼을 판단하고 정죄하겠느냐? 그의 목적은 오로지 권력과 지위를 다투는 것뿐이다.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의 각종 모습에 관해 교제해도 그는 자기와 대조해 보지 않고 오로지 각급 리더 일꾼에게만 대조해 본다. 대조가 된 후에는 '이번에야말로 증거가 생겼어. 드디어 약점을 잡았으니 좋은 기회가 생긴 거지.'라고 생각하며 더욱 거리낌 없이 리더 일꾼이 한 모든 일을 폭로하고 판단하며 평가하고 정죄한다. 그가 말한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칙대로 판단해 보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는 왜 지적하려 하겠느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리더 일꾼을 폭로하기 위해서이다. 그의 목적은 리더 일꾼을 정죄해서 무너뜨리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공격받아 소극적으로 변해서 항복하고 자기에게 머리 숙여 굴복한다면 형제자매들은 그 리더가 늘 소극적이고 연약하게 굴며 일 처리에도 실수가 잦은 것을 보고는 앞으로 그를 리더로 뽑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리더가 진리를 교제할 때도 그다지 열심히 듣지 않을 것이고, 리더가 사역을 시행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협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지위를 다투는 사람은 기뻐하며 틈탈 기회를 얻는다. 이것이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자 일어나기를 바라 마지않는 일이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다. 리더 일꾼을 무너뜨려서 모두가 그보다 적합한 리더 감은 없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의 목적이 달성되며, 그때부터 그는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리더로 추대해 주기를 기다린다. 이런 부류가 교회에 있지 않더냐? 이 부류의 성품이 어떠냐? 이 부류의 성품은 흉악하다.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권력만 잡으려 한다. 그럼 진리를 조금 깨닫고, 분별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가 권력을 잡길 바라겠느냐? 이런 자의 권력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

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많은 사람이 이 부류의 본성 본질을 간파했다면 그래도 그를 리더로 뽑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만난 지 얼마 안 돼 서로 낯선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 얼간이이고 어떤 사람이 흉악하고 간사한 성품의 악인인지, 어떤 사람이 지위를 다투길 좋아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지, 어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충성스럽게 본분을 이행하는지 등을 확실히 알게 되고, 각 부류 사람의 본성 본질과 유형을 모두 파악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원칙에 맞게 리더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가 늘 지위를 다투는 사람을 리더로 뽑고 싶겠느냐, 아니면 자질과 사역 능력은 상대적으로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고 싶겠느냐? 이 두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대부분 누구를 리더로 뽑고 싶어 하겠느냐? (행동이 착실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것이다. 늘 지위를 다투는 이 부류의 모습은 그 인성과 본질을 입증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밝히 알고 분별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교회 리더를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어요. 교회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어요. 상대를 대신해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리더가 선발된 후로 그는 늘 리더를 겨냥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사건건 리더에게 반박합니다. 리더가 무슨 일을 하든 흠과 꼬투리를 잡고 뒤에서 판단하며 결점을 들추죠. 특히 예배 시간이나 사역 교제 때 리더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기라도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답답하다는 티를 내면서 리더를 무시하고 비꼬고 빈정대고 비웃어서 사람을 난감하고 난처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리더 자리를 다투는 것에 득이 되겠느냐? 분명 득 될 게 없다. 지위를 다투는 이 부류가 똑똑하냐, 아니면 어리석으냐? 바보, 멍청이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 부류가 마귀이며,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며 심지어 이성을 잃기까지 한다. 이는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부분이 아니며 정상 인성의 이성과 양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는 더더욱 생각할 리 없다. 이것이 지위를 다투는 부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자 행동이다. 이런 부류는 예배 때나 사역 교제 때마다 모두가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똥파리처럼 교란하고, 교회 생활을 파괴하고, 진리를 교제하는 정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런 행위와 행동은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이 된다. 이런 부류는 제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심각할 경우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악인을 제재하는 게 역부족일 때가 있다. 형제자매가 악인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악인의 본질을 확실하게 분별한 뒤 교회 리더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이 부류의 악인을 함께 저지하고 제재한다면 그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인을 제재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지, 저희 평신도랑은 관련 없으니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악인은 교회 리더와 지위를 다투고, 지위를 가진 사람과 다투잖아요. 저희에겐 지위가 없고 그도

저희랑 다투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희한테는 영향이 없으니 그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죠. 교회 리더가 능력이 있으면 그를 제재할 거고,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말한다면, 이 관점이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으냐?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좀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뜻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교회 생활과 연관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된다. 즉 성령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가 있는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교제하며 개인의 체험을 나누는 동시에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 빛 비춤을 얻는 것은 하나님 선민이 교회 생활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다. 만약 이런 정상적인 질서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다면 그들을 원칙대로 저지하고 제재해야지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리더 일꾼만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분별력이 있는 모든 사람의 책임과 의무이다. 물론 교회 리더가 앞장서서 이 사역을 하고, 이 부류가 하는 일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형제자매들은 이런 부류를 어떻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지에 관해 다 같이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류의 악인이 제재받지 않아 형제자매가 모두 그에게 교란당하고 미혹되고 현혹되어 교회 리더를 고립시킨다면, 그 교회는 마비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만약 유지되지 못한다면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늘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수확이 있겠느냐? 수확이 없다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느냐, 아니면 증오하겠느냐? 당연히 증오한다. 예배에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런 예배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사회단체 모임인 것이다. 질서가 없는 교회 생활을 모두가 좋아하겠느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는 동안 네가 모든 예배 시간에 생명 진입에서 수확을 얻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네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너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이니 이는 네 생명 진입에 손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악인이 교회 리더와 지위를 다투느라 논쟁하고 변론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전체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 사탄의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찬다면, 사람들이 서로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등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진리를 구하지 않고, 아무도 원칙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끝난 후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이 커지겠느냐, 아니면 작아지겠느냐? 너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많은 수확이 생기겠느냐, 아니면 논쟁 탓에 마음이 교란당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느냐? 때때로 너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뭘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사탄과 악마의 교란 한 번으로 사람의 마음이 교란당하고 흐려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며, 마음이 흐트러진다. 만약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특히 민감하고 예민하여 무감각하거나 미련하게 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악인이 교회 생활에서 지위를 다투기 위해 말하고 일을 벌일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의식할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성품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해서 이런 악인이 교회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교란하고 속박하지 못하게 신속히 저지하고 제재하며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악인이 지위를 다투는 일에 직면하면 너희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행위를 저지합니다.) 저지만 하느냐? 어떻게 저지하느냐? 그가 말을 못 하게 하거나 혹은 "당신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말을 적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가 네 말을 듣겠느냐?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의 속셈과 동기, 본성 본질을 낱낱이 폭로하고 해부하여 형제자매들이 그 부류와 그 행동의 성질에 대해 분별력과 경각심을 갖게 해야지, 무골호인이 되어 가만히 있다가 교회 리더 일꾼이 악인을 폭로하고 나서야 "앞으로 그를 예배에 못 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골호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악인에게 미움을 사서 나중에 껄끄러워지지 않으려고 부딪히려 하지 않거나 차라리 외면하고 회피하려 하지 않더냐? 무골호인의 처세 원칙을 신봉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다. 만약 교회 사람의 80 퍼센트가 모두 무골호인이어서 악인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위와 우위, 리더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이를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대부분 '쓸데없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야. 건드리지 못한다고 피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피해서 가면 그만 아니겠어? 그가 알아서 다투든 말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텐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교회 생활에 성과가 있겠느냐? 사람은 대부분 타성과 의존성이 있어서 교회 리더만 뽑고 손을 놓으며, 무슨 일이든 교회 리더가 나설 때까지 보고만 있는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 서적을 배포했는지, 교회 생활에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사람은 없는지, 늘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하며 리더와 지위를 놓고 다투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일이라면 교회 리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상관할 일도 아니고요. 때가 되면 교회 리더가 처리하겠죠." 그는 뭐든 신경 쓰지 않고 묻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없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일, 사물 등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전혀 모르고 상관하지도 않는다. 또 교회에 나타난 이 악인들이 지위를 다툴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 생활에 어떤 교란을 일으키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일절 관심을 두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며 알아보지도 않는다. 결국 일이 마무리된 뒤에 분별력이 조금 생겼는지,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지, 악인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 리더에게 물어보시죠. 교회 리더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라고만 한다. 이는 노예 아니냐? 이런 사람은 나약하고 무능하며 구질구질하게 사는 노예이다. 악인이 지위를 다투는 일에 직면했을 때 이를 분별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교회 리더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대다수 리더가 보통 사람들보다 진리를 더 깨닫고 있기에,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류가 하는 행동의 목적과 본질을 분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대다수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의 정의감이 있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이 부류의 악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격리나 제명 조치를 취해야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도 교제만 듣고 식견만 키우며 속으로 알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은 교회 리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며 교회 생활을 잘 영위하고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교회 리더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에서 언급한, 지위를 다투는 부류는 교회 생활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들의 가장 눈에 띄는 모습 중 하나는 교회 리더들과 지위를 다투는 것이고, 그다음은 형제자매 중 자질이 좋고 진리를 비교적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 진리 원칙을 아는 사람과 지위를 다투며 항상 이들을 도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 생활에서 늘 순수하고 올바른 인식과 빛 비춤을 교제하며 가치 있고 실제적인 인식이 있는 개인적 체험을 나누니 형제자매들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된다.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교제를 듣고 나면 길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체험해야 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에 깊이 감사하게 되며, 진리를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체험이 있는 사람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고 탄복하게 되기에 이들을 우러러보며 가까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긍정적인 사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위를 다투는 사람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다. 그는 실제 체험을 교제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함과 질투심에 몹시 곤란해하고, 곤란한 나머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인다. 또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실제 체험이 있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망신을 당해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단점과 결점을 보고 다시는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고 멀리하게 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니 이렇게 지위를 다투는 사람은 분명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은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 항상 진리를 교제하여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공급과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한다. 또 그들은 늘 긍정적인 인물의 꼬투리를 잡고 단점을 들추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자주 진리를 교제하고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위를 다투는 이 부류는 교회에 잠입해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한 자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성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과오를 가슴 깊이 뉘우치고 형제자매에게 솔직하게 교제했다. 솔직하게 교제하는 목적과 원칙이 무엇이냐? 형제자매 간 서로 이해하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다수 형제자매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신의 패괴 표출과 이전의 과오를 솔직하게 교제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찬미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교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자매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솔직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성 관계나 다른 측면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장하고 위장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만의 비밀이라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며, 발설한다면 자신의 명성과 체면,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니 지난날

저질렀던 잘못과 걸어왔던 잘못된 길을 이젠 솔직하게 교제하여 끄집어내 해부해야 한다고, 그것은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이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는 것이 과거의 정리가 되었든, 아니면 과거와의 작별이 되었든, 어쨌든 일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실행에 대한 그의 태도, 즉 그가 진리를 실행하기를 원하고 그가 진리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개인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다르지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며 죄악은 더더욱 아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의 꼬투리를 잡아서는 안 되고, 더욱이 누군가가 그를 공격할 증거가 되어서도 안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일을 올바로 대할 수 있다. 즉, 이 일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는 순수하고 올바르며 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은 속내가 불순해서 기어이 다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 비웃고, 조롱하며 판단하려 한다. 이런 악행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패괴와 자기가 걸었던 잘못된 길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땐 자기도 모르게 실제적인 인식과 깨달음이 생긴다. 이런 실제적인 인식과 깨달음은 그들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혹은 생활 속 다방면의 일에서 실행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에 관해 진실한 체험적 인식을 갖게 해 준다. 이런 진실한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며, 형제자매 역시 이런 사람에게 선망과 탄복의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실제 체험은 정말 훌륭해요. 듣고 나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그런 실행을 보니 옳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제 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제 짐도 내려놓고 당신처럼 단순하게 진리를 실행해서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얻고 싶어요.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형제자매 가운데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대하는 관계이다. 형제자매 간에 이런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교회 생활이 정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체험이 있는 사람이나 진리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을 선망하고 탄복하는 사람을 나서서 공격하고, 깎아내리며, 배척하는 악인과 불순한 의도를 품은 사람이 항상 있다. 그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느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척 가장하고 거짓 체험을 꾸며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도록 미혹한다. 이는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사탄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각 교회에서 때때로 일어나니 사람이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형제자매가 진리 실제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여 많은 사람의 동조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보복당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소행인지, 어째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늘 공격받고 배척당하는지,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 여기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리더 일꾼의 흠을 들추는 부류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또 비교적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을 비웃고 빈정대며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물 또한 면밀히 주목하고 주시해서 그가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할지 살펴야 한다. 교회 생활에서 까닭 없이 교회 리더의 허물을 들추거나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이런 부류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금 실제 체험이 있는 간증을 들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거나 방금 약간의 빛 비춤과 인식을 얻었지만 사람을 미혹하는 악인의 몇 마디 말에 교란당해 생각이 혼란스러워 전부 사라질 때가 있다. 그리고 방금 믿음이 조금 생겼지만 악인에게 교란당해 원상태로 돌아갈 때가 있고, 방금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조금 갈망하거나 방금 진리를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약간 생겼지만 악인에게 교란당해 마음이 흐트러지고 힘이 빠져 바람 잘 날 없는 이곳을 당장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 심각한 결과가 아니냐?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논쟁하는 사람이 교회에 항상 있는데, 그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고 우열을 가리려 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교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보면 그들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위를 다투는 또 하나의 모습은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형제자매가 다 함께 하나의 문제에 관해 교제할 때가 있는데 교제하는 이야기마다 빛 비춤이 있어서 교제할수록 진리 원칙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고 곧바로 실행의 길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고견'이나 제안을 들이밀어 교제의 주제를 끊어 버리고 다른 주제를 결부시키면 본래의 주제에 대한 교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다. 겉으로 보면 그는 교란하지도 않고 더욱이 남들이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제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주제를 교제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순간에 그가 새로운 문제를 끼워 넣어 교제하고 토론해서 결과적으로 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것이다. 이는 중도에 끊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도 차질을 빚는다.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겠느냐? 이것을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지나친 말이겠느냐? 내가 보기에 전혀 지나치지 않다.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교란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갑자기 끼어들어 도중에 끊어 버린다면 이는 이성적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순전히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교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행이다. 이는 오직 적그리스도나 악인만이 할 수 있는 짓이고, 진리를 증오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이런 부류는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든 늘 '고견'을 들려주려 하고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어 그들의 주목을 받으려고만 한다. 모두가 아무리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관해 교제해도 그는 끼어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는 혼자 큰소리치면서 튀려고 한다. 이것이 무슨 수작이겠느냐? 지위를 다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더 깨닫거나 더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말을 들으며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위를 다투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 구체적인 실행의 구상과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의 세부 절차에 관해 교제해 보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는 큰소리치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주장을 내세우길 좋아하며 새롭고 뛰어난 것을 추구한다. 무슨 일이 생기든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들면 그는 영감을 얻은 것처럼 심사숙고해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고 동조하라고 한다. 결국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길을 말해 보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 한다. 그는 그다지 대단한 능력도 없으면서 한 수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남에게 뒤처지려 하지 않으며 평범하게 따르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에게 무시당할까 봐 늘 걱정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늘 큰소리만 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째서 늘 큰소리만 치겠느냐? 그는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숙고하거나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니 실행해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단정 짓는다. 그가 그 생각을 다짜고짜 제시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 당연히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는 듣고 나서 답도 못 하면서 자기 의견이 옳다고,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것이 무슨 성품이냐? 그가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자기 관점을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교회 사역에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교회 사역을 교란시키겠느냐? 하나님 선민에게는 득이 되겠느냐, 아니면 해가 되겠느냐? 그가 무책임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는 남들이 자기에게 고견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자질이 있고 똑똑하다는 것,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라볼까 걱정되어 자신의 위신을 세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다짜고짜 이런 제안을 하니 남들은 그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진짜 뭐라도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그가 얼간이란 게 들통난다. 진정한 재능이나 학식도 없으면서 결정권을 잡으려 하니 이것이 지위를 다투는 것이다. 진정한 능력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큰소리만 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행 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일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느냐? 분명 일을 그르칠 것이다. 그는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면서 왜 늘 지위를 다투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빠진 얼간이다. 고상하게 말하면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방인 중에 이런 부류가 너무나도 많다. 죄다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부류는 그래도 조금은 분별한다. 만약 누군가 큰소리만 치고, 기발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류는 경계하여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정말 고견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큰소리만 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과연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교제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행 가능하다고, 실행 방법이 있다고 여긴다면 일정 기간 시험 삼아 실행해 본 다음 성과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

교회에서 어떤 측면의 진리에 관해 교제하든, 어떤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든 온갖 사람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방해하고 교란하며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 대답해 보아라, 큰소리치기 좋아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그들이 늘 큰소리치고, 본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대다수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된다. 큰소리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꼭 악인은 아니지만 그의 이런 행동이 빚어내는 결과는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굉장히 불리하며 아울러 교회 사역에 차질을 빚고 지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큰소리치기를 좋아하고 기발한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당하겠느냐? 첫 번째 방법은 그가 큰소리치기를 좋아하고 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 일단 그에게 말해 보라고 한 다음 분별하는 것이다. 누구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건 자유다. 아무도 제재하지 마라. 누군가 정말 아이디어가 있고 고견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하게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제하고 토론해서 그것이 옳은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참고할 만하다면 그중 좋은 점은 취해도 된다. 이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말한 것이 교제와 토론을 거쳐 무가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실행하면 모두가 분별력을 키우게 되고 무슨 일이 닥치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여러 부류의 사람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득이 되고, 교회 사역에 교란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니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 말한 것이 가치가 없고, 교제하고 토론해도 아무 수확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제안은 곧바로 거절하여라. 교제하고 토론할 필요 없다. 만약 한 사람이 이런 무가치한 문제나 무가치한 '고견'만 늘어놓아 하나님의 선민이 싫어하고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게 만든다면 이런 사람은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에게 이성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게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그 사람이 비이성적이어서 기어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모두가 몹시 싫어하고 심지어 분노하게까지 만든다면 그는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악인에 해당한다.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교회를 정리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서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답해 보아라, 큰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 중 다수가 어떤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겠느냐?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목적과 속셈으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란하겠느냐?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 만약 모두가 이런 부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서 그가 어리석고, 자질도 없으며 이성적이지도 않은 얼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가 '고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처리 방식은 바로 저지하고 제재해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기어코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을 교란하려 한다면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러면 그가 구원받을 기회를 망치는 게 아닌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틀린 말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이런 성품을 지닌 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너무 무지몽매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늘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모든 자는 악인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악인을 연민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겠느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선민을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니 악인을 변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민은 경계해야지 그의 마귀적인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큰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비록 악인 같지 않고 그렇게 뚜렷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지만 늘 큰소리쳐서 교회 생활을 교란하니 최소한 그는 바보다. 대답해 보아라, 바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바보가 늘 교회 생활을 교란하기만 한다면 그 역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바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의 말로는 악인과 다르지 않다. 악인이든 바보든, 항상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권면을 듣지 않은 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한다면 정상적인 이성이 아니지 않겠느냐? 만약 이런 바보가 교회에서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교란한다면 어떤 결과를 야기하겠느냐? 또한 그가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이성이 비정상적인 바보를 구원하겠느냐? 이 문제들을 꿰뚫어 보면 이런 부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당한지 알게 된다. 바보는 분명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바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정상 인성이 없는 반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폐인인 것이다. 바보가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하는데 봉사도 기준에 맞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성이 온전치 못하고, 사리 분별을 못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바보에게 사랑을 베풀려 한다면 바보를 그에게 맡겨 붙들어 주게 해라.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 바보를 대하는 하나님 집의 태도이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건성으로 대충 하는 사람이 늘 교회 생활을 교란한다면 응당 제재해야 한다. 만약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여전히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교회에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감독하고 관찰하며, 분별력을 키우게 해야 한다. 만약 일관되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고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긍정적인 인물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특히 진리를 추구하고 체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이들은 악인이자 적그리스도, 불신파에 해당한다. 이런 부류는 저지나 제재만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때 제명하여 화근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지위를 다투는 여러 가지 모습에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 경미한 모습이란 주로 조소와 비아냥, 생트집, 리더 일꾼의 열의를 꺾는 것을 말하는데, 리더 일꾼을 무너뜨리고 깔아뭉개는 게 목적이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리더 일꾼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리더 일꾼의 약점을 잡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배척한 다음 리더를 고립시켜 그가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자기가 지위를 빼앗기 수월하게 말이다. 이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방해와 교란의 문제이다. 리더 일꾼에게 공개적으로 대들고 지위를 다투는 사람은 교회 사역을 교란하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이다. 악인과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이

부류는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며, 사안이 심각하여 제명하고 출교시킬 만하다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지위를 다투는 또 하나의 모습은 교회에서 비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해가 순수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체험과 진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늘 진리를 교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선민에게 도움을 주니 교회에서 점점 명망이 쌓인다. 그러니 악인과 적그리스도들은 이에 질투하고 불복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 생활에 직접적으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은 교회 리더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제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큰 반감을 품은 채 멸시하는 것도 모자라 배척하거나 억압하기까지 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심지어 함정을 파고 계략을 꾸미는 등의 행동을 일삼는다. 이런 문제는 교회 리더와 지위를 놓고 다투는 것에 비하면 사안이나 성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이 또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가 지장을 받아 늘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방해와 교란에 해당한다.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이런 악인은 제재만 하는 게 아니라 B조로 보내어 격리하고 반성하게 하거나 제명해야 한다.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일관되게 악을 행하는 자에 속한다. 항상 악을 행하는 악인과 가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분해서 대해야 한다.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해당하지만, 가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 만약 두 사람이 성격이나 일 처리 관점이 맞지 않거나 말하는 방식이 달라 이따금 언쟁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지라도 교회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방해와 교란의 성질이 되지는 않는다. 이는 악인이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이라는 것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에는 일관성이 있다. 악인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 간증을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보면 샘을 내고 증오하며 속이 뒤집어진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인식하는 사람, 실제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비웃음과 폄하, 억압, 배척, 판단 심지어는 박해에 직면해야 한다.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행동한다. 누구도 자기보다 뛰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는 남이 뛰어난 꼴을 보지 못해서 그런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성을 내고 샘을 내며, 상대를 해치고 괴롭힐 궁리를 한다. 이런 사람은 이미 교회 생활과 교회 질서에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주었으니, 리더 일꾼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부류를 폭로하고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그를 제재할 수 없다면, 진리를 교제해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인이다. 악인은 하나님 집의 교회 정리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대해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교제를 통해 공감대를 이루고 악인이 교회를 교란한 것으로 확정했다면, 진리 원칙대로 처리하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지, 이 부류의 악인이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것을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악인이 교란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리더 일꾼이 그가 악을 행하고 교란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며 용인한다면, 이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책임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탁에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외모는 괜찮은데 지능이 얼간이 수준인 사람이 있다. 개념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 부류도 지위와 명성을 다투기 좋아하고, 발언권과 남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 다투기 좋아한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언뜻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관점이나 논조를 제시해 많은 사람에게 주목과 우러름을 받고, 사람의 생각을 교란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교란하고, 모든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교란한다. 이 부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순수하고 올바른 인식을 교제할 때면 미꾸라지처럼 튀어나와 존재감을 드러내며 모두의 이목을 끈다. 또 늘 형제자매에게 자기가 제법 능력이 있고, 재능과 경험이 넘쳐나며,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 그는 어떤 리더를 겨냥하고 어떤 리더의 지위를 빼앗을 것인지 아직 명확한 목표는 없지만 욕망과 야심이 너무 커서 그 언행이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또한 사안과 성질의 경중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우선 그와 진리를 교제하여 올바르게 인도하고 사람됨의 방향을 잡아 주어 뉘우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위치에 제대로 서야 하는지, 어떻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나이가 어려서 식견이 좁거나 젊고 경솔했는데, 여러 번의 교제를 통해 회개하고, 예전의 그런 행동이 옳지 않고 창피한 행동이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사고 불편을 주는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이런 사람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사랑으로 도와주면 된다. 그런데 만약 그가 젊고 경솔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모두를 교란한 게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어서였다면,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도 저지되지 않는다면, 책망과 훈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제를 통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모두 도와주었는데도 자신의 본성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한 교란과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회만 생기면 같은 행동으로 계속 방해하고 교란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봐주지 마라.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고,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이성적이고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자기 방식만 고집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는 정상인의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는 아무리 교제해 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욱이 자신의 올바른 위치도 찾지 못하며, 교제와 도움을 받아들여 형제자매가 교제한 길대로 실행해 보지도 못한다.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성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생각 없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니며, 거기에는 목적과 속셈이 있다. 그의 속셈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뤄 두고, 만약 그의 말과 행동이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과 교회 생활에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가 있으면 예배에 오기 싫어하고, 그가 말만 하면 듣던 사람들이 질려 버려 자리를 떠나고자 한다면, 이 문제의 성질은 심각하다. 이런 부류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여러 번의 교제와 도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고집한다면 본성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본성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그가 교회 생활에 일으킨 방해와 교란은 절대 무심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셈과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공평하겠느냐? (불공평합니다.) 이 부류의 문제가 이 정도까지 밝혀졌는데도 기회를 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면, 결국 그가 또다시 더 많은 악행을 저질러 더 많은 사람을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메워 주겠느냐? 그러니 이 부류를 교제와 사랑으로 도와주거나 저지하고 제재했는데도 바뀌기는커녕 옛 병이 도져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경미할 경우 격리하고, 심각할 경우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 원칙이 어떠하냐? 회개의 기회를 남겨 주지 않고 단번에 요절을 낸 것이냐? 그의 본성 본질이 어떤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결론지은 것이냐? (아닙니다.) 교제와 도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행동과 성품에 눈곱만큼의 변화도 생기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원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원래는 눈에 띄게 공개적으로 행동했으나 이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행동할 뿐이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은 같다. 그러면 교회는 그를 교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 사람도, 하나님의 양도 아니다. 그는 방해하고 교란하러 하나님 집에 온 사탄의 졸개지, 형제자매가 아니다. 만약 네가 늘 그를 형제자매로 대하며, 붙들어 주고 도와주고자 진리를 교제한다면, 그 결과 시간만 허비하고 열심히 들였던 공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느냐? 어찌 어리석다 뿐이겠느냐? 미련한 짓이다.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다!

만약 문제의 성질을 놓고 본다면 지위를 다투는 여러 모습과 각종 사람, 일, 사물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이다. 지위를 다투는 문제는 교회 생활에서 자주 보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지위를 다투는 부류한테는, 사안이 가벼울 경우 자주 진리를 교제하여 도와주고 붙들어 줌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속셈과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게 보이는 순간 즉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사안이 더 심각할 경우에는 제명하고 출교시키는 교회의 원칙대로 해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는 교회 생활 중 지위를 다투는 사람, 일, 사물이 나타났을 때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직책이다. 물론, 모든 형제자매도 나서서 리더 일꾼과 협력하여 이 사역을 하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의 각종 행위와 행동을 함께 제재함으로써 교회 생활에 더는 악인의 방해와 교란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 생활에 성령의 깨우침,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함께함, 축복, 인도가 있고, 모든 예배에 즐거움과 수확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사역은 리더 일꾼에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인간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사람의 체면과 이익에 연관되어 있으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려 하지 마라. 처세 철학에 기대 소홀하게 임하거나, 나아가 무골호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지위를 다투는 다양한 사람을 진리 원칙대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교제하니 확실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자.

6.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모습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모이기만 하면 집단생활이 생기고 여러 관계가 생겨난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중 어떤 것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부적절하겠느냐? 먼저 어떤 것이 적절한 관계인지 이야기해 본 다음 부적절한 관계에 관해 교제해 보자. 형제자매가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죠? 남편 사업은 잘되세요?"라며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을 적절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두 사람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함께 모였을 때 안부 몇 마디 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가장 기본적인 관심과 문안으로, 이는 정상 인성으로 하는 언행이고 대화거리이다. 여기까지 보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무척 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둘의 대화는 예의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 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근거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적절하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인데 만날 때면 표정이 굳어서는 대화하지 않고,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엄청난 적대감을 보인다면 이런 관계가 정상이겠느냐? (비정상입니다.) 어째서 비정상이냐?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겠느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안부도 묻지 않고 인사는커녕 정상적인 담소나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모습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들의 관계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다소 기형적인 관계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와는 관련이 없고, 거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정상 인성을 토대로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함께하고 교류하며 서로 돕고 붙들어 주고 공급한다면, 이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원칙에 맞게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또 이익 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나아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며, 육적인 욕망을 품은 행동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적절한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이 범위가 무척 넓지 않으냐?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정상 인성 범주 내에서의 대화와 교류이며,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류하고 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바로 진리 원칙에 따라 함께하며 교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적절한 인간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이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사람이 교류할 때 보이는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다. 만나면 정상적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 허세를 부리거나 혼자 착각하지 않는 것,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는 것,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대화와 교류 방식이자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교류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선민은 최소한 양심과 이성을 갖추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원칙과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지내며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리 원칙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소극적이고 연약할 때 그를 이해하고, 그의 고통과 고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물어봐 주고, 도움을 주며, 붙들어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이상 연약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에 부합되는 실행 방식이 아니냐? 이러한 실행 방식은 진리 원칙에 부합하며, 물론 이러한 관계는 진리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 어떤 이들이 일부러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혹은 일부러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면, 너는 원칙에 따라 그에게 지적해 주고 질책하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수수방관하거나 그를 용인하고 감싸 준다면, 심지어 듣기 좋은 말로 그를 추켜세우고 칭찬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과 교류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분명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과 교류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분명 부적절하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해부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간파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이것이 문제임을 인정한다 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패괴된 인간은 모두 사탄 성품으로 살아간다고 종종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런 측면의 모습이 바로 한 가지 증거이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느냐?

오늘 교제의 중점은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네 가지 부적절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겠느냐? 부적절한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냐? 우리가 교제하는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모든 관계를 일률적으로 논하지는 않겠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범위로만 한정하고 교회 생활 이외의 일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치우치지 말고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항목의 내용 중 어떤 일,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부적절하겠느냐?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교회 생활에,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겠느냐? 이는 교제할 만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교제해야 한다.

1) 부적절한 남녀 관계

교회 생활 중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가장 쉽게 이해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되는 것에는 어떤 게 있겠느냐? (남녀 관계입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가장 쉽게 떠올리는 한 가지 측면이다. 어떤 이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갈 때마다 늘 이성을 꼬신다. 추파를 던지고, 말할 때 표정이 특히나 풍부하며, 뽐내기를 좋아한다. 적절치 못한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꼬리를 치는 것이다. 이성 앞에서 위트 넘치고 유머러스하고 로맨틱하고 젠틀하고 영웅의 기개가 있고 품위 있고 지적인 모습 등을 드러내며 뽐내기를 특히 좋아한다. 왜 뽐내려 하느냐? 그는 지위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매료시키기 위해서이다. 많은 이성이 그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많은 이성이 그에게 선망, 흠모, 숭배의 눈길을 보낼수록 그는 더 흥분하고 득의양양해한다. 교회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몇 명의 목표물을 정하고 일부 이성들에게 집적거리고 추파를 던진다. 또 늘

도발적으로 말하는데, 심지어는 성희롱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적절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관계로 귀결된다. 이러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뽐낸다.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나 위트 있고 사랑스럽게 굴며, 신이 나서 눈짓을 보내고 추파를 던지고, 몸을 아늘거리기까지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성을 꼬셔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다. 많은 형제자매가 반감을 품고, 주변 많은 사람이 지적해 주어도 그는 그만두기는커녕 계속 꼬셔 댄다. 만약 이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교회 생활 밖에서만 시시덕거릴 뿐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일단 무시해라. 그런데 만약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결같이 이런 짓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란을 일으킨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아 교회 생활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켰다면 하나님 선민들의 거수 표결을 통해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젊은이들의 정상적인 연애일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자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개인적인 감정을 교회 생활에까지 끌고 와서 다른 사람을 교란하지 마라. 타인을 교란하고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방해받게 된다면, 이러한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된다. 설령 정당한 연애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교란한다면 이 역시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되는데, 연애 이외에 이성 간에 꼬셔 대는 행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만약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묵인하거나 방임하지 말고, 경고하고 제재하며 나아가 원칙대로 제명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할 한 가지 사역이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회의 많은 사람에게 교란을 주는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해 보자.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분산되고,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며,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파탄을 일으킨다면, 몇몇 새 신자들이 예배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흥미를 잃고 오히려 좋아하는 이성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대와 도피하여 함께 살 생각을 한다면, 사안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리더 일꾼이 이는 사람의 정욕이 부린 농간이니 별일 아니라고, 일반 사람은 다 그러기 마련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못할뿐더러 문제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의식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한다면, 이 일에 너무 둔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해서 결국 교회의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 일의 성질은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째서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고 하겠느냐? 그것이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에 이런 부류가 나타나면 하나든 둘이든 그때그때 제재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격리해라. 만약 격리로도 효과가 없어서 그가 계속 이성을 꼬시고 교회 생활을 교란하며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원칙대로 그를 교회에서 제명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이런 일은 마치 역병처럼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니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무릇 이성 꼬시기를 좋아하는 이 부류는 어디를 가든 이런 짓을 한다. 그것도 질리지도 않고 이런 짓을 한다. 그들이 꼬시고 집적대는 대상은 대개 어리고 예쁜 이성인데, 간혹 중년이 있을 때도 있다. 그는 마음에 들기만 하면 능동적으로 꼬실 기회를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속아 넘어가고, 이는 부적절한 관계가 되기 쉽다.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도 없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런 시험과 유혹을 어찌 이겨 낼 수 있겠느냐? 분량이 너무 작을 경우,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무력해서 방해받지 않기가 어렵다. 리더를 맡고 있는 어떤 남성은 미인을 보면 꼬시려 하는데, 때로는 한 사람만 꼬시는 건 성에 안 차서 서너 명을 꼬시기도 한다. 그는 여자들을 여럿 꼬셔서 그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본분을 이행할 마음까지 사라지게 한다. 이 남성의 '매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 만약 그가 작심하고 다른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낸다면 지장을 주는 범위가 이 정도로 크진 않을 것이다. 그가 작심하고 어필하며 유혹하는 상황이어야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것이며, 모두가 저항 한 번 못 해 보고 이런 시험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매력'이다. 이는 쌍방 모두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과 교란에 직면하게 한다. 한 남자가 여자 여럿을 꼬시는데, 그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겠느냐? 누구를 먼저 상대하고 누구를 먼저 만족시켜야겠느냐? 마음이 피곤하지 않겠느냐? (피곤할 것입니다.) 그가 피곤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다. 그는 이런 작자이고, 이것은 그의 본성이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시험에 빠지는 순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길을 걷고, 본분을 이행하는 등 무슨 일을 하든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며, 마음속이 그 사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도 지독한 교란이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그에게 잘 보일지, 어떻게 해야 안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를 차지할 수 있을지, 다른 경쟁자와 어떻게 경쟁하며 싸울지 등의 생각만 한다. 이것이 교란의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결과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느냐? 빛 비춤이 있겠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며 다른 사람이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이 정욕과 우상으로 가득하여 올바른 게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조차 마음속에 없다. 그다음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로맨스를 즐길지 등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아예 사라진다. 이 결과가 좋으냐? 사람이 기대하던 결과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는 결과를 사람이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 결과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사람을 교란하여 초래하는 결과이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어지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겠느냐? 여전히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느냐? 구원받을 희망이 제로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예전에 깨달았던 그 알량한 도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결심과 의지, 하나님에게 구원받고자 했던 바람까지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결과이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며, 이와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이런 시험이나 부적절한 관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순간, 스스로 헤어 나오기는 어려우며, 자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제재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한결같이 이성을 교란하고 희롱하는 부류는 가능한 한 빨리, 제때 교회에서 제명해라. 그가 교회 생활을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많은 이성이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합리적입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를 보면, 리더 일꾼은 모든 사역을 할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형제자매들이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방해나 교란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호해야겠느냐? 그들이 예배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나누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깨우침과 빛 비춤을 구하여 하나님의 함께함, 축복과 인도를 받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는 모든 형제자매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유익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 여부나 좋은 종착지의 유무와 관계되니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 교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런 자들을 엄격히 제재하고 격리하거나 제명해야 한다. 또한, 그중에서도 남녀 관계를 맺는 부류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관리 감독이란 무엇이냐? 만약 일반적인 사안에 그친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로하고 책망하고 제때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반면,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가 더 많은 사람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주저하지 말고 즉각 결단을 내려 가능한 한 빨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교란하려면 바깥세상에 가서 누구든 실컷 교란하라고 하여라. 어쨌든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형제자매는 그에게 교란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항목의 직책 중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의 주된 원칙이자 목표이다.

2) 동성애

우리는 방금,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이번 항목에서 부적절한 남녀 관계에 대해 주로 교제하였다. 이런 자는 이성을 꼬시고 유혹하고 추파를 던지면서 집적거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한 척하며, 예배 시간에는 알게 모르게 늘 붙어 앉으려고 하고, 한 사람만 꼬시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을 꼬시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꼬신다. 교회의 많은 이성이 그에게 희롱당하니 심각한 문제다. 이는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이다. 이성 외에 동성 간에도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한다. 만약 동성인 두 사람이 제법 친하고, 알고 지낸 지 오래되어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 이는 적절하다.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정욕 관계로까지 발전한다면 이 역시 부적절한 관계의 범주에 들어간다. 동성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잦고 심지어 도발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둘이 딱 붙어 어깨동무를 하거나 좀 더 노골적인 행위, 모습을 보이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눈치채고 '저 둘은 서로 도와주는 것도, 성격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정상 인성

속에서 교류하는 것도 아니야. 저건 동성애잖아!'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동성애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보다 더 심각하고 적절하지 못한 성질이라는 것을 안다. 만약 교회에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면 역병처럼 일부 사람들을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뜨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동성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한다. 그가 정말 동성애자인지, 성적 취향이 어떤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가 유혹받은 상황에서 그런 시험에 빠진 것이 자의였는지, 아니면 타의였는지에 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자. 우선 그는 교란당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통해 본다면 그는 피해자이다. 그러니 동성애자 부류가 동성을 꼬시고 유혹할 경우,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꼭 동성애자로 볼 수는 없지만 동성애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동성애가 되어 버릴 수 있다. 이는 위험한 일 아니냐? 왜 이런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하겠느냐? 이성애자가 여러 사람을 꼬시면 음란 범주에 해당하며, 이는 부적절한 관계이다. 그렇다면 동성 두 사람이 사이가 좋고 말이 잘 통해서 서로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생길 때, 이런 관계가 발생하면 동성애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딱 붙어서 어깨동무하고 목을 끌어안으면서 허리를 휘감는 것은 동성 간의 정상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 정욕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이다. 이럴 경우 성질이 달라져 부적절한 관계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동성애자가 교회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고 도움을 받겠느냐,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하겠느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고 교란당하지 않겠느냐?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네 목을 껴안고 허리를 휘감는 것도 모자라 볼에 입까지 맞춘다면 교란당하지 않겠느냐? (교란당할 것입니다.) 교란당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겠느냐, 아니면 불편하겠느냐? (역겨울 것입니다.) 죄책감은 없겠느냐? 이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가 접촉하고 만진 후에도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딱히 골칫거리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동성을 그리워한다면, 네가 의식적으로 저항하든 않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은 이미 교란당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에 동성애라는 부류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닌 성질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음란함과 동성애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등하게 대하는데, 사실은 동성애가 이성 간의 음란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교회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제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교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어떤 교란을 일으키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와 접촉하지만, 겉으로는 그의 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와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하나님을 믿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도 흥미를 잃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며, 나아가 불신의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적절한 동성애 관계가 교회에 나타나면 단순히 저지하고 제재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부류를 제때 교회에서 정리해야 한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다. 일단 이런 부류가 보이면 그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제때 교회에서 정리해야 한다. 절대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교회의 규정이다. 왜 이렇게 규정하겠느냐? 여기엔 근거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의 배필은 하와였지, 다른 아담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니 절대적으로 옳다. "어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아직 어린데 어리석은 짓 좀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 다른 어리석은 짓은 사안과 성질에 따라 달리 처리해도 되지만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어리석은 짓이 아니므로 절대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발각되면 바로바로 정리하여라! 만약 교회 전체가 동성애자라면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이런 교회는 원치 않는다. 단 하나도 원치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과만 동성애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꼬시지도 교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도 처리하거나 제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가 정말 동성애자 부류인데 교회에 머물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 시한폭탄을 놓아두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언젠가는 터지고 말 것이다. 그가 설령 지금은 어떤 동성도 교란하거나 꼬시거나 희롱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러리란 법은 없다. 아직 마음에 드는 상대나 좋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다들 서로 어색하고 잘 모르다 보니 아직 때가 아닌 것일 수도 있다. 때가 무르익고 기회가 오면 바로 착수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류에게 절대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류가 교회에 머무는 것을 절대 용인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는 멀쩡하지 않고 비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이런 자를 원치 않는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류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며, 이는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동성애자는 겉보기에 꽤 괜찮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규율도 잘 지키면서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늘 좋은 일을 하죠. 개중엔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베풀며 남을 돕는 데 유난히 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네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동성애자의 성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동성애를 하는 부류에 대한 교회의 실행 원칙은 제명 처리이다. 이것은 행정 법령이니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 원칙대로 실행해야 한다.

방금 교제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모습은 사람이 가장 쉽게 분별하고 간파하고 규정할 수 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 두 부류에 대해, 한편으로는 리더 일꾼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저지, 제재, 격리, 제명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자매들 역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두 부류를 분별하고 멀리하여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는 데 지장이 생기게 된다. 시험에 빠지는 순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두 부류를 분별해야지, 사회에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와 시시덕거리든 못 본 체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갖지 못하며, 자기 이익과 무관하다면 이 부류와 정상적으로 함께하고, 평소처럼 말하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이 원칙을 가지고 남들을 대하겠느냐? 원칙이 눈곱만큼도 없다. 이방인들은 처세 철학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집은 이방 사회와 완전히 달라서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 원칙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갖추는 한편, 진리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대하는 것은 교회 생활과 형제자매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시험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서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부류를 조속히 분별하고 멀리할수록 시험에서 멀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부류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는 진리 원칙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한다.

3) 부적절한 이익 관계

또 한 부류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익 관계이다. 사람들 간에 이익을 위해 서로 치켜세우고, 높여 주고, 칭찬해 주고, 알랑거리는 등의 그릇된 풍조를 교회 생활에 가져오니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남들이 나누는 체험을 듣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준다. 사람들 간에 이익관계가 생기고 나면 그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안 사업이나 특정 측면의 이익에 득이 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을 리더로 뽑거나 어떤 분야의 본분을 이행하도록 추천하고,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진리에 부합하든 말든 옳다고 해준다.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원칙에 어긋나고 진리에 위배되는 일도 많이 하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하고 진리에 진입하는 데 교란을 일으킨다. 그는 잘못되고 치우친 것을 옳다고 하고 사람의 관념과 상상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는 등 사람의 생각과 올바른 추구의 방향, 목표를 교란한다. 이런 그의 행위는 전부 그가 사람 간의 이익 관계를 수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가 한 말과 행동은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무너뜨려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개인적 체험을 나누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사람의 생명 진입에 피해를 준다. 사람이 개인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할 때는 늘 사람 간 이익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언어의 영향이고, 어떤 경우에는 행위상의 영향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목표와 방향의 영향으로, 사람이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일이 항상 중단되고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다양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적절한 이익 관계를 맺는 부류와 이런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교회 리더는 이런 일이 생기면 경계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 제때 저지하고 제재해야지,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관용을 베풀어 그의 악행을 조장하거나 이런 일이 교회 생활에 생기는 것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이익 관계를 맺는 일은 교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기 교회 리더 선거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기 생각을 내비치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우리가 당신을 뽑아 주는 대가로 무엇을 해줄 건가요?"라고 넌지시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그들 사이에 이익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배 시간에 늘 한통속이 된다. 사람들이 어떤 사정과 내막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늘 그자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그자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축복받았는지, 누가 얼마를 바쳤고 하나님 집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늘 서로 치켜세우고 칭찬한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내보이는 목적은 그들이 사전에 이룬 합의를 위한 것이고 그들 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날 리더로 뽑아 주면 리더가 되고 나서 그룹장을 시켜 줄게요."라고 한다. 그들 각자가 모두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느냐? 이익을 얻기 위해 무슨 말이나 행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배 시간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 목적은 모두 그들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관련된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한 모든 행동은 대부분 이익을 좇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언행의 속셈과 목적이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들끼리 맺은 이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교회에서 제재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재하나요?"라고 한다.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 모를까, 하기만 하면 발각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람이 만약 정당하게 진리를 교제하고 개인적 인식과 체험을 교제하며 진리와 무관한 일은 그 무엇도 뒤섞지 않는다면 모두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불순물이 있다면 또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각종 거래관계 역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경고하고 교제하여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자신이 한 이런 행동의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게 하며 아울러 형제자매가 이런 일의 성질을 분별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사람들이 교회는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서로 이용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교란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킨다. 대답해 보아라, 한 사람이 표심을 얻으려고 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선거를 조작하여 리더의 지위를 얻는다면 이 자가 좋은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뽑힌 리더는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니다. 형제자매가 만약 그의 손에 넘어간다면 좋을 일이 있겠느냐? 만약 원칙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리더에 당선된다면 이런 리더는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에게 리더를 시킨다면 이는 분명 형제자매를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것이니 많은 사람이 사탄의 손에 넘겨지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위하는 교회 생활의 효과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이것은 이익과 관련되는 부적절한 관계이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사람 간의 관계가 이익과 관련되기만 하면 그들은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적인 이익에 편중하여 행동한다. 이런 관계는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을 토대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은 물론 진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관계이다. 그들의 말, 행동, 모습과 그들의 속셈, 목적, 동기, 취지 등은 모두 이익에서 비롯되므로 이런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관계의 형성은 하나님 선민들의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교회에서 제재받아야 하며 사안이 심각해서 악인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경고해야 한다. 만약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4) 사람 간의 원한

부적절한 인간관계에는 여러 모습이 있다. 그중 또 하나의 모습이 개인 간의 원한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는 고부간, 동서 간, 형제간, 그리고 이웃 간에도 마찰이나 갈등, 심지어는 원한이

생긴다. 마치 원수처럼 함께 일이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만나면 언쟁하고 다투니 만나지도 않는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만나면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더욱이 선입견이나 원한을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예배하지도 못한다. 만나기만 하면 소란을 일으키고 논쟁하려 하고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욕설을 서슴지 않으니 하나님의 선민에게 극심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불신파이고 이방인이다.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든, 누구와 논쟁하든, 누구에게 선입견을 갖든 진리를 구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진리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보면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절대 예배 장소에서 논쟁하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성도의 품위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은 인성과 양심, 이성이 너무나 결여되었고, 결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새 신자에게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데 새 신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패괴 성품도 정결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에서 논쟁을 벌이기 쉽고 심지어는 혈기를 분출하고 다툼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이런 패괴 성품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람은 모두 가슴에 원한을 품게 마련이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혈기와 원한을 품은 채 끊임없이 논쟁한다. 그러니 교회 생활에 지장을 주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나누는 데 지장을 주며,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새 신자들은 사소한 일에도 관점이 맞지 않아서 쉽게 논쟁을 벌인다. 가령 예배 전에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찬양을 부르겠다고 하는 이런 사소한 일로도 쉽게 논쟁이 일어난다. 어떤 때에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논의하는데 관점이 달라도 쉽게 논쟁이 벌어진다. 심지어는 생각 없이 말했다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새 신자 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예배 중에 논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레 교회 생활을 교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선민들도 교란당하지 않겠느냐?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시비를 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 생활을 교란하기 쉬운데 그들은 자신의 허영심과 체면을 충족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선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지 절대 개인적인 원한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고 언쟁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직접적으로 예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은 생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대다수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며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도 원치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대다수 교회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며 모든 하나님의 선민이 겪어 본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예배 중에 늘 논쟁하고 다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문제에 맞춰 하나님 말씀 몇 단락을 골라 예배 중에 다 같이 너덧 번, 혹은 일고여덟 번씩 읽어 보고, 그러고 나서 진리를 교제하면서

모두 각자의 인식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과를 어느 정도는 거둘 수 있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만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여 마음속으로 뉘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던 사람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패괴 성품을 표출하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는 않을지 반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인식할 수도 있다. 논쟁하는 사람이든 그러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 몇 단락을 몇 번 읽고 나면 모두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할 수 있고, 패괴 성품에 의지해 사는 삶은 확실히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성과가 괜찮지 않겠느냐? 예배를 시작할 때는 논쟁이 있더라도 논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를 구하고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몇 번 읽기만 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분별해서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답해 보아라, 이런 교회 생활을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었으니 이는 어느 정도 전화위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에 논쟁과 언쟁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절대 권장할 일이 아니다. 논쟁과 언쟁은 혈기를 폭발시키거나 충돌을 일으키기 쉬워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고 본인 마음도 괴롭다. 그러니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나 충돌이 생기면 인내와 포용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본인도 패괴 성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괴 성품을 표출하면 재빨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원한이 이미 해소되고 기분도 자유로워지면,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고 조화롭게 협력하기가 쉬워진다. 어떤 형제자매가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것을 보든 사랑으로 도와주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쳐서는 안 된다. 한두 번 도와주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용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가 교회 생활을 교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닌 이상 끝까지 포용하고 인내해야 한다. 언젠가 그가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인성이 악한 사람이라 도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아무리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만약 그가 반복해서 교회 생활을 교란한다면 원칙에 따라 대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악인이 아니라 단지 패괴 성품을 자주 표출하는 것이라면, 속으로 스스로를 증오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도와주어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패괴 표출을 분별하며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패괴를 점점 덜 표출하게 될 것이다. 단지 형제자매가 간혹 약간 영향받는 정도라면 이해해 줄 수 있다. 그의 인성에 큰 문제가 없고, 간사하거나 악한 사람만 아니라면 진리를 교제하여 붙들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교회 리더가 경고하고 제재해야 한다. 시종일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악인에 해당한다. 악인은 누구와도 화합하지 못하는 암적인 존재로 모두 마귀이니 교회에 남겨둔다면 방해와 교란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니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간주해 처리하고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늘 교회 생활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을 교란하는 사람은 모두 불신파, 악인에 속하니 반드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가 예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든, 늘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을 교란하며,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항상 자신의 억지 논리를 말한다면 반드시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전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선민의 유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진리 원칙과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악인 몇 명이 일으키는 분쟁이나 말썽 때문에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가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선민에게도 불공평한 일이다.

만약 악인이 교회에서 늘 교란하여 교회 생활의 효과가 좋지 않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교회가 유형별, 그룹별 예배를 실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끼리,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만 본분은 이행하지 않는 사람끼리, 방해하고 교란하길 좋아하고 왈가왈부하면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끼리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고,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아무리 제멋대로 못되게 굴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만 해를 끼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흉악해서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원한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고 보복한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하고, 책망과 훈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교회 생활을 계속 교란한다. 이는 그들이 악인이라는 방증이다. 이런 부류의 악인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진리 원칙대로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다. 성품이 흉악한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어떤 못된 짓을 하든 누구도 그를 폭로하거나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그를 폭로하거나 그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는 머리끝까지 화를 내며 끝도 없이 복수할 것이다. 그는 사람에 대해 티끌만 한 인내심도, 관용도, 포용도 없다. 그의 사람됨의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날 저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이다. 즉, 누구도 그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악인의 논리가 아니냐? 악인의 논리는 이런 식이다. 누구도 그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 그를 티끌만큼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누가 건드리면 상대를 증오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런 자가 바로 악인이다. 악인을 대함에 있어 그에게 악인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가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를 격리하거나 제명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가 큰 화를 초래한 다음 처리한다면 이미 수동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너무 어리석고 일 처리에 원칙이 없음을 의미한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이토록 어리석고 무지해서 굳이 확실한 증거가 나온 다음에 악인을 처리하려 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악인을 확정하는 데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평소 그들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다. 악인으로 확정되고 나면 우선 그를 제재하거나 격리해도 된다. 그러면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어떤 리더 일꾼은 악인을 분별하지 못해서 악인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 결과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차질을 빚는다. 어리석기 그지없다. 거짓 리더는 바로 이렇게 사역한다. 한편으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무골호인이 된다. 이런 자가 리더가 되면 첫째,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둘째, 하나님 선민에게 해를 끼친다. 악인이 교란하는 문제조차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대답해 보아라, 만약 한 사람이 악인으로 규정되었다면 진리를 교제하여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악인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성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너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악인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악인이 회개하길 바라는 것은 독사를 측은히 여기는 것이고 들짐승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본질을 바탕으로 그는 영원히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인의 사전에 '회개'라는 두 글자는 없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자신의 속셈과 이익을 내려놓기는커녕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기를 위해 변명할 것이며, 아무도 그를 설득할 수 없다. 그가 손해라도 보는 날에는 큰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데,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모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 악인에 속하며, 영원히 회개할 리 없다. 네가 만약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간파했는데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면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느냐? 이는 얼어붙은 독사를 품에 안아 살리고서 독사에게 물리는 꼴이니 이런 어리석은 짓은 머저리나 하는 짓이다. 교회에서 하나님 선민이 악인을 증오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악인은 인성이 없어서 돼먹지 못한 짓을 일삼기 때문이다. 악인을 증오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며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형제자매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왜 형제자매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전혀 없겠느냐? 이런 부류는 누구와 함께 지내든 오로지 이익이나 거래와만 연결 짓는다. 이익이나 거래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정에만 얽매여 살아간다.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은 가까이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없다. 그가 정에만 얽매여 살아가는데 형제자매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형제자매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은 모두 양심과 이성이 없는 사람이고, 정상 인성이 없는 사람이며, 분명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이방의 속물과 다를 게 없다. 그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면 왕래하고, 득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보지 않는다. 또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체험 간증을 얘기할 수 있어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심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이 악인이 아니냐? 이런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없고 짐승만도 못하다. 그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지내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과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없을뿐더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증오하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은 분명 고독하고 외롭고 항상 남의 탓만 할 것이다. 그들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성품이 흉악하여 누구와 함께 지내든 사소한 일로도 남을 증오하고 정죄하며 보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를 불러온다. 이런 악인은 영락없는 악마이다. 그는 교회에 하루만 머물러도 재앙을 가져온다. 오래 머무른다면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겉으로는 무척 교양 있어 보이지만 이익을 몹시 밝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그 역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는 한동안 잇속을 차리지 못하면 낯빛이 어두워진다. 마치 누가 자기에게 얼마를 빚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 그의 원망 가득하고 침울한 표정을 보면 그 즉시 기분이 영향을 받는다. 대답해 보아라, 이런 얼굴이 교회에 나타나면 어떤 영향이 초래되겠느냐? 대다수 하나님의 선민들이 보면 분명 다 불편해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진리를 교제할 때 모두 다양한 정도의 교란을 당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참도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그늘진 이런 얼굴을 자주 본다면 너무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는 성격이 밝고 말을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다. 얼굴이 늘 그늘진 부류는 집에서 혼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나서 예배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본인도 기분이 좋고 예배에도 수확이 생기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 최소한 다른 사람을 교란하지는 않게 된다. 하나님의 선민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리더 일꾼은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 예배 모임에 와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리더 일꾼이 나서서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거나, '늘 그늘진' 사람을 보면 숨거나 회피하면서 진리를 교제하여 그의 그늘을 걷어 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 선민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방인이 말하는 목민관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은 목민관이 되려 하지 않고 방관자 노릇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선민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겠느냐? 사실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는 그의 낯빛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의 얼굴이 늘 그늘져 있다면 분명 마음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운 상태일 것이다. 하루 종일 시비와 논쟁 속에서 사는데 얼굴에 미소가 생기겠느냐? 이런 사람의 얼굴엔 온종일 먹구름이 잔뜩 껴 있고 그늘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본분 이행도 지장을 받을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문제를 처리도 해결도 하지 않고 꾸물거려 형제자매들이 늘 교란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한다면, 이는 그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머저리라는 방증이다. 리더 일꾼이 만약 진리를 깨달아서 형제자매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 붙들어 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원칙을 깨달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처리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교회 사역도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제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한다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리더 일꾼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해 교회 사역이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선민에게 죄스럽지 않겠느냐?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이로써 본분 이행이 기준에 맞는 것이다.

오늘 교제한 여섯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에 대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적절한 남녀 관계, 동성 관계, 이익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원한이 그것이다. 사람 간 육적인 정욕의 관계나 육적인 이익의 관계, 육적인 정으로 얽힌 관계는 모두 부적절한 관계에 해당한다.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하므로 사람은 일정 정도 방해를 받기 마련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생명 진입이 교란당하고 사람의 진리 추구 및 하나님에 대한 인식 추구 역시 교란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는 모두 양심과 이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상 인성에 위배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살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렵고,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하며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일도 교란을 받으며, 교회 생활의 질서 또한 교란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불리할뿐더러 교회 사역에도 해로우니 리더 일꾼은 반드시 제때 그 문제들을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다양한 경우를 들어 유형별로 구분했는데 이제 너희가 사례를 들어 분별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별하는 법을 알려 주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사람, 일, 사물의 본질을 분별하고 정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후 원칙에 따라 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성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당신은 온종일 이런 옳고 그름에 관한 일, 일상적인 일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데 이젠 그만 듣고 싶습니다. 예배도 오기 싫어요. 진리를 교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일만 논하십니까?" 이런 부류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제해 주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인의 지능에 못 미치는 사람이니 이런 자는 완전히 끝장이다. 사람의 지능에도 못 미치는 자인데도 설교를 듣게 해 주어야 하느냐? 그가 만약 "예배 시간에 진리만 교제하시고 진리를 실행하는 이야기만 하시니 이젠 지겹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나오기 싫어요."라고 한다면, 그의 관점이 정말 이렇다면 그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안 온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강요하지는 않으니 당장 내쫓거라. 본인이 예배에 오기 싫어하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제에 진입하지도 못하니 헛수고만 할 것이다. 그가 신학적 지식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신학적 지식이나 배우라고 하면 된다. 언젠가는 생명으로 삼을 진리를 얻지 못해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2021 년 5 월 29 일

리더 일꾼의 직책(15)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3)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지난 예배 시간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이 항목에서는 주로 교회 생활 측면의 각종 문제에 관해 교제하였고, 이 문제는 총 11 개 항목으로 나뉜다. 한 번 읽어 보아라. (첫 번째,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세 번째,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네 번째, 편을 가른다. 다섯 번째, 지위를 다툰다. 여섯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일곱 번째,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 여덟 번째, 관념을 퍼뜨린다. 아홉 번째,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열 번째,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열한 번째,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한다.) 지난번에는 다섯 번째, '지위를 다툰다'와 여섯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에 관해 교제하였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의 네 가지 항목과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에 교란과 방해를 일으킨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성질과 교회 생활에 끼치는 피해, 그리고 사람의 생명 진입 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둘 다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 일, 사물이다.

7.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

오늘은 일곱 번째 항목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에 관해 교제하겠다. 이는 교회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개인적인 체험을 교제하거나 실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관점의 차이나 시비와 다툼으로 인해 갑론을박이나 논쟁이 일어나곤 한다. 관점에 차이가 있거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을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정상적인 교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일곱 번째 항목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안과 성질이 비교적 심각하여 방해와 교란을 일으켜야만 일곱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의 성질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교제해 보자.

우선,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분명 정상적으로 진리를 교제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교제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깨달음과 빛 비춤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진리에서 진리 원칙을 구하고 교제하며 토론하고 실행의 길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서로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이런 문제가 교회

생활에서 수시로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것은 겉보기에도 결코 진리를 구하는 것, 성령의 인도 아래 진리를 교제하는 것,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인해 판단과 정죄는 물론 악담까지 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탄의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서로 공격할 때는 날 선 말이든 완곡한 말이든 다 그 안에 혈기와 악의, 증오가 담겨 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포용이나 인내, 양보도 없으며, 당연히 조화로운 협력은 더더욱 없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한 가지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갑이 을에게 "어떤 사람은 인성이 나쁘고 성품도 교만해서 일을 좀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 하더군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짐승같이 야만적이고 인성이 없죠."라고 하면 을은 듣고 나서 '지금 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냐?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나를 폭로하다니! 내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당신이 나한테 못되게 군다면 나도 똑같이 대해 주겠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한다. "겉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누구보다 음험한 사람도 있던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녀나 창녀처럼 부적절한 남녀 관계까지 맺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죠. 겉으로만 경건하면 뭐 해요? 그건 위선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위선적인 사람이잖아요. 위선적인 사람은 모두 바리새인이에요!" 갑이 듣고는 '지금 나한테 받아치는 거야? 좋아,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니 나도 가만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둘이 다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점을 잡고 '근거'를 찾으며 하나님 말씀까지 근거로 인용한다. 이것은 서로 공격하는 동시에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제가 교회 생활에서 보일 때가 있지 않으냐? 이것이 정상적인 교제이냐? 정상 인성으로 교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교제가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어떤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겠느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교란당하고, 사람이 시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다투고 시비를 따지며 인신공격하면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교제는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기억하느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방금 논쟁한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서로 공격하고, 다투는 것도 모자라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다. 겉으로는 욕설을 하거나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지만 발언의 출발점이 진리를 교제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다. 모든 말을 무책임하게 했고, 공격성과 악의를 가지고 했다. 사실과 부합하거나 근거가 있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대로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나 바람에 따라 자기가 적대시하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판단하며 정죄했다. 이는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된 모습이 아니라 혈기나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하는 말과 모습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없다. 이런 게 서로 공격하는 모습이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간에 사소한 일이나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이익상 충돌이 생겨서 분쟁이나 갈등이 자주 생긴다. 또 성격이나 소망, 취향이 맞지 않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의 격차, 혹은 인성과 본성 측면의 차이, 심지어 대화나 일 처리 방식과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충돌이나 불화가 생긴다.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구하지 않고 서로 양해하고 포용하지도 못하며, 서로 붙들어 주고 도와주지 못하면서 속으로 선입견과 원망을 품고 패괴 성품 속에서 혈기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서로 공격하고 판단하기 쉽다. 좀 양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논쟁이 일어나면 인내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포용심과 인내심, 인성의 이성조차 갖추지 못해서 항상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나 말 한 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온갖 선입견과 의심, 오해를 품는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된다.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항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형제자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데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데 지장을 준다. 사람들 간에 함께 지내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일이 교회 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망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배는 교란당하고 교회 생활은 결실을 맺지 못하며 예배에 참석한 사람 역시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하고 그저 예배한 보람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이미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1)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몇 가지 모습

(1) 서로 허물을 들춘다

어떤 사람은 늘 예배 시간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담하기를 좋아해서 형제자매만 보면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한바탕 늘어놓아 형제자매를 난감하게 만든다. 이럴 때 나서서 그의 말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겠느냐? 계속 말을 끊으면 그는 불쾌해할 것이고,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속 내 말을 끊어서 입을 막겠다 이거지? 좋아, 당신 어디 말만 해 봐. 나도 끊어 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 내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끼어들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교제하면 나는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겠어. 또 교만한 성품을 인식하는 것을 교제하면 나는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야 말겠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자기 말을 끊는 데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공격할 것이다. 또한 그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자주 상대방의 허물을 들춘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장사하면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사람을

상대하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등을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할 차례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참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생각한다. '난 늘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관용을 베풀며 참았는데 당신은 내게 눈곱만큼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군. 당신이 나한테 이러니 나도 본때를 보여 주겠어!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함께 지냈는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어딨어? 당신이 날 공격하니 나도 공격할 수밖에. 자꾸 내 허물을 들추는데, 당신도 허물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어렸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좀도둑질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그런 일을 한 건 어쨌든 장사 때문이었어요. 먹고 살려고요. 세상에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당신이 한 짓은 어떻고요? 좀도둑이나 도둑놈이 하는 짓이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떤 공격 방식이냐? 서로 허물을 들추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는 심지어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한다. '자꾸 내 허물을 들추는 통에 내 허물과 창피한 과거를 모두가 알게 됐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지 않을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당신이 옛날에 몇 명이랑 사귀었는지, 함께 지내던 이성이 몇 명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 이 약점들을 내가 쥐고 있으니 한 번만 더 내 결점을 들춰서 신경을 건드렸다간 당신이 했던 추잡한 짓을 모조리 까발려 주겠어!' 서로 허물을 들추는 것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이다. 아마 말 한 마디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응어리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런 케케묵은 지난 일을 들먹이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허물을 들추고 서로 공격하며 정죄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빼앗아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이런 예배에 결실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예배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일부 형제자매는 불만을 품을 것이다. '저 두 사람 정말 짜증 나네. 지나간 일을 뭐 하러 이야기해! 둘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일은 다 내려놓아야지. 문제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야. 허물을 들추는 건 진리를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아냐. 서로 공격하는 것이고 사탄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 둘은 서로 공격하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망쳤다. 누가 저지해도 소용없고, 누가 진리를 교제해도 듣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두 분, 서로 허물을 들추는 짓은 그만 하세요. 사실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닌가요? 깊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분이 솔직하게 털어놓고서 각자 선입견, 분노,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진리를 구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라고 타일러도 두 사람은 논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중 한 사람이 말한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한테는 진리를 실행하라고 하시는데 왜 저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지 않나요? 저한테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왜 저 사람은 먼저 내려놓지 않나요?" 이건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타일러도 소용없고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듣지 않는다. 만나기만 하면 논쟁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 공격한다. 손찌검만 안 했을 뿐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행동에 원한이 서려 있고,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말에 공격하고 저주하는

뜻이 담겨 있다. 교회 생활 중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이 있다면 이런 교회 생활에 결실이 있겠느냐? 사람이 긍정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걱정돼서 '저 두 사람은 예배 때마다 싸우는데 누가 타일러도 듣질 않으니 어쩌면 좋지?'라고 말한다. 그 두 사람이 있는 한 예배 시간이 평온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교란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 리더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사람이 계속 교회 생활을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재차 만류하고 교제하며 긍정적으로 인도해도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는커녕 계속 서로 공격하며 교회 생활을 교란하려 한다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야 한다. "두 분의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교회 생활과 모든 형제자매가 심각하게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두 분의 행동에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두 분의 태도와 모습을 감안해서 교회에서는 원칙대로 두 분의 교회 생활을 중지시키고 두 분이 반성하도록 격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화목하게 지내고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교회 생활에 복귀하십시오." 그들이 동의하든 말든 교회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인식하게 하여 그 둘에게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악인의 교란으로부터 더 많은 형제자매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 두 사람은 특별히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보면 악인도 아니에요. 단지 인성 측면에 작은 흠이 있어서 제멋대로 굴고 억지 부리고 질투심이 많고 분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것뿐인데 어찌 둘을 격리하시나요?" 그들의 인성이 어떻든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킨다면 교회 리더는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악인으로 분별된다면 단순히 격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즉시 결단을 내려 제명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며 시비 가리기를 좋아할 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별다른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 제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들의 교회 생활을 중지하고 반성하도록 그들을 격리하여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처리하는 목적은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와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2) 서로 폭로하고 공격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도 이해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교제할 줄 모르고 그저 사람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비춰볼 줄만 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교제할 때마다 개인적인 속셈을 품고는 늘 기회를 틈타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공격하려고 하니 결국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다. 만약 폭로당한 사람이 일이 닥쳤을 때 올바르게 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런 논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관해 남들이 교제하고 폭로하는 것을 들었을 때 속으로 불복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나누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말하지 않으면서 왜 나만 공격하고 겨냥하는 거야? 내가 눈에 거슬려? 내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건 진작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어? 나한테만 패괴 성품이 있고 당신에겐 패괴 성품이 없다는 거야? 항상 나한테만 간사하다고 하는데 당신도 꿍꿍이속은 만만치 않잖아!' 그는 가슴 가득한 분노와 불복을 처음 한두 번이야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원한이 쌓이고 쌓이면 폭발해 버린다. 그가 한 번 폭발하면 아주 난리가 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척하지만 사실 내면은 교활하기 그지없고 늘 남을 음해할 궁리만 해요. 그와 대화해 봐도 아무도 그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야말로 간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거나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 자칫 방심하면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사람이니 무저갱과 유황불 못에 빠뜨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테는 폭로도 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교만하고 독선적이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서 당신을 폭로해 주겠어. 그래도 할 말이 있을지 두고 보자고!' 폭로하자 그는 더 성질을 부린다. '지금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건가? 날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야? 내가 눈에 거슬리고 나한테만 패괴 성품이 있다 이거지? 좋아, 나도 당신을 폭로해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서 지위를 좋아하고 남들이 치켜세워 주는 것을 즐기며 남을 훈계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정죄하면서 남들이 그에겐 패괴 성품이 없는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는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면서 자기가 성결한 줄 알지만 사실은 더러운 귀신에 불과하지 않나요? 사탄이나 악령일 뿐이지 않냐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이죠!" 몇 차례나 맞붙었느냐? 승부가 났느냐? (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모두 무슨 말이냐?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이다. 실제 상황에 근거하지도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게 함부로 떠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한다. 상대방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있느냐? 그의 어떤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악행이냐? 그의 패괴 성품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에 해당하느냐? 하나님 선민이네 폭로를 듣고 객관적이고 진실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들에 선의와 호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상대방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빨리 패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자기 분풀이를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복하기 위해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제멋대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대방의 표출과 본질을 근거로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고 보복하여 자기 분풀이를 할 뿐 결코 진리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문제가 심각하다. 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교만한 성품이 있다며 공격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음험하고 악랄한 것이지 절대 선의의 폭로가 아니다. 따라서 서로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랑으로 도우려는 태도로 상대방을 폭로한다면 상대방도 느낄 수 있고

올바르게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상대방의 교만한 성품을 약점으로 잡아 정죄하고 공격한다면 이는 순전히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려는 것이다. 교만한 성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찌 한 사람한테만 그러느냐? 어째서 한 사람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느냐? 늘 상대방의 교만한 성품을 폭로하는 목적이 그가 교만한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이냐? 상대방이 눈에 거슬리니 기회를 틈타 그를 공격하고 보복하고 괴롭히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적그리스도요, 사탄, 마귀요, 간사하고 음험한 자라는 그의 말이 사실이겠느냐?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돕는 것도, 진리를 교제하는 것도 아닌 자기 분풀이를 하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그는 괴롭힘을 당했으니 되갚아 주려는 것이다. 어떻게 되갚겠느냐? 상대방을 폭로하고 정죄하며, 그가 사탄이고 마귀이며 악령이자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최대한 큰 낙인을 찍고 되도록 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이는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냐?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속셈과 목적, 의도는 상대방이 자기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고 진리 원칙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폭로하여 자기 분풀이를 하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은 서로 허물을 들추는 식의 공격보다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상대방이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고 사탄,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제법 영적인 것 같지만 그 성질은 똑같다. 모두 정상 인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제멋대로 자기 취향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며 인신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성질의 대화는 교회 생활에도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 또한 방해하고 망쳐 버린다.

이렇게 서로 패괴 성품을 폭로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발대발하며 호되게 꾸짖을 필요가 있겠느냐? 찬물을 끼얹어 진정시키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여 상대방에게 사과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싸우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다음에 어떻게 싸울지 준비한다.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나 근거를 찾는 것도 모자라 초본까지 쓴다. 상대방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지, 어떤 말투나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정죄해야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생각해 놓는 것이다. 또 각종 영적인 용어들을 찾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그를 정죄하고 공격해서 그가 꼼짝 못 하게 만들고, 다음 대결에서 그를 쓰러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런 모습은 모두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쉽겠느냐? 만약 많은 사람이 만류하고 도와주며 진리를 교제해 주는데도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욕하며 누가 말려도 듣지 않고 누가 진리를 교제하거나 책망하고 훈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려울 것 없다. 그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간단하지 않으냐? 그들에게 계속 교제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사랑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인내해 주는 게 합당하겠느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합당하지 않으냐?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교제해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예배에 말싸움을 벌이러 온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는 추구하지 않고 그저 말싸움을 벌이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것이 정상 인성의 표출이나 모습이더냐? 정상 인성에 갖춰야 할 이성이더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상 인성의 이성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예배할 때 분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어 자신의 패괴 성품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흠을 찾으려 다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중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으려고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며 정죄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 말씀 밖에 둔다.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유독 잘하고 몰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폭로하는 각종 문제, 내적 상태,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찾아낼수록 자신의 책임이 막중하고 자신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문제를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류에게 이성이 있겠느냐?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부류가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교란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가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교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그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폭로당하고는 같은 방식이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경우, 사안이 심각해서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켰다면 봐주지 말고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 선민과 격리해야 한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 중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에 해당하는 모습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서로 허물을 들추고 서로 패괴 성품을 폭로하는 것으로 자기 분풀이를 하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모습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외에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기를 해부하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해부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은근히 비꼬는 말이든, 완곡하게 에둘러 하는 말이든 전부 공격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공격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말을 하는 속셈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보복하거나 자기 분풀이를 하기 위한 것은 공격에 해당한다. 이것이 한 가지 경우이다. 그 밖에 사실의 실상과는 다르게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을 부풀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살피지 않고 무책임하게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 자기 분풀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공격에 해당한다. 또 무엇이 있느냐?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터무니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이냐? (세 가지입니다.) 그 몇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정리해 보아라. (첫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의 실상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책임하게 멋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각 항목의 성질은 모두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가 인신공격이고 어떤 경우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 공격하는 사람의 경우 그의 어떤 행동과 말이 공격이 되느냐? 만약 그의 말에 유도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오도하고 요언을 날조하는 성질도 조금 있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고 오도한다면, 또 그의 속셈과 목적이 그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며 믿고, 그의 말이 모두 진리에 부합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려는 것이라면, 아울러 그가 상대방에게 보복하여 상대방이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가 되게 하고 싶어서 '당신의 그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약점을 들추지 않을 수가 없네. 기고만장한 기세를 눌러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디 계속 과시하고 뽐내 보시지! 당신 때문에 내가 돋보이지 않잖아? 기어코 당신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코를 납작하게 해 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당신도 소극적일 수 있고 연약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만약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말은 공격이다. 만약 그가 사실의 실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동안 체험하며 이 일에 대해 정확한 견해를 가지게 되고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여 어떤 이해 방식이 순수하고 올바른 것인지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교제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의 목적이 이 일에 대한 더 많은 사람의 치우치거나 단편적인 견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공격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사사로이 보복하려는 속셈도 없다. 단지 사실의 실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깨닫게 해서 앞으로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않든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과 행동 방식은 공격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의 경우, 말과 단어 사용에서, 그리고 대화 방식이나 말투 및 대화의 태도에서 그의 속셈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만약 그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분명 말에 날이 서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의 말투나 어조, 단어 사용, 태도에서 그의 속셈과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더욱이 공격하지도 않는다면 그의 말은 분명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의 모습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말하는 태도나 말투, 단어 사용이 분명 이성적일 것이고 정상 인성의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인신공격이고, 무엇이 인신공격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원칙에 관해 교제하고 나니 분별할 수 있겠느냐? 만약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게 교제한다 해도 그가 만약 원칙에 따라 실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물고 늘어지면서 온 힘을 다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겉으로는 사람을 분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의 속셈과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사람 간에 발생하는 그 정도의 일은 간단명료해서 진리를 교제한다면 예배 한 번만으로 교제를 마칠 수 있을 것인데, 예배 때마다 말을 많이 하면서 형제자매의 시간을 빼앗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늘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면 공격이 되고 교란이 된다. 한 가지 일을 붙잡고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아무도 자신의 속셈과 목적을 내려놓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인식하지 않으며, 아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의 실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떤 성질이냐? 그것이 바로 공격이다. 약점이나 말꼬리, 트집을 잡고 한 가지 일을 한도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얼굴을 붉히며 다툰다. 만약 정상 인성 속에서 교제하면서 상대방을 붙들어 주고 도와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면 사람 간의 관계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반면 서로 공격하고 논쟁하며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논리를 펼치려 한다면, 늘 우위를 차지하려고만 하고 굽히기 싫어하며 타협하지도 않고 개인의 원한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긴장되고 악화될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없고 만나기만 하면 심지어 눈에 핏발이 서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개들이 싸울 때 사나운 개의 눈동자에 핏발이 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눈에 왜 핏발이 서겠느냐? 그 속에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 간에 서로 공격하는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교제할 때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붙들어 준다면 관계가 나쁠 수 있겠느냐? 분명 점점 정상화될 것이다.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으로 말하고 한담하고 교제한다면 논쟁이 일어나더라도 사람 간의 관계는 정상적일 것이고 마주치기만 해도 화를 내거나 다툼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만나지 않을 때조차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고 이유 없이 화가 치민다면 이는 정상 인성의 이성과 양심이 있는 모습이 아니다. 사람 간에 서로 공격하는 것은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논쟁이 생겼을 때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사람 간에 서로 허물을 들추고 판단하며 심지어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늘 벌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늘 비이성적인 내적 상태에 놓여 패괴 성품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진리를 좀 깨달아도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쟁과 여러 가지 공격이 일어나기 쉽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가끔 일어난다면 교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하지만 시종일관 서로 공격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심각한 영향과 방해를 일으킨다.

(3) 말싸움을 벌인다

교회에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 해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류이다. 예를 들면 잘못을 하나 저지르거나 말실수를 한 마디 한 경우 남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볼까 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봐 걱정한 나머지 예배 시간에 그 일을 해명하고 설명한다. 설명하는 목적이 남들이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척 공을 들이고 대단히 신경 쓰면서 온종일 이렇게 고민한다. '이 일을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게 갖게 된 안 좋은 생각을 반박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가 이 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예배 시간이 되자 그가 이야기한다. "저는 지난번에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폭로하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오해한 분들이 늘 저를 겨냥하고, 제가 욕심과 야심이 있다고, 제 인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설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겠어요? 전 그런 짓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아무개에 관해 뒷담화를 한 것도 일부러 그 사람을 못살게 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비판도 하면 안 되나요?" 그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해명하고 변명하면서 상대방의 문제도 많이 폭로하는 목적은 바로 해명하는 것이다. 자신은 패괴 성품을 표출하지 않았고, 인성이 나쁘지 않으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구나 악의가 아닌 선의로 그런 것인데, 자신의 선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그로 인해 정죄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 말의 저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는 무고한 반면 자기를 그릇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렸다. '그 말인즉슨 당신에겐 패괴 성품이 없다는 거네? 결국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건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나를 겨냥하는 거지? 난 당신을 겨냥하거나 공격할 생각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 부딪치거나 조금만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언짢아해요. 곧장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죠. 늘 결백한 척하고 자기를 미화하고 뽐내려고만 해요. 당신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스스로 미화하려 하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진리를 교제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를 겨냥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공격하거나 앙갚음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이 진리를 교제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은 "저는 교회 사역을 위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이 하는 짓을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조금 착하고 유능하며 언변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깊이 숨긴다고 하나님께서 못 보실 거라 착각하지 말라고요. 형제자매도 다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못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모르나요?"라고 한다. 이 두 사람이 무엇에 관해 논쟁하고 있느냐? 한쪽은 스스로 해명하며 결백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나쁜 인상을 갖지 않게 하려 애쓰고, 다른 한쪽은 물고 늘어지면서 그가 스스로를 미화하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훈계하는 식으로 그를 폭로하고 정죄하려 한다. 겉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서로를 욕하거나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폭로하지는 않았지만 양쪽 다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의 결백을 밝혀 주려 하지 않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를 정죄하여 그가 시인하게

만들려 한다. 이런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양심과 이성에 따라 하는 대화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성질의 대화에 해당하느냐? 이런 대화는 공격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해명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를 인식하여 실행해야 할 원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해명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과 관점 및 속셈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결백을 밝혀 주게 하려 하고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폭로와 정죄를 부정하려 한다.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나 진리에 부합하든 말든,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며 바로잡으려 한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의 결백을 밝혀 주려 하지 않고 계속 그를 폭로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정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한 사람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공격을 주고받게 된다. 이런 대화의 성질은 서로 공격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은 어떤 성질의 공격이냐? 서로 부정하고 원망하며, 정죄하는 대화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는 모두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서로 시비와 잘잘못을 따지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누구 하나 얻는 것이 없이 그저 끊임없이 그 일만 물고 늘어지니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고 우열을 가리기 위해 입이 닳도록 주저리주저리 떠들며 쉼 없이 논쟁했지만 결국 결판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계속 따지려 한다. 결국 얻은 게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자기를 더 인식할 수 있었느냐? 그런 수확은 전혀 없었다. 이런 무의미한 논쟁과 시비,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가 바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혀 무의미한 대화이다. 전부 쓸데없는 말일 뿐이라 사람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되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내뱉는 말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서 죄다 사람의 뜻, 혈기, 사람의 머릿속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당연히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모든 말이 전부 자신의 이익과 체면, 명성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유익을 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 한 측면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도 아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폭로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측면의 패괴 성품인지, 자신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인식이 맞는지 토론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런 무의미한 해명과 변명은 아무리 듣기 좋고, 진지하며, 경건해도 전부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며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람 간의 정상적인 관계에 지장을 주고, 자신의 생명 성장에도 차질을 빚는다. 어쨌든 어떤 변명이나 속셈, 어떤 태도나 말투, 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사람이 제멋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런 말과 방식 등은 모두 말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남을 공격하는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가 크지 않으냐? (무척 큽니다.) 그럼 누가 너희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너희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행동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너희는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 증오가 사라집니다.)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속셈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남을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않게 된다. 사람의 속셈과 목적이 개인적으로 분풀이를 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은 진리가 너무 얄팍해서, 또는 약간 우매하고 무지하거나 자기 고집이 강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힌 것이라면, 사람의 도움과 붙들어 줌, 교제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견해도 좀 더 정확해지며, 다른 사람이 표출하는 패괴 성품이나 잘못된 행동을 올바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판단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늘 패괴 성품 속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거나 누가 자기에게 미움을 사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 기회를 틈타 보복하려 한다면, 그가 늘 이런 속셈을 가진 채 진리는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남을 공격할 수 있다. 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무의식적인 공격은 해결하기 쉽지만 의식적이고 속셈이 있는 공격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무의식적이고 일시적인 공격이나 판단의 경우, 진리를 교제하여 붙들어 주고 도와주면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후 돌아설 수 있다. 하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며,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남을 공격한다면 남들도 다 감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행동은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며, 이는 완전히 의도적인 방해와 교란이다. 그러므로 남을 공격하는 그런 성품은 변화되기 어렵다.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면 증오심이 점점 사그라들 것이다.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에는 주로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부류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면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속셈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공격하는 것일 뿐이며, 책망하고 훈계하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정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악인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생활에 항상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며 늘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며 억압하고 보복하면서 진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자는 악인에 해당한다. 이런 악인이야말로 교회에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부류이다. 어째서 그들을 해결하고 정리해야겠느냐? 그들의 본성 본질에서 보면 그들이 남을 공격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속셈을 품은 고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인성은 악독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거론할 수 없다. 누군가 만약 말을 하다가 실수로 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면 그는 기회를 틈타 보복할 궁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는 남을 공격할 수 있으니 교회에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한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 능동적으로 공격했든 수동적으로 공격했든 남을 공격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두 속내가 음험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남을 괴롭히려 하는 악인에 속한다. 이런 부류는 교회 생활에 심각한 교란과 방해를 일으킨다.

그들은 교회에서 악인의 한 부류이니,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격리하여 반성하게 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제명하거나 출교시켜라. 이것이 리더 일꾼이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알아야 할 원칙이다.

교제를 통해 너희는 무엇이 남을 공격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이 공격인지 정의한 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공격하는 범위가 이렇게 넓으면 앞으로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입만 열면 남을 공격하게 되잖아.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론 밥이나 먹고 물이나 마시면서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어. 함부로 말하다가 남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입을 다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훨씬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옳은 생각이냐? 입을 다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남을 공격하는 문제의 본질은 사람 마음의 문제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 입의 문제가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패괴 성품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의 패괴 성품이 해결되고,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말에도 원칙과 적정선이 조금 생길 테니 남을 공격하는 것도 일부 해결될 것이다. 물론 교회 생활에서 사람 간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말싸움을 벌이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온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무의식적으로 네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여 그걸 따지지 않고 상대방과 논쟁하고 싶지 않으며 해명이나 변명 따위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네게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네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에 감사하게 된다. 이것은 너 자신을 인식할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네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네 문제를 언급하거나 네 단점을 들춘 사람에게 반감이나 증오를 품어서도 안 되며, 또는 무심코 그를 피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그에게 보복해서도 안 된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나면 누가 무의식적으로 네게 상처를 줘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고 포용하고 인내할 수 있다. 만약 누가 의도적으로 네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혈기로 그와 논쟁하겠느냐,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대하겠느냐? 물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을 취해 진입해야 옳은지 잘 알 것이다.

사람의 힘이나 자제력과 인내로는 교회 생활에서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하기 아주 어렵다. 네 인성이 아무리 좋고 네가 아무리 온유하고 착하며 도량이 넓어도, 네 존엄, 인격 등을 훼손하는 사람이나 일을 맞닥뜨리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네 마음속에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혈기로 대한다면 아주 간단하다. 그가 너를 욕하면 너도 그를 욕하고, 그가 널 공격하면 너도 그를 공격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면서 네 존엄과 인격, 체면을 지킬 수 있는데,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취할 만한 것인지, 너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은 늘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한다. '그가 내게 무례하게 구는데 내가 그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나? 그가 나한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왜 그를 사랑으로 대해야 해? 그가 나한테 인내심을 갖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인내하고 도와야 하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랬어. 나라고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데?' 가장 먼저 이런 생각만 한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네 마음이 편하겠느냐, 아니면 괴롭고 불안하겠느냐? 네가 정말 이런 선택을 한다면 어떤 수확이 있겠느냐? 무엇을 얻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체험했다. 물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분량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증오에서 비롯된다. 또한 모욕당했을 때 존엄과 인격이 받는 위협이, 그리고 도발하는 말을 듣고 나서 받는 상처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 불복과 울분 등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너는 곧바로 어떻게 말로 그를 대응할지, 어떻게 해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서 네가 존엄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불안하거나 증오가 생길 때, 네가 마음에 품는 생각은 그를 인내하고 포용하며 올바르게 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질투, 반감, 혐오, 증오, 원한, 정죄 등 모든 부정적인 것이다. 심지어 너는 속으로 수없이 저주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밥 먹고 잠 잘 때조차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보복할지 생각하며,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고 정죄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응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지 등을 상상하기도 한다. 너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네 분노와 증오를 풀며, 상대방이 네게 승복하고 네가 두려워서 감히 다시는 너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본때를 보여 줘서 상대방에게 네 위력을 알게 할지도 늘 고민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상상했던 장면이 네 머릿속에 자꾸 떠오를 때 네게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네가 말싸움을 벌이고 서로 공격하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어떤 결과를 야기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기가 쉽겠느냐? 생명 진입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일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만약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누가 네 이미지와 체면을 깎아내리고 네 인격과 존엄을 모욕해도 너는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말로도 상대와 논쟁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의도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며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증오심을 품지도 않을 것이다. 포용의 본질과 의의가 무엇이냐? 너는 "그가 하는 말 중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지금은 진리를 깨달아서 이방인처럼 논쟁하고 시비를 가리거나 투쟁하는 철학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포용을 택해서 사랑으로 대하죠. 그가 말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의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죠. 저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배치해 제 패괴 성품을 드러내 주셔서 제가 이런 패괴 성품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점차 그것을 극복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누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별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용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차분하게 앉아서 교제하면 된다. 반면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이라면 그를 상대하지 마라. 그가 충분히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면 모든 형제자매가 그를 완전히 분별하고, 너도 그를 완전히 분별하게 된다. 그때면 리더 일꾼이 그를 제명하거나 처리할 것인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그를 해결하는 때이다. 물론 그때가 오면 너도 아주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결코 악인과 말싸움을 벌이거나 그 어떤 논쟁이나 변명을 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닥치든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 네게 상처 준 사람을 대하든, 네게 상처 주지 않고 득이 되는 사람을 대하든 실행의 원칙은 똑같다. 이런 길을 택할 때 네 마음에 원한이 있느냐? 아마 다소 불쾌할 수도 있다. 존엄이 훼손되고도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괴롭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기만이다. 하지만 네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인내하고 그 고생을 견뎌 낼 수 있다면, 이런 길을 택한다면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할 것이다. 어째서 떳떳하겠느냐? 왜냐하면 너는 자신이 혈기로 말하지 않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남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지 않았으며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택한 길이 하나님이 가리키고 하나님이 요구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평안한 것이다.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사람 간의 증오나 개인적 원한이 너를 교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정말 내려놓고 기꺼이 긍정적인 길을 택하고자 하면 네 마음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분노나 증오, 그리고 증오로 인해 생긴 복수심이나 계략 등 혈기에 속하는 것들은 너를 교란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택한 길이 네게 평안과 조용한 마음을 주면 혈기에 속하는 것들은 너를 교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교란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과 말싸움을 벌일지 생각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간혹 사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혹은 일부 특수한 배경 때문에 혈기나 충동, 원망이 일어나겠지만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의 결심, 의지, 바람이 있기에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너를 교란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마음에 혈기가 치밀어 올라서 '저 사람은 계속 날 못살게 구네. 언젠가 나도 왜 나만 가지고 못살게 구냐고, 왜 늘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냐고 한마디 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너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너는 재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런 내적 상태를 돌려세우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널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부 긍정적인 것들이 네 안에서 솟아난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네게 준 깨우침과 빛 비춤이 네가 사람을 분별하고 일을 간파하게 하여 너도 모르게 더 많은 진리 실제를 깨닫고 그 속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 저항력, 즉 증오나 사람의 사리사욕, 사람의 혈기에 대항하는 '항체'가 점점 강력해지고, 네 분량이 점점 커질 것이니 혈기에 속하는 것들은 너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간혹 네게 잘못된 견해나 생각, 충동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네 저항력과 분량에 의해 배제되고 제거될 것이다. 이때 긍정적인 것, 진리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것이 주도하게 되면 너는 외부의 사람과 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네 분량이 커질 것이고 내적 상태가 점점 정상화될 것이며, 더이상 패괴 성품에 따라 살면서 악순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사람의 분량이 끊임없이 커질 것이다.

교회나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만약 인신공격을 받아 존엄이나 인격이 훼손되었는데도 포용과 인내를 택하고 올바른 실행의 길을 택한다면 이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런 유익은 아마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너는 체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길이 광명의 길이요, 참되고 살아 있는 길이며 사람에게 진리와 유익을 주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겨 낼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너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거나, 네게 보복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분풀이를 하더라도 너는 진리 원칙에 따라 대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증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이 닥쳐도 혈기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알려 주는 것이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람의 인내에 원칙이 생기고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지지대가 된다. 하지만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거나 남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며 혈기 속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공격받았을 때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벌이고 서로 공격하기를 좋아할 테니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고 상처만 줄 것이다. 누구든 서로 공격하며 말싸움을 벌이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지칠대로 지치며 양쪽 모두 상처만 얻을 뿐 그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한다. 최종에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하며 증오만 남고 보복할 기회만 엿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 끝에 사람에게 가져오는 악결과이다.

방금 교제한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는 주제와 관련하여 너희는 분별의 원칙을 깨달았느냐? 어떤 경우가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서로 공격하는 것은 주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있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 인신공격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욕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보복하고, 되받아치고, 자기 분풀이를 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모습도 아니라 혈기나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앙갚음하고 남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목적은 결코 진리를 확실하게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자 논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자신의 패괴 성품과 야심, 사리사욕, 육적인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로 공격하는 것은 분명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남을 도와주거나 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고 농락하며 우롱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식이다. 사람은 패괴 성품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진리 실행을 택하지 않으면 이런 올무나 시험에 걸려들어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분위기에 휘말리기 아주

쉽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혹은 눈짓 하나 때문에 얼굴을 붉히도록 논쟁하는 것도 모자라 쉴 새 없이 떠들고 주야장천 이 일 때문에 누가 더 잘났는지 따지고 필사적으로 싸운다. 만나기만 하면 끝도 없이 다투고 심지어는 컴퓨터 채팅방에서까지 서로 공격하고 욕하며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 이 증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느냐! 예배할 때 욕한 것으로는 성에 안 차고 분이 안 풀리며,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 집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계속 욕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태도냐? 이런 걸 고취하고, 권장할 가치가 있느냐?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두려움이 없는 위대한 태도'이냐? 이것은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도 규칙도 없는 태도이며,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켜 초래한 결과이다. 물론 이런 행위나 행동 방식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막대한 교란과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교회 생활에도 교란과 방해를 일으킨다. 그러니 리더 일꾼은 이런 일에 직면할 경우,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면서 끝을 보겠다고 맹세하면 당장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되고 방치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지켜서 모든 예배가 효과를 이루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형제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현장에서 그들이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면 제때 저지하고 제때 해결해야 한다. 제재할 수 없으면 즉각적으로 예배 모임을 가지고 그들을 폭로하고 해부하고, 그들을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지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며 자기 분풀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 누구든 항상 교회 생활을 교란하여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다면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환영하지 않으며 마귀의 교란과 악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을 모두 정리해 내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에서 만약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든, 그들이 논쟁을 벌이는 초점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이든 아니든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면 인정사정없이 즉시 처단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저지하지도 못하고 제재하지도 못한다면 그들을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 리더 일꾼이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해야 할 사역이다. 관용을 베풀어 나쁜 일을 키우거나 그들을 방치하는 것, 또는 마치 공정한 재판관처럼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원칙이 아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이치에 맞고 누가 이치에 맞지 않는지 보고 명확히 시비를 가린 후에 똑같이 처벌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벌하고 무고한 사람은 보상해 주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일을 처리할 때 너더러 법률로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원칙대로 평가하고 처리하라는 것이다. 서로 공격하는 양측이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면 교회 리더 일꾼은 책임지고 저지하거나 제재하고 또는 격리하거나 제명해야지 양측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이나 각자의 핑계나 이유, 남을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속셈이나 목적,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을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 너더러 자초지종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생활에 초래된 방해와 교란을 없애며,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여기에서 적당히 수습하고 중용의 길을 걷고, 서로 공격하는 양측에게 회유책을 쓰며, 그들이 교회 생활을

제멋대로 방해하고 교란해도 관여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예 방치하고 매번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만으로 끝내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직무 유기이다. 일단 교회에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문제가 일어나 교회 생활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파괴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반감을 일으킨다면 리더 일꾼은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교회 정리 원칙에 따라 양측을 격리하거나 제명해야지 마치 공정한 재판관처럼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거나 남의 가정사를 해결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이 늘어놓는 구질구질하고 장황한 쓸데없는 말을 귀담아듣거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따져서도 안 된다. 시비와 잘잘못을 가린 다음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의 시비와 잘잘못에 관해 토론하고 교제하게 되고, 반감과 혐오를 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이 지체되니 이는 더더욱 리더 일꾼의 직무 유기이다. 이런 실행 원칙은 옳지 않다. 만약 언젠가 제재를 당한 양측이 회개하여서 더 이상 예배 시간을 차지하며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들에 대한 격리를 풀어 주어도 된다. 만약 악인이라서 제명했는데 누가 그들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들에게 회개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한다. 설사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더라도 면밀히 주시하고 그들의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그들이 보이는 모습에 따라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모두 교회 리더 일꾼이 깨닫고 유념해야 할 원칙이다. 물론 이 일은 주관적인 추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는 것이 반드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는 성질이어야 한다. 잠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했고, 상대가 한 마디 맞받아쳤다고 해서 말을 못 하게 하고 격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리더 일꾼은 반드시 원칙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네가 제멋대로 굴거나 터무니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부합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의 사역에 관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무엇이 공격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리더 일꾼 또한 이 사역을 할 때 파악해야 할 원칙과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4) 제멋대로 남을 정죄한다

서로 공격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용어를 좀 안다고 항상 영적인 용어를 써 가며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마귀니, 사탄이니,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느니,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바리새인이니 등 말을 써 가며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공격성을 띤 성질이 아니겠느냐? 예전에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와 왕래할 때 누구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 고민을 하였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욕하면 체면이 서지 않고, 성도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욕하거나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아선 안 돼. 그런데 욕을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분도 풀리지 않는단 말이지. 늘 욕하고 싶은데 뭐라고 욕하면 좋으려나?' 그래서 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다. 자기에게 미움을 사거나,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악마귀!", "당신이 바로 악마귀군요!", "누구누구는 바로 악마귀입니다!"라며 욕했다. 마귀 앞에

‘악’자가 붙은 이 말은 듣도 보도 못하던 말이다. 아주 신선하지 않으냐? 그가 함부로 형제자매에게 악마귀라고 욕하는데 누가 그런 욕을 듣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예를 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물을 따라 달라고 했는데 형제자매가 마침 바빠서 직접 따라 마시라고 하면 그가 “이런 악마귀를 봤나!”라며 욕한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는 화를 낸다. “당신들은 악마귀입니다. 하나같이 게을러요. 제가 본분을 이행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니요!”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악마귀라고 욕을 먹을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입니다.) 어디가 악하냐? 그에게 미움을 사거나 그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은 모두 악마귀이다. 자기는 아니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 그저 화풀이하고 분노를 쏟아 낼 수 있는 단어를 내키는 대로 찾아 욕을 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 남을 욕하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다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 보고 마귀라고 하면 욕이 아니니, 남들이 듣기에도 합리적으로 들릴 거고, 그러면 그의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사람들이 딱히 문제 삼을 수 없다. 이자는 몹시 교활하고도 악해서 가장 악랄하고 반박할 수 없는 말로 보복하고 정죄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남을 욕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말이 불합리하다고 말하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그를 피하겠느냐, 아니면 가까이하겠느냐? (피합니다.) 왜 피하겠느냐? 상대할 수 없으면 피해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교회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며, 괴롭히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면 특정 리더 일꾼에게 편견을 품은 일부 사람들은 보복하기 위해 뒤에서 그를 비판하고, 진리를 교제한다는 명분 하에 리더 일꾼을 폭로하고 해부하는데 이런 행동의 속셈과 목적은 옳지 않다. 만약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진실한 체험을 교제해야 하며 자기에 대한 해부와 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더 나은 결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민도 동조할 것이다. 만약 비난하고 앙갚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공격하며, 헐뜯는 것이라면 그 속셈은 옳지 않다. 이는 명분은 물론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들고 형제자매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만약 어떤 사람의 속셈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악인이 악행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민은 악인을 분별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폭로하며 헐뜯는다면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도와주고 교제하며 해부하거나 책망하고 훈계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여러 번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상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며 괴롭히는 악인은 철저하게 폭로해서 모두가 분별하게 하고 그다음 제재를 가하거나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것은 필요한 조치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미혹하며 교회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악인은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이는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어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악인은 항상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하는 기회를 틈타 다른 사람을 에둘러 폭로하고, 해부하고, 억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이를 합리화한다. 이런 명분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니 모두 확실한 악인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악인을 폭로하고 해부하여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악인은 종종 교활하게 악행을 저지른다. 그들은 모두 도리를 내세워 자기를 위해 궤변을 늘어놓아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능하다. 만약 하나님의 선민이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이 교란당해 뒤죽박죽되고 심지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악인이 문제를 교제하고 해부하는 데에는 항상 속셈과 목적이 있고 겨냥하는 바가 있다. 자기를 해부하고 인식하거나, 솔직하게 털어놓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려서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해부하며,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자신에 대한 인식을 교제하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해부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헐뜯으며 폄훼한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큰 반감과 원한을 품고 있다. 그들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그런 사람들의 적극성을 꺾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사역하면 그들의 명예와 이익, 지위에 위협이 될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재하며, 그것도 모자라 꼬투리를 잡아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정죄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증오하는 것이 그들의 성품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특히나 증오하고, 비교적 솔직하고, 비교적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을 증오한다. 비록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가짐이 그렇다. 어째서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만 겨냥해 폭로하고, 헐뜯으며, 억압하고 배척하겠느냐? 이는 분명 좋은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으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진리를 교제할 때 그들은 왜 자기를 폭로하거나 해부하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겨냥하고 폭로하느냐? 설마 그들에게 패괴 표출이나 패괴 성품이 없다는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기어이 다른 사람을 겨냥해 폭로하고 해부하느냐? 도대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회를 교란한 악인의 악행을 폭로한다면 이는 마땅한 행동이지만 이런 부류는 굳이 진리를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좋은 사람을 폭로하고 괴롭힌다. 그들의 속셈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실상 그렇다.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지 않으니 악인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좋은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악인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무슨 문제이냐? 만약 그가 진리에 대해 인식이 있고, 자기에 대해 인식이 있다면 솔직하게 교제할 수 있겠지만 그는 늘 다른 사람을 겨냥하고, 도발한다. 또한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상의

적으로 삼으려고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다.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마귀 사탄이고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니 마땅히 제재받아야 한다. 만약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면 제때 처리해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 좋은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은 암적인 존재이다. 왜 암적인 존재라고 하겠느냐? 그는 교회에서 불필요한 분쟁, 의견 충돌을 일으켜 사태를 점점 심각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을 겨냥하며 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화살을 겨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교란하기 쉽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는 데에 지장을 준다. 이들 악인은 언제나 교회 생활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진리를 교제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그들은 말에 항상 적의를 품고, 도발적인 언사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할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있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그들이 남들을 서슴없이 정죄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발언도 다른 사람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니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혀 흉흉하게 만들고 사람 간의 관계에 긴장감과 적대감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다툼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교회 생활에 지장을 주고 교회에 다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복음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 일꾼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아울러 이들을 제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늘 남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악인을 형제자매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남들에게 타격을 주고 남들을 정죄하는 행동을 교회 리더가 제때 폭로하고 저지해야 하고, 만약 여러 번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악인이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불어 어리석은 자의 말이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 만약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폭로해야 하지, 절대 악인이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게 되고,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정상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교회에서 이런 부류의 악인을 본 적이 있느냐? 그는 늘 속으로 좋은 사람을 질투하고 겨냥한다. 오늘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내일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누구한테든 잔뜩 흠을 잡고 이러쿵저러쿵 비평하고, 그것도 논리가 정연하고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암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교회는 교란받아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며 예배드려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생긴다. 이런 악인이 암적인 존재가 아니겠느냐? 만약 제명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를 격리하거나 제재하는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그를 구석 자리에 앉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기어이 기회를 잡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려 하면

제재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가 폭발하고 반항하려 하면 그를 제때 정리하여라. 그러니까 그가 제재받는 것이 싫어서 "무슨 근거로 제 말을 막으시죠? 무슨 근거로 당신들은 죄다 5 분씩 말하면서 저만 1 분으로 제한하시나요?"라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바로 반항하려는 때라는 것이다. 그가 반항하려 할 때가 불복할 때가 아니냐? 말썽을 피우려는 것이고, 소란을 피우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 생활을 교란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본색을 드러내려는 것이며 그를 처리할 때가 된 것이니 서둘러 그를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온갖 악인과 악령,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특별한 인재'들이 다 튀어나와 교란하려 드는데 제재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일부 '특별한 인재'는 입만 열면 남들을 헐뜯고 공격한다. 네가 안경을 써도 공격하고, 머리숱이 적어도 공격한다. 네가 예배 시간에 자신의 체험 간증을 얘기해도, 네가 본분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도 공격하고 판단한다. 네게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져도 공격하고, 네가 연약해도, 네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 내도 공격한다. 이런 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들이 무엇을 하든 그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눈에 거슬리며, 생트집을 잡으려 하고,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며, 남들이 어떻게 하든 다 틀렸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진리를 교제하고 문제를 처리해도 그는 꼬투리를 찾고 트집을 잡으려 한다. 네가 어떻게 하든 다 틀렸다는 것이다. 그가 의도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니 누구든 다 그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하나가 되었든, 둘이 되었든 바로바로 처리하여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니 그 결과가 지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2) 항상 남을 공격하는 부류의 인성 특징

오늘은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을 교제했다. 너희는 이런 몇 가지 측면 중 여러 부류의 사람이 지닌 모습의 성질을 파악하였느냐?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부류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그들에게 정상 인성의 이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성이 없는 모습이 무엇이냐? 사람과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나 원칙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방식과 태도를 취해 여러 사람과 일을 대하느냐? 예를 들어,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과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중 하나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란, 어떤 일이든 시비와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려 하고, 상황을 분명히 해 두거나 누구의 잘잘못인지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꼭 이 무의미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시비를 가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겠느냐? 그것이 진리 실행과 관계가 있겠느냐? (관계없습니다.) 어째서 관계가 없다고 하겠느냐? 시비를 가리는 것은 진리 원칙을 견지하는 것도, 진리 원칙에 관해 토론하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라, 항상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구의 잘잘못인지, 누구 말에 일리가 있고 누구 말에는 일리가 없는지, 누구의 이유가 충분하고 누구의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지, 누가 말하는 도리가 더 깊은지 등등을 따지며, 늘

그런 것만 추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 사람은 늘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이러저러한 이유와 원인을 댄다. 하나님이 너와 그런 것들을 논하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원인이나 이유를 물어보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시련을 주었을 때 네가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는지, 아니면 반항하는 태도를 취했는지 물어볼 뿐이다. 하나님은 네가 과연 진리를 깨달았는지, 순종했는지만 물어본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물어본다. 하나님은 네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며, 네 이유가 충분한지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네가 순종했는지를 볼 뿐이다. 네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 당시에 네가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네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네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감찰할 뿐이다. 하나님은 너와 시비를 따지지 않으며, 네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네가 진실로 순종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네게 그 한마디만 물어볼 뿐이다. 이것이 진리 원칙이 아니냐? 시비를 가리고 말싸움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부류에게 진리 원칙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진리 원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진리 원칙에 대해 중시했겠느냐? 추구했겠느냐? 구해 보았겠느냐? 그들은 중시하지도 추구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 원칙이 아예 없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관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비와 옳고 그름, 핑계와 이유, 궤변과 논쟁뿐이며, 그러고 나서는 서로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런 부류는 시비를 논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니, 결국 징벌받는 결말을 맞이할 뿐이다.

시비 걸기 좋아하는 부류가 진리를 구하더냐? 이런 사람과 일, 사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구하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실행해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구하더냐? 그러지 않았다. 일이 생기면 그들은 '그 일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지' 연구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이유를 따지고, 일이 발생한 경위를 따지는 등, 그런 일은 확실히 얘기하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단계에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깨닫거나 깨우침을 얻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체험이나 실행법도 없다.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 일은 분명 저를 겨냥하고 저를 모욕한 거잖아요. 제가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멍청한 줄 아세요? 왜 저를 모욕하나요? 저는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겨냥하시나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참았는데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이 일을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치를 내세우고 이 일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이 이치란 것은 진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 그가 사람과 일에서 걸고넘어지니 남들이 질려서 듣기 싫어하는데도 그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따지고 든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이다. 이것을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것이라 한다. 즉,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부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가 알겠느냐?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표면적인 현상으로 볼 때 그가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숭배하는 이념이 무엇이냐? 바로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옳고, 당당하게 남들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윤리도덕이나 전통문화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의 동조를 받으면 그것이 이치라는 것이다. 이 이치가 그에게는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가 대놓고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면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일리가 있는 것이 진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너무 골치 아프지 않으냐? "저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았고, 남들에게서 잇속을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악인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네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자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냐?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이 반듯하니 그림자가 기울어도 걱정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올곧고 강직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닥치면 다투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반드시 자기 이치를 내세우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치가 설득력을 얻고 공개적으로 내놓아도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자기가 진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의 '진리'가 무엇이겠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냐? 너희가 볼 때 이런 부류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늘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한테만 그러는 건 안 되죠!"라고 말한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나도 복수하겠어. 당신에게 되갚아 주겠다고. 이건 정당방위고 합법적인 거야. 이게 바로 진리 원칙이지. 그러니 당신의 행동은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내 행동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니까 나는 일을 따지고 들 것이고 계속 그 일과 그 사람을 거론해야겠어!' 그는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것이 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려도 한참 틀리지 않았느냐?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방향부터 잘못되었다.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이것이 이런 부류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것이다. 인성 측면의 문제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본성과 관계가 있지 않으냐?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공명정대, 정정당당, 넓은 아량, 떳떳함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리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부류는 비정상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다. 그 첫째는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는 것이다. 셋째가 무엇이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맞는 말조차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 '설사 당신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내 체면을 생각해서 완곡하게 말해야 해. 내 체면 깎이지 않게 해야 돼. 만약 예리한 말이라서 내 체면을 구길 수 있다면 나한테 따로 말해 줘야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서 체면을 구기고 물러날 여지도 주지 않으면 안 돼. 더군다나 당신 말이 틀렸으니 되갚아 주겠어!'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반항하는 것이다. "당신 말이 아무리 맞는다고 해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이 누굴 얘기하든 상관없는데 날 겨누는 것만큼은 안 돼. 당신 말이 맞는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겨냥하고, 자기를 폭로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을 싫어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마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을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면전에서 그의 문제나 그의 내적 상태를 지적하거나, 무심코 그에 관해 언급한다면, 그것이 일부러 자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맞받아쳐서 말싸움을 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는 진리를 눈곱만큼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류의 인성 본질인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말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말싸움을 벌이든, 이런 부류의 인성은 자명하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설사 설교를 알아듣는다고 해도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서로 공격하고 계속해서 말싸움을 벌이거나 늘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에 해당하겠느냐? 우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진리를 구해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관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며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때, 그들이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진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지 못하는 걸' 볼 때, 남을 공격하고 남들과 말싸움을 벌이기 좋아하는 부류는 좋은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진리와 관련된 일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견해를 갖든 본인이 옳다고 여기고 전혀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설령 진리를 분명하게 교제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아울러 이런 부류에게는 더 가증스러운 모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글귀와 도리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거창한 도리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공격, 판단, 정죄하며, 그것도 모자라 속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는데 제압하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든 공허한 이론으로 널 속박하려 할 것이다. 네가 만약 계속 불복한다면 더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에게 굴복하고 연약해지며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혹은 네가 그에게 탄복하거나 그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는 흡족해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류의 행위 모습 및 진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성은 어떠냐? 이들 중 다수가 모두 악인이며 보수적으로 말해도 90% 이상이 악인이다. 악인은 범사에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며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늘 이런 기세이다. 또한, 악인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과 일을 걸고넘어지며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진다. 항상 자기 이치만 따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찬성하고 옹호하며 자신이 옳다고 말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이 일어나면 항상 기회를 찾아 사람을 포섭하고 통제하려 한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느냐?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 사람들이 모두 본인을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으니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흐뭇해하고 즐거워한다. 그가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자기 혼자 우뚝 서 있으면 사람을 통제한 것이 아니냐? 그가 사람을 통제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해 쓰러뜨려서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을 소극적이고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해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잃고 갈 길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그가 기뻐하고 흡족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류 중 악인이 많지 않겠느냐? 네가 보기에 어떤 부류가 사람들 속에서 남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것 같으냐? 면전에서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공격하고, 각종 방식으로 공격한다면 이런 부류가 바로 악인이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교제하지도 않는다. 항상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세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으며 행실이 곧고 바르다며 늘 자기가 성인군자, 떳떳한 정의 사도라고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진리나 하나님 말씀을 전혀 증거하지 않고 그저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며 자기만의 이치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의 속셈과 목적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자주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부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쪽이든 공격을 받는 쪽이든, 만약 그들이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킨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서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제재해야 한다. 그들에게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하고, 그들 멋대로 개인적인 원한, 일시적인 화 때문에 분풀이나 보복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 리더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 이런 부류가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해서 많은 사람이 교란당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일 때는 제때 저지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저지하고 제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들이 계속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여 다른 사람을 교란하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파괴한다면, 이런 부류를 제명하거나 출교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리더의 직책이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부류의 행위 모습에 관해 많은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인성에 관해 방금 간단하게 해부하고 교제하였다. 이는 너희가 이런 부류에 대해 좀 더 분별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을 제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부류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할수록 그들을 더욱 빨리 분별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류가 너희에게 일으키는 교란도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부류가 교회 생활과 하나님 선민에게 미치는 해를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알 것이다. 그들은 절대 스스로 반성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때 처리하거나 제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생활에 지속적으로 방해와 교란을 일으킬 것이니 이런 부류를 처리하고 제명하는 것은 교회 리더가 등한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2021 년 6 월 5 일

리더 일꾼의 직책(16)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4)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8. 관념을 퍼뜨린다

1) 관념을 퍼뜨리는 모습

오늘은 이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에 관해 교제하겠다.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문제에 관해 총 열한 가지를 열거했다. 지난번에는 일곱 번째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에 관해 교제하였고, 오늘은 여덟 번째 '관념을 퍼뜨린다'에 관해 교제하겠다. 관념을 퍼뜨리는 문제도 교회 생활에서 자주 발생한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관념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은 자주 일부 관념들을 퍼뜨려 교회 생활을 교란한다. 이런 행위는 교회에서 반드시 제재해야 하고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교제하여 해결해야 한다. 관념을 퍼뜨리는 것은 글자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듯 적절한 행위가 아니고, 긍정적인 사물이 아닌 부정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마땅히 저지되고 제재되어야 한다.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든, 어떤 저의를 품고 있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념을 퍼뜨리면 교회 생활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백퍼센트 무조건 제재해야 한다. 어떤 측면으로 봐도 관념을 퍼뜨리는 일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리더이든, 형제자매이든 모두가 이 일을 분별하여 제때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해야지 그가 관념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하도록 계속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이 관념을 퍼뜨리는 말인지부터 교제해 보자. 이를 분별하고 나면 사람은 무엇이 관념을 퍼뜨리는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방치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저지하고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퍼뜨린다

관념을 퍼뜨리는 것에는 대상이 있다. 가장 먼저 누구를 겨냥해 어떤 관념을 퍼뜨리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사람이 퍼뜨리는 어떤 관점이 관념에 해당하는지 알게 된다. 어떤 것이 사람의 관념이고 어떤 행동 방식이 관념을 퍼뜨리는 것인지 알고 나면, 관념을 퍼뜨리는 일을 좀 더 정확하고 사안에 맞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관념을 퍼뜨리는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오해를 퍼뜨리는 것으로, 이것이 중요한 유형이다. 하나님의 신분이나 본질, 성품, 말씀, 사역 및 존재에 관해 사람이 퍼뜨리는, 사실과 다른 관점이나 말은 모두 관념을 퍼뜨리는 것에 속한다. 이는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이 관념을 퍼뜨리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정죄, 심지어 모독을 퍼뜨리는 것이 모두 관념을 퍼뜨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어긋나는 인식이나 하나님의 신분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말과 잘못된 해석을 퍼뜨리는 것은 전부 관념을 퍼뜨리는 것에 속한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은 진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속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며 하나님이 안배해 준 삶의 환경이나 본분 이행의 환경 등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퍼뜨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을 퍼뜨린다. 요컨대 이런 생각은 피조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편견이나 오해, 심지어 판단이나 정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게 되어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며, 진실한 순종이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자기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어 무슨 일이든 평안하고 순조롭게 풀리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정이나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버리고, 헌신하며, 고생하고 인내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모든 일에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의 관점이다. 사람은 이 관점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떠나지 않은 것은 모두 이런 관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악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일할 때마다 많이 고생했고 대가도 엄청나게 치른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일하며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마땅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도록 말이지.' 이것이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득을 보게 되니 어느 정도 고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심리이다.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물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완전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자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관념과 상상이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거래이든, 요구이든, 아니면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든 전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런 거래적 사상 관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인데도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행사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즉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생겨나고 또한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한다. 사람에게 어떤 관념과 오해가 생기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사람의 관념이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람의 관념이나 뜻대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 본질에 따라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원칙대로 대한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관념이나 상상, 사람의 기호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서 사람의 관념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점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련한 어떤 환경이 전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하기까지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의 관념대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나 뜻을 바꾸지 않는다. 이럴 때 바뀌어야 하는 쪽이 어디냐? 사람이다. 사람이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진리를 구해 자신의 관념을 해결해야지, 관념으로 하나님의 행사가 옳은지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이 끝까지 관념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면 하나님에게 반발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평소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순전히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패괴 성품도 전혀 정결케 되지 않고 여전히 패괴 성품에 의지해 산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구원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나 거부감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행사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에 녹아 들어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람이 관념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는 한편으로는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하고 교제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인식하고, 그에 따라 더욱 순종하게 되며 믿음도 더 커진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상상,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배치한 모든 환경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항상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신이 물질과 금전, 육적인 즐거움의 측면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토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일을 대한다. 이리저리 궁리하다 결국 한다는 선택은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도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발하고 거부하며 도피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생명 체험을 잃고 손해를 보게 되며,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만 생긴다. 이런 환경에 반항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형국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품었던 믿음은 결국 무너져버리고,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서 우위를 차지한 관념이 몽땅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실 줄은 생각도 못 했네.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셨어.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단 말이야.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괴로움과 고생을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크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딨어? 왜 난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는 거야? 어째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지? 다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던데 나는 어째서 못 느끼겠지?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환경만 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 사람은 관념이 있어서 자신의 관념에 속아 오도되기 쉽다. 설사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 변화와 생명 성장을 위해 사람에게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환경의 시련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드러나 버린다. 이렇게 드러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는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저는 왜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아무개 좀 보세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보다 많이 버리거나 헌신하지도 않았고, 저보다 많이 봉헌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남편도 승진했죠. 집안 장사도 계속 번창하고 그 집 밭에서 나는 곡식도 다른 집보다 수확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 뭘 얻었나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요!" 이 말이 바로 이런 부류의 본심이자 좌우명이다. 그들은 이런 관념,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과 관점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이익과 거래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고심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심해서 배치한 환경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게다가 자신의 관념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 그들은 이런 관념이 입증되어 자기가 하나님을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관념을 퍼뜨린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관념 속에 무엇이 뒤섞여 있느냐? 원망과 불만, 억울함이 뒤섞여 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쏟아 낼 기회를 찾고, 억울한 사정에 대한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무리를 찾아 그것들을 쏟아 내서 그들이 '당한' 이른바 불공평한 대우를 호소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관념이 교회 생활에 나타난다. 그런 관념은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억울함과 불복,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은 물론 판단과

정죄까지 가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가득하게 된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할까봐 선뜻 떠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불만을 퍼뜨리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정죄, 모독을 퍼뜨린다. 그들이 무엇을 모독하겠느냐? 자기에게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동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들은 자기가 봉헌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큰 복을 자기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바라는 물질, 금전 등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했다며 마음속에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하다. 그들이 관념을 퍼뜨리는 목적은 분풀이하고 보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한편,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관념을 품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계하도록 선동하는 것이다.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들은 흡족해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관념을 퍼뜨리는 목적이자 그 이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관념을 퍼뜨리는 부류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그들이 항상 말하는 명언이 무엇이더냐?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겪고 나서 바라던 이득을 얻지 못하면 속으로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되뇐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 그렇게 되뇌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남들이 어떤 내용으로 교제하든 귀담아듣지 않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되뇌고 몇 차례, 심지어는 십여 차례 곱씹기까지 한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냐?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 믿었느냐? 그가 예전에 믿었다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었느냐? 그 속에 피조물로서 지녀야 할 순종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만 가득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에게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잔뜩 얻어 내려 하고 요구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 주실 거라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육적인 편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 주실 거라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 큰 복을 받으며 이번 생에 백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게 해 주실 거라 믿어!' 이것이 믿는 것이겠느냐? 이 '믿음'엔 순종이 전혀 없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믿음은 순전히 득을 보려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에게 사역하면서 언제 사람에게 행복한 삶, 남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 주겠다고 했으며, 언제 만사형통과 밝은 미래를 주겠다고 했느냐? (그러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의 '믿음'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더구나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의 믿음이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그에겐 진리 실제가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익을 얻으며, 득을 볼 생각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는 머릿속이 관념으로 가득하고 복을 받으려는 속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대단히 괜찮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른바 믿음이란 것을 유독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이 그토록 소중하고 고상하다면 왜 하나님이 배치한 작은 환경에서 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굳게 서서 증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이냐? 하나님이 네 믿음을 검증할 때 너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설마 네가 하나님에게 준 오해와 원망, 반발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느냐?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관념을 퍼뜨린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부류가 공개적으로 관념을 퍼뜨려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끌어들여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며 모독하게 한다면 이는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나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고, 더 이상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퍼뜨리는 관념은 단순한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는 것이며, 그가 속으로 사람의 관념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리하며, 하나님이 한 말씀과 사역을 대하는 것이 올바르고 또 그렇게 실행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공개적으로 관념을 퍼뜨린다면 제재해야겠느냐? 아니면 그들은 분량이 작고, 기초가 부실하니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밝히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저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 저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그가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하게 제재하셨다가 그가 믿지 않게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침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않나요?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시는데 힘겹게 되찾은 어린 양을 또다시 잃어버리시게 해도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옳은 말이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으냐? (이런 부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고, 그의 믿음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불순물이 없느냐? 그것이 이유란 말이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방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의 저의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 예전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환경을 배치해서 나를 난감하게 하고 넘어뜨리시는군.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 예전에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며 그토록 고생했는데도,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어 박해당했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장사가 잘 안돼서 벌이도 남들보다 적어. 우리 부모님은 늘 아프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축복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해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지도 않았잖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 오해뿐이다. 결론적으로는 그가 일방적으로 고생하고 헌신한 다음 하나님이 자기 요구대로 축복해 주지 않고, 그의 관념과 상상대로 보상해 주거나 상을 내려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는 하나님을 잔뜩 원망하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이다. 이런 말은 괜히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많은 행동과 모습을 보였고, 이미 드러났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냐?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전혀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창조주로 여겨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돈줄, 화수분으로 생각했고, 고난에서 구제해 줄 보살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보살이나 우상을 믿는 신도로 생각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처를 믿는 것과 같은데, 채식하고 염불하면서 늘 향을 피우고 머리를 조아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만들어 낸 모든 이야기는 전부 그의 관념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피조물의 모습은 전혀 없고 창조주에 대해 피조물이 지녀야 할 순종도 전혀 없다. 오로지 끊임없이 얻어 내려 하고 계산하며 무조건 요구하기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것이다. 이런 관계는 거래 관계에 속하니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런 사람들이 설령 교회 생활도 하면서 관념을 퍼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가 무엇을 누렸는지 등에 대해 가끔 교제도 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즐거움, 육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진리 실제라고는 전혀 없다. 순탄한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과 인내를 보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누리는 은혜와 혜택, 물질적인 대우를 거둬 가면 그들의 관념이 드러난다. 이렇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익을 최고로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만 하면 분해서 성을 내고 관념을 퍼뜨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 낸다. 아울러 자기를 동정하도록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를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제하는 주제나 사상 관점은 진리에 대한 순수하고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만들지도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가 퍼뜨리는 관념을 듣고 사람들도 자기처럼 속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경고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류가 퍼뜨리는 관념이 다른 사람에게 일으키는 교란이다.

(2)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관념을 퍼뜨린다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도 판단한다. 그들은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며,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배치한 모든 환경을 관찰하고

연구한다. 하나님의 행사가 자신들의 관념에 부합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고, 거룩하다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한다. 반면 하나님의 행사가 자신들의 관념에 어긋나고, 자신들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자신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기면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이 한 말씀과 사역을 부인하고, 심지어 관념을 퍼뜨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도록 선동한다.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마세요. 안 그러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식의 말을 한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100 퍼센트 진리이다. 여기에 혈기나 기만은 없다. 거짓말이나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영적인 이론도 아니라 진리이다. 이 진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네 헌신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심'이란 무엇이냐? 불순한 의도 없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돈을 위한 것도,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며, 자신의 속셈이나 욕망, 목적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 헌신은 강요당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추기거나 달래거나 끌어당겨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고, 양심과 이성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심이라고 한다. 헌신에 대한 바람에서 보면 진심이란 이런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헌신의 실제 행동에서 볼 때 진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거짓과 기만이 없는 것, 요령을 피우거나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등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심 안에 진리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심을 바치고, 얼마 안 되는 저축도 모두 바친다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것들을 전부 바쳐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막상 바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는 곰곰이 생각한다. '아무래도 내가 바친 게 부족했나 봐. 그럼 좀 더 바치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난관에 봉착하면 기도한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고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도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셨어. 아마도 내 진심이 아직 부족한가 봐. 좀 더 기도해야겠어.'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긴 그는 조금 고생해도 두렵지 않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정말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는 생각한다. '이번엔 내게 어느 정도 진심이 생겼으니 어서 집에 가서 가정 형편이 나아졌는지, 아이 병은 호전되었는지, 우리 집 장사는 순조로운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거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 방식, 자신의 관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그는 자신이 이해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한 일은 무엇이고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엿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내릴지, 자기를 크게 축복할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끊임없이 추측하고, 자기가 무엇을 바쳤고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는지

끊임없이 계산해 본다. 그는 끊임없이 사실적 근거를 찾아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한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며, 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상상처럼 그리 쉽게 실현되지 않으며 본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위를 확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념이 한층 심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된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미심쩍어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에게 늘 관념을 품는다. 이렇게 마음속에 관념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를 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수시로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념을 품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 역시 관념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늘 그들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면 그들은 관념을 퍼뜨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 내려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해야 하고, 더 이상 세상에서의 앞날이나 화목한 가정 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등의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또다시 많은 사역을 하면서 3 년, 5 년, 7 년, 8 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곧 끝나리라는 조짐이 없고, 대재난이 곧 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피난처로 피신했다는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관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리도록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의 관념이나 상상대로 그 일을 성취하지 않은 것이다. 성미 급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불만을 갖는다. '하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게 아니었나? 곧 끝나는 게 아니었어? 곧 큰 재난이 임하는 게 아니었나? 어째서 하나님 집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은 과연 언제 끝나는 걸까? 언제가 끝일까?' 이들은 진리, 하나님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탄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 끝날지, 사람의 결말이 죽음일지 삶일지, 언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릴지,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은 어떨지 등에만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느 정도 참다가 천지가 변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들도 예전 그대로이면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제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왜 여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긴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 기회를 찾고자 한다.

하나님이 한 사역,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늘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고,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아무리 추측해도 제대로 추측하지 못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판단해 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이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결국

의심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줄곧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데 너무 많이 선포하시는 거 아냐? 우리를 하나님나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고 하시지 않았나? 우린 언제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거지? 도대체 몇 년이나 더 있어야 하는 거냐고! 늘 하나님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눈앞'이라고 하신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왜 이렇게 멀고 끝도 안 보일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 퍼뜨린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보여 주느냐? 어째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늘 사람의 관념과 상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하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길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이런 말씀과 이 모든 행사가 모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느냐? 사람은 진리를 얻어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퍼뜨리는 관념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말씀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바로 불신파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집에서 되는 대로 지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동안 힘을 썼어도 복을 받지 못하자 관념을 퍼뜨려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지껄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 전 하나님의 사역이 3 년, 5 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이 사역이 언제 끝날까요? 계속해서 간증문을 쓰고, 찬양 영상과 영화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까요?" 그리고 남들에게 이런 질문도 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 생각은 이래요. 전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속 얘기를 꺼내지 않고 참고 숨기기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정말 너무 '솔직'해서 못 하는 말이 없구나!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이런 말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끝나지 않으면 직장에 나가 돈도 벌면서 생활을 꾸려야겠어요.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느라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좋은 데 놀러도 많이 못 다녔잖아요. 물질적인 생활도 많이 못 누렸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쯤 호화 주택에 살면서 자가용을 끌고 다니겠죠. 전 세계를 몇 바퀴나 돌았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때는 정말 괜찮고 또 아주 유쾌했어요. 조금은 공허했지만 육적으로 즐거웠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면서 아무 구속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고생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어요! 진리도 좀 얻고 마음도 든든해지긴 했지만 이 진리가 그런 육적인 즐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계속 나타나지 않으니 제 마음도 늘 불안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으면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평안과 기쁨이 생기면 뭐 해요? 육적으로 즐겁지도 않잖아요!" 이 말이 그의 머릿속을 몇 번이나 스쳐 갔는지, 스스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른다. 자신의 관념이 성립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발언과 관념을 자기도 모르게 퍼뜨리게 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 사역에 대한 관념과 오해를 퍼뜨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도록 미혹하려 한다. 물론 속내가 음흉한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게 막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한다. 만약 교회가 해체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할 것이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들도 복받는 건 꿈도 꾸지 마. 내가 훼방을 놓겠어. 진리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생각은 다들 접으시지!' 복받을 가망이 없어 보이면 그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니 남들도 복을 못 받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는 관념을 퍼뜨릴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쏟아 내고,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사람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끌어들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품고 믿음을 잃게 만들려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관념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2)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교회 생활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교란하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본분 이행에도 지장을 준다. 따라서 관념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간혹 언급할 뿐이더라도 제재하고 분별해야 한다. 그자의 인성이 어떤지, 잠깐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성 본질에 문제가 있어서 일관되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관념을 퍼뜨려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파괴하려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가 가끔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그런 거라면 진리를 교제하여 붙들어 주고 도와주면 된다. 만약 충고해도 듣지 않고 계속 관념을 퍼뜨려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을 소극적이고 연약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기까지 한다면 그자는 사탄의 종이니 원칙대로 그를 제명해야 한다. 어째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인성이 어떻든 이런 사람은 불신파이다. 불신파는 알곡 가운데 가라지와 같으니 뽑아내야 한다. 불신파의 모습만 좀 있을 뿐 아직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교우로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늘 관념을 퍼뜨리는 부류는 항상 불신파의 관점과 말들을 쏟아 내며 단지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선동하고 미혹하며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난 믿지 않겠어. 당신들도 복받을 생각 말고 믿지도 마! 당신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언젠가 결국 복을 받으면 내가 난감해지지 않겠어?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럴 순 없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당신들에게 훼방을 놓겠어. 당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말이야. 모두 나랑 같이 교회를 떠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이것이 그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신파를 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명해야 한다. 스스로 믿음을 포기한 불신파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그의 하나님 말씀 책을 회수하고 그를 제명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우로서 가끔 도움을 주는 불신파가 있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거나 교제하지도 않지만 관념을 퍼뜨리지 않고 교회 생활을 교란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봉사할 수만 있다면 제명할 필요 없이 교회에 남겨 두어야 한다. 하지만 늘 관념을 퍼뜨리는 불신파에게는 사정을 봐주지 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오해를 퍼뜨려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며 교란한다. 사탄의 종인 이런 불신파는 관념이 있어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기는커녕 관념을 퍼뜨려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려 한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모자라 물귀신처럼 같이 죽을 몇 사람을 물색한다. 그가 이런 심보로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제재나 격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를 정리해서 영원히 제명해야 한다. 절대 봐주지 마라!

교회에는 한결같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해서 사람을 구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일련의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에게 맞서면서 하는 일부 말이나 행동은 모두 관념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들이 퍼뜨리는 관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치우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모독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피조물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패괴와 패역을 해부하고 인식하지 않으며,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교제하지도 않는다. 그가 말하는 관념은 이런 긍정적인 인식과는 정반대여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지며 심지어 사라질 것이고, 이와 함께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이상(異象) 역시 희미해질 것이다. 사람은 그가 퍼뜨리는 관념을 들을수록 마음속이 흐리멍덩해질 것이고 심지어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흐려지고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사람이 그가 퍼뜨리는 관념과 오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어 속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런 부정적이고 그릇된 생각과 관점, 그리고 구상과 계획이 생긴다면 분명히 사람이 받아들인 정보와 발언은 정상 인성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진리에 부합한다고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는 100퍼센트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이 어떤 속셈과 동기를 가졌든, 그가 유언비어나 황당한 이론을 퍼뜨리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회에 악영향을 일으키면 제재해야 한다. 물론 교회 생활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발견하고 분별한다면 그 또한 제때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의 인식으로 그를 반박하고 폭로해서 형제자매가 그를 분별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것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네게 그런 분량이 없다면 그를 분별하고 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네게 분량이 있다면 그를 폭로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일부 새 신자들은 이런 부류가 퍼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오해를 들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라며 놀랄 것이다. 기초가 없는 사람이 이런 관념과 황당한 이론을 들으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황당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 전부 가능한 일이다.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못 믿겠어요."라고 한다면 어떤 내적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은 불신파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퍼뜨리든 네가 들으면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약해졌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는 '나랑 동병상련인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한 말은 자기의 관념이자 내 마음의 소리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이건 대역무도한 짓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 난 그런 말을 감히 못 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짓이라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관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진작에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 이미 뿌리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기 상태라 관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미혹하거나 교란하지 않는 한 그나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조심함으로써 제명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을 입 밖으로 꺼내어 교회 생활을 교란한다면 가차 없이 폭로하고 제명해야 한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관념을 가지기 일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이해 능력도 있다면 관념이 생겨도 진리를 구해 해결할 것이다. 늘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으로 드러나 도태되는 사람이자,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각국 각지의 교회 생활에서 관념을 퍼뜨리는 일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 진리를 싫어하는 자, 육적인 즐거움을 탐내는 자, 불신파, 악인 등의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육신에 대한 관념을 품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온통 관념으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요구로 가득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오로지 자신의 관념과 취향 심지어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해할 뿐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각종 관념과 상상, 무리한 요구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각종 오해와 판단 등으로 꽉 차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념을 퍼뜨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류가 존재하는 한 관념을 퍼뜨리는 일은 자주 발생할 것이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마디, 일 하나가 자기 관념이나 바람에 어긋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기라도 하면 그는 분해서 화를 내고, 이익을 얻고자 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과 힘겨루기를 한다. 이들은 항상 진리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올바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며 성육신이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렵고, 심지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어렵고,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관념을 퍼뜨릴 때 할 말이 더 많아진다. 그들은 시간과 장소, 환경과 상황을 불문하고 관념을 퍼뜨린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불만이라도 품으면 자신의 관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그들의 관념에 어긋나면 재빨리 자신의 관념을 쏟아 낸다. 이렇게 쏟아 내는 것을 우리는 퍼뜨리는 것으로 규정한다. 어째서 '퍼뜨린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쏟아 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민, 교회 생활, 하나님 집의 사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교란하고 방해하며 망치기만 할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퍼뜨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념을 퍼뜨리는 일을 기본적으로 분별하고 나면 사람의 여러 잘못된 관념과 말을 진리에 따라 해부하고 분별한 다음 하나님 집의 규정대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당연히 리더 일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선민 역시 이런 교제를 듣고 나면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과 그들의 언행을 폭로하고 해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약 그를 저지하고 제재할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깨달은 진리를 근거로 그와 교제하고 변론해도 된다. 변론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분량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변론을 듣고 나서 흐리멍덩한 상태로 남들이 퍼뜨리는 관념이나 황당한 논리에 미혹되지 않고 누구의 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선민에게도, 교회 생활에도 모두 도움이 된다. 진리에 맞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람의 관념이든 황당한 논리이든 상관없이 변론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제삼자가 듣고는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관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관념이 진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념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지, 왜 관념으로 규정되는지, 어째서 제재해야 하는지 등을 깨달을 수 있다. 흐리멍덩하게 미혹되거나 농락당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한 깨달음이 생기게 된다. 비록 사람이 퍼뜨리는 관념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망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최소한 분별력을 키워 주고,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의 본색이 어떤지, 그들이 관념을 퍼뜨릴 때 표출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그들이 퍼뜨리는 관념이 진리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에 대해 분별력과 면역력이 생기는 한편, 이런 부류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생겨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불신파이고 진리는 전혀 없이 항상 하나님에게 관념만 품는 사람인지 알게 되며,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적어도 이 정도의 분별력은 생긴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사람이 퍼뜨리는 관념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제게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마라. 관념을 퍼뜨리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며 미혹되기 쉽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는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그것을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올바르게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네게 배치한 모든 환경을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얻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이다.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이런 말들과 이 부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 제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이 일을 체험해 보아라. 물론 이는 네가 과연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한 사람이 관념을 퍼뜨릴 때 네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나 생각도 없이 그가 어떤 관념을 쏟아 내고 퍼뜨리든 그저 수신기처럼 전부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저항력이 없고, 거부할 능력도 없으며, 더군다나 분별할 능력마저 없다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남이 쏟아 내는 관념을 들으면 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와 교제하고 변론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적절할지, 어떻게 폭로하고 해부해야 할지 모르고, 말로는 그를 당해내지 못해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 패배하여 체면을 구기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걱정한다. 그렇다고 변론하지 않자니 그것도 달갑지 않다. '평소에 설교도 많이 듣고 깨달은 것도 적지 않은데 어째서 그에게 한 마디도 반박하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께 관념을 품고 있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황당한 이론을 반박할 땐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까?'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의 말이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터무니없으며, 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반박하거나 해부하지 못하고, 나서서 그를 폭로하지 못하며, 더욱이 그를 저지하지도 못하니 특히 조바심이 난다. 그제야 자신의 분량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관점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그저 단편적인 말,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빛 비춤이나 생각일 뿐, 결코 진리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관념을 퍼뜨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불신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폭로하고 그의 관점에 반박하고 싶지만 적절하고 강력한 말이 없어 간신히 이렇게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좋은 것이니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완벽하세요. 결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재하세요.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피상적인 이론만 펼치는 것이다. 이런 특수한 사건을 체험하고 나면 자신의 분량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고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평소에 중요한 도리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예배 때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건 일도 아닌데 말이야. 설교 원고도 3~5 페이지 정도는 거뜬하게 쓸 수 있어. 자신 있다고. 그런데 저렇게 관념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는 왜 경각심이 없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지? 어째서 강력하게 폭로하고 반박하지 못하는 걸까?'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자기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실제 분량을 알게 된 것이다. 만약 누군가 관념을 퍼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은 자기가 분량이 있고 진리를 깨달아 분별력이 있으며 무슨 일이든 간파할 수 있다고, 막힘없이 각종 영적인 도리를 말하고 여러 진리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결과 누군가 관념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별수 없이 지고 만다. 창피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와 논쟁할

적절한 말은 없지만 창피당하지 않고, 굳게 서서 증거하여 사탄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한 가지 묘수를 알려 주겠다. 누군가 한도 끝도 없이 관념을 퍼뜨리는데 많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해 그에게 영향받는 것을 발견했지만 네가 그를 말로 당해 내지 못한다면 책상을 내리치며 좀 강하게 나와야 한다. "닥쳐! 지금 뭐라고 떠드는 겁니까? 제가 말로는 당신을 못 이겨도 당신이 불신파라는 건 알아요! 잘 보세요! 당신 말 중에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왔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증거하는 말을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여기서 교란하지 말고 재주껏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직접 고하세요. 지금 정식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꺼져요!" 너희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느냐? 이것이 혈기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내리는 선고이다. 너는 이렇게 한 다음 그에게 일러라. "당신 같은 불신파는 꺼져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누렸는데, 양심도 없는 작자군요. 당신은 사람이 될 자격도 없어요!" 그에게 세 글자로 "꺼져요!"라고 하면 어떠냐? 이 말은 강력하지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형제자매에게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불신파나 사탄의 종에게는 이렇게 가차 없이 명령을 내려도 된다. "이곳은 하나님 집이자 진정한 형제자매의 집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집이지, 마귀 사탄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에 마귀 사탄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마귀 사탄이니 썩 꺼져요!" 이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합니다.) 이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단지 너희는 분량이 작고 아직 사탄과 싸울 충분한 분량이 없으니 이 방법을 알려 주는 것뿐이다. 사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너희가 수많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반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한 그가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군요. 저는 마귀 사탄이니 제 발로 교회에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 내가 말한 방법대로 늘 관념을 퍼뜨리는 부류를 대해야 한다.

교회에서 늘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지 않았느냐? 관념을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관념을 퍼뜨리는 말에는 주로 몇 가지 측면이 있느냐?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 말씀을 겨냥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겨냥하는 것이며, 세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 몇 가지 측면의 말은 경미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그릇된 이해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정죄, 모독이다. 그 밖에 사람이 품는 원망과 불복, 불만 등 소극적이고 반항하는 말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관념을 퍼뜨리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모독하는 성질을 띠고 있다.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추측하고 경계하며 오해하고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저버리게 된다. 이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3) 관념을 해결하는 원칙과 길

관념을 퍼뜨리는 것에 관한 항목에서 교제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관념을 퍼뜨리는 일은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폭로하고 해부해야 해요. 제재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 관념이 생기기 쉬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관념을 대할 때 사람이 어떤 실행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고, 교회 생활에 교란과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남들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적절할까요?" 사람이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불가피한 일 아니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만 관념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겠느냐? 반만 맞는 말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특수한 일이 일어나면 간혹 하나님에게 관념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어느 정도 관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념은 사람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부 관념은 도덕과 철학에 부합하거나 전통문화와 인륜에 관한 이론 등에 부합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이런 생각도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진리와 충돌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기 전에 갖고 있는 수많은 관념은 선천적인 관념이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환경과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갖게 되는 많은 새로운 관념은 후천적인 관념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관념을 대할 때 해결 방안이나 실행의 길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려울 것 없어요. 선천적인 관념은 저버리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관념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깨달음에 따라 차츰 해결되고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긴 관념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 해결하며 그 관념에 속박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등의 관념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실행법이나 이렇게 관념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어떠냐? 관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폐해는 없겠느냐? 관념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사람에게 그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소극적인 방법을 취해서 이런 관념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 담아 두었다가 튀어나오면 억누르고 기도하고는 그것으로 해결한 셈 친다면, 또 언제고 다시 관념이 튀어나와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셔. 난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창조주이시지. 이 점은 변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법이겠느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겠느냐? 이렇게 실행하면 관념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 이런 관념들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 진입이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란을 일으킨다. 특히 사람이 연약할 때, 이겨 내기 힘든 환경에 놓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의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흡족게 할지 모를 때, 자기가 구원받을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이런 관념들은 사람의 내면에서 불쑥 튀어나와 사람의 생각을 주도하고 사람의 온 마음을 차지하며 심지어 사람의 거취와 길에 대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쩌면 네가 개의치 않는 한 관념이 지금껏 네게 영향을 미친 적 없고, 너를 넘어뜨린 적도 없어서 너는 늘

네가 주재자로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관념은 네가 실패, 혹은 교체나 도태를 한 번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매서운 징계와 채찍질을 한 차례 체험하고 나면, 심지어 스스로 무저갱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네 부속품이 아니게 된다. 설사 네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네 생각을 교란하고 미혹하는 것도 모자라 네 사상 관점, 하나님에 대한 네 태도와 믿음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런 관념을 대할 적절한 실행 방식이나 원칙이 없거나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관념들은 수시로 네 생명 진입이나 당장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고, 심지어 너와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을 대하는 네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난 관념이든지 간에 그것을 마주할 때 사람이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관념을 대하고 처리해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명확히 교제해야 할 문제이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와 자유로운 생각이 있다.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자질이 높든 낮든,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람에게 생각이 있으면 관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이런 관념이 패괴 성품을 주도하게 되면 그 관념으로 인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관념을 퍼뜨리는 자에게만 관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관념을 퍼뜨리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견해와 판단을 퍼뜨릴 뿐이다. 그렇다면 관념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설마 관념이 없겠느냐? 마찬가지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단, 의도적으로 관념을 퍼뜨리는 사람의 경우 본성 본질이 선천적으로 진리를 싫어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관념이 옳고 진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념과 진리가 충돌할 경우 진리가 아닌 관념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하는 부분이자, 그들이 제재되고 정죄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어째서 관념이 생겨도 정죄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속으로 사람의 관념이 진리에 어긋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곧바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관념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쪽을 택할 때 내면의 관념이 진리로 대체되고 해결된다. 그들은 관념을 내려놓고 관념의 영향이나 제한,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관념이 있어도 퍼뜨리는 법이 없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할 수 있다. 그들은 늘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음에 어떤 관념이 있든 그들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유지한다. 자신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념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망칠 수 있으니 어떻게 관념을 대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교제해야 한다.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해결하기 쉽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난 후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서 생긴 관념이 해결하기 쉽겠느냐? (선천적인 관념이 해결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관념은 해결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생기는 관념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주장일 뿐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사람이 철학과 논리학에 따라 그렇게 추론해 냈다는 뜻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일부 관념들이 내려놓아지고 해결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도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관념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념과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관념 중 이론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생긴 관념이 해결하기 좀 더 쉽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기만 하면,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이 두 가지 측면의 관념 모두 쉽게 해결된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쉽게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는 성경이나 영적 명저, 그리고 성경 해설가의 풀이를 파고들고는 그것을 네게 들이밀며 한바탕 떠든다.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하고 올바른 도(道), 진리, 옳은 말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귀담아듣지도 않는다. 이는 그의 이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리거나 말장난하는 것을 즐기고, 이론과 신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가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실과 그런 사람들의 성품, 취향을 보면, 이런 부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처음에 생기는 관념은 사실 단순하고 표면적이어서 아주 쉽게 해결된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인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이상 측면의 진리를 교제해 주었을 때 알아듣기만 하면 쉽게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부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이성을 지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은 후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념이 생기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생긴 관념이든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며 영원히 틀릴 리가 없으십니다. 제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그는 순종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이 일을 내려놓고 언젠가 하나님이 밝혀 줄 거라 믿는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밝혀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려고요?"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영원히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릴 리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행사도 틀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사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구하거나 자기에게 생긴 관념 속에서 맴돌지 않고, 관념으로 하나님께 트집을 잡거나 관념을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나 핑계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관념을 이런 방식으로 대한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실행법은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관념이 생기면 관념으로 하나님을 비추어 보거나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려 노력한다. 온 힘을 다해 인식해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순종한다. 그는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고 진리의 원천이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우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자기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관념을 대하기 때문에 설령 그가 관념을 내려놓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그를 보호해 주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가 갖는 관념은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진리이고 옳으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실수할 리가 없으시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할 리가 없으시다지만 그건 그저 이론적으로 하는 말일 뿐, 사실 하나님의 행사 중엔 사람의 뜻이나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일도 있어요. 이 일은 그다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다지 옳지 않은 일에는 순종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도 없겠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게 생긴 관념 덕분에 식견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실 때가 있는 거라고요. 잘됐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완벽하시며, 거룩하시다고 해도 못 믿겠어요. 그 말을 좀 의심하게 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제가 그분의 주재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흐리멍덩한 상태로 무턱대고 순종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만약 잘못 순종하면 어떡해요? 나만 손해 아닌가요? 무턱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순 없죠." 이런 태도로 관념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가 관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실행법이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는 늘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의 운명의 주재자가 아닌 연구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는 비록 자신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피조물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피조물 본연의 위치에서 창조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반대편에 서서 창조주를 연구하고 창조주의 행사를 분석하여 이를 감안해 순종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태도와 실행법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겠느냐? 그의 관념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시시각각 연구하며 그가 옳고 좋다고 여기는 것은 받아들이고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 반발하고 하나님과 겨루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극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겉으로 보면,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나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관념이 생기면 순종은 감쪽같이 사라져 찾아볼 수 없고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 분명한 것은 그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진리의 원천이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 생긴 관념이든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쉽게 해결하지도 못한다.

지금까지 교제한 내용으로 봤을 때, 너희는 어떤 관념이 해결하기 쉽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상황을 구분해 봐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우, 그는 이성적이고, 옳은 사람이라 언제 생긴 관념이든 쉽게 해결한다. 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언제 생긴 관념이든 해결하기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20~30 년 동안 믿었는데도 지금껏 하는 말이라고는 죄다 글귀와 도리, 사람의 관념뿐이며, 진리에 부합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가 진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데 관념이 생길 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장담하기 어렵다.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념을 내려놓지 못한다. 사람에게 관념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언제든 여러 관념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든 사람의 마음속에 관념이 일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것이 설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느냐? 해결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 몇 가지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이 원칙대로 실행하여라. 한동안 실행하면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관념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관념이든 일단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옳은지 묵상해 보고 분석해 보아라. 만약 그것이 그릇되고 치우친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서둘러 기도하며 네가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여라. 그런 다음 예배 시간에 자기의 인식을 이야기하여라. 인식하고 체험하는 동시에 자기 관념의 해결을 중시하여라. 만약 이렇게 실행해도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이런 측면의 진리에 관해 교제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체험 속에서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차츰 확인하고, 자신의 관념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큰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고 체험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인식하며, 네 관념을 내려놓고 해결하게 된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으며,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게 된다.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관념이다. 또 한 측면의 관념은 사람이 인식하기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해결하기 어려운 관념의 경우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분출하지 말고, 퍼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의 관념을 분출하면 사람에게 득 될 것이 없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네가 만약 관념을 퍼뜨리는 것의 성질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너 혼자 분명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다. 네가 만약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 죽겠어요."라고 말한다면 이런 관념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과연 득 될 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득 되기는커녕 남들이 하나님에게 관념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면 네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겠느냐? 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니 역병을 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정말 네게 이성이 있다면 자기가 고통을 감내할지언정 관념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을 안 하려니 답답해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관념을 품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징계해 주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 저를 드러내 주셔서 제 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징계하시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옳은 것이다. 네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 계속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이 환해지면 답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 반발, 패역도 거의 사라지고, 적어도 꼭 분출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문제가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체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의 도움으로 관념을 해결하여라. 네 관념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달라고 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이고 읽으면 네 관념이 완전히 해결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예배 시간에 형제자매에게 분출하면 관념을 퍼뜨리는 것이니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힘들 때 가족에게 말하는 건 괜찮을까요?"라고 말한다. 네 가족이 모두 형제자매일 경우, 네가 이 관념들을 분출하고 나면 그들을 교란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의 말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미혹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친다면, 절대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해결해야 한다. 네가 경건한 마음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관념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그저 네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 하는지,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네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만약 한동안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네게 아무것도 깨우쳐 주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관념이 너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생활을 교란하지 않는다면, 또 네 관념이 점차 희미해져서 너와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는 물론 네 본분 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 관념이 거의 해결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의 길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관념이 생기면 우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절대 퍼뜨리거나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되고, "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입이 제 몸에 붙어 있는 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거예요."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말, 옳은 말이라고 해서 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념에 속하는 말, 사탄의 시험에 해당하는 말은 그로 인한 결과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결과로 볼 때 네게 관념이 생겨 기어이 말해야겠다면, 말해야 속이 시원하고 기분도 좋을 것 같다면 네 행위를 악행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록해 둘 것이다. 어째서 기록해 두겠느냐? 긍정적인 실행법이나 실행의 길과 원칙을 그토록 많이 알려 주었는데도 다 제쳐 두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해치는 길을 택했으니 너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네 행위를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는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란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로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택해야 할 방식이다. 그런데 너는 왜 이 방식을 택하지 않느냐? 어째서 남을 해치고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을 택하느냐?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 아니냐? 악인은 남은 물론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너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증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네 관념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스스로 진리를 구해 네 관념을 해결하고 진리를 실행할 길이 있어야 한다. 만약 관념을 처리하는 네 방식이 관념을 퍼뜨려 의도적으로 남을 미혹하고 해치며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과 정상적인 내적 상태를 교란하는 것이라면 너의 이런 행위는 악행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인성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남을 미혹하거나 해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원칙을 택해 실행하고 준수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진리를 구하며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된다. 너보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았고 분량이 더 있는 사람을 택해라. 네 생각에 그가 네 관념에 교란되거나 영향받아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고 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다면 그 길 또한 적절하다. 만약 네가 평소에도 덜떨어지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이 일을 듣자마자 격앙되어 여기저기 알리고 교란하려 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면 네 행동은 은연중에 교회 생활에 교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너의 행위는 악행으로 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관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은 어리석거나 충동적으로 굴지 말고 반드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절대 관념을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옳다 한들 진리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한결 평온해질 것이고 관념이 문제를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관념을 갖고 있는 건 두려울 게 없다. 진리를 구하기만 하면 관념은 결국 해결된다. 어떤 사람은 "관념이야말로 해결하기 쉽지 않죠."라고 한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관념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또한 어려울 것 없다. 일부 사람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념들이 있다. 이는 이미 사실이 되었는데 관념이 아무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진리는 아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 여기서 너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겠다. 즉,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각 행사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요구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자질이 이를 수 있다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든 다 좋다. 능력껏 하면 된다. 만약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이를 먹으면서, 또 체험이 계속 깊어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은 진리도 점점 깊어지고 관념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부 특수한 일에 대해서는 이르지 못하고 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요하겠느냐?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널

기필코 이해시키려 강제로 주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는 사람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많은데 하나님은 말씀과 사역에서 오직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다른 일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간혹 언급하더라도 짧게 말할 뿐 결코 사람에게 길게 말하며 그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 어째서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이런 사역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 본질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 행사의 근원과 목표, 하나님이 각 부류의 사람에게 사역하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과 방법 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모든 진리에 진입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전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말씀하며 사역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본질, 신분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이런 소유와 어떠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만 사람에게 다 인식하고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지만 피조된 인간은 몹시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천양지차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일부 관념과 상상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네가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려고만 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자질이 훌륭한 사람일 경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인식하기만 하면 이런 관념과 상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반면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누가 네게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네 관념만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느냐? 네가 죽을 때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되더라도 너는 진리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관념과 상상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체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너의 관념과 상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이런 관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의 진상을 너에게 알려 주겠느냐? 한 측면에서 보면 그럴 필요도 없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머리와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이런 사역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고, 만유를 뛰어넘는다. 만유에 비하면 사람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다. 이렇게 형용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고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설사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네게 알려 줄 용의가 있다고 한들 네가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되겠느냐? "왜 담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면 전 많은 것을 깨닫고 얻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잖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헛된 망상이다. 욕심이 과하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네게 알려 준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매우 평이한,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사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해 주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일부 관념이 끝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네가 이해하길 바라는 것, 네게 알려 주고 싶어 하는 것, 혹은 네가 감당할 수 있고 이를 수 있는 것은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것, 네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 준다고 해도 소용없고 헛수고일 뿐이니 하나님이 네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념을 네가 죽을 때가 되거나 하나님 사역이 끝날 때가 되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에 지장을 주겠느냐?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데 지장을 주겠느냐? 네가 피조물이 되는 것에 지장을 주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인식하는 데 지장을 주겠느냐? 만약 네게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관념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는 마지막 한 종류의 관념으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사역과 말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이런 환경을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맘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죽기 전에 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너는 안심하고 떠나거라. 영계에 가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는 그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네 관념을 어느 정도로 해결했는지, 얼마나 내려놓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네가 진실하게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는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행사를 받아들이기 쉽든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관념이 생기기 쉽든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분은 그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창조주이고 너는 영원히 피조물이다. 네가 어떠한 관념의 제한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피조물이다. 네가 어떠한 관념의 영향과 교란도 받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네가 깨달은 진리의 깊이와 상관없이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관념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은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한 것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사람의 분량은 한계가 있다. 사람의 머리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느냐? 허황한 망상일 뿐이다!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영원히 갓난아기이다. 만약 네가 자신이 똑똑하다는 생각에 늘 잘난 척하면서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이해하려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고요. 당신이 제 관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당신의 주재를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으세요!'라고 생각한다면 골치 아프다. 무엇이 골치 아프겠느냐? 하나님은 네게 이런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영원히 다음과 같다. 즉, 네가 그를 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 너를 그의 피조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그의 피조물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로 인해 변화가 생긴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의 신분 또한 변하게 되는데, 네가 여전히 피조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 네가 어떤 핑계를 댄들 소용없다. 네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면 네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피조물로서 다해야 할 책임과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창조주를 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너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아닌 인간 말종, 사탄 마귀로 간주한다. 너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 자신을 사탄 마귀로 만들었느냐? 이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에서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공손해야 한다. 네게 관념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진리가 있다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을 규정할 만한 밑천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피조물의 신분을 상실하면 너는 멸하게 될 것이니, 이건 정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어떤 관념이 생겨날 때, 사람은 각기 다른 대처 방식과 해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관념을 대하는 실행 방식과 관련하여 너희에게 원칙이 생기게 되지 않았느냐? 이 몇 가지 측면의 원칙이 너희가 피조물이 되도록 지켜 줄 수 있지 않으냐? 이 길이 괜찮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정리해 보아라. (만약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관념이라면 스스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관념을 해부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와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관념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념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며 단지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행사는 분명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든 그러지 못했든 관념을 퍼뜨려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념도 서서히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관념입니다. 이런 경우 관념의 속박을 받지 않고 퍼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관념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지만 이 관념을 고수하지 않고 이 관념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총 몇 가지 원칙이냐? (세 가지입니다.) 총 세 가지였는데 전부 적어 두었다. 그렇지 않으냐?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파악하면 관념은 자연스레 해결된다. 관념에 의해 방해받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력을 다해 해결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 그것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본분 이행이 지체되거나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의 최저선은 적어도 관념을 퍼뜨리지 않고, 악행이나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으며, 사탄의 졸개나 대변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부 관념은 피상적으로만 해결될 뿐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마라. 관념 때문에 진리 추구나 생명 진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몇 가지 측면의 원칙을 파악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보호받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악인이 아니며, 방해하고 교란하기를 원치 않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상시 관념이 생기는 일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최소한의 실행 원칙은 네게 관념이 생겼을 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관념을 품은 채 어떤 일도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기다리며 진리를 구하여 해결하고 하나님의 행사는 틀릴 리가 없음을 믿는 것이다.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네 본분을 내려놓아선 안 되고 관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만약 관념이 생겼을 때 '대충 하고 치우자. 기분 나쁘니까 잘해 주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네 태도가 일단 소극적으로 변하고, 대충 건성으로 하는 태도가 되면 골치 아파진다. 이것은 관념이 속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관념이 네 안에서 농간을 부려 네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었다면 사실 그 순간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미 변화가 생긴 것이다. 네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는 관념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니 반드시 제때 해결해야 한다. 네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관념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 네게 생긴 관념이 네 본분 이행에 지장을 준다면, 즉 네가 관념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구심을 품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다가 본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도 없다면 위험하다. 이러면 시험에 빠져 사탄에게 농락당하며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관념을 대하는 네 태도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관념이 해결될 수 있든 없든,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든 너와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가 변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배치한 모든 환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사는 틀릴 리 없고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런 인식과 이런 측면의 진리는 언제까지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네게 맡긴 본분을 내려놓거나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든, 표면적으로든 네가 하나님에게 반발하거나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서 보게 되는 것은 순종과 기다림이다. 비록 너는 여전히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서 패역을 보지 못했다. 네게 패역과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피조물로 여긴다. 반대로 네 마음에 원망과 불복이 가득하고 보복할 기회까지 찾으면서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하고 내팽개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온갖 원망을 품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불복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표출했다면, 그 순간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미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네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떠났으니 너는 피조물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게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이 만약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교회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특히 관념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반드시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하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관념은 줄곧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과 순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든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관념은 하나의 벽과 같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무관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에게 관념이 생겼는데 제때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면 쉽게 소극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에게 반발하는 것도 모자라 적대시하기까지 한다. 그러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생명 진입이 제자리걸음만 할 것이다.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길은 험하고 평탄하지 않다. 사람에게는 패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할 때가 많고, 자칫 어떤 일에서 관념이 생길지도 모른다. 진리를 구하여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일단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창조주를 연구하는 법이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네 의무가 아니고, 네 책임도 아니다. 사람이 매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서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하나님인지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한 일이 옳은지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네가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2021 년 6 월 19 일

리더 일꾼의 직책(17)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5)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9.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오늘은 이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를 교제하겠다. 교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해와 교란의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는 여덟 번째 항목, '관념을 퍼뜨린다'를 교제했다. 오늘은 아홉 번째 항목,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를 교제하겠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종종 들리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측면의 행위나 말이 교회 생활에서 등장할 때에도 제재되고 저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지장을 주고 교란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물이며,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다른 행위나 행동 방식, 말과 성질상 같아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교란이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형성한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로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이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일이 교회에서 발생할 때에도 똑같이 저지하고 제재해야지 내버려두거나 제창해서는 안 된다.

1)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먼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간해야 할지를 살펴보자.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느냐? 사람의 어떤 말과 모습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겠느냐? 우선, 사람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진리에 반하는 부정적인 것들로, 전부 패괴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다. 사람은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은 진리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의 진리 실행에 영향과 지장을 주는 사상 관점에 속하며, 100% 부정적인 측면의 것들이다. 이 부정적인 사상 관점들이 듣기에는 아무리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이치에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이해가 아니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진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의 것들이자 부정적인 사물이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의 속셈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신을 위해 수많은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얻어 내는 데 있다.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말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자발성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주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한다. 이런 결과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사물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자 전적으로 진리를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수시로 부정적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람의 진리 추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사실 영향이 매우 크다. 사람이 지나치게 부정적이 되면 배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무서운 결과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초래된다. 그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일을 어떻게 분별하고 인식해야겠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사람의 진리 실행을 가로막는 것이다. 즉, 온화한 수법, 겉보기에 매우 정상적인 것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확실히 사람을 매우 심하게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물에 속하며,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행위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석이다. 그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것'의 성분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들이며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회 생활에 교란과 파괴가 되겠느냐? 부정적인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겠느냐?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에 부정적인 성분이 들어 있겠느냐? 만약 사람이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환경에 대한 그의 인식에 부정적인 성분이 있겠느냐? 그가 자신의 체험적 인식을 나눌 때 거기에 부정적인 성분이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나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대하며, 구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발생한 일들에 대한 그의 인식과 이해, 체험에 부정적인 성분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절대 있을 리 없다. 이 몇 가지 측면으로 보아 부정적인 것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부정적인 것에 사람의 불복과 불만, 원망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심각한 경우 반발심과 반항, 심지어 저항까지 담겨 있는데, 이런 성분이 담겨 있는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로 보아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 마음속으로 여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느냐? 결코 그럴 리 없다. 육을 저버리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뜻이 있겠느냐? 없다. 반발심과 거역, 대적만 있을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점유되면 하나님에 대해 반발심과 거역, 반항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다. 이는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자주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모두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정서가 몹시 침체된 상태에 빠져 기분이 매우 좋지 않고, 정서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가 없는 것이며, 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구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지도 않으며 정서가 매우 의기소침하다는 것이다. 의기소침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인성의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겠느냐? 사람이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사람이 존엄 있게 살아가는 것, 인성의 존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결심이나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불만을 가득 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현재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사람 마음이 불복으로 점철되어 있고 반항하려 하며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정적일 때 현재 상황에 대해 드러내는 일부 내적 상태다. 어쨌든 사람이 부정적일 때 현재 상황이나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 갖는 불만은 단순히 오해했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체험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만이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질이나 시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는 인성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몇몇 객관적인 원인 때문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똑같이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파하지 못한 일, 혹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기다릴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남에게 구하고 교제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와 달리 이런 몇 가지 실행의 길이 없고 이런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기다리거나 구하거나 남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오해하며, 자신에게 닥친 이런 일과 환경이 자기 염원이나 기호, 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복과 불만, 반발심과 원망, 반항과 저항 등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패괴를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남에게 구하고 교제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확하다고 고집을 부리고, 마음속에 불복과 불만을 품은 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정서 속에 빠졌을 때, 하루 이틀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속에 관념과 상상, 윤리와 도덕, 문화, 전통, 지식 등 많은 것이 생겨난다. 그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평가하고 따져 보고 이해하는데, 사탄의 굴레에 완전히 빠져서 온갖 불만과 불복의 내적 상태가 생겨난다. 그 후에는 이런 패괴된 내적 상태에서 또 각종 그릇된 사상 관점이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통제될 수 없기에 그는 기회를 봐서 이런 것을 쏟아 내고 발산하려 한다.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할 때 그가 "제 안에는 부정적인 것들뿐이에요. 저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을 하고 싶은데 참지 못하겠으면 벽을 보고 말하거나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대상을 찾아가 말할 겁니다."라고 말하겠느냐? 그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기회를 틈타 들어줄 사람들을 찾은 다음 그의 이 부정적인 관점이나 말, 정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이를 통해 마음속 불만과 불복, 분노 등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쏟아 낸다. 그는 교회 생활을 할 때가 감정을 쏟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교회는 그의 부정적인 것이나 불만과 불복을 쏟아 낼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교회 사역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은 뒤에서도 참지 못하고 늘 자신의 부정적인 말을 쏟아 낸다. 그는 듣는 사람이 적으면 말할 때 힘이 빠지고, 다들 모여 있으면 더 신이 나서 말한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의 정서나 내적 상태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간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의심을 해소하게 하려는 것도, 자신을 인식하고 사람의 패괴 본질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도, 사람의 패역과 패괴라는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의 목적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쏟아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태나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저항 등과 같은 굴레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행위는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제지되어야 한다.

2)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의 각종 내적 상태와 모습

(1) 교체된 것이 불만스러울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부정적인 정서나 모습은 대체로 이렇다. 이런 것들을 교제하고 나면 사람은 자신과 대조하여 현실 생활 속의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방식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인지, 사람이 어떤 일들로 인해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어떤 일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하겠느냐? 흔히 볼 수 있는 부정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체되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생겨납니다.) 교체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고,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교체되면 어째서 부정적으로 변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교체되고 나서도 자신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위가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높이 오를수록 더 심하게 다쳐요."라고 말하며 일부 부정적인 관점을 퍼뜨립니다. 그는 교체된 그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불복합니다.) 그의 내면에 불복과 불만이 있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정서이다. 원망도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생도 겪고 대가도 치르며 줄곧 힘들게 사역했지만 몸을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교체까지 당했다고 생각해서 "리더 역할은 쉽지 않네요. 리더가 되는 사람은 다 불행할 거고, 결국 다 교체되고 만다고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다. 그저 불복하고 불만을 품을 뿐 퍼뜨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복과 불만에서 시작해 점차 원망의 정서가 생겨나고 자신의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런 다음 자신의 억지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고 이치를 따질 때 온갖 주장과 관점, 핑계와 이유, 해명과 변명 등이 생겨난다면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에 속한다. 일부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교체되어도 속으로 불복하고 불만을 품으며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속으로는 늘 '나를 교체해 버리다니,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나 두고 보겠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못 하는 사역은 남들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느 부분에서 불복하느냐? 그는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지도 않고 사역도 적잖이 했는데 왜 자신을 교체했느냐고 생각한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속마음이다. 그는 자신이 과연 실질적인 사역을 했는지, 실제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교회 사역이 정말 마비되었는지 돌아보거나 인식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일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진리 실제가 없다거나 자신이 일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많은 사역을 했으니 거짓 리더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가 속으로 불복하고 불만을 품는 가장 큰 이유다. 그는 늘 생각한다. '내가 오랫동안 본분을 이행하면서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 게 다 누구를 위해서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은 뒤로 집도 버리고 일도 포기한 데다가 체포되어 옥살이할 위험까지 무릅쓰며 본분을 이행했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이제 와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며 나를 교체하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 공로는 없어도 나름 고생했고, 고생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나름 힘들었다고! 나처럼 이런 자질을 갖추고 나처럼 대가를 치르며 사역하는데도 기준에 맞지 않고 교체된다면 내가 봤을 때 기준에 맞는 리더는 거의 없을걸!'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중 순종하는 뜻이 담긴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진리를 구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자신을 반성하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느냐? '내가 사역하는 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거지? 내가 어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지? 내게 어떤 거짓 리더의 모습이 있지?' 그가 이렇게 자신을 반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하는 이런 말들은 다 어떤 성질이냐?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자신을 해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자신을 해명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남들의 동정이나 이해를 얻으려는 것 아니겠느냐? 더 많은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 주고 자기 대신 억울함을 호소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이치를 따지고 대드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반발과 패역이 가득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 생겨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발심, 반항, 혹은 저항이 생겨나게 하려고 한다. 그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의 목적은 바로 더 많은 사람에게 소위 실상을 알려 주어 사람들이 그는 억울하고 그의 행동은 틀리지 않았고 그는 교체되어선 안 되며 그를 교체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그의 편을 들게 해서 그의 체면과 지위, 명성을 되찾는 것이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는 교체되고 나면 모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여 남들의 동정을 얻으려 하지,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사실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는

모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드러나 도태된 후에도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아무도 그들이 무언가를 뉘우치거나 진실로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영원히 자신을 인식할 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이 사실로 보면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교체되는 것은 완전히 적절하고 조금도 억울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을 전혀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의 적그리스도 성품이 심각하며 그들은 모두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어떤 거짓 리더는 교체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구해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도 않으며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도 전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고, 온갖 궁리를 다 짜내 갖은 이유와 핑계를 찾아 자신을 위해 해명하고 변명한다. 심지어 "저는 예전부터 리더가 되기 싫었어요. 리더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잘해도 상을 못 받고, 잘하지 못하면 교체돼서 평판이 나빠지는 데다가 형제자매에게도 버림받게 되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남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교체되고 나니 리더 일꾼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일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 일꾼이 되면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진리를 구하려는 뜻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리더 일꾼을 맡도록 안배한 일에 대해 증오심이 생기고 나서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많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 및 이 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이 말에 영향받고 교란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네가 리더가 아니라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절대 리더로 뽑히면 안 돼. 혹시라도 리더로 뽑히면 잽싸게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사양해야지. 나는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 한다고 말해야겠어.' 리더가 된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아서 속으로 생각한다. '정말 끔찍해! 나도 나중에 저 사람 같은 말로를 맞이하는 거 아니야? 저런 말로를 맞이한다면 난 절대 리더를 맡지 않겠어.'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와 말이 사람들에게 교란이 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교란이 된다. 어떤 사람이든, 자질이 좋은 사람이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든 이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이 말을 받아들일 것이고, 정도는 다르지만 이 말에 영향받을 것이다. 영향받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일과 리더가 되었다가 교체되는 일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며,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품은 채 이 일에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어서 이 일을 언급하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두려워한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탄의 시험이나 미혹에 빠진 것 아니겠느냐? 이는 분명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미혹되고 교란당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발산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인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에 순종함으로써 생겨난 체험과 경험도 아니라 사람의 패괴 성품이나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듣고 나면 사람은

교란당한다. 사람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방해 작용을 일으킨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리를 구하여 피해를 가볍게 입는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저항력도 없어서 설사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더라도 저도 모르게 방해를 받고 심한 피해를 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요구하든 사람은 일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에 새긴 채 긴장을 늦추지 말라며 늘 스스로에게 경고한다. 마치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자신의 보호막이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사람은 경계심과 오해를 내려놓지 못한다.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진입도 없고 진리 실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 아무런 분별력이 없고 어떤 저항력도 없어서 결국 이런 부정적인 말에 속박되고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이는 해를 입은 것 아니겠느냐? 어느 정도로 해를 입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사람이 발산한 부정적인 말이나 불만과 불복, 원망이 담긴 말은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여겨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다. 이는 사탄의 굴레에 빠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사탄의 굴레에 빠져 사탄에게 사로잡힌다. 교체되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한 일에서도 이런 부류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말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일에 대해 원래부터 상상과 관념이 가득한 데다가 일부 오해와 경계심도 가지고 있다. 설사 그런 오해나 경계심이 사상과 의식 안에서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그는 더욱더 자신의 경계심과 오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리더가 된다면 분명 십중팔구는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며 잘못을 저질러 교체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절대 리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확신할 이유를 갖게 된다. 이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미혹되고 영향받은 것 아니겠느냐? 교체된 사람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말과 그들이 품은 불복과 불만의 정서는 사람에게 이토록 큰 영향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사람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니, 너희가 보기에 이는 심각하지 않으냐? (심각합니다.) 어떤 면이 심각하냐? 그것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경계심과 오해에 영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오해나 의심 같은 내적 상태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내면의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퍼뜨리는 이런 말은 마침 사람의 정곡을 찌르고, 사람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철저히 사탄의 굴레에 빠진 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는 좋은 일이겠느냐, 아니면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며 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뿐 아니라 본분을 부정적으로 대하여 중요한 부탁은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본분을 좀 이행하는 데 만족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온전케 될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2 천 년 전에 적지 않은 관점을 발표했고 서신도 많이 썼는데, 그 서신에서 황당한 이론을 많이 언급했다.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2 천 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주로 바울의

사상 관점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은 한쪽에 제쳐 두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울의 그런 사상 관점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겠느냐? 바울의 그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각종 이론과 주장을 형성했고, 사람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판단한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하고 단순한 패괴된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고 난 뒤 사람이 선택한 길이 바울을 따르는 길이라면 구원받을 그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전해요. 저는 분명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성립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네가 구원받을 후보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너의 추구가 어떤지, 네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에 달려 있다. 모든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택함을 입거나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의 불복과 불만, 원망 등의 정서나 말, 사상 관점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점유된다면, 이는 단지 조금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기대 살아가려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기대 살아간다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대립 관계가 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나 하나님과 패괴된 인류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 구원받을 사람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며,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물음표가 달리고 미지수가 된다. 교체된 사람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말에는 원망과 오해, 해명과 변명이 가득하다. 심지어 그는 사람을 미혹하거나 구슬리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와 경계심을 가지게 만들고, 나아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는 제때 제재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그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진리를 구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천천히 소화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만약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진입에 영향을 끼치고 교란한다면 곧장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제재하지 못하여 그가 계속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여 사람을 미혹하거나 구슬린다면 즉각 제명해야지 그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교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2)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사람이 쉽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또 다른 상황은 바로 책망과 훈계를 받았을 때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복과 불만, 원망을 품으며 심지어 억울해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내가 해명하지도, 명확히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왜 자꾸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해명하고 변명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분석하지도, 보완하지도, 만회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이치를 따지면서 자신이 무엇으로 인해 잘하지 못했다는 둥,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는 둥, 객관적인 원인이나 객관적인 조건이 어땠다는 둥, 자신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둥 이런 이유를 대며 해명하고 변명하여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 이런 부류는 자신에 대한 책망과 훈계가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책망받은 일에 대해 분석해 주려 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일을 명확히 규명하려 하는 데다가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면 감히 본분을 이행하려는 사람도,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실행의 길도 없어질 거라고요."라는 말을 퍼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지 교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제를 통해 자신을 위해 해명하고 변명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자칫 실수라도 좀 하면 책망과 훈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설사 책망과 훈계를 받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대체 어떤 성질인지, 무엇 때문에 초래된 것인지 반성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일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이치를 따지고 해명하고 변명하기만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망과 훈계가 없을 때는 그래도 행할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망과 훈계를 받으니 저는 멍해졌어요.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길도 잘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해요. 절대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안 돼요.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마치 피부가 한 겹 벗겨지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절대 제가 걸은 길을 걷지 마세요. 보세요, 책망을 받은 제 꼴이 어떤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 다 옳지 않다고요!"라고 한다. 이 말이 옳으냐? 듣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이치를 따지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이치를 따지는 동시에 어떤 정보를 퍼뜨렸느냐?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책망과 훈계가 없을 때는 그래도 행할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망과 훈계를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는 책망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관념이 있어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책망과 훈계를 받아서 길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적반하장이 아니냐? 마치 "제가 한 일은 원래 원칙에 부합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저를 책망하는 건 명백히 제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죠?"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겠느냐? 그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느냐? (아닙니다.) 그 말은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는 법은 알지만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멍해진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던 것이냐?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원칙대로, 하나님 집의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책망과 훈계를 받은 것이다. 책망과 훈계의 목적은 사람이 진리를 구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더 이상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자신을 인식하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식하려는 뜻이 전혀 없고 진리를 구하려는 뜻도 없다. 그 뜻인즉슨 이렇다. "저는 예전에 본분을 꽤 잘 이행했는데 당신이 저를 책망하고 훈계한 이후로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본분을 이행하는 제 생각이 다 흐트러졌다고요. 저는 이제 생각도 비정상적으로 변했고, 일을 처리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패기나 배짱이 있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고요. 이건 전적으로 책망과 훈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서 저는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줄 거예요. 본분을 이행할 때는 꼭 조심해야 하고, 절대 추태를 보여서도,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된다고 말이죠. 잘못을 저지르면 책망과 훈계를 받게 되고,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움츠러들고 예전 같은 패기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세도 반으로 꺾이는 데다가 젊은이의 용기나 분발하려는 포부도 없어져서 찌질하고 소심해져요. 어떻게 해도 틀린 느낌이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기나 활력이 있다거나 사랑스럽다고 느끼지 못해요. 자신조차 자신을 업신여기죠." 이런 말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교제하는 속마음이겠느냐? 이런 말이 진실하겠느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겠느냐?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말한다. "여러분은 절대 제 전철을 밟지 마세요. 제가 걸은 옛길을 걷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은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 그때 책망과 훈계를 받고는 겁먹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해방받거나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을 더 경계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게 말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책망과 훈계를 받아. 정말이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건 어쩜 이리 어려울까? 매일같이 진리 원칙을 이야기하니 너무 힘들어! 그냥 평온하게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 안 되나? 이건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지나친 욕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충족하기가 어려울까? 나는 절대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안 돼. 난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통 누가 나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만약 정말로 책망과 훈계를 받는다면, 그렇게 엄하게 말하고 사실의 진상을 분석한다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밤에 악몽을 꾸지 않겠어? 다들 책망과 훈계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방금 그 사람도 겁을 먹었잖아?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나도 겁먹을 거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작용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작용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냐?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히겠느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자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죽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아니겠느냐?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원칙을 위배하여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면, 자신이 그토록 고생하며 대가를 치렀는데도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이 불복으로 가득 차고 자신에 대한 폭로나 분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그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자신처럼 유용한 인재를, 그토록 많이 고생하고 많은 대가를 치른 사람을 하나님 집에서는 칭찬하기는커녕 책망하고 훈계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불복하다 보니 원망을 품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려 한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워요. 복을 좀 받고 은혜를 좀 누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요.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고도 한 가지 일을 잘하지 못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다니, 저 같은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어째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째서 이토록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한 어떤 일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했는지 분석하지도 않고, 전혀 뉘우치거나 순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반항하려 한다. 그의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대다수 사람은 속으로 어느 정도 그를 동정하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20 년이나 믿었는데도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받다니, 하나님을 20 년 믿은 사람조차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희망이 없겠네요." 이는 중독된 것 아니겠느냐?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순간 독이 퍼지는데, 마치 씨앗 하나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져 사람의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저도 모르게 중독되어 하나님에 대해 반발심이나 원망이 생긴다.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복하게 되고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처리한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된다.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치를 따지고 해명하고 변명하려 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겪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본분을 이행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책망과 훈계를 받았다고 여기저기 퍼뜨린다. 그는 책망과 훈계를 통해 자신의 패괴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뿐더러 도리어 하나님 집에서 그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를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퍼뜨린다. 그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원인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다가 자신이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은 옳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집에서 잘못 책망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집에서는 사람이 잘못하면 약점을 잡고, 문제를 하나 포착하면 사정없이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것을, 그로써 사람이 책망을 받아 얌전해지고, 자신에게는 공로도 없고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고, 감히 하나님에게 상을 요구하지도 않게 되면 하나님 집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그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자기 대신 불공평하다고 외치도록 하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깨닫도록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고 공로를 얼마나 많이 세웠고 얼마나 대단한 자격을 갖췄으며 자신이 얼마나 경험 많은 신자인지 알도록 하는 것,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집의 규정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 집의 책망과 훈계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목적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미혹하려는 것이고,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해 교회 사역을 교란하려는 것이다. 그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든, 결국 그 작용이나 결과는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작용인 것이다.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서 발산하는 부정적인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즉, 사람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만과 불복을 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가장 먼저 책망과 훈계를 받은 일에서 진리를 구하거나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자신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행동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하나님 집에서 왜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려 하는지,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등을 살피지 않는다. 그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격이나 고생, 헌신을 들어 책망과 훈계에 반항한다. 그렇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전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은 없다. 그럼 그는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난 뒤의 느낌과 인식을 교제할 때 분명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관념을 퍼뜨릴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관념을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즉시 저지하거나 제재해야지 방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모든 사람의 생명 진입을 가로막고 교란하고 망치는 작용을 일으키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작용은 일으킬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람이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도록 격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류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는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니 응당 제재해야 한다.

(3) 명예, 지위, 이익에 손상이 갈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교체되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고 나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게 되는 것 외에 사람은 또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겠느냐? (이익이 줄어들어 손해 본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본분을 이행했는데 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제가 얻은 게 뭐죠?"라고 말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의 '명언'이 바로 "제가 얻은 게 뭐죠?"이다. 또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성과가 없는 데다가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깨우쳐 주시고 저는 깨우쳐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주신 자질은 저렇게 좋은데 제 자질은 이렇게 형편없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점을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 주시지도, 인도해 주시지도 않았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며 왜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 은총을 베풀면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냐고, 어째서 자신은 본분을 이행해도 성과가 없냐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너희는 꽤 좋은 예시를 들었다. 또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본분을 조정한 후 분노로 가득 차서 왜 자신을 조정하냐고 하고, 리더 일꾼이 자신을 겨냥해 못살게 군다고 의심합니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교체되고 도태되면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뒤에서 늘 불평을 늘어놓는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해 능력이나 자질도 떨어져서 남보다 못해요.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거겠죠!" 겉보기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잃은 이익을 되찾으려고 불평만 늘어놓고, 남들이 동정할 만한, 남들이 하나님 집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일단 이익이 줄어들면 내키지 않고 늘 손실을 만회하고 보상을 받으려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게 되어 이렇게 말한다. "원래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좋고, 교회에서 리더 일꾼이 되면 분명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체되고 도태되어 사람들에게 내쳐질 줄은 상상도 못 했죠. 하나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정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말 속에 공격과 판단, 반발심이 담겨 있다. 겉보기에는 리더 한 명이나 교회를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겨냥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과 규정이다. 이는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는 왜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려는 것이겠느냐?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아서 얻어 내고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부류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것은 비록 대다수 사람에게는 별로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런 추잡한 말은 똥파리나 빈대처럼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교란한다. 대다수 사람은 듣고 나면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지만, 일부 그와 같은 부류나 같은 성품과 본질, 기호를 가진 사람은 그와 한통속이 되어 영향받고 교란당하기 마련이다. 이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심지어 분량이 작거나 분별력이 없는 일부 사람도 이런 부정적인 말에 교란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인지 알지 못하고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에 대해 아주 모호하며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기 쉽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은 일종의 독소로, 쉽게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다.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해도 들은 체 만 체하고,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어떤 사역에 협력하라고 해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맡고 싶으면 맡고 맡기 싫으면 맡지 않는다. 늘 여러 이유와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이나마 진심이었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는 냉정해져서 형제자매도 냉정한 태도로 대하며 경계하고, 교회에서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라고 안배해도 늘 피하고 계속 미루며 아주 수동적으로 변한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제시간에 도착했지만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예배에도 꾸준히 참석하지 않게 된다. 기분이 좋으면 오고 좋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집에 수틀리는 일이 발생하면 그는 재앙이라도 닥칠까 두려워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는 기쁨과 감격, 감동에 겨워 헌금도 좀 한다. 그러다 집안이 평안해지면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그를 찾아가 교제하며 붙들어 주려 해도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 집으로 찾아가면 분명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고 중독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꽤 미더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사람들은 형제자매야. 여기는 하나님 집이고,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퍼뜨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뒤로 변한 것이다. 이는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의 생명 진입이 손실을 입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누가 영향을 끼친 것이냐?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한 말들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사람이 참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도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동향이나 형세를 살펴보거나 일의 표면적인 현상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영향받는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집도 항상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집에서 처리하는 일도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등과 같은 황당한 이론을 말하는 걸 듣고 나면 그는 경계심이 더 커진다. 진리에 부합하는 한 마디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이나 터무니없는 말, 진리에 위배되는 말은 사람 마음속에 너무도 쉽게 뿌리내려서 뽑아내려고 해도 어렵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몹시 어렵지만 황당한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무척 쉽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망과 명성, 육적인 누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나 이익을 유독 중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 직접적인 이익이 손실을 입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기회를 빌려 자신의 불만과 불복, 부정적인 정서를 발산해서 일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이런 부류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 교회 리더는 우선 곧장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저지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물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폭로하고 형제자매에게 이런 부류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가 왜 이런 부정적이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지, 그의 이런 말을 어떻게 대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교제하여 그에게 미혹되거나 큰 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반드시 이런 부류를 분별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멀리하고 내쳐서 더 이상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교회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다. 물론, 일반 형제자매도 이런 부류를 발견하고 이런 부류의 인성 본질을 분별해 내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만약 저항력이 부족하거나 그를 붙들어 주고 도와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그의 부정적인 말이나 불복과 불만이 담긴 말을 막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멀리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자신이 굳세고 어느 정도 분량이 있다고 느낀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심각하든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동시에 그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 그를 폭로하거나 저지할 수도 있다면 너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거나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자신에게 그런 분량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런 부류를 대하는 방식이나 원칙은 바로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제가 그를 포용하고 인내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된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좋은 실행은 아니다. 만약 네가 그를 인내하고 포용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너 자신이 그에게 미혹되고 끌려가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공급하고 붙들어 주든 너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자주 그의 생각과 말에 좌우될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만 떠올라도 마음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가 진리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특히 이런 부류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것을 교제할 때도 너는 그의 말에 좌우되고 영향받아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런 부류를 멀리해야 한다. 너의 포용과 인내는 소용이 없고, 그것은 이런 부류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네 포용과 인내가 겉으로 위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네게 이런 부류를 마주할 충분한 분량이 있다고 하자. 그가 뭐라고 말하든 네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저 그에게 참고 양보하거나 그를 상대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하는 그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 본분을 이행하는 네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네 순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너는 그를 포용하고 인내해도 된다. 포용과 인내를 실행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그에게 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그를 상대하지 말고 그가 마음대로 말하게 두어라. 어차피 그런 사람은 막무가내이고 억지를 부리기에 네가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마귀 사탄에 속하기에 그에게 교제한들 소용없다. 따라서 하나님 집에서 그를 제명하고 처리하기 전에 네게 그를 포용하고 인내하며 그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분량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 너희는 대부분의 경우 포용과 인내의 원칙을 취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든 다 참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조금 미혹될 때가 있다. 나중에 다시 깨닫고는 속으로 하나님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며칠 기도를 하고 나면 내적 상태가 되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부류는 좋은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비록 그와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그를 멀리하고 그에게 반감을 가진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관점을 퍼뜨리든 너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말해 봐. 난 당신을 분별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는다고.' 너희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 처리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쉽지는 않다. 진리도 좀 깨달아야 하고 분량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만약 네게 이 정도 분량조차 없다면 너는 굳게 설 수 없으며, 네 본분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4) 복받으려는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에는 또 다른 측면의 모습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제가 얻은 게 뭐죠?" 이런 부류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바로 "제가 얻은 게 뭐죠?"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집이나 하나님에게서 이득을 얻거나 축복을 받으려면 특히나 힘들다고, 사람이 지극히 큰 사랑을 바치고 엄청난 인내심을 가져야지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폭로하고 책망하고 연단하며 사람의 패괴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는 모두 표면적이고 틀에 박힌 말이니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면 크게 손해를 본다고, 언제든 이익이나 이득을 얻어 이상과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고 교회에서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마음속으로부터 영합하거나 찬성하겠느냐, 아니면 약간 경멸스러워하며 그가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사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여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제재하며 그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이나 죽음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겠느냐? 대다수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에 반감을 갖거나 그것을 정죄하겠느냐, 아니면 그것에 미혹되어 부정적으로 변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 자신의 두 손이 텅 빈 것을 보고 '그렇긴 해. 나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 하나님 집에서는 하루에 세 끼를 먹고 바쁘게 돌아다녔을 뿐 정말이지 다른 건 얻은 게 없어.'라고 생각한다. 너희도 이렇게 생각하느냐? 공감하느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얻은 게 없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게 너무나 많아요! 진리는 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얻은 게 아주 많다는 말은 그다지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은혜를 좀 얻고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좀 얻고 사람됨의 도리를 좀 깨달았을 뿐이죠. 다양한 지역에서 온 형제자매를 많이 접하고 알게 돼서 식견이 많이 넓어진 것도 얻은 거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너희는 어떤 경우이냐? 어떤 경우도 다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우선,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은혜를 얻으려는 이런 부류는 어찌 된 것인지 말해 보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얻는 것을 추구해 구원받으려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와 보호, 은총, 깨우침과 빛 비춤이 적으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모두 하나님에게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일은 구체적이지 않으냐? 사실이 있지 않으냐?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았느냐? (비교적 분명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의 사악한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 타락하지도, 그런 사악한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 이런 것들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꽤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꽤 실재적인 측면이라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소 느낄 수 있다. 세상의 사악한 흐름에 영향받거나 미혹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정상 인성 안에 살면서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보호받는 한 측면의 실제 사례이자 실증이다. 또 있느냐? (악령에게 교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측면의 실제 사례다.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안에 담긴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방인도 악령에게 교란당하지 않잖아요. 이방인 중 악령에게 교란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이 말이 옳겠느냐? 너희는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 (제 동창 중에 악령에게 교란당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가위에 눌린 동창도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창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교란을 당한 적도, 그런 고통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걱정이 없다. 히스테리에 걸리거나 악령에게 교란당하고 악령이 들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또 한 가지 측면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방인은 온종일 관상이나 풍수를 보고 점을 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보거나 유명한 보살, 악령, 우상을 숭배하기도 한다. 숭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숭배하든 하지 않든 다 어느 정도 그 영향과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점을 한번 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길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불길한지 알아본다. 가게를 열 때 계산대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돈을 잘 벌고,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돈을 못 버는지, 가게 안에 어떤 물건을 두고 어떤 우상을 숭배해야 재물이 들어오는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아야 풍수적으로 해롭지 않은지 알아본다. 또 이사할 때는 몇 시에 해야 길하고 나중에 집안이 번창하며 사고가 안 나는지, 몇 시에 이사하면 불길한지 알아본다. 심지어 학생이 진학 시험을 볼 때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시험 당일에 하는 말에는 '낙방'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면 안 되고, '승진', '합격' 같은 말만 해야 한다. 한 가정에서는 아이의 진학에서부터 부모의 살림살이, 돈벌이, 이사, 구직, 그리고 자식의 결혼 등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위 풍수나 운세와 같은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냐? 악령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악령이 통제한다. 그럼 왜 사람은 이런 것을 숭배하려 하겠느냐? 왜 이런 것들에 영향받겠느냐? 왜 이사라는 간단한 일에서도 사람은 늘 언제 이사하면 길하고 언제 이사하면 불길한지, 무엇을 먼저 옮겨야 길하고 무엇을 옮기지 말아야 길한지 궁리하겠느냐? 왜 늘 이런 것을 고려하겠느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려하지 않으면 악령이 손을 써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모든 인류가 악한 자의 수하에 살고 있다.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느냐? 큰 것은 사탄과 마귀를 가리키고 작은 것은 각 지역의 악령, 각 인종을 통제하는 악령이다. 사람 생활의 모든 측면이 이런 악령의 제한이나 통제를 받는다. 심지어 집을 지으며 마룻대를 올릴 때도 붉은 천을 걸거나 폭죽을 터뜨려 행운을 빌고, 큰돈을 벌고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노동자들은 빨간 옷을 입는다. 이런 일들에도 다 의미와 이치가 담겨 있고 게다가 금기도 있어서, 그런 이치를 조심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주 순탄치 못한 일을 겪는데, 실직하고 부인도 도망가고 집안은 거덜 난 데다가 집 때문에 받은 대출도 갚지 못하는 등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는 딱히 나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닥쳤겠느냐? 어쩔 수 없이 거짓 신이나 악령을 숭배하러 가거나 서둘러 사람을 찾아

풍수를 보면서 운수가 트이길 바란다. 그 뒤로 그의 일은 조금씩 순탄해진다. 그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이 생기면 정성을 다해 숭배하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점괘를 보거나 점을 친다. 너희 생각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는 게 피곤하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이런 말이나 규칙에 제한받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 없다. 그가 이런 규칙을 어기면 악령이 바로 손을 써서 그를 교란하고, 그는 악령에게 강제로 제압당해 매일같이 악령을 숭배해야만 순탄히 살아갈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봉건적인 미신이나 악령 역사에 제한받지 않고,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하고 가고 싶을 때 간다. 금기랄 게 없다.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늘 종교 신앙을 탄압하고 박해해서 한곳에서 살 수 없게 되면 서둘러 이사하니, 날짜나 시간을 따지거나 무엇을 숭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 준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런 것들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 언제 무엇을 먹고 싶거나 외출을 하고 싶을 때 날짜를 따지거나 어떤 금기를 범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주재 아래 살면 하나님이 지켜 주고 인도하며, 크고 작은 악령과 더러운 귀신은 모두 비켜선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감히 손을 쓰지 못하니 사람은 보호받는 것 아니겠느냐?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은혜가 크지 않으냐? (큽니다.) 네가 지금 진리를 얻든 얻지 못했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지켜 주고 네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네 신변이나 모든 행적은 다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고 보호해 주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할 수 있게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라고 말할 의식도 없다. 네가 기도할 필요도 없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라는 간단한 신념만 있으면 하나님은 행한다. 사람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얻은 게 적으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주재자이다. 너 자신과 가족의 목숨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모두 이 주재자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네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차분한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든, 이는 네가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점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있고 진리를 깨닫는다면 악령은 감히 교란하지도, 망치지도, 접근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그런 불필요한 과정은 피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너는 어째서 하나님을 믿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느냐? 그건 양심이 없는 것 아니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 점만으로도 사람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도 비양심적이라는 것, 양심이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진리 생명을 베풀어 주고 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 비록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분량이 작으며 진리를 별로 많이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은 것조차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사랑만 해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에게 주었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을 얻었다. 네가 몸소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을 사람에게 주었으니, 사람이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사람이 얻을 자격이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택함 받았으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운 좋은 사람인데도 어째서 자신이 얻은 게 없다고 말하느냐? 네가 가장 행복하고 운 좋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령과 더러운 귀신도 감히 네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제 가치나 신분이 존귀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행사로 인한 것이다. 사람은 얻은 게 너무도 많다! 이번 생에 사람은 이렇게나 많이 얻었는데, 사람 스스로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일부 사람들이 진리는 전혀 추구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서 제가 얻은 게 뭐죠?"라고 한다. 너는 스스로 셀 줄을 모르느냐? 진리를 깨달았는지 아닌지, 악을 얼마나 덜 행했는지는 너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알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는 더더욱 잘 알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런 것에 대해 확실히 안다면 너는 그런 비양심적인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는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도 제공해 줬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비하면 훨씬 보잘것없지 않으냐?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 않으냐?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그것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은 너무도 많다! 물질적인 것들에 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따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려 할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사랑을 누렸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몹시도 많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진리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의 사람도 들어 보거나 얻어 본 적 없는 이런 말씀들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몇 번 창조했든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없다. 인류의 모든 비밀과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이를 수 있는 것,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다. 이런 비밀이나 진리를 양적으로 가늠할 수 있겠느냐? 가늠할 수 없다. 사람은 몇 번의 생애 동안에도 다 누릴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사람이 의지해 생존하는 근간이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정말 운 좋게도 살아남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나 이런 진리는 영원히 너에게 공급할 수 있다. 영원이란 무슨 뜻이겠느냐? 시간제한이 없고 무한하다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끝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생존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나 이런 진리는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그때'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일종의 시간적 개념이나 정의이지만, 사실상 무기한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가치가 크지 않겠느냐? 몹시도 크다!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네 손실이고 네가 어리석은 것이다. 추구한다면 네게 이런 말씀의 가치는 이 한평생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네게 영원히 효과가 있고 영원히 유용할 것이며, 영원히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얻으며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불로장생하여 죽음을 맛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자나 깨나 바라는 바가 아니더냐? 시대가 얼마나 흐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든 너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너는 무엇을 통해 살아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너는 그렇게 계속 살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계속 살아 있으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부탁과 인도가 있고, 또한 네 사명도 있을 것이다. 네 사명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다. 사람이 이 시대에 듣고 접하고 체험한 이런 진리나 말씀의 가치와 의미는 영원히 존재한다. 왜 영원히 존재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일종의 신학이나 이론, 구호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네가 이런 말씀을 얻고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거나 생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네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너를 멸하거나 네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너를 계속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는 큰 복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네가 이번 생에 이런 복을 미리 맛보고 내세에 이런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토록 큰 약속을 주는 것으로 보아 사람은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토록 큰 약속을 주고 모든 이에게 공표하고 네게 알려 주어 네가 아무 대가 없이 취하도록 한다. 너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필요도, 모든 재산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게 많지 않으냐? 너는 지금 이 약속을 얻는 과정에 있다. 비록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얻은 게 적으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이 약속으로 보아 사람이 얻은 것은 아주 많다. 사람은 큰 이득을 얻었지 손해를 보지도 않았고, 아무 손실도 없다. 사람은 그저 시간이라는 대가를 좀 치렀고 육적으로 고생을 좀 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가정의 즐거움과 개인의 육적인 기호나 욕망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상과 지향, 염원 등을 일부 포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에 비해 개인의 그런 앞길이나 목표, 이상은 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뿐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인해 네게 약속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람이 유한한 시간을 좀 쏟고 자신이 원하거나 이를 수 있는 대가를 좀 치르면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창세한 이래 모든 인류가 깨닫지 못한 일부 비밀과 사람됨의 원칙, 그리고 만사 만물의 본질과 근원 등을 깨닫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억울할 게 뭐가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는 양심이 완전히 썩어 빠진 것 아니겠느냐? 너는 이토록 많이 얻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니 무엇을 더 얻으려는 것이냐? 대통령이나 억만장자가 되면 만족하겠느냐? 하나님이 만약 네게 그런 것들을 준다면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비양심적이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전혀 없으며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인격이 몹시 저속한 것이다. 이런 부류는 하나님이 행한 것과 사람에게 요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 등을 조금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잔뜩 참았던 울분을 한순간에 터뜨린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얻은 게 뭐죠? 저는 육적으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제게 안배한 본분도 다 이행했다고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불평한 적 없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별말 안 했어요. 하나님 집에 그 어떤 요구도 한 적 없고요. 이렇게 큰 사랑과 충성심을 바쳤는데 제가 얻은 게 뭐죠? 만약 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더더욱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은즉슨 이런 뜻이다. "당신들은 저만큼 많이 바치지도, 대가를 많이 치르지도 않았잖아요. 저도 얻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다들 조심해요.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요!" 이는 양심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비양심적인 사람은 늘 우매하고 완고한 말을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수많은 진리와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물과 가르침을 그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만 한사코 고집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얻게 해 주셔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나는 화풀이하고 폭발할 거야. 욕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베풀어 주셔야 해. 내가 얻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야 말겠어. 이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이는 인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인성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 타당할 리도 없고 더욱이 진리에 부합할 리도 없다. 그건 그에게 살짝 무리한 요구다.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정당한 요구나 정당한 주장이어야지 억지 논리여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들려주고 누구에게 시비를 가리게 하든 다 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인성이 나쁜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그가 떼를 쓰며 뒹굴고 분노를 표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저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할까?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나? 하나님 집에서 하는 일 중에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은 평소에 꽤나 고생하며 대가도 치를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 저렇게 크게 화를 내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나 봐. 착실한 사람을 화나게 한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본분을 이행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면 안 되겠어!' 분별력 없는 일부 바보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자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정말로 관점이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한다면 우선 그가 말하게, 관점을 드러내게 해라. 다 드러내고 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자신이 치른 대가가 자신이 얻은 것과 비례하지 않고 자신이 이득을 얻기는커녕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언짢은 거예요. 저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은혜와 이득을 바라는 거라고요!" 보통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면 그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들 분별력이 생기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할 말 다 했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잠자코 있어요. 계속 말하다간 망신당할 거예요. 당신의 사악한 본성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곧장 억누르지 않으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폭로하고 내치게 되면

후회해도 늦는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경고하면 그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손해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대체 뭘 얻고 싶은 거죠? 만약 집안을 일으켜 부유하게 하고 부호가 되거나 고위직에 오르고 싶은 거라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역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는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 집은 세상이 아니니 마귀 사탄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 집이나 형제자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많고, 생명이 되도록 베푸신 진리는 더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당신이 무지몽매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이렇게 그를 꾸짖고 책망한다면, 이렇게 실행한다면 어떻겠느냐?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 집에서는 당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한 건 다 자원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 후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알긴 하나요? 당신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해야 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아서도 안 돼요. 지금 당신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도 아니에요. 당신은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과거의 일을 따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 집도 당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 집과 계산을 하려거든 서둘러 하나님 집을 떠나세요. 절대 하나님 집을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당신을 치실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죠.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진정하여 기도하고 구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는 관점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요구하신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그렇게나 많이 하고 그토록 큰 분노를 품는다면 그건 당신의 추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토록 깊은 원한을 쌓은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됐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릇된 관점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당신은 지각하지 못해서 전혀 통회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다 보니 오늘 같은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해도 늦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면 당신은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당신을 제명하면 앞으로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 집에서 정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시거든요.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을 이토록 오랫동안 믿으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줄도 아는 걸 봐서 이렇게 경고하고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충고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 집에서 당신을 제명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형제자매가 아니게

되죠. 그럼 당신이 구원받을 희망은 아예 사라져요. 그때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텐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사상 관점과 추구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더 이상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실 때 당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조할 수 있거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는 해결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패역을 인식했나요? 해결했나요? 당신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늘 하나님과 철저하게 계산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속셈이나 거래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늘 복을 받으려 안달해요. 힘을 들이고 헌신하고 육적으로 고생하여 천국의 복을 얻으려고 하죠. 이는 강도의 논리가 아니겠어요?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지 않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구원받고 싶어 한다면 늘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 하나님의 요구나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단지 육적으로 좀 고생하고 대가를 좀 치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당신의 패괴 성품은 해결되지 않았고, 당신이 치르는 대가나 겪는 고생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칭찬하시지 않고 그런 대가를 원하시지 않아요. 기어코 하나님과 계산하고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과 겨루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옥에 가서 징벌받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악을 행한 응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렸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당신을 어느 정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당신은 얻어야 할 걸 이미 얻었는데 하나님께 뭘 더 바라는 거죠?" 이런 말을 교제하면 어느 정도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듣고 나서 원망의 정서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은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한 말이고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약 인성의 이성을 갖추고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인성이 없고 양심과 이성을 상실한 사람만이 이런 말들이 자신을 속이는 형식적인 말이며 믿을 가치가 없다고, 눈에 보이는 은혜나 물질적인 축복만큼 실속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그런 실속 있는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네가 뭐라고 말하든 소용없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앞에서는 반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뒤에서는 속으로 여전히 반발하며 수시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려 한다. 게다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세어 보기도 한다. 지금 하나님 집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하나님 집을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 어떤 일에 직면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는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고 길길이 날뛰고 추태를 드러내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려 한다. 그럼 이런 사람도 타일러야겠느냐? 간단하게 타이른 다음 그가 여전히 그 모양이고, 고질병이 도지거나 마귀의 본성이 또 격발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번에는 제재해야지 회개할 기회를 남겨 주어선 안 된다. 그는 쓸모없고 우매하고 완고한 작자이다. 우매하고 완고한 작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느냐? 순수한 도나 긍정적인 사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 논리나 그릇된 주장,

황당한 이론만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이 실리를 얻거나 덕을 보고 손해를 보지 않는 관점만 고집한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진리를 교제하든 그는 "그런 말은 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은 누가 못 하겠어요? 당신도 손해를 보면 그런 말은 못 할 거예요."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관점을 고집한 채 내려놓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닥치거나 어떤 손실을 입으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며 또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려 한다.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줘야겠느냐? 주면 안 된다. 그는 본분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교란하려 하니 서둘러 저지하고 제재하여 그가 제멋대로 지껄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가 계속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교란하려 한다면 봐주지 말고 서둘러 그를 정리해서 내보내야 한다. 이게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자세하게 설명하며 진리를 교제했는데 아무리 교제해도 그가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느냐?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불신파이지만 본질은 마귀이다. 그가 하나님 집에 온 것은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는 이익을 얻으러 온 것이고, 이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 한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익을 얻지 못하면 그의 사탄 성품이 폭발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 내며 악을 행하고 교란하려 한다. 이게 바로 마귀이다. 그가 그깟 고생을 겪고 헌신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거래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이익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이 닥쳐서 부정적이고 연약해지면 항상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하고 복수한다. 자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자신의 불만스러운 정서를 쏟아 내기도 한다. 이런 부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이미 교제를 마쳤다. 즉,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다시는 교란하지 않겠다고 보증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어 교회에 남게 해도 되지만, 그가 계속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망치려 하면 그를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고 하나님 선민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고 채택한 방법이니 이는 적절하다.

교회 생활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기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은 본분 이행에 성과가 없고 늘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반성하지는 않고 항상 하나님이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하나님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늘 자신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신은 본분을 이행해도 늘 성과가 없으며 두각을 나타내어 남들의 우러름을 받는 목적도 항상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는 동시에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혐오하고 증오한다. 이런 부류 사람의 인성은 어떻겠느냐? 속 좁지 않겠느냐? 그 밖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대입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저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석차가 높은지 낮은지만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런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우선, 진리를 이해하는 각도에서 보면

이런 부류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있겠느냐? 영적인 이해력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는 사람들 간에 석차를 매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은 어떻고 자신의 본분 이행은 어떤지 평가한다. 마치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을 평가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평가한다. 이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밖에, 그가 본분을 이행할 때 힘을 들이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기세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을 구할 줄 알겠느냐? 원칙을 구하겠느냐? 한편으로, 그는 원칙을 구할 줄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는 그저 원칙을 찾아 원칙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원칙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지 등 이런 것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본분 이행이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분 이행에 대해 요구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가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형제자매의 교제 속에서 그가 이런 일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본분 이행에 관한 일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 후로 고민한다. '내가 학창 시절에 깨달은 도리가 하나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잡담하거나 식사할 때도 나는 찬송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거야.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지런한 내 모습을 봐서라도 분명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나는 본분 이행에서도 틀림없이 성과를 이룰 거고, 분명 많은 사람 가운데서 높은 점수를 얻어 중시받고 발탁될 수 있을 거야.' 결국, 그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 본분 이행의 성과가 어째서 여전히 남들보다 못하지? 이래서 언제 발탁되고 중용되겠어? 이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난 천성적으로 승부욕이 강하고 남에게 뒤지는 걸 싫어해.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는 결심이 생겨. 그 사람을 뛰어넘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는 옳은 방식이나 방법을 써서 열심히 공부하는 기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익힌다면, 남들과 잡담하지도 않고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 쓰지도 않는다면, 적게 자고 적게 누리며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고 육적인 안일을 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본분 이행에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황이 늘 그의 생각과 같지 않자 '어째서 나는 본분을 이행할 때 여전히 늘 실수하고 남들만큼 잘 이행하지 못할까? 남들은 빨리하고 잘해서 리더가 늘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는데도 어째서 여전히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라며 궁리하다가 드디어 중대한 발견을 한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신 거였어.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돼서야 알게 되다니!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푸시잖아. 그런데 왜 내게는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내가 멍청하고 아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그다지 똑똑하고 영리하지도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 외모가 너무 평범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나 많이 읽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는커녕 나를 드러내려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부정적으로 변한다.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 본분을 이행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하러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부정적으로 변하고, 길이 없어지며, 속상해지고,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진다. 다시 본분을 이행할 때는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게 된다. 남들이 어떻게 원칙을 교제하든 그는 귀담아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생명 진입이 있겠느냐? 본분 이행에 충성심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얼마 되지도 않았던 노력이나 부지런함도 사라지니 마음속에 무엇이 남겠느냐? '한 걸음씩 가면서 생각해 보자. 갈 수 있을 때까지 가 보자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드러내시고 도태시키실지, 언제 나를 포기하실지도 모르니, 그날이 와서 내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때 그만둘 거야. 나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태시키시지 않지만 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 도태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런 사상 관점은 남들과 어울릴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따금 흘러나온다. "다들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예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힘을 많이 써도 소용없다고요. 우리는 본분을 이행할 때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 해요. 힘을 못 내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오리를 횃대에 올라가게 하듯이 강요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은 강요하시지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뜻은 바로 이렇다. "이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어차피 제 태도는 이럴 거라고요."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이 이런 태도나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것이겠느냐? 그에게 이런 내적 상태나 태도가 생겼으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람을 부정적이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하기 쉽다. 이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마귀는 결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지 않고 그저 간단하게 "여러분은 저보다 나아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글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글렀어요."라고 몇 마디 할 뿐이지만, 말이 간단하고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마치 자신을 반성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자질이 떨어지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있다. 이 말에는 풍자와 조롱, 반발심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한 정서도 담겨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정서는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록 그가 "저는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도 위험해요."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전달하는 신호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노력한 그조차 구원받을 희망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가 전달하는 이런 신호는 모두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다. "희망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고 당신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예요." 대다수 사람은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도 모르게 약해지고, 본분을 이행할 때 사람이 다해야 할 충성심과 바쳐야 할 진심도 크게 줄어든다. 비록 그가 이런 부정적인 것을 발산할 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려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금방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쉽다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람들이 느낌 속에서 살면서 느낌에 기대 하나님을 추측하게 하고, 표면적인 현상에 의지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진심을 분석하고 연구하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사람에게 전달되면 사람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오해하고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 동시에 이행하는 본분에 대해서도 진심을 다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어떤 충성심도 가지려 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말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다. 이런 영향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도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못한다. 이런 긍정적인 성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진리 추구를 포기하고 싶어지며 본분을 이행할 의지도 사라진다. 왜 믿음을 잃겠느냐? (자신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난 뒤 자신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분을 이행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모습은 네가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항상 느낌과 기분, 억측에 기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지, 네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는지, 하나님이 네 본분 이행을 칭찬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람이 억측에 기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진리를 실행하는 힘이 작아진다. 왜 그렇겠느냐? 사람이 억측에 기대 하나님을 판단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억측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안에는 간사함과 거래, 사람의 처세 철학, 사탄의 논리 등이 가득하다. 사람이 이런 것들에 기대 하나님을 억측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잃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잃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명 속으로 커다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끝나고, 사람은 철저히 망가질 것이다. 그 밖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억측하는 게 옳으냐?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겠느냐? 분명히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억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해서도 안 된다. 그건 그 자체로 잘못됐다. 사람의 관점과 위치가 다 잘못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억측하고 추측하고 의심하고 불신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사상 관점이나 처세 철학, 지식과 학문에 기대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우선,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뜻, 사랑과 미움, 각 부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안배와 마음, 생각 등을 너는 추측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확한 가르침과 뜻이 있으니, 너는 믿고 구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토록 간단하다. 하나님은 네게 하나님이 너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대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낌에 기대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자신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느낌이겠느냐, 아니면 사실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패괴 성품을 표출할 때 어떻게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진리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 줬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 하고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일이 진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속이지 않았다. 이건 빈말이 아니다. 네가 자신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너의 일시적인 기분이자 특정한 환경이나 배경에서 생겨난 일종의 느낌일 뿐이다. 네 느낌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네가 그런 느낌에 기대 살아가고 그런 느낌에 기대 하나님을 억측하며 네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이다. 그럼 이 일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느낌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느낌에 기대선 안 된다면 무엇에 기대야 하나요?" 너의 어떤 것에 기대든 다 소용없다. 사람의 느낌은 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너의 그 느낌이 어떻게 생겨났고 대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 사탄에게 미혹되어 생겨난 것이라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 아무튼 그 느낌이 어떻게 생겨났든 그것은 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느낌이나 직감이 특히 강렬할 때일수록 사람은 더욱 진리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사람의 느낌은 사실이나 진리와는 별문제이다. 느낌이 네게 진리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네게 실행의 길을 가져다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네게 실행의 길과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탈출구를 열어 줄 수 있다. 따라서 네가 실행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찾는 게 아니다. 네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네가 느낌에 기댈수록 행할 길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며, 너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느낌을 내려놓고 진리 원칙을 구하며 자신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어떤 행동이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자기 뜻대로 한 어떤 행동이 아예 진리 원칙과 무관한지 살펴본다면, 구하는 과정에서 너는 자기 뜻과 상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약간만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들어도 적지 않은 문제를 발견할 것이다. '난 너무 패역하고 제멋대로이고 교만해! 난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었어. 내 느낌이 정확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은 거야. 난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도, 인도하시지도 않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신다고 원망만 했지 내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제멋대로 군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어. 이건 내 잘못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분 이행 자격을 취소하시지 않았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나는 스스로 잔뜩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께 이치를 따졌어. 예전에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아. 난 무슨 일을 하든 원칙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이 작다는 걸 아시는구나!' 이렇게 구함으로써 사람은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리 원칙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차츰차츰 자신이 처신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게 됐다고 느낀다. 그때면 양심이 많이 평안해졌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느낌이나 의식이 점점 더 약해지지? 그런 내적 상태가 어째서 변했을까? 예전에 난 스스로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부정적으로 반발하고 하나님께 맞섰던 거잖아? 난 너무 패역해!' 순종하고 나면 너는 저도 모르게 본분 이행 과정에서 일부 원칙을 깨닫고,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게 되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고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저도 모르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내적 상태에 빠지지도 않게 되며, 본분 이행에 원칙이 생기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도 정상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너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어.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느낄 수 있다고. 드디어 실감했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도 축복하신다는 걸 말이야. 보아하니 나도 아직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어. 내가 예전에 걸었던 길이 옳지 않았던 거였어. 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도 훌륭하다고 생각한 데다가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살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잖아. 이제야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겠어! 하나님께 대들고 반발하는 내적 상태에 빠져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지 못하지.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어?' 보아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실행법과 자기 생각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은 결국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느낌에 기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의 느낌은 일시적인 기분인데 사람의 결말과 관련이 있겠느냐? 사실과 관련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반발하고 대항하고 대드는 그런 정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에서 철저하게 멀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내적 상태로 살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느낌대로 살아가게 된다. 한 가지 사소한 생각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고민하기도 하고, 남이 무심코 한 말에 이리저리 추측하며 쩔쩔매는가 하면, 심지어 악몽을 꾼 것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난 뒤, 사람은 자기는 글렀다고,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떠나서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이렇게 느낄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든다. 사람에게 이런 느낌이 드는 원인은 결국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진리 원칙에 따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언제나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 매일 남들과 비교하고 다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미워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비웃고 빈정댄다. 또한, 사탄 성품으로 살면서 진리 원칙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결국에는 온갖 환상과 추측, 판단이 생겨나 자신을 끝없는 불안에 떨게 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쓰디쓴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진짜 자업자득이다!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초래된 것이냐? 그건 바로 사람이 진리를 구하지 않고,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늘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남과 비교하며, 언제나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고, 늘 하나님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등 이런 행동으로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진리를 어기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에는 흑암에 빠지고 부정적 상태에 빠진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거역과 대적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없고, 더욱이 올바른 마음 자세로 대할 수도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추측하기만 한다. 이런 것이 생겨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너무 깊이 패괴되고, 너무 골칫거리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여 버리셨구나. 나를 원하지 않으셔. 내가 너무 패역해서 그런 거고, 자업자득이야. 하나님은 분명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추측한 것을 사실로 규정해 버린다. 누가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소용이 없는데, 그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구원해 주시지도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지?' 하나님 믿는 길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어째서 계속 걸어갈 수 없겠느냐?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사람의 부정적인 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 속으로 반발과 원망이 가득 쌓이며, 하나님과 철저하게 결별하려 할 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 믿는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수동적으로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건 그래도 체면이 조금 선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기권하고 스스로 끝을 내는 쪽을 택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 않다고 정죄하고,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구원하지 않느냐며 원망한다. '난 부지런히 하면서 남들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 대가도 많이 치렀어. 난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 이제야 알겠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셔!' 그는 감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정죄와 모독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 믿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망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거나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어처구니없지 않으냐? 사람은 모두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길을 걷는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네가 스스로 막다른 길에 이른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치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원치 않는다거나 포기한다거나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네가 네 추측에 기대 하나님을 규정한 것이다. 만약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설사 하나님이 너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혐오한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이를 제재하고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모두 자신의 선택과 추구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너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너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기어코 그 관계를 망쳐 버리려고 하니, 일단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회복할 수 있겠느냐? 깨진 거울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설사 원상태로 되돌리더라도 그 균열은 남아 있기 마련이다. 이미 망쳐졌기 때문에 그 관계는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환경이 닥치든 사람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진리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굳게 설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본분을 이행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진리 원칙을 깨달아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고 시행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 가고 이해하고 인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본분을 이행한다면 너는 영원히 진리를 접할 수 없다. 진리를 접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너는 영원히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요구,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표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더더욱 접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 사역에 관한 이런 사실들을 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은 영원히 사람의 상상과 관념일 것이고, 상상과 관념 속에만 머물 뿐 영원히 하나님의 본질이나 진실한 성품과는 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부정적이고 패역한 내적 상태가 생기는데, 만약 진리를 구해 진리 원칙으로 대하고 해결한다면 부정적인 정서는 원망이나 반발심, 반항, 저항, 심지어 모독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꾸 자신의 잔꾀에 기대고 인위적인 절제, 인위적인 노력, 근면, 자기 극복 등의 행동 방식으로 대한다면 결국 언젠가 그런 인위적인 상상과 판단, 억측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 반발심, 저항, 심지어 모독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빠지면 불복과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등의 정서나 생각이 생겨나기 쉽다. 이런 생각이 사람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는데도 계속 진리를 구하지도, 진리로 해결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의 불복과 불만, 원망은 반항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은 일부 반역 행위로, 예를 들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거나 일부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망치는 등 부정적인 행위로 자신의 불복과 불만을 표현하여 반항하려는 목적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을 망치고 교란하는데, 그건 이런 뜻이다. '내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분을 이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교란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교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행위로 교란하는 사람도 있다. 행위로 교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지르겠느냐? 예를 들어, 일부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여 그 사람의 본분 이행 성과에 영향을 끼치거나 고의로 남들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란한다. 이는 마귀 사탄이 사람을 교란하는 행위다. 사람들은 다들 이해하지 못한다. '나이도 꽤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지? 열 살짜리 어린애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못된 장난을 칠 수 있지?' 실제로는 삼사십대나 오륙십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각종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하는 행위이다. 그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을 때나 예배 드릴 때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교란할 것이다. 그가 행위로 불만을 쏟아 내기 시작하면 수습하기 어렵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사태와 성질이 갈수록 심각해질 뿐이다. 그는 행위로 교란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고, 공격적이고 판단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을 교란한다. 목적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이어서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익히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와 관련된 서적은 하나도 읽지 않는다. 그는 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소설을 읽고 드라마에 빠져 있고 요리 기술을 익히고 미용법을 배운다.... 예배 드릴 때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패괴 성품과 패괴 표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교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교제할 때는 일부러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 말을 끊거나 고의로 화제를 돌리는 등 무너뜨리거나 교란하는 말만 한다.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포자기하여 자신이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출교되기 전에 함께할 사람을 몇 명 찾고,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는 왜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처음에 상상했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가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공의롭지도 않으며 더욱이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진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이게 아직 다가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희망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다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러나도록 하려고 한다. 그는 그래야 만족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도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니 당신들은 꿈도 꾸지 마!' 이건 뭐 하는 인간이냐? 마귀가 아니냐? 마귀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막다른 길로 걸어가려는 것이다! 양심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정말로 큰 악을 행해 드러나고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그는 다른 사람이 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육적인 욕망도 큰 데다가 세상에 미련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에요. 이래도 싸다고요! 여러분은 제게 영향받지 말고 잘 믿으세요. 예배 때 제가 망을 볼게요. 만약 큰 붉은 용의

경찰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릴게요." 인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진리 추구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거나 형제자매가 자신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도태시켜서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해나 생각을 가지면 그는 자포자기하고, 거리낌 없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려 교회 생활을 교란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귀에 속하는 이런 부류를 대할 때 봐주어야겠느냐? (그래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당신은 뭐 하러 온 거죠? 교란하러 왔나요?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자신이 구원받을 희망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마음은 진실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처럼 늘 부정적으로 굴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교란할 생각은 하지 마요. 방해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를 교란하려 한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우리를 원망하지 마요. 오늘부터 당신은 제명됐어요. 교회에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없으니 썩 꺼지라고요!" 이러면 문제가 처리된 것 아니냐? 아주 간단하다. 몇 마디 말로 그를 정리해 내보내니 얼마나 쉬운 일이냐! 왜 이렇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부류는 본성 본질이 변할 수 없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교란한다. 만약 언젠가 정말로 그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해 출교되거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지르거나 어떤 큰 악을 행하기 전에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이 그를 정리해 내보내기에 딱 알맞다.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시기적절하고 아주 적합하다. 다들 분별력을 기르고 악인도 처리하니, 그는 부각물 역할로 아주 제격이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이 보이는 각종 내적 상태와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러하다. 지위, 명예, 이익에 대한 그들의 추구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한 것이 그들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은 불복과 불만의 정서에 빠진다. 이런 불만과 불복의 정서가 생긴 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유와 핑계, 해명, 변명 등 원망의 생각이 생겨난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진리를 구해 자신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반면 자신의 관념과 상상, 사상 관점, 또는 사람의 혈기로 하나님께 대항한다. 어떻게 대항하겠느냐? 그들의 불복과 불만의 정서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사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며, 하나님이 그들의 바람과 요구대로 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정서가 진정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이 수많은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며 사람의

패괴 성품을 정결케 하고 사람을 구원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런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받고자 하는 단꿈을 깨 버렸는지 모른다. 그들이 밤낮으로 고대한,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꿈이 그렇게 깨진 것이다. 그들도 기를 쓰고 이 국면을 되돌리고자 하지만, 어쩔 도리 없이 부정적인 것과 원한을 품고 재난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배한 이 모든 것에 불복한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 그들의 관념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에서 정리 사역을 하여 많은 사람을 도태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여 반항하려고 하며, 하나님이 진리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부정하려 한다. 물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도 부정하려 한다. 어떤 식으로 부정하겠느냐? 반항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 내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니 난 순종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당신과 대들 것이고,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일에 대해 퍼뜨릴 거라고! 나는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할 거야.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상관없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신은 내 입을 막을 수 없어. 나는 말할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뭘 어쩔 수 있겠어?'라는 뜻이다. 그는 기어이 자신의 그런 그릇된 사상 관점을 퍼뜨리려 한다. 이것이 인식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겠느냐? 절대 아니다. 이는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고 사설과 궤변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패괴를 인식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행한, 진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폭로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애써 해명하고 변명함으로써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릇된 정설을 만들고, 부정적이고 치우친 관점과 강변과 사설을 퍼뜨리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교회의 하나님 선민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미혹과 교란이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을 부정적인 상태, 혼탁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는 전부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해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교란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언행은 모두 제재되어야 하지 용인되거나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대할 적절한 처리 방식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형제자매는 이런 사람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 선민들이 분별력을 갖추고 나면 진리 원칙을 근거로 즉시 그런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출교시켜 더 많은 사람이 영향받거나 교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에 관한 여러 방면의 일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3)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원칙과 길

사람은 사탄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탄의 성품으로 살기에 부정적인 내적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아주 어렵다. 특히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수시로 부정적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이 될 때가 있다. 누구는 그럴 때가 많고, 누구는 그럴 때가 적으며, 누구는 오랫동안 부정적이고, 누구는 잠깐 부정적이다. 사람의 분량이 다르듯 부정적인 내적 상태도 다르다. 분량이 큰 자는 시련을 마주해야 조금 부정적이 된다. 분량이 작은 자는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남이 관념을 좀 퍼뜨리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도 분별할 줄 모르고 교란당하거나 영향을 받으며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설사 그게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시로 부정적이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면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붙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그가 도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부정적이 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보아라, 사람이 늘 관념을 갖고 쉽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늘 자신의 관념과 상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골칫거리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이 되어도 너는 네게 관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마음속으로 알아야 한다. 만약 네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너는 마땅히 진리를 구해 자신의 관념을 해결하고 진리에 순종해야지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기어이 관념을 퍼뜨린다면 너는 이성을 잃은 것이다. 이는 정신에 문제가 있고 귀신이 들린 것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한다. 마귀에게 지배받으면 그렇게 말하고 퍼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악령이 하는 짓이니 어쩔 수 없다. 만약 네게 조금이라도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이 한 가지는 지켜야 한다. 즉, 관념을 퍼뜨리지 말고 형제자매들을 교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부정적이 되었다고 해도 형제자매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때때로 부정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네 부정적인 것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언젠가 진리를 깨달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네게 큰일이 닥친다면, 예를 들어 리더를 맡았는데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교체되고 도태된다면, 너는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도 떨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변해서 마치 정죄되고 저주받은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아주 쉽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 교제하고 구하면서 마음속 말을 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러한 부정적인 것과 연약함,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겨 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입 밖에 내기 힘든 말들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정죄받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속으로 이 한 가지 일을 신경 쓰겠느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속 말을 하고 너의 문제와

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 너의 연약함과 패역, 심지어 너의 원망마저 모두 하나님께 말해도 괜찮다. 그저 화풀이를 하려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째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을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의 분량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는 한편으로 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이다. 또 한편으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 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최소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보여 주는 것이다. 너는 단지 연약하여 이 일을 이겨 낼 충분한 분량이 없을 뿐이다. 너는 반항하려는 뜻이 없으며, 네 태도는 순종하려는 것이지만 네 분량이 너무 작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이다. 네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네가 하는 말에 연약함과 원망도 있고 더구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도 한 가지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신분을 부인하지 않고, 너와 하나님 사이의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가 가장 이겨 내기 힘들거나 너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 모든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 이는 너의 태도를 보여 준다. 누군가는 말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 드렸지만 제 부정적인 상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겨 낼 수가 없다고요." 걱정할 것 없다.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깨닫든 하나님은 너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처음처럼 그렇게 연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아무리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이 많더라도, 아무리 원망과 부정적인 정서가 많더라도 모두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을 너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처럼 대하지 마라. 어느 누구에게 숨기더라도 하나님께는 숨기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유일한 버팀목이며,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 우매하고 완고한 사람만이 큰일이나 중요한 일이 닥칠수록, 하나님께 마음의 소리를 토로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며 혼자 속으로 궁리한다. 이리저리 궁리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것과 원망이 반항으로 바뀌고, 반항은 또 반발심과 저항으로 바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된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연약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진심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네가 부정적이고 연약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는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네가 부정적이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줄지 알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활로를 안배해 준다는 사실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부지중에 상황의 변화를 보게 되고,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이다. 네가 이런 일들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 너의 연약함이 어찌 그리 유치했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사람은 이렇게 유치하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유치하고 우매한 상태에서 성숙해질 수 없다. 이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만 조금씩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직면하고,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점점 더 순종하며, 패역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체험하면 생명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완전히 성인의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

부정적인 내적 상태를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야겠느냐? 부정적인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이성을 갖는 것이다. 늘 부정적으로 지낸다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 쉽지 않겠느냐? 부정적이면 불평을 늘어놓거나 자포자기하며, 언행이 조금도 이성적이지 않다. 이는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만약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이고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심각하게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면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 같고 귀신 들린 자와 비슷한데 이성이 없는 것이다. 이럴 때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사람이 부정적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이성을 잃기 쉽고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것과 불만, 관념을 떠벌리고 퍼뜨리게 된다. 이러면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기가 매우 쉬우며,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람이 부정적일 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것과 관념을 퍼뜨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누구든 부정적이 될 때가 있다. 단지 그 정도와 기간이 다르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원인도 서로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이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이 닥쳐야 부정적으로 변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이 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부정적이 된다. 이런 사람이 삶을 알겠느냐? 식견이 있겠느냐? 정상인의 마음과 도량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이 패괴 성품으로 살아가는 한, 언제라도 부정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진리를 깨닫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부정적인 상태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부정적인 것도 분량이 자라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상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점점 늘어나 무겁게 짓누르고, 일단 과부하가 걸리면 일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무척 위험하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제때 해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주동적으로 진리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게 되며, 진리를 깨달아 부정적인 것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관념과 이유를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너는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너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어찌 됐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할 때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부정적이 되어도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부정적인 것이 자연히 기쁨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환상이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한, 부정적인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잊어버리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적당한 환경이 닥치면 다시 부정적이 될 것이다. 이는 무척 흔한 일이다.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부정적이 되었을 때 얼른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이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시로 부정적인 사람은 모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것은 마귀처럼 너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를 계속 부정적이 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복과 불만, 원망의 정서를 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게 되면 너는 끝에 이른 것이고, 너의 추한 몰골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폭로하고 해부하고 규정하기 시작하며, 너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그제야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때 너는 주저앉아 가슴을 치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그저 하나님의 징벌을 기다려라! 부정적인 것은 사람을 연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게 하며, 심지어는 직접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들게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해결할 때 시기를 놓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면 그 결과는 무척 심각해진다. 어떤 일, 어떤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사상 관점으로 인해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는 네가 그 일에 대해 치우친 인식, 관념, 상상을 갖고 있고, 그 일에 있어 너의 관점은 분명 진리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때는 진리를 구하고 정확히 직시하여 최대한 일찍,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잘못된 관념과 생각을 바로잡아 더 이상 자신이 그러한 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오도되어 하나님께 불복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을 제때 해결하고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깨우침을 구하는 것이다. 때로는 너의 사상 관점을 하루아침에 바로잡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이 틀리고 자신의 생각이 치우쳤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면 최소한 이러한 그릇된 사상 관점이 본분을 이행하는 너의 충성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효과를 얻는다. 최소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너는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불복과 불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느냐? 너는 "제가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해도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본분을 내팽개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성립하느냐? 너는 수시로 부정적인데, 그 안에는 패괴 성품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 관념을 품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척 위험한 일이다. 사람이 수시로 부정적이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충성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그 부정적인 것이 저절로 물러가고 사라지겠느냐? 제때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것은 계속 커져서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그것은 점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 절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저 나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뿐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이 될 때는 한시바삐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니 지체해서는 안 된다!

2021 년 6 월 26 일

리더 일꾼의 직책(18)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6)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10.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지난번 예배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를 교제했다.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총 열한 가지로 나누었다. 다시 한 번 읊어 보아라. (1.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난다. 2.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3. 가정사를 떠들고 연줄을 대고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편을 가른다. 5. 지위를 다툰다. 6.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7.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을 벌인다. 8. 관념을 퍼뜨린다. 9. 부정적인 것을 발산한다. 10.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11.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한다.) 지난번에 아홉 번째까지 교제했으니 오늘은 '10.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를 교제하겠다.

1)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모습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은 교회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 실행을 중시하지도 않는다. 진리 원칙과 관련된 일에서든, 개인의 추구에서든 그들은 진리를 구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그런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뜬소문이나 사적인 정보를 캐묻고 기담괴설을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 물론, 그들이 더욱 몰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집과 교회 리더 일꾼에 관한 일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근거 없는 뜬소문을 퍼뜨리거나 주워들은 일, 혹은 스스로 상상한 결코 사실이 아닌 일을 퍼뜨리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으며 예배할 때도 진리를 교제하거나 개인의 내적 상태, 개인의 추구와 진입, 혹은 하나님 사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 등을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다. 물론 그들은 진리나 개인의 체험 간증을 교제하는 사람과 일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난, 사람의 종착지, 하나님 형상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유독 정신을 집중한다. 이런 말을 보거나 듣기만 하면 그들은 바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러 온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 왔지만 본분 이행에 관한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뜬소문을 알아보고 수집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려 할 뿐이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 집의 체험 간증과 찬양, 영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저 인터넷에 접속해 종교계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 집이나 교회 사역,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는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만 좋아한다. 가끔 하나님 집의 영상을 보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으로 진리를 구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겠느냐? 그들은 영상 아래에 달린 댓글을 보는데, 그것도 선택적으로 본다. 교회 형제자매의 댓글을 보면 넘어가고 종교계나 이방인의 댓글에는 무척 관심을 보인다. 심지어 큰 붉은 용이 남긴 논평이나 주장만 따로 보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선전이나 주장,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보면 그들은 진리를 구해 분별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부정적인 말이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로 대하기도 한다. 긍정적인 댓글이 얼마나 있든 그런 것은 보려 하지 않고 진짜라고 믿지도 않는다. 오직 부정적인 댓글이나 유언비어만이 그들의 관심을 끌고 구미를 돋울 수 있다. 그들은 그런 부정적인 댓글을 볼 때마다 속이 후련해한다. 그들은 세상과 종교계, 혹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나 판단,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고 헐뜯는 말에는 특히 관심을 갖고 늘 열심히 연구하고 수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 교제, 형제자매의 체험 간증 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고 체험 간증을 공유할 때 그들은 귀찮아하고, 번거롭고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진리를 교제하고 자기 인식을 이야기하는 일을 속으로 특히 싫어한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 그들은 희한하고 기괴한 일들만 듣고 싶어 한다. 영계에서 비롯된 비밀이든, 종교계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나 뜬소문이든 그들은 그런 것들만 들으려 한다. 그들의 마음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아무도 가져가거나 빼앗을 수 없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너무도 관심이 많고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특히 예배할 때 근거 없는 뜬소문을 말하기 좋아하고, 심지어 하나님 집이나 교회에 대한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논평을 퍼뜨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유언비어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게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기어코 퍼뜨리려 한다. 그런 유언비어나 부정적인 선전을 퍼뜨리려면 기회를 잡아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을 들여 수집하거나 머리를 굴려 날조해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즐기며 지칠 줄 모른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리더가 자질이 떨어져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유언비어나 황당한 이론을 퍼뜨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교회 생활은 교란되고 영향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류에 미혹되고 통제되기도 한다. 왜 많은 사람이 자주 교란되고 미혹되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집을 헐뜯는 유언비어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일부 형제자매가 분량이 작아서 이상(異象) 측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육신과 말세 심판 사역,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모호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이 단계 사역이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따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연히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좌우되고 통제되기도 쉽다.

2)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의 본질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시비를 분별할 줄도 모른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물은 늘 의심하면서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은 쉽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헐뜯고 교회를 헐뜯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자신이 수집한 여러 유언비어를 형제자매에게 퍼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퍼뜨리고 여기저기 떠벌리기까지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이방인의 마귀적인 말만 믿는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민도, 하나님 집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이겠느냐?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파이고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탄의 종은 중국 공산당이 보낸 첩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집 내부에 잠입한 간첩이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간첩이나 첩자는 분별하기 쉽다. 반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런 부류는 겉보기에는 진짜로 믿는 것 같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주 사탄의 출구가 되어 사탄을 대신해 하나님을 헐뜯거나 공격하는 말을 퍼뜨리고, 사탄이 교회나 하나님 집에 대해 날조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런 점으로 보아, 누가 보냈든 그런 부류는 사탄의 종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그가 능동적으로 수집했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들었든, 그는 진리를 구해 분별하려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으며, 심지어 거리낌 없이, 여과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뜨린다. 게다가 한곳이나 한 자리에서만 퍼뜨리는 것도 아니다. 그가 퍼뜨리는 목적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유언비어를 알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연약하게 만들고, 굳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유언비어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각종 유언비어나 부정적인 선전에만 관심을 가지게 해서 다들 모이기만 하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논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나 인성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벌이겠느냐? 보통 사람은 유언비어나 여러 부정적인 선전을 들으면 설사 유언비어의 진위 여부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진리를 구한다. 설사 유언비어에 영향을 받아 약간의 연약함이나 의심이 생기더라도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입단속을 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노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한다. 이런 행동 방식은 보통 형제자매도 해낼 수 있고, 인성이나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사람은 어떤 평가도 내리지 말고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 "외부의 유언비어가 어떤 내용이든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물론 퍼뜨리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요. 설사 제 마음속에 약간의 연약함이나 동요가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유언비어를 들어도 자신의 입을 단속하여 유언비어의 전파자가 되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도 쉽게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유언비어를 듣고 나서 퍼뜨릴지 말지는 너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다. 너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언비어를 듣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하고 실행해야 원칙과 인성의 이성에 부합하는지 사람은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라면 그 정도 판단력은 있어야 하고, 그 정도 실행법이나 실행 길은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조차 험담을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험담을 퍼뜨리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비도덕적이며 이간질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상 이성을 지닌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생각이자 행위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이성은 물론 이런 인성은 더더욱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그는 유언비어나 부정적인 선전을 듣고 나면 재빨리 친한 사람에게 퍼뜨려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유언비어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공한 다음 더 넓은 범위로 퍼뜨리게 하려고 한다. 그는 생각한다. '떠들썩하니 얼마나 좋아! 교회 생활이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 식견도 넓힐 수 있고 말이야!' 이는 무슨 사상 관점이냐? 나쁜 사람의 사상 관점이 아니냐? 그의 논리는 무엇이냐? 그는 말썽만 일으키는 자가 아니냐? 남이 잘되는 꼴은 못 보는 게 아니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비웃기도 한다. '바보들 같으니라고. 외부에서는 유언비어가 도처에 퍼졌어. 하나님 집, 특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공격, 비방이 천지에 널렸다고. 종교계의 예배당 안에는 여러 부정적인 선전 자료도 걸려 있어. 그들은 '동방 번개'라는 말만 들어도 정죄하고 멀리하지.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데도 이 바보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네!' 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이토록 굳건한 것을 보고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강한 반감을 갖는다. 특히 누군가 진리 교제에 진실한 인식이 있거나 성품에 변화가 있어 다들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 사람을 증오한다. 누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성과를 내고 충성을 다하면 그는 약이 올라 말한다. "당신은 어째서 유언비어나 외부의 선전은 듣지 않죠? 어찌 그리 멍청하고 고지식해요? 제가 얼마나 영리한지 보라고요. 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집의 교회 생활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제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면 동의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외부의 소식도 알아보고 있어요. 종교계, 이방 세계, 인터넷의 부정적인 선전이나 댓글도 빠짐없이 살피고 있다고요." 그는 늘 정당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자매가 진리를 추구하거나 본분을 이행하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늘 한두 명을 미혹하거나 끌고 가려 한다. 심지어 늘 일부 사람을 교란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생각만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일부 사람을 '일깨워서' 그들이 유언비어를 믿고 미혹되게 하려고 한다. 너희 생각에 이런 부류는 대체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집의 사람이나 형제자매로 여기는 게 적절하겠느냐? (부적절합니다.) 그럼 그들을 무엇으로 여기는 게 가장 적절하겠느냐? 불신파나 사탄의 종으로 여기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는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사실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증스럽겠느냐? 그들은 어떤 경로로 부정적인 선전을 듣든, 심지어 그것이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이고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나서 지칠 줄도 모르고 남들에게 퍼뜨린다. 이는 어떤 성질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유언비어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반감을 품고, 특히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욕하는 말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한 자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는 말한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헐뜯거나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건 그 사람 일이니 저는 그의 죄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을 헐뜯었으니 이미 대역무도하고 극악무도해요. 그런 말이 다시 제 입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저는 결코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종들은 부정적인 선전이나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혀 거리낌 없이 서술하며, 심지어 여기저기 퍼뜨리기까지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같지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주재하는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탄도 세상에 하나님이 있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대화할 때 사탄은 어떻게 대했느냐?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사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느냐? 그렇지 않다.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시험하고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마치 장난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씀하자 사탄은 뭐라고 했느냐?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욥 1:7)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말이냐? (아닙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겠느냐? 사탄은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어떤 태도가 그런 말을 만들어 낼 수 있었겠느냐? 희롱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희롱이란 무슨 뜻이냐? 너를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 주지 않을 거요. 그렇다고 당신이 날 어쩔 거요!" 네게 말을 하긴 하지만 실상은 알려 주지 않는다. 네게 알려 주지는 않으면서 너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게 바로 희롱이다. 이런 태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조금도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몰골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형제자매에게 제멋대로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는데, 그런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퍼뜨리며 각종 기회나 자리를 찾아 퍼뜨린다. 이는 사탄의 행위이고 사탄의 행동 방식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바로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몰골이자 사탄의 본성 본질이다. 일부 형제자매는 말한다. "그는 진리는 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어요. 교회에서 자신을 격리하거나 제명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초조해서 울고불고 화내느라 입에 물집까지 생겼다고요! 그는 하나님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그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해요. 심지어 그가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며 그를 돕고 붙들어 주어야 해요." 이 말이 옳으냐? 진리이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해도 믿지

않으면서 마귀 사탄이 퍼뜨린 온갖 유언비어는 다 믿는다. 게다가 거리낌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헐뜯는다. 이 점만으로도 그는 형제자매로 불릴 자격이 없다. 이 말이 옳지 않으냐? (옳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하며 하나님 집과 교회를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탄의 종이나 사탄으로 여길 이유가 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모든 하나님 선민의 원수이다. 그럼 원수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쳐야 합니다.) 그렇다. 내쳐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퍼뜨리지는 않지만 뒤에서 친한 사람에게 퍼뜨린다. 분별력이 없는 일부 사람은 유언비어를 들으면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는데, 개중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거듭 말리고 교제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는 여전히 그렇게 행동한다. 다만 탄로 날까 봐, 형제자매에게 버림받거나 교회에서 제명될까 봐 예배 시간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감히 노골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하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사람들과 접촉할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류가 악인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부류가 더욱 음험하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동해도 그의 속셈이나 그가 하는 일의 성질은 사탄의 종과 똑같다. 그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목적은 바로 사람들의 본분 이행을 교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며 본분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목적은 사람들의 본분 이행을 교란하거나 적극성을 꺾어 놓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분별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어서 유언비어를 들어도 믿지 않고 진리를 잘 추구하며 본분 이행에 전념하게 하는 거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성립하겠느냐? 사실상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는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만 있으면, 특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헐뜯고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올리고 서슴없이 여기저기 퍼뜨린다. 퍼뜨리는 유언비어가 많든 적든, 공개적으로 퍼뜨리든 아니면 뒤에서 퍼뜨리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든 결국 그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란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어떤 배경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든, 그런 부류의 본질은 바로 영락없는 사탄의 종이다.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하고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내뱉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옳지 않으냐? (옳습니다.) 네가 최초로 유언비어를 만들어 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다면 이는 네가 유언비어를 진실하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유언비어를 몹시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유언비어가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잖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 성육신이라는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저 사람일 뿐이니 나는 아무렇게나 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마음대로 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헐뜯어도 되잖아.' 이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려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대립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성질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원수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한다. 패괴된 인류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지니고 있고 진리를 깨닫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그런데 사탄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과 대립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대립하는 관계다. 무엇이 대립이냐?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사탄과 하나님의 대립은 시간이나 지리가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양립하지 못하는 것은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몇 년이나 몇십 년 된 일도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한 뒤로 하나님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럼 사탄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대립하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에게 감화되겠느냐? 사탄과 하나님의 대립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점차 완화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과 대립하려 할 것이다. 언제 이 대립이 사라지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봉사를 마쳐서 이용 가치가 없어진 사탄을 하나님이 멸하면 이 대립도 사라질 것이다. 그럼 사탄의 종인 부류는 어떠냐? 그는 교회에 있는 한 교회, 하나님 집, 하나님과 대립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때로는 헌금하고 구제하거나 형제자매를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립하겠어요? 그는 대립하지 않았고, 선행도 좀 베풀었다고요." 이 말이 옳겠느냐? 형제자매를 섬기거나 푼돈으로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한다고 해서 그와 하나님의 대립이 없어지겠느냐? 그가 하나님과 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대립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그의 본성 본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 그의 본성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부류를 분별해야 한다. 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선전이나 하나님 집과 교회를 공격하고 헐뜯는 유언비어를 수집하기 좋아하는지, 누가 그런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을 믿으려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런 불신파의 몰골을 똑똑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형제자매의 진리 교제를 듣는 데도 흥미가 없으며 본분 이행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 집의 영상이나 프로그램을 볼 때 주로 무엇을 보겠느냐? 댓글 가운데 종교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보이면 그들은 마음이 불쾌해져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반면 일부 종교인이나 이방인이 큰 붉은 용의 편에 서서 교회나 하나님 집, 형제자매를 욕하는 마귀적인 말을 남긴 것이 보이면 속으로 기뻐하고 특히 흥분한다. 그런 부정적인 선전이나 유언비어를 듣기만 하면 마치 아드레날린이라도 주입한 듯 열정이 끓어올라서 걸을 때도 펄쩍거리고 자다가도 신나서 깨어난다. 비정상이 아니냐? 자기 주변에 누가 이런 부류인지 관찰해 보고 그에게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성품이 없는지 살펴봐라. 만약 정말로 이런 부류를 발견한다면 특히나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며, 언행을 관찰해야 한다. 악인이나 사탄의 종으로 확인되면 응당 내쳐야 한다. 형제자매로 여겨서는 안 되고 조속히 그런

부류를 교회에서 제명해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런 사람을 제명해야 하죠? 하나님 집에서 사역할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도 커지고 더 신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도 꽤 오래됐어요. 진리를 사랑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느님도 믿었고요. 머리 위 삼척에 천지신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과응보도 믿었죠. 그래서 보통 눈에 띄는 나쁜 일은 감히 저지르지도 못한 데다가 남을 도우려고도 했어요. 다만 유언비어나 뜬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취미가 좀 있을 뿐이죠. 특히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큰 붉은 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데, 아마 우매하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가 악인 같지도 않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데 유독 적극적이고, 항상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선구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 이런 부류를 경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사탄의 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의 본질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는 결코 관심이 없고 본분을 이행할 때도 전혀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 진지하게 대하지도, 심혈을 기울이지도, 고생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건성으로 형식만 차리며 온종일 시시덕거리기만 한다. 비록 말과 행동으로 남의 미움을 사지도 않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으며 보기에는 꽤 상냥한 것 같지만 유언비어를 수집하거나 퍼뜨리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이런 일들로 보아 이런 부류를 사탄의 종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이를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 추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설교를 듣기만 하면 졸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반감을 품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물도 마시러 갔다가 화장실에도 갔다가 하며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해하고 혹형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유독 괴로워한다. 그러나 사탄의 유언비어나 이방인의 마귀적인 말은 듣기만 하면 관심을 갖고 흥분해서 그런 유언비어와 마귀적인 말을 매우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다. 이런 부류가 형제자매이겠느냐? 아니다. 그들은 뼛속부터 진리를 싫어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측면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분 본질이나 지위, 존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든 속으로 다 경멸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 늘 관념을 품는다. 반면 사탄의 여러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은 아주 쉽게 입 밖으로 내뱉어 퍼뜨리는 목적을 이루며,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는 어떤 작자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하느님이 있다고 믿고 머리 위 삼척에 천지신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 만약 누가 그의 부모를 욕하거나 뒤에서 그의 부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면 그는 분명 그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공격하고 헐뜯어도 그는 속으로 괴로워하지도 않을뿐더러 농담을 대하듯 네게 한 번 더 말하고 심지어 여기저기에 퍼뜨릴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불신파를 많은 사람이 형제자매로 대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부류가 사탄의 종이라는 의심이 들면

마땅히 경계해야 하고, 리더 일꾼은 반드시 즉각 형제자매에게 그 사람을 경계하라고 알려서 사람들이 이런 부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일단 사탄의 종이나 마귀라는 확신이 들면 함께 일어나 그를 내치고 교회에서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이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한다.

3)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종교계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종교계는 하나님 집에 관한 수많은 유언비어를 날조했고, 형제자매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고 모함한다. 너희는 이런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는 너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관계가 있으니 너희는 분노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분노하겠느냐?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 따지고 그를 혼내 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는 겉으로는 교회를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명성이나 인격과 관련된다. 너희는 듣고 나면 아주 분노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 원칙대로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억지로 잡아끌지 않아요.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강요하지 않고, 해치거나 복수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인에게 두들겨 맞거나 신고당하고 큰 붉은 용에게 넘겨져 해를 입는다고요. 수감되어 옥살이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종교인의 사설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우리는 억울해요!" 너희는 그런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속으로 분노하여 늘 그들에게 따지려고 한다. 그런 유언비어는 교회와 하나님 선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듣고 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건 너희의 직접적인 이익이나 인격, 존엄과는 관련이 없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나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그에게 따지고 싶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야.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방인은 이 말을 거칠게 표현해서 난 듣기가 싫어!' 너는 기껏해야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사람의 관념에 너무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는 이 일을 믿지 못하는데, 그건 네가 과학을 믿기 때문이다. 너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한 것이 모두 진리임을 믿지도 않은 채 그런 불신파의 마귀적인 말에 반박한다. 너는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람들이 말한 그 유언비어가 네 명성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방인은 너무 역겹고 비열해요! 아무리 저속한 말도 함부로 지껄이는데 정말이지 불신파 그 자체예요! 진짜 마귀라고요!" 이렇게 말할 뿐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왜 너는 듣고 나서 자극을 받고 이방인이 비열하고 역겹다고 느끼겠느냐? 네 명성과 관련 있고, 이

유언비어가 네 심기를 건드려 네가 체면을 구겼다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가 솟구친 너는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로 그를 반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이겠느냐? 아니다. 이는 순전히 네 체면과 존엄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왜냐하면 너는 아직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나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더더욱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인식한 것과 느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혈기나 좋은 행위일 뿐이다. 사람의 좋은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 한 증거를 뜻하지는 않는다. 너는 굳게 서지 못했다. 너는 그저 자신의 체면과 존엄을 지킨 것이고, 네 양심을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진리나 사실로 그 유언비어를 반박하지도,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지도 않았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니다. 네가 한 말은 더더욱 진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저 네 육의 이익에 부합할 뿐이다. 또한, 네 마음을 너무 괴롭지 않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기 위해 한 말일 뿐이다. 그게 전부이다.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함하거나 판단하며 심지어 너희를 정죄하는 말을 들을 때, 너희는 무척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따지거나 논쟁하려 하고 너희의 명성을 회복하려 하며 그런 일들을 해명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굳게 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굳게 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을 헐뜯거나 공격하는, 외부에서 퍼지는 유언비어를 들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공격하든, 땅의 성육신 하나님을 공격하든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무런 느낌이 없느냐, 아니면 조금 고통스러우냐? 참지 못하거나 언짢으냐, 아니면 속수무책이냐? 어떤 사람은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고 그런 일들도 하시지 않았는데 어째서 세상과 종교계에 이렇게 공격당하고 헐뜯기실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본분을 이행해서 하나님을 위해 분발해야 해. 하나님께서 대업을 이루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의 진실이 밝혀져서 우리가 믿는 성육신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참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는 걸 지상의 만민이 알게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저 이방의 악인이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고통을 겪으셔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헐뜯는 유언비어를 한 번도 반박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대꾸하시지 않는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인류에게 오해받고 공격당하고 모독당하고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불평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니,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실 거라고요!" 너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방금 언급한 불복과 분개, 언짢음, 속수무책 중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어떤 느낌이 가장 정확하냐?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해야 진리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너희는 이런 유언비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분노합니다.) 분노가 치밀고 나서 격문을 적어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과 종교 사기꾼, 종교 악인을 토벌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저 주먹을 쥔 채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느냐? 그저 공허한 분노뿐이냐? (증오와 거부도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 거부, 이런 것들은 모두 생각을 하면서 생겨나는 정서이다. 명확한 언어나 행위, 행동 방식이 없고 그저 정서일 뿐이다. 물론 일종의 태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분노하는 것 외에 때로는 글을 쓰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진리나 하나님의 본질을 증오하는 것임을 폭로하여 사람들에게 사실의 진상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사실의 진상을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나서 공정하게 논평하며 "당신들이 믿는 게 옳아요. 열심히 믿으세요. 우리는 지지해요!"라고 말하고, 종교 사기꾼들이 수치심을 느끼고는 "죄송해요. 우리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믿을게요."라고 말한다 한들 너희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너희는 이런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냐? (저희도 하나님을 증거하여 참도를 알아보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분별하고 참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싶습니다.) 이는 한 가지 길로, 적극적인 실행법이다. 단지 화내고 미워하기만 하면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화내고 미워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왜 화도 내고 미워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가장 정의로운 일인데 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판단하고 비방하니 저희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고 그들이 정말이지 흑백을 전도하고 허튼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이번에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때만 이 인류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태도로 대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인류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늘 정죄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모독했다.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나 하나님의 성육신을 대하는 인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성육신하고 나서야 인류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모독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접한 이래로 이 모든 것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줄곧 사탄 정권과 종교의 적그리스도 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방, 공격, 판단, 모독, 나아가 온갖 유언비어 등을 견뎌야 했다. 설마 이런 일들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끼죠. 그런 유언비어는 전부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니까요. 우리는 그런 유언비어를 듣는 순간 특히 분노를 느끼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증오해요. 그런 유언비어가 종교계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중국 공산당 악마 정부에서 비롯되었든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예요. 바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모든 일을 반박하고 해명하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 악마 적그리스도와 한바탕 변론을 벌여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사탄에게 수치를 안겨 주고 싶어요!" 대다수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관점이 옳겠느냐? 정상 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합리적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바른 기운을 지니고 정상적인 희로애락을 느껴야 하고, 증오와

사랑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증오해야 할 것은 증오해야 한다.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저 정상 인성의 관점에 서기만 하면 진리 원칙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명확히 말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방식이겠느냐? 혹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나 행동 방식이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은 무언가를 좀 깨닫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는 그저 정상 인성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의 뜻으로 보면 분명 사람의 이런 행동 방식은 혈기에 속하지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염원이나 사람에 대한 요구 기준이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정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네가 이성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증오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그런 사실을 해명하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 인류의 하나님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 같다. 겉보기에는 네 행동이 나무랄 데 없고 합리적이며 법률과 인성, 도덕, 나아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부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 처리 원칙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아서 모든 일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구를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사람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실행해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나님의 사역을 접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뒤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혹을 품고 저버리는 등 여러 듣기 거북한 말도 많이 했다. 집권당이나 종교계에서 비롯된 각종 유언비어도 결코 사실과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말들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겠느냐? 의심이나 오해든, 아니면 원망이든 그런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과 비방, 모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 교회에는 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불신파가 더러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하물며 이방인이나 무신론 집권당, 진리를 싫어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공격하고 판단하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지껄인다. 특히 종교계의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기회를 틈타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런 논평에는 긍정적인 것이 없을뿐더러 객관적이고 정확하지도 않다. 그럼 그런 논평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은 단지 일종의 주장이나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공격, 중상, 모독이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므로 우리는 접두어를 붙일 수밖에 없다. 유사 이래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태도는 늘 이랬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욕하는 말은 너무도 많고 선의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오늘까지도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류 전체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나님은 인류 종교 대회를 열어 자신을 위해 해명하고 하나님 사역의 실제 사실을 명확히 말하며 인류에게 해명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일의 경위를 명확히 말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비교적 악랄한 사람을 징벌하여 일부 사실이 닥치게 했다. 대중의 공격과 비방, 모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하는 방식으로 한다. 택해야 할 사람을 택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을 인도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질서 정연하다. 하나님은 인류의 공격이나 비방, 모독으로 인해 그의 계획을 깨뜨리거나 바꾼 적이 없다. 사탄의 사악한 세력이 하나님 선민을 탄압하고 체포할 때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계획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나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그의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그런 공격과 비방, 모독은 결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그런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인류는 인류이고, 사탄은 사탄이다. 인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실상을 모르기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데,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에 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 만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서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 인류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성 본질을 갖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사역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며, 어느 누구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인류의 말과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그 어떤 공격과 비방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망치려는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든 결국에는 목적을 이룬 적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병은 유일무이하고 그 어떤 세력도 대체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는 증거다. 이는 사실이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병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진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세력이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러 사람의 일부 소소한 공격이나 비방에 대꾸하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물이나 얼마나 큰 세력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모독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도 교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전능을 부각시킨다. 사탄의 사악한 세력의 교란은 그저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속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인류 전체를 주재하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인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이다. 이는 사실이다. 그럼 거꾸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비방과 공격, 중상, 모독에 하나님이 대꾸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권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나는 말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말씀은 언제나 실현된다. 매일 실현되고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병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신감과 믿음이 아닌가요?" 틀렸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은 권병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리 비방하고 정죄해도, 사탄의 적대 세력이 아무리 교란하고 망쳐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 중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적대 세력들을 다 멸하고 나서 사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사역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기느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의 사역을 이루느냐? 모든 인류와 모든 적대 세력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외침 속에서 이룬다.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이루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권병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감히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사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헐뜯고 모독해 왔는데, 말세에 이르러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커졌고 하나님을 헐뜯고 정죄하는 목소리도 더 많아졌다. 인류는 여러 방식을 이용해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에서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유언비어를 분석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깨끗한 사람은 자연스레 깨끗함이 증명되고, 유언비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유언비어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교란하든 하나님 사역 계획의 진전을 망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이 일하거나 사역하기만 하면 사탄은 교란하러 온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인데, 연기를 못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너는 사탄에게 연기할 충분한 공간과 무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기를 할 만큼 많이 하고, 지칠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악을 잔뜩 행하고 나면 사탄의 날은 끝난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사탄의 갖은 유언비어나 악행을 해부하고 분석하여 소문을 반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쓸모없고 가치 없다. 그런 것들을 해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너무도 많다. 그런 진리를 다 듣기도 벅찬데 소문까지 반박하다니, 그럴 여유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일들에 정말로 관심이 없고, 언급하거나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무 데도 갈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으셨나요? 유언비어가 천지에 널려서 어디를 가든 무척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나는 아무 느낌도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시지도 않은 일인데 해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무얼 해명한단 말이냐? 나는 해야 할 일도 다 못 하고 있다! 나는 사람, 피조물과 대화하지 마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그런 유언비어를 들어도 화가 안 나세요?" 나는 지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그런 일들에는 대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억울하지 않다고 말한다. 억울할 게 뭐 있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그런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쓰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런 일들에 대꾸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여유가 있을 때는 대꾸하시나요?" 나는 여유가 있어도 대꾸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개와 말할지언정 마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마귀가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마귀에게 대꾸하겠느냐? 대꾸해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철저하게 수치를 안겨 주면 된다. 어쨌든 그런 유언비어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이렇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인류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탄 원수에게 자신을 해명하며 자신은 결백하고 무고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은 그의 경영을 위해서이다. 그가 구원하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경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말로 하자면 바로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일도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을 입증한다.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없다. 이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류 가운데 어느 측에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헐뜯는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을 하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한 편의 말씀을 하거나 격문을 한 편 써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무신론 집권당이나 종교계의 공격과 대적을 토벌한다면, 이는 너무도 쉽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행사에는 다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악한 세력을 멸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행사는 아주 쉽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묘한 행사를 좀 나타내면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이런 음성으로 말씀한다. "내가 바로 너희가 헐뜯고 공격하고 모독하는 유일한 참하나님이고, 너희가 지금 헐뜯고 모독하는 전능자다!" 인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안이 벙벙해지고 어쩔 줄 몰라서 땅에 엎드려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 해결되고 무슨 일이든 증명되는데 감히 누가 또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종교계의 그런 마귀들은 다 놀라 자취를 감추지 않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하나님을 헐뜯고 공격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를 내고 증오하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글을 쓰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박하려고도 한다. 반면 하나님의 행사는 간단하다. 두 마디 말로 모든 인류를 고분고분하게 하기에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모독하지 못한다. 바울은 어떻게 얌전해졌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바울은 그저 빛 한줄기에 놀라 땅에 엎드렸고, 감히 다시는 예수를 핍박하지 못하게 됐다. 사탄을 해결하는 것은 이토록 간단하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쉽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몇십 년간 너희에게 말씀하고 공들인 것보다 훨씬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겠느냐? 여기에는 너희에게 알려 주어야 할 비밀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인류, 즉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인류가 아니라 짐승이고 마귀의 부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분은 존귀해서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념하고 갈망하고 애쓰며 늘 하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면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존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거룩한 곳에 나타나지만 더러운 곳에서는 자신을 감춘다. 인류 전체가 더러운지 거룩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인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그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나타나야겠느냐?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 신분의 존귀함을 입증한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탄이 만약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어느 정도로 뽐내겠느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가 작은 관직에 올라도, 그깟 작은 권력만 얻어도 얼마나 과시할지 모르는데, 사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권력이 조금만 생겨도 얼마나 휘두르고 과시할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는 사탄의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하고 싶다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강요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유언비어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하고 하려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거나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을 공격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유언비어 역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유언비어는 어디까지나 유언비어일 뿐 영원히 사실이 될 수 없다. 설사 인류의 철학과 과학, 도덕과 이론 등에 부합한다 해도, 설사 인류 전체가 다 일어나 하나님을 공격한다 해도 진리는 인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인류는 진리의 소유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탄이 어떻게 교란하든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사역할 때 사탄 정권이 그렇게 교란하고 사회의 여러 세력이 그렇게 공격하고 헐뜯는다면 일찍이 무너져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해야만, 성령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갈수록 번창하게 된다. 이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 사실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이미 몇십 개국으로 확장되었고, 사탄이 날조하고 퍼뜨린 유언비어들은 결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면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사탄이 생각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 확장 추세도 양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민 사이에서 확장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일찍이 예정해 놓은 것이다. 복음 전도로 얻는 사람의 수와 참도(道)를 알아보는 사람의 수도 매월 점차 늘고 있다. 이는 복음 사역이 확장된 것 아니겠느냐?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러도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위력으로 이룬 성과다.

사람이 온갖 유언비어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얘기해 보자. 사람은 각종 유언비어를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늘 이렇게 생각한다.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양심에 가책을 느낄 거야.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득세하게 둔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복과 분노의 감정이 들 거라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니 난 반박해야 해.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써서 유언비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람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너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목적과 동기가 단지 유언비어에 대해 해명하고, 너희가 믿는 대상은 참하나님이며 너희가 걷는 길은 인생의 바른길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는 모든 일은 다 정의로운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이 이 모든 사실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너희에게 수많은 날조된 죄명을 씌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명될 때 세상이 너희의 결백함을 밝혀 주고 세상의 곳곳에서 "당신들이 믿는 대상이 참하나님이고 걷는 길이 인생의 바른길이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시키는 것도 다 옳고 전부 정의로운 사업이에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면, 그렇게 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러고 나면 너희는 마음 편히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오르겠느냐? 너희는 그 어떤 외부의 방해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는 길에 오르겠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오해하지 않고 찬양하고 숭배하게 해야만 네가 마음 편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물론 유언비어를 대할 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마땅히 올바른 관점, 정확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유언비어는 상당히 가증스럽고 역겨워요. 이런 유언비어 속에서 이 패괴된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요! 저는 절대로 사탄의 유언비어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분을 이행하는 체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저는 당연히 제 본분을 이행하고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해요. 이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말씀과 생명의 공급을 얻게 해야 해요. 그게 제 의무이자 책임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걷는 길이 바른길이고 제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과 비방에 복수하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충성을 다하기도 하죠." 이게 올바른 관점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가져야 할 관점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 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든, 영화 작품을 찍든, 뮤지컬을 만들어 체험 간증을 말하든 사람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일부 구체적인 말은 어느 정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혈기와 증오를 품고 사람의 정서를 섞는다. 그래서 이방인과 집권당, 종교계의 모든 행위를 너무도 많이 폭로하고 말도 너무 거칠어서 보고 나면 나쁜 영향을 좀 받는다. 원인은 간단한데, 바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정서를 품고 있고 관점이 그다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꽤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헐뜯고 우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우리가 저들을 좀 폭로하는 게 어때서? 이건 정당방위야! 정당방위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무근도 아니야. 우리는 사실을 기반으로 분석한다고. 저들은 근거도 없이 우리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우리가 저들을 폭로하고 분석하는 게 잘못됐나? 반격하면 안 되나?' 반격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귀는 말끝마다 거짓말이고 진실한 말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네가 늘 마귀의 거짓말을 분석하여 마귀가 자신의 말이 거짓말임을 똑똑히 알게 하고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인정하여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마귀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무지몽매한 것 아니냐? 일찍이 말했듯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사역이 이룬 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이룬 성과를 증거해야 한다. 집권당의 탄압과 박해, 종교계의 대적과 정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경을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혈기로 대하며 늘 반박하려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한다. 사탄의 사악한 세력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일부 기술 업무를 익히거나 한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 유언비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이고, 남들에게 진실을 명확히 말해 어두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인류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정의로운 행동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옳든 그르든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악한 인류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인류를 구원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늘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관점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지체시키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과 싸우고 세상의 흐름과 대립하기 위해서 본분을 이행한다. "저들이 우리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살림살이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는 분발하여 본분을 잘 이행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그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들에게 제가 옳다는 걸 보여 주겠어요!" 그렇게 분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분발하여 체면을 세운들 뭘 어쩔 수 있느냐? 그게 뭘 의미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얻는 가치가 무엇이냐? 만약 정말로 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분발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가 그 길을 간 것도 옳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통하지 않는다. 그 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정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사람은 늘 우매하게 굴며, 자신은 진리의 편에 서 있고 진리를 갖추었으니 정의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 사악한 세상과 유언비어를 날조한 모든 사람을 향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이행하고 있어요. 대체 누가 걷는 길이 옳은지 당신들에게 보여 주겠어요!" 이는 혈기가 아니냐? 이런 것을 다퉈서 소용이

있느냐? 아무 가치도 없다. 정말로 그럴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업무를 더 많이 익히고 업무에 관한 지식과 상식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게 낫다. 그게 너의 본분 이행에 이롭고 보조적 역할을 한다. 너는 왜 늘 세상의 사악한 세력과 겨루느냐? 왜 늘 유언비어와 겨루느냐? 힘을 쓸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가 어떻게 공격하든 대꾸할 필요 없다. 그는 마귀의 본성을 지닌 짐승이다. 그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도, 바꾸지도 않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는데 네가 그를 상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것 아니냐? 최소한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며,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지도 않느냐? 하나님은 대꾸도 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의 각 단계에서 많은 말씀을 했다. 하나님은 인류와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사탄의 진면목과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그가 어떤 구체적인 일에서 어떻게 사탄과 대화해 사탄을 폭로하는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몹시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네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네게 가장 이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네게 가장 이롭다. 하나님은 네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양한 환경과 여러 내적 상태에서 사람과 일을 분별하는지 알려 주고, 네게 진리를 실행하고 지혜를 갖추는 법을 배우라고 한다. 이런 것은 모두 네게 이롭다. 하나님은 네게 이로운 말씀을 하고 이로운 것을 행한다. 하나님은 네게 이롭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겠느냐? 패괴된 인류에게는 그런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언비어들은 마귀 사탄의 말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그것들과 겨루지 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알았으니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도 알지 않겠느냐? 유언비어를 분석하고 반박하고 그 발원지를 찾는 등의 일에 공들이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마음이 있고 굳게 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말과 일은 무척 많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말씀과 진리를 묵상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 너 자신의 실행 원칙과 실행의 길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너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시행해야 한다. 만약 네가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늘 유언비어에 공들인다면, 늘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이 결백하다고 밝히며 자신을 해명한다면 골치 아파진다. 너는 진리를 얻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유언비어에 완전히 얽매이고 지쳐서 결국 명확히 말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왜 명확히 말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마주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눈을 부릅뜨고 거짓말을 한다. 지금 마귀는 무슨 말을 하느냐? 큰 붉은 용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세계 질서와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서 세계의 평화와 질서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큰 붉은 용이 하는 말 중에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 사실이냐? 너는 이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지

않느냐? 너는 이 말을 듣고 나면 이런 말도 내뱉을 수 있는 사탄이 너무도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니 사탄과 논쟁해서 뭐 하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니냐?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사탄을 구원하거나 바꿀 계획이 없는데, 네가 사탄과 논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니냐?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은 그런 유언비어를 듣지도 않고 거기에 속박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언비어를 듣고 나면 교란되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진리로 분별한 다음 마귀 사탄을 저주한다면 그런 유언비어는 네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너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행사가 제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패괴된 인류에 의해 정죄되고 버림받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진리이고 마귀 사탄에게 진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들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으니 저는 마귀 사탄의 말은 믿지 않아요!"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더욱이 사탄에게 미혹되거나 공격받아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것에 대꾸하지 마라. 네가 진리를 추구하고 굳게 서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사탄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방금 우리는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관한 일부 문제를 교제했다. 대다수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종교계에서 비롯된 유언비어를 어느 정도 들어 보았을 텐데, 그런 유언비어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방금 교제했다. 사람은 진리 원칙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유언비어에 미혹되거나 교란되지 않는다. 교회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어떤 방식과 말투로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그대로 내버려두어야겠느냐, 아니면 그를 폭로하고 해부해 혼내 주어야겠느냐? 어떤 방식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표현하는 건 자유 아닌가요? 왜 그 사람이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냥 말하게 두세요. 다들 듣고 나서 유언비어를 분별하게 되면 그런 마귀적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유언비어는 저절로 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하나님을 헐뜯으면 안 되죠. 그가 하나님을 헐뜯는 일을 하게 둘 수는 없어요. 호되게 꾸짖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사역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다니, 그는 양심이 없어요! 그를 저주하지 않으면 한이 풀리지 않고 혼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행동 방식은 다 좋지 않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분명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니 그런 부류는 응당 분별해야 한다. 만약 그가 가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경고해야 하고, 한결같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반드시 폭로하고 해부한 다음 교회에서 제명해 내보내어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일은 처리하기 쉽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처리하겠느냐? 아니면 교회 리더가 말을 꺼내길 기다리겠느냐? 일단 이런 사람이 한결같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런 일에 대해서만 말하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찬양을 익히지도 않을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공유하지도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거나 체험 간증에 대해 얘기하면 반감을 품고 싫어하지만 이방의 유언비어를 언급하면 싫어하기는커녕 신나 한다면,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런 사람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사탄의 종임이 분명하며, 그는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교란하기 위해 교회에 잠입한 것이다. 그가 교란하는 것에 대해 너는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일어서서 말해야 한다. "아무개는 교회에 와서 늘 유언비어나 퍼뜨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공유하지도 않아요. 이런 자는 불신파이니 교회에서 제명해 내보내야 해요. 의견 있으신가요?" 다들 의견이 없다며 손을 들어 통과시키면 그 사람은 제명되어 내보내진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이렇게 처리하면 통쾌하지 않겠느냐? (통쾌합니다.) 이런 부류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

4)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하나님 사역을 판단하는 몇 가지 유언비어에 대한 분별

방금 다룬 그런 유언비어는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모두 큰 붉은 용, 종교계, 이방인에게서 비롯되었다. 외부에서 비롯된 유언비어 이외에 교회 내부의 말이나 뜬소문, 심지어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부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역에 관한 일부 비밀에 대해서 사람이 상상과 관념으로, 혹은 와전하거나 근거 없이 억측으로 퍼뜨린 일부 사실무근의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어 과장하는 바람에 그런 유언비어가 생겨난다. 유언비어가 생겨나면 유언비어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에 몰두한다. 그는 유언비어를 사실로 여겨 여기저기 퍼뜨리는데, 실감 나게 말하여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정말로 미혹된다. 미혹되고 나면 영향받고 교란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역시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런 유언비어는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헐뜯고 공격하는 유언비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헐뜯지도, 모독하지도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교란하거나 망치지는 않지만 항상 일부 사람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부 그럴싸한 말을 들으면 속으로 믿으며 잽싸게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퍼뜨리는데, 이리저리 퍼지다 보면 유언비어의 세부적인 내용이 갈수록 많아지고 완전해져서 결국 진실인 것처럼 퍼진다. 시간과 장소, 인물 등 몇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지면 이는 공개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퍼뜨리겠느냐? 그는 말한다. "오늘 꼭 말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히지 않아요. 저는 이 일 때문에 특히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희망이 보였다는 말을 들으면 다들 관심이 생기고 신이 난다. 이 주제는 꽤나 사람의 마음을 끈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곧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언하셨던 하나님 사역이 끝나는 몇 가지 징조가 이미 다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이 어떻다든지, 동양과 서양이 어떻다든지, 각국의 하나님 선민이 몇 명이

되었다든지,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든지 등이죠. 하나님 사역이 끝나는 이런 징조가 이미 눈앞에 있으니 우리는 서둘러 예비해야 해요!" 누가 "뭘 예비해야 하죠?"라고 물으면 그는 말한다. "선행을 예비하고 식량을 준비해야 해요. 얼른 집에 모아 놓은 돈을 다 가져와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또 말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모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자격도 없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앞길과 일은 물론 가정과 가족, 육적 관계도 다 내려놓아야 하죠. 세속적 얽매임도 전부 버려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모이게 될 거니까요!" 대다수 사람은 묻는다. "정말인가요?" 그럼 그는 말한다. "정말이죠. 저는 집도 차도 다 팔았어요. 모아 뒀던 돈도 다 인출했다고요. 믿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특정 문장을 해독해 보면 주소가 하나 나오고, 특정 단락을 해독해 보면 연도와 월이 나오고..." 그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사람이 아주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냐? 사람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는 정말로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위한 앞날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의심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이길 바란다. '그 해의 그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별로 믿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다. 그 관심도는 무슨 뜻이겠느냐? 사람이 그런 것에 영향받고 방해받기 쉽다는 뜻이다. 그런 유언비어가 일단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하면 80, 90%의 사람은 특히나 흥분하고 마음이 잔뜩 들떠 있을 것이다. "바라던 그날이 드디어 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고요!" 예배 때 이런 주제를 퍼뜨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모든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거부하려 해도 거부하지 못한다. 유언비어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믿지 않으려 해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그런 말을 믿기가 가장 쉽다. 감히 100%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이길 바란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따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세상에 버림받고 정부에 체포되고 종교계에 박해를 당하며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고. 매일 마음을 졸이며 사는 이런 날이 언제 끝날까?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마음이 끓어오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이 헌신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이토록 굳건하니 이 일은 진짜여야 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유랑하고 고생하면 안 된다고. 이는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 그토록 확신하고 그토록 많은 열정을 쏟을 때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겠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의 어느 단락을 읽어도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공유하는 건 어쩜 이렇게 쓸데없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의 날이 왔으니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 아닐까?

사람이 육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움의 고통을 해소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 곧 하나님과 대면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지. 지금은 뭘 하든 그 해, 그달,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모이는 것만큼 실속 있지 않아.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어.'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한다. 너는 안절부절못하며 그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런 기분은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유언비어는 대중의 입맛에 딱 맞고 교회에서 퍼지기도 쉬워서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퍼뜨리고 두 사람이 열 사람에게 퍼뜨리며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교회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두 곳에서 다섯 곳으로 점점 더 널리 퍼진다.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사람이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본분, 사람이 준행해야 할 도(道)는 잊은 채 하나님의 날이 오면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살피는 데만 전념하게 된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로 왔을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사람은 유언비어를 믿어서 생명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때가 되어도 너는 예전으로 돌아가 착실하게 처신하고 네 본분을 지키며 착실하게 진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진리 원칙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시간은 이미 흘러서 돌이킬 수 없다. 누구를 탓하겠느냐? 애초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탓해야 한다. 너는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그 결과 유언비어에 속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유언비어 하나로도 깊은 심연에 빠져 망쳐질 수 있다. 깊은 심연이란 무엇이겠느냐? 원래는 잘 믿고 있어서 구원받을 희망이 있었는데, 유언비어 하나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이 말하는 허튼소리를 믿고 사탄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지정해 준 길을 따라 걸어가고 탐색하다 보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끝장난 것 아니냐? 이는 깊은 심연이 아니냐? 그것이 네가 보고 싶었던 것이겠느냐? 이 지경에 이르러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돌이키기 매우 어렵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도 사역하지 않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며, 네 안이 온통 어두운 데다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높은 벽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벽은 무엇이냐? 사탄이 네게 주입한 관념과 상상, 유언비어,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다. 네가 인식한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 지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사물은 순식간에 모호해지고, 심지어 점차 사라진다.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이다. 이는 깊은 심연에 빠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도 본분을 이행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진리 추구의 길에 올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건대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고작 유언비어 하나일 뿐이지만 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미혹되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 사역과 관계된 그런 유언비어가 교회에 나타나면 즉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없는 사실을 꾸며서는 안 되고, 듣기 좋아하는 온갖 거짓말을 날조하여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유혹해서도 안 된다. 설사 사람들이 그런 주제를 좋아한다고 해도 네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중시하고 퍼뜨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뚫린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하게 두면 그만이죠." 그것도 무슨 말인지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게 이로운 말이라면 해도 되고 퍼뜨려도 된다. 어떻게 퍼뜨리든 다 괜찮다. 그러나 그런 유언비어는 사람에게 전혀 이롭지 않으며, 그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시선을 돌리고 사람의 추구를 교란해 사람이 바른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정상적인 본분 이행,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끼칠 뿐이다. 사람은 일단 그런 유언비어를 받아들이면 미궁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유언비어를 들었을 때, 만약 그가 네게만 말한 것이라면 너는 거부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한 것이라면 거부해야 할 뿐 아니라 폭로하고 분석하여 더 많은 사람이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1, 2 년이나 2, 3 년 된 일부 사람들은 종착지나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것, 들림 받는 것과 같은 일을 아직 꿰뚫어 보지 못하고 진리에도 아직 관심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나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길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유언비어에 미혹되고 영향받기가 가장 쉬우며, 일단 미혹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독약을 먹고 난 뒤와 같다. 설사 해독제가 있다 한들 그 독이 몸에 입힌 해는 존재하지 않겠느냐? 살아나더라도 육체가 입은 고통과 손실을 따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따라서 그런 유언비어를 마주치면 분별하고 거부해야지 이야기나 사실로 여겨 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유언비어에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전파하고 퍼뜨리며 마치 진리인 듯 사람들과 공유하는데, 이는 어떤 성질이냐? 이는 사탄의 종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은 마땅히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해야 하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 언젠가 그가 스스로 분명히 깨달아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린 건 옳지 않아요. 사탄의 종 역할을 맡은 거죠. 앞으로 다시는 퍼뜨리지 않겠어요."라고 말한다면 다시 관찰해 보아라. 회개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교회로 받아들이되, 고질병이 도지면 다시 정리해 내보내라.

하나님 사역에 관한 유언비어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다. 사람은 상상과 관념, 그리고 머리에 기대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각종 예언, 사회와 세상의 각종 재난과 이상(異象)이나 발생한 여러 일을 통해 연구한다. 심지어 자신이 꾼 꿈에 기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함부로 왈가왈부하고 적지 않은 유언비어를 날조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진리에 공들이지도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고 원칙을 구하는 일에는 더더욱 공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누가 시작했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지?'라고 생각하며 그런 표면적인 현상이나 교회의 행정 기구, 인사 등을 연구한다.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정리해 낸 소위 법칙이나 현상을 진리로 삼아 교회에 가져가 퍼뜨린다. 퍼뜨릴 때 하도 실감 나게 말하는 바람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듣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다. '당신 지금 허튼소리를 지껄이면서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인식이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무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거니까 서둘러 저지해야겠어. 저지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유언비어에 속하는 그런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은 모두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교란한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이 일단 교회에서 발생하면 즉시 저지해야 한다.

또 일부 유언비어는 하나님 사역을 판단하는 측면에 속하는 마귀적인 말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에 관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잔꾀에 근거하여 관찰하고 정리해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관직에 오른 적이 있거나 기업에서 과장 또는 사장을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집에 오면 바로 리더가 되고 사무와 재무를 총괄 책임져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대상이죠." 이는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 아니냐? 이는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이다. 유언비어란 무엇이냐?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허튼소리를 하고 근거 없이 판단하며 함부로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런 말은 다 유언비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아무개는 수만 위안을 헌금했어요. 믿음이 크니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말한다. "저도 헌금은 많이 했지만 다 합쳐도 그 사람이 한 번 헌금한 것보다 적네요. 그럼 저는 구원받지도, 온전케 되지도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버리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람은 또 말한다. "부자는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원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또 신나서 말한다. "저는 헌금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부자들은 물러서요."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는 영향을 받는다. 그는 그런 말이 모두 유언비어이고 마귀적인 말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 왜 그렇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늘 미혹되는 것이다.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은 모두 마귀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든 너는 어떤 말이 진짜이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 그런 말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들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일들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받아들이거나 퍼뜨린다면 그건 바보가 아니냐? 바보는 머저리라고도 불리지 않느냐? 나는 이 말이 비록 점잖지는 않지만 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 적절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무책임하게 말한다. 제멋대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특정 현상을 보고 함부로 결론을 내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는 아무렇게나 퍼뜨리는데,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해서 일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교란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유언비어나 퍼뜨리면서 한바탕 허튼소리를 지껄인다. 오늘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걸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내일 누가 옥살이를 하면서도 유다가 되지 않은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니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고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집에서 성 20 곳을 관리하겠죠. 우리 같은 어중이떠중이는 글렀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은 마귀적인 말이 아니냐? 유언비어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속셈과 목적이 무엇이든 결국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교란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런 유언비어와 마귀적인 말을 들으면 속으로 궁리하기 시작한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속으로 하루 종일 이런 일들만 생각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걱정한다.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멋대로 허튼소리를 지껄이는 바람에 그는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많이 버렸는데 언제쯤 만족하실 건가요?"라고 기도하며 불만으로 가득하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만은 어디에서 나온 거겠느냐? 그런 유언비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중독되어 무너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하거나 어떤 과오를 범해도 전혀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결코 울지도 않는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람이 그와 같은 부류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바로 마음이 괴로워진다. 이는 영향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영향받은 것이고 교란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분량이 작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몹시 우매하다.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놀기 좋아 보여서 일부 유언비어를 날조해 그들을 우롱한다. 너는 오늘 그가 네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하면 기뻐하다가, 내일 그가 다시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하면 울며 괴로워할 것이다. 너는 왜 그의 말을 듣느냐? 왜 늘 그에게 속박되느냐? 그에게 결정권이 있느냐? 그는 기껏해야 소란을 피우는 소인배에 불과하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평가한단 말이냐?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런 부류는 온전케 될 수 있고 저런 부류는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냐? 그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가 하는 말 중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는데 너는 왜 그를 믿는 것이냐? 왜 그에게 교란되느냐? 이는 우매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매하고 무지해서든, 아니면 분량이 너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든 결국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가장 가증스럽다. 응당 그들을 분별하고 폭로한 다음 제재하거나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봐요, 아무개는 이목구비가 번듯해서 교회 리더로 뽑혔어요. 아무개는 사회에 있을 때 잘 나갔고 보는 사람마다 좋아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형제자매도 그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요." 이 중 올바른 말이 한 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 말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전부 마귀적인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아무개는 집이 부자고 생활 여건도 좋은 데다가 식견도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는 재무와 사무를 관리하죠. 봐요, 쓸모가 있으니까 이 본분도 이행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이는 마귀적인 말이 아니냐? 이런 마귀적인 말을 통틀어 유언비어라고 부른다. 무책임하게 내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나 하나님이 정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은 함부로 지껄이고 함부로 결론지은 말인데, 이런 말은 다 유언비어에 속한다. 왜 그것을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겠느냐? 그런 말은 퍼뜨리기만 하면 일부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가짐과 추구 목표를 교란하고 망치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출생 장소와 가정 배경, 외모, 문화 등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했을 뿐 어떤 부류의 외모나 사회적 배경, 혹은 사람 자체가 갖춘 조건이 복받는 조건이라고 사람에게 알려 준 적은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아니고 모두 사람이 억측하고 추측해 낸 것이라면 그런 말도 유언비어에 속한다. 사람은 늘 관찰과 이해를 통해, 나아가 관념과 상상을 근거로 사람이 복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려 한다. 그런 다음 그런 황당한 이론을 퍼뜨려 다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 누구는 백성이고 누구는 봉사자인지 제멋대로 규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유언비어에 속한다. 우리는 유언비어를 마귀적인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이 나타나든 교회 리더는 즉시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고, 물론 형제자매 중에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서서 그런 유언비어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성질인지 분석하고 분별해야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일어나서 그를 반박하고 그와 변론하며 그를 제재하고 함께 그를 규탄해도 된다. 어떻게 규탄하겠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당신 말은 모두 유언비어이고 마귀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우리의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다시는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교란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당신을 제명해 내보낼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겠느냐?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리 원칙에 부합한다. 개인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든 다 괜찮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입말이든 글말이든 다 상관없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는다.

5) 유언비어의 폐해

교회에서 퍼지는 유언비어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측면뿐 아니라 다른 측면의 유언비어도 있다. 너희는 그런 유언비어를 분별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아무튼 유언비어가 좋은 것이 아님은 틀림없다. 유언비어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로움도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유언비어가 대체 무슨 내용인지 들어 보고 그 안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기르고 싶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추어서 유언비어에 교란될 것이 두렵지 않다면 들어도 된다. 그러나 듣고 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만약 네가 헷갈려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건 미혹된 것이다. 분별도 못 하고 도리어 미혹된다면 골치 아픈 것 아니냐? 네가 그만한 분량이 되느냐? 너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네 그 믿음도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너는 여전히 미혹될 것이다. 만약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진실하게 인식하며 그런 유언비어를 분별하고 배척할 수 있다면 너는 들어 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기를 수 있다. 만약 네가 자신은 그저 믿음이 있을 뿐, 실제로 그 믿음은 아직 진실한 분량이 아니며 스스로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말하건대 네가 정말로 유언비어 속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기르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유언비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사탄에게서 비롯된다. 사탄은 온갖 빈틈과 기회를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글자만 하나하나 따지고 꼬투리를 잡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를 붙잡고 함부로 해석하는데, 마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제멋대로 일부만 인용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으니 옳을 거야. 설마 유언비어겠어?'라고 생각하고는 결국 미혹된다. 일부 유언비어는 뚜렷해서 분별하기 쉽지만 어떤 유언비어는 분별하기 쉽지 않다. 겉보기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 그런 유언비어가 겉보기에 하나님 말씀의 글귀에 부합하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중 많은 말이 다 공허한 이론이고 함정이며,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이로움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은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해석할 때 잘못을 저지르기 가장 쉽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인용하여 잘못 해석한다.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사역을 정죄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이며 전부 함정이다. 그런 말은 응당 거부해야 한다. 유언비어는 겉보기에는 한두 마디나 몇 마디 말이라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성경이나 진리를 근거로 일부만 인용해 제멋대로 결론을 내린 유언비어이다. 그게 가장 사람을 미혹할 수 있고, 가장 사람의 생각을 교란한다. 사람이 만약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서 넘어진다. 오직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마귀적인 말을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근거로 삼고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태시키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 말들은 결론이 아니냐? 그런 결론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가 찾은 근거는 사실 제멋대로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배경도 다르고 논조도 달라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함부로 규례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황당한 이론을 듣고 나면 중독되고 미혹되며 마음이 소극적인 상태에 빠진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분명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 보며 그런 황당한 이론의 허점을 찾지 않은 채 철저히 진짜라고 믿는다. 이는 미혹된 것 아니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교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몹시 위험하다. 적어도 6 개월이나 1 년 동안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줄 것이고, 만약 물러나서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철저히 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분량이 너무 작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미혹될 위험이 아주 크다! 오직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다. 언젠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서둘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찾아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영적인 이해력이 없거나 함부로 규례에 맞추는 사람에게 구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미혹될 것이다. 따라서

미혹되는 일은 단지 종교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혹되기 쉽다. 설사 3, 5 년이나 7, 8 년을 믿었더라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미혹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자주 관념을 갖거나 자주 소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가장 미혹되기 쉽고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이다. 이 사탄은 누구냐?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모든 사람으로, 여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리더, 그리고 터무니없는 인간들과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모두 사탄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교란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이다. 하나님 선민은 특별히 경계해야만 미혹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교회에 있는, 일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자질이 몹시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흔히 온갖 유언비어에 미혹되고 영향받고 교란된다는 것이다.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자가 무심코 내린 결론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말 한마디나 주장 하나에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 한다. 하나님 집에서 부를 때, 이들은 이것저것 우려하며 갖은 이유와 핑계를 찾아 거절하거나 회피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겠느냐? 사탄의 종 역할을 맡는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퇴로를 만들어 둬야 해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집에서는 바로 당신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때 돼서 집에 돌아가면 먹고살 방도가 없겠죠. 당신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상당히 '훈훈'하지 않으냐? 인지상정에 부합하고, 꽤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남을 생각해 주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 사람을 붙들어 주고 공급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퇴로를 만들어 두게 하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그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겠느냐? "경계를 좀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태도를 냉정하게 바꾸시거든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독을 심는다. 사람들은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게 말이야.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하마터면 집을 팔 뻔했네. 혹시라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교체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어질 뻔했다고. 저 사람이 일깨워 줬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바보짓을 했을 거야.' 얼마나 '선한' 일깨움이냐. 그러나 그 안에는 독이 적지도 않게 들어 있고, 깊이 스며 있다! 너희는 이런 유언비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느냐? 듣기에는 사람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무척이나 너를 위하는 것 같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 친척도, 친구도 아니고 아무 혈연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니 너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보호야! 그러니 먼저 잘 생각해 보자. 만약 내가 본분을 이행하러 갔다가 계속 건성으로 임해서 내쫓겨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럼 본분을 이행할 때 조심하면서 형식적인 일이나 많이 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또 실수해도 들키지 않는다면 내쫓기지 않겠지? 설사 내쫓겨 돌아가게 돼도 괜찮아. 내겐 퇴로가 있으니까. 모아 놓은 돈도 있고 집도 그대로 있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헤아리지도, 육적인 감정을 중시하지도 않으시잖아. 그렇다고 해도 뭐가 두렵겠어? 사람은 감정을 중시하잖아. 세상에는 곳곳에 사랑이 넘친다고!' 그 '훈훈'한 말은 사람들 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을 세 번째, 네 번째 지위에 두고 제삼자로 만들었다. 마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신뢰할 만하며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이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작용을 하니 참으로 '시기적절'하다! 너희는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비록 그의 이 말 안에 나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누군가 한마디 일러 주어 자신을 도와주기를, 앞길이 어떤지 알지 못할 때 경험자가 경고의 말 한마디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이냐! 이는 철저히 인정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유언비어를 날조한 자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포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으니, 이 일이 어떠하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희 생각에 이 자는 어떤 사람 같으냐?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눈에 이런 사람은 머저리로 보인다. 그 행동으로 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사탄의 종 역할을 맡은 전형적인 마귀이다! 이 말이 정확하지 않으냐? (정확합니다.) 너무도 정확하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을 구슬려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게 하며, 사람에게 이로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겠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과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의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한다. 혹자는 "그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는데 왜 하나님을 따를까요?"라고 말하는데,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되는대로 살면서 복받는 결말을 얻고 싶어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역에 훼방 놓으려 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교란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하려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형적인 마귀이다. 그러나 몇몇 어리석은 사람은 시종일관 이 부류의 마귀 몰골을 꿰뚫어 보지도, 간파하지도 못해 사람의 관념과 육적인 감정의 필요에 부합하는 그들의 마귀적인 말도 받아들인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저버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과 마귀, 그리고 사탄의 종은 이토록 음험하고 간사하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며, 진리를 혐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한다. 하나님 집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사탄의 출구가 되어 사탄을 위해 말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각물 역할을 하는데, 전적으로 사람들의 분별력을 길러 주는 데 쓰인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겉으로는 큰 결점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심지어 그들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증거나 표현을 찾아 입에 발린 말을 하며 마치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부합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하는 말들이 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자세히 대조해 보면 아예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다. 그가 하는 그럴싸한 말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됐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억측하고 오해하고 배반하고 저버리게 하는 등의 일을 한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악인 외에 유언비어를 날조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분별하고 경계하며 제명해야 하는 부류이다.

6)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처리하는 원칙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겠느냐? 우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싫어한다. 이 밖에, 그들은 자주 온갖 마귀적인 말과 황당무계한 말을 날조하여 분량이 작거나 토대가 얕은, 혹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끌어들인다. 이는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가 교란되고 망쳐지며, 정상적인 추구를 교란하여 사람이 바른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을 소극적이고 연약해지게 하며, 심지어 사람이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더욱 신나 한다. 그러므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을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의 몰골과 본질로, 분별하기 아주 쉽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성적이라서 자신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남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든 태도를 표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늘 속셈을 품고 판단하거나 공격할 뿐 아니라 심지어 꼬투리를 잡아 정죄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응당 경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꽤나 옳은 것 같고, 논리나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뜻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분별해 보면 역시 거짓말이나 유언비어가 대부분이고 순전히 허튼소리이다. 이런 그럴싸한 유언비어나 거짓말은 응당 분별해야 한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못 읽은 데다가 진리도 깨닫지 못했는데 유언비어나 거짓말을 어떻게 분별하죠?"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많이 구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있고 진리에 근거하여 일을 바라볼 수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는 네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네 정상적인 추구를 교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가 어떤 유언비어를 말하든,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든 너는 듣고 나서 흔들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연약해지지도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에게 그 어떤 오해도 품지 않고, 오로지 올바른 방향으로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저항력이 생기게 되며, 사탄의 종도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유언비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며 진리를 많이 교제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연스레 분별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그런 유언비어나 궤변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 유언비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고 위배되며 진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유언비어는 저절로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들여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바로 처신할 때는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저버리면 저도 저버리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면 저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저 대세를 따를 뿐이죠."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대세도 틀릴 때가 있으니, 대세를 따른다면 덩달아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따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방법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교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을 적잖이 교란하고 해친다. 가볍게는 사람을 소극적이고 연약해지게 하고, 심하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심지어 배반하게 한다. 따라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 즉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교회 리더가 무감각하고 우둔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일부 자질이 뛰어나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발견했다면 응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많은 사람과 구하고 교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증을 얻은 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궤변임을 간파하지 못했다면 무작정 규정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며 유언비어나 궤변임을 쉽게 분별해 낼 수 있다면 즉시 폭로하고 해부하여 모두가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면, 그가 하는 한두 마디 말로는 유언비어나 황당한 이론임을 분별해 낼 수 없다면 신중하게 대해야지, 무작정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유언비어나 궤변임이 확실해지는 순간 즉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거듭 말리고 제재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교회에서 그를 제명해야 한다.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하고 실행해야 할지, 그 원칙과 길이 명확해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유언비어와 관련된 내용에는 내가 다룬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이외에도 몇몇 자질구레한 것들이 더 있다. 예를 들어, 책망과 훈계,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해 쓰고 어떤 사람을 도태시키는지 등의 일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의 말들이 좀 있다. 교회에서 철저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 온갖 악인, 그리고 머저리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얼간이 등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 거짓말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 속에는 별의별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들이 다 있다.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 사람은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경륜, 하나님 자신, 심지어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 등 여러 측면과 관련된 더 심각한 유언비어는 진리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 외부의 이런 일들은 정상 인성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나 진리와 관련된 일들은 진리 실제와 분량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다. 결국 어떤 측면의 유언비어든 다 분별하여 거부해야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런 유언비어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오늘 누가 어떤 말을 퍼뜨리면 그 바람에 휩쓸려 이쪽으로 넘어가고, 내일 또 어떤 말이 들리면 그 바람에 휩쓸려 저쪽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어떤 리더 일꾼이 간증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글 쓰는 연습을 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며 자료도 찾는다. 그러다 내일 또 어떤 리더 일꾼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바쁘게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진리 추구와 생명

진입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교회의 온갖 무리 속에서 생겨난 각종 나쁜 풍조는 늘 일부 사람을 휩쓸어 가고, 교회의 무리 속에서 생겨난 여러 유언비어도 늘 일부 사람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이런 유언비어를 들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데도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명목상 믿는 것이다. 또 일부 사람은 좀 나아서 진리를 구하고 받아들이며 그런 부정적인 사물이나 인물에 영향받지 않는다. 오직 분량이 작고 토대가 없으며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여러 주장이나 말에 영향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늘 추종하기 때문에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활기 넘치고 즐겁고 따분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감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만약 어느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다면 그 교회에는 분명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교회 내부에서 음흉한 속셈을 가진 자들이 어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어떤 헛소문을 퍼뜨리든 그들은 다 따르니 아주 골치 아프다. 이는 사람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실제적이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다 거짓말에 속한다. 속셈과 목적이 담긴 말이라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고 악인의 음모일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마귀적인 말이니 믿어서는 안 된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유언비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네.) 이해했으니 또 이런 일이 닥치면 대조해 보고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게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2021 년 7 월 17 일

리더 일꾼의 직책(19)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7)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에 관한 처리 원칙

우리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총 11 가지로 나누었고, 전에는 여섯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에 대해 교제했었다. 이 조항은 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함부로 꼬시고 육적인 정욕 관계를 맺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교제했느냐? 교회에 이런 부류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해결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고도 못 본 체하며 그냥 내버려두어야겠느냐, 아니면 진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느냐? 회피해야겠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감화시켜야겠느냐? 진리를 교제해야겠느냐, 아니면 경고하고 제명해야겠느냐?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느냐? (경고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만약 제재할 수 없다면 제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재해야겠느냐? 제재하기가 쉽겠느냐?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말하기는 난처해하고, 어떤 사람은 빙빙 돌려 말하며 일깨워 주지만 당사자가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함부로 꼬시는 부류의 인성은 어떻겠느냐? 그런 자가 품행이 바르고 올곧은 사람이겠느냐? 성도의 품위를 갖춘 사람이겠느냐? 존엄이 있고 염치를 아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말로 한번 일깨워 주거나 정상적으로 진리를 교제해 주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사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이때가 되면 통제하기가 쉽겠느냐? 사랑으로 도와주고 감화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해결법은 무엇이겠느냐? 다시는 사람들을 교란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이런 부류를 제명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떼어 놓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남녀가 서로 꼬시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함께 시시덕거리고 몹시 방탕하게 구는데, 수치심도 전혀 없다. 듣기로는 어떤 남자가 여러 여자를 꼬셨는데, 진지하게 연애한 것도 아니고 이성만 보면 함부로 꼬시고 들러붙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울린 거예요. 다만 어울리는 방식이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은 대다수 사람이 보기에 유익하지 않고 반감과 혐오감을 일으킨다. 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는 그들의 그런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만약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자신의 본분 이행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그들이 교회 생활 내에서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는 더더욱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해도 된다.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고 교회

사역에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 때 다시 풀타임 본분 교회로 돌아와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연애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꼬시고 들러붙으며 정욕에 기대 장난치면서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교란한다. 이런 상황은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것에 속하니 마땅히 원칙대로 해결하고 처리해 즉시 격리하고 제명해야 한다. 이 문제는 처리하기 쉽지 않으냐? 누구도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런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처분을 내리면 그가 이행하던 본분을 이행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에게 처분을 내리지 말고 그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꼬시고 싶은 대로 꼬시게 두는 거죠. 그가 어떻게 꼬시든 다 허락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집에 이런 규정이 있느냐? 지난번 예배 시간에 이런 부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해 교제할 때 이런 원칙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교회의 리더나 책임자는 머리가 멍해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꼬셔 대도록 내버려둔다. 대다수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유익을 얻지 못하며 마음속으로 반감을 갖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 그들은 교회 사역에 그런 자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집에 그런 자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만약 함부로 꼬셔 대는 자들을 내쫓으면 사역할 일손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이 논리가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옳지 않으냐? (그런 자들은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사역할 마음도 없지요.) 정곡을 찔렀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함부로 꼬셔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조금도 제약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불신파이자 이방인이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 믿음이 작고 나이가 어리고 토대가 약한 것에 그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함부로 꼬셔 대겠느냐? 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겠느냐? 일부만 그렇다. 그중 소수는 인격과 존엄을 중시하고 체면도 차리며 처신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도 가지고 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자들이 이방인만도 못하다. 그러니 그들을 이방인이나 불신파라고 하는 게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집에서 힘을 좀 쓸 수는 있지만 본성을 볼 때 그들은 불신파이고 이방인으로, 어떤 일을 하든 원칙이 없고 처신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도, 존엄이나 염치도 없다. 이방인도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는 체면조차 차리지 않으면서 진리를 원할 리 있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리 있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리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은 순전히 힘만 쓰고 있는 것이다. 힘만 쓰는 사람은 진리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힘쓰는 것도 역시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에 속하며, 본분 이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는 비록 겉으로는 본분을 이행하지만 네가 원칙을 아무리 교제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보이는 모습이나 표정은 그들의 불신파 본질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반듯하게 자리에 앉아 엄숙하고 진지하게 듣는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듣더냐? 어떤 자는 책상에 엎드려 있고 기지개를 켰다가 하품을 했다가 하며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인두겁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결코 인간이 아니다. 한 무리 '파충류'가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있으면 역겨워진다. 나는 그들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진다. 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파충류'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자들이 본분을 이행할수록 내적 상태가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며 진리를 환히 알게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아무리 본분을 이행해도 분량이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 방탕하고 제약받지 않으며, 육적인 정욕이나 패괴 성품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각도 없고 책망과 징계도 받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바로 비인류이다! 이 부류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어떤 원칙을 위배하여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르는지 등은 차치하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조항에만 근거해도 이 부류를 제명하기에 충분하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교회 리더나 책임자는 쩔쩔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예전에 교제했듯 이 일은 처리하기 아주 쉽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고 제명해야 할 사람은 제명하면 된다. 그리 많이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 집에서는 그들이 없어도 변함없이 사역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어디에서 개똥이나 대소변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서둘러 깨끗이 치워야 한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파리나 모기가 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그 비정상적인 불신파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런 뜻이다. 만약 교회 안에 '역겨운 개똥' 같은 자들이 있으면 분명 일부 '똥파리'를 끌어들일 것이다. '역겨운 개똥'을 깨끗이 치우면 그런 '파리'는 자연스레 잠잠해진다. 이것이 해결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결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일부 교회 리더는 늘 염려한다. '함부로 꼬셔 대는 사람을 정리하면 사역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해도, 만약 사람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면 그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설령 한동안은 그들을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사람이 생겼을 때 다시 사역하면 되니, 하나님 집 사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만약 회개하고 본연의 일을 한다면 계속해서 사역해도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본분 이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으냐? 하나님 집에서는 힘쓰는 자를 먹여 살릴지언정 불신파나 이방인은 먹여 살리지 않는다. 이 원칙이 옳지 않으냐? (옳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옳으냐? 힘쓰는 자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힘을 쓰며 하나님 집에서 고분고분 착실하게 힘을 들인다. 힘을 들일지라도 그는 충성을 다하며, 최소한 사람이 나쁘지는 않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사람이어야 남겨둔다. 만약 사람이 나쁘고 이상하며 부정한 수단만 부리는 데다가 힘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힘쓰는 자로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며, 하나님 집에서는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남겨두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은 힘쓰는 것도 기준에 맞지 않고 거래하려 하는 데다가 늘 악을 행하고 교란하려 하며 항상 교회에서 부정한 수단을 부려서 교회 사역의 질서를

교란하려 하기 때문에, 또 대다수 사람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어디에 '역겨운 개똥'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서둘러 정리해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11.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한다

오늘은 이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하겠다. 제 12 조의 열한 번째는 무엇이냐?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내용은 예전에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폭로할 때 어느 정도 교제한 적이 있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교회 선거라는 일에 대해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에는 매년 한 차례 선거가 있고 일부 특수 상황에서 하는 선거도 있으며, 각 교회는 하나님 집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각급 리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 규정에는 선거 원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할지를 비롯하여 선거의 방식이나 방법, 선거 때 형제자매가 알아야 할 여러 주의 사항이 담겨 있다. 물론 매번 선거 전에 각급 리더 일꾼은 선거에 관한 여러 측면의 원칙을 교제해 하나님 선민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의 성과가 좀 더 좋아진다. 선거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교제하지 않겠다. 오늘 교제하려는 주요 주제는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모습들이다.

1)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모습

교회 선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집에서 규정한 선거 원칙을 엄격히 따라 리더 일꾼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인선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선거 원칙을 위배해 또 다른 선거 방식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소행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반드시 그런 규정 위반 행위를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선거를 조작한 주요 인물을 조사하여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회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이 드러나며, 사람의 여러 마음가짐도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리더로 뽑히려고, 혹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리더로 뽑히게 하려고 뒤에서 온갖 허튼수작을 부린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뽑혀서 자기 지위에 위협을 가할까 봐 그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졌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는지 뒤에서 있는 힘을 다해 판단하며, 그들이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졌다고 정죄하는 등 그들을 낙선시키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리더로 뽑히기 위해 선거 기간에 좋은 물건들을 사서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약속을 내걸고, 누구를 뽑으라거나 누구를 뽑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기도 한다. 그들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을 쓰든 모두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에서 선거의 원칙을 거듭 교제하며 인성이 좋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형제자매가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 등을 뽑으라고 해도 그런 자들은 귀담아듣지 않은 채 허튼수작만 부리려고 한다. 허튼수작을 부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늘 부정을 저지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평가할 때 항상 공식 석상에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고, 늘 뒤에서 허튼수작을 부리거나 음모와 계략을 쓰려고 한다. 심지어 선거 때 누구를 뽑아야 하고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하는지 뒤에서 계략을 꾸미며 사람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허튼수작 아니겠느냐? 부정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광명정대하게 진리 원칙대로 선거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다. 그는 선거를 조작하려고 사람의 계략이나 수단을 쓰는 것이다. 그가 선거를 조작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길 원하고, 만약 당선될 수 없다면 누구를 당선시킬지 자기가 결정하려고 뒤에서 허튼수작을 부린다. 그는 교회의 사역이나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나 형제자매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자신의 이익만 고려한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도나 욕망을 최우선시한다. 그럼 그는 왜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겠느냐? 만약 정말로 형제자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진리 실제로 이끌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야심을 품겠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거나 야심과 욕망을 품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선거를 조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행동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과 비교적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관점이 일치하고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또 평소에 연약하고 잘 추구하지 않으며 어리석고 우매하여 쉽게 좌우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구슬려 하나의 세력을 만든 다음 교회의 선거 사역을 교란한다. 그들이 교회에 대항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그들을 선출하게 하고,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뽑으려는 사람은 그들이 미리 정해 놓은 사람,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뽑히면 그들의 음모는 실현된다. 그럼 그 선거 결과는 올바르겠느냐, 아니면 잘못됐겠느냐? (잘못됐을 것입니다.) 잘못됐음이 틀림없다. 악인이 조작한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은 분명 악인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왜 악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겠느냐? 악인이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못되게 굴 수 있으며, 누구도 감히 폭로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고, 그들이 제명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억압당해 교회가 악인의 천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에 의해 조작된 선거의 최종 결과는 분명 올바르지 않고 민의와 원칙에 위배될 게 뻔하다. 이런 부류가 선거 때 보이는 모든 행동과 하는 일에 대해 교회 리더와 형제자매는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경계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낌새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 그들을 제재해야 하고, 제재받지 않는다면 격리해야 한다. 그런 자들은 특히나 난폭하고 제약받지 않으며 통제하기 어렵다. 선거를 교란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분명 뒤에서 허튼수작을 부리고 수많은 말을 하며 숱한 일을 저지를 텐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일은 처리하기 쉽다. 교회 리더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일을 폭로하고 공개하여 형제자매가 그 일의 심각성과 결과 그리고 그런 일의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 교제하게 한 뒤 마지막으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겠느냐? 누가 뒤에서 늘 허튼수작을 부리며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고 한다면 사정을 봐주지 말고 그의 선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그의 한 표는 무효라는 뜻이다.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일에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그 여러 명의 투표도 무효이며, 그들을

선거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혹되거나 교란된 자가 어떤 사람이든 선거를 조작하는 자의 행동 방식을 따르고 악인과 한통속이 되어 일부러 선거를 망친다면, 하나님 선민들은 일어서서 그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선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너는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 집의 선거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 네가 결정권을 갖는 것은 사탄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집이나 교회는 진리가 권세를 잡는 곳이므로 사탄이 결정권을 갖게 할 수 없다. 네가 허튼수작을 부리고 고의로 이번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한다면 처리하는 건 쉽다. 네 표를 무효로 하면 네가 누구를 뽑든 소용이 없고 너의 어떤 의견도 인정되지 않는다. 네가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집에는 행정 법령과 규정이 있으며, 네 이번 선거 자격은 박탈되고 취소된다. 다음 선거 때도 이렇게 교란한다면 선거 자격이 철저히 박탈될 것이고, 절대 다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해 허튼수작만 부리며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부류는 마땅히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교회 선거 때만 되면 일부 악인이 행동을 개시하려고 준비한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허튼수작을 부려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과 리더 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얼굴이 벌게지도록 다툰다. 심지어는 혈기를 부리거나 폭력을 쓰려 하고, 싸우려고 해서 형제자매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선거 때도 그는 진리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 리더로 뽑히면 어떻게 사역할지, 어떤 길과 생각, 계획이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의 단점을 폭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만 하며, 동시에 일부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른 사람들과 대립시켜 교회에 분열 상황을 만든다. 이런 선거는 무엇이 되겠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선거가 된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회가 분열된다. 이게 선거 때 나타나야 할 현상이겠느냐? 정상적인 현상이겠느냐? 아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부담이 있으며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집의 원칙대로 선거에 참여해도 된다. 물론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말하고 자신의 인식과 체험을 교제하여 형제자매가 네게 승복하고 너를 신뢰하며 교회 리더의 사역을 네게 맡길 수 있게 해도 된다. 그러나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당선 목적을 이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다. 분량이 작고 분별력이 없는 형제자매는 네게 쉽게 미혹되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고, 교회 역시 교란되어 아수라장이 되고 사분오열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파고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컨대, 원칙대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늘 야심과 욕망을 품은 채 비열한 수단으로 자신의 당선 목적을 이루는 것은 모두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성질이고 부당한 선거 행위이다. 물론, 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음 사역이나 문서 사역, 사무 사역 등 교회의 여러 사역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 영위하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지 등을 교제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다. 적절하게 자신의 관점이나 인식, 자신이 교회 사역을 하는 사고의 방향이나 계획 등을 밝히는 것은 다 정상적인 말과 행동에 속하며, 교회에서 규정한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것 외에도 선거 기간에 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들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경계하고 분별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늘 일이 바쁘다는 둥, 집안일이 많다는 둥, 상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둥 핑계를 대며 본분도 이행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리더를 선거할 때가 되면 그런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특별히 공들여 치장하고는 선거에 참여한다. 오랫동안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다가 교회 선거가 있다는 중대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달려온다. 그가 무엇을 노리기 위해 오겠느냐? 선거와 교회 리더라는 자리, 즉 이 '관직'을 노리기 위해 오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일을 처리할 때 특히나 교활해서 자신이 교회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고 누가 의심할까 봐 선거에 관한 일은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자 자신의 인식이나 체험을 교제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자신의 체험 간증을 나눈다. 사실 그는 평소에 교회 생활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진리도 거의 교제하지 않으며 이렇다 할 체험적 인식을 얘기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 전과 달리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데다가 앞다투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교제하는 등 특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고 눈에 띄게 행동한다. 예배가 끝나면 기회를 틈타 형제자매와 수다를 떨고 인맥을 쌓는데, 교회 리더를 보면 "요즘 혈색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저희 집에 대추가 있으니 좀 가져다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아무개 자매를 보면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옷을 좀 드릴게요."라고 말한다. 그는 예배 때마다 평소와는 크게 달리 유독 적극적이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가끔 와서 얼굴도장이나 찍었고, 누가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는데, 선거 때가 되자 갑자기 튀어나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 매번 예배 시간에 형제자매가 선거에 관한 사항과 관련 원칙을 교제하는데, 당연히 그도 참여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 안간힘을 다해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몇몇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쓴다. 심지어 형제자매 앞에서 여러 차례 헌금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한참 됐지만 헌금하는 법이 없더니, 이번에는 왜 저렇게 통이 클까? 설마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선 걸까?' 무지몽매하고 일을 판단할 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예전에는 그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저 사람은 집안 형편도 좋고 연줄도 있으니 만약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추적당해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를 섬길 때도 해결법이 생기지 않겠어요? 계속 저렇게 적극적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가 지속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 리더가 되고 싶어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가 한 모든 일이 초기 성과를 거둔 것 아니겠느냐?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곧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가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이 사람에게는 옷 두 벌을, 저 사람에게는 채소 한 바구니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 보조제를 선물하는 등 모두를 챙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그야말로 좋은 목자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대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시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겠느냐? 형제자매들이 쉽게 이

부류를 뽑지 않겠느냐? 그는 소양도 있고 언변도 좋으며 사회에서 지위도 있다. 그는 교회의 형제자매가 체포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으며, 교회 사역에 일손이 부족할 때도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저 사람은 원래 추구하지도 않고 한참 동안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더니, 선거 때가 되니까 급히 몇 번이나 예배에 참석하고 있네. 리더로 뽑힌다면 그가 진리를 깨달을까? 진리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을 지켜 주거나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뿐이라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 줄 수 있을까?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그가 주는 이득에 감화되거나 포섭된 사람들도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겠느냐? 그가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될 수도 있다. 최종 선거 결과가 어떻든 이 부류 사람의 행위와 모습이 적절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때에 베풀고 헌금하며 형제자매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사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차를 제공해 주고, 집에 돈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는 돈을 빌려주며, 휴대폰이 없는 형제자매에게는 휴대폰을 사 주고, 컴퓨터가 없는 형제자매에게는 자신의 컴퓨터를 주는 등 꼭 필요한 때와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행위냐? 리더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일찍도, 늦게도 아니고 하필 리더를 선거할 때 나타난 것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뻔하디 뻔하다. 여기에는 분명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는 양심이 깨어나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의 목적은 교회 리더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으로,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 교회와 하나님 선민을 조종하려는 것이다. 그가 그들을 위해 일을 처리해 주려고 그들을 조종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의 선민과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이고, 교회에서 지위를 하나 얻고 관직에 올라 결정권을 가지려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단이나 행동 방식은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 선거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득표수가 부족할까 봐 자신에게 투표한다. 듣기에 가소롭고 기이하지 않으냐?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겠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겠느냐, 아니면 야심이 너무 큰 모습이겠느냐? 모두 해당한다. 그는 뽑히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자신에게 투표하는데, 이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리더가 되려 하고, 남들이 뽑아 주지 않자 스스로 자신을 뽑다니,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그는 야심이 너무 커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파렴치한 데다가 인격도 존엄도 없다. '나를 안 뽑으면 안 돼. 나는 꼭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리더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교회 리더가 되거나 관직에 오르려 하고, 지위를 얻어야만 흡족해하며 마음 편하게 사니,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크냐! 그는 지위를 몹시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이다. 리더가 되면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 만약 지위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위가 가져다주는 모든 특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 지위를 소중히 여기겠느냐? 스스로에게 투표하겠느냐? 야심과 욕망이 그토록

크겠느냐? 지위를 그렇게나 애지중지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는 늘 선거와 관련된 일에서 수작을 부리고 공을 들이며 어떤 비열한 짓도 저지르려 한다. 설사 자신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면목이 없고 광명정대하지 않으며 품위가 좀 떨어진다고 느낄지라도 고민 끝에 이렇게 생각한다. '상관없어. 일단 리더로 뽑히는 게 중요하지!' 이게 바로 염치를 모르는 것이다. 그는 또 민주 국가에서 선거할 때 토론하는 방식을 모방해 서로 약점을 들추고 판단하고 공격하며 설전을 벌이는 선거 방식을 교회 선거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적용할 곳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 만약 교회에 와서 부정한 수단을 쓰며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한다면, 말하건대 너는 잘못 찾아왔다! 여기는 하나님 집이지 사회가 아니다. 누구든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면 정죄받지 않는 자가 없다. 교회에서는 어떤 이유나 핑계,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고 하든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 악행, 그것도 영원한 악행이다!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정죄된다. 이런 부류는 하나님 집의 일원이나 형제자매로 인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규정된다. 사탄의 종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들만 한다.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역할을 맡아 사탄의 종이 하는 일을 한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이들은 나서서 교란하고 망치려 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규정, 하나님의 행정 법령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안중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제멋대로 굴려 하며 교회의 여러 사무, 나아가 교회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며, 심지어 교회의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한다. 어떤 경로로 교회의 인사를 조종하려 하겠느냐? 기회를 노려 교회의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한다. 이들 사탄의 종에 의해 조작되고 교란되면, 그 선거는 실패한 것이다. 사탄의 종이 목적을 달성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선거 결과가 옳겠느냐, 아니면 그르겠느냐? 당연히 그르다. 마땅히 진리를 교제하고 교훈을 종합해 다시 선거해야 한다.

2) 교회 선거를 조작하는 악인에 대한 처리 원칙

악인이 선거를 조작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선거 결과를 뒤엎고 다시 선거해야 합니다.) 그것도 방법 중 한 가지다. 해당 선거가 악인에 의해 조작된 내막을 공개하고 알려 그 선거 과정이 어땠는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두가 알게 해야 하고, 내막을 알고 난 뒤에는 해당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선거해야 한다. 이런 선거는 대다수의 하나님 선민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누가 뽑히든 소용없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진리를 교제하고 내막을 폭로함으로써 해당 선거 결과가 부정되며, 다시 선거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해당 선거 결과가 사탄의 종에 의해 조작되었고 뽑힌 사람은 결코 사역을 할 수 없는 꼭두각시임을 몇몇 사람이 알게 될지라도, 교회의 대다수 사람은 악인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종 편에 선다. 오직 소수만이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고 그 내막을 알게 되지만, 누구에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또 그 소수는 세력이 약해서 그런 국면을 전환할 힘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가 조작된 내막을 폭로하려 해도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럼 윗선 리더

일꾼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만약 계속 교회 생활을 한다면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거기서도 아무렇게나 낯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선출된 교회 리더가 인성이 나쁜 마귀이고 교회 리더로 뽑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기에 너는 그를 볼 때마다 화가 날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자니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참석하지 않아서 교회와 관계가 단절되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경솔하게 그들을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그들은 한패가 되어 너를 억압하고 쫓아낼 것이고 여차하면 너를 제명할 수도 있다. 그럼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분별력이 있는 형제자매와 연합하여 그자들이 밀실 조작으로 선거를 조작한 악행을 모두 수집한 다음 윗선의 리더 일꾼에게 보고하는 한편, 미혹된 형제자매에게 조속히 진리를 교제해 그들을 구해 내야 합니다.) 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할 때 서둘러서 되겠느냐? 서두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괜히 잘못 건드려 상대방의 경계심만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너희는 두렵거나 긴장되느냐? 두려워하거나 긴장해야겠느냐? (그래선 안 됩니다.) 네 이성은 네게 도리대로라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실제 상황은 어떻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지만 있다면 속으로 여전히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울 때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성과를 내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는 어떤 내적 상태에 놓여 있겠느냐?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네가 그들을 분별하고 속으로 그들을 경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하고, 너는 그들과 한패가 아님을 그들이 알아차리고 너를 억압하고 배척하며 교회에서 제명할까 봐 두려워한다. 너는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자들과 함께 지내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갖고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악행을 폭로할 지혜, 용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느냐? 두려울 때는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우선, 너는 연약하고 수동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저 악인들은 결국 목적을 달성했어. 지금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나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 줄까? 믿지 않으면 나를 폭로하지 않을까? 나는 혼자고 힘이 없는데, 그들이 다 같이 나를 상대한다면 그 악인들이 온갖 핑계를 찾아 나를 제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그들과 어떻게 대응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과 지낼 수 있겠느냐? 이때 너는 아무런 방향도, 길도 없지 않겠느냐?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두렵고 연약할 때 네게는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지내고 그들의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럼 이때 네게 가장 좋은 행동 방식은 무엇이겠느냐? 능동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맞서 싸우며 그들의 악행을 폭로해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겠느냐? 이 방식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겠느냐?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도 못했으며, 어떻게 그들을 폭로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미혹된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여 돌아설 수 있을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측면의 일을 다 알지 못하고, 네게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어느 정도까지 소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너는 지금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이며, 속으로 염려하는 바가 많다. 그런 염려가 적절하든, 아니면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든 결국 그건 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선거의 진실을 서둘러 폭로하지 말고, 선출된 교회 리더나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한 자들과 서둘러 대립하지 말며, 그들을 폭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때 너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건 너무 수동적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라고 묻는데,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구해라. 이런 환경에서 가장 두렵고 연약할 때 네 기도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네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고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연약함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염려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네가 점차 어떤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들을 깨닫겠느냐? 그런 자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누구를 먼저 폭로해야 할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로울지 알게 되는 한편, 그런 자들의 행위가 어떤 성질인지 알게 된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기다리는 과정에서 진리를 구하면서 점차 깨닫게 된다. 그 일을 꿰뚫어 보게 되면 어떻게 지혜를 운용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적절할지, 어떻게 말해야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악인이 선거를 조작한 실정을 알려 그를 돌아서게 할 수 있을지, 그가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사람의 낯짝을 분별하게 할 수 있을지, 선출된 소위 리더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게 할 수 있을지 자연스레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동시에 절차 있게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긍정적인 수확은 어떻게 얻겠느냐? 모두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다. 일부는 성령이 역사하여 깨우쳐 주고, 일부는 하나님이 네가 말씀 속에서 보고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느냐? 사탄과 싸우든, 사탄 종의 악행을 폭로하든, 사탄과 어떻게 싸우든 간에 너 자신이 강인해야 하고 진리 원칙을 깨닫고 사탄과 악인의 본질 및 악행을 꿰뚫어 본 다음 그를 폭로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너의 두려움과 연약함, 염려는 그렇게 강렬하지도, 뚜렷하지도 않게 되지 않겠느냐?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서서히 변화할 것이고, 너는 자신이 처음에 일이 막 발생했을 때처럼 그렇게 연약하지 않고 그때보다 좀 더 강인해졌다고, 자신감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됐다고 느낄 것이다. 이때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좋은 기회를 예비해 달라고 구한 다음 행동을 개시하면 된다. 윗선의 리더 일꾼에게 보고하는 한편, 인성이 좋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속아 넘어가고 미혹된 사람들을 찾아 교제하여 악인이 선거를 조작한 내막을 폭로해라.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 얻고 나면 네 마음속 두려움은 대체로 사라질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에 기대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혈기나 순간적인 충동, 분노에 기대서도, 일시적인 소위 정의감에 기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네게 시간을 예비해 주고 네가 해야 할 말을 깨우쳐 주며 네가 깨달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초반에 연약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다가 원칙과 길을 구하여 깨달을 때까지, 그 기간에도 너는 그들과 정상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 정상적으로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람의 뇌는 텅 비어 있지 않고,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는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할 것이다. 무엇을 관찰하겠느냐? 그들이 대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들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고 교회의 사역 원칙에 부합한다면 들어도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다면 핑계를 찾아 듣지 않거나 미루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도 된다. 다만 괜히 잘못 건드려 상대의 경계심을 높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동시에 그들의 악행을 수집하고, 진리 원칙을 위배하는 그들의 온갖 행동 방식과 황당한 이론을 근거로 그들을 분별하면, 그들이 사탄의 종임을 한층 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실행하면 그들에게 속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본분도 이행할 수 있으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성과 지혜가 있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른길에 오를 수 있다. 지혜가 없는 데다가 행동이 거칠고 서툴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임하든 늘 혈기나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런 사람은 일 처리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불필요한 골칫거리와 성가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기다리고 관찰하고 구한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안배와 배치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 원칙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혈기에 휘둘려 남들과 싸우고 설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아름다운 싸움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다.

악인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일이 닥치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폭로할지가 아니라 제때 윗선에 보고하고 지혜를 적용해 그들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 원칙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본분 이행도 지체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게 된다. 윗선에 보고하고 답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너 스스로도 식견이 넓어지고 분별력이 커지며 지혜도 쌓이고 분량도 자라는 데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진다. 사탄과 한 번 겨루고 나면 사람은 무수히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사람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 반대로 혈기나 감정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고 그런 자들과 크게 싸우고 직접 맞서며 "당신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고 있어요. 당신들 세력이 크지만 저는 불복할 거예요. 당신들이 두렵지 않다고요!"라고 말한다면 결국 그런 자들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집에서 훌쩍이며 몇 개월간 고통받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지? 하나님, 이제는 저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가요?' 몇 개월간 새로운 설교나 찬양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는지도 알지 못하고,

본분도 이행하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되어 철저히 어둠 속에 빠진다. 매일 울거나 걱정만 할 뿐 그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복잡한 일 속에서 진리 원칙을 구하는 법은 더더욱 배우지 못하고, 지혜는 조금도 자라지 않는다. 몇 개월간 울다가 어느 날 드디어 누군가 그를 교회로 받아들여 그동안의 체험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는 울면서 하소연만 한다. "너무 억울해요! 저는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악인에게 모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그동안 어떤 공과를 배웠나요? 무슨 수확이 있었나요?"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그들은 저를 격리시키고 하나님 말씀 책과 찬송가 책을 다 거두어 갔어요. 저는 설교도 듣지 못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말이나 좀 하거나 기억나는 찬양 몇 곡을 가끔 불렀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예비하시어 저를 다시 찾아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나가서 장사로 돈이나 벌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구원받을 희망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원하지 않으시니 저도 계속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라고 결론짓는다. 그토록 크고 특별한 일을 겪고도 고작 그런 것들을 얻었으니 좀 가련하지 않으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토록 큰 일이 닥쳤는데 공과도 배우지 못하고 지혜와 믿음도 늘지 않았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 마귀나 적그리스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믿지 않게 될 뻔했으니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못난이가 아니냐? 집에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눈이 멀도록 운들 소용이 있느냐? 적그리스도를 처단할 수 있느냐? 상대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너는 결국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지혜도 없고, 일을 처리하는 데 절차도 없으며, 하나님이 준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사탄과 싸울 줄도 모른다. 평소에 얘기하던 그깟 도리는 전혀 쓸모가 없고, 그런 일이 닥치면 울거나 억울해하고 원망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못난이다. 못난이는 흔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첫째는 우는 것, 둘째는 억울해하는 것, 셋째는 속으로 원망하는 것이다. 그는 또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째서 저를 신경 쓰지 않으시죠? 저는 사탄에게 처참히 당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서 저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한다. "너는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는 못난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사탄이 뭐가 두려우냐?" 사탄이 어떤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행동하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운다는 것은 네가 못나고 무능하다는 뜻이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고 밥통이다! 우는 것은 사탄과 타협하고 사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못난이를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못난이에다 바보이고 쓸모없는 놈이며, 증거와 지혜도 전혀 없다. 네가 깨달은 진리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아직 부족하냐? 너는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느냐? 그가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가

사탄임을 알면서도 왜 그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탄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냐? 이는 비정상이 아니냐?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기만 하고 대책도 없고, 아무런 지혜나 대응 조치도 없으니, 네가 그동안 설교를 들으며 얻은 수확이 무엇이냐? 다 헛들은 것 아니냐? 이런 못난이가 굳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이나 악인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일이 닥치면 네 세력이 미약하더라도, 너와 한마음인 형제자매가 정말로 몇 명 있더라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첫째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둘째로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기다리고 구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하나님이 시간이나 시기를 예비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을 구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실행해야 할 원칙과 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탄이나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서 결국 사탄 세력을 이기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는지 구해야 한다. 만약 너 혼자뿐이라면 하나님에게 많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구해야 한다.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이 두세 명 있다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구해도 된다.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를 예비했을 때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이 다 적절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한편 사탄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폭로해 사탄의 종이나 적그리스도 무리의 음모를 철저히 까발리고 망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 이런 방식과 방법, 길, 원칙을 모두 알려 주었으니 어떻게 적용할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렸다. 이 길은 충분히 분명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이 원칙대로 실행해라. 이는 쉽게 해낼 수 있다.

매번 교회 선거 기간이 되면 리더 일꾼이든 하나님 선민이든 모두 선거 사역을 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리더 일꾼은 진리와 선거 원칙을 교제하는 사역을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 선민은 무슨 문제든 다 제기한 다음 진리를 교제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확실히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리더 일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집의 선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원칙을 근거로 매번 하나님 집의 선거 사역을 시행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자들은 사탄의 종이고 모두 사탄과 한패이므로 단단히 방비해야 하고, 그들이 선거 기간에 검은손을 뻗거나 음모를 꾸미고 밀실 조작을 벌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말로 악인에 의해 선거가 조작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진정 선출돼야 할 사람이 배척당한다면, 대다수 사람이 미혹되어 선출된 리더가 옳은 사람이 아니고 리더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면,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선출된 사람의 실상을 폭로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이 동의하면 다시 선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사탄이나 악인에 의해 조작된 선거의 결과는 교회에서 진리 원칙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선거해 얻은 결과가 아니다. 그건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며, 언젠가는 까발려지고 폭로되고 취소될 것이다. 이 점을 믿는다는 바탕 위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언제 어디서든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야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겁쟁이이고 바보에다 못난이라면 아마 그들과 타협하여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들의 공격에 쓰러지고 소극적으로 변해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수수방관하며 말한다.

"어차피 저는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으니 누가 되든 다 똑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된다고 해도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를 제명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다지 좋은 인간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못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일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리더가 된다면 피해를 입는 건 바로 하나님 선민이에요.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의감을 가진 사람,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배척을 받게 되죠. 오직 바보나 무골호인만이 환영받고 적그리스도의 권력 아래에 속박되고 통제받을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라고.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된다고 해도 내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도 나를 억압하거나 배척하며 교회에서 제명할 수는 없을 거야.' 이 관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선민이 다 교회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는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교회 생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겠느냐? 이는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진리나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게 아니라 불신파나 사탄이 권력을 잡는 것이다. 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발언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가 진리를 분명하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선민이 자유롭게 진리를 교제하도록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 생활의 효과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 선민들이 매번 예배 시간에 얻는 수확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일부 사람도 방해를 받을 것이며, 마치 먹구름이 드리우고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에 누림이 있겠느냐? 분명 누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원래 소수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억압받고 배척을 받는다면 교회 생활 자체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선거를 중시하지도 않게 되고 선거에 관심을 갖지도 않게 된다. 만약 대다수 사람이 선거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원칙도 견지하지 않은 채 이렇게 소극적으로 선거를 대하고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여 악인이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리더를 하게 한다면 대다수 하나님 선민은 생명 진입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 선거 결과의 좋고 나쁨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성장이나 교회의 앞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나님 선민은 이 일을 똑똑히 알아야지 절대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늘 개인의 상상에 따라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으니 누구를 뽑든 상관없어. 형제자매이기만 하면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교회 선거라는 일을 너무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그릇된 생각이나 관점이 이토록 많이 생겨난다. 만약 정말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리더

일꾼으로 뽑게 된다면 교회 사역은 망가지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필연적으로 해를 입을 것이다. 그때면 원칙대로 선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일부 무골호인이 있다. 이들은 악인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설령 얼마간 분별했다고 할지라도 방임한다. 그는 교회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내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말자.'라는 태도로 대하며, 또 누가 리더가 되든 똑같다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매일 즐겁게 잘 지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어떠하냐?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무골호인이다. 또한, 불신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고 좋은 삶을 탐내고 육적인 안일만을 누리는, 몹시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다.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냐?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어떤 사람이 관직에 오르든 다 잘 지내며, 팔방미인으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간다. 어떤 정치 운동이 일어나도 그들은 전혀 연루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자를 가리켜 능구렁이나 미꾸라지 같다고 한다. 그는 사탄 철학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원칙을 따지지 않고, 누가 권력을 잡든 아부하고 아첨하며 그의 공덕을 찬양한다. 직속 상사를 대할 때는 오직 옹호할 뿐 절대 미움을 사지 않으며, 직속 상사가 아무리 많은 악행을 저질러도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누가 권력을 잡아도 잘 지낸다. 사탄 마왕은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마왕이 왜 이런 부류를 좋아하겠느냐? 그는 마왕의 일을 망치지 않고, 마왕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처신할 때 원칙도, 마지노선도 없고, 인격과 존엄도 없으며, 그저 사회의 흐름을 따라 마왕에게 머리 숙여 굴복하고 비위를 맞춘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가 그리스도의 정예병이겠느냐? 하나님의 증인이겠느냐?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 사역을 교란할 때, 이 부류가 나서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폭로하고 분별하고 내치고,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능구렁이들은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대상도 아니고,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마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고 사탄과 한패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도태될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런 천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도, 생명도 없는 짐승이자 마귀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손쉽게 버리고 도태시킨다. 교회는 마땅히 그들을 불신파로 간주하여 즉시 제명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공급을 하겠느냐? 깨우침과 도움을 주겠느냐? 그럴 리 없다. 교회에 선거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생겨 선거 결과가 악인에게 통제되고 지배될 때, 이 부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절대 진리 원칙을 고수하며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을 것이고, 사탄 세력과 끝까지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럴 용기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를 분별해야지 자신이 깨달은 진리나 사탄에 대한 분별을 이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네가 교제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는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사역자나 파트너를 선택할 때 그를 제외하고, 그런 사람을 뽑지 마라. 왜 그를 뽑지 말아야겠느냐? 그는 능구렁이라 하나님의 편이나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일어나 사탄과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이고, 사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진리를 교제하거나 권면하지 말고, 어떤 희망도 품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부류를 절대 구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고, 능구렁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는 단순히 구경하고 마구 소란을 피우려고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다. 그들에게는 정의감도, 책임감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 좋은 사람이 악인에게 해를 당해도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악인을 폭로한다면 그는 성원이나 응원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로 이 부류의 사람을 믿지 마라. 이 부류의 사람은 능구렁이, 카멜레온, 미꾸라지들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누가 이런 부류인지 살펴보아서 일이 닥쳤을 때 절대로 그와 진리를 교제하지 말고, 그가 네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라. 또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의감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하나님 집의 이익이 해를 입거나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가 방해받거나 조종당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하는 사람, 교회를 교란하는 이 악인들을 마음속으로 몹시 증오하여 일어나 폭로하고 싶어 하는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 연합하여 악마와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 교제하고 함께 사탄과 싸워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기는 자이자 그리스도의 정예병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다. 그 무골호인, 미꾸라지들, 카멜레온, 무감각하고 어리석어 반응이 없는 자들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며, 도태될 대상에 속한다. 그들은 형제자매도, 하나님 집의 사람도 아니라 불신파이고 투기꾼들이니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만약 그가 악을 행한다면 정리해라. 반면, 그가 악인도 아니고, 악인을 따라 교회를 교란하지도 않는다면 당분간 교회에 머물게 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려도 된다. 이 부류 사람의 성품과 인성, 그리고 그들이 각종 일에 보이는 관점과 태도를 관찰하고 파악하며 분별해야 하고, 이 부류 사람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악인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할 때 악인 편에 서서 악인의 앞잡이나 공범 노릇을 하는 이 무골호인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악인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각종 부적절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해야 한다.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면 어떻게 원칙대로 처분을 내려야 적절할지 알게 될 것이다.

방금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몇몇 현상과 일부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 교제했다. 비록 모든 측면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제를 마쳤다. 너희는 교회에서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행동 방식을 발견하면 나서서 제재해야지 순응하는 자나 무골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늘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려 한다면, 일단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형제자매가 단체로 나서서 그를 저지하고 폭로해야 한다. 만약 그가

흐리멍덩하게 행동하면서 그것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면 너희가 명확히 말해 주면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 역할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면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집만의 규정이 있고, 하나님 집에서 이 사역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뜻이 섞여서는 안 되고, 엄격히 진리 원칙대로 이 사역을 해야 해요. 자질이 부족해서 진리 원칙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혹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흐리거나 지능이 낮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권하고 결과를 기다려도 돼요. 하지만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방해하고 교란하지 말라고요. 그건 악행이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악행은 영원히 정죄되니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길을 걷지 마세요. 당신이 사람이라면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일단 그게 사실이 되면 사탄의 종으로 규정되고 교회에서 제명될 테니까요."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그중 자질이 부족하거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붙들어 주고 공급하고 도와주어도 된다. 하지만 진리 원칙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며 심지어 말려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기에도 해결 방법이 있다. 즉, 그가 다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아무튼 선거를 조작하고 교란하는 각종 행태는 예외 없이 분별하고 저지하고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해야 한다. 그릇된 선거 결과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망치지 않도록 그런 행위나 행동 방식은 교회 내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에 대한 총정리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과 관련된다. 우리는 열한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교제했다. 각 항목에서 열거한,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나 사건은 모두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겠느냐? 왜 모든 항목을 일일이 꺼내 교제하고 분석하겠느냐? 각 항목의 제목을 보면 각각의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성이 다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인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의 상황이 그나마 심각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성질이 심각하다. 그런 모습들은 모두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을 띠고 있으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꺼내 교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나 사람의 본분 이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사람은 특히 경계해야 하고, 분별하고 꿰뚫어 봐야 한다.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첫 번째인 '진리를 교제할 때 자주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상황이나 성질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자주 주제에서 벗어나 뒤죽박죽으로 말하여 듣는 사람을 짜증 나게 하면 교회 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나머지 항목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하나라도 세세하게 교제하고

분석하고 해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질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를 교란하는 악행을 분별하고 인식했다면 마땅히 나서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크게 보면 그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작게 보면 최소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여기서 '하지 못한다'를 어떻게 규정해야겠느냐? 최소한 너는 바보이고, 게다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못난이이다. 또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할 때 너는 무관심하고 무력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네게는 나서서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그 어떤 믿음이나 용기도 없다. 그렇다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자격이 없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에서 열거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여러 사건은 모두 리더 일꾼과 일반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분이나 책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집 사역을 교란하는 부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입장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사물이 나타났을 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충분한 분량이나 믿음을 가졌는지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느냐? 이는 사람의 입장과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나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 본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너희는 이런 말을 다 들은 후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도리나 규례, 혹은 규정으로 여겨 집행하거나 시행하지 말고, 많이 묵상하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 실행하고 진입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러야 한다. 악인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때는 수수방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느니, 분량이 작다느니, 아직 어리다느니 하면서 온갖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공사를 검증할 때, 네게 환경을 마련해 네 태도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네 나이의 많고 적음도, 네가 하나님을 몇 년 믿었는지도, 네가 어떤 대가를 치렀었고 네게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네 태도를 요구한다. 만약 네가 평소에 그런 일을 한 번도 묵상한 적 없고 구한 적도 없으며 일이 닥칠 때마다 흐리멍덩한 상태로 그냥 넘겨 버린다면,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공과를 배우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마련한 여러 환경을 진지하게 대하지도 않는다면, 악인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걸 보면 도피하고 결코 하나님 집에 보고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의 태도도 밝히지 않는다면 비록 너는 악을 행하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서 네가 보인 모습은 이미 네 입장과 관점을 드러냈다. 바로 너는 방관자이자 사탄을 응원하는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기에 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사물에 직면했을 때,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너는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짧거나 나이가 많지 않거나 분량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원칙대로 행동하여 악인을 저지하고 제재하고 심지어 폭로하려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서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면, 네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네 태도와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고 사탄과 싸우려는 네 결심은 이미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는 증거가 된 것이다. 사람의 악행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기만이나 숨김, 책임에 대한 회피, 그리고 사탄이 악을 행할 때 사탄에 대한 사람의 굴복과 타협 등 이런 것도 하나님은 볼 수 있다. 그런 악행은 결국 언젠가는 상응하는 처분과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를 위해 말하고, 사탄과 싸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려는 의지에 입각해 진리를 구한다면, 비록 때때로 힘이 역부족이고 지혜가 부족하며 깨달은 진리가 얕다고 느껴지고, 진리를 교제하고 싶어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 진심을 볼 수 있고 네 그런 행위와 모습을 선행으로 규정할 것이다. 악행은 하나님에게서는 언젠가 판결과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행도 하나님에게서는 판결과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이 두 가지 행위의 최종적인 결론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악행은 악한 보응을 받고 선행은 선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에게 이를 구분해 놓았으니, 하나님의 사역 기간에 사람의 여러 모습이 기정사실이 되고 나면 상선벌악할 것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에서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에 대해 열한 가지 항목을 열거했는데, 이 열한 가지 항목은 아주 중요하지 않으냐? 사람을 잘 드러내지 않느냐? 각 항목의 내용을 교제할 때 너희는 공을 많이 들여 진리를 환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 하나님의 증거를 수호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나서서 사탄과 싸우고 사탄의 민낯을 폭로하고 까발리며 사탄의 악행을 저지하고 제재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사탄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때 너는 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이 네게 요구한 것을 행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는 타협하거나 적당히 절충해 중용의 길을 걷는 무골호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나서서 사탄의 악행을 저지하고 제재하며 더 많은 진정한 형제자매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켰느냐? 너는 무엇을 지켰느냐? 악인과 사탄의 이익을 지켰느냐, 아니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켰느냐? 만약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골호인이 되어 자신을 지키기만 한다면, 매우 능수능란하게 자신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만 하고 교회 사역이 교란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을 졸이거나 걱정하지도 않는다면, 마음속에 악인의 악행에 대해 아무런 증오나 분노도 없고 하나님 집과 모든 형제자매의 이익에 대해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너는 위험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철두철미한 무골호인이고, 어떤 일이 닥치든 수수방관하고 회피하며 조금의 책임이나 의무도 다하지 못한다면 너는 정말로 위험하고, 하나님에게 도태되기 쉽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든다면, 즉 너를 힘쓰게 하려는 마음조차 없어지고 너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때 너는 도태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이지 몹시 위험하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보고 싶지 않고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그 어떤 본분을 이행하거나 힘쓰는 것도 탐탁지 않다고 한다면 너는 머지않은 어느 날 어느 때 교회에서 도태될 것이고, 네 운명도 그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이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변했거나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네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네 마음속에 품었던 아름다운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종착지나 앞날을 볼 수 없더라도 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항상 아름다운 사물이나 긍정적인 사물을 동경한다. 이런 힘은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사람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다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받으며 사는데 왜 저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이는 비밀이 아니겠느냐? 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몹시 진귀하고,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이고, 이 인류는 귀천이 나뉘지 않을 것이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없는 것을 너는 가지고 있으며, 네가 가진 그것은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다. 왜 가장 소중하다고 하겠느냐?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착실하게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런 기대가 네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며 좋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조금이나마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은 이토록 크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비롯되었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칠 때 사람은 그런 것들을 빼앗겨 더 이상 아름다운 사물을 동경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며 그 어떤 희망도 걸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이 암울해지고 가라앉으며, 그 어떤 아름다운 사물이나 긍정적인 사물, 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약속에 대해서도 추구할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일단 사라지면 네가 하나님 집에 남아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길이 끝난 것 아니겠느냐? 추구하려는 의지라는 이 선결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너는 산송장이 된다. 산송장이란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기대를 품게 되며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잃으면 그 동력도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욕이 없고 관심도 없으며, 어떤 약속과 기대를 주든 관심이나 동력을 갖지 못한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차원적인 이론으로 변하고, 너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더 이상 너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길이 끝난 것 아니겠느냐?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이미 너를 내친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치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은 속으로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고 구원받는 것 등에 관한 여러 측면의 일에 대해 사람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 너는 예전에 열성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회상하면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이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불가사의하다고 느낄 때, 지금의 너는 예전의 너와 비교해 보면 내적 상태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예전의 너와는 다른 사람이다. 지금의 너는 예전의 네가 아니다. 왜 그렇겠느냐? 환경이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나이가 들어 잔꾀가 늘어났기 때문도 아니며,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사상 관점이 바뀌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보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주었지만 사람 스스로는 가장 보잘것없고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게 된다면 고통에 빠져 행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절대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 지경에 이르면 너는 무거운 짐을 벗은 듯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본분을 이행할 필요도 없으니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마치 새장을 벗어난 새와 같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와 기쁨, 자아도취일 뿐이다. 더 앞으로 걸어가 앞에 놓인 길을 보았을 때도 네가 그렇게 기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창조주가 어떻게 배치하고 네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네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주든,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든, 심지어 몰이해와 오해 등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너는 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네 버팀목이며 네 마음은 평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치고, 하나님이 대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끼지 못하고 네 버팀목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마음속으로 오로지 '엄마가 제일 사랑스러워. 엄마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엄마는 죽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 그때는 엄마가 병에 걸렸다는 말만 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정말로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자신은 살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같은 이치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사람의 운명은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데서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 비롯된다. 사람에게 그런 안정감이 있는 것은 그런 진실한 믿음과 의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과 의지함이 사라지고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낀다면 네 하늘은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 네 버팀목이 사라졌는데 살아가면서 기운이 나겠느냐? 이런 부류는 그저 산송장으로, 배만 채우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시종일관 태도가 좋지 않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계속 악을 행하며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망친다. 심지어 하나님 집의 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나 충성심을 드러낸 적이 없고 순종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인정한 적 없다. 그들은 복받으려는 속셈을 품은 채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악한 자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오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 선민이 공과를 좀 배우고 분별력을 좀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그들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일관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택함을 입지 못했다. 그럼 그들의 상태는 어떻겠느냐? 알아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힘들게 살아간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과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을 받지 못해 늘 무저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온종일 두려움과 불안, 초조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어떤 생활이겠느냐? 무저갱에 빠져 사는 생활이 좋겠느냐? 괴로울 것이다. 무저갱은 말할 것도 없고 며칠간 연달아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만 해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6 천 년 경영 사역 기간에 네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네게 영광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지 굴욕적인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얻은 이 영광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것에 보답하는가이다. 하나님이 높여 주었으니 너는 그 호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보답해야겠느냐? 하나님은 네 돈이나 네 목숨을 원하지 않는다. 네 집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나님은 네 진심과 충성심을 원한다. 그 진심과 충성심은 어디에서 드러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이다.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어떻게 적용해야겠느냐? 진리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절대로 입으로는 진리를 실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일이 닥치면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는 핑계를 찾아 위장하거나 기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진심도 없고 충성심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진심이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것이다. 설사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지나치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바보 같더라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이런 진심이다. 만약 늘 잔꾀를 부리고 교활하게 행동한다면, 항상 남의 눈에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면 너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다. 네게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도 없는 데다가 간사하게 굴려고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영리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실행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실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평소에 말할 때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큰소리치지만 문제가 닥치면 그림자도 찾지 못하게 숨어 버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그제서야 나타난다. 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자발적으로 나서며 남들보다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면 바로 뒤로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듣기 좋은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차라리 남들 눈에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을 원하지 이런 요령꾼은 원하지 않는다.

12. 정치를 논의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의 열한 가지 내용에 관해 교제를 마쳤다. 이제 이 열한 가지 외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 항목은 교회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열두 번째 항목으로 볼 수 있는 '정치를 논의한다'이다. 교회 생활에서 정치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 형세, 정치인, 정치 구도, 정치적 관점, 정치적 입장 등 정치에 관한 일을 열띠게 논의하는데 그게 적절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를 주재하는 것에 관한 주제를 논의할 때, 정치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묵상 노트 같은 것을 작성하는 정치인도 있다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 말한다. 이는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개 정치인을 옹호해야 해요. 그 사람은 신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들의 이익까지 지켜 주니까요. 우리와 한마음이니 그를 지지하고 선출해야죠." 또 그는 교회 생활에서 그 정치인을 많이 홍보한다. 이것이 적절하겠느냐? 크리스천이 정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 우선 네가 어느 당파를 지지하든, 네 정치적 관점이 무엇이든 그것을 교회 생활 속으로 끌어와 논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 생활에서 정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논쟁하는 일은 더더욱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너희 둘의 관점이 다르고 서로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해 보자. 둘이 만났을 때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 예배 시간에 논의해서는 안 된다. 둘이 사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든, 만나서 이야기하든,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벌이든 다른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 제도하의 시민이 갖는 권리이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는 단지 한 국가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주제와 정치인에 관한 주제를 교회에 들여오지 마라. 그것은 네 개인의 입장과 관점을 대표할 뿐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교회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또한 어떤 정치 제도나 정치인, 정치 지도자, 정치 단체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 일들은 다 진리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정치와 관련된 어떤 주제도 교회 생활에 들여와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교회 생활 외에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일을 논의해도 되나요?"라고 말하는데, 논의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만약 이방인 중 정치적 관점이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이 논의하고 있을 때 참여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네 자유이며, 하나님 집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이 모여 있는 시간이나 정규 예배 시간에는 그런 정치적 관점이나 논점을 주요 소재 삼아 말해서는 안 된다. 네 정치적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 혹은 하나님의 주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대도 안 된다. 그것은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아예 동떨어져 있으니 거짓으로 꾸며 대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논의하고 싶어도 집에서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논의하지 못하다가 형제자매가 모두 성인인 것을 보고는 정치를 논의하고 정치적 관점을 털어놓을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좋은 기회를 찾자 흥이 나서 정치적 관점이나 시사, 국제 형세를 논하려고 한다. 그는 이런 것들을 논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예요. 인류의 정치나 정치인들도 다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요." 이렇게 서막을 열고는 정치적인 일이나 시사를 열띠게 실컷 논하고, 논의가 끝나면 이렇게 정리한다. "정치도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죠." 그런 일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진리를 교제하는 것은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지, 정치나 정치인은 논하지 마라. 정치에 관한 일을 논하는 것은 진리를 교제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짓이다. 정치를 논의하고 싶다면 따로 정치를 좋아하는 무리를 찾아가 논해라. 그러면 아주 신나게 논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의도로 자꾸 교회에서 그런 주제를 논하는 것이냐? 모두에게 숭배받고 리더로 뽑히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 결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절대 정치적인 주제를 논의하지 마라. "그럼 자유 국가의 민주 선거, 정치 제도, 시행되는 정책은 논의하지 않고 큰 붉은 용 나라의 정치나 고위 공직자에 관한 스캔들, 예를 들어 어느 부패한 공직자가 황금을 얼마나 횡령했고 내연녀는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을 논의하는 건 괜찮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겹지도 않으냐? 왜 그런 역겨운 일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냐? 나는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일을 보는 게 이토록 역겹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에 특히나 관심을 갖는다. 전혀 역겨워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그런 일을 보려고 하는데, 한가할 때마다 본다. 그는 그런 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며 충만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충만해지지 않는 것이냐? 조금 이상하지 않으냐? 이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좋은 시간에 마당에서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먼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틈만 나면 컴퓨터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주시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서둘러 수집한다. 그는 평소에도 어느 부패한 공직자에게 내연녀가 몇 명 있었는데 발각됐다느니, 어느 부패한 공직자 집에 재산이 얼마 있었는데 몰수됐다느니, 큰 붉은 용의 윗선에서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가 누구를 암살했다느니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 그런 일들을 수집하고 나면 자신이 높은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배 시간에 털어놓으려고 한다. 이는 독을 퍼뜨리는 것 아니냐? 그 악마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이지 않으냐? "그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정상이지만 그중에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나쁜 짓들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어떤 사악한 짓을 벌이는지 상상하려고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것이냐? 그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상상도 못 할 사악한 짓에 대해 좀 안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것 같으냐?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혐오감만 더해지지 않겠느냐?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계의 외설적이고 이상한 일에 늘 관심을 갖는데, 좀 모자란 것 아니냐? 자기 삶은 살지 않고 늘 그들의 일에 신경을 써서 뭐 한단 말이냐? 어리석지 않으냐?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붉은 용에게 박해받았으니 분명 다들 큰 붉은 용을 증오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큰 붉은 용의 윗선에서 발생한 스캔들, 즉 탐관오리에 관한 일이나 음란한 일, 그리고 어두운 내막에 관심이 있을 테니 그런 스캔들을 폭로하면 박수 치며 쾌재를 불러야 하지 않나요?" 너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냐? 교회에서 정치적인 일을 논의하는 것, 특히 큰 붉은 용 윗선의 고관이 폭로되어 드러나는 스캔들을 논의하는 것은 가장 역겨운 일이니 절대 논하지 마라! 내게도 말하지 마라. 역겹다! 네게 말하건대, 논하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후회하게 될 때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역겹기 그지없다. 그런 일들은 많이 듣고 많이 본들 좋을 게 없다. 왜 좋을 게 없다고 하겠느냐? 마음에 역겨운 일을 많이 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도 정치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더욱 역겹다. 네가 즐겨 말한다면 이방인을 찾아 실컷 털어놓고 원하는 대로 말해라. 절대 교회 생활 속에서, 혹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큰 붉은 용 윗선의 더러운 일이나 사악한 일들을 말해서 형제자매의 분별력을

길러 주고 분을 풀어 주는 거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을 풀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분풀이를 하는 게 증거하는 것이냐? 네 의무나 본분이냐? 그런 것들은 말해 봤자 소용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네가 큰 붉은 용의 사악한 일을 얼마나 폭로하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반면, 네가 큰 붉은 용 나라에서 어떻게 박해를 겪었는지, 큰 붉은 용의 공갈과 협박을 어떻게 벗어 버리고 극복했는지, 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의지해 굳게 섰는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정치를 논의하는 건 생명 진입과 무관하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큰 붉은 용의 공직자가 횡령하고 한 끼 식사에 몇만 위안을 썼다거나 호화로운 호텔에 묵으며 몇 달러를 썼는지 폭로하는 것도 안 되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너와 털끝만큼이라도 관련이 있느냐? 이 세상과 사회는 원래 그렇지 않더냐? 누구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 주려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큰 붉은 용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도 아니며 큰 붉은 용을 저버리는 모습도 아니다. 혼란을 초래하지도 말고 외식하지도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진리 실행이 아니다. 탐관오리나 정치꾼이 얼마나 횡령하고 부패했든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폭로해야 할 일이 아니니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마라. 사탄 정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존재해 왔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 그런 주제를 '큰 붉은 용을 저버리고 폭로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주제에 뒤섞지 마라. 절대 그런 기괴하고 역겨운 일과 사악한 일을 교회 생활 속에서, 혹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정치를 논의하고 싶다면 이방인을 찾아 논의해라. 그런 기호나 취미를 가진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논의하든 상관없다. 그것은 네 개인적인 기호와 취미이고 네 자유이자 권리이니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나 형제자매 앞에서는 그런 일을 논의하지 마라. 설사 누가 듣고 싶어 하더라도 말하지 마라. 그런 일을 말하면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깨닫는 데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정치인의 사생활 스캔들에 관한 것이든 교회 생활에 가져와 논의하지 마라. 만약 누군가 교회 생활의 예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늘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며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일을 얘기하려 한다면 형제자매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를 제재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 그런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요!" 제재하지 못해서 그가 계속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를 내쫓은 다음,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오라고 알려 줘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그가 정치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순간, 형제자매들이 일어서서 다른 방으로 가 버리고 그 혼자 말하게 두는 것이다. 어쨌든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부류는 분명 존재한다. 그런 자들은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할지, 교회 사역이나 형제자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신에게 해결해야 할 어떤 실제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올바른 일들은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고 비뚤어진 일들만 고민하며, 그런 일들을 고민하는 데 유독 열중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정보가 발달하여 다양한 경로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으니 그런 자들의 기호와 취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기호나 취미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는 예배 시간에 정치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다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로 귀결시킨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거나 형제자매가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주제가 엄격히 금지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제가 금지된다면 정치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관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당파를 좋아하고 어느 당파를 싫어하는지, 누구를 뽑고 누구를 뽑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간섭하나요?"라고 말하는데, 명확히 말해 두겠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뽑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해라. 교회에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 자유다. 간섭하지 않는 범위가 아주 넓지 않으냐? 너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인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 이미 존중받은 것 아니냐? 이만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실컷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것은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류를 만나면 너희는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 그에게 알아듣게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처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집의 규율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알려 줘야겠군요. 이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정치적 관점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든 교회에서 퍼뜨리는 건 금물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뤄서도 안 되고요. 저희는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의 그런 얘기를 들을 의무도 없어요. 장소를 잘못 골랐다고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여기를 떠난다면 마음껏 말해도 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자유니까요." 만약 그가 명확히 알아듣고 기억해서 다음번에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괜찮다. 그는 그래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교제해 주었는데도 계속 말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정치적 관점을 밝힌다면 그가 말하는 걸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재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정치에 관한 주제를 논의한다면, 편을 가르고 지위를 다투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의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 자들은 봐주지 말고 반드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물론, 정치를 논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악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런 사물이나 주제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 부류는 진리를 그다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부류를 대하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교제했다. 즉, 그에게 하나님 집의 규정을 알려 주는 것이다. 명확히 말했음에도 계속 정치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려 하고 말려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격리해야 한다. 회개한 다음에야 계속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라. 이 일은 이렇게 간단히 처리해야 한다.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2021 년 7 월 24 일

리더 일꾼의 직책(20)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8)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배 시간에 교제를 마쳤다. 너희는 자신과 대조해 보았느냐? 평소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정의감이나 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은 내가 교제한 내용을 듣고 나면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얼마간 진리를 실행해 낼 수 있다. 우선, 그는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자신과 대조해 볼 수 있다. 진리와 대조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다음 실생활 속에서나 본분 이행 과정에서 여러 일이나 환경을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며,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사람이 실행하고 준수해야 할 원칙을 차츰 파악한다.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인식하는 한편, 진리가 말하는 것,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더욱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 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들어도 아무런 지각도, 변화도 없다. 그의 내적 상태와 본분 이행 태도, 추구 목표, 그리고 생활 방식과 사람됨의 원칙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는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진리는 그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그가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여 자신을 증오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자신을 증오하지 않으면 당연히 진실로 회개할 수 없고,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면 진실한 진입이 없으며, 진실한 진입이 없으면 당연히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하지만, 또 여러 해 동안 설교를 듣고 형제자매와도 자주 접촉하지만 자신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커지지 않는 것이다. 그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관념과 상상, 복받으려는 속셈과 욕망을 품은 채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 추구하는 방식이나 목표,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들이 지금 표출하거나 살아 내는 모습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을 열두 가지나 교제했지만 일부 리더 일꾼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도 전혀 변화가 없다. 교제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양심의 자각과 인성을 조금 갖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깨우고 감독하고 채찍질하는 역할을 했지만, 비교적 강퍅하거나 교활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왜 그렇겠느냐? 그런 자들은 반발하거나 증오하는 태도로 진리를 대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얼마나 교제하든 그들의 태도는 하나뿐이다. '어쨌든 나는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든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복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이냐? 이는 죽은 돼지는 끓는 물을 겁내지 않는 것 아니냐? 목을 꼿꼿이 세우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이다. 우리는 이 측면의 직책에 대해 열두 가지로 나누어 교제했다. 이 열두 가지의 내용은 주로 교회 내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이 나타났을 때, 리더 일꾼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하고 처리해야 하나님 집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하고 처리해야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를 다룬다. 우리는 이 측면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교제했다. 각 조항마다 일부 구체적인 모습을 교제했으며 일부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원칙적으로 보면, 교제한 각 조항의 내용은 모두 비교적 실제적이다. 비록 사례를 열거할 때 모든 면을 다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각종 사람, 일, 사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교제했다. 특히 너희는 리더 일꾼으로서 이런 측면의 진리를 깨달아야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교제한 내용들 가운데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말씀을 찾아 대조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면 상응하는 해결법을 찾기가 쉽고, 진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도 깨닫고 파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는 문제의 본질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파악해야만 규례에 맞추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며, 각 문제와 관련된 사람, 일, 사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어떤 리더 일꾼들은 일부 문제를 처리할 때 규례를 지키는 한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생사람을 잡고 편차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문제의 세부 사항과 자세한 상황,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사람의 일관적인 모습을 근거로 그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야만 원칙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일부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문제를 붙잡고 규례에 맞추거나 확대 해석할 뿐, 사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일관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가끔 과오를 범하는 것인지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르니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표결을 한다면 일부 실수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할 때 이런 편차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리더 일꾼이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진리 실제를 갖추고 있는지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리더 일꾼이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리더 일꾼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할 책임과 준수해야 할 원칙, 사역 범위를 깨달았다면 이제 이 단계에서 교제하는 주제, '거짓 리더를 폭로하다'로 돌아가자. 이 주제가 본론이다. 그럼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중 거짓 리더가 방기하는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제할 주제이다. 우선 제 12 조의 내용을 읽어 보아라.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 제 12 조 직책에서는 리더 일꾼이 깨달아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의 사역을 명확히 언급했다. 그럼 그것이 거짓 리더를 폭로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선 리더 일꾼이 이 사역에서 맡아야 하는 직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한 다음 거짓 리더가 그 몇 가지를 행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렇다.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것은 눈으로 관상을 보며 그의 생김새가 악한지 선한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지를 살피는 것도 아니다. 그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는지, 진리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확하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거짓 리더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분별하고 규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공정하고 원칙과 진리에 부합하며 모두에게 공평하다.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으로 규정하려면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절대 한두 가지 일이나 과오를 근거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일시적인 패괴 표출을 근거로 규정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규정해야 정확하다. 또한, 올바른 사람인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령 역사와 깨우침이 있는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이 몇 가지 측면을 근거로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인지를 규정해야 올바르다. 이 몇 가지 측면이 바로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인지를 가늠하고 규정하는 기준이자 원칙이다.

제 12 조 직책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사역

1.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한다

제 12 조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은 총 세 가지이다. 세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 단계대로 이 사역을 완수하면 이 사역의 원칙을 지킨 것이고 이 사역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12 조에서는 리더 일꾼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 우선, 리더 일꾼에 대한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 사역과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감각하고 둔하게 대하거나 무작정 경솔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다.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리더 일꾼은 자질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만 봐도 사람을 함부로 책망하고 훈계하며 혼낼 뿐 아니라 제멋대로 규정하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아무렇게나 정의 내리는데, 이렇게 사역하면 진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의 리더 일꾼은 최소한 각종 사람과 사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하려면 우선 무엇을 갖춰야겠느냐? 우선 하나님이 각 부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각 부류 사람에 대해, 사람에게 생기는 여러 내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또한, 각종 소극적인 내적 상태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 밖에, 나타난 각종 사람, 일, 사물이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무엇에 기반을 두어야겠느냐? 리더 일꾼이 먼저 어떤 사역을 해야겠느냐? 만약 리더 일꾼이 평소에 늘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한다면,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형제자매와 접촉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여러 내적 상태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각 부류와 가까이 접촉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관찰하거나 깊이 있게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괜찮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일부 리더 일꾼은 늘 방 안에 숨어서 영 생활 하거나 체험 간증문 쓰는 것을 핑계로 교회 사역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파악하지도 않는다. 겉보기에는 마치 방 안에 숨어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이미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 선민과 단절된 것이다. 그의 이런 사역 방식이 교회의 여러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선민들이 본분을 잘 이행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혼자 방 안에 숨어 간증문을 쓰는 것이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것이냐? 그러니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제 12 조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을 근거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발견하는 것이다. 혹자는 "리더 일꾼이 교회 생활에 깊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저 방해하고 교란하는 그런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인가요?"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치우친 것이다.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올바른 태도와 방식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제때 정확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 선민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면 교회 사역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누군가 찾아와서 구하고 보고해야만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역해서 이루는 성과는 몹시 제한적일 것이다.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가장 잘못된 한 가지 방식은 바로 현실을 외면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옛날 사람들이 공부할 때 바깥세상의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성현이 쓴 책만 읽는 것과 같다. 리더 일꾼은 이런 태도나 생활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노트를 쓰거나 설교 원고를 써서 도리와 글귀를 좀 얻었다고 한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진리에 의해 폭로된 사람의 현 상태나 실제 내적 상태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영 생활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역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2. 악인을 제때 저지 및 제재한다

직책 제 12 조에서 리더 일꾼에 대한 두 번째 요구는 바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발견했을 때 제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각 부류의 사람과 일이 어떤 성질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나님 선민의 내적 상태와 생명 진입, 본분 이행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지, 교란하거나 망치지는 않을지, 사람의 본분 이행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등의 일에 대해 리더 일꾼은 제때에 정확한 판단과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그런 사고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다. 이 밖에, 리더 일꾼은 각종 사람, 일, 사물에 대해 예리하게 반응하고 분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갖가지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여 결국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무감각하고 눈이 먼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리더 일꾼의 문제이다. 누군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똑똑히 알아야 하고, 그 부류 사람의 본질과 그런 일이 교회 사역이나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럼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를 근거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죠?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공허하지 않다. 왜 공허하지 않다고 하겠느냐? 너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혹은 그런 일을 보거나 듣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폭로한 동일 유형의 문제와 대조해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부류의 사람과 그런 일을 어떻게 폭로하고 분석하는지, 하나님이 그 일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 혹은 각종 사람의 패괴 성품 등을 폭로하는 그 말씀들을 근거로 그 일과 대조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자신의 관찰을 통해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일, 사물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규정하며, 상응하는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 확실한 부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폭로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이 분별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아무리 타일러도 고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 저지하고 제재하는 데는 어떤 방식,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있겠느냐? (책망하고 훈계하며 경고해야 합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방법이 좋겠느냐? (좋습니다.) 그의 행동 방식을 폭로하고 급소를 찌르고 그의 본질을 분석해 경고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모두 방법 아니겠느냐? 물론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를 권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가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경고한 다음 교회의 행정 법령으로 제재하여 그가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형제자매들을 교란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를 책망하고 훈계한 후 감독해야 한다. 이런 방식과 방법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 사역을 잘 하기 위한 것이자 사람을 구원해 바른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람이 깨달은 진리로 권고하고 폭로하며 그의 성품과 본질을 분석해야 하고, 그가 그런 일들을 한 성질 및 그것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폭로해야 한다. 이는 사람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를 분석하고 분별하여 규정해야 한다. 물론 그가 충고를 따르며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교회 사역을 교란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럼 사정을 봐주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집에는 행정 법령이 있으니, 그때는 하나님 집 행정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량도 작고 진리도 깨닫지 못했다면 사랑으로 도와주고, 진리를 교제해 그가 자신을 인식하게 해도 된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않아도 되고, 책망하고 훈계할 필요도 없다. 만약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토대가 얕거나 분량이 작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행정 법령으로 관리하고 제재하여 저지하고 제약해야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켜 교회 생활이 질서 있게 진행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 상황 전환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사역하여 이루어야 하는 성과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야 책임을 다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리더 일꾼이 상관하지도 않고 그저 글귀와 도리만 말하며 무성의하게 대한다면, 혹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꾸짖거나 몇 마디 책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대다수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데 마음을 쏟지 않게 되고, 정도만 다를 뿐 다들 교란되어 본분 이행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3.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여 하나님 선민이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에서 세 번째 요구는 바로 리더 일꾼이 악인의 방해와 교란을 처리하고 해결할 때 하나님 선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여 진실하게 뉘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역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한편으로는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남에게 속박받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리더 일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실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선 리더 일꾼은 함께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다음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존재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더 일꾼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형제자매와 많이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대조하여 문제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하나님 선민이 모두 자신의 인식을 교제하여 그 문제를 분별하게 해야 한다. 그로써 대다수 사람의 인식이 일치되어 합의에 이르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경과에 대한 설명만 반복해서도, 개별적 상황을 따지거나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원망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우선 지엽적인 문제는 제쳐 두고 진리를 명확히 교제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의 성질이 그에 따라 드러난다. 그래야만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사람, 일, 사물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며 실제적인 공과를 배울 뿐 아니라 평소에 이해했던 글귀와 도리를 현실에 적용하여 대조함으로써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끄는 것은 주로 진리로 하나님 선민의 관념과 상상, 패괴

성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룬 성과가 가장 좋다. 리더 일꾼이 진리로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하나님 선민은 진리를 깨닫기 쉬워지고, 이로써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할지 알게 된다. 하나님 선민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리더 일꾼이 항상 이끌어 준다면 하나님 선민을 진리 실제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 일꾼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요.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식을 갖추고 있겠어요?" 원래는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배우고 훈련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할 줄 모르면 배우고 훈련하면 된다. 어떤 문제가 닥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한두 번 훈련해서 성과를 거두면 길이 생기고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이 와서 사역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을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늘 형제자매와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 사역을 잘 해야 한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 선민을 어떻게 이끌어야겠느냐? 주로는 하나님 선민이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해서 진리의 실행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물과 인물,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 악인과 불신파,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종 사람을 분별하는 목적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교란을 철저히 해결해야만 교회 사역의 순조로운 진전을 보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악인을 해결하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게 되고 생명 진입이 생길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일거양득 아니냐? 네가 진리를 깨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네가 리더 일꾼이 될 자질과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양성할 조건을 갖추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너는 인도자가 되어 형제자매가 실생활 속의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을 대하는 법, 진리를 실행하는 법, 각종 사람을 원칙대로 대하는 법,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게 네 책임이다. 이렇게 실행하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실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서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행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리를 실행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성과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든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야지 그냥 흘려보내서도,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을 키울 어떤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일이 발생한 이상, 우리는 소극적이고 원망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태도로 직면해야 한다. 어떻게 직면해야겠느냐?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패괴 성품이 있고, 인성에도 선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 함께 모였을 때 어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그런 환경을 배치해 주고, 그런 사람과 일, 사물이 네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했다면, 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느냐? 여러 문제를 네

앞에 배치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훈련받고, 공과를 배우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네게 그런 기회를 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형제자매를 이끌고 분별력을 키우고 교훈을 얻으며 공과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문제에 관해 사람이 어떤 관념과 상상, 어떤 치우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에 맞닥뜨려서 어떤 공과를 배웠고 어떤 잘못된 관념이나 관점을 해결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지 반성하고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 사역을 체험할 때는 이렇게 체험해야 한다. 한 가지 일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몇 년간 체험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눈으로 본 것이나 느낌에 기대지 않고, 더욱이 관념과 상상에 기대지 않게 된다. 이런 공과를 모두 배우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리더 일꾼은 완전히 기준에 맞는 사역을 한 것이고 책임도 다한 것이다. 리더 일꾼이 충분히 제대로 사역해야만 하나님 선민이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많은 일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가 공과를 배우도록 이끌지 못하고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너는 눈뜬장님에다 무감각하고 우둔한 바보이다. 그런 일이 닥치면 너 자신도 허둥대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그런 사람, 일, 사물을 체험하는 데도 지장을 줄 것이다. 만약 네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으며 교제해야 할 진리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사람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그런 사람, 일, 사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 그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기서 공과를 배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경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이는 리더 일꾼이 진리 실제가 없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초래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네가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네게 맡긴 부탁을 완수하지 못하며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이끌고 나오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패괴 성품 속에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 것 아니냐? 너는 사람을 심각하게 해친 것이다! 네게 리더 일꾼을 시킨 것은 네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여 형제자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진리를 깨닫고 원칙 있게 본분을 이행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라는 것이다. 너는 이렇게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인의 교란을 제재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손해를 입혔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성장하지 않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수많은 관념과 오해가 생겼고 조금도 진실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네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선민을 진리 실제에 들어서게 하지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선민이 악인에게 교란되도록,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도록 했다. 너는 가까운 이를 아프게 하면서 원수에게 좋은 일만 한 셈이 아니냐? 도둑에게 망봐 준 꼴이 아니냐? 너는 이토록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형제자매와 하나님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몇 년 믿었지만 진리를 깨닫지도, 악인의 방해와 교란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 이는 무슨 문제이냐? 온갖 못된 짓을 일삼은 것 아니냐? 리더 일꾼이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지 그 자신이나 몇 명에게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 전체의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 하나님 선민의 본분 이행 성과, 하나님나라의 복음 확장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하나님 선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 이는 마치 종교인이 목사나 장로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어 결국 하나님이 돌아와도 맞이하지 못해 재난 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는 모두 실증된 사례이다. 따라서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큰 도움이 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에서 리더 일꾼에 대한 요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다. 우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발견해야 한다. 다음으로, 분별하고 규정한 뒤 제때 악인을 저지하고 제재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악인을 저지하고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는 동시에 자주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악인의 악행을 폭로할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형제자매의 반응과 인식을 면밀히 주시하여 옳지 않은 관점이 있으면 제때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진리를 추구하는 일부 형제자매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많이 교제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 밖에, 연약하거나 분량이 작은 형제자매를 돕고 그들이 많이 발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발생한 사건에 관해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며 사람과 일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사람과 일을 분별하는 목적은 사람이 각 부류의 사람을 정확히 알고, 진리 원칙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각 부류를 대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공과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공과를 배우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내적 상태를 분석하고 폭로할 때 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선민이 현실 환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게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리더 일꾼이 하는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이 사역을 하는 세 가지 단계로 보면,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 어렵겠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좋은 마음이나 자질에 기대 이 사역을 잘 해내려고 하면 다소 힘들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요구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리더 일꾼의 진정한 직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의 패괴 성품에 기댄다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패괴 성품에 따라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과이다. 바로 사역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혼란이란 무엇이냐? 혼란의 구체적인 상태는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지 못하고, 늘 악인이나 불신파가 교란하거나 논쟁이 일어나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파벌을 나눈다. 형제자매는 분별할 줄 몰라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며, 영적인 이해력이 있거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교란받아 생명 성장이 없다. 이러면 교회 안에서 악인이나 불신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든 사람들이 제각기 떠들어댄다.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올바른 관점은 거의 없다. 교회는 금세 여러 파로 분열되고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며 성령 역사나 성령의 인도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은 서로 경계하며 의심하고, 두세 무리가 권력과 이익을 다투며 사람마다 든든한 '백'을 찾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고 배척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겠느냐? 리더 일꾼이 사역을 못해서 초래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이 사람의 뜻대로 사역하면 이런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의 뜻대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칙도 없이 전부 패괴 성품,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해치우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교란하는 악인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모르겠어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 파벌로 나뉜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매번 예배를 드려도 별로 수확도 없고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해요. 이렇게 믿다가는 아무 성과도 못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민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버려진다. 이는 악인이나 불신파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교회를 망쳐 놓는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 준다.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리더 일꾼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악인이나 불신파를 제재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사라지고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엉망진창이 된다. 리더 일꾼이 사역을 제대로 못 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리더 일꾼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의지할 줄 모른다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 선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리더 일꾼이 권력을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교회에 혼란만 일으켜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는 황무지가 되고 사탄이 권력을 잡는 곳이 되어 변질되고 만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도 그런 교회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유명무실해지니 폐쇄해야 한다.

직책 제 12 조에서 보이는 거짓 리더의 모습을 분석하다

1.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해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제 12 조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예시를 들어 교제하지 않겠다. 오늘 교제하려는 주제는 거짓 리더가 이 사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모습이 거짓 리더의 본질에 해당하고 거짓 리더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교제하려는 주요 주제이다. 우선, 이 사역에서 리더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발견하는 것이다. 제때 발견하는 것은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의 요구 기준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든 그것의 정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거나 악인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이면, 누군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단서가 나타나면 리더 일꾼은 민감하게 감지해야 한다. 무감각하고 우둔하게 굴면 문제가 된다. 특히, 악인이 교회를 교란하는 일이 발생한 초기에는 그자들이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인지, 사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꿰뚫어 보지 못했을 때는 오판하지 않도록 무작정 일을 처리해서도, 경솔하게 행동해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심어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는 이 일을 보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이다. 일이 어떤 측면으로 발전할지, 그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인지, 그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이다. 이 일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여 그런 자들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거나 황당한 이론을 퍼뜨리기 시작해 하나님 선민에게 교란을 일으키면 리더 일꾼은 즉시 손을 써야 한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서서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분석하고 제재하여 사람들이 공과를 배우고 악인을 분별하며 간파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는 주요 목표는 바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발견한 다음 제때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이 사역을 할 때 거짓 리더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겠느냐? 거짓 리더를 어떻게 분석하고 분별해야겠느냐? 두말할 나위 없이 거짓 리더는 악인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즉, 악인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것을 조금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거짓 리더는 문제를 발견하지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도 못한다고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명백히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을 하는데도 거짓 리더는 분별력이 없어 문제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야말로 눈뜬장님이다. 교회에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자들도 있고, 패거리를 지어 몰래 일을 꾸미고 뒤에서 늘 남들을 판단하는 자들도 있다. 또 어떤 자들은 같이 모여 함부로 꼬시고 서로 추파를 던지기도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일들을 다 못 본 척하고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진리 추구와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고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해 보고하면 그는 "다 같은 형제자매잖아요. 패괴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 아무리 황당하고 사악하고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해도 거짓 리더는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늘 소극적인 말을 한다. "늘 하나님의 날이 곧 온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형제자매는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그는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것임을 보지 못한다. 어떤 형제자매는 본분 이행에 확연히 영향을 받아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예배에도 그다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지 않게 되어 예배 때마다 부르러 가야 한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전체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그저 정해진 틀에 맞춰 규례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뿐, 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흉이 누구인지,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그는 다 보지 못한다. 그가 맹인이라서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이 아니라면 왜 교회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눈에 띄게 황당한 이론이 등장했는데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그 리더는 눈뜬장님으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게 분명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듣든 말든, 성과가 있든 없든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요. 이 점만으로도 그는 그래도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 중시하는데, 만약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형식만 취하는 것 아니겠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리더는 거짓 리더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짓 리더가 이 사역을 할 때 보이는 모습 중 하나는 바로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그는 눈뜬장님이라서 눈앞이나 주변에서 아무리 명백한 문제가 발생해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 겉보기에 그는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고 대조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가 교제하는 인식들은 다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 마치 진리를 꽤나 깨달은 것처럼 거창한 말만 늘어놓지만, 교회에 악인이 교란하는 일이 눈에 띄게 발생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군다. 그럼 그가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겠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늘 생각이 트이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예리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겠느냐? 이 문제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어쩌다 눈이 멀었겠느냐? 무엇이 눈을 멀게 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고 자질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 것이다. 마음이 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질이 형편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만 머물 뿐, 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이나 환경과 결부해 일을 바라보지 못하며, 진리 원칙대로 각종 문제를 대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마음이 먼 근본 원인이다. 즉, 자질이 부족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부류가 아무리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며, 모자란 능력을 보완하고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한들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부류는 불쌍하기 그지없다. 글귀와 도리를 아무리 많이 갖추었다 해도, 그들은 리더 일꾼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방금 교제한 바와 같이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교회를 교란하는 것임을 보지 못하고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본질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악인이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닥쳤을 때, 가끔은 그도 약간의 단서를 발견하거나 사람의 경험과 체험이나 느낌과 직감에 기대 그 일이 조금 이상하고,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 하는 말이 조금 비정상적이라는 느낌 정도는 가질 수 있다. 그는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다. 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겠느냐? 이는 또 한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는 아주 부지런해서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설교 원고와 영 생활 노트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적고 찬양도 배운다. 또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할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을지, 설교를 얼마나 들을지, 체험 간증문을 한 편 쓰는 데 시간을 얼마나 들일지 스스로에게 정해 놓는다. 이런 임무들을 다 완수했는데 어째서 일이 닥치면 꿰뚫어 보지 못하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할 줄 알지, 실제 문제는 해결할 줄 모른다. 누군가 늘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해도 거짓 리더는 꿰뚫어 보지 못한다. 때때로 이상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는 그 사람이 악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어영부영 넘어갈 뿐, 진리 원칙을 구해 그런 문제를 분별할 줄 모른다. 그 부류의 내적 상태나 본질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도 대조할 줄 모른다. 마음이 흐릿해서 꿰뚫어 보지 못한다. 구하고 싶을 때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고, 한참 말해도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또한, 그 부류의 전반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지, 인성은 어떻고 추구는 어떻고 본분 이행은 어떻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는 어떤지, 그리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인지도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그런 것들을 모두 꿰뚫어 보지도, 명확히 말하지도 못한다. 설사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한참을 수다스럽게 늘어놓을지라도 알아듣게 뜻을 설명하지 못해 듣는 사람이 분별하고 요점을 추려 분석할 줄 알아야만 그가 물으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내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즉 악인인지 아니면 호인인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쓰는 자의 부류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 거짓 리더에게 서술하거나 질문하라고 하면 그는 문제의 근원과 본질, 결정적인 원인을 결코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요컨대 거짓 리더는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도 없고, 단서를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일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설사 누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거나 관념을 퍼뜨려 교회 생활에 악영향을 끼쳐도 그는 꿰뚫어 보지 못한다. 즉, 문제의 표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 상태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거나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주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각 부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은 할 수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것을 보아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를 변호하기까지 한다. "저 사람은 그저 패괴성품을 조금 표출했을 뿐이에요. 조금 교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본분을 이행할 때는 고생을 견딜 줄 알죠. 그러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일로 떠들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고생을 견딜 줄 안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그는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끌어들이지는 않았나요? 자신을 높이고 증거하지는 않았나요?"라고 물어도 거짓 리더는 그런 일들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분석하고 인식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함하고 모독하며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거짓 리더는 듣고 나서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런 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한 결과는 더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눈앞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을 그는 아예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명료한 일들도 그에게는 뒤죽박죽이니 거짓 리더는 그야말로 맹추이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으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힘쓸 수 있고 가끔 소극적인 말을 좀 하긴 해도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대가를 치르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려 하며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역할만 하고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며 사람을 판단하는지,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지침과 그 어떤 사역에 대한 하나님 집의 규정, 요구에 대해서 모두 관념을 가지는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나 오만하게 굴고 심지어는 판단까지 하는지, 요컨대 거짓 리더는 각 부류에 대해 전부 꿰뚫어 보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늘 관념을 퍼뜨리거나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며 늘 패거리를 지어 질투와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리더를 맡거나 교회에 얹혀살거나 하나님 집의 재물을 차지하려 한다. 이 밖에, 겉보기에는 좋은 행위를 좀 하지만 본분을 이행할 때는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 리더는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분류하지 못한다. 그는 그런 자들이 대체 어떤 길을 걷는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는 자질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자질이 형편없어 무슨 일을 하든 엉망진창이고, 무슨 사역을 하든 다 뒤죽박죽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집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 원칙 없이 제물을 쓰고,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마구 사들인다. 거짓 리더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이렇게 말한다.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집을 위해 물건을 살 때는 좋은 걸 사야 하니까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니죠. 제물은 원래 그렇게 써야 하지 않나요?" 그가 하는 이 말에 원칙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는 어떤 말이냐? 허튼소리 아니냐? 원칙이 없는 말, 근거가 없는 말은 다 허튼소리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는데, 말솜씨가 특히 좋고 언변이 뛰어나서 들어 보면 꽤 조리 있고 말재간이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사람에게 거짓 리더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전부 아무개가 지탱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보다 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죠. 그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몹시 메마르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글귀와 도리라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내적 상태와 어떻게 대조하고 인식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거짓 리더가 치켜세우고 선동하는 바람에 글귀와 도리나 이야기하는 자, 나서기 좋아하는 자, 심지어 말할 때 늘 주제에서 벗어나는 자, 예배 시간마다 뜬구름 잡는 말만 끝없이 지껄이는 자들에게는 날뛸 기회가 생긴다. 거짓 리더는 그들을 분별할 줄도 모르면서 그들이 다 인재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아첨까지 한다. "얘기를 그렇게들 잘하는데 왜 체험 간증문을 쓰지 않죠? 너무 아쉽네요!" 거짓 리더는 교회에 있는 대학생이나 교수, 지식인들을 진귀한 보물처럼 여긴다. 그는 말한다. "이런 지식인이나 교수는 다들 인재예요. 사회에서 식견도 갖추고 인지도도 있으니 교회에서 리더 일꾼을 맡으면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선민들은 이점도 많이 얻고, 얻는 것도 많겠죠. 앞으로 교회 사역은 전부 그들에게 의지해야 해요. 이런 지식인들이 이끌어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분명히 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거짓 리더가 있는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지식을 많이 갖춘 자, 말솜씨가 뛰어나고 글귀와 도리만 공허하게 늘어놓으며 위신이 좀 있는 자 등 진리 실제가 전혀 없는 자들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거짓 리더에게 교회의 주력, 심지어 소위 대들보로 여겨진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짓 리더는 말한다. "아무개를 찾아봐요. 그는 예전에 회사 사장이었어요.", "아무개를 찾아봐요. 그는 어느 대학 교수였어요.", "아무개를 찾아봐요. 그는 예전에 어떤 법률 사무소의 수석 변호사였어요." 거짓 리더가 이런 자들을 교회의 대들보나 주력으로 여기는데, 교회 생활이 좋을 리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소위 이런 주력이나 대들보들은 뒤에서 심지어 공개적으로 지위를 다투고 패거리를 지으며, 수시로 관념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까지 한다. 교회에서 진실로 믿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순수하게 이해하는 형제자매는 늘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억압당한다. 소위 사회의 이 유명 인사들은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충성심은 전혀 없고 결코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으며 전부 이방 사회의 방식만 따른다. 따라서 이런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순수하게 이해하는 사람, 인성과 정의감을 좀 갖춘 사람은 말할 기회도 권리도 없으며, 당연히 의사 결정을 내릴 권리도 없다. 교회에 무슨 일이 닥치든 최종 결정권자는 모두 소위 이 핵심 인물들이다. 거짓 리더가 그들을 숭배하고 맹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든 최종적인 해결법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자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얼마간 지식과 소양이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데다가 인성이 간사하고 음험하며, 언변이 좋고, 사람을 잘 미혹한다.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거짓 리더가 이런 자들에게 의지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겠느냐? 교회의 사역, 교회 생활의 질서를 전부 무너뜨리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을 망치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증거를 잃게 된다. 일부 거짓 리더는 교회에 정치나 시사를 잘 아는 큰 인물이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인물이 있어 교회의 규모와 위세를 키우고 교회의 명성을 드높여 준다면 복음 확장 사역에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그야말로 경사스러운 일이죠!" 거짓 리더가 통제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치나 시사, 국제 정세, 국가 내정 등의 일과 고위 정치인의 사생활을 실컷 떠들며, 심지어 그런 정치인들의 음모나 공개적인 계획을 구구절절 조리 있게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면 거짓 리더는 부러워서 입맛을 다시며 말한다. "드디어 우리 교회의 체면을 세워 줄 큰 인물이 나타났네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인물이 없어서 늘 낙담하고 골머리를 앓았었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느낌이었다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인물이 생겼네요. 그러니 이런 인물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도록 자유를 주어야겠죠. 하나님 집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나라시대는 인권을 중시하지 않나요?" 거짓 리더는 정치 얘기나 유명인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사람들 사이에서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런 사람들을 희귀종으로 여길 뿐 아니라 교회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양성하려고까지 한다. 그래서 늘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들이 소극적으로 되어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 어쨌든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무감각하고 눈이 멀어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다. 설사 발견하더라도 악인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다. 패거리를 지어 독립 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악인처럼 눈에 띄는 부류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패거리를 지어 활개 치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거짓 리더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네요. 정말 대단해요! 여태까지는 저런 인재를 발견하지 못했죠.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가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저 사람의 능력을 좀 봐요. 뭐 하든 결단력이 있고 대범해요. 말할 때도 품위가 있잖아요.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번복하는 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멀었어요. 우리는 일할 때 너무 소심해요."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깊이 탄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꺼이 그의 수족 노릇을 하려 한다. 이 측면에서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 중 한 가지 특징은 눈이 멀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은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측면에서 거짓 리더가 지닌 문제의 본질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눈이 있는 것은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일을 바라본 후 사람의 마음은 반응하고 판단할 것이며, 판단 결과가 생긴 다음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행의 길이 생길 것이다. 이는 사람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어떤 일을 보든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직면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안다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은 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많든 적든 고민하고 숙고하는데, 생각을 펼쳐 나가는 동시에 그 일이 점차 마음속에서 그림처럼 그려지며 자신만의 관점과 태도, 행동 방식이 생겨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전제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눈이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다음 수집한 정보를 뇌와 마음으로 보내 숙고해야 한다. 눈으로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은 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으며 지각과 태도, 관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린다. 물론,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람은 지각과 관점, 태도를 가지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무감각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뜻이며,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거짓 리더는 자질이 부족한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겠느냐? 거짓 리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으며,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일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자가 바로 장님이다. 이 밖에, 일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관점이나 생각도 생겨나지 않으며, 판단하여 결론을 얻어 낼 만한 그 어떤 길이나 올바른 방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그 어떤 일도 분별할 줄 모르고,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결국 올바른 결론도 얻지 못한다.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무감각하고 우둔한 것이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우둔하기 그지없으며, 일이 닥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 이런 자가 바로 죽은 사람이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다. 지금은 거짓 리더가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고, 그의 자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자. 어느 정도로 부족하겠느냐? 아무리 큰 일이 발생해도 보지 못하고, 설사 보더라도 간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거짓 리더는 아무리 오랫동안 사역해도 결론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가늠하는지 모르며 가늠하는 기준과 원칙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자가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바보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에서 거짓 리더가 보이는 가장 주된 모습이다. 눈이 먼 데다 멍청하고 어리석으며 무감각한데도 리더가 되려고 하니 이는 일을 그르치는 것 아니겠느냐? 아주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리더를 맡아본 적이 없고 발생한 일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으며 하나님 말씀에 그 일이 언급된 적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면, 즉 그 일들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나 식견도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견해와 태도, 관점이 생겨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거짓 리더를 무감각하고 눈이 멀었다고 하겠느냐? 수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많이 폭로하고 분석해도, 아무리 많은 사례를 들어도 거짓 리더는 듣고 나서 그저 그 일을 알게 될 뿐 그 안에서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많이 말할수록 그는 더 헷갈려 하며 말한다. "이렇게 많은 일과 많은 말, 많은 이야기를 누가 다 기억하고 대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만 알려 주세요. 출교시킬까요, 아니면 남겨 둘까요?" 이는 무감각한 것 아니겠느냐? 너무도 무감각하다! 무감각하다고 말하는 건 사실 사람에게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다. 그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소양이 없을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좀 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체면을 봐주려는 것일 뿐, 사실은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확하다.

교회에서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거짓 리더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형제자매가 그의 인도하에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 환경, 그리고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가 보호받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는 리더 일꾼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거짓 리더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 일, 사물이 나타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간사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분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일부러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지위의 복을 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은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하고 규례만 지킨다. 예배 시간에 교제할 때도 사람을 달래고 타이르며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육적인 안일을 탐하나요? 어째서 아직도 재물이나 세속에 미련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라는 식의 설교만 늘어놓을 뿐이다. 그는 방해하고 교란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등 여러 악행이 나타날 때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형제자매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적절한 본분 이행 환경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형제자매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어려움이나 소극적인 내적 상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며, 리더 일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교제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 교회에서 거짓 리더가 권력을 잡고 있다면, 그런 실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는 하나님 선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선민의 어려움도 보지 못한 채 한결같이 글귀와 도리만 얘기하며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아 하나님 선민을 크게 실망시킨다. 그러니 누가 자주 예배에 참석하고 싶겠느냐? 거짓 리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요구를 근거로 악인과 불신파, 기회주의자,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사악한 것을 좋아하며 음란을 일삼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리해 내보내어 하나님 선민이 그들에게 방해와 교란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누군가 이렇게 요구하면 거짓 리더는 뭐라고 말하느냐? "참견도 많네요! 당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만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좀 있더라도 올바르게 대해야지, 늘 남의 트집만 잡아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으면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인식하세요. 포용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죠." 거짓 리더는 흐리멍덩하고 눈이 멀어서 각 부류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없다. 제재해야 하는 사람과 제명해야 하는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해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제멋대로 굴고 함부로 날뛰도록 내버려두며, 그들에게 활개 칠 여지를 충분히 주어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옥석이 뒤섞여 있다'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진다. 악인과 불신파, 음란한 짓을 하는 자, 지역 깡패, 심지어 조금만 위험이 닥쳐도 교회나 형제자매를 팔아넘길 수 있는 자들까지 모두 교회에 섞여 있어도 거짓 리더는 그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처리하지도, 해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눈이 멀고 무감각한 거짓 리더의 인도하에서는 하나님 선민이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는 더더욱 유지될 수 없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혼잡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얻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괴롭지 않겠느냐? 한 교회 리더가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 환경도 잘 지키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는 틀림없는 거짓 리더이다. 이 거짓 리더라는 호칭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바로 그가 눈이 멀고 무감각하여 악인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거듭 발생했으며, 게다가 이미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제때 정확히 문제를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며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의 교회 생활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리더는 듣기 좋게 말하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심각하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리더를 시켰더니 그는 오히려 악인과 사탄 심부름꾼의 이익을 지키고,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무시하며 신경 쓰지도 않았다. 형제자매를 해치는 대가로 악인들이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도록 옹호하고 방임했다. 그의 자질과 모습으로 보면 단지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행한 일은 교회 사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독립 왕국을 세우고 형제자매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성질로, 마찬가지로 악인을 옹호하고 방임하며 사탄의 심부름꾼이 교회에서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다만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처럼 공공연히 악을 행하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적그리스도가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가 해를 입고 망가지며 활로를 잃게 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회 생활 속에서 생명이 성장하기 어렵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기도 어렵다. 당연히 복음 확장 사역과 교회의 여러 사역도 크게 가로막혀 정상적으로 진전되지 못한다. 이는 제 12 조에서 분석하는 거짓 리더의 첫 번째 모습, 즉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람, 일, 사물을 보지도,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이 부류를 거짓 리더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2.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에서 해야 하는 두 번째 사역에 관해 거짓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폭로하고 분석해 보자. 두 번째 사역은 리더 일꾼이 문제를 발견한 뒤 제때 진리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이 사역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짓 리더의 두 번째 모습을 분석해 보면, 바로 하나님 사역과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대하는 원칙을 모른다는 것이다. 거짓 리더도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는 하지만 시종일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각종 일에 대해 요구하는 원칙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는 거짓 리더라는 부류가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고 자질이 특히나 부족하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이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요리도 잘하고 옷도 잘 입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말도 아주 듣기 좋게 해서 다들 듣기 좋아한다고요."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겉모습이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람이 표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자질이 좋은 것이냐? 그 어떤 일을 평가하고 가늠하고 규정할 때는 항상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가늠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부류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근거로 한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가늠하는 것이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네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조차 알아듣지 못한다면 자질이 어떤 것이냐?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건 사람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제 거짓 리더의 두 번째 모습을 교제하고 분석해 보자.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른다. 이는 거짓 리더가 자질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누가 리더를 맡든 불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 리더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 같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 그가 일의 단서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아주 형편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근거로 그가 적그리스도나 악인 같다고 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나요? 누가 리더를 맡든 다 불복한다는 사실 하나를 근거로 그가 적그리스도나 악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나요? 그 점만을 근거로 규정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성품의 문제일 뿐이에요. 교만하고 독선적인 문제라고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진리를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교회 사역을 교란하지는 않나요? 리더 일꾼을 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라며 정죄하지는 않나요? 이런 일들은 없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네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해야 하죠?"라고 물으면 그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 부류에게는 경고하고,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폭로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도 그는 여전히 모른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단서를 조금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고 원칙대로 처리할 줄도 모른다. 이래서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선민들이 공과를 배우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류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이니 언젠가는 출교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명하거나 격리하면 그 자신도 수긍하지 않고, 형제자매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선 그가 한동안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언젠가 그가 행하는 악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유언비어나 황당한 이론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끌어들이거나 권력을 다투며 독립 왕국을 세워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려 할 때, 대다수 사람이 그의 본성 본질을 똑똑히 알게 되면 자연스레 나서서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고 내칠 것이다. 그때 진리 원칙을 근거로 그를 제명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사역해야만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키우게 할 수 있다. 거짓 리더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줄 알겠느냐? 거짓 리더는 이런 자질도, 지혜도 없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제때 처리할 수 있는 거짓 리더가 있더냐? 하나도 없다. 따라서 거짓 리더는 결코 형제자매가 악인에게 교란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없다. 대다수의 거짓 리더는 교체되고 나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집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자신은 토사구팽당했다고, 힘쓰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억울하다고 잔뜩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를 거짓 리더라고 폭로하면 그는 수긍하지 않고 '몇 년간 리더 일꾼을 맡으면서

공로는 없어도 나름 고생은 했는데 왜 교체된 거지? 이건 토사구팽이야!'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폭로하든 그는 수긍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적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속이 타서 입술에 늘 물집이 잡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제가 거짓 리더라면 어떻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겠어요?" 해야 할 사역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도 하지 못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니 골치 아프지 않으냐? 이 얼마나 역겨우냐!

거짓 리더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임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고, 명백한 문제를 보고도 형식만 차릴 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감히 폭로하지 못한다. 그저 변죽을 울리고 뜨뜻미지근하게 도리나 얘기하며 권면하고 끝낼 뿐이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속수무책이 되어 자기와는 관계없다는 듯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가장 적절한지, 어떤 말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형제자매를 보호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뭔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못 되고 그저 좋은 마음이 조금 있을 뿐이다. "당신이 악인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당신이 형제자매를 교란하거나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이 위치에 있는 한, 저는 형제자매를 잘 보호해야 해요. 끝까지 제 임무를 다할 거라고요."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 네가 걱정되어 속을 끓이는 동안 적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멈추겠느냐? 그는 너라는 리더가 못난이에다 밥통이고 아무런 지혜도, 그 어떤 사역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고 아예 너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 대다수의 적그리스도나 악인은 특히나 교활하고 음험하다. 그들은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교란하는데, 너는 그들을 저지하고 제재할 아무런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를 찾아 도움을 구하고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 채 제자리에서 걱정되어 속만 끓인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형제자매를 꽤나 아끼기라도 하는 듯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모습이나 하고 있다. 너는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악인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를 근거로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분석하지도, 적그리스도의 속셈과 동기, 행위와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부 공표해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갖추도록 하지도 못한다. 너는 이런 일들을 모두 하지 못한다. 심지어 일부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적그리스도를 폭로해서는 안 돼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형제자매가 알게 되면 그를 멀리할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보복할 거예요." 이는 못난이가 아니냐? 이러고도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야 형제자매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도록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게 대체 무슨 문제 해결 방식이란 말이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도리를 술술 읊으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멍해지고 얼빠져서 울기나 하니, 이는 못난이가 아니냐?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악인에게 교란되는 걸 빤히 보면서도 아무런 방도가 없어 안절부절못한다. 교회에서 비교적 정의감과 인성을 갖춘, 진리를 받아들이는 형제자매와 힘을 합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못하니, 이는 쓸모없는 놈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일부 거짓 리더는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나약하다. 어느 정도로 나약하겠느냐? 악인이 나타나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특히나 듣기 싫게 건방 떨며 말하면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떤다. '나는 저 사람을 처리할 엄두가 안 나. 저 사람은 만만치 않단 말이야. 세상에서 악인이었다고. 내가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저자를 폭로하면 그는 분명 약점을 잡아 나한테 보복하겠지. 그럼 앞으로 내가 계속 리더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우리 집 주소도 아는데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고하지 않겠냐고.' 이런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이것저것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런 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을 처리하는 원칙은 더더욱 깨닫지 못한다.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다고 규정된 사람은 가끔 일시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몹시 악해 늘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온갖 악을 저지른다. 이 부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악인의 본질을 갖고 있다. 악인을 처리할 때도 지혜로운 방식을 취해야 하고,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해야 하며, 처리하고 나서 악인이 어떤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교회에 골칫거리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다 잘 고려해야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원칙을 파악하게 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각 부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 방식과 방법을 알게 되고 지혜가 자연스레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이런 방식과 방법, 지혜를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집 사역이 영향을 받을지, 리더 일꾼이 위험에 맞닥뜨릴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없고 지혜는 더더욱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줄 모르고 공과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그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란하는 것을 보아도 폭로하여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개인의 이익이 손해를 입지 않는 것만 고려할 뿐,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 거짓 리더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해서 비교적 순한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압을 가하지만,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보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아첨한다. 이렇게 원칙이 없는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 있겠느냐?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며 정의감도 없는 사람을 리더 일꾼으로 양성할 리 있겠느냐? 절대 양성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모두 양심과 이성이 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파이자 이방인이므로 하나님 집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책임을 미룬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바로 "저는 그들에게 교제했는데요."이다. 그 뜻인즉슨 "저는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 책임이고 저와는 무관해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교제했는데요."라는 말은 거짓 리더의 방패막이이자 좌우명이 된 것이다.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교회를 교란하는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교제하며 도와주는 방식을 취한다. 권면이나 경고의 말을 몇 마디 하고는 적그리스도가 순순히 순종하고 말을 들을 것이라고,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교회 생활을 교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적그리스도의 교란을 제재하는 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사역 방식이다. 그야말로 우매하기 그지없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순전히 쓸데없이 바쁘다. 그는 사무적인 일만 할 뿐, 근본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지 않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제재하지도 않으며,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아무리 타일러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을 제명하지도 않는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악을 행하고 교란하든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폭로하거나 분별하지도 않고 제명하거나 출교시키지도 않으며,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도록 내버려두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것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사역할 때 형식만 차리는데, 사무적인 일이나 좀 하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사역을 한다고,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든 그는 그저 그 사람에게 도리를 이야기하고 권면하거나 일깨워 주는 말을 몇 마디 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신경 쓴다. 그러고는 제 나름대로 괜찮게 사역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보세요. 다들 제 역할을 다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영상을 만들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찬양을 녹음하죠. 우리 교회 생활은 정말 활발해요!"라고 허풍을 떨지만 교회에 숨겨진 수많은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한다. 그는 교회 생활을 시종일관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이나 불신파를 해결할 엄두를 못 내니 방치한다. 적그리스도들이 제 갈 길을 가며 사람들을 끌어들여 개인적인 소집단을 만들려 해도 그는 본체만체한다. 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 수많은 문제를 제기해도 그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실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늘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교회 생활이 정말 활발해요."라고 말한다. 이는 위장하고 기만하는 것 아니냐? 거짓 리더는 이런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들을 교회에 남겨 두고 제명하지도, 처리하지도 않은 채 그들이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교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교란하도록 내버려두고 못 본 척한다. 이런 거짓 리더는 완전히 눈이 먼 것이다! 그들은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도 득의양양해하며 자신이 그런 인간 말종들을 제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 그러나 거짓 리더는 전혀 모른다. 그에게 그런 실제 문제들을 해결했냐고 추궁하면 그는 말한다. "저는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들에게 교제했다고요." 이 말인즉슨, 그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그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 거짓 리더는 누가 나쁜 일을 저지르든 간단히 책망하며, 깨우치고 권면하는 말만 좀 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이다. 이는 기만하는 것 아니냐? 거짓 리더는 분명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를 제때 제명하지 않았으면서도 궤변을 늘어놓는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줘서 그들 모두 인식을 하고 꽤나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회개하여 독립 왕국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죠."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듯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들은 모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코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하는 대상인데, 거짓 리더는 이런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를 형제자매로 대하며 사랑으로 도우니, 이는 대체 어떤 성질의 문제겠느냐? 무지몽매해 사람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 비위를 맞추는 것이겠느냐? 어떤 원인인지는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책망과 훈계가 닥쳐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 리더에게 진리 실제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대로 사역하지 않는데, 특히 교회를 정리하는 사역의 경우 건성으로 대충 임하며, 눈에 띄는 악인 몇 명만 정리하여 형식을 차릴 뿐이다. 그를 폭로하고 책망하면 그는 각종 이유와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루고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거짓 리더는 겉면의 사무적인 일만 할 뿐, 그가 하는 사역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여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진행을 지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도 지장을 준다. 단언컨대,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며 전적으로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시기에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만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행위, 모습을 통해 거짓 리더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절대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때도 아무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는 것을 봐도 증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 주면 적그리스도의 방해와 교란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요, 사탄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몇 년 믿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을 교란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바로 현실 속 마귀이자 사탄이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몇 단락 읽어 주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뉘우치고 마음을 돌리게 하려 한다. 너무도 어리석지 않으냐? 적그리스도 부류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많은 악을 행해도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할 줄 모르며,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몇 단락 읽어 주고 권면하는 말을 좀 해서 그를 바꾸려고 하다니, 그것은 헛된 망상 아니겠느냐? 패괴된 인류가 그렇게 쉽게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할 때 왜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고 많은 진리를 선포하겠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게 쉽지 않으며, 사람은 어려움이 몹시 많고 너무도 패역하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거짓 리더는 따끔한 말을 좀 해 주기만 하면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가 뉘우치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좀 더 건네면 그들이 회개하고 본분 이행에 전념하며 충성심이 생기고 성품도 변화할 것이라고, 모든 적그리스도가 고분고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느냐?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이는 황당무계한 말이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한 지 30 여 년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변화했느냐? 오직 소수만이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기껏해야 도리만 조금 깨달을 뿐이다. 생명 성품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좋은 행위나 선행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떡으로 배만 불리려 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중요시하고 복받는 것만 추구하는, 그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다! 사람은 사탄에게 심하게 패괴되어 패괴 성품으로 가득 찼고 뼛속과 핏속에 사탄 독소가 그득하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겠느냐? 구원받는 일이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탄은 인류를 몇천 년 동안 패괴시키며 사람을 다 마귀로 만들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든 마귀로 변한 사람을 다시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진리를 선포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도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협력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해야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한 바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진실로 체험하고 하나님 사역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정결함을 얻고 온전케 될 수 있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싫어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사역에 의해 드러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인식이 없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읽어 주거나 호되게 책망하는 말을 좀 해 주면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회개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슨 문제를 보여 주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원인은 거짓 리더의 자질이 형편없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의 자질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해야 한다. 즉,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겠느냐? 주로 자질 수준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는지를 근거로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오륙십 살이 되어도 인류의 패괴된 본질과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인류 사회가 아주 아름답다고 상상하면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지내려고 한다. 이는 몹시 어리석고 유치하지 않으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으로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짓 리더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표면적인 행위와 개인적인 인상을 근거로 각 부류의 사람을 규정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사역도 어린아이가 소꿉놀이하듯 피상적으로 한다. 그는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찾아 좀 읽어 주기만 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보세요. 제가 인도하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도와줬더니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서 성과를 이루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꿀 거래요. 권력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독립 왕국을 세우지도 않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거나 교란하지도 않을 거라네요. 앞으로는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끌어들이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네가 제재할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을 너는 영원히 제재할 수 없다. 그는 악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저녁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악을 행하는데, 그를 교회에서 제명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가 자발적으로 그런 악행을 멈출 수 있겠느냐? 그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 부류의 악인들은 현실 속 사탄이자 마귀이며 실생활 속 원수인데, 네 몇 마디 말이나 사랑으로 인해 그 본질을 바꿀 수 있겠느냐?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네가 도리를 좀 이해했다고 해서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네가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그를 바꾸려 하다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할 필요도,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심혈을 쏟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교회의 각종 사람은 모두 드러나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다. 각종 사람은 모두 부류별로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 집에는 각 부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과 행정 법령의 규정이 있다. 하나님은 인내와 포용, 긍휼과 자비,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진노와 위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모든 사물'이나 '모든 마귀'가 구원받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사람이 침륜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마귀가 침륜되면 그것은 마귀가 맞이해야 할 말로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니,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려고 하며, 불신파와 악인, 적그리스도 또한 사람이라고, 한결같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자, 지위를 다투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 자, 시종일관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자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귀에 속하는 이런 족속까지 전부 하나님 선민 안에 포함시킨다. 이는 황당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각종 부정적인 인물과 마귀 사탄에 대한 그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며 매우 동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사탄을 따르는 마귀를 결코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마귀 사탄의 심부름꾼이자 짐승으로 규정한다. 거짓 리더는 선의나 어리석은 사랑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런 불신파와 마귀, 사탄의 심부름꾼을 모두 형제자매로 대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한껏 베풀며 끊임없이 도와주고 붙들어 준다. 결국 그가 그들을 붙들어 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바람에 진정한 형제자매와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방해받는다. 교회 생활이 늘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며, 그 어떤 악인의 교란도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거짓 리더의 '공로'가 아니겠느냐? 그들의 '공로'는 상당히 큰데, 형제자매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받지

말아야 할 존중과 보호를 받게 한다. 이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하는 성질은 바로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자신이 교회 사역을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 선민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혐오한다. 몹시 혐오한다!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악인을 옹호하는 데만 신경 쓰며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맡는다. 이로 인해 하나님 선민, 즉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교회의 공급과 붙들어 줌은 얻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일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공정하게 대했는데, 다들 왜 불평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 거야? 나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데, 당신들이 트집을 잡는 거잖아. 다들 참 까다롭네!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야!' 이런 도리를 들이밀다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리석기 그지없지 않으냐?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데, 거짓 리더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든, 그의 본질이 무엇이든, 그가 예전에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고 인성이 얼마나 악독하든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있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감화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회개하고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완전히 틀린 관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거짓 리더는 매우 그릇되고 터무니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척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욕에 따라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푼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감싸며 그들의 공범이 되어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할 기회와 온상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형제자매는 방치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법도 없다. "교회에 이런 악인과 적그리스도, 부정적인 것이나 관념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들을 교회에 남겨 두는 것에 동의하나요? 그들과 함께 본분을 이행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그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결코 묻지 않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리더 일꾼은 상당히 역겹지 않으냐? 리더 일꾼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직함을 걸고 있으면서 사탄과 사탄 심부름꾼을 지키는 일을 하다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런 리더 일꾼에게 자질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수긍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빈둥거리지 않고 매일 바쁘게 지내는데, 어째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명목으로 악인이나 교회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두고, 온갖 악행이 교회 안에서 계속 존재하도록 방임한다. 이런 리더 일꾼은 무엇이냐? 그의 이런 모습, 사역하는 방식과 원칙, 출발점으로 보아 그는 엄연히 거짓 리더이고 바보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겠느냐? (정확합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무리나 계층이든 악인이나 호인을 나누지 않고,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패괴시키는지, 패괴된 인류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얘기하지 않으며, 심지어 선악조차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룬다. 교회의 각종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해 드러나고 자연스레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 각 부류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의 인성과 추구, 본질을 근거로 저마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게 등급을 나누는 것이겠느냐? 이는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류를 나누는 것이다.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범주에 맞게 분류해야지, 한데 섞어 두면 안 된다. 섞여 있는 것은 잠시뿐이고 일정한 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가라지와 밀이 한데 섞여 있을 때 가라지를 뽑음으로써 밀에 영향을 주어 밀이 죽을 수 있다면, 일단은 뽑지 말아야 한다. 뽑지 않는다고 해서 부류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뽑아야겠느냐?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하나님이 시간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지금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로 각종 사람을 다 부류별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왜 이런 사역을 해야겠느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여기에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가라지를 뽑아도 밀에 영향이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밀 사이에서 가라지를 뽑아 분리해 내야 한다. 만약 가라지에 해당하는 불신파나 악인을 형제자매로 대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너무도 불공평한 일이다. 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들에게 늘 교란되고 영향받고 해를 입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량이 작은 일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과 접촉할 때 속박당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며 심지어 넘어질 것이다. 게다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다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난장판을 만든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그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기어코 제멋대로 못되게 굴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수많은 인력과 물자, 재원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를 교체할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악행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제멋대로 못되게 구는 바람에 전에 들인 인력과 물자,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는 전부 낭비되어 메울 수 없게 된다. 그가 이 사역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아무도 이 책임을 질 수 없다. 설사 나중에 이 사역을 잘 마친다 해도 예전의 손실은 아무도 메울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돈으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도 마땅하다.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느냐? 돈으로 형제자매의 시간과 에너지, 진심으로 치른 대가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교회에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몇 명 있든 그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가늠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끼칠지도 알 수 없다. 이 피해는 몹시 커서 메울 방도가 없다. 형제자매들의 생명이 입은 피해를 메울 수 있겠느냐?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하겠느냐? 그러므로 그 악인들은 반드시 정리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와는 다른 부류이다. 그들은 마귀 사탄과 한패로, 하나님 집을 교란하고 무너뜨리러 온 자들이다. 이런 악인들을 교회에서 제명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는 영원히 보장받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 그 가운데서 방해하고 교란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즉 그 사람이 제멋대로 못되게 굴고 결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법도,

긍정적인 사물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도 없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며 지위와 권력이 있든 없든 함부로 행동하고 그가 바로 살아 있는 사탄이라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는 한, 언젠가는 교회 사역을 크게 교란하고 망칠 것이다. 언젠가 그를 제명하고 처리할 때, 그가 초래한 나쁜 결과와 난장판을 수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은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짓 리더는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악행을 나 몰라라 하며, 그들을 형제자매로 여겨 인내하고 포용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인재로 양성하고 쓰며,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든 핑계를 대며 대신 해명해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들어 준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일부러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거짓 리더는 자기 뜻대로, 자신의 호의와 열정대로 행동해서 결국 교회와 하나님 선민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를 가져다준다! 이런 악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에 가늠할 수 없는 재앙과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하나님 집에는 누가 나쁜 짓을 저지르든 하나님 집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손해가 너무도 크고 결과가 심각하다면, 배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얼마를 배상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손해도 있다. 그게 바로 메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손해이다. 현재 하루하루의 시간이 다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이 또한 돌이킬 수 없다. 왜 어떤 일들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겠느냐? 바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겠느냐? 되도록이면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다. 되도록이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리더 일꾼은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교회의 각 부류 사람을 명확히 분별하고 손금 보듯 훤히 알아야 한다. 또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와 성품, 추구,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와 관점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제때 파악하여 모든 형제자매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본분 이행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물론 거짓 리더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 바보에다 쓸모없는 놈이다. 그는 이제 교묘한 방법을 터득했다.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사역을 망치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해! 적그리스도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라는 것이다. 그는 벌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실행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든 다 벌금을 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거짓 리더를 거짓되다고 하겠느냐?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규례를 지키는 것을 진리 실행이라고, 자기가 이해한 글귀와 도리를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일이 닥쳤을 때 원칙이나 방향을 전혀 정확히 찾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역을 하려 하고 리더 일꾼이 되려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이 항목에서 거짓 리더는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 부류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부류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 부류 사람을 원칙대로 대하거나 처리하지도 못한다. 이런 일들은 거짓 리더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된 장부 같다. 그는 열정이나 관념,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억측할 뿐 아니라 자신의 호의와 열정, 상상과 관념을 하나님에게 강요한다. 그는 그런 것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대 사역하고 하나님 선민을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주된 모습이다. 거짓 리더의 두 번째 모습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3. 거짓 리더는 악인을 폭로하지도, 저지하지도 않는다

이어서 거짓 리더의 세 번째 모습, 즉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을 봐도 신경 쓰지도 묻지도 않고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것을 발견해도 상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 모습은 앞의 두 가지 모습보다 성질이 더 심각하다. 왜 성질이 심각하다고 하겠느냐? 앞의 두 모습은 거짓 리더 부류의 자질과 관련 있지만, 이 모습은 거짓 리더의 인성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일부 거짓 리더는 자질이 수준 이하라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성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또 어떤 거짓 리더들은 비록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줄 모른다. 그들은 늘 자기 생각대로, 열정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교회 사역을 하기만 하면 돼. 누가 방해하고 교란하든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 밖에, 자질을 좀 갖추고 있어서 사역을 조금 할 수 있고 각 부류의 사람들을 처리하는 원칙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서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발견해도 감히 폭로하거나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들도 있다. 그들은 사탄 철학에 기대어 살아가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은 나 몰라라 한다. 교회 사역의 성과가 어떤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일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거짓 리더들이 사역하는 기간에는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 선민들의 본분 이행과 생명 진입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어떤 성질의 문제이냐? 이런 거짓 리더들은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나쁘고 양심과 이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역을 안 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는 어떤 부분에서 거짓되냐? 인성의 양심과 이성이 없다는 면에서 거짓되다. 따라서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기간에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 일부 형제자매가 크게 피해를 입고 교회 사역도 막심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거짓 리더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부러 모르는 체하며 나 몰라라 할 뿐 아니라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면서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게 내버려둔다. 이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들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아니냐? 그들이 리더를 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저는 방해하지도, 교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람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나 남들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도 하지 않죠. 저를 거짓 리더라고 규정하더라도 저는 사람에게 미움을 사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두어야죠." 이는 무슨 논리이냐? 사탄의 논리이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너무도 교활하고 간사하지 않으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탁을 대할 때 조금도 진심이 없고,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몸을 사리고 꾀를 부린다. 꿍꿍이가 몹시 많고, 모든 방면에서 자신을 위해 생각하며, 교회 사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다가 양심이나 이성도 전혀 없어서 결코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대해 아무런 부담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 누림과 지위의 복을 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선민의 생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 아니냐? 설사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를 발견하더라도 그는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상관하지도 않는다. 마치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체하고 오직 자신의 목숨만 보전하려는 양치기 같다. 그렇다면 그는 양치기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짓 리더들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 권력, 그리고 자신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부탁과 교회 사역,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같은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과 다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조금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결코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는 생각한다. '왜 리더가 되면 꼭 그런 사역을 해야 하지? 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책망과 훈계를 받고 정죄되고 형제자매에게 내쳐지지?'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부류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순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과묵하고 고생을 잘 견디며 능력이 있더라도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고 무책임하게 사역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를 '다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나는 이런 부류를 이렇게 정의했다. 이런 부류는 비록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몹시 교활하고 간사하며 전혀 책임감이 없고 교회 사역을 지키지도 않는다. 이런 부류는 인성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는 어떤 동물과 아주 비슷한데, 교활하기가 마치 여우와 같다. 사람들은 여우가 교활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류가 여우보다 더 교활하다. 겉보기에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 일할 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교회 사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않으며,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관한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리더들은 하나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는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느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우러름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 그는 아무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려 한다. 그러면 그는 명성과 지위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를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여우보다 더 교활하고 간사하지 않으냐? 이런 부류야말로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그들은 리더의 지위와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부 표면적이고 사무적인 일만 하거나 상부에서 특별히 안배한 사역만 어쩔 수 없이 조금 할 뿐이다. 상부에서 특별히 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것에 관한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것이 두려워 감히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그들은 교회 사역에서 쌓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심지어 적그리스도나 악인이 하나님 집의 재물을 마구 쓰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전혀 저지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속으로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말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는 여우보다도 교활하지 않으냐?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겉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라는 큰일과 교회의 사역, 복음 확장 사역을 그르쳤다. 이런 사람이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이는 사탄의 심부름꾼이 아니냐?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냐? 비록 겉보기에 그는 눈에 띄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데다가 하나님 선민을 해친다. 심지어 하나님 선민의 구원받을 희망을 망칠 수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는 악을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원칙을 조금도 지키지 않는 무골호인이 저지르는 일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함으로써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의 속셈과 동기, 목적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다. 그가 속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도 너는 영원히 짐작할 수 없다. 이런 자는 몹시 교활하다! 실감 나게 말하자면, 한 마리의 교활한 여우이고, 정확히 말하면 살아 있는 마귀이다. 그야말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살아 있는 마귀이다!

이런 거짓 리더들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그들의 성품 본질에 따라 아무렇게나 악인이나 적그리스도, 외식하는 사람 등의 범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인성의 모습과 교회 사역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발견하고도 해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그들은 거짓 리더 중에서도 최악의 인간 말종에 해당하는 부류이다. 그들의 여러 측면의 모습으로 보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패거리를 짓거나 독립 왕국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증거하는 일도 거의 없이 형제자매와 스스럼없이 어울리기도 한다. 고생을 견디며 대가를 치를 줄도 알고, 제물을 훔쳐 먹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여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마주하거나 각 부류 사람들이 제물을 마구 쓰고 하나님 집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일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저지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너무도 끔찍하다! 거짓 리더의 대열에서 가장 비열한 부류로 구제 불능이다! 왜 구제 불능이라고 하겠느냐? 그들은 자질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 능력과 사역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발견해도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 윗선 리더가 엄격히 감독하고 추궁하거나 책망과 훈계를 해야만 그들은 마지못해 조금 사역한다. 그가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 외에 그 어떤 본질적인 사역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겉치레 사역만 좀 할 뿐이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는 여우보다 더 교활하고 간사한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여우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건 본능이에요. 그러니 거짓 리더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본능 아닌가요?" 그게 본능이냐? 그건 본성이다! 이런 거짓 리더들은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입히고 교회 사역을 해치는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명성, 체면을 보호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느라 어떤 사람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며, 인원을 교체하거나 조정하는 일조차 직접 처리하지 않고 남을 시켜 대신 처리하게 한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이 보복한다고 해도 나까지 보복하지는 못할 거야. 무슨 일이 닥치든 우선 나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해.' 이런 부류는 교활하기 그지없다! 리더 일꾼으로서 이 정도 책임조차 짊어지지 못한다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건 못난 인간이다! 겨우 그 정도 용기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몸을 사리고 꾀를 부리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리더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간사해서 누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을 봐도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은 결코 하지 않는다. 아무리 폭로하고 책망해도 하지 않는다. 너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네게 장식품이 되라고 했느냐? 지위의 복을 누리라고 했느냐? 너는 그럴 자격도 없다!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도 않으면서 형제자매가 너를 받들어 주고 숭배해 주기를 바라니, 이는 마귀의 심리가 아니냐? 참으로 뻔뻔하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애초부터 리더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는 왜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지키는 것이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다면 자진해서 사임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사임하지 않느냐? 왜 자리를 차지하고 물러나지 않느냐? 사임하고 싶지 않다면, 착실하게 실질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해야 하며 다른 선택은 없다. 그게 네 책임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면, 책임지고 사직하는 게 최선이다. 교회 사역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 선민을 해치지 마라. 이 정도 양심과 이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면, 네가 그러고도 인성이 있는 것이냐?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리더 일꾼이 될 수 있든 없든 양심과 이성을 갖춰야만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리더 일꾼이 되려면, 일정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의 자질은 사역 능력과 진리 원칙을 파악하는 수준을 결정한다. 자질이 좀 부족하고 진리를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깨달은 만큼 실행할 수 있고 깨달은 데까지 실행할 수 있다면,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자신을 위해 도모하지 않고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고, 교회에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하며, 설령 그것을 본다 해도 일절 신경 쓰지 않는다. 사정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조금 아는 것 같긴 한데, 다 알지는 못해요." 네 눈앞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냐?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보았느냐? 사역은 했느냐? 방법은 생각해 보았느냐? 그는 말한다. "그 사람은 저보다 자질이 뛰어나고 말솜씨도 뛰어나서 감히 관여할 엄두가 안 나요. 만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미움을 사면 앞으로 사역하기도 힘들고요!" 엄두가 안 난다면, 너는 못난 인간이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너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느냐? 그는 말한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데, 처리할 엄두가 안 나요. 상부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의사 결정팀도 있는데, 제 차례까지 올 리가 있겠어요?" 네가 보았고 알았으면, 네가 처리하는 게 맞다. 분량이 너무 작아서 아직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윗선에 알렸느냐? 보고했느냐? 네 직책 범위 내에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책임을 조금이라도 다했느냐? 조금도 다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잘 알고 있다. '이 일을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 부끄럽구나! 저 일도 보고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안 했잖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다른 사람이 리더이냐?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다.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너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진리이냐? 다른 사람이 했다 한들 너를 대신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 것은 네 일이다. 네 책임과 의무를 다했느냐? 네가 다하지 않았으면, 그건 네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고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니, 너는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 너는 은혜를 모르니, 형제자매의 신뢰를 받을 자격도, 하나님 집의 신뢰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높여 줌을 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다. 너는 양심이 없는 놈이다. 세 번째 부류의 거짓 리더는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추구나 생명 진입이 어떠냐를 떠나 그가 재임 기간에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의 그 어떤 손해도 만회하지 않으며, 더욱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제때 저지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미루어 볼 때, 이런 부류는 단지 자질이 부족하거나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가장 주된 문제이다. 그들은 양심이 썩었고, 완전히 비이성적이며, 속된 말로 하면 돼먹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신뢰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분석한 이 세 부류 중 이 부류의 인성이 가장 형편없다. 앞에서 말한 두 부류는 자질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 하고,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양성하고 발탁하는 원칙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양성하고 쓸 수 없다. 자질이 수준 이하인 데다 눈이 멀고 무감각해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니 폭로하고 분석할 가치도 없다. 세 번째 부류는 가장 악랄하고 인성이 몹시 비열하므로 우리는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말로 이런 부류를 규정하도록 하자. 이런 부류는 여우보다 더 교활하다.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핑계만 늘어놓으며 떳떳해한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어떻게 교란하든 그는 걱정되지도, 속을 끓이지도 않고 계속 리더를 하려 한다. 그는 왜 그렇게 감투에 집착하는 것이냐?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잖아요. 감투를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려 하지 않으면서 지위에 눌러앉아 지위의 복만 누리려 하니, 이건 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이는 순전히 사탄의 족속이지, 결코 좋은 작자가 아니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 가운데 세 항목에 대해 교제했다. 제 12 조에서 분석한 거짓 리더는 우리가 예전에 폭로했던 거짓 리더와 전체적인 방향은 같다. 세 항목을 분석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이다. 한 가지 측면은 자질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못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인성이 악랄하고 비열하며 교활하고 간사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거짓 리더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거짓 리더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21 년 9 월 4 일

리더 일꾼의 직책(21)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를 구분하는 법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구분한다

오늘은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교제하겠다.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 우선 이전에 교제했던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제, 즉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진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해 보자. 먼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 교제해 보자. 이 주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선 적그리스도 부류에게서 보이는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모습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단시간 안에 그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며, 절대 적그리스도 성품만 가지고 있거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속박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부류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류, 이 두 부류의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인지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부류를 분별하려면 우선 그들의 주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차지하고 남을 훈계하기 좋아하는 등 적그리스도가 평소에 표출하는 패괴만 파악할 줄 알고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은 분별할 줄 모른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라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로 규정한다. 이것이 과연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겠느냐?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아니라 패괴된 인류라면 다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하고 거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모두 적그리스도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들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본질적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두 부류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며, 다르게 대할 수 있겠느냐? 이 두 부류는 특정 부분에서, 예를 들어 행동 방식이나 행위, 그리고 성품의 측면에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진지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혹은 마음속으로 이 두 부류의 성품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두 부류를 같은 부류로 대하기 쉽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로,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를 적그리스도로 여기는 등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렇다면 누가 적그리스도이고 누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인지, 근거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부류의 주된 특징과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이 주제가 낯설지 않을 테니 너희가 한번 말해 보거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를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인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할 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증오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든, 어떻게 그와 교제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훈계하든 그는 인정하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칙을 파악하지 못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진리를 증오하는 것이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성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악인에 해당하고 양심의 지각이 없으며 염치를 모르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양심의 지각이 있고 염치를 압니다.)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말했는데, 이런 내용은 예전에 교제한 적이 있지 않으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한 측면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진리를 어떻게 교제하든 속으로 반발하고 싫어하는 데다가 속으로 너를 욕하고, 비웃고, 멸시하며 경멸하는 태도로 대한다. 진리를 적대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졌지만 어느 정도 양심과 이성을 갖춘 사람은 진리를 교제하면 관념을 돌려세우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순종할 수 있다. 즉,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한,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요컨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깨우침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형제자매가 책망하고 훈계하며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것 등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다르다. 적그리스도는 누가 진리를 교제하든 듣지도 않고 불복하며, 죽어도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만 보이는데, 그를 어떻게 책망하든 소용없다. 네가 아무리 분명하게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속으로 반발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진리를 증오하는 성품을 가진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적이자 구제 불능인 사람이다.

인성을 근거로 구분한다

방금 너희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를 분별하는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언급했다. 그건 바로 인성을 보는 것이다. 이 특징에 대해서 누가 다시 교제해 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인성은 특히나 악독해서 그는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악을 얼마나 행하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의 주된 특징이 바로 인성이 악독하고 염치를 모르며 양심과 이성이 없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악행을 얼마나 저지르든,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든 부끄럽다고 여기지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그를 폭로하든, 형제자매가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든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속으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인성 측면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주된 특징은 양심과 이성, 염치가 없고 성품이 지극히 흉악한 것이다. 누가 그의 이익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괴롭히며, 복수심이 유독 강해서 아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자기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이토록 흉악하다.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패괴를 얼마나 표출하든 반드시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성에 어떤 결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면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는 나중에 자신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줄 안다.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속으로 뉘우칠 줄 알고, 형제자매가 꾸짖거나 폭로하면 당시에는 어느 정도 변명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사실 속으로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있다. 이는 그가 그래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증거이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의 양심과 이성이 모두 작용하여 지각할 수 있으며, 무감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강퍅하지 않다. 그 밖에도 이런 부류는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동정심이 있고 어느 정도 선량하다. 다양한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이 드러내는 인성 측면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고 평이한 말로 설명하자면 바로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이 호된 말로 책망하더라도 기껏해야 마음속에 좀 반감을 품을 뿐 인성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염치를 알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이성도 어느 정도 통제 작용을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거나 어떤 형제자매라도 상처를 주면 속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이런 모습을 표출한다. 설사 이런 일들이 발생한 뒤에 제때 보완하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류는 속으로 지각하고 있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한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내적 상태를 바로잡고 진실로 회개하고 깊이 뉘우친다. 처음부터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런 모습이 바로 패괴된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부류는 특별하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은 끝까지 버티며 완고하게 나온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일반적인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다 순종할 수 있다. 하지만 호되게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아마 당시에는 변명하면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 설사 누가 인성이 없다며 그를 비웃고 판단하더라도 속으로는 괴롭지만 반항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적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잘못했으니 남들이 어떻게 대하든 할 말이 없지.'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이런 모습을 표출한다. 어쨌든 이런 표출이 바로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나 패괴 성품을 가진 자가 보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 내적 상태가 보여 주는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어떤 부류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류가 적그리스도 성품만 가지고 있을 뿐 악인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진실로 회개하는지를 근거로 구분한다

방금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의 차이를 언급했다. 첫 번째 측면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이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이 측면에서 두 부류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로, 이 두 부류는 인성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이 두 측면의 특징은 매우 뚜렷하며, 두 부류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차이 이외에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악을 행한 뒤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독립 왕국을 세우거나, 지위를 놓고 하나님과 다투거나, 제물을 훔쳐 먹는 등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설사 직접 폭로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겠느냐?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는 악을 행한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는 말에도 대항하고 반항할 뿐 결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하거나 혹은 "나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다니 너무 위험해. 회개해야 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에 절대 이런 생각이 없고, 인성 안에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는 무리에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권력과 이익을 다투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다가 패거리를 지어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가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은 바로 교회에 얹혀살고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지 3 년, 5 년이 지나 다시 봐도 그는 여전히 그런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8 년, 10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을 믿은 지 20 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죠!" 그가 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변할 수 없다. 그는 몇몇 사람과 접촉하든 많은 사람과 접촉하든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반적인 본분을 이행하든 리더 일꾼을 하든 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한길로 고집스럽게 간다.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 중 일부는 악인은 아니지만 패괴 성품 역시 가지고 있다. 교만함, 간사함, 이기심과 비열함 등 여러 패괴를 표출하기도 하고, 인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명예와 이익을 다투고, 두각을 나타내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으려 하며, 리더가 되어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과 욕망도 가지고 있다. 패괴된 인류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를 겪는 것을 통해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갈수록 그런 패괴 성품의 표출이 점점 줄어든다. 왜 갈수록 줄어들겠느냐? 그가 진리를 깨달은 뒤 그런 행위와 모습이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제야 양심에 지각이 생겨서 자신이 너무 깊이 패괴되었고 확실히 자신에게는 사람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 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그런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패괴 성품의 결박에서 헤어 나와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모습이냐? 점차 회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고 자신의 여러 내적 상태도 알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인성 본질을 인식하고, 갈수록 양심에 지각이 생기고, 자신이 너무 깊이 패괴되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속으로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차 회개한다. 회개하는 동시에 일부 경미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미한 변화는 행위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그는 누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폭로하면 반감을 품고 머리끝까지 화를 내며 자신을 위해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은 물론, 필사적으로 각종 핑계와 이유를 찾아 자신을 옹호했다. 그런데 끊임없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내적 상태와 행동 방식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올바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며, 일이 닥쳤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교제하는 법,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법, 화목하게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 이런 것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뒤 자신이 표출한 적그리스도 성품과 행위 모습에 대해 점차 참된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예전의 잘못된 생활 방식,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고, 진리 원칙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그의 내적 상태는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체험이 깊어지면서 분량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일이 닥치면 자신을 반성할 줄 알게 되고, 좌절과 실패를 겪든, 책망과 훈계를 받든 모두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자신의 패괴된 내적 상태를 비춰 보고 해부하고 인식할 수 있다. 비록 일이 닥쳤을 때 여전히 패괴를 표출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을 반성하고 저버릴 줄 안다. 그런 문제를 의식할 수만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회개할 수 있다. 비록 그 속도는 무척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류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태도와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들 역시 남들과 명예와 지위를 다투고 서로 다른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행동 방식을 좀 표출할 때도 있지만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어느 정도 체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변화할 것이다.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주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부류가 패괴 성품과 자신이 걸은 잘못된 길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인식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돌아섬으로 인해 그에게 가져오는 변화와 성장, 수확은 아주 작고 진전도 느리며 심지어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3 년, 5 년 체험하면 그도 자신에게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주변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와 적그리스도는 서로 다르다. 이 측면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르고 과오를 범하거나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 채찍질과 징계를 받으면 모두 회개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를 저질렀음을 의식했을 때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돌아서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인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차이를 정리하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바로 살아 있는 사탄이다. 살아 있는 한 그는 사탄이고 사람이 볼 수 있는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한 가지 측면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이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긍정적인 사물이며 사람에게 이로운 말이자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준칙이니, 사람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코 실행해 내지는 못한다. 그는 왜 실행하지 못하느냐? 마음속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실상을 숨기고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진리를 실행해 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결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해 진리 실제에 진입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인 것은 아니다. 그중 일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 올바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적그리스도 본질을 가진 부류는 진리를 적대시하고 저버리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들 중 일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역을 몇 년 체험함으로써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실행해 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리는 좋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실행하려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졌지만 약간의 양심과 이성이 있는 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최소한 마음속 깊이 진리에 거부감이나 반감을 품거나 진리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대다수 사람이 이런 내적 상태에 놓여 있고 진리를 대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미화하는 것도, 폄훼하는 것도 아니다.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인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즉, 양심과 이성, 그리고 인성의 선악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인성이 악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특히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신파나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관심도 없으며 남이 진리를 교제하면 졸기나 하고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인성이 악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도 않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 원칙, 하나님 집의 규정을 교제하면 그는 그것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진리를 실행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리더가 된다면 진리를 깨닫도록 너를 이끌어 주거나 너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결코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의 인성이다. 어쨌든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는 인성이 그다지 악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적그리스도는 양심과 이성이 없는 데다가 인성도 특히나 흉악하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양심의 지각이 있고 이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일들은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의 요구를 어떻게 대할지, 교회 내 여러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일부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을 대할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설지 등에 대해 그래도 구분할 줄 알고, 최종적으로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류는 인성이 그다지 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마음씨도 고운 편이다. 또 다른 측면의

차이는 방금 교제했듯, 흔히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 중 일부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성할 줄 알며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 반면, 적그리스도는 결코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이다. 그는 진리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성 또한 지극히 흉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류를 돌아서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그가 양심과 이성을 갖추었는지, 진리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는 인성이 악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를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도 책망과 훈계를 거치면 회개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구제 불능이고 마귀 사탄에 해당하는 족속이다. 이 몇 가지 특징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본질적 차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이 몇 가지 측면의 특징에 대해 우리가 교제한 세부적인 모습들은 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며 폄훼하는 요소는 절대 없다. 하나님 선민들은 직접 접하고 겪어 보았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인간이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도 폭로했는데, 모두 사람이 볼 수 있고 사실에 부합하며 미화하는 요소는 없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인성에 결함과 흠이 많고,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패괴 성품을 표출한다. 사람마다 눈에 띄는 특징적인 모습들로 이런 패괴 성품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히나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유독 꾀가 많고 간사하며 어떤 사람은 유난히 강퍅하고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게으르다.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가 보이는 모습이자 이런 부류가 지닌 인성의 특징이다. 이런 부류는 마음씨가 좀 곱기는 하다. 속된 말로 심성은 좀 곱지만 일이 닥치면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을 입은 것이 뻔히 보여도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 겁쟁이가 되고, 사탄 철학에 기대 살아가며 진리 원칙을 견지하려 하지 않는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골호인이 되기로 선택한다. 왜일까? 그는 자신이 생존하거나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탄 철학에 기대야만 자신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골호인이 되어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도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양심이 없고 인성을 상실한 것이며 사람도 아니라고,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책하고 나서도 막상 일이 닥치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행동한다. 그는 늘 연약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이는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는 비록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인성에 확실히 문제와 결점이 있어서 분명 적지 않은 패괴를 표출한다. 그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조금도 변화가 없고 영락없이 사탄에게 심하게 패괴된 자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탄의 후예이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보다 나은 부분이 무엇이냐? 정확히 말해,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졌지만 적그리스도 본질이 없는 이 부류는 각종 사탄의 패괴 성품을 표출하긴 하지만 결코 악인은 아니다. 평소에 자주 말하듯, 심하게 간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다. 단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려 하며, 책망과 훈계를 거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희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기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3 년, 5 년 믿으면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8 년, 10 년 믿어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20 년을 믿어도 큰 변화 없이 기존 모습 그대로인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관념을 고수하며 한사코 내려놓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집의 여러 규정의 규제 아래 큰 잘못을 범한 적도, 하나님 집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악행을 저지른 적도, 화를 초래한 적도 없는 것일 뿐이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대부분은 봉사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중 일부는 도태될 게 분명하다. 어떤 상황이든 그들은 악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들 모두 인성이 좋지 않고, 그들의 결말과 종착지도 분명 서로 다를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 생겨요. 이런 부류는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 말은 이런 부류가 일정한 배경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3 년, 5 년 믿으면 조금 변화하고 10 년, 20 년 믿으면 크게 변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0 년, 20 년 믿어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와 똑같아서 입으로는 계속 "저는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려야 한다고요!"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양심의 지각이 있어서 마음속에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염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진리를 실행하거나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한다는 것은 그저 진리에 반항하거나 진리를 싫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비난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독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일 뿐, 진실로 순종하여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다거나 육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저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인성 안에 양심과 이성, 회개하려는 마음이 좀 있다고 해서 패괴 성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비록 적그리스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인성 측면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 측면, 그리고 회개하는 정도에서 당연히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낫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아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양심과 이성이 있는지,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고, 그런 요구로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들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되지 않느냐? 우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네가 적그리스도 성품을 얼마나 가졌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네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진리에 반감을 품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도 아니다. 네가 양심과 이성을 좀 갖추었고 상대적으로 심성이 고우며 적그리스도보다 인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적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쁜 짓을 얼마나 저지르든 결코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늘 똑같이 행동하며 결코 뉘우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항한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 중 일부는 진심으로 돌아서고 회개하려 하지만 조금 돌아섰다고 해서 진실로 회개한 것은 아니다. 회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적그리스도보다 낫고 적그리스도보다 덜 패괴됐겠네요." 이는 옳은 말이냐?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는 패괴 성품은 같다. 하지만 본성 본질이 다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옳은 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가 설명해 보거라.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는 둘 다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교만하고 사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위도 추구하지만 인성 본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는 어느 정도 양심의 지각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진리를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면 적그리스도 본질을 가진 부류는 인성 본질이 악독하고 양심의 지각이 없는 데다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똑같이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본질을 가진 자는 적그리스도나 원수로 규정하느냐? (주로 그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규정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진리를 증오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또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마귀에 해당합니다.) 본질이 마귀에 해당하는 부류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똑같이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패괴 성품으로 말하자면 두 부류는 똑같다.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반면, 적그리스도 성품만 가졌을 뿐 적그리스도 본질은 가지지 않은 부류에게는 구원받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이냐?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는 적그리스도와 달리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다지 사랑하지는 않지만 진리에 반감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인성 안에는 조금이나마 양심의 지각이 있어서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염치없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게 바로 본질적 차이이다. 적그리스도 본질을 보면 이런 부류는 구제 불능이고 구원받을 희망이 없으며 네가 구원하려 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는 변하지 못한다. 그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가진 일반적인 부류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생명 본질을 가진 부류로, 이런 부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반면 패괴 성품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 단지 패괴 성품을 가졌을 뿐 그들은 어느 정도 양심과 이성을 갖추었고 진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진리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류는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부류를 구원한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부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객관적이지 않다. 그저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비교적 객관적이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건 사람이 진실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며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런 부류는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적그리스도 부류는 왜 구원받을 희망이 없겠느냐?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데다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사탄 마귀는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지 진리를 증오하는 인간 말종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되느냐?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일부 사람이 치우치게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를 구분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니 안전하다고, 정말로 피난처에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절대 제명되거나 출교되거나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희망은 사람이 스스로 붙잡아야 한다. 네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적그리스도와 다르고 진리를 싫어하지 않거나, 혹은 인성이 적그리스도보다 조금 낫고 양심의 지각을 어느 정도 갖추었으며 마음씨가 상대적으로 곱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할 줄 알며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조건만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었을 뿐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니더라도 너는 여전히 패괴된 인류이다. 패괴된 인류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설사 적그리스도나 악인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데 근거한다. 사람의 패괴 성품은 하나님을 적대한다. 패괴 성품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인도,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징계와 징벌 등이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람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고생을 견디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리를 깨달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천재일우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나 간단하다. 자, 이것으로 이 주제에 대한 교제를 마치겠다.

제 13 조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리더 일꾼이 반드시 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역

이어서 핵심 주제를 교제하겠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2 조는 교제를 마쳤으니 이번에는 제 13 조인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하도록 하겠다. 제 13 조는 리더 일꾼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리더 일꾼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느냐? 우선 이 조항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리더 일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어떻게 교란하고 미혹하고 통제하고 심각하게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적잖이 교제한 바 있다. 그런 내용은 오늘 교제하려는 주요 주제가 아니다. 오늘 교제하려는 중점 내용은 리더 일꾼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행위와 행동 방식을 마주했을 때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 선민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이다. 우선, 하나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 중 하나이다. 직책 중 하나란 무슨 뜻이겠느냐? 리더 일꾼이 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교란과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자, 피할 수 없고 책임을 미룰 수도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시해야 한다.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교회의 여러 사역 중 으뜸이며, 그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기도 하다. 리더 일꾼의 본연의 사역은 하나님 선민들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교란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선민들을 놓고 하나님과 다툴 때, 리더 일꾼은 나서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한편, 하나님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회에서 제명하여 하나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고 심각한 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마땅히 다해야 하는 책임이다. 그럼 방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방지해야겠느냐? '방지'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의 발생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사건의 발생을 저지하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사건을 처리할 때 리더 일꾼의 주된 사역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들을 교란하고 미혹하고 통제하고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핵심 사역이자 우리가 제 13 조에서 명확히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선민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가 저지르는 이런 몇 가지 악행을 저지해야 한다. 저지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폭로, 책망과 훈계, 해부, 제재가 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출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단계이다. 형제자매가 아직 분별력이 없어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더 일꾼이 이미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바로 출교시킬 경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관념을 갖거나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일부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 방금 내가 몇 가지를 언급했느냐? (폭로, 책망과 훈계, 해부, 제재를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것을 저지할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느냐? 감독하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효과적이고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적절하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들 통하겠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왜 통하지 않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 심판과 형벌로 대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니 그런 방식은 부적절하다. 그러니 이 방식이 통할 리 없다. 그럼 대체 어떤 방식을 취해야 적절하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심각하게 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적그리스도를 몹시 미워하며,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공개 망신을 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해 철저히 치욕을 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희 생각에 이런 방식을 취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을 논하자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지 않다. 마귀는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더러운 벌레 한 마리를 눌러 죽이듯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리더 일꾼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언뜻 정당해 보이고,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행동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게 리더 일꾼 직책 범위 내의 사역이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칙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겨냥한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 방식은 원칙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집안일이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 폭로

적그리스도를 처리하고,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해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해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 선민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고 기회를 틈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벌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역은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는 폭로이다. 폭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분별력을 키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별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멀리하여 그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며,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통제하려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조종당하거나 농락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를 내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폭로는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폭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폭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폭로해야겠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야겠느냐? 함부로 죄를 덮어씌워도 되겠느냐? 근거 없이 함부로 정죄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폭로하여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악을 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한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해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그 두 가지 측면 중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표출한 잘못된 말과 행동 방식, 터무니없는 사상 관점으로 그의 본질을 판단하고 규정해야 한다. 이 밖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고 해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야겠느냐? 어떤 말씀을 찾아야 가장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곡을 찌를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말씀들을 찾아 그를 폭로하고 대조하여 적절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딱 맞아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듣자마자 이해하고 바로 그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며, 경계심이 생길 것이다. 속으로 그를 분별하게 되면 이렇게 반감을 품을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였구나! 예전에 나를 도와주고 내게 득이 되는 일을 해 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부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외식하는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본질적 모습이 폭로되니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네. 하나님 말씀은 참 정확하게 폭로하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말도 듣기 좋게 하고 행동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본질을 폭로한 걸 보니 그가 확실히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어.' 사람의 사상이 변화한 것으로 보아, 리더 일꾼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사역을 할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직책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실제로 그중 한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 폭로이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이 사역은 리더 일꾼이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사역 중 하나이다. 우리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역을 규모나 성과에 따라 순서를 매기지 않고, 일단 '폭로'라는 사역을 먼저 교제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폭로하는 데는 적그리스도가 악만 행하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속셈과 목적 및 그로 인한 결과를 폭로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리더 일꾼을 하면서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을 방치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결코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는 데다가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앞과 뒤에서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몇 가지 측면을 철저히 폭로해 적그리스도가 사탄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그럼 이 사역을 하려면 리더 일꾼이 무엇을 갖춰야겠느냐? 우선,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은 이 책임을 맡으면 속으로 자주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그런데 몇몇 형제자매는 수시로 그를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묻고 늘 그와 가깝게 지내. 그와 사이가 아주 좋다고. 그가 미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무척 숭배하고 있어. 어떡하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측면의 말씀을 늘 의식적으로 찾으며 그 측면의 진리로 무장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에게 때를 예비해 달라고 구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때와 기회를 찾아 형제자매에게 이 일을 교제한다. 이 일을 자신의 부담이자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 늘 예비하고 구하며, 늘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계속 이런 마음과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부담을 갖는다고 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한동안 예비한 후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최소 두세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진실로 분별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폭로를 시작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 같다고 느낌으로만 규정할 뿐, 실제로는 대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이 사역을 할 때는 분명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가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자 리더 일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2. 책망과 훈계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사역을 하고 나면 형제자매들도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폭로되기 전에 분명 더 많은 일을 벌여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교란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숭배하고 우러러보고 추종하게 하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좀처럼 진입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생명 진입이 지체되고 큰 해를 입도록 할 것이다. 그렇기에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교란할 때, 혹은 말과 행동이 눈에 띄게 진리 원칙에 위배될 때, 증거를 잡고 제때 나서서 그들을 책망 훈계하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여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의 몰골을 분별하고 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고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다. 리더 일꾼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체할 것이 아니라 제때 기회를 잡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직접 나서서 적그리스도를 책망 훈계해야 하며, 그의 행동 방식, 야심과 욕망, 본질을 정확히 폭로해야 한다.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하게 규정해 형제자매가 명확히 알게 해야 하고 그 자신도 알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 적어도 일부는 그의 행동과 그가 숨기고 있는 야심, 욕망, 그리고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게 해야 한다. 물론 적그리스도를 책망 훈계하는 목적이 단지 말로써 그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형제자매에게 분별력을 키워 주는 한편 적그리스도의 악행들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를 제재하여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일을 할 때 우려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제재받고 어느 정도 제약받아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집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권세를 잡으며, 행정 법령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함부로 날뛰고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 선민을 해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못되게 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거나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적그리스도를 제때 책망 훈계하는 동시에 직접 나서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이 분별력을 키워 적그리스도의 야심과 욕망, 속셈과 목적을 꿰뚫어 보게 해야 한다. 물론, 이는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리더 일꾼이 마땅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자 직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사역으로, 소홀히 하거나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은 교회에서 적그리스도 부류를 발견하면 그들의 언행과 그들이 뒤에서 퍼뜨리는 황당한 논리를 수시로 경계해야 하고, 그들을 책망 훈계하거나 폭로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교란되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 중 하나이다.

3. 해부

리더 일꾼이 다음으로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겠느냐? 해부이다. 해부와 폭로는 거의 비슷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해부에 대해 말하자면, 단순히 한 가지 사실의 실상, 혹은 배경을 폭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질을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즉, 적그리스도 성품이라는 근원과 본질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 본분과 하나님 집 사역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가 퍼뜨리는 황당한 논리들의 출발점이나 그 속셈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해부해야 한다. 또한 그의 사상 관점, 언행, 그리고 그가 표출해 내는 성품과 모습으로 그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고 설명하여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눈앞의 그 적그리스도가 대체 왜 그런 말과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부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규정하는지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 물론 형제자매에게 적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내쳐야 할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행실, 행위, 말, 관점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내치며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해부의 목적은 폭로나 책망과 훈계 등 다른 사역 항목과 마찬가지로, 모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교란하고 해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으며, 또한 하나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는 사실의 실상과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명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 선민은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바보나 우매한 사람이 속으로 계속 그들을 어느 정도 우러러보고 숭배하며 그들과 접촉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우매한 사람에게만 일을 좀 벌일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리더 일꾼이라면 이 정도에는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려는 사람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교란을 경계하고 적그리스도를 내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란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여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물론 네가 아무리 제대로 사역을 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도 일부 우매한 자, 자질이 부족한 자, 어리바리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내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들을 우러러보고 앙망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내치게 되었으니 리더 일꾼은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선민을 최대한 보호한 것이며, 이는 완전히 성과를 이룬 것이다. 그런 멍청이들은 진리를 아무리 교제해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나마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자라면 좀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 더 사랑을 주고 인내심을 보이며, 많이 포용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성의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사역하면 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이를 수 있는 리더 일꾼이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 선민을 보호해야 한다. '최대한'이란 무슨 뜻이냐? 깨달은 진리 원칙을 최선을 다해 교제하되, 이미 파악한 증거, 즉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한 온갖 모습을 내놓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한 다음 교제하고 해부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형제자매가 사실의 실상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 부류의 본질을 분별하고 꿰뚫어 보도록,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다.

4. 제재

다음으로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 제재이다. '제재'는 하기 쉬운 사역으로, 특별한 방법을 취해 제재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늘 글귀와 도리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높이고 때로는 남을 비하한다. 예배 시간엔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고 하나님 집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기를 간증한다. 게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들이 어떻게 자신을 우러러보는지, 자신이 어떻게 남보다 우월하고 어떻게 남다른지 등에 대해 말하며 자신을 간증한다. 이런 경우, 리더 일꾼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온갖 악행을 있는 힘을 다해 제재해야 한다. 그들을 계속 방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말하는 시간과 논의하는 주제를 제재해야 한다. 또한, 작은 선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간질하거나 관념과 소극적인 말을 퍼뜨리는 등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앞이나 뒤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 리더 일꾼은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굴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제때 파악해야 한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행위가 보이면 제때 폭로하고 해부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지 못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단지 책망과 훈계, 폭로와 해부만으로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재할 수 없다. 그는 사탄 악마이기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지 않고 입이 막혀 있지 않는 한 황당한 논리와 사람을 교란하는 마귀적인 말들을 퍼뜨릴 것이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제때 행동을 취해 그를 제재해야 한다. 특히 그가 황당한 논리를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란할 때는 제때 중단시키고 저지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선민이 분별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낯짝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하는 실질적인 사역이다.

5. 감독

적그리스도를 제재한 다음에는 감독해야 한다. 적그리스도 부류가 뒤에서 누구를 미혹하고 어떤 황당한 논리와 마귀적인 말을 퍼뜨리는지, 큰 붉은 용 편에 서서 그들과 협력하며 일을 벌이지는 않는지, 종교계와 결탁하지는 않는지, 적그리스도와 한패인 자들과 뒤에서 수작을 부리지는 않는지, 하나님 집의 중요한 정보들을 팔아넘기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책임도 다해야 한다. 적그리스도의 못된 짓이 드러나기 전에 리더 일꾼은 '세상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성현의 글을 읽는 데만 집중'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영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일단 이런 부류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엄밀한 감독으로 그가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선민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사랑하고 세력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늘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일부 종교인들과 접촉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종교계의 목사나 장로와 자주 왕래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국가 통일전선부 사람과 접촉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리더 일꾼은 못 본 체하지 말고 적그리스도 부류를 경계하며 주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자신의 수법이 하나님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악행이 이미 폭로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은 결과를 얻을 리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는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어느 정도로 악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속에 이런 부류가 적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면, 긴장을 풀지 말고 그를 엄밀히 감독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게 네 책임이다. 왜 이렇게 해야겠느냐?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고,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형제자매에게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형제자매를 해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어떤 적그리스도는 늘 제물에 관한 상황을 캐묻는다. "하나님 집의 돈은 누가 관리하나요?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죠? 분명하게 기록하나요? 횡령하지는 않을까요? 교회의 돈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이런 일들은 공개하고 모두에게 알 권리를 줘야잖아요? 하나님 집의 재산은 얼마나 되죠?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누구예요? 왜 저는 이런 일들을 모르죠?" 그는 입으로 하나님 집의 재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같이 재물을 탐낸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리더 일꾼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선 제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보관해서 절대 적그리스도의 속셈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엔 즉시 알아차려야 한다. '뭔가 이상해. 적그리스도가 일을 꾸미고 있어. 교회의 재물을 노리고 있다고. 큰 붉은 용과 결탁해서 교회의 재물을 노리고 약탈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당장 옮겨야 해!' 하나님 집의 재물을 누가 관리하는지 그가 알지 못하게 하는 한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상의 위험을 느꼈다면 재물을 보관하는 곳과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당장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신경 써야 하고,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리더들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집의 돈에 관심을 기울일 줄도 아니까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장부를 기록하는 데 참여시키자.' 이는 유다가 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제물을 잘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제물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넘겼으니 이는 변칙적으로 유다가 된 것이다. 이 리더 일꾼은 어떠냐? 악인이 아니냐? 마귀가 아니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과 형제자매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기기까지 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리더 일꾼이 작은 단서라도 발견하면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그중 '감독'은 필수적인 사역이다.

리더 일꾼이 감독 사역을 하는 것은 첩보 활동이나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이며,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를 많이 기울여 관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눈여겨보는 것이다. 그가 악을 행해 교회를 교란하는 낌새를 보이면 되도록 빨리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대 그가 목적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교회 사역을 지키고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하는 모습이다. 감독한다는 것은 몇 사람을 특수 요원으로 배치해서 스파이처럼 추적하고 미행하고 감시하거나 집을 수색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상황을 제때 파악해야 한다. 그를 분별할 수 있거나 혹은 그를 잘 아는 형제자매와 그의 가족을 찾아가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근황을 알아봐도 된다. 이는 모두 사역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이 직책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사역들을 한다면 이는 직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책을 다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교란하고 방해하는 짓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저지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해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행동 방식이 사람의 소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렵겠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해야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지배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된 믿음도 있다. 이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며, 사람 곁에서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널 도와주고 지켜 주며 보호해 준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의식하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거나, 혹은 주변 사람이 일러 주거나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조짐을 보여 주어 네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얻게 된다면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건 하나님이 네게 맡긴 부탁이니, 너는 나 몰라라 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너는 로봇이 아니니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다. 일이 발생했을 때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것이고, 틀림없이 느끼고 의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느낌과 의식한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 내어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너는 직책을 다한 것이다. 의식할 수 있는 일에서는 네가 깨달은 진리 원칙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실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흡족해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흡족해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리더 일꾼을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다하고 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연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6. 출교

우리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3 조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역을 열거해 보았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폭로, 책망과 훈계, 해부, 제재, 그리고 감독하는 것으로, 이런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는 교제를 마쳤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 일꾼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취하든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몇 가지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공인했고, 적그리스도가 늘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평안할 날이 없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별하고 간파했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적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리더 일꾼들이 적그리스도를 폭로, 책망과 훈계, 해부, 제재, 감독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리더 일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의 직무 유기 아닌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리더로서 제 존재감이 드러나니 이런 사역은 제가 꼭 해야 해요. 형제자매가 동의하든 말든 전 일단 적그리스도를 남겨 둬야겠어요. 우선 제가 그를 폭로한 다음 책망하고 훈계하고 해부해서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형제자매가 더욱 확신하게 말이죠. 그런 뒤에 만장일치로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어요?" 결국 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또 관념을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기 시작해 인심이 흉흉해지니 예배에 오려 하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 리더 일꾼이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자신이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겉으로만 형식을 차리고 꾸물거리며 사역한 결과, 불필요한 굽은 길을 많이 걷고 교회 생활의 질서도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의 진리를 추구하는 소중한 시간도 허비하고 나서야 적그리스도를 제명하는데 이 방식이 바람직하겠느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느냐? (규례를 지키고 형식만 차린 부분입니다.) 리더 일꾼이 이 몇 가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아직 분별하지 못해 그에게 몹시 미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네가 적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하나님 집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고 불공평하다느니, 일을 처리할 때 원칙도 없다느니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바보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영향받아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이 떠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럴 때 리더 일꾼은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를 책망하고 훈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폭로하고 해부함으로써 형제자매가 실제적으로 공과를 배워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너무 가증스러워요. 악인이고 적그리스도임이 틀림없으니 당장 정리해 내보냅시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형제자매가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제재하고 감독하는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이 곧바로 출교시키면 된다. 리더 일꾼이 이 정도까지 사역했다면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에게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는 성과를 이미 이룬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형제자매가 분별력과 자질, 정의감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줄 알거나 혹은 그 적그리스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인성이 몹시 나쁘고 사악한 나머지 민중의 분노를 일으켜 제 명을 재촉해 준 덕분에 리더 일꾼이 그를 처리하는 많은 과정을 생략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수고를 던 셈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더구나 리더 일꾼은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사역이 아주 많다. 적그리스도를 출교시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겠느냐? 네가 대성공을 거둔 것이 되겠느냐? 아직 멀었다! 너에게는 해야 할 다른 사역이 남아 있다. 리더 일꾼은 적그리스도를 처리하고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해 패괴 성품을 해결하고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해결하도록 책임지고 이끄는 등의 여러 중요한 사역을 해야 한다. 다만 그런 사역을 하는 도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처리가 급선무가 되어서 우선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처단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의 진리를 계속해서 교제해야 하는 것뿐이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교란하는 일이 발생해서 다른 사역이 다 가로막히거나 방해를 받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형제자매의 생명 성장, 교회 생활의 질서, 본분 이행의 환경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면 당연히 눈앞의 가장 큰 재앙과 화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를 제명하거나 처리한 다음에야 다른 사역이 정상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교회에 나타났을 때, 형제자매가 단시간 내에 신속히 그를 분별해서 "적그리스도는 물러가라!"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리더 일꾼은 수고를 많이 덜지 않겠느냐? 너는 은근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전 이 적그리스도라는 마귀를 제재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고, 그에게 미혹되고 심각하게 해를 입는 형제자매가 생길까 봐 걱정돼요. 또 제 분량이 작아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폭로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철저히 해부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형제자매의 그 한 마디 말에 일이 해결되고 리더 일꾼의 '부담'도 가벼워지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상황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측면의 주제를 적지 않게 다루기도 했고, 형제자매 또한 리더 일꾼과의 수준 차이가 네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그들 역시 스스로 진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이다. 그들이 힘을 합쳐 함께 표결해 적그리스도를 출교시키는 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리더 일꾼은 이 일로 상심하거나 낙담하고 소극적으로 변할 필요가 없다. 적그리스도라는 장애물을 제거한 뒤에도 이어지는 모든 사역은 리더 일꾼에게 여전히 험난한 검증일 것이다.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모든 사역 또한 리더 일꾼의 직책과 자질, 사역 능력 측면의 문제와 관련된다.

적그리스도가 교란할 때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3 조인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를 마쳤으니, 다음으로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과 대조하여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할 수 없는 부류인 거짓 리더의 모습을 해부하고 폭로해 보자. 이 사역을 할 때 리더 일꾼은 해야 할 사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을 쏟아야 하고 세심하고 진지해야 하며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려는 사랑의 마음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런데 거짓 리더는 이와 완전히 반대이다. 그들은 인성 안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들도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고,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자질이 조금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을 철저하게 분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눈에 띄게 악을 많이 행하는 적그리스도는 분별할 줄 안다. 또는 적그리스도 본질과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차이도 확실히 분별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거짓 리더는 결국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적이고 사무적인

사역만 조금 할 뿐, 실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짓 리더의 이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제 13 조의 사역을 할 때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교제해 보자.

1.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교란하고 미혹하고 통제하거나 심각하게 해칠 때 거짓 리더가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 부작위이다. 부작위란 무엇이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주로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 감히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리더가 되고 나면 위세를 부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지위가 생겼어. 교회에서 직위에 올랐으니 형제자매의 의식주를 다 돌봐야 하고 형제자매가 하는 말이 진리와 성도의 품위에 부합하는지 분별해야 해.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진심인지, 영 생활은 정상적인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는지, 평소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석하는지 등을 다 관리해야 한다고.' 거짓 리더는 이런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거짓 리더는 어두운 곳에 숨어 침묵하며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척한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황당한 논리를 퍼뜨려도 못 들은 척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교란하고 미혹하고 통제할 때도 모르는 체한다. 마치 그런 정보들이 그에게 전달되면 전부 사라지기라도 하듯 말이다. 그는 일부 보통 형제자매도 분별해 낼 수 있는 적그리스도조차 분별할 줄 모르는 척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꿰뚫어 보지 못하겠어요. 잘못 출교시키면 어떡해요? 형제자매를 오해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봉사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며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를 처리하지도 않고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일부 거짓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계속 적그리스도를 폭로해서 만일 그가 형제자매를 선동해 나를 공격한다면 다음 선거 때 아무도 나를 뽑지 않을 테고, 그러면 나는 리더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적그리스도만큼 세력이 크지 않다고!" 거짓 리더는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책임은 조금도 다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형제자매를 해치는 것을 결코 가능한 한 저지하지도 않는다. 그는 무골호인이고 겁쟁이이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열한 소인배라서 형제자매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할 때는 생각에 빈틈이 없다. 적그리스도를 처리해야 한다고, 적그리스도를 책망하고 훈계하며 폭로하여 형제자매에게 분별력을 키워 줘야 한다고 하면 그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 선민의 이익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명성, 자신의 신변 안전과 가족의 안전만 고려하며, 자칫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사서 적그리스도가 매정하게 돌변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사실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자질과 식견으로 볼 때 그들은 속으로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흉악한 성품을 보고 감히 미움을 사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집과 하나님 선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하며, 눈을 뻔히 뜨고 형제자매를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넘겨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미혹하고 통제하고 심각하게 해치게 한다. 거짓 리더는 그저 가끔 뒤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인성이 좋으며 그에게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죠."라고 말할 뿐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낸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악행과 본질을 폭로할 용기가 전혀 없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한두 시간 동안 자기 혼자 떠들어도 그는 감히 끽소리도 못하고, 적그리스도가 책상을 치며 눈을 부라리면 숨조차 제대로 못 쉰다. 그가 사역하는 범위에서 분량이 작은 사람, 인성이 나약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나서서 폭로하고 분별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이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함부로 날뛰고 제멋대로 굴며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손쓸 길이 없다. 그런데도 거짓 리더는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선민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형제자매가 곤경에 빠져도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폭로하거나 제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히 바른말 한 마디도 못 한다. 설사 그가 양심에 찔리고 약간의 가책을 느껴서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두어 방울을 흘리더라도, 이튿날 예배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집 사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함부로 판단하며, 심지어 에둘러 가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퍼뜨리는 걸 보면 그는 옳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제물을 마구 쓰는 것을 봐도 그는 방치하는 태도를 보일 뿐 적그리스도를 조금도 폭로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전혀 자책하지 않으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양심의 지각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느끼더라도 분량과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이 일을 교제하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 리더에게는 그런 결심과 용기가 없고 그런 책임감은 더더욱 없다. 심지어 그는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너무 흉악해서 미움을 샀다가는 정부에 보고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겠죠.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예배 장소도 다 알고 있으니 그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에게 무장 해제 상태로 투항하고 사탄과 타협하며 용서를 비는 꼴이다.

거짓 리더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외에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거나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도록 하는 등의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은 하나도 하지 않고 책임은 조금도 다하지 않으면서 늘 형제자매가 그를 리더로 뽑기를 바라며, 이번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음 임기에도 뽑히고 싶어 한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구제 불능이 아니냐? 이런 부류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네게 양떼를 맡겼는데 산짐승이 나타난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자신을 보호할 생각만 하고 양떼는 산짐승에게 넘겨 버린 채 겁쟁이가 되어 피할 곳이나 안전한 곳을 찾아 숨는다면 양떼는 결국 화를 입어 일부는 물려 죽고 일부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서슴없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통제하는 것을 보고도 리더가 자신의 체면과 지위, 밥그릇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대다수의 하나님 선민은 미혹되어 무력감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연약해질 것이다. 심지어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거나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리더가 적그리스도의 교란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고 양심에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런 리더 일꾼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그는 자신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선민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미혹하고 심각하게 해치고 짓밟게 내버려두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리더이냐? (거짓 리더입니다.) 이는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냐? 그는 대체 어느 편에 선 사람이냐? 그를 거짓 리더로 규정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거짓 리더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체포되고 혹형을 당한 뒤 유다가 되어 형제자매를 큰 붉은 용에게 넘겨 잔혹하게 해를 당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형제자매를 팔아넘기는 성질이 좀 있다. 그렇다면 거짓 리더가 하나님 선민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것은 어떤 성질이냐?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으냐?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겉보기에는 진리에 반항하는 뜻이 없는 것 같다. 진리도 좀 교제할 수 있고 이해 능력도 좀 있으며 진리를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치를 줄도 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그에게 맡기지만, 악인이나 악마가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최대한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 자신을 보호하고, 형제자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과 맞바꾼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냐! 겉보기에 그는 인성에 큰 문제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며 남을 도와준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고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한다. 즉, 그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어떻게 미혹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교란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공격당하고 배척당하며 해를 입든 그저 방관할 뿐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선민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관할로 넘겨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미혹하고 심각하게 해치게 둔 채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교제한다. 자신이 연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며 이기적이고 간사하다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선민을 잘 보호하지 못해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실망시켰다고 인식한다. 그는 마치 깊이 뉘우치며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형제자매를 적그리스도에게 내몰고 자신은 안전한 곳을 찾아 숨는다. 비록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해를 입지는 않지만 직무를 유기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배반한다. 본분과 하나님 선민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진면목도 철저히 드러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사역을 하지 않아 양심의 평안에 이르지도 않는다. 나아가 리더의 직책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거짓 리더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순전히 자신의 지위가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며, 하나님 선민이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가 해를 입지 않기만 하면 된다. 누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지, 누가 적그리스도를

출교시키는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같은 일들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 그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을 해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모함하고 괴롭혀도 그는 방관한다. 그에게 이런 일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의 지위를 해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부류는 어떠냐? 평소에 보면 그는 인성도 나쁘지 않고 사역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책망과 훈계를 받아도 자신을 인식할 줄 알고 뉘우치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는다. 정의감은 조금도 없고 적그리스도와 싸울 용기조차 없다. 그는 마귀 사탄을 보면 타협하고, 악인이 교란하는 걸 보면 피해 간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그는 대체 어떤 길을 걷는 것이냐? 이는 문제를 아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겉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악인과 적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 드러내는 태도가 바로 적그리스도 성품이며, 성질이 매우 악질적이다. 자신의 직책을 포기하고 하나님 선민을 팔아넘겼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성질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냐?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부탁을 대할 때 그들이 충성심을 조금이라도 보이느냐? 책임지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이느냐? 그들에게 언제 부탁이나 사역을 맡기든 그들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지 않고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는 그들이 처신할 때 지키는 최고 기준이자 그들의 행동 원칙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선 이런 부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적그리스도를 처리하는 사역부터 살펴보자.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겠느냐?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는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양심과 이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 리더의 사역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해치는 것을 가능한 한 저지할 수도 없고, 능력껏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사역을 잘 해서 하나님 선민을 잘 보호할 수도 없다. 그들은 자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으로 보아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봐 두려워하는 이 부류는 결코 리더 일꾼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리더 일꾼이 많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머리도 빗지 못하고 세수도 못할 정도로 바삐 움직이기에 마치 영적인 경지에 이른 것 같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자취를 감추고 온갖 핑계를 대며 도피할 뿐 적그리스도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는 어떤 성질이냐?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신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며, 교회 사역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에게 교란당하고 파괴당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방관하니,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이게 거짓 리더의 한 부류이다.

2.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른다

또 다른 부류의 거짓 리더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무엇을 표출하는지, 형제자매를 어떻게 교란하는지, 어떤 말과 사상 관점, 행위가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교란할 수 있는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고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를 분별할 줄 모른다. 형제자매를 미혹해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따로 예배하며 독립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집의 인도와 사역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어떤 안배나 지도에도 순종하지 않을뿐더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각종 요구에는 더더욱 순종하지 않는 등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일련의 행동을 거짓 리더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안의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언행과 사상 관점이 사람에게 끼치는 교란, 미혹, 그리고 심각한 해는 더더욱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모른다. 일부 보통 형제자매도 식견이 많으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고 느끼고 의식할 수 있지만 거짓 리더만은 유독 꿰뚫어 보지 못한다. 설사 아무개가 뒤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패거리를 짓는다고 누가 일러 줘도 거짓 리더는 저지하며 말한다. "그런 말을 퍼뜨리면 안 돼요. 교란하지 마세요. 서로 관계가 좋아서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유를 줘야죠!" 그는 여전히 꿰뚫어 보지 못한다.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관찰하고 구해도 되고, 진리를 깨닫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해도 되지만 거짓 리더는 무척 독선적이라서 형제자매가 일깨워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리더지 당신이 리더야? 나는 리더로 뽑혔으니 분명 보통 사람보다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았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 나를 뽑았겠어? 이게 바로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는 증거라고. 나이가 당신들보다 많든 적든 나는 분명 당신들보다 자질이 좋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먼저 식별해야 해. 당신들이 먼저 식별했다는 걸 난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식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결국 적그리스도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논리를 많이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집 사역지침을 배척하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집, 상부의 사역지침에 대들고 대항한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형제자매를 그의 곁으로 끌어들여 따로 예배하고 그가 하는 교제만 따로 들으며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교회에서 자질이 가장 부족한 사람조차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야 거짓 리더는 비로소 인정한다. "이런,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네요. 제가 왜 이제야 발견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발견했는데 형제자매가 분량이 작아서 분별하지 못할까 봐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는 자신을 위해 그럴듯한 거짓말까지 꾸며 낸다. 분명 그 자신이 무감각하고 우둔하며 자질이 부족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 바람에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그토록 많은 해를 당했는데도 그는 자책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제자매가 허튼소리를 한다는 둥,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는 둥, 사람을 오해한다는 둥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는 어떤 리더이냐? 멍청하기 그지없지 않으냐? 이런 부류의 리더는 결코 교회 사역을 담당할 수 없다. 그도 겉으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 영성 일기나 간증문도 쓰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만 같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결부해 진리를 구할 줄 모르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은 더더욱 모른다. 거짓 리더는 평소에 한두 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나 자신의 체험을 교제할 때는 청산유수처럼 끝도 없이 말한다. 그러나 하필 적그리스도가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논리를 퍼뜨리며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는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의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논리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지도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실을 목격하더라도 폭로하거나 해부하지도 않고, 책망하거나 훈계하지도 않는다.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무엇이 문제이냐? (자질이 몹시 부족합니다.) 자질이 부족하면서도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고 좋은 리더라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데다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신은 리더 일꾼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가정과 육적인 누림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사실상 그는 책임감이 없고 양심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당히 무감각하고 우둔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자 명실공히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도리를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칠 줄 아는 것은 물론 누가 질문하면 청산유수로 그럴듯한 이론을 늘어놓으며 사람을 미혹하지만, 사실상 진리 원칙은 결코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가 이해 능력이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누가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해도 진리에 부합하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속으로 뻔히 알면서도 좋은 리더인 척, 영적인 사람인 척하려 한다. 이건 좀 파렴치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대다수 거짓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문제점은 바로 파렴치한 것이다. 그는 리더의 지위나 직함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이론을 이야기할 줄 알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설교를 듣고, 하나님 집의 영상을 보는 일에 남보다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교제하면 자신이 리더 일꾼의 사역을 한 것이라고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서슴없이 미혹하고 교란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뻔히 보고도 어쩌지 못하고, 어느 측면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대조하고 그를 해부해야 형제자매가 분별력을 키우고, 마음속으로 적그리스도를 내치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통제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도 마음속으로 조금 당황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고 설교도 많이 들었으며, 보통 사람보다 진리를 더 잘 깨닫고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또한 늘 자신을 과시하기도 한다. "저는 영적이고 설교도 할 줄 알아요. 비록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교란하는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고, 적그리스도와 대조하여 그를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 제가 해야 할 사역과 해야 할 말은 다 했으니 형제자매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 거죠!" 그는 최종적인 성과가 어떤지,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성과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속으로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한다. 결국 글귀와 도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는 진리를 교제하여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해부할 줄은 모르면서 글귀와 도리만 이야기하며 자신을 위해 해명하고 변명한다. 그가 한두 시간 말하면 사람들은 멍해져서 갈피를 못 잡게 되고 원래 깨달았던 것도 모호하게 된다. 그는 시종일관 형제자매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구해 내지 못하고,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마음속으로 적그리스도를 내치게 하지도 못하며, 한결같이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성과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계속 리더 신분을 자처하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구하거나 혹은 상부에 보고해 답을 구하거나 해결하지도 않는다. 이는 나쁜 놈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위장을 하려 한다. 위장은 무슨 위장을 하느냐! 리더를 못 하겠으면 하나님 선민을

해치지 말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어라! 적그리스도는 네가 위장하는 틈을 타 사람들을 교란하고 통제하는 악행을 수없이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해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나님 집에서는 반드시 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일부 리더 일꾼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때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도 모른다. 적그리스도가 형제자매를 미혹하고 통제하는 동안 결코 적그리스도의 악행과 본질을 진정으로 폭로한 적도 없고 명확히 말하지도 못한다. 나중에 분별력을 갖춘 일부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를 폭로해 출교시키면 거짓 리더는 그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한다. 적그리스도가 출교되고 나면 그는 상황을 정리해서 한바탕 도리를 읊는다.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 생활이 비정상이 되고 사람이 교란받아요. 사람의 생명도 손해를 입죠. 적그리스도에게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행동 방식과 말, 인성, 본질 등을 분별해야 해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나타나서 일을 저질러 추태를 보이는 걸 허락하셨죠. 적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건 우리가 진리를 무장하고 분별력을 키우며, 최대한 빨리 분량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고 그에게 속박받지 않아요. 다들 그를 내칠 수 있다고요.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죠!" 거짓 리더는 마지막에 거드름을 피우며 상황을 정리하기까지 한다. 마치 그가 적그리스도를 출교시키는 일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많이 하고 꽤나 큰 대가를 치르기라도 한 것처럼, 상당히 큰 역할이라도 한 것처럼 군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는 분명 처음부터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모르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는지, 하나님 선민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적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꽤나 큰 사역을 한 것처럼 위장한다. 분명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해 내어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이고, 그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도,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도 못한 게 분명한데도 상황을 정리하며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 마치 일찍이 계획해 놓은 것처럼, 이제 와서 그가 한 일이 성과를 거두었고 큰일을 이루었다고 형제자매에게 알린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냐? 웬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느냐? 실질적인 사역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다니, 네가 큰 붉은 용의 관료이냐?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도리를 이야기할 줄만 알지 일이 닥쳤을 때는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아무런 실행 길도 없다. 그저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으며 함부로 규례에 맞출 뿐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좋은 사람인 척하고, 후안무치하게 공로를 자신에게 돌린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다. 도리를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치고 힘을 좀 들이며 고생을 좀 견딜 줄 아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사역도 못하면서 영적인 사람인 척하니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바로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도리를 그렇게 많이 읊을 수 있으면서 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거나 그들을 처리하지는 못하느냐? 청산유수로 몇 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고 말솜씨도 특히나 뛰어나면서 왜 실제 문제, 특히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처리하지 못하고 멍해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겠느냐? 자질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는 어느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냐?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 그는 교육 수준도 높고, 사고력도 있으며, 외부의 일을 처리할 때는 꽤나 영리하고 법률도 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 영적인 일, 여러 측면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오히려 분별할 줄 모른다.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아무런 진리 원칙도 찾지 못한다.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태연하게 굴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설치고 다니는 말썽꾼이나 뜨거운 가마 속의 개미처럼 가련한 꼴을 보인다. 때때로 유독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엄숙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멀쩡하지만 엄숙해지면 오히려 우습다. 그는 엄숙해지면 허튼소리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말, 상관없는 말만 하면서 정색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기 때문이다. 우습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그에게 답하라고 하면 그는 멍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특히 난감해한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꽤나 많은데, 그들은 주로 자질이 부족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멍청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일이나 진리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앞뒤가 꽉꽉 막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저는 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깨달은 진리도 많죠. 당신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라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 믿음직스럽지 않아요."라며 사칭하고, 늘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처한다. 이런 부류는 가증스럽고도 가소롭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3.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부류의 거짓 리더는 더욱 가증스럽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기는커녕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까지 하며, 사랑으로 도와준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도록 내버려둔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황당한 논리를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들은 반박하거나 폭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관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준다. 하나님 선민이 어떤 교란, 미혹, 해를 당하든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설사 어떤 사람들이 "저들은 적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집에서 제재하는 대상이니 발탁하고 양성해서는 안 돼요. 보호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저들은 형제자매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어요. 이제 저들과 결판을 내고 저들을 철저히 폭로하고 처리할 때가 됐어요."라고 제안해도 거짓 리더는 오히려 직접 나서서 적그리스도들을 옹호한다. 그들의 나이, 하나님을 믿은 햇수, 과거의 공로 등을 고려하며, 각종 핑계를 찾아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윗선 리더가 사역을 검토하거나 적그리스도를 처리할 때 거짓 리더는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윗선에 보고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교회를 봉쇄하는 수법을 써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윗선 리더가 알지 못하게 하는 한편, 분별력을 갖춘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지도 못하게 막는다. 핑계나 목적이 무엇이든 거짓 리더가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맡는다면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교회와 하나님 선민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집에서 말할 권리가 있다.", "예전에 어떤 위험한 본분을 이행한 적이 있으니 하나님 집에서는 그들의 지난 공로를 고려해야 한다." 등 각종 핑계로 적그리스도를 보호하면서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윗선 리더가 와서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악행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한다. 아울러 그 자신도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지 않으며, 적그리스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그의 가족이나 그와 사이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더욱이 그가 숭배하거나 감정적으로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 부류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 변명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고, 심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그리스도가 각종 황당한 논리를 퍼뜨려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교란할 기회를 준다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일부 거짓 리더는 다른 측면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 했을 수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일에서는 하나님 집의 요구대로 적그리스도를 처리하지 않는다. 게다가 하나님 집의 요구대로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여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관념과 소극적인 정서,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논리를 퍼뜨리는 것을 가능한 한 저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늘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럴싸한 도리, 혹은 지식이나 사탄 철학에서 비롯된 주장과 말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 옹호한다. 이런 모습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사회에서 지닌 세력을 보고 그들을 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는 사회의 하층민이고 세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성이 악한 적그리스도이기는 해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능력자죠. 형제자매나 교회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 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가 나쁜 짓을 좀 저질러도 일일이 따지지 말고 눈감아 주자고요."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나서 주고 뒷배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맡으려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다. 또 일부 거짓 리더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일부 적그리스도는 사회에서 지위와 세력을 가진 명망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두 명 있죠. 적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들을 제명하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능력자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 종교인들은 우리를 무시할 테니, 우리는 그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야 해요. 그러니 저 둘은 우리 교회의 보물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분별하거나 제명해선 안 돼요. 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이는 무슨 논리냐? 그는 적그리스도를 인재로 여기기에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나쁜 놈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리더 일꾼이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제멋대로 교회 사역을 교란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바로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이다. 적그리스도나 악인이 어떤 식으로 황당한 논리를 퍼뜨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든, 긍정적인 인물을 공격하고 배척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선민을 해치든 거짓 리더는 내버려둔 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을 보전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거짓 리더는 주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든 간에 그는 형제자매가 분별하고 내칠 수 있도록 폭로하고 해부하고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벼슬에 오른 나리처럼 모시고 보호하며, 길을 터 주고, 적그리스도가 나댈 수 있게 각종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충분히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동시에 누구의 이익을 희생시키겠느냐? (하나님 선민의 이익을 희생시킵니다.) 거짓 리더는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하고, 형제자매는 적그리스도의

소와 말, 노예가 되어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 또한 그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말과 사상 관점, 통제를 받아들이게 하며, 심지어 그의 심각한 해 등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바로 거짓 리더가 하는 사역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그들이 최대한 저지하고 있느냐?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유가 무엇이든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터 주고 적그리스도가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두면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다면, 그 리더는 바로 거짓 리더이다. 왜 거짓 리더라고 하겠느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통제할 때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온갖 해를 당하게 내버려둠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부탁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 네게 하나님의 양, 즉 하나님의 선민들을 맡겼는데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부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원인이 무엇이든, 너의 이유가 어떻든 리더 자리에 있는 동안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하느라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온갖 교란, 미혹, 통제, 심각한 해를 당하도록 했다면 너는 천고의 죄인이다. 왜냐하면 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속으로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선민이 그를 폭로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게 한 데다가 형제자매가 그의 말을 따르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히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천고의 죄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리더 일꾼의 자리로 끌어올려 애완동물처럼 키워 형제자매가 그의 호령을 듣도록 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선민을 네게 맡기는 것은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노예나 너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민이 사탄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내칠 수 있도록 이끌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에 하나님 선민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본분을 이행하도록, 모두가 진리 실제에 진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정도 책임조차 다하지 못한다면 네가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적그리스도를 보호하려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네 조상이나 우상이라도 되느냐? 설사 그와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진리 원칙을 견지하고 '대의를 위해 친족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리더 일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고 분별하고 내치며, 적그리스도가 해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 형제자매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충성심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는 것이며, 그래야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라고 불릴 만하다. 리더 일꾼의 책임도 다하지 않고 기꺼이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맡는다면 그게 천고의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맡는 이 부류의 거짓 리더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분명 이 부류를 거짓 리더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거짓 리더가 보이는 한 측면의 모습이다.

4.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을 나 몰라라 한다

거짓 리더가 보이는 또 다른 모습은 더욱 분노를 자아낸다. 일부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분별하지만 즉시 그를 처리하지는 못한다. 또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내칠 수 있도록 제때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행위에 근거해 적그리스도의 악행과 본질을 폭로하거나 해부하지도 못한다. 이는 이미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형제자매가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때도 거짓 리더는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밖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전혀 자책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죄스럽거나 형제자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이런 '전형적'인 말을 한다. "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도 싸요! 분별력을 갖췄어야죠. 설사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저들은 하나님 집에서 제명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도 전혀 자책하지 않고 죄스러운 줄도 모르는 데다가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게다가 형제자매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도 싸다는 비인간적인 말까지 한다. 이 말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류에게 인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인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그는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그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끌려간 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야. 나와는 상관없지.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미혹되어 끌려가도 싸!'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은 마땅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고 심각한 해를 당해야 하며,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 마땅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뜻이다. 그 의미인즉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도 잘못됐으며 그들은 하나님 집에 들어오더라도 적그리스도가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형제자매를 비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독하려고 하니, 이 부류가 가증스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그는 책임을 전가하고, 그가 형제자매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실상을 감추는 것 외에도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도 싸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악랄하기 그지없는 그의 인품을 드러낸다! 그가 적그리스도처럼 직접 형제자매를 교란하거나 미혹하고 억압하지는 않지만, 형제자매,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맡긴 양 떼를 대하는 태도로 볼 때, 그의 마음이 몹시도 냉혹하고 매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협력해야 한다.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들여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혈도 담겨 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 일, 사물과 환경을 마련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 끌려가든 "그래도 싸다!"라는 한 마디로 설명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노고와 하나님의 심혈을 헛수고로 만들고, 그에게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그래도 싸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런 뜻이다. "그러게 누가 당신더러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요? 그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건 당신 잘못이에요. 누가 그더러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나요? 저는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스스로가 기어코 따르려고 한 거죠. 그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어울려요!" 이는 어떤 인성이냐? 그에게 마음이 있기라도 하냐? 그는 냉혈한이고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데 리더를 하다니, 그는 자격이 없다! 너희는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무 매정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리더로 뽑아서는 안 된다. 멍청하게 굴지 마라! 그는 최선을 다해 손실을 만회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을 되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악랄한 말을 하니, 참으로 악독하다! 이런 부류의 문제는 일반적인 거짓 리더에 비해 성질이 더 심각하다.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모습을 근거로 그는 인성이 없고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놈이다! 그는 하나님이 맡긴 부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며, 양심과 이성에 따라 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하나님 선민의 리더가 될 자격도,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일 자격도 없다. 특히 거짓 리더는 하나님 선민을 사랑하지 않아서 형제자매가 미혹됐을 때 위험에 빠진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격으로 '그래도 싸다'라는 말까지 내뱉는 등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런 사람은 누가 재난을 당하거나 곤경에 빠진 것을 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몰아붙인다. 그래도 그는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예전에 해 오던 대로 리더 역할을 한다. 파렴치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의 어떤 좋은 사람이 마귀에게 심각한 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자 피조물로서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정심을 가질 것이다. 하물며 형제자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더욱 가슴 아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선민을 해치는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의 악행과 본질을 폭로하거나 해부하지도 않으며,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적그리스도를 내치도록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감도 갖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끌려간 뒤에도 그는 '그래도 싸다'라는 냉혹하고 매정한 말을 내던지니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가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마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정죄되지 않기 위해 이런 비인간적인 말을 내뱉으니 가증스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말하든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네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이다. 네가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려 해도 전가할 수 없다. 너는 거짓 리더이다.

일부 거짓 리더는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끌려간 뒤에도 냉혹하고 매정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그들은 미혹되어 끌려가도 싸다"라고 말한다. 심지어 하나님 집 사역지침은 그들 중 인성이 비교적 좋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다해 최대한 그들을 되찾아오라고 요구하는데도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설사 일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요구해도 무시한다. 그들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아끼지 않고, 미혹된 형제자매들을 최대한 되찾아오지도 못한다. 그들은 이런 책임을 다할 수도 없고, 다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사역 지침을 통해 그 사역을 제대로 하라고 거듭 요구할지라도 거짓 리더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며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격리되거나 제명된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다. 물론 일부 사람은 분명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사랑으로 도우며 인내심을 갖고 붙들어 주면 진리를 깨닫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내칠 수 있다. 이들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시행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서 떠돌고 있다. 이런 리더 일꾼들은 갖은 핑계로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무시한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에 부합하는 형제자매들조차 거들떠보지 않고 온갖 핑계를 찾는다. 그들의 인성이 나쁘다는 둥,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다는 둥, 그들은 치장을 좋아한다는 둥, 육을 누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둥, 지위를 좋아한다는 둥 아예 있지도 않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며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어 방향을 잃은 것이 거짓 리더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 거짓 리더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양심의 지각도 없다. 어쩌면 거짓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그러고 싶지 않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여러 측면의 원인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집의 이 사역지침을 결코 시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의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집에서 맡긴 그 어떤 사역이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 유기를 폭로하면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한다.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말들로 책임을 방기한 실상을 감추는 것이다.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더욱 가증스럽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요컨대, 이 부류의 거짓 리더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을 대할 때도 책임을 소홀히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이 사역의 그 어떤 세부 사항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는 고생을 견디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그저 제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한다. 하고 싶으면 좀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맡긴 직책과 책임,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이 부류는 인성과 양심이 없는 산송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인성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지도록 맡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설사 너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기지 않을지라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심각하게 해칠 때 그가 과연 최선을 다해 적그리스도와 싸우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는 냉혈한이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리더를 한다.

거짓 리더도 때로는 형제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물건이 부족한지, 먹고 사는 것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생활적인 측면에서 꽤나 세심하게 챙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탁과 형제자매의 생사존망, 진리 원칙에 관한 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그에게 요구해도 하지 않는다. 사람의 육적인 누림과 의식주, 혜택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좀 처리할 뿐이다. 혹자는 "모순된 말이네요. 그 사람은 매정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매정한 사람이 남을 위해 그런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까요?"라고 말하는데, 매정한 사람이 선의를 품고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매정한 사람들도 정말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곤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모두를 위해 일을 처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일도 처리하므로 그 자신도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가 일을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는 곧장 태도가 돌변해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처리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때 누구의 돈을 쓰겠느냐? 하나님 집의 돈을 쓴다. 하나님 집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게 그의 특기이다. 그 자신이 이득을 얻는데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주려는 그런 선의를 품고 있을 리 없다!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면 사심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집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을 위해 이익을 챙길 뿐,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사람들을 위해 일을 처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며 "이 사람은 우리에게 혜택을 줘요. 있는 힘을 다해 우리의 이익을 지켜 준다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그가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그에게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예도 얻고 이익도 얻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아무도 그가 한 일인지 모르고 다들 하나님에게 감사할 뿐 어느 누구도 결코 그에게 고마워하거나 감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그 일을 처리하겠느냐? 그는 분명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 부류는 어떤 일을 하든 본성 본질이 남김없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교란할 때 그들은 하나님 선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방금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고 해를 당한 뒤에도 거짓 리더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선민을 되찾는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느낌과 기분, 이익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교제했다. 그는 책임을 다하거나 짊어지는 게 아니라 미루고 회피한다. 심지어 하나님 선민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통제되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가장 가증스럽다. 우리가 다룬 거짓 리더의 몇 가지 모습은 무척 역겹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 부류는 그야말로 인성이 없는 냉혈한이자 사람 탈을 쓴 짐승이니,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책임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 부류는 인성과 양심, 이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책임과 의무도, 사랑이나 인내심도, 동정심이나 형제자매를 보호하려는 생각도 없다. 그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인성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인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네 번째 부류의 거짓 리더가 보이는 모습이다.

거짓 리더의 직책 제 13 조에서 폭로하려는 거짓 리더의 네 가지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물론 이 네 가지와 비슷한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만으로도 거짓 리더가 이 사역을 할 때 보이는 갖가지 모습과 그들의 인성 본질을 보여 줄 수 있다. 우리가 몇 항목으로 나누든 결국 거짓 리더의 두 가지 두드러진 모습은 이 네 항목에 해당된다. 즉, 하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의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모습이다. 거짓 리더의 인성과 자질이 어떻든,

그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든 결국 이 두 가지 모습은 위의 네 항목을 통해 드러난다. 오늘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3 조에 대해 교제했다. 거짓 리더를 폭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부록 문답

질문이 더 있느냐? (하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 본질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저희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고,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간단한 글귀와 도리들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측면의 진리에 대해 교제하신 지도 벌써 1 년이 넘었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 스스로가 그 진리들에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를 많이 접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실제로 대조해 가며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진리들에 별로 진입하지 못했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다지 분별력이 없으며, 자신에게 있는 적그리스도의 성품의 표출을 대조해 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측면의 진리든, 어느 정도 진실한 체험과 체득을 통해 참된 인식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진리를 얻는 과정은 이런 것이다. 네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경험 속에서 느낀 것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교제할 때 나는 먼저 너희에게 그 내용을 복습하도록 했고, 너희는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너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 중 일부는 너희에게 이론에 불과하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몇 가지 모습은 많이 혹은 적게 자신과 대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체험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잘 이해한 것 같아도 그저 이론이나 도리적인 면에서 이해한 것일 뿐 진리를 인식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그런 일들을 체험해야만 어느 정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다. 실제적인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교제하기 전에 한 번 복습하고 간단하게 힌트를 준 다음, 리더 일꾼의 직책이든 거짓 리더의 여러 모습이든 교제하는 것이다. 최소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단지 그 이유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 겪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 일, 사물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 가서 겪어 보죠?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설 수는 없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로 찾을 필요는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맞닥뜨렸을 때 최대한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보는 것이다. 그의 외적인 표출과 주장, 행동 방식과 성품, 그리고 그의 사상 관점, 나아가 처신 방식과 생활 방식 등을 앞서 다룬 적그리스도의 열다섯 가지 모습과 대조해 볼 수 있는 만큼 대조해 보아라. 사람이 이해하는 바는 이 정도며, 기억력에 의존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정으로 직접 체득해 낸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말하든 기억이 아닌 경험과 경력, 체험에 의존한다. 그 부분이 가장 진리에 가깝고 사실의 실상에 가까운데, 그것은 네가 직접 체험해 낸 것이다. 이 밖에,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거나 지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마음속에 고정관념으로 몇 년을 자리잡고 있든 진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은 도태되고 버려진다. 그러나 진리에 가깝거나 진리에 부합하는 것들은 네가 직접 체험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야말로 가치가 있다. 오늘 제기한 문제들을 너희가 분명히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주제에서는 분명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교란을 어느 정도 겪어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진리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은 환경이 닥쳤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며,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겪어 보지 않고 단지 머리로만 적그리스도의 일부 행동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상상력이 좋다 한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환경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의 사상 관점, 자신이 과거에 접했던 이론들, 예전에 알던 몇몇 도리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직면하고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이론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괜찮다. 혹자는 "그럼 적그리스도를 맞닥뜨리기 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라고 말하는데, 소용이 있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말씀들이 책으로 발간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체험하고 밝히 알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책으로 발간하는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다. 즉, 너희가 그런 말씀을 자주 읽고 진리를 깨달아 나중에 다양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든, 자신의 성품 변화에 관한 고충이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하나님 말씀은 바로 네가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처리하며, 그런 측면의 진리에 진입하는 원천이다.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의 이해 정도는 실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뜻하지 않는다.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체험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너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체험해 낸 것과 인식한 것이야말로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나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진리와 무관한 도리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진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체험과 진입에 중점을 둔다. 어느 측면의 진리이든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 결국 진리가 맺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생존의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만약 내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너희는 미처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질문하는 방식을 택한다. 너희에게 먼저 적그리스도 본질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기억나느냐고 묻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목적은 너희를 당황하게 하거나 너희의 단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힌트를 준 다음 돌이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번에는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적그리스도의 인성이 어떤지 교제했었지.'라며 조금씩 떠올린다. 일부 내용은 이미 기억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네가 그런 일을 겪을 때 활용해야 하고, 실행의 지침과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 듣기는 했어도 네게 아무런 인상도 남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체험해야 하는데, 네가 체험할 때 그런 말씀을 다시 먹고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수확이 더 클 것이다. 인상이 남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내용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그럼 당시에 기억한 도리들은 체험을 통해 실제 인식으로 변하고 네 수확이 된다. 당시에 아무 인상도 남지 않았던 것들은 한 번 체험한 후 인상을 조금 남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감성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그 감성적인 인식은 도리의 수준에 머물 뿐이지만, 네가 다음에 다시 비슷한 일을 겪을 때 너를 지도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실행의 길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다. 내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게 창피한 일이냐? 창피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갑자기 내게 어떤 질문을 하면 나도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어느 측면의 진리에 관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사람의 머리와 생각은 반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익숙한 것일지라도 오랫동안 접하지 않다가 갑자기 접하면 반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깊이 있게 체험한 것이라도 며칠이나 몇 년 만에 다시 접하면 반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적그리스도의 주제에 대해 너희는 글귀와 도리를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현실 체험 속 적그리스도와 대조할 줄 모른다. 즉,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진리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 이런 말씀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확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전에 적그리스도 부류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교제한 바 있다. 네가 그 말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부류가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려 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죠. 그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너는 이 말을 그저 도리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거나 이 말에 대한 인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감성적 인식만 있는 것이다. 너는 무의식적으로 이 말이 옳다고 느낀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지, 어떤 본성에 지배받는지 등을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고 맞춰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임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네가 적그리스도 본인을 직접 보거나 혹은 그를 관찰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언행에 대해 네게 얘기해 줘야 한다. 그러면 결국 너는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실제적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구나. 저 사람은 몇 번이나 적그리스도로 규정되어 교체됐어. 지금은 출교되거나 제명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과 표출로 보면 그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야. 적그리스도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도 가지고 있다고. 그야말로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야!' 어느 날 그가 출교되면 너는 속으로 확신한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하구나!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변화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 본질을 가진 사람은 변화할 수 없어.' 그렇게 이 말이 네 마음속에 뿌리내린다. 단지 기억해서 어렴풋한 인상을 가지게 되거나 감성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변화할 수 없어. 그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대항하려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으시는 거였어. 어쩐지, 그는 본분을 이행해도 좀처럼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지

못하고 전혀 진보하지도 않는 데다가 자기 고집만 내세우려고 하더라.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틀림없어!'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에 확증을 얻으면 너는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지 진리가 분명해. 이 말은 옳다고. 아멘!' 아멘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준칙이자 진리이며, 이 시대와 이 인류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인식했다는 뜻이다. 왜 사라지지 않겠느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영 변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폭로한 하나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끝나고 패괴된 인류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영원히 사실의 진상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네가 보고 접하는 사실에 부합하고 들어맞는다고 느껴지고 마음속으로 확증을 얻었다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옳고 틀리지 않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았고 직접 경험하고 체득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아멘이라고 외칠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적그리스도 본질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으면 네 마음속의 인식이 곧장 튀어나올 것이다. 그것은 인상도 아니고 기억한 말도 아니고 뭔가 의식하거나 감성적으로 인식한 것도 아니다. 너는 곧바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논리성이 좀 떨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의미를 안다. 적그리스도 부류는 그런 존재이고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해 봤고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은 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수확을 얻을 수 없다.

2021 년 10 월 2 일

리더 일꾼의 직책(22)

지난번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3 조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 교제했다.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거라. 제 13 조에서 리더 일꾼의 직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 내용들을 교제했느냐? (폭로, 책망과 훈계, 해부, 제재, 감독 등 다섯 가지를 교제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바로 리더 일꾼이 이 직책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사역이며, 이는 리더 일꾼이 적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몇 가지 사역이다. 그럼 이 몇 가지 사역에 대해 거짓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난번에 세부 내용도 어느 정도 교제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거짓 리더 부류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첫째, 사람에게 미움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 감히 적그리스도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키지 못한다. 둘째,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모른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 넷째, 하나님 선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교란하고 미혹하는 일이 발생해도 거짓 리더는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악행이나 사탄의 계략을 폭로하지 못하며, 형제자매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를 교제하지도 못한다. 그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 동시에 분량이 작고 분별력이 없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일부 사람을 되찾아오는 사역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싸다."라는 비인간적인 말까지 내뱉는다. 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거짓 리더가 교회 사역에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몇 가지 모습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미혹하고 교란할 때 거짓 리더가 취하는 일부 행위와 행동 방식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역을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는 바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고 갖은 방식을 써서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터 주고 적그리스도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교회 사역도, 하나님 선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도 지키지 않는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교란하고 미혹하고 통제하고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문제를 거짓 리더가 제때 해결하여 적그리스도를 제재하고 격리하거나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면 하나님 선민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는 리더로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는 변형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닦아 주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선민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통제하고 심각하게 해치며, 하나님 선민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본분 이행을 교란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거짓 리더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1)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3 조에 대해서는 교제를 마쳤으니 오늘은 제 14 조를 교제하겠다. 제 14 조의 내용은 제 13 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제 14 조에서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각종 악인과 관계가 있으며, 그 범위는 제 13 조보다 좀 더 넓다. 제 14 조를 교제하기 전에 우선 이 조항의 내용을 읽어 보아라.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 이 말은 길지 않지만,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논한다면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 말에서 언급하는 리더 일꾼의 직책은 대체 무엇이냐? 이 사역에서 리더 일꾼의 사역 대상은 누구냐?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입니다.)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제때 분별한 다음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제때 분별해야 하며, 일단 조짐을 발견하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규정한 다음 제명 처리를 해야 한다. 사실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은 두 가지로, 사람을 분별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하다. 먼저 분별한 다음, 제때 해결할 방안과 조치를 마련하면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 집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라고 요구하는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대상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무척 쉬우며 난이도가 높지 않다. 예전에 하나님 집에서 각 부류를 분별하고 제명하는 사역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이 교제했고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제 14 조에서 다루는 사역은 겉보기에는 앞서 교제한 제 12 조, 제 13 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제 14 조에서 리더 일꾼의 사역 대상에는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각종 악인도 포함된다. 그 대상이 되는 각종 악인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부류의 악인이 아닌 각종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를 교제할 때는 리더 일꾼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교제해야 한다. 이런 측면 이외에도 이런 자들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재하고 격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구체적으로 교제하겠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제하기 전에 먼저 상관없는 다른 주제 하나를 교제하겠다. 모두가 아는 주제일 수도 있고, 너희가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다. 어떤 주제겠느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이 주제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해 교제하려면 그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교제하면 되잖아요. 굳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겉보기에는 관련없는 것 같다. 심지어 "그건 전혀 동떨어진 주제인데 왜 교제하나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선 교회란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라. '교회'라는 이 명사와 호칭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교제하고 나면 왜 이 주제를 교제하려고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1.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이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제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호칭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교회'라는 명칭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를 보급하려는 것이다. 우선 너희가 '교회'라는 명칭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말해 보아라. 교회란 무엇이냐?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한 다음, 좀 더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실제적인 정의를 말해 보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정의는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 이는 이론적인 정의이다. 이 정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느냐? 이론적으로 보면 이 정의도 괜찮다. 누가 더 보충해 보아라.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역을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정의는 교회가 어떤 그룹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나 이론상으로 교회를 정의한 것이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이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깨우침을 얻고, 진리를 실행하여 생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 무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방금 덧붙인 정의는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말한다. 이 모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령 역사와 생명 성장이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기본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나 이론상으로 교회를 정의한 것이다.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실행 원칙으로 삼고 진리와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생명이 성장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방금 언급된 '그룹'과 비슷하다. 더 보충할 내용이 있느냐? 더 보충할 내용이 없다면 방금 언급된 네 가지 이해를 반복해서 설명하면 되겠구나.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오면서 생각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쉽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그룹,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무리, 혹은 성령 역사와 성령 인도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모두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내린 교회의 정의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의 앞에 붙은 수식어의 내용을 너희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해 보아라.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진정한 교회에는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리스도와 진리가 권세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며 생명 진입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종교 의식을 치르지 않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정의하거나, 혹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교회라고 정의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임 등으로 교회를 정의한다면 이 호칭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 무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지와 정의이다. 교회에 대한 각 종파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는 차치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무리 사람들이다. 뒷부분은 장소라든가 그룹이라든가 혹은 모임, 공동체, 단체 등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뒷부분의 명사가 무엇이든, 결국 앞부분의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이러하다. 사람이 교회에 대해 갖는 이런 기본적인 인지나 너희가 '교회'라는 호칭을 정의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교회를 일반적인 단체나 공동체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혹은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는 것 등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역한 이후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라는 호칭에 대해 이미 마음속으로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부합하는 인지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한 건물이나 사회단체, 혹은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에서 하는 사역

교회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당장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자. '교회'라는 호칭이나 정의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고 나니, 너희는 교회의 존재 가치나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생겨나는 사역,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역할 등이 명확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의 내용은 교회의 정의와도 관련 있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해, '교회는 대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이다. 예를 들어, 건물 한 채가 있다면 그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냐? 건물의 존재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느냐? 최소한 건물은 비바람을 막아 줘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가치 중 하나이다. 두 번째 가치는 네가 힘들고 지쳐서 갈 곳이 없을 때 집은 네가 쉴 수 있고, 편히 지내며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런 건물의 표면적인 명칭이 바로 집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네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바람을 막아 주고 휴식할 공간이 되며 네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유를 누리도록 해 준다. 이와 같은 역할들이 바로 이 건물이 네게 주는 가치이다. 그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생겨나고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말해 보자. 간단히 말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너희는 명확히 알고 있느냐?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는지, 혹은 어떤 성질의 사역을 하는지, 사역 범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인지 등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 교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먼저 교회가 대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말해 보아라. (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며, 복음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는 한 항목의 구체적인 사역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자 교회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도 구체적인 사역 중 하나인데, 이 사역은 누가 담당하느냐? 지금의 복음팀이 담당한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형제자매들을 모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며, 끊임없이 진리를 깨달아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역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중요하고 주된 사역이다. 한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도록 인도하는 사역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교회 내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사역 중 하나는 외부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모두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생겨난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 더 있느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정결함을 얻어 성품 변화를 이루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다. 너희가 말한 모든 사역은 기본적으로 다 대표성을 띤다.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것, 예를 들어 여러 환경,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등을 체험하여 최종적으로 성품 변화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한 항목의 구체적인 사역이고, 교회의 출현과 존재가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이자 사람에게서 이루는 성과이다. 복음팀이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 외에, 여러 체험 간증문, 찬양 그리고 각종 영상, 영화 등도 하나님 말씀 전파 사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이자 항목이다. 그다음은 교회 생활 측면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본분 이행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마련한 여러 환경을 체험하여 성품 변화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 말이다. 이는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의 존재를 토대로 생겨난 몇 가지 사역이다. 이 몇 가지 주요 사역 이외에 일부 부수적인 사역도 있지 않으냐? 부수적인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부수적인 사역은 일부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나 일부 사무적인 사역을 뜻하지만, 하나님 선민이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는 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사람의 생명 성장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 사역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의 육적인 생존과 관련된 일부 사무 사역은 교회의 범주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농사나 양식(養殖) 등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컴퓨터나 일부 설비를 배치해 주는 것 등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는 교회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너희가 방금 교회에 대해 내린 정의가 상당히 훌륭했기에, 나는 꽤 흡족하다. 교회의 정의에서 앞부분에 붙는 수식어는 모두 사람의 생명 진입,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나아가 사람의 성품 변화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등 더 높은 진리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교회는 결코 사람의 먹고 입는 문제, 건강, 앞길 등 육적인 생활이나 육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교회는 사람의 육적인 생존이나 더 좋은 육적인 삶을 위해 생겨난 것도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저희의 육적인 생활과 생존 같은 일도 언급되어 있다고요. 저희에게 현대 예술을 좀 배우고 보건 상식과 같은 지식도 알라고 하셨죠. 이건 저희의 생존과 관련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생활은 분명 의식주나 이동, 일상적인 지출과도 관련이 있으니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들도 겸사겸사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해결되면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지출까지 책임지는구나. 이건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이자

본질적인 사역이야.'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오해했겠느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해에 문제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자질의 문제이다. 결국은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관해 방금 세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줄 알며 본분을 더 잘 이행하도록 인도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역과 주재를 체험하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려 성품 변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구원받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 몇 가지를 상당히 훌륭하게 정리했다. 이것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자 교회의 존재가 인류와 교회 구성원, 하나님 선민에게 가지는 가치와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몇 가지 본질적인 사역 외에, 사람이 교회가 하는 이 사역들을 체험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본질적인 이득을 얻겠느냐?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분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근접하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과 관련 있다.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역을 말한다. 방금 교제한 것들은 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얻는 수확이나 사람이 종사하고 체험하는 교회의 일부 사역이다. 이 몇 가지 본질적인 사역 외에 교회의 또 다른 존재 가치는 바로 사람이 인류와 세상, 흑암 권세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교제한, 교회의 세 가지 사역 이외의 또 다른 본질적인 사역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사역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사역에 비하면 부수적인 사역에 해당한다. 왜 부수적인 사역이라고 하겠느냐? 이는 사람이 앞의 세 가지 사역을 체험한 뒤 이루게 되는 한 측면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패괴 성품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게 되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 성과는 바로 사람이 이 사악한 인류와 어두운 세상, 흑암 권세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 아니겠느냐?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해야 할 기능이자 작용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작용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이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있겠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 선민이 체포되어 고문받는 일을 겪은 그런 류의 영화는 한 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잔혹한 박해를 겪을 때 보인 증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악한 인류와 어두운 세계, 흑암 권세가 하나님이나 진리를 대적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방식으로 잔혹하게 박해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폭로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인류와 세상, 흑암 권세를 인식하게 한다. "인류와 세상의 무엇을 인식하죠?"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무엇을 인식하겠느냐? (이 인류와 세상의 어두움, 사악함, 나아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류 전체의 본질을 인식합니다.) 그렇다. 인류의 사악함과 어두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류 전체의

추악한 몰골과 진짜 모습을 인식한다. 고문에 관한 영상 작품이나 개인의 체험 간증은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구체적인 예시이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와 인류의 도덕관, 혹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의 일부 사상, 나아가 중국의 도교나 유교와 같은 전통 학설, 그리고 진리를 위장한 일부 주장, 사람을 속박하며 사람의 생각을 옭아매는 일부 가풍과 가정 교육을 폭로한다.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어느 범주 안의 사역이냐? 내가 예전에 '와신상담'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분석한 내용은 세상과 인류, 흑암 권세를 인식하는 사역 중의 한 가지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한 가지 예시이다. 따라서 이 사역 또한 교회가 해야 하는 한 항목의 구체적인 사역이다. 어쨌든 교회가 하는 사역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통해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어두운 세상, 진리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온갖 행태를 폭로할 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사악한 흐름, 그리고 이 패괴된 인류의 여러 사상 관점과 그릇된 주장, 황당한 논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악한 시대의 실상과 본질을 인식하게 한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상 너희는 이미 교회 사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실질적인 유익도 얻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3 년, 5 년 따르면서 예배 시간에 진리를 교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또한, 이방인의 핍박과 비방, 그리고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의 교란 등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부지중에 이 어두운 세상과 사악한 인류, 집권 세력, 나아가 온 세상의 흑암 권세를 어느 정도 분별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확이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이런 수확을 얻겠느냐? 교회가 존재하기에 얻는 것 아니겠느냐? 교회가 하는 사역으로 얻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는 한편, 세상과 인류, 흑암 권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이해와 분별력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수확이 사람에게서 이루는 성과와 긍정적인 작용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사역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과 사역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인도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줄 알게 하며 본분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진리를 깨달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여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성품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외에 사람에게 사악한 인류와 어두운 세상을 알게 하고 흑암 권세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은 항목이 많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몹시 많다. 다루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 말씀, 진리와 관련 있고, 사람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는 것,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관련 있다.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는 더욱 관련이 깊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존재 가치이다. 교회가 하는 사역은 그것이 어느 항목이든 전부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회 사역은 모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 세상과 인류, 흑암 권세를 대하는 사람의 관점 및 태도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회의 존재는 모든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교회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 교제를 마쳤으니 이제 사람이 교회라는 호칭과 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 어떤 부적절한 정의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 보자. 우선, 사람은 교회를 비교적 아늑하고 따뜻한, 햇빛으로 가득한 곳이자 싸움, 전쟁, 살육, 피비린내가 없는 비교적 우호적인 곳이며, 사람이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행복이 가득한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교회에는 질투나 분쟁, 암투, 사악한 흐름 등 이방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이 없다고, 교회는 사람의 마음이 정박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항구라고 말이다. 사람이 '교회'라는 호칭에 대해 어떤 아름다운 상상을 품든, 결국 사람은 교회에 어느 정도 마음을 의지한다. 이렇게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에게 더욱 실리적인 작용을 하는데, 사람은 고충이 있을 때 교회에 가서 모조리 털어놓을 수 있고, 교회는 사람의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이나 생활에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고부갈등이 생기고, 동료나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농지가 악한 자에게 점유되는 것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곤경에서 벗어나 그런 일을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교회의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길 바란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장소이다. 그러니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는 사람의 마음속 피난처이자 이상적인 천국이며,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악인을 제거해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구제해 주어야 하고, 먹을 반찬과 안칠 쌀이 없으면 교회에서 배급해 주어야 한다. 입을 옷이 없으면 교회에서 사 줘야 하고 병에 걸리면 교회에서 돈을 대 치료해 줘야 한다. 일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교회의 형제자매가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뻗어 뒤를 봐주거나 연줄을 대 주거나 혹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아이가 대입 시험을 볼 때는 교회에 가서 아이가 순조롭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처리된다. 설사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크니 처리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되고, 악한 자가 괴롭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사회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난관에 부딪혀 살길이 없을 때도 교회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좋은 제안을 얻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사역이다. 그 사상 관점이나 교회에 대한 요구로 보아 사람은 교회를 복지관이나 자선 기구, 결혼과 취업 알선소나 적십자사로 여기는 게 틀림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회나 이 인류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강한 권력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일을 처리해 주며 자신의 권익을 챙겨 줄 강력한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교회는 둘도 없는 선택지이다. 그는 교회를 사회의 노동조합이나 협회, 예를 들어 교사 노조, 교통 노조, 농민 협회, 부녀 협회, 노인 협회 등과 같은 사회 단체나 조직으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든, 교회가 하는 사역과 교회의 정확한 정의로 보면 교회를 대하는 사람의 이런 태도와

요구는 모두 옳지 않고 성립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부자를 털어서 빈민을 구제하거나 악인을 제거해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곳이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도 아니다. 더욱이 세상과 사람을 구제하거나 사람의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도 아니며, 자선 기구나 복지관도, 사회의 친목 모임도 아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조직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성립되고 출현한 게 아니다. 교회는 짊어져야 하는 그 몇 가지 본질적인 사역 이외에는,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사역을 체험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외에는 이 사회나 그 어떤 집단에게도 어떤 역할이나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 밖에도 교회는 사람의 권익을 챙겨 주는 곳이 아니고, 사람의 육적인 생활, 사회적 지위, 직무상의 호칭, 임금과 소득, 사회 복지 등을 보장할 의무도 없다. 사람이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악인을 제거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람의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세상과 사람을 구제하는 것, 권익을 챙겨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교회가 언제든 도움을 주고 어떤 어려움이든 해결해 주며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사람은 교회를 사회의 한 기관이나 조직, 단체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로 그런 기관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갖는 기능과 하는 역할이 악인을 제거해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람의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세상과 사람을 구제하는 것, 권익을 챙겨 주는 것 등과 같은 일이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 역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의 단체나 조직은 단지 단체 혹은 조직으로 불릴 뿐, 교회나 교회의 그 어떤 사역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어떤 조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미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심지어 정식 모임과 경배도 있으며, 소위 성경 연구회, 기도회, 사역자 모임, 교류회 등도 있다고 해도, 그 구성원이나 구조가 어떻든 진정한 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현현 사역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함으로써 생겨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다. 교회는 사람이 조직하고 창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립한 것이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목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교회에 대한 부탁이 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사역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토록 간단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와 의미이다.

3.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교제를 마쳤으니, 이제 너희도 교회의 형성과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가 이루는 성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교회의 존재 가치와 의미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곳도, 사람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사람의 육적인 권익을 보장하거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도 아니고, 사람에게 마음의 공허함을 해소해 주어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어 주는 곳도 아니다. 교회가 사람의 관념과 상상 속의 이런 장소가 아니라면 교회의 구체적인 정의는 대체 무엇일까? 대체 교회란 무엇일까? 성경에는 교회라는 호칭에 대해 예수가 했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나온다. 원문이 무엇이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입니다.) 그 말의 뜻인즉슨 몇 명이 예배하든 성령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교회라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나 사역을 하고 진리를 선포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교회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만약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공허하게 영적 도리만 이야기하며 성령 역사를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하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 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에게 축복받는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고, 함께하는 모임이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교회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의이자 은혜시대에 교회에 대해 내린 정의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 정의는 당시 하나님이 사역하던 배경에서 생겨 난 것이다. 따라서 이 정의는 성립되며 정확하다. 말세의 현 단계 심판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고 더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도 당연히 은혜시대의 기본적인 정의보다 더욱 심도 있어야 적합하다. 하나님의 사역이 더 발전함에 따라 교회는 더 이상 단순히 성령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고, 직접 인도하고 목양하며, 하나님 선민은 하나님이 현재 하는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 말세 교회의 정의는 은혜시대 교회의 정의보다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이전의 그 정의를 토대로 더욱 심화되고, 정확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게 됐다. 물론 그런 내용들은 진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겠느냐? 우선, 기본적인 정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으며,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이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 정의의 핵심은 바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교회는 하나의 장소나 집단, 단체가 아니고, 단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더더욱 아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10 여 명일 수도 있고 30, 50 명일 수도 있으며, 당연히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들은 한데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나뉘어 예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고 다양하다.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몇 명이 모이든 모두 교회이다. 예를 들어, 50 명이 모이면 작은 교회이고 100 명이 모이면 큰 교회이다. 사람 수의

많고 적음으로 교회의 규모를 구분하면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다. 사람 수가 몇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교회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으며,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어째서 이렇게 정의하겠느냐?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직 이 사람들만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야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실행할 수 있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기에 이 한 무리 사람들에게서 교회의 정의가 생겨난 것이다. 종교인들은 진리와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 이는 교회와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친히 목양하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서 성령 역사와 성령의 인도,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다고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것이 실제적이냐, 아니면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이 실제적이냐?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성령 역사는 단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어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실행 원칙을 찾도록 사람을 인도할 뿐이다. 이로써 이루는 성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원칙을 파악한다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말씀을 했으니 사람이 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설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다. 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사 조금 깨닫는다 하더라도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말세에 직접 진리를 선포하여 친히 사람들을 인도하고 목양하며, 성령 역사는 그저 보조적인 사역일 뿐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어른이 가끔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지만 아이가 안정적으로 걷고 뛸 수 있게 되면 붙들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성령 역사는 절대적이거나 핵심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원칙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런 원칙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서 권세를 잡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령 역사를 언급하지 않겠다. 말세에 하나님이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성령 역사는 단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세밀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때 보조적이고 유도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간단한 빛 비춤을 주거나 촉구하는 역할을 하여 사람이 생활 속에서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울 뿐이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의 시대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인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성령 역사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사람들이 모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에 기대 살아갈 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교회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에서 이 '진심'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되는대로 사는 사람도, 머릿수만 채우고 이름만 걸어 놓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떡으로 배만 불리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도 아니며, 어떤 속셈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진심이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설명은 바로 하나님, 진리, 창조주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봉헌하고, 기꺼이 고생을 견디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믿음이 충만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은 지 10 여 년 된 사람도 있고 20, 30 년 된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진심만 있으면 충분하다. 믿음이 충만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의하면 되는 것이고, 문구에 얽매이거나 정의와 기준을 그렇게 높게 정할 필요는 없다. 그건 실제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한다. "'진심'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한 무리 의인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준을 그렇게 높게 정하면 뒷부분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한다'라는 구절은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핵심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이 가득하다. 더욱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패역으로 가득하고 순종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이게 가장 실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기에 교회의 구성원인 이들 무리는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이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진실로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진심이라면 어떻게 사치스러운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진심이라면 어떻게 복받으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차 변화한다. 지금은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이다. 그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최소한의 요구와 기준이다. 이 몇 가지 기준은 조금도 공허하거나 과장되지 않고, 너희의 현실적인 상황에 특히나 부합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거나 너희 중 누구라도 구원하기로 뜻했을 때는 바로 이 몇 가지를 살핀다. 네가 이 몇 가지 요구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집으로 데려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들 것이다. 실제적인 상황은 이렇다. 따라서 교회의 정의 첫 번째 구절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고 할 수 없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세상과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등진다고 할 수도 없다.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왜 그렇겠느냐?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이 무리는 구원에 이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눈에 비친 교회 구성원의 실제적인 상황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교회의 정의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면 패괴 성품이 점차 해결되지 않겠느냐?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성품 변화에 이르는 동안 너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해결하게 된다. 패괴 성품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만큼 커지지 않겠느냐? 이는 서로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소도 많아진다.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구원받는 것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교회 구성원의 실제적인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교회의 정의에서는 교회가 하는 사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교회의 정의에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에 관한 구절이 있지 않으냐? (구원받기를 추구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신을 인식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너희는 교회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과장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으며, 고급스러운 단어나 표현도 없지만 교회가 형성되거나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내가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의 유래를 설명하고 나니 이제 이해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과 교회의 정의가 아주 심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교회의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 자신이 교회를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느낄 것이다. 이제 교회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했는데, 교회의 정의는 이토록 실제적이다. 사람은 흔히 실제적인 것일수록 피상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모든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금도 피상적이지 않다. 교회의 정의에서 첫 번째 구절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이다. 여기에서 '진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진심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사람이 이 정도 진심을 갖는 것이 쉽겠느냐? 쉽지 않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경지에는

이르렀느냐? 너는 이 말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무척 이르기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본분을 이행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사람이 그 말을 따른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은 것이냐? 그것은 그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느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요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각종 사람, 일, 사물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성품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점차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다는 뜻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다'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고, 마치 대다수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는 경지에 이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은 단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일 뿐 사람은 결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구절인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너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할 뿐이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겠느냐?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행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순종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진리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늘 혈기를 터뜨리고 싶다면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해야지 혈기를 드러내거나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인식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변화하겠느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만약 네가 리더 일꾼으로 뽑힌다면 제멋대로 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줄 알며 일정 기간 체험해야만 가능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단지 말로만 원한다고 할 뿐 마음속에는 그럴 동력이 없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기꺼이 원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싶을 때 비로소 진리를 실행해 낼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속으로 달갑지 않을 때는 네가 아무리 맹세하고 남이 붙들어 준들 소용없다. 사람은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강렬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방면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모두 찾아 내어 모은 다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인식해야 하며, 공책에 적거나 자신이 보기 편한 곳에 붙여 놓고 사역하다 틈이 날 때마다 보기도 하고 읽어야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묵상하고,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인지를 묵상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순간의 열정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피로 맹세하겠어요." 그래도 소용없다. 네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할게요."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밤을 새며 고생을 견딜게요."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너는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 있어야 하며, 그 길과 방식이 옳아야 한다. 어떤 길, 어떤 방식이든 모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공들여야 하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비추어 봐야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 추구이다. 예를 들어, 사람과 왕래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내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측면에서도 그 측면의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내고,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기준에 맞는 본분 이행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내고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또한 거짓 리더가 무엇인지, 거짓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양심과 이성을 갖추었는지, 하나님이 거짓 리더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한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 내어 공책에 쓰고 자신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 진입이나 성품 변화와 관련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그것에 공들이는 것이 바로 진리 추구이다. 이 정도로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 추구가 아니라 형식만 차리고 표면적으로 이해하며 되는대로 사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에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과 하나님이 맡긴 부탁을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것 등의 모습도 다 경배라고 한다. 하나님이 네 면전에서 한 말씀이든, 예전에 선포했던 모든 말씀이든 네가 알고 기억한 것, 네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확신한 것 등 그런 것을 다 자신의 처신, 생활 등 모든 것의 준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맛, 의사, 관념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 설사 네가 많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일, 하나님이 네게 한 부탁, 네 본분과 책임에 관한 일이라면 모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해야지 소홀히 하거나 건성건성 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기가 쉽겠느냐? 이 역시 쉽지 않다. 진실로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한마디 말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교회의 정의에서 마지막 구절은 '구원에 이른다'이다. 이 말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멀고, 구원받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더욱 많다. 우선 네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권세를 잡도록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근거로 행동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면, 너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대상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 옳은 사람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희망이 있다. 교회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4. 교회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견해

방금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의 관념 속에 자리한 교회에 대한 상상과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교제했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개념을 정의했다. 정의를 마쳤으니 이제 교회라는 호칭을 정확히 인식했을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 사람이 진리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일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폭로해 보았다.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견해 중에 너희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없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에서 특정한 사역에 종사하거나 특정한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의를 실현하는 일 말이다. 사람이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 실현이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요구와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인류가 말하는 정의 실현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인류가 말하는 정의 실현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육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이며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가 진리와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인류가 말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일부 악한 세력을 처리하거나 억울한 사건과 수모를 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 혹은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약자의 이익이 회복되고 보장되는 것 등이 바로 인류가 말하는 정의 실현이다. 그럼 이런 정의 실현은 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람의 진리 추구와 관련이 있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는 그저 사람의 도의와 윤리를 토대로 생겨난 말로,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진리의 차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둘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일이다. 인류가 실현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냐? 사회적 지위가 다소 낮은 평민이 악인에게 억압당하거나 어떤 권익을 박탈당한 뒤에 악인이 응당한 징벌을 받아 평민이나 서민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람의 육적인 이익이 회복되고 보장되며 사람들 간에 상대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없으며, 악인이 뜻대로 악을 행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원통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게 인류가 말하는 정의 실현으로, 진리와는 결코 아무 관련도 없다. 너희는 어떻게 그것이 진리의 차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진리와 관련 있느냐? 관련 없다. 너희가 보기에 억울함을 당한 서민이나 평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이냐? 진리에 부합하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별개의 일인데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진리의 차원에 미친다고 말할 수 없다. 결코 같은 일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논쟁을 벌인다면, 대다수 사람은 이 정의 실현을 여전히 꿰뚫어 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왜 잘못됐지? 어떻게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닐 수 있지?' 사실 이는 교회가 하는 사역과 아무 관련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런 역할을 하여 악행이나 사악한 흑암 세력은 처벌하고, 선하고 좋은 일은 드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겠느냐? 권선징악이 진리의 차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사람은 선과 악에 관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인류가 말하는 권선징악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선벌악이나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사람이 선과 악을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선악에 대한 중국인의 정의대로라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냐? 선과 악을 정의하는 토대는 무엇이냐? 불교 문화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과 사람을 구제하는 것, 살생하지 않는 것 등이 바로 선이고, 닭과 생선,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는 것은 모두 악이며 마땅히 징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어떤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생물도 죽여서는 안 되며, 죽인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에 부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불교는 악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과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별개의 일이다. 따라서 그것은 진리와는 결코 관련이 없고, 진리의 차원에 미칠 수 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더욱 비상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가식적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물을 죽이지 않고 방생하는 것이 선이고, 악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하든,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7 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면서 조건도, 원칙도 없이 되는대로 사람을 구한다. 마귀도 구하고 악인이나 불량배도 구하고, 아무나 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선이냐? 이런 사람은 바보이고 아무런 분별력도 없으며 입장이나 원칙도 없다. 아무나 구하고 아무나 용서한다면 그 선이 성립하느냐? 선이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다. 그건 사탄 마귀가 꾸며 낸 것이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집어 삼키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선으로, 사실은 꾸며 낸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관념 속에서 권선징악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종의 문화적 배경이든, 어떤 종교의 문화적 배경이든 권선징악은 교회 사역이나 교회가 하는 증거와 관련이 없다. 너희는 이 단어가 꽤나 정의롭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 사역과 관련 있고 사회에서 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다. '정의 실현', '권선징악'이라는 두 단어 이외에도 '권익을 챙긴다',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와 같이 사람이 관념

속에서 생각하는 이런 좋은 말 역시 교회 사역이나 교회가 하는 증거와는 관련이 없다. 이제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교회의 정의와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 그리고 교회의 존재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교제했다.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다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로 돌아가자. 그리고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방금 교제한, 교회에 관한 각 내용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자.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교제해야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리더 일꾼이 하는 이 사역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그런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존재는 교회 사역을 가로막고 교란합니다.) 그러니 관련이 있는 것이다. 쓸데없이 이런 내용을 교제하는 게 아니다. 교회라는 호칭이나 정의에 관한 여러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했으니 이어서 리더 일꾼이 교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 여러 부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역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책임을 다해 교회의 사역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살펴보자. 우선, 리더 일꾼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교회가 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 현재 교회 구성원 중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가 하는 사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혹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고 해로운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심할 경우 교회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자들을 명확히 분별하고 제때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역을 잘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 있겠느냐? 각종 악인을 제명하거나 출교시켜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게 하려면, 리더 일꾼은 우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고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할 때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이자 실제 상황이다.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을 할 때 우선 각 부류를 분별하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 각 부류를 분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어 진정으로 교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잘 보호한다고 해서 제 14 조의 사역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교회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불신파와 악인을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악인으로 규정되든 적그리스도로 규정되든,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조건에 부합하다면 그 사역이 생겨난다. 즉, 리더 일꾼이 직책을 다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먼저, 각 부류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교제해 보자.

1.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근거로 한다

각 부류를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따라 분별한다. 둘째, 인성에 따라 분별한다. 셋째, 본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분별한다. 간단한 소제목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목적. 둘째, 인성. 셋째, 본분을 대하는 태도. 지금 이 세 가지 소제목을 제시했는데, 각각의 제목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전에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인성과 본분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 측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으니 좀 더 익숙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너희에게 아주 낯설지는 않다. 너희 스스로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에게 이 주제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려는 세부 내용은 조금 낯설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어느 측면에서부터 이야기하려는 건지 몰라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간단히 말해 보자. 너희는 어떤 속셈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이 제명되거나 출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고 권력만 잡고 싶어 하며 지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부류이다. 또 있느냐? (복받는 것만 추구하고 떡으로 배불리려고만 하는 불신파도 제명되거나 출교되어야 합니다.) 불신파도 제명되거나 출교되어야 할 부류 중 하나이다. 더 있느냐? 너희는 마음속으로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류가 패괴 성품을 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제명되거나 출교돼야 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분별하지 못한다. 파악이 안 되고 좀 혼란스러워져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관련된 범위가 다소 넓다. 누구나 어느 정도 속셈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불순한 몇몇 부류는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최소한 힘쓰는 자에도 이르지 못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러 오든 결국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으로, 기회가 생기면 그 목적을 이루려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악을 행하고 교란하려 들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은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이다. 우선 이런 자들의 인성이나 본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는 차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 말하자면, 결코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당연히 구원받는 결과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자들을 교회에 남겨 하나님 선민과 진정한 형제자매를 계속 교란하게 두기보다는 일찌감치 정확하게 분별하고 성질을 규정한 다음 제때 교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낫다. 그들을 교회 구성원, 형제자매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몇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방금 막연하게 개념적인 것들만 좀 말했으니 내가 실제 사례를 말해 보겠다. 듣고 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1) 관직에 오르려는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

우선 교회에서 마땅히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 첫 번째 부류에 대해 말해 보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늘 관직에 올라 가문을 빛내고 싶어 하지만 벼슬길이 순탄치 않다. 그런데도 관직에 오르려는 그의 욕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그의 가정은 사회에서 지위가 높지 않아서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이 정도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식과 재능은 좀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으며, 비빌 언덕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관직에 오르는 것이 너무나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교회를 발견한다.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면 그것도 관직에 오르는 것이니 욕망이 충족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 집에 와서 큰일을 한번 벌이려고 한다.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 관직에 올라 지위 높은 사람이 되는 바람을 실현함으로써 한평생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복숭아를 내놓으면 자두로 보답받을 것이다', '실력이 있으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 '좋은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앉는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바라보며,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한다. 그의 본질을 볼 때, 그는 세상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고 구세주가 있다고는 더더욱 믿지 않는다. 요컨대 유일한 참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의 존재는 더더욱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본 것이든, 종교계에서 전한 것이든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했고, 인류를 주재하고 인도한다는 일련의 말은 그에게 일종의 역사적 기록일 뿐이며 아무도 고증하거나 검증하지 못하는 일종의 전설이나 이야기, 종교 문화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가 신앙에 대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다. 그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은 바른길을 걷고 있다고, 나쁜 길을 버리고 바른길을 택했으며, 자신은 좋은 새여서 좋은 나무를 가려서 앉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관직에 올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려는 선택과 염원은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사는 드넓은 세상 속에는 자신이 몸을 기댈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 집만이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오직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형세로 보아 바깥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으며,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결한 땅이자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정신적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오직 교회만이 갈수록 번창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염원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 진리를 추구하는 일, 진리에 관한 일,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사역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추구하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다. 마음속으로 지위와 벼슬길을 전혀 내려놓지 않으며 계속 이런 관념과 관점을 품은 채 교회에서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사회 조직이나 종교 단체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맹신으로 생겨난 일종의 착각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진리 추구,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언급하기만 하면 속으로 반감을 품고 거부감을 느낀다. 또 누군가 이는 하나님의 행사이자 주재, 지배라고 하면 그는 반감을 품는다. 그러나 아무리 반감을 품어도, 아무리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는 교회에서 한자리 차지해 벼슬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려는 시도를 결코 줄이지도, 내려놓지도 않는다. 이런 야심과 욕망을 품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 모습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거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사실 사람의 생각과 말에도 옳은 게 많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만의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해요." 등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는 이런 말을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은사,

나아가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온갖 수단과 수법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과 우러름을 받으려 한다. 그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남들에게 우러름과 추앙을 받기 위해서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를 얻고 이를 통해 벼슬길을 추구하여 가문을 빛내려는 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누가 그를 존중하거나 치켜세워 주면, 추종하거나 옹호해 주면, 추대하거나 추앙하고 심지어 아첨하면 그는 흡족해할 뿐 아니라 질려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누린다. 하나님 집에서 늘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폭로하고, 사람들의 온갖 패괴 성품을 들춰내더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특히나 반감을 품는다. 그는 세상과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그저 계속 지위를 추구하고 남들에게 우러름과 추앙 받기를 추구한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이번 생에 백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며,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직에 올라 고관 나리가 되고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교회에 틀림없이 존재하는 이 부류는 섞여 들어온 악인이다. 교회는 이런 부류가 하나님 선민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부류는 마땅히 제명해야 할 대상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속셈과 목적,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을 결합해 보면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불신파입니다.) 그렇다. 불신파이다. 그는 불신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지위와 앞길을 추구해 벼슬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관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럼 왜 이 부류를 정리해서 내보내야겠느냐? 어떤 사람은 "만약 불신파가 하나님 집에서 힘을 쓰면서 교우로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남겨 두어도 별지장이 없지 않나요?"라고 한다. 이 말이 성립하겠느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겠느냐? (관직에 오르려 하는 그의 행동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교란하고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롭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진리 추구에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든 불신파는 진리에 맞서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는 그를 남겨 둘 수 없다. 그는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관직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불신파인 그는 말과 모습, 행태만으로도 교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긍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다. 어떤 형제자매가 여러 환경을 체험한 뒤 "이건 하나님의 주재이니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신파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나서서 교란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한다.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재라고 해서는 안 돼. 어느 정도 주관과 독립성을 갖춰야지. 모든 걸 하나님의 주재와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그럴싸한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 이는 뻔뻔스러운 게 아니겠느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능숙하게 음모를 꾸미고 수단을 부렸겠지만 하나님 집에서 그런 짓은 먹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열었는데 다들 그 병원은 주사가 아프지 않다며 거기서 치료받기를 좋아한다. 왜 주사를 맞아도 아프지 않겠느냐? 바늘 끝에 마취제를 발랐으니 아플 리가 없다. 이게 비법이겠느냐? (아닙니다. 그건 음험한 수법입니다.) 그 사람은 비법이라면서 자랑까지 하고, 그게 재간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둥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주재하신다는 둥 이런 말이나 할 줄 알지 나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는 뻔뻔스러운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음험한 수법을 뭘 자랑까지 한단 말이냐! 불신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섞여 들어온 이 부류는 교회가 마땅히 제명해야 할 대상이다. 왜 그렇겠느냐? 이 부류는 마음속으로 진리에 맞서고 진리를 싫어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든, 그 목적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불신파라는 그의 본질에 따라 교회는 마땅히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이 부류의 불신파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섞여 들어와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포부를 실현하고 바람을 이루려 한다. 또 교회라는 귀한 장소를 빌려 권력을 잡고 자신을 과시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 선민과 교회 사역을 교란하거나 방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니 이런 부류는 하나님 집에서 반드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이며, 리더 일꾼은 반드시 이 부류의 불신파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의 모습을 근거로 하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의 일관된 주장을 근거로 하든,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그가 불신파 부류임을 명확히 분별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땅히 제때 결단을 내려 그를 내쳐야 한다. 어떤 방식과 지혜를 활용하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를 정리해 내보내라. 이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하고 담당해야 하는 사역이다. 또 이는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 부류이다.

2) 이성(異性)을 찾는다

그럼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일을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분수를 지키고 착실하다는 말을 듣고는 교회에서 이성 친구를 찾아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의 속셈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러 교회에 온다. 이 부류의 불신파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창조주나 진리, 구원받는 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 본분 이행 등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설사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속에 새기려 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만 하며, 당연히 더 많은 사람과 더 넓은 범위에서 접촉하길 바란다. 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은 말한 적도 없고 따로 당신에게 언급한 적도 없잖아요!"라고 말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본분을 이행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할 때 늘 이성을 찾으며, 누가 마음에 들면 항상 그 사람을 찾아 교제하거나 접근하고 그의 각종 정보를 캐묻고 그에 대해 알아본다. 리더 일꾼은 그의 이런 심상치 않은 행동과 모습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지,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왜 이성만 찾아 접촉하고 왕래하며 늘 이성과 많이 대화하고 이성에게 유독 호감을 느끼는지, 특히 왜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유독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개인의 체험을 교제하는 일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려고 이성 친구를 찾는 데만 몰두한다. 만약 이성 친구를 찾으면 그를 따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설사 추구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지한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인성이 괜찮아서 남을 돕기 좋아하며, 최선을 다해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남을 포용해 주기도 하거나 혹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혹은 조언을 좀 해 주기도 한다. 그는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친절하며 아무 악의도 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목표는 그리 떳떳하지 않다. 게다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누가 진리를 교제하든 받아들이지 않으며, 6 개월이나 1, 2 년 하나님을 따라도 그다지 변화가 없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교란하거나 방해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다. 그럼 이런 부류를 교회에 남겨 두는 게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는 정리해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에 관심이 없고 구원받는 대상이 아닌 데다가 교회에 남겨 두면 늘 결혼 상대를 찾느라 남들을 교란하여 시험에 빠뜨리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육식을 특히나 좋아해서 고기를 먹게 되면 사역하는 것을 잊는다. 먹을 고기가 없을 때는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면 사역이 지체된다. 그렇다면 그에게 고기는 무엇이겠느냐? (시험입니다.) 시험이다. 그럼 늘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부류는 시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시험의 근원이다. 이런 부류에게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에 융화될 수 없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난 몇 년간 어울리면서 우리도 당신의 목적을 알아차렸어요. 당신은 교회 안에서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사람을 해치는 것 아닌가요? 교회에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 중에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이 많으니 이방인들 사이에 가서 찾으세요." 그 뜻인즉슨 "우리도 알아차렸어요. 당신은 하나님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 집의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할 수 없어요."라고 알려 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집의 원칙대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턱대고 애인을 찾거나 아무렇게나 꼬셔 대는 사람을 정리해 내보낼 수 있다. 이 부류는 분별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 역시 불신파이다. 그들은 교회와 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회로 하나님을 믿는 결혼 상대를 찾아 그가 자신과 함께 살며 자기에게 우마처럼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의 바람을 들어줘야겠느냐? 교회가 이런 일을 처리해 줘야겠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의 개인적인 기호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없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와 잘 살 수 있고 바른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소용없다. 어떻게 생각하든 마찬가지다. 대다수 교회에 똑같이 이런 부류의 불신파가 존재하는데, 이자들을 처리할 때는 방금 교제한 방식을 써도 되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도 된다. 원칙대로 처리하고 해결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불신파를 각종 악인의 대열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신파를 대하는 방식이다.

3) 재난을 피한다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는 자들에는 또 어떤 부류가 있겠느냐?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런 목적이 섞여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류가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이고, 어떤 부류가 정상적으로 패괴를 표출하는 것에 해당해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겠느냐? 절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재난을 피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너희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조건에 부합하는 이 부류의 불신파를 분별해 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는 재난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예배에 참석하고 이전에 교회에 반납했던 하나님 말씀 책을 다시 가져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난이 지나가거나 그 규모가 작아지면 다시 돈을 벌러 장사하러 가고 연락처도 전부 차단해 버려서 형제자매가 그를 찾아 예배하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연락이 닿지도 않는다. 재난이 닥치면 자발적으로 형제자매를 찾지만, 재난이 지나가면 형제자매가 그를 찾기 어렵고 그와 연락이 닿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는 매우 두드러지는 모습 아니냐? (그렇습니다.) 재난이 없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해요. 삶을 계속 꾸려 나가야 한다고요. 매일 집에서 요리도 해야 하고 아이를 등하교시킬 사람도 필요하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게다가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생활비가 다 돈인데 돈을 안 벌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현실 감각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는 구구절절 조리 있게 말하고 이유도 잔뜩 늘어놓는다. 또 돈을 벌어 살림을 꾸리는 데만 몰두하고 예배에 어쩌다 한 번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도 거의 읽지 않는다.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재난이 닥치면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부르짖어야 해요! 저는 재난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살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말만 늘어놓는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몇 권씩 나눠 줬는지, 설교를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 생활에서 어떤 진리를 교제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6 개월이나 1 년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해서는 "이방인은 정말 못됐어요. 사회는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사악하죠. 아등바등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우신 부담은 가볍죠...."와 같이 쓸데없는 헛소리만 떠들어 대는데, 예배에서 교제하는 주제나 내용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또 기도할 때는 빈말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피상적인 말만 몇 마디 하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평안해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런 자는 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그에게 "왜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않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여건이 안 돼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이니 순종해야죠."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냐!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련해 주신 이 환경을 보세요.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림을 꾸려야죠! 지금은 돈을 버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임무예요." 그는 본분 이행이나 피조물로서 자신이 갖는 책임과 의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끔 예배에 참석해 몇 위안을 봉헌하고는 자신이 하나님 집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며칠 지나 아이의 병이 나으면 바로 교회에 가서 약간의 헌금을 하지만, 얼마 후에는 또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매번 형제자매와 접해도 전혀 진리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는다. 재난이나 화가 닥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 자질구레한 집안일, 시시비비, 육적인 생활, 각종 사회 현상, 온갖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만 말할 뿐 하나님 말씀은 거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속마음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교회에 이름만 걸어 둔 채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구할 뿐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평안이나 복만 구할 뿐 진리는 조금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득과 은혜, 축복을 얻으려 한다. 또 내세에 어떻게 되길 구하지도 않는다. 내세를 보지 못해서 아예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이번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과 교회는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는 예배에 참석할 때면 분명 어려움이나 재앙에 부딪힌 것이다. 그럼 이런 부류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겠느냐? (투기꾼이요, 불신파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교회를 이용해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불신파이다. 이런 부류를 교회에 남겨 둬야겠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면 사람을 교란하여 마음을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낯가죽이 얇아서 그를 저지하기 곤란해하기 때문에 그가 제멋대로 지껄이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교란하게 내버려둔다. 이때 리더 일꾼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를 제재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대다수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책을 회수하고 물러나도록 권고해도 된다. 물러나도록 권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너희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여 그가 형제자매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만약 누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교회에 와서 자질구레한 집안일이나 얘기할 뿐 교회 사역을 교란하거나 우리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그를 포용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양한 사람을 포용과 인내로 대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구원받을 대상인지 살펴보아라.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분별하고 제명해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혹자는 "저는 얼굴이 두껍지 않아서 그에게 물러나라고 권고하기가 좀 그래요."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그와 연락하지 않으면 그에게 방해받지도, 속박받지도 않을 것이다. 설사 그를 만나더라도 상대해 주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방인으로 대하면 된다. "그럼 사랑으로 도와주면 안 되나요? 저희가 깨달은 진리를 그에게 교제해 주면 안 되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불신파에게 정말로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시도해 봐도 된다. 정말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제명하거나 출교시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아요. 그를 도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돼지를 씻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결국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뒹굴잖아요. 돼지는 원래 그런 동물이라서 변하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네가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옳은 것이다. 너는 이 부류의 불신파에게도 진리를 교제해 도와주겠느냐? 그런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겠느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쯤 돼야 자신이 어리석고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했으며 불신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런 부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함정에 빠뜨려 기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감을 좀 갖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회에 섞여 들어옴으로써 남들이 그를 형제자매로 여기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속아 넘어가 정말로 그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늘 그를 찾아가 도와준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아차린다. "그 사람은 재난이 닥쳤을 때만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헛소리를 늘어놔요. 별 탈 없이 평안하고 무사히 지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요. 이런 천박한 인간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그를 도와주지도, 그렇게 공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라고 말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후회해도 늦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헛되이 늘어놓은 것이냐! 어쨌든 이런 부류의 불신파는 가능한 한 빨리 분별하고 해결하며 교회에서 제명해야지, 형제자매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형제자매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말로 형제자매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형제자매라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 눌러앉아 재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 할 뿐, 진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불신파지 형제자매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민은 더더욱 아니다. 알겠느냐? 이 부류의 불신파는 반드시 원칙대로 대해야 하고, 마땅한 방식으로 처단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의 책임이자 모든 하나님 선민이 명확히 알아야 하는 원칙이다.

2021 년 10 월 23 일

리더 일꾼의 직책(23)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2)

지난 예배 때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에 관해 교제하면서 그중 한 가지 내용인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 교제를 마친 후, 너희는 이 내용이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 교제해 주신 후, 저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회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며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별한 다음, 그들을 제명하고 출교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리더 일꾼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려는지, 교회의 탄생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자매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파악하게 되면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를 알게 되고, 원칙의 기초를 갖추게 된다. 이는 이론적 측면에서, 또 이상(異象) 측면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후에 리더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각종 악인을 분별할 때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하고자 하는 사역 등 몇 가지를 근거로 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는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를 세 가지 큰 내용으로 나누었다.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인성, 본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전면적이지 않으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각종 사람을 분별할 때 왜 진리를 사랑하는 정도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정도를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인성, 본분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삼는 것입니까?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왜 사람이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등 진리와 관련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나요?"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인성, 본분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 제목으로 볼 때, 이 세 가지가 과연 얕은 내용이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조차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를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가 교회의 구성원에 속하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일원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불합격이라면 그런 사람은 분별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각종 악인에 속하는 자들로, 제명하거나 출교해야 할 대상이다.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또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구성원인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가 기준에 맞는지, 통과했는지를 봐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형제자매가 아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겠느냐?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합니다.) 분별되는 순간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대상이 된다. 바로 이런 것이다.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1.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근거로 한다

4) 투기하다

지난 예배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관해 세 가지를 열거했다. 항목을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는 관직에 오르려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성(異性)을 찾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재난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교제를 마쳤으니 이제 네 번째 항목에 관해 교제하겠다. 일부 사람들은 순전히 투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투기하는 것'이다. 혹자는 종교계의 각 종교, 각 교파가 황폐해지고 성령 역사가 없으며,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가고, 갈수록 타락하고, 구원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음에도 아무 수확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버린 종교계를 보며 출구를 찾는다. 그는 '지금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고 번성하며 발전 전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교계가 대적하고 정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매우 번성하고 성령 역사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잘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발전 추세가 좋다고 들었어. 인력과 물력, 재력이 모두 풍부하고 발전 전망도 있다고 말이야. 이 기회를 잡아 그 교회에 가입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앞날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는 이런 속셈과 목적을 갖고, 또 약간의 호기심을 품고 교회에 섞여 들어온다. 이런 부류는 교회에 섞여 들어온 후에도 진리, 하나님을 믿는 것, 생명 성품의 변화 등에 관심이 없다. 그가 교회에 가입한 목적은 그저 든든한 백이나 머물 곳을 찾아 자신이 원하는 앞날을 얻는 것뿐이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령 역사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투기꾼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어느 업계에 뛰어들든 기회를 잡아 명리와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위해 투자하며 대가를 치를 뿐이다. 자신이 몸담은 분야나 업계에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특기를 발휘할 수 없고 출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는 수시로 이직이나 전업을 고민한다. 이런 부류는 무슨 일을 하든 때를 엿보며 행동하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도 속셈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번성할 때, 사회나 어떤 나라에서 입지를 다지고 발전 전망이 있을 때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교회 사역에 몸 바치지만, 교회가 억압과 제재를 받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할지 고민한다. 이 부류가 교회에 들어온 진짜 목적은 분명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사역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그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명성이 있고

규모가 크며 인원이 많은 교회, 특히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 그들에게 있어 이런 교회만이 그들의 기준에 맞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동경하거나 추구하는 목표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진리를 믿은 적이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한 적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끔 교회를 위해 일을 좀 처리하거나 교회의 일부 사역에 몸 바치는 것 같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그들의 한결같은 태도는 먼저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그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복을 언제쯤 얻을 수 있을지, 단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을지, 실현될지 보는 것이다. 그들은 늘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호기심을 품고, 한번 시도나 해 보자는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면 복을 받고 손해 보지 않을 거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겉으로는 남들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규칙을 잘 지키며 방해와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 못된 장난을 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을 명백한 불신파로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는 얻고자 하지 않고 투기로 복만 얻으려는 이런 불신파를 어떻게 분별해야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사상 관점,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변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와 각종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관점과 사탄의 철학만 고수하면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벼슬아치는 뇌물 주는 자를 때리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다." 등 사탄의 철학과 논리가 맞고 옳다고 인정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좋은 사람은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살생은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어떤 관점이냐? 불교의 관점이다. 불교의 관점은 사람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할지라도 진리는 전혀 없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의 그릇된 관점과 종교계의 잘못된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보배로 여기며 고수하는데, 이런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그들은 과연 무엇이 사람의 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가 사탄 마귀이고 누가 유일한 참하나님, 창조주인지, 이런 일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포한 그 어떤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과 세상, 모든 일을 대하는 자신들의 사상 관점도 절대 바꾸지 않고,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던,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관점만 고수할 뿐이다. 그 관점들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통문화의 잘못된 관점을 고수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불신파가 보이는 한 측면의 모습이다.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의 열정, 그의 정서, 그의 믿음이 교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에서의 지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이 해외로 확장되고 규모도 커지며, 복음 사역이 완전히 확장되었을

때, 그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 힘이 났다. 교회의 기세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더는 정부의 탄압과 박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데 희망이 생겼다고,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내기였고, 자신이 건 패가 마침내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복받을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여기며 드디어 기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몇 년간 큰 붉은 용이 크리스천들을 탄압하고 체포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은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다. 왜 견디기 힘들었겠느냐? 교회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노심초사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거취 문제로 번뇌하고 근심했다. 그 몇 년은 교회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닥치든 그의 기분에 영향을 미쳤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의 명망과 지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복을 겪든 그의 기분과 정서는 그 영향을 받았으며, 떠날지 남을지 그는 늘 마음속으로 고민했다. 이런 부류는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교회가 국가 정부에 의해 정죄되고 탄압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종교계에 의해 판단과 정죄, 비방을 받고 배척당하면, 그는 자신이 교회에 가입한 것을 깊이 부끄러워했고, 심지어는 크나큰 치욕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마음이 동요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교회와 고락을 함께하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교회가 번성할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교회가 박해받고 배척당하고 억압받고 정죄될 때는 도망가거나 떠나고 싶어 한다. 복받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나라 복음이 확장될 희망도 안 보일 때, 그는 더욱 떠나고 싶어 한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이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대재난이 언제 내리고 언제 끝날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실현될지도 몰라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평온히 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다른 출구를 찾으려 한다. 이런 부류는 불신파 아니겠느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사상 관점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진리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점차 바뀌는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끄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소원대로 그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기에 교회에 가입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불신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든, 외부에 어떤 일이 생기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추구 목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저울질한다.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그들은 아주 민감하게 즉시 자신의 앞날과 이익, 거취 문제를 떠올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캐묻는다. "작년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대체 언제 끝나죠? 저는 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오래 견뎠고, 제 시간도 소중하고 제 청춘도 소중한데 이렇게 계속 허비할 순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여부와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교회의 지위와 명성에 무척 민감하다. 또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얻을 수 있을지,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님 집에 머물며 이익과 복을 얻을 수 있을지 등에는 무척 민감하다. 이런 부류는 모두 투기로 복을 얻으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끝까지 믿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 간증을 조금도 얘기하지 못한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실 모든 교회에 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너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한다. 이런 자들은 모두 불신파로, 하나님 집에 남아 있으면 화근이 되는 백해무익한 자들이니 반드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다.

투기하는 이 부류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정리해 보자.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가 그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정말 이루어질지, 큰 재난이 정말 내릴지 보려는 거니까요." 그의 사상 관점 속에서 보이는 태도는 하나님이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것은 우스운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신앙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에게 게임과 같을 뿐, 진리나 인생의 길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사실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존재해도 그만 존재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누가 반박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는 괴로워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만약 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그는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믿으면 존재하고, 믿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는 불신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 진심이겠느냐? 그럴 리 없다. 투기하는 이 부류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투기하는 이 부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말과 사람, 일, 사물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어떤 말과 사람, 일, 사물이 부정적인 사물인지 그는 분별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좋은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거짓말도 천 번 하면 진리가 된다."라는 이방인들의 말이 그에게는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네가 그에게 무엇이 진리냐고 물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의 진짜 관점은 거짓말을 천 번, 만 번 하면 진리가 된다는 것이다. 즉,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긴다. "세상에는 본래 길이 없었으나,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생겼다."라는 이방인들의 말처럼 말이다. 그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의로운 것과 사악한 것을 따지지 않으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옳고, 칠칠치 못하고 무능한 사람은 부정적이라고 여긴다. 그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한 것이 전부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아 내라고 요구한 것들이 모두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그릇된 논리도 말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라고 하시는데,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물이 없다는 겁니까? 세상에도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가 있지 않나요?" 이는 헛소리 아니겠느냐?

그릇된 논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칙으로 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가 그릇된 논리를 말해 네가 반박하면 그는 이렇게 대꾸한다.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둘 다 서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죠." 이는 어떤 관점이냐?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흐리멍덩한 관점이다. 이런 부류는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긍정적인 사물은 모두 진리와 관련 있고, 진리에 부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부정적인 사물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개념을 혼동하려 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분별하는 것과 정죄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관점을 드러내지 않으며, 말할 때도 애매모호한 소리만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맞춰 말한다.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식이다. 이런 부류는 어떤 측면에서든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도 관심이 없다. 이것이 투기하는 부류의 두 번째 모습,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투기하는 이 부류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들은 사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자신의 거취를 선택하며, 특히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대처한다. 그는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자신의 퇴로와 앞날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 놓았고, 모든 절차를 계획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계산과 계획이 있다. 이 부류는 교회에 들어온 후에도 결코 전심전력으로 교회 사역에 몸 바치지 않고, 항상 교회의 발전 상황과 교회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 방식 등을 관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한다. 이들의 생각이 꽤 복잡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왔지만, 마치 계약직 직원처럼 늘 '한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 언제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속셈과 계산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로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난 차선책일 뿐, 그의 마음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바른길을 가고자 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 이 부류는 관망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속으로 '만약 하나님을 믿어 이번 생에 백 배를 얻고 내세에 영생을 얻으며, 또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도 따라 믿겠지만,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 믿지 않겠어.'라고 계산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투기로 복을 얻기 위함이다. 복을 얻지 못하는 순간, 언제든지 본분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위해 다른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은 교회에 뿌리내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을 진실로 선택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투기하는 이 부류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즉,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며, 그 외에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잘해 줘도 자신의 이익이나 현재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돌아오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는 돌아와서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언제 또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 이는 어떤 인간이겠느냐? 그는 떠나고 머무는 것이 너무도 제멋대로이며, 하나님을 믿는 데 진심이 아니다. 투기하는 부류의 특징은 이러하며, 그는 본질적으로 불신파이다. 어떤 이는 오직 투기로 복을 받기 위해 3~5 년을 믿고, 어떤 이는 8~10 년을 믿는다. 이런 부류는 만만치 않다. 박해받는 중국 본토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디다니, 약간 와신상담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10 년을 믿다가 견디지 못하고 "10 년이나 됐어. 내 청춘을 교회에서 허비했어. 그 10 년 동안 세상에서 돈을 벌었다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어쩌면 벌써 사장이 됐을지도 모르지. 아마 많은 재산을 모았을 거야."라고 불평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는 10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그 약간의 호기심과 복받으려는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을 뿐, 시종일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꾸짖는다. '이 바보, 멍청이! 양지바른 큰길은 안 가고 왜 하필 외나무다리를 건너려고 한 거야? 아무도 너한테 강요하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 원한 거잖아!' 어떤 이는 10 년을 믿고도 떠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 버린다. 하지만 사회에서 2~3 년 지내다 보니 사회에서도 상상처럼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이방 세계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채롭고 이상적이지 않으며, 어디에서든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도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 뻔뻔하게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방인들은 나빠요.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저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 빠져 날마다 울며 이를 갈았죠. 사람 같지도, 귀신 같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입으로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재난이 너무 많고, 인류가 곧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이며, 돈과 땅과 차와 집이 있어도 소용없고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는 투기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투기하는 자는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교회로 돌아와 복받을 희망이 있어 보이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돌아와서는 후회의 말을 몇 마디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얼마 후 세상이 평온해져서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면 언제든 다시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냐?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 시장으로 여긴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제명되거나 스스로 떠난다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교회가 받아들여야겠느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으로,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부류는 교회 구성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는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복을 받기 위해 언제든 다시 교회에 섞여 들어올 수 있지만 끝까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결코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제명되고 출교되어야 할 대상이다. 교회에서는 그를 제명하고, 이렇게 알려 줘야 한다. "후회하지 마세요.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위해 두 번 다시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그때는

어리석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어린 면양처럼 온순하고, 집 없는 부랑자처럼 불쌍하죠.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후회하고 죄스럽다는 말을 해요. 후회로 하도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니까요. 참 불쌍해 보여요. 죄를 인정하는 태도도 좋으니 돌아오게 해 주죠." 이 말 중에 원칙에 맞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3 년, 심지어 10 년을 믿고도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니, 이는 어떤 인간이겠느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겠느냐? 없었다.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다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껏해야 연약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은 지 3 년, 5 년, 심지어 10 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 다른 출구를 찾겠다고 결심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 참도(道)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부류를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그는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투기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부류는 투기꾼으로 규정되고, 분별하는 순간 교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만약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회를 틈타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아무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런 투기꾼들의 갖가지 모습에 대한 교제를 통해 리더 일꾼과 하나님의 선민들은 모두 이 부류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별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긍정적인 사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엄밀하게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속셈과 목적을 살펴보고, 교회와 진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태도가 없고, 진리 추구와 본분 이행에 특히 냉담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부류를 투기꾼이자 불신파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을 형제자매로 여기지 마라. 그들은 교회의 일원에 속하지 않으니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그는 그동안 믿으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리를 더 교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계속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겠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공을 들이지 말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도 마라. 만약 그가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며, 교회에 눌러앉아 떠나지 않으려 한다면, 교회 리더는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 그를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는 투기꾼으로 분별되는 순간, 이미 각 부류의 악인이나 불신파로 분류된 것이다. 그는 악인과 불신파에 속하므로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원칙과 조건에 부합한다. 일찍 제명하는 것이 늦게 제명하는 것보다 분명 낫다. 일찍 제명하면 많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그 자신도 더 이상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류에게는 분명히 알려 줘야 한다. "언제 떠날지, 어떻게 떠날지 마음속으로 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당신의 거류 문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교회에서는 만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해 둘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집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내키지 않다면 시간 끌지 말고 얼른 떠나십시오.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며, 기꺼이 교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당신은 정당한 교회 구성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렇지 않죠. 당신은 투기하러 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각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원칙에 따라 당신을 투기꾼으로 분별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교회를 떠날 적당한 때를 계산하는데,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때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도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에 대해 늘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 분명히 말해 주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난감해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도 됩니다. 하나님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나님 집에서는 당신을 붙잡지 않고, 당신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그에게 '살길'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매일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시달리게 하지 마라. 괜히 감정과 육체, 앞날, 거류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게 하지 마라. 아무리 시달려도 결과는 나오지 않으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언제 떠날지, 어떻게 떠날지 궁리하고 있다. 일찍 떠나자니 손해 보고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오래 머물러 있자니 복을 받을 수는 있을까,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뤄지면 어떡하나,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늘 이런 일로 걱정하고 조바심 낼 필요 없다. 기꺼이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에서 기회를 틈타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머릿수만 채우지 말고 얼른 떠나라.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렇게 권하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 (좋습니다.) 투기꾼들을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각종 악인 부류로 분류하는 게 지나친 것 같으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악인이라고 할 수 있죠?"라고 말한다. 불신파 중에 괜찮은 인간이 몇이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성품 본질도 하나님 눈에는 악으로 간주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느냐? 그들을 악인 부류에 분류하는 게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를 악귀로 분류하지 않고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를 악인 부류에 분류하는 것은 더없이 적절하고 적합하며,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부류의 악인 또한 하나님 집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여러 부류 중 하나다. 이는 네 번째 부류인 불신파로, 투기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투기꾼들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런 부류를 접하고 그들이 드러내는 성품, 관점, 태도나 인성을 관찰하면서 주로 어떤 특징을 발견했느냐? 정리해 보아라. (투기꾼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무척 번성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집에서 얼마간 이점이나 복, 이익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얻지 못하면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투기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주로 진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복받는 데는 무엇보다 관심이 많아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혹자는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이 부류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진리를 교제하지도 않는 데서 드러난다. 누군가가

진리를 교제하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거나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무척 싫어하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졸기 시작한다. 또 극에 달하도록 싫으면 잡담을 하거나 재난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에 대해 말하며 사람들이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중 일부가 이런 화제를 듣고 흥분해서 그와 함께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되니, 이는 명백히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평소 하나님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데, 가끔 읽는다면 그것은 아마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는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저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까? 대재난은 언제쯤 끝나지? 언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며 생각할 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한다. 만약 아무도 이런 화제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그는 혼자 인터넷을 찾아본 뒤 예배에 와서 그런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그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의 관심사와 관련된 화제를 교제하기만 하면 곧바로 맞장구를 치고 함께 교제한다. 하지만 진리나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만 들었다 하면 듣기 싫어한다. 졸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는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귀를 긁적이며 온갖 추태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봐요."라고 하면 그는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셔야겠어요."라고 한다. 또 네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좀 교제해 봅시다."라고 하거나 "본분 이행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진리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라고 하면 그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세요."라고 한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사양하고 거절하는데, 이는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진리를 싫어하고 반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해 언급만 했다 하면 그는 대놓고 반대하거나 논박하지는 않아도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피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투기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가 불신파이며, 어떤 목적 때문에, 투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그 사람이 불신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계속 교회 사역을 위해 힘쓰고 고생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언급한 모습들이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느냐? 그 모습들은 그에 대한 분별과 정의가 정확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투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가늠할 때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진리나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의 외적 행위나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의 마음속 진정한 생각과, 하나님이나 진리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며,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정의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다. 이제 투기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부류의 본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이런 사람들을 접해 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들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한다면 마지못해 남겨둘 수 있겠지만,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전혀 힘을 쓰지 않으면서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에 교란이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한시바삐 떠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파를 제명하는 원칙이다. 하나님 집에 필요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불신파나 관망파가 하나님 집에 와서 머릿수만 채우게 할 필요는 결코 없으며, 교회 역시 아무나 와서 숫자만 채우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5) 교회에 얹혀살기

이어서 다섯 번째 항목인 '교회에 얹혀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교회에 얹혀산다는 주제는 너희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얹혀사는 부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을 통해 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는 기초 위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구원받는 목표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그저 교회에 얹혀살기 위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느냐? 교회에 얹혀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표면적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바로 종교를 믿고 한 교파에 가입함으로써 생활상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얹혀사는 것'에 대한 가장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정의이다. 그렇다면 교회에 얹혀사는 이 부류의 어떤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얹혀살러 왔음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특정 기술을 지니고 있고 정상적인 노동 능력도 있지만, 이 사회가 불공평하며 사회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일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이 고생해야 하고, 수모도 겪어야 하며, 영악하고 유연하게 처신해야 하며, 이 밖에도 충분히 독하고 못되어야 하고, 수단과 능력이 있어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에서 발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업종, 어느 직종이든, 상류층이든 중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화이트칼라는 언뜻 번듯하고 화려해 보이며, 높은 직함과 학위, 고액의 급여가 있어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직장에서 겪는 모든 관문이 시련이다. 어떤 직종도 쉽지는 않다. 농사를 짓는 농민은 더 힘들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일가족이 먹을 식량을 수확하지만, 옷이나 생필품을 살 돈도, 집을 수리할 돈도 없다. 돈이 필요하면 채소를 팔거나 닭과 돼지를 키워 돈을 만들어야 하니, 농민은 더 고생이다! "돈 벌기는 어렵다. 태어나기는 쉽지만, 살아가기는 어려운 법이다."라는 이방인들의 말처럼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살 길이 없고, 이방인들이 너무나 못된 것을 보고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며,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틈타 교회에 섞여 들어오게 되었고, 본분을 이행하면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말을 듣고 본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다. 본분을 이행하려는 사람 중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집의 주요 노동력이니 누가 우리 집 땅을 경작해 주고 생활비를 대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나는 본분을 이행할 거야.'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주요 목적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고 하루 세 끼 배불리 먹기 위함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일하며 돈을 벌어 삶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에서 시키면 무엇이든 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온 후 리더가 되는 법, 설교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암기한다. 암기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모두를 돕는다.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도움을 받은 후 다시 자신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나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한 나머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고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 수도나 전기 요금을 낼 돈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이 대신 내 주고, 자녀의 학비가 없거나 부모가 편찮을 때 병원비나 약값이 없을 경우, 교회나 형제자매들이 그가 본분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이런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고 손해 보지 않는 일이라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연신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교회의 안배에 '순종'한다. 또 밥과 생활비만 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밥줄을 얻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그의 삶을 소홀히 하고 그의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주지 않는 순간, 그는 마음이 언짢아지며,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에서 맡겨 준 본분에 대한 태도가 즉시 달라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안 되겠습니다. 돈을 벌러 나가야겠어요. 여태까지 저는 교회 사역을 하느라 돈 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항상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얼굴을 드러내며 사역했죠. 어디를 가든 모두가 저를 알고 있어요. 이제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요구를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집에 손을 내밀어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생활비와 노후 비용이 없지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힘을 들이며 생활비를 벌고자 한다. 또 어떤 이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집에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비와 부모 부양비, 치료비까지 요구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대출금 상환 비용까지 하나님 집에 요구하기도 한다. 그들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며 정말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꺼낸다. 혹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뒤, 하나님 집에서 주는 돈과 본인 쪽에서 자발적으로 요구한 돈이 직접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는 언뜻 매우 충성스럽게 오로지 하나님 집에서 맡긴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태도가 바뀐다. 교회에서 맡긴 사역에 대한 그의 태도는 형제자매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또 하나님 집에서 구제해 주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누리던 이 은혜들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순간,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도 사라진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한자리를 차지할지 계산하며, 자리를 잡은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형제자매들의 베풂과 도움을 받고, 하나님 집의 도움과 생활상의 제공을 누린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에 얹혀 그럭저럭 살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순간, 그들은 금세 돌변하여 바로 불신파의 몰골을 드러낸다. 그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진심을 지니지 않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다. 보상을 바라거나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와 속셈, 목적을 품고 믿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에 얹혀살고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의지해 그럭저럭 살아가려는 목적을 품은 채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런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순간, 그들은 일을 하러 가거나 장사를 하러 가는 등 다른 돌파구를 찾는다. 이런 부류도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부류도 일부 존재한다. 처음에 하나님 집에서나 형제자매들이 옷, 일용품, 혹은 돈 등을 주면 겉으로는 매우 미안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한두 명을 섬기거나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게 되어 하나님 집에서나 형제자매들이 그의 집에 도움을 주고 자금 지원을 해 주면 그는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고 수지가 맞는다고, 손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탐욕스러워지고, 손은 더 길게 뻗고, 얼굴은 더 두꺼워져서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른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다음에는 적게 줬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집에서 반드시 얼마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 본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탐욕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보답할 생각은커녕 하나님 집에 더욱 지나치게 요구한다. 그는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이 자기에게 빚을 졌다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금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여긴다. 적게 주거나 늦게 주는 것을 싫어하고, 돈을 얼마를 주든, 어떤 물건을 주든 다 받는다. 그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또 본분을 이행한 기간이 더 길어지면 더욱 밑천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집에서 고급 휴대폰과 컴퓨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거나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하나님 집에 집과 차를 사 달라고 하고, 가정부까지 요구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탐욕스러워져서 마지막에는 사자가 입을 한껏 벌리듯 무엇이든 겁도 없이 요구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집을 위해 헌신하고 힘을 들였어. 나는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그렇게나 많은데 나한테 좀 나눠 준다고 뭐가 잘못되겠어? 게다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하나님 집에서 힘을 들이고 위험을 무릅썼어. 고생하고 대가도 치렀지.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잖아? 그러니 하나님 집에서는 내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줘야지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고.' 말해 보아라, 이것이 교회에 얹혀사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가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확히 교회에 얹혀사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회에 얹혀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 집에 재물을 갈취하는 것, 하나님 집을 위해 힘을 들이고 본분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집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얹혀사는 것이다. 이런 부류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버리고 힘들이고 고생하겠느냐?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겠느냐?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그가 힘을 들이고 고생하는 것은 결코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공밥을 먹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에 대한 어떤 질책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저 떳떳하게 교회에 얹혀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얹혀사는 사람이다.

교회에 얹혀사는 이 부류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공밥을 먹고 밥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 주변에 교회에 얹혀사는 자들이 있지 않으냐? 그들의 모습을 말해 보아라. (저는 그런 사람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어 보여서 교회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안배했지요. 당시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에, 교회에서 도움을 주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는 돈을 쓰는 데 원칙이 없었습니다. 써서는 안 될 곳에 돈을 쓰고, 아껴야 할 것도 아끼지 않았지요. 형제자매들이 진리 원칙을 교제해 주어도 그는 기분 나빠하며 마음속으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집의 재물을 함부로 쓰자 교회에서는 하나님 집의 안배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예전만큼 힘을 내지 않고 점점 더 건성으로 임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자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본분에 있지 않았지요. 온종일 일을 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또 차를 사고 투자해서 회사를 차리겠다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명백히 그의 말은 죄다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형제자매들의 돈을 사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바로 출교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얹혀사는 것이다. 교회에 얹혀사는 자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간 열정을 보이고 헌신하는데, 그때는 요구도 높지 않아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요구가 높아진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꾀를 부리기 시작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분을 좀 이행할 때도 누군가가 지켜봐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건성으로 대한다. 결국 교회에서는 그가 봉사하는 것조차 득보다 실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도태시킨다. 혹자는 "하나님 집에 어쩌면 그리 사랑이 없습니까?"라고 하는데, 사랑을 논할 때도 원칙이 있다. 그는 불신파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분을 이행할 때 한결같이 꾀를 부리고 건성으로 대하는 데다가, 진리를 교제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야말로 몇 번이고 타일러도 바뀌지 않으니, 제명하고 도태시키는 것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리더 일꾼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제때 처리해야 하고, 형제자매가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제때 리더 일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모든 하나님 선민의 책임이다. 그가 교회에 얹혀사는 자이고 공밥을 먹는 자이며 불신파라는 것,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적게 주면 불만을 품고 태도를 바꾸며 돈을 충분히 줘야 약간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의 차리지 말고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 정확히 말해, 이런 자들은 하나님 집에서 봉사할 자격조차 없다.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기꺼이 봉사하려 하지 않고, 돈만 주면 자신이 봉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봉사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신파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봉사하는 것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준에 맞게 하지 못하니 도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교회에 얹혀사는 부류라고 분별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악인으로 처리하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이다. 이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으며,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제명하고 출교하는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런 부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남겨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겠느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니, 그는 영원히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는 사탄의 부류다. 사탄의 부류 중 하나가 바로 이렇듯 날건달의 본성을 지닌 자들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공짜로 먹고 마시려고 하고, 본업에 집중하지는 않고 사기 치며 속이려고만 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성을 지닌 것을 보고는 사기를 치고 속이기 쉽다고 여겨 하나님 집에 와서 얹혀살려고 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진작에 그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부류를 대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그는 교회에 얹혀살 수 없게 되면 성을 내며 민낯을 드러낸다. 그때가 되면 너는 하나님 집에서 왜 이런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인성이 없고, 변할 수 없으며, 이방인들이 말하는 날건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는 이 부류를 즉시 제명하거나 출교하며, 영원히 교회에 받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를 악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 (적절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6) 피난

이어서 여섯 번째 항목,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해야 할 여섯 번째 부류의 불신파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피난하는 것이다. "피난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난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한가요?"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너희는 "교회는 피난처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피난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느냐? 종교계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본질을 볼 때, 이 말은 우리가 해부하려는 '피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난(難)'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도 재난이나 어려움을 피하고 평안을 얻길 바라지요. 하지만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이 부류는 순전히 피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순전히 피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난'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재난을 피하고 재난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일부 위험과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재난들이다. 우리가 교제하려는 여섯 번째 항목, 즉 오로지 피난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부류가 피하려는 '난'은 좀 더 광범위하다. 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큰 재난을 피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겠느냐? 예를 들어, 사회에서 강적을 만난다거나 어떤 송사에 휘말린다거나, 정부 관리나 세력 있는 자를 건드린다거나, 법을 어긴다거나, 자국에 전쟁이나 각종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어떤 사람이나 일로 인해 개인의 목숨과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다. 그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의탁할 만하다고 여기는 교회를 찾아가 피난하고자 구한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항목에서 말하는 '피난'이다. 즉, 삶 속에서 목숨이나 가정, 일, 사업 등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로 와서 피난하고,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세력을 찾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피난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불순물과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피난하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다. 즉,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기를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 명성을 이용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해치는 사악한 정권이나 세력과 맞서려 한다. 이를 통해 목숨이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냐? 그들은 교회가 정치나 사회와 단절된 좋은 피난처라고 여긴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교회는 진실하고 친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어떤 자금 지원이든 해 줄 것이며, 그들을 위해 나서고, 변호하고, 소송하고, 권익을 쟁취해 줄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교회에 이런 부류가 없었느냐? 들어 본 적이 없느냐? 해외 교회에는 분명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피난하는 데 있다.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 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구하지 못할 때면 교회를 떠올린다. 교회는 자신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곳이자 최고의 퇴로이며 안전한 장소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에 들어와 재난을 피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오늘날 재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모두 살길을 잃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재난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으러 오면 교회에서 받아 주어야겠느냐? 많은 사람이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누구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받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받아 줄지 결정할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인지에 근거해야지,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활로를 찾고자 하는 마귀들도 많다. 설마 교회에서 이런 부류까지 받아 주어야겠느냐? 은혜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처럼 누구든 믿기만 하면 받아 주었던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나라시대에 교회에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의 제약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진리를 사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한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부류를 받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 과연 어떤 부류인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마귀나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악인을 받아 준다면, 교회에 어떤 나쁜 결과가 초래될지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도태시키는지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성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탄에 속하는 자들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절대 교회에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악인이나 마귀를 교회에 받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탄의 종이자 고의로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러 온 자로,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 마귀와 하나님의 원수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짓으로,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악인과 마귀를 교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이는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태도이자 요구이다. 교회에서는 재난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을 받아 줄 책임이 전혀 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절대 받아 주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진리에 반발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자는 모두 악인에 속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떡으로 배만 불리려 하는 불신파에 속하는 자들조차 교회에서 절대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회의 어중이떠중이들이 교회에 와서 피난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자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 사역은 국가나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회단체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하고 나쁜 짓을 멈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교회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 만약 누가 이방의 악인과 마귀, 불신파를 교회에 끌어들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짓이다. 악인과 마귀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반드시 그자를 제명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태도다. 이런 악인과 마귀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피난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 장소를 잘못 골랐다고 알려 줘야 한다. 교회에서는 절대 그들을 받아 주지 않는다. 이것이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취하는 분명한 태도다. 이 말이 명확하지 않으냐? (명확합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어떻게 말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라. "어느 나라든 적십자사가 있고, 복지시설이나 보호소, 사찰도 있으며, 사회에는 자원봉사 단체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곤란한 일에 직면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 호소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 정부에 정치적 보호나 난민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해도 되죠. 하지만 이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곳이지, 당신의 피난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기 머물러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 주지 않으시고, 교회도 당신 같은 사람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뭔가 어려움을 마주하면 그게 무엇이든 사회의 자선 단체나 구호 기관, 또는 민정국(民政局) 같은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고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당신이 무엇을 호소할 생각이든, 어떤 요구 사항이 있든 그들에게 말하고 정부에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 데가 가장 적절하죠." 교회에서는 불신파와 이방인을 일절 받아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주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가 혼자서 목양하게 해라. 하나님 집에서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죠?"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찾고 참도를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러 온 게 아니라 피난처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몇몇 얼뜨기들은 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일이 좀 닥치면 당황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7) 든든한 백을 찾기

일곱 번째는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부류를 본 적이 있느냐? 이는 비교적 특수한 경우로, 많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주 및 아프리카 각국에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런 투기꾼과 불신파들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든 간에 너희는 그들이 나타나는 즉시 직면하고 분별해야 한다. 이 불신파들이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타난 적도, 접해 본 적도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면, 그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 집, 형제자매들, 교회 사역에 크나큰 잠재적 위험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문제들을 직면해야 할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네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다. 일곱 번째에서 언급한 바대로,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이 사회는 도처에 불공평과 차별, 억압이 만연해 있고, 사회 각 계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의 갖가지 불공평한 현상에 대해 혐오와 증오,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세상의 불평등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증발하지 않는 한, 이 세상,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한 누구나 많게 혹은 적게, 크게 혹은 작게 괴롭힘과 모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강력한 세력에 쫓기고 박해당하기도 한다. 이 온갖 불공평한 현상과 불평등한 대우는 사람의 심리에 매우 큰 부담과 압박을 가져다주며, 당연히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가져다준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에서 자리 잡으려면 뒤에 반드시 의지할 만한 세력이 있어야 해. 어려움을 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롭고 의지할 데 없을 때 나를 지지해 주고 대신 나서 줄 사람들, 발생한 어려움이나 내가 직면한 문제를 나 대신 해결해 주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찾아다닌다. 물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찾게 된 사람도 있다. 그는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이고 목표가 일치하며 모두가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선한 마음을 품고 남들에게 우호적이며 사회의 다툼과 사악한 흐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회와 세상의 더없이 정의로운 상징이며, 교회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좋고 선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최하층에 있고, 어떤 사회적 세력도, 좋은 집안 배경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발판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을 때, 혼자 무턱대고 찾으면 모아 둔 돈을 다 써 버릴 지경이 되어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믿을 만한 사람들, 진심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준다면 수고는 훨씬 덜 할 것이고, 일자리를 찾는 데 드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든든한 백을 찾게 될 수만 있다면, 진학이나 취업, 심지어 살아가고 생활하는 것 등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길이 생기고 의지처가 생기며, 뒤에서 자신을 돕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찾은 후 제대로 된 곳을 찾았다고 느낀다. 교회는 그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평안한 삶을 사는 데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테니 말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집을 사거나 아이들의 학교 선택을 돕는 것까지, 나아가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 즉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훨씬 편해지고, 사회에서 더는 그렇게 외롭지 않으며, 일을 처리할 때도 더는 그렇게 난관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실속 있는 일이다. 진찰을 받을 때도 형제자매들의 병원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을 살 때도 가장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심지어 집을 구매할 때도 내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말이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그는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좋구나.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처리하고 물건을 사는 것 모두 너무 편하잖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전화 한 통만 해도, 혹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 한 통만 보내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지.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 처리도 너무 편해! 어렵게 얻은 든든한 백이니 절대 떠날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예배 때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는 건 좀 난감하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싶지 않아. 진리 교제만 들어도 속으로 짜증이 난다고. 하지만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난 그들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듣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미안하잖아. 그렇다고 안 믿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듣기 좋은 말이나 하자.' 사실 그의 속마음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지만, 마음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혹자는 "늘 형제자매들에게 일을 부탁하는 모습,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으면 기뻐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분별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데, 그 외에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지, 진리를 교제하는지,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실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다. 든든한 백을 찾으려는 이 부류는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이용해 자기 일을 처리하고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뿐, 본분 이행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법도 없다. 그는 무슨 일 처리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힘이 나서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데,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나 정직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에 관해 언급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서 네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얘기해도 반응을 보이거나 대답하지 않으며, 오히려 늘 네 말을 끊거나 화제를 돌려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하고 자신을 위해 힘쓰게 하려 하지만, 형제자매들에게 본분을 이행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언급할 기회는 전혀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에게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제안하는 순간, 그는 얼른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을 찾아 교환 조건으로 내세운다. 형제자매들이 그를 위해 일을 처리해 주는 동안 그는 마지못해 하나님 집을 위해 조금 힘을 쓰고 형제자매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해결되는 즉시 형제자매들에게 냉담해진다. 교회와의 연락을 유지하고, 교회라는 든든한 백과 형제자매들이라는 조력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유용한 모든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안부를 묻고, 다정한 말, 속내와 다른 말로 관계를 이어 나간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얘기하며, 수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죄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도움을 얻으려 한다. 한편, 누군가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는 즉시 상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삭제해 버린다. 또 누가 자신에게 가장 이롭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에게 극력으로 아부하고 영합하며 가까이 다가간다.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 즉 자신처럼 사회에서 세력도 지위도 없으며, 의지할 데 없는 최하층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고 사회에서 인맥이 있는 사람들, 그의 눈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한다. 그가 교회를 위해 힘쓰고 고생할 때는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을 때이다. 사실 이런 부류가 보이는 불신파의 모습은 아주 분명하다. 그는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교회 생활에도 마지못해 참여하고,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다. 특히 위험한 사역에는 절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설령 승낙한다 할지라도 몹시 짜증을 내고, 누군가가 부르고 청해야 마지못해 조금 힘을 쓴다. 이것이 바로 불신파의 모습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본분도 이행하지 않는다. 교회 생활에 억지로 참여한다 해도 그것은 그저 교회 형제자매들이라는 집단, 자신에게 거대하고 든든한 백이 되는 이 집단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앞으로 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 부류는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을 마련하고 근심 없이 살아갈 곳이 생기며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력을 얻어 출세할 전망이 보이는 순간, 망설임 없이 바로 교회를 떠나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끊고 연락을 두절한다. 그가 복음 대상 한 명과 관계가 좋아 그를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는 교회와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과 맺은 우정도 끊어 버린다. 이는 불신파의 정체가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런 부류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야겠느냐? (제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의 연약함과 생활상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 많이 붙들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한 후,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해야겠느냐? 이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 든든한 백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러니 이 부류에게 진리를 교제한다고 한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거기에 관심도 없다.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 부류를 어떻게 묘사해야겠느냐? '이익만을 좇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할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무엇을 시켜도 다 한다. 아들이나 손자 노릇을 하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는 오직 이익만을 좇으며, 이익만 있으면 그만이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믿을 것이고, 네가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할 것이다. 또 사회에서 네 일 처리 능력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에게 이익이 되면, 그는 반드시 너와 교제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너와 교류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너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너와 잘 지내고 교류도 매우 활발하다고 해서 너와 말이 통하고 같은 길을 가며 같은 추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런 부류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류는 교활하며, 남들과 교류하는 수법이 있다. 그들은 그저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뿐,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부류의 인격이 얼마나 저열하고 음험한지 알 수 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 자신의 갖가지 이익을 도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몰염치한 일이든 다 저지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든든한 백과 밥줄을 찾으려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 볼 때, 이 부류가 좋은 작자들이 아님을, 인격이 저열하고 이기적이며 비열하고 추잡한 데다가 아주 음험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교회의 처분 원칙 또한 분별한 후에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다. 그가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며 교회에 와서 돌파구를 찾고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위해 일을 처리하거나 봉사하도록 이용할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때 정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지, 그가 계속 형제자매들 사이에 섞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섞여 있으면 호시탐탐 모두를 주시하며 누구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지 살필 것이며, 늘 교회에 이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계산할 것이다. 누구의 친척이 병원에 근무하는지, 누가 병을 잘 고치고 좋은 치료법을 알고 있는지, 누가 시장에서 물건을 도매가로 살 수 있는지, 어느 형제의 집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지, 누가 내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 등 그는 이런 일들만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이자의 계산이 정말 빈틈없지 않으냐! 그는 작은 일 하나까지 계산하는데, 심지어 형제자매들까지 계산하고 이용할 궁리를 한다. 누구든 조상 3 대 위까지 파헤치려 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의 계산과 음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한다. 이런 사람과 지내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이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데 다른 속셈이 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든든한 백과 밥벌이 수단, 생계를 찾으러 온 것이다. 이 부류는 특히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음험하다. 또 그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는다. 교회에 일이 생겨 그를 필요로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일이 끝나면 나타난다. 이 부류는 이득을 챙길 줄만 알 뿐 교회에 남아 있어 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반드시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한시바삐 제명해야 한다. 혹자는 "한 사람에게 처분을 내리는데 여러 방법을 생각해 낼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는데,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 그중 적잖은 이가 오직 든든한 백과 출구를 찾고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니,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원칙에 부합한다. 든든한 백을 찾는 이런 불신파는 즉시 제명하여 교회에서 공밥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일을 부탁하는데, 사실 남을 위해 일을 조금 봐주는 것쯤이야 별로 어려울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일조차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첫째, 핵심은 이 부류가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불신파라는 것이다. 둘째, 이 부류는 믿지 않는 데서 진실로 믿는 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도 아니며, 교회에 섞여 들어온 악인이다. 셋째, 이 부류는 교회에서 이리저리 날뛰며 어떤 큰일을 마주하든 다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는 부지중에 형제자매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에 심각한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마귀는 되도록 빨리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다. 만약 그가 이런 부류임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간파하지 못했다면 남겨두고 관찰해도 된다. 그가 하나님 집에서 제명해야 할 각종 악인 중 한 부류임을 분별하고 간파하는 순간, 예의를 차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의논하여 합의를 이룬 뒤 제명하면 된다. 만약 교회의 리더 일꾼이 이 일을 신경 쓰지 않을 경우, 그가 오직 든든한 백과 출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부류임을 많은 형제자매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거짓 리더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를 제명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는 너희의 권리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진실로 믿는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겪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들어 줘도 되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줘도 된다. 이것이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이다. 하지만 불신파라면, 그를 도와줄 조금의 책임도, 의무도 없다. 그는 형제자매가 아니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원칙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곱 번째 목적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이 부류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든든한 백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부류는 모두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이다. 리더 일꾼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음을 분별해 내는 즉시 제명하되, 발견하는 대로 제명하여 한 명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이미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리더 일꾼이 그를 두둔하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리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는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줘도 신경 쓰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라고 해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형제자매를 이용해 자기 일을 해결하려고만 할 뿐이죠. 우리는 이런 불신파를 도와줘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교회 리더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는 많은 사람과 규합하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이때도 교회 리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윗선에 보고하여 그 리더를 격리시키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동의할 때 다시 그의 인도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가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그를 파면하고 리더를 다시 선출해도 된다. 이것이 일곱 번째 '든든한 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8)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 부류의 인물이 나타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확률이 얼마나 되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열거하여 폭로하고 교제하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이 부류를 분별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제명할 수 있다. 이는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골칫거리와 위험을 가져다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부류는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고, 교회가 되도록 빨리 제명해야 할 악인들이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 부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그는 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가 "저는 그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참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할 리 없다. 그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통해 그가 정치적 의도를 품었음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말과 행동, 어떤 표정과 눈빛,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 숨겨져 있다. 그 사람은 특이한 신분과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의 언행을 보면 음모와 속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말과 행동에 수단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가 말할 때 그의 속내를 알 수 없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른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진리 교제에 어떤 적대감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며, 심지어 호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너는 그가 이상하다고, 다른 형제자매들과는 다르고 속을 알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너는 보통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단순히 경계하기만 하느냐? 아니면 주동적으로 조사해서 그의 실체를 파악하느냐? (관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과 의도는 단기간 내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면,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움직인다면, 반드시 꼬리가 밟힐 것이다. 사소한 실마리를 관찰하며 단서를 찾아내는 한편, 그의 언행과 일 처리의 의도, 방향, 말할 때 쓰는 어휘와 어조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네가 얼마나 꼼꼼한지, 어느 정도의 지적 자질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 어떤 바보들은 세상의 험악함을 깨닫지 못한 채 누구를 만나든 한 가지 방식으로만 교류하는데, 그 결과 정치적 의도를 품은, 노회한 정치꾼을 만나면 유다가 되거나 교회를 팔아넘기는 도구가 되기 쉽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 부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이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배경이 있으며, 정치권에서 구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가 정치권에서 어떤 지위를 지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공직에 있든, 허드렛일을 하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한자리 차지하려 준비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 부류는 사회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으며, 복잡한 특수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걸어온 길, 그리고 본성 본질을 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불신파나 정치에 열중하는 정치가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확신하느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신앙과 정치는 두 갈래 길이며, 이 두 갈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양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고, 절대 교집합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완전히 어긋나는 두 갈래 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도를 품었거나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에 열중하는 이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데 어떤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해도 다른 목적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를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며, 적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는 신이 있다는 전설만 인정할 뿐,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에 열중하는 불신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과 심판 형벌을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믿는 자로 바뀔 수 없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 불신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대체 무엇이겠느냐?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바나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정치권에서 늘 자신만의 요구 사항이나 원대한 정치적 목표, 정치적 염원 등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정치와 관계된다. 정치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 정권, 권력, 통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치적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정치적 추구와 상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왜 교회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했겠느냐? 그들은 교회라는 기관과 교회의 이 많은 인원, 그리고 각 분야와 각 계층에서 온 교회 사람들의 세력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 부류는 교회의 교리와 각 사역의 운영 방식, 그리고 하나님 선민들의 교회 생활 방식과 본분 이행 등을 파악한 후, 거기에 뛰어들려고 시도한다. 그 후 하나님 선민들이 수시로 교제하는 영적 용어와 각종 표현들을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언젠가 그것을 이용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호령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방인의 말처럼 일정 기간 준비하면 깃발을 높이 쳐들고 봉기할 때 그의 호소에 응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경우다. 이로써 교회 내에서 자신의 세력이 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을 얻어 경쟁 상대와 맞서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중국 근대사에서 몇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예를 들어, 청나라 시기에 나타난 백련교와 태평천국 운동은 정치적 의도를 품은 자들이 종교를 이용해 정부에 맞선 것이었다. 그들의 종교적 교리는 모두 참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아 전혀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자들은 이런 교리를 이용해 사람들의 사상을 통일하고 속박하고 물들이고 교화했으며, 결국 이렇게 교화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라는 명칭을 마음에 들어 했다. 즉, 교회라는 기관의 호칭 아래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목적을 숨기려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 그들의 정치 관점을 퍼뜨리기만 하면 교회 사람들이 쉽게 교화되고, 이 사람들이 쉽게 명인을 숭배하고 그들의 말을 쉽게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을 이용할 만한 대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곳이고,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여겼다. 간단히 말해 이런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언젠가 세력을 얻은 후 정적들과 맞서고 권력을 얻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치적 의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들을 숭배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자기 정치 세력 범위의 일부로 확충하려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불신파, 거짓 신자라고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까?"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천천히 관찰해 보아라.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는 한, 그는 반드시 일을 벌일 것이다. 만약 일을 벌일 생각이 없다면 왜 교회에 섞여 들어왔겠느냐? 그가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기회가 오면 때를 보며 움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거나 하나님 선민들을 탄압하고 체포할 때, 형제자매들은 기껏해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분별하는 정도로 끝낼 것이다.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본분 이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작은 일에 얽매여 큰일을 그르치지 않으며, 예전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품은 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사건을 부풀려서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널리 선전하며, 모두가 일어나서 정부와 맞서도록 필사적으로 선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 힘쓰게 할 뿐만 아니라,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그는 정치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으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가 이 정도로 미쳐 날뛰는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를 따르는 것이냐? 어떤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 쉽게 미혹된다. 정치를 하는 이 부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패괴 성품을 정결케 하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기 위한 것임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는 인권이나 정치 활동을 좀 하면 정의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정치나 인권 활동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진리 실제가 있다는 의미겠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겠느냐? 네가 인권과 정치 활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 패괴 성품이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겠느냐? 권력을 장악하려는 네 야심과 욕망이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겠느냐?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쑨원도 기독교인이었으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다. 평생 혁명만 한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겠느냐? 그가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이겠느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 체험 간증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전혀 없다. 바울은 부름받은 후 줄곧 복음을 전했고, 숱한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생명 진입도 하지 못해 지난 과오를 답습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높이고 증거했으며, 적그리스도가 되어 징벌받았다. 여하튼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늘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며 초인이나 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 부류에 속한다. 이 부류는 자신의 정치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늘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용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며 그리스도만 따를 뿐 사람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자들의 뼛속에는 오직 정치와 관련된 것들, 즉 권세나 통치, 음모, 정치적 수단 등과 관련된 생각들만 가득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존 법칙은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자들은 수시로 교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정치적 관점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정치 활동을 하게 하며, 정치에 참여하도록 부추긴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다. 이 본질은 빠르고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신앙에 대해, 바른길을 걷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의 생각이든, 누구의 길이든 다 정치적 수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특히 인간의 운명도 인간의 수단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이 심오하면서도 명백한 사실에 대해 문외한인데 전혀 알지 못하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만약 정치적 의도로 하나님을 믿는 부류를 발견한다면, 절대 그를 바꾸려 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마라. 그와 그렇게 많은 진리를 교제할 필요도 없다. 그를 경계하는 한편, 한시바삐 교회의 각급 리더나 믿을 만한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할 것이다. 혼자 마음속으로 조용히, 몰래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치를 즐겨 얘기하고 정치적 의도를 품은 자들을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람이겠느냐? 형제겠느냐, 아니면 자매겠느냐? (나이 많은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렇다. 나이 많은 형제들, 즉 사회 경험이 있거나 정치를 접해 봤거나 정치적 박해를 받아 본 사람들, 이런 측면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일들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야심과 욕망, 사상 관점, 이상과 포부도 얼마간 간파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그들을 분별해 내는 게 가능하다. 누군가가 그들이 정치적 의도를 품은 불신파임을 분별해 내면 즉시 경계하는 한편, 이 부류의 불신파를 폭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미혹되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무의식중에 교회 내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교회 리더에게 알리고, 교회 리더와 이 일을 의논해라. 또 나이가 좀 많거나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아 분량이 좀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 부류를 경계하도록 하고, 이 부류가 불신파의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해라. 그래야 어리석고 무지한 형제자매들이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네가 이런 일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다면, 음험하고 교활하며 간사한 자들과 대화할 때 기꺼이 네 실상과 네가 아는 것들을 전부 쏟아낼 것이다. 남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해 버리고, 무의식중에 유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말할 때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를 형제자매로 여겨 방심한 채 속마음을 다 말해 버리고, 말한 뒤에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부류를 경계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은 의심이 정말 많군요. 형제자매에게 못 할 말이 뭐가 있나요?"라고 한다. 그들이 왜 말하지 않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한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이 부류도 당연히 불신파에 속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완전히 적그리스도 부류의 악인에 속한다. 이 부류를 경계하는 것은 사실 가장 수동적인 방법이다. 주동적인 방법은 일찍 발견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출교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다. 이 부류는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파를 더 이상 포용하고 인내해서는 안 되며, 회개할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게 굴지 말고, 발견하면 되도록 빨리 출교시켜 후환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이용당하고, 사탄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물론,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되도록 빨리 그를 분별하고 출교시켜라.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그와 접촉하는 일이 줄어들어 그의 미혹과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부류를 처리하고 출교시키는 것은 늦는 것보다 빠른 것이 낫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주동적인 것이 수동적인 것보다 낫다. 정치적 의도를 품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품지 않기에, 교회와 하나님 집을 위해 어떤 일도 진심으로 하지 못한다. 만약 형제자매들을 미혹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철저히 망신을 당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날 것이며, 심지어는 말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여덟 번째, 정치적 의도를 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다.

2021 년 10 월 30 일

리더 일꾼의 직책(24)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3)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1.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근거로 한다

지난 예배 때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에 관해 교제하였다. 이 내용에 근거해 각 부류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모습들을 종합했고, 또 그들의 여러 모습을 근거로 각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했다. 이렇게 각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서 분별하고 제명해야 할 악인에 속하는지, 즉 하나님 집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되는 제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었다. 지난 두 번의 교제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각 부류의 악인을 분별하고 구분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 각 부류의 악인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을 교제하겠다. 먼저 제 14 조와 거기에 열거된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 보아라.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목적. 둘째, 인성. 셋째, 본분을 대하는 태도.) 읽고 나니 두 번에 걸쳐 교제한 내용 중 기본적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교제한 내용을 돌아보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항목에 대해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조항까지 교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투기하는 것, 다섯 번째는 교회에 얹혀사는 것, 여섯 번째는 피난하는 것, 일곱 번째는 든든한 백을 찾는 것, 여덟 번째는 정치적 의도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다섯 가지 조항에 관해 교제했다. 이 다섯 부류의 기본적인 모습과 그들이 드러내는 패괴 본질에 대한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행위와 모습, 하나님을 믿는 속셈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볼 때, 그들을 형제자매로 보고 교회에 남겨 두어야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리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속셈과 의도를 품고 있으며, 모두 하나님 집에서 이득을 보고 이익을 얻으려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불신파입니다.) 불신파를 교회에서 제명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지도 않으며,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과 관념을 발산하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난번에 교제한 다섯 부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불신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며,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질을 짚었구나.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으니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본질은 바로 불신파의 본질이다. 불신파의 특징은 무엇이냐? 투기(投機)하기 위해서, 교회에 얹혀살기 위해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의지할 곳과 밥벌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혹자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모종의 일을 통해 정부와 관계를 맺어 호감을 얻고 조그마한 관직이라도 얻으려 한다. 이런 자들은 모두 불신파다. 그들은 이런 동기와 속셈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100% 믿는 것이 아니다. 설령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도 의심을 품는데, 그들은 무신론 관점을 고수하며, 오직 물질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믿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후 전 인류를 이끌고 주재한다는 것 등의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육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리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를 믿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겠느냐?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들이 바로 무신론자고 유물론자다. 그들은 오직 볼 수 있는 물질세계의 것들만이 진실하다고 믿는다. 또 그들은 오직 음모와 수법을 통해서만 명리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사탄 철학대로 살아야만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행복한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쟁취해야 한다고만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재와 전능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여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투기하기를 바라고, 교회에 얹혀살고, 피난하고, 든든한 백을 찾고,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정치적 의도를 품고 조그마한 관직이라도 얻어 밥벌이를 하려는 등의 속셈과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겁도 없이 함부로 자신만의 속셈과 의도를 품고 교회에 섞여 들어와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거나 바람을 이루려고 한다. 즉, 복받으려는 속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섞여 들어와 교회에서 명리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밥벌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들의 태도와 본성 본질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 속셈은 전부 정당하지 않다. 그들은 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다. 설령 교회에 섞여 들어왔다 할지라도 머릿수만 채울 뿐,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교회에 섞여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마음에서 끌어들인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예정하거나 택하지 않았고, 사역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인류로 예정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 섞여 들어온 후에도 우리는 그들을 형제자매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진심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출교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분별하는 법을 배워 사탄의 간계를 간파하고 사탄을

내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이 불신파들을 정리할 것이다. 분별하는 목적은 야심과 욕망을 갖고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이 불신파들을 폭로해 교회에서 제명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며, 더욱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백해무익하다. 첫째, 그들은 교회에 섞여 들어온 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먹고 마시지 않고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늘 하나님 말씀과 진리 이외의 일을 논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한다. 또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기만 해서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이방인처럼 제멋대로 행동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수 있으며, 교회에 많은 잠재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그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도 기꺼이 봉사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설령 얼마간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다. 어느 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일찌감치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낫다. 넷째, 이런 불신파들은 교회 내부에서 쉽게 패거리를 짓고,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따르며, 사악한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 사역에 큰 위협이 된다. 이상의 네 가지 이유로,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불신파들은 반드시 분별하여 폭로한 뒤 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선민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불신파들이 교회에 섞여 들어오면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형제자매로 대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은사와 특기가 있는 것을 보고 리더 일꾼으로 선출하기도 한다. 교회의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겨난다. 그들의 본질을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이방인으로 보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상대하지 않고, 성령도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질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도 분명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리 없다. 어떤 측면에서 보든 이 불신파들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때 정확히 분별해 제명하고 처리해야지, 교회에 섞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불신파들은 갖가지 서로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갖고 교회에 섞여 들어오는데, 처음 접할 때는 간파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의 접촉이 잦아지고 교류가 많아질수록 너는 그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들이 지닌 불신파의 갖가지 모습에 대해서도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들을 분별하면 쉽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전부 불신파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들을 드러내고 제명할 때가 된 것이다. 그들의 인품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든 상관없이 수년간 설교를 들었는데도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이미 드러난 불신파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하나님을 믿을 때의 모습으로 볼 때,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명되거나 출교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매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정리 사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관해 총 여덟 가지 조항을 교제하였다. 이 여덟 가지 부류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각종 악인을 분별하고, 그들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며 처리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여덟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이 여덟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부류마다 한 가지 모습만 보이나요?"라고 묻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4~5 가지 조항이 포함된다. 즉, 피난하고 싶기도 하고, 교회에 얹혀살고 싶기도 하고, 투기도 하고 싶고, 정치적 의도도 있으며, 심지어 마구잡이로 이성을 찾아 교회에 섞여 들어와서는 멋대로 유혹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직함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기로 복을 얻는 것이다. 혹은 어떤 이는 이성을 찾는 동시에, 교회에 얹혀살고 싶어 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득을 보려고 하나님 집에 온 자들로, 하나님 집이나 형제자매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고 힘쓰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자매들을 이용해 봉사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제명되거나 출교되어야 할 이 불신파, 투기꾼들이 교회,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분명한 목적은 공밥을 먹는 것이고, 투기로 이익을 보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 목적을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반감과 거부하는 정서, 태도를 드러낼 때도 있다. 교회에서 어떤 본분을 안배하든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마지못해 협력할 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반발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반감을 드러내거나 거부한다. 그들은 이익이 있으면 조금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충 임한다. 사역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숨바꼭질하듯 종적을 감추고 교회 사역을 내팽개친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공밥을 먹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설령 그들을 써서 봉사하게 해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9) 교회를 감시하다

오늘 교제할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항목의 마지막 조항이다. 앞서 언급한 여덟 조항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은 또 한 부류가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이익만을 좇고 명리와 지위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 부류는 직함이나 지위, 밥줄을 얻거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알아채기 어려운 목적을 품고 교회에 들어온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교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교회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항목의 아홉 번째 조항이다. 이 부류는 교회를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교회에 들어오며, 그 목적은 바로 교회의 동향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들을 파견한 상사나 상관은 정부나 어떤 종교 단체를 대표할 수도 있으며, 사회의 특정 조직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교회의 출현과 탄생, 그리고 존재에 대해 불안감을 품기도 한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교회의 구조와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려 하기에, 특정 사람들을 교회로 파견해 감시 업무를 시킨다. 교회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왔든, 종교 단체에서 왔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조직에서 왔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진정한 형제자매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러 온 것도 아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조직에서 맡긴 임무를 띠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를 감시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 섞여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자 그의 상사가 맡긴 임무이며, 그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교회를 감시하는 이 부류는 교회에 섞여 들어와 무엇을 감시하는 것이겠느냐? 그들이 감시하는 일은 무척 많다. 예를 들어, 교회의 교리나 근본 취지는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제창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교회 사람들의 사상 관점은 무엇인지, 정부와 종교, 사회에 뭔가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반사회적이거나 반정부적, 반국가적 말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감시한다. 이는 말과 관련된 측면이다. 교리 측면에서는 교회에서 제창하는 사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감시한다. 이 부류가 교회에 섞여 들어오면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예배 때 열심히 듣고 필기하며, 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예배 때마다 매우 열심히 여러 사람의 발언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여러 부류 사람의 다양한 사상 관점을 종합해 분류하여 어떤 사람들의 사상 관점이 국가와 정부의 이익, 요구에 부합하는지, 어떤 사람들의 사상 관점이 국가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인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어쩌면 그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관점들을 매우 세밀하게 정리하고 분류해 기록할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그의 업무이자 임무이고,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교회의 교리와 모든 교회 구성원의 사상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향이 사회나 국가에 불리한 요소가 있거나 급진적인 사상 관점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전달해 그의 상급자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한다. 우선 그는 교회의 교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그의 교회 감시 업무 중 중요한 일환이다. 그다음은 교회의 인사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교회 윗선 리더가 누구인지, 리더의 거주지 주소나 나이, 생김새, 학력, 관심사와 취미, 건강 상태,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과 사역, 가는 곳, 매일 사역하는 시간과 내용, 정부나 종교, 사회 흐름에 반하는 언행 여부, 국가 제도 및 현재 정치 동향에 대한 반응 등이 모두 교회 감시자가 파악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구조와 행정 기구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리더 일꾼이 누구인지, 어느 레벨의 리더가 교체됐는지, 교체된 후에는 어떻게 배치됐는지, 어떤 리더가 체포됐는지, 체포된 후 누가 업무를 대신하는지, 대신하는 사람의 나이와 성별, 하나님을 믿은 햇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대학생이고 재능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정부 부서로 영입할 수 있을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 리더 한 명의 취임과 교체까지도 그들이 알아야 할 일이다. 즉, 교회의 인사 상황과 구체적인 행정 사역, 교회의 구조 역시 그들이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 이 밖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항목의 사역이 있고 총 몇 개 팀이 있는지, 각 팀 책임자의 상황은 어떤지 등도 그들은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소문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며 매우 세부적으로 일한다.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 섞여 들어온 이 부류가 해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임무는 바로 교회의 갖가지 상황과 동향을 바로바로 파악해 교회를 감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의 해외 발전 상황은 어떤지, 복음이 얼마나 많은 나라로 확장됐는지, 어느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등의 상황까지 그들은 다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교회를 감시하면서 주로 하는 몇 가지 일이다. 첫 번째는 교회의 교리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인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회의 업무 상황과 최근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사탄인 큰 붉은 용의 공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부정할 여지 없는 사탄의 심부름꾼이다.

교회를 감시하는 이 부류가 교회에 섞여 들어온 목적은 교회의 교리, 인사, 사역 동향 및 교회 규모 등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그의 상급자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정책 방안이나 조치를 취해 교회에 대응할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결코 선의로 교회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돈을 벌거나 이득을 얻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를 감시하겠느냐? 교회의 존재를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고 인도하는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이며, 국가나 사회, 정치 단체나 조직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알아봐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왜 그렇겠느냐? 그들은 모두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리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탄압, 체포, 감시하는 등 어리석고 황당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왜 교회를 감시하고 배척하는 조치를 취하겠느냐? 교회가 강대해지고 인원이 많아져서 국가와 정부,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전통문화와 전통 종교 단체에 위협과 영향을 줄까 봐 무엇보다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교회를 감시하고 배척하는 진정한 이유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감시하고 배척하는 것을 정치적 임무로 보고 수행한다.

교회를 감시하는 이 부류는 교회에서 쉽게 분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을 품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깊이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대세를 따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언뜻 무척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 어떤 이견도 입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뜨뜻미지근하며 적극적이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본분을 이행하라고 안배해도 조금은 하겠지만, 어디서 일하는지, 집안 상황이 어떤지, 예전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는지 등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절대 밝히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정부 부서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회피한다. 정부나 정치, 정책, 종교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민감한 화제가 나왔다 하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나쁘다고도 좋다고도 말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어떤지 논하지도 않는다. 누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스파이라고 지적하면, 그는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 급히 나서서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한다. 긴장과 불안 외에도, 어쩌면 그의 눈빛에서 이런 민감한 화제를 회피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한다. 이 밖에도, 그에게 자주 정체불명의 전화가 오거나 교회와 무관한, 알 수 없는 인물들이 그에게 자주 연락해 그와 접촉하고 교류한다.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을 피하는데,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정체가 알려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몰래 파악하는 것 외에도, 시시때때로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물어본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나요? 부모님도 믿으세요? 가족들은 국내에 있고요? 국내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믿죠? 몇 년 믿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당신들 지역 교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그는 수시로 이런 민감하고 사람들이 밝히기 꺼리는 개인 정보를 물어본다. 보통 형제자매들은 서로 접촉할 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일부러 주동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일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 심지어는 일부 리더 일꾼이나 중요 사역 책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이들의 컴퓨터나 휴대 전화에 있는 정보, 또는 주소 정보를 파악하려 하고,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한다. 그는 리더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렇게 묻는다. "오늘 모모 씨가 예배에 안 왔네요. 뭐 하러 갔나요?" 누가 일이 좀 있다고 하면 추궁한다. "무슨 일이에요? 또 새 신자를 양육하러 간 건가요? 그 새 신자는 누구예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죠? 왜 저는 모르는 겁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캐묻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시죠? 이건 생명 진입에 관한 일도 아니고, 진리와도 관련이 없잖습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전부 하나님 집의 일이고 교회 사역인데 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좀 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잖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다는 건 교회 사역과 교회 리더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거죠? 새 신자가 몇 명입니까? 어디 있죠?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계속 이런 일들을 묻는다.

교회를 감시하는 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또 다른 사항은 교회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그들은 교회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려 한다. 교회가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지, 작업 환경이 열악한 공장이 있는지, 소년공 고용 상황은 없는지, 교회의 여러 사역 중 수익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상이나 영화, 찬양을 제작하거나 하나님 말씀 서적을 인쇄할 때 수익이 나는지, 폭리를 취하지는 않는지, 교회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부자들이 교회에 기부하고 지원하는지, 그 부자들 중에 정치적 고위 인사, 또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있는지 등을 그들은 전부 파악하려 한다. 교회의 행정 기구와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알아내는 것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 집의 재정 관리 상황까지 파악하려 든다. 그들의 목적은 그 돈들의 흐름을 알아내려는 것이다. 교회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불법 활동은 없는지, 지식인들을 규합하거나 여러 사회 조직, 단체와 연합해 함께 독재 정권에 맞서고 인권 수호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등도 그들이 파악하려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혹자는 "교회를 감시하는 일은 큰 붉은 용 나라에서만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느냐? 사실 온 세상, 온 인류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독재 국가뿐 아니라 이른바 기독교 국가의 권력자들도 대부분이 무신론자, 이방인이다. 설령 신앙이 있거나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진리를 인정하지도, 나아가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기독교, 천주교, 이스라엘의 유대교 등 종교의 고위층 인사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 중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러 온 자는 하나도 없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도 없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전부 불신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적그리스도에 속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박해한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 사실이 증명된다. 어느 종파의 사람이 신자들에게 마음대로 참도를 알아보게 하고, 외부인의 설교를 듣게 하며, 낯선 이를 맞이하게 하더냐? 그런 종파는 하나도 없다. 또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교회에 우호적이더냐? (그런 민족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약간의 종교적 자유와 숨 쉴 공간만 줘도 다행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에 큰 반감과 혐오를 느끼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거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특별한 일을 하려 든다. 바로 사람을 보내 교회를 빈틈없이 감시[監控]하는 것이다. '감(監)'은 감시를 의미하고, '시(원문: 控)'는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의 모든 시기, 모든 측면의 상황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정죄하거나 반대하지 않았고, 저희 역시 이곳에서 살면서 박해나 괴롭힘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보다 훨씬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방해도 받지 않고 있고요." 방해를 받지 않고 약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감시하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다. 너에게 약간의 종교적 자유를 주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이며, 네가 누리는 것은 그저 네가 사는 나라의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 권익에 불과하다. 이 기본적 권익을 누린다고 해서 국가 정부나 사회단체, 종교계가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거나 우호적이 되었다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사탄 정권의 적대와 감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느냐? 거부하고 피해야겠느냐, 아니면 무시해야겠느냐? 먼저 잘 생각해 보아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그들의 감시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밀 활동을 하느냐? 반국가, 반정부적인 정치 발언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3 년이 넘었고, 심지어 믿은 지 20~30 년이나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반국가, 반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더냐? (없습니다.)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결코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며, 하나님나라를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곳이다. 어떤 사람에 의해 형성된 단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설립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무슨 사역을 하겠느냐? 반사회, 반종교, 반정치적 사역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냐? 첫째, 주된 사역은 말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정결케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역이며,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자 가치이다. 이는 정치와도, 상업이나 공업, 과학기술 등 사회의 어떤 업종과도

무관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구원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하자면 인류를 경영하는 것이다. 인류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인도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정결케 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경영의 구체적인 사역 항목이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경영이나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정보도, 설령 그것이 교회의 교리나 인사, 행정 기관, 교회에서 하는 사역 상황, 심지어 교회의 재정 상황이라고 해도 그 어떤 나라나 사회, 민족, 종교 또는 인류 단체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금의 연관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몇 가지 점으로 볼 때, 집권당이든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든 사람을 파견하여 교회를 감시하는 이 행위는 순전히 무엇에 속하겠느냐? (부질없는 짓에 속합니다.) '부질없는 짓'은 문어체 표현이다. 속담에 뭐라고 했느냐? 바로 배가 불러 할 짓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냐? 내가 보기에는 딱 배가 불러 할 짓이 없는 것이다.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서 이렇게 몇몇 한량을 보내 교회를 감시하게 하고, 이것을 정치적 임무나 정식 업무로 삼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 시간에 교육 기관이나 자선 기관을 세우는 게 나을 것이다. 이는 육적으로 너무 잘 누리다 보니 배가 불러 할 짓이 없는 것이고, 본업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직접 목양하고 인도한다면, 이 세상, 이 인류는 많은 기관과 지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비밀 정보기관이나 경찰 기관 같은 치안 부처는 쓸모가 없어져 해산시키고 다른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교회를 감시하는 이 부류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다. 그들이 교회에 섞여 들어와서 하는 주요 임무는 방금 교제한 몇 가지 사항이다. 그들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회 상황을 파악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그들의 사상 관점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어쨌든 교회를 감시하는 이들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 형제자매들은 경계하는 한편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호들갑 떨 필요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부류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느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다. 만약 그가 곳곳에서 상황을 캐묻고 뒷조사를 한다면 이는 분명 스파이나 첩자이다. 이런 자들은 인성이 극히 악랄하고 오만방자하며, 교회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그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고, 예배와 본분 이행도 교란과 영향을 받으며 안전까지 위협받는다. 이런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교회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그렇다.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에 교란을 일으키는 자는 바로 정리해서 내보내야 한다. 그럼 그를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자는 해외에서 스파이를 만나면 중국 본토에서 경찰을 만난 것처럼 겁에 질려 이리저리 숨어 다닌다. 어떤 형제자매는 일을 처리하려고 외출했다가 스파이와 마주쳤다. 스파이가 질문을 하는데, 그 말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경찰이 심문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겁에 질려 일을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급히 도망쳤다. 못난이 같으니라고. 왜 도망친단 말이냐? 뭐가 두렵단 말이냐?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가 체포되었지만, 다들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가 되지 않고 굳게 서서 증거했다. 그런데 너는

해외에 와 있으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뭐가 두렵단 말이냐? 혹자는 "그가 자꾸 제게 접근하려 하고 캐묻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당신이 뭔데 저한테 캐묻습니까? 제가 당신을 압니까? 당신은 큰 붉은 용의 호구 조사원이라도 됩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묻는 거죠? 계속 물어보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되물을 줄도 모르느냐?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스파이를 만나면 찍소리도 못 하고 겁에 질려 급히 도망친다. 또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이런 사탄의 스파이나 앞잡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보도 있다. 몇 번 전한 후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아니네. 왜 이렇게 큰 붉은 용의 관리 같지?'라고 깨닫고는 이상함을 느껴 포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어.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깜짝 놀랐네!'라며 겁에 질려 그 후로는 누구를 봐도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사실 정말로 스파이에게 전도해 교회로 끌어들인 사람도 있다. 이런 스파이들은 큰 붉은 용이 교회에 잠입시킨 첩자로, 사탄이 의도를 갖고 배치한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아서 교회에 섞여 들어온 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고 진리를 교제하지도 않으며 늘 교회 상황만 캐묻고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본다. 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이미 교회에 교란을 일으켰다면 발견하는 즉시 정리해서 내보내야 한다. 절대 큰 붉은 용의 첩자나 사탄의 심부름꾼이 교회를 교란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 발견하는 대로 제명하되, 인정사정 봐주지 마라! 만약 스파이와 친하게 지내며 늘 사랑으로 대하고 묻는 대로 다 말해 주는 등 스파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 말종은 반드시 바로 출교시켜야 한다! 의심스러운 자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관찰하는 한편, 교회 상황은 조금도 알려 주지 마라. 누가 리더 일꾼인지는 더더욱 알려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스파이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한다면, 언제든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위험과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행동이 의심스러운 자를 발견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진리를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불신파가 분명하니, 얼른 제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자는 스파이가 아닐지라도 좋은 사람이 아니니 제명한다고 해서 그들을 전혀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만약 스파이와 친하게 지내며 교회를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얼른 제명하는 게 옳다. 그런 머저리, 인간 말종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재난만 초래할 뿐이다. 그들은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하니 악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 지금 큰 붉은 용은 무너지려 하고 있지만 패배와 멸망을 달가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며, 하나님 집 내부에 잠입하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그들의 행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현재 눈에 띄게 의심스러운 자들이 드러났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요란스럽게 정보를 캐내다가 사람들에게 한눈에 간파되었고, 결국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제명되었다. 하지만 그 교활한 스파이들이 모두 드러났겠느냐? 그럴 리 없다. 각지 교회에 모두 큰 붉은 용이 잠입시킨 정탐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혹자의 경우,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된 후 사탄의 협박과 회유 등 갖가지 수법에 넘어가 강제로 사탄을 위해 일하다가 교회 내부로 잠입한다. 이런 자가 바로 숨어 있는 스파이다. 이 부류의 첩자는 간사하고 교활하며, 어느 정도 꿍꿍이와 지략이 있다. 이방인의 말로 하자면 능력이 좀 있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감시할 때, 내색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하며, 사람들과 접촉할

때도 결코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와 접촉해도 전혀 뭔가 느끼지 못하고, 그가 어떤 정보를 탐문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감시하러 왔다는 것을 많은 이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교회의 기본 상황을 파악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표면적으로는 교회와 대다수 사람에게 어떤 교란도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류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그들의 교회 감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해결책을 마련해야겠느냐? 방금 말했듯이,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든 그들의 감시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떳떳하며, 그것은 인류의 가장 정의로운 사업이다. 어떤 조직이든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교회의 체험 간증이 전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보면 된다. 어떤 비밀도 없고, 어떤 불법적인 일도 없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나 부정적인 언행은 더더욱 없다. 그러니 그들이 은밀히 교회 상황을 조사하고 감시한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부류의 특수 공작원들은 어느 정도 업무 수준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인은 그들이 뒤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교란만 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또한 이런 불신파, 무신론자, 정치꾼들은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성품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니, 그는 언제 듣든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괴롭지 않겠느냐? 어느 예배에서든 그는 마치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못할 것이며, 교회에서 억지로 버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교회는 교회일 뿐 절대로 정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가 감시를 통해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고, 그렇게 무지하게 살지 말라고 그의 견문을 넓혀 주는 것이다. 같은 피조물이건만 그는 하나님이 인류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느냐! 그를 교회에 남겨 두는 것이 위험하냐? 그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위협이나 교란도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어라. 그가 일을 저질러 교란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를 처리해야 할 때다. 사실에 근거하고 증거를 잡아 그 즉시 분별하고 규정하면 그의 사명도 끝날 테니, 교회는 그때 순리대로 그를 출교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혹자는 "교회 사역은 모두 떳떳하지 않습니까? 왜 감시를 제한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데, 이는 주로 큰 붉은 용, 사탄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이 교회를 감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해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그들의 감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선민들이 박해받거나 학살당하지 않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약 민주 국가의 사람이나 종교 단체에서 참도(道)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인터넷으로 살펴보거나 교회에 연락하면 된다.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는 전부 맞이해 준다. 하지만 상대가 악의를 품은 채 흑백을 전도하여 교회를 모함하고 비방하려 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어찌 그들의 감시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감시를 용납한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우매하고 무지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집에서는 언제나 환영하고

열정적으로 맞이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다. 교회의 대외 정책은 전부 떳떳하고,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며, 또한 슬기롭고 지혜롭다. 이런 긍정적인 사물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는 그릇된 존재요, 멍청이다. "만약 첩자나 사탄의 심부름꾼이 교회 상황을 알아보러 온다면, 저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 사탄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이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사탄의 부류가 교회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그들에게 알려 줄 책임이 없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의도 없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 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혈기가 아니라 지혜다. 혹자는 "만약 그가 저에게 '당신들 교회 리더가 누구입니까? 몇 년째 믿고 있죠?'라고 물으면 말해 줘도 될까요?"라고 묻는데, 그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리더에 대해 알아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고 알려 드릴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복음 사역이 확장되면서 교회의 인원수가 점차 늘어나고,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의 교회에 첩자나 특수 공작원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하라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알려 주기만 하면 된다. 만약 그들이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 가서 즉시 제명 처분을 내리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특수 공작원들의 말과 일 처리 방식, 또는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니 이들과 접촉할 때면 분명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의식하거나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몇몇 형제자매가 이런 사람이 나타났음을 알아챘지만, 그가 스파이나 첩자라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신중히 대처하고 지혜로운 방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챘다면, 서로 알려 주고 방비책을 세워도 된다. 만약 그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조금도 우호적이지 않고, 늘 형제자매들을 모함하고 교회를 교란하며, 증거를 찾아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면, 심지어 형제자매들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거나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식으로 형제자매들에게서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발견하는 순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며, 즉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상황을 접해 본 적이 없을 테니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견식을 키우는 것이고, 인류와 사회, 정치,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이렇게나 어둡고 사악하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 아홉 번째 조항인 '교회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전부 명확하게 교제가 되었느냐? (네.) 교회를 감시하는 자들이 감시하려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회의 교리, 인사 상황, 사역 상황, 재정 상황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이 네 가지 측면의 상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즉 교회의 등장이 사회와 국가, 종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또 교회가 종교의 기치를 들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권을 전복하려 할까 봐 걱정한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이라고 여겨 교회에 대해 탄압, 체포, 박해, 제거 조치를 취한다. 큰 붉은 용 국가는 모든 종교와 신앙을 금지하고, 몇몇 국가는 일부 신앙을 금지한다. 또 많은 국가가 진리가 권세를 잡고 국민들이 진리를 받아들여 정권에

위협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요컨대, 하나님이 사역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일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여러 정부의 감시와 적대를 마주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참도를 살펴보려는 사람으로 꾸민 특수 공작원을 보내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통제하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려 든다. 이 밖에도 그들은 교회 사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는지,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지, 해외의 종교 세력과 연관되지는 않는지 등이 그들이 파악하려 하는 내용인 동시에 걱정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 상황도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이 교회는 인원수가 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그들의 돈은 어디에서 온 거지? 어떤 기관이나 부자가 기부하고 있나?'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있어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들은 사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사악한 인간들이다. 그들이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정권에 위협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교회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다. 교회가 하는 사역이 아무리 정의롭고 정당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왜 그렇겠느냐? 그들은 불신파, 무신론자, 유물론자이기 때문이다. 유물론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것뿐이다. 이것은 그들이 걱정하는 네 가지 상황이다. 그들이 걱정하는 네 가지 상황의 이면의 원인과 목적을 이해했다면 이런 부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방금 두 가지 원칙을 교제했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해 보아라. (그들이 교회에서 교란하면 정리해서 내보내되, 교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가 교란을 일으키고 도처에서 마구 캐물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사정 봐주지 말고 정리해서 내보내라. 반면, 그가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며 분별하기도 힘들다면 상대하지 마라. 그것이 정말 교회 사역이고, 전부 종교 활동이며,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점을 확인한다면 알아서 떠날 것이다. 이는 민주 국가에서 종교 상황을 파악하는 수법이다. 방금 이 인류는 무척 복잡하다고 했는데, 인류의 복잡함은 무엇에 기인하겠느냐? 인류의 사악함에 기인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인류의 사악함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왜 인류가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사탄이 인류를 너무 깊이 패괴시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온 인류가 마귀의 권력 아래 있으며, 크고 작은 귀신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귀신들의 도시로 전락되었다. 귀신이 많이 모이면 복잡해지며, 어떤 악행이든, 어떤 비정상적인(원문: 邪門) 일이든 다 저지를 수 있다. 마귀는 모두 사악하고, 귀신과 귀신 사이에도 서로 싸워야 하며,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기에 복잡해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간단하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며, 본분을 이행하고 본업에 충실히 임하기를 좋아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짓을 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패괴 표출이 좀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강산은 쉽게 변해도 본성은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귀는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마귀에 속하는 자들을 정리해 내보냈는데 이는

좋은 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 어떤 교회는 절반이 마귀고, 어떤 교회는 일부가 마귀인데,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쉽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마귀를 모두 정리해 내보내고 패괴된 인류만 남는다면 교회 사역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가장 가련한 것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마귀가 리더가 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 교회의 하나님 선민들은 화를 입게 된다. 말해 보아라,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가 하는 생각은 전부 사악하고 진리에 어긋난다. 만약 그들을 옹호하는 살아 있는 귀신까지 열 명, 스무 명 정도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 마왕이 지배하는 마굴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는 고기 분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된다. 매일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며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하며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등의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며, 평온한 환경조차 없으니 말이다. 온종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야 하니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이것이 고기 분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사악한 사회, 사악한 인류는 누구를 대하든, 어떤 단체나 조직을 대하든 관점과 대응 방식이 똑같다. 마찬가지로 교회처럼 긍정적인 기관을 대할 때도 그들은 마음을 놓지 않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어찌 됐든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원칙이 있다.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을 믿는 목적 아홉 번째 조항인 '교회를 감시하는 것'에 관해 교제를 마쳤고,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중 첫 번째 항목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교제를 끝냈다. 불신파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에 교제한 이 조항은 앞의 몇 가지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다. 교회를 감시하는 부류가 교회에 섞여 들어온 것은 밥줄이나 지위를 위해서도, 삶이나 일의 편의를 위해서도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다.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간파하고 분별해 냈다면 그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들을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지, 절대 그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섞여 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사람이 진정한 형제자매이고 하나님의 선민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각 부류의 악인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악인들을 제때 분별한 뒤 상응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제명하거나 출교시켜라. 이것이 각 부류의 악인을 분별하고 구분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이 항목에 대한 교제를 마쳤다.

2. 인성에 근거한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인 인성에 대해 교제하겠다. 한 사람이 드러내는 인성을 통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 남겨 두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그의 인성 측면의 모습과 표출, 본질을 통해 볼 때 그가 진정한 형제자매가 아니고 교회에 남겨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또 그가 교회에 남아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교란을 받게 된다면, 그의 모습을 볼 때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대상에 속한다면 교회에서는 신속하게 상응하는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 중 제 14 조에서 교제한 내용이 바로 각 부류의 악인을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었다. 인성

면에서 볼 때 이들의 인성은 분명 나쁘고 악하다. 쉽게 말해 그들은 괜찮은 작자가 아니다. 그러니 그가 드러내는 인성에 따라 그를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출교시킴으로써 그가 계속 교회에서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들의 교회 생활이나 본분 이행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인성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회에서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항목인 인성 또한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조항에 대해 교제해 보자.

1)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첫째는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모두가 이런 부류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의 주된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말에 원칙이 없으며, 늘 속셈과 목적을 갖고 시비와 다툼을 일으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 부류는 분명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근원은 성품이 좋지 않고 인성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살펴보면, 늘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한다. 이는 흑백을 전도하고, 심지어 과장하고 억측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에 속한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말하지 않으며,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 어떤 유익이나 도움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와 접촉하고 왕래하고 소통하며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이 늘 어둠과 혼탁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게 돼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영 생활을 하고 예배할 때도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없고, 늘 그가 말한 시시비비와 이러쿵저러쿵하는 일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누구를 봐도 못마땅하고 문제투성이로 느껴진다. 시비를 일으키는 그의 말을 들은 후에는 내면의 정상적인 사유와 일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까지 교란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늘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유혹되어 시험에 빠지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때로는 남에게 베풀거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다 할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았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과 접촉하면 대부분 시비와 시험에 빠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 갈등과 부적절한 대인 관계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한다. 시비를 일으키는 자들은 특히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교란하고, 전적으로 사람이 내적으로 순수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망가뜨린다. 사이가 좋아 서로 붙들어 주고 돕는 사람은 그의 눈에는 뒤에서 공격하고 판단할 대상이 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얼마간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그에게는 공격할 대상이 된다. 그는 아무리 좋고 긍정적인 것도 비하하며, 무슨 일이든 항상 불만이 많고 한바탕 평론해야 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다. 사실 이 관점이라는 것도 뭔가 진정한 관점이 아니라 그저 헛소리를 하고 시비를 혼동하며 흑백을 전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하고 억측하여 함부로 지껄이고, 없는 일을 날조하거나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은 그의 말이 조리 있다고 생각해 거짓말일 리 없다고 여기고 미혹된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 부류는 어떤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든 항상 불만이 많다. 그들에게 정의감이 있어서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충성을 다하거나 열심히 헌신하거나 양심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불복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 그럼 그들이 함부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느냐? 왜 늘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이겠느냐? (인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바로 인성이 나쁘기 때문이다. 인성이 좋다면 시비를 일으킬 리가 없다. 말을 할 때는 양심과 이성에 따라 해야지, 궤변과 사설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시비를 일으키는 근원은 인성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든 그 의미가 변질된다. 가볍게 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의 말에는 정죄와 저주의 악의가 들어 있다. 또 그 안에는 이간질과 질투, 불복, 증오, 심지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성분까지 들어 있다. 요컨대, 시비를 일으키는 그들의 특징은 주로 이런 것들이다. 이 외에도 이 부류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보면 비웃는다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인성이 좋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이 부류는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보면 비웃는다. 누가 자기보다 나으면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누가 자기보다 못하면 입을 비쭉거리며 비웃고 비꼬고 조롱하고 깎아내린다. 그는 어떤 일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성의 도덕으로 대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도, 누군가가 잘되고 뜻대로 되며 바른길로 가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고 나쁜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하는데, 그는 이것조차 해내지 못한다. 시비를 일으키는 이면의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매우 분명하다. 그의 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각, 내면 깊은 곳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방법을 통해 이 부류의 인성이 악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부류는 그저 입으로 시비를 일으키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람과 일을 대하는 진정한 관점과 태도가 있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가 어느 정도로 진리를 이해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차치하고, 그들의 인성 특징, 그러니까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 한 가지만 볼 때, 그들이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비를 일으키는 이 부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아주 부유한 집 출신의 자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육적인 누림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하러 갔다. 말해 보아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보겠느냐? 마음속으로 탄복하고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육적인 누림을 포기한 것은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론하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의 삶을 내려놓고 온종일 밖에서 복음이나 전하다니, 그러다가 언젠가 남편한테 차이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웬일이랍니까. 복을 누릴 줄도 모르고 가정과 일을 버리며 오직 본분만 이행하다니, 그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 저는 그냥 집에서 제대로 누리고 살 텐데 말이죠." 말해 보아라, 이 말 중에 인성에 부합하는 게 한마디라도 있느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건 사실 왜곡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물질적 누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본래 긍정적인 사물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정죄하고 있네.'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미혹되고 교란되어 하나님을 믿는 열정, 본분을 이행하면서 버리고 헌신하는 열정이 순식간에 30%는 줄어들 것이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 말이 길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커서 한동안 소극적 상태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 몇 마디 말을 듣고 중독되는 사람도 있다. 남을 중독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성은 어떻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그 말들 중 사람이 듣고 믿음이 커질 만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은 다 무슨 말이냐?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불신파의 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은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한 말 중에 인성이 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 인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생활 형편이 좋고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단순히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마음속으로 원망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자격이 있나?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없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축복해 주시고 나는 축복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듯 그 자매가 돈이 많고 부유하기에 질투하고 증오한다. 진심으로 부러워하거나 축복해 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 그 자매가 부유하다고 증오하는데, 그 사람 손에서 빼앗거나 사취할 생각까지 할 정도이다. 이 밖에, 그 자매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면서도 좋은 생활 여건을 버리고 물질적 누림을 내려놓은 채 나와서 본분을 이행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축하할 만한 일, 탄복할 만하고 부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 자매를 축복해 주고 가까이하고 본받아야 마땅한데,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더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느냐? 한마디 한마디 독설이고, 증오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불만과 불평, 원망이 생겨 그 부유한 자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탄복하고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취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는커녕 그 자매를 어리석다고 비웃으면서 그 자매가 남편에게 버림받기를 바랐다. 남의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 만약 그 자매가 정말 버림받는다면 그는 기뻐하지 않겠느냐? 원하는 바를 이룬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그의 속마음이고 그의 속셈과 목적이기도 하다. 그는 남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누가 잘되고 자신보다 나으면 질투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자신보다 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인성이 전혀 없어서 남을 축복해 주는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왜 그렇겠느냐? 인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질투와 원망,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패괴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인성이 악독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다. 그는 이런 패괴 성품을 드러내기에, 사람들이 쉽게 분별하고 그의 패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한 자매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동서 간에 늘 갈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동서 둘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진리를 조금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타인과 함께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패괴를 드러냈을 때도 서로 털어놓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사이가 점점 더 좋아졌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저 집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동서 간에도 친자매 같네요. 그게 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한 가족이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친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낫죠. 동서 사이가 친자매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공통의 추구 목표가 있고, 같은 길을 걸으며, 말이 통하니 영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공통의 목표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이룬 성과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은혜임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갖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 보아라. "흥! 저 동서 두 사람, 겉으로는 사이 좋아 보이죠? 예배 때도 화기애애하고요. 그래도 가끔은 승강이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들이 원래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데요!" 상대가 "저들이 예전에 다투고 싸운 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다 하나님을 믿고 얼마간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거죠. 이제 함께 있으면서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패괴를 교제하며 인식하고, 자주 함께 본분을 이행해서 그런 거고요. 마찰이 여전히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상의하면서 하고요. 이건 어떤 이방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할 수 없는 거라고요."라고 말해도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대꾸한다.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동서 사이는 물론 친자매 사이에도 싸우잖아요? 저 둘이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지 몰라도, 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둘이 재산 다툼을 안 할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바람이고 정신적인 의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소리죠!" 이 말 중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고 상대를 축복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게 좋다고 절실히 느낀 것 같은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제자매들의 이런 변화가 다 기만이고, 하나님을 믿어 진리를 얻고 성품 변화를 얻었다는 것도 다 거짓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의 말을 통해 그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역과 말씀으로 사람에게서 이룬 성과를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자매들이

동서 간에 사이가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어 서로 포용하고 인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속으로 언짢아하고 불만스러워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든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나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몰골이냐? 무슨 마음가짐이냐? 그의 마음가짐은 좀 비정상적이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만약 그의 몰골을 두고 말한다면, 이는 추악한 몰골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류는 계속 교회 생활에 참여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자가 적지 않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속칭 '입이 거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자들은 입이 거친 정도가 아니다. 그들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어둡고 악독한지 모른다! 형제자매들 사이에 어떤 좋은 체험 간증이 있어도 그의 눈에는 모두 인위적인 것, 사람이 상상한 것이며,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여 상당한 수확을 얻게 하고, 사람이 일어나 체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해도 그는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생각한다. '저게 뭐라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 당연히 인식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체험 간증문 하나 쓴 걸로 자신이 이긴 자라고 생각하며 흡족해하는 거야? 나중에 당신한테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지켜보겠어.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거두어 가셔도 울지 않는지,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보아라,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천하가 태평할까 봐, 사람들이 바른길을 걸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느냐? 요컨대,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는 몇 마디 말을 보태 떠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말하든 한 가지 특징이 있으니, 바로 누구든 잘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늘 남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말한다. 상대를 쓰레기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며, 온종일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 반면, 누구 집이 유복하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온종일 마음속으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모두 거두어 자기에게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자들이 뒤에서 내뱉는 그 원망의 말은 듣기가 거북하다. 이런 자가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물론, 이 부류는 위장에도 능하다. 내면이 아무리 악독하고 어두워도 그는 예배 때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깨달음을 교제하고, 또 한바탕 거창한 도리를 늘어놓으며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답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와 접촉하지 않고, 그의 진짜 모습과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 때 그가 하는 옳은 말만 들으면, 대다수가 그의 인성이 얼마나 악랄하고 흉악한지, 그의 인격이 얼마나 저열한지 알아채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와 접하는 기간이 길어져 그가 뒤에서 하는 짓들을 알게 되면, 조금씩 그를 분별하고 역겹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분별할 때는 그 사람이 예배 때 하는 그럴듯한 말만 봐서는 안 된다. 그가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도 보아야 그의 본질과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 부류는 사람답게 말하지 않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누구든, 무슨 일이든 다 논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교류가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그는 한마디 보태고 싶어 하고, 남의 집의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논평 결과, 아무리 긍정적인 일도 그의 말에 의해 부정적인 일이 되고, 아무리

정당한 일도 그의 더러운 입을 거치면 부정적인 사물로 왜곡된다. 이렇게 되면 그는 기뻐하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말해 보아라, 이런 자는 어떤 인간이겠느냐?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좋아 경제 사정이 괜찮아진 형제자매들이 십일조 이상으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는 질투하며 이렇게 말한다. "올해는 왜 그렇게 봉헌을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당신의 헌금의 많고 적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이죠? 하나님 집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듣기 거북한 말이 또 나오지 않았느냐? 누가 어떤 정당한 일,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해도 그는 못마땅해하며 마음속으로 극도의 반감을 품는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네 약점을 잡으며, 구실을 찾아 너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속으로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 꼴에 무슨 체험 간증을 말하겠다는 거야!' 이는 마귀가 본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나고 구역질이 난다. 너희는 이런 부류를 본 적이 있느냐? 이 부류는 용모나 생김새가 어떻든, 시비를 일으키려 할 때면 표정이 아주 괴상해진다. 입을 비쭉거리고 눈을 흘기며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이는 이목구비까지 비정상적이 된다. 이는 일종의 신호로,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신호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차단할 것이냐? (차단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멀리해야 한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비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군요.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할 거라면 제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저는 당신한테 교란받고 싶지 않고, 그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에 빠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비를 잘 일으키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몰골을 지녔는지 잘 관찰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장 멀리하여라. 이 부류는 어떤 인성 특징을 보이느냐? 악독한 말을 한다. 속된 말로 '입이 거친 것'이다. 그들의 악독한 말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언행을 보고, 또 그들의 다양한 언행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계를 보면서 그들의 인성 본질이 어떤지, 악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표출하는 여러 신호와 언행을 통해 그들이 악인임을 매우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류는 제명과 출교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니, 절대 인정사정 봐주어선 안 되며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 그들이 교회에서 교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방금 우리는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부류의 특징에 대해 교제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상황과 인성의 모습을 통해 이 부류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인성은 최악의 지경에 이르러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인성의 도덕조차 결핍되어 있다. 다만 그 나쁜 인성의 특징은 유달리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 그 인성의 특징과 인성 본질을 알 수 있다. 이 부류는 분명 인성이 좋지 않다. 어느 정도로 좋지 않겠느냐? 악할 정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류는 결국 악인에 속한다. 이들이 평소에 하는 말은 가끔 불평을 하거나 약간 질투를 하거나 때때로 인성의 연약함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드러내는 모습은 일반적인 패괴 성품이

아니며, 이들이 악인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십분 증명한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2) 잇속 차리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부류는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분명 잇속 차리기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관념이 있을 것이다. 그는 '패괴된 인류 가운데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건 사람의 본성이야. 악을 행하지만 않는다면, 잇속 좀 차린다고 뭐가 문제겠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정상인이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범주를 넘어 악한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이 부류는 교회에도 적지 않으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곳곳에서 잇속을 차리는데,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나 하나님 집, 교회에서 잇속을 차리는 것이다. 어떤 잇속을 차리겠느냐? 예를 들어,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면 친척이나 친구, 은행을 통해 빌리지는 않고 형제자매들에게 빌린다. 게다가 이자 얘기는 언급하지도 않고, 언제 갚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저 빌리기만 한다. 빌려 달라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사실상 달라는 것이다. 갚을 생각도, 이자를 줄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왜 형제자매들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모두가 형제자매이니 어려움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들이 당연히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끔 이런저런 이유까지 댄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 중 집에 차가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사흘이 멀다 하고 빌리러 가는데, 빌려서는 돌려주지도 않고 기름도 넣어 주지 않으며, 차를 긁히거나 망가지게도 한다. 이 밖에도 누구 집에 맛있는 것이나 쓸 만한 것, 좋은 물건이 있으면 탐내고 궁리하면서 가로채려고 한다. 누구 집에 가든 도둑처럼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이곳저곳 뒤져서 잇속 챙길 만한 것, 가져갈 만한 것이 있는지 살피는데, 작은 꽃 화분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사람들과 외출하거나 식사할 때도 교통비나 밥값을 내지 않고, 좋은 것을 보면 다 사고 싶어 하지만 계산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내게 하고, 나중에는 돈 갚겠다는 말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저 잇속을 차리려고만 하며, 한 푼이라도 이익을 얻으려 한다. 좋은 것을 원하면 돈을 내서 사면 된다. 돈을 내기 싫다면 잇속도 차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큰 탐욕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부류는 인격이 없고 잇속만 차리려 하는데, 잇속을 차리면 차릴수록 마음이 즐거워진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겠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말해 보아라, 그가 반드시 그런 식으로 잇속을 차려야겠느냐? 밥을 못 먹거나 끼니를 이을 수 없는 형편이겠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사실 그는 돈도 쓸 만큼 있고 밥도 먹고 다닐 수 있다. 단지 탐욕이 너무 커서 인격이 없고, 사람들에게 혐오와 역겨움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늘 잇속을 차리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꼭 말을 꺼낸다. 그에게 무슨 일을 처리하도록 안배하든 돈 얘기를 한다. "한 번 나갈 때 교통비가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식비는 얼마가 듭니다...."라고 말이다.

사람들이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줄 겁니다."라고 하면, 돈을 받은 뒤에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한다. "부족해요. 200 위안으로 밖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는 검소하게 살아도 나갈 때는 충분히 노자를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윳돈을 더 많이 갖고 가야 해요. 만약 다 쓰지 못하면 나머지는 교회에 돌려줄 거예요." 하지만 돌아와서는 남은 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지출 보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를 대상으로도 잇속을 차리는데,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탐내지 못하겠느냐? (탐낼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인간이냐? 그는 인격도 없고 양심과 이성도 없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인정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목욕하고 머리 감고 빨래할 때도 예배 장소나 섬김 장소를 이용하면서 교회에서 구입한 세탁기, 온수기, 샴푸, 세제 등을 쓴다. 이렇게까지 잇속을 차리면서 자기 것은 아끼고 교회 것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집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님 집의 물건은 전부 자기 것이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여긴다. 안 쓰면 손해, 안 가져가도 손해, 안 차지해도 손해라고 생각하며, 물건을 망가뜨려도 배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물건은 아껴 쓰고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 집의 설비와 물품은 마음대로 써 대고 망가뜨려도 배상하지 않는데, 이런 자가 좋은 사람이겠느냐? 절대 좋은 작자가 아니다. 특히 교회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할 때가 되면 앞장서서 자원하며 그런 일을 하기 아주 좋아한다. 왜 그렇게 적극적이겠느냐? 이득을 볼 수 있고 잇속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긴다. 뭐든 잇속을 챙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손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그의 논리다. 그는 잇속을 챙기지 못하면 형제자매들을 욕하고 하나님 집을 욕하며 누구든 다 욕한다. 그야말로 악귀요, 구걸하는 거지이며, 말 그대로 거지 조직의 일원으로, 밥그릇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고 잇속을 차린다.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거지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그는 "괜찮습니다. 저를 보고 뭐라고 해도 다 상관없어요. 구두쇠라고 해도 되고, 인색하다고 해도 되고, 거지라고 해도 되고, 거지 조직의 일원이라고 해도 되고, 가난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잇속만 차릴 수 있다면 다 상관없어요."라고 한다. 이런 부류에게 인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자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느 정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특히 집안 사정이 어렵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란과 위해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분량이 작고 매우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반감이 든다. 또 누구든 그를 보면 싫어하지만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탓에 그에게 대놓고 갈취를 당한다. 모두 그의 인성이 좋지 않고 인격이 저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본분도 좀 이행하고 믿음도 얼마간 있어 보이고 섬김 본분을 이행하면서 조금은 힘을 쓰는 그의 모습을 고려하여 대부분 그가 여기저기서 잇속을 챙기는 행위를 눈감아 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그가 교회에서 일으키는 교란은 갈수록 커져서 대다수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이니, 골칫거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는 도처에서 사람을 물어 죽게 할 수도 있는 미친개는 아닐지라도 사람을 심란하게 하는 더러운 파리 같은 자이니, 제명하지 않는 한 그 교란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가 교회에 남아 있으면 늘 화근이 되어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에게 교란된 사람들은 화가 나고 항상 그 같은 사람이 지긋지긋하지만, 방법이 없어 참고 또 참는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중에 이렇게 뻔뻔한

무뢰한이 있다니, 이런 자가 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냐? 그는 그야말로 살아갈 자격도 없는 자다! 어떤 잇속이든 다 챙기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네가 지닌 능력에 따라 그만큼의 물질을 누리되, 그런 능력이 없다면 누리지도,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마라. 다른 사람이 가끔 무언가를 베풀어 주거나 네가 좋아하고 애착이 가는 어떤 물건이 있어 작은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이 가난하면 뜻이 초라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으냐.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계속 잇속만 차리다가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르는 거지, 모두의 눈에 미친개나 파리와 같은 존재가 된다면, 즉시 제명해야 한다. 이런 부류는 철저히 해결해야 뒤탈이 없다.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이 부류를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 줄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못 견딜 정도라면, 그에게 당하고 난 뒤 죽은 파리를 삼킨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모였다 하면 불평하는 정도라면 일찌감치 그를 제명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용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 그를 제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집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는 일이며, 모두를 통쾌하게 해 주는 일이다. 이런 자는 건달이다.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며,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성 사건을 만들기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그의 문제를 교제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악인의 교란이 이미 몇몇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민들이 더는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악인을 속히 처리하고 제명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제명된 후 교회를 고발한다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당신은 제명되거나 출교된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 격리된 채로 반성하세요. 반성한 후에 반성문을 써 오면 다시 교회에서 받아 주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삶을 즐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부터 교회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떠냐?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고, 그와 결판을 낼 필요도 없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그가 속세에 돌아가 돈을 벌며 자기 삶을 살게 하면 된다. 요컨대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이 부류의 인성은 그다지 좋지 않다. 악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그의 인격은 사람을 꽤나 짜증 나게 하고 혐오스럽게 한다. 그는 빈틈만 보이면 그 기회를 이용하려 한다! 이 부류가 법을 어긴다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의 행실이 교회 생활에 초래하는 장기간의 방해와 교란의 결과는 어떤 악행보다도 심각하니, 그를 불신파나 악인으로 규정하여 교회에서 제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불신파가 교회를 교란하고 형제자매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완전히 제지할 수 있다.

방금 우리는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부류를 대상으로 특별한 처리 방법을 교제했는데, 이는 중국 본토의 박해받는 특수 환경에 근거한 것이다. 해외 각국의 교회라면 바로 제명하면 된다. 단, 어떤 사람에게든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교회에는 행정 법령과 규칙이 있고, 그 모든 규칙과 행정 법령은 형제자매들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본분 이행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 형제자매들의 교회 생활과 본분 이행을 교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물론,

형제자매들의 일상생활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리더 일꾼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형제자매의 일부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도 '형제자매'라는 명목으로 형제자매들을 끌어들이고 미혹하여 본분 이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 리더 일꾼이나 형제자매들은 이런 사람에게 처분을 내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들의 이런 행위와 행동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 사역까지 교란하니, 리더 일꾼이 나서서 해결하고 제재해야 한다. 물론, 이 부류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싸우거나 욕할 필요 없이, 그에게 그의 문제의 본질과 많은 하나님 선민이 그를 참소하고 질책한 내용을 분명히 말해 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알려 주어라. "당신을 제명하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고 서명으로 인증한 것입니다.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으니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된다. 이런 처리는 완전히 원칙에 부합한다.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부류는 원칙대로 대하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가 네 것을 빌려 잇속을 차리려 할 경우,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 결정권은 네게 있다. 빌려주는 것은 네 인정(人情)이고, 빌려주지 않는 것은 네 권리다. 만약 그가 "다들 형제자매인데 정말 인색하군요. 물건 좀 빌리자는데 거절하고!"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이건 제 물건이니, 저에게는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죠.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말로 저를 압박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빌려주겠습니다." 누구든 교회라는 명목으로, 또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강탈하거나 빌릴 자격은 없다. 이것은 진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사람이 이것을 지켜야 모두가 공평해지고 모두가 진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누가 "하나님 집 사역에 필요하다.",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빌리려 한다면,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네게 인색하고 쩨쩨하다는 누명을 씌울까 봐 두렵지 않으냐?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빌미로 크게 떠들어 대고, 너를 가리켜 교회 사역을 지키지 않고 형제자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며, 형제자매들이 모두 일어나 너를 내치고 고립시키게 할까 봐 두렵지 않으냐? 그럼 너는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차 한 번 빌려주는 게 뭐가 어때서? 교회에든 하나님 집에든 형제자매에게든 다 빌려주면 되지. 되도록 형제자매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게 좋아. 한 사람의 미움을 사는 건 두렵지 않지만, 모든 형제자매의 미움을 사서 냉대받고 고립되면 어떡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그가 너를 고립시킨다고 해서 그에게 진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가 하는 일이 진리에 부합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다. 소수가 찬성하든 다수가 찬성하든 진리는 진리이며, 진리가 없다면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는 사실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 여부는 그가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네가 본분을 이행하려고 새 컴퓨터를 샀는데 누가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며 빌리려 한다. 네가 빌려주지 않자 그는 "당신은 사랑이 없군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지도 못하고요. 당신은 이 정도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옳으냐? 진리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컴퓨터는 본분을 이행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본분을 이행하는 중이라 컴퓨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신이 제 컴퓨터를 빌려 가면 제 본분 이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에 부합할까요? 대체 컴퓨터를 빌려서 어디에 쓰려고 하나요? 교회 사역에 쓴다고 하는데, 그럼 증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죠. 게다가 교회 사역에 쓴다고 할지라도 제 컴퓨터를 빌려 갈 순 없습니다. 제 컴퓨터를 빌려 가면 저는 무엇으로 본분을 이행하나요?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군요!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잇속을 차리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를 분별력도 없는 바보로 보지 마세요. 잇속을 차리겠다고요? 꿈 깨시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냐?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네가 하는 일은 원칙에 부합할 테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가 함부로 모함하는 말을 들어 줄 필요도 없다. 그가 늘어놓는 그 정도의 도리로는 절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부류가 지닌 인성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처리 원칙은 간단히 이 정도만 교제하겠다.

교회에 나타나는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부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입장, 해야 할 사역, 지켜야 할 원칙,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지녀야 할 태도를 마음속으로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더욱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다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입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사람의 비위는 맞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하나님에게 혐오받게 된다. 원칙에 맞는 일이라면 네가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뒤에서 욕을 먹을지라도 개의치 마라. 반면,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모두가 너를 인정하고 옹호하며 너와 잘 지낸다고 해도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손해를 볼 것이다. 네가 만약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며 다들 너를 좋다고 해도 하나님, 창조주를 노하게 한다면 너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바보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그 일이 원칙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할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태도로 볼지, 사람이 가져야 할 입장과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당부했는지,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먼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너와 사람들 간의 교류나 물질적인 교환, 왕래가 원칙을 지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만약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면, 네가 모든 일을 아무리 잘 지켜내고 완벽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누구와 교류하고 함께 지내든 그 원칙은 상대가 네게서 잇속을 차리는지, 네가 상대에게서 잇속을 차리는지에 있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초로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을 봐서"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형제자매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전제로 삼을 수 있다. 생명 진입 측면의 일과 본분 이행의 일, 그리고 교회 사역과 관련된 일 외에는 어떤 교류도

‘형제자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분이나 생명 진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교류와 관련이 없는데도 늘 ‘형제자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그것을 핑계로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런 말과 방식,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잇속을 차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꾀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를 경계하고,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 교회의 많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는 불신파까지 있어 아무 원칙 없이 일하고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들은 ‘형제자매’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을 하면 교회 사역에 가장 쉽게 지장을 주고 교란한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든 교류이든 모두 진리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적절한 왕래를 피할 수 있고,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기회를 틈타는 것도 물론 막을 수 있으며,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고 나약한 인성을 지닌 사람들이 늘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 손해 보는 일 역시 피할 수 있다. 자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게 뻔한데도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손을 벌리며 이렇게 하는 게 그를 존중하는 거라고 하면 그는 별거 아니라는 척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그자에게 빌려준다. 빌려준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종적을 감춘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니, 이것이 이성적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되는 줄 아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챙겨 주면 너는 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냐? 이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 자꾸 손해 보고 속아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 결국 살길이 막막해지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자업자득이다. 네 그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집에 손을 벌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 돈을 부담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스럽지 않겠느냐? 살길이 막막한데 본분은 어떻게 이행하겠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만족시켜 준다는 법은 없다. 이것을 자업자득이며, 그래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너더러 그렇게 어리석게 굴라더냐! 하나님이 너더러 그를 믿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너더러 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것은 네 개인적인 행동일 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 개인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네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집과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느냐? 너는 성인이면서 왜 성인이 갖춰야 할 판단력조차 갖추지 못했느냐? 사회에서 아무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느냐? 곰곰이 따져 보지 않겠느냐? 왜 ‘형제자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냐? 이는 네가 어리석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너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미련하다. 그것도 미련하기 그지없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3 분의 1 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불신파인데, 설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냐? 형제자매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대상이고 진정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모르느냐? 형제자매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패괴된 인류를 대표한다! 그러니 그를 믿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인 행동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든 하나님 집이나 형제자매를 찾지 마라. 아무도 너 대신 값을 치러 줄 수 없고, 아무도 너 대신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네가 자초한 결과는 네가 받아들이고 책임져라. 또 이런 일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교제하거나 토론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그 무의미한 일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 정말로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끼리 해결하면 된다. 알겠느냐?

이런 일을 교제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식견을 키우며, 또 경종을 울려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도 온갖 부류가 있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몇 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패괴되어 패괴 성품을 갖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악을 행할 수 있으며, 여건만 갖춰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방금 교제한, 시비를 일으키고,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이다. 이방인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가 교제한 이 인성의 모습은 영락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그렇게 위대하고 고상하며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본다면 너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형제자매는 귀하다. 일단 형제자매가 되면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된다. 형제자매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니 완전히 믿어도 되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진리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없었으니, 그것은 네 관념과 상상이다. 지금까지도 '형제자매'라는 호칭의 실제 함의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너는 너무나 미련하며, 그동안 들은 설교가 다 헛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분명히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냐? 다른 사람, 즉 형제자매를 그토록 신성하고 위대하게 보면서 입만 열었다 하면 "형제자매가 싫어해요.", "형제자매가 화났어요.", "형제자매가 고생했어요.", "형제자매가 이러저러해요."라며 형제자매들에 대해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형제자매가 얼마나 존귀하고 신성하며 신뢰할 만한지 언급된 구절이 한마디라도 있더냐? 한마디도 없지 않으냐?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이러면 바보인 것이다. 그러니 네가 형제자매로부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든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결국 네가 입은 손해와 피해는 수업료인 셈이며, 그것은 교훈이다. 영원히 기억해라. 형제자매는 진리를 대변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기도, 증인도 아니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다. 형제자매가 누구냐? 너와 마찬가지로 패괴된 인간으로, 하나님에게 관념을 품고 있으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한다. 또 교만한 성품, 흉악하고 사악한 성품을 지녀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본분도 건성으로 이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형제자매들에게서 잇속을 챙길 수도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너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모든 사람의 실상을 똑똑히 보고, '형제자매'라는 호칭과 주변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해서 모두와 정당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상호 교류, 물질적 왕래, 아부나 아첨, 적당히 타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여 모든 형제자매 사이에 융화되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네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역겹고 혐오스럽게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생존 방식과 생존 태도,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정당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한다. 이런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며 왕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 이사하면서 네게 도와줄 시간이 있는지 물어볼 경우 네가 원한다면 가도 되지만, 원치 않거나 본분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 가지 않아도 된다. 이는 네 권리임은 물론 네가 지켜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상대에게 미움을 살까 봐, 형제자매들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해칠까 봐 억지로 타협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승낙을 했다가, 승낙한 뒤에 내키지 않아 하며 본분까지 지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족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자기를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게 한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은 아니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네 행동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교회 사역을 위한 것도, 본분 이행을 위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네 책임과 의무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기억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해 봤자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남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실 본분 이행만으로도 바빠서 예배하고 묵상할 시간도 겨우 갖다 보니 분명 가기 싫고 원칙상 가면 안 되는데도, 체면 때문에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소인배와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틈을 내주어 생명 진입을 위해 바쳐야 할 시간을 날려 버리게 된다. 이는 손해가 아니겠느냐? 손해를 봐도 싸다! 조금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다. 왜 손해를 봐도 싸다고 하겠느냐? 누가 너더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더냐? 누가 너더러 남의 미움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라더냐? 남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선택했으니, 그래도 싸다! 혹자는 "사람이 진공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왕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왕래하는지에 달렸다. 원칙 있게 왕래하는 것과 원칙 없이 무골호인처럼 왕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진리 원칙과 하나님 뜻에 부합하며, 네 생명 진입에 더 도움이 되겠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수렁에 빠져든다면 최후의 결과는 네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악인이 지닌 인성의 모습은 이외에도 많지만, 오늘은 많이 교제하지 않고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과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것 두 가지만 교제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들은 후에야 그나마 느끼고 분별하면서 "인성이 좋지 않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회에는 원칙과 규정이 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처리하면 된다. 오늘 이 내용을 교제한 목적은 많은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악인을 확실히 알고 분별하여 한마음으로 그들을 제명하는 데 있다.

2021 년 11 월 20 일

리더 일꾼의 직책(25)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4)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오늘은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에 관해 교제하겠다. 지금까지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할 때 분별해야 할 몇 가지 내용과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 즉 각 부류의 악인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교제했다. 각 부류의 악인을 어떻게 정의해야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와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모두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은 교회가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으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세 가지 큰 항목으로 각종 악인을 분류하고 해부하겠다. 그 세 가지 큰 항목은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큰 항목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두 번째 큰 항목은 인성이다. 그의 인성을 해부함으로써 그가 교회가 제명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분명히 알 수 있다. 세 번째 큰 항목은 무엇이겠느냐? (본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본분을 대하는 태도가 세 번째 큰 항목이다. 첫 번째 큰 항목은 이미 교제를 마쳤고, 두 번째 큰 항목인 인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교제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면 악인의 모습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전에 교제한 세부 모습들을 보면, 이 두 부류는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어도 끝까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갖가지 모습은 교회 생활과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 그리고 하나님 선민들 간의 관계를 교란하고 망가뜨린다. 그들의 모습과 본성 본질을 볼 때, 이 두 부류는 악인의 범주에 넣어야 하며, 교회 리더와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들을 분별하여 규정하고 제때 제명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매우 적절하다. 이 두 부류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진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전혀 순종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늘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며, 무책임하게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데다가 몇 번을 가르쳐도 고치지 않아서 교회 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심각한 교란을 일으킨다. 그러니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가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의 무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100% 적절하며,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첫 번째 부류인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단순히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남들과 소통할 때 장애가 있는 등의 간단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품에 문제가 있다. 성품 문제는 깊이 들어가자면 본성 본질의 문제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인성의 문제이다. 이 부류는 인성이 너무나 악랄하고 비열해서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지낼 수가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베푸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는 짓마다 교란하고 망치며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늘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대놓고든 숨어서든 그런 일만

하면서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에게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이런 부류는 교회가 제명해야 할 대상이다. 또 다른 부류는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잇속을 차리려 하는데, 눈이 늘 이익에만 쏠려 있으며,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것이나 본분을 잘 이행하여 본연의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형제자매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리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잇속만 채우려고 한다. 그들이 교회에 있기만 해도, 그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형제자매들은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들의 행동에 반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이 늘 심각하게 교란받고 속박받는다. 여기에서 '심각하게'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실생활에서 불신파와 악인들에게 교란받을 때, 어떤 이는 감정적으로 속박받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눈에 거슬려도 직설적으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마음이 늘 속박받아 평안을 얻지 못한다. 이는 형제자매들을 심각하게 교란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 두 부류를 분별해야 한다. 무릇 악인에 속한 자는 모두 교회에서 제명해야 할 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 원칙은 지난 예배 때 교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자세히 교제하지 않겠다. 어쨌든 앞서 교제한 두 부류는 형제자매들의 교회 생활이나 본분 이행의 질서를 교란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의 행위는 믿은 지 얼마 안 돼 토대가 없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쉽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 처리 방식과 방법에 근거하여, 또 그들의 인성이 보이는 갖가지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부정적 결과에 근거하여 이 두 부류를 제명 대상으로 보고 악인의 무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이 두 부류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정의한 악인처럼 그렇게 난폭하고 흉악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으며, 뚜렷이 드러나는 모습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과 인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번에 교제한 두 부류의 모습과 그들을 처리하는 원칙이다.

2. 인성에 근거한다

3)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

오늘은 계속해서 인성 항목 중 또 다른 몇 가지 부류의 모습을 교제하겠다. 먼저 세 번째 부류에 대해 교제해 보자. 이 부류가 지닌 인성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는 말은 글자만 봐도 이해하기가 무척 쉽다. 행동과 태도, 말투를 보아 이 부류는 예의도 지키지 않고 단정하지도 않으며 올바르지도 않은 사람 같다. 이것이 이 부류의 모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관점과 추구 방식에 편차와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언행에는 경건함이 전혀 없고, 이들의 생활 모습과 인품은 성도의 품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들의 언행을 종합해서 요약하자면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라고 형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체적인 모습은 많이 있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분별하기도 쉽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파, 이방인과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방탕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예배 때 옷차림이 매우 추레하다. 어떤 사람은 외출 전에 단장도 하지 않는데, 머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산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어떤 사람은 너저분한 차림에 낡아 빠진 슬리퍼를 신거나 심지어 잠옷 바람으로 예배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지내며 개인위생에 신경쓰지 않아서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아무렇지 않게 예배에 온다. 그들은 예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웃집에 놀러 가듯 가볍게 대하며, 예배 때도 무절제한 언행을 보인다. 큰소리로 말하고 거리낌이 없으며, 심지어 기분이 좋아지면 감정이 격해져서 손발을 휘저으며 몹시 제멋대로 군다.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있든 시시덕거리고 손짓 발짓을 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등 몹시 건방지고 심지어 오만하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결코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이리저리 돌린다. 이것이 방탕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매우 제멋대로이고 전혀 절제할 줄 모른다. 물론, 이방인들도 이런 사람의 언행을 교양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교양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성인이라면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언행을 보이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올바르고 적합한지, 특히 어떻게 해야 성도의 품위에 맞고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상 인성에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할 때, 형제자매들 앞에서 위장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절제의 정도와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성도의 품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복과 차림새는 단정하고 발라야 하며, 기이한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해야 하고 손짓 발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하고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며, 보는 이들이 적절하다고 느껴야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흡족해한다. 그런데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살아 내는 것조차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하다. 바로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인격과 존엄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때 의관을 바르고 단정히 하라고, 기이한 차림새를 하지 말라고 거듭 규정하고 요구해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주 슬리퍼를 신고 산발을 한 채, 심지어 잠옷 바람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부류의 한 가지 모습이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을 하고, 짙고 요사스러운 화장까지 한 채 예배에 오는 것이다. 매번 예배에 오기 이틀 전부터 단장하고 치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장신구를 하며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를 고민한다. 심지어 어떤 여성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아이섀도와 노즈 쉐이딩까지 한다. 더 심한 사람은 어깨와 등을 드러내는 몹시 야한 차림새를 하거나 기이한 차림새를 한다. 그들은 예배 때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교제에도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인식이나 체험 간증을 나누는 법도 없다. 대신 모든 사람과 비교하며, 누가 자기보다 옷을 잘 입었고 누가 못 입었는지, 누가 유행하는 명품을 입었고 누가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옷을 입었는지, 누가 얼마짜리 팔찌를 했는지 등에만 관심을 두고 심지어 때때로 그런 말을 내뱉기까지 한다. 이 부류의 옷차림과 언행을 보면, 그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 진입을 추구하여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재력과 물질적 향유를 과시하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예배 장소에 와서 뽐내며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유행 패션과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한편, 유행을 좇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게 한다. 일부 형제자매들이 반감의 눈빛과 태도를 보여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구는데,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닌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부자 행세를 하면서 싸구려 향수를 뿌리고 예배에 참석한다. 그가 들어오면 향수와 분, 헤어 오일의 향이 뒤섞여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 많은 사람이 화는 나지만 말은 못 한 채 그들을 보고 역겨워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그들을 멀리한다. 차려입었든 편하게 입었든, 이런 자들의 특징은 바로 예배 때든 평소 형제자매들과 만날 때든, 혹은 일상생활에서든 언행과 생활 방식이 특히나 자유분방하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난히 제멋대로여서 조금도 자제할 줄 모른다. 그들은 생활에 규칙이 없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며 일 처리도 제멋대로 한다. 또, 개인의 체험을 말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도 거의 나누지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도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만 말하겠느냐? 오직 사회 트렌드, 유행 패션, 맛집, 유명인 심지어 연예인의 사생활, 사회의 기이한 일화들만 말한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삶의 중점을 먹고 마시고 노는 데 둘 뿐, 교회 생활을 하고 본분을 이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두지 않는다. 이른바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란 이 부류의 삶과 인성이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일 처리 방식을 가리킨다. 그들은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귄다. 또 그들은 사회의 유행어를 자주 따라 하는데, 형제자매들이 듣기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해하든 못 하든 상관하지 않고 다 내뱉으며, 심지어 유명인이나 가수, 배우의 말투를 종종 흉내 내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이 자주 쓰는 긍정적인 단어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교제하는 법도 없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세상의 트렌드이며, 각종 유명인과 연예인은 그들이 숭배하고 모방하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단어나 말을 아주 빨리 익혀 생활에 적용하고 형제자매들과 대화할 때도 쓴다. 물론 이런 단어는 확실히 긍정적이지도 않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나아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것은 패괴된 인류, 사악한 인류가 만들어 낸 유행어로서 사악한 세력의 사상 관점을 완전히 대표한다.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 사악한 흐름을 좋아하는 불신파들이 자주 관심 갖고 받아들이며 사용한다. 그들은 하나님 집의 영적 용어와 단어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마음을 써서 경청하거나 배우려 하지도 않지만, 이방 세계의 부정적인 것들, 양아치 부류들이 관심 갖는 것들은 매우 빨리 배우고 또 금방 익힌다. 그래서 외모나 차림새, 언행으로 보나, 드러내는 각종 사상 관점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로 보나 그들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유별나 보인다. 유별나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그들의 언행이 이방인처럼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불신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집의 무대에서 노래 몇 곡을 불러 모두에게 인정받았다고 해 보자. 그는 자신이 스타가 된 것처럼 공연 때마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굳이 어떤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며 특이한 색으로 염색까지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정하고 바르게 차려입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집의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집의 규정은 너무 엄격하고 번거로워요! 스타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불평한다. 노래 몇 곡 부르고는 자기가 대단한 스타라도 된 듯 툭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이방의 스타들은 손가락 몇 개로 마이크를 잡을까? 몇 걸음 걸어 무대에 올라가지?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꽃다발을 주는 사람이 없을까? 세상의 스타들은 다 매니저나 보조가 있어서 일반적인 일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대응하지 않아도 돼. 다 보조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가수를 하면 밥 푸는 것, 옷 입는 것, 물건 사는 것 등 자잘한 일까지 전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나님 집은 너무 보수적이야!' 그는 늘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게 즐겁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언짢아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겠느냐? 진리를 실행하겠느냐? 그는 왜 반성하지 않겠느냐? 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매우 치우쳐져 있어서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데 그는 왜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가 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막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이는 불신파의 관점과 행동 방식이 하나님 집에서 통하겠느냐?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평소 언행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경멸감을 준다. 이 부류는 '사상이 개방적'이고 몹시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사탄의 성품만을 드러낸다.

하나님 집에서는 형제자매 간에 남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성과 엮이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이들은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몰라 충고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은 채 몰래 이성을 꼬시고 연애를 하여 교회 생활을 교란한다. 그들은 이성과 접촉하기를 좋아하며, 나아가 이성과 접촉하고 엮일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생김새가 괜찮거나 대화가 잘 통하는 이성이 있으면 괜히 무례하게 장난치거나 시시덕거리며, 옷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심지어 겨울에 눈이 오면 이성의 옷 속에 눈 뭉치를 넣기도 한다.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처럼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선을 지키지 않고,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한다. 혹자는 "그게 무슨 소란인가요? 그건 애정 표현이죠. 분위기를 내는 거고 로맨틱한 거라고요."라고 말하는데, 로맨틱한 걸 원한다면 장소를 잘못 골랐다. 교회는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지, 남녀 간에 시시덕거리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시시덕거리면 대부분 그 모습을 보고 반감과 역겨움을 느낀다. 핵심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점이 없다는 것이고, 너 역시 인격과 존엄을 잃는다는 것이다. 네 나이가 몇이냐?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느냐? 남녀유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냐? 아직도 남녀 간에 시시덕거리다니! 일고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까불고 장난치는 것은 정상이다. 그 나이대에 그런 행동, 그런 흥미를 보이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성인이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유치한 것 아니겠느냐? 간단히 말하자면 유치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겠느냐? (제멋대로이고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해도 너무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치를 알아야 한다.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방탕한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방탕한 사람은 얼마나 경박하고 천박하냐! 자극을 좇으려 이성의 옷 속에 눈 뭉치를 넣고, 뒤쫓아 다니며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상대의 엉덩이까지 걷어찬다. 누군가 그런 행동은 너무 방탕하고 남녀 간에 선을 명확히 지키지 않은 거라고 지적하면 그는 "둘이 너무

친해서 장난친 거니까 사람들도 이해해야죠."라고 말한다. 그는 심각하게 제멋대로여서 스스로 방종하게 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방종하게 굴도록 끌어들인다. 이 자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을 교회에 남겨 두어야겠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류와 어울리면 항상 불편하고 어색하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정상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면서 "요 몇 년 동안 어디에서 굴러다녔습니까?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줄 알았잖아요! 잘 지냈습니까?"라고 한다. 만나서 인사하는 방식조차 이렇게 거칠고 건방지다. 말만 거친 게 아니라 손발까지 휘두르니, 건달이나 토적 같지 않으냐? 너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락당하고 희롱당하는데 기분이 좋겠느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데 말도 못 하고 그저 참기만 하다가 다음에 또 마주치면 멀리 피할 것이다. 요컨대, 이 부류의 인품은 어떠하냐? (좋지 않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든, 언행이나 처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방의 트렌드를 대하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부류에게는 경건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진심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모습, 어디에서나 스타며 아이돌을 따라 하는 모습뿐이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그들은 뉘우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지닌 인성의 특징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섞여 들어온 이방인이자 불신파라고 단언할 수 있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부류의 사람은 이방의 토적이나 건달처럼 말하고 단어를 구사한다. 특히 사회의 연예인이나 부정적인 캐릭터의 말과 행동을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말에 양아치 기질이 있어서 건달이나 불량배가 하는 말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이방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상한 말을 몇 마디 하면 형제자매들은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 왠지 첩자나 스파이 같은데?'라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확신하지 못해도 대부분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도 거칠고,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말한다. "첩자라고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게 뭐가 무섭죠? 무섭다면 당신들은 안 나가 봐도 됩니다. 제가 가서 맞짱 뜨죠!" 이 담력과 배짱을 보아라. 너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토적이 하는 말 같습니다.) 토적이 하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과는 다르며, 유난히 거칠다. 사람에 따라 익히는 언어도 다 다르다. 그 사회인들은 오로지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을 하고, 토적이나 건달들은 그들의 은어를 쓰기 좋아하며, 불신파들은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말만 한다. 좋은 사람들, 단정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이방인의 말을 들으면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워하며, 아무도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일부 불신파는 10 년, 20 년을 믿고도 여전히 이방인의 말을 하는데, 그런 말만 찾아서 하며, 심지어 말할 때의 행동, 눈빛, 표정, 손짓까지도 이방인을 흉내 내려 한다. 이런 부류가 교회의 형제자매들 눈에 좋게 보이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가 좋지 않게 보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느냐? (혐오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혐오할 것이다. 답은 뻔하다. 이 부류의 사람이 살아 내고 추구하는 것,

마음속으로 숭배하는 사람과 일, 사물을 보면, 그들의 인성에는 단정하고 올바른 면모가 없어 경건함이나 성도의 품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성도가 해야 할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인격과 존엄이 있는 말을 듣기 어렵다. 이런 말을 듣기가 매우 힘들다. 마음속으로 숭배하고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이 성도가 추구하고 동경해야 할 것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살아 냄이나 언행을 절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에게 절제하라고, 방탕하거나 방종하게 굴지 말고 단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인성과 이성을 갖추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 실제에 진입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정상적인 사람, 성도의 품위에 맞는 사람, 인격과 존엄이 있고 예의를 알며 외적으로 이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낡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들을 보고는 비꼬고 조롱하듯 말했다. "집이 엄청나게 낡았네요.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돼지우리로나 쓸 만하겠어요. 얼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자 그 집 사람이 말했다. "이사 가는 것 자체는 쉽죠. 하지만 누가 저희에게 집을 준답니까?"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양아치 기질이다. 그 사람이 "이사한다면, 누가 저희에게 집을 준답니까? 당신 집에 남는 집이라도 있나요?"라고 말하면 그는 할 말을 잃는다. 남의 어려움을 보았다면,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말해야 한다.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느냐? 이것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문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양아치 기질이 너무 심한 것으로, 이런 자는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격, 존엄, 배려, 포용, 사랑, 존중, 이해, 동정, 연민, 헤아림, 도움 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이는 정상 인성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요소인데, 그는 그런 것을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어려움을 보고도 비웃고 비꼬고 조롱하고 조소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상처와 무력감, 고통, 심지어 골칫거리까지 안겨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양아치 기질이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 대다수는 정확히 간파하고도 참고 또 참는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의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 본성 본질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망과 훈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은 이런 부류를 가리켜 "제멋대로 산다."라고 하고, 또 "남들이 뭐라든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논리란 말이냐? 이러한 소위 명언이나 관용구들은 이 사회에서 흔히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짓이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부류 사람의 인성의 모습은 대체로 이러하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부류가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든, 형제자매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하나님 선민들의 정상적인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치든, 어쨌든 그들 인성의 모습과 표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초래되어 형제자매들이 교란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방임해서는 안 된다. 가벼운 경우에는 도와주고 붙들어 줘도 되고, 혹은 책망과 훈계,

경고를 해도 된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 즉 행동거지가 특히 방탕하여 이방인이나 불신파 같고 성도의 품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리더 일꾼이 상응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 처리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형제자매가 동의한다면 이들을 제명해야 하며, 최소한 이들이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벼운 경우란 어떤 것을 말하겠느냐? 이를테면 새 신자의 상황이다.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기독교를 믿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언행에 이방인의 습성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차 뉘우치고 변화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사람다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부류는 악인의 범주에 넣지 말고 도움을 줄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다른 부류는 20 세 전후의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3, 5 년 정도 되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아직 노는 것을 좋아하고 안정되지 않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이 미숙하여 어린아이 같은 말이나 행위, 행동 방식 등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며,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점차 변화하게 해야지, 너무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성인이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언행이나 행동 모습이 이방인처럼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여러 번 가르쳐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문제이니 하나님 집의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부류의 언행과 인성 표출이 대다수 사람을 교란하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반감을 품고, 그의 말도 듣기 싫어하며, 그가 말하는 표정도 보기 싫어하고, 그의 차림새도 보기 싫어한다면, 또한 그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이 기뻐하고 상태도 좋지만, 그가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형제자매들 속에 끼기만 하면 대부분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반감이 들어 마치 빈대 한 마리가 성가시게 구는 것과 같다면, 그런 부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악인이다. 즉, 그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마다 다수가 교란받고 큰 반감을 갖는다면, 이런 부류는 일찌감치 처리해야지, 방임하거나 더 관찰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 정리하여 내보내고, 일반 교회에 보내 회개하게 해야 한다. 왜 이렇게 처리하겠느냐? (그는 많은 사람을 교란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며, 교회 생활을 교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 모습이 초래한 결과와 영향들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근거하여, 리더 일꾼과 하나님 선민들은 이런 사람의 행위를 본체만체하며 덮어놓고 용인하거나, 다수에게 교란을 끼쳐도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적절하다. 하나님 집의 규정에 따라 그를 교회에서 정리해 내보내야 하며,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예전에 교회에서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부류를 처리한 적이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이 부류를 처리할 때 어떤 이는 울면서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가족들은 다 이방인이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말을 참 듣기 좋게 하고, 꽤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하나님 집에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가 과연 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그가 인성이 전혀 없고 양심과 이성도 없으며, 마음도 영혼도 없는 인간임을 간파했다면, 더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기회를 줘도 소용없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좋은데 단지 나이가 어려 인성이 미성숙할 뿐이고, 몇 년 지나면 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지, 절대 교회에서 제명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 하나를 망쳐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타고난 불신파로, 천성이 방탕하고 무지하며 우매하다. 선천적으로 인성에 '염치'라는 두 글자가 없기에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품위 없는 짓을 하고 나면 후회하고, 남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도 형제자매들의 기분과 시선, 자신의 인격과 존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껏해야 집에서 자녀나 형제, 자매와 장난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집 밖에 나가 외부인과 접촉할 때는 무엇이 염치이고 무엇이 체면인지, 무엇이 예의이고 무엇이 존엄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것조차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들 그가 변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자제할지 몰라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겠느냐? 오래지 않아 옛 병이 도질 것이다. 이 부류는 인성 안에 존엄도 염치도 없어서 예의란 무엇이고 체면이란 무엇인지, 성도의 품위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선천적으로 인성 안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 네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고, 교화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조속히 정리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교란하거나 이곳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하나님 집에 아무나 와서 머릿수를 채우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니 아무리 머릿수를 채워 보았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제명해야 하고, 하나님 집에 남겨서는 안 되는 자는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향받게 하지 마라.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불공평하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부류의 본질을 간파했다면 서둘러 제명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용인해 주어서는 안 된다. 혹자는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간혹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 측면의 사역에는 아직 그가 필요해요. 그는 사랑이 꽤 있고 대가도 좀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집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본분을 이행하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왜 단정하고 올바른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겠느냐? 왜 꼭 그런 양아치, 불량배, 얼간이 부류가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 교란하도록 남겨 둬야겠느냐? 왜 꼭 이방인처럼 사는 불신파들이 하나님 집에서 힘쓰도록 남겨 둬야겠느냐? 하나님 집에는 힘쓰는 자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 집에서는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란다.

지금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5~6 년 이상 믿은 자들이다. 본분 이행 과정에서 각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완전히 드러났으며, 불신파, 흐리멍덩한 사람, 거짓 리더, 악인, 적그리스도 부류도 전부 드러났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몇 번이고 가르쳐도 고쳐지지 않는 자들이며, 이미 하나님 집의 사역에 심각한 교란과 방해가 되고 있음을 많은 하나님 선민들도 똑똑히 보았다. 이런 불신파, 악인, 적그리스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정리하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의 진행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회 생활이 늘 교란받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급 리더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내 눈에는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예배 때 어떤 이들은 온갖 꼴사나운 행태를 보인다. 앉은 자세도 서 있는 자세도 바르지 않고, 찻물과 휴대폰에 화장품, 향수까지 옆에 갖다 놓는다.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수시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어떤 이들은 계속 물을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나 이방인들의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몸을 비틀어 뱀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있는 등 바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어떤 이는 밤에 침실에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아침까지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도 하지 않고 영 생활도 하지 않으며 먼저 휴대폰을 켜서 뉴스부터 본다고 한다. 식사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이나 고기를 보면 끝도 없이 먹어 대는데, 다른 사람은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이며, 그러고는 바로 잠든다. 무엇을 해도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이고, 이방인처럼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은 전혀 없으니 꼭 짐승 같다. 말해 보아라, 양아치 기질이 이렇게 심각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그들은 자질이 형편없어서 진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전혀 없는데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양심과 이성이 없는데, 설교와 진리 교제를 듣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무슨 진리를 얻는다는 것이냐? 인성이 없는 자는 짐승이요, 마귀요, 영이 없는 죽은 자이다. 그들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들을 자격도 없다.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얻으라는 것은 오리 보고 홰를 타고, 소를 보고 나무에 오르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예전에는 어떤 부류를 짐승이라고 할 때 '짐승' 앞에 '개' 자를 붙여 '개 같은 짐승'이라고 했다. 그런데 개를 키우면서 가까이 접해 보니, 개는 사람이 갖추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예의를 알고, 말을 잘 듣고, 체면을 차릴 줄 안다는 것이다. 개에게 활동 범위를 정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며, 가지 말라는 곳은 절대 가지 않는다. 만약 실수로 경계를 넘어서면 스스로 재빨리 물러나 꼬리를 흔들고 애걸복걸하면서 잘못을 인정한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잘 알고 있다. 바로 '이곳은 주인의 영역이고 주인의 집이니, 주인이 가라는 곳만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 해.'라는 것이다. 네가 때리지 않아도 강아지는 가지 않는다. 체면을 차릴 줄 아는 것이다. 강아지도 염치를 아는데, 사람은 왜 모르는 것이냐? 염치를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혀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개의 장점조차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할 때는 '개 같은 짐승'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개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그 짐승 같은 부류는 개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교회 생활과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에 교란을 일으킨다면 제때 제명해서 내보내야 한다. 이는 합당하고 정당한 일로, 전혀 지나치지 않다. 이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부류가 본분을 이행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고 한들,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느냐? 자기 행동조차 절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진리를 받아들인단 말이냐? 자기 인격과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이 부류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이는 완전히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탄에게 교란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내가 방금 말한 몇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말로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육적으로 방종하여 성도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부류를 우리가 이방인, 불신파로 분류하는 것이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방인, 불신파로 분류한 이상, 교회에서 제명해야 할 각종 악인의 범주에 넣는 것도 당연히 지나치지 않다. 자기 행동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더더욱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적대시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진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겠느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을 처리하는 원칙은 완전히 적절하다.

4) 보복하기 좋아한다

세 번째 부류인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교제를 마쳤다. 이 부류 외에도 악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 중에는 교회에서 분별하고 제명해야 할 여러 부류의 악인이 있다.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교회에서 분별하고 제명해야 할 여러 부류의 악인 중 네 번째 부류는 매우 다루기도 어렵고 정말 골치 아픈 자들이다. 어떤 부류겠느냐? 바로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다. '보복하기 좋아한다'는 말만 봐도 이 부류는 좋은 작자가 아니다. 쉽게 말해 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성적으로 일관되게 드러내는 모습과 일처리 원칙을 보면, 그들은 마음씨가 선량하지 않다. 속담에 "만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류를 가리켜 선한 부류가 아니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씨가 선량하지 않고, 악과 독, 독기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류는 누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이익과 체면, 지위를 건드리거나 비위를 거스르는 순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적대감을 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적대감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 행동의 목표와 방향은 분풀이, 화풀이를 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가리켜 보복이라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이런 부류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속 좁은 자든, 전횡을 일삼는 자든, 아니면 비교적 예민한 사람이든, 어떤 말로 이 부류의 인성을 지칭하거나 개괄하든 간에, 어쨌든 이 부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다음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인다. 즉, 누가 고의든 아니든 그를 상처 주거나 비위를 거스르면 그 사람은 화를 입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마치 일부 사람이 "그는 자기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를 건드려 상처를 주었다면, 쉽게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지 않으냐? (있습니다.) 분명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화를 내거나 따질 만한 일이든 아니든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 부류는 그 일을 자신의 의사일정에 올려 두고 가장 중요한 일로 대한다. 누구든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가만두지 않고, 상대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적으로 여기는 모든 이를 대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 중에 자신의 내적 상태를 교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교제하고 나누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나

패괴에 대해 말할 때,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나 패괴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 의도가 없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들은 후에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대하지 못하면 보복 심리가 생기기 쉽다. 만약 그가 그런 말을 들은 후에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보복하려 든다면 교회 사역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니, 그 일은 반드시 제때 처리해야 한다. 교회에 악인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교란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악인이 교회를 교란하는 사건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네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든, 그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면, 그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의 패괴를 말하면서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 스스로를 인식한다면서 왜 나를 폭로하는 거냐고. 당신이 내 패괴를 폭로해서 내 체면과 존엄을 떨어뜨리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나를 난처하게 하고, 내 위신을 깎고 내 명성에 흠집을 냈으니 나는 복수할 거야. 난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날 만만하게 보지 마. 내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막 대해도 되는 줄 알아? 나를 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어떻게 복수할지는 잠시 차치하고, 이 부류의 사람이 이런 작은 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일을 마주했을 때 올바르게 대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오심을 품고 기회를 노려 보복하며,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이 부류의 사람은 인성이 어떠하냐? (악독합니다.) 이들이 선한 부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부류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교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이런 패괴가 있지. 그가 말한 건 꼭 내 내적 상태 같네. 그가 의도적으로 나를 폭로했든, 아니면 무의식중에 우연히 내 내적 상태와 비슷한 것을 말했든 나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해. 그가 어떻게 체험했는지, 어떻게 진리를 구해 이 측면의 내적 상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실행하고 진입했는지 들어 보자.' 이런 자가 바로 진정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가 인식한 패괴 성품이 어떻게 내 내적 상태와 똑같을까? 나를 말하고 있는 건가? 어디 말할 테면 말해 보라지. 어차피 나는 손해 본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를 텐데. 그는 그냥 자기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일치한 걸 수도 있어. 다들 내적 상태는 같으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마음에 증오심이나 보복심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선하지 않은 부류의 악인들은 다르다. 똑같은 일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일로 여겨 처리하거나 대한다. 물론 진리를 받아들이는 좋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보통 사람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아도 증오심을 품지 않으며 보복하려는 마음은 더욱 품지 않는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부류는 이렇게 평범하고 흔하디흔한 일에도 마음에 풍파가 일고 평정을 잃는다. 그는 긍정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닌 흉악하고 사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보복하려 한다. 보복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담을 하며 그를 헐뜯었다고, 그의 치부와 추태, 패괴를 들춰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의도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수로 간주한다. 그러고는 보복을 통해 이 일을 잠재울 이유가 생겨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는 성품이 흉악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오직 진리를 싫어하고 성품이 사악한 자들만이 그것을 듣고 적대감, 심지어 복수심까지 생기게 된다. 이는 사람의 본성 본질이 철저히 드러난 것이다. 보복심이 생겼으니 그는 곧이어 일련의 보복 행위나 행동을 하게 된다. 보복 행위가 시작되면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더 이상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럼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겠느냐? (그가 보복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진정한 피해자는 체험 간증을 교제한 사람이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 부류의 사람이 다음에 하려는 일은 바로 자신을 폭로하고 적대시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양한 자리에서 판단하고 공격하며 심지어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잠시 증오를 품는 데 그치지 않고 온갖 기회를 찾아서, 심지어는 각종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보복하려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복수하려 한다. 예를 들어, 리더를 선출할 때, 그가 적대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부합하여 리더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해도, 그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기에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며, 뒤에서 작은 술수를 부리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일을 해서 보복한다. 어쨌든 그의 보복 수법은 무척 다양하다. 예컨대 상대의 약점을 잡아 험담하는 것, 과장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측으로 상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 심지어 리더에게 그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한다고 모함하는 것 등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일을 만들어 내고 고의로 날조한 것이다. 보아라,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과 오해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위와 행동을 이렇게나 많이 저지른다. 이 모든 행동 방식은 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그의 본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은 체험 간증을 말하면서 결코 그를 겨냥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어떤 악의도 없었다. 다만 그에게 진리를 싫어하고 보복하기 좋아하는 사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폭로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도, 패괴 성품이나 사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화가 나고 자신을 겨냥하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보복심이 생겨나고 형성되는 것이다. 이 부류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모습은 한 가지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부류의 사람은 본성이 흉악해서 누구도 건드리거나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갈이나 지네처럼 천성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대해 공격성을 띤다. 그래서 상대가 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든 그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어 그가 체면과 위신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체면과 위신을 만회하려 한다. 그리하여 일련의 보복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어서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의 다른 모습에 대해 교제하겠다.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다가 리더에게 책망받으면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다. 말해 보아라, 그 책망은 정당한 것 아니냐? (정당합니다.) 매우 정당하고 정상적이다. 네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여 교회 사역에 손해를 끼치고,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은 정당하며, 사람은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불만을 품고, 리더가 가고 나면 욕을 한다. '뭐가 잘났다고 으스대는 거야?

그냥 직함 하나 있을 뿐이잖아? 내가 그 일을 맡으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당신이 뭔데 나를 책망해? 나를 책망했으니 당신을 미워할 거야. 밖에 나가서 차에 치여 죽고, 물 마시다가 사레들려 죽고, 밥 먹다가 목이 메어 죽으라고, 비명횡사당하라고 저주하겠어! 감히 나를 책망해? 감히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떤 일로 인해 윗선 리더에게 책망을 받으면, 그는 고소해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콧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생각한다. '어때? 으스대더니, 인과응보다! 나를 책망한다면 험한 꼴을 당하게 해 주겠어!' 이런 부류는 어떠냐? (악독합니다.) 책망과 훈계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사코 이치를 따지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며, 그 후에도 계속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거듭 가르쳐도 고치지 않는다. 네가 언제나 건성으로 임한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그저 책망하고 훈계할 뿐이지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건성으로 임한다면 자칫하면 해고당해 밥줄이 끊길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진리를 교제하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많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 사실, 리더 일꾼 중에서 심각하게 책망과 훈계를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믿음과 자각으로, 양심과 이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에 심각하게 책망과 훈계를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책망과 훈계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책망과 훈계를, 특히 상부의 책망과 훈계를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는 사람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생명 성장을 이룰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책망과 훈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책망과 훈계는 좋은 일이다. 설령 어떤 사람이 자기 뜻이나 혈기가 섞여 그다지 원칙에 맞지 않게 책망해도, 너는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한 일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원칙에 맞지 않는지 살펴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부류의 악인은 정당한 책망과 훈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극도의 불만을 품은 채 저주하고 욕하다가 자신을 책망한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주하면 설날을 맞은 어린아이보다 더 기뻐하니,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승부욕이 강해서 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여 성과를 내지 못한다. 리더가 그의 문제에 대해 교제해 주고 책망하고 훈계해도 보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원칙을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책망과 훈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복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보인다. 그 후 그는 편지를 써서 리더를 모함하고, 리더의 일부 행동 방식이나 패괴 표출을 과장하여 윗선에 보고함으로써 그 리더를 교체시키려고 한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뒤에서 헐뜯고 교란하며, 리더가 어떻게 하라고 안배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 사역도, 하나님 집의 요구 원칙도, 본분 이행의 성과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분풀이만 하면 된다고 여기며,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리더 일꾼이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대놓고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고, 책임을 내팽개치고 대항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과 리더 일꾼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다. 심지어는 관념을 퍼뜨리는 한편, 스스로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그들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하여 본분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 그의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대신 나와 함께 죽어 줄 사람을

찾아야겠어. 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나보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난 모두가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겠어. 내가 잘 안 되면 당신들 중 누구도 좋은 꼴을 못 볼 줄 알아! 리더는 나를 책망하고 훈계했고 당신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으니, 당신들 모두 험한 꼴을 당하게 해 주겠어!'라는 것이다. 그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거나 원칙을 어겼을 때, 누가 리더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는 이렇게 추궁한다. "누가 보고했죠? 누가 리더한테 저에 대해 고자질했냐고요. 누가 리더와 긴밀하게 연락하는 겁니까? 제 일을 윗선 리더에게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면,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끝장을 볼 거예요!" 그는 이런 독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독한 일도 저지를 수 있다. 이 부류는 보복하는 나쁜 수법과 악독한 방법을 무척 많이 알고 있는데, 단지 남의 약점을 잡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이는 고의로 보복 대상의 노트북 충전기를 훔쳐 가서 노트북을 충전하지 못하게 해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고, 또 어떤 이는 고의로 남의 음식에 소금을 한 줌 넣어서 먹지 못하게 한다. 이런 졸렬한 보복 수법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의 악인들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들의 보복 수법은 결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그중에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돼먹지 못한 짓들도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들었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처리할 때 고의로 상대를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데, 이는 모두 흔한 일이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보복하기 좋아하는 자의 흉악한 성품은 시시각각 드러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보복하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회에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은 교란받게 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하루라도 존재하는 한, 교회는 평안할 수 없고, 좋은 사람은 공격받고 배척받으며,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 적대시되고 보복당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 보복하겠느냐? 그들은 먼저 진리를 추구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사람에게 손을 쓴다. 이 악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속으로 잘 알고 있다. 첫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기만 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간파당한다. 둘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악을 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서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사역의 수호자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악인은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악인의 눈엣가시가 되고, 그렇기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려 드는 것이다.

악인은 누군가에게 보복하려 할 때 흉악한 성품을 드러내며, 막무가내이고 이성이 없다. 한동안 그와 지내면서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말을 꺼낼 때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며, 그를 특별히 존중해 준다. 언제나 그를 달래고 그에게 양보해 줘야 하고, 그에게 어떤 문제점이나 흠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채 완곡하게 상의하듯, 달래듯 말해야 한다. 또 말을 마친 후에는 한바탕 칭찬해 주어야 한다. "당신은 이런 흠과 결점이 있긴 해도 저희보다 기술 습득 속도가 빠르고, 업무 능력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데다가 사역 효율도 저희보다 좋잖아요. 제가 보기에 당신의 흠은 다 장점 같아요." 이렇게 추켜세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겠느냐?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는 기뻐하며 마음이 평온해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히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보고하지도 못한다. 그가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굴어서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는 것을 분명히 보고도, 심지어는 그의 방향이나 원칙이 치우친 것을 보고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윗선에 보고하지 못한다. 그의 흉악한 성품과 보복하기 좋아하는 인성 때문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여 화가 나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와 대화할 때는 유독 예의를 차리고 완곡하게 해야 하며, 특히 호의적이고 온화하며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와 대화할 때 그를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며 양보하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그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의견을 내면 반감을 품는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에게 불만과 적대감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 보복하고 괴롭히려 하며,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고 망신을 주려고 한다. 누구든 그의 손아귀에 떨어지면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 이런 부류는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네가 그를 파악하지 못해 정말 그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네게 앙심을 품고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네게 어떻게 보복할지 궁리할 것이다. 그가 너를 마음에 담아 두었다면 조만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가 네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말하는 것 같아도, 그가 보복을 궁리할 때는 네가 그에게 했던 모든 언행이 트집거리가 된다. 그는 자기 속이 후련해지고 완전히 만족스러울 때까지 너를 원수처럼 대하면서 하나하나 보복할 것이다. 악인과 지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 부류의 갖가지 행위나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원칙과 방식을 볼 때, 그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원칙을 따지지 않는 부류만이 흉악한 자들과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 반면 양심의 지각과 정의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이 혹은 적게,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위협을 받게 된다. 심각한 경우에는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고, 가벼운 경우에는 말로 공격을 받거나 비방과 모함을 당할 수 있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의 흉악한 성품은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교란을 일으킨다. 이런 자들과 지내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보복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된다. 이처럼 보복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흉악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들이 대세를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성으로 볼 때 그들은 언제든 남에게 보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교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고 말할 때마다 늘 그의 안색을 살펴야 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하며, 그가 말하는 의도와 목적, 방향을 살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이 그에게 교란된 것은 물론이요, 통제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질로 볼 때,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 부류는 악인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으니, 악인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 부류의 상황을 알아보려 해도 대부분이 실상을 말하지 못하고, 무엇을 물어도 "그럭저럭"이란 말로 얼버무리며, 아무도 그의 문제를 보고할 엄두를 못 내고, 그에 대해 논하거나 평가할 엄두도 못 내니, 이는 매우 골치 아픈 일 아니겠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악인은 언제 어디서든 보복할 수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항상 자기가 합법적인 세계와 불법적인 세계에 모두 인맥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든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온 가족을 망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우리는 각자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수밖에요." 보아라, 교회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가 이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남에게 보복하는 그의 흉악한 성품을 모두가 보았기에 아무도 감히 그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진실한 평가도 내리지 못하며, 말할 때도 돌려서 하고, 그에게 미움을 살까 봐 무척 두려워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의 구체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뒤에서 몰래 얘기하는 것조차 몹시 두려워한다.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런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가 보복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말하고 나면 자기 입을 치며 이렇게 생각한다. '큰일났다. 오늘 말실수를 했군. 이제 고생 좀 하겠어. 나는 왜 이렇게 입이 쌀까?' 그 후로 매일 불안에 떨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의 근처에 가면 항상 살피고 고민한다. '내가 한 말을 그가 알고 있을까? 내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갔을까? 그는 예전과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할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두려워져서 아예 그를 피해 다니기로 한다. '건드리지는 못해도 피할 수는 있잖아.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을 피해 다니는 건 상관없잖아?' 겁이 나서 예배에도 참석할 엄두를 못 내고, 이 흉악한 자가 있는 곳에는 본분을 이행하러 가지도 못한다. 잔뜩 겁에 질린 것이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악인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제명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다. '제명'이라는 두 글자면 끝이다. 그를 제명해서 많은 이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통쾌해한다면 올바로 처리한 것이다. 예전에는 예배 때 악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많은 이가 교제에 제약을 받았고, 한 마디라도 잘못해서 악인에게 미움을 살까 봐 전전긍긍했다. 말할 때도 그를 경계하고 피해야 했으며, 예배 때 누가 눈짓하면 얼른 화제를 바꾸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 악인을 제명하니,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교회 생활도, 사람들 간의 관계도 정상화되었다. 형제자매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각자의 체험 간증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됐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되었고,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 부류 악인을 제명한 것이 옳은 조치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더없이 옳다. 제명해야 한다. 그를 제명하지 않으면 모두가 편할 날이 없고,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겁내게 된다. 심지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늘 귀신이 목을 조르는 꿈을 꾸고, 예배 때도 항상 조심조심하며, 말도 못 하고, 자유나 해방감을 느낄 수도 없다. 하지만 악인을 제명하자 사람들은 완전히 변했다. 예배 때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교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 이는 좋은 일 아니냐? (좋은 일입니다.) 보복하기 좋아하고 성품이 흉악한 이 부류는 분별하기 쉽다. 보통 반년 이상 함께 지내면 누가 이런 부류인지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일정 기간 어울리다 보면 깨닫게 된다. 교회의 리더 일꾼은 이 부류 악인을 처리할 때 수동적으로 굴어서는 안 된다. 수동적으로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런 부류를 처리할 때,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 공분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 수동적이다. 그렇다면 악인을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겠느냐? 소수의 사람들이 해를 입고 그에게 반감과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그를 악인이라고 100% 규정할 수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거나 제명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악인 때문에 겁에 질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악인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란하면 최종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 선민들을 통제하게 되며, 그 지경이 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 리더는 일부가 피해를 봤을 때, 혹은 일부 사람들이 이 부류에 대해 특히 반감을 품고 있거나 이미 그를 꿰뚫어 보고 간파하여 그가 보복하기 좋아하는 악인임을 확신할 때, 즉시 제명 처리해야 한다. 악인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 공분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수동적이다. 그런 교회 리더는 너무 무능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이 부류의 내적 상태와 모습, 표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 부류의 성품을 신속히 간파하고 꿰뚫어 보아 그를 제명해야 할 악인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당장은 규정할 수 없다면 중점적으로 관찰해라. 그의 언행을 관찰하고, 그의 생각과 일 처리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가 보복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 제명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떤 교회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악인이 뭐 대수라고요. 저희는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붉은 용의 체포와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악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악인은 작은 마귀에 불과한데,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를 교회에 남겨 두어 많은 형제자매가 해를 입으면, 그 후에는 분별력이 생길 테고, 분별력이 생긴 뒤로는 더 이상 그 악인들에게 결박되거나 속박되지 않을 테니 얼마나 좋습니까!" 대다수가 이런 분량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를 수 없다. 그들은 믿음이 너무 작고,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제한적이며, 분량이 너무 작아서 악인을 보면 피해 다니며 차마 악인의 눈 밖에 나는 짓은 하지 못한다. 대다수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아끼며 자신의 각종 육적인 이익을 지키려 하기에 악인이 벌인 갖가지 일에서 분별력을 기르거나 공과를 배우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네 그 생각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성과를 낼 수도 없다. 어떤 교회에 악인이 한 명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그가 악인임을 알아채고 단정 지었을 때, 정의감을 가지고 일어나 악인과 관계를 끊고 싸우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10%는 되겠느냐? 10%도 안 된다면 5%는 되겠느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 명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악인과 싸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폭로하고 그와 맞설 수 있고, 변론을 벌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선민들 중 영웅이고 교회의 공신이다. 어떤 리더 일꾼은 악인을 처리할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사람이 리더 일꾼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겠느냐? 교회에서 제명해야 할 악인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를 제명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원래 저와 꽤 잘 알던 사람이라 제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저희 집 사람들 중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를 출교하면 분명히 저에게 보복할 겁니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리더 일꾼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제명해야 할 악인을 발견하자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이익을 떠올렸고, 악인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예배 장소와 형제자매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악인인데, 제명된 후에 그가 교회와 형제자매를 팔아넘기지는 않을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 집의 이익이 아니었다. 그보다도 자신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악인이 자기 가족들을 팔아넘기거나 자기 집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이런 리더 일꾼에게 증거가 있긴 한 것이냐? (없습니다.) 어떤 리더 일꾼은 악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교회를 통제하려 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말도 못 한 채 타협하고 회피하며, 악인을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 악인을 보면 무시무시한 악귀라도 본 것처럼 겁을 먹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일반 형제자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의감이 있어서 악인을 발견하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선뜻 나서서 악인을 폭로하며, 악인의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낮다. 방금 너희는 5%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수적인 수치가 아니라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품이 흉악하고 보복하기 좋아하는 자를 대할 때 대부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대부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급급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나서서 악인과 싸워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의 이익을 지킬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설명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인성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시며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이 닥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먼저 자기 자신을 보전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 뜻은 이런 것이다. '누구도 나를 지켜 줄 수 없어.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지 어떨지도 모르는걸. 만약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시면 어떡해?' 사람의 믿음은 너무도 보잘것없다. 입만 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시며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라고 외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자기 몸만 보전하려 하고, 나서서 사탄과 싸우며 굳게 서지 못하니, 이만한 믿음조차 없는 것이다.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이런 일에서 그 작은 분량이 여지없이 드러나는구나. 몇몇 사람이 보복하기 좋아하는 그런 악인을 폭로하고자 하나 힘이 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끼며 상대에게 제압될까 봐 두렵다면, 몇몇 리더 일꾼이나 분별력 있는 형제자매들과 더 연합해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다음 그 악인들의 행위를 폭로하고 해부하여 많은 사람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하고 간파하게 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다 같이 악인들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금 너희는 악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선민 중 20 분의 1 정도가 정의감을 가지고 바른말을 할 수 있으며, 용감히 나서서 그 악인들을 제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20 분의 1 은 좀 적다. 만약 한 교회에 인원이 열 명밖에 안 된다면 악인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정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열 명은 악인의 통제를 받고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10 분의 1 이나 5 분의 1 정도가 일어나 용감히 악인과 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늘 스스로를 지키려고만 하면 사탄 앞에서 증거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얻을 기회도 잃게 된다. 한 교회에 악인이 한 명만 있어도 최소 일부가 피해를 본다. 악인이 두 명이면 대부분이 피해를 볼 것이며, 만약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그 밑에 몇몇 공범과 앞잡이가 있다면 교회의 하나님 선민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악인과 싸우면 한 사람 몫의 힘을 내겠지만, 열 사람이 일어나 싸우면 열 사람 몫의 힘을 낼 수 있다. 말해 보아라, 악인이 한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열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열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스무 명, 서른 명, 쉰 명이 일어나 악인과 싸운다면 결국 누가 이기겠느냐? (형제자매들이 이길 것입니다.) 결국 형제자매들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악인을 제명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두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악인을 분별하고 제명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리더 일꾼의 책임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하나님 선민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의 노력과 하나님 선민들의 협력으로 악인을 제명하면 모두가 좋은 나날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만약 악인을 제명하지 않고 교회에 남겨 두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결국 반년이 지나도, 일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들을 교란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악인을 긍휼히 여긴 결과다. 악인이 교회에서 제멋대로 활개치고 교회를 통제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자신을 악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고, 형제자매들을 악인의 손에 맡겨 그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고 해치게 하는 것과도 같다.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진리를 깨닫고 얻는 것이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귀하다. 악인을 하루빨리 제명하면 그만큼 빨리 평온을 되찾고 바른 교회 생활을 누리며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반면 악인을 제명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미친개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교란하고 파괴하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진리를 얻을 시간을 빼앗길 것이며, 이는 너의 시간과 본분 이행이 모두 악인에게 통제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좋은 일이겠느냐, 나쁜 일이겠느냐? (나쁜 일입니다.) 이치상으로는 모두가 나쁜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악인이 교회를 교란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악인에게 이용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게 된다. 만약 교회의 하나님 선민들이 모두 이렇게 악인을 두려워한다면 그 교회는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통제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들도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될 것이다. 그러고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장담할 수 없다. 어떤 교회에 진리를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사람이 두세 명도 안 된다면 이는 희망이 없는 교회이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것은 악행의 한 가지 모습이자, 흉악한 성품에서 생겨난 한 가지 행위의 표현이다. 이 부류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마땅히 악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 도량이 좁거나 식견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늘 지나치게 따지고 들기를 좋아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이나

해를 준 사람을 만나면 증오하거나, 혹은 수법을 써서 보복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는 악인이고 교회가 제명하는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돌이키며 행동도 어느 정도 삼가고 절제한다면, 이런 사람을 악인의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느냐? (그가 돌이킨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는 좋은 현상이다. 왜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느냐? 이 측면의 진리를 들은 뒤, 남에게 보복하는 것은 악인의 모습임을 깨달아 자신의 패괴된 내적 상태를 반성하고 자신의 패괴된 본질을 인정한 다음 하나님에게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자신의 행위를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명확하게 진리를 교제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며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하면 제명당할 겁니다."라고 경고해도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행동 방식을 고수하는데, 아무도 그를 바꿔 놓지 못한다. 네가 그를 폭로해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보복하기 좋아하는 자는 악인이니 제명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그는 손으로 행하는 악을 내려놓지 않으며 절대 돌이키는 법이 없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성품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든, 이 부류의 악행을 어떻게 폭로하든, 이 부류를 어떻게 처리하든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절대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거나 포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다. 돌이키지 못하는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가 바른말 한 마디라도, 한 측면의 진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한길로 끝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며 많든 적든 자신이 여태까지 고수하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는 악인이기에, 성품이 흉악한 악인이기에 그런 성품에서 보복하기 좋아하는 행위가 나온 후에도 하나님 말씀의 폭로나 책망 훈계, 이런 규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신에 대한 규정이나 폭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자신의 패괴를 인정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패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런 행위와 행동 방식, 사람됨의 원칙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이런 자가 바로 철저하고도 전형적인 악인이다. 이런 악인은 마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부정할 여지 없이 사탄의 본질을 지닌 마귀이니, 너는 그를 바꿔 놓을 수 없다. 왜 그를 바꿔 놓을 수 없겠느냐? 근원은 그가 결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그는 진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떤 옳은 말이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인정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함으로써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려는 생각도 없다. 가끔 말로는 자신이 사탄의 철학대로 행동했다고 인정하지만,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극도로 반감을 가지며, 상대를 증오하고 판단하기까지 한다. 누가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면 그는 상대를 증오하고 상대에게 보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도, 친부모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구제 불능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구제 불능이다. 그가 제명된다고 아쉽겠느냐? (아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제명하거나 출교해야 한다.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들의 특징, 성품, 일 처리 방식과 방법, 사상,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하다. 그들이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으니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네 번째 부류인 보복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5) 입조심을 못 한다

이어서 다섯 번째 부류인 '입조심을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것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입조심을 못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류를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사람은 입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 논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입조심을 못 한다고 제명해야 할 악인에 포함시키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면 마찬가지로 제명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입조심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형제자매와 교회 생활, 교회 사역을 교란하거나 교회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말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 이런 사람은 처리해야 한다. 먼저 입조심을 못 하는 부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해 보자. 입조심을 못 하는 부류를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하냐? 그것이 이 부류의 특징이겠느냐? 입이 가벼운 사람은 어리석어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른 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며, 그 결과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입조심을 못 한다는 게 이런 부류를 두고 하는 말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재간이 좋고, 남들과 교류하는 데 능하며,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비교적 순수하고 정직하다. 그들은 늘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 패괴 표출과 체험한 일,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까지도 남들과 교류한다. 하지만 이 부류가 반드시 어리석다거나 항상 입조심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무슨 말이든 다 하는 걸 보면 무척 순수하고 정직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일, 형제자매와 교회를 팔아넘겨 유다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입조심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설적인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입조심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조심을 못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입조심을 못 한다는 것은 말에 원칙이 없고, 대상과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지킬 줄 모르고, 형제자매에게 유익한지,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무엇이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든 말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무의식중에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들의 이익을 팔아넘기게 된다. 무심결에 말을 함부로 하고 입조심을 못 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집을 꼬투리 잡고 일부 형제자매를 비웃게 되며,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많은 일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집과 교회 내부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부적절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며, 심지어 형제자매와 교회, 하나님 집의 사역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는 악행에 속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리더 일꾼이 누구이고 그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비롯해 형제자매들의 개인 정보, 그리고 교회의 재정 사역, 재정 담당자 및 교회가 제명하고 출교시킨 사람들의 명단을 알아내고 조사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교회의 사역지침을 알아내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큰 붉은 용의 첩자나 스파이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이방의 마귀에게 누설되어 큰 붉은 용이 알게 되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탓에 이런 상황이나 이 중 일부 상황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이 정보를 퍼뜨리거나 큰 붉은 용의 특수 공작원에게 제공하면 잠재적인 위험이 생기고 교회 사역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그 결과 또한 상상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에게 저도 모르게 이런 교회 내부의 일을 말한다. 그것도 남김없이 전부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이며 친구들한테까지 말해서 교회 내부의 일이 그의 입을 통해 계속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형제자매들조차 모르는 교회 내부의 일과 형제자매들의 집 주소, 실명, 사적인 결혼 생활까지 알게 된다. 이 교회 내부의 일들이 어떻게 새어 나갔겠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겠느냐? 교회에 '통신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류를 뭐라고 하겠느냐? (입조심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에게 매일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형제자매의 일을 말한다. 가령 어떤 자매가 이혼했다거나, 어떤 자매의 남편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거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어떤 형제자매가 집을 샀다거나 하는 일, 또 어떤 형제자매가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어 유다가 되었다거나, 어떤 형제자매가 굳게 서서 증거했다거나, 심지어 교회 리더가 자기를 책망한 것까지 다 가족들에게 말한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 늘어놓는 이야기는 전부 이런 것들이다. 가족들은 그에게 계책까지 짜 주어 그가 리더와 형제자매들에게 맞서는 한편, 교회에서 그와 맞지 않거나 그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를 폭로했던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부류는 예배 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특히 착하고 온순해 보이며, 말수가 적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또 자신의 패괴 성품에 대해 말하거나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는 법이 없고, 심지어는 기도도 거의 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을 모두 경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자기 집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집 사람처럼 대하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며, 무슨 일이든 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책을 인쇄하는 일이나 누가 어떤 특기를 가졌는지까지도 가족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을 전부 팔아넘긴 것이다. 그는 교회의 모든 주요 구성원을 마음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가 뒤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상이기도 하며, 그가 몰래 팔아넘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누가 자기와 사이가 좋으면 가족들 앞에서 계속 칭찬하고, 누가 자기와 사이가 나쁘면 가족들 앞에서 계속 욕하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함께 형제자매를 바보라거나 사람도 아니라고 욕하는데, 자기도 이방인이 욕하는 대로 똑같이 욕한다. 그는 이방인처럼 100% 불신파에 속하며 좋은 작자가 아니니, 이런 부류는 즉시 제명해야 한다.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큰 붉은 용의 스파이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으며, 그들은 어디든 침투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형제자매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해외에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험은 존재하는데, 큰 붉은 용의 스파이들에게 정보가 들어가면 강제 송환의 위험이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적어도 중국 본토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연루될 수 있다. 안전상의 이유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누구든 형제자매들의 개인 정보는 비밀로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 정보를 발설해서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형제자매들의 어떤 정보나 교회 사역, 개인이 이행한 본분, 개인이 교제한 체험 등의 정보를 한담 거리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마귀들에게 약점을 잡혀 조롱거리가 되고 판단받으며, 심지어 저주와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좋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 다른 속셈을 가진 자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는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실제 상황, 누가 진실로 믿고 누가 진리를 추구하며 누가 본분을 이행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늘 소극적이며 어떤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는지, 심지어 형제자매들의 개인적인 정보와 상황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남김없이 말한다. 이런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라. 어떤 일들은 교회 사람이라고 해도 꼭 알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이는 내통자의 '공로'이다. 이 내통자는 자기 가족을 교회 리더처럼 대하며, 교회에서 본 모든 일을 집에 가서 자기 '리더'에게 보고함으로써 가족의 비위를 맞추고 유대감을 형성하려 한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입조심을 하지 않는 내통자들에 의해 팔아넘겨진 게 분명하다. 그들은 형제자매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지키지도 않으며, 하나님 집, 교회를 사회나 공공장소처럼 여기고, 형제자매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심지어는 불신파나 이방인들과 함께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한다. 더욱이 리더에게 책망과 훈계를 받거나 형제자매들과 갈등, 다툼, 불화가 생긴 후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 집안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 그의 가족들이 리더와 형제자매들에게 보복하려 하고 교회를 팔아넘기거나 무너뜨리려 한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겠느냐? (아닙니다.) 교회 내부의 일이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가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두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 등의 상황을 전부 집안 식구들과 친척, 친구들에게 말하는 이런 자는 어떤 작자겠느냐? 그가 진실로 믿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집의 사람이겠느냐? 그를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내통자, 내부의 적이 교회에 머무는 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할 것 없이 언제나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그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 같아도,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집의 각종 정보를 이방인과 사탄, 마귀에게 전달하니, 그 결과와 영향이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인간 말종을

교회에 남겨 두어야겠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 집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형제자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류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신속히 제명해야 합니다.) 신속히 제명하고 쫓아내야 한다! 제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입조심을 못 하고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며 배은망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제자매들의 도움과 사랑, 인내와 돌봄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팔아넘겼으니, 인간이 아닙니다. 당장 꺼지세요!" 형제자매들의 일과 교회의 일, 하나님 집의 어떤 사역도 이방인이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이 험담 거리로 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일들이 누구의 입에서 흘러나갔다면 그가 바로 저주받을 대상이고, 교회가 제명해야 할 대상이니, 형제자매들은 그를 내쳐야 할 것이다. 그는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팔아넘기고, 교회 내부의 일을 이방인에게 전해 그들이 함부로 떠들게 했으니, 명실상부한 배신자이자 내통자요, 악인이며, 교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교회 내부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제명할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등에 관해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토론하든 다 상관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되고, 집안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분량이 작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자매들의 개인 상황이나 가정 상황을 외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네가 참을 수 없이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제하는 법을 배우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정말 억제하지 못하겠다면 먼저 교회에 보고하여 해결 방안을 구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 가장 쉽게 일이 터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전화번호, 집 주소, 하나님을 믿은 햇수, 가정과 혼인 상태 등에 관한 일은 모두 민감한 화제에 속하며, 진리나 생명 진입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특수 공작원이나 내통자만이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네가 이런 일들을 알아보고 퍼뜨리기를 좋아한다면,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좀 비정상적이다!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시비를 일으키는 데만 몰두하고, 내통자나 스파이 역할을 하여 큰 붉은 용을 위해 봉사하니,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느냐? 민감한 화제나 개인의 사생활을 전적으로 알아보고 조사하고 마구 퍼뜨리는 자들은 모두 다른 속셈이 있는 불신파이니, 하나님의 선민들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만약 이런 부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교회 생활을 금지시켜야 한다. 형제자매를 팔아넘기는 것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열하며 파렴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알아보고 논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 이는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각종 행정 법령과 규정이 있다. 교회 내부의 사무, 리더 일꾼의 인사이동, 교회의 정리 사역과 상부의 지침 등은 교회에서 함부로 퍼뜨려서는 안 되며, 그래야 불신파나 악인이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님 집은 사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며 많이 묵상하고 교제하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풍조이고, 체험 간증을 많이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풍조이다. 게다가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은 새 신자들이 많아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신파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하나님을 믿은 지 5 년이나 10 년 정도 되었을 때가 사람이 드러나는 시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굳게 서고 어떤 사람들이 굳게 서지 못할지, 교회를 교란할 악인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다. 만약 늘 개인 정보 등 외적인 일, 진리 교제와 무관한 일을 마구잡이로 전한다면 수많은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개 리더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에 사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민감한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책 한 권을 인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라고 묻는다. 그걸 알아서 쓸모가 있겠느냐? (쓸모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비용을 청구하더냐?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 집의 윗선 리더가 누군가요?"라고 묻는다. 그가 직접 너를 이끄는 게 아니라면, 모른다고 해서 네게 영향이 있겠느냐?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네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네가 큰 붉은 용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는데 이런 정보를 모른다면 아무리 맞아도 말할 수가 없으니 유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을 경우, 혹독한 매질을 견디지 못해 발설하면 결국 유다가 되는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왜 쓸데없이 물어봤을까? 몰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맞아죽어도 몰랐을 테고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없으니 유다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진리와 무관한 일은 너무 많이 알아서는 안 돼. 그런 일을 캐묻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모르는 게 더 나아." 이 밖에도 어떤 이는 "하나님 집에는 업무 사역 담당 팀이 총 몇 개 있나요?"라고 묻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사역을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몰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캐묻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도시에 사나요, 아니면 시골에 사나요? 교육 수준이 높나요, 낮나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이 없습니다.) 다들 시골 사람이면 어떻고, 도시 사람이면 또 어떠냐? 이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은 "지금 복음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나요?"라고 묻는다.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괜찮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국으로 확장됐는지 호기심을 갖고 자세히 캐물을 필요는 없다.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게 진리 실제가 없다면 여전히 실제가 없을 것이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도 전혀 이로움이 없을 것이며, 생명 진입에도 아무런 보조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무적인 일은 알아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모르는 게 더 낫다. 아는 게 많아지면 부담이 되고, 한번 새어 나가면 문제가 되고 과오가 된다. 이런 일들을 아는 것은 좋은 게 아니며, 알면 알수록 문제가 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만,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말할 때 사리 분별을 못 하고 헛소리만 늘어놓는다. 그러니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알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둘째로 교회 사역을 지킬 수 없으며, 셋째로 굳이 그들이 하나님 집을 위해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행사는 다 공의로운데,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불신파나 이방인의 아첨이 필요하겠느냐? 필요하지 않다. 설령 전 세계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위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함이 없고,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불신파와 이방인들은 말하고 행동할 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게 하나님 집 사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 집 사역을 그들이 알아야겠느냐? 그들은 알 자격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이 다 비밀이라서 그들이 알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비밀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모두 인격과 존엄이 있으니 이방인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비웃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집, 교회, 형제자매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모두 존엄이 있는 긍정적인 것이니 어느 누구도 더럽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집의 명성을 제멋대로 더럽히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해치도록, 또는 형제자매의 명성을 해치도록 행동하는 자는 모두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렇기에 입조심을 못하는 부류는 절대 교회에 둘 수 없으니 발견하는 순간 반드시 제명하고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들과 말하거나 교류하고 접촉하거나 왕래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굴다가도 집에 가면 입이 가벼워져서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심지어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까지 빠짐없이 말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많은 일을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통자이자 배신자 유다이며, 교회가 마땅히 제명해야 할 대상이다. 그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회 형제자매들의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팔아넘기게 되며 이방인들이 약점을 잡고 비방할 일도 많아진다. 그가 이런 정보를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를 남겨 두어도 된다. 하지만 네 개인 정보와 교회 내부의 일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내통자를 한시바삐 제명해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는 봐주면 안 된다. 그들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며 좋은 작자도 아니다. 이 부류를 앞서 말한, 보복하기 좋아하는 부류나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부류와 비교하면 어떠냐? 이 부류가 그들보다 낫겠느냐? (낫지 않습니다.) 이 부류도 남들을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어느 정도 힘을 쓰고 고생도 하며, 하나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요구하면 거부하지 않고 협력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집에 무슨 일이 있든 모두 이방인에게 말하고, 날마다 배신자, 내통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회는 그를 용납해 줄 수 없으며, 제명해 내보내야 한다. 이해가 되느냐? (네.) 그는 교회에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누가 그의 신경을 거스르든 그와 잘 지내든, 자신이 교회 리더로 선출되든 교체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세부 내용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에게 말한다. 따라서 그들과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알게 하며, 교회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봐주지 말고, 관용을 베풀지 말며, 발견하는 대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정하지 않다. 너는 그를 형제자매로 여기지만,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의 이익을 전혀 지키지 않고 도리어 곳곳에서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를 팔아넘긴다. 너는 그를 가족으로 여기는데, 그가 너를 가족으로 여기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봐주지 말고 제명해야 한다면 제명해라. 지금껏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자매의 일을 전부 가족에게 말하고, 때로는 교회의 일들과 구체적인 안배까지 바로바로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 뒤에서 교회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를 제명했느냐? (제명했습니다.) 제명한 후에 그가 불평을 하더냐? 그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행정 법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방해하고 교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제명된 거지?'라고 했을 것이다. 말해 보아라, 그런 행동의 성질은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가 쉽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쉽지 않다고 하느냐? 어떤 점에서 변화하기 쉽지 않다고 보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사람이나 형제자매가 아니며, 그 본질은 불신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다. 그럼 어떤 점에서 그가 이방인이고 불신파임을 알 수 있느냐? (그는 교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 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토로합니다. 이는 그가 어떤 일을 직면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공과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지 않고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불신파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불신파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했구나. 가족들에게 감정을 토로하고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말이다. 그럼 그가 하나님 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섞여 들어온 이방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배신자나 내통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류는 하나님 집과 한마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핵심을 짚지 못했구나. 내가 말해 주겠다. 이 부류는 교회 생활도 하고 본분도 이행하지만, 과연 시종일관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여기겠느냐? 쉽게 말해, 형제자매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형제자매를 무엇으로 여기겠느냐? (외부인으로 여깁니다.) 그렇다. 외부인, 그리고 적대적 존재로 여긴다. 그럼 그는 하나님 집과 교회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출근해서 일하는 직장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과 교회를 이방의 회사나 단체로 여기고, 형제자매를 외부인이나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적대적 존재로 여기기에 형제자매의 온갖 정보와 실상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쉽게 누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역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형제자매를 헐뜯고 하나님 집을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형제자매와 교회의 상황을 이방인들에게 남김없이 누설하니, 분명 형제자매를 외부인이나 적대적 존재로 여긴 것이다. 그는 불쾌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즉시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어 뒤에서 형제자매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적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한다. 그는 교회에 있을 때는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형제자매들 앞에서 교회의 일이나 형제자매들에 관해 논하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과

이런 일을 논하면 자신의 혈기와 욕망, 감정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고 어떤 결과도 감당할 필요가 없다. 가족은 어쨌든 가족이고, 그를 팔아넘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반면에 형제자매는 다르다. 언제 어디서든 그를 고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그를 폭로하고 책망과 훈계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언제 어디서든 그의 본분과 직무를 잃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형제자매를 적대적 존재로 여긴다고 한 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적대적 존재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니, 그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제도, 폭로도 하지 않다가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회 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 못 할 말 없이 속마음을 터놓는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모든 치우친 관점을 거리낌 없이 쏟아 내어 해방감을 얻고 속이 시원하다고 느낀다. 가족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며 맞장구를 쳐 준다.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불신파의 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을 것이고, 교회는 그를 제명해 내보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형제자매를 가족이 아닌 적대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원으로 여긴 적이 없기에, 교회가 종교계로부터 비방과 모독을 당하든,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언비어가 돌고 조롱당하든, 혹은 국가 정부로부터 모함과 박해를 당하든 교회의 어떤 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만약 그가 정말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존엄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 집의 일을 이방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고,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거론하며 비웃게 하지도 않을 거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집의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입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그가 분명 자기 자신을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왜 계속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전에 교제하지 않았더냐? 온갖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자들이 많다. 그 역시 그중 한 부류다. 즐거움을 찾고, 무료함을 달래고, 정신적 의지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불신파를 흔히 볼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자들이 많지 않으냐? (많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 선민들의 본분 이행과 같은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회의 사역 상황이나 교회 내부의 일, 심지어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 어떤 문제도 아무렇게나 쉽게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한 후 이방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함께 형제자매를 욕하고, 하나님 집을 판단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과 사역지침을 평가하기까지 한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배은망덕하거나 팔이 밖으로 굽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류는 악인이고 불신파이니,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 속히 제명할수록 교회가 빨리 평온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 자신에 대해 말해 보겠다. 예를 들어, 네 부모나 친형제,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너는 교회의 일을 그들에게 모두 말하겠느냐? 만약 네 여성 친구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 중에 여자 친구를 찾는 사람 없나요? 착실하거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없어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방인 중 진중한 사람도 진중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 그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데, 너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겠느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아예 맞지 않아요. 공통분모도 없고 가는 길도 다르다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걸 보고 우리 교회의 형제 중에 누가 당신을 좋아할까 싶네요." 너도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교회의 일을 그녀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마디를 채 나누기도 전에 서로 부딪히고 관점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네가 하나님을 믿은 후로도 예전처럼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들, 너는 교회 내부의 일이나 본분을 이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에게 말하고 싶겠느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가 지지할지라도, 그에게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형제자매가 큰 붉은 용의 혹독한 고문과 심문을 받고도 유다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방인들도 탄복하는 일이다. 너는 이런 말을 그에게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하고 싶지 않으냐? (그 일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이런 체험 간증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말할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국가 정부에 맞서려 하죠?" 보아라, 이 한마디 말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난다. 국가 정부에 맞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국가를 통치하는 마왕이 분명 하나님의 선민들을 잔혹하게 해치고 살길을 주지 않는데도, 그는 보고도 모르는 체하며, 엄연히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말한다. 그런데 그와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그에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가 알게 해서도 안 된다. 입조심을 못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전부 이방인에게 말하는데, 이런 자는 틀림없는 불신파로, 하나님 집에 시간이나 때우러 온 마귀이며, 배은망덕한 데다가 양심도, 이성도 전혀 없는 짐승이다. 하나님 집과 교회의 이익, 명성이 어떤 손해를 보아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의 어떤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여기며,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일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가증스럽지 않으냐? (가증스럽습니다!) 형제자매를 결코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을 한 가족으로 여기는 불신파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결코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하여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교회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팔이 밖으로 굽는 짓을 하며, 내통자, 유다, 배신자 노릇을 한다. 그것이 마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바른길을 가지 않고 기어코

악을 행하며 산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유다, 배신자, 사탄의 종들은 모두 부정적인 존재로, 인류에게 해롭고 모두가 경멸하니, 교회에서 그들을 처리하고 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교회나 하나님 집이 배신당해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깊이 공감하거나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분은 좀 나쁠 것이다. 어쨌든 자신이 그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교회의 어떤 사람이 너를 이방인에게 팔아넘기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너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너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너는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때는 너도 교회나 하나님 집이 겪은 굴욕과 치욕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부류를 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마땅히 제명해야 하니, 그들을 봐주지 마라. 입조심을 못 하는 부류가 처신하고 살아 내는 여러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교회 안의 불신파이며 마땅히 제명해야 할 부류의 악인이다. 그들이 대놓고 행동하든 은밀하게 행동하든, 누군가가 입조심을 못 하고, 그의 인성 본질이 부정할 여지 없는 불신파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리더 일꾼에게 알리고 형제자매들에게 통지하여 이 부류를 제때 정확히 분별한 후 교회에서 조속히 제명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이 교회나 교회 사역,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제명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 입조심을 못 하는 부류의 인성의 모습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오늘 교제한 이 세 부류는 앞서 교제한 두 부류보다 더 심각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하고, 인성이 더 악랄하고 비열하며, 교회와 모든 형제자매의 이익에 더 큰 피해와 영향을 준다. 그러니 이 세 부류를 절대 가벼이 대하지 말고, 엄격히 경계하고 방비하며, 악행을 용납하지 마라.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폭로하여 분별한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면 즉시 그의 본분을 인계받을 사람을 찾아 그를 교체하고 제명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다양한 내적 상태와 각 시기별 다양한 모습, 그리고 교회의 사역, 나아가 교회 내부의 사무적인 일들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만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 집의 요구 원칙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 진리든, 원칙이든 아니면 사무적인 일에 대한 규정이든 절대 이방인에게 전해서는 안 되며, 이방인이 평가하고 비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 법령입니까?"라고 묻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누구든 유출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교회 내부의 일을 누설하는 자는 교회와 형제자매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함부로 팔아넘기기 때문이다. 그는 배신자, 유다가 되었으니 더는 봐줘서는 안 된다. 더는 그를 형제자매나 가족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배신자, 유다로 보아 처리하고 즉시 교회에서 제명해 내보내야 한다. 혹자는 "저는 예전에 입이 가벼워 함부로 말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를 똑똑히 알고 나니 더는 함부로 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좋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모습을 지켜보겠다. 만약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더는 함부로 말을 전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이익을 팔아넘기지 않으며, 입조심을 한다면 하나님 집은 기회를 한 번 줄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행동이 발견되고 네 입에서 어떤 말이 새어 나간 것이 발견된다면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너를 제명해 내보낼 것이니, 그때 가서 울거나 미리 말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지금 분명히 말해 두겠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 쉽사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누가 알아듣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알려 주어라. 오늘 우리가 말한 내용을 일러 주되, 누가 그런 조짐을 보이거나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에게 전달하고 경고해라. 그런 일의 성질과 결과를 알려 주고, 하나님 집이 그런 일과 그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알려 주어라. 분명히 말해 준 뒤에는 관찰해야 한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만약 그가 앞으로 변화해서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받아들여 형제자매로 대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몰래 그런 짓을 한다면 봐주지 말고 한 명을 발견하면 한 명을, 두 명을 발견하면 두 명을, 한 무리를 발견하면 한 무리를 제명해라. 혹자는 "저희 가족 중 예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제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해도 됩니까?"라고 묻는데, 말장난과 시비를 좋아하는 자들은 역시 통제하기가 쉽지 않구나.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물어보니 말이다. 너희 생각에는 말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 말해선 안 된다.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니 그런 자들은 유다로 보고 처리하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제명된 사람에게도,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에게도, 또 명목상으로만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읽을 뿐 본분은 전혀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 유다로 보고 처리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는 또 어떤 사람이 포함되겠느냐? 일반 교회의 사람들도 포함되겠느냐? (포함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반드시 원칙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다가 유다가 되어 하나님 집과 형제자매를 팔아넘기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득의양양해서는 안 된다. 입조심을 못 하고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를 팔아넘기는 것은 심각한 과오이니,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기록해 둘 것이다. 이제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고 너 또한 알아들었으니,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것은 일반적인 과오가 아니라 행정 법령을 거스른 것이다. 그럼 너는 제명의 대상이 되어 구원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2021 년 12 월 11 일

리더 일꾼의 직책(26)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5)

리더 일꾼이 교회의 정리 사역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과, 관련된 각 부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교제했다. 교제 주제는 점점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 되어 각 부류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아울렀고,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구분해야 할 유형에 대해서도 무척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교제했다. 이 세부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교제할수록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과 리더 일꾼의 사역 및 본분 이행에 더욱 긍정적인 도움과 지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교제해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교제해도 교회의 각 부류 사람들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는 리더 일꾼이 있다. 각 부류 사람들의 문제를 이토록 분명하게 교제했는데도 몇몇 리더 일꾼은 각 부류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해야 할지 여전히 꿰뚫어 보지 못하고,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며, 진리로 교회의 각 부류 사람들과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이는 어찌 된 일이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진리 실제가 없는 것이다. 각 부류의 모습을 교제함으로써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며 말을 듣는 사람과 교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는데, 교회의 각 부류 사람들 상황을 보면 눈에 띄는 악인들만 제명되었을 뿐, 여전히 많은 불신파가 철저히 제명되지 않았다. 리더 일꾼들은 교회를 정리하는 이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여 악인과 불신파들을 신속히 정리해야지, 수동적으로 대충 행동하거나 무골호인 노릇을 하거나 분명히 눈에 띄는 악인들만 정리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들은 주동적으로 각 팀의 사역을 검사하고, 각 팀 인원들의 상황을 확인하며, 머릿수만 채우거나 소극적인 것과 관념을 퍼뜨려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불신파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발견하는 즉시 철저히 폭로하여 제명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니 수동적으로 굴지 말고, 상부의 명령과 재촉이 있을 때만 일을 하거나 형제자매들이 함께 호소할 때만 일을 좀 처리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모습은 주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이런 교제와 말씀을 근거로 삼은 후에는 리더 일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이어선 안 된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진리를 교제하여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철저히 해결하고, 제대로 사역해야 한다. 제때 적극적으로 사역 진도를 밀착 관리 해야지, 언제나 상부에서 명령하고 재촉해야 마지못해 일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굴 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으니 교체하고 조정해야 한다. 지금 많은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늘 상부에서 명령을 내려 강요해야 조금 사역할 뿐, 그러지 않으면 해이하고 질질 끈다. 또 어떤 교회의 사역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 일부는 특히 해이하고 건성으로 대충 임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 문제가 이미 매우 심각하고 그 성질이

아주 나쁜데도 리더 일꾼은 계속 관리 노릇을 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해 교회 사역이 마비되고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교회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어 질서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교회는 분명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권력을 잡은 교회는 어디든 교회 사역이 분명 엉망진창이 되고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나는 미국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 듣고 보았는데, 내가 본 문제 대부분을 그 자리에서 해결했고, 나머지 문제들은 미국 교회의 리더들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리더 일꾼들은 대부분의 사역을 할 때 매우 수동적이고 밀착 관리가 너무 느리며 효율이 너무 낮았다. 매일 대부분의 일은 상부에서 명령하고 감독하고 재촉한 뒤에야 했다. 상부에서 사역을 배정하고 나면 한동안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일을 마치면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 안에 있는 사역 중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늘 모르고, 그들 눈에는 할 일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어떤 문제겠느냐?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부담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몹시 게을러 안락함을 누리며, 쉴 수 있을 때 좀 더 쉬려 하고,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여긴다. 이 게으른 자들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많이 걱정해서 뭐 해?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어.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고생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 과로로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병 고칠 돈도 없는데,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뒤처져 있으며, 진리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는 그야말로 한 무리의 바보들 아니겠느냐? 흐리멍덩한 데다가 진리에 대해 지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왜 언제나 산송장처럼 방만하고 게으른 것이겠느냐? 이는 본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사람의 본성에는 타성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늘 다른 사람이 감독하고 다그쳐야 한다. 때로는 육을 생각하며 육적인 안일을 누리려 하고, 늘 스스로를 위해 퇴로를 남겨 두는데, 이런 자들은 속셈과 꿍꿍이가 너무 많다. 결코 좋은 작자가 아니다! 또 어떤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든 한 수 남겨 두려 하니, 이는 무책임하고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역할 때 수동적으로 굴지 말라고 너희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데까지 따라와야 한다. 내가 각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사역을 적잖이 했고 효율도 꽤 높고 사역 진도가 무척 빨라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반면, 각 교회를 둘러볼 때 모든 면에서 일의 진척이 더딘 것을 발견한다면, 이는 너희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복음 확장의 정상적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증거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 너희를 보고 여전히 기쁘겠느냐? (기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 기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역을 너희에게 맡겼고, 내 말도 다 전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원칙과 방법까지 모두 알려 줬다. 그런데도 너희는 행동하거나 사역하지 않으며, 꼭 내가 직접 독촉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명령을 내려야만 움직이니,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해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데, 너희에게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없겠느냐? (저희가 너무 무책임하게 본분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본분을 이행할 때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충 하기 때문이다. 본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사람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모습은 바로 힘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한 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멀어도 한참 멀었다! 너희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됐고 책임감이 없어서다. 너희 마음속에서 그릇된 것들이 본분 이행을 가로막고 있고, 또 무골호인의 사상이 교회 정리 사역을 못 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너희는 교회를 정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정리하려 하겠느냐? 교회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진리도 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너희는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본연의 사역만 하려 할 뿐, 특별한 사역, 특히 남의 미움을 살 만한 사역은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전부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한다. 너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냐?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 너희는 늘 "저는 자질이 부족하고 깨달은 진리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사역 경험도 부족하고 교회 리더를 해 본 적도 없으며 교회 정리 사역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변명 아니겠느냐? 교회 정리 사역에 대해 아주 명확히 교제했다. 적그리스도와 악인, 불신파를 정리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몇 가지 원칙을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토록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 못된 작자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리더 일꾼 중에는 분명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무골호인도 있을 것이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못된 작자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경우가 다 존재한다. 먼저,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못된 작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써야 하고, 무골호인이 리더를 맡고 있다면 더더욱 교체해야 하고, 자질이 부족한 자라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남겨 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제가 끝난 후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시 가서 해결한다면, 상부에서 직접 배치하고 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주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 낸다면, 상부에서 문제를 추궁하기 전에 네가 먼저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 처리 원칙,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상부에서 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겠느냐? 리더 일꾼으로서 늘 자기 본분 내의 사역을 보지 못하거나 마음속으로 의식하고 생각할지라도 자꾸 미루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항상 상부에서 안배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는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다! 너는 리더 일꾼으로서 본분에 대해 보여야 할 태도와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상부의 요구에 긴밀히 따라야 한다. 상부에서 교제한 데까지 시행해야 하고, 알아들었으면 즉시 가서 행하고 시행해야 한다. 진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니, 상부에서 안배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렸다가 조금 사역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항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너는 리더 일꾼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세 부류 사람들의 모습과 결말

1. 힘쓰는 부류

리더 일꾼의 직책에는 총 15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제 14 조까지 교제했으며, 리더 일꾼이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 부류 사람들의 문제도 80~90%가량 교제했다. 이런 것들은 다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는 많은 문제와 연관되는데, 한 가지 측면에서는 리더 일꾼이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과 연관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의 각 부류 사람들의 갖가지 문제와 연관된다. 우리는 이 기간에 리더 일꾼의 직책과 거짓 리더에 대한 폭로를 주제로 교제했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각 부류 사람들의 문제나 내적 상태, 본질에 대해서도 적잖이 교제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각 부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부 다르다. 그중에는 이런 교제를 들은 뒤에도 여전히 '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할 수 있어.'라는 태도를 보이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이 기간에 교제한, 각 부류 사람들의 다양한 내적 상태, 그리고 그런 내적 상태와 관련되는 진리,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는 한 가지 부류 아니겠느냐? 이 부류는 아주 대표성을 띠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주로 어떤 관점이겠느냐? 내가 방금 말한 세 가지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인성이 나쁘지 않다고, 심지어는 좋다고 여긴다. 둘째,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며,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에게 주재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셋째,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밑천이자 추구하는 목표이며, 일을 하는 원동력이자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구원받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열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갖췄다는 것은 그저 얼마간 인성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얼마간 인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을 인정한다. 위의 세 가지는 진리 실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그저 힘쓰는 자의 세 가지 기준에 불과하다. 이어서 너희가 잘 이해하도록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얘기하겠다. 첫째, 인성이 좋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고, 일을 할 때도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으며, 사람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행하든, 혹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요."라고만 말한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런 두리뭉실한 말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셋째,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자신이 진정으로 믿기에 교회 사역에 필요할 때나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느낄 때 그는 주동적으로 가정과 결혼, 일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앞날을 내려놓으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본분을 이행한다.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을 맡기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덜 먹고 덜 자는 것도 괜찮고, 생활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본분을 이행한다. 이 세 가지 외에 진리와 관련된 모든 측면의 실행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양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준 각종 실행 원칙이나,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갖가지 패괴 성품의 상태, 모습,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각종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찾아서 자신의 패괴를 성찰하고 부족함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늘 예배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의 각종 체험 간증 교제를 듣고, 자신을 변화하는 것 등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번거롭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품 변화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여러 관념과 상상을 품은 채 하나님을 따르고 본분을 이행한다. 이 부류는 꽤 대표성을 띠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 이 밖에 진리, 하나님의 심판과 폭로, 책망과 훈계, 사람의 각종 패괴 성품, 내적 상태, 모습을 대하는 것 등은 다 무시해 버린 채 이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 즉, 이들은 스스로 인성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이며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자처하고, 사람에게 패괴 성품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이 지닌 각종 패괴 성품의 구체적인 내적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깊이 파고들지도 않는다. 이는 한 가지 부류 아니겠느냐? 이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관점과 구체적인 모습들은 꽤 대표성을 띠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관점,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의 각종 패괴 성품을 폭로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들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겠느냐? (흐리멍덩하게 믿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이다. 그럼 과연 이 부류를 어떻게 분류해야겠느냐? 교회에 이런 부류가 많으냐? (많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관련 진리를 교제하기만 하면 졸음이 오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정신이 흐릿해지며 흥미를 잃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사역이나 일을 맡기면 팔을 걷어붙이며 열심히 일하고, 고생도 피곤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일하는 것과 같다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들은 의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성실한 모습과 의욕이 충성심이겠느냐? 이것이 진리 원칙을 이해한 후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 교제를 듣고 너희는 이 부류를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힘쓰는 자들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렇다. 이들이 바로 힘쓰는 자들이다. 힘쓰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과 여러 가지 모습, 또 적그리스도 성품을 가졌으나 적그리스도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교제하는 데서 시작해 이제는 리더 일꾼의 직책과 관련된 각 부류 사람들의 모습까지 교제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리더를 주제로 교제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와 모습들은 다 패괴된 인류의 패괴 성품, 그리고 패괴 성품에 지배되어 나타나는 갖가지 내적 상태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성품과 갖가지 내적 상태, 모습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지금 이 문제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제했으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앞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며, 진리 원칙을 이해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데 더 명확한 방향성과 길이 생길 것이고, 목표도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좋은 일, 기뻐할 만한 일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더는 규례나 종교의식 속에서, 글귀와 도리, 구호 아래에서 살지 않으며, 더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목표를 갖게 된다. 물론 더 구체적인 실행 원칙도 갖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관련된 진리 원칙은 무엇인지, 또는 사람에게 어떤 내적 상태와 패괴가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하는지 등 우리가 교제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리더라는 두 가지 큰 주제에는 이런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교제할수록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실행의 길이 생기고, 마음속이 밝아지고 분명해지며, 자신을 더 잘 인식하고 알게 되고, 자신이 앞으로 진입해야 할 것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다. 방금 말한 힘쓰는 부류는 인류의 패괴 성품에서 비롯된 각종 내적 상태와 해결해야 할 갖가지 패괴 문제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교제한 후에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진리 추구와 하나님이 말씀한 구원받는 길을 여전히 똑똑히 보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많은 본질적 모습과 문제를 교제했음에도 여전히 '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할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지 않으며, 그저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나 알량한 양심,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몇몇 사람은 억제하고 인내하며 참고 또 참는 것으로, 또 몇몇 사람은 처세 철학으로 큰일을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고, 제명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해. 나 자신을 진실로 인식했는지, 패괴 성품이 해결됐는지,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는 다 사소한 일이니 언급할 가치도 없어. 매일 작은 일을 확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진리를 교제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져와 끝도 없이 교제하면서 우리더러 분별하라고 하지만, 나는 진리를 교제하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고, 전혀 흥미가 없다고. 만약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류의 인내심은 무한하다. 왜 그렇겠느냐? 그들은

자신이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할 수도 있다고,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만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마지막까지 계속 본분을 이행하며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본분 이행을 유지하고 무엇에 기대 끝까지 견디든, 그들의 동력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패괴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비롯된 각종 내적 상태와 문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혹 자신과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외면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다들 똑같이 패괴되었어요. 다 마귀, 사탄의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죠.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본분을 계속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 인정하실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관점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욕이 넘치지만, 체험 간증을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어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며, 예배에서 진리를 교제할 때는 졸면서 귀담아듣지 않는다. "당신은 매일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합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답한다. 마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당신은 패괴 표출이 없나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죠?"라고 다시 물으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이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라고 답한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단순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세세한 문제가 뭐 그리 많아? 당신들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본다고!'라고 여긴다. 그래서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할 때도 결코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선한 마음과 열정에 기대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심과 이성의 지배 아래에서 행동한다. 그들은 '나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고, 충분히 진리를 실행해서 하나님을 만족게 했으니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 나 정도면 훌륭하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믿는다고.'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표출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들은 수많은 글귀와 도리를 말할 줄 알지만 실제 분량은 전혀 없다. 즉,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느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삐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가리켜 진리가 없다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억울한 처사겠느냐? 그 사람들을 보아라,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이면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진리 원칙의 범위 안에 있느냐? 그들이 일을 할 때마다 원칙을 구하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집의 요구 원칙에 따라 행하더냐? 그렇지 않다. 전부 인위적인 행동이고 인위적인 자제에 불과하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일을 하기 전에 결코 주동적으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진리 원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묵상하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엄격히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런 생각과 태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이 지닌

패괴 성품의 여러 모습에 대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하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이 패괴 표출임을 인정하느냐? 형식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 무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분명히 거부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외면한다'는 말은 좀 추상적이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사람이 교만하고 간사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간사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꿍꿍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정도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만 있으면 그만이지요.'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자 구체적인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폭로의 말씀에 대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형제자매들의 평가와 일깨움, 심지어 그들의 패괴 성품에 대한 지적과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말해 보아라,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그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 네가 그에게 "본분을 그렇게 되는대로 이행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성의한 거예요."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생하고 대가도 치렀는데, 왜 저더러 무성의하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변호이다. 그럼 때로는 변명거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인정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건성으로 임했는데 그게 어때서? 누구나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지 않나? 누구나 다 정상적인 희로애락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내가 건성으로 임했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어. 변명거리를 찾아서 이 일을 덮어야지. 체면을 구겨서는 안 돼.'라고 생각한다. 그는 숱한 이유와 변명으로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자신이 무성의하게 대한다는 사실도, 자신에게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남들의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야.'라고 자처하다가 일이 닥치면 그것을 방패막이로 쓰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이유를 찾아 변명하고 변호하여 문제를 얼버무리고 끝내버린다. 그다음, 또다시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인성이 나쁘지 않아. 나는 진정으로 믿고, 버릴 수 있어.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도 치를 수 있지.'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정확히 말해서, 이 부류의 모습과 본질을 보면 그들은 힘쓰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비중이 얼마나 되든, 마지막에 이 부류가 정말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면, 큰 과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정 법령과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들은 충성을 다하는 힘쓰는 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쓰는 자가 될 테니, 그 복이 무척 크다!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사역의 증인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또 얻으려 하느냐? 충성을 다하는 힘쓰는 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혹자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이 버리고 고생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패괴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직면한 후 진리를 구해 해결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나 자제, 인내, 끈기에 기대지 않고 진리 원칙대로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면 백성이 될 가능성도 얼마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행동이 성품 변화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구원받는 것과 무관하다면, 이들이 백성이 될 확률은 제로이다. 이는 사실이다. 충성을 다하는 힘쓰는 자를 대하는 원칙이 무엇이겠느냐?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는 것이다. "헛된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으며, 버릴 수 있고,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구원받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에게 반드시 알게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이 고수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으며, 버릴 수 있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잘못되었고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몇 가지를 갖추었다고 해서 사람이 패괴 성품을 벗어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며, 좋은 행위가 약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고, 진리를 얻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릇되고 터무니없으며,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에 부합하지도, 전혀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종교 관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고 진리를 교제해 주어라. 그랬는데도 그들이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깨닫지 못하며, 구하려는 뜻이 없다면,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끝까지 힘쓰는 자로서 힘만 쓸 수밖에 없다.

2. 백성 부류

충성을 다하는 힘쓰는 자의 모습을 모두 교제했으니, 이제 또 다른 부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들은 각 부류의 패괴 성품을 폭로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 나면, 지난날 자기가 표출했던 온갖 패괴 성품, 그리고 패괴 성품에 지배되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가졌던 여러 태도를 더 많이 떠올린다. 그러고는 자신의 여러 모습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고, 본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한다. 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배치한 각종 사람과 일, 사물 속에서 자신이 표출한 온갖 패괴를 성찰한다. 이들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폭로, 징계를 받아들이고자 시도한다. 이들이 힘쓰는 자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폭로한 사람의 모든 패괴 성품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비록 소극적으로 변하고, 도피하며, 심지어는 포기하려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동력이 있다. 그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과 패괴 성품이 모두 해결되어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측면의 진리를 듣고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행했던 거짓과 기만, 그리고 음험하고 사악한 몰골이 더욱더 분명히 보이고, 마음속이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의 거짓말과 기만의 방식이 영화처럼 한 장면씩 끊임없이 재생되니 그럴수록 더욱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한다.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면 자신이 마치 죄인 같아 그대로 맥이 풀린 채 일어서지 못하며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악인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건 화를 면한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다짐한다. '새사람이 되어야 해.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이르든 늦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든 얕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말씀에 대해 반감이나 거부감을 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계속 실행할 준비를 한다. 이들은 일을 하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에서 원칙을 구한 뒤 의식적으로 원칙대로 행한다. 때로는 구체적인 원칙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기도 하지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류의 인성은 힘쓰는 자와 비슷하며 우열이나 귀천의 구별이 없다. 물론, 이 부류 중에도 '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할 수도 있어.'라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가 많다. 하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들은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패괴 표출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르게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진입한다. 이들 역시 또 하나의 부류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가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다소 더디겠지만, 내면 깊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진입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새로운 빛 비춤이나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실행의 길을 교제하면 그는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깨닫고 기뻐하면서 '드디어 이런 빛 비춤을 교제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게 바로 내게 부족했던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는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포착하고, 자신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빛 비춤과 깨우침을 얻으며,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진실한 체험적 인식에서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진리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은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겠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 갈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느냐? 바로 자신의 패괴 성품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명 진입 측면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진리의 측면에서 더 성장하고 깊이 들어가 진정으로 일 처리엔 원칙이, 실행엔 길이 생기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되었고, 또 자신이 표출한

패괴 성품과 관련하여 그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벗어 버려야 할지 더 정확히 알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도 지위를 다투거나 고집을 부리고, 혹은 독선적이거나 교만하고 간사하며 심지어 강퍅한 여러 패괴 성품 속에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이런 분명한 문제들을 조금씩 성찰한다. 그 후에는 그것이 문제이고 패괴 성품의 표출임을,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패괴 성품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더더욱 그 패괴 성품을 해결하고 벗어 버리기를 갈망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갈망하는 근원이다. 즉, 패괴 성품을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드러내는 어떤 측면의 패괴 성품을 깨닫든,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한 답을 찾고자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진리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류가 진리를 갈망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자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으냐? (객관적입니다.) 이 부류가 진리를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무척 자발적일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텐데, 이 부류의 여러 모습과 실제 분량을 보면 진리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진리를 갈망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매우 객관적이다. 그럼 이 부류의 여러 모습을 볼 때, 이들을 어떤 부류에 분류해야겠느냐? 정확히 말해 이들은 백성의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어떤 근거겠느냐? 이 부류의 패괴 성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서 인성 측면에서 좋다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보인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으며, 대부분 평범한 인성을 갖고 있다. 평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느 정도의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하는 각 부류의 패괴 성품에 대해 들은 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이 움직여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진리를 들은 후, 계속 패괴 성품 속에서 살면서 이전의 생존 방식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과거 생존을 위해 의존하던 각종 사상 관점과 생존의 길,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멋대로 굴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마련한 각종 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와 실행 원칙으로 삼는다. 그들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요구를 대하는 태도나 관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이다. 그들은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힘쓰는 자들보다 더 크다. 진리를 받아들여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다. 힘을 좀 쓰고 대가를 좀 치러서 살아남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고 체험함으로써 패괴 성품을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패괴 성품도 인식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하고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이 생겨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신분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하여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으며, 기존의 낡은 생존 방식과 생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에게서 이룰 수 있는 성과이다. 구원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지 않으실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힘쓴다면, 그리고 그 기간에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도 않는다면 이런 경우 하나님은 너를 충성을 다하는 힘쓰는 자로 규정하고 살아남게 할 것이다. 혹자는 "살아남는 게 무슨 복입니까?"라고 말하지만, 그 복은 작은 것도 아니다! 기회가 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다음 시대에 어떻게 행할지에 달려 있다. 살아남아 수십 년을 더 살 기회가 있다면 그 복은 매우 크다. 그 복은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가 '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어. 나는 버릴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고생할 수도 있어.'라는 관점을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힘썼기에 얻은 것이다. 그러니 힘쓰는 자의 부류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얻게 되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힘쓰며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정 법령을 거스르지도 않으며, 큰 과오를 저지르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점을 보아 이런 복과 은혜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이래, 충성스럽게 힘만 쓰고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패괴된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너는 그저 힘을 좀 들였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대단한 것이다. 이는 전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다. 또 한 부류는 방금 말한 백성 부류이다. 백성이 받는 복은 분명 힘쓰는 자가 받는 복보다 크다. 그렇다면 백성의 복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그저 단순히 살아남거나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기회를 얻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많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너희에게 알려 준다고 해도 지금은 이해하지도, 얻지도 못할 것이다. 백성 부류는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며, 전 인류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 사역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나 자신의 생존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 내며, 하나님을 위해 굳세고 힘 있는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살아 냄과 생명으로 사탄을 물리쳐 그것에게 수치를

안기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자 구원받을 대상이다. 혹자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 내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아닌가요?"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나 자식,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지만 너는 언제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보배라고 절대 칭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라. 너는 그저 피조물이다. 그러면 옳은 것이다. 설령 언젠가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거나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만약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네가 가는 길이 옳다는 의미이다. 반면, 네가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은 통하지 않으니 혼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든 안 했든,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줬든 주지 않았든,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받을 것이 아니다.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백성은 이미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너는 아직 백성이 아니니, 그 허황되고 공허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지녔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패괴 성품과 낡은 사상, 그리고 패괴 성품과 관련된 온갖 소극적인 상태와 모습이 각기 다른 정도로 해결되고 벗겨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직한 사람, 진리 원칙을 아는 사람,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합당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오늘 교제할 주제가 아니다.

3. 피고용인 부류

힘쓰는 자와 백성, 이 두 부류 외에도 한 가지 부류가 더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포한 각 진리와 인류에 대한 각종 폭로를 들은 후에도 그들의 모습과 살아 내는 것, 추구하는 바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전혀 관심이 없으며,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당신들 누구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식이다. 그들이 드러내 놓고 '나는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으며, 버릴 수 있어. 또 기꺼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지.'라는 태도와 관점을 보이지는 않지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 어떤 태도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누구도 나한테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권하지 마.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누구든 나한테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권하려 하면 화를 자초하는 셈이야. 또 누구든 나를 책망 훈계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끝장을 볼 거야!'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물론,

형제자매들이 예배 때나 본분 이행 중에 언급하는 사람의 패괴 성품이나 일 처리 원칙, 하나님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등도 전부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다. 혹자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하나님 집에서 요구한 원칙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한다. 네가 원칙을 교제해 주면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잘하지만 돌아서면 제멋대로 행동하고, 마귀의 몰골을 드러낸다. 또 혹자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관점도, 말투도 그릇되며, 무엇보다도 성품까지 그릇되어 말이 통하지 않는다. 네가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모르겠네요."라고 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말하면 그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 트집 잡으려는 겁니까? 저를 출교시키려는 건가요?"라고 한다. 또 네가 "그런 행동은 관념과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겁니다. 새 신자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집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과 접하고 교류할 때 지켜야 할 원칙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나 이로움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나쁜 영향을 주지는 말아야죠. 이는 정상 인성에 갖춰져 있어야 할 이성입니다."라고 하면 그는 "저한테 정상 인성과 규칙을 운운하는군요. 당신이 뭔데요? 제가 부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게 어때서요? 한 명이 쓰러지면 한 명 줄어드는 거죠. 보고 있으면 짜증만 나는데 잘된 겁니다!"라고 한다. 규칙을 말해도 통하지 않고, 인성을 말해도 통하지 않으니, 진리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는 듣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못한다.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지 않더냐? (있습니다.) 전에 제명된 사람들 중 이런 부류가 있었다. 이런 사람은 힘쓰는 자냐, 백성이냐, 아니면 다른 부류냐? (도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도태되었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럼 그들은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겠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이 부류는 불신파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불신파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 교회에는 불신파가 적지 않다. 그런데 모든 불신파가 다 이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 최소한의 인성의 도덕, 교양도 없는 부류가 단순히 불신파라는 이유로 도태되었겠느냐? 그들은 무엇 때문에 도태되었겠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인성의 문제다. 이들은 인성이 나쁘고 악하며, 정확히 말하면 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의 본성이다. 마귀의 본성을 짐승과 비교하면 어떠하냐? 내가 보기에는 짐승보다 못하다. 어떤 짐승은 말을 들으며,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라는 동물은 꽤 괜찮다. 어떤 개들은 정말 반려동물이 되어 사람과 아주 잘 지내기도 한다! 특히 말을 잘 듣고 영리해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실내에 두고 키우기에 적합하다. 이런 개는 말을 듣지 않는 인간보다 훨씬 낫다. 좋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그런 자들이 사람이겠느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비인류'이다. 많은 자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며,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원망하고, 도태시키면 욕설을 퍼부으며, 몇 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부류를 하나님 집에 남겨 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남겨 둘 수 없다. 그럼 이 부류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해야겠느냐? 우선, 이 부류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범주에 두어야겠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면

그들을 어떤 유형으로 구분해야겠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느냐? 그들의 인성의 모습, 살아 내는 것을 보면 단순히 불신파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불신파에 속한 자는 많다. 하지만 그 불신파들이 다 그들처럼 그렇게 나쁘고 악하더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도 모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 기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냐? 이방인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교양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해 그들이 드러내고 살아 내는 것은 인성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본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면 그 본질로 보건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않겠느냐?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그들의 인성은 나쁘고 악하며, 마귀의 본성에 속한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을 높여 주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긍정적인 사물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지, 진리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긍정적인 사물도 싫어하고 증오하고 거부하며,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과 교양에 전부 반감을 갖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 논할 여지도 없다. 그들은 힘쓰는 자조차 못 된다. 혹자는 "그들이 힘쓰는 자조차 못 되는데, 하나님 집에서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집에 들어온 것입니까?"라고 묻는데,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한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정확히 말해 이방인 가운데서 모집한 피고용인, 임시직이다. 이 뜻이 명확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형이고,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맡은 역할이다. 그들은 힘쓰는 자조차 못 되니, 나는 그들을 힘쓰는 자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힘쓰는 자에게는 그래도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믿으며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고생할 수 있는 특징과 이런 살아 냄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것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을 피고용인 범주에 넣은 것만 해도 인정을 베푼 것이고 사정을 봐준 것이다. 피고용인, 임시직이란 무슨 의미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필요로 인해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자들을 데려와 특정한 일을 완수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일이 끝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하나님 선민들이 그자들과 지내며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싫어하게 되며, 동시에 그들을 충분히 분별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마땅히 제명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방금 분명히 설명되었느냐? (네.) 교회 사역의 특수한 시기에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피고용인을 모집한 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임시직으로 일하며 힘을 쓴 뒤, 하나님 집에서 제멋대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짓을 숱하게 저지른다. 그들이 맡은 역할은 부정적인 인물로, 사탄 마귀의 민낯을 십분 드러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교회 생활의 질서를 망가뜨린다.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집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집의 도구나 기계, 귀중품 등을 많이 훼손하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그들의 소행은 공분을 사게 된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공과를 배우고 분별력이 생겨 무엇이 마귀이고 무엇이 인성이 없는 것인지 알게 되며, 불신파의 몰골을 똑똑히 보고, 더 실제적으로 불신파의 사상 관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추구하거나 마음 깊이 동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본분과 긍정적인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심지어 하나님 집의 어떤

규정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등을 똑똑히 보게 된다. 이 정도까지 구체화되니, 그들의 인성 측면에서 살아 내는 것과 본질,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전부 드러난다. 그리하여 그들을 교회에 계속 남겨 두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백해무익하다. 이때가 바로 그들이 떠날 시점이다. 그럼 하나님 집에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그들이 뉘우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지만, 결과는 마귀는 언제까지고 마귀일 뿐,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보여 준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큰 붉은 용이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인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마귀의 본성을 지닌 이들이 변화하여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인정하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앞으로의 결말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 마귀의 본성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본성이니, 아무리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줘도 그들의 살아 내는 것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에 대한 처분은 본분을 박탈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집과 아무 인연도, 관계도 없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미련을 갖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질도 좋고 은사와 재능도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집에서 좀 더 사랑으로 포용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면, 나이가 더 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자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이고 바보입니다.) 그렇다. 어리석은 바보이고 멍청이다! 하나님도 이런 자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도 이런 자가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네가 무엇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한다. 네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냐? 네게 진리 실제가 있느냐? 네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냐? 감히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다니,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비이성적인 것 아니냐? 대역무도한 것 아니냐? 이는 사탄 악령이 환생해서 늘 하나님에게 반기 들기를 좋아하는 것 아니겠느냐? 방금 말한 이 부류의 불신파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책망과 훈계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들이 바로 사탄의 본성을 지닌 자들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탄의 부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부류를 데려다가 부양해 보라고 한 후 정말 사랑을 보이는지 지켜보라고 해라.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파들은 교회에서 가장 뒤처지는 자들로, 짐승과 같아서 무지막지하고 구제 불능인 부류이다. 과거든 현재든 그들에 대한 교회의 처분은 더할 나위 없이 합당했다. 언제나 그들에게 크나큰 인내와 포용을 보여 주며 충분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관념과 상상, 복받으려는 욕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들도 어느 정도 자제했으며, 본분을

이행할 때도 얼마간 열정과 패기를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태도와 민낯이 철저히 드러났다. 그들이 무엇을 드러냈느냐? 인성과 양심, 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없이 흉악하고 사악하고 포악했으며, 하나님과 진리를 무시했고, 심지어 하나님 집의 요구와 규칙, 하나님의 행정 법령에도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몰골을 보였다. 이런 모습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 선민들의 반감과 혐오를 더욱 심화시켰고,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정리하는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했으며, 결국 그들의 거취와 결말, 운명이 신속하게 결정되게 했다. 그들의 결말과 운명은 스스로 획득한 것으로, 누군가가 부추기거나 조장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유혹하여 야기된 것도 아니며, 객관적 환경으로 인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며, 그들의 본성 본질과 걸어온 길로 인해 결정된 것이다. 그들의 결말과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대열에서 제명되는 순간, 힘쓰는 자조차 못 될 것이니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가히 짐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드러나 도태된 이 부류가 저지른 갖가지 악행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 내뱉은 악독한 말들은 너무도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리더 일꾼들은 이 악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의 본성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마치 이들이 악인이고 불신파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양, 교회에서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는 리더 일꾼의 심각한 직무 유기다. 그들은 마귀의 본성을 지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집의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의 질서를 함부로 교란하고 망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자들이 이렇듯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난폭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두고, 본분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주도록 방치한다.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집의 기계와 각종 설비, 사무 도구와 용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등의 행각이 있다. 더 심각한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각종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이론을 퍼뜨려 하나님 선민들이 안심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본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잃도록 교란한다. 이 악인들이 이토록 많이 나쁜 짓을 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며 형제자매들을 해치는 악행을 이토록 많이 저지르는데도, 리더 일꾼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심지어 어떤 리더 일꾼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짐승, 마귀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리더 일꾼이 전혀 상황을 알거나 지각하지 못했다니! 이는 인간 말종 아니겠느냐?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잡담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거짓 리더가 하루라도 직책을 맡고 있으면, 온갖 악인들이 그 하루 동안 마음대로 교회를 교란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해친다. 거짓 리더가 손을 놓고 있으니 그 짐승 같은 무리가 이렇듯 온종일 한가롭게 지내면서 본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규칙도 전혀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 집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집의 각종 물질적 대우와 혜택을 공짜로 누리는 것이다. 또 일부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하나님 집의 기계와 기자재를 망가뜨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제멋대로 하려고 드는데,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못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리더 일꾼들은 못 본 척하면서 누가 보고해도 해결하지 않으니, 이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폐물 아니겠느냐? 심각한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것이냐? 네가 바쁘다는 그 일이 가치가 있느냐? 사역의 경중과 완급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냐?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문제 해결이 우선 아니겠느냐?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각 부류를 제때 파악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리더 일꾼의 본연의 사역인데, 너는 당면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바쁘구나. 그것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겠느냐? 문제를 발견했거나 누군가 문제를 보고했다면, 먼저 손에 있던 일을 내려놓고 서둘러 현장에 가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악인이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고 있다면 먼저 그 악인을 정리해야 한다. 그 후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면 쉽다. 문제를 발견하고도 해결하지 않고 바쁘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쓸데없이 바쁜 것 아니겠느냐?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것이냐? 실질적인 사역을 하느라 바쁜 것이냐?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느냐? 네 이유와 변명이 말이 되느냐? 왜 문제 해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냐? 왜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변명거리를 찾아 책임을 회피하면서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교회 리더로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지는 않고 그저 잡다한 일로 바쁘게 지내며, 핵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의 경중과 완급을 가리지도 못하며, 핵심을 잡지도 못하니, 이는 자질이 매우 형편없는 모습이며,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너는 리더 자리에 몇 년을 있어도 절대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자질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아무리 훈련해도 소용이 없다. 그는 분명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는 거짓 리더일 테니 반드시 교체하고 조정해야 한다. 거짓 리더가 사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 거짓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에 다방면적인 손실을 끼친다. 먼저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각종 사역의 성과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 해악과 영향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나라 복음의 확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결과는 모두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야기된 일이다. 만약 다른 리더 일꾼들이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좀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에 끼치는 각종 손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최소한 손실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네게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처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문제점을 보고한 후에는 즉시 착수하여 처리해야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상황을 물어봐서 파악해야 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다른 리더 일꾼들과 의논하고 교제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즉시 윗선에 보고하여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이 리더 일꾼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윗선에 보고했다가 자신이 무능하고 자질이 너무 부족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매우 두려워하고, 교체될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주동적으로 사역하지는 않으며,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행동이 굼뜨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로 인해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 악인들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이때 그 악인들과 야심가들은 거짓 리더가 못난 인간임을 깨닫고 기회를 틈타 제멋대로 악을 행하기 시작하며, 교회를 뒤죽박죽 난장판으로 만들어 각종 사역을 마비시킨다. 거짓 리더가 이 사태의 주요 책임자겠지만, 다른 리더 일꾼들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이는 리더 일꾼의 심각한 직무 유기 아니겠느냐? 사실 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대부분은 악인이나 불신파의 교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만약 리더 일꾼이 제때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주범을 찾지 못하며, 늘 다른 쪽에서만 원인을 찾는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고를 일으킨 자나 문제를 야기한 범인을 잡아서 대놓고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문제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최소한 그 불신파와 악인들이 다시는 제멋대로 굴며 방해하고 교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에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제때 해결되지 않는 주된 원인이 리더 일꾼이 책임감이 보이지 않거나 진리 실제가 없는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해서라는 사실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교회에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 리더 본연의 사역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상황과 원인을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리더 일꾼이 신참이어서 경험이 없다면 인내심을 갖고 도우며, 그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진리 원칙을 파악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점차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편, 리더 일꾼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가 이방인의 관점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제때 교체하고 도태시켜 새로 적합한 리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이성이 있다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숨기거나 묻어 둔 채 방치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몇 명과 함께 의논하며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를 70~80% 정도 해결할 수도 있다. 최소한 당장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 이 또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만약 정말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상부에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체면 깎이는 것이 두렵고 상부에서 너의 무능함을 책망할 것이 두려워 숨기고 묻어 둔 채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히 수동적인 것이다. 그런 너는 바보처럼 무감각하고 우둔하며 아무 대책이 없어 일을 그르칠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기회를 주어 그들이 혼란을 틈타 일을 꾸미게 할 수 있다. 왜 혼란을 틈타 일을 꾸민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바로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 일꾼이 어떤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선민들이 불안해하며 리더 일꾼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때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틈을 노리려고 한다. 그들은 그 교회가 이끄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 주어 하나님 선민들에게 우러름과 지지를 얻어 내려고 한다. 그들이 리더 일꾼보다 자질이 좋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혼란 속에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가장 원하는 일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이 무능력할 때,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구까지 마련해 준다.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누구를 믿겠느냐? 당연히 악인과 적그리스도 세력을 믿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느냐? 리더 일꾼이 못난이로,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에게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진리 실제도 없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도 못하지만, 다소 은사가 있고 외부적인 일에 상대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이며 사람을 미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이 리더 일꾼이 된다면 정말 진리로 하나님 선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끌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얼마간 은사가 있어 말을 잘하긴 하지만 진리 실제가 전혀 없는데, 교회의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자격이 전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꿰뚫어 봐야 할 일이니, 절대 악인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해 보아라, 불신파, 악인,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진리 실제가 조금도 없는데, 양심과 이성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교회에는 책임자가 없지만,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집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각자 이행해야 할 본분을 지키며, 맡은 바 직책을 다해야지,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럼 이 불신파, 악인들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지켜보는 사람도, 통제하는 사람도 없으니 본분도 이행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며, 쓸데없는 잡담과 농담, 심지어 남녀가 서로 시시덕거리며 장난친다. 또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이방인의 영상을 보다가 낮에는 밤새워 본분을 이행했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며 늦잠을 잔다. 이 악인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런 짓을 한다. 그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할 때 마음에 가책을 느끼겠느냐? 양심에 깨닫는 바가 있어 주동적으로 사람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집과 교회, 형제자매에게 이로운 일을 하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지켜볼 때면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 마지못해 보여 주기식으로 일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로, 이 외에는 취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 집에 남겨 두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자들은 쓸모없는 존재이니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배우고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수록 더더욱 그 일이 하고 싶어지고 그 직종을 떠나고 싶지 않아진다면, 이는 어떤 의미겠느냐? 그가 진정으로 그 직종을 좋아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든 망설임 없이 계속 그 직종에 종사하며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좋아하는 것이다. 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업무를 배울 때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기를 꺼리고, 업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귀찮아한다면, 심지어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럽다고 느끼지만 전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또 그 직종이 자신에게 물질적인 수확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마지못해 그 직종에 종사하지만 결코 그 직종의 뛰어난 인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그 직종을 좋아하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분명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입으로는 그 직종을 좋아한다고 하고 그 직종에 종사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법이 없고, 심지어 배우는 과정에서 그 직종에 반감과 혐오감을 갖게 되어 점점 더 배우기 싫어하다가 어느 정도로 반감이 들면 전직해 버리며, 그 후에는 그 직종에 종사했던 과정이나 이야기 등을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가 그 직종을 정말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 직종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고, 혐오감을 느끼며, 심지어 전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직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가 그 직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 대가를 지불한 후에도 그 직종이 그가 바라던 대로 부자의 삶, 좋은 물질적 대우를 누리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 직종을 싫어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 직종을 언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과거 그 직종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이상이나 인생 최고의 추구 목표로 삼았던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그 직종을 이 정도로 싫어할 수 있다면, 그가 처음에 보여 준 모습이 진정으로 그 직종을 좋아하는 것이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이 그 직종을 진정으로 좋아한다. 즉, 그 직종이 자신에게 좋은 물질적 삶이나 풍족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와 무관하게, 또 그 직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망설이지 않고 그 직종에 계속 종사하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지 여부도 이와 같다. 만약 네가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데서 점차 진리를 사랑하는 데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한결같이 진리를 구하고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네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구원받는 길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또 포기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좋은 결말과 종착지, 미래를 얻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버틸 필요가 있다고, 마침 재난이 커져서 갈 곳도 없으니 여기에서 버티며 한번 운을 시험해 보자고 생각한다. 그럼 이 부류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없습니다.)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이 세상을 증오하고, 사탄을 증오하고, 부정적인 사물을 증오하며,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광명을 동경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 집과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자신이 힘쓰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행위와 본성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어떤 모습을 드러내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도태될 대상이라고 의식하거나 느끼거나 생각할 때, 어떤 이는 떠나기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마지못해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난다. 이 부류는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복받으려는 욕망이 물거품이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모습을 통해 각 부류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세 부류의 서로 다른 결말

방금 우리는 힘쓰는 자, 피고용인, 백성이라는 세 부류의 특징을 교제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객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추구와 본성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근거로 결정한다. 힘쓰는 자도 진리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념과 상상, 과분한 요구와 배반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패괴 성품을 전혀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드러내는 모습은, 버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데 그칠 뿐, 진리 원칙이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결국 많은 힘을 쏟지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인성이 좋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꺼이 버리고 고생할 수 있으니까 분명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자처하며 마음을 편히 먹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시종일관 힘쓰는 자의 길을 걸어왔으며,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기에 힘쓰는 자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다. 피고용인에 속하는 다른 부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 밖에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으니 바로 방금 말한 백성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힘쓰는 자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청춘까지 바치며, 숱한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른다. 이는 힘쓰는 자와 같은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던 많은 관념과 상상, 과분한 요구가 모두 해결되고, 패괴 성품 중 하나님을 명백히 대적하는 내적 상태와 모습, 그리고 패괴 표출을 벗어 버리며,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체험 과정에서 점차 진리를 깨달아 해소된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패괴 성품을 완전히 벗어 버리지는 않았지만, 생명 성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깨달은 진리 원칙에 따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패괴 성품의 표출도 눈에 띄게 줄게 되었다. 모든 환경에서 패괴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요구 하나는 충족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요구한, 정직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패괴 성품을 드러내거나 과오를 저지르거나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거나 거역할지라도 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말세 심판 사역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앞으로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안배하든,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이 안배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이나 계획, 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완전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기준과는 아직 거리가 한참 멀겠지만, 하나님의 시련이 닥칠 때 그에게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원망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득히 멀어 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존 원칙과 생존 토대로 삼을 수 있다면, 너 혹은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정한 백성이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 예언이라고 해도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어쨌든 이 마지막 결과는 허상이 아니라 곧 성취되고 이루어질 사실이다. 이 사실이 과연 누구에게서 이루어질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지는 너희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 진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조금 있을 뿐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실행하지는 못하는지, 마지막 결과가 너 자신에게 답을 줄 것이다. 그럼 이 주제는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2. 인성에 근거한다

계속해서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에 관해 교제하겠다.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에는 크게 3 가지가 있는데, 앞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 교제했고, 그다음으로 인성에 대해 교제했다. 인성이라는 항목에서도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구분했는데, 이미 교제한 여러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읽어 보아라.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두 번째 항목인 인성. 첫 번째,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 두 번째,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것. 세 번째,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것. 네 번째, 보복하기 좋아하는 것. 다섯 번째, 입조심을 못 하는 것.) 다섯 번째 조항인 '입조심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교제했다. 인성 측면을 교제하든, 아니면 다른 측면의 구체적인 모습을 교제하든 내가 할 말은 동일하다. 즉, 각 부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들은 후에 자신을 돌아보고 대조하는 데 집중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진입하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힘쓰는 자 부류는 그저 듣고 만다. 마음에 두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으며, 간혹 설교를 들으면서도 잠을 잘 때도 있다. 그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소한 일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내가 해야 할 일도 아직 못 끝냈는데!'라고 생각한다. 그는 늘 몸을 쓰는 일만 생각하고 힘을 들이는 일에 몹시 열중하며 마음을 쏟고, 충성심도 보이지만, 진리와 관련된 일에는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다. 이는 이 부류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저 힘만 들이는 데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인다. '나는 반항하고 대항할 거야. 당신이 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 모습과 표출, 성품을 폭로해도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라고. 나를 폭로했다는 걸 남들이 알아도 뭘 어쩌겠어?' 그는 낯짝도 두껍게 계속 대들고 반항하는데, 이는 구제 불능이다. 어쨌든 각 부류가 보이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힘만 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든, 혹은 진리에 반감을 갖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든 좌우에 날 선 검이자 시금석이 되어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측정하고 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측정할 수 있다.

6)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일전에 각종 악인의 다섯 가지 모습을 분별하는 것에 관해 교제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여섯 번째 모습을 교제하겠다. 여섯 번째 역시 한 부류 악인의 모습이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부류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모두가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렇겠느냐? 이 부류는 양심도 이성도 없고, 정상 인성도 없어서 함께하면 무척 골치 아프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며 반감이 들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느냐? 많지는 않지만 분명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무 일도 없는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사람들과도 무척 정상적으로 왕래하며, 흉악한 성품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다가 진리 원칙을 거슬러 책망받게 되면 펄쩍 뛰면서 크게 성을 내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하니, 너는 문득 그가 온몸에 가시가 돋은 고슴도치처럼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서 인성이 괜찮고 사리에 밝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그런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일 줄은 몰랐네. 앞으로는 이 사람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겠어. 되도록 왕래를 줄이고 거리를 두며 건드리지 말아야지.'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보통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만만찮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게 무척 예의를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특히 말할 때 절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그가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한가요?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야기해 봐야겠구나.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이 체험을 교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자신의 패괴된 내적 상태나 어려움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하기 마련인데, 비슷한 체험이 있거나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정상적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으니 우리 함께 이 주제에 대해 교제해 보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체험했는지 듣고 싶다. 만약 당신이 교제하는 내용에 빛 비춤이 있고, 그게 나한테 존재하는 문제라면, 나는 받아들여서 당신의 체험과 길을 따라 실행해 보고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기 인식에 대해 교제하며, 패괴되고 추한 모습을 털어놓는 것을 들으면, 자기를 돌려서 폭로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여겨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낸다. "패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당신들은 저보다 더 심각하게 패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겨냥하고 폭로한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당신들은 저를 궁지에 몰고 배척하려는

것 같네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듣기 좋은 말로 당신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 학력이 당신들보다 낮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이건 정상적인 교제일 뿐, 당신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패괴 성품은 똑같지 않나요? 한 주제로 교제하면서 자신의 패괴된 내적 상태를 말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내적 상태가 있겠죠. 당신한테도 같은 내적 상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의 체험을 교제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그렇다고요? 한 사람이 교제할 때는 저도 참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세 명이나 합세해서 저를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제가 호락호락해 보입니까?"라고 말한다. 말이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의 말에 이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이 교제한 주제가 너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교제해도 되고, 그에게 직접 너를 겨냥한 거냐고 물어봐도 된다. 시골 출신이니, 학력이 낮다느니, 사람들이 무시한다느니 하는 말을 꺼내지 말고 말이다.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는 시비를 걸고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가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 모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 후로는 예배 시간에 교제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을 꺼내고, 그의 안색을 살펴야 하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말을 꺼내기 힘들어져서 예배 때 교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가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가져온 속박이자 교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모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원받을 수도 없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이 부류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저는 더 이상 건성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진리 실행에 집중하고, 완벽을 추구할 거예요. 저는 천성적으로 승부욕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라고 말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본분을 이행할 때는 여전히 건성으로 대하며, 그가 이행한 본분에는 문제가 무척 많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 리더가 그의 본분 이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 훈계하면 그는 바로 화를 내며 말한다. "당신들이 뒤에서 저를 판단하고, 제 업무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건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실수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게다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건성으로 대했다고 하는데, 당신도 예전에 사역할 때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저를 책망할 자격이 있나요? 만약 제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당신들 중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이 부류가 어떠하냐?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정당한 책망과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맞서고 대항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또한 누가 자신을 무시한다느니, 자신이 힘이 없다고 괴롭힌다느니 하는 말까지 한다. 이는 횡포를 부리고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겠느냐? 심지어 어떤 이는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에 본분을 팽개치며, "저는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중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세요. 제가 없어도 이 사역을 해낼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고는 형제자매들이 타일러도 듣지 않고, 리더 일꾼이 진리를 교제해 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들먹거리고 본분을 내팽개치기 시작한다. 예배 때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교제하지 않으며,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가 버린다. 또 나갈 때는 발을 구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부류는 일이 닥치면 억지를 부리고 허튼소리를 하며, 횡포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무지막지하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제자매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안부를 묻지 않으면 불쾌해하며, 예배 시간을 이용해 하소연한다. "당신들이 모두 저를 무시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배 때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만 교제하고, 자신의 체험적 인식만 이야기할 뿐, 아무도 저를 신경 써 주지 않고, 웃는 얼굴 한 번 보여 주지 않죠. 제가 갈 때도 아무도 배웅해 주지 않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당신들은 정말 인성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교회에서 억지를 부린다. 작은 일 하나에도 화를 내고, 쌓아 왔던 모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다. 분명히 패괴 성품을 드러냈으면서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며,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추구할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고 각종 변명거리를 찾아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고, 이와 동시에 기회를 잡아 원망을 쏟아 낸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명성과 관심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골치 아프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도 '아니요'라는 말 한 마디 못 하고, 아무도 쉽게 그를 평가하지 못하며, 아무도 그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지 못한다. 설령 그에게서 몇 가지 결점과 패괴 성품을 발견할지라도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한다. 예배 자리에서 개인의 체험을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나눌 때도 모두 이 '말벌집'을 조심스럽게 피해 가며, 그를 건드려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예배 자리에 와서 발산하는데, 이는 분명 형제자매들을 그의 분풀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생억지를 쓰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데, 누가 그와 진리를 교제할 엄두를 내겠느냐? 교제하려고 해도 어떤 말이 그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목을 매고 자살하겠다고 할 테니,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교제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안 되며, 너무 다정하게 대해도, 너무 냉담하게 대해도 안 된다. 또 피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해도 안 된다. 그가 기뻐할 때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도 안 되고, 그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형제자매들이 함께 걱정해 주지 않아도 안 된다.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그를 성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며, 어떻게 대해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교제하는 것조차 그를 화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나를 폭로하는 것 아닌가? 나랑 접촉한 적도 없고, 내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지? 분명 누군가가 일러바쳤을 거야. 누가 연락하고, 누가 일러바쳤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이 부류는 무슨 일이든 비뚤게 생각하고, 바르게 대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생억지이다! 이 부류는 막무가내이며 더욱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니, 교회에 남겨 두면 백해무익하다. 그저 짐이고 골칫거리일 뿐이니, 일찍 차 버리고 한시바삐 정리해야 한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큰 붉은 용의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다. 쫓기고 있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어떤 이들은 박해를 받아 집에 못 가는 것을 자신에게 공로와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섬김 가정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시중받는 것도 모자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집이 그리워지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달래고 참아 주어야 한다. 이는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 아니겠느냐? 박해받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섬김 가정은 또 너무 적다.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들이 거리를 떠돌지 않게 했다. 형제자매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느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횡포를 부린다. 사실 형제자매 집에서 사는 것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생활 여건이 더 낫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보다 낫고, 형제자매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설령 어떤 지역의 생활 여건이 조금 나쁘다고 해도 일반적인 수준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자주 모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좀 더 많이 깨닫고 자신의 추구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일을 대할 때 올바른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이는 자신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이라는 것을 알며,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고집불통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일주일 집에 못 가는 것은 간신히 견디지만, 2 주가 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며, 한두 달이 지나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다. "당신들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단란히 지내는데 왜 저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왜 저는 자유가 없는데 당신들은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큰 붉은 용이 우리를 박해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 정도 고난이 뭐 대단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트집을 잡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다 견딜 수 있는 고난을 당신은 왜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겪기 싫어하니,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틀림없이 유다가 될 것이다. 섬김 가정에서 고생한다고 해 봤자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첫째로 그래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둘째로 너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없으며, 셋째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단지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만나지 못할 뿐인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이 정도의 고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진리를 교제해 줘도 듣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 "저한테 그런 거창한 도리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냥 말해 보세요. 제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큰 붉은 용이 저희 집을 감시하지 않을까요? 언제쯤이면 집에 가도 큰 붉은 용이 저를 체포하지 않을까요?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그냥 죽어 버릴래요!" 그러고는 또 난동을 부리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길질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화가 나 억지를 부리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사람들이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이웃들이 듣기라도 하면 외부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들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면 그는 "제가 알 바예요? 저는 난동 부릴 겁니다! 당신들은 다 집에 갈 수 있는데 저만 집에 못 가잖아요. 이건 불공평하다고요! 당신들도 집에 못 가게, 저처럼 되게 할 거라고요!"라고 말한다.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기는커녕 악의까지 드러내는데,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누가 달래도 소용이 없다. 그러다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제야 좀 조용해진다. 하지만 언제 또 횡포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산책을 가려 할지, 자유를 원한다고 할지, 실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려고 할지 모른다. 집에 갈 계획만 세울 것이다.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집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경찰이 잠복해서 감시하고 있어요."라고 말해도 그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잡히면 잡히는 거죠. 잡힌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봤자 유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유다가 되겠다고 하는 그를 누가 감히 섬기겠느냐? 유다를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형제자매들은 너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겨 섬겼다. 네 인성이 좀 부족해도, 네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네가 교회를 배반하고 유다가 되어 형제자매들을 해침으로써 많은 이가 집에 돌아가지도,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원수를 섬길 엄두가 나겠느냐? 그를 섬기는 것은 스스로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궤변과 사설만을 늘어놓고, 사리 분별이 되지 않고, 흉악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그와 교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도 그와 진리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화를 자초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속마음을 터놓으려 해도 조심스럽고 겁이 난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그에게 덜미가 잡히고 무지막지하게 질책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악인 아니겠느냐? 살아 있는 귀신 아니겠느냐? 성품이 흉악하고 이성이 건전하지 못한 자는 전부 살아 있는 귀신이다. 살아 있는 귀신과 교류하다 한순간 방심하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 교회에 이런 살아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큰 골칫거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악을 쓰며 난리를 치고 분풀이를 한 뒤에는 사람다운 말을 하고 사과도 하지만, 그 후에도 변하지는 않는다. 언제 또 기분이 나빠져 악을 쓰고 난리를 치며 궤변을 늘어놓을지 모른다. 그가 악을 쓰고 분풀이할 때마다 그 대상이 다르고 게다가 분풀이의 근원이나 배경도 다르다. 즉, 그는 어떤 일에서든 분풀이할 수 있고, 어떤 일에서든 불만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일이든 악을 쓰고 횡포를 부리는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무섭고 골치 아픈 일이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악인은 언제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장 증오한다. 이런 사람은 있는 대로 다 정리하고 전부 제명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흐리멍덩하고 성품도 사나우며 머릿속에 온통 궤변과 마귀적인 말만 들어 있고, 일이 닥치면 혈기로 분풀이한다. 분풀이할 때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소리 지르고, 어떤 이는 발을 구르고, 심지어 어떤 이는 머리를 흔들며 손짓발짓하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냄비와 그릇을 집어 던지고, 돼지나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돼지나 개를 때리고 발로 차며 동물에게 다

분풀이한다. 이들은 무슨 일이 닥치든 화를 내며, 차분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또 기도하거나 진리를 구하지도 않으며, 누군가와 교제하지도 않는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참는데, 참기 싫으면 미친 듯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남을 질책하고 정죄한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들이 교양을 갖췄다는 걸 압니다. 당신들 모두 저를 업신여기죠." "나는 당신들 집이 부자라는 걸 압니다. 당신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싫어하죠." "당신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토대가 없고 추구하지 않는다고 싫어하죠. 저는 다 압니다." 자신에게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 법이 없고, 누구와 교제해도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지 않는다. 또 자신의 문제와 관련될 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시선을 돌려 남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 주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라고 원망하기도 한다. 마치 자신이 악을 쓰고 난리를 피우고 트집 잡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야기하고 초래한 것인 양, 전부 다른 사람의 잘못인 양,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정당방위라는 양 말이다. 그는 불만이 생기면 원망을 터뜨리고 헛소리를 하며, 궤변만 늘어놓는다. 마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오직 자신만이 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이다. 그가 아무리 악을 쓰고 난리를 피우고 궤변을 늘어놓아도 사람들은 그가 좋다고 말해야 한다. 또 그는 악행을 저지른 후에도 다른 사람이 폭로하고 질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네가 그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지적한다면 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니, 너는 편히 지낼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모두 악인에 속한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존엄과 관련된 일이 닥치면 즉시 폭발해서 난리를 치고 횡포를 부리며 목을 매 죽겠다고 생떼를 쓴다. 말해 보아라, 집에 이런 인간 말종, 터무니없이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받지 않겠느냐? 집안이 온종일 아비규환이 되고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 차서 살 수가 없게 된다. 일부 교회에는 이런 부류가 있다. 아무 일 없는 평소에는 알아챌 수 없지만, 언제 증세가 도져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 이런 부류는 주로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행동이 한 달이나 반년에 한 번씩만 일어나도 사람들을 매우 곤혹스럽고 힘들어지게 하며, 많은 이의 교회 생활에 각기 다른 정도로 교란을 초래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즉시 처분을 내려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 부류는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 할 수도 없으니 포용하고 인내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겠느냐? (그가 그런 짓을 하면 많은 사람이 무척 곤란하고 힘들어지며, 교회 생활에도 교란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교회 생활을 교란하는 자는 설령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교회에 남겨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류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몇 년을 믿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든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저질러 책망과 훈계를 받는 순간, 그는 바로 생떼를 쓰며 헛소리를 지껄일 것이다. 진리를 교제해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준다고 해도,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이 닥치면 또 똑같이 행동한다. 내 말도 듣지 않으니 너희가 타이르면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부류는 큰 악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본성 본질을 볼 때, 그는 양심과 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고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자다. 이런 자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신파에 속하며, 사탄의 종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닥치면 생떼를 쓰고 계속 억지를 부리며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줘도 듣지 않는다. 이런 부류는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마귀, 악령에 속하니 짐승만도 못하다! 그들은 이성이 건전하지 못한 정신병자여서 영원히 진실로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많아지고, 하나님 집에 대한 무리한 요구도 많아지며, 교회 생활에 끼치는 교란과 해악도 더욱 커져서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들이 교회 사역에 끼치는 해악은 악인 못지않으니 한시바삐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소란 좀 피운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사랑으로 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남겨 두면 혹시 변화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말해 주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혹시'란 없다. 이 부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더욱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심과 이성이 없고, 두뇌 사고가 비정상적이어서 사람됨의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성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들보다 사고가 정상적이고 자질이 좋은 사람도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이성이 건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겠느냐? 더더욱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자를 사랑으로 대하며 기대를 걸다니, 이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며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정리하는 것은 100% 옳은 일이다. 그가 교회와 하나님 선민들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어느 교회든 이렇게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선민들은 마땅히 고발해야 하고, 리더 일꾼은 신고를 받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부류인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자들을 처리하는 원칙이다.

7)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일곱 번째는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흔히들 말하는 부류이다. 이 부류는 나타내는 인성의 모습이 그다지 악하지 않고, 이간질하거나 악을 행하고 교란하는 등의 모습도 존재하지 않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남녀 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든다는 것이다. 기회가 있든 없든 이들에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회가 없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이야기'가 발생하게 한다. 어떤 자리든,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이 자신과 얼마나 멀리 있든 이들은 수시로 이런 일을 벌인다. 어떤 일이겠느냐?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항상 누군가에게 접근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갖거나, 또 누군가를 마음에 두는 등의 일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거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늘 정욕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이들에게는 수시로 일어난다. 어떤 특별한 배경도 필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도 없다.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몇몇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겠느냐? 본분 이행에 영향을 받고, 교회 사역이 지연되고 방해받는다. 일부 젊은이들이 교란되고 시험에 빠지며, 또 하나님을 믿거나 본분을 이행하는 것에도 흥미를 잃고, 심지어는 본분을 내팽개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나온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부류는 너무 골칫거리다. 어떤 곳에 가든 일부 이성들이 주위에 몰려와서 접근하고 교태를 부리며 심지어 그와 시시덕거린다.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민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정상적인 내적 상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그는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과 사역, 교회에 일부 골칫거리와 교란을 초래하고, 심지어 기회만 있으면 자신이 관심 있는 이성을 유혹하여 관계를 맺는데, 큰 골칫거리다. 그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 그 사람도 같이 운수가 사나워져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니,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다.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본분 이행으로 몹시 바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지 못하고, 둘의 관계도 끊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며 너무도 괴로워진다! 재난 속에서 징벌받을 때까지 버틴다면, 철저히 끝난 것이다. 구원받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테니 말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을 범해 책망과 훈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 번, 심지어 세 번 잘못을 범하는데, 2~3 년에 서너 번이나 연인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선민들과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하나님 선민들의 마음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평생 오점과 유감으로 남는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좀 반반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으며, 은사와 특기가 있다는 이유로, 또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항상 일부 이성들이 파리 떼처럼 달라붙어 에워싸는데, 어떤 이는 밥을 챙겨 주고, 어떤 이는 이불을 펴 주며, 어떤 이는 빨래를 해 주고, 또 어떤 이는 영양제나 화장품을 사 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는 식이다. 그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속으로 알면서도 거절하는 법이 없이 다 받아들인다. 혼자서 여러 명의 이성을 꼬신다. 그 몇 명은 서로 다투면서 그를 시중들려고 하고 질투하는데, 그는 또 그것을 즐기면서 자신의 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남녀 간의 일은 성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성년자도 아는 것이다. 오직 바보나 지적 장애자, 정신병자만 모를 것이다. 그 몇 명이 그렇게 다투면서 한 이성의 시중을 들고 비위를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꼬시려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명백히 부적절한 일인데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묵인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희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것이 남녀가 서로 시시덕거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육적인 정욕이 주는 자극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느낌이 일종의 향락이라고, 세상의 어떤 미식보다도 맛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거절하지 않으니 그를 유혹하려는 사람은 더 기뻐하며 자신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무척 즐거워한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실질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음란한 짓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건 기껏해야 시시덕거리는 것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연애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연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오늘은 이 사람과 연애하고 내일은 저 사람과 연애하는 등 누구와도 무분별하게 시시덕거리고 연애한다. 이런 부류는 어디를 가든 먼저 정욕을 드러내고 으스대고 유혹하며, 더 많이 유혹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으스대는 그를 몇몇 형제자매가 분별해 연명으로 편지를 써서 윗선 리더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면 이 부류는 교회에서 정리된다. 어떠하냐? 하나님을 믿는 길이 끝난 것 아니겠느냐? 결말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행각은 사람들조차 보기 싫어하니, 하나님은 더더욱 혐오한다. 이런 부류가 드러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당한 관계도 아니고, 정상인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 한 단어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음란하다'는 것이다. 음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제멋대로 남녀 관계를 맺고, 무책임하게 꼬셔 대고, 이성을 유혹하고 교란하는 것이다. 이는 정욕에 기대 장난치는 것으로, 대가도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정말 누군가가 걸려들어서 그에게 사랑을 속삭이게 되면 그는 또 인정하지 않고 "저는 장난이었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너무 앞서가셨네요."라고 말한다. 이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시험을 마친 후 다음 타깃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 이 얼마나 나쁘고 사악한 자냐! 사람을 유혹해 놓고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다. 만약 누가 이런 사람에게 미혹되고 유혹되었다면 역겹지 않겠느냐? (역겹습니다.) 제멋대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부류가 증오스럽지 않으냐? (증오스럽습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처음부터 말했다. 사람이 결혼할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집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허락하며 자유를 보장해 준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바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함부로 이성을 유혹하고 제멋대로 집적거리거나 교란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연애를 금지하지 않지만 함부로 유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함부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어느 이성이나 교란할 수 있고, 교란한 후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교란한 대상은 그가 진정으로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며, 그는 그녀와 오래 사귈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다. 그저 유혹하고 싶고, 상대를 가지고 놀고 싶고, 상대를 이용하고 싶고, 자극을 찾고 싶고, 여러 명과 연애하고 싶고, 양아치처럼 굴고 싶을 뿐이다. 이것을 가리켜 음란한 짓이라고 한다. 교회에서는 음란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음란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사람을 제명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물론 복음팀에서는 풀타임 본분 교회든 일반 교회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복음 전도를 핑계로 함부로 이성을 유혹하고, 이성하고만 협력하거나 이성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것이니, 리더 일꾼은 반드시 제때 이런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찾아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 상대가 몇 살이든 나이에 제약받지 않는다.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유혹하려 하며, 염치가 전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유혹해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도 상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고 물건을 사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다. 이런 부류를 발견했거나 누가 이런 일을 보고했다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부류를 제명하는 것, 그것도 영원히 제명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한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기혼자들에게 해당된다. 집에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도 복음 전도를 핑계로 이성만 찾아다닌다. 어떤 사람이든 다 찾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그와 함께 도망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이런 부류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복음 전도 대열에서 제명하되, 영원히 제명하여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더 관찰할 필요도 없다. 알겠느냐? 혹자는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유혹해 가정을 이뤘는데 상대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생계까지 책임져 준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해 두겠다. 그런 사람은 한시바삐 제명해야 한다. 그는 절대 가정을 꾸리려는 게 아니며, 그저 음란한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겠느냐? 만약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부류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짓을 역겨워할 것이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 전 세계의 풍조가 음란하고 사악하여 사람들은 모두 정욕에 빠져 있고, 누가 더 많은 이성을 유혹하는지 서로 비교하며 자제하지 않는다. 이 사회, 이 인류는 그런 일을 질책하지도, 비웃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면 그게 능력이고 재주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일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육적인 정욕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제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제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염치를 알아야 하고 수치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상 인성이다. 누구에게나 정욕은 있지만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설령 어떤 생각이 고개를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있기에 자제해야 하고,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그것을 따르거나 방종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진리를 구해 해결하되, 믿은 지 얼마 안 돼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성의 도덕적 준칙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 정도의 자제력도 없다면 그것은 정상 인성이 없는 것이고,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동물들조차 이런 면에서 법칙이 있고 규칙을 지키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데, 사람이라면 더더욱 함부로 굴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 이런 자제력과 통제력도 없다면 무슨 진리를 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논하겠느냐? 그릇된 정욕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패괴 성품을 해결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본성은 더더욱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육적인 정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무슨 패괴 성품 해결을 논하겠느냐? 너는 거기에 이를 수 없으니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늘 연애할 기회를 찾으려고 하며,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 연애만 하면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제명 처분을 내렸고, 어쩌다 한 번 과오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경고를 했다. 이 사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적당한 상황이 되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곧바로 시험에 빠지며, 하나님을 믿어 복받으려는 속셈도 그렇게 그릇된 정욕 속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연애만 시작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복받으려는 마음도 버린 채 육적인 행복만을 탐한다. 그런 일을 한두 번 저지를 때는

양심에 참소를 받고 얼마간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서너 번이 되면 음란함이 형성된다. 음란함이 형성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소니 괴로움이니 하는 것이 사라진다. 인성의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인 '염치'라는 것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이다. 음란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계속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다.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정욕에 심각하게 빠져 절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는 이런 자들이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묵인해 악행을 조장해서도,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집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하지 않으니, 이런 음란한 마귀들이 머릿수를 채우게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누가 고발을 하거나 네가 직접 복음팀 내부에서 이런 자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지 알아야 한다. 만약 새 신자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먼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리를 교제해야 한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원칙과 태도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해라. 최소한 먼저 예방 조치를 취해서 그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며, 복음 전도를 빌미로 이런 일이 발생해 마지막에 책임자나 리더 일꾼들이 미리 관련 진리 원칙을 교제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을 대하는 하나님 집의 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느낄 때 리더 일꾼들은 이 원칙들을 명확하게 교제하여 이런 일이 어떤 행위이고 어떤 성질에 속하는지, 하나님 집에서 이런 일과 이런 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알게 해야 한다. 이 원칙들을 모두 분명히 교제했는데 그들이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처분을 내리고 해결해야 하며,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 교회에 이런 부류가 수시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일을 벌이거나 이성들을 교란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뭔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리더 일꾼들은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며, 혹은 본분 이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조정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제명해야 한다. 일곱 번째 인성 측면의 모습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2021 년 12 월 18 일

리더 일꾼의 직책(27)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을 주제로 한 교제를 계속하기로 하겠다. 일전에 이 주제를 제 14 조까지 교제한 바 있는데, 이번 조항에는 아직 교제하지 않은 몇 가지 소주제가 있다. 교제 전에 리더 일꾼의 직책에는 총 몇 가지가 있는지 되짚어 보아라. (총 15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 보아라.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 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제 2 조 각 부류 사람의 내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명 진입에 관련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

제 3 조 각종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 원칙을 교제한다.

제 4 조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각의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제때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며, 사역 중에 나타나는 편차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제 6 조 각 부류의 적합한 인재를 발탁하고 양성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훈련의 기회를 얻고 되도록 빨리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한다.

제 7 조 각 부류 사람의 인성과 특기에 따라 각 부류의 사람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써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곤혹과 어려움을 제때 보고해 해결 방법을 구한다.

제 9 조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집의 각 사역지침을 정확히 전달, 하달, 시행하고, 시행 상황을 지도, 감독, 독촉, 검사, 밀착 관리 한다.

제 10 조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서적, 각종 기구, 식량 등)을 적절히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 정비, 유지 보수하여 파손과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악인의 착복도 피하도록 한다.

제 11 조 신뢰할 수 있고 인성이 기준에 맞는 전담자를 선정하여 제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계하고,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출납 장부를 심의 검열하며, 이로써 흥청망청 낭비하는 상황과 불합리한 지출을 제때 발견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배상 요구를 하는 동시에 제물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악인에 의해 착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제 12 조 하나님 사역과 교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각종 사람, 일, 사물을 제때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를 저지 및 제재하여 상황을 전환시키며, 이와 동시에 진리를 교제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우고 공과를 배우도록 한다.

제 13 조 하나님의 선민이 적그리스도의 교란, 미혹, 통제, 그리고 심각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별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칠 수 있도록 한다.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

제 15 조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각각의 중요한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열다섯 가지를 모두 잘 알아들었느냐? (그렇습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는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각종 악인을 어떻게 분별해야겠느냐? 첫 번째 항목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총 몇 가지로 분류했느냐? 아홉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관직에 오르려는 욕망을 충족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성을 찾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재난을 피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투기하는 것이다. 또 다섯 번째는 교회에 얹혀사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피난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든든한 백을 찾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교회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속셈과 목적에 근거하여 각 부류의 본질을 분별한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인성 본질의 다양한 측면의 모습을 통해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할 각 부류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항목은 몇 가지로 나눴느냐? 첫 번째는 시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잇속 차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방탕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보복하기 좋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입조심을 못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음란한 짓을 일삼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열 번째는 흔들리는 것이고, 열한 번째는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은 것이며, 열두 번째는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것이고, 열세 번째는 배경이 복잡한 것이다. 이렇게 열세 가지가 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는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다. 그중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관한 문제는 교제를 마쳤고, 두 번째 항목인 인성의 각 측면에 관한 문제는 일곱 번째까지 교제를 마쳤으니, 오늘은 여덟 번째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인성의 모습부터 교제를 시작하겠다.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6)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2. 인성에 근거한다

8)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교회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부류를 너희는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이 부류는 문제가 무척 심각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겁이 많아서 교회를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이 악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배신한다. 이유야 어쨌든, 이 부류가 형제자매나 하나님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그가 교회의 중요한 정보나 형제자매들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가 교회 리더인지,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누가 어떤 중요한 사역과 본분을 맡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험이 닥치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를 누설하여 교회와 형제자매를 배신할 수 있다. 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신을 보호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언제든 드러내고 팔아넘김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었다고 해 보자. 큰 붉은 용이 그를 심문하면서 협박과 회유는 물론이고 고문까지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데, 자백하면 풀어 주겠다고 하니 그는 자신이 아는 형제자매와 교회의 정보를 모두 팔아넘김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맞바꾸었다. 이런 자가 바로 전형적인 유다이다. 말해 보아라, 전형적인 유다와 같은 이 부류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겠느냐? (이런 부류는 한시바삐 출교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전형적인 유다 부류는 평소에 의도가 있든 없든 교회의 일부 상황을 캐묻거나 파악하여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체포되는 상황이 오면 그대로 불어 버린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캐묻거나 알아보는 것이 큰 붉은 용에게 자백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체포되는 상황이 오면 본인도 어쩔 수가 없다. 결국 그는 자백하여 교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그가 함부로 상황을 캐묻거나 알아보는 것의 성질은 일상적인 대화나 잡담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행위로서, 나중에 유다가 되기 위한 조건을 예비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남의 정보를 함부로 팔아넘기는 자의 문제를 진리 교제나 경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 부류는 양심과 이성이 없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인은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방법은 단 하나, 제명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그가 저지른 일은 형제자매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까지 교란하였으니, 그런 행위는 형제자매나 교회를 배신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부류는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이 부류는 적그리스도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악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충분하므로 제명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으며 여기저기에서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의 상황을 캐묻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진리는 별로 깨닫지 못했지만, 리더 일꾼과 형제자매들의 가정 상황은 적잖이 파악하고 있다. 어떤 형제자매 이야기를 하든 그들의 상황을 말할 수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는 리더 일꾼도 아니면서 교회 내부의 일, 예를 들어 교회의 행정 사역이나 각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외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항상 캐묻고 다닌다. 또 누가 어디에 가서 본분을 이행하는지, 언제 떠났는지, 누가 발탁되었는지, 누가 교체되었는지, 교회의 어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늘 캐물으며, 이런 일을 알아낸 후에는 도처에 떠벌리고 다닌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런 정보를 알아낸 후 기록까지 해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자신의 일을 기록할 때는 암호나 코드를 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방식을 전혀 쓰지 않고 형제자매의 이름, 생김새, 나이, 전화번호 등 실제 정보를 그대로 적어 둔다. 이는 팔아넘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며, 팔아넘기려고 작정한 것이다. 일단 일이 터져서 그가 기록한 정보들이 경찰에게 압수되면, 정보를 본 경찰이 고문도 하지 않고 협박하거나 위협했을 뿐인데 그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실토해 버린다. 잊어버린 일이 있으면 머리를 쥐어짜면서까지 생각하고, 생각나는 즉시 경찰에게 자백한다. 심지어 경찰을 대동해서

형제자매나 리더 일꾼의 집, 그리고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집까지 찾아가 사람들을 잡아가게 한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가 무척 가증스럽지 않으냐? (가증스럽습니다.) 배신하기 전 그의 행동 모습을 보면 악인 같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닌, 그저 패괴된 보통 인류의 모습 같다. 하지만 체포되면 어떤 형제자매든 쉽게 팔아넘기니, 이런 모습만으로도 악인과 적그리스도보다 더 가증스럽다. 그는 잔혹한 고문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육적으로 연약해지고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아는 정보를 모조리 얘기해 버린다. 형제자매의 안위는 물론 교회 사역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너무나 가증스럽다! 이것이 유다 부류의 한 가지 모습이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걸핏하면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려 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질병, 절도 같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자매들이 사랑이 없어 자기를 도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팔아넘기려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제멋대로 굴다가 책망과 훈계를 받고 형제자매들도 자기를 멀리하면, 하나님 집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 "당신들은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것 아닙니까? 다들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들을 고발하겠어요!" 이것이 이 부류의 가장 '전형적인' 말이다. 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들을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전형적'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 그의 인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는 불만스러운 일을 많이 만났거나 깊은 원한이 쌓여서 분풀이처럼 내뱉은 말도 아니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화가 나서 한 말도 아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말이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두어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는 말이니, 이 말이 곧 그의 인성을 보여 준다. 이렇듯 인성이 악랄하기에 누가 자신을 건드리거나 상처를 주면 그는 언제든 상대를 팔아넘길 수 있다. 본분을 이행하다가 사역지침이나 원칙을 어겼을 때, 리더 일꾼이나 형제자매들이 몇 마디 책망하면 그는 듣기 싫어하며 화를 내고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을 고발하겠어요! 저는 당신 집이 어디인지, 당신 성이 뭐고 이름이 뭔지 다 압니다!" 이런 부류는 달래 주지 않으면 정말로 배신할 수 있다. 이는 겁주는 것도, 일시적으로 홧김에 하는 말도 아니다. 누가 정말 그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그를 화나게 하면 그는 정말로 그 사람을 팔아넘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를 두려워하죠?"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에 있다면 그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는 그가 정말 배신할 경우, 형제자매들에게 위험이 생기고, 교회 사역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잡혀가기라도 한다면 큰 붉은 용이 일을 크게 만들 것이고, 그 일을 빌미로 끝도 없이 사람들을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교회 생활과 정상적인 본분 이행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 결과가 심각하지 않으냐? 이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류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늘 심통을 부린다. 누가 한마디 해서 심기를 거스르거나 자신의 문제를 폭로해서 화가 나게 하면, 사람들과 틀어지고, 심지어는 3, 5 일 동안 상대방과 말도 하지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라고 해도 무시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 이는 악인이 아니겠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종종 들린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집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당신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 리더 일꾼이 어디에 사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위험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유다이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동적으로 팔아넘길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뛰쳐나와 유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되도록 빨리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이런 부류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은 자주 만나니 예배 때 굳이 인사말을 나누지 않고 시간이 되면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한다. 그런데 심통을 부리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보고 신경도 쓰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서 불쑥 말한다. "당신들,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흥! 다들 나를 환영하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제가 손 좀 봐 드리죠. 교회 리더 집이 어디인지, 당신들 각자가 어디에서 본분을 이행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압니다. 누가 리더 일꾼을 섬기는지, 누가 제물을 보관하는지, 누가 서적을 인쇄하고 누가 서적 운반을 담당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당신들을 고발할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경찰에 알리겠어요!" 사람들이 공손하게 대하면 괜찮지만, 누가 자기를 건드리거나 화나게 하면 야단이 난다. 그는 보복하고 배신하려 한다. 그는 불쾌한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험한 말로 형제자매나 교회 리더를 협박한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가 두렵거나 위험하지 않겠느냐? (위험합니다.) 이런 부류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유다이고, 위험인물이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이 부류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예를 들어, 큰 붉은 용 나라의 각 성(省)과 시(市)에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각 교회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리더인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등의 일은 특히나 비밀로 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까지 경계하여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교회에 후환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꿍꿍이를 품은 위험인물들은 늘 이런 일들을 캐묻고 싶어 하며, 형제자매들이 말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왜 당신들은 이런 일을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지? 왜 나한테는 말해 주지 않는 거야? 나를 외부인 취급하는 거 아냐? 나를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는 거 아니냐고. 좋아, 당신들을 고발하겠어!' 보아라,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교회나 형제자매들을 고발할 수 있다. 아무도 그에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교회를 고발하려는 마음을 먹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책이 형제자매들 손에 전달되면, 모두 서둘러 그 책에 하나님 말씀이 몇 편이나 있는지, 총 몇 페이지인지, 인쇄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 책을 손에 든 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한다. 하지만 유다 부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책은 어디에서 인쇄한 거지? 한 권 찍는 데 얼마나 들었을까? 누가 인쇄를 담당하지? 인쇄 후에는 누가 운송을 책임지나?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운반된 거야? 이 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지? 누가 책임지고 보관할까?' 이런 것들은 민감한 화제이므로 보통 이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은 캐묻지 않는다. 하지만 배신할 수 있는 이 위험인물들은 이런 일들을 캐물으려 한다. 늘 이런 일들을 캐묻는 그에게 말해 주는 게 좋겠느냐, 말해 주지 않는 게 좋겠느냐? (말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해 주면 외부에 알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해 주지 않아도 그는 불평할 것이다. "왜 저한테는 그런 일을 알려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집도 공평하지 않군요! 저도 하나님 집의 일원이니 어떤 일이든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저를 외부인 취급하는군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는 또다시 교회를 고발하려 한다. 이는 악인 아니겠느냐? 만약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형제자매들이 잡히면 목숨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는 형제자매들과 교회 사역에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되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 선민들의 생명 진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테면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소극적이 되고, 심지어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가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든 그는 늘 먼저 알려고 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알아야 기분이 좋아진다. 만약 한 가지 일이라도 알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고발하려 하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어떤 존재냐? 이런 자가 바로 마귀다! 마귀가 교회에서 항상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생활 여건이 좋은 한 형제자매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는 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 "헌금은 얼마나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랬는데요.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비밀이에요!"라고 하면 그는 "이런 일도 비밀입니까? 저조차 믿지 못하시는군요. 저를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네요!"라고 말한다. 또 그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흥, 당신만 헌금하는 줄 알아? 얼마나 헌금했는지도 알려 주지 않다니. 당신네 집이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를 화나게 했으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발해서 장사를 못 하게 만들어 주겠어! 한 푼도 헌금하지 못하게 해 주지!' 보아라, 그는 또 고발하려 한다. 그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알려 주지 않으면 교회나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려고 한다.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집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 주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배신자, 유다는 어느 집에서 외지 형제자매 몇 명을 섬겼다는 말을 들으면 이 일을 고발해야 한다고, 어쩌면 경찰이 포상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문 뒤에서 엿듣다가 화를 내며 말한다. "당신들은 나 몰래 교회 일을 의논하면서 나에게는 알려 주지 않는군요. 내가 배신할까 봐 경계하고 속이는 거겠죠. 나를 하나님 집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들을 고발하겠어요!" 보아라, 그는 또 고발하려 한다. 이런 사람은 골칫거리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형제자매들이나 교회의 어떤 상황이든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자신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에게 알려 주지 않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발하려 하고, 늘 고발로 형제자매나 교회 리더를 위협하며,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부류는 교회의 큰 잠재적 위험 요소이자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든 형제자매나 교회 사역에 해를 끼치고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제명해야지 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또 유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늘 하나님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이 헌금하는지 캐물으려 한다. 누가 "그런 일은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알아도 당신에게 좋을 게 없고요. 더구나 당신이 캐물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라고 하면, 그는

돌변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저를 경계하고 무시하는군요. 저를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고 외부인 취급한다고요. 저는 교회의 돈이 누구 집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니,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다. 경찰이 다 몰수하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는 무슨 일이든 팔아넘기고 고발하려고 하지만, 유독 교회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 악인이 나타나 교란할 때는 절대 고발하지 않는다. 또는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제물을 훔쳐 먹거나 차지하는 것을 보고도 이런 일들을 절대 들춰내거나 고발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에 보고하는 일도 없다. 그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형제자매 중 누가 그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미움을 사거나 그를 소홀히 대하면 바로 고발하려 든다. 또는 하나님 집의 어떤 사역지침이 그의 관념에 맞지 않아 난처해지거나 곤란해지면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을 고발하겠어! 당신이 교회 리더 자리에 앉지도, 교회 사역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교회를 망하게 하고 말겠다고!' 보아라, 그는 이런 일까지 고발하려고 한다. 어떤 교회에서 해외에 나가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몇 명을 선발했는데, 가정 여건과 개인적인 조건이 모두 부합했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도 맞았으며, 형제자매들도 다 동의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저한테는 오지 않는군요.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무개가 해외에 나가 본분을 이행하려 한다고 경찰에 알리겠어요. 당신이 출국도 못 하고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거나 정부의 감시를 받아 집에도 못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형제자매가 출국하지 못하면 그는 만족한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때때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보다 성질이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큰 골칫거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고발하고 형제자매를 팔아넘기려 하니, 이런 자는 마귀이다! 교회에서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조속히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지금 환경이 허락하지 않거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며 경계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위험인물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빨리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그가 교회를 팔아넘기는 짓을 저질러 화를 부르고 난 후에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화가 미치면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가 집을 잃을지, 심지어 체포되어 감옥에 갈지 알 수 없다. 또 많은 형제자매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리더 일꾼으로서 교회에 유다와 같은 부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형제자매들도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교회 리더 일꾼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네 자신의 안위에 관련된 일이니, '그는 아직 배신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별거 아니야. 그냥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화가 나도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욕이나 몇 마디 하거나, 약간 심통을 부리거나 혹은 이틀 정도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는 데 그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심과 이성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고 사람됨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성이 유다와 같은 이 부류는 다르다. 그들은 툭하면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빌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자들은 악마와 한패로, 사람됨의 마지노선이 없다. 그러니 교회 리더와 형제자매들은 툭하면 교회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 부류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막무가내인 자를 발견하면 즉시 리더 일꾼에게 보고한 다음 그를 관찰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 교회 리더는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 및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고 교회 생활, 교회 사역이 이 부류로 인해 망가지고 교란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는 말을 홧김에 하는 말로만 여기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사실 그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로는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어느 날 정말 고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단순히 홧김에 하는 말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그의 인성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으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가 툭하면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남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 단순히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와 같은 부류의 본성을 지녔으며, 사람됨의 마지노선이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됨의 마지노선이 없는 자는 뭐 하는 인간이겠느냐? 양심도 이성도 없는 인간이다. 양심이 없으면 어떤 악행도 저지를 수 있고, 이성이 없으면 일을 처리할 때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어리석은 짓도 저지를 수 있다. 어쩌면 교회를 고발한 후 형제자매들이 잡혀가고 교회 사역이 손실을 입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억지를 부리는 이런 자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일이 닥치면 또다시 고발할 수 있다. 이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는 바로 이런 본성 본질을 지니고 있다. 어떤 교회 리더는 그가 한 말은 홧김에 하는 말일 뿐, 그 사람의 본성은 나쁘지 않다고, 그것은 그의 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이 아니고 그의 인성을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설령 평소에 악랄한 인품이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늘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사소한 일로 기분이 언짢아지기만 해도 고발할 생각을 한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품이 악랄하고 저급하며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다. 이런 자는 양심과 이성이 없어서 제멋대로 처신하고, 자신의 이익과 기호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며, 양심의 최저선이 없다. 이런 자들은 봐주지 말고 제명 처리해야 한다. 이는 그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기에 형제자매나 교회를 고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가장 악독하고 치명적인 한 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고 있으며, 이것이 묘책이라고, 형제자매나 교회에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한 방이라고 생각한다. 말해 보아라, 이런 자는 악마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악마를 대하는데 무슨 예의를 차리겠느냐? 기어코 그가 큰 붉은 용에게 공개적으로 형제자매들과 섬김 가정을 밀고하는 것을 봐야만 그가 유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런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규정한다면 모든 것이 늦고 만다. 사실 그의 본성 본질은 일이 닥쳐 교회를 고발하겠다고 떠들 때 이미 폭로되었으니, 그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분별하고 제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다. 교회 리더든 형제자매든, 아무도 그가

형제자매를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다들 그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그에게 노여움과 미움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고발당했다면 형제자매들은 어쩔 수 없이 숨고 피해야 하며, 본분을 이행하던 사람들도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리석어서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며 형제자매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가 평소에 늘 형제자매를 고발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다. 수많은 진리를 듣고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바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언제든 유다가 될 수 있는 이 부류가 진리를 많이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짧아서, 혹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의 인품이 악랄하고 그의 뼛속에 악인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를 분별하고 규정한 뒤 악인으로 보아 제명하거나 출교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하면 형제자매들을 보호하는 한편 교회 사역이 해를 입지 않게 지킬 수 있다. 이는 교회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그러므로 이 부류를 제때 경계하고 감독해야 하며, 그다음으로는 형제자매들이 이 부류를 분별할 수 있게 교제해야 하고, 그의 음모가 실현되기 전에 그를 정리해 내보내어 형제자매들이나 교회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리더 일꾼이 이런 부류를 마주할 때 가져야 할 분별력이자 실행 및 처리 원칙이다. 이제 확실히 알겠느냐? (확실히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류를 대할 때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를 제명함으로 인해 교회에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잠재적 문제 하나를 처리하다가 더 많은 잠재적 문제를 만든다면, 그 교회 리더는 너무나 부적합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사역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는 것이다. 교회 리더로서 잠재적 문제 하나를 처리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없앨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도움을 주며, 동시에 형제자매들의 분별력도 키워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역할 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다.

리더 일꾼이 교회를 배신할 수 있는 이 부류를 접하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알지 못하며, 이런 일들에 대해 전혀 감이 없고, 이 부류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할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 또한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임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 부류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아서 제명도, 출교도 시키지 않고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낸다면, 이런 자는 어떤 리더 일꾼이겠느냐? (거짓 리더, 거짓 일꾼입니다.) 이런 자는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아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게도 누구든지 다 도와주고, 누구에게나 사랑과 인내로 대하며, 모두를 형제자매처럼 대하니,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자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교회에 유다와 같은 부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처리하거나 해결하지는 않고 눈감아 주고 못 본 척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 지위만 위협받지 않으면 돼. 교회 사역이나 형제자매들의 안전, 하나님 집의 이익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어쨌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위의 복만 누리니, 이런 자는 거짓 리더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이 부류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횡포를 부리며 늘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데도, 어떤 거짓 리더는 그것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는 누군가 고발하여 윗선 리더가 배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명 처리해도 그는 이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고발하고 싶으면 하라지. 어쨌든 나를 고발하지만 않고, 내 교회 리더 자리에 영향을 주지만 않으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한다. 이런 리더 일꾼은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위를 차지한 채 지위의 복만 누리고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이런 부류를 보고도 제명하거나 출교시키지 않으니, 이런 자는 거짓 리더에 속하므로 한시바삐 면직시켜야 한다. 어떤 거짓 리더는 면직된 후에도 불복하며 이렇게 말한다. "왜 저를 해임시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제명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제명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는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고발하지는 않았고 교회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리해서 뭐 합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지위의 복만 누리며, 교회에 이렇게 분명한 유다가 나타났는데도 처리하거나 제명하지 않는다. 일부 형제자매들이 늘 마음을 졸이며 "주변에 툭하면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유다가 있으니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쯤 이 사람을 제명할 수 있을까요?"라며 몇 번이나 보고해도 그 교회 리더는 해결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건 개인 간의 갈등이지, 교회 사역이나 형제자매들의 안위와는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처리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사역만 하느냐? 한편으로는 윗선 리더가 배정한 사역은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어떤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거나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마지못해 눈가림식으로 하고,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자는 거짓 리더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경이 닥치거나 체포당하는 상황이 오면 그는 제일 먼저 머리를 감싸쥐고 도망가며, 자신의 안전만 챙길 뿐 형제자매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사역도 하나님 집의 이익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부에서 그를 교체하지만 않는다면, 다음 선거 때 형제자매들이 또 그를 뽑아 줘서 리더가 될 수만 있다면 그는 마지못해 사역을 좀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한 일이 그에 대한 상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상부에서 그를 면직할 것 같다면, 혹은 그가 한 일과 그가 보여 준 모습이 형제자매들에게 나쁜 인상을 줘서 다음번에는 그를 뽑지 않을 것 같다면, 그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얼마간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면서 위로는 체면치레를 하고 아래로는 눈가림을 하겠지만, 유독 하나님에게는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한다. 윗선 리더가 그를 면직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를 옹호해 주면 그는 만족한다. 그는 교회 리더 자리에 있는 동안 큰 악을 행하지 않고, 겉으로도 늘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며, 특히 악인이 교회를 교란하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악인에게 미움을 사는 게 두려워서 가능한 한 달래고 타협하려고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유지하려 한다. 미움을 사는 것이 싫어서 상대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형제자매들의 안위를 위협해도 상관하지 않으니, 이는 명실상부한 거짓 리더이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에게 형제자매들이 누차 일깨워 주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며 잘못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일을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윗선의 리더 일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이 거짓 리더를 파면시켜야 한다. 나는 수년에 걸쳐 이 말을 해 왔지만, 아래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처럼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미움을 사지는 않으려 한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중용의 길을 걷고 무골호인 행세를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 한다. 남에게 미움을 사지 않는 대가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을 보고 형제자매들이 교란당하게 하는 것이다. 악인이 처리되지 않아 본분을 이행하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 집의 사역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의 사역이 영향을 받아도 아무도 조급해하거나 애태우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집의 사역과 이익을 희생시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지키면서 리더에게도, 형제자매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 하며 무골호인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두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쨌든 시도 때도 없이 볼 사람들이잖아.'라는 식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악인들이 허점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횡포를 부리고 제멋대로 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악인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들은 방법을 강구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한편, 악인을 보면 모두 피하고 멀리하고 고립시켜야 한다. 혹자는 "저희가 그를 고립시키면, 그는 또 화가 나서 고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가 정말 고발할까 봐 두려우냐?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또 고발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가 타고난 유다이고 악마임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니,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만약 리더 일꾼이 눈이 멀어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바보, 폐물이라면, 혹은 일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면서 조금도 남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 하고 지위의 복만 누리면서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들은 그에게 기대하지 말고 원칙대로 연합하여 악인을 처리하고 유다를 처단해야 한다. 아니면 예배 장소를 바꾸거나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를 정리하여 내보내야지, 그에게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교회의 여러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자질도 충분하며 인성도 좋다면, 사역지침대로 사역하기만 해도 모두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신경 쓰지도, 그에게 의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교체해야 할 사람은 교체하고 재선출해야 할 사람은 재선출해야 한다. 그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 환경도 지키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의 안위도 신경 쓰지 않으니, 그 교회 리더는 기준에 맞지 않고 부적합하며, 바로 인간 쓰레기이자 장식품에 불과하다. 형제자매들은 그의 말을 들어서도, 그에게 속박되어서도 안 된다. 유다와 같은 부류를 즉시 정리하지 못하는 리더 일꾼은 모두 거짓 리더, 거짓 일꾼이니, 이런 거짓 리더와 거짓 일꾼은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들 모두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교회도 더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제 8 조,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제를 마치겠다.

9)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제 9 조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부류는 특수한 상황이 닥치거나, 일반인이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선 큰 재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작은 일 하나로도 떠날 수 있고, 작은 일 하나로도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며 하나님 집을 떠나려 하니, 이 부류 또한 큰 골칫거리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같은 부류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집을 떠날 수 있으니 형제자매들을 팔아넘길지 그러지 않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너희가 볼 때 이런 부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자가 처신하는 데 원칙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 토대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는 어떤 자겠느냐? (불신파입니다.) 그는 장난처럼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다. 백수가 간장을 사러 나갔다가 서커스나 거리 공연이 흥겹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는 구경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정작 간장을 사 오는 것은 깜빡하고, 결국 해야 할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부류는 무슨 일을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수시로 마음이 변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흥미 위주여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언제 흥미를 잃으면 미련 없이 바로 떠날지 모른다. 어떤 자는 바로 장사하러 가고, 어떤 자는 관직을 추구하며, 어떤 자는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어떤 자는 당장 큰돈을 벌겠다고 도박장으로 향한다. 사흘만 안 보여도 딴사람이 된다더니 하나님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부류는 잠깐 못 본 사이에 전혀 딴사람이 되어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정하고 점잖게 차려입고 예의바르고 사람답게 보였으며,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청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구호를 거창하게 외치던 사람이 바로 도박장으로 향한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즐거워하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얼굴이 빛나고 열정이 끓어올라 감동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도박장에 간다는 말이냐? 그는 도박장에서 한밤중까지 놀았는데도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으며, 더없이 신나고 열정적으로 즐긴다. 어제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도박장에 간다니 도대체 어떤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겠느냐? (후자가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부류가 어떤 존재인지 도무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전후 두 가지 모습이 사실은 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인데 어째서 두 사람처럼 보이겠느냐? 일반 사람들은 이런 자를 간파하지 못한다. 네가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도 자주 참석하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고생을 잘 견디고 대가도 치르며, 컴퓨터 앞에 앉아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마음을 기울여 일한다. 네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마작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잠깐 못 본 사이에 그는 마작장이나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다. 마작을 얼마나 잘하는지 선수가 따로 없는데, 이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겠느냐! 너는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작이나 하는 이방인인지, 그의 역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재미 삼아 시간 때우러 온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지켜보다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는 평생 믿을 생각도 없었고, 평생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따를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이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노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일을 안 해도 되며,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한다면 흥미를 잃고 언짢아하다가 싫증이 나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달아날 것이다. 그는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 자기 운명은 자기가 주관하고, 몸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매일 즐겁게 산다는 보장이 있어야 멋진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지식하게 굴면 안 돼. 나를 봐봐. 얼마나 생각이 열려 있냐고. 즐거운 곳이면 가고 즐겁지 않으면 떠나면 되지 왜 사서 마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처신하는 최고 신조야.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데!'라고 생각한다. 이 부류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겠느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마오. 내 고향은 머나먼 곳이라오."이다. 또 어떤 노래가 있겠느냐? "한 번 멋지게 살아 보자."라는 노래가 있다. 그들은 따분하고 재미가 없으면 "천하 어디든 꽃이 피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며 서둘러 떠나 버린다. 또 어떤 명언이 있겠느냐?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숲 전체를 포기하랴."라는 말이 있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파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파 부류의 문제는 다 인성의 문제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이 부류의 인성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너희가 볼 때 이런 부류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류의 인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 부류는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다. 이 밖에, 정확히 말해 이 부류는 영혼이 없는 산송장이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생각할 줄도 모른다.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류가 겉모습은 사람일지 몰라도 사실 그 본질은 산송장이고 빈껍데기이기 때문이다. 인생사와 생존의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되는대로 살자는 것이다. '되는대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밥만 축내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 기술 없이 온종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즐거운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즐겁고 육이 편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하지만 몸이 고생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은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즉, 그는 자기 몸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통을 통해 인생을 체험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인생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수확을 얻으며, 마지막에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종합해 낸다. 그들은 인생의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데, 한편으로는 일부 사람들을 간파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해야 하는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합하게 된다. 그가 최종적으로 종합한 것이 진리와 부합하든 상반되든, 어쨌든 그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며 본분을 이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늘 자신의 정욕과 기호를 충족할 기회만 찾으며, 본분 이행 과정에서 한 가지 업무를 착실히 배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저 이방인처럼 매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어디를 가든 즐거움과 재미만 찾는데,

이는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한 가지 본분을 계속 이행한다면 흥미를 잃고 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되는대로 살자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멋지고 대범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지도 않으며, 매일 즐겁고 태평하게 지내면서 어디를 가든 잘 적응하는 것 같다. 또 어떤 이는 세속이나 인정, 세상사에 영향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속되지 않고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본질은 산송장이요, 영혼이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부류는 무슨 일을 하든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 끓어올랐다가 바로 식어 버린다. 반면,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진지하게 배우고 잘 해내려고 노력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동시에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폐인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는 정상 인성의 양심과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되는대로 사는 이 부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어디를 가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할 뿐이다. 겉보기에는 아주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슨 일을 하든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건성건성 처리하며 한순간 끓어올랐다가 바로 식어 버린다.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평생 되는대로 살면서 어디를 가든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한동안 꽤 진지하게 본분을 이행하고 고생하며 대가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누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도 신경 쓰는 법이 없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즐겁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만약 즐겁지 않으면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고 놀러 갈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차피 하나님을 오래 믿을 생각도 없었어.'라고 생각하며, 누가 책망하면 바로 떠나 버린다. 이것이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이다.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부류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어 왔든, 표면적으로 토대가 있어 보이든 그렇지 않든, 한때 어떤 본분을 이행했든 상관없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특수 상황이 닥치면 자취를 감춘다. 언제든 연락이 끊길 수 있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도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이성에게 홀리면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연애를 하러 가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자녀의 결혼 준비로 바빠서 본분도 이행하지 않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누가 찾아가도 문전박대한다. 이 밖에도 부모나 배우자가 병으로 입원하거나 무슨 큰일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경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 며칠 집에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본분은 여러분이 얼른 적당한 사람을 찾아 대신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적어도 상황을 알리고 설명하겠지만,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부류는 아무 말도 없이 교회와 연락을 끊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닿지 않는다. 그는 연락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기에 형제자매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제가 왜 당신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본분 이행은 자원해서 하는 거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저희 집안일은 제 사생활입니다. 당신에게 알릴 의무도 없고 당신이 알 권리도 없어요!"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한두 달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민망한 기색도 없다. 또 어떤 이는 한 번 떠나면 2, 3 년이고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상황을 모르는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래 믿은 그가 교회를 떠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중국 공산당에 잡혀갔을까 봐 걱정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형제자매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열흘 정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그래도 이것은 믿음을 저버렸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한번 떠나면 2, 3 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믿음을 저버린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니 제명해야 한다. 이는 평범한 이탈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 하지만 당사자는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라고 생각한다. 보아라, 그는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이 밖에도 어떤 이는 그저 기분이 좋지 않고 언짢아서, 본분 이행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혹은 책망과 훈계를 받아서 예배에도 오지 않고 본분도 이행하지 않고, 하던 일을 인수인계하지도 않은 채 떠나며 이런 말까지 한다. "아무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게 한참을 가다니, 참으로 대단한 성격이구나. 한참 동안 기분을 풀지 못하다니 말이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리더 일꾼 사역을 맡았는데, 일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악행을 저질러 교회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초래했다.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그를 선출하지 않고, 교제하면서 그를 분별하고 폭로했다. 그러자 그는 '지금 나를 대놓고 비판하는 거야? 사역을 잘 하지 못한 것뿐이잖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폭로하는 거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언제 이런 수모를 당해 봤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남을 훈계하기만 했어. 나를 훈계할 주제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내가 언제 이런 고생을 해 봤지? 당신들은 다 나를 괴롭히고 난처하게 하는데, 이젠 그만 믿겠어!'라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정말로 믿지 않는다. 젊은이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8~10 년 믿은 40~50 대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있겠느냐? 책망 훈계를 받거나 재난, 좌절을 마주할 때 다소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정도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런 자는 전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체포되고 박해받아도 꿋꿋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자야말로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는 천재지변을 만났는데 형제자매들이 몰라서, 혹은 늦게 알아서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다들 날 모른 척하는구나. 이건 날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구나. 이제 그만 믿자!' 이렇게 작은 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부류의 한 가지 모습이다.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부류에게는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를 회유하려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며, "하나님을 믿어 봤자 돈 한 푼 못 버는데 무슨 출세를

하겠나? 우리가 자네를 위해 외국계 회사를 하나 찾아 놓았다네. 월급도 높고, 복지도 좋고, 산재보험도 있지. 하나님을 믿어 봤자 앞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직장 다니면서 돈이나 벌고 좋은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면,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나 직장을 다닌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어제까지도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던 사람이 오늘은 왜 가방 싸서 가 버린 거지?"라고 말한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믿음을 저버린 채 인사도 없이 가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형제자매들과는 더 이상 왕래가 없는 남남이 된다. 그는 명예와 이익을 좇아 출세하려 하며, 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는데, 둘이 사귀게 되자 함께 살림을 차리러 가 버렸다. 본분 이행은 고사하고 하나님까지 믿지 않게 된 것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채 그가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지 오래고 어쩌면 자식까지 낳았을지도 모른다. 보아라,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특히 복음 전도라는 이렇게 핵심적인 사역까지 그는 내팽개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상대나 자신을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면 몇 마디 꼬시는 말에 넘어가 따라가 버린다. 이렇게 경박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수 있다. 그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든 진리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본분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면 훌쩍 떠나고, 천재지변을 만나면 믿지 않겠다며 바로 믿음을 저버린다. 무슨 일이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그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본분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한 부류는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흐리멍덩한 자들로, 하나님을 수년간 믿었음에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불신파로, 하나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신학을 공부하거나 업무 지식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이해하고 말할 줄 알면 그만이고 실행에 옮기는 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그저 하나의 이론이자 구호일 뿐,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를테면 본분을 이행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등 모든 방면에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즐겁고 신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늘 유익하고 수확이 있다고 느낀다. 때로는 위험과 핍박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는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생하고 대가를 치름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결실을 얻으며, 생명 성품이 변화하게 된다고 느낀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가늠한 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어 교회에 무척 미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어떤 이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여 B조로 보내지거나 혹은 교회에서 격리되거나 제명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본분을 잘 이행해야지. 절대로 제명되어서는 안 돼. 제명되는 것은 징벌받는 것과 같고, 그 결말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면 더는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괴로움도 고통도 없다. 말해 보아라,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그들에게 더는 본분을 맡기지 않고 일반 교회로 보내 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다음 날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어떤 이는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어떤 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며, 어떤 이는 대학에 진학하고, 또 어떤 이는 옛 친구들과 연락하며 인맥으로 돈 벌 기회를 찾는다. 이들은 곧장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가 아득한 인파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빠르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본분 이행 성과가 좋지 않아 일반 교회로 보내진 후 한동안 괴로워하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며 어느 정도 돌이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음 날이면 교회를 떠나 이방인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서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좋아? 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잘못하면 잡혀가서 감옥살이까지 해야 하는데. 큰 붉은 용에게 맞아 죽기라도 하면 인생 헛산 것 아니겠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도 꽤 했는데 뭘 얻었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벌써 공직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후회스러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진리를 깨닫는 게 무슨 소용이야?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보아라, 그는 후회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는 불신파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시종일관 건성으로 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교회에서 제명된 후 형제자매를 마주치면 마치 원수처럼 대한다. 형제자매가 호의로 말을 걸어도 상대하지 않고 도리어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교회에서 제명했죠. 하지만 내가 지금 어때 보입니까? 당신들보다 낫지 않나요? 나는 지금 금은보화를 두르고 있고, 높은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느라 얼마나 초라하고 고생스럽습니까! 당신들은 늘 진리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얻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당신들이 나를 제명해 준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통해 그가 불신파임을 알 수 있다. 본분 이행이 그를 드러낸 것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기꺼이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본분 이행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임금을 받거나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것이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신파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불신파를 드러내어 도태시켰다.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시종일관

건성으로 대하며, 그저 하루하루 되는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출세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교회를 떠나려 한다. 그는 바로 이런 속셈을 품고 있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줄곧 건성으로 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일반 교회로 보내지더라도 반성하기는커녕 '나를 풀타임 본분 교회에서 정리해 내보낸 것은 당신들 손해야. 하지만 나한테는 이득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득의양양해할 것이다. 이는 불신파가 아니겠느냐? 말해 보아라, 이 불신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교회 사역에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초래한 탓에 정리되어 나간다면,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원칙에 부합합니다.)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며, 그들에게는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언제든 포기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태도로 하나님과 본분 이행을 대하는데, 이는 그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을 십분 증명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 선민들의 체험 간증 중 어느 하나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고, 어느 하나도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어느 하나도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들이 미련을 갖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성 본질로, 이 인성 본질은 긍정적인 사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겠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육적 즐거움, 사악한 흐름, 사탄의 철학에 관심이 있고, 사회의 모든 부정적인 사물에 특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유독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없기에 언제든 하나님 집을 떠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집 예배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진리를 교제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특히 본분 이행에 대해서는 더욱 반감을 가지며, 심지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인성이겠느냐? 그는 진리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 생활에 전혀 미련이 없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이나 설교를 들었음에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으니, 이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사물이나 부정적인 사물 모두에 반감을 갖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물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반면 부정적인 사물에 큰 관심을 보인다면, 분명 긍정적인 사물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 부류는 긍정적인 사물에 전혀 관심이 없기에 하나님 집에는 그가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나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이 없다. 세상의 사악한 흐름, 돈, 명리, 직위, 재산, 그리고 유행하는 각종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논리야말로 그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이다. 마음이 하나님 집이 아닌 세상에 있기에, 그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하나님 집과 교회 생활을 떠나도 그는 뉘우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매일같이 설교와 진리 교제를 들을 필요가 없어졌어. 더는 그런 것들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당당히 명리와 돈을 좇고 예쁜 여자와 앞날을 추구해도 돼. 드디어 마음 놓고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며, 음모를 꾸미고, 온갖 술수를 부리며, 갖은 사악한 수법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게 된 거라고!' 하나님 집에서 설교를 듣고 진리를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기에, 하나님 집을 떠나자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그의 마음이 이런 긍정적인 사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세상과 사회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은 그의 추구나 기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들의 본성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불신파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 대부분은 짐승이 환생한,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멍청이들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신앙에 관한 일은 모른다.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의미 있는지, 처신할 때는 어떤 실행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등등을 하나도 알지 못하며, 진리를 구해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무엇만 추구하려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남들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지와 같은 일들만 온종일 고민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주임이나 과장으로 승진하거나 사장이 되면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이 찾아가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제 명망과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 저에게서 좀 떨어지십시오.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제명해도 좋고 출교시켜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던 과거는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보아라, 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다시 그를 찾아가겠느냐?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일부 교회 리더는 그가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차례 찾아가 권한다. "당신은 자질이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리더 일꾼이기도 했고요. 다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서 교체된 거죠.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분명 하나님 집에서 대들보나 기둥이 될 거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 반감을 갖는다.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일부 교회 리더는 상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며 부러워하고 빌붙기까지 하는데, 이는 천박한 짓 아니겠느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며, 바른길을 걷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조금만 지위가 생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는 마침 그를 드러낸 것으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앞길이 훤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교회가 그를 찾아가서 설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불신파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자신이다. 그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 것이다. 목숨이 비천한 그를 억지로 끌고 와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그를 끌고 당길수록 그는 너를 더 무시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사회적 지위가 낮고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특히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누구든 업신여기고, 누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면 아첨한다고 여긴다. 이는 어떤 마음가짐이냐? 형제자매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쳐야 한다. 그가 "저는 이제 고위 관리자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시 찾아오면 아예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특히 제 회사에 와서 제 체면을 구기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이런 말을 내뱉는다면 너희는 바로 떠나야 하며, 그를 제명한 뒤 다시는 이런 자와 왕래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우리가 자기 덕을 볼까 봐 걱정하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는 출세하여 높은 곳에 오르려 하니,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서민이고 사회 하층민이니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고, 천박한 짓을 하지 말자!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자녀가 도시에 호화 저택을 사자 거기 살게 된 후 형제자매들과 연을 끊어 버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저도 시골에서 왔다고, 저한테 시골 친척이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애는 재력가이고 부자예요. 사회 유명 인사라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저에게 연락하면 제 아들 체면이 깎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 된다. 이때 한 마디라도 더 하면 어리석고 천박해 보이니, 서둘러 떠나는 게 맞다. 불신파는 절대 억지로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겠느냐? 그는 "그 사람 아들은 부자이고 재력가인 데다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고위 공직자들과도 친분을 맺었습니다. 만약 그를 설득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섬김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라고 한다. 이 생각은 어떠냐?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을 생각한다면, 또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합당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형제자매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하는데도 계속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 아니겠느냐? 천박한 짓은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 어떤 환경에서 살든 다 하나님의 주재이자 안배이고 어떤 고난을 겪든 우리는 존엄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집을 떠난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이 옳으냐?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봐야겠느냐? 그 사람은 큰 집에 살게 되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사회에서 지위와 신분이 생기니 마음속으로 형제자매들을 업신여기고 자신과 접촉하고 왕래할 자격이 없는 사회 하층민으로 여겼다. 그러니 우리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남에게 빌붙거나 알랑거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불신파든 불량배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든 재난을 피하려고 믿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집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면, 떠난 뒤에는 형제자매가 찾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형제자매가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것에는 더욱 반감을 가지며, 진리를 교제해 주는 사람을 적대시한다면 이런 사람은 더더욱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불신파를 발견하면 즉시 폭로하고 제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데다가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으니 마음속으로 자신이 믿는 분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열심히 힘쓰고자 한다. 그가 정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계속 본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기꺼이 힘쓰려 하고, 교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면 계속 힘쓰게 해도 된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더 이상 힘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집을 떠나려 하며,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더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여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끔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했다고 책망받기도 하죠. 여기는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저는 떠나겠어요."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을 붙잡아야겠느냐?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한 마디만 물어보아라. "잘 생각해

본 것 맞나요?" 그가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부디 건강하시고,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속세를 초월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을 증오하는 자로, "옷소매를 흔들며, 구름 한 점 가져가지 않으리."와 같은 명인들의 시구를 늘 외우고 다니는 부류다. 그는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 순결하며,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위안을 찾으려 한다. 또 그는 늘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 살아갈 뿐 아무런 생각도, 추구하는 바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치 아무도 자기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사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사상적 경지가 보통 사람보다 높다고 자부한다. 그는 "당신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달라.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주 먼 곳에 있다고 할 거야."라고 말한다. 그가 자기 고향이 어디인지 말해 주더냐? 너는 '먼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부류다. 그는 어디를 가도 자기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여기며, 늘 공허하고 헛된 것들만 생각하고, 현실적인 것은 중시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 별종이다. 이 부류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마음먹고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말한다면, 붙잡을 필요 없다. 한마디도 더 하지 말고 제명하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는 사람을 대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교회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부류에 대한 교제를 마치겠다.

10) 흔들린다

열번 째는 흔들리는 것이다. 흔들리는 부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이 부류의 가장 큰 의혹은 이런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영계와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진리일까? 이분이 성육신이라는데 난 어디가 성육신 같다는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시는 걸까?'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항상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같아. 아마도 존재하시겠지. 나는 그분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도 손해 볼 건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잖아. 본분을 이행하면 복을 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는 데다가 앞으로 죽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믿어 보자.'라고 생각한다. 한동안 믿다가 어떤 사람들이 시련과 화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어 박해받다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다가 병들거나 집안에 재앙이 닥쳤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켜 주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 마음이 선한 사람이 그에게 진리를 교제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다.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화를 당했는데도 좋다고요? 큰 병, 불치병에 걸렸는데도 좋다고요? 그러다가 죽으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긴 하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늘 의혹을 품는다. 그는 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집 사역이 점점 확장되며, 교회가 날로 번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나타낸 이적과 기사,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 더더욱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체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셔!' 교회가 번영하고 발전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될 때, 특히 형제자매들이 특수한 환경과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주재, 인도를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 후 어쩌면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하나님 집에서 일부분 사람을 도태시키면 그런 일이 그의 관념에 맞지 않고 예상 밖이라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정상이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병과 능력을 갖고 계시니 이런 일을 해결하셔야 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긴 하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어. 사람들은 성육신이 하신 말씀을 진리이자 길이라고 하고, 사람의 생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난 왜 진리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생명은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얻은 게 뭐지?'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본분을 이행할 열정도 식어 예전만 못하게 되면 하나님 집을 떠나서 일하며 돈을 벌어 호의호식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는 '만약 내가 믿는 분이 참하나님이 아니라면, 지난 몇 년간 하나님만 믿으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었으니 얼마나 큰 손해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열심히 믿어야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고 연약해지지 않는다던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게다가 왜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거지? 왜 늘 본분 이행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걸까? 하나님도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돌파구를 열어 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만약 참도(道)라면 하나님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순탄하고 정상적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셔야 해.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이렇게 큰 걸까? 지금의 종교계가 낙후되었다는 사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도 아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왜 볼 수 없는 걸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진리를 교제해 줘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오직 관념과 상상으로만 일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참도라면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형제자매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 막힘없이 순조로워야 해. 특히 정부의 공직자들도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허가해야 하고. 그게 바로 참하나님의 행사지.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것을 지지해 주지도 않아. 어떤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로막기까지 하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하나님일까? 모르겠어. 확신할 수 없다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큰 물음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어떤 소식을 듣든 크고 작은 '지진'을 겪듯 흔들린다. 혹자는 "그가 계속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3 년, 5 년, 심지어 10 년 이상 믿었다. 이것을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은혜시대 단계의 사역을 3~5 년 믿었다면 오래 믿었다고 할 수 없다. 말세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단지 성경과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지식과 영적 이론을 조금 이해했을 뿐이니 얻은 것이 너무 적다. 하지만 이 단계의 사역을 받아들였다면 다르다.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따른 지 3 년이면, 사람이 체험하고 인식하며 얻은 것은 은혜시대에 주를 20 년, 30 년, 심지어 평생 믿으며 얻은 수확보다 더 많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부류는 3 년, 5 년, 심지어 10 년 이상 믿고도 이 단계 사역이 하나님이 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한다. 이런 사람은 골칫거리가 아니겠느냐? 그에게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정상 인성의 사유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교회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흔들리고, 그의 마음속 물음표는 늘 '지진'을 일으킨다.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란하여 일부 사람들이 미혹되어 떠나거나, 자신이 숭배하는 사람이 상상도 못 한 일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제물을 훔쳐 먹거나 음란한 짓을 해서 제명되었을 때 그는 마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건 하나님 사역의 흐름 아니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악인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냐고. 이게 과연 참도일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관념에 맞지 않으면 의심한다. 그것이 참도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할 뿐, 진리를 구해 이 일을 올바르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계 사역이 하나님이 한 것임을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십분 증명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이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확신하는데도,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바라보지는 않고 늘 사람의 시선과 사유로 판단하니,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다.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에서 어떤 허점이나 편차가 생기거나 교회가 정부의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 그는 또 '정말 참도가 맞을까?'라며 의심한다. 교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리더가 나타나도 그는 의심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종교계의 목사와 장로들을 봐. 그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 교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도 없잖아. 그런 것이야말로 참도야. 이것이 참도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보십시오. 삼자교회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국가에서 증서도 발급해 주고 교회를 지으라고 땅도 빌려줍니다.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죠. 당신들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등록되어 있나요?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목사도 파견하고 목사한테 자격증도 주는데, 당신들의 리더 일꾼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가는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당신들을 체포하고 박해합니다. 당신들은 지정된 예배 장소조차 없이 늘 몰래 예배를 드리고요. 이게 정말 참도가 맞습니까? 참도라면 왜 항상 몰래 예배드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겁니까?"라고 한다. 이런 일조차 꿰뚫어 보지 못한 채 무슨 일이든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이런 사람이 굳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를 줄곧 확신하지 못하고 늘 반신반의하니 진실한 믿음이 있을 리 없다. 그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있었던 그 많은 박해와 탄압, 체포에 하나님의 주재와 지배, 안배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관념을 갖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는지 의심하며, 늘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불신파 아니겠느냐? 이 부류가 하나님을 믿은 지 반년이나 1 년밖에 되지 않아 여러 측면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을 보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라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은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음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주었더니 당시에는 도리적으로 알아들었음에도, 얼마 후에 일이 닥치면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한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정상 인성의 사유도 없으며 사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이다.

흔들리는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그들은 인성을 논하자면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골치 아픈 부류이다.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도 없고, 정상 인성의 사유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 말씀들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선포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 능력으로 보아 그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불신파라고 해도 맞고, 바보라고 해도 맞다. 이 부류는 딱히 눈에 띄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정도로 멍청하고 이렇게 많은 방해와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시종일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와 주재도 확신하지 못하니, 이는 어떤 자질이겠느냐? 이 부류는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전혀 없으니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며, 아예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머리가 없는 폐인이다. 폐인이 어떤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어떤 본분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못할뿐더러 항상 의심하고 흔들린다. 그럼 이 부류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겠느냐? 이 부류를 처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어떤 본분도 맡기지 않는 것이다. 그가 본분을 이행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이 부류는 일단 본분을 이행하면, 특히 고생하고 대가를 좀 치르면 조만간 하나님 집에 계산서를 들이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체포되거나 자연재해, 인재(人災)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후회하며 불평을 터뜨리고,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퍼뜨릴 것이다. "저는 교회 사역과 본분 이행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죠.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벌어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험 감수를 돈으로 따지면 시간당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하나님 집에 금전적인 계산서를 들이밀 것이고, 하나님 집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본분을 맡기면 후환이 끝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소인배와 엮이면 영원히 지저분하게 얽힐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속에 장부가 있어서 모든 내역을 낱낱이 기록해 둔다. 그는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든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기껍지 않으니 계산하려 드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겠느냐?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 ‘하나님’을 위해 얼마간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인력과 물력을 들였다면 그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흡족해하겠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가 달가워하겠느냐? 언젠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도태되는 것이 확정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과 리더 일꾼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자기는 까맣게 속아 넘어갔고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하며 끝도 없이 하나님 집에 소송을 걸고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 집이 이런 사람과 얽히고 싶겠느냐? 하나님 집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피조물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모두 스스로 선택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은 결코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불신파가 본분을 이행하면 조만간 문제가 생긴다. 그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분명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저를 속였군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교회 내부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거나 악인이 있어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교회가 사람을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수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들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너에게 덮어씌우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당신들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세상에서의 앞날도 사라져 버렸죠. 당신들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지 못했으니, 이 손해를 보상하세요!” 그가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들면 역겹지 않겠느냐? 그와 얽히고 싶으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누가 이 사실을 그의 머리에 억지로 주입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기에, 진리를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곤란하고 난처하며 비현실적인 일이다. 그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조금만 본분을 이행해도 보상을 요구한다. 만약 거기에 응해 주지 않으면 그는 “사기당했군! 당신들은 모두 사기꾼이야!”라며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오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아니요.) 누가 너를 속였느냐? 너 스스로 야심과 욕망을 품고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너 자신의 문제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으려 하는구나. 복받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런 일들은 그가 본분을 이행하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에게 이치를 따져 본들 통하겠느냐? 통하지 않는다. 그는 네가 자기를 속였다고 할 것이다. 말해 보아라, 하나님 집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모두 자발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더냐?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를 그 부모나 친척이 억지로 끌고 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사례이다. 설령 부모가 억지로 데려왔다고 할지라도 다 너를 위한 것이니 그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네 가족이 너를 끌고 온 것이지, 하나님 집 형제자매들이 너를 끌고 오거나 네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다. 지금 떠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떠나도 된다. 하나님 집의 문은 열려 있지만, 떠난 후 다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하나님 집에서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모두 선발된 사람들이다. 누구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요구 기준과 원칙이 있다. 풀타임 본분 교회에 머물 자격이 있어야 머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흔들리는 부류는 '당신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분명히 말해 주지 않았어. 당시 나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본분을 이행하게 된 거야.'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았단 말이냐? 형제자매들은 함께 본분을 이행하면서 날마다 진리를 교제한다.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네가 멍청하고 눈이 멀어서이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교제해 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크게 손해 봤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집에 계산서를 들이밀고 이치를 따지려 든다. 이 부류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너무나 역겹지 않으냐? 그러니 너희가 이런 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 이들은 바보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며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복받기만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 마음속에 복받는 일만 가득 차 있다는 것, '본분을 이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죽지 않게 된다'는 이 몇 마디 말만 알고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 하거나 이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들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해도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부류는 사실 아무 탈 없이 편안할 때도 의심을 품고 있고 언제나 관망한다. 그러다가 일단 핍박이나 체포를 직면하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환경이 닥치면 그의 본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종일관 확신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관망해 왔다는 의미이다.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의 생각은 이러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만약 지금 떠나면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하잖아. 그럼 손해 아냐? 헛고생한 거 아니냐고.' 이것이 그의 생각이다. 너는 그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여전히 의심하며 관망하고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집의 사역이 과연 순조로운지, 각 사역에 성과가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특히 각국 교회의 복음 확장 상황이 어떤지, 규모와 세력이 있는지, 국제 사회가 이 흐름을 인정하는지, 유명인이나 큰 인물이 이 단계의 사역을 받아들였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UN의 인정과 승인을 받았는지, 각국 정부가 지지하는지, 형제자매들이 각국에서 신청한 정치적 망명이 승인되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하며, 늘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부류가 가진 뚜렷한 특징이다. 그는 하나님 집이 번성하고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집을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집 사역이 교란되고 방해받고 망가지며,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도 영향을 받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부정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집을 떠날 생각을 한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걸까? 나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다. 그가 이런 일들을 줄곧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늘 여기저기 캐묻고 다니며, 자신에게 초인 같은 눈과 귀가 생겨서 천 리 밖의 일도 알 수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러고는 앞으로 떠날지 머물지 미리 계획하려 한다. 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무척 피곤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정상 인성의 사유가 없고 진리도 깨닫지 못한다. 일이 많이 생길수록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갈피를 못 잡으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규정해야 할지 모른다. 더욱이 이런 일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공과를 배워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 원칙을 찾아내는 법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교회에 적그리스도나 악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면 그는 곰곰이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지? 이 도가 참도일까? 끝까지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본분을 이행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어. 그런데 이 고생이 가치가 있을까? 본분을 계속 이행해야 할까?' 그는 자기 이익만 생각할 뿐,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람과 일, 사물도 이해하지 못하며, 매우 어리숙해 보이고, 올바른 사상 관점이 없다. 게다가 방관자의 입장에서 관망하면서 결과가 어떤지 보려고 하니, 그를 보고 있노라면 가엾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도 큰일이 생기면 어떤 입장에 서서 일을 바라봐야 할지 몰라 하고, 하는 말도 이방인의 사상 관점과 같으며, 일이 마무리된 후에도 어떤 수확을 거뒀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무척 어리석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류를 대하는 처리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극악무도한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바로 생각도, 영혼도 없어서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왕좌왕하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혼란스러워한다. 혼란스러워한 후에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지만, 흔들리는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악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니, 당장 본분을 좀 이행할 수 있고 기꺼이 힘쓰려고 한다면 본분을 이행하도록 허락해라. 다만, 이는 최소한 본분을 이행하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한다면 하나님 집에 남아 계속 본분을 이행하도록 허락하고, 이행하기에 적합한 본분을 안배해라. 반면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폐물이니, 적당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 그가 기꺼이 힘쓰고자 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처리하면 간단하지 않겠느냐? (간단합니다.)

너희는 흔들리는 부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느냐?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냐? 예전에 교회에서 정리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 보자. "저는 이제 나아졌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도에 대해 늘 흔들렸던 것은 하나님 집이 해외에서 막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참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었고, 복음 사역 확장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늘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집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었고, 각종 사역도 점점 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를 거둔 데다가 각국 교회도 갈수록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분을 이행하게 해 주세요.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사람들에 저를 포함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집 사역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고, 하나님 집에 세력이 생긴 것을 보고 기대려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그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또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이 일을 꿰뚫어 보았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흔들리는 자로, 오늘은 이 바람을 따르고 내일은 저 바람을 따르며, 심지어는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흔들리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정상인의 사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 사람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만약 정상인의 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해 능력도 있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한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를 볼 수 있으니 믿음이 점점 커지고 본분도 더욱 힘차게 이행하게 된다. 사람의 사역으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사유 능력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분명히 말해 줘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그런 판단력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사역을 하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인정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재하고 안배하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인정하든 이런 것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발하고 말씀하며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야 하며, 또 천둥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는 도마와 같다.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든,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선포했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한 일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였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확인했느냐? 예수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못 자국을 보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손에 못 자국이 있겠지요. 그럼 당신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손바닥에 못 자국이 만져지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요구했다. 바보 같은 놈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부류는 오직 자기 눈으로 본 사실과 자신의 상상, 추리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지 않는다. 또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병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사람에게서 이루는 성과도 분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알아보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이것이다. '당신이 하늘에서 천둥 치며 말씀하면서 스스로 창조주라고 하고, 이적과 기사도 보여 주고,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큰 능력을 나타내시면, 그때 저는 당신이 하나님임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정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겠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네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겠느냐? 네가 허락해야 하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했고,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였으며, 이토록 많은 체험 간증이 역대의 증거들을 넘어섰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 사역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룬 사실과 약속조차 믿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겠느냐? 너는 사람이 아니고 바보 같은 놈이다! 그러고도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으려 하는구나. 턱도 없는 소리니, 꿈도 꾸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늘 하나님 집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려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믿어 본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정하거나 믿은 적도, 받아들인 적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너와 무관하며, 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저 사람은 본분도 이행하는데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이행하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분을 이행해 봤자 힘만 쓰는 것일 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눈에 너는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허황된 망상 아니겠느냐? 네가 얼마간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복받으려는 속셈에 지배당한 것이다. 너는 계속 의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마저 판단하고 부인하니,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겠느냐?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암암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몰래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너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니,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

흔들리는 이런 부류는 인성 본질을 보든, 드러내는 모습을 보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늘 확신하지 못하며, 줄곧 뒤에서 관망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한다. 관망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니 가다가 서고 섰다가 가기를 반복한다. 이런 자들도 참 골치 아프다! 특히 지금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을 정리하니 그들도 전전긍긍한다. '나는 늘 흔들리니까 어느 날 발각되면 교회에서 제명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켜선 안 돼.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라고 생각하며 몰래 뒤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그는 하나님이 드러낼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감찰은 더더욱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부류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징계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는지, 또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느끼고 본 것, 또는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그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체험적 인식을 교제하는 것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체험들은 당신들 상상 아니야? 그건 사람의 느낌 아니냐고.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지? 특히 체험 간증 글을 쓴 사람들 말이야. 나는 그들을 몰라. 그들이 어떻게 체험했는지도 못 봤고, 그들에게 진리 실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은 아직도 하나님 집 사역을 관찰하고 의심하며, 하나님 선민들의 체험 간증 글에 어떤 진리 실제가 있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흔들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찾는다. 그는 자신이 흔들리니 분명 다른 사람도 다 흔들릴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도 의심하지도 않으며, 평소 진리를 교제할 때도 무척 실제적이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진리를 구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진다.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살피고 공감해 줄 사람을 찾으려 한다. 소극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 털어놓으며 눈치를 살피고 "저도 가끔 소극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의심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만약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소극적이고 연약할 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또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대를 시험한다. "저도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요? 이건 패역 아닐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전적으로 남의 환심을 사고 남을 시험하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의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늘 하나님에게 의심과 관념을 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는 마음이 통하는 벗을 찾았다고 기뻐할 것이고, 둘은 쿵짝이 맞아 수시로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본분을 이행하기 싫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싫어지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하기 싫어진다. 그렇게 이 둘은 조금씩 세상에 나가 일하게 되는데, 서로 어깨나 허리를 감싸 안고 꼭 붙어 함께 나간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 책도 가져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억지로 우기면서 "아니요.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 책은 왜 안 가져갑니까?"라고 물으면 "너무 무겁고, 둘 데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의 말은 전부 대충 둘러대는 것일 뿐이고 그는 사실 세상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찾고 살림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부류는 불신파로,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또 자기가 좋아하고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고 의지처가 생겼으니 이제 나가자!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재미없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실체도 없는 일을 진짜라고 믿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나며,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 둘은 일하러 가니,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또 전화하면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두 바보, 멍청이는 이렇게 떠나간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꽤 좋은 일이다. 하나님 집에서 그들을 출교시키고 제명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에게 계속 진리를 교제하며 붙들고 도와줘야겠느냐? 도리를 설명하며 권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권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이 부류는 뼛속까지 불신파이고 산송장이며, 머리가 없는 바보 같은 놈이니, 권한다면 너 역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서둘러 보내 주어라. 찾을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또 전화하면 신고하겠다고 이미 분명히 말했는데 그를 또 찾아간다면 문제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괴롭혔다며 정말 신고라도 한다면 그런 소문이 나도는 게 듣기 좋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가 알아서 조용히 떠나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사람은 각자 갈 길을 가고 자기에게 맞는 길을 간다. 그는 복이 없다. 하찮고 비천한 목숨을 부지할 뿐 이렇게 큰 복을 감당하지도, 누리지도 못한다.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여 생명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이 없는 것이다. 언젠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아 큰 복을 받을 것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재난 속에서 죽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후회해도 늦다.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사역은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진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복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는 오랜 옛날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복인데, 네가 그리 쉽게 받을 리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복, 이 복은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멍청이나 산송장, 인간쓰레기나 망나니 등은 선택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 단계 사역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이긴 자들을 만들어 이들이 만물의 주인이자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세의 이 심판 사역은 시작된 지 몇 년이나 되었느냐? (삼십여 년 되었습니다.) 이 삼십여 년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마침내 얻게 되는 이 인류가 그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 아직도 흔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없는 것이다! 네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고 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모두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또 택하며 엄선한 자들,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자들이다.

흔들리는 부류의 주된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마지막에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되든, 교회에서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원칙대로 처리해야지, 그들을 형제자매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좀 힘을 보태고 기꺼이 힘을 쓸 수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교우일 뿐, 형제자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령 그의 새 이름이 '순종'이나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형제자매라고는 부르지 마라. 그의 새 이름을 부르는 걸로 충분하다. 왜 그렇겠느냐? 이런 사람은 형제자매라고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류를 처리하는 데도 원칙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다음에 보자!

2024 년 6 월 29 일

리더 일꾼의 직책(28)

제 14 조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7)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는 '각종 악인과 적그리스도를 제때 분별하여 제명하거나 출교시킨다'이다. 지난번에는 두 번째 항목인 인성에 근거하여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것 중 세 가지 모습을 교제했다. 그 세 가지를 읽어 보아라. (여덟 번째,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열 번째, 흔들린다.) 그 세 가지의 교제를 마쳤는데, 모두 이해했느냐? (네.) 이런 문제를 지닌 사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또 일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신앙이라고 여기며, 종교 의식만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미도, 본분을 이행하는 의미도 모르며,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맞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든, 그들은 끝내 참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흔들릴 수 있고, 심지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닥치면 언제든 교회를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 하나님 집에는 이 몇 부류를 대하는 구체적인 원칙이 있고, 그들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및 해결 방안이 있어 제명해야 할 사람은 제명하고, 출교시켜야 할 사람은 출교시킨다. 설령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닐지라도 그들이 드러낸 그런 모습의 성질과 하나님을 믿는 일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집의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형제자매도 아니다. 설령 교회에 남아 있더라도 그들은 진리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마지막에 하나님 집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피조물이 될 수 없으며,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서 늘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교란하고 망치는 역할을 하고, 몇몇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 지장을 주고 본분을 이행하는 일부 사람들을 교란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떠나도록 권고하거나 제명하거나 출교시켜야 한다. 어쨌든 그들이 교회에서 방해하고 교란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각종 악인을 분별하는 기준과 근거

2. 인성에 근거한다

10) 흔들린다

흔들리는 부류는 늘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이가 참하나님인지는 더더욱 확신하지 못한다. 오늘은 이곳에 가서 구하려 하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살펴보려 하며, 어떤 것이 참도인지 몰라 늘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에게는 속히 떠나도록 권고하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늘 하나님의 사역이 참도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진리를 구해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믿어서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지도, 교회 생활을 좋아하지도 않으니 당신의 선택에 따라 흥미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두각을 나타내고 출세하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 노력해야죠. 어쩌면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고 공직에 올라 꿈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집에 더는 머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강요하거나 붙잡지 말아야 하며, 교회를 떠나고자 하면 가게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런 불신파들을 계속 권면하고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결코 강요하는 법이 없다. 네가 망설이는 사람을 늘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은 약간 강요하는 성질을 띤다. 그는 나가서 일하여 돈을 벌고 좋은 삶을 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늘 이런 계산을 하며, 언제나 자신만의 이상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의 모습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마음이 딴 데 가 있거나 자주 실수하고 건성으로 형식만 취한다. 또 늘 본분 이행을 무척 달갑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며, 본분 이행이 돈벌이에 지장을 준다고 여긴다. 이런 사람은 떠나도록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건성으로 임하니, 결국 진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얼마나 손해입니까! 당신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주재도 확신하지 못하며 세상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추구하면 출세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 노력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이 부류는 늘 자신이 재주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나가면 명예와 이익을 모두 손에 넣고 높은 지위와 대우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 몇 년이 지나도 발탁되어 중용되지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 속으로 매우 억울해하고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걷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더더욱 달가워하지 않으며, 늘 마음이 들떠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기 동창과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높은 직위를 얻었는지,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사는지 등을 때때로 떠올리는데,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못나고 무능하고 패배자 같아 부모와 조상을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괴롭고 달갑지 않아 애초에 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나 하며 스스로를 몹시 미워한다! 그러니 마음은 더욱 흔들린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 세월 동안 믿음이 굳건해지기는커녕 처음의 열정마저 사라졌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떠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만약 네가 그에게 떠나도록 권고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 학업과 결혼, 진로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저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군요. 그럼 지난 세월 제가 겪은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종착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떠나도록 권고하는 것이 매정한 것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섞여 들어온 것일 뿐이지요. 교회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교제하는 것을 보면 싫증이

나서 떠나고 싶어 하니, 이런 사람에게 마땅히 떠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사람은 붙잡을 수 있어도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심은 있지만,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뿐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좌절과 실패를 겪고 책망과 훈계를 받아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진 것일 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진리를 교제하여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본분을 이행할 때 늘 건성으로 대하고 형식만 취하며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그저 쫓겨나지 않는 것에만 만족하고, 본분을 이행할 때 진심도, 향상심도 없으며,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추구 목표도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는 것이라면, 이런 부류가 확실하다면 떠나도록 권고해도 된다.

불신파에 속하는 이들이 있는데, 만약 네가 그들이 본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힘쓰는 것조차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다면 떠나도록 권고해도 된다. 그들의 주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의 체험 간증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의 영화나 찬양, 체험 간증 영상도 전혀 보지 않고, 설령 본다 해도 심심풀이로 여기거나 호기심 때문에 마지못해 조금 보는 것이지 자신의 생명 진입에 부담이 있어서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저 구경거리로만 볼 뿐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하겠느냐? 잡담하고 수다를 떨거나 인터넷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인터넷에서 주식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인터넷에서 어느 브랜드가 어떤 신제품을 내놓았는지, 또 어떤 신기술이 개발되었는지를 본다. 이 밖에도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1 인 미디어가 제작한 뉴스 보도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용이나 화장, 건강 관리를 좋아해서 수시로 인터넷에서 미용, 건강 관리,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등에 관한 정보를 본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각종 진리와 형제자매들의 체험 간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마지못해 본분을 조금 이행하는 것 외에는 늘 이방 세계의 정세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세상에 어떤 새로운 동향이 있는지, 어떤 중요한 뉴스가 있는지, 국내에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본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일들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누가 교제를 해 주어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본분 이행 과정에서 어떤 패괴 성품이 표출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여러 측면의 요구 중 자신이 어떤 것을 충족했고 어떤 것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생명 진입과 관련된 일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 설사 본분을 이행한다 해도 그저 형식만 취할 뿐 진리 원칙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것은 돈과 지위, 이방의 유행이며, 그가 접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역시 다 이방의 유행을 좇는 자들이다. 그는 이방 세계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흥미진진하게 얘기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끝도 없이 청산유수처럼 쏟아내지만, 진리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없어진다. 형제자매가 "그 찬양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가사도 다 외웠답니다."라고 하면 그는 건성으로 "외우셨다니 참 좋네요."라고 한다. 형제자매가 "아무개

자매의 체험 간증은 정말 좋아요!"라고 하면 그는 "지금 체험 간증 영상이 이렇게 많은데 뭔들 안 좋겠어요? 다 괜찮죠."라고 한다. 이렇게 건성으로만 대할 뿐, 사실 마음속으로는 진리에 흥미가 없어서 형제자매들과 공통 화제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했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죠?"라고 한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할 말도 없다. 이런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마음속은 이방 세계의 온갖 일로 가득하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에게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류가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마음이 딴 데로 가 있고, 게다가 어떤 사역을 맡기든 매우 귀찮아하며, 조금만 고생해도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 봤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월급도 많이 오르고 높은 지위와 호화로운 삶을 누렸을 거야.'라는 생각을 드러낸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떠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떠나도록 권고하고, 어떤 본분도 맡기지 마라. 그는 힘쓰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면 자신의 중요한 일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고위직에 오르고 큰돈을 벌었을 거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에게 떠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그에게 강요하거나 그를 붙잡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부류에게는 이렇게 권해야 한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까? 당신이 진리에 흥미가 없고 늘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학력도 재능도 있으니, 세상에서 노력하면 적어도 총재나 CEO가 될 수 있고, 또는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시간만 보내면 첫째로 두각을 나타낼 수 없고, 둘째로 출세를 할 수 없으며, 셋째로 당신 집안을 빛낼 수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당신은 늘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해 책망과 훈계를 받고 온종일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분명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학력도, 재능도 있는 귀한 몸인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방인들은 늘 '바다가 넓으니 물고기가 마음껏 뛰놀고, 하늘이 높으니 새가 마음껏 날아다닌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직 세상에서 뭔가 이룰 시간은 충분하고,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할 기회도 있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체면을 세워 주는 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또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그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고, 마음 편히 과감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류를 대할 때, 만약 그가 불신파임을 확신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혀 의욕이 없고 본분 이행에도 한결같이 진심이 없고, 생명 진입도 전혀 이루지 못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봐도 생명 진입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떠나도록 권고해야 한다. 떠나도록 권고하지 않으면 그는 본분 이행에 한결같이 무성의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것이며, 언젠가 큰 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11)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다

열 번째 항목, '흔들린다'에 관해 교제를 마쳤으니, 오늘은 열한 번째 항목,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다'에 대해 살펴보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두려워하는 사람은 체포와 박해가 닥치면 무서워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싶어도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작은 측면에 불과하다. 주된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특이한 부류인 양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독재 국가나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당하므로 감히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믿는 존재가 참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거나 정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연루될까 봐 몹시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잽싸게 교회와 관계를 끊고, 심지어 급히 하나님 집에 책을 반납한다. 또 어떤 사람은 체포될까 봐 두려워 감히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만나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며,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접촉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 두려워한다. 심지어 정부가 대대적인 체포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으면 곧장 정부를 찾아가 자신이 전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누구를 안다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면서 배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 서적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으려 한다. 그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남들이 알까 봐 늘 두려워하고, 더욱이 누군가 체포되어 자신을 팔아넘길까 봐 두려워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얼른 해명하고, 심지어 이방인이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서둘러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먹고 마시며 놀고, 도박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예배에 참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며, 누가 찾아가도 상대하지 않는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죽지 않으며 천국에 가서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대단하지만, 위험한 환경이 조금이라도 닥치는 순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가 일이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사람은 자주 종적을 감추는데, 그에게 아무리 중요한 본분을 맡기더라도 조금만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 일을 내팽개치고 인수인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라져서 아무도 찾지 못한다. 똑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뒷수습을 해낸다. 당장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 체포되기 쉽고 위험하다면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사역하고, 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너무 유명해서 직접 나서서 사역하다가는 체포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 사역하게 한다. 반면 이 부류는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잽싸게 숨으며, 얼른 머리를 감싸안고 자신을

보전하려고 할 뿐, 교회의 사역과 재산은 나 몰라라 하며, 결코 교회 사역을 지키거나 형제자매를 보호하지도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부가 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 이웃이 알게 되는 것이며, 셋째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맞아 죽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체포되거나 죽지 않을지 가장 먼저 생각하며, 만약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예배 때 어떤 형제자매가 "오면서 보니 근처에 조금 낯선 사람이 있던데, 이방인이 감시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하면 그는 이 한마디 때문에 다음 예배 때 참석하지 않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중한 것이냐? (그것은 정상적인 신중함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국가나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마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가 신중하게 행동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그는 닥친 일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여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 아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고, 마음속에 오직 두려움만 있다. 게다가 이 부류의 두려움에는 치명적이고도 무엇보다 가증스러운 점이 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고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일이 닥치든, 미행을 당하든,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든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 생기는 순간 그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다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팔아넘긴다. 왜 이렇게 하겠느냐? 자신을 보전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는 아는 대로 다 말한다. 먼저 교회 리더를 팔아넘기고, 지역 리더와 교구 리더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까지 자신이 아는 것이라면 전부 말하는데, 고문을 당하기도 전에 모두 팔아넘긴다. 그 밖에 '3 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서명한다. 감옥에 가지 않고, 고문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의 위험도 피하려고 일찌감치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재를 믿지 않고 목숨을 내놓지도 못하며,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보전하려 한다.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교회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자신이 평안을 얻고 아무 고통도 겪지 않는 것, 이것이 그가 일찌감치 계획해 둔 '최고의 지혜'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이 정상적인 두려움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그는 유다가 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든 형제자매와 교회를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일단 그가 진실로 믿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믿는지는 차치하고, 그의 인성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몰래 숨어서 하는, 남에게 알릴 수 없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떳떳하고 이토록 긍정적인 일을 부정적인 사물로 여기는 것이다.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어리석고 상대적으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정상인과 다르고, 때때로 흑백을 전도하거나 시비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일부러 숨어 다니겠느냐? 이는 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사악하고, 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더욱이 사탄 정권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적대시하여 긍정적인 사물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배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도둑질하듯 몰래 숨어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박해를 받는 배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일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행동이 수상하다고 한다. 이것이 행동이 수상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이 수상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위법한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일이나 정부에 반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더욱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사회 치안을 어지럽히지도 않았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 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의로운 일이다. 단지 이 세상이 사악하고 어두우며 흑백이 전도되어 가장 정의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수상하다고 말할 뿐이며, 이는 사탄의 주장이다. 사탄의 주장이 진리이고 긍정적인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듣고 마음속으로 완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몰래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부당하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언젠가 자기도 이 사회와 정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 봐, 그때 이치를 따질 곳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거나 구해 줄 사람이 없을까 봐 항상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봐 특히 겁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들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바른길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싶어 하니, 이는 자가당착 아니겠느냐? 결국 그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이 세상의 사악한 정권과 마귀 사탄의 사악한 세력을 몹시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가 자기를 괴롭히고 목숨을 빼앗을까 봐 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전혀 없기에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는 아예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 아무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형제자매들과 접촉하거나 교회 일을 좀 돕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의 일원임을 인정할 용기가 없고, 감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본분을 이행하지도 못한다. 그는 죽을 만큼 무서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고자 하는데, 이는 모순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이익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자는 이익과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으려 한다. 또 교회가 하는 사역과 형제자매들이 이행하는 본분이 모두 정의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믿지 않으며, 게다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게 될까 봐 몹시 두려워하거나 리더 일꾼이 자주 연락하여 외부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할까 봐 두려워하며, 일이 생기면 자기까지

연루될까 봐 매우 겁을 낸다. 두려워하는 이런 부류는 위험이 닥치는 순간 유다가 되어 교회를 팔아넘길 수 있으니, 이 또한 위험인물 중 한 부류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런 부류는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버릴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또 언제든 유다가 될 수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점이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치명적인 점이다. 그는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유다가 되든, 멸망의 자식이 되든, 저주받은 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 살아만 있으면 그만이며, 살아 있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다. 사람의 생사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재하고 지배하니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고 아무리 교제해도 그는 이 말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는 사람으로 환생하기가 쉽지 않으니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이 육체는 끝이고, 이 영혼은 짐승으로 환생하거나 떠도는 혼령이 되어 다시는 사람으로 환생할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에 죽음을 특히 두려워한다. 죽음은 그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재앙이지, 다음에 윤회할 좋은 기회도, 다시 환생할 새로운 시작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 한다. 설령 남을 팔아넘길지라도, 교회 사역에 어떤 손해를 끼칠지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려도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서 평안하면 그만이다. 이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입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천한 인간이다! 존엄도 인격도 없이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최소한 지키는 선이라는 게 아예 없다. 어떤 이들은 위험한 환경을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속으로 계산을 다 해 놓는다. '만약 체포되면 나는 다 불 거야. 당신들은 큰 붉은 용이 고문으로 괴롭히고 위협하고 겁박하면서 배신하라고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난 당신들처럼 바보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거라고. 맞기 전에, 겁박당하기 전에 먼저 다 불 거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자가 걸출한 인물이다.'라는 말도 있잖아.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팔아넘기는 게 뭐가 나빠? 사람은 좀 이기적이어야 하는 거 아냐?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건 바보 아니냐고.' 일이 터지기도 전에 벌써 자신을 보전할 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다. 그는 진작에 이 일을 확실히 생각해 놓았다. 그가 처신하는 신조는 무엇이겠느냐? '왜 자기 자신을 못살게 굴면서 살아야 하지? 왜 융통성 없이 구는 거지? 스스로를 아껴야 이번 생이 헛되지 않지!' 이것이 그가 처신하는 신조로,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지혜롭게 제명해야 합니다. 그는 시한폭탄입니다.) 맞다. 그는 시한폭탄이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위험이 닥치면 교회를 팔아넘길 수 있다. 정상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위험한 환경에 대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예배와 본분 이행도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분량과 조건에 맞춰 힘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이것이 정상 인성의 표출이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목숨을 몹시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 목숨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박해받으면 자연히 두려워하는 자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 유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는 위험인물이자 무서운 사람이다. 교회는 절대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서도, 어떤 본분을 이행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배신하는 순간 교회 사역에 큰 손해를 끼칠 테니,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다.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은 이 부류가 의심이 많은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 집의 여러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집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성과를 이루려는 것인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는 교회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늘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을 의심하면서 속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은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지?' 특히 큰 붉은 용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본분을 이행할 때 리더 일꾼이 교회의 일부 사역, 예를 들어 행정 사역이나 인사 관련 사역, 사무적인 사역, 특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에 대해 교제하고 상의하면서 이를 일반 형제자매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이런 일들을 캐물으려 한다. 예를 들어, 어디서 책을 인쇄하는지, 어디에서 리더 일꾼들을 섬기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네게 이득이 있겠느냐?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해서 네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아무 손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에도, 진리를 얻는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더욱이 생명 진입이나 성품 변화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데, 이런 일들을 캐묻고 알아보는 것은 쓸데없는 일 아니겠느냐?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이들은 항상 의심이 많아서 리더 일꾼이 교회 사역에 대해 교제하고 의논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려 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리더 일꾼들은 예배 시간에 교제할 때 왜 항상 나를 빼놓고 하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또 어떤 리더 일꾼들의 개인 정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왜 나한테는 알려 주지 않지? 나는 그들의 이름도, 집 주소도 모르고, 그들의 실체도 몰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나를 인도하면서 나를 속이거나 해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제물과 관련된 사역이나 위험한 사역 같은 민감한 사역은 원래 묻지 말아야 하는데도 늘 캐물으려 하고, 상대방이 말해 주지 않으면 더욱 의심이 많아진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할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후 집안 사업이 잘되고 가족들도 건강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해 순간 기뻐하며 몇 푼 헌금을 하고는 곧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헌금한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 교회 사역에 쓰였을까? 사업 투자나 불법적인 활동에 쓰인 건 아닐까?' 그는 늘 이런 일들을 캐물어 알아보려 하고, 진상을 파헤치려 한다. 어떤 이들은 더 심하게 의혹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교회가 사역상의 필요로 인해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본분 이행 인원의 생활을 돕고 보살펴 주면, 이 의심 많은 부류는 늘 이런 의심을 품는다. '돈 쓰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이 돈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지? 교회도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아닐까? 부자들이 후원을 하거나 어떤 뒷배가 있는 건 아닐까? 교회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정부 당국으로부터 교회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나 마귀적인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 교회의 아무개가 살인을 저질러 법을 어겼다거나 아무개는 국가에서 수배 중인 범죄자라거나 아무개는 거액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다. 이런 부류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켜야 할 원칙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보통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확신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든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대할 수 있고, 설령 악인이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란할지라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집도 의심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일부 개인에게 견해를 갖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관념을 조금 가질 뿐이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차 해결된다. 그러나 의심 많은 부류는 다르다. 그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의심과 여러 가지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지도 확신하지 못하며,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인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는 더더욱 확신하지 못한다. 그저 늘 의심을 품은 채 자신의 의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사실적 근거를 끊임없이 찾을 뿐이다. 이는 어떤 태도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가 마음속으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사회단체 같은 것 아닐까? 하나님 집에서 대 주는 생활비로 그들을 섬기고는 있지만, 나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선행을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게 헛된 것 아냐?'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 그가 기꺼이 원해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다. 특히 자신이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관념 속에서 부정적인 사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들으면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큰 붉은 용 정권의 소행과 마왕의 추악한 몰골에 관한 주제를 언급한다. 또는 때때로 큰 붉은 용의 탄압과 체포, 그리고 그것의 본성 본질과 관련된 진리 등의 주제를 교제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런 주제들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 이는 단지 사람들이 큰 붉은 용을 분별하게 하고, 큰 붉은 용의 몰골을 간파하게 하여 큰 붉은 용을 증오하고 내치며 사탄 권세에 속박되거나 결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 의심 많은 자는 그런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두려워한다. '이 사람들은 정치 얘기까지 하고 있네. 이건 정치범 아닌가? 반혁명 아냐? 이런 주제는 너무 민감해! 얼른 창문을 꼭 닫고 대문을 잠그고 인터넷 선과 전화선도 뽑아야겠어. 정부에 도청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잖아. 무기징역을 받게 될 거라고!' 그는 듣기 싫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중단시켜 이런 주제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지? 다들 하나님은 인류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은 왜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일만 얘기하면 되지 않나?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이건 스스로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 아냐? 어디 가서 얘기하든 상관없지만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말란 말이야. 난 절대 '이런 덕'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는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정부가 꾸며낸 유언비어를 듣고는 분별하기는커녕 의심과 염려만 더 깊어진다. 집권층 악마 집단이나 종교의 적그리스도 세력, 악령 파벌을 마주하는 거라면 늘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이 참도임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의 의심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의 관념과 상상도 뿌리 뽑히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는 자질이 너무나 형편없고 이해 능력이 전혀 없으며, 게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 집의 사역은 모두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 의혹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각종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교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했다거나, 몇몇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는 것은 교회에 얹혀사는 것이라거나, 어떤 이들이 제물을 훔쳐 먹고 제물을 낭비했다거나, 교회 중 몇몇 사람이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거나,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말하는 목적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에 근거하여 사람과 일을 바라보며, 이런 일들 속에서 공과를 배우고 교훈을 얻어 사람에게 미혹되거나 속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의심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태까지 내가 의심한 게 맞았나 봐.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안 가고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믿을 만할까? 누가 알겠어? 아마 하나님도 믿을 만하지 못할 거야." 보아라, 그는 진리를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측면의 진리를 교제하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다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해 온 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옳았다는 것이다. 만약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상 인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 듣는다면 올바르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식견과 분별력을 키우는 한편, 공과를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사람을 분별하고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에게 미혹될 수 있지만, 진리를 깨닫고 분량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거나 미혹되거나 통제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의심 많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각종 사람과 일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 교제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고,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봐, 역시 내가 똑똑했지!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게 다행이지. 사람들은 늘 나보고 의심이 많고 속셈이 많다고 했지만, 내 의심이 옳다는 게 사실로 증명됐잖아. 당신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봐.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분을 이행하고 체험적 인식을 말할 줄만 아는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게 당신들을 지켜 주기라도 하나? 쓸모없어! 무슨 일이든 의문을 품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누구든 경계해야 해. 자기 자신만큼 믿음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친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서 어떤 측면의 사역을 교제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분별하든, 혹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이 그 가운데서 공과를 배우고,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나라에서 훈련받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은 이 실제적인 공과들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사람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사람과 각종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가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사람과 일, 사물을 가리키는지 더 잘 알게 된다. 하지만 의심 많은 사람은 그 속에서 공과를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의심이 많아지고 교활해진다.

또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은 하나님 집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늘 조심조심하면서 형제자매나 리더 일꾼이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할까 봐, 심지어 괴롭힐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서 저를 보복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 불신파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모두가 기뻐할 일이고, 어느 쪽에도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거나 본분 이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싶다면 마음 놓고 말해야 한다. 또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본분 이행을 그만둔다."라는 성명서를 써도 좋다. 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하나님 집의 문은 열려 있으니 담대하게 떠나도 된다. 누가 보복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두려워하지도, 의심하지도 마라. 네가 보기에 교회 사람 중에 악인이 있더냐? 절대 없다. 설령 악인이 있다고 해도 제명될 것이다. 대부분은 비교적 순박하며, 인생의 바른길을 가는 걸 좋아한다. 보복하고 해치는 것은 진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니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의심 많은 자들은 처신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속만 좁을 뿐 지능은 낮다. 그는 자신의 교활하고 간사한 옹졸함이 처신의 최고 지혜라고 여기며, 진리 원칙과 하나님의 사역,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해도 못 하고 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사탄 철학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는 '어떤 일이 닥치든 여러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해. 그리고 내 생각엔 누구를 의심하든 그건 합리적인 거야. 내 의심이 사실에 부합하든 말든 모두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일이 닥쳤을 때 많이 의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든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각종 문제와 의혹을 해결할 답을 찾지 않으며, 자신의 머리와 좁은 속내로, 처세 철학이나 경험으로 이런 일을 분석하고 대한다. 결국 그가 각종 일을 더 많이 접하고 각종 정보를 더 많이 들을수록, 의심 많은 본성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이 더욱 많아진다. 예를 들어, 이 의심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1, 2 년쯤 되었을 때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 집을 비방하려고 조작한 '자오위안(招遠) 사건'에 대해 듣고는 '하나님 집에서 한 일일 수도 있어. 하나님 집에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아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 일이겠지.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지 3~5 년이 되어도 여전히 큰 붉은 용의 주장을 믿고, 8~10 년을 믿어도 하나님 집에 대한 마음속 의심을 떨치지 못한다. 그는 큰 붉은 용이 교회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비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만 생각한다. 보아라, 그는 어떤 일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과 진리 원칙에 근거하는 법이 없다. 그는 큰 붉은 용의 주장을 믿으며,

마귀 사탄의 입장에 서서 일을 바라본다. 그는 사탄이 하나님 선민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해치든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집이 결백하다는 사실은 결코 믿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억울한 일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 집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순박하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임을 직접 보았음에도 마음속으로는 큰 붉은 용이 교회를 비방한 일을 시종일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도 하고 대가도 치르며 심지어 헌금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불신파이다. 사실, 의심 많은 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보다 더 골칫거리다. 어떤 점이 그렇겠느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교회 사역과 본분 이행에 전혀 관심도, 흥미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본분을 이행하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일에 대해 의심도 없고 교회 일을 거의 알아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이 부류는 정반대로 뜬소문 캐기를 좋아한다. 왜 캐물으려 하겠느냐? 그 목적 중 하나는 분명 '정보를 많이 캐내고 알아내서 미리 뒷일을 준비하고,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언제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다. 그는 또 어느 리더 일꾼의 본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하는지와 같은 일들에 관해 캐묻는 데 집중한다. 혹은 복음 전도 인원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가족 중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복음을 전한 지 몇 년이나 됐고 몇 명을 얻었는지 등의 일을 샅샅이 알아낸다. 의심이 많은 부류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수집을 마친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며,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의심이 많은 이 부류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나 다름이 없는데, 심지어는 리더 일꾼조차 모르는 일들까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누가 해외에 나가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에 갔는지와 같은 국제적인 일까지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교집이 몇 집까지 내려왔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 그는 생명 진입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형제자매들의 개인 정보와 교회의 여러 상황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자주 캐묻는 목적 중 하나는 각 측면의 상황을 더 많이 알아내서 언제든 뒷일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뒷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고, 이방인들의 말처럼 '팔려 간 것도 모르고 돈까지 세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쓰레기건만,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의심이 많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심 많은 자다. 의심 많은 자의 인성은 몹시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지능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간사하고 교활한 이 부류의 사람은 몹시 어리석고 전혀 자질이 없다. 자질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 자체도 이미 개선하기 매우 힘든데, 거기에다 교활하기까지 하니 더욱 고치기가 어렵다. 만약 자질만 부족할 뿐 비교적 정직하고 교활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희망이 한 줄기 있을 것이다. 또 자질이 부족하고 약간 간사하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간사한 성품을 벗어 버릴 희망이 한 가닥은 있을 것이다. 또한, 진리를 깨닫고 점차 인식하여 진리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의심도 조금씩 풀릴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류는 자질이 부족하고 간사하며 교활할 뿐만 아니라 몹시 어리석기까지 하니, 장님이 눈병까지 앓는 것처럼 아예 고칠 방도가 없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는 구제 불능이다. 이 부류는 구제 불능일 정도로 의심이 많으니,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그런 부류를 발견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교회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위험인물이니, 기회가 되면 폭로하고 제명해야 합니다. 만약 기회가 없다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떠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가 의심 많은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하지 마라. 상대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그를 상대하면 그는 늘 네 뒤를 캐려고 할 것이다. 네가 밖에 나가기라도 하면 그는 바짝 주시하며 계속 묻는다. "어디 가십니까? 며칠이나 가시나요? 무슨 일 보러 가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묻는다. "누구를 만났나요? 일은 잘됐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는 또 불평한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 나를 하나님 집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지! 이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왜 항상 나한테 숨기는 걸까? 불법적인 일을 하러 간 게 분명해." 그러면서 늘 뒤에서 네 동태를 살핀다. 이 부류는 아주 골치 아프다. 그들은 많은 정보를 캐묻고 무슨 일이든 다 알고 싶어 한다. 알고 난 후에도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다. 또한 그 일들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의혹을 더욱 키우려 한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의심이 많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라고 권유해도 그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복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부류는 골치 아프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류는 처리하기 쉽다. 만약 그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속히 떠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부류는 믿을 만하지 않으며,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도 없다. 설령 본분을 좀 이행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집에 큰 골칫거리를 가져다줄 것이고 득보다 실이 더 클 테니, 떠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골치 아프고 의심 많은 사람도 골치 아프지만, 두려워하고 의심도 많은 사람은 더욱 골치 아프다. 이런 부류는 담이 몹시 작고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는 데다가 무슨 일이든 의심한다. 하나님을 믿다가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늘 의심하고, 자기 앞날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하며, 체포되거나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으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사기꾼이나 큰 붉은 용, 마귀 사탄을 경계하듯 형제자매를 경계하고, 하나님 집의 모든 사역지침을 경계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를 추구하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라고 자주 권면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신은 나한테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라고 하지만, 이름이 알려져서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기라도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 그가 만약 정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권면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담이 몹시 작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지만, 사업할 때는 사기 치고 속이다가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일에만 죽도록 겁을 낸다. 그는 형제자매와 하나님 집에 대해,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 갖가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교제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몇 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왜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런 부류는 지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 한시바삐 떠나도록 권고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그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본분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침 잘된 일이다. 따로 제명하지 않아도 되고 골치 아픈 일도 덜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시 관심이 생겨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업해서 큰돈을 벌면 편안한 나날을 좀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라고 말해 주어라. 그럼 그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져서 더는 하나님 믿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야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어. 더는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집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 드디어 벗어났다고!'라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나가게 된다. 그럼 큰 골칫거리가 해결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12)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

이제 다음 항목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에 관해 살펴보겠다. 어떤 부류가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교회에서 그런 부류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 나이나 성별, 세상에서의 직업과 상관없이 계속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고,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짓을 하여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복음 사역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교회는 이런 부류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우선 경고를 하되,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봐주지 말고 출교시키거나 제명해야 한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량한 자들과 어울리고, 법과 규칙을 자주 위반한다. 오늘은 세금을 탈루하고, 내일은 사기를 치며, 심지어 살인 사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런 일들 때문에 법원에서 자주 소환장이 날아오고, 수시로 소송을 하며, 분쟁에 휘말린다. 이런 부류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또 어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실이 몹시 기이하고 비정상적이다. 오늘은 이성을 희롱하고, 내일은 또 누군가를 성폭행해서 신고될 수도 있다. 이런 자들은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늘 사회의 불량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수시로 분쟁을 만든다. 예를 들어 치정, 경제, 재산, 이익 때문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거나, 불법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아 늘 누군가 찾아와 귀찮게 군다. 간혹 형제자매들이 그의 집에 가면 이런 자들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가 예배를 드리거나 본분을 이행할 때도 이런 자들이 수시로 찾아오거나 방해하는 메시지를 보내니, 그와 함께 있기만 하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사역과 명성은 더욱 쉽게 연루되고 망가질 수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자를 교회에 남겨 두는 게 좋겠느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 역시 제명하고 처리해야 한다.

사회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정부나 공직자들, 혹은 사회단체나 유명 인사들과 맞서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정부의 일 처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폭로하고, 내일은 어떤 단체를

고소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내려 하며, 모레는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해서 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식이다. 이것이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도 계속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려 하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나 분개스러운 일만 보면 불의에 맞서 싸워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또는 논평이나 글을 써서 시비를 가리려 한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문제만 자초한다. 소송에 휘말리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며, 사회의 불량한 자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보복하고 괴롭히려 하니 늘 속을 졸이며 산다. 그는 이런 생활과 골칫거리를 피하려고 집을 여러 채 샀다. 그러고는 "이게 바로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집 중에 한 집만 알려져 있고, 나머지 두 집은 아무도 모르니 교회가 사용하고 형제자매들이 지내도록 남겨 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형제자매들이 거기에서 지내면 안전하겠느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듣기에는 참 좋다. 그 역시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그의 인품과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 버릇을 보면, 누가 감히 그의 집에서 지내겠느냐? 네가 그의 집에 머물면 사람들은 너를 그의 식구로 여길 텐데, 그를 때리려고 왔다가 그를 못 찾으면 너라도 때리지 않겠느냐? 어떤 이는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해서 평소에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붙잡힐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를 차에서 끌어 내려 흠씬 두들겨 팬 후 경고를 한다. 그는 자신이 먼저 남의 미움을 사서 문제를 자초했고 그래서 상대가 자기를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자업자득 아니겠느냐? 이런 부류가 바로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의논하든 참견하려 들고, 명령하고 평가하려 들며, 남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려 한다. 교회에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분개하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내지도 못한다. 이런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골칫거리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가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계속 교회 사역에 참여하려 하고, 무슨 일이든 간섭하려 들다가 결국 교회 사역에 방해와 교란을 초래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가 많이 접촉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 부류는 그야말로 큰 골칫거리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는 자가 다루기 쉬운 사람이겠느냐?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보통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분수를 지키며, 사회의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다면 절대 참여하거나 묻지 않는다. 이런 것을 두고 이성적이고, 세상 물정을 알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방인의 말처럼 이 사회와 인류는 이토록 사악하고 복잡하다. 게다가 늘 사회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거기에 참여하려 하는 것은 네가 인생에서 걸어야 할 길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 인생의 바른길이 아니며, 설령 네가 바른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로운 사업이 될 수 없다. 왜 그렇겠느냐? 이 세상에는 공정함이 존재하지 않고, 사악한 흐름 속에서는 공정함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집에서 바른말, 정직한 말을 하면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사악하고 패괴되고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에서 바른말, 정직한 말을 하면 시비를 일으키고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

이는 어리석은 일 아니겠느냐? 그런 행동은 네 삶을 가치 있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끝없는 골칫거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이것이 화임을 알고 멀리하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나아가 결국 많은 문제를 자초한다. 특히 어떤 사람은 며칠 무술을 배워 번지르르한 자세를 좀 취할 줄 알게 되고 작은 명성을 얻으면 협객 노릇을 하며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를 돕고 협객이나 검객 역을 맡아 여기저기서 불의에 맞서려 한다. 심지어 부당한 일을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돕다가 결국 골치 아픈 일을 자초하는데, 그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 것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우면 상대의 미움을 사지 않겠느냐? 상대의 좋은 일을 망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상대의 좋은 일을 망치면, 그가 널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저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라고 하지만,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안 된다. 이 세상은 네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하는 순간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바보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자기는 협객이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상대의 좋은 일을 망쳐서 보복을 당하고 계속 시달리게 된다. 이는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상대는 암암리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집안 상황은 어떤지, 어떤 식구들이 있는지, 이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지, 어떻게 그를 혼내 주는 게 쉬운지 등을 전부 확실히 알아본 후 그를 손보기 시작하니, 그의 앞날은 힘들어진다. 이런 부류는 늘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며, 얼마나 큰 손해를 보든 교훈을 얻지 못한다. 부당한 일이 닥치면 또 협객 노릇을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우려 하니, 스스로에게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고, 때로는 주변의 친구나 동료까지 연루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형제자매들까지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사회에서 시끄러운 일을 일으켜 그에게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네가 그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너에게 그의 개인 상황과 가정 상황을 물어본다면, 너는 말하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말한다면 그를 배신하는 것이 되어 그에게 골칫거리를 안겨 줄 것이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힐 수도 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다. 악인들은 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누가 미움을 사면 보복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가 어떤 일을 일으키든 자신의 본분 이행에 골칫거리와 교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교회 사역에도 크고 작은 지장을 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늘 시끄러운 일을 일으킨다면, 그에게 진리를 교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흔히 이성이 건전하지 못해서 시끄러운 일을 일으켜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준들 소용이 없다. 그는 치우치게 이해하는 자이고 그릇된 인간이며, 그릇된 인간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혹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죠? 사랑으로 대해야죠."라고 말할 것이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그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관점만 고수한다면, 그에게 계속 진리를 교제해 주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며 불신파의 본질을 지녔기에,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가 교회에 많은 골칫거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류를 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명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다. 그들은 교회에서 늘 형제자매들을 선동하여 일을 벌인다. 예를 들어, 그는 "정부가 한 그 일과 제정한 그 정책은 불합리하니,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공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지, 비겁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가 시위하며 형제자매들과 우리 교회, 전 인류를 위해 이익을 쟁취합시다!"라고 말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거리로 나가 시위할 틈도 없이 정부에 발각되어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온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다행이겠느냐, 불행이겠느냐?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그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감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들 너무 순박해서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겁도 많죠. 감히 큰일을 벌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시끄러운 일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담력과 패기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능력도 있어서 불공평한 일을 보면 용감하게 나서고, 소송이 걸려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그 도량을 보면 그는 타고난 공직자감입니다. 그가 정치를 하면 의원은 못 해도 성장(省長)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안 되겠지만요. 그러니 교회는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합니다. 그가 이끌면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몇몇 우매한 사람은 사회에서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런 부류를 특히 우러러보고 숭배하며, 교회 리더로 뽑으려고까지 한다.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느냐? 교회에 이런 '능력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편, 본분을 이행하여 복음을 확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소위 담력과 패기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끝없는 골칫거리를 안겨 줍니다. 그렇기에 그는 교회 리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말해 두는데, 이런 부류를 교회에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게다가 이런 사람을 리더로 뽑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는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느냐? 교회를 종교 단체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류는 사회의 불공정한 일을 보면 소송을 걸고, 악인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불의에 맞서며, 탐관오리가 백성을 해치는 것을 보면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조금씩 의협심이나 부리는 협객이 될 텐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는 겉으로는 꽤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서 도태되었다. 그가 걷는 길이 바른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그가 걷는 길은 바른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바른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성질은 마귀와 어울리고 얽히는 것이며, 마귀에게 얽매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집은 이런 부류와 선을 그어야 한다. 그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고, 누가 말려도 듣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키고도 교훈을 얻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떠나도록 권고해야 한다. "당신이 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세요. 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당신은 배포가 너무 커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겠네요. 당신 같은 인물은 세상을 누비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루어야 해요. 당신은 정계의 큰 인물들과 어울리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호령하며 훨훨 날 수 있을 테고요. 온종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면 당신의 웅대한 뜻에 방해가 되고 당신이 높이 날아오르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다시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원대한 이상이 없습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며, 악을 조금이라도 덜 행하면 아마 하나님께 인정받을지도 모르죠. 단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니, 당신은 우리와 어울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 노력하세요. 어쩌면 출세해서 당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그가 떠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불신파를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해결법은 진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또 어떤 부류가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는 이성이 유독 많고, 늘 불량한 이성을 꼬시며, 정상적으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그는 이런 관계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에 여러 이성들이 서로 질투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역시 한 가지 큰 골칫거리다. 아마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은 개인의 삶과 신앙에 골칫거리를 안겨 주기 마련이며, 심지어 신변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골칫거리가 늘 그를 따라다니니 그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도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가 그의 이성 친구들과 정말 연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꼬시거나 이용하는 것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일으킨 문제들이 형제자매와 교회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교회는 나서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며, 그에게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라고 권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간섭하지 않는다. 만약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이런 문제를 처리하거나 해결하지도 않는다면 그를 격리시키고 경고해야 한다. "먼저 개인적인 문제부터 처리하세요. 잘 처리하면 다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격리될 겁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으며, 또 어쩌면 중요한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사생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가 만든 골칫거리들이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회의 리더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에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와 사귀는 사람이 그를 통해 교회 상황이나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되어 그 정보를 다른 꿍꿍이가 있는 자나 큰 붉은 용에게 누설한다면 교회와 형제자매에게 해로울 것이다. 따라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나 잠재적 위험은 모두 그가 초래한 것이니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해야 한다. 그의 골칫거리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 집에서도 상황에 따라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본분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도록 권고하거나 제명해야 한다. 요컨대, 교회 리더든, 형제자매든 교회에서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를 발견하면 모두 원칙대로 즉시 처리해야지, 그가 형제자매들에게 위험을 가져오고 교회 사역에 문제를 일으킨 뒤에야 처리하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시비를 일으키고, 치고받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늘 자기 주먹이 세다고 생각하며 천하무적이 되려 하고, 또는 무술을 좀 배웠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 부류 또한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규칙도 공공질서도 지키지 않으며, 늘 독불장군처럼 행동한다. 운전할 때는 빨간불을 봐도 기어코 지나가려 하고, 좌회전 금지인데도 기어코 좌회전을 하려 하며,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을 내게 되면 불복하고 고소하려 한다. 봐라, 그는 누구든 고소하려 든다. 경찰이 법대로 처리해도 고소하려 하며, 법에 불복한다. 이런 얼빠진 자도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 부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지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사람도 많고 세력도 크다고 생각해서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처에서 제멋대로 굴면서 자신의 능력과 대단함을 과시한다. 그러다가 소송을 당해도 뉘우칠 줄 모르는데, 결국 뭐라고 하겠느냐? "이 세상은 정말 사악해요. 저는 불의에 맞서 싸웠을 뿐인데 체포됐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고요!"라고 하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비를 일으켜 문제를 초래하고도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니, 이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악하고 어두워도 네가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비를 일으키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곳곳에서 협객 노릇을 하고 하늘을 대신하여 정의를 행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혹자는 "이 세상의 법은 진리가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설령 법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지 않았고, 살인과 방화를 저질러도 된다고 한 적도 없다. 하나님은 네게 법과 사회 공공질서를 지키고, 어디서나 도덕을 준수하고 규칙을 따르며, 시비를 걸거나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법을 어겼다면 그 결과는 너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 집에 떠넘기지 마라. 그것은 개인행동이므로 개인을 대표할 뿐, 하나님 집은 네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일을 처리하든 하나님 집은 네게 법을 찾아보고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하며, 변호사가 적절한 방법을 말해 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변호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처리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법을 어기면 네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 집에 폐를 끼치지 마라. 설령 변호사가 알려 준 방법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변호사의 조언대로 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하나님 집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 집은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대로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집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돼! 법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지고지상하시니 우리는 오직 진리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고!'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너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야 하니, 법도 진리 원칙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고지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구실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사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도처에서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법을 어기면서 일을 처리하라고 권장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법과 사회 규칙을 지키라고 했다.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되면 달게 받아야지, 일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늘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뒤에서 지지해 주니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말하건대 그건 네 착각이다!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네 태도를 지지해 주지 않고, 하나님 집도 너의 엉터리 논리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집은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크니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의 논리이다. 하나님 집도, 하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집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은 누구에게 뒷받침이 되어 주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문제를 막아 주고 무마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되어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 맞서거나 이 세상에서 큰소리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본때를 좀 보여 주게 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거스르거나 세상의 불합리에 분개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것은 이들을 얻고, 진정한 피조물을 얻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류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목적은 사람이 이 세상이나 이 인류와 대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본분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교회나 본분 이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한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 부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교회에 문제를 초래하고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리더 일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며, 즉시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 왜 처리해야겠느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 또는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사람들 눈에 인재로 보이든, 망나니나 양아치로 보이든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 그를 교회에서 정리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고 그 문제도 처리된다.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눈에 능력자나 인재로 보인다고 해서 절대 빠져나갈 길을 열어 줘선 안 된다. 그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 준다면 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회 리더가 되기에 부적절하니 형제자매들은 너를 파면해야 한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고 형제자매들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과 악인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귀한 손님, 재능 있는 자로 받들며 교회의 귀한 인재로 여기고 중용하려 한다면, 나아가 그들의 문제까지 무마해 주려 한다면 너는 교회 리더로서 너무나 부적격이고 어리석은 자이며 거짓 리더이니 교체되고 도태되어야 한다. 만약 교회 리더가 충고를 듣지 않고 기어이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악인을 보호하거나 중용하려 한다면, 형제자매들은 그를 파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는 자들과 그를 함께 묶어서 제명해야 한다. 너는 그를 숭배하는 것 아니냐? 그도 네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너희 둘은 사이가 무척 좋구나.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둘 다 나가라. 하나님 집은 너희가 필요 없다! 교회에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이런 부류가 있는데 윗선 리더가 이를 알지 못하고, 교회 리더도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부류라면, 이 일은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즉시 윗선 리더에게 보고하는 한편,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여 이 거짓 리더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하여 거짓 리더라고 확인되는 순간 반드시 그를 교체하거나 파면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과 교회 사역, 교회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리더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그 교회 리더와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를 함께 정리해라. 그들 둘은 뜻이 맞아 서로 부러워하고 탄복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 집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시비만 일으키고 문제만 만들어 교회 사역에 크나큰 해를 끼칠 테니 그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들이 어디를 가려 하든,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려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니, 어쨌든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제 12 조에서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부류'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13) 배경이 복잡하다

다음으로 '배경이 복잡하다'에 대해 살펴보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복잡한 배경을 가졌겠느냐? (합법적인 세계와 불법적인 세계를 넘나들며 사회적 배경이 비교적 복잡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 사회인일 것이다. 사회인의 대표적인 작태는 무엇이겠느냐? 앉아서 다리를 꼰 채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떠들어 대며, 천하의 온갖 일을 다 언급하고, 국내외 일도 한참을 이야기하지만 진실한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전부 허풍이거나 제멋대로 꾸며 낸 말, 아니면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다. 허풍을 잘 떠는 부류가 반드시 복잡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허풍을 잘 떠는 사람 중 어떤 이는 단순히 한량이나 평범한 서민일 수도 있다. 이들은 어디서든 허풍을 떨며 거들먹거리고 큰소리쳐서 사람들을 미혹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평판이 나빠지는 자들이다. 어떤 부류가 복잡한 배경을 가졌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당파에 가입했다가 몇 년이 지나도 지위를 얻지 못하면 다시 다른 당파에 가입해서 마침내 작은 수장이나 하급 관리가 되는데,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그와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과연 친구인지 적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그의 가족들조차 알지 못하며, 오직 그 자신만이 안다. 이런 사람은 복잡한 배경을 가진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적 배경이 복잡한 자에 속한다. 오늘은 이 당파를 지지하다가 내일은 저 당파를 지지하고, 오늘은 이 사람의 당선을 지지하다가 내일은 저 사람의 당선을 지지한다. 요컨대, 그의 진정한 속내는 아무도 모른다.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는지, 자신의 정치 노선이나 정치 목표가 무엇인지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매우 은밀하게 숨기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조차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정치에 매우 열중하며, 정치권에 알고 지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지금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런 부류는 교회에 들어온 후 형제자매들이 모두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으로 멸시한다. 하지만 늘 교회가 종교계와 사회에서 가진 인지도와 교회 세력을 빌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하고, 자신의 야심을 충족하거나 정치적 포부를 펼치려 한다. 즉, 교회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거나 교회 단체를 이용하거나 교회의 특정 사람과 일, 사물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는 복잡한 배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마음과 처신 원칙, 그리고 온갖 술수, 대화 전략, 방식과 방법은 일반 서민들이 간파하지 못한다. 특히 젊은이들이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간파하지 못한다. 정치적 배경이 복잡한 부류에게 정치적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손아귀의 노리개일 뿐이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동물 중 가장 교활한 것이 뱀과 여우, 호랑이 같은 동물인데, 그것들은 양, 토끼, 사슴, 개를 매우 바보 같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이 부류는 마치 여우나 뱀 같은 교활한 동물이 양, 사슴, 개처럼 순박한 동물들을 보듯 대다수의 형제자매를 본다. 그들은 형제자매들을 간파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들은 그들을 간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배경이 복잡한 이런 부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정치를 하는 이 부류는 마음이 온통 정치와 권력에만 있다. 그가 권력을 좋아하고 정치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한 언젠가는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며, 계속 그렇게 교회에 숨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드러날 때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보니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구나! 그에게는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었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야!'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속내를 잘 숨긴 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본분도 이행하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교회를 이용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야심과 민낯이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고, 형제자매들은 그제야 그가 불신파임을 알아보게 된다. 그가 드러나면 무척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 떼에 섞여 있을 때는 늑대인지 양인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놈이 양을 잡아먹을 때는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정치를 하는 자들은 모두 교회에 섞여 들어온 불신파이다. 그가 형제자매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여 어떤 당파에 가입시키고 자신과 함께 정치에 참여시키려 할 때, 너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임을 알아챌 것이다. 그의 배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올라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배경이 복잡한 사람 중에서 정치적 배경이 복잡한 부류이다.

배경이 복잡한 사람에 속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어떤 이들은 사회에서 분수를 지키며 착실하게 살아가지는 않고,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자들이 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 위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겉으로는 공직자나 사업가지만 뒤에서는 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일부 공직자나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몰래 총기나 마약, 또는 국가 금수품을 밀매한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 도굴이나 강간, 성폭행, 심지어 인신매매나 밀입국 알선 등의 악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배경이 복잡한 부류는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데다가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서로 형제라 부르며 서로 이용하고 일을 처리해 준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악행이 없고 도둑질이나 강도질,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지도 않지만, 그들이 어울리는 무리나 가까이 지내는 범위 내에는 전부 이런 불량한 이들뿐이다. 그러니 이런 부류도 꽤나 무섭지 않으냐? (무섭습니다.) 그는 이런 자들과 함께 투자하고 사업하고,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니, 주범은 아니어도 공범이다. 이런 부류는 늘 법의 경계선을 넘나든다고 할 수 있다. 법의 경계선을 넘나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이 부류는 자주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이 밖에, 그는 수시로 법의 허점을 노리는 데다가 하는 일도 모두 규모가 큰지라 잡히는 순간 공범으로 10 년~20 년 형을 선고받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말해 보아라, 이런 부류는 골칫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인이나 방화, 누구를 속이거나 모함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지만, 불법적인 세계에서든, 합법적인 세계에서든 뇌물을 받아먹고 법을 어기는 자들이 법률을 위반해 폭리를 취할 때 그도 그 행위에 지분과 몫이 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 부류는 배경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집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은 일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세계, 합법적인 세계 모두와 어울릴 뿐 아니라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니, 이런 것을 가리켜 배경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공직자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리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각종 불법 행위나 범죄 사건에 가담하는 부정적인 인물들과 어울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며, 언젠가 일이 터질 것이다. 그는 이런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게다가 이런 자들에게 빌붙어 그들의 세력을 업고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려 한다. 그러니 이런 자가 좋은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한다. 불법적인 세계든 합법적인 세계든, 그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자가 분수를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겠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그가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고 그들을 위해 처리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그와 어울리는 불법적인 세계와 합법적인 세계의 사람들을 좋아하며,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재능, 세력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모두 그가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런 자들과 한 부류이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다. 이 세상에 너를 위해 일을 처리해 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네 친구가 되어 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존재하긴 하니 굳이 그런 자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 그가 그런 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서로 취향이 맞고 유유상종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이익을 위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을 사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군자는 재물을 좋아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방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든 없든, 어쨌든 이것은 인류 가운데서 비교적 고상한 생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배경이 복잡한 이 부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사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도 않으며,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과도 어울린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신의 수법에 매우 흡족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류를 어떻게 봐야겠느냐? 이런 자들은 합법적인 세계든 불법적인 세계든 가리지 않고 넘나드니, 이것이 바로 배경이 복잡한 것이다. 이런 부류는 너무나 무섭다! 이런 자가 드러내는 얼굴이 과연 진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는 언제나 가면을 쓰고 있으므로 너는 영원히 그를 간파할 수 없고, 그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가면을 쓰고 너와 어울리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이는 마귀가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간 것과 같고, 여우나 늑대가 양 떼에 섞여 들어간 것과 같은데, 너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전감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의 교활하고 흉악하고 사악한 본성 때문이다. 그는 시시각각 너를 음해하려 하는데, 마치 음흉하고 사악한 눈동자를 번쩍이며 항상 뒤에서 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기회를 틈타 너를 없애고 삼켜 버리려는 것 같다. 이것이 무섭지 않으냐? (무섭습니다.) 그가 주는 느낌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너는 그의 본성과 배경 때문에 늘 그가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것이다. 어떤 위협이겠느냐? 그가 네 곁에 있으면 너는 늘 그가 언제 어디서든 너를 음해하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너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네가 언제 그에게 이용당하고 해를 입어서 그의 손에 죽고 망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자는 절대 곁에 둘 수 없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양 떼 속에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놓는다면, 이것이 양 떼를 보호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망치는 것이겠느냐? (망치는 것입니다.) 늑대의 본성에 따르면 늑대는 절대 양의 곁에서 양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늑대의 머릿속에서 양은 먹잇감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배가 고파지면 잡아먹으려 할 것이며,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늑대는 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는 어릴 때부터 양과 함께 살면 양을 보호 대상으로 여겨서 늑대가 양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 할 때 자발적으로 나가 맞서 싸우고 당연하게 양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는다. 개는 이런 천성을 가졌다. 하지만 늑대는 다르다. 늑대의 천성은 양을 잡아먹는 것이다. 배경이 복잡한 부류가 교회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늑대가 양 떼에 섞여 드는 것과 같다. 늑대가 배고프지 않을 때는 양에게 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배가 고파지면 양은 반드시 늑대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른 늑대를 분별해 내야 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순간, 곧바로 늑대를 처리해야지 망설이거나 사정을 봐주어서는 안 된다. 배경이 복잡한 이 부류는 반드시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만약 그가 악을 행하여 교회를 교란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절대 봐주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당신은 사회인이니 하나님을 믿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집에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기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사회에 나가 당신의 앞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교제하며 본분을 이행하여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뿐, 음모와 계략을 꾸미거나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승진하거나 돈을 벌 수도 없고, 남보다 좋은 삶을 살 수도 없으니, 아무리 오래 있어 봤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를 권고하여 내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회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악인인 것은 아니며, 큰 악을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불신파에 속한다. 이런 부류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늑대를 양으로 바꾸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늑대는 아무리 오랜 시간 양의 탈을 쓰고 있을지라도 늑대일 뿐, 양이 될 수는 없다. 바로 이런 이치다. 그러니 이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웃음거리이며,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이다!

배경이 복잡한 사람에는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각 종파의 종교 지도자나 관리자, 또는 지위가 있는 인사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수시로 각 교파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이들과 인맥을 쌓고 친구가 되어 서로 이용하며 일을 처리해 준다. 심지어 때때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교회 내부의 사무나 인사 관련 일들을 이들에게 누설하는데, 이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다. 네가 단순히 종교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런 종교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종교계의 각종 기념일 행사와 의식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교회 사역이나 형제자매들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누가 '동방번개'를 받아들였다든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든가, 집이 어디에 있다든가, 평소 누구와 어울린다든가 등의 일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누설한다면 그것은 네가 매우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일단 누군가가 정부에 신고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가 종교계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친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배경이 복잡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뒤에서 다른 짓을 저지른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 집의 사역지침을 누설하고, 하나님 집의 내부 사무 혹은 형제자매들의 개인 정보 등을 누설한다면, 그것은 배반의 성질을 띠며 정죄받게 된다. 특히 일부 형제자매는 체포된 적이 있거나 현재 수배 중이라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이 누설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그는 이런 정보를 어떤 이익과 교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누설함으로써 형제자매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이런 일을 발견하는 즉시 그를 정리해야지 절대 가볍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박해받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본분 이행 기회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모두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본분 이행에 잠재적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누가 형제자매들의 본분 이행이나 개인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절대 가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발견하는 즉시 제명하고 출교시킬 것이다.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말실수를 했어요."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절대 믿지 마라. 그런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집안일은 왜 밖에 말하지 않느냐? 왜 하필 형제자매들의 일을 말하느냐? 이는 분명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정보를 누설해서 형제자매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교회가 복음 사역을 확장할 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교회와 형제자매를 팔아넘기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뒤에서 온갖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렇게 어울리는 목적도 순수하지 않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입단속을 하지 못하고 교회 내부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 말하다가 결국 형제자매들과 교회에 골칫거리를 가져다준다. 그러면 그 죄는 입단속을 하지 못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안 된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왜 너 자신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느냐? 왜 남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냐? 네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골칫거리를 가져다준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이 죄는 마땅히 네 몫이다. 만약 사람을 죽인 후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요."라고 말한다면 그 말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소용없다. 네가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 법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니 너는 사실에 근거해 정죄되어야 한다. 네가 저지른 죄가 살인죄라면 너는 살인범이니,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이는 일을 처리하면서 늘 교회에 골칫거리들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로 인해 형제자매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나님 집은 이런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잡히는 족족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저주할 것이며,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율법시대에 일어났다면 악을 행한 자를 끌어내 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는 식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집의 행정 법령에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 그를 출교시킨 후 형제자매들이 함께 그를 저주해야 한다. 그가 복을 받고 구원받고 싶어 한들 어림도 없다. 지옥에 떨어져 징벌받게 해라!

배경이 복잡한 자 중에는 또 한 부류가 있다. 바로 특수 임무를 띠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국가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도 있고, 특정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감시하거나 교회의 각종 사역, 각 시기별 사역지침을 정탐한다.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든, 어쨌든 이 부류는 우리가 보기에 배경이 복잡한 사람에 속한다. 배경이 복잡한 부류 중 대부분은 불신파에 속하고, 모두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음이 작거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관념이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방금 말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배경이 복잡한 부류는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인성을 살펴보자. 이 부류의 인성이 어떻겠느냐? (그들은 사탄과 한패로, 인성이 좋지 않고 사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마귀입니다.) 맞다. 핵심을 짚었다. 그들은 교회에 섞여 들어온 마귀로, 온갖 의도와 목적을 품고 교회에 섞여 들어 어두운 구석에서 살아가는 부류이다. 이런 부류는 마귀이다. 그들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좋은 뜻이 없었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든, 정부나 어떤 단체의 부탁을 받았든, 아니면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섞여 들어왔든 상관없이 이 부류는 전형적인 사회인으로, 어울리는 사람의 범위가 넓고, 대인 관계나 사회관계도 복잡하여 배경이 복잡하다. 소위 배경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관계나 대인 관계, 생활 환경이 특히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과 달리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벌어 잘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의 다양한 무리와 단체에서 걸출한 인물이나 선두 주자, 혹은 비교적 출중한 인물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말하는 '능력자'나 '고수' 같은 부류이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올바른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각종 단체와 무리에서 기회를 틈타 이득을 취하거나, 세력을 얻거나, 사람을 통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생존 목표이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가짐은 마귀처럼 꿈틀거리며,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재물을 통제하고, 세력을 통제하고, 권력을 통제하려 한다. 이 부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 임무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정부나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부탁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부류는 교회에 와서 분수를 지킬 리 없다. 설령 아무런 임무가 없고, 교회나 형제자매들을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단순하지 않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목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목 밑이 시원하듯 기회를 기다렸다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단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욕망이 좌절되면 그들은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들이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행동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용할 대상이 있고 때가 무르익어 자신의 목적이나 포부, 혹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부류는 교회 내에서도 위험인물이니 분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만약 그 사람의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의 배경이 복잡하다고 어렴풋이 느꼈다면, 리더 일꾼으로서 적어도 그를 중용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 지위나 권력을 주어서도 안 되며,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역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관찰해도 되지만, 절대로 경솔하고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를 간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지위를 주고, 심지어 중요한 사역까지 맡긴다면 너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그를 간파하지 못할수록 중요한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되고, 더욱 신중해야 하며, 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관찰해야 한다. 사실 배경이 복잡한 이 부류는 임무가 있든 없든 결국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불신파들은 마음속으로 신앙에 관한 일에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진리 선포와 관련된 것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늘 '하나님을 믿어서 얻을 이익이 있을까?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있을 때처럼 자기 음모와 간계를 꾸밀 수 있을까?'와 같은 것들만 연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집이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늘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딴마음을 품고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책망받는 것을 보면서 반감을 느낀다. 하나님 집에 있으면 즐겁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느끼며 늘 기회를 찾아 떠나려고만 한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택한 대상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언급되는 이런 진리를 20 년, 30 년 동안 들어도 싫증 내지 않고, 평생 들어도 새롭게 느낄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해지고, 마음이 풍족해지며, 마음속으로 더욱 진리를 갈망하게 되어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기꺼이 들을

것이다. 특히 자신에게 유익한 체험 간증을 들으면 마치 푸짐한 식사를 즐긴 것처럼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며, 황금을 주운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불신파, 마귀, 특히 배경이 복잡한 부류는 진리 교제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워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며, 반감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며, 앉아서 설교를 듣게 하면 고문을 받는 것처럼 여긴다. 그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푸짐한 식사를 즐긴 것처럼 행복해하시나요? 저는 왜 반감이 들까요?"라고 말하며, 좀 오래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만약 리더가 되지 못하면 본분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그런 고생도 하려 하지 않으며, 시간이 길어지면 재미없다고 느끼고, 불신의 마음이 드러난다. 불신파는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 배경이 복잡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찰하는 동안 그의 내력이 불량하고 배경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떠나도록 권고해야 한다.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관직에 오르려는 꿈이 있는데, 이번 생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관직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세상을 추구해야 실속 있는 거죠. 당신은 사업 수완도 있고, 관직에 오를 재목이니, 세상을 추구하면 틀림없이 부자가 되고 관직에도 오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지음(知音)을 만난 것처럼 말할 것이다. "당신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닿네요. 신앙이란 사실 정신적인 작용이니,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죠. 인생은 짧디짧아서 몇십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월을 보내 봤자 얻은 것도 없고, 마음은 늘 불만스러우니, 이건 저 자신을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큰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그는 네 말에 동의할 것이다. 일단 동의하면 어느 날 교회에 있는 게 따분하다고 느낄 때, 게다가 약간의 역경에 부딪치거나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스스로 물러날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좋으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마귀를 교회에서 떠나보내기는 쉽다. 그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하면 그를 떠나보낼 수 있고, 순리대로 그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불신파는 이렇게 처리해라.

교회에서 배경이 복잡한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제때 떠나도록 권고하거나 제명해야지, 붙잡아서는 안 된다. 왜 붙잡지 말아야겠느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택한 대상이 아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교회에 남아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교회 사역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량이 작은 일부 형제자매들을 미혹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 집의 사람들은 그들을 못마땅해할 것이며, 그들도 하나님 집의 형제자매들을 마땅찮아하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 집과 교회, 형제자매들을 적대시할 것이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교회에 이런 원수, 숙적이 있으면 너희 마음이 교란되지 않겠느냐? (교란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붙잡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발견하는 즉시 떠나도록 권고하거나 제명하고 출교시켜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즉시 멀리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는 두루뭉술하게 말해 말솜씨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별로 대단한 인재가 아니다. 하나님 집에는 배경이 복잡한 이런 부류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부류를 발견하면 바로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 집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다. 배경이 복잡한 이런 부류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가 배경이 복잡한 부류인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그가 보이는 모습이 이 부류와 일치한다면 이 부류로 귀속시키면 되겠지만, 가끔 허풍을 떨고 허튼소리를 했을 뿐인데, 도가 지나쳐서 배경이 복잡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런 자는 배경이 복잡한 부류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이런 상황은 구별해서 대해야지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본분 이행 태도에 근거한다

인성에 근거하여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교제를 마치겠다. 또한, 본분 이행 태도에 근거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이전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겠다. 안녕!

2024 년 7 월 6 일

리더 일꾼의 직책(29)

제 15 조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각각의 중요한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리더 일꾼의 직책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난번에 어디까지 교제했느냐? (지난번에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 중에서 인성에 따라 각 부류를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마지막 세 가지 조항을 주로 교제했습니다. 교제한 세 가지 모습은 각각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은 것,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것, 배경이 복잡한 것입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4 조의 마지막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제를 마쳤으니 오늘은 제 15 조를 교제하겠다. 제 15 조는 무엇이냐? (제 15 조는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각각의 중요한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리더 일꾼의 또 다른 측면의 직책과 관련 있고, 리더 일꾼이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기도 하다. 이 사역은 무엇과 관련 있느냐? (하나님 선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신변 안전이라는 문제와 관련 있다. 이러한 측면의 주제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접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주제가 낯설게 느껴지느냐?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국 형제자매는 이 주제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사회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박해당하고 체포당하기 때문에 본분 이행이나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역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 내의 사역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든 없는 국가이든 각각의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 사역이다. 사역의 중점이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모두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이 안전하고 안정적인지, 본분 이행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역이다. 따라서 민주 국가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이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이 사역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 살든, 박해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이 사역은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 내의 사역이고, 리더 일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이 사역을 부수적인 사역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럼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문제에 대해 교제해 보자.

중요한 사역 인원의 범위

우선 제 15 조에서 언급한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자. 이는 교제해야 할 주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선 사역 대상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누가 말해 보겠느냐?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는 영상팀, 영화 제작팀, 문서팀, 찬양팀 등의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그 밖에 각각의 중요한 사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형제자매나 각 팀의 책임자도

포함됩니다.) 누가 더 보충해 보겠느냐? (리더 일꾼도 포함됩니다.) 리더 일꾼은 반드시 잘 보호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재무 인원처럼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다가 지명 수배되거나 공안국에 기록이 있는 형제자매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도 중요한 사역 인원에 해당하는 부류이자 특수한 무리이다. 총 몇 가지 부류가 있는지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부류는 리더 일꾼이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집의 각 사역에서 필수적인 인원이다. 특히 각 사역의 팀장이나 책임자, 혹은 자질이 뛰어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으며 원칙을 파악하여 중요한 사역 하나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다. 각각의 사역 인원에는 문서, 찬양, 영화 제작 등과 같은 사역을 하는 인원, 그리고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 복음 지휘 등 많은 이들이 포함된다. 그 밖에 재무, 보관, 외부 업무와 같은 사역을 하는 인원도 포함된다. 이들도 교회 사역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각각의 사역 인원 안에 포함된다. 이들이 두 번째 부류이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에서 위험한 사역을 하는 인원이다. 특히 일부 사역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 전제 국가에서 하기에는 아주 위험한데, 서적을 인쇄하거나 운송하는 사역, 교회 재산을 보관하는 사역,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섬기고 배치하는 사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어떤 인원이 있느냐? (일부 사무 인원들은 외부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때 비교적 위험합니다.) 그들도 위험한 사역을 하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은 분명 가끔씩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런 중요하고 위험한 사역을 할 것이다. 정보 전달, 사역지침 하달, 하나님 집의 모든 영상이나 영화, 혹은 설교 녹음 하달 등이 그런 사역에 해당한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거나 위험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 선민이 누구인지 리더 일꾼이 속으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어쨌든 그들도 중요한 사역 인원에 해당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리더 일꾼은 그들의 안전 문제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세 번째 부류이다. 네 번째 부류 역시 교회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류로 특수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하는 일, 교회를 양육하거나 특정한 사역을 책임지고 조직하는 데 능하다. 이런 부류는 리더 일꾼일 수도 있고 각 사역의 책임자이거나 위험한 사역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이 하는 그 중요한 사역에 공백이 생기고 아무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마땅히 보호해야 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런 부류도 있다. 또 다른 부류는 종교가 박해당하는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명 수배되거나 공안국에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지명 수배 범위가 얼마나 넓든,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지명 수배된 사람이라면 리더 일꾼은 마땅히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하고, 그들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배치해 본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중국은 종교 신앙을 박해하는 모든 국가 가운데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중국의 각 성과 지역마다 체포되고 지명 수배되어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세계 각 지역과 대륙에도 중국처럼 종교 신앙을 박해하는 국가가 몇몇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해당하여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리더 일꾼은 박해당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교회에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 현지 여건에 맞게 그들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배치해 본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먼저 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 이처럼, 체포되었거나 지명 수배된 인원이 보호받아야 하는 다섯 번째 부류이다.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 해당하는 특수한 무리가 또 있는데, 이런 부류는 지금은 리더 일꾼이 아닐 수도 있고 위험한 사역을 하지도 않지만 예전에 많은 본분을 이행한 적이 있고 했던 사역이 관련된 분야가 꽤 광범위해서 섬김 가정을 많이 알고 있고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류도 체포되면 교회 사역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류를 정보통이라고 부르는데, 이들도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 포함시켜야 하고, 리더 일꾼이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 또한 모든 하나님 선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부류 중 일부는 덜렁대고 조심스럽지 못하며 그다지 지혜롭지도 않은 데다가 늘 열정에 휘둘려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는데, 그들은 체포된 적도, 혹형을 당한 적도 없어서 위험한 줄 모른다. 사고가 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나아가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 이름이 알려져서 정부에 감시당한다. 이러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그들은 잡혀서 혹형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유다가 되어 형제자매를 팔아넘긴다. 그러면 교회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고, 다른 형제자매까지 연루되어 체포되고 수감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로써 교회의 각 사역에 심각하게 지장을 준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만약 현지에서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를 외지에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내 본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이런 부류도 있다. 이런 부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리더 일꾼이 따로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 포함된다. 총 몇 가지 부류가 있느냐? (여섯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리더 일꾼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집에 필수적인 각각의 사역 인원으로, 책임자, 팀장, 지휘자, 그리고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의 위험한 사역을 하는 인원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특수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인원입니다. 다섯 번째 부류는 공안국에 기록이 있거나 추적당하거나 지명 수배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부류는 정보통입니다.) 각각의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마쳤지만 부가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다. 만약 교회의 일부 형제자매가 외지에서 본분을 이행하거나 체포되어서, 혹은 어떤 뜻밖의 사고로 인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보살필 수 없다면 리더 일꾼은 그의 자녀를 적절한 집에 배치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역시 하나의 특수한 사역이다. 비록 이 사역은 교회 사역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사역이지만 리더 일꾼은 반드시 책임을 다해 이런 미성년 자녀들을 잘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들에게 적합한 친지가 없거나 친지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면 교회가 응당 받아들여 그들에게 적절한 섬김 가정을 안배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도록 안배해야 한다. 배치한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더 좋다. 이런 경우 그들은 성년이 되면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년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갈 것이고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다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들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적절합니다.) 이 사역은 비록 교회의 각 사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리더 일꾼의 직책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자녀를 안착시켜야 한다면 리더 일꾼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몰라도 알았다면 물어보고 처리해야 한다. 그 책임을 짊어지고 그들을 적절히 배치해야지 본분을 이행하는 형제자매, 특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 형제자매가 뒷걱정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는 최소한 여섯 부류가 있고, 일곱 번째 부류는 부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 각각의 대교구나 국가마다 앞서 말한 여섯 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국가에 있든 리더 일꾼과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잘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다. 이는 모든 교회의 리더 일꾼이 반드시 중시해야 하는 사역이자 리더 일꾼이 반드시 다해야 하는 책임이기도 하다.

중요한 사역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1. 섬김 가정의 안전 조건

중요한 사역 인원에 대해 확실히 이해했으니, 이제 리더 일꾼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 즉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그럼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리더 일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사역과 관련되면 일부 리더 일꾼은 난감해하며, 쩔쩔매고 애가 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런 중요한 사역 인원을 배치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게 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역 인원을 형제자매의 집에 배치하든, 셋집에 배치하든 반드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나는 섬김 가정 내부의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환경이다. 내부 환경 측면에서는, 우선 섬김 가정의 주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섬겨야 하고 입이 무거우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지혜로워서 일단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줄 알아야 하며, 수동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현지에서 명성이 비교적 좋거나 어느 정도 위신과 인맥이 있어야 하는데, 설사 세력은 없더라도 최소한 분수를 지키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돼먹지 못한 사람을 집에 불러들이지 않아야 하며 마작하는 마작 친구나 술친구도 없어야 한다. 외부 관계나 이웃 관계도 비교적 정상적이어야 하고 채무 갈등이나 이웃 간의 시비 분쟁도 없어야 한다. 즉, 집안 환경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인간관계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인이 집에 와서 방해하는 등등 일도 거의 없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다 적절해야 한다. 게다가 자녀나 친척 모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최소한 그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야

하며,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섬김 가정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적절한 것은 없고 최소한 주거 환경이 적절해야 한다. 조용하고 외부에 방해받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일부 섬김 가정은 비록 가족 구성원 중 절반만 하나님을 믿지만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서 위신이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나 친척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에 감히 간섭하지 못한다. 설사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발설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정말로 일이 생겼을 때는 나서서 지켜 주기도 한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이런 섬김 가정에서 살면서도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섬김 가정의 주인은 소심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자녀가 폭로하거나 주위 이웃이 알고 신고할까 봐, 사고가 나서 잡혀가게 될까 봐 더더욱 두려워한다. 일단 집에서 형제자매를 섬기게 되면 매일 마음을 졸이는데,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자며 하루 종일 도둑질하듯 안절부절못한다. 정부가 호구 조사를 한다거나 정부 인사가 온갖 명분을 대며 집에 찾아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소문이라도 들으면 그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형제자매를 서둘러 떠나보내려 한다. 형제자매는 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서둘러 이동해야 한다. 이런 곳은 잠시 머물며 며칠 지내기에는 괜찮지만 섬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만약 섬김 가정의 자녀나 친척, 친구가 모두 악인이라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교란하러 오거나 심지어 형제자매를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면 그건 너무도 위험하다. 이런 섬김 가정은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 어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마치 노예와 같아서, 입으로는 "괜찮아요. 저희 아이는 제 말을 잘 들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자녀는 상황을 봐 가며 그의 말을 따른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 있으면 그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섬긴다고 감히 알리지도 못한다. 만약 그의 자녀나 친척이 알게 되면 분명히 형제자매를 내쫓으려 할 것이고, 그는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하고 직접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섬김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는 섬길 마음은 있으나 섬길 용기는 없다. 겁이 많은 사람이 감히 섬길 수 있겠느냐? 형제자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 신청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에게 큰소리쳐서도 안 되고, 이 본분을 맡아서도 안 된다. 리더 일꾼이 만약 형제자매를 이런 가정에 배치해 섬김을 받도록 한다면 과연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형제자매를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자매는 원래 다른 곳에서 꽤 안전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그의 집에 배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자녀와 친척들이 그의 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신고하고 형제자매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그러면 형제자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그 사람은 화를 입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섬김 가정의 주인이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데다가 평소에도 상당히 지혜롭다면 이런 섬김 가정은 선택해도 좋다. 그가 목숨을 걸고 형제자매를 보호하지 못하며 집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고한다거나 형제자매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말만 하면 어쩔 줄 몰라서 겁쟁이가 된다면, 형제자매를 보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경찰에게 넘기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런 가정은 섬김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아쉬운 대로 그의 집에서 임시로 며칠 머물다가 적절한 곳을 찾자마자 바로 옮기는 것은 괜찮겠지만 장기간 그곳에 머물며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섬김 가정은 최소한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섬김 가정에게는 이런 측면이 요구된다. 본분 이행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거주 환경이 적절해야 할 뿐 아니라 섬김 가정의 주인이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섬김 가정의 주인이 중요한 사역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리더 일꾼이 중요한 사역 인원을 그 집에 배치할 수 있다. 만약 섬김 가정의 주인이 믿음도 작고 무능하고 나약하며 집안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자녀나 친척 중 누구든 그의 집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면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런 곳은 결코 섬기기에 적절하지 않다. 설사 그의 집이 크고 방이 많고 환경이 쾌적하며 조건이 꽤 좋더라도 섬기기에는 부적절하다. 단지 거주 환경만 적절해서는 안 되고 섬김 가정의 주인도 적절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섬김 가정의 주인은 우선 섬김을 받는 본분 이행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거주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환경은 조금 열악해도 괜찮다. 방이 별로 넓지 않거나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식사가 조금 부실하거나 물 사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섬김 가정의 주인이 적절하다면,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런 위험에 대응할 수 있고 여러 복잡한 환경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면, 특히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하고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섬김 가정의 주인은 기준에 맞는 것이다. 우리는 섬김 가정의 거주 환경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2. 거주지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섬김 가정의 외부 환경이 안전한지 여부는 리더 일꾼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섬김 가정의 조건이 어떻든, 형제자매의 집에 머물든 셋집에 머물든 거주지의 외부 환경이 안전한지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우선 이 섬김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공안국에 기록이 없어야 적절하다. 만약 이전에 형제자매가 그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웃이 정부에 알려서 정부가 이미 이 가정에 자주 낯선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파악했다면 그곳은 섬기기에 부적절하다. 세 들어 살더라도 이런 부류의 집에 세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밖에도, 일부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아 강도 사건, 살인 사건 등 각종 사건이 빈발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주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주 호구를 조사하고 신분증을 검사하며 일부 범죄 사건의 용의자인지도 조사한다. 너희 생각에 이런 곳에 살면 늘 방해받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거주하기에 부적절하다. 경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근처에서 절도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고, 범인을 보면 서둘러 신고하라고 한다. 경찰이 늘 온갖 핑계로 문을 두드리며 사건을 조사하지만 사실은 외부인이나 낯선 사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사하러 온 것이다. 이런 섬김 가정에 살면 안전하다고 느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이고, 설사 외부의 그런 범죄 사건이 섬김 가정과 무관하더라도 마음은 평온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살면 늘 신변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경찰이 낯선 사람을 보고 캐물어 결국 형제자매를 잡아갈 수도 있다. 이는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국인은 대부분 안전 의식이 없어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만 들으면 바로 가서 문을 열어 주고 평소에도 문을 잠그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 쉽다.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주택은 사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부인이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범법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 사유지에 침입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지 않아도 되고 거절할 수 있다. 설사 미리 약속하고 온 사람이더라도 네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생각을 바꿨다면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다시 시간 약속을 잡아도 된다. 서양 국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법적 의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은 이런 법적 의식이 없어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만 들으면 얼른 가서 문을 열어 준다. 이는 경각심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식도 없는 것이며 이런 측면의 법률을 모르는 것이다. 중국은 독재, 전제 국가로 일당 독재가 법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 제도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큰 붉은 용이 중국에서 무법천지로 악행을 일삼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없다. 중국인은 인권을 중시하지 않고 준법정신도 기르지 못했으며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없다. 대다수 사람이 법률로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어쨌든 치안이 좋지 않고 거주자의 배경과 신분이 복잡하며 늘 조사를 받고 각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모두 외부 환경에 방해받기 쉬우므로 이런 곳은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는 중요한 사역 인원의 거처를 배치할 때 치안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본분 이행 인원의 거주 환경은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가능한 한 번화가나 위험한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번화가는 주로 어떤 곳을 가리키느냐? 철도나 도로 주변, 사거리, 혹은 시장 같은 곳이다. 특히 철도의 주요 노선은 하루에도 기차가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근처 집의 바닥도 같이 흔들린다. 이런 환경에서는 결코 평온하게 본분을 이행할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밖에서 본분을 이행하느라 늘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에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곳에 머물기에 더욱 부적절하다. 녹음 사역이나 문서 사역처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사역의 경우 최소한 소음에 영향받지 않아야 하고,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가장 적절하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음이 조금 있어도 괜찮다. 거주 환경이 안전하기만 하면 되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머무는 집이 신호등이나 사거리 근처 등 교통 요지에 있다면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행인과 차량이 지나다닌다. 이런 집은 수많은 행인의 시선에 노출돼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눈으로 대충 훑어만 봐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특히 밤에 불을 켠 뒤에는 집 안의 상황이 훤히 보인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 환경이 적절하겠느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늘 방해받는다. 낯선 사람이 관찰하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고, 낯선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깜짝 놀란다. 매일 마음이 편치 않고, 늘 누가 감시하고

있으며 어쩌면 누군가 뒤에서 지시하고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집은 품질이 떨어지고 방음도 잘 되지 않아서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찬양을 틀어 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다 들린다. 그 밖에도, 집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낙뢰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밖에 나오기만 하면 주위의 이웃이 다 볼 수 있어서 가끔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조차 불편하다. 늘 창문을 굳게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있어야 해서 항상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늘 밖에서 누가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을까 봐 걱정되어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불편하다. 형제자매들이 늘 동시에 출입하지는 않지만 각자 출입할 때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으니 결국 그 집에 낯선 사람이 총 몇 명 사는지 외부인들도 대강 파악하게 된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 안에서 본분을 이행합니다. 설사 밖에 나가더라도 번갈아가며 나가지 한번에 다 같이 나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주위 이웃도 알지 못할 거예요.' 번갈아가며 나가더라도 일단 누군가 네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방인 중에는 자기는 잘 살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 일만 관찰하고 연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망원경으로 몰래 훔쳐보며 네가 집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피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면 곧장 정부에 알려서 상을 받기도 한다. 일단 이런 사람이 너를 노린다면 위험한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의 타깃이 되면 좋을 게 있느냐? 잡혀갈 게 뻔하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나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너를 감시해서 한 푼도 못 벌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한다. 심지어 돈을 들이고 시간을 쓰며 자신의 일을 그르치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신고해서 상금도 탈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러려고 한다. 특히 중국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감시하는 사람이 몹시 많다. 그들은 진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면 신고한다. 신고 포상금이 있으면 신이 나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면 교회에 골칫거리를 안겨 주기 쉽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그런 방해를 받는다면 리더 일꾼이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것 아니냐? 중요한 사역 인원을 배치한 장소나 환경이 부적절하다면 리더 일꾼이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는 곳이 너무 눈에 띄면 사고가 나기 쉽고, 사고가 난 뒤에야 그곳이 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따라서 본분을 이행할 때 적절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핵심 사역이다. 잘 선택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하기 아주 쉽다.

3. 리더 일꾼은 어떻게 배치 사역을 하는가

중요한 사역 인원의 거주 환경에 대해 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이든 리더 일꾼은 여러 측면의 문제를 꼼꼼하게 고려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며 외부와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몹시 복잡하고 온갖 마귀가 다 존재한다. 어느 곳에 있든 남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엿보기 때문에 너는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다. 너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법도 어기지 않고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고 그저

본분만 이행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왜 그토록 많은 인력과 물력을 들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겠느냐? 너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느냐? 너는 영영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마귀 사탄의 본성을 얼마나 꿰뚫어 볼 수 있느냐? 너는 마귀 사탄을 너무도 모른다. 이 사회는 몹시 복잡하다. 마귀 사탄은 악을 행하는 것들로,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선민을 체포하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것이다. 만약 사탄을 늘 정상인으로 대한다면 너는 참으로 무지한 것이다. 그건 네가 이 사회의 사악함, 나아가 마귀 사탄의 가증스러움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리더 일꾼은 반드시 본분 이행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본분 이행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적절한 거주지를 골라야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하나님 집에서 사역지침을 통해 이런 일들에 대해 교제했듯, 형제자매가 본분 이행에 영향받지 않고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은 리더 일꾼이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건성으로 대하고 무책임하게 굴고, 오직 자신의 안전에만 정신이 팔려 형제자매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만약 네가 부주의하고 세심하지 못하며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무책임해서, 혹은 환경이 두렵고 골칫거리를 피하고 싶어서 행동하지 않는 바람에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일부 인원이 잡혀서 형제자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교회 사역을 지체시키고 형제자매에게도 해를 입혔다면 너는 리더 일꾼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은 돈을 좀 들여 보상하거나 기도하고 죄를 인정하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 이 일의 성질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원한 오점이자 과오로, 네 잘못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 '잘못'은 일반적인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는 과오이다. 만약 과오가 너무 많다면, 이전에도 과오를 범했고 오늘도 과오를 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오를 범하게 된다면 몇 가지 큰 과오가 합쳐져 너는 침륜과 멸망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헛되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구원받을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징벌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이 원칙대로 사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리더 일꾼은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위험해도 현지 여건에 맞춰 최선을 다해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배치해야 한다. 그 목적은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중요한 사역 인원을 배치한 곳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거주하는 집이나 환경 이외에 섬김 가정의 여러 측면의 상황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사항과 원칙이 있다. 리더 일꾼은 섬김 가정을 하나 찾으면 우선 그 집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지 알아보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 어떤지, 남과 갈등은 없는지, 원수가 있지는 않은지, 정부와 갈등은 없는지, 자주 송사에 휘말리지는 않는지, 사회적인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은지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섬김 가정의 주인이나 혹은 주인의 자녀, 가족이 사회적인 관계가 복잡하고 일가족이 늘 평안하지 못하며 항상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 성가시게 굴거나 빚을 독촉한다면, 혹은 강도나 도적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거나 정부나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는다면 이는 모두 아주 골치 아픈 일이다. 만약 네가 이런 집에서 예배하거나 본분을 이행한다면 교란당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섬김 가정을 찾았을 때는 우선 기본적인 상황을 물어보고 파악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고 당장은 더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 섬김 가정의 주인이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봐라. 만약 그가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떨쳐 버리지도 못한다면 그 가정은 형제자매를 섬기기에 부적절하다. 거기에서 거주하면 언제든 외부 환경이나 사람, 일, 사물에 방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민감한 집단인 데다가 정부가 기를 써서 선전하고 세뇌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특히나 증오하고 적대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 섬김 가정과 형제자매는 아주 위험해진다. 형제자매가 이런 환경에서 거주하면 늘 방해받을 뿐 아니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왜 계속 그곳에 살아야겠느냐? 확실히 그곳은 거주하기에 부적절한 위험한 곳이므로 서둘러 옮겨야 한다. 리더 일꾼은 형제자매를 배치한 뒤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바람과 햇볕을 피할 수만 있으면 되지. 본분을 이행할 수만 있으면 문제없어. 적절한 곳이 그렇게 많을 리 없잖아?'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다! 만약 그때 적절한 곳이 없다면 일단 잠시 거기서 살다가 서둘러 적절한 곳을 찾아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곳을 오래 머물 거주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리더 일꾼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중요한 사역 인원을 한 곳에 배치한 뒤 식사나 휴식은 잘하고 있는지, 이방인이 미행하지는 않는지 묻고는 요 며칠 동안은 그런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1 년이 넘어도 찾아가 물어보지 않는다. 그는 이미 배치해 놓았으니 책임을 다했고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환경이 방해받지는 않는지, 안전상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합니다.) 왜 부적절하냐? (리더 일꾼은 배치한 뒤에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았다가 만일 위험한 환경이 닥쳤는데 이동하지 못한다면 형제자매는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리더 일꾼은 이렇게 생각한다. '다들 성인인데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나? 위험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나? 그럼 네 머리는 쓸모도 없잖아! 위험을 알아차리면 스스로 이동하면 되지 내가 굳이 말해 줄 필요가 있나?' 그는 이렇게 이치를 따진다. 너희 생각에 이런 이치가 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느냐?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리더 일꾼의 책임이고,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본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것이고, 레이펑(雷鋒)을 본받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이 교회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인사 배치일 뿐 교회 사역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지 않으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르고 충성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거짓 리더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지 않고, 형제자매를 한 곳에 배치하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곳에 배치해 주다니, 얼마나 인정이 넘쳐!' 그는 이것이 교회 사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 일꾼으로서 중요한 사역 인원을 잘 배치하지 못하고 그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교회 사역은 지체되지 않겠느냐? 너는 우선 사람을 잘 배치해야 한다.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 리더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 사람들을 그곳에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으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찾아가 물어보지 않는다. 위험한 환경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가 나중에 상황을 알고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진작에 떠나 버려서 그는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이는 어떤 리더 일꾼이냐? 바로 거짓 리더이다. 특히 외지 출신이라 현지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리더 일꾼이 더욱 자주 찾아가고 점검해야 한다. 배치하고 나서 한 번에 영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사역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자주 방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리더 일꾼 본인이 직접 나서기 불편하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이 사역을 점검해야 한다. 즉, 중요한 사역 인원의 거주 환경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위험이나 이상은 없는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동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다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 당분간은 그곳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상관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가서 그들의 환경과 안전 방면은 어떤지, 음식이나 생활용품은 충분한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리더 일꾼은 중요한 사역 인원의 본직 사역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으며, 그러면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잘 배치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직책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이다. 특히 외지에서 온 형제자매에게는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은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지, 그 기간 동안 본분 이행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자주 살펴보고 물어봐야 하는데, 이를테면 현지의 정부나 주민 센터, 경찰서에 이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등 이런 일을 알아보고 물어봐서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섬김 가정에 본분 이행 인원을 잘 섬기고 잘 보호하는 것에 관한 원칙과 실행 길을 교제하여 섬김 가정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리더 일꾼은 수시로 섬김 가정을 방문하고 섬김 가정의 상황을 알아봐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섬김 가정의 주인이 섬김 본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를 들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대응하거나 처리하지 못한다면 리더 일꾼은 문제 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하나님 집에서 섬김 비용을 부담하고 섬김 가정은 일손만 제공하면 된다. 섬김 가정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는 큰 문제인데, 리더 일꾼은 이런 측면의 지혜와 몇 가지 실행 원칙을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섬김 가정의 주인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근처에서 지혜로운 형제자매를 찾아 섬김 가정에 협력하게 해서 섬김 가정이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섬김 가정의 주인 본인의 문제라면, 이를테면 비교적 겁이 많아 잡힐까 봐 두려워한다면 진리를 교제해 붙들어 주고 도와주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이 본분을 이행하는 가치와 의미를 교제해 줘야 한다. 객관적인 환경의 문제라면 이 일은 미루거나 무리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가 이미 그곳을 주목하고 있고, 의심스러운 낯선 사람이 자주 근처를 드나드는 데다가 감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동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늦는다. 만약 그 환경이 일시적이고, 단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공무 수행이라면 그래도 어찌어찌 대응은 할 수 있다. 잠시 외출하여 하루이틀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 반면 누군가 이미 주목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영구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모두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할 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세부적인 문제들이다. 이런 사역은 결코 몇 사람을 먹고 잘 수 있는 곳에 안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세부 사항이 있다. 특히 중국처럼 환경이 특히 열악하고 종교 신앙을 심각하게 박해하는 국가에서는 리더 일꾼이 중요한 사역 인원의 거주 환경과 안전 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더욱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엄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여러 측면의 구체적인 사역을 다 제대로 하여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역을 잘 한 것이다. 이는 리더 일꾼이 섬김 가정과 관련하여 해야 하는 사역으로, 여기에는 세부 사항이 상당히 많다.

어떤 리더 일꾼들은 일부 중요한 사역 인원을 적절한 섬김 가정에 배치한 뒤에는 나 몰라라 하고 섬김 가정의 상황을 계속 점검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매일 교회 사역을 하느라 바쁜데 그런 사람들을 방문할 시간이 있겠어요? 게다가 다른 사역도 많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사역하느라 힘들어요!" 그는 늘 객관적인 이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다하려 하지 않는다. 너희가 보기에 그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타당하지 않으냐? (사실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외출하는 김에 방문해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근처의 형제자매가 방문하도록 안배해도 됩니다.)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잘 하려고 한다면 설사 본직 사역이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만약 자신이 직접 할 시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가도록 안배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안배하든 자신이 직접 가든 결국 이는 리더 일꾼의 책임 범위 내의 사역으로, 이 사역을 잘 하는 것은 리더 일꾼의 중요한 직책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리더 일꾼 자신은 너무 바빠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도록 안배하지도 않는다면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사고가 발생한다면 리더 일꾼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측면의 문제를 다 고려하여 최대한 그들이 조용하게 본분을 이행하고 질서 있게 자신의 수중에 있는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요한 사역 인원을 잘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을 잘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사역 인원이 정상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중요한 사역도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리더 일꾼이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는 목적은 사실 각각의 중요한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리더 일꾼이 "당신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니 저더러 당신을 보호하라고 하는데, 리더 일꾼인 저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보호하겠어요?"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 일꾼의 이해 능력은 어떠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치우쳐 있습니다.) 이는 치우친 사람이다. 치우친 사람은 비이성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약 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네가 보호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그들이 잡혀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거나 혹은 다치거나 불구가 된다면 교회 사역이 심각하게 영향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역 인원을 잘 보호해야만 교회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박해당하지 않는 민주 국가라면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간단하다. 적절한 집을 찾아 현지의 법률과 규정대로 본분 이행 인원을 잘 배치하면 기본적으로 충분하다. 그다음에는 최근 생활 상황은 어떻고 거주 환경이 정부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정도면 된다. 만약 위반했다면 그게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고 해결해야 하는지 똑똑히 파악해야 한다. 위반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트집을 잡거나 악인과 신원 미상의 인물이 소란을 피운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기껏해야 이런 사역을 할 뿐이지만 종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섬김 가정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이 반드시 더 엄격해야 한다. 안전 측면에서 해야 하는 사역도 더 많고 구체적이다. 물론 더 어렵기도 하다.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사역과 관련하여, 환경에 관한 여러 측면의 문제를 면밀히 고려한다면 환경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외부 환경이든, 내부 환경이든 다 면밀히 고려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일부 환경을 개선하고 방해를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하다.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1. 신앙을 박해하는 국가에서 하나님 선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리더 일꾼의 직책 제 15 조는 우선 중요한 사역 인원을 보호하여 그들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반드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하다. 먼저 어떤 측면들이 안전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자.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먼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야만 최종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은 바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교란당하거나 체포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나 간단하다.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방해받거나 체포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리더 일꾼이 어떤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우선 중요한 사역 인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적절한 곳이란 어디를 가리키느냐?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떤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아야 한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김 본분을 이행한다는 것을 오직 현지의 형제자매 몇 명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 한다. 이런 곳이야말로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섬기기에 적절하다. 이런 중요한 사역 인원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뒤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 본적 등 개인 정보와 그들이 어느 방면의 교회 사역을 하는지, 체포된 적이 있는지, 정부에 의해 지명 수배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부로 남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 사람은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잡혀 수감되면 굳게 설 수 있을지 단정 짓기 어렵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캐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후환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원칙과 지혜에 대해 늘 교제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단지 하나님 집 사역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개인 정보를 다른 형제자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잘하라고 섬김 가정의 형제자매에게 당부해야 한다.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섬김 가정의 형제자매는 입단속을 잘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리더 일꾼 몇 명의 개인 상황과 가정 상황, 나아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와 같은 일들을 모두 파악하고 나면 뒤이어 자신의 자녀에게 말한다. "저 사람은 너와 동갑인데 하나님을 믿은 지는 벌써 10 년이나 됐어.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 일도 그만뒀지. 예전에 어떤 시의 정부 부처에서 일할 때는 연봉이 몇 만 위안이나 됐다더라!" 보아라, 그는 마치 잡담하듯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상황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에게 누설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전에 체포되어 수감된 적이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감옥살이를 몇 년 했는데도 유다가 되지 않았고 출소한 뒤에도 여전히 본분을 이행하고 있어. 지금 정부에서 또 체포하려고 해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지만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나 믿음이 대단한데 너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그는 자녀를 꾸짖으면서 형제자매의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발설한다. 이러면 후환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일단 큰 붉은 용이 체포하려고 하면 그의 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 신고한다. "신고합니다! 아무개가 우두머리예요. 그를 잡으면 됩니다." 팔아넘겨진 그 사람은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된 뒤 반죽음되도록 두드려 맞아 앞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진다. 이게 바로 팔아넘긴 결과이다. 이는 섬김 가정의 주인이 함부로 말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 아니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역 인원이 이런 안전상의 위험에 직면한다면 이는 리더 일꾼이 제대로 사역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섬김 가정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 가족은 다 좋은 사람들이니 팔아넘길 일은 없어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지지한다고요. 여러분이 왔을 때 채소와 고기도 사다 줬는걸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형제자매로 대한다. 자신의 가족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들이 팔아넘기는 순간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꿰뚫어 보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형제자매의 상황도 자꾸 캐묻는다. "이 본분을 이행한 지 몇 년 됐죠? 위험한 본분을 이행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지에 알려지지는 않았나요? 체포된 적은 없나요?" 특히 하나님을 믿다가 지명 수배되거나 공안국에 기록이 있는 일부 인원이 외지나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섬김 가정의 사람은 늘 그의 정보를 캐묻는다. "지명 수배된 거예요? 현지나 성에서 지명 수배됐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명 수배됐나요?" "공안국에 기록이 있네요. 몇 번 체포된 거죠?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이런 일들에 대해 유독 세세하게 묻는다. 그의 집에서 사는 형제자매는 그가 상당히 열성적으로 섬기고 사람도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말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아 곤란해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하고 나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섬김 가정에 직접 당부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섬길 때는 지켜야 할 규정이 몇 가지 있어요. 함부로 캐묻거나 이것저것 묻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너무 많이 알아도 당신에게 좋을 게 없어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혹형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유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해하고 파악한 상황이 당신이 유다가 되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당신은 유다가 되는 순간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결국 징벌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 상황들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유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런 일들을 캐묻고 파악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을 모르는 것이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도 섬김 본분을 이행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얻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모르는 게 가장 좋아요. 형제자매들은 본분을 이행하러 온 거예요. 당신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나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 테니 캐물을 필요 없어요. 섬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는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사역이다. 그 밖에, 현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 기반이 없고 이름만 걸어 놓고 믿는 사람, 입이 가볍고 남의 일을 캐묻기 좋아하는 사람, 정부 인사와 밀접하게 왕래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숨어 겁쟁이처럼 굴거나 심지어 교회를 팔아넘기고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섬김 가정이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을 알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사역 인원을 섬기는 사역에 협조해 줄 일부 형제자매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 기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협력하게 해야 한다. 기반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해야겠느냐? 섬김 가정의 형제자매는 집 안에서 섬기고, 현지의 지혜롭고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는 밖에서 환경을 엄호하고 지키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일부 세력을 갖춘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수시로 정부의 정책과 동향, 정부가 저지를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본 다음 섬김 가정의 형제자매에게 제때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체포 행동을 개시할 때 제때 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피하고 이동하든, 숨든 다 여유가 있으니 위험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어쨌든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을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생기는 순간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이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몇 가지 더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좀 부담하는 본분을 이행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책을 운송하거나 위험에 처한 곳에 가서 사역 지침을 전달하거나 혹은 뒷수습 사역을 하기도 한다. 이런 위험한 사역을 하는 사람은 결코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느 가정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지 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역을 하면 언제든 미행당하고 체포될 수 있으며, 체포된 뒤에는 혹형을 받아 교회를 팔아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섬김 가정이 연루된다. 이는 안전 문제와 관련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일부 인원이 외지에 가서 일을 처리할 때, 3 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3 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위험한 것 아니냐?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은 대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대피해야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조금의 위험도 무릅써서는 안 되고, 어떤 요행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귀찮아서 대피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어쩌면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서 지체됐을 수도 있죠." 하루 더 기다리면 더 위험해진다. 대피했다가 아무 일 없으면 다시 돌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대피하지 않고 하루 더 기다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후회해도 늦는다. 그러니 외지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형제자매가 약속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만일에 대비해 관련된 형제자매는 서둘러 대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적절한 곳을 찾았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해도 늦지 않다. 그 외에, 현지 교회에서 배치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큰 붉은 용에게 체포되는 상황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런 중요한 사역 인원을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이동시키는 것이다. 우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조금의 위험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이동시킨 다음 다시 후속 사역을 해야 한다. 일부 머저리들은 늘 이런 요행심을 품는다. "아무개는 체포되어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는 믿음이 상당히 크고 예전에 위험한 환경이 닥쳤을 때도 유독 강인했어요. 그는 결코 우리를 팔아넘길 리 없다고요. 그러니 감히 장담컨대 결코 위험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동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설사 팔아넘기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만 선택적으로 팔아넘길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은 타당하지 않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설사 그가 분량이 있더라도 우리는 너무 확신하며 말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면 또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느냐?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할 때 리더 일꾼은 본분 이행의 진리 원칙을 명확히 교제해야 한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원칙과 지혜를 활용해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외지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사회에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한두 명 찾아 그들과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실행하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고, 외지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사역을 잘 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리더 일꾼으로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교회 사역을 잘 하려면 우선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외지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항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이야말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고, 안전 사역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 인성이 성숙하지 않고 식견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해지기 쉽지 않다.

2. 해외 각국 하나님 선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 신분 등록

해외 각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우선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잘 배치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선민이 어느 국가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하는 신분 관련 문제이다. 만약 하나님 선민이 신분이 없거나 신분이 불법적이라면 거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든 송환될 위험이 있다. 신분이 불법적인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데, 불법 체류자는 안전상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면 본분도 길게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해외에 잘 배치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사역이고, 그들을 배치한 뒤에는 그들이 신분을 등록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 있든 신분을 등록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형제자매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우선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인원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리더 일꾼은 그 규정을 근거로 형제자매를 최대한 잘 배치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배치 사역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사역을 점검해도 되고,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윗선 리더 일꾼에게 제때 답을 구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없으면 이전의 교회 규정대로 실행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수시로 알아봐야 하고, 누가 신분에 관한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 외부 일을 처리하는 인원을 안배해 하나님 선민의 신분 등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우선은 그 일을 처리할 신분 등록 전문 변호사를 몇 명 찾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찾아 일을 처리할 때도 속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가짜 변호사나 신분 등록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를 찾아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은 신분 등록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반드시 잘 안배해야 한다. 이 사역은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 일꾼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이니 오직 상부에서 직접 안배해야만 할 수 있어요. 상부에서 안배하지 않으면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저희와는 무관해요. 게다가 국가별로 이민과 신분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에 관여할 수 있겠어요! 다들 스스로 살길을 도모해야죠. 머물 수 있으면 머물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돌아가야죠." 이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어떠냐? (무책임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리더 일꾼으로서 해외의 중요한 사역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한 뒤에는 외부 일을 처리하는 인원이 그들을 이끌고 신분을 등록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특히 등록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리더 일꾼은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방법을 생각하고 길을 찾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신분을 등록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므로 최대한 일찍 빠르게 처리하고 해결해야지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오늘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내일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상상도 못 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리더 일꾼의 부주의나 책임 방기로 서둘러 처리하지 않아 신분을 등록할 최적의 시기를 놓쳐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교회 리더와 등록 책임자에게도 신청해서 리더 일꾼도 알고 있지만 리더 일꾼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처리하지 않아 결국 일부 중요한 사역 인원의 신분 등록이 지연되고, 교회의 일부 중요한 사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리더 일꾼이 집니다.) 하나님 집에서 이 일을 거듭 강조했으니 리더 일꾼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듣지 못했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관련 없는 남의 일은 최대한 미룬다. 결국 하나님 선민의 신분을 등록하는 이토록 큰 일을 그르친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면 리더 일꾼은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특히 하나님 집의 중요한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리더 일꾼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매우 크다. 최소한 하나님이 그 잘못을 기록할 것이다. 이는 한 차례 과오를 범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결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직책 범위 내에 있는 일을 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그 일을 그르친다면 너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도 길이 없다고요." 그럼 너는 진지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윗선 리더 일꾼에게 답을 구했느냐? 어떤 사람은 사역하느라 바빠서 그 일을 잊었다고 한다. 설사 정말 바빠서 그 일을 잊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시 보고하고 일깨워 주었는데도 잊는다면 그건 무슨 문제냐?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고 조금도 부담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고 신뢰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너는 하나님 선민의 신분을 등록하는 이런 큰일마저 잊을 수 있는데 너 자신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잊을 수 있겠느냐? 너 자신의 일은 잊지 않으면서 남의 일은 잊는다면 이는 네가 인품이 좋지 않고 사랑이 없으며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증거이다. 너는 자신의 신분은 등록했으면서 형제자매가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대하고, 심지어 결코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 결국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큰일을 그르쳤다.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리더 일꾼은 양심과 이성이 너무도 없는 것 아니냐?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이냐? 이런 자는 거짓 리더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이 문제의 본질이 철저히 폭로되었다. 그는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에 결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귀찮아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형제자매의 신분 등록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이런 태도로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을 대하여 결국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큰일을 지연시키고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과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 그는 징벌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마땅히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일부러 그런 것이지 결코 일부 객관적인 요소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그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여 교통과 정보가 다 끊겨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면 그나마 이해할 만하지만,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을 잊거나 소홀히 하여 신분을 등록하는 큰일을 그르친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므로 잘못이 기록되어야 하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네가 리더 일꾼이라면 너는 해야 할 사역을 할 책임이 있다. 책임지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잘 처리하고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미룬다면 그건 책임 방기이고, 그 책임 방기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결국 과오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네 잘못을 기록할 것이고, 너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하나님 선민은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웃과 낯선 사람에게 고발당하고 신고당하면 송환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정부가 죄명을 날조하여 감금되어 처벌받거나 체포당해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어떻든 리더 일꾼은 상황을 알고 난 뒤에는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가장 먼저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은 바로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장하여 그들이 악인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의 사역을 안배하는 데만 신경 쓰고 형제자매의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신경 쓰지 않아서 결국 형제자매가 신분이 없어 체포되거나 송환된다면 이는 어떤 결과이냐? 이는 형제자매의 본분 이행 기회를 망치는 것 아니냐? 이는 교회 사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 문제의 성질은 상당히 심각하다. 리더 일꾼이 이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면 형제자매 중 외부 일 처리에 능한 사람을 찾아 변호사에게 자문해 이 일을 처리하게 하여 형제자매와 중요한 사역 인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역시 리더 일꾼이 해외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현지 리더 일꾼은 주동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현지 형제자매의 안전을 잘 보호하는 것 외에 외국 국적 형제자매의 안전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 사역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각국 리더 일꾼이 현지의 형제자매와 외국 국적의 중요한 사역 인원에 대해 마땅히 다해야 하는 책임이니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리더 일꾼은 말한다. "그들은 외국 국적 형제자매이고 저희와 친숙하지도 않아요. 저희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왕래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집에서 보냈기 때문인데,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이곳에 오기 전에 상황을 명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개입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알아요." 그는 각종 핑계를 적당히 둘러대며 이 일을 회피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으냐? (리더 일꾼이 이런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형제자매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분명 골치 아파질 것입니다. 리더 일꾼이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리더 일꾼의 직책은 바로 하나님 집에서 리더 일꾼이 다해야 하는 여러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범위는 본 지역이나 본 구역, 본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는 국경도 없고 지역의 제한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구원할 때 인종의 제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국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바로 진리이다! 어느 국가의 형제자매이든 모두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한 분의 하나님이 교제하고 공급하는 진리를 먹고 마신다. 한 분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체험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피부색과 인종이 어떻든 하나님 집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이고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니 서로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인종이나 지역의 제한도 없어야 하고, 너는 아시아인이고 나는 유럽인이라는 둥, 너는 백인이고 나는 유색 인종이라는 둥 하며 구분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 집을 하나님 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집의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가 송환되거나 불법으로 체포되는 등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 국적과 피부색이 어떻든 그는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이니 그들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현지의 리더 일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해야지 서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원칙에 부합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는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진리이기도 하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하나님 선민이 해외 각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각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신분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만 안심하고 사역할 수 있다. 신분을 등록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회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 각국 교회의 책임자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국가 법률을 아는 형제자매들을 찾아 중국의 하나님 선민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니 각국 교회의 리더 일꾼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협력해야 한다. 신분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 각국 교회의 책임자는 이 방면의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을 예비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기도 하다. 아마 일부 리더 일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도 이런 일은 처리해 본 적 없어요.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측면의 사무를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각국 하나님 선민 중에는 일부 소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나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면 조금만 자문해도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굴어서는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 답을 구해야 한다. 관련된 변호사만 찾으면 자연스레 길이 생긴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변호사는 안다. 답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는 옳다.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만약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교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길을 찾은 다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리더 일꾼이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 파악하고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책임감 있는 리더 일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리더 일꾼은 책임감이 있을 뿐 아니라 문제도 제때 해결할 수 있으니 기준에 맞는 리더 일꾼이 될 희망이 있다. 진리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든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수 있다면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실수를 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설사 실수를 좀 하더라도 제때 바로잡고 일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니 결국 하나님 집의 사역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게 어렵겠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역할 때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은 신경만 좀 쓰고 시간과 에너지만 좀 들이면 되지, 돈을 대거나 어떤 위험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좀 돕고 일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기준에 맞는 것이니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리더 일꾼에게는 하기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더 일꾼에게는 중요한 사역 인원의 신분과 거취와 관련된, 그들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역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배치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느 국가나 어떤 인종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그 사역은 하나님이 네게 맡긴 책임과 의무이자 사명이다. 네가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지 어떤 사람이 네게 맡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네가 배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지의 형제자매를 보호하는 건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오는 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감과 인성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현지의 형제자매만 형제자매로 여기고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느냐? (거짓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외국 국적의 형제자매를 나 몰라라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 나서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 리더는 온갖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로 교회 사역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숨어 버린다. 이게 바로 무책임한 것이다. 리더 일꾼은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제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을 일종의 책임과 임무로 여겨 완성해야지 회피해서는 안 되고, 이 사역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 집의 여러 사역의 진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법률 상식 보급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역으로 너희는 또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느냐? (해외에서는 형제자매에게 법률 상식을 일부 보급하여 그들이 법률 의식을 갖추고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 일꾼은 형제자매에게 법률 상식과 정부의 각 분야에 관한 규정을 보급해 주어야 하고, 각국 현지의 형제자매를 통해 그 방면의 지식을 많이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 정책, 생활 관련 정책 등을 모두 파악한 다음 형제자매들을 조직하여 학습하게 하고, 국가 정부의 규정을 엄수하게 함으로써 법률에 위배되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하나님 선민들은 오랜 세월 독재 통치하에 있다 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서 마치 교육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일을 처리한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생활할 때 몹시 무지해 보이고, 규칙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서양의 일부 민주 국가는 사회 치안을 특히 잘 관리하여 밤

10 시부터 아침 8 시 사이에는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 짖는 소리나 건설 현장의 기계음 모두 허용되지 않고, 만약 누가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당하면 경찰이 처리한다. 반면 중국 본토에는 이런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무렇게나 소란을 피운다. 음악을 틀거나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고 즐기며 큰 소음을 일으켜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누가 관여하면 보복당하기 때문에 중국인은 참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서방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 너의 집 개가 한밤중에 계속 짖어서 이웃의 휴식을 방해한다면 이웃은 너를 신고할 것이다.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 이웃이 법률을 무기 삼아 너를 신고하는 것도 정당하다. 또 어떤 사람은 밤 11 시, 12 시가 되어도 건설 공사를 멈추지 않아 결국 이웃의 휴식을 방해하고 신고를 당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벌금을 물리고 규정된 시간 동안에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 밖에 환경 위생에 관한 의식조차 없어서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며 길거리 전체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서양의 민주 국가에서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차는 정해진 날에 와서 수거해 간다. 수거해 간 뒤에는 늘 거리가 깨끗하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공 환경의 위생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끼쳐 신고당한다. 중국인은 규칙을 몰라서 해외에서 생활할 때 자주 신고를 당하는데, 신고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서양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는 이렇게 말한다. "서양인은 신고하는 걸 좋아해서 걸핏하면 신고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많은 일에서 너를 신고했는데 너는 자신을 반성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신고했다고 원망만 하는구나. 그들이 신고한 게 잘못됐느냐? 네가 한 행동이 옳으냐?" 그들의 신고는 잘못되지 않았다. 네가 그들의 이익을 해치고 생활에 지장을 주었는데 그들이 왜 너를 신고하면 안 되느냐? 이는 사회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그 국가가 법률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고, 법률은 그 국가에서 장식품이 아니고 누구나 법률을 무기 삼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너를 신고한 것은 네가 법을 모르고 현지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는 우선 현지의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이 그래도 너를 신고하겠느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인은 왜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신고하지 않느냐? (정부에게 억압당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감히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인은 권익 보호 의식도 없습니다.)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중국의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해서 네가 신고해도 소용없다.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만약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네게 세력이 없다면 너는 결코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신고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은 박해받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특히 누가 살해당했을 때 아무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가해자가 돈을 써서 사적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 고소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돈도 많이 들이지만 결국 공정한 판결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지도 못하니 고소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중국의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중국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다. 시비를 가릴 곳도

없고 고소해도 소용없으니 중국인은 어떤 위법한 일을 맞닥뜨려도 감히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나쁜 짓만 저지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며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공산당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 심지어 도둑질, 강도, 절도와 같은 일들도 공산당에게는 결코 아무 일도 아니다. 서양 국가에서는 다르다. 서양은 민주 제도를 실시하고 법치 사회이기 때문에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면 신고당하고 경찰이 와서 심문하여 처리한다. 서양인은 이런 법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오직 규칙을 모르는 외지인만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중국인은 해외에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늘 신고당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현지의 법률과 규정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위법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감히 하지 못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형제자매를 조직하여 소재국의 각 분야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설사 자기 집 마당에서 닭과 돼지를 기르더라도 먼저 정부의 규정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현지의 형제자매에게 자문하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양 각국에서는 정부가 각 분야의 일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건축 분야에서는 전원 콘센트와 지면의 간격과 각 콘센트 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단의 손잡이 굵기와 계단 난간 너비에 관해서도 다 구체적인 규격이 있다. 건축의 모든 단계에서 정부 인사가 검사하러 오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는 현상이 적다. 주민이 마당에 건물이나 공구실, 작은 창고를 짓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고, 닭이나 오리를 기르려면 사육할 우리가 이웃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도 다 규정이 있다. 리더 일꾼이 이런 법률과 규정을 모르더라도 만약 교회 사역이 이런 일과 관련된다면 리더 일꾼은 반드시 그 일을 중시해야 하고, 우선 현지의 법률과 정부 규정을 자문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이행에 도움이 된다. 법률 관련 일은 비록 교회 내부의 사역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지만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최소한 사람들이 식견을 좀 기르고 규칙을 좀 알게 되며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 밖에 리더 일꾼은 외부 업무를 책임지는 관계자에게 교제하여 그들이 법률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사소한 일은 변호사에게 자문할 필요 없이 현지 규정을 파악해 그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큰일은 변호사에게 자문해 현지의 법률을 파악해야 한다. 요컨대 어떤 일을 하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동안 이렇게 실행하면 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고, 일을 처리할 때 규칙을 알게 된다. 그러면 교회 사역에도 도움이 된다.

3)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할 때 해야 할 사역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외지에 나가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반드시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을 외지로 보내 본분을 이행하게 할 때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느냐? 우선 나이와 성별, 식견과 경력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며,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복음 사역자를 낯선 곳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적합하겠느냐? (어느 정도 식견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 교회에 적합한 사람이 별로 없고 대다수가 경력이나 식견이 별로 없는 젊은이라면, 그래서 일이 닥쳤을 때, 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고 원칙 없이 말하는 데다가 지혜도 부족하다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보낸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역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역을 지체시키기 쉽다. 따라서 사람을 외지로 보내 본분을 이행하게 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만약 적합한 사람이 별로 없다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나가 본분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물대여섯 살인 젊은 자매가 하나님을 믿은 지도 꽤 되고 믿음과 분량도 있으며 본분을 이행한 시간도 상당히 길지만 낯선 곳에 가서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사회 경험이 있는 현지의 형제자매를 찾아 협력해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익숙한 지역이나 이미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젊은 형제자매가 가도 된다. 그러나 낯선 곳, 특히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역을 한다면 신변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외부로 보내 사역하게 하든 리더 일꾼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안전이다. 만약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어떤 부류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선 넘는 일을 벌이지 않을지 알 수 없다면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예전에 일부 리더 일꾼이 걸핏하면 나이가 열여덟, 열아홉, 스무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자매를 낯선 곳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다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일이 발생했든 결국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너무 어린 자매나 형제가 낯설고 위험한 곳에 가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아무렇게나 안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리더가 나이가 열여덟, 열아홉인 자매 둘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안배하자 누군가가 그 둘은 나이가 너무 어려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리더는 이번에는 스물한 살인 자매를 찾아 보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열아홉 살이 어리다고 했으니 스물한 살을 보내면 되겠네. 스물한 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잖아?' 이 리더는 자질이 어떠냐? 치우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스물한 살은 열아홉 살보다 겨우 두 살 많은데 경력이 있겠느냐? 사회 경험이 있겠느냐? 어려움이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두 살 많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어린 나이라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최소한 나이가 서른이나 마흔, 쉰이나 예순인 형제자매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도 있어서 일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알기에 무슨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많고 경력도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다가 위험이 닥쳐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 사회와 인류의 사악함을 어느 정도 겪어 보았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얼마나 위험할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사회 경력과 경험을 근거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도 지혜롭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일이 닥쳐도 어떤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좀 더 꼼꼼히 고려한다.

리더 일꾼은 외부에 가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사람을 안배할 때 현지의 조건에 맞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어느 정도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협력해 본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일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서 교회 사역을 하든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리더 일꾼이 중시해야 하는 한 가지 사역이다. 누구를 보내 어떤 사역을 시키든 그는 반드시 어느 정도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능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리더 일꾼은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삼아야지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테니 죽지 않을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말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다고 하느냐? (그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관점은 너무 막연합니다.) 사람은 다할 수 있는 책임은 최대한 다해야 하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형제자매의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 줄 수 있지만, 네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드러낼 것이다. 누가 너더러 미련하기 이를 데 없이 어리석은 짓만 저지르라고 하더냐! 그러니 리더 일꾼은 이런 말을 핑계로 대며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네 책임이니 너는 마땅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람이 고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사람이 고려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의 일이지 너와는 무관하다.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어떤 책임이든 다 하나님에게 미루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뭐든 자유롭고 그야말로 해방이죠. 우리는 그런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런 말이 옳겠느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대로라면 사람은 일이 닥쳐도 원칙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이 수년 동안 입이 닳도록 거듭 충고하며 수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선민이 이 사악한 세상과 사악한 인류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글귀와 도리에 기대어 원칙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리더 일꾼이 복음 전도 사역을 잘하려면 우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여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느 곳이 특히나 혼란스럽고 지인도 없는 곳이라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당분간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위험을 무릅써서는 안 되고, 의미 없는 희생을 해서도 안 된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 너는 험한 세상에 뛰어들 필요도, 목숨을 내걸 필요도 없다. 네 안전과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환경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때문에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본분도

이행해야 한다. 본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느 사역도 멈춰서는 안 된다. 해외 각국의 상황은 다 다르다. 중국과 비슷한 독재 국가도 있고 민주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민주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복음 전도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각각의 사역도 더 원활히 이루어진다. 반면 독재와 비슷한 성질을 띠는 국가의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후진적이어서 참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작정 정죄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지 말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사역을 펼치면 된다. 리더 일꾼은 이런 것들을 다 깊이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혹은 인도 같은 국가는 종교적 배경이 매우 복잡한데, 이런 국가에서는 특정한 종파의 세력이 몹시 커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도 종교 세력을 추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에는 별도로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해서는 안 되고, 현지의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일부 국가는 주(洲)나 성(省)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현지의 법률이나 규정도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종교적 배경이 다소 특수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정교일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현지의 정부 관리보다 권력이 더 커서 공개적으로 국가의 일부 정책을 위배할 수도 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전상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위험은 단지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내쫓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너를 체포해 제멋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심지어 너에게 고문을 가하고 때려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사실 대다수 종파의 지도자는 모두 외래 종교를 증오하는데, 그들은 세력이 너무 커서 결코 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를 어떻게 해치든 누구도 감히 그들을 벌할 수 없다. 현지 정부의 관리조차도 그들에게 미움을 사려 하지 않는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자기 마음대로 너를 처리한다. 따라서 리더 일꾼은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우선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 즉,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 종교 세력이 큰지, 복음을 전하다 신고당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와 같은 일들을 모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사람을 보내야 할지 말지 확신할 수 있다. 만약 파악한 결과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역시 복음 사역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한 측면의 사역이다. 일부 리더 일꾼은 치우치게 이해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열심히 해 봐야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말한다. "그곳에는 민간 교도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갇힐 뿐 아니라 자칫하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거짓 리더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한다. '큰 붉은 용의 그 많은 감옥도 겁내지 않았는데 그런 민간 교도소 하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 감옥은 우리의 몸을 가둘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두지 못해! 두렵지 않아. 그냥 가!' 사람들을 한 무리씩 보내지만 결국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붙잡히자 거짓 리더도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는 무슨 문제이냐? (그 거짓 리더는 얼간이입니다.) 머저리에다가 무책임한 그 거짓 리더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 자신은 왜 가지 않느냐? 위험이 두렵지 않다고 하니 그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 만약

그가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도 된다.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는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합하고 위험한 지역이라면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는 안 된다. 중국 본토를 벗어나면 어느 곳이든 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착각이고 치우친 인식이다. 무지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세상을 너무도 모른다! 서양의 대다수 국가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비교적 많으니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각종 발언을 하며 종교계가 얼마나 어둡고 사악한지 폭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주하는 것은 모두 패괴된 인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리더 일꾼은 복음 사역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여러 방면의 문제를 모두 면밀히 고려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제때 처리해야 하며, 처리한 뒤에는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고 실행의 원칙과 길을 찾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확정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다. 이전에는 고려해 본 적 없거나 겪어 본 적 없는 일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 정리해야 한다. '저런 곳에 과연 가야 할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방식이 옳을까? 다음에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 배치와 전략,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역의 방식과 원칙을 점차 확정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제대로 진행될 것이고, 문제가 덜 발생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역 인원이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성과를 이루려면 리더 일꾼이 경험을 많이 정리해야 하고,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환경과 여러 상황을 많이 파악해야 한다. 얻는 정보가 많고 정확할수록 처리하는 원칙과 방안도 더 정확해져서 최종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성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복음 전도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안전에 관한 사역을 중시하지 않는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일부 리더 일꾼은 자질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귀찮아한다. 그가 책임지는 지역에서는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들이 걸핏하면 안전상의 위험에 직면하여 이사 가거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때도 안심하지 못한다. 심지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가 찾은 섬김 집의 지대가 낮아서 현지에 폭우가 내려 홍수가 발생하면 집이 침수될까 봐 미리 이사 가야 한다. 사역 장비며 주방 도구며 이틀 연속으로 옮기는 바람에 다들 힘이 들어 기진맥진해지고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사를 다니느라 늘 '유격전'을 벌이는 이런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요? 안전하고 믿을 만한 집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는 없을까요?" 리더 일꾼이 이 정도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그를 따르는 형제자매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다. 거주 환경이 늘 임시적이어서 언제든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생활용품은 쓰고 나면 서둘러 가방 안에 다시 넣어 둔다. 언제 위험한 환경이 닥쳐 호구 조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수시로 옮겨다녀야 한다. 그래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늘 안절부절못하고 안전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본분

이행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는 리더 일꾼이 하는 사역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는 사역을 어떻게 한 것이냐?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리더 일꾼은 무책임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본인이 거주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비바람을 피할 곳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안전하고 믿을 만한 거주지를 찾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다. 일부 리더 일꾼은 자질이 부족해서 어떤 환경이 조용하여 사람이 거주하고 형제자매가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한지 알지 못하고, 지대가 낮아서 아무도 세 들지 않는 셋집을 얻는다. 결국 형제자매는 입주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몸에 습진이 생기고 온몸이 가려워진다.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집 안이 너무 습해서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온 것이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리더 일꾼이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집도 하나 못 찾으니 이는 어떤 자질이냐? 또 어떤 리더 일꾼이 얻은 셋집은 늘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며 혹은 방음이 안 되거나 인터넷과 수도, 전기가 없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좋은 집은 놔두고 하필이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셋집을 얻었으니 이는 일을 그르친 것 아니냐? 비록 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 기본적인 시설도 많이 없어서 차라리 텐트에서 사는 게 나을 정도다. 대다수 형제자매가 고생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 정도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견딜 수는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 본분 이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따라서 리더 일꾼이 자질이 부족한 데다가 책임감도 없다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사직한 뒤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사역을 담당하게 해야지, 중요한 사역 인원 대다수의 생활과 본분 이행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사역을 할 때 모든 면을 빈틈없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 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이 보장되어야 교회 사역이 영향받지 않는다. 이 사역은 하기 쉽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하기 쉽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리더 일꾼이 자질이 부족한 머저리에다가 책임감도 별로 없다면 할 수 없다.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못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다. 온종일 기근으로 인해 피난 가듯 하면 어떻게 본분을 이행하겠느냐? 어떤 거짓 리더는 진리 원칙도 깨닫지 못했으면서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역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자리에 눌러앉은 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리더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교체해야 합니다.) 그를 교체하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를 교체한 뒤 너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사역 인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세 명이나 다섯 명이 협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도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 환경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잠시 더 애를 먹고 고생을 겪어야 한다. 그러고도 계속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고생을 견디려는 너희의 굳건한 의지를 보고 너희에게 믿음직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사역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고생스러운 날은 끝날 것이고,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다. 만약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면 너희는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는 고생할 운명이니 그런 고생을 견뎌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고생을 견뎌야 한다. 사실 이 정도 고생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감옥살이를 하며 혹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적어도 고문에 시달리지는 않고 심문하는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다. 형제자매들은 함께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다. 조금 놀라고 겁먹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좀 겪으며 자주 이사해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생에서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다. 공과를 좀 배우고 수확을 좀 얻는다면 꽤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을 견디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고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면 속으로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도 된다. '하나님, 고생하는 저희를 좀 봐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않아요! 저희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봐서라도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끝내게 해 주세요! 저희에게 적절한 곳을 찾아 줄 합당한 리더 일꾼을 보내 주세요! 저희는 온종일 풍찬노숙하며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정처 없이 헤매고 싶지 않아요. 저희에게 안정된 거처를 찾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환경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고생을 겪는 일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쁜 일도 아니다. 고생을 좀 겪으면 네 의지를 단련할 수 있다. 의지를 단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늘 고생을 겪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무엇이 고생인지 모르게 되며 아무리 고생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닥쳤을 때 공과를 좀 배우고 식견을 좀 키우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리더 일꾼이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배치 사역도 제대로 못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선민에게 공급하고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집은 셋집을 얻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가 온종일 정처 없이 떠도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사람이 늘 고생하며 매일 힘들게 사는 것도 권장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 겪는 어떤 고생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더 일꾼이 배치 사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좀 할 때도 그렇게 애를 먹는다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모도 그럴듯하고 학력도 높고 사회적 신분도 있지만 이 정도 일을 처리하는 것조차 이토록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고생이다.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는 것이 옳다. 어쩌면 언젠가 고생 끝에 낙이 와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든 사람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리더 일꾼이 믿음직스럽지 않고 사역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진심과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너의 순종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일에서 너는 굳게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 일꾼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가 자질이 부족해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거짓 리더라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지 하나님 집과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 집에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무책임함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다. 그는 하나님 집에서 맡긴 사역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교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선민이 덩달아 고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에 맡겨야 한다. 설사 리더 일꾼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어떤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영원한 진리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공과를 배워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영향받아서는 안 되고 각종 환경에 적응하는 법과 각종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 진입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분량이 작아서 고생스러운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걱정하고 속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는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다!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드러나고 도태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왜 너는 그가 부적절하게 안배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이는 대역무도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을 분별하고 내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과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진리는 틀릴 리 없고, 하나님은 틀릴 리 없다. 하나님의 본뜻은 사람이 그런 고생을 겪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패괴된 인류는 고생을 좀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생을 좀 겪는 게 너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 도움은 바로 공과를 배우고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고생을 견딜 줄 알면 어느 정도 인내력이 생기고 다양한 환경에서 굳게 설 수 있다. 고생을 견딜 줄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네 의지를 단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고 하나님이 네게서 보고자 하는 성과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을 맞닥뜨리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육체가 얼마나 고생하든 진리를 실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추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분량이 있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는 인원의 안전을 잘 보호하고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역에는 세세한 내용이 아주 많다. 리더 일꾼은 한편으로는 이런 세세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파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특수한 환경이 닥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원칙을 찾고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각각의 중요한 사역 인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복음 전도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게 바로 리더 일꾼이 이 사역을 하는 목표와 원칙이다. 만약 이 목표와 원칙이 정확하다면 리더 일꾼은 이 사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준에 맞는 것이다. 이 사역에 관한 문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는 예전에 리더 일꾼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접해 본 적도 없고요. 이 사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는 하지 않아도 되죠. 안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당신들의 안전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자리만 차지한 채 아무 일도 안 해서야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런 리더 일꾼은 파면해야 한다. 네가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외모가 뛰어나니 장식품으로 쓰겠느냐? 이런 리더 일꾼은 해임하고 도태시켜야지, 사역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는 양심과 이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겠느냐?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모두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진리를 구할 줄 안다면 제대로 사역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책임감이 있다면 제대로 사역할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리더 사역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사역하는 것은 쉽다. 그 밖에, 리더 일꾼은 모두 파트너가 있다. 두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만 하면 어떤 사역이든 쉽게 할 수 있다. 지금 수많은 리더 일꾼이 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들 어떤 일이든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 이제 적어도 일부 리더 일꾼은 리더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완전히 복음 확장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또 보자!

2024 년 7 월 20 일

복음 사이트 방문

App 다운로드

복음 사이트

https://kr.kingdomsalvation.org

YouTube: https://l.kingdomsalvation.org/kr/video

Facebook: https://l.kingdomsalvation.org/kr/facebook

E-mail: contact.kr@kingdomsalvation.org
